1.황실에서 온 수상한 초대장.docx

“내가 네 아빠다.”

“…네?”

“넌 내 친딸이다. 레아 더 다닐로만.”

저기, 황제 폐하.

정말 죄송하지만 제 이름은 레아 휘틀리입니다. 저희 엄마도 다닐로만이 아닌 휘틀리라는 성을 쓰셨다고요!

하지만 레아가 속으로 그런 절규를 하든 말든 레그마인 더 다닐로만 황제는 아주 만족스럽다는 듯이 웃는 얼굴로 다정하게 말했다.

“한번 아빠라고 불러보거라. 레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레아는 정말 기절할 것만 같았다.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일까? 내가 황제의 딸이라고?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일인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그러기엔 레그마인 황제와 레아는 머리색부터 눈동자 색은 물론이고 이목구비 하나하나까지 모든 부분이 닮아있었다.

진짜 인정하면 안 될 거 같고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레아는 어쩌면 자신이 정말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다. 아주 조금. 하지만 이건 그렇다고 해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왜 나한테 아무런 말도 안 해준 거예요. 엄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요!’

하지만 속으로 아무리 불러도 작년에 돌아가신 엄마는 아무런 대답도 해줄 수가 없었다.

\*\*\*

모든 것의 시작은 레아에게 온 초대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황실로부터 제일 처음 초대장이 온 날은 평소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평범한 날이었다.

“나탈리 이모. 오늘 예약 많아요?”

“아니. 오늘은 케이크 예약 하나밖에 없어.”

“브로디 아저씨 결혼기념일 케이크 맞죠? 장미 케이크.”

“맞아. 특별히 메시지도 적어달라고 부탁하셨어.”

나탈리 이모와 함께 작은 빵집인 리베르타를 운영 중인 레아의 하루는 그날 예약 주문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이었다.

“벌써 결혼 20년 차인데 여전히 사이가 좋으시네.”

“아저씨가 워낙 가정적이시잖아요. 아줌마도 아저씨한테 잘하시고.”

올해로 결혼 20년 차인 브로디 씨네 부부는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유명한 잉꼬부부였다. 케이크를 구울 준비를 하면서 레아는 사이가 좋은 두 사람을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두 분 다 이제 나이가 있으신데 아직도 연애하는 거 같다니까.”

“나탈리 이모. 부러워요?”

“에휴, 난 마지막으로 남자 손 잡아본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난다.”

벌써 35살인 나탈리 이모는 아직 결혼은커녕 남자친구도 없는 미혼이었다. 게다가 봄이 오고 슬슬 벚꽃이 필 무렵이 되니 이모는 최근 더 외로움을 타는 것 같았다.

“그렇게 외로우면 연애를 해요. 가게에서 일만 하지 말고.”

“됐어. 연애는 나 혼자 하니? 남자가 있어야 하지.”

“남자는 뭐 저절로 다가와요? 내가 노력을 해야 오는 거지.”

“남자친구 한번 못 사귀어본 꼬맹이한테까지 저런 말을 듣다니.”

하지만 레아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기에 나탈리 이모는 더 슬펐다. 레아는 그런 이모를 위로라도 해주듯이 등을 토닥여주었다.

“너 지금 병 주고 약 주니?”

“에이, 나탈리 이모는 꼭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됐어. 난 평생 혼자서 잘 먹고 잘살 거야.”

“이모가 왜 혼자 살아요. 나랑 평생 살아야지.”

“필요 없거든? 너 시집보내고 혼자 편하게 살 거야!”

그렇게 평소와 다름이 하나도 없는 아침을 보내고 있을 그때. 누군가 우렁찬 목소리로 레아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레아! 나 왔다! 안에 있냐!”

얼굴을 보지 않아도 그 목소리의 주인이 브로디 아저씨라는 걸 알 수 있는 레아는 바로 가게 밖으로 나가보았다. 역시나 아침부터 레아를 큰 목소리로 찾던 사람은 브로디 아저씨였다.

“브로디 아저씨!”

“레아! 그동안 잘 지냈냐? 아픈 곳은 없고?”

“하하. 누가 보면 오랜만에 보는 줄 알겠어요.”

“그야 네가 놀러 와 주지 않으니까 그렇지. 에리스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데.”

저번 주에 케이크를 예약 주문하러 왔을 때도 만났는데 브로디 아저씨는 그래도 반가웠는지 레아를 보자마자 번쩍 안아 들었다. 어릴 때부터 레아를 딸처럼 예뻐했던 브로디 아저씨는 종종 이렇게 레아를 번쩍 들어 올리곤 했다.

부부 금실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브로디 씨네 부부였지만 둘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고 그래서 두 사람은 레아를 정말 딸처럼 아끼고 예뻐해 주었다. 특히 우락부락하고 바위처럼 단단한 브로디 아저씨는 레아를 정말 정말 귀여워해 주었다.

“알았어요. 곧 놀러 갈게요. 대신 맛있는 거 해주셔야 해요.”

“그럼, 그럼. 레아가 온다면 소 한 마리 잡아야지!”

우나타에서 가장 큰 목장을 운영 중인 브로디 아저씨는 호탕하게 웃으며 들어 올렸던 레아를 내려주었다. 리베르타에서 쓰는 우유나 달걀은 모두 브로디 아저씨가 운영하는 목장에서 나온 것들이었다.

“예약하신 케이크 다 되려면 좀 더 있어야 해서 기다려주셔야 해요. 방금 막 구운 빵이랑 쿠키라도 좀 드릴까요?”

“아, 아냐. 내가 레아가 보고 싶어서 일찍 온 거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

“그럼 커피 내려드릴게요. 안으로 들어와서 기다리세요.”

지금 나탈리 이모가 케이크 시트에 크림을 바르고 있을 것이니 완성이 될 때까지 레아는 브로디 아저씨에게 안으로 들어올 것을 권했다. 그리고 우편함 안에 있는 편지 한 통도 챙겨서 가게로 들어갔고 편지는 나탈리 이모에게 온 것일 테니 레아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편지 확인 안 해봐도 되겠니?”

“네. 분명 나탈리 이모한테 온 걸 거예요.”

“왜? 너한테 온 걸 수도 있잖니.”

“에이, 전 태어날 때부터 여기서 태어났잖아요. 아는 사람도 다 마을 사람들밖에 없어요.”

“하긴. 아리샤는 가족이나 친척이 없다고 했었지.”

이유는 레아도 잘 모르지만 어째서인지 엄마는 가족은 물론이고 가까운 친인척도 없었다. 그러니 당연히 엄마가 돌아가신 이 시점에서 레아 역시 가족과 친인척이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난 가족처럼 난 사랑해주는 이웃들이 많지.’

진짜 이모처럼 늘 옆에 있어 주는 나탈리 이모와 아낌없는 사랑을 주는 브로디 씨네 부부 외에도 레아는 많은 사람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었기에 외롭거나 슬프지 않았다. 그건 아마 돌아가신 엄마도 마찬가지였을 것이었다고 레아는 장담할 수 있었다.

“이건 아마 할머니가 나탈리 이모한테 보낸 편지일 거예요. 빨리 시집이나 가라는 잔소리가 왕창 적혀 있을 게 뻔해요.”

“그럼 왜 편한 연락구슬 놔두고 편지로 보내셨지?”

“연락구슬은 할머니가 잔소리하려고 하시면 이모가 바쁘다고 끊어버리거든요.”

“하하! 나탈리 씨도 고생이네. 빨리 짝을 만나야 할 건데 말이야.”

혹시라도 주방에 있는 나탈리 이모가 들을까 봐 레아와 브로디 아저씨는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브로디 아저씨가 크게 웃어버리는 바람에 나탈리 이모에게 들켜버리고 말았다.

“두 사람. 굉장히 즐거워 보이네?”

“앗, 이모!”

“장미 케이크 다 만들었어. 어서 포장해.”

“알았어요. 나탈리 이모!”

레아는 그렇게 케이크를 포장한다며 도망가버렸고 나탈리 이모와 단둘이 남게 된 브로디 아저씨는 멋쩍게 웃었다. 그런 브로디 아저씨를 한번 째려보곤 나탈리 이모는 한숨을 푹 쉬었다.

“내가 결혼하기 싫다는 것도 아니고 엄마도 참….”

“음, 나탈리 씨. 그러지 말고 노력을 좀 해봐. 가만히 있으면 사랑이 제 발로 굴러오는 것도 아니잖아.”

우나타 최고인 잉꼬부부인 브로디 아저씨도 처음에는 에리스 아줌마의 관심을 얻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었다. 그 노력에 아저씨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던 아줌마도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러다 결혼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옛말에 노력하는 자가 사랑을 쟁취한다는 말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가로저으며 나탈리 이모는 말했다.

“됐어요. 저는 레아 뒷바라지해주는 것만 해도 바빠서 연애 같은 거 할 틈이 없어요.”

“레아도 이제 16살이잖아. 20살이 되면 독립할지도 모르는데 그때 혼자 외롭지 않겠어?”

“저는 레아가 시집갈 때까지 독립 절대 안 시킬 거예요. 아리샤가 부탁한 일도 있고 혼자는 불안해서 못 내보내요.”

“레아만큼 똑똑하고 강단 있는 애가 어디 있다고.”

레아는 어릴 때부터 얌전하고 조용히 웃던 엄마와 달리 씩씩하고 할 말은 하는 아이였다. 브로디 아저씨는 레아라면 어디를 내놔도 알아서 잘 먹고 잘살겠다고 생각하는데 나탈리 이모는 그래도 안 된다고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래도 안 돼요. 위험하다고요. 특히 레아라면 더더욱.”

“나탈리 씨. 혹시 레아가 너무 예뻐서 그래?”

확실히 레아는 누구나 감탄할 정도로 예쁜 아이였다. 청초하고 단아했던 엄마와는 전혀 닮지 않았지만, 흔하게 볼 수 없는 황금빛 머리카락과 역시 흔한 색은 아닌 초록색 눈동자는 꼭 보석을 박아놓은 것처럼 반짝였다. 브로디 아저씨는 인형처럼 사랑스러운 레아의 모습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뻐도 너무 예쁜 레아이니 혹시라도 이상한 놈이 눈독을 들일까 불안해할 만했다. 만약 레아가 결혼한다고 하면 브로디 아저씨는 좀 섭섭할 것 같기도 했다.

“브로디 아저씨! 케이크 포장 끝났어요!”

“아, 그래. 고맙다. 레아.”

그때 레아가 예쁘게 케이크를 포장한 상자를 들고나왔고 두 사람의 대화는 거기서 끝이 났다. 브로디 아저씨는 케이크 상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고 아저씨가 가게를 나가자마자 레아는 나탈리 이모에게 물었다.

“이모. 아저씨랑 무슨 얘기 했어요?”

“넌 몰라도 되는 얘기.”

“뭐예요. 아직도 화났어요?”

“그냥 별 얘기 안 했어.”

그렇게 말하며 나탈리 이모는 근처에 있던 편지를 집어 들고 습관적으로 겉면에 적힌 이름을 확인했다.

“어? 이거 나한테 온 거 아닌데?”

“그럼 잘못 온 거예요?”

“아니. 레아 너한테 온 거야.”

자신에게 온 편지란 말에 레아는 놀란 표정을 지었고 나탈리 이모는 편지를 레아에게 주었다. 확인해보니 확실히 편지 겉면에는 레아의 이름이 정확하게 적혀 있었다. 그런데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아서 누가 보낸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나한테 온 편지라니. 이거 누가 장난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편지를 보낼만한 사람이 없기에 레아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편지를 뜯어보았다. 고급스러운 느낌의 편지지에는 깔끔한 글씨체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레아 휘틀리 양에게.

휘틀리 양이 현재 일하고 있는 리베르타의 빵과 케이크 제빵 실력은 세계 최고라 할 정도로 대단하다고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폐하께서도 그 소문을 듣고 휘틀리 양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답신을 주신다면 3일 후 마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답신 기다리겠습니다.]

역시나 누가 편지를 보낸 것인지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지만 어디서 보낸 것인지는 바로 알 수가 있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아도 이건 7살짜리 아이도 바로 알 수 있을 것이었다.

이건 황실에서 온 편지였다! 거기다 황제 폐하께서 레아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적혀 있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지만, 편지 끝에 떡하니 찍혀있는 선명한 황실 문양은 이 편지가 누군가의 장난이나 거짓이 아니란 걸 증명해주고 있었다. 레아는 정말 기절할 것만 같았다.

“나, 나탈리 이모! 이 편지….”

“뭐야. 무슨 편지길래 그렇게 놀랐어?”

“황제 폐하께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뭐?”

레아의 입에서 황제 폐하라는 말이 나오자 나탈리 이모는 화들짝 놀라며 그 편지를 레아에게서 뺏어가듯 가지고 가 직접 읽어보았다. 레아는 아직도 그 편지 내용에 놀라 심장이 쿵쿵 뛰었다.

‘황제 폐하가 어째서 나를…?’

레그마인 더 다닐로만.

올해로 33살이신 황제 폐하는 평민에게 알려진 게 거의 없는 신비주의에 가까운 남자였다. 그리고 당연히 레아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런 황제 폐하께서 고작 우나타 안에서나 좀 유명한 작은 빵집인 리베르타를 알고 있을 리가 없었다. 그리고 만약 정말 알고 있다고 해도 초대를 할 거면 어른이고 사장인 나탈리 이모를 부르는 게 정상이었다. 아직 어린 16살 소녀를 초대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다.

“나탈리 이모.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황제 폐하께서 저를 부르실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전 그냥 평범한 16살 여자애라고요!”

“그래. 고작 빵이랑 케이크 때문에 널 황궁까지 부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물론 레아의 제과제빵 실력은 뛰어난 편이긴 했지만, 그것도 황실 파티시에들에 비하면 별 볼 일 없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원한다면 제국 최고 실력자들의 빵과 케이크를 질리도록 먹을 수 있는 황제 폐하께서 레아를 초대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이제 어떡해요? 가겠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대놓고 거절하거나 아예 답장을 안 할 수도 없고….”

이 제국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황제 폐하의 초대였기에 레아는 이걸 어떡해야 할지 안절부절못하고 있었다. 나탈리 이모는 그런 레아를 붙잡고 차분하게 말해주었다.

“레아. 진정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모가요? 어떻게요?”

“그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아무 걱정도 하지 마.”

“나탈리 이모….”

“레아. 내가 꼭 지켜줄게.”

자신의 어깨를 붙잡고 진지하게 말하는 나탈리 이모를 보며 레아는 뭔가 좀 싸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어쩐지 자신은 모르고 있는 무언가를 나탈리 이모는 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하지만 레아는 자신을 지켜주겠다는 나탈리 이모에게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다.

“일단 오늘은 일하지 말고 집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당분간 가게에 나오지 말도록 해.”

“…알았어요.”

레아는 그 말대로 가게 뒤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고 레아가 가게를 나간 후 나탈리는 다시 한번 황실에서 온 편지를 천천히 읽어보았다.

‘아리샤. 넌 분명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상했었던 거지?’

나탈리는 친구가 죽기 전에 레아를 지켜달라는 말과 함께 자신에게 부탁했던 그 일을 할 때가 지금이란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렇게 나탈리는 아리샤의 얼굴을 떠올리며 황실에 보낼 답신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2.거절은 거절한다.docx

“폐하. 우나타의 리베르타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 생각보다 빨리 왔네.”

“그럼 전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응.”

황금빛 머리카락에 초록색 눈동자.

거기다 이목구비 하나하나까지 레아와 똑같이 생긴 레그마인 더 다닐로만 황제는 설레는 마음으로 편지를 뜯어보았다. 하지만 곧 편지의 내용을 보고 그는 한숨을 쉬게 되었다.

“레아가 아니라 그 나탈리라는 여자가 답신을 보냈군.”

분명 초대장은 레아에게 보냈는데 왜 답신은 엉뚱한 사람에게서 온 걸까. 레그마인 황제는 실망이 가득한 눈으로 대충 답신을 읽어보았다.

나탈리라는 여자가 보낸 답신의 내용은 상당히 길었지만 요약하자면 인제 와서 아빠 노릇 하겠다고 괜히 평범하게 잘 사는 애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아리샤도 자신의 딸이 평범하게 살길 바랐으니 그 뜻을 존중해달라는 말도 적혀있었고 끝에는 이런 말도 적혀있었다.

[이제 레아가 황제 폐하의 딸이란 사실을 증명해줄 이도, 증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인 역시 자신의 친부는 황족의 아주 먼 친척이라고 알고 있으며 줄곧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부디 레아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흐음. 레아를 위한 선택이라.’

처음부터 레그마인 황제는 레아를 위한 선택을 할 생각이었다. 단지 가족도 아니고 그저 평민인 주제에 레아의 친부이자 제국의 황제인 자신에게 저런 말을 했다는 사실이 우스워서 웃음이 나올 뿐이었다.

원래 성격이었다면 다시는 이런 소리를 지껄이지 못하게 만들어줬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딸의 옆에 있어 준 고마운 사람이니 레그마인 황제는 이번 한 번만 봐주기로 했다.

“그런데 내 딸인 증거가 없다니. 역시 평민은 어쩔 수 없다니까.”

그렇게 말하며 레그마인 황제는 자신의 황금빛 머리카락을 매만졌다. 이 머리카락 색이야말로 레아가 황제의 딸이라는 확실한 증거였다. 하지만 평민은 알 수 없는, 오히려 아는 사람이 매우 적은 정보이긴 했다. 그리고 레그마인 황제와 레아의 얼굴을 보면 두 사람이 가족이란 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었다. 피가 섞이지 않고서야 이렇게 닮을 수가 없었으니 말이다.

그리고 평생 자신이 몰랐다면 모를까 이제 딸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 아빠로서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레그마인 황제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황이었다.

“라이 경에게 준비하라고 말해야겠군.”

답신은 왔고 3일 후 레아는 황궁에 올 것이었다. 레그마인 황제는 딸을 곧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져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

황실로부터 수상한 초대장이 오고 나탈리 이모는 그날 바로 답신을 보냈다고 했다. 하지만 레아에게는 계속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고 있었다.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게 분명한데…. 왜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는 거지?’

그날 이후로 나탈리 이모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지만, 여전히 레아를 가게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외출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그러니 당연히 레아는 답답했고 나탈리 이모가 숨기는 것에 대해 더 궁금해졌다.

그래서 혼자서 이것저것 가설을 세워보았고 그러다 레아는 그럴듯한 가설이 하나 떠올랐다. 얼굴도 모르고 아는 것도 별로 없는 친부와 관련된 것이었다.

‘분명 내 친부는 황족의 머나먼 친척이라고 했었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황제 폐하와 나의 연결고리는 그것밖에 없어.’

물론 그것도 확실한 연결고리는 아니었다.

레아는 친부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정확하게 아는 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 친부의 문제로 황제 폐하께서 레아를 찾을 이유는 없었다. 다만 레아가 얼굴도 모르는 친부가 연결고리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신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를 쏙 빼닮았기 때문이었다.

머리색부터 시작해서 눈동자 색, 이목구비 하나하나까지도 레아는 엄마가 아닌 친부를 닮았었다. 레아가 어릴 때 엄마는 레아가 엄마와 닮지 않은 이유를 물을 때마다 그렇게 말했었다.

“하여튼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작자라니까.”

레아에게 친부란 도움은커녕 자신과 엄마를 힘들게만 하는 원망스러운 인물이었다. 그래서 레아는 그 사람이 싫었다.

레아를 낳았을 때 엄마의 나이는 20살이었고 그 어린 나이에 엄마는 친부의 도움 없이 홀로 딸을 키웠다. 나탈리 이모나 브로디 아저씨네처럼 좋은 이웃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친부는 한 번도 도움을 주지 않았고 엄마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었다.

그리고 지금. 그 친부라는 작자 때문에 레아는 황궁으로 불려가게 생겼다. 그러니 당연히 레아는 친부가 싫을 수밖에 없었다.

“혹시 나탈리 이모는 내 친부가 누군지 알고 있는 걸까?”

나탈리 이모는 레아가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와 친구였고 이 집에서 같이 살았었다. 그러니 레아의 친부가 누군지 이모라면 충분히 알 수가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면 자신에게 왜 그걸 숨기는 건지 레아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레아는 침대에서 뒹굴뒹굴하며 하나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다.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이 일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곧 초대장보다 더한 것이 레아를 찾아왔다.

\*\*\*

나탈리 이모가 초대장의 답신을 보내고 정확하게 3일 후 새벽 2시. 집 근처에서 나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레아는 잠에서 깼다.

‘뭐야…. 이 시간에 무슨 소리지?’

원래 우나타는 조용한 동네라서 이렇게 소란스러운 건 굉장히 드문 일이었다. 거기다 새벽 2시는 모두가 자고 있을 시간인데 이런 소리가 난다는 건 이상한 일이었다. 그리고 분명 레아의 침대 건너편에 있는 침대에서 자고 있어야 할 나탈리 이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혹시 나탈리 이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레아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는 가게 쪽으로 한번 가보았고 혹시 몰라서 여차하면 무기로 쓸 프라이팬을 들고 가는 것도 잊지 않았다.

가게 쪽으로 가보니 밖에서 누군가와 대치 중인 나탈리 이모의 뒷모습이 보였고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모여있는 듯했다. 새벽 2시에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레아는 서둘러 밖으로 나가보았다.

“나탈리 이모!”

“뭐야. 갑자기 왜 나왔어?”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해줄게. 넌 어서 안으로 들어가.”

레아가 밖으로 나오자 나탈리 이모는 당황한 눈치였고 서둘러 레아를 가게 안으로 들여보내려고 했다. 하지만 나탈리 이모와 대치 중이던 남자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레아 휘틀리 님 맞으십니까?”

“네? 네. 제가 레아 휘틀리인데요.”

“레아. 대답하지 말고 어서 들어가.”

“황실에서 온 마차입니다, 어서 타시죠.”

“어서 들어가라니까. 레아!”

어서 마차에 타라는 남자와 가게로 들어가라는 나탈리 이모의 말에 레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 정확하게는 이모의 말대로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남자 쪽에서 레아를 붙잡고 놔주지 않았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어서 놓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 휘틀리 님을 꼭 모시고 가야 합니다.”

“그럼 적어도 당사자한테 이유라도 설명해줘야 할 거 아니야!”

“휘틀리 님의 친부에 관련된 일입니다.”

“레아는 친부라고? 아무리 혈육이라고 해도 인제 와서 이러는 건 실례라고!”

레아의 친부라는 말에 다른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브로디 아저씨는 여전히 얼굴이 시뻘게져서 화를 내고 있었고 레아를 붙잡고 있는 손을 꺾어버리려고 했다. 하지만 오히려 꺾여지는 쪽은 브로디 아저씨의 팔이었다.

“아악!”

“실례했습니다.”

“이 자식이….”

바위처럼 단단하고 산처럼 큰 브로디 아저씨의 우락부락한 팔을 한 손으로 가볍게 꺾어버리는 걸 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레아 역시 힘이라면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브로디 아저씨란 걸 잘 알기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거기다 아저씨의 팔을 꺾은 이 남자는 키는 상당히 컸지만 그렇게 우락부락하지도 않았고 몸이 두꺼워 보이지도 않았다.

‘뭐, 뭐지? 무슨 상황인진 몰라도 꽤 심각한 분위기인 거 같은데…?’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람. 레아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해서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어도 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일단 뭔진 몰라도 이 남자의 말대로 마차에 올라타야 이 소란이 어떻게든 마무리가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분명 초대는 거절하겠다고 답신 보냈잖아요! 알아듣게 설명한 거 같은데 갑자기 찾아오셔서 억지로 데려가려고 하시다니. 대체 이게 무슨 짓이죠?”

이러다간 레아가 정말 마차를 타고 황궁으로 떠날까 봐 겁이 난 나탈리 이모는 이를 꽉 깨물고 까만 머리카락에 까만 눈동자를 한 그 남자에게 날카롭게 소리쳤다. 하지만 그 남자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보내주신 답신은 폐하께서 직접 읽으셨고 휘틀리 님을 모시고 오라는 명령도 직접 내리셨습니다.”

“초대를 거절했는데도 레아를 데려오라고 하셨다고요?”

“초대장에 거절하면 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까?”

없었다.

편지에는 답신을 기다리겠다는 말과 답신이 오면 3일 후에 마차를 보내주겠다는 말만 적혀있었다. 즉, 처음부터 황제는 답신이 어떻게 오든 레아를 데리러 올 생각이었다.

‘이런 양아치…!’

입 밖으로 소리 내서 말했었다면 당장 목이 댕강 날아갔을 말이었지만 속으로라도 말하지 않으면 억울해 죽을지도 몰랐다. 그런데 더 속이 터지는 게 그런 나탈리 이모의 마음도 모르고 레아는 맞는 말이긴 하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나탈리 이모는 레아의 등을 한 대 때리려고 했지만, 곧바로 그 남자의 손에 저지당했다.

하지만 아무리 황제 폐하께서 직접 마차까지 보내셨다고 해도 나탈리 이모는 레아를 황궁으로 보낼 수 없었다. 이건 소중한 친구의 마지막 부탁이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나탈리는 곧 레아를 보내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만약 계속 황궁으로 휘틀리 님을 모시는 걸 계속 반대하신다면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직접 휘틀리 님을 만나러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원하시는 게 그것입니까?”

“뭐, 뭐라고요?”

그 남자의 말에 나탈리 이모와 레아는 물론이고 그 말을 들은 모두가 깜짝 놀라서 술렁였다. 다른 사람도 아닌 제국에 최고의 위치에 있는 황제 폐하께서 레아 한 사람 때문에 시골인 우나타까지 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런데 지금 저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절대 잘못 말했거나 농담 같은 건 아닌 거 같았고 레아는 정말이지 기절할 것만 같았다.

‘아니, 대체 내 친부란 작자는 무슨 짓을 하고 다녔기에 폐하께서 이렇게까지 나한테 집착을 하시는 거냐고!’

평민들에게 알려진 정보는 극소수인 신비주의의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우나타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이었다. 굳이 우나타가 아니더라도 황제 폐하의 얼굴은 귀족이나 황궁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알 수 없었다. 근데 그런 황제 폐하께서 레아를 직접 만나러 오겠다니. 이건 협박이나 다름없는 말이었다!

“이거 그냥 레아가 황궁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뭐…. 황제 폐하께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러시는 건 아니겠지.”

“근데 레아의 친부는 대체 누구길래 이러는 거야?”

“나도 몰라. 머리색을 보면 황족의 피가 섞인 사람이지 않을까?”

“황족의 먼 친척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결혼한 사이는 아니었대요.”

“아리샤가 미혼모였어? 혹시 그거 때문에?”

“에이, 설마요. 먼 친척 일에 폐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리가 없잖아요.”

아까까지만 해도 레아를 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지금은 그냥 황궁으로 보내는 게 좋지 않겠냐며 수군거리고 있었다.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협박은 무섭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나탈리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일이 이렇게 되면 레아는 우나타에 계속 머물러도 당분간은 이 수군거림의 주인공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계속 수군거리다 누군가 레아에 출생의 비밀을 눈치챌지도 모를 일이었다.

‘설마 여기까지 다 예상하셨던 건가?’

똑똑하고 무서울 정도로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이란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아니, 그렇게 외로움을 많이 탔었다고 했으니 이렇게까지 하는 게 당연한 걸지도 몰랐다. 결국, 나탈리는 싸움에서 지고 만 것이었다.

사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애초에 상대는 황제 폐하였고 자신은 평범한 평민에 불과했으니까. 이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다. 레아가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딸이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황제 폐하께서 자신의 친딸인 레아에게 결코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란 것도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에 나탈리는 레아의 손을 꽉 잡았다.

“나탈리 이모.”

“레아.”

“저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해 웃는 얼굴을 보여주는 레아를 보며 나탈리는 스르륵 잡았던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정말 레아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

“나탈리 이모. 표정 좀 풀어요. 누가 보면 저 죽으러 가는 줄 알겠어요. 금방 돌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미안하다. 레아.”

“뭐가 미안해요. 저 금방 다녀올 거라니까요?”

결국, 황실에서 온 마차를 타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황궁으로 가게 된 레아를 보며 나탈리는 계속 마음이 무거웠다. 죽은 아리샤와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단 것과 레아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게 그저 미안하기만 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레아는 미안해하지 말라는 말과 금방 돌아올 테니 걱정하지 말로 모두를 안심시켜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나탈리는 확신할 수 있었다. 레아는 이제 자신은 갈 수 없는 곳으로 떠나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이별이었다.

점점 멀어져 가는 마차를 보며 나탈리는 레아 앞에서는 꾹 참았던 슬픔이라는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이제 거의 보이지 않는 마차를 보며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에서도 꼭 행복하게 지내렴.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레아 더 다닐로만.”

3.내가 네 아빠다.docx

원래 레아는 마차에 타고 우나타를 떠나 숲으로 들어가면 그 까만 머리에 까만 눈을 가진 남자에게 이것저것 물어볼 계획이었다.

그 남자는 레아의 친부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는 것 같았고 어째서 황제 폐하께서 레아를 이렇게까지 황궁으로 부르려고 하는 건지 그 이유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수도인 벨리시타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 남자를 귀찮게 해서라도 그 두 가지를 알아내려고 했는데…. 레아는 달리는 마차에서 그만 잠들어버리고 말았다.

“후아아아아암. 뭐야. 나 얼마나 잔 거야?”

처음, 이 마차에 올라탔을 때는 해가 뜨기도 전인 새벽이었는데 한숨 푹 자고 일어나니 어느새 이미 해는 중천에 떠 있었다. 레아는 급하게 마차에 있는 작은 창문을 열어 고개를 빼꼼 내밀었다.

“위험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까만 기사님. 여기 어디에요?”

“…라이 므라드입니다. 라이 경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라이 경.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벨리시타는 멀었나요?”

“30분 정도만 더 가면 됩니다.”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나무와 풀만 가득한데 곧 수도에 도착한다니 레아는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런데 잠을 잔다고 물어보려고 했던 걸 하나도 물어보지 못했으니 마음이 좀 조급해졌다.

“라이 경. 새벽에 제가 황궁으로 가는 이유는 제 친부 때문이라고 했죠? 혹시 그분이 무슨 큰 잘못을 하신 건가요?”

“마차 밖으로 고개를 내미셨다 다칠 수도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만약 그래서 폐하께서 그런 이유로 절 부르신 거라면 솔직히 저 진짜 억울해요! 저는 제 친부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한 번도 안 만나봐서 얼굴도 몰라요!”

위험하니 안으로 들어가라는 라이 경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레아는 계속 고개를 내밀고 조잘조잘 떠들었다. 혹시 정말 안 좋은 일로 끌려가는 것이라면 너무 억울했기 때문이었다. 한숨을 푹 쉬는 레아를 보며 그 근처에 있던 기사들은 모두 속으로 같은 생각을 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도…거울 한 번만 보면 어떻게 생겼는지 바로 알 수 있을 거 같은데.’

빛나는 황금빛 머리카락부터 흔하게 볼 수 없는 에메랄드 같은 눈동자가 아니더라도 이목구비 하나하나 모두 친부의 것을 닮아 있었다. 레그마인 황제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는 기사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황제 폐하를 자주 뵙는 라이 경은 부녀가 성격까지 닮았다며 속으로 감탄하고 있었다.

라이 경은 늘 제맛대로에다 남의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 황제 폐하의 모습과 위험하다는 말에도 아직도 고개를 빼꼼 내밀고 생각에 잠긴 레아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물론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역시 내 딸이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을 것이었지만 반대로 황궁에서 일하는 신하들은 황제 폐하를 꼭 닮은 레아를 보며 절규를 할 것이 뻔했기에 라이 경은 속으로 한숨을 푹 쉬었다.

\*\*\*

“재상. 언제쯤 도착한다고 연락 온 거 없어?”

“연락구슬로 연락해보니 곧 도착할 거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마중이라도 나가 있을까?”

“재미없는 농담입니다. 폐하.”

“농담 아닌데.”

농담이 아니라는 레그마인 황제의 말에 가스파르 재상은 깜짝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황제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 표정이 보고 싶었어. 농담 맞아.”

“……….”

대체 이 남자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걸까. 레그마인 황제가 16살 때부터 그를 지켜본 가스파르 재상이었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오랜 수수께끼였다.

‘갑자기 첫사랑을 찾으라고 라이 경한테 시킬 때부터 옆에서 말렸어야 했는데. 갑자기 사생아가 튀어나올 줄도 몰랐지만, 그 아이를 황궁으로 부를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레그마인 황제의 첫사랑이자 끝사랑. 아리샤 휘틀리.

붉은색의 긴 생머리에 호박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던 그녀는 상당한 미녀에 머리도 제법 똑똑한 편이었지만 그래 봤자 시녀에 불과했다. 아무리 애틋한 사랑을 했어도 둘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아니, 차라리 평범한 시녀였다면 어떻게든 후궁까진 될 수 있었을진 몰랐지만 아리샤의 경우는 좀 달랐다.

본인도 그걸 알았는지 결국, 아리샤는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당시 황태자였던 레그마인 황제와 황궁을 떠나 모습을 감췄다. 그때 레그마인 황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가르파르 재상은 옆에서 다 지켜보았었고 마음은 아팠지만 이제 두 사람의 인연은 영영 끝난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 여자가 폐하의 아이를 가졌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 심지어 그 아이가 폐하만 빼닮을 줄은 상상도 못 했지.’

아까 라이 경과 연락구슬로 연락했을 때 그는 황제 폐하의 사생아는 생긴 것도 폐하를 빼다 박았지만, 성격도 꽤 많이 닮은 것 같다고 했었다. 그 얘기를 듣고 가스파르 재상은 절규했다.

레그마인 황제는 현재 결혼은커녕 약혼자도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가스파르 재상은 늘 빨리 결혼하라고, 그게 싫으면 제발 어디서 애라도 만들어오라고 잔소리했었다. 그런데 막상 실제로 사생아가 존재한다니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땐 놀라서 쓰러질 뻔했다.

그런데 레그마인 황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사생아를 황궁으로 불러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딸로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때 가스파르 재상은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했었지만 늘 제멋대로인 황제가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었다.

“아직도 전 뒤에서 몰래 후원해주며 아버지로서 최소한의 책임만 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그 소리만 했어. 지겹지도 않아?”

“전혀 안 지겹습니다! 그러는 편이 레아 님께도 더 좋을 거 같은데 황제 폐하야말로 왜 1년이나 포기도 안 하시고 이러시는 겁니까?”

“내 딸 내가 키우겠다는데 그게 이상해?”

“폐하. 모두가 반대하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레그마인 황제가 처음 레아를 황궁으로 부르겠다고 했을 때부터 모두 결사반대를 외쳤었다. 하지만 1년 동안 절대 뜻을 굽히지 않는 황제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며 백기를 든 것이었다.

“너희들은 다 처자식 있잖아. 나도 이제 가족 좀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제가 늘 결혼하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한테 여자는 죽을 때까지 아리샤 하나야.”

누군가는 슬프도록 아름다운 순애보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가스파르 재상은 저 말이 답답해 죽을 거 같았다.

만약 저 말을 평민이나 자신의 자리를 물려받을 다른 가족이 있는 자가 했다면 가스파르 재상도 이렇게까지 답답해하진 않았을 것이었다. 하지만 폐하는 다닐로만 제국의 황제였고 지금으로선 황제 자리를 물려받을 만한 핏줄도 없는 상태였다.

“황실에 피바람이 분 이후로 이제 다닐로만 제국에는 폐하를 제외한 황족의 피를 이어받은 모든 이가 죽었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폐하께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시게 된다면….”

그야말로 혼돈이 올 것이었다. 힘이 있는 자들은 너도나도 황제가 되겠다고 달려들 것이었고 그 소식을 들은 다른 제국에서는 다닐로만 제국을 삼키려고 쳐들어올 것이었다.

“재상. 작년 가을에 결혼했지? 부인이 임신 중이고.”

“작년 겨울에 결혼했습니다. 아이는 아직이고요.”

“그래. 그러니까 알 수가 없겠지.”

비록 얼굴 한번 직접 본 적이 없고 존재도 작년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레그마인 황제에게 레아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리샤가 남기고 떠난 커다란 선물이었다. 아주 소중한 선물.

“재상도 아빠가 된다면 내 마음을 이해하게 될 거야.”

자식이란 게 부모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아직 부모가 되지 못한 자가 알 리가 없었다.

\*\*\*

라이 경이 고개 내밀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라고 아무리 말해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던 레아는 마차가 수도인 벨리시타에 도착하자 그제야 얌전히 마차 안으로 들어갔다. 벨리시타에 도착했다는 건 곧 황궁에도 도착할 것이었고 그렇다면 레아는 혼자서 나름대로 준비할 것들이 있었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친부 때문에 황궁에 가게 되는 날이 올 줄이야. 하여튼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작자라니까. 근데 진짜 무슨 짓을 했길래 황제 폐하께서 날 찾으시는 거지?’

혹시 이제라도 아빠 노릇을 하겠다고 황제 폐하를 이용해서 이러는 건 아니겠지? 친부는 황족의 아주 먼 친척이라고 했으니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레아는 생각했다. 원래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어째 생각할수록 레아는 친부가 점점 더 싫어졌다.

만약 정말로 친부가 이제야 아빠 노릇을 하겠다고 자신을 부른 것이라면 레아는 싫다고 말할 것이었다. 나탈리 이모에게 금방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고 인제 와서 친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레아는 충분히 잘 지내고 있었다. 가끔 힘들 때도 있었지만 별로 도움받고 싶지도 않았다.

“휘틀리 님. 도착했습니다.”

“앗, 네!”

레아가 대답하자 곧 마차의 문이 열렸고 라이 경은 붙잡고 내려오라고 손을 내밀어주었다. 그 모습에 주변에 있던 기사들과 시녀, 시종들은 모두 놀랐다. 워낙 무뚝뚝하고 뻣뻣한 스타일인 라이 경이 여자에게 손을 내미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런데 그런 걸 알 리가 없는 레아는 그 손을 보지 못하고 혼자 힘으로 폴짝 마차에서 내렸다.

불편한 드레스를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혼자 내릴 수 있는 상황이기는 했지만, 천하의 라이 경의 손을 거부하다니. 당연히 모두는 아까보다 더 놀랐고 처음 받아본 거절에 라이 경은 좀 당황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레아의 얼굴을 보고 한 박자 늦게 놀라는 건 이제 거의 당연한 순서였다.

“예쁘다….”

누가 내뱉은 감탄사인진 몰라도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그 말에 공감했다. 얼굴을 아는 사람들은 제국 최고의 미남이라고 하는 레그마인 황제를 빼닮은 레아가 미녀인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몰랐다. 그렇게 모두가 감탄하면서 레아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정작 레아는 황궁의 정원을 보고 감탄하는 중이었다.

‘엄청 화려하고 예쁘네. 이런 커다란 정원은 관리하는 돈만 해도 엄청 비싸겠지? 아마 평생 빵을 팔아도 이런 정원은 구경도 못 해볼 거야.’

별로 좋은 일로 온 건 아닌 것 같았지만 이왕 오게 된 거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눈에 담고 싶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레아는 오늘이 지나면 두 번 다시는 황궁에 발을 들일 일이 없을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폐하께서 알현실에서 기다리고 있으십니다. 어서 가시죠.”

마음 같아서는 정원을 한 바퀴 쭉 둘러보며 여기저기 구경해보고 싶었지만, 황제 폐하께서 기다리고 있으시다는 라이 경의 말에 레아는 말없이 쫄래쫄래 그를 따라갔다. 물론 알현실로 가면서도 주변을 힐끔거리며 구경할 건 다 하면서 따라갔지만 말이다.

“이곳이 알현실입니다.”

“우와….”

아까 봤던 화려한 정원도 보고 놀랍다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태어나서 본 문 중에서 제일 크고 번쩍번쩍한 알현실 문에 레아는 저절로 감탄이 나왔고 어쩐지 조금 압도당하는 느낌마저 들었다. 이제야 비로소 황궁에 왔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고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같았다.

‘저 안에 황제 폐하가….’

도대체 황제 폐하는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집착하면서 협박까지 해서 황궁에 오라고 한 것이었을까. 드디어 그 수수께끼가 풀리는 순간이었다. 곧 알현실의 문이 열렸고 레아는 떨리고 조금은 긴장된 마음으로 라이 경을 따라서 알현실 안으로 들어갔다.

알현실 내부는 커다란 문 만큼이나 번쩍번쩍했고 레아는 자꾸만 눈이 돌아갈 것만 같았지만 꾹 참고 얌전히 라이 경 뒤를 따라 걸었다. 레아는 커다란 산 같은 라이 경의 등에 가려 황제 폐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지만, 황제 폐하는 레아의 모습을 보고 있을지도 몰랐다. 이것저것 신기하다며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황제 폐하께서 보신다면 너무 창피할 것만 같았다.

“폐하. 기다리시던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그럼 전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황제 폐하와 짧은 대화를 마치고 라이 경은 알현실을 나갔고 드디어 레그마인 황제 폐하와 레아가 마주하는 그 순간이 왔다. 자신을 가리던 라이 경이 비키자마자 레아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며 준비했던 말을 내뱉었다.

“존경하는 레그마인 더 다닐로만 폐하를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나타에서 온 레아 휘틀리라고 합니다.”

이제 황제 폐하께서 고개를 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됐다. 그런데 돌아오는 황제 폐하의 말은 레아가 예상했던 것과 상당히 달랐다.

“우리 사이에 그런 고전적인 인사 같은 건 안 해도 돼.”

“네?”

“그냥 편하게 해. 나도 그렇게 할 거니까.”

“폐하. 그게 무슨….”

“그렇다고 너무 막 하진 말고. 고개 안 들 거야?”

“아, 네….”

우리 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고 편하게 하라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지? 레아는 당황했지만, 일단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얼굴을 본 그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 이,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황제 폐하의 얼굴이랑 내 얼굴이….’

황금빛 머리카락이야 황족이니까 그렇다고 해도 흔하지 않은 녹안에 이목구비 하나하나 빠짐없이 닮았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눈앞에서 일어났으니 레아는 당황스러운 걸 넘어 혼란스럽고 어이가 없기까지 했다. 그런데 레아와는 달리 황제 폐하께서는 재미있다는 듯 즐거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만 빼다 박았다는 건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설마 이 정도였을 줄이야. 신기할 정도로 아리샤를 하나도 안 닮았네?”

“폐, 폐하께서 어째서 저희 엄마 이름을….”

“아, 많이 놀랐어? 괜찮아. 다 설명해줄게.”

너무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레아를 보며 황제 폐하께서는 괜찮다며 다정하게 웃어주었다. 하지만 레아는 어쩐지 황제 폐하의 그 웃음이 불안하게 느껴졌다.

“내가 네 아빠다.”

“…네?”

“넌 내 딸이다. 레아 더 다닐로만.”

역시나 그 불안함은 틀리지 않았고 충격적인 황제 폐하의 말씀에 레아는 순간 기절할뻔했다. 갑자기 아빠와 딸은 뭐고 왜 휘틀리가 아니라 제국의 이름이 자신의 성이 된 건지 레아는 모든 것이 갑작스럽기만 해서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내가 황제의 딸이라고? 그럼 내 친부가 황제 폐하고? 그럼 내가 황궁까지 오게 만든 이유가 바로 레그마인 황제 폐하?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요!

하지만 레아가 속으로 그런 절규를 하든 말든 레그마인 더 다닐로만 황제 폐하께서는 아주 만족스럽다는 듯이 웃는 얼굴로 다정하게 말씀하다.

“한번 아빠라고 불러보거라. 레아.”

4.어차피 선택은 황녀로 살기.docx

마음 같아서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레아는 그럴 수가 없었다. 정말 인정하기 싫고 부정하고 싶었지만… 슬프게도 직감적으로 레그마인 황제 폐하가 자신의 친부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레아는 차라리 모든 게 꿈이기를 바랐다.

‘엄마는 내가 엄마는 하나도 안 닮고 그 사람만 아주 쏙 빼닮았다고 했었지. 머리카락 색도 눈동자 색도….’

레아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자신과 같은 머리색과 눈동자 색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둘 다 흔하게 볼 수 있는 색이 아니었기에 우스갯소리로 금발에 녹안을 가진 남자가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빼도 박도 못하는 레아의 친부라고 말하기도 했을 정도였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황제 폐하가 금발에 녹안일 줄이야!

심지어 두 사람은 머리카락 색과 눈동자 색뿐만 아니라 이목구비 하나하나가 신기할 정도로 닮아있는데 부정하는 게 가능할 리가 없었다.

“말도 안 된다고 강력하게 부정하거나 너무 놀라서 기절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차분하네? 혹시 아리샤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나?”

“아뇨…. 전혀 상상도 못 한 일이라 현실인 거 같지가 않아요.”

“현실이 아니라고 말해주길 바라는 건가?”

“그러길 바란다면 그렇게 말씀해주실 건가요?”

“아니. 넌 누가 뭐래도 내 딸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맑게 웃는 황제 폐하의 얼굴이 너무나도 얄미워서 레아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자신의 친부가 제국의 황제란 사실은 상상도 못 했는데 역시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작자란 생각은 맞는 것 같았다. 그래서 레아는 왠지 갑자기 자신이 황제 폐하의 딸이란 사실을 부정하고 싶어졌다.

“하지만 폐하. 전 제 친부가 황족의 머나먼 친척이라 황족의 피를 이어받아야지만 가질 수 있는 황금빛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알고 살아왔습니다. 거기다 제 모친은 황실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제가 폐하의 친딸이라는 증거라도 있나요?”

정말 희박한 가능성이긴 했지만, 레아의 친부가 황제 폐하의 머나먼 친척이라 둘의 머리색과 눈동자 색이 같고 신기할 정도로 닮은 걸지도 몰랐다. 하지만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는 곧바로 그 희박한 가능성조차 깔끔하게 지워버렸다.

“황금빛 머리카락. 그게 네가 내 딸이라는 증거야.”

“금발은 황족의 피가 섞이면 누구에게나 나올 수 있는 색 아닌가요? 그게 어떻게 폐하의 딸이란 증거가 되죠?”

“아, 이건 아는 사람이 극히 적은 극비정보인데 현재로선 살아있는 황족이 너와 나 둘뿐이야.”

“…네?”

그저 황제 폐하의 웃는 얼굴이 얄미워서 한 마디라도 이겨보려고 했던 레아는 갑자기 툭 나온 극비정보에 당황해버렸다. 그런데 폐하께서는 그런 엄청난 걸 말한 적 없는 사람처럼 태연한 얼굴로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주셨다.

“내 아버지인 선황제에 의해 황실에는 두 번의 엄청난 피바람이 불었었어. 그때 나를 제외한 황족과 황족의 피를 조금이라도 이어받은 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는데 운 좋게 너만 살아남은 모양이야. 하긴, 나도 아리샤가 내 아이를 가졌을 줄은 상상도 못 했었는데 아버지께서 아셨을 리가 없지.”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 이건 엄청난 극비정보이자 다닐로만 제국의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그걸 알기에 레아는 차마 뭐라 말도 못 하고 있는데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는 레아의 그런 표정이 마음에 든다는 듯 만족스럽게 웃으셨다.

“그런 표정을 할 때는 아리샤랑 닮았네. 귀엽다.”

“엄마….”

“아, 그러고 보니 아까 아리샤랑 나랑 어떻게 만난 건지 물었었지?”

“정확하게는 저희 엄마랑 황실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죠.”

“왜 관련이 없어. 우리가 처음 만난 장소도 황궁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레아는 자신이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딸이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직 조금의 의문은 남아있는 상태였다.

“혹시 저희 엄마가 귀족이었나요?”

황궁에서 만났고 서로 사랑했다면 혹시 그렇지 않을까 하고 레아는 생각했다. 그러다 레아를 임신하고 엄마는 가문에서 쫓겨난 것이라고 하면 엄마에게 가족은 물론이고 친척도 없었다는 것도 이해가 갔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황제 폐하께서는 레아의 예상과 다른 말을 해주셨다.

“뭐, 한때는 그랬지만 일단 아리샤는 내 시녀였어.”

“시녀요?”

“그래. 아까 얘기했던 피바람으로 인해 고아가 된 아이들은 모두 황궁에 하녀나 하인 혹은 시녀와 시종으로 일하게 됐어. 아리샤도 부모님과 남동생을 잃고 오게 된 거지.”

과거에 불었던 첫 번째 피바람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건 비단 황족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뿐만이 아니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무고한 사람들도 목숨을 잃었고 아리샤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아리샤는 황궁으로 와 당시 황태자였던 폐하의 시녀가 된 것이었다.

어떻게 보면 원수일 수도 있는 두 사람은 우연 같은 만남으로 운명같이 사랑하게 된 것이었고 그 결실로 아리샤는 레그마인 황제의 딸인 레아를 임신하게 된 것이었다.

“레아. 생일이 언제지?”

“12월 24일입니다.”

“아리샤가 말도 없이 황궁을 떠난 게 5월 13일. 임신 3개월쯤 됐을 때였겠네.”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숨기고 아리샤가 황궁을 떠난 이유는 아마 수많은 이유 중 레아를 지키기 위해서가 가장 크지 않았을까 하고 레그마인 황제는 생각했다.

부모와 남동생도 선황의 손에 목숨을 잃었는데 만약 아리샤가 아들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는 망설임도 없이 아리샤와 배 속의 아이까지 죽였을 것이었다. 아리샤가 황궁을 떠나고 얼마 후 두 번째 피바람이 불었으니 그건 현명한 선택이었다.

“그런데…폐하께선 올해로 33살 아니신가요? 저는 올해로 16살인데 그러면 나이 차이가….”

레아의 엄마는 20살 때 레아를 낳았고 만약 살아있으셨다면 올해로 35살이 되셨을 것이었다. 레아는 설마설마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의문을 표했는데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는 이번에도 역시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다.

“아리샤는 나보다 2살 연상이었어. 그러니까 네가 태어났을 때 나는 18살이었지.”

머릿속으로는 계산이 다 끝났어도 속으로는 애써 아니라고 부정했는데 당사자가 직접 확인사살을 해주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에 레아는 으아아아아아악! 하고 내적비명을 질렀다.

레아는 황제 폐하의 사생아였다! 그것도 폐하가 미성년자 때 속도위반으로 사고 친 결과물! 그렇게 생각하니 레아는 정말이지 울고 싶었다.

“너무 원망하진 말아줘. 나도 작년에 처음으로 네 존재를 알았고 내 딸이란 걸 알자마자 바로 황궁으로 데리고 오려고 했으니까.”

“그럼 처음부터 사실대로 적어서 초대장을 보내셨으면 좋았잖아요.”

“그랬다면 네가 이모라고 부르는 그 여자가 황궁으로 절대 못 가게 했을걸?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소란스럽게 만들어봤자 좋을 것도 없잖아.”

“이미 우나타는 황실과 폐하 덕분에 충분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에이, 그건 내가 아니라 엄연히 따지자면 그 여자 때문이지.”

그러게 처음부터 초대장을 보냈을 때 긍정적인 답신을 보내고 마차를 보냈을 때도 곱게 레아를 보냈다면 소란스러워졌을 리가 없었다. 분명 그 여자가 절대 레아를 보낼 수 없다고 난리를 쳤을 거고 그래서 소란스러워졌을 거란 걸 레그마인 황제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레아는 황제 폐하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가 아, 이게 아닌데 하고 생각했다. 뭔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도 어쩐지 황제 폐하의 말은 괜히 수긍하기가 싫었다.

“어쨌든 레아 너는 소중한 내 딸이야. 그러니 난 아빠로서 책임지고 널 지켜줄 거야.”

“이제 와서요?”

“이제라도 아빠 노릇 할 거야.”

레그마인 황제는 이제라도 레아를 옆에서 지켜주고 키우고 싶었다. 하지만 레아는 별로 자신의 친부인 황제 폐하의 밑에서 황녀로 살고 싶지가 않았다.

“하지만 황제 폐하. 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대로 평범하게 우나타에서 빵을 구우면서 살고 싶어요.”

“어째서? 빵이라면 황궁에서도 충분히 구울 수 있는데.”

“그동안 저를 사랑해주신 소중한 이웃들과 추억이 가득한 곳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제 행복은 우나타와 리베르타에 있으니까요.”

“네 행복은 황실이 아니라 그곳에 있다는 말이군.”

설마 본인이 돌아가고 싶다는데 안 된다고 감금하지는 않겠지?

아무리 사람이 좀 이상해 보여도 일단은 황제니까 설마 그런 나쁜 짓은 안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레아는 폐하의 대답을 기다렸다. 레그마인 황제는 잠시 생각을 하는 듯하더니 곧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네가 그러길 원한다면 그러도록 해.”

“진짜요?”

“네 인생이잖아.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거지.”

분명 황제 폐하께서는 이번에도 레아에게 선택권 따위는 주지 않고 자기 맘대로 권력을 휘두르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별다른 말 없이 의견을 존중해주겠다는 폐하의 말에 레아는 의외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역시나 황제 폐하의 말은 그렇게 끝날 리가 없었다.

“근데 괜찮겠어? 목숨이 달린 일인데 그렇게 쉽게 결정하는 건 아빠로서 좀 걱정인데.”

“네? 목숨이 걸린 일이라뇨?”

“소란스럽게 하고 왔다며. 그럼 분명 지금쯤 모두가 왜 황실에서 너를 데리고 갔는지 수군거리고 있을걸?”

“그때 분명 라이 경이 제 친부와 관련된 일이라고….”

“그럼 일주일 안에 소문이 돌겠네. 빵집 리베르타의 레아 휘틀리는 사실 레그마인 황제의 딸이었다! 하고.”

“네? 어째서요?”

우나타 사람들은 모두 황제 폐하의 얼굴을 모르고 있었고 엄마가 과거에 황궁에서 시녀로 일했단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황제 폐하가 레아의 친아버지란 걸 눈치챌 리가 없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일이라고 할 게 뻔했다.

그럼 우나타로 돌아간 후 레아만 입을 조심하고 황궁에 간 이유는 그럴듯하게 잘 둘러대면 그만이었다. 레아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나타로 돌아가도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일은 없을 것 같았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진 모르겠지만, 우나타에서 전 안전하게 잘 살았고 모두가 제 가족 같으신 분들이셨어요. 목숨이 위험할 일 같은 거 생길 리가 없어요.”

“딸. 세상에는 우나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란다.”

“굳이 다른 곳에서 제 목숨을 위협할 일이 있을까요? 전 평범하게 빵 구우면서 착하게 살았는데요.”

평범한 평민인데 굳이 다른 지역에서 누군가 목숨을 노릴 일이 있을 리가 없었다. 그러나 황제 폐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네가 평범한 평민일 때의 일이고. 레아 넌 이제 내 딸이란 사실을 알고 있잖아. 거기다 우나타 사람들도 네가 친부 때문에 황궁으로 온 걸 알고 있는데 당연히 모두가 친부의 정체를 궁금해하겠지. 아무리 네가 숨기려고 해도 황궁에서 마차가 갔단 소문은 우나타를 넘어 아마 전국에 퍼질 거야.”

레아는 잠시 잊고 있는 것 같았지만 이곳은 황궁 그리고 마차를 보낸 사람은 제국의 군주인 레그마인 황제였다. 안 그래도 신비주의에 알려진 정보도 적은 황제 폐하께서 작은 시골 마을인 우나타에 마차를 보내 평범한 소녀를 초대했다는 건 누구나 놀랄 정도로 엄청난 일이었다.

당연히 얼마 안 가서 소문이 쫙 퍼질 것이었고 그렇게 소문이 퍼지다 보면 분명 레아가 사실은 레그마인 황제의 딸이란 사실도 밝혀질 것이었다. 레아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이다.

“거기다 넌 신기할 정도로 날 아주 많이 닮았어. 언제까지 우리가 가족이란 걸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해?”

“……….”

“길어야 3달. 그 이상 숨기는 건 불가능해.”

레아가 황제 폐하의 딸이란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과연 사실을 알기 전처럼 레아와 웃으면서 편하게 이야기하고 친하게 지내줄까? 솔직히 레아도 가족만큼 가까웠던 소중한 사람들을 전과 똑같이 대할 수 없을 거 같았다. 그렇다고 태도가 변한 사람들 사이에서 잘 지낼 자신도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황제의 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우나타는 순식간에 시끄러워질 것이었다. 아무리 지위를 포기했다고 해도 정말 레아의 목숨을 노리는 이가 나타날지도 몰랐다.

“그래도 정신이 제대로 나간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널 건드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죽은 이후 새로운 이가 황제가 되면 넌 그때부터 매일매일 1분 1초마다 목숨이 위험해지겠지. 내 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현재 레그마인 황제는 결혼은커녕 그 흔한 약혼자도 없는 상태였다. 그렇다면 그가 죽고 난 후 황제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었고 황제가 되자마자 그는 레그마인 황제의 핏줄인 레아를 찾아 제거하려고 할 것이었다. 새로운 황제에게 레아는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든 살아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폭탄 같은 존재였다.

사실 그건 레그마인 황제가 레아를 황궁으로 부르지 않았어도 당연히 일어날 일이었다. 레그마인 황제에게 부인이나 애인이 없었기에 오히려 숨겨둔 여자나 아이가 있을까 봐 더 샅샅이 전국을 뒤질 것이었다. 그리고 레아를 찾아내서 어떻게 해서든 죽였을 것이었다.

“우나타에서 잘살고 있는 널 굳이 황궁으로 불러서 모든 사실을 알려준 이유는 아빠로서 널 보호하기 위해서야. 내 딸로서 황녀로 산다면 내가 죽고 나서도 널 보호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야. 하지만 네가 그게 싫다면 그 선택을 존중해.”

“그러니까 지금 제게 선택권은 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래. 네 인생이니까 선택은 네가 해.”

“우와….”

황제 폐하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레아는 황당하기만 했다. 지금 폐하께서는 레아에게 우나타에서 불편한 시선 속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황궁에서 보호받으면서 살 것인지 선택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었다.

‘이건 황궁에서 사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나한테 직접 선택하라는 거잖아! 저런 사람이 내 친부라니….’

원래 친부는 좋은 사람일 리가 없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황제 폐하의 행동에 레아는 저런 사람이 친부란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엄마는 분명 레아는 성격도 그 사람과 닮았다고 했는데 레아는 그 말을 100번은 부정하고 싶었다.

왜…왜 엄마는 좋아해도 저런 사람을 좋아하고 아이까지 가진 걸까? 레아는 속으로 작년에 돌아가신 엄마를 원망했지만,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황제 폐하께서는 다정하게 웃으며 말씀하셨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 사랑하는 내 딸. 레아 더 다닐로만.”

5.내 딸은 야생화랍니다.docx

알현실에서 황제 폐하께 모든 비밀과 협박에 가까운 이야기를 듣고 레아는 결국 어쩔 수 없이 황궁에서 황녀로 사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다. 아무리 황제 폐하가 싫어도 죽는 것보단 나았으니까.

그래도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는 혹여나 레아가 몰래 도망이라도 갈까 봐 걱정되시는 건지 첫날부터 제국의 최연소 소드마스터라는 라이 경을 호위로 붙여주셨다. 넓은 다닐로만 제국에서 다섯 명밖에 없는 소드마스터를 호위로 붙여주셨다는 건 말하지 않아도 도망갈 생각은 하지도 말라는 암묵적인 뜻이었다.

‘내 친부라는 사람은 참….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이네.’

아무리 딸이라고 해도 그동안 존재도 모르고 살다가 작년에서야 알게 된 레아를 이렇게까지 황궁에 묶어둘 필요가 있었을까. 16살이 될 때까지 레아는 아무 문제 없이 잘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다.

레아는 라이 경이 안내해주는 방으로 들어가며 한숨을 푹 쉬었다. 일단 이곳에서 살기로 결정은 했지만,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상상이 안 가서 걱정이 태산이었다.

“앞으로 이 방이 황녀님의 침실이 될 겁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다면 시녀를 불러 말씀하시면 됩니다.”

“알았어요. 근데 라이 경.”

“네.”

“그 황녀님이란 호칭 안 쓰면 안 될까요?”

황궁에서 황녀로 살기로 한 지 30분도 되지 않았는데 황녀님이란 호칭이 불편하지 않을 리가 없었다. 이게 금방 적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레아는 좀 천천히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레아에게 그런 시간을 줄 리가 없었다.

“안 됩니다. 레아 황녀님께선 현재 황제 폐하의 유일한 가족이자 따님이십니다. 다른 호칭을 쓸 수는 없습니다.”

“알현실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만 해도 휘틀리 님이라고 잘만 불렀잖아요.”

“그땐 황녀님께서 황녀로 사는 걸 선택하시기 전이셨지 않습니까.”

원래 황궁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건가? 방금까지 웃으면서 자신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던 황제 폐하의 모습과 지금 아무 표정 없이 무뚝뚝하게 말하는 라이 경 때문에 레아는 기분이 나빴다.

그렇게 레아에게 황실과 황궁 사람들의 이미지는 최악! 그것도 도저히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곤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레아는 황궁의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기 시작했다.

“방이 엄청나게 화려하네요.”

“3개월 전부터 폐하께서 황녀님을 위해 준비하신 방입니다.”

“저 화려한 거 싫어하는데. 제 취향은 아니네요.”

“마음에 안 드신다면 황녀님이 원하시는 대로 즉시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됐어요. 여기 가구 하나 가격이 누구는 1년은 풍족하게 먹고살 정도일 거 같은데 너무 낭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레아 나름으로 소심한 복수였다. 비록 레아가 아무리 툴툴거리며 불만을 토로해도 라이 경은 미동도 없었지만 말이다.

‘근데 진짜 죄다 최고급 중에서도 최고급으로 방을 채우셨네. 너무 사치스러운 거 아니야?’

사실 취향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누가 봐도 좋은 나무로 만든 최고급 가구들은 레아에게 부담스러웠다. 하얀색과 하늘색이 적절하게 섞여서 반짝반짝 꾸며진 방은 너무 예뻤지만, 왠지 불편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할 것 같았다.

이런 호화스럽다 못해 사치스럽기 짝이 없는 방이 이제부터 내 방이라니. 어쩐지 레아는 벌써 우나타에서의 소박했지만, 행복했던 삶이 그리워졌다.

‘일단 나탈리 이모한테 연락부터 해봐야겠지. 내 느낌상 이미 이모도 어느 정도는 예상했을 거 같지만.’

확실한 건 아니지만 나탈리 이모는 레아가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와 절친한 친구였고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는 레아의 보호자였으니 레아가 황제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확률이 높았다. 일단 나탈리 이모는 어떻게 해서든 레아가 황궁으로 가지 않길 바랐으니 말이다.

아마 레아가 마차에 올랐을 때부터 나탈리 이모는 레아가 다시 우나타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미안하다고 말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레아는 한숨을 쉬며 연락구슬을 꺼냈다.

‘근데 이 상황을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 나탈리 이모 분명 엄청 화내겠지.’

이미 모든 걸 알고 충분히 예상했다고 해도 레아는 걱정이 되었고 정말 조카처럼 레아를 예뻐해 줬던 나탈리 이모였기에 더 신경이 쓰였다. 나탈리 이모뿐만 아니라 브로디 아저씨와 자신에게 사랑을 듬뿍 주었던 이웃들을 이젠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레아는 슬펐다. 마지막 인사도 못 했는데 예상도 못 했던 갑작스러운 이별이었다.

그래도 연락구슬이 있으니 너무 그리울 땐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레아는 연락구슬로 나탈리 이모에게 연락을 넣었고 얼마 안 있어 이모는 곧바로 전화를 받았다.

[레아!]

“나탈리 이모!”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마을 사람들 다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사람들이 몰려와서 오늘 장사를 못 할 정도였다니까.]

“하하. 그래요…?”

[일단 나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고 다 돌려보냈어. 근데 레아. 넌 좀 괜찮은 거야?]

“그게 이모. 사실은 제가….”

나탈리 이모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레아는 입을 때기가 어려웠다. 이모가 뭐라고 반응할지 뻔해서 망설여졌고 아직은 자신이 황제 폐하의 딸이란 사실이 입에 쉽게 담기지 않았다. 그러자 머뭇거리는 레아를 대신해 나탈리 이모는 먼저 입을 열어주었다.

[괜찮아. 레아. 네가 다시 우나타로 못 돌아올 거란 건 알고 있었어. 네 친부의 존재도.]

“이모….”

[미리 말 못 해줘서 미안해. 하지만 아리샤의 마지막 부탁이라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요?”

작년에 돌아가신 엄마가 나탈리 이모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있었다니. 레아는 그동안 자신만 모르고 있었던 게 참 많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네가 황제 폐하와 엮이지 않고 평범하게 살 수 있도록 널 지켜달라고 했었어. 하지만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하면서도 아리샤는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질 거란 걸 분명 알고 있었을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아무리 이런 일이 안 생기길 바랐다지만 그래도 저한테 귀띔 정도는 해주셨으면 좋았잖아요. 이게 평생 숨길 일도 아니고.”

[미안해. 난 네가 성인이 된 후에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어. 상대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국의 황제 폐하시다 보니….]

“사실 아직 좀 얼떨떨해요. 그렇게 싫어하고 원망했던 친부가 이렇게 높으신 분이셨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거기다 저렇게까지 성격이 이상할 사람일 줄도 몰랐다. 분명 엄마가 레아는 생긴 것부터 성격까지 친부와 판박이라고 해서 믿었는데 어쩐지 배신당한 기분이었다.

‘뭐, 그래도…생긴 게 판박이라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네.’

레아도 황제 폐하의 얼굴을 처음 보고 놀라서 당황할 정도였으니까. 하지만 이건 황제 폐하의 얼굴을 모르는 나탈리 이모는 알 수 없었다.

[그래도 이제 두 번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레아. 건강 하렴.]

“나탈리 이모도요. 혼자 너무 외로워하지 말고요.”

[내 걱정은 안 해도 돼. 넌 이제 네 생각만 해.]

“하하. 네. 알았어요.”

그래도 이제 레아가 없는 집에서 혼자 지내려면 많이 외로울 텐데. 나탈리 이모는 레아가 걱정할까 봐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고 덕분에 레아는 그걸 다 알면서도 한결 편해진 마음으로 연락을 마칠 수 있었다.

\*\*\*

레아가 알현실을 나가고 바로 이어서 가스파르 재상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지만, 레그마인 황제는 예상하였던 방문이었기에 놀라기는커녕 여유롭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주었다.

“재상. 왔어?”

“기분이 좋으신 거 같습니다. 폐하.”

“응. 아주 좋아. 근데 재상은 표정이 별로네.”

“네. 당연히 별로겠죠.”

레아가 마차에서 내린 후부터 황궁 안 모두가 황제의 사생아라고 수군거리고 있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다. 그런데 정작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쓴다는 듯 신이 나 있으셨다.

“재상도 봤어? 나랑 완전 똑같이 생겼지 않아? 내 딸이니까 당연히 제국에서 제일 예쁘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생각보다 더 예쁘고 사랑스러워. 아직 16살이니까 크면서 더 예뻐질 건데 그럼 너도나도 다 좋다고 달라붙으면 어떡하지?”

확실히 황녀님은 황제 폐하를 닮아서 미녀이긴 했지만. 지금은 그 미모에 감탄할 때가 아니었다.

“지금 황궁이 레아 황녀님 때문에 떠들썩해졌습니다. 모두가 폐하의 사생아라고 떠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 우리 딸 인기 많네.”

“이게 그냥 웃고 넘길 일입니까? 이러다 황궁 밖으로 소문이라도 나서 안 그래도 말하기 좋아하는 부인들 귀에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귀족들 사이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떠들고 다니겠지.”

만약 레아가 그냥 사생아였다면 가스파르 재상도 이렇게까지 걱정하진 않았을 것이었다. 하지만 레아의 친모인 아리샤는 황궁의 시녀였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었다.

‘아니. 차라리 그냥 평범한 시녀였다면 나았겠지. 하필이면 선황께서 죽였던 사람의 딸이랑 사랑에 빠졌냐고!’

세상은 넓고 좋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는 건데 레그마인 황제 폐하와 아리샤라는 시녀는 왜 서로 사랑하게 된 걸까. 그것만으로도 머리가 아픈데 심지어 그 여자가 황녀님을 임신했을 때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는 18살이셨다니. 귀족 부인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먹잇감도 없을 것이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무슨 수를 써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절대 황궁 외에선 황녀님에 관한 이야기가 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왜? 좀 떠들고 다니면 안 되나?”

“당연히 안 되죠! 좋은 이야기도 아닌데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폐하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숨길 수 있는 건 최대한 숨겨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전부 사실이잖아. 그리고 나에게 레아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난 사랑스러운 내 딸을 숨길 마음이 없는데?”

원래 제멋대로 고집불통이라 말이 통하지 않는 레그마인 황제 폐하셨지만, 유독 황녀님에 관한 일이라면 가스파르 재상은 마치 벽을 보고 말을 하는 것 같아 속이 터질 거 같았다. 그래도 똑똑하시고 할 때는 일도 잘하시는 황제 폐하셨는데 왜 딸의 일이라면 저러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재상은 정말이지 울고만 싶었다.

하지만 이건 황제 폐하만의 일이 아니었기에 물러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소문이 퍼지다 보면 레그마인 황제 폐하뿐만 아니라 다닐로만 제국 자체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일이었다.

“폐하. 이건 단순히 폐하만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퍼지고 남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건 레아 황녀님도 원하시지 않을 겁니다!”

“레아가?”

분명 방금까지만 해도 가스파르 재상이 뭐라고 떠들든 신경도 쓰지 않던 레그마인 황제 폐하셨는데 레아 황녀님의 이름이 나오자 그는 아까완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가스파르 재상은 그걸 놓치지 않고 그쪽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

“네. 분명 황녀님께서도 싫어하실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황궁으로 오게 됐는데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면 상처받으시겠죠. 분명 누군가 자신을 사생아라고 떠드는 소리를 들으면 혼자 방에 틀어박혀서 눈물을 흘리실지도 모릅니다. 황녀님은 아직 작고 여린 소녀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남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대놓고 사생아란 소리를 들으면 누구나 상처받을 것이었다. 그런데 그런 가스파르 재상의 말에 레그마인 황제는 묘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내 딸이 혼자 방에 틀어박혀서 울 거라고?”

“황녀님은 아직 16살에 꽃 같은 여린 소녀십니다. 당연히 상처받으시겠죠.”

“그래. 내 딸은 꽃처럼 예쁘고 당연히 상처도 받겠지.”

“네! 그러니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떠드는 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 결국 황녀님의 여린 마음만 상처투성이가 될 겁니다!”

“그래. 알았어. 우리 레아가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여전히 의미심장하게 웃는 황제 폐하의 얼굴이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말이 통하니 가스파르 재상은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자신의 딸이 상처받는다는 말에 황제 폐하께서 이렇게 쉽게 말을 들어주실 줄은 상상도 못 했다.

‘우연이겠지? 그래도 신기하군. 황제 폐하께서 이렇게 빨리 내 말을 들어주시다니. 딸이 생겨서 그렇게 기분이 좋으신 건가? 대체 그 아이가 뭐길래?’

혹시 레아 황녀님께 특별한 능력이라도 있는 건가? 가스파르 재상은 속으로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신기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가스파르 재상. 혹시 그거 알아?”

“무엇 말입니까?”

“레아는 내 딸이야. 날 아주 많이 닮았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성격도 날 닮은 거 같아. 지는 걸 싫어하는 거 같더라고. 그 모습도 귀엽고 사랑스럽지.”

자신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반박할 수가 없어 분해하는 레아의 모습이 떠올라 레그마인 황제는 피식 웃었다. 그러나 가스파르 재상은 황제 폐하께서 왜 자신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냥 예쁜 딸 자랑을 하는 건가 싶기도 했다.

“내 딸은 날 닮았어.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아도 절대 혼자 틀어박혀서 울 애가 아니라고.”

“하지만 황녀님은 아직 16살 소녀십니다. 거기다 낯선 황궁에서는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가스파르 재상. 내 딸은 꽃이야.”

“네. 꽃처럼 예쁘고 다치기 쉬운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시겠죠.”

“그건 온실 속 화초고. 내 딸은 야생화야.”

갑자기 딸에게 야생화라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 재상은 가만히 있었다. 그런 재상을 보며 레그마인 황제는 웃는 얼굴로 말했다.

“아무리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씩씩하게 아무에게도 지지 않고 결국은 예쁘게 필 거야. 그리고 날 닮았으니까….”

“?”

“누가 상처를 주고 기분 나쁜 소리를 한다면 아마 제대로 엿 먹이지 않을까?”

“……….”

분명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시고 있으셨지만, 가스파르 재상은 소름이 돋았다. 황녀님이 정말 폐하를 닮았다면 진짜 그럴 것 같아서 불안한 것도 있었지만, 황제 폐하의 웃는 얼굴에서 살기를 느꼈기 때문이었다.

아마 누군가가 레아 황녀님을 건드린다면 황제 폐하께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신의 딸을 건든 상대를 조져버릴 것이었다. 가스파르 재상은 벌써 그 일의 뒷수습이 걱정되었다.

‘어쩌면 레아 황녀님은…내 생각보다 더 대단한 분이실지도 모르겠어.’

6.여자들도 예쁜 여자 좋아합니다.docx

레그마인 황제에게 레아는 세상에 단 한 송이밖에 없는 꽃 같은 존재였다. 꾸미지 않아도 아름답고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지는 그런 존재. 그래서 누군가 그 소중한 꽃에 상처를 내거나 밟아 버리려고 한다면 레그마인 황제는 그 사람을 아주 제대로 조져버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황제인 자신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차게 할 말을 하는 레아의 모습에 황제는 굳이 자신이 나설 필요도 없겠다고 생각했다. 야생화처럼 밝고 당찬 씩씩한 레아는 무례한 상대에겐 제대로 엿을 먹일 것이었다.

하지만 레그마인 황제도 지금 레아가 시녀들에 의해 어떤 짓을 당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아마 이런 건 상상도 못 했을 것이었다.

\*\*\*

“어떡해요! 황녀님. 너무 예쁘세요!”

“역시 피부가 하야셔서 그런지 색이 다 잘 받으세요!”

“다음에는 좀 더 화려한 드레스를 입어보시는 건 어떠세요?”

“화려한 드레스면 목걸이는 루비가 박힌 이 목걸이가 어울리실 거 같아요! 레아 황녀님. 마음에 드세요?”

“제 생각에는 루비보다 에메랄드가 어울리지 않을까요? 레아 황녀님께서는 눈동자가 꼭 에메랄드 같잖아요.”

옆에서 쉴 틈 없이 꺅꺅 소리를 지르며 레아의 미모를 칭찬하며 시녀들은 레아를 꾸미는 일에 즐거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시녀들 틈에서 레아는 좀 얼떨떨해하고 있었다.

‘솔직히 시녀들은 나 싫어할 줄 알았는데. 막 시녀의 딸인데 기분 나쁘다고….’

레아는 황궁에서 자신의 존재를 환영하는 사람은 황제 폐하뿐일 것으로 생각했다. 모두에게 미운털이 박혔겠지만, 그중에서도 시녀들이 제일 레아를 싫어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다.

어쨌든 레아는 시녀의 딸이었고 그런 레아를 황녀로서 모셔야 한다는 게 사실 시녀들에겐 싫은 일에 가까웠다. 그래서 레아는 혹시라도 대놓고 자신을 무시하고 짜증이 나게 굴면 어떻게 대처할지만 열심히 생각하며 절대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었다.

하지만 이게 웬걸? 시녀들은 오히려 레아의 존재를 환영해주고 있었다.

“처음 황녀님이 마차에서 내리셨을 때 저희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선황후께서 폐하를 낳으시면서 돌아가신 후로 황족이 태어나지 않아 드레스며 보석들이며 다 장식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레아 황녀님처럼 사랑스러운 분의 시중을 들 수 있어서 저희는 영광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귀족의 저택에서 일하는 시녀들은 항상 아가씨들의 머리를 정돈해주고 예쁜 옷과 보석으로 꾸며드리는데 그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시녀들은 항상 단정하고 깔끔해야 해서 꾸미지도 못하고 칙칙한 시녀복만 입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꾸며드리면서 대리만족하는 친구들이 부러웠는데 이제는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그 어떤 가문의 아가씨들보다 황녀님이 훨씬, 훨씬 더 예쁘세요!”

“하하. 고, 고마워요.”

뭔가 인형 놀이를 당하는 기분이었지만, 저렇게 좋아하니 레아는 잠자코 가만히 있어 주었다. 사실 이제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시간 보내기에도 나쁘지 않았고 무엇보다 시녀들의 수다에서 레아는 새로운 정보를 얻기도 했다.

“선황후께서는 황제 폐하를 낳으시고 돌아가셨나요?”

“네. 저도 선배들을 통해 듣기만 했지만, 레그마인 황제 폐하를 낳으시고 이틀 후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

태어날 때부터 우나타에서 쭉 자란 레아는 제대로 아카데미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지만, 손님 중에 아카데미 교수 출신이신 루이 할아버지 덕분에 간단한 역사 정도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선황후께서 일찍 서거하셨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게 황제 폐하를 낳고 얼마 후란 건 모르던 사실이었다.

레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어주며 빤히 바라보자 그 시녀는 조금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혔다. 하지만 기분은 좋아 시녀는 레아가 묻지도 않은 걸 줄줄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선황제 폐하와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는 사이가 별로 안 좋으셨다고 해요. 선황제께선 폐하께 관심도 없으셨고 아직 어리셨던 황제 폐하께선 정말 외롭게 성장하셨다고 들었어요. 아마도 그러다 황녀님의 어머니이신 아리샤 님을 만나셨던 거 같아요.”

“어? 엄마에 대해서도 아시나요?”

“그럼요. 저는 할머니 때부터 지금까지 집안 여자들이 모두 황궁 시녀 출신이라 황궁에 있으셨던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특히 아리샤 님은 저희 어머니의 후배셨다고 들었어요.”

“신기하네요. 전 엄마가 시녀였다는 것도 몰랐었는데.”

그렇다면 이 시녀는 레아가 모르는 엄마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을까? 레아는 아까보다 더 반짝반짝한 눈으로 시녀를 바라보았다.

“혹시 저희 엄마에 대해 들으신 얘기 있으세요? 아주 작고 사소한 얘기라도 좋아요. 듣고 싶어요.”

“아…죄송해요. 황녀님. 지금 당장 특별하게 기억나는 얘기는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게 왜 죄송할 일이에요. 괜찮아요.”

레아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 모습에 시녀는 과거 어머니의 말을 건성건성 들은 자신을 원망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또 지겨운 얘기 한다고 대충 듣지 말고 좀 제대로 들을걸!

‘앞으로 옛날얘기는 무조건 열심히 듣고 다 기억해야지! 아아, 모처럼 황녀님과 가까워질 기회였는데!’

레아에게 말하진 않았지만, 사실 시녀들은 모두 레아와 친해지고 싶어 하고 있었다. 아가씨를 모시는 다른 시녀 중 유난히 아가씨와 가까운 시녀들은 둘만의 비밀을 만든다든가 친구처럼 지내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던데 시녀들은 대부분 레아와 그런 사이가 되고 싶어 했다.

레아가 황녀이기 때문에 나름의 권력을 쥐고 싶어서도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것보단 예쁘고 사랑스러운 레아와 친해지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이었다.

“짠! 다 됐어요. 황녀님. 예쁘세요.”

“지금도 예쁘시지만 여기서 머리를 더 기르셔서 땋으셔도 사랑스러우실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름이 오고 날이 더워졌을 때 짧게 자르셔도 귀여우시지 않을까요?”

“레아 황녀님은 뭐든 잘 어울리실 거예요. 저는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확실히 황녀님은 예쁘시니까요.”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예쁘다, 예쁘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란 레아였지만, 자신과 네다섯 살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시녀들이 쉬지 않고 해주는 예쁘다는 칭찬에 좀 부끄러웠다. 하지만 이왕 들은 예쁘단 칭찬이 싫지는 않았다.

그렇게 시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누군가 방문을 똑똑 두드렸다. 레아가 들어오라고 하자 문을 열고 라이 경이 방안으로 들어왔다.

“황녀님. 곧 황제 폐하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실 시간입니다.”

“아, 저녁 식사요?”

“폐하께서 황녀님을 위해 특별히 시간을 내신 겁니다.”

“굳이 그러실 필요까지야….”

바쁘면 그냥 혼자 밥 먹어도 상관없는데.

친부인 레그마인 황제 폐하를 좋아하지도 않고 편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레아였기에 일부러 시간을 냈다는 말이 고맙고 반가울 리가 없었다. 솔직히 레아는 그 식사자리에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았다.

“그럼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알았어요. 금방 나갈게요.”

하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가기 싫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레아는 어쩔 수 없이 알았다고 대답했고 라이 경이 방을 나가자마자 한숨을 쉬었다.

“황녀님. 왜 그러세요?”

“그냥…. 갑자기 제 생활이 너무 많이 변한 거 같아서요.”

원래 우나타에서 이 시간이었으면 레아는 나탈리 이모와 함께 저녁 메뉴를 고르고 요리를 하고 있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레아는 호화로운 방에서 시녀들에게 둘러싸여 예쁜 드레스를 입고 비싼 보석으로 장식된 액세서리를 하고 있었다. 거기다 제국 최연소 소드마스터인 기사까지 레아가 준비가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니. 상상도 못 했던 일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친부를 만나게 될 줄도 몰랐는데 그 친부가 제국의 황제 폐하였다니. 사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그래도 좋지 않으세요? 이제 황녀님은 뭐든 마음만 먹으면 가지고 싶은 것도 다 가지실 수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워요.”

지금 레아가 가장 하고 싶은 건 아무것도 몰랐던 때로 돌아가 편하게 사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건 아무리 황녀라고 해도 불가능한 일이었고 이제는 두 번 다시 우나타로 돌아가지 못할 게 뻔했다.

“레아 황녀님. 이제 다 됐는데 거울 보시겠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밖에서 라이 경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심플한 하늘색 드레스에 맞게 다이아몬드가 박힌 머리핀으로 묶은 머리를 고정했어요. 잘 어울리세요.”

“맞아요. 황녀님. 예쁘세요!”

“하하. 고마워요.”

지겹지도 않은지 여전히 레아에게 예쁘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 시녀들이 귀여워서 레아는 작게 웃었다.

‘꼭 병아리 같아.’

분명 시녀들이 레아보다 더 나이가 많을 것이었지만, 레아는 그렇게 느꼈다. 시녀들은 그런 레아를 보며 웃으니까 더 사랑스러우시다고 생각했다. 같은 여자면서 예쁜 여자를 보며 설레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었다.

마음 같아서는 레아도 이 병아리같이 귀여운 시녀들과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라이 경 때문에 이제 정말 나갈 수밖에 없었다. 황제 폐하와의 저녁 식사자리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레아는 시녀들이 열어준 문을 나와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라이 경에게로 다가갔다.

“라이 경. 많이 기다렸죠?”

“아닙니다.”

“제 머리가 그렇게 긴 머리도 아닌데 시녀들이 예쁘게 꾸며준다고 오래 걸렸어요. 미안해요.”

“제게 미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황녀님께선 제게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시니까요.”

“네? 하지만 저 때문에 복도에서 기다리셨잖아요.”

“레아 황녀님께서는 저를 이틀이나 복도에서 기다리게 했어도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황녀님은 황궁에서 그 누구에게도 사과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황제의 친딸이고 황녀라고 해도 다른 사람을 오래 기다리게 했으면 예의상이라도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어쩐지 레아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황녀는 다른 사람에게 사과하고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해도 저는 앞으로도 쭉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면 미안하다고 할 거고 고마우면 고맙다고 말할 거예요. 사실 왜 황녀는 그런 사소하지만, 꼭 해야 하는 표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건지도 모르겠지만요.”

원해서 황녀가 된 것도 아닌데 이제는 말도 맘대로 못하게 하면 레아는 서러울 거 같았다. 그런 레아의 말에 라이 경은 잠깐 말이 없더니 곧 이렇게 말했다.

“황제 폐하께서 기다리십니다. 어서 가시죠.”

“네? 네….”

그 이후로 라이 경은 아무런 말이 없었고 레아 역시 아무런 말 없이 라이 경의 뒤를 졸졸 따라갔다.

\*\*\*

“레아는 왜 오지 않는 거지?”

“아까 라이 경이 직접 모시러 갔으니 곧 오실 겁니다.”

“음식은 모두 내가 말한 대로 제대로 준비했겠지?”

“물론입니다. 주방장의 영혼을 담은 요리들로 준비했습니다.”

“레아가 좋아해 줘야 할 텐데.”

커다란 식탁에 앉아 조금은 떨리고 초조한 마음으로 딸을 기다리고 있는 레그마인 황제의 모습을 보며 피에르 시종장은 잔잔한 웃음을 띠었다. 폐하께서 아기이실 때부터 선황제의 밑에서 일하며 옆에서 그를 봐온 시종장도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았다.

“폐하께서 특별히 신경 쓰신 만큼 황녀님도 분명 좋아해 주실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디저트가 걱정이야. 과연 좋아해 줄까?”

“우나타에서 직접 빵집을 운영하셨다니 케이크를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맛없다고 자기가 직접 굽겠다고 주방으로 가진 않겠지?”

“하하.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들인 라이 경에게 듣기로는 황녀님은 우나타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빵집을 운영하셨다고 했지만 아무리 그곳에서는 맛있다고 소문이 났어도 제국 최고의 실력자들인 황궁 파티시에보다 케이크를 잘 구우실 리가 없었다. 하지만 피에르 시종장은 그런 걱정을 할 수 있는 레그마인 황제 폐하가 조금 부럽기는 했다.

‘나는 늦은 나이에 뻣뻣하고 무뚝뚝한 아들놈 하나 겨우 얻었는데. 예쁜 딸이라니. 살면서 레그마인 황제 폐하가 부럽기는 또 처음이군.’

물론 잘생기고 어린 나이에 소드마스터라는 경지에 오른 아들이 자랑스럽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워낙 무뚝뚝하고 재미도 없는 라이 경인지라 피에르 시종장은 언제나 딸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했었다.

그런데 가족 없이 늘 외로웠던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 폐하를 쏙 빼닮은 예쁜 딸이 생길 줄은 정말 상상도 못 했다. 시종장은 아직 그 소문의 황녀님을 실제로 보지 못 했지만, 레그마인 황제 폐하가 참 부러웠다. 이제 자신은 딸이 아니라 손녀를 보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하며 피에르 시종장은 그냥 잘생긴 아들을 장가나 빨리 보낼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순간 문이 열렸고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왔다.

한 사람은 아들인 라이 경이었고 옆에 귀여운 드레스를 입은 사람이 황제 폐하의 딸인 레아 황녀님인 듯했다.

“레아!”

“존경하는 황제 폐하를 뵙습니다.”

“딸이 아빠한테 그런 딱딱한 인사할 필요 없다니까.”

레그마인 황제 폐하는 반가운 듯 손을 흔들었고 레아 황녀님은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있었다. 그 모습에 황제 폐하께서는 투덜거리셨지만, 황녀님은 못 들은 척하며 라이 경이 빼준 의자에 조금은 어색하게 앉았다.

‘평민 출신이시라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기본예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거 같군. 저런 건 다 황녀님의 친모가 알려준 걸까?’

생각보다 많이 기죽지도 않았고 조금은 긴장한 듯했지만, 삐거덕거리지도 않는 그 모습에 피에르 시종장은 속으로 감탄했지만, 사실 제일 놀라운 점은 다른 부분이었다.

‘귀여우시다고 듣기는 했지만…드레스를 입고 예쁘게 꾸미시니 정말 사랑스러우시군. 꼭 요정을 보고 있는 것 같아.’

팔랑이는 하늘색 드레스에 꼭 보석을 박아놓은 것 같은 눈동자에 깔끔하게 묶은 머리로 드러난 얼굴은 어디 하나 예쁘지 않은 부분이 없었다. 거기다 조금은 어색하고 긴장한듯한 모습이 귀여워서 시종장은 저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나에게도 저런 딸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중에라도 저런 손녀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피에르 시종장은 문득 레아 황녀님 옆에 있는 제 아들이 눈에 들어왔다. 키도 크고 인물도 훤한 데다 제국의 최연소 소드마스터인 아들은 어디 하나 꿀리는 구석이 없었고 그의 옆에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황녀님이 있었다.

‘잘 어울리는 한 쌍인 거 같은데…. 정말 레아 황녀님 같은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좋겠군.’

사실 시종장은 황녀님이 자신의 며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차마 그 생각은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었다.

7.관심 없는 사람.docx

‘까만 머리에 까만 눈. 라이 경이랑 똑같아. 그래서 그런가? 좀 닮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식탁에 앉아 레그마인 황제 폐하 옆에 서 있는 노신사를 보며 레아는 그렇게 생각했다. 까만 머리에 까만 눈동자를 가진 그 노신사는 레아를 보며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황금빛 머리카락이나 초록색 눈 만큼은 아니어도 까만색도 흔한 색은 아닌데. 어쩌면 가족일지도 모르겠네. 아버지치곤 나이가 많으신 거 같고…. 큰아버지인가?’

저 노신사도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날카로운 느낌의 라이 경과 달리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이었지만 두 사람은 확실히 닮기는 닮았었다. 그것도 레아와 레그마인 황제 폐하 정도는 아니었지만 말이다.

“이제 나가봐. 둘이서 편하게 식사하고 싶어.”

“네. 알겠습니다. 폐하.”

“라이 경도.”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황제 폐하께서는 편하게 식사하고 싶다고 했고 까만 머리에 까만 눈동자를 가진 두 남자는 밖으로 나갔다. 두 사람이 나가자마자 황제 폐하께서는 레아를 빤히 바라보다 씩 웃으며 말씀하셨다.

“그 드레스 옛날에 내가 아리샤한테 주려고 맞췄던 건데. 갑자기 말도 없이 떠나서 결국 주지는 못했지만.”

“엄마한테요?”

“응. 그리고 그 머리 장식은 선황후셨던 내 어머니께서 선물로 받으셨던 거라고 들었어. 잘 어울리네. 내 딸이지만 어쩜 이렇게 예쁠까?”

“……….”

아까 시녀들이 예쁘다고 칭찬해줬을 땐 그 모습이 귀여워 보이고 기분이 좋았는데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예쁘다고 해주시니 어쩐지 레아는 전혀 기쁘지 않았다. 기쁘다기보단 뭔가 기분이 묘했다.

‘나는 폐하와 똑같이 생긴 얼굴을 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돌려서 자기 잘생겼다고 자랑하시는 건가?’

물론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는 돌려서 자랑할 성격은 아니신 것 같았다. 자랑하려면 대놓고 팍팍할 성격이시란 건 이미 눈치채고 있었지만, 레아는 자꾸 황제 폐하의 말을 꼬아서 듣게 되고 폐하께서 뭘 하시던 싫을 것 같았다. 현재로선 레아에게 레그마인 황제 폐하가 그다지 좋은 이미지로 다가오지 않았다.

“레아. 혹시 편식해? 안 먹는 음식 있어?”

“네. 저 편식 엄청 많이 해요. 입도 짧고.”

“그래? 나도 아리샤도 가리는 음식은 딱히 없었는데.”

“모든 부분이 부모님을 닮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하긴. 그건 그렇지.”

사실 레아도 가리는 음식 없이 편식하지 않고 뭐든 잘 먹는 편이긴 했다. 하지만 레아는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 나쁜 아이처럼 보이고 싶었고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말한 것이었다. 레아는 황제 폐하께서 조금이라도 자신을 황녀로 들인 것을 후회하시기를 바랐다. 하지만 황제 폐하께서 레아가 원하는 반응을 보여주실 리가 없었다.

“그래. 먹기 싫은 건 억지로 먹을 필요 없어. 혹시 알레르기는 없어? 그런 거 있으면 미리 말해주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도록 해. 제국을 탈탈 털어서라도 먹게 해줄게.”

아, 이게 아닌데.

분명 편식은 좋지 않다고 잔소리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껏 편식하고 먹고 싶은 것만 먹으라는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말씀에 레아는 조금 당황했다. 그리고 레아가 당황하든 말든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는 웃는 얼굴로 레아를 다정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비즈니스적인 자리를 제외하고 누군가와 이렇게 마주 보고 앉아서 식사를 기다려보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심지어 상대는 자신과 똑 닮은 사랑스러운 딸이었으니 황제는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었다.

‘꼭 작은 다람쥐가 화를 내는 거 같아. 귀여워.’

어떻게든 반항하고 싶고 삐뚤게 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 않아 약올라 하기도 하고 자신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에 당황해하는 모습도 레그마인 황제의 눈에는 하나하나 다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귀여워 보였다. 부녀는 서로 마주 앉아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는 사이 첫 번째 음식이 식탁 위로 올라왔다.

“편식도 심하고 입이 짧다고 했어도 입맛에 잘 맞았으면 좋겠네. 맛있게 먹어.”

“잘 먹겠습니다.”

처음으로 나온 음식은 감자를 으깨서 만든 샐러드였다. 황제 폐하께 말만 그렇게 했지 사실 가리는 것 없이 다 잘 먹는 레아였지만, 감자는 특히 좋아하는 편이라 잘 먹을 수 있었다.

“걱정했는데 잘 먹네. 레아. 근데 입이 짧다고 하지 않았나?”

“크흠.”

“맛있지?”

“…네. 맛있네요.”

“다행이다.”

마음 같아서는 맛이 없다고 반찬 투정도 하고 깨작거리고 싶은데 그러기엔 황궁 주방장의 요리실력은 일품이었다. 레아는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앞이라는 사실도 잠시 잊고 한 그릇 뚝딱 깨끗하게 비웠다.

‘감자는 내가 좋아하는 거였으니까. 다음에 나올 음식은 아무리 맛있어도 무조건 별로라고 해야지. 절대 식사가 만족스러웠다는 느낌을 주지 않을 거야!’

레아는 일방적인 황제 폐하와의 기 싸움에서 절대 지고 싶지 않았다, 그런 레아를 보며 황제 폐하께선 속으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거 같다고 역시 내 딸! 이라고 생각했지만 말이다.

하지만 그렇게 굳게 다짐했던 게 무색할 정도로 두 번째로 나온 음식은 맛있게 잘 구워진 소고기 스테이크와 크림 스파게티였다. 레아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지만 자주 먹을 수 없는 비싼 음식들에 그만 눈이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걱정 많이 했는데 괜한 걱정이었어. 이렇게 잘 먹을 줄은 상상도 못 했는데. 레아. 만족스러운 식사였지?”

“………네.”

만족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로만 꽉꽉 채운 식사는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지금 먹고 있는 생크림 케이크와 홍차도 눈물이 날 정도로 맛있어서 레아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만족스러운 식사였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게 말하기가 싫었는지 분하다는 표정인 레아를 보며 레그마인 황제는 기분 좋게 웃었다. 레아가 저런 표정을 한다는 게 재밌기도 하고 귀여워서 황제는 자꾸 레아를 놀리고 싶었다. 하지만 너무 대놓고 자꾸 약 올리고 짜증나게 만들어서 미움받고 싶지는 않았기에 레그마인 황제는 딸을 놀리는 건 여기서 그만하기로 했다.

“레아. 아카데미를 다니고 있지 않다고 들었어. 하지만 오늘 보니까 황족으로서 갖춰야 할 예법 같은 건 완벽하지 않아도 흉내 정도는 낼 수 있는 거 같던데 누구한테 배웠지?”

맛있는 음식에 눈이 돌아가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레아는 식사예절에 대해선 알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레그마인 황제는 둘만 있을 땐 딱딱하게 굴지 말라고 했지만, 레아는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며 선을 넘지는 않았다.

그건 한 번도 황실 예법을 접한 적이 없는 평민 소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에 레그마인 황제는 누군가 가르쳐준 것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다.

“혹시 아리샤가 알려준 거야?”

“식탁예절은 엄마가 어릴 때 알려주셨어요. 예절이라고 가르쳐주셨다기보단 어릴 때 공주님 놀이를 할 때 공주님은 밥 먹을 때나 차를 마실 때 이렇게 해야 한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럼 다른 건? 아까 보니까 걸음걸이나 의자에 앉는 것도 생각보다는 자연스럽던데 그것도 아리샤한테 배운 거야?”

“아뇨. 그건 아까 시녀들이 알려줬어요. 이제 황녀님이니까 이런 건 최대한 빨리 배워서 몸에 익혀야 한다고.”

빨리 익히지 않으면 어디 가서 안 좋은 소리 들을지도 모른다고 아까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묶으면서 레아는 시녀들에게 족집게 강의들 들었었다. 우리 소중한 레아 황녀님이 어디 가서 무시 받으면 안 된다며 시녀들은 정말 열심히 알려주었었다.

“아까라면 알현실을 나가고 여기로 오기 전까지 그사이에?”

“네. 모두 상냥하고 친절하게 알려주었어요.”

“흐음.”

시녀의 딸이라고 미움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레아는 시녀들에게도 귀염받는 모양이었다.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미워하기도 힘들겠지. 근데 그 잠깐을 배우고도 곧잘 따라 하네. 완벽한 건 아니지만 습득력이 아주 빨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어.’

앞으로 황녀로서 살아가려면 좋든 싫든 예법처럼 꼭 익혀야 할 것들이 있었다. 특히 머리로 하는 공부는 어떻게든 하면 된다지만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것들은 이미 평민으로 10년 넘게 자란 레아에겐 너무 힘들지 않을까 레그마인 황제는 조금 걱정했었다. 그런데 남다른 습득력을 가지고 있고 기본 중의 기본은 이미 알고 있으니 굳이 배우지 않아도 될 거 같아 안심이었다.

‘정치와 역사 쪽으로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겠어. 그건 아리샤나 시녀들이 알려줄 수 없는 거니까.’

레아가 원하지 않는다면 레그마인 황제는 딸에게 황제 자리를 이어받으라고 강요할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황제의 딸이기 때문에 황녀는 어느 정도 정치와 역사에 대해 알고 있어야 했다.

“레아. 넌 정치에는 관심 없지?”

“네. 없습니다.”

“그래.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 하지만 기본적인 교육 정도는 받아줬으면 좋겠어. 한 번도 접한 적 없는 교육이라 배우고 싶지 않겠지만 역사와 정치는 황녀가 된 이상 필수인 부분이니까.”

“하기 싫다고 해도 시키실 거잖아요.”

“하하. 잘 아네.”

레그마인 황제도 레아가 하기 싫은 건 웬만하면 시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정치와 역사 공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레아가 하기 싫다고 해도 시킬 수밖에 없었다. 무식한 황녀라고 딸을 손가락질당하게 만들 수는 없었으니까. 다행히도 레아는 딱 거기까지만 말하고 안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하기 싫은 일은 곧 죽어도 하지 않는 자신과는 다른 딸의 모습에 레그마인 황제는 좀 신기하단 생각을 했다. 역시 레아는 아빠를 많이 닮았어도 엄마를 닮은 부분이 존재했다.

‘나와 아리샤를 닮은 아이. 이런 아이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

자신을 많이 닮은 모습도 좋았지만, 가끔 보이는 아리샤를 닮은 모습도 레그마인 황제는 좋았다. 이제는 그냥 아리샤가 남기고 간 선물인 레아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 소중한 게 아닐까 싶기도 했다.

“역사도 정치도 한번 시작하면 배워야 할 것도 많고 깊게 파고들어야 할 거야.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부분이잖아.”

“깊게는 아니더라도 역사는 3년 정도 배웠어요.”

“3년? 그건 또 누구한테?”

“리베르타 단골손님 중에 아카데미 교수 출신이신 분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가끔 공부를 봐주셨거든요. 아카데미 다니는 평민들 정도는 알고 있어요. 정치는 잘 모르지만, 책에서 조금 읽어본 적은 있어요.”

남들은 아카데미를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배우는 역사 지식을 레아는 핵심만 쏙쏙 뽑아서 다 배운 상태였다. 배울 때는 나중에 쓸 곳도 딱히 없는 지식을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치는 루이 할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었는데 그게 도움이 되는 날이 올 줄이야. 역시 뭐든 배워두면 손해는 안 본다고 생각하며 레아는 홍차를 한 모금 마셨다.

“너무 걱정하지는 마. 최고의 선생님을 구해줄 테니까. 마음 같아서는 내가 직접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러기엔 내가 좀 바빠서 말이야.”

만약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직접 공부를 가르쳐주신다고 했으면 레아는 정색하고 방문을 걸어 잠갔을 것이었다. 다른 선생님을 구해주겠다는 말에 레아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레아. 넌 아빠한테 궁금한 거 없니?”

“네. 없어요.”

“아니야. 분명 있을 거야.”

“없습니다.”

“에이,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봐.”

진짜 궁금한 거 하나도 없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물어봤다간 오늘 이 식사자리가 평생 끝날 거 같지가 않았다. 레아는 물어볼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다가 문득 아까 보았던 까만 머리에 까만 눈을 가진 노신사가 생각이 났다.

“아까 폐하와 같이 있었던 그 노신사분은 누구시죠?”

“피에르 시종장?”

“시종장님이시군요. 라이 경과 닮은 거 같아서 좀 놀랐어요.”

“당연히 닮았겠지. 부자 사이니까.”

“부자요?”

두 사람이 닮기는 했지만, 시종장님이 라이 경의 아버지라고? 그러기엔 나이가 좀 많아 보이셨는데 레아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내 아버지가 황제일 때부터 피에르 시종장은 시종장이었는데 그놈의 피바람 때문에 장가를 좀 늦게 갔어. 40대가 돼서야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으니 당연히 라이 경의 아버지로는 안 보이겠지. 거기다 황후 자리가 계속 공석이었으니 시종장은 정말 미치도록 바빴어.”

“그렇군요.”

황제의 비서나 다름없는 시종장이니 바쁘기는 아마 엄청 바빴을 것이었다. 피바람도 두 번이나 불었다니 레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레아. 혹시 너도 라이 경한테 관심 있니?”

“네? 갑자기 그건 왜요?”

“잘생겼잖아. 시녀들한테 인기 엄청 많다던데?”

“그래요?”

“요즘은 귀족 영애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나 봐.”

“뭐, 말씀대로 잘생겼으니까요.”

확실히 날카롭고 차가운 인상이기는 해도 라이 경은 잘생기긴 진짜 잘생긴 남자였다. 아까 시녀들도 조각상처럼 잘생긴 기사님의 호위를 받으시는 게 너무너무 부럽다고 했던 게 생각나서 레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그런 레아의 대답에 황제 폐하의 표정은 달라졌다.

“그래서 너도 관심이 있어? 잘생겨서?”

분명 아까처럼 웃는 얼굴이었지만, 뭔가 느낌이 다른 웃음이었다.

“별로 아무 생각 없는데요.”

“그래?”

“잘생겼다고 생각은 했는데 다른 부분은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아주 좋은 현상이야. 앞으로도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마.”

“?”

“관심도 주지 마. 아예 눈길도 주지 말고 말도 섞지 말고.”

우나타에 레아를 데리러 마차와 함께 온 것도 라이 경이었고 이제 라이 경은 레아의 호위기사이기도 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라이 경과 말도 섞지 말라는 폐하의 말씀에 레아는 어리둥절했다.

‘라이 경이 바람둥이처럼 끼 부리는 것도 아니고 눈길은 내가 아니라 그쪽에서 안 주고 있는 거 같은데. 당연히 관심도 없을 거고. 말을 섞는 게 싫으면 호위도 맡기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냐? 그리고 애초에 갑자기 저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또 뭘까.’

혹시 그렇게 안 보였는데 라이 경은 엄청난 바람둥이인가? 아니면 황제 폐하께서는 사실 라이 경을 매우 싫어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것도 아니면 이미 약혼녀가 있거나.

하지만 그게 어느 쪽이든 레아와는 별로 상관없었다. 바람둥이든 약혼자가 있든 레아는 라이 경을 이성으로 보고 있지도 않았고 지금까지는 라이 경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황제 폐하게서 라이 경을 싫어한다고 해도….

‘두 사람 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내가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지.’

8.너 엿 좀 먹어봐라.docx

레아가 황궁에 오고 일주일 후. 황제 폐하와 저녁 식사를 했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레아는 본격적으로 황녀로서 꼭 알아야 할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다.

“오늘부터 황녀님께 정치와 역사를 가르쳐드리게 된 가스파르 올리엘 재상이라고 합니다. 황녀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반가워요. 가스파르 재상.”

수업이 시작된 첫날. 레아는 예의 있게 말하고는 있지만 가스파르 재상의 진한 보라색 눈동자를 보고 단번에 눈치챌 수 있었다.

‘이 사람 날 싫어하고 있어.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눈에 보여.’

나탈리 이모와 똑같은 보라색 눈동자였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달라서 바로 알 수 있었다. 재상은 레아가 황녀가 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직접 정치와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는 점은 더 마음에 들지 않는 듯했다. 말만 예의 있게 했지 사실 표정은 완전 똥 씹은 표정이었다.

‘역시 이런 사람 한 명쯤은 나와줘야지. 어쩐지 다들 너무 환영해주는 분위기였다 싶었어.’

레아는 레그마인 황제 폐하와 시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다. 거기다 평민으로 오래 살았으니 황제 폐하의 나이까지 생각해본다면 환영하는 사람보다 가스파르 재상처럼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더 많은 게 당연했다. 그건 이미 알고 있었기에 레아는 재상의 시선을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재상도 알다시피 저는 많이 모자란 사람입니다. 부디 넓은 마음으로 좋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황녀님께 좋은 가르침을 드릴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노력해보겠습니다.”

“가스파르 재상은 다닐로만 제국의 재상이시니 분명 제게 좋은 선생님이 돼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황제 폐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아, 네. 뭐….”

천사처럼 방긋 웃으면서 말하고 있었지만, 레아의 말은 천사처럼 착하고 순한 뜻은 아니었다.

똑똑하니까 이 큰 제국에 재상씩이나 되는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충할 생각 말고 제대로 가르쳐라. 잘못 가르쳐서 황제 폐하 귀에 들어가면 알지? 알아서 잘해.

물론 레아가 100% 저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가스파르 재상의 귀에는 그렇게 들렸다.

‘누가 황제 폐하의 딸 아니랄까 봐 성격이 장난 아니군. 이거 고생이겠어.’

왜 황제 폐하께서는 굳이 나한테 황녀님의 공부를 맡기신 걸까. 가스파르 재상은 황녀님이 황제 폐하를 똑 닮아 성격도 더러울 거 같은데 과연 수업을 잘 따라올 수나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었다. 하지만 어찌 됐건 가스파르 재상은 레아 황녀님께 공부를 알려드려야만 했다. 재상은 한숨을 꾹 참으며 말했다.

“그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죠.”

\*\*\*

다행히 레아 황녀님께서는 가스파르 재상의 걱정과는 달리 기초적인 지식 정도는 알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역시 평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기에 아직 갈 길은 멀었다.

“오늘 수업은 이만 마치도록 하죠. 숙제는 다음 주 수업 때까지 이 책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오도록 하세요.”

“네? 이 책에 있는 문제를 전부 다요?”

“다음 수업 때까지 다 풀지 못하신다면 그다음 주까지 2권을 푸셔야 할 겁니다. 숙제 꼭 다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다음 주까지 다 풀기에는 문제도 너무 많고 아직 배우지 않은 부분도 많잖아요!”

“예습도 중요한 공부입니다. 레아 황녀님. 꼭 다 풀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스파르 재상은 레아 황녀님께서 숙제를 끝내는 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다. 아무리 황녀님이 재상이 모르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해도 일주일 안에 배우지도 않은 부분이 더 많은 이 살인적인 양의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그걸 잘 알면서도 가스파르 재상은 괜히 황녀님을 괴롭히고 싶어 이런 숙제를 내준 것이었다.

레아 황녀님께서 황궁에 있는 것만으로도 불만이 가득한데 그런 황녀님의 공부까지 봐 드려야 하는 가스파르 재상은 지금 공부로 레아 황녀님을 괴롭히는 중이었다.

‘대놓고 괴롭힐 수는 없으니 숙제를 어마어마하게 내주고 혼내는 수밖에 없지. 숙제를 안 한 학생을 혼내는 건 선생으로서 당연한 일이잖아? 암, 그렇고말고.’

절대 다 할 수 없는 숙제를 내줘놓고는 혼자서 합리화하며 재상은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만약 가스파르 재상이 이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있는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소리쳤을 것이었다.

절대 그 황녀님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고 말이다.

\*\*\*

재상이 자신을 탐탁지 않아 하는 걸 이미 눈치챈 레아는 이 말도 안 되는 숙제는 일부러 자신을 괴롭히려고 내준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누가 봐도 이건 일주일은커녕 한 달 동안 여기에만 매달려야 겨우 끝낼 수 있는 양이었는데 레아는 예법도 빨리 익혀야 했기에 여기에만 매달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이거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지? 이 아저씨가 사람 깔보는 것도 정도가 있지.’

자신을 싫어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까지 이해해줄 순 없었다.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 걸 참고 넘어가 줄 정도로 레아는 좋은 성격이 아니었다.

‘사실 황제 폐하께 일러바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긴 한데.’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왜 저러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었지만, 확실히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는 레아를 위해 뭐라도 해줄 거 같긴 했다. 대체 뭘 해줄지 두렵기는 했지만. 그리고 단순히 일러바쳐서 남의 손을 빌려 복수하는 건 레아의 성격에 맞지 않았다. 무엇을 하든 이건 스스로 해야 할 일이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곰곰이 생각해보던 레아는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자신이 무진장 고생을 하긴 하겠지만, 레아가 할 수 있는 것 중 가스라프 재상에게 제대로 엿을 먹이는 방법이었다.

“그래.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고.”

\*\*\*

레아가 가스파르 재상에게 수업을 받은 첫날. 레그마인 황제는 사랑하는 딸과의 저녁 식사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황녀로서의 첫걸음과도 다름이 없는 공부가 어렵지는 않았을까 아직도 레아를 속으로는 골칫덩어리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스파르 재상이 혹시라도 괴롭히지는 않았을까 걱정도 됐지만 그렇다고 당하고만 있을 레아가 아니었기에 어떻게 한 방을 먹여줬을지 궁금했고 묻고 싶은 것도 많았다.

하지만 정확하게 레아의 수업이 끝나고 2시간 후인 5시에 레그마인 황제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뭐라고?”

“그, 그게 황, 황녀님께서….”

“똑바로 말해.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숙제가! 숙제가 너무 많아서 당분간은 식사는 모두 방에서 혼자 하시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하….”

바쁜 레그마인 황제는 아무리 딸을 사랑해도 자주 얼굴을 보러 가거나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다. 하루에 딱 한 번. 오직 저녁 식사를 할 때만 사랑스러운 레아와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기에 레아가 황궁에 온 뒤로 저녁 식사시간은 레그마인 황제가 하루 중 가장 기다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그런데…그런데 레아가 저녁 식사를 방에서 혼자 하겠다니!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대체 첫날부터 숙제를 얼마나 내준 거야? 작작 할 것이지.’

레그마인 황제는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자신도 레아의 방에서 같이 식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가스파르 재상이 들으면 기겁을 하겠지만 그렇게라도 레아의 얼굴을 봐야 황제는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하지만 레그마인 황제는 또 한 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게…숙제가 상상을 초월하는 양이라 식사를 최대한 간단하게 혼자 하고 싶으시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숙제가 모두 끝날 때까지는 예법수업을 맡으신 소니아 부인을 제외하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에 레그마인 황제는 그만 들고 있던 팬을 툭 떨어뜨리고 말았다. 가스파르 재상이 내준 숙제를 모두 끝날 때까지 황제는 딸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도대체 무슨 숙제를 내줬길래 애가 이러는 거지?”

“책에 있는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주일 안에 다 풀어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만약 다 못 풀면 다음 주에는 2권을 풀어오라고 하겠다고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책의 분량은?”

“그게 아마 원래는 3개월 정도는 공부해야 할 분량….”

“하하. 그래. 그렇단 말이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감히 내 딸에게 말도 안 되는 숙제 폭탄을 안겨줘?

분명 황제는 웃고 있었지만, 너무나도 강력한 살기를 내뿜고 있어 집무실 안 모든 사람은 떨고 있었다. 당장 가스파르 재상을 죽이겠다는 말을 꺼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거 같은 분위기에 시녀들은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실제로 레그마인 황제는 지금 속으로 이 새끼를 어떻게 족칠까 고민 중이었다.

그래도 일단은 재상이니 진짜 죽이지는 못해도 가만히 놔둘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서서히 고통스럽게 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레그마인 황제는 깊은 고민을 했다.

‘그런데 레아는 정말로 그 숙제를 다 해버릴 생각인가? 그게 말도 안 되는 양이란 건 분명 알고 있을 건데. 그걸 안다면 순순히 할 리도 없고.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혹시 이제 자신에게 가스파르 재상을 족쳐달라는 신호는 아닐까 하고 황제는 잠시 생각했다. 하지만 레그마인 황제가 보는 레아는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었다. 족칠 거면 스스로 직접 족치지 이렇게 쉽게 도와달라고 손을 빌릴 성격이 아닌 거 같던데 그렇다면 레아는 도대체 왜 숙제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레그마인 황제는 잠깐 생각을 해보았고 곧 레아의 뜻을 눈치챌 수가 있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아, 진짜 대박이다! 어쩜 그런 생각을 했지?”

“폐. 폐하…?”

“내 딸이지만 진짜 대단해. 아주 제대로 엿을 먹이네? 예상은 했지만 역시 내 딸이야. 그렇지 않아?”

“네? 네! 황녀님은…대단하시죠! 네.”

“이틀만 지나도 가스파르 재상이 아주 피가 바짝바짝 마르겠어.”

일단 맞장구치긴 했지만 여기서 레그마인 황제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러든 말든 레그마인 황제는 기분이 좋은 듯 종이에 뭐라고 적고 있었다.

‘야. 황제 폐하 왜 저러셔? 드디어 미치신 거야?’

‘나도 모르지. 원래 좀 미친 분이셨지만 오늘은 좀 심각하신데.’

‘몰라. 무서워. 격렬하게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다.’

‘동감. 레아 황녀님 시녀들은 매일 예쁜 황녀님 얼굴 보면서 드레스 골라드리고 예쁘게 꾸며드린다는데 우린 이게 뭐냐고!’

‘하루만이라도 좋으니까 황제 폐하 집무실 말고 레아 황녀님 옆에서 일하고 싶다.’

무슨 일이든 좋았다. 꼭 황녀님 옆에서 꾸며드리고 드레스를 고르는 일이 아니라 청소라도 좋으니까 시녀들은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다. 무슨 일이라도 레그마인 황제 폐하 옆에서 공포에 떠는 것보단 예쁜 레아 황녀님 옆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았다.

“거기. 이거 라이 경에게 전해주도록 해.”

“예. 알겠습니다. 폐하.”

레그마인 황제는 대충 종이를 세 번 정도 접어서 한 시녀에게 건네주었고 그 시녀는 고개를 한번 숙인 후 방을 나갔다. 다른 시녀들은 모두 그 시녀가 나간 문을 부럽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좋겠다. 나도 여기서 탈출하고 잘생긴 라이 경 보러 가고 싶다.’

‘그러고 보니 라이 경이 황녀님 호위를 맡았다고 했지. 그럼 황녀님 시녀들은 매일 라이 경도 볼 수 있겠구나.’

‘부럽다. 나도 레아 황녀님이랑 라이 경….’

\*\*\*

가스파르 재상에게 살인적인 숙제를 받고 레아 황녀님께선 잠시 생각에 잠긴듯했다. 그러더니 곧 당분간은 방에 소니아 부인 외에는 아무도 들이지 말고 식사도 모두 방에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딱 그렇게만 말씀하시곤 황녀님은 계속 숙제를 하고 계셨고 앉은 자리에서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문제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라이 경은 경악했다. 물론 겉으로는 하나도 표가 안 났지만 라이 경은 레아 황녀님을 보고 상당히 놀라고 있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독하시군. 무서울 정도로.’

모르는 부분은 다른 책을 찾고 또 찾아서라도 황녀님은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가셨다. 이를 갈면서 숙제를 하는 모습에 라이 경은 황녀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건지 궁금해졌다.

보아하니 순순히 숙제를 열심히 하시는 건 절대 아닌 것 같고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한 거 같은데 그게 대체 무슨 꿍꿍이일지 라이 경은 감이 오지 않았다. 그래도 일단 아직은 별다른 문제는 없으니 라이 경은 가만히 레아 황녀님을 지켜보기로 했다.

“저기, 라이 경.”

“?”

“황제 폐하께서 보내셨어요. 읽어보세요.”

그때 한 시녀가 라이 경에게 소곤소곤 말을 걸면서 종이 한 장을 건넸다. 황제 폐하께서 보내셨다고 말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종이를 대충 접어 라이 경에게 줄 사람은 레그마인 황제 폐하밖에 없었다. 하다못해 시녀들이 주는 러브레터도 이것보다는 훨씬 더 정성스러웠으니 말이다. 라이 경은 꼭 자신이 쓴 러브레터를 주는 것처럼 얼굴이 빨개진 시녀에게서 그 종이를 받아 그 자리에서 바로 읽어보았다.

종이에 적힌 내용은 지극히 간단했다.

[앞으로 매일 레아가 무엇을 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짓 없이 모두 내게 보고하도록 해. 무리할 수도 있으니까 옆에서 잘 챙겨주되 말은 섞지 말고 100ｍ 이내 접근금지다. 내 딸한테 반하지도 말고 호위만 해. 알았지?]

지극히 간단했지만 그렇다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은 아니었다.

100ｍ 이내 접근금지면 호위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러면서 말도 섞지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고 옆에서 무리하지 않게 잘 챙겨주라니 이건 뭐 어떻게 하란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레아 황녀님께 반하지 말라는 말에 라이 경은 잠시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며칠 전 그의 아버지인 피에르 시종장님은 그에게 반대되는 말을 했었다. 딱히 특별한 말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분위기로 황녀님 같은 며느리를 보고 싶다는 티를 팍팍 내셨고 두 아버지 모두 왜 이러시는 건지 라이 경은 속으로 한숨을 푹 쉬었다.

‘나도 아직 20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레아 황녀님은 아직 16살밖에 안 된 꼬꼬마신데. 결혼은 당연한 거고 여자로 보일 리가 없잖아. 저쪽도 나를 남자로 볼 리도 없고.’

당사자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왜 아버님들끼리 이러시는 걸까. 거기다 두 분 다 레아 황녀님이 아닌 자신에게만 이런 말을 하는 건지 라이 경은 다시 한번 한숨이 나왔다.

9.아니 넌 반하게 될 거야.docx

처음 레아 황녀님께서 그 말도 안 되는 분량의 숙제를 붙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스파르 재상은 3시간도 가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애초에 황제 폐하께서 딸이 공부에만 집중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실 리가 없었다.

하지만 이게 웬걸.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는 딸의 과한 공부를 그냥 내버려 두고 오히려 공부 열심히 하라며 응원까지 해주셨다고 했다. 그렇게 숙제를 내준 첫날 황녀님은 문제를 풀다 새벽에서야 잠이 들었다.

‘첫날이니까 그러신 거겠지. 아마 곧 포기하실 거야.’

그리고 이틀째 되는 날. 그런 가스파르 재상의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 레아 황녀님께서는 아침부터 숙제를 붙잡고 문제를 푸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가스파르 재상은 슬슬 걱정되기 시작했다.

“시종장님. 황녀님께서 너무 공부만 하셔서 몸에 무리가 가시지는 않겠죠? 황제 폐하께서는 걱정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글쎄요. 사실 저는 무리하시다 쓰러지시는 건 아닐까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폐하께선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하. 설마 공부하다가 쓰러지시기야 하겠습니까?”

“그건 모르죠. 아, 그러고 보니 폐하께서 레아 황녀님의 공부에 대해 딱 한 마디 하시긴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조금은 초조해 보이는 가스파르 재상에게 피에르 시종장은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상큼하게 웃으시면서 가스파르 재상이 뒤지고 싶어서 환장한 게 아니라면 설마 내 딸한테 무리해야지만 겨우 끝낼 수 있는 숙제를 내줬겠어? 라고 하셨습니다.”

“……….”

가스파르 재상은 무리해야지만 겨우 끝낼 수 있는 숙제를 내주지 않았다. 아무리 무리해도 레아 황녀님께서 절대 끝내지 못할 양의 숙제를 내주었다! 하지만 가스파르 재상은 절대, 절대 뒤지고 싶어서 환장한 게 아니었다.

‘그저 조금 괴롭히고 싶었던 거뿐이라고! 나도 이렇게까지 악착같이 하실 줄은 몰랐어. 이거 아무래도 내가 잘못 생각한 거 같군.’

이러다 레아 황녀님의 건강에 무리라도 가면 큰일이었다. 만약 가스파르 재상이 내준 숙제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황녀님께서 정말 쓰러지실지도 몰랐고 그럼 그 숙제를 내준 장본인인 가스파르 재상은 정말 말 그대로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손에 뒤지는 것이었다.

하지만 황녀님께서 설마 쓰러지실 때까지 하시겠어? 라며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는 가스파르 재상에게 피에르 시종장은 상냥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스파르 재상. 황실 정원에 핀 꽃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닐로만 제국의 황실 정원은 화려하고 아름답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정원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요즘 전 황실 정원의 화려한 꽃들보다 홀로 피어난 야생화가 더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정원사의 손길 없이 비를 맞고 모진 바람 속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난 야생화가요.”

“…잡초가요?”

레아 황녀님이 황궁으로 오신 첫날.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는 자신의 딸을 야생화에 비유했었다. 그리고 지금 피에르 시종장님 역시 황녀님을 야생화에 빗대어 표현하는 중이었다.

“잡초는 잡초일 뿐입니다. 엄청난 가치가 있는 황실의 정원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하하. 과연 그럴까요? 확실히 황실 정원에 있는 꽃들은 금전적인 가치는 있을지 몰라도 가끔 어떤 야생화들은 그런 꽃들에는 없는 것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처음에는 가스파르 재상도 레아 황녀님에게 남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우나타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조사해봐도 특별하게 나오는 건 없었다. 물론 똑똑하고 습득력이 상당히 빠른 편이라 기대 이상인 건 사실이었다. 만약 황제 폐하의 유일한 자식이 아니었다면 가스파르 재상은 레아라는 소녀를 예뻐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게 황실의 정원에는 없는 야생화에만 있는 특별한 점은 아니었다. 당장 레그마인 황제 폐하만 해도 어릴 적부터 천재라고 불릴 정도였으니까. 그러나 피에르 시종장은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가끔은 독을 가진 꽃들도 존재하죠. 황실 정원에 있는 꽃들은 아름답고 향은 좋지만, 독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꽃에 독이 있어봤자 위험하기만 하고 좋을 거 하나 없으니까요.”

그런데 야생화가 독을 가지고 있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가스파르 재상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레아 황녀님은 기껏해야 아직 어린 평민 출신의 소녀가 아니던가? 독이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적어도 가스파르 재상은 그렇게 생각했다.

“가스파르 재상. 곧 그 독은 당신의 목을 조를 것입니다.”

“제 목을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진 마세요. 딱 죽기 직전까지만 하고 정말로 죽이진 않을 겁니다.”

“………?”

“가끔 세상에는 아무리 만만해 보여도 건들면 안 되는 게 있는 법이지요.”

피에르 시종장은 끝까지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스파르 재상을 보며 빙그레 웃었다. 아마 며칠 후면 그는 알고 싶지 않아도 오늘 했던 말의 뜻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 가스파르 재상은 정말 피에르 시종장이 했던 말의 의미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

“너 그 소문 들었어? 황녀님께서 실신하셨대!”

“들었어. 과로로 쓰러지셨다던데?”

“어제 코피만 4번 쏟으셨다는 얘기 듣고 걱정했는데 좀 쉬셔야 하는 거 아냐?”

“그게 의원이 다섯 명이나 붙어서 모두 쉬시라고 했는데 황녀님이 꼭 해야 한다는 게 있다고 다시 일어나시자마자 다 나가라고 하셨대.”

“세상에. 꼭 해야 할 일이란 게 대체 뭐길래?”

“공부. 애초에 요즘 무리해서 공부하셔서 쓰러지신 거래.”

시녀들이 떠드는 소리를 몰래 엿듣고 있던 가스파르 재상은 자기도 모르게 움찔했다. 요즘은 누가 레아 황녀님 이야기를 하면 재상은 움찔움찔하며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됐다.

“그게 다 가스파르 재상님 때문이잖아. 수업 첫날부터 숙제를 장난 아니게 내줬잖아.”

“야. 솔직히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양이냐? 대놓고 구박하는 거지. 원래 재상님은 레아 황녀님이 황궁으로 오시는 것부터 엄청 반대하셨잖아.”

“내 친구가 그러는데 황녀님이 숙제가 너무 많다고 하니까 그거 다 못하면 황궁에서 쫓겨날 줄 알라고 했다던데?”

“진짜 나빴다. 우리 여리고 착한 황녀님 어떡해.”

“그래서 내가 전부터 그 사람 싫다고 했잖아. 황제 폐하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자신의 뒷말을 하는 걸 듣고 가스파르 재상은 시녀들에게 가서 지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냐며 따지고 화를 내고 싶었다. 저 말들이 다 사실이면 억울하지 않기라도 하겠다며 재상은 한숨을 푹 쉬었다.

물론 가스파르 재상이 레아 황녀님께 말도 안 되는 숙제를 내준 건 사실이었다. 그래서 황녀님을 못살게 굴고 싶었고 황녀라는 자리가 절대 만만한 자리가 아니란 것도 알려주기 위해 그랬던 것이었다. 그리고 솔직히 조금은 만만하게 본 것도 인정할 수 있었다.

아무리 황제 폐하의 친딸이라고 해도 아직 어린 소녀였고 그동안 평민으로 쭉 살아온 아이였다. 그래서 좀 얕잡아 봤는데 가스파르 재상은 지금 그걸 후회하고 있었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적어도 황녀님과 수업을 하기 직전으로라도…. 그럼 이렇게 피 말릴 일도 없을 건데.’

벌써 숙제를 내준 지 5일이 지났는데도 황녀님께서 아직도 그놈의 숙제를 붙잡고 있다는 소식은 가스파르 재상도 처음에 듣고 놀랐었다. 그런데 코피를 쏟고 쓰러지기까지 헸다는 말까지 들리자 가스파르 재상은 불안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딸을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재상은 정말 하루하루를 불안하고 피 말리는 날로 보내고 있었다. 과연 자신이 살아서 황궁 밖으로 나갈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었다. 만약 황제 폐하께서 저 소문을 들으신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하지만 시녀들이 떠들고 다니는 소문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내가 언제 숙제 다 못하면 황궁에서 쫓겨날 줄 알라고 했어. 다음 주에 그 2배로 낼 거라고 했지! 한낱 재상인 내가 황족인 황녀님을 내 맘대로 쫓아낼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그리고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자신의 사생아를 데리고 와 황녀라는 자리에 앉힐 거라고 했을 때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은 가스파르 재상만이 아니었다. 모두가 결사반대할 정도로 반대하는 사람은 많았었고 그때 반대했던 대부분은 아직도 레아 황녀님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황궁에 소문은 오직 가스파르 재상만이 레아 황녀님을 괴롭히는 악역처럼 말하고 있었다. 정말 억울하지가 않을 수가 없었지만 사실 가스파르 재상이 제일 억울한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었다.

‘여리고 착하다…. 그래. 착하시다는 건 그렇다고 치자. 근데 여리다는 건 너무하잖아! 황녀님은 레그마인 황제 폐하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절대 덜한 분이 아니시라고!’

물론 처음 레아 황녀님을 보고 가스파르 재상도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래서 황제 폐하와 시종장님이 야생화라고 했어도 재상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누군가 레아 황녀님을 야생화라고 비유한다면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다.

황녀님은 야생화가 아니라 야생화든 정원에 핀 꽃이든 전부 뜯어 뽑아낼 정도로 독하고 강한 사람이었다.

처음 황녀님께서 코피를 쏟으셨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가스파르 재상은 숙제는 배운 부분까지만 하시면 된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돌아온 황녀님의 답은 재상을 더 놀라게 했다.

“걱정은 감사하지만, 예습도 중요한 공부라고 가스파르 재상이 직접 말하지 않았나요? 예습은 꼭 필요한 중요한 공부니까 열심히 할게요.”

이런 말을 하면서 꽃처럼 예쁘게 웃는 레아 황녀님의 얼굴을 보며 가스파르 재상은 확신할 수 있었다. 이건 작정하고 황녀님이 자신을 엿 먹이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 웃는 얼굴. 레그마인 황제 폐하와 똑같았지.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았어.”

원래 닮은 건 알고 있었지만, 그 미소를 보는 순간 황녀님과 황제 폐하의 얼굴이 겹쳐 보여 재상은 무서웠다. 성격도 레그마인 황제 폐하를 닮은 거 같다는 말은 들었어도 설마 황녀님이 이렇게 독한 사람일 줄은 몰랐다.

‘설마 피에르 시종장님은 라이 경을 통해 이걸 진작에 눈치채고 레아 황녀님 쪽에 서기로 한 건가?’

처음에는 피에르 시종장님도 가스파르 재상처럼 레아 황녀님을 황궁으로 데려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황녀님이 황궁으로 오신 뒤부터 그는 완전히 황녀님의 편으로 돌아선 듯했고 가스파르 재상에게도 그런 느낌의 말을 꽤 자주 했었다.

원래 부드럽고 다정한 사람이라 강력하게 반대했어도 재상과 달리 시종장님은 황녀님에게 잘 대해주실 거로 생각하긴 했었지만, 그 수준을 넘어 아예 반대편으로 가버리시자 가스파르 재상은 입술을 꾹 깨물었다.

‘어떡하지. 나도 이제 레아 황녀님의 편에 서야 하는 걸까?’

레그마인 황제 폐하와 피에르 시종장님.

딱 그 두 사람만 레아 황녀님의 편에 선 것이지만 두 사람의 힘은 막강했고 확실하진 않아도 라이 경까지 같은 편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었다. 아마 이제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도 슬금슬금 레아 황녀님의 편에 설 것이라고 가스파르 재상은 예측했다.

하지만 이미 레아 황녀님께 미운털이 박혀버린 재상은 가고 싶어도 인제 와서 황녀님 쪽으로 쉽게 갈 수 없었다. 아니, 간다고 해도 분명 받아주시지 않을 것이었다. 레아 황녀님이 레그마인 황제 폐하와 성격까지 똑 닮았으니 절대 받아줄 리가 없었다.

“어쩌면 망해버린 걸지도 모르겠군….”

가스파르 재상은 문득 레아 황녀님께 정치에 관해 알려드렸던 것이 생각났다. 정치할 때 가장 중요하고 절대 잊어선 안 되는 것이었다.

[정치는 파트너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을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하죠. 적을 만들었을 때 그 적과 싸우다 타격이 있을 만한 일이 생기기 쉽고 만약 지게 된다면 영원히 그 바닥에선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적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정치에선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가스파르 재상은 그 기본적인 걸 잊고 적을 만들고 말았다. 그리고 알고 보니 아주 강력한 상대였던 그 적에게 멋지게 패배 중이었다.

\*\*\*

“레아가 가스파르 재상이 내준 숙제를 하다가 코피를 쏟고 쓰러졌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예. 폐하.”

“풉, 푸하하하하하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에 대한 소문을 듣고 레그마인 황제는 그만 참지 못하고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모습을 보며 라이 경은 오늘도 아무런 표정 없이 가만히 서 있었다.

“왜 그런 소문이 났대? 혹시 레아가 그런 거야?”

“아니요. 황녀님께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녀들이 멋대로 떠들고 다녔나 보네. 그럼 레아는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거 전혀 모르고 있나?”

“방에만 틀어박혀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그래. 그럼 이제 슬슬 내가 나설 때가 된 거 같네.”

레아 나름대로 재상에게 엿을 먹이려고 방에만 틀어박혀 숙제를 꾸역꾸역하고 있겠지만, 그걸로는 좀 약했다. 의도치 않게 시녀들의 도움을 받아서 효과는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 레그마인 황제의 성에는 차지 않았다.

“그러고 보면 레아는 시녀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네. 알고는 있었지만, 우리 딸 인기가 대단하구나.”

뭐, 우연이라고 해도 일단 딸을 도와주고 있고 다들 레아를 좋아해 준다니 좋은 일이긴 했지만, 레그마인 황제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다. 그래도 이제 레아는 황녀인데 시녀들과 너무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건 좀 곤란했다. 한두 명이면 모를까 많은 시녀와 가까워져서 다른 친구를 사귀지 못하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었다.

너무나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이었지만, 설마 시녀들한테까지 인기가 많을 줄이야. 레그마인 황제는 사교계 데뷔 후가 걱정이라고 생각하며 한숨을 쉬다 라이 경에게 말했다.

“넌 내 딸한테 반하지 마라.”

“…네. 폐하.”

또 저 소리 지겹지도 않나. 라이 경은 속으로 한숨을 쉬며 알겠다고 대답을 했다.

10.나쁜 녀석과 나쁜 녀석의 친구.docx

원래 처음 레아의 계획은 정말 소문대로 독하게 숙제를 일주일 안에 완벽하게 끝낼 생각이었다. 그래서 첫날 황제 폐하와의 저녁 식사도 숙제를 끝낼 때까지 불참한다고 말하고 잠까지 줄여가며 숙제에 매달렸었다.

몸은 고생하고 무리한다고 해도 레아는 가스파르 재상과의 기 싸움에서 지고 싶지가 않았다. 하지만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 공부하는 것도 둘째 날부터는 불가능해졌다.

“황녀님. 2시간 공부하셨으니 이제 30분 쉬실 시간이에요.”

“지금 풀고 있는 페이지만 다 풀고 쉴게요.”

“안 돼요. 아까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세 페이지는 더 푸셨잖아요.”

“그럼 딱 두 문제만 더 풀게요.”

“황녀님. 자꾸 그러시면 제가 라이 경 눈치가….”

자신에게 소곤거리며 라이 경의 눈치를 보는 시녀 때문에 레아는 한숨을 푹 쉬었다.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분 건지 라이 경은 레아가 절대 무리하지 못하도록 공부 중 쉬는 시간을 꼭 챙겼다.

‘할 얘기가 있으면 직접 하던지 왜 꼭 시녀들을 통해서 말하는 거야? 괜히 시녀들만 중간에 끼어서 눈치 보고 있잖아.’

처음에는 웬일로 라이 경이 말을 걸었다면서 좋아하던 시녀들도 이제는 레아와 라이 경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레아는 더 고집부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책을 덮었다. 이렇게 자꾸 쉬면 숙제를 절대 끝내지 못할 거 같은데 레아는 좀 걱정이었다.

일단 책을 덮긴 덮었지만, 영 표정이 좋지 않은 레아를 위해 시녀들은 재빨리 준비해둔 간식을 내왔다. 레아 황녀님께선 맛있는 음식에 약하다는 건 이제 황녀님의 시녀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이었다.

“황실 파티시에가 직접 구운 호박파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이 파이를 구운 파티시에는 호박파이가 주특기라고 해요. 거기다 황녀님께서 드실 간식이라고 하니 더 열심히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호박파이는 생일 때만 먹을 수 있었는데 이걸 그냥 간식으로 먹는 날이 오다니.”

“또 드시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레아 황녀님께서 드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구워드릴 수 있답니다.”

확실히 속이 촉촉하고 달콤한 호박파이가 입에 들어가자 레아 황녀님의 기분이 좋아진 듯했고 시녀들은 모두 안심했다. 그런데 갑자기 레아의 표정은 조금 침울해졌다.

“나탈리 이모가 생일 때마다 구워줬던 호박파이도 진짜 맛있었는데.”

레아의 생일에는 언제나 성탄절로 거리가 떠들썩했고 빵집이었던 리베르타가 1년 중 가장 바쁜 날 중 하나이기도 했다. 그래서 레아는 매년 생일을 바쁘게 보냈고 남들처럼 쉬거나 여행을 가는 건 꿈도 꾸지 못했다. 종일 케이크를 질리도록 굽고 팔았으니 별로 생일 케이크를 먹고 싶지도 않았다.

그런 레아를 위해 나탈리 이모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호박파이를 구워 레아의 생일을 축하해주었다. 그리고 리베르타의 문을 닫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브로디 아저씨와 에리스 아줌마는 집으로 레아를 불러 성탄절 파티 겸 레아의 생일 파티를 해주었다. 다른 이웃들도 케이크를 사려고 들렸다가 모두 레아의 생일을 축하해줬고 선물을 챙겨주는 사람도 있었다.

문득 생각난 우나타에 있는 이웃들이 생각나서 레아는 조금 우울해졌다. 가끔 연락한다고 해도 레아는 가족 같았던 사람들이 보고 싶었다.

‘황실 생활이 마냥 싫고 힘든 건 아니야. 하지만….’

다시 우나타로 돌아가 평범하게 빵을 굽고 소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여전했다. 하지만 이제 그건 불가능하다는 잘 알기에 레아의 기분은 더 가라앉았다.

‘레아 황녀님이 우울해하고 있으셔 어떡하지?’

‘또 향수병이 오신 거 같아. 호박파이 때문인 거 같은데.’

‘그렇다고 잘 드시고 있으신 호박파이를 다시 뺏을 수도 없고.’

‘다른 얘기로 고향 생각을 더 못하시도록 하는 게 좋겠어.’

우울해하고 있는 레아 황녀님을 보며 시녀들은 자기들끼리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한 시녀가 한 발자국 앞으로 나와 레아에게 말을 걸었다.

“레아 황녀님. 혹시 하이모어 가문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가요?”

“하이모어 가문이라면…하이모어 대공 말이죠?”

“네. 황녀님이 사교계에 데뷔하신다면 반드시 만나게 되실 거예요.”

요즘 정치와 힘 있는 귀족들을 공부하고 있는 황녀님의 관심을 끌기에 이보다 더 좋은 얘기는 없었다.

“하이모어 대공은 엄청난 영지와 광산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특히 대공이 가지고 있는 광산에서는 마법석이 많이 나와서 30년 전부터 엄청난 수입을 벌여드렸고 첫째 소공자도 작년에 있었던 전쟁에서 기사로서 큰 성과를 내서 황제 폐하께서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가문이라고….”

가스파르 재상과의 첫 수업에서 하이모어 가문에 대해서는 배워서 알고 있었는데 재상은 요즘 레그마인 황제 폐하 다음으로 힘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하이모어 대공이라고 말했었다.

“그런데 차남인 둘째 소공자의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어요. 혹시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으신가요?”

“네? 아, 둘째 소공자님은….”

첫째 소공자에 대해서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둘째 소공자에 대해서는 어쩐지 모두 알려주지 않았다. 시녀들도 레아의 질문에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가만히 얘기를 듣고 있던 라이 경이 입을 열었다.

“전 신경 쓰시지 말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시녀는 자신이 모시는 주인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시녀가 레아 황녀님께 거짓말을 한다면 그즉시 혀를 잘라버리는 게 라이 경의 일이었다. 라이 경이 그렇게 말하자 시녀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하이모어 대공의 차남인 둘째 소공자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둘째 소공자인 프레디 소공자님은…하이모어 대공과 대공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고 해요. 그분은 대공과 유부녀였던 시녀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라 얼굴도 대공비를 하나도 닮지 않으셨어요.”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를 숨기지 않고 그래도 둘째 소공자로 하이모어 가문의 아들로 인정해줬네요.”

레아는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도 아닌데 황궁으로 오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거기다 황녀가 된 지금도 안 좋게 보는 시선이 많은데 레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프레디 소공자가 하이모어 대공의 아들로 인정받았다는 게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대공도 자신의 아이란 걸 부정했어요. 시녀도 배 속의 아이가 대공의 아이인지 남편의 아이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냥 남편의 아이로 키우기로 했는데 막상 낳고 보니 누가 봐도 하이모어 대공의 아들이라 그럴 수가 없었어요.”

“혹시 그 둘째 소공자도 제가 아빠를 닮은 것처럼 대공을 쏙 빼닮았나요?”

“아뇨. 불행인지 다행인지 생긴 건 친모인 시녀 쪽을 많이 닮았다고 해요. 그런데 눈동자 색과 머리색이 하이모어 대공과 똑같아서 들킨 거죠. 사실 은빛 머리카락에 짙은 파란색 눈동자는 그리 특이한 색은 아니지만, 그 시녀는 대공의 시녀였으니 들킬 수밖에 없었어요. 시녀와 시녀의 남편은 모두 자주색 머리와 자주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주 난리가 났었죠.”

아무리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라도 자신의 아이란 게 너무나도 확실한 상황이라 하이모어 대공은 보는 눈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받아들여 키울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사생아지만 소공자로 인정받은 프레디 소공자는 올해로 20살이 되었다고 했다.

“음, 그리고 상당히 잘생기셔서 귀족 영애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으세요. 하이모어 대공은 동글동글하신 편인데 소공자님은 시녀들 사이에서 팬클럽까지 있을 정도로 잘생기시고 다정하신 분이세요.”

“그래요?”

귀족 영애들에게 인기가 많고 시녀들 사이에서 팬클럽까지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는 말에 레아는 슬쩍 라이 경을 바라보았다. 라이 경도 똑같이 인기가 많고 팬클럽도 있으니 과연 둘 중 누가 더 잘생겼을지 레아는 궁금해졌다.

“하지만 프레디 소공자님과는 친해지시지 않은 게 좋을 거 같아요. 황녀님.”

“왜요? 하이모어 가문의 아들과 친하게 지내면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힘 있는 가문의 사람과 가깝게 지내는 건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만…프레디 소공자님은….”

라이 경은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은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지만, 그래도 시녀는 경의 눈치가 보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황녀님께서 하는 질문에 시녀가 대답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결국 그 시녀는 돌려서 말하기로 했다.

“프레디 소공자님은 굉장히 사교적인 분이세요. 친하신 귀족 영애가 많으시고 파티에도 자주 참석하세요. 아, 물론 영애들뿐만 아니라 동성 친구도 있으세요. 딱 한 명뿐이긴 하지만….”

이 정도로 말했으면 똑똑한 레아 황녀님께선 분명 알아들으셨을 것이었다. 그런데 레아 황녀님께선 잠시 시녀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물었다.

“혹시 바람둥이예요?”

“네, 네? 그게….”

“파티 좋아하고 친한 여자들은 많은데 친한 남자는 한 명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거 바람둥이란 말인가요?”

“……….”

이걸 긍정하자니 라이 경의 눈치가 보였고 그렇다고 부정하자니 혀가 잘릴 위기였다. 시녀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어쩌면 좋을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고 그걸 보고 있던 라이 경은 레아 황녀님의 질문에 직접 대답해주었다.

“하이모어 대공의 둘째 아들인 프레디 소공자는 바람둥이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에게 신분 상관없이 추파를 던지고 달콤한 말로 유혹해놓고 연인이나 더 깊은 사이가 되자는 말을 들으면 망설임 없이 상대를 버리는 몹쓸 놈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를 요구하지 않아도 3개월마다 여자를 갈아치우는 놈입니다.”

“바람둥이 맞네요. 근데 그럼 평판이 안 좋을 건데 아까 귀족 영애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하지 않았나요?”

“처음에는 바람둥이라는 소문 때문에 거부감이 있어도 계속 달콤한 말로 유혹하니 많은 영애가 바람둥이란 걸 알면서도 그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간혹 그 어장에라도 들어가 보고 싶다는 영애들도 있습니다만 레아 황녀님은 그 쓰레기 같은 놈과 말도 섞으시면 안 됩니다.”

누가 뭐래도 레아 황녀님께서는 다닐로만 제국의 최고 미남이라고 불리는 레그마인 황제 폐하를 쏙 빼닮은 상당한 미인이셨고 나중에 황녀님께서 사교계에 데뷔하시고 파티에서 프레디 소공자를 만나신다면 소공자는 100%의 확률로 레아 황녀님께 추파를 던질 것이었다.

그런데 레아는 소공자를 조심하라는 라이 경의 말에 이렇게 대답했다.

“바람둥이에 몹쓸 놈 쓰레기 같은 놈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프레디 소공자의 하나뿐인 동성 친구는 라이 경인가 보네요.”

아무리 사생아에 정말 욕먹어도 쌀 나쁜 놈이라고 해도 하이모어 가문의 사람을 저렇게 욕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없었다. 하물며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도 맘대로 건들 수 없는 집안의 아들을 저렇게 시원하게 욕하는 걸 보니 확실했다.

“그런데 의외네요. 라이 경은 그런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낼 거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혹시 라이 경도 바람둥이는 아니죠? 아니면 약혼녀가 이미 있는데 연애만 할 다른 사람을 찾고 있다던가.”

“프레디와는 아카데미를 다녔을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프레디 소공자님도 17살 때까지는 착실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던 모범생이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되셨다고…. 아, 그리고 라이 경께서는 아직 약혼자가 없으세요. 애인도 없으시고요.”

그렇게 말하며 살짝 얼굴을 붉히는 걸 보니 아마 이 시녀도 라이 경을 짝사랑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역시나 라이 경은 그건 신경도 안 쓰고 있었다.

“황녀님께서도 언젠가 프레디 소공자를 만나게 되더라도 절대 말을 섞거나 가까워지시면 안 됩니다. 아주 질이 나쁜 놈입니다.”

“라이 경은 프레디 소공자랑 친구라면 아까부터 계속 욕만 하면서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네요.”

“아무리 친구라도 나쁜 자식이란 건 사실이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히 오만 여자한테 추파 던지고 3개월마다 상대를 바꾸는데 좋은 사람일 리가 없었다. 그런데 항상 무뚝뚝하고 조용한 라이 경이 저런 반응을 보이는 건 처음이라 왠지 레아는 그런 라이 경을 놀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요?”

“절대 친해지시면 안 됩니다. 말도 섞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저도 사교계에서 입지를 넓히려면 하이모어 가문의 사람과 친해질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요.”

“하이모어 가문이 아닌 다른 가문의 사람과 친해지시는 편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프레디 소공자와는 달리 평판도 좋고 정상적이신 분들도 많습니다.”

거기다 아무리 하이모어 대공의 아들이라고 해도 프레디 소공자가 차기 대공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편이 좋았다. 단지 둘째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대공의 사생아이기도 했고 기사로서 인정받고 있는 형과 달리 프레디 소공자는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었다. 사교계에서 바람둥이 날라리 소공자라고 유명한 것도 치명적인 흠이었다.

“하지만 전 다른 사람한테는 흥미 없는걸요. 잘생겼다는 프레디 소공자랑 친해지고 싶어요.”

“…별로 안 잘생겼습니다.”

“그래요? 아까 분명 시녀들은 잘생겨서 인기도 많고 팬클럽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건 사실이지만, 정말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보면 실망하실 겁니다.”

원래 황녀님께 거짓말을 하면 호위기사가 거짓말한 사람의 혀를 잘라야 하지만…. 레아 황녀님의 호위는 라이 경 본인이 맡고 있기에 프레디 소공자는 잘생기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었다. 라이 경의 말에 레아는 갑자기 입꼬리를 올리며 장난스럽게 웃더니 말했다.

“그래요? 별로 안 잘생겼구나. 그럼 전 그냥 잘생긴 라이 경이랑 친하게 지내야겠네요.”

누가 들어도 장난으로 하는 말이었고 레아는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장난기가 가득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 말에 라이 경은 당황하는 얼굴을 했고 그 얼굴을 보며 레아는 레그마인 황제 폐하처럼 웃었다. 그 모습에 라이 경은 갑자기 머리가 지끈거렸다.

‘황제 폐하께서 장난을 치실 때마다 가스파르 재상은 이런 기분이었을까.’

어쩐지 라이 경은 가스파르 재상이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11.아빠로서 해야 할 일.docx

라이 경은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장난을 치실 때마다 당황하고 놀라고 때로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가스파르 재상이 안 됐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가스파르 재상은 차라리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가스파르 재상. 표정이 왜 그래? 좀 웃어.”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전혀 웃음이 나오지 않는군요.”

“왜?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

자신과 마주 앉아 생글생글 웃고 있는 레그마인 황제 폐하를 보며 가스파르 재상은 피가 바짝바짝 말랐다. 폐하께서 왜 자신을 불렀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어서 재상은 더 불안하고 이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식탁에 앉아 꼼짝도 할 수 없어서 가스파르 재상은 속으로 과거의 자신을 원망하고 있었다.

‘내가 대체 왜 그랬을까.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어떤 분이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왜 그랬을까. 레아 황녀님이 황제 폐하의 유일한 가족이란 걸 알면서도…!’

그걸 알고는 있었지만, 잠시 잊어버리고 가스파르 재상은 레아 황녀님을 만만하게 보았다. 성격까지 황제 폐하를 닮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서도 평민 출신의 어린 소녀라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재상은 절대 황녀님을 이길 수 없었다.

가스파르 재상 하나 엿 먹이겠다고 코피를 쏟고 쓰러지실 때까지 계속 숙제를 잡고 있으실 줄이야.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독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가스파르 재상은 울고 있었다.

“먹는 건 왜 잘 안 먹어? 혹시 맛없어? 아니면 양고기 스테이크 싫어하나?”

“아니요. 황실 주방장 요리가 맛이 없을 리가요. 양고기 스테이크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 다행이네. 와인도 좀 마셔봐.”

입맛도 없고 먹을 게 입으로 들어갈 상황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황제 폐하께서 직접 권해주신 걸 거절할 수는 없었다. 가스파르 재상은 내키진 않았지만, 스테이크 한 조각을 잘라 입으로 가지고 갔다.

“우리 레아도 스테이크 참 좋아하는데.”

“…쿨럭.”

갑자기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입에서 레아 황녀님의 이름이 나오자 가스파르 재상은 순간 입안에 있던 고기를 그대로 뿜어버릴 뻔했다. 재상은 황급히 손수건으로 입을 닦았고 황제 폐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즐겁다는 듯이 웃었다. 그 웃음에 가스파르 재상은 식은땀이 흘렀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과연 황제 폐하께서 뭐라고 하실지 두렵기도 했지만, 차라리 잘된 일일지도 몰랐다. 무섭기는 했지만,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 제대로 갈굼 한번 당하고 황궁에 돌고 있는 소문이 잠잠해진다면 가스파르 재상은 기꺼이 갈굼을 당할 수가 있었다. 요즘 자신만 지나가면 수군거리는 시녀들 때문에 재상은 정말 죽을 맛이었다.

그리고 딸이 자신 때문에 코피가 터지도록 무리하고 급기야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빠인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기에 언젠가는 올 이 순간을 기다리며 불안하고 초조했던 가스파르 재상은 밥을 잘 먹지도, 잠을 잘 잘 수도 없었다. 이제 드디어 그 힘들었던 날들이 끝나는 것이기에 가스파르 재상은 한편으로는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가스파르 재상. 요즘 황실에 떠도는 소문 들었어? 재상이 내준 숙제를 하다 우리 레아가 코피를 쏟고 쓰러지기까지 했다는 소문 말이야.”

“…네. 들었습니다.”

드디어 황제 폐하의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자 가스파르 재상은 잔뜩 긴장했다. 그런데 폐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의외의 말이었다.

“그거 다 헛소문이야. 레아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네?”

“너무 무리하려는 거 같아서 내가 그러지 못하게 손을 좀 썼어. 숙제야 애초에 다 끝낼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내준 것도 아니잖아?”

“……….”

황녀님께선 무리하지 않고 멀쩡하게 잘 있다는 이야기에 가스파르 재상은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숙제를 내줬는지 다 들킨 것 같아 재상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는 평소의 웃는 얼굴이 아니라 무표정한 얼굴로 떨고 있는 가스파르 재상을 바라보았고 오랜만에 받아보는 황제 폐하의 차가운 시선에 재상은 순간 숨을 멈췄다.

“내 딸한테 왜 그랬지? 시녀의 딸이고 평민으로 살았었다고 재상이 제국의 황녀를 우습게 봐도 된다고 생각했나?”

“폐, 폐하. 그것이….”

“하긴. 처음부터 재상은 레아가 황궁에 오는 것부터 반대했었지. 그런데 공부까지 가르치게 되었으니까 엄청 불만이었을 거야. 그러니 레아가 미웠을 거고. 그렇지?”

“……….”

웃으면서 상대를 조지는 황제 폐하도 무서웠지만, 이렇게 정색을 하고 차갑게 말하는 폐하는 정말이지 공포 그 자체였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 말하고 레그마인 황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싫어하는 그 마음은 알겠어. 솔직히 이해는 안 가는데 결과적으론 레아도 건강하고 어쨌든 그 말도 안 되는 양의 숙제 때문에 꾸준히 공부는 잘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그런데 가스파르 재상.”

레그마인 황제는 다정하게 웃는 얼굴로 와인이 담긴 잔을 들더니 그대로 툭 바닥으로 떨어뜨렸고 바닥으로 떨어진 와인잔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깨져버렸다.

“내가 말리지 않았다면 레아는 정말 코피를 쏟고 쓰러지면서까지 무리해서 재상과의 기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숙제를 다 끝냈을 거야. 일주일 동안 가스파르 재상을 괴롭혔던 그 소문이 사실이 되었다면 내가 어떻게 했을 거 같아?”

보이지 않는 분노가 섞인 그 말에 가스파르 재상은 입을 꾹 다물었다. 이미 그 소문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만약 그게 단지 소문이 아니라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산산조각이 난 쪽은 와인잔이 아니라 자신이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스파르 재상은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이번이 처음이니까 특별히 봐줄게. 하지만 레아는 내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야. 다음은 없어.”

“네…. 알겠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경고였다.

가스파르 재상은 이번 일로 세상에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 한 명 더 늘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

\*\*\*

“레아 황녀님. 부디 제 결례를 용서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무례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사과의 뜻으로 이걸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뭔데요?”

“직접 열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수업이 있고 딱 일주일 후인 두 번째 수업.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할 얘기가 있다며 가스파르 재상은 레아에게 사과했다. 재상이 사과한다는 건 상상도 못 했던 반응이라서 그것만으로도 좀 얼떨떨했는데 거기다 재상은 레아에게 사과의 뜻이라며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고급스러운 느낌의 네모난 상자를 선물로 주었다.

‘설마 이 안에 뭐 이상한 게 들어있는 건 아니겠지?’

분명 저번 주까지만 해도 자신을 싫어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였는데 갑자기 사과하고 선물까지 주는 게 레아는 좀 의심스러웠다.

‘음. 그래도 설마 라이 경이 바로 옆에 있는데 이상한 걸 선물이라고 주지는 않았겠지?’

좀 불안하긴 했지만, 레아는 아무리 그래도 가스파르 재상도 생각이란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짓은 하지 않겠지 하는 생각으로 선물을 열어보았다.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붉은 루비가 촘촘히 박힌 예쁜 티아라가 들어있었다.

‘아무래도 미안하단 말은 진심인 거 같네. 그런데 부르는 게 값인 천연 루비가 이렇게 촘촘히 박힌 게 사과의 선물이라니. 물론 사과받아야 할 일이긴 하지만 이거 너무 사치스러운 거 아냐?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주는 걸 안 받는다고 할 수도 없고.’

가스파르 재상은 나름대로 열심히 생각하고 고르고 또 고른 선물이었지만, 레아의 마음에 드는 선물은 아니었다. 목걸이나 브로치가 아닌 티아라를 선물한 이유도 이제부터 레아를 황녀님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지만, 레아는 그런 뜻 같은 건 모르겠고 그냥 이 고급스럽고 사치스러운 선물이 부담스러웠다.

황족답지 못하고 평민답다고 뭐라고 해도 어쩔 수 없었다. 그래도 아까운 건 아까운 거였고 아직 황녀로서 갈 길이 먼 레아에게는 루비 티아라보단 슈크림이 가득한 빵을 선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

\*\*\*

오랜만에 오전에 비는 시간이 생긴 레그마인 황제와 레아는 황실 정원에서 같이 차를 마시고 있었다.

“레아. 가스파르 재상이랑 화해는 잘했어?”

“애초에 싸운 것도 아닌데 화해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래? 그럼 요즘은 가스파르 재상이 잘해줘?”

“네. 아주 부담스러울 정도로 잘해주세요.”

대놓고 눈에 보이게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게 또 행동으로 나와서 레아도 무리해서라도 가스파르 재상과의 기 싸움에서 이기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왜 때문인지는 몰라도 재상이 먼저 사과해주었다. 거기다 미안하다고 선물도 주었으니 레아도 그 일을 가지고 계속 가스파르 재상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싶진 않았다.

그렇게 둘은 화해라고 한다면 화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을 했고 처음에는 특별할 것이 없이 정치에 관한 공부를 했다. 그런데 첫 수업 때부터 느끼고는 있었지만, 레아는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습득력이 빨랐고 본인이 알아서 열심히 하니 가스파르 재상은 그 모습이 꽤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었다.

‘사실 같이 황제 폐하 흉볼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걸 제일 기뻐하는 것 같았지만.’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제멋대로인 성격 때문에 고생은 하는데 그걸 알아주는 사람은 있어도 붙잡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게 큰 스트레스였던 가스파르 재상에게 같이 불만을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생겼다는 건 기쁨이었다. 레아도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처음에는 좋았었다.

문제는 점점 레아와 사이가 좋아진 가스파르 재상이 점점 아빠처럼 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었다.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는 평범한 아빠들처럼 행동하지는 않으시는데 가스파르 재상은 꼭 평범한 아빠처럼 말하고 행동했다.

“이제 슬슬 여름인데 드레스가 너무 짧다고 잔소리하기도 하고 티아라를 선물해줄 때는 언제고 요즘에는 라이 경 앞에서는 목걸이나 팔찌도 하지 말래요. 아, 어제는 머리 묶는 것도 금지라고 했어요.”

친아빠는 당연히 아니고 하다못해 대부도 아니면서 재상이 황녀에게 저런 잔소리를 한다는 게 레아는 이래도 되는 건가 싶었다. 하지만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나도 라이 경 앞에서 내 딸이 너무 예쁘게 꾸미고 무릎이 훤히 보이는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묶는 건 반대야. 꾸미면 더 예쁘고 짧은 드레스를 입으면 더 귀엽고 머리를 묶으면 사랑스러운 얼굴이 더 잘 보이잖아.”

“……….”

“그러다 쟤가 너한테 반하면 어떡해.”

아무리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이라지만 저건 좀 심하지 않나. 심지어 레아의 호위기사이니 지금 라이 경은 옆에서 모든 얘기를 다 듣고 있었고 이제는 저런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황당해하거나 어이없어하는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입은 드레스 진짜 귀엽다. 레아는 마음에 들어?”

“가볍고 편해서 좋아요. 시원하기도 하고.”

“이제 곧 여름이니까 잘됐네. 그러고 보니 레아가 황궁에 온 지도 벌써 2달이 지났구나.”

처음 우나타를 떠나 납치되듯 황궁으로 왔을 때가 4월이었는데 지금은 벌써 6월이었다. 황실 정원에 피어있던 꽃들도 어느새 여름에 피는 꽃들로 바뀐 걸 보고 레아는 시간이 흘렀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도 일단 어떻게든 이 말도 안 되는 생활에 내가 적응하기는 했구나. 처음에는 레그마인 황제 폐하와 라이 경을 꽤 싫어했었던 거 같은데.’

물론 지금도 그 둘은 좋아하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어느 정도 그 둘을 받아들이고는 있는 것 같았다. 이제는 폐하와 라이 경 모두 레아의 일상이 돼버렸다.

“레아. 쿠키 더 먹어. 아빠 거 줄게.”

“황제 폐하는 안 드시나요?”

“아빠는 우리 딸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하하. 역시 우리 딸은 먹을 때가 제일 예뻐.”

절대 적응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던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저런 말들은 조금씩 적응이 되고 있었지만, 이 맛있는 간식들은 매일매일 먹어도 익숙해질 법도 한데 먹을 때마다 너무나도 맛있었다. 황궁에서 찾을 수 있는 레아의 가장 큰 행복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었다.

행복한 얼굴로 초코칩이 콕콕 박혀있는 쿠키를 맛있게 냠냠 먹고 있는 레아를 보며 레그마인 황제는 행복하게 웃었다. 요즘 레그마인 황제의 가장 큰 행복은 사랑스러운 딸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레아. 7월 말에 황궁에서 큰 파티가 열릴 예정이야. 아마 네가 요즘 공부하면서 보는 이름들도 모두 그 파티에 참석할 거고 그밖에도 정말 많은 사람이 참석할 파티.”

원래 레그마인 황제는 파티를 즐기는 성격이 아니라서 파티를 자주 열기는커녕 초대받은 파티에도 꼭 가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면 참석하지 않는 편이었다. 그래서 다닐로만 황궁에서 열리는 파티도 1년 딱 4번뿐이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초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에는 레그마인 황제의 탄생일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렸고 겨울에는 성탄절 파티가 열렸다. 이번 7월 말에 열리는 파티는 레아가 황궁으로 오고 나서 열리는 첫 파티이기도 했고 그렇기에 드물게 레그마인 황제가 기대 중인 파티였다. 레그마인 황제는 입꼬리를 올리고 웃으며 레아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 파티에서는 무지하게 재밌는 일이 벌어질 예정이야.”

“어떤 일이요?”

“33살 제국 최고의 미남인 황제가 올해로 16살인 사랑스럽고 예쁜 딸을 공개할 예정이래. 아마 파티장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겠지?”

“네…?”

“무지하게 재밌을 거니까 레아도 꼭 참석해서 구경해.”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하듯이 얘기하는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말씀에 레아는 너무 놀라서 그만 먹고 있던 초코칩 쿠키를 손에서 툭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만큼 레아에게 파티에 참석하라는 말은 절대 가벼운 말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건 분명 황제 폐하께도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닐 것인데도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는 그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한다는 것처럼 가볍게 이야기하시고 계셨다. 레아도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너무 갑작스러워서 놀라고 있는데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는 마치 파티가 열리기를 손꼽아 기다리기라도 하는 사람처럼 신나 보이셨다.

“그때 최대한 예쁘게 하고 와. 뭐, 우리 레아는 뭘 입혀도 세상에서 제일 예쁘긴 하지만 말이야. 그래도 아빠는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쁘다고 자랑하고 싶어졌어.”

12.눈알을 뽑고 혀를 잘라.docx

언젠가는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란 건 당연히 레아도 알고 있었다. 이건 황녀로 살게 되면서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일이었다.

‘언제까지고 존재를 숨기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 황녀니까 황실에서 열리는 파티에 참석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황녀님께서 사교계 데뷔만 하시면 난리가 날 것이라고 시녀들이 항상 말했었기에 레아도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별거 아니란 식으로 말씀하시는 황제 폐하 때문에 레아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고 아마 가을쯤에 자신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빨리 발표하실 거라고 하실 줄은 몰랐다.

하지만 황궁 사람들 입장에서는 7월 말까지 기다려준 것도 사실 오래 기다려준 것이었다. 레아의 나이가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니었기에 하루라도 빨리 공개하는 편이 좋은 게 안 그래도 세상에 딸의 존재를 알리면 난리가 날 것이 뻔한데 레아가 조금이라도 더 어릴 때 공개해야 그나마 말이 덜 나올 것이었다.

“아, 그래도 너무 예쁘게 하고 오면 너도나도 좋다고 달려들면 어떡하지? 흠, 그렇다고 첫 파티인데 안 꾸밀 수도 없고.”

그런데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는 그런 건 하나도 신경 안 쓴다는 듯 계속 이상한 부분을 걱정하고 고민하고 계셨다. 그 모습이 어이가 없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서 레아는 이런 말을 했다.

“황제 폐하께선 아무렇지도 않으신가요?”

세상에 레아의 존재를 알리고 공식적으로 본인의 딸이라고 인정하는 건 분명 레그마인 황제께도 영향이 있을 것이었다. 그것도 좋은 쪽이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말이다.

사연이야 어쨌든 레아는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사생아였고 레아의 친모인 아리샤는 황궁 시녀였다. 거기다 레아가 태어났을 때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나이는 고작 18살. 그리고 무엇보다 레아는 16살이 될 때까지 작은 시골에서 평범하게 평민으로 살았다.

‘말이 안 나올 리가 없지. 날 안 좋게 보는 건 당연한 거고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도 절대 좋은 소리를 할 리가 없어. 그런데 왜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시는 거지?’

적어도 조심스러워하거나 진지하게 말씀하셔야 하는 것 같은데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뭐가 아무렇지도 않아? 안 괜찮을 이유가 뭐가 있다고.”

“제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시면 당연히 듣기 싫은 소리를, 어쩌면 비난을 받으실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폐하께선 그런 건 아무렇지도 않으신 건가요?”

“남들이 떠드는 거 일일이 신경 썼다간 황제 노릇도 못해.”

“그런가요….”

하긴. 원래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는 남들의 시선이나 말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실 거 같긴 했다. 애초에 그런 걸 신경 쓰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제멋대로인 성격이 되셨을 리가 없었다.

“왜? 레아는 그런 게 신경 쓰여?”

“네. 많이요.”

처음보다 익숙해지긴 했지만. 아직 레아에게 황녀라는 자리는 낯설기만 했다. 예법수업과 정치수업을 들으면서 지식과 행동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도 아직 마음 깊숙한 곳까지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 황녀로서 남들 앞에 서야 한다니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 솔직히 자신이 없기도 했다.

사실 레아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태어나보니 친부가 제국의 황제 폐하였고 그걸 모르고 살다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황녀로 살게 된 것 아닌가.

하지만 그래도 분명 자신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날아올 것이란 걸 알기에 레아는 걱정이었다. 그런데 그런 레아의 걱정을 다 안다는 듯이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는 웃으며 자신을 많이 닮은 딸에게 자상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레아. 혹시 누가 너에게 무례한 말을 하고 기분 나쁘게 하면 그 사람 얼굴에 주스를 부어버려. 아니면 케이크를 던져버리던가 뺨을 때려도 좋아. 아주 그냥 죽여버려.”

“네…?”

“널 건드리는 사람은 절대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 다시는 못 기어오르게 제대로 밟아버려. 알았지?”

세상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말의 내용은 그런 목소리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었다.

“많은 분이 모이시는 자리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런 자리에서 그런 짓을 했다간 난리가 나지 않을까요?”

“당연히 난리 나겠지. 상대가 누가 될진 몰라도 일단은 황궁에서 열리는 파티에 초대가 될 정도로 높은 귀족일 테니까.”

“그런 분 뺨을 때리면 뒷수습이 안 될 거 같은데요.”

“뒷수습할 필요 없어. 상대가 누구든 황족보다 더 높을 순 없으니까. 먼저 황녀의 기분을 잡치게 했는데 뺨 정도로 끝나면 다행인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냐?”

“글쎄요. 제가 배우는 예법과는 매우 다른데요.”

요즘 레아가 소니아 부인에게 배우는 예법에서 황녀는 항상 여유 있고 기품이 넘치며 우아해야 한다고 배우고 있었다.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말씀처럼 행동하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다.

“상대가 먼저 예의 없이 굴면 너도 굳이 예의를 지킬 필요는 없어. 너보다 높은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상대가 너보다 높은 사람이 아니라면 더욱더 그럴 필요 없어. 괜히 혼자서 고상한 척 예의 지키다간 너만 호구 잡히고 그 상대는 평생 널 깔볼 거야. 주제 파악도 못 하고 까불겠지.”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직설적인 말에 레아는 잠시 고민을 했다. 폐하의 말씀대로 누군가의 얼굴에 주스를 부어버리거나 케이크를 던지고 뺨을 때려서 소란스러운 일을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 레아는 그냥 최대한 특별할 것 없이 조용히 파티가 끝나길 바랐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분 나쁜 말을 들었는데도 참고 넘어가고 싶지 않았고 그럴만한 성격도 되지 못했다. 그래서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말씀이 현실적인 도움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인생은 교과서랑 다른 거야. 물론 공부한 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가끔은 지르고 보는 게 답일 때도 있어. 호구로 사는 것보단 미친놈으로 사는 게 훨씬 나아.”

“폐하. 대놓고 그런 말씀은 좀….”

“뭐 어때. 우리 둘밖에 없는데.”

둘밖에 없다기엔 라이 경도 분명 다 들었을 건데. 그런데 이번에도 아무런 반응 없는 걸 보니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했다. 그런 라이 경을 보며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는 갑자기 장난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니면 라이 경이 그날 누가 레아를 괴롭히면 대신 혼내줄래? 어차피 그 파티에는 라이 경도 참석할 거잖아.”

“레아 황녀님의 호위를 맡았으니 당연히 참석할 것입니다.”

“만약 누가 레아에게 무례하게 군다면 네가 책임지고 그 입을 찢어버려서 다시는 입도 뻥긋 못하게 만들어 버려. 아, 물론 레아가 원한다면 말이야.”

겨우 자신의 기분을 안 좋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입을 찢어버려도 된다니. 농담도 뭐 저런 살벌한 농담을 하시는 건지 레아는 당황하고 있었는데 라이 경은 폐하의 말씀에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 말도 안 되는 살벌한 농담에 진지하게 대답한다고? 레아는 어이가 없었다.

“라이 경. 뭘 또 진지하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게 라이 경 매력이잖아. 항상 진지하고 뻣뻣하니까 당황 시키고 놀려주고 싶기도 하고.”

“그렇긴 하죠. 늘 무표정이다가 갑자기 당황하면 귀가 빨개지니까.”

“그 모습이 귀엽다고 좋아하는 시녀들도 많던데 혹시 레아도 그런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왜 항상 라이 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언제나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걸까. 물론 레아가 보기에도 라이 경이 조각상처럼 잘생기고 가끔은 귀여울 때도 있지만 그건 그냥 그렇다는 거지 이성적인 감정은 아니었다.

“근데 레아. 아빠는 농담하고 장난으로 한 말이 아니야.”

“네?”

“너에게 무례하게 구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라이 경에게 입을 찢어버리라고 명령해. 혀를 자르고 눈알을 뽑아버리라고 해도 좋아. 넌 그래도 돼.”

그럼 상대가 누구든 기분 좀 나쁘게 했다고 저래도 된다는 말씀이 모두 진심이었다는 건가? 원래 레그마인 황제 폐하는 좀 이상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이건 이상한 걸 넘어 레아는 할 말을 잃었다.

\*\*\*

“누군가가 레아 황녀님에게 무례하게 군다면 혀를 자르고 눈알을 뽑으라고 명령하라니. 참으로 레그마인 황제 폐하다우신 말씀이군요.”

그날 황제 폐하께서 차를 마시며 하셨던 얘기를 그대로 전해주자 소니아 부인은 재밌다는 듯이 호호 웃었다. 어릴 때부터 레그마인 황제 폐하와 친구였던 소니아 부인은 최근 딸이 생긴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재밌었다.

“어릴 때부터 남의 일에는 크게 신경 안 쓰시던 분이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신기하네요. 폐하께선 정말 황녀님을 많이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있으신가 봐요.”

“그래도 얼굴에 케이크를 던지고 눈알을 뽑으란 말은 너무 심했어요. 진짜로 그런 짓을 했다간 제 목숨이 위험해질 게 분명한데 진심으로 그래도 된다고 하셨다고요.”

“어머. 황녀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레아의 불만 섞인 말에 소니아 부인은 놀란 얼굴을 했고 레아는 당연히 부인이 폐하는 진심이었단 말에 놀랐을 거로 생각했다.

“물론 상대가 무슨 말을 했는지가 중요하겠지만, 정말 심한 말을 했다면 눈알을 뽑고 혀를 자르라고 명령하셔야 해요. 그걸로도 분이 안 풀릴 정도라면 그 자리에서 목을 자르라고 명령하셔도 아무도 레아 황녀님의 목숨을 위험하게 만들 순 없어요. 절대로 참고 넘어가지 마세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레아 황녀님은 다닐로만 제국에서 레그마인 황제 폐하 다음으로 높으신 분이세요. 그런 분에게 무례하게 굴고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면 그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황족을 모욕하는 행위는 사형이니까요.”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친딸인 레아는 당연히 황족이었고 그러니 누군가 레아에게 무례하게 굴고 모욕감을 준다면 바로 사형이었다. 그래서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러지 않을 것이었지만…언제나 그렇듯 세상에는 제정신인 사람들만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거기다 레아는 태생과 지금까지 자란 환경 때문에 더 무시 받고 무례하게 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랐다. 당장 소니아 부인의 남편인 가스파르 재상도 처음에는 황녀님을 싫어하고 기 싸움을 하려고 했으니 말이다.

“레아 황녀님. 좀 더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시고 조금은 더 제멋대로 행동하셔도 돼요. 황녀님은 그러셔도 되는 분이세요.”

안 그래도 안 좋게 보고 무시당할까 봐 걱정인데 황녀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니 소니아 부인은 더 걱정이었다. 남편은 레아 황녀님이라면 그런 건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지만…그래도 소니아 부인은 걱정이었고 레아 역시 부인이 자신을 걱정하는 그 마음만큼은 이해할 수 있었다. 본인 역시도 그 부분이 걱정이기는 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눈알을 뽑고 혀를 자르는 것도 모자라 목을 자르라고 명령해도 된다는 말을 받아들이기는 아직 좀 힘들었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조심하고 착하게 굴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렇게 함부로 하고 제멋대로 굴어도 되는 걸까?’

처음 레그마인 황제 폐하에게서 받은 느낌과 황실 사람들의 이미지가 별로라고 느껴서 그런지 레아는 그런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았다.

“황녀님. 예법을 가르쳐드리고 있는 제가 이런 말 하는 것도 우습긴 하지만…가끔은 예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을 때가 올 거예요. 특히 황녀님께는요.”

아직은 와닿지 않는 말이라 레아는 소니아 부인의 말에 대답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모두가 레아에게 무례한 사람에게는 꼭 그래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

물론 레아도 자신에게 무례하게 구는 사람을 그냥 넘어갈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런 사람에게는 제대로 된 응징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그건 너무 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예법을 떠나 자신에게 무례하게 굴었다고 눈알을 파내고 입을 찢어버리는 게 적어도 레아에겐 현실처럼 다가오지 않았다.

만약 누군가 레아와 똑같이 황족인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 무례하게 굴었다면 정말 그런 짓을 하셨을까? 생각만 해도 살 떨려서 레아는 얼굴을 찌푸렸다. 파티를 전혀 모르는 레아는 황실에서는 이런 게 흔한 일인가 싶기도 했다.

“그럼 혹시 이전 파티 때 정말 누군가의 눈알이 파이거나 입이 찢어지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얼굴에 주스를 뿌리거나 뺨을 때린 경우가 있었나요?”

“딱 한 번. 황족이 다른 사람의 머리에 위스키 한 병을 던진 적은 있었어요.”

“그 일 자세히 얘기해줄 수 있어요?”

“원래는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되는 이야기지만…레아 황녀님께 이야기하는 건 괜찮을 거예요.”

소니아 부인의 그 말에 레아는 단번에 위스키병을 던진 그 황족의 정체를 눈치챌 수 있었다. 처음 얘기를 듣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그 황족은 레아가 잘 아는 사람이었다.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누군가의 머리에 위스키병을 던진 적이 있으시군요.”

“네. 황제 폐하께선 떡잎부터 남다르셨으니까요.”

애초에 레아에게 무례하게 구는 사람의 얼굴에 주스를 뿌려버리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과거에 직접 더한 짓을 해봤었기 때문이었다. 폐하께서는 떡잎부터 남달랐다는 소니아 부인의 말에 레아는 왠지 한숨이 나왔다.

“레아 황녀님의 어머니이신 아리샤 님께서 황궁을 떠나시고 얼마 안 돼서 황궁에서는 파티가 열렸는데 그 파티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 당시 황태자셨던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 당시 재상이었던 호드 재상이 해서든 안될 말을 했고 화가 나신 폐하께선 위스키 한 병을 그대로 호드 재상의 머리에 던져버렸고 멋지게 명중했었죠.”

“세상에….”

“안 그래도 힘드신데 그 부분을 자꾸 쿡쿡 찌르니까 충동적으로 그러셨던 거 같아요.”

“대체 무슨 말을 하셨길래요?”

아무리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성격이 이상하다고는 해도 황태자 신분으로 그 당시 재상이었던 사람의 머리에 위스키병을 던졌다니. 레아로선 상상도 못 할 일이라 더 놀라웠다.

“자세히는 기억 안 나지만 호드 재상은 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잘난 척이 심하고 속물 같았고 자신의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남을 깔보는 사람이었죠. 그때도 폐하께 아리샤 님을 안 좋게 이야기를 하면서 폐하를 비웃었어요. 원래 사람은 신분이 맞는 사람끼리 만나야 하는 거라며 자신의 딸과 약혼하는 건 어떻냐며 큰 소리로 웃으셨다고 해요. 아, 참고로 그때 호드 재상의 딸은 3살이었어요.”

누가 들어도 명백한 조롱이었다. 레아도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마음의 상처가 그대로인 상태인데 저런 말을 듣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었다.

덕분에 호드 재상은 일주일 동안 깨어나지 못했고 황족을 모욕한 죄로 재상 자리에서도 쫓겨나게 되었다고 했다. 원래는 사형이었지만 그땐 그가 재상이었기 때문에 겨우 그 정도로 끝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는 그 누구도 감히 황족을 모욕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 얘기를 듣고 레아는 조용히 생각했다. 혹시 황제 폐하께서는 레아가 자신의 딸이기에 눈알을 뽑고 혀를 자르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한 게 아닐까 하고 말이다.

13.파티준비.docx

그래도 소니아 부인이 알려준 이야기 덕에 레아는 왜 사람들이 자신에게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해도 된다고 한 건지 알 수 있었다.

‘그냥 싫어하고 그걸 티를 내서 짜증 나는 줄 알았는데 설마 그렇게 대놓고 조롱하는 사람이 정말 있었을 줄이야.’

태어날 때부터 선황제와 선황후 사이에서 태어난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니. 그럼 레아에게 어떻게 할지는 안 봐도 뻔한 일이었다. 아무리 그 후로 아무도 황족은 건드리지 않는다고 해도 레아는 상황이 또 달랐다.

초반에 가스파르 재상이 그랬던 것처럼 탐탁지 않아 하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딱 그만큼만 무례하게 굴 줄만 알았던 레아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레아는 평생 호구 잡혀서 깔보는 눈빛을 받으며 살고 싶진 않았다.

‘호구로 사는 것보단 미친년으로 사는 걸 선택하겠어.’

황제 폐하의 말을 따르는 것 같아 썩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게 맞는 것 같았다. 그렇게 생각을 마친 레아는 라이 경을 불러 파티 때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일에 관해 이야기해주었고 레아의 말을 조용히 듣던 라이 경은 레아의 말이 다 끝나자 이렇게 물었다.

“정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레아의 말에 라이 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파티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길 바랐지만 그래도 혹시나 일어날지도 모를 일에 마지막 무기를 하나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이 무기를 쓸 일이 제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레아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

7월 말에 열리는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레아가 준비해야 할 일은 꽤 많았다.

일단 파티에 참석하는 사람 중 중요한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을 외워야 했고 황녀로서 파티에 참석한 이상 다른 사람들과 막힘없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기 위해 준비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민트색 드레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레아 황녀님. 어떠세요?”

“그 드레스도 예쁘긴 하지만 황녀님껜 자수가 박힌 이 드레스가 더 잘 어울리실 거 같아요.”

“우아한 분위기도 좋지만 사랑스러운 느낌에 이 분홍색 드레스도 잘 어울리실 거 같아요. 프릴도 잔뜩 달려있고.”

“이게 요즘 황녀님 나이 때의 영애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디자인들이래요. 어떤 드레스를 골라야 잘 골랐다고 소문이 날까요?”

“빨리 드레스부터 정하고 머리 장식도 골라야 하는데….”

“레아 황녀님께선 뭐든 다 잘 어울리셔서 도저히 못 고르겠어요.”

벌써 4시간째 시녀들은 7월 말에 열리는 파티에서 레아 황녀님께서 어떤 드레스를 입었을 때 가장 아름다우실까 열심히 토론 중이었다. 아침부터 여러 벌의 드레스를 갈아입느라 지친 레아는 그냥 가만히 그 대화를 듣고만 있었다.

원래라면 디자이너를 황궁으로 불러 맞춤 드레스를 제작하거나 직접 의상실 몇 군데를 돌면서 드레스를 맞추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아직 레아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알려진 상태가 아니었기에 디자이너를 부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는 디자이너를 부르는 대신 요즘 유행하는 디자인의 수제드레스를 몽땅 사들여 레아에게 모두 입어보라고 한 것이었다.

‘덕분에 황제 폐하께 애인이 생긴 게 아니냐는 소문이 돌고 있다지. 이 드레스를 모두 연인에게 선물했다면서.’

하지만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이 수십 벌의 드레스를 선물한 사람은 애인이 아닌 자신의 딸이었다.

‘뭐, 황제 폐하께서는 아직 결혼도 안 하셨고 약혼자도 없으시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치수의 드레스는 누가 봐도 어른이 입을만한 게 아닌 거 같은데.’

아직 16살이기도 했지만, 레아는 또래보다 키가 작고 아담한 편이었다. 그런 레아가 입을 드레스를 성인 여자가 입을 수 있을 리가 없었다.

“허리를 조이고 너무 노출이 심한 드레스를 제외해도 고르기가 힘드네요. 다른 영애들은 어울리는 드레스를 못 찾아서 고생이라는데 레아 황녀님은 다 어울리셔서 고민이에요. 차라리 황제 폐하께서 고르시는 건 어떨까요?”

레드마인 황제 폐하께서 끔찍하게 레아 황녀님을 아끼고 있으시고 첫 파티에서 입을 드레스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건 황궁의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몰랐다고 해도 오직 딸을 위해서 수십 벌의 수제드레스를 구매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황제 폐하께서는 시녀들이 원하는 답을 들려주실 리가 없었다.

“그건 드레스가 황궁에 도착하자마자 소니아 부인께서 여쭈어보셨어요. 피에르 시종장님께서도 여쭤보셨는데 폐하의 대답은….”

시녀는 얘기를 하다 말고 한숨을 푹 쉬고 다시 이어서 말했다.

“폐하께선 내 딸은 까만 포댓자루를 뒤집어씌워도 귀여울 건데 제일 잘 어울리고 예쁜 드레스를 고르라니. 그렇게 어리석은 질문은 왜 하는 거야? 라고 대답하셨다고 해요.”

그 말을 들은 모두는 잠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특히 레아는 입맛이 뚝 떨어져서 간식으로 먹고 있던 마들렌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자신이 한 말은 아니었지만 어쩐지 드레스를 고르던 시녀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곧 정적을 깨고 한 시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희가 어리석었어요. 그런 당연한 사실을 잊고 있었다니.”

“맞아요. 애초에 드레스가 뭐가 중요해요. 뭘 입으셔도 레아 황녀님의 얼굴이 제일 아름다우신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어려운 거 같아요. 어떤 드레스를 입으시는 게 제일 좋을지….”

“그러게 말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다 입으셨으면 좋겠는데.”

“드레스도 드레스지만 머리 장식도 걱정이에요. 또 목걸이를 할지 팔찌를 할지 결정하기부터 너무 어렵다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런 말과 생각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는 걸까. 너무 어이가 없기도 하고 황당해서 레아는 할 말을 잃었다. 처음에는 이왕 들은 칭찬이 싫지 않았는데 이제는 저런 말을 하도 들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물론 우나타에서도 어른들이 예쁘다는 말을 많이 해줬고 그런 단순한 칭찬에는 레아도 익숙했다. 하지만 황실 사람들은 그 칭찬이 도를 넘어 거의 주접에 가까웠다.

‘뭐가 결정하기 어렵다는 거야. 다 거기서 거기면 그냥 아무거나 입으면 되는 거잖아. 머리 장식이나 다른 건 다 드레스에 맞춰서 고르면 되는 거고.’

결국, 기다리다 지친 레아는 짧게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드레스를 쭉 한번 훑어보고 그중 한 벌을 골라 말했다.

“저 이 드레스로 결정할게요.”

“하지만 황녀님. 그 드레스는 요즘 유행하는 디자인도 아니고 너무 평범한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이거 입을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황녀님께서 고르신 이 드레스에 맞춰 머리 장식과 보석을 준비하도록 할게요.”

레아가 고른 드레스는 시녀들이 골랐던 드레스 중에 있던 게 아니라 구석에 있던 드레스였다. 화려하고 눈에 띄는 스타일의 요즘 유행하는 드레스들과 달리 무난하고 눈에 띄는 포인트도 적은 새하얀 드레스였다. 시녀들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황녀님이 직접 고르신 드레스이니 다른 말은 없었다.

‘별로 눈에 띄고 싶지도 않고 아직은 자수가 박히고 프릴이 달린 화려한 드레스는 부담스럽다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있다 오고 싶다.’

하지만 그럴 수 있을 리가 없었다.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사생아란 존재 자체만으로 소란스러워질 게 뻔한데 당사자인 레아가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있을 수 있을 리가 없었지만 그래도 드레스라도 좀 무난한 걸 입으면 조금이라도 눈에 덜 띄지 않을까 하고 레아는 생각했다.

\*\*\*

레아가 드레스를 고르고 있을 때 레그마인 황제는 가스파르 재상, 피에르 시종장, 소니아 부인과 함께 7월 말에 열릴 파티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원래라면 파티는 밑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이번에 열리는 파티는 보통 파티가 아니잖아?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내가 결정할 거야. 다들 불만 없지?”

불만이 있다고 해도 들어줄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지만, 불만을 가지는 이는 없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넷은 모두 다닐로만 제국에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동시에 레아를 참 아끼고 예뻐하는 사람이었다. 특히 소니아 부인을 제외한 남자 셋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레아를 예뻐하고 있었다.

그러니 레아가 처음으로 참석하고 존재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파티를 절대 아랫사람들에게 맡길 수 없었다.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고작 황녀 한 명 때문에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며 목덜미를 잡고 쓰러졌겠지만, 넷은 정말 레아 한 사람을 위해 모인 것이었다.

“피에르 시종장. 음식은 어떻게 준비할 생각이지?”

“레아 황녀님의 첫 데뷔 파티이니 그만큼 호화롭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황녀님을 위해 논알콜 샴페인과 칵테일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실 수도 있으니 간단한 간식거리도 준비할까 생각 중인데 폐하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레아는 뭐든 다 잘 먹지만 특히 아이스크림이 들어간 와플을 좋아해. 그걸로 준비하도록 해.”

“네. 알겠습니다.”

원래 황궁에서 열리는 파티에는 음료가 아닌 음식이 준비되는 경우는 성탄절 파티 외에는 없는 일이었다. 먹을 게 있으면 안 그래도 지루한 파티가 더 길어진다며 레그마인 황제가 오로지 음료만을 준비할 것을 명령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 파티의 경우는 특별했다. 모든 것은 레아를 위한 것이었다.

레아 본인은 원하지도 않고 직접 결정권을 주진 않았지만, 이 파티의 모는 것은 레아만을 위한 파티로 변질된 지 오래였다. 하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그나마 소니아 부인만이 레아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랬다간 파티가 길어지고 그렇다면 레아 황녀님께서 불편해하지 않으실까요? 지금도 황녀님은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으십니다.”

황제 폐하의 딸인 황녀로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건 당연히 감당해야 할 일이긴 했지만, 그래도 레아 황녀님은 쭉 평민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황족이 된 분이셨다. 이제 고작 16살인 아이에게는 부담이 가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소니아 부인도 거기까진 생각 못 했는데 요즘은 그것 때문에 황녀님이 걱정이었다.

“레아 황녀님께선 레그마인 황제 폐하를 닮아 똑똑하시고 씩씩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소녀라는 점을 잊지 말아 주세요. 분명 두렵고 많이 긴장하고 있으실 겁니다.”

소니아 부인은 진심으로 한 말이었지만 어쩐지 세 사람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내 딸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뭘?”

“하하. 부인. 설마 황녀님께서 그러시겠습니까?”

“여보. 나도 그건 좀 아닌 거 같군.”

“그래도 긴장하고 있다는 건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어. 아무리 레아가 날 닮았어도 파티는 처음일 테니까.”

“오호. 긴장하신 레아 황녀님이라니. 귀여우실 거 같군요.”

“하지만 전 그래도 황녀님이시라면 긴장도 안 하시고 있을 거 같습니다. 레아 황녀님께선 강인하신 분이니까요.”

자기들끼리 레아 황녀님 얘기를 하면서 함박웃음을 짓고 있는 세 남자를 보며 소니아 부인은 조용히 입을 닫았다. 이 남자들에겐 무슨 말을 해도 안 통할 걸 이미 알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씩씩하고 강한 분이시라고 해도 아직 16살 어린 소녀인데 다들 걱정은 안 하는 걸까. 분명 긴장하고 있으실 건데.’

확실히 레아 황녀님은 레그마인 황제 폐하를 닮아 씩씩하고 강인하신 분이란 건 예법을 가르치고 있는 소니아 부인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그런 레아 황녀님이라도 레그마인 황제 폐하와 100% 똑같을 수는 없었다. 그런데 이 세 남자는 그 생각까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같은 여자이고 레아 황녀님의 친모인 아리샤 님과 나이대도 비슷한 소니아 부인은 그 부분이 걱정이었다. 하지만 남편인 가스파르 재상이 꼭 레아 황녀님을 딸처럼 아끼는 것과 달리 소니아 부인은 레아 황녀님을 아끼고 있긴 했지만, 황녀님을 딸 정도로 생각하진 않는 정도라 굳이 거기서 더 말을 하진 않았다.

“사실 난 파티에 초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긴 해. 특히 위즈덤 공작부인은 말이야.”

“그건 아마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긴 하지만….”

피에르 시종장은 말끝을 흐리며 가스파르 재상과 소니아 부인을 번갈아 보았다. 두 사람 역시 피에르 시종장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세상에 그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 모두가 싫어하는 사람을 굳이 파티에 초대해야 한다니. 거기다 그 여자가 레아한테 무슨 헛소리를 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좀 안 부르면 안 되나?”

위즈덤 오느아 공작부인.

이기적인 성격에 오만방자하고 나이에 맞지 않게 속도 좁고 유치한 여자였다. 어디를 가나 자신이 제일 높고 고귀한 대접을 받아야 했고 자신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깔보는 게 당연한 여자였다. 거기다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해주지 않으면 상대가 누구든 속 좁게 굴었다.

“위즈덤 공작부인은 올해로 42살이야. 그런데 그 나이를 먹고도 올해 23살인 어떤 영애와 다투고 나름대로 도움을 받고 친분이 있던 가문을 마치 없는 가문처럼 무시하고 있다고 해. 그 젊은 영애와 다툰 이유가 뭐였는지 알아?”

“압니다. 유명한 얘기죠.”

사실 다퉜다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사소한 일이었다. 우연히 파티에서 만난 영애에게 공작부인은 장난스러운 말투로 인사를 건넸고 평소 이기적인 공작부인을 싫어하던 영애는 조금 까칠하게 말을 한 것이었다.

“기분이 나빴으면 그 영애에게 직접 말하면 될 것을 그걸 또 그 영애의 어머니에게 그대로 일렀대. 영애가 꼬꼬마도 아니고 그게 40살이 넘은 어른이 할 짓이냐고.”

“애초에 그 영애도 까칠하게 대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영애는 공작부인을 싫어하긴 했지만, 먼저 장난스럽게 인사를 하니 똑같이 장난스럽게 대답한 것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영애의 어머니는 얼마나 황당하셨겠냐고.”

영애는 공작부인을 싫어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두 사람의 가문은 꽤 친했었다. 그런데 속 좁고 유치한 공작부인 때문에 두 가문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고 결국 피해를 본 사람은 오느아 공작이었다. 그 영애의 집안에서 도움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오느아 공작은 어떻게든 그 가문에서 마음을 풀어주길 바라며 전전긍긍하는 중이었다.

“하지만 아직도 공작부인은 그 가문 사람을 마치 없는 사람처럼 무시하고 있어. 내 딸의 첫 파티에 그런 여자를 초대하고 싶지 않아.”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파티에 오느아 공작 가문을 초대하지 않을 순 없습니다.”

“으음. 역시 그렇겠지.”

물론 그 영애와 있었던 일과 좋지 않은 공작부인의 이미지 때문에 오느아 공작 가문은 점점 알게 모르게 몰락하는 중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오느아 가문은 하이모어 대공이 올라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국에서 알아주는 귀족 집안이었으니 그런 집안은 아무리 황제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초대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오느아 공작부인을 초대하게 된 레그마인 황제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어쩌면 혀가 잘리고 눈알이 뽑히는 일이 정말 일어날지도 모르겠군.”

14.아빠를 아빠라고 부르게 될 날.docx

7월에 열릴 파티를 준비하며 레아는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있었다.

“레아. 파티준비 때문에 엄청 바쁘다고 들었는데 힘들진 않고?”

“모두 잘 도와주고 있어서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그래. 혹시라도 힘든 게 있으면 그건 그냥 하지 마. 기본적인 건 다 배웠으니까 나머지는 네 멋대로 해도 상관없어.”

저녁 식사를 하면서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는 이제 멋대로 해도 된다고 하셨지만, 레아는 그럴 생각은 없었다. 그냥 레아는 이 모든 것이 귀찮기만 할 뿐이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파티도 참석하고 싶지 않아. 그냥 죽을 때까지 조용히 살고 싶다.’

레아도 이제 우나타로 돌아가는 것까진 바라지도 않았다. 그냥 어디라도 좋으니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었다.

“레아. 혹시 파티 때 먹고 싶은 거 있어? 있다면 뭐든 이 아빠한테 얘기하렴. 우리 딸이 원하는 건 다 마련해줄 수 있어.”

“황궁에서 열리는 파티는 성탄절 때 열리는 파티 외엔 음식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책에서 봤는데 이번 파티는 만찬이 준비되나요?”

“원래는 간단한 음료만 준비했었는데 이번에는 간단한 디저트도 준비할 생각이야. 아, 물론 우리 딸이 원한다면 만찬도 준비할 수 있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얘기해보렴.”

이미 메뉴는 모두 정리해서 결정을 내렸지만, 레아가 원한다면 당장이라도 모든 걸 갈아엎을 수 있었다. 이 파티는 이제 오직 레아만을 위한 파티였으니 말이다.

“혹시 파티에서 음식을 먹는 걸 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을 수도 있어. 원하는 게 있다면 모두 알려줘.”

하지만 레그마인 황제가 아는 레아는 절대 음식이 필요 없다고 할 리가 없었다. 그만큼 레아는 맛있는 음식을 아주 좋아하는 아이였다.

‘내가 원하는 음식을 파티에서 먹을 수 있다니. 거기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파티에 만찬이라면 얼마나 화려하고 황홀할까! 마음 같아서는 애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다 먹어보고 싶다.’

그리고 황제의 예상대로 레아는 만찬이라는 단어에 아주 잠깐 행복한 상상을 했지만, 곧 이번 파티는 자신의 첫 데뷔 파티이자 혼란이 가득할 파티라는 사실이 떠올랐다.

‘모두 날 주목할 텐데 만찬을 즐길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분명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거야.’

그런 사람은 없길 바랐지만, 레아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자리에서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그건 맛있는 음식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면서 레아는 만찬을 즐기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말했다.

“쿠키와 호박파이가 좋을 거 같아요. 어린아이와 어른들 모두 참석하는 파티이니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야 모두가 만족스러워할 거 같아요.”

그리고 쿠키와 호박파이는 레아도 좋아하는 음식이었으니까. 원래는 1년에 한 번 생일 때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인 호박파이를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레아는 좋았다.

“파티 때 입을 드레스는 정했어? 어떤 거 입을 거야?”

“제일 무난하고 튀지 않는 거로 입으려고요.”

“혹시 그 새하얀 드레스? 요즘 많이 찾는 디자인도 화려한 게 유행이라고 하던데 오히려 무난하고 튀지 않는 드레스를 골랐네.”

“원래 유행에는 관심이 없어서요. 아무리 예뻐도 편하고 입기 쉬운 옷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옷은 그냥 옷일 뿐이니까요.”

“그런 말 옛날에 아리샤한테 들은 이후로 처음 들어. 하지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

과거 화려하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선물해주고 싶다는 레그마인 황제에게 아리샤는 조용히 웃으며 비슷한 말을 했었다. 옷은 그냥 옷일 뿐이니 괜히 비싸고 불편한 드레스를 선물할 필요가 없다며 아리샤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그때의 수줍은 미소와 풋풋했던 기억이 떠올라 레그마인 황제는 자연스럽게 웃게 되었다. 그 말과 비슷한 말을 딸의 입에서 듣게 되니 왠지 기분이 묘했다. 뭐, 느낌은 전혀 달랐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시녀들은 뭐라고 안 해? 어떤 드레스를 고르고 무슨 보석을 쓸지 엄청 고민했는데 그런 드레스를 골랐으니 실망했을 거 같은데?”

“마음에 안 드는 거 같긴 한데 별다른 말은 없었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쩌겠는가. 드레스를 입을 당사자인 황녀님께서 딱 그 드레스를 입겠다고 고르셨는데 안 된다고 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드레스에 맞춰 보석을 고르다 보니 액세서리도 이것저것 화려하게 할 수도 없어서 최대한 단정하고 깔끔한 느낌이 될 예정이었다.

“내 딸이라면 유행을 좇아가는 것보단 유행을 선도하는 편이 더 어울리긴 하지. 그리고 우리 레아는 뭘 입어도 다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괜찮아. 너-무 예뻐서 벌들이 막 꼬일까 걱정이긴 하지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폐하.”

“그래. 우리 딸이 눈길도 안 줄 건데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치?”

그 어떤 남자도 관심을 줄 리가 없을 거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었는데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는 레아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셨다. 자신이 눈길을 주고 말고를 떠나 레아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줄 남자는 없을 거로 생각하고 있었다.

‘누가 좋아하겠어. 시녀의 딸에 평민으로 살았고 지금은 황녀라고 해도 저런 이상한 성격을 가진 황제 폐하의 딸인데. 서로 너무 사랑해서 하는 결혼은 못 하겠지.’

아마 권력이나 지위 때문이 아닌 레아라는 사람만을 보고 사랑해줄 도련님은 없을 것이었다. 그렇다고 평범한 남자를 만나 사랑하기에는 황녀라는 신분으로 평민과 결혼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폐하의 아이를 가지고도 몰래 도망가서 홀로 레아를 낳고 기른 엄마만 봐도 알 수 있었다.

“그래도 특히 프레디 소공자는 조심하도록 해. 절대 가까이 가지도 말고 눈도 마주치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해. 소공자가 말을 걸려고 하면 그냥 소리 질러버려. 알았지?”

“갑자기 소리 지르면 그건 좀 실례이지 않을까요….”

“말했잖아. 기본적인 건 다 익혔으니까 나머진 파티에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상대가 말을 걸었을 때 다짜고짜 소리 지르는 게 기본적으로 해선 안 되는 일입니다. 황제 폐하. 그리고 전 파티장에서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고 싶지도 않아요.”

레아도 파티장에서 그 날라리 바람둥이 소공자와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것보다 파티를 조용히 넘기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컸다. 다짜고짜 소리를 빽 질러서 이목을 끌고 싶지는 않았다.

“그리고 라이 경도 파티가 끝날 때까지 제 옆에 있어 줄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라이 경도 제게 프레디 소공자와는 말도 섞지 말라고 했으니 아마 파티에서 소공자와 얘기할 일은 없을 거 같아요.”

“글쎄. 과연 라이 경이 그럴 정신이나 있을까?”

“네?”

“황소처럼 돌진하는 영애들 때문에 아마 정신이 없을 거야. 라이 경은 파티라면 질색을 해서 잘 참석하지 않는 것도 다 그 영애들 때문이지.”

파티를 즐기는 친구와 달리 귀찮아도 달라붙는 영애들을 시녀들처럼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라이 경은 파티라면 질색을 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파티라면 더욱 기를 쓰고 참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사실상 영애들은 라이 경의 얼굴을 볼 일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제 라이 경은 레아의 호위기사였고 레아가 황녀로서 참석하는 황실 파티에는 무조건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파티에서 레아에게 따로 파트너가 있지 않으면 호위인 라이 경이 레아의 파트너가 되어야 하는 건 당연했다.

“그걸 눈치채게 된다면 당연히 영애들 사이에선 난리가 나겠지. 아마 그런 영애들 사이에서 레아 너에게 접근하는 프레디 소공자를 처리할 정신은 없을 거야. 아, 그래도 네가 누군가의 혀를 자르고 눈알을 뽑으라고 하면 바로 시행할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저렇게 맑게 웃으면서 혀를 자르고 눈알을 뽑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다니. 저녁 식사 중인 부녀가 나눌만한 적합한 대화는 아닌 것 같다고 레아는 생각했다.

“그리고 라이 경이 없어도 이 아빠가 옆에 있어 줄 거니까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지만…슬프게도 파티 때는 나도 인사하러 오는 사람이 많아서 너만 신경 쓰고 있어 줄 수가 없네. 미안.”

“폐하께선 다닐로만 제국의 황제시니까요.”

“이해해주는 거야? 역시 우리 딸은 마음도 넓다니까.”

이건 이해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일인 거 같은데. 아무리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평소에는 가벼워 보이고 제국의 황제답지 않아 보여도 일단은 다닐로만 제국의 황제셨다. 그가 아무리 레아의 친부라고 해도 무조건 레아에게만 온 신경을 쏟아부을 순 없는 노릇이었다.

레그마인 황제 폐하뿐만이 아니라 가스파르 재상과 소니아 부인, 피에르 시종장님도 레아를 예뻐하고 아껴주고는 있지만, 언제까지고 레아만을 위해줄 수는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들도 다 본인의 일이 있고 책임져야 할 것이 많은 위치에 있으니 당연했다.

‘나도 지금은 한참이나 모자라지만 언젠간 많은 책임감을 안게 되겠지. 현재로선 황제 폐하의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니까.’

처음부터 원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이제는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은 길을 걸어왔다. 부담스러워도 언젠가는 그 책임감이 당연해지는 날이 레아에게도 꼭 올 것이었다. 지금 레아를 보며 뭐가 그리 좋은지 생글생글 웃고 있는 이 남자가 레아의 친부일 때부터 그건 이미 정해진 일일지도 몰랐다.

“근데 레아. 묻고 싶은 게 있어.”

“네. 황제 폐하.”

“왜 아빠라고 불러주지 않는 거야?”

“네…?”

“이제 황궁에서 지내는 것도 슬슬 익숙해졌는데 아빠라고 불러줄 때도 됐잖아. 안 그래?”

갑자기 생각해본 적도 없는 부분을 딱 꼬집어 물어보는 레그마인 황제 폐하 때문에 레아는 순간 당황했다. 그러고 보니…레아는 단 한 번도 레그마인 황제 폐하를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다. 아예 부를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었다.

레아가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 쓰는 호칭은 황궁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황제 폐하 혹은 폐하라고 부르고 있었다. 레그마인 황제는 자신의 딸에게 그런 호칭으로 불리는 게 사실은 처음부터 불만이었다. 하지만 순식간에 모든 것이 바뀐 레아에게 아빠라는 호칭까지 요구하면 너무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 참고 기다려준 것이었다.

“이제 2주 뒤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레아 더 다닐로만은 레그마인 더 다닐로만의 하나뿐인 소중한 딸이란 사실을 알게 될 건데 아빠라고 불러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오늘부터 아빠라고 부르면 되겠다.”

“그….”

“우리 처음보다 친해졌고 너도 내가 친부라고 인정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야 그렇긴 하지만….”

“한번 아빠라고 불러보거라. 레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을 그대로 하며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는 활짝 웃으셨지만, 레아는 웃을 수가 없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 폐하께서는 내 친부가 맞으시고 그건 진작에 인정했으니까. 말씀대로 파티 때 내 존재를 공식적으로 알리게 되면 제국의 모든 사람이 내가 황제 폐하의 딸이란 사실을 알게 되겠지. 그리고 처음보다 친해진 것도 사실이니 슬슬 아빠라고 불러야 할지도….’

사실 레아는 굳이 레그마인 황제 폐하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아도 크게 신경 쓰이고 불편한 점은 없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부녀라는 사실을 알리고도 계속 황제 폐하라고 부른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지도 몰랐고 무엇보다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는 레아가 자신을 아빠라고 불러주길 바라고 있으셨다.

‘아빠라는 말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제는 둘이 있을 때만이라도 황제 폐하가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는 편이 좋겠지.’

레아는 레그마인 황제 폐하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누가 뭐래도 친부가 맞았으니 말이다. 그런데….

“아….”

“잘 안 들려. 레아.”

“아….”

“뭐라고?”

“아….”

“아빠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이었나.”

“아…아…아….”

“아니야. 괜찮아. 내가 잘못했어. 레아.”

전혀 어렵지 않을 거로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꼭 목에 뭐가 걸린 것처럼 레아는 아빠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레아는 몹시 당혹스러웠다.

‘왜 아빠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지? 길고 어려운 말도 아니고 딱 두 글자잖아. 도대체 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아 레아는 다시 한번 입을 열어 아빠라고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역시 이번에도 끝까지 그 두 글자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말이었지만 남들은 다 하는 이 쉬운 말이 뭐가 그리 어려워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걸까. 누군가를 부르려고 할 때 뭐라고 불러야 할지 머릿속으로는 알면서 막상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또 처음이었다.

“흐음. 아직은 아빠라고 부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죄송합니다.”

“아니야. 아빠는 기다려줄 수 있으니까 우리 딸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거 같을 때 아빠라고 불러줘. 아빠가 기다릴게.”

“…네. 감사합니다.”

어쩐지 전혀 괜찮지 않은 거 같은 말이었지만 그래도 레아는 말이라도 기다려주겠다고 하시는 게 어디인가 싶었다.

“나도 딸이 처음이지만 레아도 아빠는 처음이잖아? 낯설고 서툴 수 있다는 건 이해하고 있어.”

“처음…?”

“누구나 처음은 어렵기 마련이니까 말이야.”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입에서 처음이라는 말이 나오자 레아는 그 말이 참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황궁에 처음 왔을 때부터 레아는 모든 것이 새로웠고 처음인 것들이었다.

아빠가 생긴 것도 처음이었고 황족인 황녀로 살게 된 것도 처음이었고 조각상처럼 잘생긴 남자의 호위를 받으면서 누군가와 기 싸움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한 것, 무례하게 구는 사람은 아주 그냥 죽여버리라는 말을 듣는 것도 처음이었다.

하지만 레아만이 그런 것들이 처음인 게 아니었다. 가스파르 재상도 황녀와 그렇게 기 싸움을 했던 게 처음이었을 것이고 라이 경도 황녀의 호위를 맡은 건 처음일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게 처음이라는 점은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도 마찬가지였다.

딸은 처음이었고 아빠가 되는 것도 처음이라서 당연히 폐하께서 레아에게 해주는 말과 행동들은 서툴 수밖에 없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레아는 그걸 잊고 있었다. 레그마인 황제 폐하도 아빠는 처음이라 당연히 모든 게 어렵고 서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는 처음 본 그 순간부터 나를 딸이라고 불러줬어. 황제 폐하께서도 그 말이 쉽게 나왔을 리가 없었을 텐데.’

잘은 모르지만 아마 레아가 황제 폐하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만큼 어렵지 않았을까. 레아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면서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자 어쩐지 자신이 레그마인 황제 폐하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될 날도 그리 멀지만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15.많이 떨리십니까.docx

시간은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듯 빠르게 흘러 어느덧 7월 말이 되었고 레아의 첫 파티가 열리는 날이 되었다.

“레아 황녀님. 너무 예쁘세요! 꼭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으세요!”

“원래도 아름다우셨지만, 오늘은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 어떤 영애들이 온다고 해도 우리 황녀님이 제일 빛나실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요즘 유행하는 화려한 스타일이 아니라 심플한 스타일인데도 눈이 부실 지경이에요. 너무 청초하세요!”

“누가 뭐래도 오늘 파티의 주인공은 레아 황녀님이 되실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아아, 어쩜 이리도 아름다우실까….”

오늘따라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시녀들의 주접을 들으며 레아는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레아는 영 낯설게 느껴졌다.

가장 심플하다고 생각해서 고르긴 했지만, 그래도 파티용 드레스였기 때문에 순백의 드레스는 충분히 화려한 느낌이었다. 거기다 하얀 피부와도 잘 어울리는 목에 걸린 푸른 사파이어 목걸이까지 모든 것이 레아는 낯설었다. 최대한 화려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레아의 눈에는 이것도 과해 보였다.

‘파티의 주인공 따위 하고 싶지 않다고. 그냥 최대한 조용히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끝났으면 좋겠다.’

레아는 제발 아무런 탈 없이 파티가 무사히 잘 끝나길 두 눈을 꼭 감고 소망했다. 기도라도 드릴까 잠시 고민하고 있던 그때 누군가 레아의 방문을 똑똑 두드렸다.

“레아. 아빠야. 지금 들어가도 돼?”

처음에는 오늘 파트너인 라이 경이라고 생각했는데 들려오는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목소리에 레아를 포함한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은 화들짝 놀랐다.

‘황제 폐하께서 직접 황녀의 방을 찾아오시다니. 내가 꼬꼬마 어린애도 아니고 용건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내가 찾아가는 게 도리잖아! 시녀들도 엄청 놀란 거 같은데…. 사실 이렇게 놀라는 게 당연한 반응이긴 하지만.’

이미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는 제멋대로이신 분이시란 건 알고 있었지만, 이건 알아도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었다. 레아는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뭐해요. 어서 열어드리지 않고.”

“아. 네, 네!”

레아의 말에 뒤늦게 정신을 차린 시녀는 후다닥 문을 열어드렸고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는 자연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와 레아에게로 다가오셨다. 그리곤 예쁘게 꾸민 레아의 모습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셨지만, 레아는 그런 폐하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말했다.

“부르시면 제가 찾아갔을 건데 왜 직접 오셨어요. 가스파르 재상이 봤다면 분명 체통을 지키시라고 잔소리했을 거예요.”

“드레스 입어서 움직이기 불편하지 않아? 구두는 발 안 아프고?”

“발은 안 아픈 구두로 신었고 드레스는 움직일 때 안 불편해서 충분히 갈 수 있었어요. 다음부터는 직접 찾아오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아무리 드레스가 불편하고 구두 때문에 발이 아파도 황녀가 황제 폐하를 찾아가는 게 맞았다. 하지만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씀하셨다.

“싫어. 그럼 피에르 시종장도 볼 거잖아.”

“피에르 시종장님이 왜요?”

“내 딸이 첫 파티를 위해 예쁘게 꾸민 모습은 당연히 나부터 봐야 하는 거 아냐? 이렇게 천사처럼 예쁜 모습을 그 영감탱이랑 같이 볼 수는 없지. 가스파르 재상도 따라오겠다는 걸 간신히 따돌리고 온 거라고.”

“아니….”

어차피 파티장에서 다들 만나게 될 것인데 레아는 세 사람이 굳이 저러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심지어 황제 폐하를 말릴 줄 알았던 가스파르 재상까지 따라오겠다고 했다는 말에 레아는 할 말을 잃었다.

“근데 아빠가 사준 드레스랑 목걸이 했네. 역시 예뻐. 잘 어울려.”

“그야 제 드레스는 전부 황제 폐하께서 사주신 것이고 액세서리도 가스파르 재상이 준 티아라를 제외하면 모두 폐하께서 주신 것이니까요.”

선황후께서 쓰셨던 것이나 옛날에 선물 받으셨던 것부터 엄마에게 선물하려고 샀지만 결국은 주지 못했던 것들까지 모두 원래는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소유였다. 그리고 그걸 레아가 황궁으로 온 후 모두 선물로 주신 것이었다.

그래도 예쁘게 입은 레아의 모습이 보기가 좋으셨는지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는 뿌듯하게 웃으셨다. 자신을 쏙 빼닮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딸의 모습은 황제를 지금처럼 행복하게도 만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하게도 만들었다.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피에르 시종장이 자꾸 눈독을 들이는 거겠지. 가스파르 재상도 꼭 자기가 아빠라도 되는 것처럼 구는데 아빠로서 걱정이군. 오늘 파티에서 여러 사람 앞에 레아가 모습을 나타내면 더 심해질 텐데…. 그래도 그나마 날 닮아서 다행이야.’

레그마인 황제는 딸이 라이 경과 잘 되어서 피에르 시종장과 사돈이 될 생각이 없었고 가스파르 재상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도 내버려 둘 생각도 없었다. 벌써 이렇게 인기가 많은 레아인데 사교계 데뷔 후엔 욕심내고 탐내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게 분명했다.

“레아. 누군가 너한테 추파를 던져도 확실하게 거절하도록 해. 이 아빠는 아직 네 연애든 결혼이든 절대 허락할 수 없어.”

“저도 아직은 그럴 생각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직 16살밖에 안 됐는데 결혼할 리가 없잖아요.”

“라이 경이 결혼만 했었어도 안심하고 내 딸에게 접근하는 놈들은 다 차단하라고 했을 건데.”

“라이 경도 아직 20살밖에 안 됐어요. 연인이나 약혼자도 없다니까 결혼은 한참 멀었지 않았을까요?”

거기다 그 성격에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도 적극적으로 다가갈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여자를 잘 받아주는 것도 아니었다. 솔직히 레아는 분명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을 거로 생각하고 있었다.

“요즘 결혼하는 나이가 점점 늦어지고 있긴 하지만 라이 경은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일찍 가야 하지 않을까? 피에르 시종장도 벌써 60살이 넘었는데.”

“하긴. 시종장님께서는 급하실 수도 있겠네요.”

“원래 안 그랬는데 최근에 빨리 결혼시켜서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지. 안 될 거란 걸 알면서도 포기가 안 되는 거 같기도 하고.”

“포기가 안 된다니요?”

“시종장이 원하는 며느릿감이 나타나긴 했는데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상대라서. 못 올라갈 나무만 쳐다보고 있어.”

조각상처럼 잘생기고 어린 나이에 소드마스터라는 경지에 오른 라이 경조차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여자라니. 레아는 피에르 시종장님이 원한다는 그 며느릿감의 정체가 살짝 궁금해졌다.

“시종장님의 아들인 라이 경도 신분 차이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상대가 있나요?”

“신분으로만 본다면 불가능하진 않아. 오히려 라이 경은 사윗감으로 아주 괜찮지. 집안은 말할 것도 없고 본인의 능력도 뛰어나니까.”

거기다 넋을 잃고 바라볼 정도로 인물도 좋았고 인기도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으니 사실상 라이 경이 못 올라갈 나무는 거의 없었다. 문제는 피에르 시종장이 그 얼마 없는 못 올라갈 나무를 탐낸다는 것이었다.

‘내가 내 딸을 그렇게 쉽게 내줄 리가 없지. 절대 일찍 안 보낼 거야. 내 옆에서 오래오래 있게 하다가 본인이 너무 좋아서 이 남자 아니면 안 된다고 원하고 또 원한다면 그때 고민을 좀 해봐야지.’

아직 함께한 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아빠란 소리도 아직 듣지 못했는데 벌써 딸을 다른 남자에게 주고 싶지는 않았다. 그리고 상대가 라이 경이라면 레그마인 황제는 4년 뒤에 레아가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시집을 보내야 할 가능성이 매우 컸다. 그러니 레그마인 황제의 경계대상 1호는 자연스럽게 라이 경이 되었다.

“마음 같아서는 오늘 파티 에스코트도 내가 직접 해주고 싶지만…아빠는 이제 가봐야 할 거 같아. 아쉽다.”

“벌써 파티장으로 가시나요?”

“일단은 내가 초대했으니까. 먼저 파티장에 들어가 있어야 해서 이제 가봐야 해. 레아도 아빠가 같이 못 간다니까 아쉽지?”

아쉽냐고 묻긴 했지만 사실 뭘 기대하고 물어본 건 아니었다. 아직 아빠라고 부르는 것도 어려워하는 딸에게 레그마인 황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기다려주기로 마음먹은 상태였다. 그런데 그런 레그마인 황제에게 돌아온 레아의 대답은 상당히 의외였다.

“네.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어?”

상상도 못했던 레아의 대답에 레그마인 황제는 순간 자신이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황제는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었고 레아는 분명히 아쉽다고 말하고 있었다.

‘아무리 라이 경이 에스코트해준다고 해도 경보단 레그마인 황제 폐하가 더 편하고 믿음이 가. 나도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자세한 이유는 레아도 설명할 수 없었지만, 레그마인 황제 폐하와 같이 갈 수 없어 아쉽다는 마음은 사실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의 사랑스러운 말에 레그마인 황제는 레아를 두고 떠나고 싶지가 않았다. 하지만 그래도 레그마인 황제는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무겁게 떼며 방을 나갔다.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나가시고 얼마 후 또 누군가 방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황녀님. 라이 므라드입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라는 레아의 대답에 라이 경은 문을 열고 들어왔고 그는 평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평소랑 느낌이 좀 다르네요. 파티라고 신경 쓰신 건가요?”

“아닙니다.”

“하지만 옷도 그렇고 내가 원래 알던 라이 경과는 느낌이 다른데요? 혹시 누가 챙겨줬어요?”

“어머니께서 직접 신경 써주셨습니다.”

“흐음. 그렇군요.”

원래 파티를 좋아하는 편도 아니었고 잘 참석하지 않는 라이 경이란 걸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옷을 파티에 맞게 잘 입고 와서 의아했던 레아는 어머니께서 직접 챙겨주셨다는 라이 경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라이 경은 내 에스코트를 해주기로 했으니까 집에서 신경 써주는 것도 당연한 거겠지.’

피에르 시종장님과 라이 경은 레아의 존재를 알고 있으니 분명 경의 어머니도 레아가 제국의 하나뿐인 황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레아의 존재를 처음으로 공개하는 파티에서 라이 경은 에스코트를 맡았으니 레아는 경의 부모님께서도 당연히 오늘 파티를 신경 쓰고 있으실 거로 생각했다.

하지만 레아의 생각과는 달리 라이 경의 어머니가 신경을 쓰는 이유는 레아가 황녀이기 때문이 아니었다. 라이 경의 어머니가 신경 쓰시고 있는 이유는 피에르 시종장님이 레아를 며느릿감으로 탐내고 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그렇다고 쳐도 이제는 어머니까지 이러시니…. 이럴 줄 알았으면 레아 황녀님의 호위를 맡는 게 아니었어.’

아버지보다 10살이나 어린 어머니셨지만, 벌써 50이 넘은 나이셨고 슬슬 친구 중에서는 손주를 보는 친구분들도 있으신 모양이었다. 아버지처럼 어머니도 예쁘고 귀여운 사랑스러운 딸을 원했기에 대놓고는 티를 내시는 건 아니라도 아들이 빨리 결혼을 해서 귀여운 손녀를 안아보고 싶어 하긴 하셨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황궁으로 오신 레아 황녀님이 너무나도 예쁘고 사랑스럽다는 얘기와 아들과 참 잘 어울린다는 남편의 얘기를 듣고 어머니도 레아 황녀님을 며느릿감으로 조금 욕심내시는 것 같았다. 이번 파티에서 황녀님의 파트너가 되었다는 소식에 이렇게 신경 써주신 걸 보면 확실했다.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는 자신의 딸에게 반하지 말라고 하고 부모님은 레아 황녀님과 잘 되길 바라고 있으셔서 덕분에 사이에 낀 라이 경은 돌아버릴 것만 같았다. 정작 당사자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왜들 그러시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라이 경. 이제 가야 하지 않을까요?”

“네. 레아 황녀님.”

또 같이 파티장으로 들어가면 무슨 말을 하시려나. 라이 경은 속으로 한숨을 쉬며 레아 황녀님께 한쪽 팔을 내주었다. 레아는 잠시 머뭇거리다 라이 경의 팔에 살포시 팔짱을 꼈다.

“왜 파티에 갈 때는 꼭 파트너의 팔짱을 껴야 할까요. 혼자 못 걷는 것도 아닌데 어색하고 불편하게.”

“동감입니다.”

“그래도 안 하면 다들 이상하게 볼 거니까 잠깐 실례 좀 할게요.”

“아닙니다. 레아 황녀님.”

남자에게 팔짱을 껴보는 것 자체가 처음인 레아는 어색했지만, 라이 경은 어색한 걸 넘어 황녀님의 손이 몸에 닿자 조금 긴장이 되었다. 사실 라이 경도 파티에 참석해서 누군가를 에스코트하고 파트너가 되는 건 오늘이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둘 다 어색하고 서투른 모습에 옆에서 그걸 지켜보던 시녀들은 모두 씰룩거리는 입꼬리를 감추기 바빴다.

‘어떡해. 두 분 다 너무 귀여우신 거 아니야?’

‘그러게. 원래도 너무 그림이었지만, 오늘은 꾸미셔서 그런지 진짜 장난 아니다. 너무 완벽해!’

‘진짜 비주얼 폭발이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박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라이 경 부럽다. 나도 레아 황녀님이랑 팔짱 끼고 파티 가고 싶다….’

그렇게 두 사람은 시녀들의 뜨거운 시선을 받으며 방을 나왔고 파티장으로 향했다.

“그럼 오늘 라이 경의 어머님도 참석하시나요?”

“초대받지 못하셔서 참석하지 않으실 겁니다. 꼭 오시고 싶어 하셨는데 많이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래요? 피에르 시종장님 파트너로 같이 참석하실 줄 알았는데.”

“시종장님께선 파티에 초대된 것이 아니라 황제 폐하를 도와 파티를 주최하시는 쪽이십니다. 소니아 부인도 가스파르 재상의 파트너가 아닌 주최 측으로 참석하시는 것입니다.”

“파티라는 건 복잡하네요. 초대하고 초대받고 주최하고.”

우나타에서는 한 집에서 파티를 열면 초대받든 아니든, 모든 이웃이 모여 맛있는 걸 먹고 음악을 들으면서 즐겁게 지내는 것이 보통이었다. 역시 황실에서 열리는 파티는 달라도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레아는 파티장의 커다란 문 앞에 섰다.

라이 경과 함께 커다란 문 앞에 서자 레아는 문득 처음 황궁에 와서 황제 폐하를 만나기 직전, 알현실 문 앞에 섰을 때가 생각이 났다. 그때도 레아는 커다란 문 앞에 서 있었고 옆에는 라이 경이 있었었다.

“잠시 기다렸다가 문이 열리면 파티장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후로는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

“레아 황녀님. 많이 떨리십니까?”

“…조금요.”

사실 아까 방을 나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긴장되고 떨릴 줄은 몰랐다. 그런데 막상 파티장의 커다란 문 앞에 서니 레아는 심장이 쿵쿵 뛰고 긴장이 되었다. 갑자기 조금 굳은 얼굴을 하고 긴장한 레아를 라이 경은 잠시 아무런 말 없이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떨지 않으셔도 됩니다. 레그마인 황제 폐하와 가스파르 재상, 소니아 부인, 피에르 시종장님까지 모두 황녀님의 편입니다.”

“제 편이요?”

“그리고 저 역시 레아 황녀님의 편입니다.”

낯선 사람들이 가득할 파티장에서 든든한 내 편이 5명이나 있다는 그 사실에 이상하게 레아의 마음은 조금 편안해졌다. 자신도 레아의 편이라고 말해준 라이 경은 팔짱을 끼고 있던 레아의 손을 뗐고 그 대신 그 손을 꼭 잡아주었다. 지금 레아 황녀님께 필요한 건 팔짱이 아니라 손을 잡아주는 것인 것 같았다.

“이제 곧 문이 열릴 겁니다. 황녀님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저를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응. 알았어요.”

자신을 배려해주는 듯한 말에 레아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어쩐지 지금은 옆에 있는 이 목석같고 조각상 같은 남자가 참 든든하게 느껴졌다.

16.첫눈에 반했습니다.docx

라이 경의 말대로 곧 커다란 문이 활짝 열렸고 레아는 라이 경의 손을 꼭 잡고 파티장 안으로 들어갔다.

레아가 안으로 들어오자 파티장에 있는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그 소리 때문에 혹시라도 황녀님이 움츠러드실까 봐 라이 경은 손을 더욱더 꽉 잡아주었다. 그 덕에 레아는 조금 긴장은 했어도 잔잔한 미소와 여유를 잃지 않았다.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 당당하게 걷자!’

이 수많은 사람 중 분명 레아를 싫어하고 미워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었지만 여기에는 레아의 편인 5명도 있었다. 계속 그 생각을 하며 레아는 레그마인 황제 폐하에게로 다가갔다.

황금빛 머리카락을 가진 소녀와 새카만 머리카락을 가진 청년은 소녀와 같은 황금빛 머리카락을 가진 황제 폐하의 앞으로 갔고 청년은 황제 폐하께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소녀는 청년의 손을 놓고 황제 폐하의 옆에 섰고 황제는 그런 소녀를 보며 다정하게 웃으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잘했어. 레아.”

“감사합니다. 황제 폐하.”

“라이 경. 넌 파티 끝나고 나 좀 보자?”

“…네. 황제 폐하.”

레그마인 황제는 분명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으론 거의 라이 경을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다. 황녀님의 손을 잡고 들어왔을 때부터 라이 경도 어느 정도는 예상한 반응이었다.

레그마인 황제는 사실 두 사람이 처음 파티장 안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 감히 누구 손을 잡는 거냐며 라이 경을 족치고 싶었지만…. 사랑하는 딸이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서는 이 순간을 망칠 순 없었다. 라이 경은 파티가 끝나면 족치기로 하고 레그마인 황제는 부드럽게 레아에게 말했다.

“생각보다 침착해 보이네. 처음 보는 그 순간부터 그랬지만, 역시 내 딸이야. 많은 사람 앞에 선 기분이 어때?”

“많이 떨리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그래. 다행이다.”

레아와의 짧은 대화가 끝내고 레그마인 황제는 다시 시선을 돌려 정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레아와 대화할 때와는 다른, 힘 있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얼굴 보면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아까도 말했듯이 이 아이는 제 친딸인 레아 더 다닐로만입니다.”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레아를 소개하자 파티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고 다시 살짝 긴장한 레아는 두 주먹을 꼭 쥐었다.

‘긴장하지 말자. 거짓말도 아니고 다 사실이잖아. 언젠가는 겪어야 할 일이야. 괜찮아.’

스스로 괜찮다고 주문을 걸며 레아는 속으로 무조건 자신의 편인 5명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러자 긴장된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다.

“비록 친부인 저조차도 존재를 알게 된 지 그리 오래되진 않았지만 소중한 제 딸이 황녀로서 많은 이의 사랑을 받길 바라고 있습니다. 모두 갑작스럽겠지만, 다닐로만 제국의 황실에 찾아온 새로운 존재를 축복해주길 바라며 파티를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말이 끝나자 술렁이던 분위기도 조금씩 가라앉았고 곧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일단 첫 번째 고비는 무사히 넘긴 거 같아 레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뱉었다. 하지만 곧 두 번째 고비가 레아를 찾아왔다.

“아름다우신 레아 더 다닐로만 황녀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앨버트 가문의 다리아 앨버트라고 해요.”

“아, 고마워요. 그리고 반가워요. 다리아 영애.”

“저는 블론디 가문의 레이첼이라고 합니다. 황녀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반가워요. 레이첼 영애.”

“레아 황녀님. 전 브라이트 가문의 장남 제이미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우신 황녀님을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저도 반가워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레아 더 다닐로만 황녀님. 페르티 가문의 차남 앤드리오 페르티라고 합니다.”

“하하. 반가워요.”

자리에 앉자마자 영애들과 영식들이 우르르 몰려와 인사를 하는 통에 레아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로 수많은 사람과 인사를 했고 파티장의 거의 모든 영애와 영식의 인사를 하고 나서야 레아는 겨우 한숨 돌릴 수 있었다.

“레아 황녀님. 첫 파티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과 주스라도 좀 드시겠습니까?”

“피에르 시종장님!”

“하하. 이 늙은이를 보고 반갑게 웃어주시다니. 역시 레아 황녀님은 마음씨도 곱고 아름다우십니다.”

“사과 주스 고마워요. 안 그래도 목이 마르던 참이었는데 잘 마실게요.”

보기 좋게 웃으면서 말하는 피에르 시종장님을 보며 레아는 따라 웃었다. 피에르 시종장님과는 가르파르 재상이나 소니아 부인처럼 자주 만나거나 얘기를 자주 하지는 못 했지만, 그래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었다.

‘만약에 나한테도 외할아버지가 있었다면 이런 느낌이었을까? 부드럽고 다정하고 따듯하고. 아마 내가 태어나기 한참 전에 돌아가신 내 진짜 외할아버지도 살아계셨다면 피에르 시종장님과 비슷한 연배셨겠지?’

피에르 시종장님은 레아를 며느릿감으로 탐내고 있는데 그걸 알 리가 없는 레아는 피에르 시종장님을 보며 꼭 외할아버지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슬프게도 레아의 생각대로 실제로 돌아가신 아리샤의 친아버지이자 레아 외할아버지의 나이는 피에르 시종장님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 슬픈 사실을 알 리가 없는 피에르 시종장님은 자신이 준 사과 주스를 꼴깍꼴깍 잘도 마시는 레아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원래도 참 아름다우시지만, 오늘은 특히 더 빛이 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우시니 곧 황녀님께도 혼담이 끊임없이 들어올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전 아직 16살이잖아요. 결혼 얘기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생각해요.”

“황족이나 귀족은 18살에 약혼을 해서 성인이 되자마자 결혼하는 일도 많으니 마냥 이르신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현재 다닐로만 제국은 황족이 턱없이 부족한지라….”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는 절대 딸을 일찍 시집보낼 수 없다고 길길이 날뛰시겠지만, 그래도 레아가 일찍 결혼해주는 편이 사실 제국을 위한 일이긴 했다. 그리고 피에르 시종장님 역시 바라는 일이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레아 황녀님의 곁에 꼭 좋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니까요.”

“과연 그럴까요?”

“네. 키도 크고 인물도 빼어난 데다 능력도 출중한 사내가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꼭 붙잡으세요.”

“하하. 알았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 좋은 사람이 바로 라이 경이라며 당장 꽉 붙잡으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피에르 시종장님은 그 마음을 꾹 참았다.

‘자고로 남녀관계란 그냥 둘이서 알아서 맺어지는 게 제일 좋은 법. 라이에게 그만큼 눈치를 줬으니 알아서 잘할 거라고 믿어야겠지. 눈치 없이 어른들이 끼면 잘 되려던 것도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보고만 있다간 뻣뻣하고 무뚝뚝한 아들놈은 황녀님을 놓칠 게 뻔했다. 그래서 피에르 시종장님은 라이 경에게 대놓고 팍팍 눈치를 주는 것이었다.

“그러고 보니 아들 녀석이 이번 파티에서 레아 황녀님의 에스코트를 맡았다고 들었는데 어찌 보이지 않는군요.”

“아, 라이 경은 저쪽에 있어요.”

레아가 가리키는 쪽을 보자 그곳에는 화려하고 반짝반짝한 드레스를 입은 영애들이 가득했고 그 가운데는 라이 경의 검은 머리카락만이 보였다. 잘생겨도 너무 잘생긴 아들이기에 어느 정도 예상하고는 있었지만, 황녀님을 두고 다른 영애들 사이에 파묻혀 있는 아들을 보며 피에르 시종장님은 혀를 끌끌 찼다.

“황녀님의 파트너로 파티에 참석했으면서 저런 꼴을 보이다니…. 아비로서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레아 황녀님.”

“아니에요! 라이 경도 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이런 일로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녀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제 아들이지만 창피하군요.”

“이게 왜 창피한 일이에요. 다 라이 경이 잘 생겨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아버지로서 기분 좋지 않으세요?”

사실 레아는 라이 경 덕분에 자신에게 쏠릴 시선이 덜한 느낌이라서 다행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레아의 그런 마음을 알 리가 없는 피에르 시종장님은 아들이 잘생겼다는 말에 이때다 싶어서 은근슬쩍 자신의 속마음을 내비쳤다.

“솔직히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저와 안사람도 나이가 있으니 어서 결혼해서 손주를 안겨줬으면 소원이 없겠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애인은커녕 저런 모습만 보이니….”

“라이 경도 아직 20살이니까요. 좀 더 기다리시면 좋은 짝을 만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도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4년 후에는 꼭 결혼했으면 하고 바라고 있죠. 하하.”

일부러 레아가 성인이 되는 4년 후라고 말했지만, 설마 외할아버지 같은 피에르 시종장님이 자신을 며느릿감으로 탐내고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 하는 레아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웃기만 했다. 이제 여기서 더 얘기했다간 늙은이의 주책이 될 거 같아 피에르 시종장님은 거기서 대화를 끝내고 황녀님께 짧게 인사를 한 후 자리를 떠났다.

피에르 시종장님이 떠나자 레아는 조심스럽게 눈을 굴려 주변 눈치를 살폈다. 다행히 이제 레아를 주목하는 시선도 많이 줄었고 슬슬 간식을 먹으러 갈까 하고 생각하며 레아는 살며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레아가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누군가 레아에게로 다가왔다.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레아 더 다닐로만 황녀님을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이모어 가문의 차남인 프레디 하이모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황녀님.”

“프레디 소공자?”

“네. 제가 프레디 소공자입니다.”

“아, 반가워요. 프레디 소공자.”

은빛 머리카락에 짙은 파란색 눈동자. 그리고 라이 경 만큼이나 너무나도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있는 훤칠하고 매우 멋있는 이 남자.

이름을 알려주지 않아도 이 사람이 주변에서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던 라이 경의 친구이자 바람둥이 날라리 소공자란 걸 레아는 알 수 있었다. 파티에서 안 만나길 바랐었지만, 막상 프레디 소공자가 먼저 말을 거니 레아는 기분이 나쁘다기보단 조금 얼떨떨했다.

‘우와. 근데 진짜 잘생기긴 했네. 키도 라이 경만큼 크고 경이랑은 느낌이 다르긴 한데 이쪽도 진짜 미친 듯이 잘생겼다. 거기다 잘 웃으니까 무뚝뚝하고 잘 웃지도 않는 라이 경이랑은 분위기가 전혀 달라.’

딱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프레디 소공자의 첫인상은 솔직히 괜찮은 편이었다. 하지만 레아는 이 남자가 바람둥이 날라리 소공자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경계했다.

“라이 경에게 황녀님의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르시군요. 전 레아 황녀님은 지적이시고 아름다우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만.”

“라이 경이 저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다고요?”

“네. 레그마인 황제 폐하를 쏙 빼닮으셔서 상당히 예쁘신 분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프레디 소공자가 자신을 보고 실망했든 말든 레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대신 소공자의 말을 듣고 딱 한 가지 생각이 들긴 했다.

‘세상에 저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다니. 저렇게 뻔뻔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게 참 신기하네. 놀라워라.’

라이 경에게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했을 때부터 레아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라이 경이 황녀님은 지적이고 아름다우신 분이라고 말했다는 부분에서 레아는 이건 거짓말이란 것을 100% 확신할 수 있었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라이 경이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잖아. 그리고 애초에 프레디 소공자한테 내 얘기를 했을 거 같지도 않고.’

레아에겐 그렇게 말도 섞지 말고 눈도 마주치지 말라고 했으면서, 라이 경이 소공자에게 레아의 얘기를 했을 리가 없었다.

“소공자가 왜 저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별로 재미도 없는데.”

“하하. 역시 레아 황녀님은 바로 눈치채셨군요.”

“그건 라이 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바로 눈치챌 수 있는 거짓말이었어요. 설령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속는 사람은 없을 거로 생각해요.”

“하지만 대부분은 속는답니다. 뺨을 붉히며 부끄러워하면서 말이에요.”

“그런 거짓말을 자주 하셨나 봐요?”

“네. 부끄러워하는 영애들이 귀여워서 자주 장난을 치게 되네요.”

어쩜 이렇게 대화를 나눌수록 사람이 별로일까? 원래도 레아는 프레디 소공자를 안 좋게 생각하고 있기도 했지만, 얘기하면 할수록 더 별로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레아 황녀님이 제가 예상했던 모습과 달라서 실망한 건 사실이랍니다. 라이 경에게 들어서 황녀님의 존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레아의 존재를 알았든 말든 기대하고 실망을 했든 말든 그건 상관없었다. 지금 레아의 머릿속은 어서 호박파이와 쿠키를 먹으러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이름다우실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빛나시는 분이실 줄은 몰랐습니다. 마치…밤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아름다우십니다. 솔직히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네?”

“빛나는 황금빛 머리카락에 꼭 보석을 박아놓은 듯한 눈동자를 보는 순간 전 이미 황녀님께 반해버렸습니다. 꼭 하늘에서 절 위한 천사가 내려온 것만 같아서 기뻤습니다.”

“그만하시죠. 프레디 소공자.”

너무나도 뻔히 보이는 수작에 레아는 정색했다. 역시 바람둥이에 날라리 소공자 아니랄까 봐 프레디 소공자는 레아에게도 만나자마자 추파를 던졌다.

레아가 정색하자 프레디 소공자는 만족스럽다는 듯 미소를 지었고 레아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건 누가 봐도 악수를 하자는 뜻이었기에 레아는 잠시 망설였다. 소공자와 별로 악수를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무시하기도 좀 그래서 결국 레아는 어쩔 수 없이 그 손을 잡으려고 했다. 그런데 레아가 프레디 소공자의 손을 잡기 전에 누군가 먼저 소공자의 손을 낚아챘다.

“너 내가 황녀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지.”

“에이. 왜 벌써 왔어?”

“눈알 뽑힌 다음에 혀 잘리고 싶은 게 아니라면 빨리 꺼져.”

“하여튼 무서운 녀석.”

험악한 라이 경의 말에 프레디 소공자는 웃으면서 뒤로 물러났고 라이 경은 그제야 프레디 소공자의 손을 놔주었다. 그런데 라이 경이 손을 놓자마자 프레디 소공자는 재빠르게 움직여 레아의 손을 잡았다.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레아 황녀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프레디 소공자는 레아의 손등에 쪽하고 입을 맞춘 후 쏜살같이 사라졌다. 갑작스럽게 손등 위로 따듯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닿았다 떨어져 레아는 깜짝 놀랐다.

“뭐야……?”

손등에 누군가 입을 맞춘 건 태어나서 처음이라 레아는 좀 얼떨떨한 마음으로 프레디 소공자가 사라진 쪽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레아와 프레디 소공자의 짧지만, 기억에는 확실히 남은 첫 만남은 끝이 났다.

17.무례하게 구는 사람에게 주는 벌.docx

“라이 경. 부탁이니까 표정 좀 풀어요.”

“제 불찰입니다.”

“손등에 뽀뽀하는 건 존경과 친애의 표시를 담은 인사잖아요. 뭐, 프레디 소공자가 날 존경할 리는 없지만…. 아무튼 표정 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절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했는데 잠시 안 보고 있는 사이에 황녀님께 갔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진짜 괜찮다니까요.”

물론 누군가 손등에 입을 맞춘 게 처음이라서 레아도 놀라긴 했지만, 그게 그렇게 심각한 일은 아니었다. 남자가 자신보다 신분이 높은 여자에게 존경과 친애의 의미를 담아 손등에 입을 맞추는 행동은 파티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

물론 프레디 소공자처럼 처음 만난 사이에 상대의 동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입을 맞추고 도망가는 건 무례할 수도 있는 행동이었지만, 레아는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기고 싶었다. 근데 라이 경은 자꾸 그게 신경이 쓰이는지 아까부터 계속 표정이 좋지 않았다.

“레아 황녀님. 지금 당장이라도 혀를 잘라버리라고 말씀해주신다면 제가 바로 프레디 소공자의 혀를….”

“자르지 마요. 며칠 전에 제가 했던 얘기 잊으신 건 아니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면 라이 경은 정말로 프레디 소공자를 찾아가 혀를 잘라버릴 거 같아서 레아는 그를 말렸다. 혀가 잘라도 다시 자라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겨우 이런 일로 혀를 자르겠다니 레아는 한숨이 나왔다.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는 절대 말하지 말자. 라이 경이 혀를 잘라버리겠다고 했으니 폐하라면 아예 팔다리를 댕강댕강 잘라버리실지도 몰라. 모두를 위해서 절대 말하면 안 돼.’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심각하게 불쾌한 것도 아니라서 그냥 입 다물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았다. 레아는 작게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레아 황녀님. 왜 그러십니까?”

“호박파이랑 쿠키 먹으려고요.”

“제가 가져다드리겠습니다.”

“됐어요. 제가 가서 먹을래요.”

레아의 자리는 호박파이와 쿠키가 있는 곳과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어서 주변에는 주스 같은 음료들만 가득했다. 혹시라도 드레스에 냄새가 밸까 봐 일부러 신경 써준 것 같았지만 맛있는 간식을 기대하고 있던 레아에겐 이 자리가 좋은 자리는 아니었다. 라이 경은 간식을 자리로 가져다주겠다고 했지만, 레아는 그걸 거절하고 직접 간식을 가지러 갔다.

‘라이 경은 분명 파이랑 쿠키를 조금만 가지고 올 거란 말이야. 안 그래도 신경 쓸 게 많아서 배도 고픈데 찔끔찔끔 먹고 싶지는 않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저기서 자기들끼리 담소를 나누며 간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고 있는데 레아 혼자서 우아하게 소파에 앉아서 먹고 싶지는 않았다. 자연스럽게 다른 영애들과 어울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레아는 자신의 또래로 보이는 영애들의 무리가 있는 쪽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

레아가 가까워질수록 영애들은 슬금슬금 티 나지 않게 레아를 피했다. 처음엔 이게 뭔가 좀 당황스러웠는데 레아는 곧 그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다.

‘가까워지고 싶지 않아 하고 있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어느 날 갑자기 황제 폐하의 딸이란 이유로 평민에서 황녀로 신분 상승한 사람. 각자 레아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달랐지만, 가까워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똑같았다.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말해 평범한 것도 아니었다. 오늘 갑자기 나타나서 모두를 놀라게 한 존재였으니 레아도 그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아까 레아에게 다가와서 먼저 자신을 소개한 것도 황녀님에 대한 예의였지 그 이상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다.

‘괜찮아. 내 환경이 그런 걸 뭘 어쩌겠어. 또래 친구는 우나타에서도 없었는데 황녀가 됐다고 갑자기 생길 리가 없지.’

우나타에는 어른들뿐이라 레아는 태어나서 한 번도 또래 친구를 사귀어본 적이 없었다. 조금 씁쓸하기도 했지만, 시녀들과 자신의 편인 5명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며 레아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였다.

“앗!”

“으앙, 내 주스!”

“내 드레스….”

“내 주스 어떡할 거야! 내 토마토 주스! 으아앙!”

이제 12살 정도 돼 보이는 통통한 남자아이가 주스를 들고 뛰어다니다 레아와 부딪혀 그 주스를 그대로 레아에게 쏟아버렸다. 덕분에 새하얗던 레아의 드레스는 토마토 주스로 얼룩이 졌고 그걸 본 그 남자아이의 여동생으로 추정되는 5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당연히 파티장 내 모든 시선은 레아와 그 아이들에게로 향했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레아는 당황스러웠다. 드레스가 엉망이 되고 아이는 우니까 이걸 어떡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레아 황녀님. 괜찮으십니까?”

“네, 네. 드레스가 엉망이 된 것 말고는 괜찮아요.”

“황녀님이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입니다.”

만약 남자아이가 들고 있던 유리컵이 깨졌다면 레아가 다칠 뻔했던, 위험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주변이 소란스러워지자 그 아이들의 부모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달려왔고 레아는 이제 좀 상황이 수습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진정한 소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어서 제 아이에게 사과하시죠.”

“네?”

“황녀님 때문에 제 아들이 넘어지고 제 딸이 울고 있지 않습니까? 어서 제 아이들에게 사과하세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좀 당황스럽네요.”

어린아이가 사람이 많은 파티장에서 뛰어다니다가 황녀님과 부딪혀서 넘어졌고 그러다 들고 있던 토마토 주스를 쏟아 황녀님의 드레스가 엉망이 되었다. 누가 봐도 레아가 사과를 받아야 마땅한 상황인데 지금 이 부인은 오히려 레아에게 사과하라고 하고 있었다. 레아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기만 했다.

“위즈덤 공작부인. 황녀님께 무례하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영식이 먼저 뛰어다니다 황녀님께 부딪혀 넘어지신 것 아닙니까. 덕분에 레아 황녀님의 드레스가 엉망이 되었으니 사과는 부인께서 황녀님께 하셔야 합니다.”

“하, 원래 아이들은 뛰어다닐 수도 있는 거죠. 만약 내 아들이 다치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레아 황녀님께서도 다치실 뻔했습니다. 어서 정중하게 사과하시죠.”

“제가 왜요? 저나 제 아이는 누군가에게 사과할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오히려 저희가 받아야겠습니다.”

라이 경과 이야기하면서 레아는 이 사람이 그 말로만 듣던 위즈덤 공작부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모두가 입을 모아 재수 없는 사람이니 절대 엮이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엮이게 되고 말았다.

‘얘기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상상 그 이상인 사람이다. 아예 말이 통하지 않잖아. 지금 자기 아들이 잔뜩 겁먹고 있는 건 안 보이는 건가?’

레아와 부딪히고 주스를 쏟은 장본인인 남자아이는 공작부인 뒤에 숨어서 라이 경을 보며 무서워하고 있었다. 그런 아이를 보며 레아는 한숨을 쉬었다.

‘라이 경이 무서운가 보군. 하긴, 어린아이한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 불쌍한 녀석.’

그냥 레아에게 사과 한마디만 했다면 끝났을 일을 더 키우고 있는 공작부인 때문에 저 아이는 얼마나 무서울까. 위즈덤 공작부인의 태도는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지만, 아이가 불쌍해 레아는 여기서 이 일을 마무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꼬마야. 넘어지면서 다친 곳은 없니?”

“……….”

“사람이 많은 파티장에서 그렇게 뛰어다니면 안 되는 거야. 특히 무언가를 들고 있을 땐 조심히 사뿐사뿐 걸어 다니도록 해. 그리고 누군가와 부딪혔으면 사과부터 하는 거야. 알았지?”

이 정도로 말했으면 알아들었겠지. 그런데 공작부인의 아들은 레아의 말을 듣고 작은 소리로 뭐라고 말하고 있었다.

“뭐라고? 잘 안 들려.”

“……해.”

“소리가 너무 작아. 크게 말해봐.”

“…하라고.”

“더 크게.”

더 크게 말하라는 레아의 말에 그 남자아이는 이를 악물고 큰소리로 외쳤다.

“사과해! 사과하라고!”

“…뭐?”

“너 때문에 내 동생이 울었잖아! 사과해! 그리고 나한테 꼬마라고 한 것도 사과해! 우리 엄마한테 화낸 것도 사과해!”

“……….”

당장 사과하라고 소리를 빽빽 지르는 아이를 보며 그 자리에 있는 모두는 경악했다. 사과하라는 것도 황당한 말이었지만, 공작의 아들이 황제의 딸인 황녀에게 반말한다는 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아이의 말을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넌 평민이잖아! 시녀의 딸인 주제에 황제 폐하의 딸인 척하지 말고 네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 당장 내 동생과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 아빠한테 다 이를 거야!”

어린아이라서 할 수 있는 말이었지만 어린아이라고 용서받을 수 있는 수준의 말은 아니었다. 파티장 모두는 어린아이의 말에 얼어붙었고 특히 오느아 공작은 이미 얼굴이 회색빛이었다.

그런데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레아는 웃고 있었다. 얼굴은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에서 분노가 느껴지는 게 꼭 레그마인 황제 폐하를 보는 거 같아 소름이 돋았다. 곧 레아는 천사처럼 방긋 웃었고 참으로 상냥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한테 이르겠다니. 그럼 나도 황제 폐하께 일러볼까? 그러면 일이 어떻게 될진 똑똑한 아이라면 알고 있겠지. 하지만 너나 네 어머니는 그리 똑똑한 사람은 아닌 거 같네.”

“우리 엄마랑 날 욕하지 마!”

“그래. 부모 욕 먹이기 싫었으면 행실을 똑바로 했어야지. 아무리 아이라고 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말이 있고 아닌 말이 있는 거야. 넌 오늘 그 선을 넘었어. 선을 넘었다면 벌을 받아야겠지?”

“설마 황제 폐하를 이용하려고….”

“에이. 내가 너처럼 혼자선 아무것도 못 하는 치사한 사람인 거 같니? 난 내 힘으로 벌 줄 거야.”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힘을 빌리지 않겠다는 말에 위즈덤 공작부인은 속으로 안심했다. 고작 평민으로 쭉 살아왔던 여자아이가 벌을 주면 얼마나 대단한 벌을 주겠어? 하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곧 위즈덤 공작부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그런데 이 파티장에 있는 누군가의 눈알을 뽑고 혀를 잘라도 된다고 하더라고?”

“거, 거짓말하지 마!”

“그럼 거짓말인지 아닌지 한번 볼까?”

레아는 아이에게 한 번 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미소를 지어주곤 라이 경에게 눈짓을 주었다. 레아의 눈짓에 라이 경은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공작 부인에게 다가갔다.

“뭐, 뭐예요?”

“지금부터 당신의 혀를 자를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오느아 공작 가문 사람의 혀를 자르겠다니! 이게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레아 더 다닐로만 황녀님의 말씀이시라면 가능합니다.”

이대로라면 정말 혀가 잘릴 것 같아 위즈덤 공작부인은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여태까지 황제 폐하를 제외한 모두를 남편의 권력으로 무시하고 그들보다 높다는 우월감에 취해서 살았는데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당황스러웠다. 그런데 그때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나타나셨다.

“레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아, 황제 폐하.”

“방금 라이 경이 공작부인의 혀를 자르겠다고 하는 걸 들은 것 같은데 사실이야?”

“그것이 사실은….”

“라이 경. 위즈덤 공작부인의 혀를 정말로 자를 생각은 아니겠지?”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말씀에 라이 경은 조용히 검을 도로 집어넣고 뒤로 물러났다. 위즈덤 공작부인은 드디어 상황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며 속으로 기뻐하며 자기 아들을 혼내려고 했던 레아를 비웃었다.

하지만 공작부인이 잊고 있던 것이 있었으니. 이 파티장에서 제일 정상이 아닌 사람은 바로 레그마인 황제 폐하였다. 황제 폐하께서는 아까 레아가 지었던 미소와 똑같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위즈덤 공작부인 딸의 팔다리를 자르고 아들의 눈알을 뽑도록 해. 그리고 공작부인의 혀와 손가락 10개를 다 잘라버리도록 해.”

“황, 황제 폐하!”

“당신의 행동 때문에 평생 고통받을 아이들을 보며 반성하도록 하세요. 감히 내 소중한 딸을 건드린 벌입니다.”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는 분명 웃고 있으셨지만, 그 어느 때보다 분노하고 있다는 걸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모든 사람이 놀라고 있었지만, 사실 제일 놀란 사람은 다름 아닌 레아였다.

‘이게 아닌데…! 왜 갑자기 나타나셔서 일을 크게 만드시는 거냐고요!’

사실 애초에 레아는 위즈덤 공작부인의 혀를 자를 생각이 없었다. 너무 예의가 없고 무례하게 굴어서 경고만 줄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정말 공작부인의 아들과 딸까지 손가락과 혀가 잘리고 눈알이 뽑힐 위기였다.

라이 경도 레아와는 위협까진 가할 수 있어도 파티장에서 정말로 누군가의 눈알을 뽑거나 혀를 자르지 않기로 약속했었지만,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명령이라면 그 명령을 따라야 했다. 생각보다 더 커져 버린 이 상황이 레아는 당황스러웠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람들 뒤에 숨어있던 오느아 공작이 뛰어나왔다.

“폐하! 모두 제 잘못입니다. 차라리, 차라리 제 눈알을 뽑고 혀를 잘라주십시오! 제발 아이들만은….”

“하긴. 아내와 아이들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방관한 공작의 잘못이 제일 크긴 하죠. 하지만 당신의 처자식에게 벌을 안 줄 순 없습니다. 오느아 공작”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제발 아이들만은…!”

“흐음. 정 그렇다면 세 사람의 벌을 모두 공작이 받는 건 어떠십니까?”

현재 레그마인 황제는 단단히 화가 난 상태였고 그 분노는 공작 가문의 사람을 벌해야 겨우 풀릴 것 같았다. 하지만 옆에서 얼굴이 창백해진 레아가 황제 폐하의 팔을 잡고 그를 말리기 시작했다.

“황제 폐하.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그러지 말아 주세요.”

“하지만 레아. 공작부인과 아들은 제국의 황녀인 너에게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고 무례하게 굴었어. 이건 죽어 마땅한 벌이야.”

“아뇨. 저들도 충분히 반성했을 거예요. 죽이지 말아 주세요.”

“반성으론 모자라. 벌을 받아야 해.”

지금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 분노로 가득 차 있으셨고 계속 이렇게 가다간 정말 누구 하나는 죽을 거 같았다. 레아는 입술을 꾹 깨물었고 그러다 자신도 모르게 큰소리로 외치고 말았다.

“아빠!”

태어나서 처음으로 레아의 입 밖으로 아빠란 말이 나왔다.

18.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야.docx

레아의 입에서 아빠란 말이 나오고 놀란 사람은 사실 별로 없었다. 레아는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딸이었고 친부인 황제 폐하를 아빠라고 부르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이게 당연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일에 정작 당사자인 레아와 레그마인 황제는 깜짝 놀란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순간 레그마인 황제는 자신이 머리끝까지 화가 났던 것도 잊고 수많은 사람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도 잊은 채로 오로지 레아만이 눈에 들어왔다.

“방금 날 뭐라고 불렀지?”

“아, 아빠.”

“정말 날 아빠라고 불렀다고?”

“인제 그만 해요. 이 사람들도 충분히 반성했을 거예요. 아빠.”

“……….”

아직 좀 어색하긴 해도 레아는 확실히 레그마인 황제를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보라고 해도 아빠란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었는데 방금 레아는 처음으로 황제에게 아빠라고 불러주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특별할 것 없는 순간이었지만, 레그마인 황제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레아의 그 마법 같은 말로 레그마인 황제는 공작부인의 손가락을 자르고 그 아들의 눈알을 뽑고 딸의 팔다리와 혀를 잘라버리겠다는 마음이 사라졌다. 자신의 소중한 딸인 레아가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위즈덤 공작부인. 오늘 당신의 무식함과 무례한 행동으로 인해 당신의 자식들과 남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뻔했는지 평생 똑똑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기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죠. 내 딸이 원하지 않으니 이번 한 번은 특별히 봐 드리겠지만 다음은 없을 겁니다.”

레그마인 황제의 말에 위즈덤 공작부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다. 그런 공작부인을 보며 레아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레그마인 황제는 그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했어. 레아. 무섭게 했다면 미안해. 그리고…고마워.”

“아니에요. 소란스럽게 만들어서 죄송해요.”

“괜찮아.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마무리해봐. 제멋대로 마음껏.”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레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황녀로 기억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었다. 그걸 알기에 레아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이내 무언가를 결심한 듯 주저앉아있는 위즈덤 공작부인에게 다가갔다.

“위즈덤 공작부인께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들과 함께 저와 라이 경에게 무례하게 군 것에 대해 사과하세요. 그리고 소란스러운 일을 만든 것에 대해서 여기 있는 모두에게 사과하세요.”

“……….”

“여전히 그럴 마음이 없으신 거 같군요. 그럼 저도 내키진 않지만, 권력을 휘두를 수밖에 없겠네요.”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레아의 말에 오느아 공작은 깜짝 놀라서 헐레벌떡 부인의 옆으로 가 무릎을 꿇고 바닥에 바짝 엎드렸다. 그리고 온몸을 벌벌 떨면서 레아에게 용서를 구했다.

“황녀님.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부디 한 번만 넓은 마음으로 이 사람을 용서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모두…모두 제 잘못입니다!”

“고개 드세요. 오느아 공작. 전 당신의 사과를 원한 게 아니에요. 제게 사과해야 할 사람은 당신의 아들과 아내입니다.”

“차라리…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를…!”

“싫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오느아 공작은 아들과 부인만큼 몰상식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시끄럽게 굴자 레아는 얼굴을 찌푸렸다.

‘위즈덤 공작부인은 원래 예의가 없는 사람이었어. 다른 파티에서도 이미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굴었다고 소문이 쫙 났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책임지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니. 할 수 있었다면 진작에 그랬어야지. 아직도 부인 때문에 완전히 등 돌린 가문 앞에서 빌빌거리면서 다닌다고 들었는데.’

나이도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벌벌 떠는 모습이 조금 불쌍해서 잠깐 마음이 약해졌지만, 레아는 다시 마음을 독하게 먹고 위즈덤 공작부인에게 한 발자국 다가갔다.

“오느아 공작이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사과는커녕 입도 뻥긋하지 않는 공작부인의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시는 뵐 일이 없었으면 좋겠군요. 이건 제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며 살며시 미소를 지은 레아는 근처에 있던 토마토주스 한 병을 손에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주스를 위즈덤 공작부인의 머리 위로 흘렸고 곧 부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토마토주스로 젖어 엉망이 되었다. 공작부인은 태어나서 처음 맛보는 굴욕이었지만 무슨 말을 할 수도, 그렇다고 몸을 움직여 피할 수도 없었다.

이제야 위즈덤 공작부인은 자신이 레아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수치스럽고 굴욕적이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제가 무슨 벌을 드릴지 기대하면서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위즈덤 오느아 공작부인. 그리고 아드님은…꼭 엄마를 닮아 훌륭한 어른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고 레아는 천사처럼 정말 예쁘게 웃었다. 그 모습을 저 멀리서 쭉 보고 있던 프레디 소공자는 재미있다는 듯이 레아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까도 느꼈지만…꽤 재밌을 거 같네. 특히 저 녀석 때문에 말이야. 흥미가 생겼어.’

그렇게 생각하며 프레디 소공자는 레아의 옆에 서 있는 자신의 친구를 보며 빙그레 웃었다. 요즘 좀 무료하던 참이었는데 마침 등장해주신 황녀님 덕분에 일이 재밌게 흘러갈 것만 같다고 프레디 소공자는 생각했다.

\*\*\*

그렇게 아무런 사고 없이 조용히 끝나길 바라고 또 바랐던 레아의 첫 파티는 엄청난 소동과 강렬한 첫인상을 남기고 끝이 났고 레아는 한동안 바쁘게 지냈다.

“오느아 공작 가문의 재산은 황녀님이 말씀하신 대로 딱 98% 몰수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현재 집에 있던 값비싼 것들을 모두 급하게 팔다 이제는 팔 것도 없다는 것 같습니다.”

“흐음. 근데 의외로 조용하네요. 이쯤 되면 살려달라고 징징거릴 줄 알았는데.”

“매일 오느아 공작에게서 편지가 세 통은 기본으로 오고 있지만,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모두 반송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위즈덤 공작부인이 보낸 편지는 없었나요?”

“네. 한 통도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공작부인이 사과한다면 조금 봐줄 의향도 있었는데 결국 끝까지 위즈덤 공작부인은 입을 열지 않았다.

‘미안하단 말이 어려운 말도 아닌데 가문이 점점 망해가더라도 끝까지 자존심은 지키겠다는 건가. 괜히 주변 사람들만 불쌍하게 됐네. 그러게 평소에 행실을 똑바로 했어야지.’

애초에 레아는 재산의 98%를 토해내라는 한 것이 전부였다. 그것도 말이 98%지 오느아 공작 가문이라면 분명 몰래 숨겨둔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을 게 분명했다. 곁에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가문이 쫄딱 망할 정도로 치명타는 아니라는 소리였다.

하지만 안 그래도 친하고 좋아하는 사람은커녕 모두가 위즈덤 공작부인을 싫어하고 있었는데 굳이 나서서 오느아 공작 가문을 도와줄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다. 반대로 꼴좋다고 비웃는 사람은 많다고 하는 것 같았다.

“이게 다 자업자득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겠죠.”

그러게 애초에 위즈덤 공작부인이 행실만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건데. 그런데 여전히 사과는커녕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는 공작부인이기에 레아는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 뭐, 그런 공작부인 덕분에 레아의 인기가 급부상하긴 했지만 말이다.

“레아 황녀님. 오늘도 편지가 산더미처럼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다 이리 주세요.”

“네. 그럼 여기에 두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시녀는 편지로 꽉 찬 상자를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가문에서 보낸 편지로 가득했지만, 이제 레아는 굳이 편지를 읽어보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었다. 모두 파티나 다과회 초대장 아니면 개인적으로 레아와 만나보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들이었다.

첫 번째 파티에서 일어난 엄청난 소동으로 인하여 레아가 사람들에게 남긴 첫인상은 레그마인 황제 폐하를 똑 닮은 딸이었고 동시에 거의 확실하게 다음 황제가 될 사람이라고 소문이 난 듯했다.

‘황녀로 사는 것도 이제 겨우 적응한 거 같은데 이제는 차기 황제라니. 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심히 부담스럽다고.’

레아는 현재로선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유일한 핏줄이자 황족이었다. 그러니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겠지만, 아직 레아에겐 너무 이르고 부담스럽기만 한 이야기였다. 레아도 아직 거기까진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벌써 이렇게 줄을 서려는 사람들이 나오니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따름이었다.

하지만 레아의 생각과는 달리 그런 의도로 레아를 만나 친해지고 싶다는 사람보단 그냥 정말로 순수하게 레아와 친해지고 싶어서 편지를 보낸 영애들이 많았다. 모두가 싫어하던 위즈덤 공작부인을 참교육시켰으니 영애들 대부분이 레아를 좋게 생각하는 쪽으로 바뀌어있었다. 물론 라이 경이 호위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었지만 말이다.

물론 예쁘고 똑 부러지는 레아의 모습에 반한 영식들도 많았지만, 그들이 보낸 편지는 모두 레아의 손에 들어오기 전에 몽땅 소각되어 버렸다. 남자가 보낸 건 상대가 누구든 전부 불태워버리라는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명령 때문이었다.

그 사실을 알 리가 없는 레아는 한숨을 쉬며 오늘 온 영애들의 편지를 하나하나 읽어보기 시작했다. 어제와 비슷비슷한 내용의 편지들을 읽다 문득 레아의 눈에 띄는 편지가 하나 있었다.

“에스트와 벨르……?”

공부할 때도 본 적이 없고 파티 때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었다. 레아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편지를 뜯어서 한번 읽어보았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우신 레아 더 다닐로만 황녀님께.

파티가 끝난 이후로 잘 지내셨나요?

저는 파티 때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있으셨던 황녀님의 모습을 본 이후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매일 별처럼 빛나는 레아 황녀님을 그리워하며 지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째서 황녀님은 온종일 제 머릿속을 뛰어다니시는 겁니까? 덕분에 전 매일 황녀님이 나오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첫눈에 반한 적은 처음이라 상당히 당황스러웠지만, 이것 또한 레아 황녀님을 향한 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황녀님께서도 제 사랑에 응답해주시겠습니까? 아니, 꼭 응답해주시길 바랍니다. 답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레아 황녀님에게 푹 빠져버린 누군가.]

편지 안에는 누가 보낸 건지 이름이 적혀있지 않았지만, 적어도 에스트와 벨르라는 사람이 보낸 게 아니란 건 확실했다. 그리고 레아는 이 편지를 누가 보낸 것인지 대충 예상이 갔다.

“라이 경. 이거 혹시 프레디 소공자 글씨 아니에요?”

“소공자의 글씨가 맞습니다. 어째서 여기에 이런 편지가….”

“편지 봉투에 본인 이름이 아니라 여자 같은 이름을 적어서 보냈네요. 에스트와 벨르라고.”

“……….”

“라이 경. 눈에 힘 좀 풀어요. 그러다 눈빛으로 누구 죽이겠어요.”

파티에서도 그랬지만, 라이 경은 유독 레아와 프레디 소공자가 조금이라도 접촉이 있을 때마다 그걸 끔찍하게 싫어하는 거 같았다. 분명 프레디 소공자와는 친구 사이라고 했고 파티에서 보니까 막 싫어하고 그런 건 아니었던 거 같았는데 꼭 소공자가 레아에게 추파를 던지면 그랬다.

‘혹시 계속 이러다 내가 프레디 소공자의 팔다리를 댕강댕강 잘라버리거나 오느아 가문처럼 하이모어 가문도 망하게 만들어버릴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건가?’

팔다리를 댕강댕강 잘라버리는 건 몰라도 레아가 하이모어 가문을 몰락시키는 게 가능할 리가 없었다. 하이모어 대공은 레그마인 황제 폐하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가주로 있는 가문을 황녀인 레아가 어떻게 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솔직히 팔다리를 댕강댕강 자르는 것도 프레디 소공자가 레아에게 정말 정말 쓰레기 짓을 하지 않은 이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라이 경이 프레디 소공자가 레아에게 추파를 던질 때마다 그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레아가 생각하는 것 때문이 아니었다.

‘안 그래도 힘든데 레아 황녀님이 그 자식에게 반하고 3개월 안에 버려지신다면 그땐 정말 내 혀가 잘리고 눈알이 뽑히는 건 당연한 거고 손가락과 발가락 모두 잘리겠지.’

만약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프레디 소공자는 모가지가 날아가고 황녀님의 호위이자 소공자의 친구인 라이 경까지 묶여서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손에 죽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과 황녀님이 잘되길 바라고 있는 부모님도 뭐라고 하실지 뻔히 보여서 더 끔찍했다.

안 그래도 프레디 소공자가 삐뚤어진 이후 그와 가깝게 지내는 걸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부모님이셨기에 라이 경은 어떻게든 그 불미스러운 일을 막아야만 했다.

‘내가 레아 황녀님만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프레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거지? 이것도 단순한 장난인가? 아니면 속에 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지?’

파티 때 레아 황녀님께 접근했다 라이 경에게 걸리자 프레디 소공자는 황녀님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도망갔었다. 그게 일부러 자신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장난이란 걸 라이 경은 알 수 있었지만 이렇게 이름까지 바꿔서 편지를 보낸 건 무슨 의도인지 파악이 되지 않았다.

편지를 자신의 이름이 아닌 여자 같은 이름으로 보낸 걸 보아 남자가 보낸 편지는 모두 버린다는 건 이미 눈치챈 것 같고 글씨체를 바꾸지 않고 보낸 건 일부러 라이 경이 알아보라고 그런 것 같았다. 그래야지 황녀님이 이 편지는 프레디 소공자가 보낸 것이란 걸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이었다.

‘도대체 황녀님께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거지. 그 자식이 정말로 황녀님께 첫눈에 반했을 리가 없잖아. 진짜 미치겠네.’

확실히 레아 황녀님은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파티 때 있었던 일을 생각했을 때 누군가는 황녀님께 반했을 수도 있었다. 실제로 그때 황녀님께 반했다는 사람도 몇 명 있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프레디 소공자만은 절대 그랬을 리가 없었다.

애초에 소공자는 누군가에게 첫눈에 반할 그런 남자가 아니라고 라이 경은 자신할 수가 있었다. 자기 좋다는 여자가 수두룩하고 지금도 아마 다른 여자랑 노닥거리고 있을 게 분명한 바람둥이 날라리 소공자가 설마 황녀님께 첫눈에 반했을 리가 없었다.

19.편지와 답신.docx

레아가 프레디 소공자에게 편지를 받은 그 날. 역시나 프레디 소공자는 앨버트 후작 가문의 다리아 영애와 데이트를 즐기는 중이었다.

‘아마 지금쯤이면 황녀님께서 내가 보낸 편지를 받으셨겠지? 과연 그 편지를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파티 때 뵀던 레아 황녀님이라면 분명 답신을 보내지 않을 것이었다. 편지에는 분명 답신을 기다리겠다고 적었지만, 수많은 여자에게 편지를 보내본 프레디 소공자는 상대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미 답신이 올 것인지 오지 않을 것인지 알 수 있었다.

“소공자님. 무슨 생각을 하시길래 그렇게 웃고 있으신 건가요?”

“그냥 잠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슨 재밌는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궁금해요. 저도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영애는 호기심이 많으시군요.”

프레디 소공자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음에도 다리아 영애가 굳이 물어보는 이유는 불안하고 초조했기 때문이었다. 다리아 영애가 파티에서 우연히 프레디 소공자를 만나 좋은 감정을 가지고 연락을 주고받고 데이트를 한 지도 어느덧 2개월째였다.

그 2개월 동안 손을 잡는 것 외엔 아무런 진도도 없고 아직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리아 영애는 자신과 프레디 소공자는 특별한 사이라고 믿었다. 아무리 바람둥이 날라리 소공자라고 유명한 프레디 소공자라도 자신은 지금까지의 다른 여자들과 다르다고 영애는 믿고 있었다.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야. 소공자님도 내가 다른 여자들과는 다르다고 해주셨잖아. 우린 운명이 틀림없어.’

그런데 요즘 다리아 영애는 자꾸 프레디 소공자가 좀 변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7월 말에 황실에서 열린 파티에 다녀온 이후로 프레디 소공자는 자신에게 조금 시큰둥해진 것 같았다.

연락구슬도 잘 받지 않고 전에는 낭만적이지 않냐며 로맨틱한 편지도 자주 보내주었는데 요즘은 한 통도 보내주지 않았다. 거기다 2주 만에 하는 데이트에서도 프레디 소공자는 영애를 앞에 두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 다리아 영애는 초조해할 수밖에 없었다.

“전 언제나 프레디 소공자님과 관련된 일이라면 관심이 가고 알고 싶으니까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원래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글쎄요. 전 그런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군요.”

불안해하고 초조해 보이는 다리아 영애를 보며 프레디 소공자는 한번 웃어주었다. 하지만 속으로 귀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직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겨운 여자는 오랜만이네. 아무래도 더 질질 끌지 말고 여기서 끝내는 게 좋겠어. 이미 관심이 가는 다른 사람이 생기기도 했고 말이야.’

원래는 상대가 더 깊은 관계를 요구하지만 않는다면 3개월은 가는 게 원칙이라면 원칙이었는데 프레디 소공자는 처음으로 3개월을 채우기도 전에 상대에게 흥미가 떨어졌다. 지금 프레디 소공자가 관심이 가고 흥미가 생긴 사람은 황금빛 머리카락을 가진 황녀님이었다.

“얼마 전 황궁에서 열린 파티에서 뵀었던 황녀님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영애도 파티에 참석했으니 레아 황녀님을 만났겠군요.”

“네. 짧게 인사만 나누었어요.”

“꼭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아름다우신 분이셨죠. 거기다 강단도 있으시고. 다리아 영애가 보기에도 상당히 매력적인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안 그래도 많은 분이 다음 황제는 레아 황녀님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아마 그렇겠죠. 그런 분은 어떤 사람과 결혼하실지 궁금하네요.”

누가 봐도 프레디 소공자는 레아 황녀님께 관심이 있다는 티를 팍팍 내고 있었다. 당연히 그걸 느낀 영애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프레디 소공자님도 예쁘고 신분도 높은 레아 황녀님에게 호감을 느끼신 걸까? 그래서 요즘 내게 마음이 식으신 걸까?’

확실히 레아 황녀님은 레그마인 황제 폐하를 쏙 빼닮아 상당한 미인이었고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자신을 지킬 줄 아는 멋있는 사람이라고 다리아 영애도 생각했다. 그런데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프레디 소공자가 황녀님께 관심을 가지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다.

다리아 영애는 예쁘장하게 생긴 편이긴 했지만, 황녀님처럼 엄청난 미녀는 아니었고 황녀님의 황금빛 머리카락과 에메랄드 같은 눈동자와 달리 머리와 눈동자 모두 흔해 빠진 갈색이었다. 거기다 후작의 딸인 다리아 영애보다 황제 폐하의 딸인 레아 황녀님이 신분이 더 높은 건 당연했다. 어디를 봐도 영애는 황녀님을 이길 수가 없었다.

‘안돼.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황녀님께 프레디 소공자님을 뺏길 순 없어! 소공자님은 내 운명의 남자야.’

아무리 상대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라고 해도 운명의 남자를 순순히 포기하고 보내줄 수는 없었다. 다리아 영애는 입꼬리를 올리고 웃으며 조금은 묘한 목소리로 말했다.

“글쎄요. 어쩌면 결혼을 못 하실지도 모르죠.”

“겉모습이 아름다우신 만큼 강인하고 멋진 분이신데 과연 그러실까요? 분명 내년부터 여기저기서 혼담이 들어오실 거 같은데 영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군요.”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이라도 내 사람이 되고 내 가족이 되는 건 또 다른 일이니까요.”

“흐음. 그게 무슨 뜻이죠?”

프레디 소공자님이 레아 황녀님을 좋아하지 않게 된다면 분명 다시 자신을 바라봐줄 것이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다리아 영애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최대한 조심스럽고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프레디 소공자에겐 확실하게 들리도록 말했다.

“분명 위즈덤 공작부인은 모두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긴 했지만…. 아무리 기분이 나쁘다고 해도 황녀가 공작부인의 혀를 자르겠다고 협박하고 토마토주스를 부어버리는 건 품위 없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품위를 지키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결국 오느아 공작 가문이 서서히 몰락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 마음이 아파요.”

사실 다리아 영애는 하나도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꼴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척을 했다. 하지만 그런 얕은수가 프레디 소공자에게 먹힐 리가 없었다.

“하지만 황녀님이 그러지 않으셨다면 위즈덤 공작부인은 더 기고만장해져서 여기저기 민폐를 끼치고 다녔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레아 황녀님이 토마토주스를 부으셨을 때 다들 속 시원했다고 하던데 영애는 마음이 아프셨다니 놀랍네요. 사실 저도 위즈덤 부인을 싫어해서 속 시원했는데 다리아 영애가 마음이 아팠을 줄은 몰랐습니다.”

레아 황녀님이 결혼 상대로 그리 좋은 여자는 아니라고 돌려서 말하고 싶었는데 돌아오는 프레디 소공자의 대답에 다리아 영애는 당황스러웠다. 프레디 소공자는 마치 다리아 영애가 위즈덤 공작부인의 편을 들어버린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아, 아뇨. 저도 물론 위즈덤 공작부인은 싫어했어요. 너무 무례하고 예의가 없잖아요? 제 말은 레아 황녀님이 아무리 아름다우시고 멋있으셔도 내 연인이고 가족이면 별로 안 좋을 거 같단 얘기였어요.”

“어째서요?”

“네, 네?”

“어째서 레아 황녀님이 연인이나 가족으로서는 별로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영애는 왜 그렇게 생각하죠?”

한번 말이 꼬이기 시작하자 분위기는 다리아 영애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주워 담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다리아 영애는 더듬더듬 나오는 대로 말을 내뱉기 시작했다.

“그야…사실 황녀님은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딸은 맞지만 사생아시잖아요. 거기다 황녀님의 어머니는 폐하의 시녀였고 심지어 나중에는 평민으로 살다 돌아가셨잖아요. 황녀님도 그동안 평민으로 사셨으니 아무래도 가족이 된다는 건 좀….”

“흠. 다리아 영애는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영애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죠.”

급하게 아무 말이나 내뱉은 것치곤 일단 잘 넘어간 거 같아서 다리아 영애는 속으로 안심했다. 그러나 프레디 소공자는 마치 충격이라는 듯한 얼굴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영애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으셨다니. 그럼 저와도 연인이나 그 이상의 관계를 맺으실 생각은 없으시다는 말이군요.”

“네? 그게 무슨….”

“사생아에다 어머니가 시녀였다는 건 저 역시 마찬가지니까요. 심지어 전 불륜으로 태어난 생명인데 영애가 그걸 몰랐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그야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다리아 영애. 영애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제가 먼저 물러나는 게 맞는 것이겠죠.”

“잠깐만요! 프레디 소공자님!”

“붙잡지 말아 주세요. 여기서 더 상처받고 싶지 않습니다.”

“……….”

운명의 남자라고 생각했고 절대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해서 한 말들이 결국 그 남자를 상처받게 했고 떠나게 했다. 붙잡지 말라는 말에 다리아 영애는 떠나는 프레디 소공자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다리아 영애는 이를 꽉 깨물고 생각했다.

‘이게 다 황녀님 때문이야. 황녀님만 나타나지 않았어도…프레디 소공자님과 파티에서 만나지만 않았어도….’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다리아 영애는 알고 있었다. 레아 황녀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프레디 소공자가 떠난 이유는 자신의 말실수 때문이었다.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레아 황녀님을 원망하는 자신의 모습이 다리아 영애는 자존심이 상하고 슬펐다.

\*\*\*

“황녀님. 그 편지는 제가 태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 경이 알아서 처리해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식으로 프레디 소공자가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편지는 철저하게 발신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편지가 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라이 경이 알아서 해주세요.”

겨우 편지 한 통이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애초에 편지에 답신은커녕 관심도 없는 레아였기에 편지를 태우든 찢어버리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프레디 소공자와는 되도록 엮이고 싶지 않았고 그렇다면 무시하는 것이 답이었다.

‘괜히 이런 편지 보내지 말라고 답신을 보냈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 소공자와 데이트 중일 수도 있다고. 상대는 바람둥이 날라리 소공자니까 무조건 조심해야 해.’

답신 한번 잘못 보냈다가 강제로 황궁으로 끌려와 알고 싶지도 않았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경험이 있는 레아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계속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 프레디 소공자도 금방 흥미를 잃을 것이었다.

“아마 프레디 소공자도 제가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사생아에다 시녀였던 엄마 밑에서 평민으로 쭉 살았으니 호기심으로 잠깐 이러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 경도 제발 부탁이니까 그 편지 좀 그만 노려봐요. 그러다 눈빛으로 편지 태우겠네.”

“하지만 프레디 소공자는….”

“알아요. 신분 안 가리고 자기가 먼저 예쁘다, 천사 같다 하면서 추파 다 던져놓고 사귀자고 하면 그건 싫다고 하는 바람둥이인 거. 그러니까 되도록 마주칠 일도 안 만들고 아무런 반응도 안 보이면 바람둥이답게 금방 다른 여자 찾아서 추파 던질 거예요.”

그때 파티장에서 보니까 성격이나 말하는 건 정말 별로였지만, 그래도 프레디 소공자는 정말 잘생겼었다. 솔직히 딱 외모만 놓고 본다면 조각상 같은 라이 경과 막상막하일 정도로 소공자는 잘생긴 남자였다.

‘그렇게 잘생기고 집안 좋고 간질간질한 말도 잘하는 바람둥이가 반응도 없는 상대에게 계속 매달릴 리가 없지. 자기 좋다는 여자도 많은데 왜 굳이 나한테 그러겠어.’

뭐, 단순히 바람둥이라서가 아니라 국서라는 위치가 탐나서 접근한 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졌겠지만, 아직 그건 아닌 거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레아는 프레디 소공자가 자신에게 진심으로 호감과 관심이 있을 리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저 그렇게 막 남자한테 인기 있는 스타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마 길어봤자 2주 안에 그만둘 거예요.”

“네……?”

“편지도 다 영애들한테만 오고 솔직히 태어나서 저 좋다는 남자 한 명도 못 봤어요. 별로 기쁘진 않지만, 첫눈에 반했다는 말도 프레디 소공자한테 처음 들어봤네요.”

“……….”

레아의 말에 라이 경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던 시녀들도 아무런 말도 못 하고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방금 레아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 때문에 수많은 영식의 마음은 깡그리 무시당하고 말았다.

‘불쌍한 사람들. 아마 레아 황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 알면 분명 상처받겠지.’

‘편지를 보내도 황녀님 손에 오기도 전에 폐하께서 다 소각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근데 황녀님은 본인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시나. 매일 거울 보시면서 왜 엄청나게 예쁘시단 걸 모르시는 거지?’

‘레아 황녀님이 남자한테 인기 있는 스타일이 아니라니. 이런 망언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시녀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걸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다. 그저 속으로 황녀님은 아직 어리시니까. 작은 시골 마을인 우나타에서 또래 친구 없이 어른들 틈에서 자라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또래가 없는 환경에서 자랐으니 그런 부분에서 레아는 둔할 수밖에 없었다.

자기가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것이었다면 재수 없었겠지만, 레아는 자신이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것을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시녀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다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탓이지 예쁜 레아 황녀님의 탓이 아니었다.

시녀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자고 하고 있을 때, 어느새 레아는 프레디 소공자에게서 온 편지는 잊어버리고 영애들에게 온 편지들을 보며 고민하고 있었다.

‘매일 이렇게 초대장이 오는데 계속 초대를 거절하는 것도 좀 아닌 거 같고. 한군데 정도는 초대에 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솔직히 기대보다는 걱정이 되고 망설여지는 이유가 더 많았지만, 레아도 이제 시녀들 말고 친하게 지낼 친구가 필요한 것 같았다. 일단은 황녀님이니까 조금은 발을 넓힐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며 레아는 오늘 도착한 편지 중 초대에 응할 곳을 찾기 시작했다. 평소 가스파르 재상이나 소니아 부인에게 들었던 정보가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고민 끝에 레아는 편지를 하나 골랐고 그 편지는 파티나 다과회에 초대한다는 편지가 아닌 레아와 친해지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였다. 레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보낸 영애에게 황궁으로 초대한다는 답신을 쓰기 시작했다.

20.황실에서 온 반갑지 않은 답신.docx

‘상처를 준 것도 나고 바보 같은 말을 한 것도 난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 같을까. 아닌가. 프레디 소공자님도 지금 나처럼 힘들어하고 있으실까.’

프레디 소공자와 연애를 한 것도 아니고 뭘 한 것도 아니었지만, 2달 동안 몇 번의 데이트를 하고 손을 잡으면서 다리아 영애는 프레디 소공자가 자신의 운명이라고 느꼈다. 바람둥이 날라리 소공자님이라고 해도 다리아 영애는 스스로 다른 여자들과 달리 특별하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프레디 소공자님도 다리아 영애에게 다른 여자들과는 다르다고 말해주었었다. 그 말만 믿고 다리아 영애는 프레디 소공자님을 운명의 남자라고 확신했다. 그런데….

‘레아 황녀님. 진짜 예쁘시긴 예쁘셨지. 위즈덤 공작부인께 당당하게 사과하라고 하실 때도 좀 멋있었고…. 솔직히 내가 남자였으면 바로 반했을 거야.’

그런 황녀님의 존재 때문에 다리아 영애는 불안했고 그 불안함을 못 이겨 말실수해버린 것이었다. 프레디 소공자님께서 레아 황녀님께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 운명이라고 생각한 남자를 뺏길까 초조해한 것이 잘못이었다.

‘만약 그때 내가 소공자님을 믿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지 않았다면 결과가 달라졌겠지. 내 잘못이야.’

그날 이후로 다리아 영애는 이런 생각을 하며 자책을 했다. 하지만 슬프게도 영애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프레디 소공자는 영애를 떠났을 것이었다. 그 말 때문에 둘의 사이가 더 확실히 끝난 건 사실이었지만, 영애가 그 말을 꺼내기 전에 프레디 소공자는 이미 다리아 영애를 떠날 생각이었다. 애초에 소공자는 처음부터 언젠간 떠날 생각으로 다리아 영애를 만난 것이었다.

그 사실을 모르고 프레디 소공자를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다리아 영애는 한숨을 쉬었다. 그때 누군가 다리아 영애의 방문을 똑똑 두드렸다.

“아가씨.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다리아 영애가 들어오라고 말하자 곧 시녀가 문을 열고 들어왔고 영애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네며 말했다.

“황실에서 아가씨 앞으로 편지를 보내셨어요. 아무래도 며칠 전에 아가씨께서 레아 황녀님께 보낸 편지에 답신이 온 모양이에요.”

“황실에서 편지가요?”

“네. 어서 읽어보세요.”

황실에서 다리아 영애 앞으로 올 편지는 하나밖에 없었다. 며칠 전 영애가 레아 황녀님께 친해지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 보냈던 편지의 답신이 온 것이었다. 그것 말곤 올 편지가 없었고 다리아 영애는 어쩐지 편지를 읽기 좀 망설여졌다.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레아 황녀님과 친해지고 싶었지. 그때까지는….’

프레디 소공자님에겐 그렇게 말했었지만, 사실 다리아 영애는 다른 영애들처럼 레아 황녀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었다. 평민으로 쭉 살아왔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당당하고 멋있던 황녀님의 모습은 다리아 영애가 닮고 싶은 모습이기도 했다. 그래서 다리아 영애는 정말 진심으로 레아 황녀님과 친해지고 싶다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좀 달랐다. 지금 다리아 영애는 레아 황녀님을 좋아해야 할지 싫어해야 할지 이리저리 흔들리는 중이었고 이 상황이 혼란스럽기만 했다.

‘나 말고도 편지를 보낸 영애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왜 하필 나한테 답신이 온 걸까. 감사해야 하고 영광인 건 알고 있지만, 난감하다.’

레아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지만, 다리아 영애에게 레아 황녀님은 치정으로 얽힌 사람이었다. 프레디 소공자님과의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도 시작은 소공자님이 황녀님에게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었으니까 말이다.

껄끄럽지 않을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황녀님의 편지를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다리아 영애는 어쩔 수 없이 편지를 뜯어보았다. 레아 황녀님이 보내주신 답신의 내용은 친해지고 싶다고 말해주어서 고맙다는 말과 다리아 영애를 황궁으로 초대하고 싶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그 편지를 읽고 다리아 영애는 조용히 한마디 내뱉었다.

“…망했다.”

다리아 영애는 꼼짝없이 운명이라고 믿었던 남자가 최근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상대와 마주 앉아 차를 마셔야 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

레아가 다른 영애들이 아닌 앨버트 후작 가문의 영애에게만 답신을 보낸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냥 다리아 영애는 사교계에서 평판이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고 레아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느낌이 꽤 괜찮았기 때문이었다.

프레디 소공자와 관련된 일 같은 건 레아가 알고 있을 리가 없었고 나중에라도 알게 된다고 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이었다. 그만큼 레아는 자신과 프레디 소공자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생각했다. 아직은 정말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기도 했고 말이다.

“라이 경. 경은 혹시 다른 파티에서 다리아 영애를 만나본 적이 있나요?”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럼 다리아 영애에 대해 좀 알려줘요. 영애는 어떤 사람인가요?”

“조용하고 차분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다른 건요?”

“딱히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뭘 미안할 거까지야.”

다리아 영애를 황궁으로 초대하는 편지를 보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라이 경에게 영애에 관해 물어봤지만 역시나 돌아오는 대답은 시원치 않았다.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반응이었기에 레아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만나보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 좀 알고 싶은데 시녀들도 얌전하고 조용하다는 것 외엔 아는 게 없다니 역시 소니아 부인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좋겠지. 으음. 그런데 왠지 좀 떨리네.’

또래 친구는 처음이라 레아는 조금은 긴장도 하고 떨리는 거 같았다. 기분이 나쁘지 않은 긴장과 떨림이었고 어쩌면 조금의 설렘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며 레아는 살짝 웃었다. 그리고 그런 레아 황녀님을 보며 시녀들은 속으로 너무 귀여워! 라며 소리를 질렀다.

“황녀님. 곧 저녁 식사하시러 갈 시간이세요. 슬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벌써요? 아직 별로 배 안 고픈데.”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기다리실 거예요. 어서 준비하셔야죠.”

황금빛 머리카락을 빗으로 빗겨 주면서 시녀가 하는 말에 레아는 몰래 한숨을 쉬었다. 아까 간식을 배부르게 먹어서 배가 고프지 않은 것도 사실이긴 했지만, 요즘 레그마인 황제 폐하가 너무나도 부담스러워 같이 식사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조금 있었다.

원래 레아라면 너무 예쁘고 똑똑하고 멋있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표현을 여러 가지의 말로 대놓고 하는 레그마인 황제 폐하셨지만, 그 정도가 첫 파티 이후로 더 심해져서 레아는 고민이었다. 남들은 사랑받아서 좋겠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레아에겐 정말로 심각한 고민이었다.

“잘 먹겠습니다!”

“그래. 레아가 잘 먹으면 이 아빠는 행복하단다.”

“……….”

“레아. 아빠 것도 먹을래? 아빠는 우리 딸이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 아빠 거까지 다 먹으렴. 아빠가 아빠 것도 줄게.”

레아가 파티에서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던 게 그렇게 감격이었는지 그날 이후로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는 레아를 볼 때마다 아빠가, 아빠는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부담스러워서 이 맛있는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어. 도망가고 싶다.’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레아의 아빠라는 건 이제 모든 국민이 아는 사실이었지만, 그게 그렇게 뿌듯하고 자랑스러운지 폐하께서는 계속 자신이 레아의 아빠임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 황제 폐하께서 그러실 때마다 레아는 부끄럽고 민망해서 쥐구멍에라도 숨어버리고 싶었다.

물론 아빠를 아빠라고 표현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지만…레아는 아직 그 표현이 어색하고 쑥스러웠다. 파티에서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어떻게 레그마인 황제 폐하를 아빠라고 불렀는지 레아도 신기할 따름이었다.

“아니에요. 황제 폐하도 드셔야죠.”

“다시.”

“…아빠도 드셔야죠.”

“아빠 저녁까지 신경을 써주다니. 우리 딸은 누구를 닮아 이렇게 마음씨도 예쁘고 고운지 몰라.”

거기다 방금처럼 레아가 아빠가 아닌 황제 폐하라는 호칭을 썼을 땐 얼굴을 찌푸리고 아빠라고 부를 때까지 다시 말하라고 했다.

“처음에는 날 쏙 빼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딸은 아리샤를 쏙 빼닮은 거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곱고 깜찍하고 귀엽기까지 한 거겠지? 아마 우리 레아처럼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아이는 어디에도 없을 거야.”

황녀라는 자리에 점점 익숙해지면서 이런 주접에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파티 이후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주접은 업그레이드되었다. 레아는 조용히 어쩌면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말과 행동이 익숙해질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파티 이후로 레아는 레그마인 황제 폐하를 아주 쏙 빼닮아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은 그 누구보다 독한 황녀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듯했다. 그런데도 친해지고 싶다니 그게 이해가 가진 않았지만, 아무튼 귀엽고 깜찍하다거나 사랑스럽단 말을 해주는 사람은 레그마인 황제 폐하뿐이었다. 그래서 솔직히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조금 좋긴 했다.

‘내가 이렇게 칭찬에 약한 사람이었다니. 어쩐지 좀 슬프다.’

혹시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도 그걸 눈치채고 일부러 저러시는 걸까 하는 생각도 잠시 했지만, 레아는 곧 그건 아닐 거 같다고 생각했다. 그 정도로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다면 지금 레아가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하는데 황제 폐하께서는 그런 건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있으신 게 분명했다.

‘그렇다는 건 저 주접이 다 진심이라는 거겠지. 사람이 진심으로 저런 말을 할 수도 있구나….’

16살 인생 중 레아에게 저런 말을 해준 남자는 레그마인 황제 폐하와 프레디 소공자뿐이었다. 물론 프레디 소공자의 말은 진심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말이다.

“그러고 보니 레아. 오느아 공작 가문이 아무래도 곧 망할 거 같은데? 이제 숨겨둔 재산도 다 쓴 모양이야.”

“네.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공작이 여기저기 제발 좀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고 다니나 봐. 오늘은 클라우드 공작 가문에 가서 무릎까지 꿇었다고 하던데?”

“클라우드 공작 가문이라면 전에 위즈덤 공작부인과 아는 척도 안 한다고 했던 그 집안 맞죠?”

“응. 하이모어 대공 다음으로 쥐고 있는 게 많은 집안이다 보니 염치도 없이 도와달라고 한 모양이야.”

클라우드 공작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란 건 알고 있었지만 하이모어 대공 가문 다음으로 쥐고 있는 게 많은 집안이란 건 처음 듣는 정보였다. 그런 집안을 상대로 영애에게 그런 어이없는 행동을 했다니. 레아는 위즈덤 공작부인은 상식이란 걸 배우긴 배운 건지 심각하게 의심이 되었다.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클라우드 공작 가문으로 가서 오느아 공작이 무릎까지 꿇을 줄은 몰랐어. 이러다 황궁까지 찾아와서 돈 빌려달라고 납작 엎드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니까.”

“그렇게 안 봤는데 오느아 공작은 무릎이 싼 사람이었나 봐요.”

“원래 자존심도 없고 멋도 없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고도 부인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이혼도 못 하는 거겠지.”

“위즈덤 공작부인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오느아 공작도 별로인 사람이네요.”

“사람으로서도 별로지만 가주로서는 최악이지.”

자고로 무언가를 책임지고 이끄는 사람이라면 때로는 독하게 굴 줄도 알아야 하는 법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파티 때 위즈덤 공작부인에게 확실하게 위아래를 알려준 레아의 모습을 보고 다음 황제가 될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었다. 레그마인 황제도 그 모습을 보고 확실히 레아는 자신의 뒤를 이를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확실히 레아는 끼가 있어. 하지만…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내 뒤를 잇게 하고 싶지 않아. 적어도 내 딸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게 해주고 싶으니까 말이야.’

레그마인 황제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황제가 되기 위해 자라고 성장했으며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살았었다. 그래서 레그마인 황제는 적어도 하나뿐인 자신의 딸에게만큼은 사랑을 듬뿍 주고 선택권도 주고 싶었다.

“레아. 혹시 뭐 가지고 싶은 거 있니? 네가 원하는 거라면 이 아빠는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어. 딱 한 가지만 빼고.”

“한 가지만 빼고요?”

“아빠 곁을 일찍 떠나는 것. 난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널 일찍 시집 보낼 생각 없어. 아예 결혼하지 않고 평생 아빠 옆에서 살아도 되니까 일찍 결혼하지 마.”

“아빠. 저 아직 16살인데요….”

16살에게 남자친구는 성인이 된 후에 사귀라는 것 정도면 몰라도 결혼을 일찍 하지 말라니. 태어나서 한 번도 남자친구를 사귀어본 적도 없는 레아에겐 일러도 너무 이른 이야기였다. 하지만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는 그렇게 이른 이야기라고만은 생각하지 않는 듯했다.

“내가 이라샤를 처음 만났을 때가 16살이었어. 그러다 17살이 되어서 연애를 시작했고 18살 때 레아 너를….”

“아빠! 이 아이스크림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역시 레아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구나.”

자연스럽게 출생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려고 하자 레아는 재빨리 화제를 아이스크림 쪽으로 돌렸다.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18살 때 엄마가 자신을 임신했다는 사실은 레아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얘기를 굳이 다시 듣고 싶지는 않았다.

‘18살에 애 아빠가 됐다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도 아닌데 황제 폐하께서는 어쩜 저리 당당하실까. 적어도 식사 후 디저트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딸한테 아빠가 아무렇지도 않게 할 얘기는 아닌 거 같은데.’

물론 황제 폐하께서 그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쉬쉬하면서 숨기기 급급했다면 그 모습이 레아에겐 상처로 다가올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금처럼 당당하게 얘기하고 다니는 것도 레아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어쩌면 레아가 어릴 때 엄마가 아빠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해주지 않았고 물어도 제대로 대답해주지 않고 어물어물 넘어갔던 이유는 레아의 친부가 레그마인 황제 폐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황제 폐하의 이런 성격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었을까.

확실히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어린 딸에게 이야기해주기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며 레아는 맛있게 먹던 아이스크림을 마저 먹었다.

21.황녀님의 마음이 궁금합니다.docx

레아가 답신 겸 황궁으로 초대하는 편지를 보내자 다리아 영애는 곧바로 초대에 응하겠다는 답을 주었다. 답을 받고 레아는 티 나지 않게 속으로 기뻐했지만, 사실 그 답은 다리아 영애의 답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웠다.

다리아 영애는 레아 황녀님을 만나도 괜찮을지 아니면 핑계를 대서라도 피하는 게 더 좋을지 고민했다. 그런데 영애가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앨버트 후작과 후작부인이 무조건 초대에 응해서 황녀님과 친해지라고 등을 떠미는 바람에 초대에 응한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 다리아 영애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런 사실을 알 리가 없는 레아는 다리아 영애를 위해 맛있는 간식과 차를 고민하면서 열심히 준비했다.

‘내 또래의 여자아이를 이렇게 초대해보는 것도 처음이지만 같이 얘기를 나누고 차를 마시면서 맛있는 과자를 먹게 될 날이 오다니. 이게 뭐라고 엄청 떨리네.’

응접실에서 다리아 영애를 기다리면서 레아는 떨리는 마음을 표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게 뭐라고 레아는 첫 파티 때보다 지금이 더 떨리는 느낌이었다.

“라이 경. 혹시라도 다리아 영애가 위즈덤 공작부인처럼 막 나를 무시하면서 무례하게 굴면 어떡하죠?”

“별로 그러실 것 같진 않습니다만 만약 그러신다면 그때처럼 혀를 자르고 눈알을 뽑으라고 명령하시면 됩니다.”

“아니…. 좀 더 평화롭고 정상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그때처럼 차를 부어버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땐 시원한 토마토주스였지만 오늘 준비된 차는 따듯한 홍차인데 이걸 다리아 영애의 얼굴에 뿌려버리란 말인가. 레아는 라이 경에겐 이런 건 묻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레그마인 황제 폐하를 닮아가는 거 같단 말이지. 왜 자꾸 안 좋은 걸 닮아가나 몰라.’

불과 몇 개월 전에 우나타에서 만났던 달빛 아래 조각상처럼 잘생겼던 그 기사님은 대체 어디로 가버린 걸까. 분명 잘생긴 얼굴은 똑같은데 지금 레아의 옆에 서 있는 남자는 그때 그 남자가 아닌 것 같았다.

‘그러고 보면 그사이에 라이 경이 계속 옆에 있는 것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적응했네. 처음에는 종일 졸졸 쫓아다니는 게 엄청 불편하고 신경 쓰였는데.’

황녀라는 위치에도 조금은 적응했다고 생각했는데 반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레아는 엄청난 변화들에 어느 순간 적응해버렸다. 처음에는 황녀님이라고 부르기만 해도 부담스럽고 낯설었던 것만 생각해도 레아 본인도 신기할 따름이었다.

라이 경처럼 잘생기고 실력도 뛰어난 대단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일상에 스며들었다니. 레아는 이젠 곁에 라이 경이 없다면 오히려 좀 허전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황녀님. 다리아 영애께서 방금 황궁에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벌써요? 바로 응접실로 오라고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원래 만나기로 한 시간과 비슷하게 도착한 다리아 영애였지만, 영애가 황궁에 도착했다는 시녀의 말에 레아는 깜짝 놀라 다시 긴장했다. 그리곤 머릿속으로 다리아 영애가 오면 할 얘기들을 빠르게 정리했다. 곧 응접실의 문이 열렸고 풍성한 갈색 곱슬머리의 다리아 영애가 안으로 들어왔다. 영애는 레아를 보며 고개를 숙였다.

“직접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황녀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반가워요. 다리아 영애.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걱정과 달리 예의 있고 무례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다리아 영애의 첫인상에 레아는 안심했다. 그런데 레아와 달리 다리아 영애는 호위는 물론이고 몸종도 데리고 오지 않은 듯했다.

“근데 호위나 몸종은 데리고 오지 않으셨나요?”

“아뇨. 호위가 같이 오기는 했는데 일부러 들어오지 말고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응접실 문 옆에 있을 거예요.”

“아, 들어오셔도 괜찮은데 어째서…?”

“제 호위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듣고 아버지께 보고할 때가 있어서요. 편하게 대화하고 싶어서 나가 있으라고 했어요.”

“음. 호위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군요.”

다리야 영애의 얘기를 듣고 레아의 시선은 옆에 서 있는 라이 경에게로 향했다. 라이 경도 종일 레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 보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레아는 생각했다.

‘거의 99% 보고하겠지. 황제 폐하의 성격상 굳이 라이 경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통해 내 얘기를 들을 가능성이 아주 커.’

그렇게 생각하니 당연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다. 온종일 감시당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다.

“라이 경. 경도 응접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네? 아니에요. 굳이 그래 주실 필요 없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아뇨. 저도 다리아 영애와 좀 더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하하. 감사합니다. 레아 황녀님.”

다리아 영애는 레아에게 상냥하게 웃어주었고 무표정한 얼굴로 가만히 서 있던 라이 경은 고개를 한번 꾸벅 숙이곤 말없이 조용히 응접실을 나갔다. 이제 응접실에는 딱 레아와 다리아 영애 둘만이 남았다.

“그런데 좀 의외네요. 다리아 영애처럼 태어날 때부터 높은 신분으로 자란 아가씨들은 절대 직접 홍차를 잔에 따라 마시지 않을 줄 알았는데.”

“사실 시종이나 시녀가 차 시중을 들어줄 때가 많긴 해요. 하지만 오늘은 황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저한테요?”

“네. 그런데 남들이 들으면 좀 민망해질 수도 있는 얘기라 황녀님과 둘만의 자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무슨 얘기를 할지 좀 긴장이 되네요. 묻고 싶은 게 뭐예요?”

아무리 보기에는 얌전하고 착해 보이는 다리아 영애라고 해도 무슨 말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것이었다. 지금은 라이 경도 없어서 레아는 다시 긴장했지만, 그걸 겉으로 티 내지 않았다. 황녀님께서 자신의 말 때문에 긴장했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다리아 영애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황녀님께서 물어보셨으니 뜸 들이지 않고 바로 말할게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네. 말씀하세요.”

“레아 황녀님께서는…프레디 소공자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도대체 뭘 물어볼까 조금은 무서웠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프레디 소공자의 이름에 레아는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한 다리아 영애는 무언가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다.

‘혹시 다리아 영애는 프레디 소공자를 좋아하나? 그래서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는 건가?’

아무리 키도 크고 잘생긴 데다 집안이 좋아도 그런 바람둥이 날라리 소공자를 진짜로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고? 물론 프레디 소공자가 라이 경만큼 시녀들과 영애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지만, 레아로서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었다. 아니, 세상에 반이 남잔데 왜 하필 그 바람둥이를?

“다리아 영애. 혹시 프레디 소공자를 좋아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혹시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말아요. 전 프레디 소공자를 좋아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쭉 좋아하지 않을 예정이니까.”

“정, 정말요?”

“네. 전 아직 남자한테 관심도 없고 바람둥이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제가 권력으로 프레디 소공자를 독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생각까지는 안 했는데….”

레아 황녀님이 너무 예쁘고 멋있으셔서 뺏길 거라곤 생각했지만, 권력으로 프레디 소공자를 독점하실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황녀님이라면 그것도 아주 불가능하진 않겠다고 다리아 영애는 생각했다.

“물어보고 싶은 건 그게 끝인가요?”

“네. 황녀님의 마음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럼 저도 다리아 영애에게 묻고 싶은 게 생겼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도 되나요?”

다리아 영애가 고개를 끄덕이자 레아는 조용히 홍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곤 잔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로 다리아 영애에게 물었다.

“영애가 저에게 친해지고 싶다고 보낸 편지는 모두 거짓이었나요?”

“네…?”

“다리아 영애가 좋아하는 프레디 소공자를 제가 뺏어갈까 봐 두려워서 제 마음이 알고 싶어서 제게 친해지고 싶다고 거짓말을 한 것인가요? 소공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아, 아니에요! 그건 진심이었어요. 정말이에요.”

다리아 영애가 레아 황녀님과 친해지고 싶다는 편지를 보냈을 때는 프레디 소공자님이 황녀님께 관심이 있다는 걸 눈치채기 전이었다. 그 편지를 쓸 때만 해도 다리아 영애는 정말로 레아 황녀님과 친해지고 싶었다.

“하지만…이제 전 레아 황녀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감히 친해지고 싶다고 생각할 자격도 없어요. 그걸 알면서도 그게 꼭 물어보고 싶어서 황녀님의 초대에 응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자격이 없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그게 사실은….”

이때 다리아 영애는 속으로 솔직히 말을 해야 할지 아니면 말아야 할지 고민을 했다. 솔직히 진심으로 한 말도 아니었고 숨기려면 숨길 수 있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지 않으면 레아 황녀님과 친해지고 싶었던 내 진심도 진심이 아니었던 게 될 거 같아. 그건 싫어.’

다리아 영애는 아직 16살 어린 소녀였고 자신의 진심만큼은 왜곡되는 걸 원치 않았기에 두 눈을 질끈 감고 모든 것을 고백했다.

운명의 상대라고 생각했던 프레디 소공자가 요즘 자신에게 시큰둥해지고 황녀님께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 불안했던 이야기, 그 불안함과 초조함을 이기지 못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해버린 이야기, 그 이야기에 상처받고 떠난 이야기.

다리아 영애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레아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영애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다.

“레아 황녀님. 정말…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어떻게 제가 감히 그런 말을….”

“흐음.”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소공자님이 저를 떠나서 황녀님께 가버릴까 봐 그게 너무 무서워서…내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에게 뺏길까 봐 너무 무서워서….”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남자가 프레디 소공자라니.”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로 사죄하기엔 황녀님께서 받으신 상처가 너무 크시겠지만, 그래도 정말 죄송해요.”

화를 내시지도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파티 때처럼 웃는 얼굴도 아니신 레아 황녀님은 별다른 말도 하지 않았지만, 다리아 영애는 그런 황녀님이 너무 무서워서 손을 덜덜 떨었다. 차마 황녀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영애는 고개를 푹 숙였다.

‘이제 내 눈알이 뽑히고 혀가 잘리는 건가. 손가락도 잘리고 홍차를 내 얼굴에 뿌리시겠지. 분명 내 말에 상처받으셨을 거야.’

파티에서 위즈덤 공작부인이 어떤 꼴을 당했는지는 직접 봐서 다리아 영애는 잘 알고 있었다. 그걸 알고 있었으면서 그땐 왜 그런 말을 했고 지금은 왜 그걸 또 솔직하게 말했는지 다리아 영애는 후회가 되었다. 하지만 후회해봤자 이미 모든 사실을 이야기한 후였다.

이제 오느아 공작 가문처럼 앨버트 후작 가문도 재산을 몰수당할지도 몰랐다. 사실 그렇다고 해도 오느아 공작 가문처럼 쫄딱 망하진 않겠지만, 다리아 영애는 부모님을 뵐 낯이 없었다.

“저 상처 안 받았어요. 사실 영 틀린 말도 아니고…. 괜찮으니까 고개 드세요. 다리아 영애.”

그런데 꼭 눈물이 날 것만 같은 그때 레아 황녀님은 괜찮다고 고개를 들라고 말씀해주셨다. 다리아 영애는 자기가 잘못 들었나 싶어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고 레아는 그런 다리아 영애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

“솔직히 기분 안 나빴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런 이유로 결혼하기 힘들 거란 건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충분히 숨길 수 있었는데 솔직하게 말해주시고 사과까지 했으니까 한 번만 봐 드릴게요. 하지만 다음은 없어요.”

“레아 황녀님….”

이번만 특별히 용서해주겠다는 레아의 말에 다리아 영애는 감동한 눈으로 레아를 바라보았다. 후회했던 조금 전과는 달리 솔직하게 말씀드리길 잘했다고 영애는 생각했다.

‘사람들은 내가 16살이란 걸 다들 생각은 하는 걸까. 왜 다들 결혼, 결혼, 결혼 얘기를 벌써 하는 거냐고. 심지어 다리아 영애는 나랑 똑같은 16살이잖아.’

아무리 파티 때 피에르 시종장님이 레아에게도 마냥 그렇게 먼 얘기는 아니라고 했지만, 아직도 레아에게 결혼이란 머나먼 별나라 이야기 같았고 이제는 결혼이란 단어조차 지겨울 지경이었다.

그런데 레아와 동갑인 다리아 영애는 프레디 소공자를 자신의 운명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거 때문에 잠시 미쳐서 그런 말을 했었고 그 말 때문에 프레디 소공자는 떠났지만, 다리아 영애는 아직도 마음속으로 프레디 소공자를 품고 있었다. 사실 레아는 이 부분이 제일 이해가 가지 않았다.

“다리아 영애. 프레디 소공자가 그렇게 좋아요?”

“네…. 소공자님은 제 운명이니까요.”

“어째서요? 프레디 소공자는 바람둥이잖아요. 막 여자들한테 먼저 추파 던지고 귀찮게 굴고 그런데도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레아는 아무리 잘생겼어도 그 되지도 않는 추파에 정색했는데 그런 소공자가 인기가 많고 다리아 영애는 운명의 남자라고까지 말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리아 영애는 오히려 레아의 말에 조금은 놀란 듯이 말했다.

“프레디 소공자님이 바람둥이 날라리 소공자로 유명하시긴 하지만 절대 먼저 추파를 던지는 분은 아니세요. 모두 여자 쪽에서 먼저 다가오는 거고 프레디 소공자님은 오는 여자 안 막는 스타일이세요! 그리고 절대 양다리는 걸치지 않으세요.”

“네?”

“워낙 만났다 차인 분들이 많아서 소문은 그렇게 났을지 몰라도 그렇게 쓰레기는 아니세요. 그랬다면 아무리 잘생기셨어도 이렇게 인기가 많진 않으셨을 거예요.”

“제가 들은 이야기와는 좀 다르네요.”

“소문이란 건 언제나 부풀려져서 안 좋게 편집된 얘기들뿐이니까요.”

“흐음.”

다리아 영애의 말대로 시녀들이 해주는 이야기들은 그런 소문일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프레디 소공자와 친구인 라이 경이 그런 소문을 냈을 리가 없었고 무엇보다 프레디 소공자는 파티에서 레아에게 추파를 던졌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 귀찮게 군 것도 사실이었다.

‘사랑에 빠지면 바보가 된다더니 그게 이 정도일 줄이야. 어쩐지 다리아 영애가 불쌍해 보여.’

다리아 영애는 아니라고 했지만, 레아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레아에게 프레디 소공자란 바람둥이 날라리 소공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22.모태솔로의 연애상담.docx

다리아 영애와 프레디 소공자는 한 파티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다. 그 파티에서 잘 생기고 훤칠한 프레디 소공자를 보고 첫눈에 반한 다리아 영애는 살며시 그에게 다가가 호감을 표시했고 소공자는 그런 영애의 마음을 받아주었다.

그렇게 둘은 2개월이란 시간 동안 연인인 듯 연인 아닌 사이로 데이트를 하며 가깝게 지냈고 그러면서 프레디 소공자의 다정하고 자상한 모습에 다리아 영애는 그에게 푹 빠져버렸다. 거기다 지금까지 만났던 다른 여자들과는 다르다는 프레디 소공자의 말에 다리아 영애는 소공자가 자신의 운명이라고 믿게 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영애는 프레디 소공자 역시 영애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네. 소공자님은 늘 제게 다정하게 웃어주셨어요. 연락구슬로 연락도 자주 하고 낭만적이라고 로맨틱한 편지도 자주 써주셨는걸요. 분명 진심이셨을 거라고 전 믿어요.”

“혹시 첫눈에 반했다거나 별처럼 빛난다고 하거나 세상에서 다리아 영애가 제일 아름답다고 했나요? 아니면 온종일 영애가 머릿속을 뛰어다닌다거나.”

“아니요. 만약 그런 말을 적으셨다면 오그라들어서 전 편지를 찢어버렸을 거예요. 그냥 그립다, 보고 싶다는 말이나 꿈에 제가 나왔다는 말 정도였어요.”

레아에게 보낸 편지와는 좀 다른 것 같았지만 어쨌든 대놓고 추파를 던지는 것까진 아니라도 충분히 끼를 부리는 편지인 건 확실했다. 역시 프레디 소공자는 레아가 생각하는 그런 바람둥이가 확실한 거 같았다.

“다리아 영애.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프레디 소공자는 절대 좋은 남자가 아닌 거 같아요. 영애의 운명도 아닌 거 같고요.”

“네? 어째서요?”

“그립다, 보고 싶다, 꿈에 나왔다. 이런 말을 다른 영애들에게도 많이 했을 거예요. 소공자와 데이트해본 영애들이라면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게 분명해요”

라이 경이 프레디 소공자는 아무 여자에게나 추파를 던지고 달콤한 말로 유혹한다고 말했었다. 그런 사람이라면 데이트하는 여자에게 더 사랑받기 위해 무슨 말을 못 할까 싶었다.

“그런 거 말고 다른 여자들 앞에서도 다리아 영애만 바라본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영애와는 아무래도 운명인 거 같다고 말한 적은 없나요?”

“아뇨. 그런 적은 없었어요.”

사실 이제 겨우 2달 된 사이에 그런 애틋한 일이 있었을 리가 없었다. 안 봐도 뻔했지만, 다리아 영애의 대답에 레아는 확신할 수 있었다.

“다리아 영애. 이런 말 하긴 좀 미안하지만, 프레디 소공자는 영애를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닌 거 같아요. 운명의 남자도 절대 아니고요.”

“하지만 황녀님. 저는….”

“알아요. 다리아 영애는 프레디 소공자를 많이 좋아하고 운명의 남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 하지만 감정은 일방적이어선 안 된다는 건 영애도 잘 알잖아요.”

“……….”

레아의 뼈를 때리는 말에 다리아 영애는 입을 꾹 다물었다. 맞는 말이라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영애도 프레디 소공자를 좋아하는 건 인제 그만두도록 해요. 세상에 좋은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왜 그런 바람둥이 날라리를 좋아해요. 다리아 영애가 뭐가 아쉽다고.”

“하지만…소공자님보다 더 잘생기고 제게 다정한 남자가 나타나 줄까요? 솔직히 자신이 없어서….”

“왜 자신이 없어요? 다리아 영애에 대한 평판이 얼마나 좋은데.”

잠깐 사랑에 눈이 멀어 엄청난 말실수를 했지만, 사실 다리아 영애의 평판은 상당히 좋은 편이었다. 애초에 그래서 레아도 여러 편지 중에서 다리아 영애가 보낸 편지에 답신하고 영애를 황궁으로 초대까지 한 것이었다.

‘가스파르 재상도 그랬고 소니아 부인도 다리아 영애는 얌전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 똑똑한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왜 자꾸 답답한 소리를 하는 거야? 정말 똑똑한 거 맞아?’

실제로 다리아 영애가 똑똑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레아는 다시 한번 사랑에 빠지면 바보가 된다는 말이 생각이 났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 바람둥이 날라리 소공자에게 사랑에 빠진 다리아 영애가 조금 불쌍하단 생각이 들었다. 세상에 좋은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처음에는 별생각이 없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레아는 다리아 영애가 답답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영애의 연애상담을 해주고 있었다.

“다리아 영애. 영애는 얼굴도 예쁘고 얌전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황녀인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건 그만큼 다리아 영애가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바람둥이 날라리 소공자보다 좋은 사람을 만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반이 남잔데 제국을 탈탈 털어서 설마 다리아 영애의 짝이 될 남자 하나 없겠어요?”

“황, 황녀님?”

“그리고 우린 아직 16살이잖아요. 운명이니 나발이니 그런 소리 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요! 아직 살날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고작 남자 한 명한테 차였다고 다른 사람 만날 자신이 없다는 건 너무 아까워요. 평생 남자만 바라보면서 그를 위해서 살 것도 아니잖아요!”

“그, 그렇죠. 16살에 다 포기하는 건 너무 아깝죠…?”

“그러니까 프레디 소공자 같은 건 그냥 잊어요. 재밌었던 추억 정도로만 남기고요.”

“네! 레아 황녀님. 저 그럴게요!”

어쩌다 보니 시작된 레아의 연애상담에 조금 놀라던 다리아 영애는 곧 레아의 말에 감동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에 레아는 속이 후련하기도 했지만, 초롱초롱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다리아 영애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웠다.

‘그냥 적당히 얘기한다는 게 나도 모르게 그만…. 그래도 다리아 영애가 기분 안 나빠하고 잘 알아들어서 다행이다.’

혹시 괜한 오지랖은 아니었을까 하고 좀 걱정이었는데 레아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홍차를 한 모금 입안에 머금었다. 그런데 다리아 영애는 갑자기 허를 찌르는 질문을 했다.

“레아 황녀님은 연애 경험이 많으셨을 거 같아요. 하긴, 이렇게 아름다우시고 멋지신 분이니 고백도 많이 받아보셨겠죠?”

“네……?”

“사실 전 프레디 소공자님이 첫사랑이거든요. 역시 경험이 풍부하신 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뭔가를 좀 알 것 같은 기분이에요.”

“경험이…풍부….”

“레아 황녀님. 정말 감사드려요.”

태어나서 연애는 물론이고 고백도 받아본 기억이 없는데. 프레디 소공자가 보냈던 그 같잖지도 않은 편지도 고백이라고 쳐준다면 뭐…그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자한테 고백받아 본 것이었다. 그런데 다리아 영애가 자연스럽게 레아는 경험이 풍부할 것으로 생각하니 좀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인제 와서 사실은 모태솔로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 만약 레아가 남자친구는커녕 제대로 된 고백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걸 알면 다리아 영애가 뭐라고 할지 몰라 레아는 그냥 웃으면서 굳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내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라도 다 우나타에서 브로디 아저씨가 해준 얘기고 나탈리 이모가 듣는 잔소리니까 틀린 말은 아니라고. 그게 중요한 거지. 암, 그렇고말고.’

레아 본인이 경험이 많고 적고가 뭐가 중요하겠는가. 중요한 건 프레디 소공자는 절대 좋은 남자가 아니었고 그런 남자에게 미련이 남아있을 필요는 없었다.

“다리아 영애. 좋은 사람은 절대 자신이 좋아하는 상대를 헷갈리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프레디 소공자는 좋은 사람도 아니었고 영애를 진심으로 사랑한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네. 저도 그냥 잊어버리는 게 제일 좋겠죠.”

“잘 생각했어요. 아무리 잘생겼어도 그런 바람둥이 날라리 소공자에겐 다리아 영애가 너무 아까워요.”

“감사합니다. 레아 황녀님.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어쨌든 결론은 해피엔딩이라 다행이었다. 다리아 영애는 진심으로 레아에게 고마워하고 있었고 그런 영애를 보며 레아는 내심 뿌듯했다.

“아마 소공자님을 완전히 잊기까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지만…다른 걸 해보고 다른 사람들도 만나면서 노력해볼게요.”

“그래요. 공부도 좋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좋을 거예요.”

“저기, 레아 황녀님 그래서 말인데요….”

다리아 영애는 잠시 머뭇거리는 거 같더니 곧 용기를 낸 듯 조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레아에게 말했다.

“다, 다음에 또 편지를 보내도 될까요?”

“편지를 보내는 건 다리아 영애 마음이죠.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세요?”

“그게…만약에 황녀님만 괜찮으시다면…또 뵙고 싶어서….”

“나를요?”

“물론, 물론 황녀님은 제가 보기 싫으실 수도…아니, 싫으시겠죠. 제가 황녀님께 그런 무례한 말을 했으니.”

인제 와서 친해지고 싶다고 다음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기에는 너무 웃긴 것 같았다. 아무리 진심이 아니었고 레아 황녀님이 용서해주셨다고 해도 다리아 영애는 심한 말을 했었다. 거기다 오늘도 즐거운 얘기는커녕 황녀님을 귀찮게만 했는데 레아 황녀님이 다리아 영애와 친해지고 싶을 리가 없었다.

그런데 레아 황녀님은 아무런 말 없이 다리아 영애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런 말을 툭 내뱉었다.

“다리아 영애. 나랑 친해지고 싶어요?”

“네…. 황녀님이 보시기에도 너무 염치없죠?”

“왜요? 왜 나랑 친해지고 싶어요?”

“편지에 적었던 말은 모두 진심이었어요. 파티에서 처음 황녀님을 뵌 이후로 전 레아 황녀님과 친해지고 싶었어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요?”

그때 진짜로 화가 나서 그랬던 거긴 하지만 평생 호구 잡히기 싫어서 일부러 레그마인 황제 폐하처럼 또라이 짓을 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친해지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니 레아는 신기할 따름이었다. 아무리 편지로 친해지고 싶다고 하고 초대장이 와도 잠깐의 호기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진심일지도 모르겠단 생각이 들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금 레아의 앞에 있는 다리아 영애는 진심이었다. 이런 적은 처음이라 레아는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잠시 고민을 했다.

‘뭐라고 해야 하지? 좋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싫다고 해야 하나?’

원래는 레아도 다리아 영애와 친해질 마음이 있어서 영애를 황궁으로 초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다리아 영애가 잠시 사랑에 눈이 멀어 말실수했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지금은 그 친해지고 싶다는 마음은 사라진 상태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리아 영애가 싫거나 친해지기 싫은 건 또 아니었다.

다리아 영애는 레아에게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했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도 사과했었다. 그리고 레아는 그걸 용서해줬고 그 일에 대한 응어리는 남지 않았다. 그래서 레아는 더 고민이 됐다.

“……….”

거기다 레아는 또래 친구라는 것도 처음이었다. 원래 다들 이렇게 친해지고 친구를 사귀는 건가? 잠시 고민을 하던 레아는 다리아 영애에게 이렇게 말했다.

“좋아요. 그럼 우리 딱 3번만 더 만나서 차 마시고 얘기도 해보고 결정해봐요.”

“네? 3번이요?”

“바로 친구 하기에는 우리 아직 서로 잘 모르잖아요. 서로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그다음에 친구 할지 말지 결정하도록 해요.”

“알아가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보통은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남녀가 사귀기 전에 3번 정도 데이트를 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지금 자신들이 하는 얘기가 흔한 연인들이 사귀기 전에 나누는 대화라는 걸 이 어린 두 소녀는 알고 있을 리가 없었다.

\*\*\*

“딸. 오늘 앨버트 후작 가문의 영애를 황궁으로 초대해서 같이 차를 마셨지? 별일 없었어?”

“네. 별일 없었어요.”

“다행이네. 확실히 앨버트 후작 가문의 영애는 조용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그러긴 하더라. 레아랑 동갑이지?”

“네. 영애도 16살이라고 해요.”

여느 때처럼 레아와 같이 저녁 식사를 하다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는 먼저 다리아 영애에 대한 말을 꺼내셨다. 별일 없었냐는 물음에 레아는 영애가 했던 말실수가 생각이 났지만, 굳이 그걸 폐하께 말씀드리진 않았다.

‘내 선에서 잘 끝난 일이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 만약 아빠가 이 일을 아신다면 당장 앨버트 후작 가문으로 쳐들어가서 그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릴지도 몰라.’

레그마인 황제 폐하라면 농담이 아니라 정말 그러실 거 같아 레아는 절대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 다리아 영애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라이 경에게 나가 있으라고 해서 레아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아니, 라이 경이 있었으면 다리아 영애는 아예 그 말 자체를 꺼내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라이 경이랑 프레디 소공자가 친구라는 건 다리아 영애도 알고 있었을 거니까. 경이 있었다면 절대 말을 못 했겠지.’

아무리 17살 때까진 착실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모범생이었다고 해도 지금은 바람둥이 날라리 소공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아직도 라이 경과 친구라고 하는 걸 보면 프레디 소공자에게도 혹시 무슨 사연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었다. 적어도 착했던 소년이 갑자기 삐뚤어졌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있었을 것 같다고 레아는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레아는 프레디 소공자를 절대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 봤자 소공자는 바람둥이에 날라리라는 사실이 변하는 건 아니었다.

“동갑내기 친구가 있는 것도 좋지. 그럼 이제 친구가 생긴 건가?”

“아직은 아니고요. 영애도 저도 서로에 대해 아는 게 적으니 친구가 되는 건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고 싶어요.”

“그래. 신중한 건 좋은 거야. 친구는 가려서 사귀는 게 좋으니까.”

“하지만 다리아 영애는 평판도 좋고 앨버트 후작도 좋은 분이라고 들어서 조금은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딸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친구란 있어도 좋지만, 없는 것도 편하고 좋다고 생각해.”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언제나 또래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긴 했었지만, 16살이 될 때까지 레아는 친구 없이도 잘 살았다.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크게 문제 될 거 없다고 레아는 생각했다.

“그럼 다리아 영애랑은 다음에 또 언제 만나기로 했지?”

“아직 확실한 약속은 하지 않았어요. 아마 2주 뒤에 황궁으로 초대할 거 같아요.”

“2주 뒤? 그때 너 황궁에 없을 건데?”

“네? 왜요?”

언제는 돌려보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절대 못 가게 협박 아닌 협박까지 해놓고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지? 이해가 가지 않아 고개를 갸웃거리는 레아를 보며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는 활짝 웃으면서 말씀하셨다.

“2주 뒤에 앙겔루스 제국에서 열리는 파티에 우리 둘이 초대받았어. 가기 전에 준비할 것도 많고 이동하는 데도 오래 걸리니까 일찍 출발할 예정이야. 다리아 영애와는 다시 다닐로만 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약속을 잡고 초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23.연애는 무조건 비밀연애.docx

“앙겔루스 제국은 다닐로만 제국의 3분의 1 정도 되는 비교적 작은 제국입니다. 하지만 제국 전체가 예술작품처럼 모든 곳이 아름다운 곳으로 꽤 유명한 제국이죠. 앙겔루스 제국의 황제이신 그라티아 황제 폐하께선 레그마인 황제 폐하와 친분이 두터우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2주 뒤에 태어나서 처음 다닐로만 제국을 벗어나 다른 제국, 그것도 다른 제국의 황실에서 열리는 파티에 가게 된 레아는 급하게 가스파르 재상에게 앙겔루스 제국에 대해 배우는 중이었다.

첫 파티를 무사히 마치고 레아의 두 번째 파티는 가을에 열리는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탄생일을 축하하는 파티가 될 줄 알았는데 다른 제국에서 열리는 파티에 참석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었다. 거기다 다른 제국에서 열리는 파티에 초대되는 건 다닐로만 황실에서 주최하는 파티에 참석하는 것과 차원이 달랐기 때문에 레아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긴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앙겔루스 제국은 다닐로만 제국보다 자유로운 느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아빠 친구 만나러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지고 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긴 하죠. 제 부친과 그 친구분이 각 제국의 황제 폐하시라는 점이 문제라면 아주 큰 문제지만요.”

레아는 황녀라는 위치에 있었고 그렇기에 재상의 말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파티에 참석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거기다 이번에 가게 될 파티는 다른 제국의 황족들만 참석하는 파티라고 했다. 과연 황족들 사이에서 잘 버틸 수 있을지 레아는 그게 너무 걱정이었다.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가기 싫다. 하지만 그라티아 황제 폐하와 아빠는 친분이 두텁다니 나도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 따지고 보면 나는 친한 친구의 딸이니까.’

제국의 황녀라는 자리에 앉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많은 파티에 초대되고 바빠질 것이란 건 레아도 처음부터 각오하고 있었다. 그리고 솔직히…파티 때문에 지금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것들도 언젠가는 공부했었어야 할 것들이긴 했다. 지금 레아가 불만을 가지는 부분은 딱 한 부분이었다.

“그런 중요한 일정이 있었으면 미리미리 말씀해주셨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듣기로는 이미 저번 달에 정식 초대장이 왔었다고 들었는데. 첫 번째 파티도 매우 갑작스러웠지만, 이번에는 재상이 봐도 너무 심하지 않아요?”

가스파르 재상과의 수업이 끝나면 레아는 바로 드레스를 맞추기 위해 소니아 부인과 의상실 네 곳을 들를 예정이었다. 그리고 다시 황궁으로 돌아와서 잠깐의 쉴 틈도 없이 레아는 바로 춤을 배워야 했고 상상만 해도 피곤하고 귀찮은 살인적인 일정에 레아는 앞이 캄캄했다.

“원래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선 제멋대로고 계획을 절대 미리 말씀해주지 않으시죠. 늘 일이 닥치기 직전에 통보하셔서 저희도 미칠 지경입니다.”

“황제 폐하께서 일주일 동안 자리를 비우시니 가스파르 재상이랑 피에르 시종장님이 많이 바쁘시겠네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저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만 폐하께서 상큼하게 웃으시면서 꿈도 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니…가스파르 재상이 거기를 왜 따라와요….”

“황실에서 연 레아 황녀님의 첫 데뷔 파티에서 저만 황녀님과 얘기를 못 나눴잖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그게 너무 억울하고 아쉽습니다.”

“하하….”

7월 말에 열린 첫 파티 당시 가스파르 재상도 황녀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잘하고 있으시다고 응원해드리고 싶었지만, 쏜살같이 레아 황녀님에게로 간 피에르 시종장님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주최하는 쪽인 가스파르 재상은 황녀님께 가버린 시종장님의 몫까지 더 손님을 받고 인사를 해야만 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인사를 끝내고 가스파르 재상은 레아 황녀님께 가려고 했지만, 딱 그때 위즈덤 공작부인의 아들과 레아 황녀님이 부딪혀 황녀님의 드레스가 엉망이 되었다. 그 후로는 파티장이 아수라장이 되어 재상은 결국 파티가 끝날 때까지 황녀님의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었다.

“그래도 우린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 보잖아요. 파티 때랑 수업할 때가 제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닌데 재상이 바쁘면 인사 못 할 수도 있죠. 왜 그렇게 아쉬워해요.”

“물론 평소의 황녀님도 아름다우시지만, 파티 때는 안 그래도 예쁘신 분이 꾸미시기까지 하니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빛이 나시고 사랑스러웠다고 피에르 시종장님께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으니…. 시종장님께서 그날 레아 황녀님과 이야기 나눈 걸 얘기하실 때마다 아주 그냥 부러워죽겠습니다.”

“아…….”

가스파르 재상의 말에 레아는 뭐라고 할 말이 없었다. 파티 때 자신과 이야기해봤다고 자랑하는 피에르 시종장님이나 그걸 또 부러워죽겠다며 다른 제국에서 열리는 파티를 따라가고 싶다는 가스파르 재상이나…. 레아는 두 분 다 참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분명 날 탐탁지 않아 했던 가스파르 재상이 설마 이렇게 변할 줄이야. 물론 그때보단 지금이 더 낫긴 하지만 가끔 이럴 땐 나도 할 말이 없단 말이지.’

레그마인 황제 폐하부터 피에르 시종장님, 가스파르 재상. 그리고 시녀들까지 모두 레아를 향한 주접과 애정이 어째 날이 갈수록 더 느는 것 같았다. 레아는 속으로 그나마 소니아 부인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니아 부인만큼은 절대 저런 주접은 떨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건 레아의 크나큰 착각이었다.

\*\*\*

“레아 황녀님. 앙겔루스 제국에서 열리는 파티에 초대받으셨는데 아무리 의상실을 돌아도 마땅한 드레스가 없네요.”

“네? 이 연분홍 드레스 예쁘지 않아요?”

“예뻐요. 황녀님은 피부도 하야셔서 연분홍색이 참 잘 어울리세요. 딱 황녀님 나이에 맞게 사랑스러운 느낌이에요. 하지만 이 드레스도 그 파티에 입고 가시기엔 마땅하지 않아요.”

“아, 너무 수수해서 그래요?”

“아뇨. 레아 황녀님은 화려한 황금빛 머리카락을 가지셔서 오히려 너무 화려한 드레스보단 좀 더 단정하고 무난한 느낌의 드레스가 더 잘 어울리세요.”

“그러면 왜요? 왜 이 드레스가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는 네 곳의 의상실 정도만 둘러보기로 했는데 레아는 벌써 여섯 번째 의상실에서 드레스를 보는 중이었다. 레아는 이제 드레스는 적당히 아무거나 고르고 빨리 황궁으로 돌아가 파티에서 추게 될지도 모르는 춤을 배우러 가야 하는데 그 마음을 모르는 건지 소니아 부인은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조금이라도 레아 황녀님의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을 감출 수 있는 드레스로 고르라고 했는데 어쩜 뭘 입으셔도 이렇게 귀여우신지…. 일부러 유행이 한참 지난 드레스를 골라도 황녀님이 입으시니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우세요. 꼭 인간 세상에 내려온 요정처럼 신비로운 아름다움일까요?”

“……….”

“이 드레스를 파티에서 입으셨다간 이제 전국의 황자님들이 레아 황녀님께 한눈에 반해서 밤에 잠을 못 이루실 거예요. 황녀님을 서로 가지겠다고 전쟁이 날지도 몰라요. 그건 너무 위험하니 좀 덜 예쁜 드레스를 찾아야겠어요. 이 드레스는 너무 위험해요!”

“…소니아 부인. 설마 다른 의상실을 또 들를 건 아니죠?”

“당연히 레아 황녀님께 잘 어울리면서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을 조금이라도 감출 수 있는 드레스를 찾을 때까지 벨리시타에 있는 모든 의상실을 들를 예정이에요.”

“맙소사….”

안 그래도 계속 불편한 드레스를 입었다 벗었다 하고 드레스를 갈아입을 때마다 그에 어울리는 구두를 신어보고 간단한 액세서리를 해본다고 레아는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의상실을 더 둘러본다는 것은 레아에게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안 되겠다. 그냥 억지를 부리자. 그것 말고는 황궁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어!’

세상에 잘 어울리면서 입은 사람의 아름다움을 가려줄 드레스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었다. 억지를 부리는 건 레아의 성격상 맞지 않는 일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어쩔 수 없었다.

“싫어요. 저는 무조건 이 드레스로 할래요. 이거 아니면 싫어요.”

“네? 황녀님. 하지만….”

“내가 입을 드레스잖아요. 그럼 내 의견이 제일 중요하지 저보다 아빠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뇨.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그냥 이 드레스로 결정해요. 저는 이 연분홍색 드레스가 아주 그냥 마음에 쏙 들어요. 이 드레스를 못 입게 한다면 저는 앙겔루스 제국에서 열리는 파티에 참석하지 않겠어요!”

사실 이 드레스가 그렇게 마음에 쏙 드는 건 아니었지만, 레아는 최대한 이 드레스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듯이 말했다. 황녀님이 이렇게 완강하게 나오자 소니아 부인은 이걸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이었다.

‘이거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말을 들어야 할지 레아 황녀님의 말을 들어야 할지…. 솔직히 나는 다른 의상실도 가서 다른 드레스를 입으신 레아 황녀님을 보고 싶은데.’

뭘 입어도 예쁘고 다 너무 잘 어울려서 소니아 부인은 이것저것 다 입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예쁜 레아 황녀님의 모습을 보는 게 즐거웠고 꼭 황녀님처럼 예쁜 딸을 낳고 싶다고 소니아 부인은 계속 생각했었다. 하지만 레아 황녀님은 이제 지칠 대로 지치셨으니 아쉬워도 이제 황궁으로 돌아가는 편이 좋을 거 같았다.

“알겠습니다. 그럼 드레스를 고르는 건 여기까지만 하고 파티 때 뭘 입으실지는 좀 더 고민해보도록 해요.”

“다음에 다시 드레스를 고르러 오자는 말인가요?”

“아뇨. 레아 황녀님은 이제 앙겔루스 제국으로 떠나시기 전까지 바쁘실 테니 오늘처럼 황궁 밖으로 나오시는 건 힘드실 거예요.”

그렇다면 드레스는 소니아 부인이 혼자 알아서 고르겠단 말인가? 그래도 되는 건진 모르겠지만, 레아는 그래도 상관이 없기는 했다. 하지만 레아의 예상과 달리 소니아 부인은 직원에게 레아의 상상을 초월하는 말을 했다.

“이거랑 이거. 그리고 이거 빼고 나머지 드레스 황궁으로 배달 부탁드려요. 당장 오늘부터 제작 들어가면 늦어도 3일 뒤에는 도착할 수 있겠죠?”

“네. 가능합니다.”

“그럼 부탁해요. 황녀님께서 입으실 드레스인 만큼 특히 더 신경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의상실에서 입어본 드레스만 해도 수십 벌인데 그 드레스 중 몇 벌을 사는 게 아니라 몇 벌만 빼고 모두 사버린 소니아 부인을 보며 레아는 깜짝 놀랐다. 황궁에 있는 드레스만 해도 넘치는데 또 이렇게 수십 벌의 드레스를 사들이면 레아는 죽을 때까지 그 드레스를 다 입어보지도 못할 것이었다.

‘거기다 난 아직 성장기라고. 키도 더 클 거고 살이 더 찌거나 빠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사는 건 그냥 돈 낭비 아니야? 맞춤 드레스 한 벌이면 케이크를 60판은 살 수 있다고!’

이런 드레스 수십 벌을 사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케이크 60판을 사주는 편이 더 가치도 있고 기쁠 거 같은데. 괜히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쓴 거 같아 레아는 속이 쓰렸고 황궁으로 돌아가는 마차 안에도 레아는 계속 돈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레아 황녀님. 아까부터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네?”

“의상실을 나오시고 나서부터 계속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신 거 같아서요. 혹시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세요?”

“아, 그게….”

소니아 부인의 질문에 레아는 솔직하게 돈이 너무 아까워서 그런다고 대답할 수는 없었다. 레아는 그냥 재빨리 머리를 굴려 그럴듯한 말을 생각해내 둘러댔다.

“춤 때문에요. 이제 황궁으로 들어가면 파티에서 추는 춤을 배워야 하거든요. 공부는 그렇다 쳐도 춤은 한 번도 춰본 적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춤은 많은 사람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긴 하죠. 하지만 레아 황녀님은 뭐든 잘하시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아요.”

“그런가요?”

“네. 예법이나 공부도 어렵다고는 하시지만, 습득력도 빠르시고 굉장히 잘 따라오셔서 가르쳐드리는 재미가 있으세요. 저도 남편도 인정할 정도로 황녀님은 똑똑한 분이시니 분명 춤도 금방 배우실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비슷한 것도 해본 적이 없는데 소니아 부인이 저렇게 말해주니 레아는 좀 안심이었다. 드레스 때문에 잠시 잊고 있었는데 사실 레아는 춤을 배우는 것에 대해 꽤 걱정했었다.

“그럼 춤은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직접 알려주시나요? 보통 딸의 첫 댄스 파트너는 아빠가 직접 해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황녀님의 첫 파트너도 당연히 황제 폐하시겠죠?”

“아뇨. 아빠는 일주일 정도 황궁을 비우셔야 해서 미리 해두실 일이 많으신가 봐요. 아쉽지만 다른 분께 배우기로 했어요.”

“어머. 폐하께서 많이 아쉬워하셨겠어요.”

많이 아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딸의 첫 댄스 파트너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레그마인 황제는 아예 레아가 춤을 배우는 것을 반대했었다. 레아가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춤을 배우는 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진땀을 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결국은 레아가 직접 나서서 황제 폐하께 파티장에서 정식으로 추는 춤은 꼭 아빠와 함께 추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나서야 레아는 겨우 춤을 배울 수 있게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다.

“근데 또 배울 때 라이 경도 옆에서 꼭 보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거셨어요. 그리고 라이 경에게 상대가 조금이라도 허튼짓을 하려고 하면 바로 죽여버리라고 하셨다니까요.”

“후후. 참으로 레그마인 황제 폐하다우신 명령이네요.”

“그래서 전 아직도 저한테 춤을 가르쳐주실 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도 묻지 말고 잡담도 절대 금지래요.”

“이러다 나중에 황녀님께 남자친구라도 생기면 그 남자는 황제 폐하께 단단히 미움받겠는데요?”

소니아 부인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말이었지만, 레아는 레그마인 황제 폐하라면 당연히 그러시고도 남을 거 같아서 걱정이었다. 레아가 결혼은 못 해도 연애는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나중에 남자친구가 생기고 황제 폐하께서 그 사실을 알게 되신다면…. 생각만 해도 후폭풍이 두려울 정도였다.

지금도 진짜 아무 사이도 아닌 라이 경에게 하는 것만 봐도 나중에 진짜 남자친구가 생기면 어떨진 안 봐도 뻔했다. 레아는 혹시라도 나중에 정말 남자친구라는 존재가 생기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빠에게만은 무조건 비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24.카틀레야의 꽃말.docx

“레아 황녀님. 곧 황궁에 도착할 건가 봐요. 마차에서 내리시면 바로 춤을 배우시러 가시나요?”

“그럴 거 같아요. 소니아 부인은 바로 저택으로 돌아가실 건가요?”

“아뇨. 전 레그마인 황제 폐하를 뵙고 저택으로 돌아갈 거예요.”

“가스파르 재상이 아니라 아빠를요?”

“네. 황제 폐하께서 황녀님의 드레스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셨거든요. 뭘 샀는지 보고는 드리고 가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남편 얼굴은 집에서도 질리게 봐서 황궁에서까지 보고 싶진 않네요. 후후.”

누가 들어도 농담일 게 분명한 이야기를 하면서 소니아 부인은 웃었다. 레아도 소니아 부인과 가스파르 재상이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알기에 부인을 따라 웃었다.

곧 황궁에 도착했는지 마차가 멈췄고 문이 열렸다. 문이 열리자 라이 경의 모습이 보였고 라이 경은 말없이 레아에게 손을 내밀었다. 레아는 조금 어색하게 라이 경의 손을 잡고 마차에서 내렸고 소니아 부인은 라이 경의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가스파르 재상의 손을 잡고 내려왔다.

“황궁 밖에서 아무 일 없으셨습니까?”

“네. 의상실만 돌아다녀서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제가 같이 갔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소니아 부인이 따라오지 말라고 해서 못 온 거잖아요. 들어보니까 대부분은 드레스를 맞출 때 남자 호위는 안 데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라이 경은 레아가 드레스를 맞추려 의상실을 들릴 때 호위기사로서 동행하려고 했다. 레아도 당연히 라이 경도 같이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소니아 부인은 딱 잘라서 라이 경은 따라오지 말라고 했었다.

“드레스를 몸에 꼭 맞게 맞추려면 치수를 재야 하는데 남자인 호위기사가 따라오면 그게 얼마나 민망한데요. 거기다 라이 경처럼 젊고 잘생긴 기사가 옆에 있으면 레아 황녀님이 얼마나 신경 쓰이시겠어요? 눈치 없기는.”

“맞아. 그래서 나도 남편이지만, 부인이 드레스를 맞추러 갈 때는 절대 안 따라간다고. 라이 경. 그렇게 눈치 없으면 나중에 부인한테 사랑 못 받을 거야.”

부부는 라이 경에게 눈치가 없다고 한마디씩 했지만, 라이 경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런 라이 경을 보며 레아는 혼자 조용히 속으로 생각했다.

‘으음. 근데 솔직히 나는 별로 상관없는데. 그게 그렇게 눈치 없을 일인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레아는 그런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어쩌면 이건 레아가 라이 경을 전혀 남자로 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었다. 이성적으로 전혀 관심이 없으니 레아의 성격상 그런 게 신경 쓰일 리가 없었다. 하지만 레아는 그 말을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고 소니아 부인과 가스파르 재상은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 보고를 드리러 떠났다. 레아와 라이 경도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라이 경. 경도 춤을 출 줄 아나요?”

“어릴 때 배운 적은 있습니다.”

“그럼 파티에 참석해서 영애들과 춤을 춘 적도 있겠네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어머님과는 한번 춰 본 적 있죠?”

“없습니다. 춤은 배우기만 했지 한 번도 춰 본 적이 없습니다.”

딸에게 춤을 가르쳐주는 첫 댄스 파트너는 아빠인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아들에게 춤을 가르쳐주는 첫 댄스 파트너는 엄마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춤을 배우긴 배웠다니 라이 경의 첫 댄스 파트너도 경의 어머님일 거로 생각했는데 아예 한 번도 춰본 적이 없다니 레아는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님이 많이 서운해하셨을 거 같은데요? 아들의 첫 댄스 파트너가 되는 걸 많이 기대하셨을 거 같은데.”

“아버지께서 딸이 없어서 첫 파트너도 돼줄 수 없다며 속상해하셔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 피에르 시종장님….”

레아에게는 한없이 다정하고 자상한 외할아버지 같은 피에르 시종장님께 의외로 그런 귀여운 모습까지 있을 줄이야. 레아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았다.

“피에르 시종장님께 그런 면이 있으신 줄은 몰랐네요. 늘 부드럽고 다정하신 분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자상하신 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가끔 말도 안 되는 걸 바라셔서 곤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부분만 빼면 존경스러운 아버지십니다.”

“음. 혹시 말도 안 되는 걸 바라신다는 게 4년 안에 라이 경이 결혼해서 손녀를 안아보고 싶다는 그건가요?”

“…아버지께서 황녀님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네. 시종장님도 나이가 있으시니, 4년 안에는 꼭 결혼하길 바란다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레아 황녀님은 제발 모르길 바랐던 얘기가 황녀님의 입에서 나오자 라이 경은 깜짝 놀랐다.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있으신 걸 보니 황녀님께선 아직 피에르 시종장님이 자신을 며느리로 삼고 싶어 한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으신 것 같았다.

‘아버지는…정말 내가 황녀님과 연애라도 해야 만족하시려나.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지만, 상대는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외동딸이라고. 이러시다가 황제 폐하께 걸리기라도 하면 어쩌시려고.’

레아 황녀님께 반한 영식들이 아무리 열심히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내와도 그 편지가 황녀님의 손에 닿기도 전에 가차 없이 소각된다는 걸 라이 경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만약에 자신과 레아 황녀님이 연애한다면…?

라이 경은 그 자리에서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손에 소각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이었다.

“라이 경도 힘들겠어요. 아직 20살밖에 안 됐는데 결혼 빨리하라는 얘기 듣는 거 엄청 스트레스일 거 같은데.”

“제가 18살 때부터 늘 빨리 장가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갑자기 그 잔소리가 좀 심해지셔서…솔직히 힘들긴 하군요.”

“하하. 그 마음 이해해요. 나도 아직 16살인데 주변에서 레아 황녀님은 결혼할 거니 못할 거니 말이 많더라고요.”

“그건 아마 황녀님이 황족이시기 때문일 겁니다.”

“저도 알아요. 황제 폐하께서 결혼하지 않으시는 이상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새로운 황족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레아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사람들이 레아의 결혼에 대해 입을 대고 신경을 쓰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했다. 레아도 그건 알고 있었지만, 아직 16살밖에 안 됐는데 결혼을 누구랑 하냐는 것도 아니고 하느니 못하느니 떠드는 게 싫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세상에 어떤 남자가 날 좋아하고 어떤 부모가 나한테 아들을 보내고 싶겠어요. 사생아에다 엄마는 시녀인데.”

레아의 말에 라이 경은 잠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황녀님을 짝사랑하는 남자들이 많다는 걸 라이 경은 알고 있었고 아들을 레아 황녀님께 장가보내고 싶어 하는 부모도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보기에는 레아 황녀님이 만약에 결혼을 못 하신다면 그건 둘 중의 하나일 거 같은데. 본인이 결혼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절대 허락해주지 않아서거나.’

아직 레아 황녀님은 라이 경처럼 결혼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거 같았다. 다른 영애들이라면 모를까 어릴 때부터 평범하게 자란 황녀님이시기에 어쩌면 그건 당연한 걸지도 몰랐다. 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 본인이 결혼하고 싶다고 한다면 짝을 못 찾아서 못 갈 가능성은 제로라고 라이 경은 생각했다.

문제는 레아 황녀님의 아버지.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는 황녀님의 나이가 몇 살이고 상대가 누구든 딸이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 십중팔구 반대할 게 분명했다. 레아 황녀님의 첫 파티에서 황녀님의 손을 잡고 들어갔다가 라이 경은 파티가 끝나고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손에 정말로 죽을 뻔했다.

하지만 그래도 레아 황녀님이시라면 어떻게 해서든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해내고야 말 것 같기는 했다. 어쩐지 두 사람이 부딪치면 결국에는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레아 황녀님께 질 것 같았다.

‘차라리 아버지도 황제 폐하처럼 나한테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다면 지금보단 나았을 거 같은데. 여러모로 레아 황녀님이 조금 부러워지는군.’

결혼하라고 빨리 손녀를 안아보고 싶다고 하시는 것보다 절대 일찍 결혼하지 말고 오래오래 옆에 있으라는 말이 라이 경은 듣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절대 그런 말을 해주실 분들이 아니란 건 그 누구보다 라이 경이 잘 알고 있었다.

\*\*\*

하이모어 대공의 첫째 아들 크라스 하이모어.

그는 18살 때 황궁 기사가 되었고 작년에 있었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워 기사로서도 인정받아 훗날 대공의 자리를 이어받아 집안을 이끌 것이 거의 확정된 사람이었다. 얼핏 보면 앞으로의 날들이 창창할 것 같은 크라스 경이었지만, 그런 크라스 경에게도 오랜 골칫덩어리이자 눈엣가시인 것이 하나 있었다.

“네가 왜 여기 있지?”

“오해하지 마. 나도 형 때문에 온 거 아니니까.”

“보는 사람이 없을 때는 형이라고 부르지 마라. 난 널 내 동생이라고 인정한 적도 없고 가족이라고 인정한 적은 더더욱 없으니까.”

“…형은 여전하구나.”

황녀님께 춤을 가르쳐 드리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옷을 차려입고 온 곳에는 자신의 이복동생인 프레디 소공자가 있었다. 보기 싫은 얼굴이었기에 크라스 경은 얼굴을 찌푸렸고 그 모습을 보며 프레디 소공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모든 걸 망쳐버린 형인데 아직도 형은 자신에게 미안해하기는커녕 자신을 미워하고 있었다.

“그럼 네가 왜 황궁에 있는 거지? 너 같은 녀석은 늘 파티에 참석하거나 영애들과 데이트를 하면서 시간 낭비를 하는 게 일상일 텐데.”

“레아 황녀님을 만나러 왔어. 전에 파티에서 뵀을 때 다음에 또 만나기로 약속을 했거든.”

“황녀님이 네까짓 것과 약속을 하셨다고?”

“일방적으로 내 쪽에서 약속했지. 덕분에 잘생긴 내 친구 손에 죽을 뻔했지만 말이야.”

“무례한 녀석. 또 레아 황녀님의 시녀를 꾀어서 황녀님의 일정을 알아냈나 보군.”

“정답. 그래도 난 레아 황녀님께 드릴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형은 빈손인 거 같네.”

그렇게 말하는 프레디 소공자의 손에 있는 진한 보라색 꽃이 예쁘게 담긴 꽃다발을 들어 보였다. 단번에 그 꽃이 어떤 꽃인지 알아챈 크라스 경은 중얼거리듯 말했다.

“카틀레야인가. 아마 꽃말이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라는 뜻이었지.”

“역시 형은 기억하는구나. 이 꽃을.”

“…그 꽃을 황녀님께 선물하는 이유가 뭐지?”

“큰 이유는 없어. 레아 황녀님께 꽃을 선물하고 싶었고 황녀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시니까 이 꽃을 선물하는 것일 뿐이야.”

프레디 소공자는 웃으면서 말하고 있었지만, 크라스 경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만큼 카틀레야는 형제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는 꽃이었다.

“너…진심이냐.”

“뭐가?”

“모르는 척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너 황녀님께 진심이냐.”

“진심이면 좋겠어? 내가 황녀님의 남편이 되면 아버지는 몰라도 형은 좋겠지. 드디어 골칫덩어리 눈엣가시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

“……….”

프레디 소공자의 말에 크라스 경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확실히 프레디 소공자가 레아 황녀님과 결혼한다면 하이모어 가문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었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가문의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고 무시당한 사생아가 드디어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프레디 소공자는 바람둥이에 날라리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만약 잘된다면 가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겠지만, 반대로 상처를 주고 미움을 받게 된다면 그것 역시 하이모어 가문의 치명적인 일이었다.

“허튼짓하지 말고 어서 집으로 돌아가. 곧 황녀님이 오실 거니까.”

“너무하네. 나도 레아 황녀님을 뵙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거라니까? 적어도 얼굴을 보여드리고 가는 게 예의지.”

“까불지 말고 꺼져.”

동갑내기 이복형제는 약간의 날카로운 대화를 나누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에 프레디 소공자와 크라스 경은 동시에 문 쪽을 바라보았고 열린 문 너머에는 황금빛 머리카락을 가진 황녀님과 새카만 머리카락을 가진 라이 경이 있었다.

“프레디 소공자? 그리고 옆에는….”

“하이모어 가문의 장남 크라스 경입니다.”

“아하.”

은빛 머리카락에 짙은 파란색 눈동자를 가진 형제를 보며 놀란 얼굴을 하던 레아는 라이 경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오늘 초면인 프레디 소공자의 형이라는 크라스 경을 슬쩍 바라보았다.

‘저쪽이 하이모어 대공과 대공비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소공자구나. 확실히 기사라서 그런지 하이모어 대공처럼 동글동글하게 생기진 않았지만, 소문대로 평범하게 생겼군. 얼굴 하나는 진짜 잘생긴 프레디 소공자와는 하나도 닮지 않았어.’

키는 프레디 소공자처럼 크긴 했지만 그렇다고 소공자처럼 멋있는 느낌은 아니었다. 레아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리가 없는 크라스 경은 레아 황녀님께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 인사를 했다.

“존경하는 레아 더 다닐로만 황녀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이모어 가문의 장남 크라스 하이모어라고 합니다. 황궁 기사단 소속이니 편하게 크라스 경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크라스 경.”

얼굴은 프레디 소공자와 전혀 닮지 않았지만 그래도 은빛 머리카락이나 짙은 푸른색 눈동자는 똑같다고 레아는 생각했다. 그런데 크라스 경과의 인사가 끝나자마자 옆에서 불쑥 프레디 소공자가 끼어들었다.

“레아 황녀님. 파티 이후로는 처음 뵙네요. 아름다우신 황녀님을 다시 만나볼 수 있어 영광입니다.”

“또 만나네요. 프레디 소공자.”

“약소하지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황녀님보단 아름답지 못하지만, 레아 황녀님처럼 아름다운 꽃을 준비했습니다.”

“…고마워요. 소공자.”

떨떠름한 표정으로 프레디 소공자에게 카틀레야 꽃다발을 받은 레아는 꽃을 받자마자 바로 라이 경에게 꽃다발을 건네주었고 얼떨결에 라이 경은 손에 꽃다발을 들게 되었다.

“제가 황녀님을 위해 직접 준비한 선물인데 조금 서운하네요. 하지만 차갑고 도도하신 레아 황녀님도 상당히 매력적이십니다. 아름다우세요.”

“……….”

이번에도 어김없이 추파를 던지는 프레디 소공자를 보며 레아는 정색했다. 다리아 영애는 프레디 소공자는 여자들에게 먼저 추파를 던지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레아는 역시 그건 영애가 잘못 알았다고 생각하며 프레디 소공자를 조용히 무시했다.

“그래서 오늘 춤을 가르쳐주실 분은 누구시죠?”

레아의 질문에 프레디 소공자와 크라스 경은 동시에 말했다.

“제가 가르쳐 드릴 겁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레아 황녀님.”

“그게 무슨 소리지? 넌 어서 집에나 돌아가도록 해.”

“파티에서 추는 춤이라면 형보다 내가 더 잘 알아. 형이나 기사단으로 돌아가서 훈련이나 더 하도록 해.”

“프레디. 황녀님 앞에서 꼴사나운 모습 보이고 싶지 않다. 돌아가라.”

“나도 마찬가지야. 형.”

갑자기 난데없이 말다툼하는 형제를 보며 레아는 조용히 혼자 팔짱을 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고 한숨을 푹 쉬었다.

25.발등 위에 발.docx

‘저 녀석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설마 레아 황녀님께 정말 진심으로 관심이라도 있는 건가?’

어릴 땐 착하고 착실했고 18살 때 그 일이 있었던 이후로도 크라스 경의 말을 잘 듣는 건 아니었지만, 프레디 소공자가 이렇게 의견을 굽히지 않는 건 또 처음이었다. 집에 가라고 해도 자신이 레아 황녀님께 춤을 가르쳐 드리겠다는 프레디 소공자의 말에 크라스 경은 잠시 고민을 했다.

정말로 황녀님께 호감이라도 있는 건가?

하지만 워낙 속을 알 수 없는 녀석이라 진심인지 아닌지 크라스 경은 감이 오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카틀레야 꽃다발이 계속 신경이 쓰였다.

‘분명 내가 올 거란 걸 알면서도 아무 의미 없이 저 꽃을 가지고 왔을 리가 없어. 일부러 나 보라고 저 꽃을 레아 황녀님께 선물하는 게 분명해. 하지만 왜 하필….’

왜 하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레아 황녀님에게 저 꽃을 선물하는 걸까. 프레디 소공자가 대체 뭘 보여주고 싶은 건지 크라스 경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일단은 한 발자국 물러나서 지켜보는 게 좋을 거 같았다.

“네가 그렇게 자신 있다면 한번 믿어보도록 하지. 그동안 네가 가문에 피해까지 주면서 파티장에 붙어 있던 게 헛짓거리가 아니었길 바란다.”

“내가 파티를 좋아해서 가문에 피해를 줬다니. 원래 형이랑 아버지는 내 존재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잖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핑계야.”

“황녀님의 앞이다. 말조심해.”

순간 레아 황녀님의 앞이라는 것도 잊고 평소처럼 말하다가 프레디 소공자는 아차 했다. 그런데 당황하셨을 거란 형제의 예상과 달리 레아는 두 사람이 싸우든 말든 관심도 없어 보였다.

“예쁘다. 라이 경. 이 꽃 이름이 뭔지 알아요?”

“꽃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꽃은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합니까?”

“왜요. 잘 어울리는데. 계속 들고 있어 주면 안 돼요?”

“…잠시 내려놔도 큰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녀에게 황녀님 방으로 가져다 놓으라고 하겠습니다.”

“방으로 돌아갈 때까지 라이 경이 들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

“싫어요?”

“제가 들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빤히 올려다보며 말하는 황녀님의 얼굴을 보며 딱 잘라 싫다고 말할 수 있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었다. 레아를 전혀 여자로 보지 않고 있는 차갑고 냉정한 라이 경도 결국은 싫다고 말하지 못한 걸 보면 알 수 있었다. 비록 본인은 본인의 미모가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 못 하고 있었지만 말이다.

옆에서 하이모어 형제가 뭐라고 떠들던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라이 경과 얘기를 하는 레아 황녀님을 보며 프레디 소공자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태어나서 저런 여자도 처음이었지만, 여자에게 저런 반응을 보이는 라이 경도 처음이었다.

‘역시 재밌는 사람이야. 특히 저 녀석이랑 같이 있으니 더 흥미가 생겨. 어쩌면 라이도 드디어 임자를 만난 걸지도 모르겠네.’

프레디 소공자가 보기에도 레아 황녀님과 라이 경의 조합은 꽤 괜찮은 조합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프레디 소공자는 그 둘 사이에 끼어들고 싶었다.

“레아 황녀님. 그럼 이제 수업을 시작해볼까요?”

“결국은 프레디 소공자가 춤을 알려주시는 거로 결정됐나 봐요.”

“네. 형보다는 제가 레아 황녀님의 파트너로 훨씬 더 잘 어울리니까요. 황녀님도 형보단 저를 더 좋아하시니 당연히 제가 해야죠.”

“그건 또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네요.”

“하하. 밤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레아 황녀님의 옆에 있으려면 이런 자신감 정도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뭐래.”

이 사람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성격 진짜 이상해.

레아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라이 경을 한번 슬쩍 바라보았다. 둘이 조금 싸우다가 레아는 당연히 크라스 경이 자신에게 춤을 가르쳐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상과는 다른 결과에 솔직히 좀 별로였다. 바람둥이 날라리에게 춤을 배우고 싶을 리가 없었다.

“프레디. 조금이라도 허튼짓하면 바로 널 죽여버릴 거니까 이상한 짓은 꿈도 꾸지 마라.”

“프레디 소공자가 레아 황녀님께 무례한 짓을 한다면 저 역시 하이모어 가문의 이름을 걸고 죽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 다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나를 뭘로 보고.”

“이왕 죽일 거면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여주세요.”

“황녀님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혹시라도 프레디 소공자가 허튼짓을 하면 바로 조져줄 사람이 둘이나 있다는 사실에 레아는 속으로 좀 안심했다. 프레디 소공자도 생각이란 걸 할 줄 아는 사람이니 저런 말까지 들었는데 알아서 잘 행동할 것이었다. 하지만 춤을 배울 때 프레디 소공자만 제대로 똑바로 하면 아무런 문제 없을 거란 생각은 레아의 크나큰 착각이었다. 수월한 수업을 바랐었지만, 의외의 복병은 바로 레아 본인이었다.

“박자가 조금 빠르십니다. 조금만 천천히 음악에 맞춰 발을 움직여서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네.”

“이번에는 좀 느리세요. 한 번 더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으음. 레아 황녀님. 그냥 제가 리드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

그 후로 몇 번이나 다시 해보았지만, 레아의 저주받은 박자 감각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레아 역시 실력이 형편없다는 걸 느끼고 있어서 점점 위축되고 긴장을 해서 움직임은 점점 더 딱딱해지고 소극적으로 변했다. 갈수록 점점 엉망으로 꼬이는 춤에 라이 경과 크라스 경은 할 말을 잃었고 레아는 정말이지 울고 싶었다. 같이 춤을 추는 상대로서 좀 난감해하는 듯한 프레디 소공자는 잠시 생각을 하는 듯하더니 결국 특별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레아 황녀님. 구두 벗으세요.”

“네?”

“구두를 벗고 맨발로 제 발등을 밟고 올라오세요.”

“네, 네?”

“어린 영애들이 처음 춤을 배울 때 어려워하면 쓰는 방법이에요. 이상한 짓을 하려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갑자기 신발의 벗고 발등 위로 올라오라는 프레디 소공자의 말에 레아는 당황했다. 하지만 라이 경과 크라스 경의 표정을 보니 프레디 소공자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 거 같았다.

‘그렇다면 내 실력이 딱 어린 영애들이 잘 못 따라오고 버거워하는 그 수준이란 말인가. 진짜 너무 슬픈데 반박할 수가 없어서 더 슬프다. 내가 몸치, 박치였다니.’

오늘 16살이 될 때까지 모르고 살았던 걸 처음으로 알게 되어 레아는 너무나도 슬펐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건 그 누구보다 레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기에 아무런 말 없이 조용히 구두를 벗고 조심스럽게 똑같이 신발을 벗은 프레디 소공자의 발등 위로 올라갔다.

“천천히 움직일 테니까 움직임을 잘 느껴보세요. 한번 해보고 나시면 아마 훨씬 수월해지실 거예요.”

“네….”

아무래도 프레디 소공자 발등 위에 레아의 발이 있다 보니 갑자기 훅 가까워진 거리에 레아는 조금 민망했다. 아무리 상대는 레아가 싫어하는 바람둥이 날라리 소공자라고 해도 지금은 숨결도 느껴질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고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무진장 잘생긴 얼굴이 있으니 레아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다.

음악이 나오고 프레디 소공자가 천천히 발을 움직이자 레아의 발도 따라 움직였다. 이 박자에는 이렇게. 이 박자에는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오는 거 같아. 솔직히 처음에는 또 무슨 개수작을 부리려는 건가 했는데 조금 미안해지네. 뭐…전과가 있으니 의심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프레디 소공자는 첫 만남 때 레아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도망간 전적이 있었다. 그러니 레아가 의심하고 경계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개수작 부리는 게 아니라서 레아는 괜히 혼자 설레발 친 거 같아 조금 민망했다. 어쨌든 천천히 움직임을 느끼면서 레아는 어느 정도 감을 잡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아까보다 긴장이 풀려 움직임도 한결 부드러웠다. 그런 레아를 내려다보며 프레디 소공자는 소리 없이 작게 웃었다.

‘귀엽다. 멋지고 당당하신 분인 줄만 알았는데 가까이에서 보니까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우시구나.’

프레디 소공자의 말에 정색하고 꽃을 받고도 떨떠름한 표정을 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차갑고 도도한 모습도 예쁘시지만,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좀 더 보고 싶다고 생각하며 프레디 소공자는 나지막하게 속삭이듯 말했다.

“레아 황녀님. 이제 좀 익숙해지셨나요?”

“네?”

“아니면 조금 더 알려드릴까요?”

“………!”

프레디 소공자가 말을 거니까 레아는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들었고 그러자 프레디 소공자와 눈이 마주쳤다. 가까워도 너무 가까운 거리에 레아는 순간 숨을 멈췄고 그런 모습까지도 너무 사랑스럽다고 생각하며 프레디 소공자는 작게 웃었다.

“이, 이제 이건 그만해도 될 거 같아요!”

“네. 이제 박자에 익숙해지신 거 같으니 아까처럼 다시 해보도록 하죠. 아니면 피곤하실 수도 있으니 잠시 쉬었다 할까요?”

“저는 괜찮아요. 프레디 소공자는 안 피곤해요?”

“저도 괜찮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하는 게 좋을 거 같네요.”

레아야 계속 프레디 소공자의 발등을 밟고 박자에 익숙해지고 있었으니 피곤할 리가 없었고 오히려 여기서 쉬어버리면 익숙해졌던 박자를 또 잊어버릴 것만 같았다. 다행히 프레디 소공자도 괜찮다고 하니 레아는 소공자의 발등에서 내려와 다시 제대로 춤 연습을 했다.

확실히 이제 박자에 익숙해져서 레아는 아까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춤을 출 수 있었다. 그걸 뿌듯해하며 레아는 살짝 웃었고 조금은 즐거운 마음으로 프레디 소공자와 춤을 추었다. 그런 둘의 모습을 보며 라이 경은 속으로 생각했다.

‘레아 황녀님이 프레디 앞에서 웃으시다니. 프레디 때문에 웃으시는 건 아니겠지만 상상도 못 했던 장면이야. 아니, 애초에 프레디와 레아 황녀님이 손을 잡고 춤을 추게 될 날이 올 거란 것도 상상도 못 했지만.’

레아 황녀님이 바람둥이 날라리 프레디 소공자를 얼마나 안 좋게 생각하시는지 라이 경은 잘 알고 있었다. 황녀님이 일부러 프레디 소공자를 싫어하길 바라는 마음에 좀 더 과장해서 소공자를 더 심각하고 나쁜 바람둥이라고 말한 것도 라이 경이니 모를 리가 없는 부분이었다. 황녀님은 분명 프레디 소공자를 싫어하고 있으셨다.

괜히 레아 황녀님이 다른 영애들처럼 프레디 소공자에게 빠져버리면 라이 경이 피곤해지니까. 단지 그 이유 하나로 라이 경은 황녀님이 소공자를 싫어하고 안 좋게 보길 바란 것이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저렇게 다정해 보이니 왠지 좀 기분이 나쁘군. 저 자식 그냥 죽여버릴까.’

레아 황녀님이 춤을 배우실 때 상대가 선을 넘거나 허튼짓을 하면 고민도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바로 상대를 죽여버리라고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말씀하셨다. 하지만 지금 프레디 소공자는 선을 넘지도 허튼짓을 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레아 황녀님이 싫어할 만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쩐지 라이 경은 친구를 그냥 죽여버리고 싶다고 조용히 생각했다. 본인도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건진 모르겠지만 말이다.

한편 라이 경이 죽여버리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프레디 소공자의 동갑내기 이복형인 크라스 경 역시 즐겁게 춤을 추고 있는 두 사람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내가 올 것이란 걸 알면서 일부러 내가 보는 앞에서 레아 황녀님께 카틀레야를 선물한 이유. 그리고 꼭 자신이 춤을 가르쳐 드리겠다고 억지를 부린 이유를 이제야 좀 알 거 같아.’

그게 궁금해서 돌아가지 않고 일부러 옆에서 지켜본 것인데 크라스 경은 이제야 그 이유를 어렴풋이 알 것 같기도 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크라스 경은 프레디 소공자가 지금 레아 황녀님을 바라보는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다.

‘역시 선전포고였군. 나한테 보여주려고 그랬던 거야.’

당돌한 동생의 선전포고에 형은 피식 웃음이 나왔다. 그리고 이 선전포고에 어떻게 반응하는 게 제일 좋을지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

레아와 프레디 소공자가 즐겁게 춤을 추고 그 모습을 보며 라이 경은 프레디 소공자를 죽여버릴까 고민하고 크라스 경이 앞으로 어떡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황제의 집무실에는 레그마인 황제 폐하와 피에르 시종장, 가스파르 재상이 일을 하고 있었다.

일주일 정도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황궁을 비우시니 그동안 못할 일을 미리 해두어야 했고 황제 폐하께서 안 계실 때도 문제가 생기지 않게 피에르 시종장과 가스파르 재상도 해야 할 것들이 많았다. 그런데 문제는 셋이 모였음에도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은 가스파르 재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황제 폐하. 계속 일 안 하시고 서류로 종이비행기를 접어서 날리시면 어떡합니까. 어서 제대로 서류 보시고 일을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속상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계속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

“레아 황녀님도 그래서 파티 때는 꼭 폐하와 제일 처음으로 춤을 추시겠다고 손가락까지 걸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서 빨리 일하세요!”

“……레아는 지금 크라스 경이랑 춤추고 있겠지.”

설마 그곳에 프레디 소공자가 있고 딸이 소공자와 즐겁게 춤을 추고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 하고 있는 레그마인 황제는 한숨을 푹푹 쉬며 계속 종이비행기를 접어 날렸다. 그런 황제 폐하를 보며 가스파르 재상은 지끈거리는 머리를 짚으며 옆으로 시선을 돌렸다.

“피에르 시종장님. 시종장님은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일도 안 하고 무슨 사연 있는 사람처럼 창밖만 바라보시는 겁니까? 덕분에 제가 시종장님의 일까지 두 배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

“라이 경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아니, 적어도 일을 안 하실 거면 집무실에 나오지를 마시던가 아니면 뭐 때문에 이러시는 건지 알려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진짜 사람 답답하게!”

“……레아 황녀님은 지금 크라스 경의 손을 잡고 춤을 배우고 있으시겠죠?”

“피에르 시종장님도 레아 황녀님 때문입니까?”

우리 아들도 춤출 줄 아는데. 그렇게 중얼거리며 피에르 시종장님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고 진짜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한숨을 푹푹 쉬었다.

그런 두 사람 사이에 끼인 가스파르 재상은 진심으로 머리를 쥐어뜯고 소리를 지르고 싶어졌다. 아니면 도저히 버틸 수가 없을 거 같았다.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가스파르 재상은 결혼은 했지만, 이러다 첫 아이를 시종장님처럼 40살이 넘어서 보게 될지도 몰랐다.

‘레아 황녀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26.고슴도치 아빠.docx

가스파르 재상의 소리 없는 절규에도 두 아버님은 딸과 아들 생각만 하며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다. 결국, 가스파르 재상은 눈물을 흘리며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만 했다.

“불쌍한 가스파르 재상.”

그 얘기를 듣고 레아는 허허 웃으면서 가스파르 재상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했지만 사실 어느 정도는 예상하였던 일이라 별로 놀랍진 않았다. 레아가 아는 아빠는 일을 내팽개치고 역시 춤은 아빠가 직접 가르쳐줘야 한다며 쳐들어오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만약 쳐들어오셨다가 프레디 소공자 발등 위에 올라간 나를 보신다면…. 황궁 전체가 뒤집혔겠지. 결국, 일은 거의 안 하셨다지만 춤 배울 때 황제 폐하께서 오시지 않으셔서 다행이야.’

그때 너무나도 가까웠던 프레디 소공자와의 얼굴을 생각하면 레아는 아직도 얼굴이 화끈거렸다. 아무리 너무 못 따라와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잘생긴 남자와 그렇게 밀착해본 적은 처음이라서 레아는 너무 창피했다. 거기다 그 바람둥이 날라리 소공자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는데 혼자만 신경을 쓰는 것 같아 좀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다.

레아는 그냥 잊어버리자고 생각하며 고개를 몇 번 흔들었다. 프레디 소공자와 있었던 일은 그 어떤 일이라고 해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레아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피에르 시종장님은 왜 기분이 별로 안 좋으셨던 거지?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나?’

레그마인 황제 폐하야 레아에게 직접 춤을 가르쳐줄 수가 없어 풀이 죽었다고 해도 레아가 생각하기엔 시종장님이 기분이 안 좋으실 일은 아닌 거 같았다. 그래서 혹시 자신이 모르는 뭐 다른 일이 있었나 싶기도 했다.

“라이 경. 혹시 피에르 시종장님께 무슨 일 있으셨나요?”

“아니요. 특별한 일은 없으셨습니다.”

“그래요? 기분이 안 좋으셔서 일도 제대로 못 하셨다고 들어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 했는데.”

“……….”

“혹시 몸이 안 좋으신 건가.”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보기엔 아주 건강하신 거 같습니다.”

아직 정정하시니까 아들이 레아 황녀님과 잘 되길 바라시고 엄청나게 신경 쓰실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었다. 라이 경은 피에르 시종장님이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으셨는지 바로 눈치챌 수 있었지만, 그걸 차마 레아 황녀님께 말씀드릴 순 없었다.

“그럼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신가. 신경 쓰이네요.”

“걱정….”

굳이 따진다면 걱정이 맞긴 했다. 시종장님은 황녀님을 다른 사람에게 뺏길까 걱정 중이셨다.

“아버지가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해결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레아 황녀님까지 신경 쓰이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게 왜 미안할 일이에요. 난 그냥 피에르 시종장님이 우리 외할아버지 같아서 잘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외할아버지요?”

“만약 우리 외할아버지가 살아있으셨다면 피에르 시종장님과 나이가 비슷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군요.”

한쪽은 며느릿감으로 원하고 있는데 한쪽은 외할아버지 같은 느낌이라니. 그게 묘하게 웃겨서 라이 경은 자신도 모르게 살짝 웃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녀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세상에…. 방금 봤어? 라이 경이 웃었어!’

‘나는 라이 경이 웃는 거 처음 봐. 지금 레아 황녀님이랑 얘기하시다가 웃은 거 맞지?’

‘아마 황궁에서 라이 경이 웃는 거 본 사람 아무도 없을걸? 이게 무슨 일이래.’

‘어쩜 웃으시니까 더 멋있으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

‘천하의 라이 경을 웃게 하다니. 역시 레아 황녀님은 대단하셔.’

사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걸 웃었다고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아주 살짝 입꼬리가 올라간 정도였다. 하지만 그렇게 아주 살짝 웃은 적도 없었던 라이 경이었기에 시녀들은 놀라워하고 있었고 레아 역시 라이 경의 작은 미소를 신기해하고 있었다.

“라이 경 방금 웃었어요? 우와. 저 라이 경 웃는 거 처음 본 거 같아요! 신기하다.”

“그게 그렇게 신기할 일입니까?”

“그럼요. 제가 황궁에 온 지도 벌써 5개월인데 경 웃는 건 처음 봐요. 웃을 줄도 아는구나.”

“사람이니까 당연히 웃을 줄은 압니다.”

“그럼 평소에도 좀 웃고 다녀요. 웃으니까 보기 좋잖아요.”

자고로 웃는 얼굴에는 침도 못 뱉는다는 말이 있었다. 늘 상큼하고 해맑게 웃는 아빠를 보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고개를 끄덕인 레아였다. 그리고 레아 역시 요즘은 몰라도 우나타에선 방긋방긋 잘 웃고 다니는 편이었다. 그래서 항상 무표정에 표정 변화도 거의 없는 라이 경을 볼 때마다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웃으면 더 잘생겨 보일 거 같은데. 물론 안 웃어도 조각상처럼 멋있는 라이 경이었지만 웃으면 더 좋을 거 같다고 레아는 생각했다.

‘프레디 소공자는 참 잘 웃던데. 진짜 둘이 친구라지만 너무 극과 극 아니야? 대체 어떻게 둘이 친해진 건지 진짜 의문이다. 의문.’

아무리 프레디 소공자가 17살 때까진 착했었다고 해도 두 사람은 기본적인 성향부터가 다른 거 같았다. 그런데 프레디 소공자의 유일한 동성 친구가 라이 경이라니 레아는 새삼스럽게 그게 참 신기했다. 프레디 소공자보단 차라리 형인 크라스 경과 친하다는 게 더 자연스러울 거 같았다.

“라이 경. 크라스 경과는 별로 안 친하나요? 프레디 소공자랑 같은 아카데미를 나왔으면 크라스 경이랑도 같은 아카데미 아니에요?”

“같은 아카데미 출신은 맞지만 크라스 경과는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왠지 라이 경은 프레디 소공자랑 안 친하고 크라스 경이랑 친해야 할 느낌인데 의외네요. 둘 다 황궁 기사니까 충분히 친해질 수 있었을 거 같은데.”

“물론 그렇지만 크라스 경은…….”

라이 경은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뜬금없는 걸 물어보았다.

“레아 황녀님. 전에 제가 하이모어 가문의 둘째 소공자와 가까워지시지 않는 편이 좋으실 거라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십니까?”

“네. 나중에 어차피 다음 대공이 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했잖아요.”

“확실히 나중에 대공이 되어 하이모어 가문을 이끌 사람은 크라스 경이 될 겁니다. 하지만 황녀님께선 절대 그를 곁에 두시면 안 됩니다. 어쩌면 프레디 소공자보다 더더욱.”

“어째서요? 크라스 경에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딱 한 번이지만 실제로 레아가 본 크라스 경은 딱히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다. 딱 보자마자 바람둥이가 확실하다는 인식을 심어준 동생과 달리 형인 크라스 경은 딱히 그런 느낌도 아니었다.

“크라스 경은 하이모어 대공을 아주 많이 닮았습니다.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욕망을 위해 남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흐응.”

프레디 소공자와 절대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할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다. 레아는 이건 라이 경이 진심으로 하는 충고라는 걸 눈치챌 수 있었다.

‘하지만 왜? 라이 경까지 크라스 경을 안 좋게 보고 나한테 저렇게 말한다는 건 이유가 있는 건가?’

하이모어 형제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건 들은 얘기도 있고 레아도 직접 봐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부분이었다. 특히 형인 크라스 경이 동생인 프레디 소공자를 상당히 미워하고 있다고 했었다. 그래서 레아는 가정사가 가정사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며 별로 깊게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라이 경이 저렇게 말하니 레아는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었을까 하는 느낌을 받았다. 레아가 아는 라이 경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으면 없었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누군가를 이렇게까지 싫어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았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긴 하지만…. 안 물어보는 게 예의겠지. 누군가에게는 상처일지도 모르는 얘기를 쉽게 물어보는 건 또 한 번의 상처를 주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어쩌면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착실한 모범생이었던 프레디 소공자가 갑자기 삐뚤어진 이유도 그것과 관련된 것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렇게 함부로 추측하는 것 또한 실례인 건 마찬가지인지라 레아는 그 생각도 이제 그만하기로 했다.

“레아 황녀님. 이제 곧 마차가 출발할 시간이에요.”

“아, 네. 지금 바로 내려갈게요.”

곧 앙겔루스 제국까지 타고 갈 마차가 출발한다는 시녀의 말에 레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따라 시녀들의 표정이 전부 우울했다.

“다들 표정들이 왜 그래요? 꼭 당분간 엄청 엄청 맛있는 케이크를 먹지 못하게 된 사람들처럼.”

“이제 마차를 타고 앙겔루스 제국으로 떠나시면 저희는 당분간 귀엽고 사랑스러우신 레아 황녀님을 못 뵙는다고 생각하니….”

“설마 그래서 단체로 기분이 우울한 건가요……?”

“흑 레아 황녀님이 너무 그리우면 저흰 어떡하면 좋죠?”

“……….”

설마 저 말이 진심일까 헷갈렸는데 진심으로 너무 슬픈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시녀들 때문에 레아는 할 말을 잃었다. 모두 너무 진심인 얼굴이라서 당황스러웠다.

‘아니…. 누가 보면 파티에 초대돼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안 좋은 일로 억울하게 끌려가는 줄 알겠네. 나 분명 다시 돌아올 건데.’

이건 혹시 돌아오지 말라는 뜻인가. 그렇게 레아는 우나타에서 나탈리 이모와 헤어질 때보다 더 애절하고 슬픈 시녀들의 배웅을 받을 수 있었다.

\*\*\*

“레아. 이번 파티에서도 위즈덤 부인처럼 너에게 무례하게 구는 머리가 텅텅 빈 사람이 있다면 그냥 시원하게 욕을 해버려. 아, 따귀를 때리는 것도 좋겠다.”

“……네?”

“첫 파티 때처럼 고상하게 굴 필요 없어. 상대가 누구라도 짜증 나게 굴면 다 때려 부숴 버려. 뒷수습은 아빠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앙겔루스 제국으로 향하는 마차가 출발하자마자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는 레아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 이번 파티는 각 제국의 황족들만 참석하는 파티인데 첫 파티 때보다 더 소란스럽게 굴어도 된다는 말에 레아는 자신이 잘못 들은 건가 싶었다.

이제는 집안이 쫄딱 망해 공작부인이 아니라 그냥 부인이 된 위즈덤 부인은 황족인 레아보다 계급이 낮은 상대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레아와 같은 황족들만 모이는 자리였고 만약 누군가 레아를 깔보고 무시한다면 그 상대 역시 무조건 다른 제국의 황족일 것이었다. 그런데 레아가 다른 제국의 황족에게 혀를 자르고 눈알을 뽑겠다고 협박하고 주스를 부어버린다면….

‘자칫 잘못했다간 전쟁으로까지 갈 수도 있는 일인 거 같은데 그걸 저렇게 가볍게 얘기하시다니. 그런데 이제는 저런 말을 하도 들어서 별로 놀랍지는 않네. 지극히 아빠다운 말로 받아들이고 있다니 어쩐지 좀 슬프군.’

레아는 그냥 평범하고 조용하게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는데 이제는 전혀 평범하지 않은 말들과 일들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전 그냥 조용히 평범하게 있다가 오고 싶어요. 이번 파티에서는 소란스러운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으음. 우리 딸이 그러길 원한다면 아빠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건 아마 불가능할걸?”

“그래도 제 존재가 공개된 지도 꽤 됐는데 첫 파티 때보다는 괜찮지 않을까요? 거기다 위즈덤 부인 얘기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퍼졌다고 들었는데 다른 제국 황족들 귀에도 조금은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그 일이라면 아마 다들 알고 있을 거야. 내가 모든 제국에 우리 딸 자랑을 좀 했거든.”

“그 일을…자랑하셨다고요…?”

“응. 위즈덤 부인에게 시원하게 엿을 먹이고 주스까지 부었다고. 우리 딸 너무 멋지지 않냐고 자랑했는데?”

세상에 자기 딸이 남의 머리에 주스를 부었다고 너무 멋있지 않냐며 자랑하고 다니는 아빠가 레그마인 황제 폐하 말고 또 있을까. 아무리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고 한다고는 하지만 역시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레아는 생각했다.

“…아빠 덕분에 괜히 건드리는 사람은 없을 거 같긴 하네요. 다들 그 얘기를 알고 있다면.”

“그래도 누군가 무례하게 굴면 정강이를 발로 차고 옆구리에 어퍼컷을 날려버려. 알았지?”

“상대도 다른 제국의 황족일 텐데 어떻게 그래요. 그러다 국제문제 생기면 어떡하시려고.”

“어떡하긴 뭘 어떡해. 쓸어버려야지.”

평소 저녁 식사할 때 더 먹을래? 라고 말할 때와 똑같은 표정으로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제국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고 당연히 레아는 그 말이 진심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다닐로만 제국이 다른 제국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강한 제국이라고 해도 고작 그런 이유 하나로 다른 제국을 쓸어버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다닐로만 제국의 황제이기 전에 레아의 아빠였고 제국보단 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당연히 이번에도 설마 저게 진심이겠어? 하는 것들이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진심이었다.

“농담 아니야. 내 딸을 기분 나쁘게 한다면 그 제국을 쓸어버릴 거야. 아빠는 세상에서 레아가 제일 중요해.”

“……….”

“거기다 이번 파티를 주최하고 우릴 초대한 그라티아 더 앙겔루스 황제는 내 친구잖아? 제국을 쓸어버리기 전에 두 발로 걸어서 파티장을 나가지 못하게 해버릴 수도 있겠네.”

“아빠. 부탁이니까 우리 그냥 조용히 얌전하게 있다가 와요. 네?”

“레아가 그러길 원한다면 노력은 해볼게. 근데 장담은 못 해.”

웃으면서 노력은 해보겠지만 장담은 못 한다는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말씀에 레아는 더할 말이 없었다. 더 얘기한다고 달라질 거 같지도 않고 그래도 일단은 노력해보겠다니 믿어볼 수밖에.

“근데 레아. 파티에서 황자들이 다 너 좋다고 졸졸 따라다니고 그러면 어떡하지? 갑자기 걱정이네.”

“그건 괜한 걱정이신 거 같습니다.”

“아냐. 소니아 부인이 이번 드레스는 사랑스러움 그 자체라고 했어. 안 그래도 예쁜 애가 그런 드레스까지 입으니 이 아빠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안 하셔도 될 괜한 걱정이라니까요.”

“전에도 말했지만 난 내 딸을 일찍 시집보낼 생각은 없어. 남자들이 찝쩍거리면 그냥 무시해버려.”

“아빠. 제발 좀….”

원래 세상에 모든 아빠와 딸은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건가.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는 세상의 모든 고슴도치 중에서도 왕 고슴도치가 분명하다고 생각하며 레아는 한숨을 쉬었다.

‘…설마 내 자랑을 했다고 한 것도 저런 얘기는 아니었겠지?’

만약 저런 식으로 얘기했다거나 파티장에서도 저렇게 얘기한다면 레아는 창피해서 죽어버릴지도 몰랐다. 레아는 참…어디 같이 다니기 창피한 아빠라고 생각하며 한 번 더 한숨을 쉬었다.

27.첫째 딸은 아빠 닮는다.docx

앙겔루스 제국은 다른 제국에 비해 다닐로만 제국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제국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가는 데만 꼬박 이틀이 걸리는 거리였고 그 얘긴 레아는 이틀 동안 레그마인 황제 폐하와 마차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었다.

‘폐하가 싫은 건 아니지만…아무리 아빠라고 해도 아니, 아빠라서 이틀 동안 같은 마차에 있는 건 좀 어색해. 차라리 나도 라이 경처럼 말 타고 가고 싶다.’

말을 탈 줄 아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틀이나 레그마인 황제 폐하와 단둘이 마차에 있으려니 레아는 어색하고 불편했다. 아무리 이제 아빠라고도 잘 부르고 많이 가까워졌다고 해도 아직은 완벽한 부녀 사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했다.

분명 황제 폐하께서는 마차가 답답하다고 항상 직접 말을 타고 가신다고 들어서 레아는 이번에도 당연히 아빠는 말을 타고 가시고 마차는 혼자 타고 가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같이 마차를 타고 가게 될 줄은 몰랐다는 말이었다.

“아빠. 그런데 왜 오늘은 말이 아니라 마차를 타셨나요? 원래 항상 마차는 답답하다고 직접 말을 타고 이동하신다고 들어서 이번에도 당연히 마차는 안 타실 줄 알았어요.”

“아, 내일은 말 타고 갈 거야. 마차는 오늘만.”

“왜요?”

말을 가지고 왔으면 오늘부터 타고 가도 될 거 같은데 왜 오늘은 마차를 타고 가고 내일은 말을 타고 가는 걸까. 레아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레그마인 황제는 테이블에 턱을 괸 상태에서 씩 웃으면서 말했다.

“그냥 나도 마차에 좋은 추억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좋은 추억이요?”

“응. 답답하고 쓸쓸했다는 기억만 있는 건 너무 슬프잖아.”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께도 사랑받지 못한 어린 시절의 레그마인 황제에게 늘 혼자 타는 마차는 외롭고 쓸쓸한, 답답한 공간이었다. 그랬으니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어서도 황제에게 마차는 좋은 추억 같은 거 하나도 없는 그런 곳이었다. 그 말을 들은 레아는 아까 불편하고 어색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괜히 미안해졌다. 사실 레아는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딸이 아니었다면 평생 마차를 타볼 일도 없었을 건데 말이다.

“저랑 같이 있어도 재미도 없고 특별히 좋은 추억 같은 거 못 만들어드릴 거 같은데….”

“무슨 소리야.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내 딸이랑 같이 마차를 탔다는 것만으로도 아빠한테는 너무 좋은 추억이야.”

“우와….”

“아빠한테 예쁜 추억을 만들어줘서 고마워. 레아.”

평소의 주접과 달리 다정하게 웃으면서 예쁜 추억을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말씀에 레아는 감동했다. 가만히 있기만 해도 레아가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좋은 추억이라는 말이 감동이면서 고맙기도 했다. 하지만 레아의 그런 마음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아빠인 나는 당연한 거지만 이런 생각하는 남자가 한둘이 아닐 거란 말이지. 파티에서 다른 제국 황자들이 첫눈에 반해서 데릴사위로 받아달라고 귀찮게 굴면 어떡하지? 난 우리 딸 결혼시킬 마음은 아직 없는데. 레아. 너도 분명 아직은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했지?”

“…제가 마음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저 아직 16살이잖아요.”

“무슨 소리야. 전에도 말했잖아. 내가 아리샤를 처음 만났던 게 16살 때였고 17살 때부터 사귀고 18살 때 레아 너를….”

“아빠! 생각해보니까 저 결혼이나 연애 같은 거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 같아요!”

“그래. 레아. 좋은 생각이야.”

또 출생의 비밀에 관한 얘기가 나오려고 하자 레아는 재빨리 아빠가 원하는 말로 그 말을 막아버렸다. 그러자 아빠는 만족스럽다는 듯이 웃었고 레아는 혹시 아빠가 이걸 노리고 일부러 자꾸 저 얘기를 꺼내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

\*\*\*

앙겔루스 제국으로 가는 마차 안에서 레그마인 황제와 레아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다. 이야기를 나누거나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고 경치를 구경하다 라이 경에게 들어가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나 가지고 온 책을 읽는 일이 고작이었다. 거기다 마차에 익숙하지 않은 두 사람이었기에 결국 지루함을 버티고 버티던 부녀는 동시에 까무룩 잠이 들었다.

‘많이 닮았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지만, 자는 모습까지 판박이실 줄이야. 황제 폐하와 황녀님은 잘 때가 제일 예쁘시다는 점도 닮은 걸까. 역시 유전자의 힘은 대단하군.’

어째 밖으로 고개를 내밀지도 않고 계속 조용하길래 혹시나 해서 창문을 살짝 열어봤더니 똑같은 얼굴과 똑같은 자세로 똑같이 자는 부녀의 모습에 라이 경은 조용히 창문을 닫았다. 옆에서 그 모습을 같이 보던 푸엘라 경은 신기하다는 듯 말했다.

“레아 황녀님 말이야. 정말 대단하신 거 같지 않아?”

“달리는 마차에서 저렇게 주무실 수 있다는 것 말입니까?”

“물론 그것도 신기하긴 하지만 그거 말고.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으신 거 같아. 라이 경은 모르겠어?”

“무엇을 말입니까?”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달리는 마차에서 편하게 낮잠을 주무시고 계시다고.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아.”

최근 계속 레아 황녀님의 옆에 있다 보니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보니 라이 경은 짧은 탄식을 내뱉었다.

“레아 황녀님이 황궁으로 오신 이후로 폐하께서 많이 변하셨어. 드디어 마음에 여유가 생기신 거 같달까? 역시 가족의 힘은 대단해.”

“황제 폐하께선 황녀님을 많이 아끼고 사랑하고 있으십니다.”

“하긴. 레아 황녀님처럼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이 있다면 나도 무지하게 아꼈을 거야. 아, 결혼하고 싶다!”

“아직 22살밖에 안 되셨는데 벌써 결혼하고 싶으십니까?”

초록색 머리에 밝은 호박색 눈동자를 가진 푸엘라 경은 아직 22살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이었다. 엄청난 집안의 자식이라 약혼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여자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말이 라이 경은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요즘 몸이 좀 편찮으셔서. 어머니도 자식 중에 누가 빨리 장가를 가서 아버지께 손주를 안겨드리길 바라시고. 그런데 아들만 셋인 우리 집에서 형은 성직자니까 안 되고 동생은 아직 학생인데 어쩌겠어. 제일 가능성 있는 내가 빨리 결혼하길 바라고 있으셔.”

“설마 그런 이유로 일찍 결혼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이유라니. 효도하는 거지. 아버지께서 손주 얼굴 한 번 못 보고 가버리시면 나도 후회할 거 같아서 그래. 솔직히 황녀님처럼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푸엘라 경의 딸이 예쁘고 사랑스러우려면 다른 건 몰라도 엄마를 쏙 빼닮아야겠군요.”

“이 자식이…. 원래 첫째 딸은 아빠 닮는 거 몰라? 내 딸은 날 닮아서 착하고 씩씩할 거야!”

본인이 생각해도 예쁘고 사랑스럽고 똑똑할 거란 말은 양심에 찔렸는지 착하고 씩씩할 거라고 말하고 푸엘라 경은 한숨을 쉬었다. 사실 푸엘라 경도 귀엽게 생긴 편이긴 했지만, 조각처럼 잘생긴 라이 경 옆에 있으면 오징어가 되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넌 좋겠다. 잘생겼으니까 딸 낳으면 다른 건 몰라도 예쁘긴 엄청 예쁠 거 아냐. 성격도 너 닮으면 남자들이 완전 여왕님처럼 모실 거 같은데?”

“전 건강하고 착하게만 자라주면 됩니다.”

“어쭈. 원래는 이런 얘기 하면 아직은 여자 만날 생각 없다고 딱 잘라서 말했으면서 이번에는 안 그러네?”

친한 만큼 평소 라이 경의 성격이나 화법을 잘 아는 푸엘라 경은 장난스럽게 웃었다. 이건 뭔가 있는 게 분명했다.

“이제 누굴 좀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 너도 레아 황녀님처럼 예쁜 딸이 가지고 싶어진 거지? 넌 황녀님과 종일 붙어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지.”

“……….”

“잘 생각했어. 피에르 시종장님도 이제 나이가 있으신데 너도 빨리 효도해야지.”

설마 시종장님께서 레아 황녀님을 며느릿감으로 욕심내고 있을 거라곤 꿈에도 모르고 있는 푸엘라 경은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다. 라이 경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생각했다.

‘나도 모르겠다.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한 건지.’

드디어 피에르 시종장님의 세뇌 작전이 통한 건지 라이 경은 아주 잠깐 레아 황녀님처럼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의 모습을 상상했었다. 아주 잠깐 한 상상이었지만 라이 경의 상상 속 딸은 황금빛 머리카락에 까만 눈동자를 가지고 꼭 레아 황녀님처럼 귀엽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내가 드디어 미쳤나 보군. 아버지께서 자꾸 레아 황녀님 같은 손녀를 보고 싶다고 하셔서 나도 모르게 그만….’

항상 레아 황녀님과 이루어지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으면서 감히 황녀님을 상대로 이런 상상을 하다니. 그것만으로도 왠지 죄를 짓는 기분이라 라이 경은 입술을 꾹 깨물었다. 그리고 다시는 아무리 혼자만의 상상이라도 절대 이러면 안 된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하지만 라이 경의 그런 다짐이 무색하게도 바로 다음 날 레아는 라이 경이했던 상상과 비슷한 상상을 하게 됐다.

첫날은 레아와 함께 마차를 타고 이동했던 레그마인 황제는 역시 이틀 연속으론 안 되겠다면서 말을 타고 앙겔루스 제국으로 향했고 레아는 마차 안에서 조용히 혼자 독서를 즐길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소설도 그렇고 저 소설도 그렇고…. 어쩐지 전부 배경이나 상황이 비슷한 거 같은데? 내 착각인가?’

시녀들이 마차 안에서 꼭 읽어보라고 강력추천해준 로맨스 소설들을 읽으면서 레아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확실히 시녀들의 말대로 소설은 다 재밌었지만, 희한하게 배경이나 설정이 다 비슷비슷했다.

특히 소설에 나오는 여자주인공은 모두 공주님이었고 남자주인공은 모두 무뚝뚝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거기다 남자주인공의 직업은 모두 호위기사 아니면 소드마스터였고 꽤 괜찮은 집안에 상당히 잘생겼다는 설정이었다. 처음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똑같은 설정의 책을 3권 정도 읽고 나자 레아는 시녀들의 의도를 눈치챌 수 있었다.

“여자주인공은 다 나랑 비슷하고 남자주인공은 다 라이 경이랑 비슷한 걸 보면 이건 노렸다고 할 수밖에 없겠지. 아주 대놓고 노린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대놓고 노린 걸 넘어 이건 의도마저도 뻔히 보일 정도였다. 그런데 그 뻔히 보이는 의도가 레아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내 시녀 중에서도 라이 경을 좋아하는 시녀들이 많지 않았나? 근데 왜 나한테…?’

레아는 라이 경을 남자로 생각해본 적이 없고 라이 경 역시 자신을 여자로 볼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무지무지 잘생기고 능력도 있고 집안도 괜찮은 라이 경이 뭐가 아쉬워서 사생아에 가정사도 복잡한 자신 같은 여자를 좋아하겠냔 말이었다. 그러니 레아는 자신보다는 차라리 시녀 중에 누군가와 잘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싶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정말 만약에 레아와 라이 경이 서로 좋아하는 사이가 된다고 해도 이 소설의 끝처럼 결혼에 골인해 예쁘고 귀여운 사랑스러운 딸을 낳아서 천년만년 잘 먹고 잘살 리가 없었다.

아무리 피에르 시종장님이 꼭 외할아버지처럼 자상하고 다정하게 레아에게 잘해주셔도 며느리가 되겠다고 하면 분명 난감하고 난처하실 거라고 레아는 생각했다. 피에르 시종장님은 레그마인 황제 폐하를 오랜 시간 보좌해왔는데 괜히 자식들 때문에 그사이에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 특히 아빠라면 절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고 레아는 확신할 수 있었다.

무조건 결혼까지 갈 확신이 없다면 라이 경과는 지금 이대로의 관계가 제일 좋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레아는 창문 밖으로 고개를 빼꼼 내밀었다.

“레아! 아빠 보고 싶어서 창문 연 거야?”

“고개 내미시면 안 됩니다. 레아 황녀님.”

레아가 고개를 내밀자마자 아빠는 활짝 웃으면서 말을 걸었고 라이 경은 언제나처럼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레아도 언제나처럼 그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라이 경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혼자 마차 안에 있으려니까 심심하지? 레아도 승마할 줄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마차 밖으로 고개를 내미셨다가 다치실 수도 있습니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아, 아니면 아빠 뒤에 타볼래? 그럼 적어도 답답하진 않을 거야.”

“위험합니다. 안전하게 마차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황녀님.”

“레아는 드레스를 입어서 그건 안 되려나.”

아빠와 라이 경은 각자 레아에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고 레아는 그런 두 남자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계속 라이 경만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덕분에 다른 기사들은 그 셋을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셋 중 그 누구도 그런 눈빛 따위 신경 쓰지 않았다.

특히 레아는 라이 경의 말을 원래 안 듣고 싶으면 못 들은 척 신경도 쓰지 않았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국의 황제인 레그마인 황제의 말도 무시하는 중이었다. 정말 대단한 배짱이 아닐 수 없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진짜 잘생기긴 했지. 나중에 라이 경이 누구랑 결혼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 라이 경 딸은 다닐로만 제국에서 제일 예쁜 여자로 성장할 게 분명해.’

결혼도 끼리끼리 하는 거라고 왠지 라이 경은 꼭 엄청난 미녀와 결혼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만약 라이 경이 그런 여자를 만나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의 미모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었다.

“라이 경. 경은 나중에 어떤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

“네……?”

“혹시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은 있어요? 잘생겼으니까 엄청 예쁘고 인기 많은 여자 좋아하려나.”

“……….”

물론 레아는 절대 흑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서 던진 질문이었고 별 의미 없는 단순한 질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주변에 있던 모두는 레아의 순수한 질문에 화들짝 놀랐고 그중에서도 제일 놀라고 당황스러운 건 라이 경이었다.

“그런 건 갑자기 왜….”

“그냥 라이 경은 얼굴도 엄청 예쁘고 집안도 빵빵한 조건 엄청 좋은 여자를 충분히 만날 수 있을 거 같아서요. 책 읽다가 경은 어떤 여자를 좋아할까 궁금해졌거든요.”

레아가 보기에는 예쁘고 집안도 나쁘지 않은 시녀들의 고백도 뻥뻥 차버리는 라이 경은 과연 어떤 여자를 좋아할까?

아까처럼 별 의미 없이 정말 순수하게 한 말이었지만, 레아는 그 얼굴이 엄청 예쁘고 집안도 빵빵한 여자에 자신도 포함된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다. 조건도 레아가 생각하기에는 별로인 거 같아도 피에르 시종장님이라면 쌍수 들고 환영할 것이었다.

그렇게 순수한 의도였지만 듣는 사람에겐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레아는 다시 마차 안으로 쏙 들어갔다. 덕분에 라이 경은 수십 명의 기사에게서 레아 황녀님과 도대체 무슨 사이냐는 뜻이 가득 담긴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라이 경의 바로 옆에는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살기를 내뿜고 있는 이도 있었다.

“라이 경. 레아가 왜 경에게 그런 걸 물어봤을까?”

“황제 폐하….”

“뒤지기 싫으면 솔직히 불어. 둘이 무슨 사이야?”

“……….”

아무런 사이도 아닌데 솔직히 말하면 믿어주실까. 당장이라도 누구 하나 죽이실 거 같은 눈빛인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는 절대로 라이 경의 말을 믿어주실 거 같지 않았다. 라이 경은 속으로 앙겔루스 제국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기는 틀렸다고 좌절했다.

28.동화 속 공주님과 기사님.docx

레아가 아무 생각 없이 순수하게 내뱉은 사심 없는 말로 인해 라이 경이 7번 정도 죽을 고비를 넘기고서야 마차는 앙겔루스 제국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

“우와. 예쁘다!”

앙겔루스 제국은 제국 전체가 커다란 예술작품처럼 아름다운 곳이라는 건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실제로 두 눈으로 본 앙겔루스 제국은 레아의 기대보다 더 아름답고 예뻤다. 황궁도 마치 동화책에 나오는 성처럼 신비롭고 아름다운 느낌이라 레아는 저도 모르게 감탄을 했다.

“꼭 미술작품 같지? 앙겔루스 제국의 황궁은 세상에서 가장 큰 예술품으로 불릴 정도로 외관이 훌륭한 편이야. 그만큼 유명하지.”

“꼭 동화책에 나오는 성 같아요. 신기해요!”

“좋아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 마음에 드는 모양이네. 그라티아 황제가 들으면 좋아하겠어.”

“다닐로만 제국의 황궁도 아름답지만, 앙겔루스 제국의 황궁은 뭔가 신비로운 느낌이에요.”

“확실히 다닐로만 제국의 황실 정원도 앙겔루스 제국의 황궁만큼 아름답기로 유명하긴 하지.”

앙겔루스 제국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마차에 탄 레그마인 황제 폐하와 레아는 앙겔루스 제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황궁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레그마인 황제는 꼭 동화처럼 예쁘다고 감탄하는 레아를 보며 귀엽다는 듯 웃었지만, 사실 레아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저 황궁에는 과연 돈을 얼마나 쏟아부었을까. 아마 내가 상상도 못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쏟아붓고 그보다 더한 돈으로 유지하고 있는 거겠지. 정말 예쁘긴 하지만 역시 너무 사치스러워. 돈 아깝다.’

요즘 황궁에서 황녀로 사는 데 익숙해져서 이런 생각하는 건 좀 오랜만인 거 같았다. 처음 다닐로만 제국의 황궁에 반강제로 끌려갔을 때 느꼈던 참 부담스럽고 사치스럽단 느낌보다는 덜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비슷한 느낌이긴 했다.

“레아. 아무래도 곧 내리라고 할 거 같은데?”

“아, 네!”

“긴장하지 않아도 돼. 그라티아 황제는 착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고 아니고를 떠나 태어나서 처음 다른 제국의 황제를, 그것도 황녀라는 신분으로 만나는 건데 오히려 하나도 긴장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옆에 아빠가 있어서 레아는 조금 편한 마음이기는 했다.

곧 아빠의 말씀대로 도착한 건지 마차가 멈췄고 문이 열리자 아빠는 먼저 마차에서 내리셨다. 바로 뒤따라 레아도 라이 경의 손을 잡고 마차에서 내리려고 했다. 그런데….

“………?”

자연스럽게 라이 경의 손을 잡으려는데 아빠는 불쑥 레아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레아가 얼굴에 물음표를 띄우자 활짝 웃는 얼굴로 말씀하셨다.

“레아. 네가 더 좋아하는 사람 손을 잡고 내려오도록 해.”

“네…?”

“아빠야 라이 경이야. 선택해.”

“……….”

둘 중에 더 좋은 사람을 고르라는 아빠의 유치찬란한 말에 레아는 할 말이 없었다. 라이 경의 표정을 보니 아마 레아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우리 아빠지만…참 유치하다.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걸까.’

레아는 자신도 자신이지만 라이 경도 참 고생이 많다고 조용히 속으로 그를 동정했다. 본인이 의도치 않게 라이 경의 목숨을 위험할 뻔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레아는 아빠의 손을 잡고 마차에서 내려왔고 딸이 자신을 선택해주자 아빠는 은근히 기쁜듯했다.

‘어차피 처음부터 답은 정해져 있었으면서.’

‘설마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 저런 면이 있으셨을 줄이야.’

‘만약 레아 황녀님께서 라이 경의 손을 잡으셨다면 라이 경은 손모가지가 날아갔겠지. 불쌍한 라이 경.’

‘가만 보면 레아 황녀님도 참 피곤하시겠어.’

레아와 라이 경뿐만 아니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었지만, 그 누구도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웃으며 레그마인 황제에게 그 누구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말을 대신해 주었다.

“유치하긴. 많이 아낀다고는 들었지만, 이 정도일 거라곤 상상도 못 했어. 레그마인 황제.”

“우리 레아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라티아 황제.”

“뭐야. 완전 딸바보 다 됐잖아!”

구릿빛 피부에 밝은 민트색 머리를 대충 하나로 묶은 그라티아 황제는 레그마인 황제의 뻔뻔한 말에 큰 소리로 웃었다. 설마 천하의 레그마인 황제가 이런 말을 할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실제로 그 말을 듣게 되니 너무 웃겼다.

“근데 신기할 정도로 너랑 똑 닮았네? 어디 가서 아빠 잃어버릴 일은 없겠어. 모르는 사람이 봐도 다닐로만 제국의 황녀라는 건 바로 알아보겠다.”

“그렇지? 내 딸 예쁘지?”

“아직 예쁘다고는 안 했어.”

“세상에서 레아보다 더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우면서 깜찍한 사람은 없을 거야.”

앙겔루스 제국에 이제 막 도착했는데 레아는 지금 이 순간 다시 다닐로만 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졌다. 아니, 아무리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이라고 해도 어쩜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지?

평소 저녁 식사 때마다 거의 찬양에 가까운 칭찬을 퍼붓는 건 이제 아, 우리 아빠 또 시작이구나 하고 넘어간다고 해도 그라티아 황제 폐하 앞에서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아빠가 창피해서 레아는 죽을 것만 같았다. 너무 싫은데 차마 싫다고 대놓고 말할 수는 없어서 그냥 이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어 하는 레아의 모습이 웃겼는지 그라티아 황제 폐하께서는 피식 웃으셨다. 그 웃음에 레아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그라티아 황제 폐하께 인사를 드렸다.

“앙겔루스 제국의 그라티아 황제 폐하를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다닐로만 제국에서 온 레아 더 다닐로만이라고 합니다.”

“응. 만나서 반가워.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우면서 깜찍한 레아 황녀.”

“……….”

“하하. 표정 봐. 귀여워!”

싱긋 웃으면서 초면부터 자신을 놀리는 그라티아 황제 폐하를 보며 레아는 단번에 왜 이 사람이 아빠와 친구라는 건지 알게 되었다. 저 놀리는 목소리며 활짝 웃는 얼굴이 아빠와 묘하게 닮아 있었다.

‘역시 끼리끼리 논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어. 라이 경이랑 프레디 소공자 쪽이 특이한 거라고.’

진짜 라이 경은 그런 안 좋은 사람이랑 왜 친구라는 걸까. 아주 잠깐 그런 생각을 한 레아는 혹시 거기는 키 크고 잘생긴 사람들이 끼리끼리 노는 건가 하는 생각도 했다. 프레디 소공자도 일단 생긴 건 멀쩡하게 잘 생겼으니 말이다. 레아가 잠시 딴생각을 하는 사이 레그마인 황제는 살짝 얼굴을 찌푸리고 그라티아 황제에게 말했다.

“내 딸 괴롭히지 마라. 기분 나쁘니까.”

“자기는 아까 나보다 더 심각한 주접을 하지 않았나? 네가 뭐라고 할 처지는 아닌 거 같은데.”

“아빠랑 오늘 처음 본 아저씨랑 같냐? 그리고 난 괴롭힌 게 아니라 진심이었다고.”

“그래. 넌 진심이고 레아 황녀는 괴롭힘이었겠지. 내 말 맞지? 레아 황녀.”

“레아. 정말이야?”

아빠가 바로 옆에 있는데 이걸 솔직하게 말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자신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두 황제 폐하를 보며 레아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웃었다. 그런 레아를 보며 그라티아 황제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 후 말했다.

“뭐, 어쨌든 앙겔루스 제국에 온걸 환영해. 있는 동안은 부디 편히 쉬다가 가길 바라.”

그렇게 말하며 그라티아 황제 폐하께서는 편안하게 웃으셨고 아빠 역시 똑같이 미소 지으셨다. 레아는 어찌어찌 첫 관문은 잘 끝난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안도했다.

\*\*\*

그라티아 황제 폐하와의 첫 만남이 끝나고 시녀가 안내해주는 방으로 간 레아는 바로 침대에 늘어졌다. 이틀 동안 마차를 타고 이동한지라 현재 레아는 꽤 피곤한 상태였다.

‘씻어야 하는데…피곤해서 꼼짝도 하기 싫다. 잠깐만 쉬었다가 목욕준비 해달라고해야지.’

피곤해서 침대에 눕긴 했지만, 달리는 마차에서 실컷 자서 잠이 오지는 않았다. 레아는 가만히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아무런 생각 없이 멍하니 있었다. 아빠를 만나고 황녀가 된 이후로 이렇게 완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건 또 처음이었다.

항상 레아의 옆에는 라이 경이 있었고 가끔 라이 경이 없을 때도 시녀들이나 가스파르 재상, 소니아 부인이 레아의 옆에 있었다. 그러니 레아는 잠을 잘 때를 제외하면 늘 누군가와 같이 있는 것이었다.

‘물론 지금도 방 밖에서 시녀들이 대기하고 있고 오른쪽 옆방에는 라이 경, 왼쪽 옆방에는 아빠가 있지만 그래도 혼자 이렇게 조용히 있어 보는 건 진짜 오랜만이네.’

째깍째깍 시계 침 소리만이 가득하고 다른 소리는 물론이고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는 이 분위기. 바스락거리는 작은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이 분위기가 레아는 마음에 들었다.

‘평소에 시끌시끌하고 바쁜 일상이 싫은 건 아니지만…가끔은 이런 휴식도 필요한 법이니까.’

시녀들은 레아가 부르지 않는 이상 이유 없이 레아를 찾지 않을 것이었고 그건 라이 경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아빠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할 이야기가 많다고 하셨고 이제 저녁을 먹을 시간까지 레아를 찾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었다. 좀 더 이 조용한 시간을 즐기고 싶다고 생각하며 레아는 눈을 감았지만, 눈을 감은지 5초 만에 레아는 다시 눈을 뜨게 되었다.

똑똑똑.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고 그 소리에 레아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누구세요?”

“……….”

누구냐고 물어도 답은 돌아오지 않았고 3초 후 다시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역시 이번에도 누구냐고 물어도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답이 없는 걸 보니 라이 경이나 아빠는 아닌 거 같은데. 누군가 방을 착각한 건가?’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레아는 침대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어보았다. 하지만 처음 문을 딱 열었을 때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그대로 고개를 아래로 내린 레아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귀, 귀엽다! 엄청나게 귀여워!’

이제 겨우 5살 정도로 돼 보이는 민트색 머리와 민트색 눈동자를 가진 꼬마 둘이 손을 꼭 잡고 자신의 올려다보는 모습에 레아는 입을 틀어막았다. 그러지 않으면 너무 귀엽다고 소리를 지를 정도로 꼬맹이들은 너무 귀여웠다!

또래 친구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에 대한, 특히 귀여운 아이에 대한 면역이 없는 레아에게 이런 깜찍한 꼬맹이들의 깜짝 방문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레아가 아무것도 못 하는 사이 그 두 꼬마는 자신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 누나가 공주님이야?”

“응. 이 누나가 공주님이야.”

“공주님을 괴롭히는 용은 어디 있어?”

“공주님을 괴롭히는 용이 없어!”

“누가 우리보다 먼저 용을 무찌르고 공주님을 구했나 봐!”

“원래 공주님을 구하는 건 왕자님이 하는 일인데?”

“그러고 보니 엄마가 누나를 지켜주는 기사님도 같이 왔다고 했어.”

“그럼 그 기사님이 나쁜 용을 무찌른 거구나!”

꼬맹이들 덕에 얼떨결에 동화 속 공주님이 돼버린 레아는 무릎을 구부리고 자세를 낮춰 꼬맹이들과 시선을 맞췄다. 그러자 꼬맹이들도 레아를 빤히 바라보았다.

‘밝은 민트색 눈동자에 민트색 머리카락이면 애들이 그라티아 황제 폐하의 쌍둥이 아들인가? 근데 볼살 진짜 말랑말랑해 보인다. 한번 찔러보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겠지?’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해도 함부로 볼을 찌를 수는 없었다. 하지만 부드럽고 말랑말랑해 보이는 통통한 볼살은 계속 레아를 유혹하고 있었다.

“누나, 누나. 누나는 공주님 맞죠?”

“응? 응. 나는 다닐로만 제국의 황녀야.”

“그럼 멋있는 기사님은 어디 있어요?”

“멋있는 기사님?”

“응. 언제 어디서나 누나를 지켜주고 나쁜 용을 무찌른 무지무지 멋있는 기사님! 그 기사님 어디 있어요?”

귀여운 쌍둥이의 말에 레아는 자연스럽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어쩐지 보고만 있어도 힐링이 되는 것 같은 귀여운 꼬맹이들이었다.

“나쁜 용을 무찌른 적은 없지만, 누나를 지켜주는 멋진 기사님은 저 방에서 쉬고 있어. 여기까지 온다고 많이 피곤한 거 같더라고.”

“기사님이 저 방에?”

“응. 내 호위기사인 라이 경은 지금 저 방에 있어.”

레아가 오른쪽 방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쌍둥이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한번 끄덕이곤 갑자기 후다닥 라이 경의 방문 앞으로 뛰어갔다. 그리고 아까와 레아를 불러냈던 것처럼 똑똑똑 문을 두드렸다. 그 모습에 깜짝 놀란 레아는 아이들을 말리기 시작했다.

“애들아. 그러면 안 돼!”

“왜요?”

“라이 경은 지금 많이 피곤할 거야. 쉬어야 할 시간이라서 귀찮게 굴면 안 돼.”

“하지만 우리는 공주님을 지키는 기사님을 만나고 싶어요!”

“파티에 라이 경도 참석하니까 그때 만나볼 수 있을 거야.”

“안 돼요. 파티 때는 기사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서 우리랑 얘기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아, 그런가…?”

확실히 라이 경은 인기가 많았고 첫 파티 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를 일이었다. 레아가 잠시 머뭇거리자 쌍둥이는 다시 방문을 똑똑 두드렸다.

‘안 되겠다. 아예 애들 신경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겠어!’

피곤한 라이 경을 여기서 더 피곤하게 만들면 안 될 것 같아서 결국, 레아는 쌍둥이의 관심을 끌만 한 미끼를 하나 던졌다.

“애들아. 혹시 케이크 좋아하니?”

뜬금없이 케이크를 좋아하냐는 레아의 말에 쌍둥이는 초롱초롱 빛나는 눈으로 레아를 바라보았다. 자고로 케이크를 싫어하는 아이는 없다고 생각하며 레아는 상냥한 목소리로 꼬맹이들을 꾀기 시작했다.

“너희 케이크 한 번도 만들어본 적 없지? 누나가 케이크 엄청 잘 만드는데 누나랑 같이 케이크 만들어볼래?”

“우리가 직접?”

“응. 직접 만들고 케이크 위에 원하는 글씨도 써줄게.”

“그런 걸 할 수 있어?”

“말했잖아. 누나 케이크 잘 만든다고.”

우나타에서 빵을 구웠던 경험이 이렇게 쓰이게 될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케이크를 구울 줄 알아서 레아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케이크 만들어보고 싶어요! 가르쳐주세요!”

“나도! 나는 치즈케이크 만들 거예요!”

“나는 초코케이크에 딸기 엄청 많이!”

“그래. 너희 원하는 케이크 다 만들어 줄 테니까 2시간 후에….”

일단 시녀들에게 미리 재료를 준비해달라고 말을 해두고 목욕을 한 후에 이 귀여운 쌍둥이와 케이크를 구울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라이 경의 방문이 벌컥 열렸고 레아와 쌍둥이는 자연스럽게 그쪽을 바라보았다. 당연한 말이지만 방문을 연 사람은 라이 경이었다.

“레아 황녀님?”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까만 머리카락에 당황스러움이 묻어있는 까만 눈동자로 레아와 쌍둥이를 내려다보는 라이 경은 방금 샤워를 마친 건지 얇아서 탄탄한 근육이 아주 잘 드러나는 샤워가운만 입은 상태였다. 상상치도 못했던 모습에 레아는 황급히 손으로 얼굴 전체를 가렸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다.

“우와. 누나를 지켜주는 멋진 기사님이다!”

“기사님! 기사님도 우리랑 같이 케이크 만들어요!”

그리고 이 와중에 쌍둥이는 원망스러울 정도로 해맑았다.

29.나이가 깡패다.docx

밤하늘처럼 새카만 머리카락에서 떨어지는 물방울과 코끝으로 느껴지는 은은한 비누 향기. 그리고 얇은 샤워가운 사이로 보이는 훈련으로 다져진 탄탄한 근육까지.

대체 눈을 어디 둬야 할지 알 수 없어서 레아는 두 손으로 얼굴 전체를 가리고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절대 자신이 문을 두드린 게 아니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도저히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다. 그렇게 레아는 아무런 말도 못 하고 얼굴을 가린 채로 가만히 있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거 같았다.

‘어떡해. 난 몰라. 망했어!’

누가 문을 두드린 건 줄 알고 저렇게 헐벗은 몸으로 문을 연 거야! 자꾸만 얇은 샤워가운 사이로 보이던 라이 경의 탄탄한 근육이 떠올라서 레아는 점점 얼굴이 빨개졌다. 그래도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라이 경은 모를 것이니 그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레아는 생각했다. 그런 레아를 보며 라이 경은 조용히 생각했다. 그리고 레아를 보며 라이 경은 조용히 생각했다.

‘레아 황녀님. 귀까지 새빨개지셨군. 부끄러워하고 있으신 거 같은데 그냥 모르는 척해드리는 게 좋겠지.’

가려지지 않은 두 귀가 곧 터질 것처럼 새빨개져 있었지만, 부끄러워 죽으려고 하는 레아 황녀님을 위해 라이 경은 그냥 모르는 척해드리기로 했다.

사실 레아 황녀님과 달리 라이 경은 이 상황을 별로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황녀님이 일부러 보고 싶어서 노리고 문을 두드린 것도 아니고 방문을 두드린 건 앙겔루스 제국의 귀여운 쌍둥이 황자님들이란 건 라이 경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샤워가운을 입고 있어 어차피 상체만 조금 보이는 거라 라이 경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황궁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훈련할 때 일부러 찾아와서 구경하고 가는 시녀들도 수두룩한데 이 정도면 라이 경에겐 애교 수준이었다. 오히려 라이 경은 지나치게 부끄러워하는 레아 황녀님의 모습이 새롭고 신선하다고 생각했다.

‘이럴 때면 레아 황녀님도 평범한 16살 소녀시구나. 평소에 당찬 모습만 본다면 눈 하나 깜박 안 하실 거 같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홀딱 벗고 달려들어도 눈 버렸다면서 정색하고 꿈쩍도 안 할 분이시라고 생각했다. 근데 겨우 이 정도 노출에 빨개지셔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순진한 모습이 라이 경은 좀 귀여우신 것 같다고 생각했다.

“공주님이 갑자기 얼굴 가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기사님 때문인가?”

“하지만 기사님은 공주님을 구해주는 사람이잖아.”

“그럼 이 까만 형은 기사가 아닌 거야? 공주님이 이상해졌어.”

“공주님을 이상하게 만드는 건 나쁜 용이나 마녀야!”

“하지만 이 까만 형은 남자 사람인데?”

“진짜 공주님의 기사님인가? 아닌가?”

문을 두드려서 라이 경을 부른 장본인인 쌍둥이는 상황파악이 잘 안 되는지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다. 그리고는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라이 경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까만 형. 형은 공주님을 괴롭히는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면 공주님을 지켜주는 착한 사람이에요?”

“만약 나쁜 사람이면 우리가 공주님을 지켜줄 거예요!”

라이 경은 레아 황녀님을 괴롭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지만, 만약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씨알도 안 먹힐 귀여운 협박이었다. 라이 경은 얼굴에 힘을 주고 화내는 얼굴을 해도 그저 귀여운 꼬맹이들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날 기억 못 하시는 건가.”

2년 전에 딱 한 번 만났으니 지금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긴 했다. 근데 그건 그렇고 까만 형이라니. 거기다 공주님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라이 경은 평소 레아 황녀님께 괴롭힘을 당하는 쪽이었다.

‘당장 앙겔루스 제국으로 오는 길에만 내가 레아 황녀님 때문에 몇 번을 죽을 뻔했는데. 하지만 그 얘기를 아직 어리신 황자님들께 말해드리면 안 되겠지. 조금만 더 크시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시겠지만.’

레그마인 황제 폐하와 쌍둥이 황자님들의 친부이신 그라티아 황제 폐하께서는 꽤 친한 사이셨다. 아마 조금만 더 크면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레아 황녀님을 얼마나 끔찍하게 아끼시는지 알게 되실 것이었고 라이 경의 근무환경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 이해하게 되시는 날이 올 것이었다. 비록 지금은 그걸 알아주는 이가 한 명도 없었지만 말이다.

“전 황녀님을 괴롭히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레아 황녀님의 호위기사 라이 므라드입니다. 레아 황녀님은 갑자기 놀라신 것뿐이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라이 경의 말에 쌍둥이는 커다란 눈을 깜박이며 레아를 바라보았다. 레아는 이제 좀 진정이 된 건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맞아. 그냥 조금…은 아니고 많이 놀라고 당황해서 그랬어. 이제 괜찮아.”

“누나 놀랐어요?”

“왜 놀랐어요?”

“어…라이 경이 갑자기 문을 열고 나와서?”

사실 갑자기 문을 열고 나와서가 아니라 얇은 샤워가운 사이로 비치는 라이 경의 잔뜩 화가 난 근육 때문에 놀랐던 것이지만 그걸 곧이곧대로 말할 순 없었다. 여전히 약간 빨간 레아의 얼굴을 보며 쌍둥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다.

“근데 누나 우리가 방문 앞에 있었을 때는 안 놀랐잖아.”

“맞아. 우리 보고 엄청 예쁘게 웃어줬어.”

“근데 저 까만 형 보고는 엄청 깜짝 놀랐잖아.”

“맞아. 얼굴 가리고 아무 말도 못 할 정도로 깜짝 놀랐어.”

“까만 형은 누나를 지켜주는 기사님인데 왜 놀라?”

“음. 누나는…누나는….”

쌍둥이 황자님들은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레아가 라이 경을 보고 깜짝 놀랄 만한 이유를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했다. 레아는 이 순수하고 귀여운 황자님들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하나 곤란해하고 하고 있는데 그때 쌍둥이 황자님들 중 한 명이 밝은 얼굴로 손뼉을 짝! 치며 말했다.

“알았다! 누나가 까만 형을 보고 왜 놀랐는지 이제 알았어!”

“왜? 누나가 왜 까만 형을 보고 깜짝 놀란 건데?”

“그거는 까만 형이 너무 잘생겨서 그래!”

“잘생긴 사람을 보면 깜짝 놀라는 거구나!”

“우리도 누나가 엄청 예뻐서 놀랐잖아. 누나도 까만 형이 너무너무 잘생겨서 놀란 거야. 누나. 그렇죠?”

갑자기 질문의 화살이 자신에게로 돌아오자 레아는 그렇다고 대답해야 할지 아니라고 대답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다. 사실 잘생긴 라이 경 얼굴은 매일 보는 얼굴이기에 레아가 놀랄 것도 없긴 했지만, 괜히 여기서 아니라고 하면 쌍둥이는 레아가 놀란 진짜 이유를 물어볼 게 뻔했다.

‘그냥 그렇다고 하자. 솔직히 라이 경이 잘생긴 것도 사실이고 잘생긴 거 보고 놀란 건 사실이잖아? 잘생긴 얼굴 아니고 잘생긴 몸 보고….’

그러니까 어린 애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었다. 레아는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한 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너무 잘생겨서 놀란 거야.”

“역시 그랬구나. 누나가 보기에도 까만 형이 잘생겼어요?”

“응? 응. 잘생기긴 했지.”

“그럼 까만 형은 잘생겨서 공주님을 지키는 기사님이 된 거예요?”

“아니. 라이 경은 잘생기기도 했지만, 그걸로는 황궁 기사가 될 수 없어. 아무리 잘생겼어도 기사는 누군가를 지킬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아주 강해야지 할 수 있는 거야.”

단순히 얼굴만 잘생겨도 기사가 될 수 있는 거라면 라이 경은 세계 최고의 기사였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 바람둥이 날라리 소공자인 프레디 소공자도 엄청난 기사가 됐을 것이었다.

“그럼, 그럼 까만 형은 얼마나 강해요?”

“라이 경? 글쎄.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공주님을 지켜주는 기사님이니까 나쁜 용을 물리칠 정도로 강해야 해요. 책에서 읽었어요.”

“으음. 나도 라이 경의 실력은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다닐로만 제국에 최연소 소드마스터니까 용을 무찌를 정도로 아주 강하지 않을까?”

“소드마스터?”

“소드마스터는 아주 아주 강한 사람에게만 내려주는 칭호야.”

“그럼 까만 형은 아주 아주 강한 사람이구나!”

황녀님이 라이 경이라고 부르시는 걸 듣고도 계속 자신을 까만 형이라고 부르는 쌍둥이 황자님들과 또 그걸 듣고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레아 황녀님을 보며 라이 경은 셋에게 잊힌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분명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와봤는데 라이 경은 가만히 있고 셋이서만 얘기하면 뭘 어쩌라는 걸까. 그렇다고 상대가 황녀님과 황자님들인데 라이 경은 이대로 조용히 문을 닫아버릴 수도 없었다.

그때 쌍둥이 황자님들은 동시에 레아의 드레스 자락을 잡으며 물었다.

“누나. 우리 케이크 만들러 안 가요?”

“아, 맞다. 케이크.”

“우리 까만 형이랑 케이크 만들기 같이해요!”

“라이 경도?”

라이 경을 귀찮게 하지 않으려고 케이크로 쌍둥이를 꾄 건데 라이 경도 같이 가자고 하면 의미가 없었다. 레아는 이미 라이 경을 귀찮게 만들었지만, 케이크까지 만들러 가자고 말할 수는 없었다.

“애들아. 라이 경은 많이 피곤해서 귀찮게 굴면 안 된다고 했잖아. 케이크는 우리끼리 만들러 가자.”

“하지만 까만 형이랑 같이 가고 싶은데….”

“까만 형. 많이 피곤해요?”

꼭 라이 경과 같이 가고 싶은 건지 쌍둥이는 미련이 가득 담긴 눈으로 라이 경을 빤히 바라보았다.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레아는 저런 귀엽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애절하게 바라보는데 절대 거절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라이 경은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피곤합니다.”

“히잉.”

어쩜 이리도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이들이 같이 케이크를 만들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걸 단칼에 거절할 수가 있지? 방금까지 라이 경은 피곤해서 안 된다고 말했던 레아였지만 귀여운 쌍둥이가 속상해하고 아쉬워하자 마음이 아픈 건 어쩔 수 없었다. 레아는 서운해하는 쌍둥이를 대신해 라이 경을 찌릿 노려보았고 그런 레아의 눈빛에 라이 경은 움찔했다.

레아 황녀님이 이렇게 누군가를 대놓고 노려보는 건 처음이라서 라이 경은 어쩐지 큰 잘못을 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황자님들께서 제가 동행하길 원하신다면 같이 케이크를 만들러 가겠습니다.”

“야호! 까만 형도 같이 간다!”

라이 경이 같이 가겠다고 하니 당연히 쌍둥이는 무척 기뻐했고 기뻐하는 쌍둥이를 보며 레아는 흐뭇하게 웃었다. 그리고 그런 레아를 보며 라이 경은 속으로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럼 우리 이제 바로 케이크 만들러 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은 안돼.”

“에? 어째서요?”

“그야 케이크를 만들려면 우선 주방을 써도 되는지도 물어봐야 하고 재료도 준비해달라고 해야지. 그리고 나도 목욕해야 해.”

원래 조금만 쉬다가 씻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쌍둥이가 찾아와서 레아는 아직 씻지 못한 상태였다.

“그럼 우리는 그동안 뭐해요?”

“준비가 끝나면 부를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거짓말! 기다리라고 하고 안 부르려고 그러는 거 다 알아요!”

“아니야. 내가 왜 너희 같은 어린애들한테 거짓말을 하겠어. 준비가 다 되면 꼭 부를게.”

“하지만 아빠도 항상 그렇게 말하고 약속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라티아 황제 폐하께선 그러셨을진 몰라도 난 약속은 무조건 지킬게. 손가락 걸고 약속해.”

결국, 레아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하고 엄지손가락으로 도장까지 찍어주자 쌍둥이는 레아를 믿어주었다. 이제 대충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 레아는 안심했지만, 쌍둥이는 해맑게 웃으며 밝은 목소리로 레아의 그 생각을 배신했다.

“그럼 누나가 불러줄 때까지 우리는 까만 형 방에서 기다릴게요! 우리 꼭 부르러 와야 해요. 누나!”

“어?”

“까만 형은 다 씻었으니까 우리 놀아주세요! 누나도 목욕 다 하고 우리랑 놀아요!”

“어, 어?”

“까만 형. 우리 아빠랑 형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우리 아빠도 무지 강한데 형이 더 강해요?”

“애, 애들아. 잠깐만!”

레아는 당황해서 쌍둥이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쌍둥이는 레아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라이 경의 손을 잡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레아는 이 모든 상황이 당황스러워서 굳게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황녀가 된 이후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무시 받아보는 건 또 처음이었다. 쌍둥이는 귀엽고 사랑스럽지만…어리다는 게 이렇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레아는 오늘 처음 알게 되었다.

‘그런데 라이 경…. 괜찮을까…?’

한 명도 아니고 쌍둥이를 과연 잘 볼 수 있을지 레아는 좀 걱정이었다. 아무리 다닐로만 제국의 최연소 소드마스터인 라이 경이라도 저 귀엽고 사랑스러운 악동들 앞에서는 그 강한 힘도 다 무용지물일 것이었다. 거기다 저 쌍둥이는 앙겔루스 제국의 황자님들이었다.

“라이 경. 파이팅….”

레아는 라이 경이 꽤 고생하겠다고 생각하며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일단은 빨리 목욕을 하고 쌍둥이를 부르러 가는 게 라이 경을 도와주는 일인 것 같았다.

\*\*\*

방으로 돌아와서 레아는 바로 시녀들에게 목욕 준비를 부탁했고 주방을 좀 쓸 수 있을지 물어봐달라고도 부탁했다. 그리고 시녀들이 목욕 준비를 마치자마자 레아는 바로 따듯한 물이 담긴 욕조 안으로 들어갔다.

“라이 경은 과연 쌍둥이랑 잘 놀아주고 있을까. 좀 걱정이네.”

평소 말을 살갑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미가 있는 편도 아니라서 레아는 과연 라이 경이 애들을 울리지나 않을까 하고 좀 걱정이 되었다. 아까 잠깐 봐도 쌍둥이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들인 거 같은데 혹시나 라이 경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얼굴이라도 찌푸리면 쌍둥이는 분명 겁을 먹을 것이었다.

아무리 앙겔루스 제국의 황자님들이라고 해도 쌍둥이는 아직 어린 애들이었다. 라이 경이 무섭고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차갑고 날카롭게 생긴 건 사실이었기에 레아는 그게 또 걱정이었다.

‘제발 내가 갈 때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길. 혹시라도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부디 내 선에서 수습이 가능한 일이길.’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닐로만 제국을 떠나서 다른 제국에 온 것이고 초대받고 나름대로 쉬려고 온 것이니 레아는 이번만큼은 아무 사건 사고 없이 조용히 넘어가길 간절히 기도했다. 라이 경이 다정하게 쌍둥이와 놀아주고 잘 맞춰주는 건 바라지도 않으니 울리지만 않길 바랄 뿐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며 레아는 서둘러 몸을 씻고 목욕을 일찍 끝냈다. 하지만 목욕을 일찍 끝내도 레아는 머리도 말리고 드레스도 갈아입고 해야 할 일이 많았기에 약간은 초조한 마음이 들었다.

30.나도 좋아해.docx

“까만 형. 나 궁금한 거 있어요.”

“…라이 므라드입니다. 라이 경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까만 경!”

“……….”

형이든 경이든 황자님들은 라이 경의 이름을 불러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라이 경은 어린 황자님들이시니 그냥 넘어가자는 마음으로 호칭은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까만 경이 이름 알려줬잖아. 누가 이름을 알려주면 우리도 이름을 알려줘야 한다고 아빠가 그랬어.”

“맞아. 엄마도 인사 똑바로 하고 다녀야 한다고 했어.”

이미 인사를 할 타이밍은 한참 지난 거 같지만 쌍둥이 형제는 씩씩한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했다.

“앙겔루스 제국의 1황자 크레 더 앙겔루스라고 합니다!”

“저는 앙겔루스 제국의 2황자 트레 더 앙겔루스라고 합니다!”

“다닐로만 제국에서 온 라이 므라드라고 합니다. 앙겔루스 제국의 황자님들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쌍둥이 황자님들이 정식으로 인사를 했으니 라이 경도 다시 한번 예의를 갖춰 인사를 했다. 그런데 라이 경의 인사가 끝나자마자 황자님들은 두 눈을 초롱초롱 빛냈다.

“까망 경 멋있어요! 꼭 동화책에 나오는 기사님 같아요!”

“저는 다닐로만 제국의 황궁 기사가 맞습니다.”

“까만 경은 무지 강하다고 했죠? 그래서 공주님을 지켜주는 기사님이 된 거라고 했죠?”

“원래는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기사였습니다만 레아 황녀님이 황궁으로 오신 후로 황녀님의 호위를 맡게 되었습니다.”

“………?”

쌍둥이 황자님들의 질문에 라이 경은 있는 그대로 말했고 황자님들은 정확하게 다 이해하진 못해도 적어도 라이 경이 공주님을 지키는 기사님이며 무지 강하다는 건 알아들은 것 같았다. 쌍둥이는 아까보다 더 반짝반짝해진 눈으로 라이 경을 바라보았다.

“그럼 까만 경은 나쁜 용을 무찌르고 공주님을 구해온 거예요?”

“현실에서 공주님을 납치해가는 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런 용이 있다고 해도 레아 황녀님은 그리 순순히 끌려가지 않으실 겁니다.”

“나쁜 용이 아니면 공주님을 괴롭히는 마녀를 혼내줬어요?”

“실제로 마녀는 아니었지만, 레아 황녀님을 괴롭히려고 했던 부인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니라 레아 황녀님과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직접 지독하게 복수하셨습니다.”

라이 경의 말을 듣고 쌍둥이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라이 경이 해주는 말에 의하면 라이 경은 레아 황녀님을 구해준 적이 없었고 위험이나 위기는 언제나 황녀님 스스로 돌파했다는 것처럼 들렸다. 실제로 그게 사실이긴 했지만, 쌍둥이가 읽은 동화책과는 좀 달랐다. 공주님은 항상 멋진 왕자님이나 잘생긴 기사님이 구해주는 건데 레아 황녀님은 왕자님이나 기사님 없이 스스로 자신을 구한다는 게 아직 어린 쌍둥이 황자님들은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까만 경은 왜 누나를 안 구해줬어요? 누나는 공주님이고 까만 경은 공주님을 구하는 기사님이잖아요!”

“맞아요. 강하고 멋진 기사님은 아름답고 연약한 공주님을 구해줘야 해요! 까만 경은 강하고 멋진 기사님이잖아요.”

확실히 라이 경은 강했고 레아 황녀님의 호위기사이니 황녀님을 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아직 레아 황녀님께는 라이 경이 나설 만큼 위험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무엇보다 라이 경이 지켜야 하는 공주님인 레아 황녀님은 아름다운 사람은 맞았지만, 연약한 사람은 아니었다.

“물론 레아 황녀님께 위험한 일이 생긴다면 전 황녀님의 기사로서 목숨 걸고 황녀님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레아 황녀님은 연약하신 분이 아니라 강단 있고 씩씩하신 분입니다. 굳이 제가 구해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을 지킬 줄 아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황궁에 처음 들어왔을 때 사생아에 평민 출신이란 이유로 레아 황녀님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가스파르 재상에게 황녀님은 기가 죽기는커녕 재상을 엿 먹이려고 하셨었다. 그리고 첫 파티 때 무례함의 끝을 보여준 위즈덤 부인에게도 제대로 된 복수를 해주었다. 그런 레아 황녀님이기에 라이 경은 레아 황녀님을 믿었다. 세상에 그런 공주님이 있다는 사실에 쌍둥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고 그런 황자님들께 라이 경은 이런 말을 해주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하고 누군가가 구해주길 기다리고만 있는 공주님보단 스스로 강해져서 자신을 구할 줄 아는 공주님이 더 멋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레아 황녀님께선 그런 멋진 공주님이십니다.”

“그럼 누나는 강한 사람이에요? 까만 경보다 더?”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 훨씬 강하고 씩씩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강단이 있으신 분이니까요.”

누가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친딸 아니랄까 봐 레아 황녀님은 평범하지 않은 여자였다. 강하고 당당하지만 때로는 그래서 더 신경이 쓰이는 사람. 라이 경에게 황녀님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모두가 내가 좋아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

아버지와 어머니는 물론이고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도 라이 경이 반드시 레아 황녀님을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셨다. 거기다 요즘에는 시녀들까지도 라이 경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남자라면 어차피 다른 여자와 이루어질 거 레아 황녀님과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는 거 같았다. 어떤 사람은 라이 경이 벌써 황녀님께 반했지만, 자각을 못 하는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라이 경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며 절대 레아 황녀님과는 그런 사이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런데 최근 라이 경은 누군가 그런 말을 해도 제대로 선을 그을 수가 없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레아 황녀님과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사이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다.

‘나도 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건진 모르겠지만…마냥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거 같기도 해. 아직 레아 황녀님이 너무 어리시긴 하지만 당장 5개월만 더 있으면 17살이 되시니까 그렇게 따지면 가능성이야 있기는 있지.’

어느 한쪽이 문제가 될 정도로 신분이 낮은 것도 아니었고 약혼자나 애인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나이도 4살 정도 차이가 나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당장 라이 경의 부모님만 해도 나이가 10살 차이 나는데 잘살고 있지 않으신가?

하지만 늘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끝에는 꼭 이게 무슨 오만방자한 말도 안 되는 생각이냐고 고개를 저으며 끝이 났다. 감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레아 황녀님을 상대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라이 경은 잘못된 거로 생각했다.

“까만 경, 까만 경. 궁금한 거 하나 더 있어요.”

“까만 경은 언제부터 공주님을 좋아했어요?”

“……네?”

“아까 누나는 동화책에 나오는 공주님들이랑 다르게 강하고 씩씩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레아 황녀님을 짝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는 너무 과분하신 분입니다.”

“그럼 까만 경은 누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레아 황녀님을….”

뭐라고 대답하는 게 좋을까. 뭐라고 말을 해야 쌍둥이 황자님들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지 라이 경은 잠시 고민을 했다.

“저는 레아 황녀님을 존경합니다. 레그마인 황제 폐하를 존경하듯 똑같이 황녀님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뭐야. 그러면 좋아하는 거 맞잖아요.”

“좋아하면서 안 좋아한다고 그러고. 까만 경 이상해요.”

짝사랑이 아니라고도 했고 레그마인 황제 폐하를 존경하는 것과 똑같이 레아 황녀님을 존경하는 거라고도 말했으니 아무래도 쌍둥이 황자님들께서 물어본 좋아하냐는 건 이성적인 호감이 아니라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인간적인 호감을 말하는 것 같았다. 그런 뜻으로 레아 황녀님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다면 라이 경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었다.

“그런 의미라면 안 좋아하지 않습니다. 레아 황녀님은 좋은 분이시니까요.”

“그럼 까만 경은 누나를 좋아하나요?”

“네. 좋아합니다.”

“역시 까만 경은 공주님을 지켜주는 기사님이니까 누나를 좋아하는구나!”

이성적인 의미라면 모르겠지만 인간적인 의미라면 라이 경은 레아 황녀님을 좋아하고 있었다. 황녀님의 호위를 맡고 있으니 어느 정도는 당연한 감정이었다.

라이 경의 대답에 쌍둥이 황자님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마침 그때 누군가 방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쌍둥이 황자님들은 바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 쪽으로 우다다다 달려가 문을 두드린 사람에게 누구냐고 묻지도 않고 문을 벌컥 열었다. 누가 문을 두드린 건지 뻔히 알았기 때문에 라이 경 역시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나! 우리 이제 케이크 만들러 가요?”

“아직. 주방은 써도 된다고 허락받았는데 재료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조금 더 기다려야 해.”

“그럼 누나도 우리랑 놀아주세요!”

“그래. 라이 경이랑 잘 놀고 있었어?”

역시나 문을 두드린 사람은 레아 황녀님이셨고 황녀님을 보자마자 쌍둥이 황자님들은 레아 황녀님께 안겼다. 갑자기 달려든 쌍둥이 때문에 레아 황녀님은 조금 놀란 것 같았지만 곧 활짝 웃으면서 쌍둥이 황자님들을 꼭 안아주셨다. 그 모습을 보며 라이 경은 왠지 모를 서운함을 느꼈다.

‘계속 같이 있어 주고 얘기를 나눈 건 분명 나인데. 아무래도 황자님들은 나보다 레아 황녀님이 더 좋으신가 보군.’

그런데 어린 쌍둥이 황자님들이야 그렇다 쳐도 레아 황녀님도 방으로 들어와서부터 쭉 라이 경에게는 작은 시선조차 주지 않고 오직 쌍둥이 황자님들께만 집중하시고 있었다.

“까만 경이랑 이름도 알려주고 동화책 얘기도 하고 기사님 얘기도 하고 어, 그리고….”

“이름? 그러고 보니 난 아직 너희 이름도 모르고 있네.”

“우리도 아직 누나 이름 몰라요!”

“그럼 같이 놀기 전에 통성명부터 할까? 우리 꼬마 황자님들 이름은 뭐예요?”

그라티아 황제 폐하께 세 명의 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셋 다 아직 어려서 공식적으로 알려진 정보가 없어 열심히 공부하고 온 레아도 쌍둥이 황자님들의 이름을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통성명을 하자는 레아의 말에 쌍둥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안 돼요. 상대가 먼저 이름을 알려주기 전에는 먼저 이름을 알려주지 말라고 엄마가 그랬어요.”

“그래? 그럼 누나가 먼저 이름을 알려주면 너희도 이름을 알려줄 거야?”

“응. 누가 이름을 알려주면 우리도 이름을 알려주라고 아빠가 그랬어요.”

원래 예법에 따르면 신분이 낮은 쪽이 먼저 인사를 하고 자신이 누군지 밝히면 신분이 높은 쪽이 그 인사를 받고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는 게 맞았다. 만약 레아와 쌍둥이처럼 신분이 비슷하다면 나이가 어린 쪽이 인사를 먼저 하는 게 맞았지만, 아직 어린 쌍둥이는 거기까지는 아직 배우지 않은 모양이었다.

다른 사람이라면 충분히 기분 나빠하고 실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레아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쌍둥이에게 먼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다닐로만 제국에서 온 레아 더 다닐로만 황녀입니다. 앙겔루스 제국의 사랑스러운 황자님들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레아가 웃으며 먼저 자신을 소개하자 쌍둥이 황자님들도 씩씩하게 자기소개를 했다.

“앙겔루스 제국의 1황자 크레 더 앙겔루스라고 합니다!”

“저는 앙겔루스 제국의 2황자 트레 더 앙겔루스라고 합니다!”

“크레 황자랑 트레 황자구나. 이제 서로 이름도 알게 되었으니 잘 부탁해요. 황자님들.”

“응! 우리도 만나서 반가워요. 레아 황녀님.”

이제는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황녀님이란 호칭이었지만, 귀엽고 사랑스러운 앙겔루스 제국의 쌍둥이 황자님들이 불러주니 레아는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다. 쌍둥이가 얼마나 귀여웠으면 레아는 그 조각상처럼 잘생긴 라이 경을 아직도 병풍 취급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름 알려주는 거 말고는 또 무슨 얘기 했어? 다른 재밌는 얘기는 안 했어?”

“어…맞다! 레아 누나 얘기도 했어요.”

“라이 경이랑 내 얘기를?”

“까만 형은 레아 누나를 지켜주는 기사님이니까 공주님인 레아 누나 얘기도 했어요.”

“그래? 내 얘기 뭐 했는데?”

과연 칭찬했을까 아니면 흉을 봤을까? 어쩐지 라이 경이라면 둘 다 아닐 거 같아서 레아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쌍둥이 황자님들은 예상치 못한 폭탄 발언을 했다.

“까만 경이 레아 황녀님은 멋있고 당당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동화책에 나오는 공주님들이랑 다르게 황녀님은 황녀님이 구한다고 그랬어요.”

“하하. 그래? 좋은 말만 해줬네.”

“응. 그래서 까만 경은 레아 누나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어?”

“까만 경이 좋아한다고 했어요. 레아 황녀님을 좋아한다고 확실히 말했어요!”

“아…. 그, 그랬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폭탄 발언에 레아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라이 경이 레아가 좋다고 말했다는 게 믿어지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일 리도 없었다. 레아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해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라이 경은 왠지 변명 같은 설명을 했다.

“제가 분명 레그마인 황제 폐하도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레아 황녀님을 좋아한다는 건 황제 폐하를 존경하고 좋아하는 감정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했잖습니까.”

“맞아. 똑같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레그마인 황제 폐하는 레아 누나의 아빠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좋아하는 건가?”

“그렇습니다. 전 두 분 다 똑같이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좀 다급해 보이긴 했지만, 라이 경이 정정해준 덕분에 레아는 오해를 풀 수 있었다. 만약 라이 경이 정정해주지 않았다면 레아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할 뻔했다.

‘하긴 그럼 그렇지. 라이 경이 나를 좋아할 리가 없잖아. 무슨 착각을 할 뻔한 거야. 나는.’

까딱 잘못했다간 창피를 당할 뻔했다. 괜히 상대는 아닌데 혼자서 그 사람이 날 좋아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만큼 부끄러운 것도 없을 것이었다.

“레아 누나. 그럼 누나도 까만 경 좋아해요?”

“나? 나는….”

“기사님은 공주님을 좋아하는데 공주님이 기사님을 안 좋아하면 기사님이 너무 슬프잖아요. 누나도 까만 경 좋아해 주면 안 돼요?”

난 아직 안 좋아한다고 한 적 없는데. 뭐, 이성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라면 레아는 라이 경을 싫어하지 않았다. 한때는 싫어하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사람 대 사람으로 좋아한다고 말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며 레아는 웃는 얼굴로 쌍둥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그렇다면 나도 라이 경 좋아해.”

31.그냥 지금 결혼하면 안 돼요.docx

“그래. 그렇다면 나도 라이 경 좋아해.”

이성적으로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인간적으로 좋아한다는 말이었다. 그걸 잘 알면서도 라이 경은 순간 움찔했다.

‘…이 자리에 쌍둥이 황자님들 뿐이라는 게 다행이군. 다닐로만 황궁에서 저런 말을 하셨다면 오늘은 내가 죽는 날이 됐을 게 분명해.’

물론 꼭 그런 날이 오길 바라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런 날은 절대 오면 안 된다고 외치는 한 사람의 힘이 너무 강해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다. 만약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저 말을 들으셨다면….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했다.

“라이 경? 표정이 왜 그래요?”

“잠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으응. 알았어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해도 레아가 좋아한다고 말하자마자 흠칫하는 반응을 보이는데 신경이 안 쓰일 리가 없었다. 다른 여자들이 그렇게 사귀고 싶다고 고백해도 눈 하나 깜박 안 하는 라이 경이 그냥 인간적으로 좋아한다는 말에 흠칫했으니 당연히 레아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먼저 나한테 존경하고 좋아한다고 말했으면서 뭐 나는 인간적으로 좋게 보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건가? 이거 사귀자고 하면 기절하고 결혼하자고 하면 호위기사 때려치우겠네.’

레아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할 리도 없었지만, 만약 정말로 그런 말을 듣게 된다면 라이 경은 진짜 황궁 기사까지 그만둬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할지도 몰랐다. 물론 레아의 고백이 싫어서가 아니라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손에 죽을 게 확실하기 때문이었다. 그런 걸 알 리가 없는 레아는 나도 싫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한 후에 다시 쌍둥이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러고 보니 크레 황자랑 트레 황자에게는 남동생이 있었지?”

“네! 근데 동생은 우리랑 별로 안 닮았어요. 우리랑 머리카락 색깔도 다르고 눈동자 색깔도 달라요.”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 동생 아닌 줄 알았는데 아빠가 동생은 엄마를 닮아서 그런 거래요.”

“크레 황자랑 트레 황자는 확실히 그라티아 황제 폐하를 많이 닮기는 했지. 동생은 머리카락이랑 눈동자 색이 뭔지 알려줄 수 있어?”

설마 동생도 레아가 먼저 이름을 알려줘야 말해줄 수 있다고 하는 건 아닐까 잠시 생각했다. 예법 같은 걸 엄청 따지는 편은 아니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레아가 이제 태어난 지 100일 정도 된 아기한테까지 자기소개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런데 쌍둥이는 다행히도 이번에는 순순히 동생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루멘은 까만 경처럼 머리카락은 까맣고 눈동자는 레아 누나처럼 초록색이라서 예뻐요. 그리고 또 엄마를 닮아서 머리가 곱슬곱슬해요.”

“우리랑 하나도 안 닮았어요. 우린 머리카락이랑 눈동자는 민트색이고 머리도 안 곱슬곱슬한데!”

“그래도, 그래도 우리도 동생도 피부는 하얗잖아. 그건 닮았어요.”

확실히 쌍둥이 황자님들은 친부인 그라티아 황제 폐하와 달리 하얗고 뽀얀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건 누군가를 닮고 닮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은 너무 어려서 그런 게 아닐까 싶었다.

“동생 이름은 루멘 황자님이구나. 루멘 황자님은 황제 폐하보다 황후 폐하를 많이 닮았나 보다.”

“우리 엄마도 머리카락이 까맣고 눈동자는 초록색이에요!”

“다닐로만 제국에선 둘 다 흔한 색이 아닌데 신기하네. 왠지 황후 폐하께서는 상당한 미인이실 거 같아.”

“응. 우리 엄마는 키도 크고 얼굴도 예뻐요.”

세상 어디를 가나 황금빛 머리카락은 딱 다닐로만 제국의 황족에게서만 볼 수 있는 색이었지만, 검은 머리카락과 초록색 눈동자는 그렇지 않았고 다닐로만 제국에선 둘 다 흔한 색이 아니었지만 다른 제국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였다. 어쩐지 레아는 쌍둥이의 모친인 황후 폐하의 얼굴이 궁금해졌다.

“우리 엄마는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어, 그리고 또….”

“엄청 다정하고 착해요!”

“맞아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자상하고 예뻐요.”

“그리고 또 우리 엄마는….”

엄마를 많이 좋아하는 건지 쌍둥이는 신이 나서 자기들끼리 조잘조잘 떠들기 시작했다. 그런 쌍둥이를 보며 레아는 흐뭇하게 웃었고 자연스럽게 돌아가신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다. 레아의 엄마인 아리샤도 착하고 자상한 사람이라서 쌍둥이의 말을 들을 때마다 레아는 엄마가 생각이 났다.

‘우리 엄마도 정말 예쁜 사람이었는데. 키는 좀 작았지만, 엄마도 자상하고 다정한 부드러운 성격이라서 주변에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어. 엄마 생각하니까 엄마 보고 싶다.’

레아가 갈 수 없는 그곳에서 엄마는 잘 지내고 있을까. 어쩌면 황궁으로 반강제로 끌려온 레아를 보며 발을 동동 구르며 미안해했을지도 몰랐다.

‘사실 처음에는 조금 원망하기도 했지만…. 지금 나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마냥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싫어했던 아빠도 너무 주책이셔서 곤란할 때도 많지만 그래도 지금은 나름대로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었다. 여전히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래서 싫은 건 아니었다. 또 피에르 시종장님이나 가스파르 재상, 소니아 부인처럼 좋은 사람들이 있어 레아는 스스로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녀가 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레아 황녀님. 말씀하신 케이크 재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아까 씻으러 가기 전에 부탁했는데 그게 드디어 준비가 끝난 모양이었다. 케이크라는 말에 쌍둥이는 단번에 표정이 밝아졌고 들뜬 목소리로 레아에게 말했다.

“누나! 우리 이제 케이크 만들러 가요?”

“응. 이제 케이크 만들러 가는 거야.

“나는 커다란 3단 케이크 만들고 싶어!”

“3단 케이크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재료도 많이 들어서 안 돼. 오늘은 컵케이크로 만족하자.”

“3단 케이크 만들고 싶은데….”

“3단 케이크는 다음에 누가 결혼하면 그때 만들어 보자. 보통 3단 케이크는 결혼식을 위해서 특별히 만드는 케이크니까.”

다른 특별한 날에도 3단 케이크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레아에게 3단 케이크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래서 결혼을 포기하기 전에는 꼭 결혼식 때 세상에서 제일 화려한 3단 케이크를 만들 거라는 꿈을 꾸기도 했었다.

“3단 케이크는 결혼식 때만 만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특별한 날에만 만들지. 그래서 나도 3단 케이크는 딱 한 번밖에 안 만들어봤어.”

우나타에서 지내던 시절 단골손님 중 한 분이셨던 베스 할머니의 딸의 결혼식 때. 그때 딱 한 번 3단 케이크를 주문받아 엄마와 나탈리 이모가 만드는 걸 레아는 옆에서 도와드린 적이 있었고 그때 이후로 레아는 3단 케이크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다.

딸이 시집가서 꼭 레아처럼 예쁜 손녀를 낳았으면 좋겠다고 하신 베스 할머니가 생각나서 레아는 빙그레 웃음이 나왔다. 실제로 할머니의 딸은 신혼여행에서 사랑스러운 딸을 만들어 왔으니 소원이 이루어진 셈이었다. 그때 이후로 레아가 3단 케이크는 무조건 결혼식! 이라고 생각하게 된 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쌍둥이 황자님들은 뜬금없이 레아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레아 누나랑 까만 경이 지금 결혼해서 오늘 3단 케이크 만들면 안 돼요? 우린 3단 케이크 만들고 싶어요!”

“뭐? 라이 경이랑 나랑?”

“까만 경이 누나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누나도 까만 경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냥 빨리 결혼해요. 네?”

“아니…. 애들아. 그 좋아한다는 건 결혼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거잖아.”

“아니에요. 엄마랑 아빠는 서로 좋아해서 결혼한 거라고 했어요!”

레아와 라이 경이 서로 좋아하는 건 맞았지만, 그라티아 황제 폐하와 황후 폐하께서 서로 좋아하셨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좋아함이었다. 그러나 아직 어린 이 쌍둥이 황자님들이 그런 걸 이해할 리가 없었다.

“레아 누나랑 까만 경은 어차피 결혼할 건데 그냥 빨리하면 안 되는 건가? 우리 아빠랑 엄마도 여기서 결혼식 했다고 했잖아.”

“결혼식 때 입을 하얀 드레스가 없어서 그런가? 우리가 엄마한테 드레스 빌려달라고 해보자.”

“아빠가 파티 때 손님들도 많이 올 거라고 했잖아. 맛있는 음식도 많은데 그냥 파티 때 결혼식 하면 되겠다.”

“그럼 우리가 3단 케이크 만들자. 레아 누나랑 까만 경 결혼을 축하하면서!”

고작 3단 케이크 하나 때문에 사귀는 사이도 아닌 두 사람을 결혼시키려고 하다니.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쌍둥이가 레아와 라이 경이 이번 파티에서 결혼발표라도 할 것처럼 떠들고 다닐 거 같았다. 그리고 그런 소문이 난다면 레아는 황제의 유일한 자식이니 정말 빼도 박도 못 하고 멀쩡한 남의 아들 혼삿길을 막게 되는 것이었다.

‘남의 혼삿길 막으면 그거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나는 결혼을 안 했으면 안 했지, 좋아하지도 않는 남자 혼삿길 막았다고 책임져야 해서 하는 결혼은 하기 싫어!’

그런 건 라이 경 역시 하고 싶을 리가 없을 것이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레아는 피에르 시종장님의 얼굴을 볼 낯이 없을 거 같았다. 시종장님이 그 무엇보다 하나뿐인 아들이 빨리 결혼하길 바라시는 걸 잘 아는데 그 아들의 혼삿길을 막고 어떻게 시종장님 얼굴을 떳떳하게 볼 수 있겠냔 말이었다. 그건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이었다.

“애들아. 미안하지만 난 라이 경과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어. 라이 경이 좋은 사람이란 건 알지만 그런 식으로 좋아하는 건 아니야.”

“좋은 사람인데 왜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는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좋아는 하지. 하지만 사랑하는 건 아니야. 결혼은 사랑해야지 할 수 있는 거야.”

“사랑?”

“응. 사랑.”

이렇게 얘기해줘야 쌍둥이 황자님들은 조금이라도 레아의 말을 이해해줄 수 있을 거 같았다. 서로 좋아는 하지만 사랑하지는 않는 사이. 그게 아직 너무 어린 쌍둥이 형제에게 레아와 라이 경의 사이를 잘 설명해줄 수 있는 말이었다.

\*\*\*

“죽을 때까지 결혼은커녕 연애도 안 할 거 같은 녀석이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큰딸이 생겼다고 해서 얼마나 놀란 줄 알아? 심지어 우리 나이가 33살인데 딸은 16살이라니.”

“처음에 듣고 놀란 사람이 너뿐이겠냐. 처음에 황궁으로 데리고 오겠다고 했을 때 가스파르 재상은 거품 물고 쓰러졌었다고.”

“하하. 불쌍한 가스파르 재상. 어쩌다 너 같은 황제를 만나서.”

그전까지는 유일한 황족이면서 곧 죽어도 결혼 안 한다고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려서 속 썩이더니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사생아란 존재에 그 사생아를 황궁으로 데리고 와서 황녀로 키우겠다고 했으니…. 안 봐도 가스파르 재상이 얼마나 힘들었을진 뻔했다. 확실히 레그마인 황제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겐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라티아 황제는 생각했다.

그래도 레그마인 황제 덕분에 다닐로만 제국이 그렇게 잘 굴러가고 있는 것이니 결코 안 좋은 황제는 아니었다. 그래서 그라티아 황제가 레그마인 황제를 좋아하는 것이었다.

“그래도 부럽다. 나도 딸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몇 달 전에 보니타 황후가 출산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도 아들인가 보네.”

“응. 셋째는 쌍둥이랑 다르게 엄마를 닮았어. 흑발에다 녹안인데 생긴 것도 보니타를 많이 닮았고.”

“흐응. 그래? 앙겔루스 제국에서 미인으로 유명한 황후를 닮았다니 궁금한데?”

“기대는 하지 마. 너랑 레아 황녀처럼 복사해서 붙여놓은 수준은 아니니까.”

“역시 우리 레아가 날 닮아서 예쁘긴 하지. 아마 세상에서 제일 예쁠 거야.”

결국, 끝은 또 레아 황녀가 아주 예뻐 죽겠다는 말이었고 그런 레그마인 황제의 달라진 모습이 신기하기도 했지만 그라티아 황제는 이해가 가기도 했다.

‘항상 외로워했으니까. 드디어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가족이 생겼으니 얼마나 기쁠까. 거기다 정말 절절하게 사랑했던 여자와의 사이에서 생긴 딸이라니 매일 업고 다녀도 모자라겠지. 심지어 레아 황녀는 레그마인 황제를 쏙 빼닮았으니까.’

자신과 많이 닮은 자식을 제일 처음 마주했을 때 그 벅찬 감정. 그 감정은 그라티아 황제도 잘 알고 있는 감정이었고 그 아이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부모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네 딸은 네가 아빠라는 사실을 안지 아직 1년도 안 됐잖아. 근데 이렇게 막 데리고 돌아다녀도 되는 거야?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다니는 게 레아 황녀한테도 좋지 않겠어?”

황제의 사생아이자 18살 때 시녀와 속도위반으로 태어난 아이였다. 안타깝긴 하지만 마냥 환영받을 순 없는 출생배경이었고 황궁으로 반강제로 끌려오기 전까지만 해도 평민으로 자란 아이였다. 당연히 곱지 않은 시선이 따라붙을 거고 그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까 그라티아 황제는 좀 걱정이었다.

아무리 다닐로만 제국에선 이제 모두 레아 황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무례하게 구는 사람은 아주 제대로 밟아주었다고 해도 다른 제국의 황족들이라면 또 얘기가 다를 것이었다. 이건 레그마인 황제도 당연히 고민해본 문제였다.

“솔직히 초대장을 보내긴 했지만, 온다고 할 줄은 몰랐어. 고민하다가 참석하겠다고 해서 의외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왜 데리고 오기로 한 거야?”

“내 딸이라면 언젠가는 겪어야 할 일이야. 꼭 겪어야 할 일이라면 정신없이 몰아치는 게 나아.”

“무서워서 찔끔찔끔 아프면서 두려워하는 것보단 낫긴 하겠지. 그래도 좀 걱정인데.”

“걱정이라도 믿어야지. 우리 레아는 씩씩하고 강한 애니까.”

사실 제일 걱정이 되고 무서운 건 레그마인 황제였다. 혹시라도 소중한 딸이 상처를 받을까 불안했지만, 아까도 말했듯 이건 언젠가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었다. 아빠로서 할 수 있는 건 이제 딸을 믿는 것밖에 없었다.

“그래. 그래도 라이 경이란 호위기사가 레아 황녀 옆에 있어서 다행이다. 마음 둘 곳도 있고.”

“마음 둘 곳…?”

“아무리 힘들어도 옆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힘 나는데. 어쩌면 레아 황녀가 버티는 이유도 다 라이 경 때문일 수도 있다고.”

“의지할 사람이 라이 경밖에 없냐? 아빠인 내가 더 든든하고 의지가 되겠지.”

“그거랑 그건 다르지. 아빠랑 잘생긴 기사님이랑 같냐?”

확실히 다르긴 다를 것이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자신도 시녀였던 아리샤에게 푹 빠졌던 경험이 있었던 레그마인 황제는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래도 레아만큼은 자신과 다를 거라고 레그마인 황제는 믿고 싶었다.

“레아는 당분간 연애할 생각 없다고 했어. 아직은 남자 만날 생각도 없다고 했고.”

“그래. 지금은 없겠지. 근데 당장 내년에 17살인 애 바로 옆에 저렇게 잘생기고 멋진 남자가 있는데 앞으로 영원히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날 거란 확신 있어?”

“…절대 안 돼. 아빠로서 허락할 수 없어.”

“얼씨구. 그럼 넌 네 아빠 허락받고 연애하고 애까지 만들었냐?”

“……….”

허락은 개뿔. 엄청나게 반대하셨던 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자신의 말에 충격받은 듯한 레그마인 황제를 보며 그라티아 황제는 한숨을 쉬었다.

“언제까지 품 안에 자식으로 키우려고. 내가 보기에는 네가 아무리 거품 물고 반대해도 레아 황녀는 원하는 건 꼭 이룰 거야. 그건 너 닮은 거니까 너도 잘 알 거 아니냐.”

하고 싶은 건 어떻게 해서든 꼭 이루는 게 레그마인 황제의 성격이었다. 그렇기에 레아를 황궁으로 데리고 올 수도 있었고 황녀라는 자리에 앉힐 수 있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레그마인 황제는 처음으로 자신의 그런 성격이 원망스러워졌다.

32.젊은 아빠 그리고....docx

“박력분, 아몬드가루, 베이킹파우더, 슈가파우더, 시나몬 가루, 바닐라오일, 소금, 설탕, 달걀, 버터. 준비해달라는 건 다 준비해줬네.”

“누나. 우리 이제 케이크 만드는 거예요?”

“응. 이제 만드는 거야.”

“우와! 컵케이크!”

드디어 컵케이크를 만든다는 말에 잔뜩 기대에 부푼 쌍둥이 황자님들을 보며 레아는 살며시 웃었다. 그리고 재료 하나를 쌍둥이가 보지 못하게 손에 숨기고 말했다.

“크레 황자는 가루를 2번, 3번 체 쳐주고 트레 황자는 버터를 좀 녹여줘. 다 하면 나한테 얘기하고.”

“응! 알았어요.”

“응! 내가 버터 녹일게.”

“그래. 잘 부탁해.”

사실 부탁하면서도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인 쌍둥이 황자님들이 시킨 일을 잘 해낼 거란 기대는 없었고 이건 단순히 황자님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부탁한 것이었다. 레아는 쌍둥이가 다른 일에 정신이 팔린 사이 조용히 라이 경을 불러 아까 숨겼던 재료를 은밀하게 건네주었다.

“라이 경. 크레 황자님이랑 트레 황자님 몰래 이걸 강판으로 갈아주세요.

“당근입니까?”

“네. 쌍둥이 황자님들이 당근을 싫어해서 절대 안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반죽에 몰래 섞을 거니까 잘게 갈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당근은 컵케이크를 만들 때 꼭 넣어야 할 재료는 아니었지만, 쌍둥이 황자님들이 편식한다는 얘기를 듣고 일부러 반죽에 섞는 것이었다. 어떻게 요리해줘도 입에도 안 댄다고 해서 과연 잘 먹어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시도는 해볼 생각이었다.

“누나. 다 했어요!”

“나도 버터 다 녹였어요!”

“그래? 잘했어. 그럼 이제 여기서 주스 마시면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알겠지?”

“주스? 나는 포도 주스 마실래!”

“나도 포도 주스 마실 건데! 나도 포도 주스 주세요!”

“둘 다 포도 주스 줄 테니까 싸우지 마. 싸우면 주스 안 줄 거야.”

싸우면 주스는 없다는 레아의 말에 쌍둥이는 바로 조용해졌고 레아는 그 모습이 귀여워 피식 웃었다.

‘가루 체 치라고 했는데 그걸 본인이 다 뒤집어썼네. 버터도 덜 녹았어. 내가 다시 해야겠다.’

잘 해낼 거라는 기대도 안 했지만 설마 이렇게 엉망진창일 줄도 몰랐다. 레아는 쌍둥이 몰래 다 다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일단 가루부터 다시 체 치기 시작했다.

“레아 황녀님. 당근 다 갈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거 이리 주고 오븐 예열 좀 해주세요. 반죽 완성되면 바로 구워버리게. 아, 머핀팬에 유선지도 좀 깔아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라이 경은 도움이 돼서 다행이었다. 만약 라이 경이 없었다면 레아 혼자서 컵케이크 구우랴 쌍둥이 신경 쓰랴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이었다. 그런데 딱 붙어서 소곤소곤 얘기하고 있는 레아와 라이 경을 쌍둥이는 가만히 지켜보며 자기들끼리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서 결혼 못 한다더니. 레아 누나 거짓말쟁이.’

‘결혼할 것도 아니면서 저렇게 딱 붙어서 비밀 얘기를 할 리가 없어. 비밀은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말해주는 거잖아.’

‘엄마랑 아빠도 저렇게 비밀 얘기하고 100 밤 자고 나니까 우리 동생 생겼잖아.’

‘그럼 레아 누나랑 까만 경도 100 밤 지나면 아기 생기는 거야?’

설마 자신들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당근이 컵케이크 반죽에 들어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하고 있는 쌍둥이는 레아와 라이 경의 사이를 의심하고 있었다. 쌍둥이가 그런 생각을 하는 줄 알 리가 없는 레아는 바쁘게 반죽을 만들기 시작했다.

레아는 서둘러 가루를 다시 체 쳤고 버터를 다시 녹이면서 동시에 달걀 3개를 깨서 볼에 넣은 다음에 설탕과 함께 섞어주었다. 설탕이 어느 정도 녹자 레아는 녹은 버터와 설탕을 더 넣고 다시 설탕이 다 녹을 때까지 잘 섞어주었다. 그 후 바닐라오일과 잘게 갈린 당근을 몰래 넣은 다음 다시 잘 섞어주고 박력분을 넣고 아까 체 친 가루들과 베이킹파우더, 소금을 넣어 부드러운 주걱으로 살살 저어주었다. 이러면 이제 반죽은 완성된 것이었다.

“라이 경. 머핀 판이랑 유선지 준비 다 됐어요?”

“준비 다 됐습니다. 오븐도 방금 예열 시작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럼 이제 크림치즈랑 버터 실온에서 좀 녹여줄래요? 위에 크림을 올려서 머핀으로 만들어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원래 케이크를 굽는 게 이렇게 정신없는 일이었나? 오랜만이라서 그런지 할 게 참 많다고 생각하며 레아는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시 쌍둥이를 불렀다.

“가득 채우지 말고 60% 정도 채워야 해. 그러니까 반보다 조금 더 채우면 돼.”

“누나. 나는 크게 먹고 싶은데….”

“나도! 그냥 꽉꽉 채워서 구우면 안 돼요?”

“오븐에 넣고 구우면 반죽이 부풀어서 꽉 채우면 안 돼. 그리고 위에 크림도 올릴 거라서 크림 자리는 남겨줘야지.

레아의 말에 쌍둥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열심히 반죽을 유선지 안에 채워 넣었다. 다행히 이번에는 좀 어설프긴 하지만 아까처럼 엉망진창은 아니었다. 레아는 잠시 쌍둥이가 잘하고 있는지 지켜보다가 라이 경 쪽으로 다가갔다.

“라이 경. 다 녹였어요?”

“거의 다 녹은 것 같습니다.”

“응. 이 정도면 됐어요. 이제 여기 슈가파우더랑 바닐라오일 넣고 부드러운 크림이 될 때까지 거품기로 잘 섞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원래 크림은 레아가 직접 만들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라이 경이 잘 해줘서 크림을 만드는 것도 한번 맡겨보기로 했다. 원래 제과제빵은 은근히 힘이 필요한 일이 많아서 레아는 라이 경이 있어 줘서 한결 편했다.

‘우나타에선 나탈리 이모랑 엄마 그리고 나까지 여자 셋이서 리베르타를 운영한다고 버거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한때는 내가 어른이 되면 라이 경처럼 튼튼한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고 다짐한 적도 있었지. 이제는 다 쓸모없어진 다짐이지만.’

이제는 엄마도 없고 레아도 없는데 나탈리 이모 혼자서 잘하고 있을까. 어쩌면 이제 레아도 없으니 나탈리 이모도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라도 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항상 이제 결혼은 포기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이모였지만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었다.

“레아 누나! 반죽 다 채웠어요.”

“누나가 시킨 대로 꽉꽉 안 채우고 반보다 조금 많이 넣었어요.”

“응. 잘 넣었네. 이제 반죽을 구워주고 그 위에 크림만 올려주면 완성이야.”

쌍둥이는 그럭저럭 유선지 안에 반죽을 잘 채워주었다. 레아는 판을 몇 번 탁탁 쳐서 공기를 빼주었고 미리 예열해둔 오븐 온도를 한번 확인한 후 반죽을 오븐 안으로 넣었다. 이제 20분에서 25분 정도만 구워주면 끝이었다.

“레아 황녀님. 크림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벌써요? 그럼 이리 주세요. 냉장고에 보면 체리랑 딸기가 있을 거예요. 황자님들이랑 같이 좀 씻어서 가지고 와주세요.”

“네. 황녀님.”

원래는 크림 위에 과일을 올릴 생각은 없었지만, 레아는 일단 과일을 씻어오라고 했다. 아까 보니 라이 경이 설탕을 생각보다 꽤 많이 넣는 것 같았고 지금 굽고 있는 빵도 달콤한데 올라갈 크림까지 달면 좀 곤란했다. 레아는 혹시나 너무 달면 상큼한 과일을 올려야겠다고 생각하며 라이 경이 만든 크림의 맛을 보았다.

‘역시 달아. 하지만 이 정도면 상큼한 과일로 단맛을 충분히 가릴 수는 있겠어. 마음에 쏙 들진 않지만 일단 그럭저럭 크림은 합격.’

처음 만들어본 것치곤 제법 나쁘지 않은 맛이었다. 만약 레아가 황녀가 아니라 빵집을 운영하는 평범한 소녀였고 라이 경이 황궁 기사가 아니라 일도 없이 노는 백수였다면 아마 빵 굽는 걸 가르쳐줄 테니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고 말했을지도 몰랐다. 옆에서 가르쳐주고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분명 라이 경은 맛있는 빵을 구울 수 있을 것이었다.

‘그럼 뭐하나. 라이 경은 다닐로만 제국 최연소 소드마스터에 황궁 기사인데. 빵 같은 거 잘 구워봤자 빵집 같은 거 운영할 리가 없잖아. 나도 이제 황녀니까 빵집 운영 못 할 거고.’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사이 오븐에 넣었던 빵은 다 구워졌고 레아는 따끈따끈한 빵을 꺼내 하나 맛을 보았다. 다행히 빵은 잘 구워졌고 이제 크림과 과일만 올리면 정말로 끝이었다. 때마침 과일을 다 씻은 건지 쌍둥이 황자님들은 우다다다 달려와서 레아의 옆에 착 달라붙었다.

“레아 누나. 과일 다 씻었어요!”

“크레가 체리 먹으려고 해서 까만 경한테 혼났어요.”

“트레도 딸기 먹으려고 해서 까만 경한테 혼났어요.”

“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드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황자님들을 혼내겠습니까.”

“차가운 눈으로 보면서 먹지 말라고 했으면 혼낸 거잖아요!”

“맞아. 우리 엄청 무서웠어요!”

“전 원래 이렇게 생겼고 평소와 똑같이 말한 것뿐인데….”

쌍둥이 황자님들은 라이 경한테 혼이 났다고 레아에게 이르고 있었고 라이 경은 레아에게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런 세 사람이 귀여워 보여서 레아는 풋 웃음이 나왔다. 이런 말 하긴 좀 미안하지만 라이 경이 꼭 젊은 아빠처럼 보였고 쌍둥이는 그런 라이 경의 아들처럼 보였다.

“좀 먹게 해주지 그걸 또 왜 못 먹게 했어요. 나도 딸기 하나 먹으려고 했는데 라이 경 때문에 못 먹겠네.”

“까만 경은 공주님을 지켜주는 기사님이라면서 딸기도 못 먹게 했어. 치사해!”

“아니….”

“나는 라이 경이 씻은 딸기는 안 먹을 거야. 체리만 먹을 거야! 라이 경도 우리가 만든 케이크 먹으면 안 돼요!”

“체리도 제가 씻었는데….”

“하하. 애들아. 장난친 거야. 라이 경한테 그러면 안 돼.”

역시 아직 어려서 농담을 농담으로 받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레아의 말에도 쌍둥이 황자님들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도 우리는 까만 경이 만든 건 안 먹을 거예요!”

“체리랑 딸기는 만든 거 아니고 씻은 건데?”

“그래도 싫어요! 안 먹을 거예요!”

“으음. 이를 어쩌면 좋지.”

솔직히 왜 이러는 건지는 레아도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억지를 부리는 쌍둥이 황자님들 때문에 잠시 어떡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다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크레 황자랑 트레 황자는 컵케이크도 안 먹겠네?”

“컵케이크는 왜요?”

“컵케이크는 우리가 만들었는데?”

너희가 만들긴 뭘 너희가 만들어. 나랑 라이 경이 다 만들었는데. 하지만 상대는 아직 어린 꼬맹이들이었기에 레아는 속으로 올라오는 말을 꾹 참고 웃으며 말해줬다.

“하지만 오븐 예열도 라이 경이 해줬고 이 크림도 라이 경이 만들었는데?”

“진짜로?”

“응. 진짜로. 아, 그리고 컵케이크 반죽 만드는 것도 도와줬어.”

“으응. 하지만 컵케이크 먹고 싶은데….”

“먹고 싶어? 하지만 아까 라이 경이 만든 건 안 먹는다고 했잖아. 사람이 한 입으로 두말하면 안 되는 거야.”

“하지만…하지만….”

쌍둥이 황자님들은 컵케이크 하나만을 바라보고 계속 기대하며 기다렸었는데 말 한번 잘못했다가 컵케이크는 구경만 해야 할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 당황스러운 상황이 억울하기도 하고 컵케이크를 못 먹게 된다고 생각하니 쌍둥이는 애처로운 눈으로 레아를 바라보았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쌍둥이의 눈빛 공격에 레아는 잠시 움찔했지만, 다행히 무너지진 않았다.

“컵케이크 먹고 싶어?”

“먹고 싶어요!”

“아까 라이 경이 만든 건 다 안 먹겠다고 억지 부린 건 잘못했지?”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맞지?”

“잘못했어요. 이제 까만 경 안 괴롭힐게요.”

“그래. 라이 경은 내 호위기사니까 너희는 함부로 괴롭히고 그러면 안 돼. 라이 경은 누나만 괴롭힐 수 있는 거야. 알았지?”

“네!”

내 호위기사는 괴롭혀도 나만 괴롭힐 수 있다! 그 말에 라이 경은 약간 어이없다는 시선을 보내는 것 같았지만, 레아는 모른 척하며 그 시선을 무시했다. 그리고는 정말로 반성은 하는 건지 의심이 되는 쌍둥이 황자님들을 보며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둘 다 라이 경한테 아까 괴롭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와. 그럼 컵케이크에 크림 올리고 과일도 올릴 수 있게 해줄게.”

레아의 말에 쌍둥이 황자님들은 고개를 한번 크게 끄덕이곤 바로 라이 경에게로 달려갔다. 그런데 달려가던 중 트레 황자가 발을 헛디뎌서 꽈당 넘어질 뻔했고 다행히 넘어지기 전에 라이 경이 붙잡아준 덕에 트레 황자는 넘어지지 않았다.

“뛰어다니시면 위험합니다.”

“잡아줘서 고마워요. 까만 경!”

“고맙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까 괴롭혀서 미안해요. 까만 경이 씻어준 체리랑 딸기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을게요!”

“저걸 다…말입니까?”

“나도 미안해요. 나도, 나도 까만 경이 씻어준 거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을게요!”

“아니. 그러실 필요까지는….”

아직 어리신 황자님들이 둘이서 저 많은 딸기와 체리를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드셨다간 배가 빵! 하고 터지실지도 몰랐다. 그래도 쌍둥이의 귀여운 사과에 라이 경은 자신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다.

‘우와. 라이 경이 웃었어. 하긴, 저 깜찍한 쌍둥이를 보고도 웃음이 안 나온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기계겠지.’

레아도 저 악동들 때문에 피곤하고 귀찮아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사르르 녹아 웃고 있었다. 아무리 상대가 표정도 없고 무뚝뚝하고 재미없는 라이 경이라고 해도 쌍둥이만의 무시무시한 무기를 이길 순 없었다. 그 모습을 뿌듯하게 바라보며 레아는 흐뭇하게 웃고 있었고 쌍둥이는 라이 경에게 사과한 후 다시 레아에게로 쪼르르 달려왔다.

“누나. 까만 경한테 사과하고 왔어요!”

“그래. 이제 라이 경 안 괴롭힐 거지?”

“응. 까만 경은 레아 누나를 지켜주는 기사님이니까 우리는 안 괴롭힐게요.”

“잘했어. 그럼 이제 크림이랑 과일로 케이크를 꾸며볼까?”

“우와아아아!”

이제 다시 케이크를 만들고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쌍둥이 황자님들은 기뻐했고 그런 귀여운 쌍둥이 황자님들을 보며 레아는 예쁘게 웃었다. 그 모습을 한 발치 떨어져서 지켜보던 라이 경은 행복해 보이는 세 사람을 보며 생각했다.

‘레아 황녀님은 아이들을 좋아하시는구나. 황자님들도 레아 황녀님을 잘 따르고 있어. 왠지 누나보다는 꼭 엄마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나이도 아직 16살밖에 안 되셨는데 어떻게 오늘 처음 본 쌍둥이 황자님들을 저렇게 능수능란하게 다루실 수 있는 걸까. 라이 경은 그게 참 신기하다고 생각하며 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라이 경 거기서 뭐 해요? 이리 와서 경도 같이 만들어요.”

“저도 말입니까?”

“당연하죠. 이 크림 라이 경이 만든 거잖아요. 과일도 라이 경이 씻었고.”

“까만 경도 같이 만들어요!”

“까만 경 빨리 오세요!”

레아 황녀님과 크레 황자님, 트레 황자님까지 모두 라이 경을 부르고 있었다. 그 모습이 왠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거 같아서 라이 경은 기분이 좋았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라이 경은 그렇게 말하며 그 세 사람에게로 다가갔다.

33.어쩌면 우리.docx

“라이 경 되게 예쁘게 잘 만드네요. 의외다.”

“감사합니다.”

“레아 누나가 만든 것도 꼭 파는 것처럼 예뻐요!”

“하하. 나는 옛날에 이걸 진짜 팔았으니까 그렇지.”

“누나는 황녀님인데 케이크를 팔았어요?”

“응. 나중에 크레랑 트레도 조금 더 크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야. 누나는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중이거든.”

“으응?”

그 말에 쌍둥이는 알쏭달쏭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레아는 그냥 말없이 웃었다. 자신이 어떻게 자라왔고 어떻게 황녀가 된 건지는 아직 얘기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다고 레아는 생각했다. 지우고 싶은 과거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닐만한 과거도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아빠가 33살인데 딸이 16살이란 건…자라나는 새싹들이 들으면 안 되는 얘기기도 하고.’

레아도 처음 그 얘기를 듣고 충격받았는데 아직 아기는 어떻게 만드는 건지 알지도 못하는 쌍둥이에게 그런 얘기를 해줄 순 없었다. 아빠와 그라티아 황제 폐하께서는 친한 사이시니 아마 쌍둥이가 좀 더 크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었다. 레아는 그저 먼 훗날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쌍둥이 황자님들이 너무 많이 충격받지 않길 바랄 뿐이었다.

“레아 누나. 다 만들었어요!”

“이제 케이크 먹어봐도 돼요?”

“그래. 각자 자기가 만든 거 하나씩 먹어봐. 나머지는 저녁 먹고 후식으로 다 같이 먹자.”

“응! 엄마랑 아빠한테 내가 만든 케이크라고 자랑할 거야!”

“나도! 트레랑 내가 만든 거 중에서 뭐가 더 맛있냐고 물어볼 거야. 당연히 내가 만든 게 더 맛있겠지만.”

“무슨 소리야? 당연히 내가 만든 게 훨씬 맛있을 건데?”

“아니야. 내가 만든 게 더 맛있어!”

사이가 좋았다가도 또 금방 티격태격하는 종잡을 수 없는 쌍둥이를 보며 레아는 귀엽다는 듯 웃었다. 자기들끼리 티격태격 다투던 쌍둥이는 레아의 드레스 자락을 잡고 물었다.

“레아 누나. 내가 만든 게 크레가 만든 것보다 더 맛있죠?”

“레아 누나. 내가 만든 게 트레가 만든 것보다 더 맛있죠?”

“누나가 더 맛있다고 하는 쪽이 이기는 거야. 레아 누나는 옛날에 케이크를 만들어서 팔았다고 했으니까 누나가 심판이야.”

“레아 누나. 솔직하고 공평하게 말해주세요. 누가 더 잘 만들었어요?”

솔직히 쌍둥이가 만든 컵케이크는 그저 그랬고 거기서 거기였다. 아직 5살 정도밖에 안 되는 꼬맹이들이 만든 게 딱히 뭐가 더 맛있고 덜 맛있고 할 게 있을 리가 없었다.

‘크레가 만든 건 크림이 너무 많고 트레가 만든 건 과일을 너무 과하게 올렸어. 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

레아가 솔직하게 둘 다 똑같이 별로라고 했다간 꼬맹이 둘 다 삐질 게 뻔했다. 안 그래도 쌍둥이를 데리고 컵케이크를 만든다고 피곤한데 삐진 아이의 마음을 풀어주는 일은 힘들 것 같았기에 레아는 제3의 대답을 찾아 현명하게 대답했다.

“라이 경이 제일 잘 만들었어. 맛있어.”

“까만 경이 만든 케이크?”

“응. 크림도 적당하게 잘 올렸고 딸기랑 체리도 보기 좋게 앙증맞게 잘 올렸어.”

“맞아. 까만 경이 만든 케이크 귀여워.”

“그럼 라이 경이 이겼으니까 라이 경이 1등이지?”

“응. 까만 경이 1등이야!”

라이 경이 예쁘게 잘 만든 건 사실이니까. 5살짜리 꼬마들과 겨뤄서 1등 한 건 별로 기쁘지 않겠지만, 쌍둥이는 대단하다는 존경의 눈빛으로 라이 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 저런 시선을 받는 것도 레아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

쌍둥이 황자님들을 데리고 라이 경과 함께 컵케이클 만든 후 방으로 돌아온 레아는 자신의 어깨를 통통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다. 이제 곧 있으면 저녁을 먹으러 갈 시간이었다.

‘어쩐지 앙겔루스 제국에 온 첫날부터 피곤하네. 다닐로만 제국에서 공부할 때보다 더 정신없고 바빴던 느낌이랄까. 역시 애를 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구나.’

거기다 쌍둥이라서 2배로 힘든 거 같았다. 처음에는 라이 경을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라이 경마저 없었다면 레아는 피로로 쓰러져 버렸을지도 몰랐다. 물론 쌍둥이가 레아와 라이 경을 엮었을 때는 좀 곤란했지만, 그래도 라이 경이 있어서 다행이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저녁 건너띄우고 쉬고 싶다.”

아무리 비싸고 예쁜 보석과 드레스에도 심드렁한 레아가 유일하게 두 눈을 반짝이며 좋아하는 게 맛있는 음식이었는데 피곤해서 저녁을 건너띄우고 싶다는 말을 하다니. 다닐로만 제국의 시녀들이 들으면 도대체 우리 레아 황녀님께 무슨 일이 생긴 거냐며 충격을 받을만한 말이었다. 거기다 앙겔루스 제국에는 손님으로 온 것이니 분명 엄청난 음식이 나올 게 분명한데 말이다.

하지만 그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잔뜩 기대하고 있던 레아는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라티아 황제 폐하와 황후 폐하께서도 우리랑 같이 식사하신다고 하셨으니 단순히 피곤하다는 이유로 나가지 않을 수 있을 리가 없지. 특히 나는 보니타 황후 폐하를 처음 뵙는 자리잖아. 당연히 신경 빡 쓰고 가야겠지.’

그래도 앙겔루스 제국이 다닐로만 제국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고 편한 분위기라서 다행이었다. 그 덕분에 레아가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거지 아니었다면 쉴 틈도 없이 바로 시녀들 손에 꾸며짐을 당했을 것이었다.

‘사실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아니었다면 쌍둥이 황자님들이 내 방문을 두드릴 수도 없었겠지. 적어도 유모나 다른 보호자와 같이 와서 정식으로 인사를 하고 얌전히 있다가 갔었겠지.’

그 자유로운 영혼에 귀엽고 사랑스러운 쌍둥이 덕에 레아는 앙겔루스 제국에 온 첫날을 정신없이 보낼 수 있었다. 시간이 후다닥 지나가서 몰랐는데 생각해보니 레아는 오늘도 라이 경과 온종일 함께였다.

“다닐로만 제국에서도 항상 같이 있고 앙겔루스 제국으로 올 때도 창문 하나 사이에 두고 계속 같이 있었고 결국은 여기에서도 계속 같이 있었네.”

그리고 그라티아 황제 폐하와 보나타 황후 폐하께서 레아의 호위기사인 라이 경까지 식사에 초대해주셔서 레아는 저녁도 라이 경과 저녁도 같이 먹을 예정이었다. 생각해보면 레아와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는 라이 경이었고 젊은 남녀가 온종일 붙어있으니 사람들이 자꾸 라이 경과 자신을 그런 쪽으로 엮는 건가 레아는 잠시 생각했다.

‘라이 경이 잘생기고 매력적인 건 사실이니까. 내가 만약 진짜 평범한 황녀였다면 사랑에 빠졌을지도 모르지.’

출생의 비밀 같은 거 없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황궁에서 평범하게 자란 황녀였다면 정말 사랑에 빠졌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난 평범한 황녀가 아닌걸. 나한테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에 빠지는 건 사치야. 정략결혼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런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아.’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생각과는 반대로 결혼은 불가능해도 연애는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레아였다. 하지만 그런 생각과 결정은 자꾸만 이랬다저랬다 흔들렸고 이러다간 진짜 연애나 결혼은 물론이고 남자 손 한번 못 잡아보고 평생 아빠랑만 살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니다. 그래도 남자랑 손은 한번 잡아봤네. 마차에서 내릴 때마다 라이 경이 손잡아 주고 프레디 소공자한테 춤 배울 때도 손잡았으니까. 그러고 보니 진짜 엄청나게 잘생긴 남자들 손을 잡았구나. 나는…. 하하.’

이걸 좋아해야 하는 건가. 이 와중에 참 잘생긴 남자들의 손을 잡았구나 하는 생각에 레아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다. 그런데 그때 방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시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레아 황녀님. 저녁 식사를 하러 가시기 전에 준비를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들어오세요.”

짧은 휴식 시간이 끝나는 소리였다. 레아는 작게 한숨을 쉬며 침대에 널브러져 있던 몸을 일으켰다.

\*\*\*

“어? 레아 리본 모양으로 머리 묶었네. 예쁘다. 귀엽네.”

“신기하죠? 시녀들이 묶어줬어요.”

“역시 앙겔루스 제국은 황후도 있고 그라티아 황제한테는 여동생도 있었으니까 다닐로만 제국 시녀들보단 훨씬 능숙한 것도 당연한 거겠지.”

“하하. 덕분에 저는 편하고 좋았어요.”

다닐로만 제국은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어머니인 선황후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레아가 황궁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황궁에 여자라곤 일을 하는 사람들 외엔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시녀들은 레아의 등장에 기뻐했고 지금까지도 레아를 데리고 인형 놀이하는 걸 아주 즐거워했다.

하지만 반대로 황궁에 황후 폐하도 있으시고 그라티아 황제 폐하의 여동생도 5년 전에 시집을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 황궁에서 살았으니 앙겔루스 제국의 황궁 시녀들은 누군가의 머리를 묶어주고 치장해주며 시중을 드는 일에 익숙했다. 무엇보다도 뭐든 알아서 척척 해줘서 레아도 편했다. 적어도 무슨 드레스가 좋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이거 입어봐라. 저거 입어봐라 하지 않아 줘서 고마웠다.

‘그래도 다닐로만 제국의 시녀들이 더 편하고 좋긴 하지. 가끔은 조금 답답해도 귀여운 주책바가지들이니까.’

앙겔루스 제국의 시녀들은 몸은 편할지 몰라도 심적으로는 불편한 느낌이었다. 황녀님과는 감히 말도 섞을 수 없고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레아는 그게 좀 부담스러웠다.

‘나는 역시 제대로 된 황녀가 되려면 멀었다니까. 아직도 나를 너무 위해주고 대단히 높은 사람 취급해주는 건 불편해. 뭐, 만만하게 보고 깔보는 것보단 훨씬 나은 일이긴 하지만.’

아직 황녀로서 이렇게 갈 길이 멀었는데 과연 이번 파티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다양한 제국의 황족들이 모이는 자리라니 긴장이 안 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런 레아를 옆에서 가만히 바라보던 아빠는 말 없이 레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

갑자기 왜 그러시지? 하고 레아는 아빠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레아가 고개를 돌리는 동시에 아빠의 손가락이 레아의 볼을 콕 찔렀다.

“……….”

“하하. 의심 한번 안 해보고 바로 걸렸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싫어요.”

“응. 알았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있었지만 별로 미안해하지 않는 것 같은 얼굴이었다.

‘어쩌면 내가 꼭 황녀답지 않아도 될지도 모르겠네. 내가 보기에는 딸인 나보다 아빠인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훨씬 더 황제답지 못한 거 같은데.’

꼭 지금 상황만이 아니라 평소 아빠는 그래도 다닐로만 제국의 황제신데 저러셔도 되는 건가 싶을 때가 종종 있었다. 뒤에서 따라오는 라이 경은 이런 황제 폐하의 행동이 익숙해져서 반응은커녕 미동도 없었고 좀 이상하긴 하지만 레아는 어쩐지 걱정이 사라져서 조금 허탈하기까지 했다.

“레아. 표정이 왜 그래?”

“그냥…아빠 덕분에 괜한 걱정을 하나 없앤 거 같아서요.”

“그래? 무슨 걱정이었는진 모르겠지만, 이 아빠가 레아에게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네.”

아무것도 모르는 레그마인 황제는 뭔진 몰라도 자신이 딸에게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라며 뿌듯하게 웃었다. 레아는 그런 아빠를 보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세 사람은 곧 만찬실 앞까지 도착했다. 만찬실 앞에 있던 시녀들은 레그마인 황제 폐하와 레아를 향해 꾸벅 인사를 한 후 문을 열어주었고 세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우와아! 레아 누나다!”

“레아 누나!”

레아가 만찬실로 들어오자마자 쌍둥이는 앉아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우다다다 달려왔고 그대로 아까 라이 경의 방에서 그랬던 것처럼 레아의 품에 안겼다.

“누나 드레스 갈아입었네? 예쁘다!”

“머리도 케이크 만들 때 묶었던 것보다 지금이 더 예뻐!”

“까만 경. 까만 경도 우리랑 같이 밥 먹어요?”

“나는 까만 경이랑 레아 누나 사이에 앉을래!”

“싫어! 내가 레아 누나랑 라이 경 사이에 앉을 거야!”

아까는 옆에 라이 경밖에 없었으니 레아도 편하게 쌍둥이를 대했지만, 지금은 아빠도 옆에 있고 쌍둥이 형제의 부모님인 그라티아 황제 폐하와 보니타 황후 폐하께서도 있으신 자리였다. 이걸 어떡하면 좋을지 당황스러웠다.

“크레. 트레. 손님들이 놀라셨잖아. 너희가 무슨 황소도 아니고 그렇게 달려들면 어떡해? 당장 손님들께 사과드리렴.”

다행히 그라티아 황제 폐하께서는 바로 쌍둥이를 레아와 떨어지게 하고 사과하게 했다. 아까는 누나가 잘 받아줬는데 이번에는 사과하라고 하니 쌍둥이 황자님들은 서운한듯한 눈으로 레아를 한번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레아는 풀이 잔뜩 죽은 쌍둥이를 보자 조금 안쓰럽기도 하지만 그 모습조차 사랑스럽고 귀여워 보였다. 이제는 쌍둥이가 뭘 하든 그냥 다 예뻐 보이는 것 같았다.

“놀라게 했다면 미안해요. 레아 황녀님. 우리 쌍둥이가 워낙 천방지축에 말썽꾸러기라…. 혹시 불쾌했다면 사과할게요.”

“아,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귀여운 황자님들께서 절 좋아해 주시는 건데 싫었을 리가 없잖아요.”

“어머, 고마워요. 레아 황녀님은 말씀도 참 예쁘게 하는군요.”

“아니에요. 과찬이세요.”

불쾌했다면 미안했다는 보니타 황후 폐하의 말씀에 레아는 괜찮다고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그 말에 보니타 황후 폐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고 레아도 살며시 웃으며 앙겔루스 제국의 황후 폐하는 참 아름다우신 분이시라는 생각이 들었다.

곱슬곱슬하고 긴 검은 머리카락과 초록색 눈동자도 신비로운 아름다움이었지만, 특히 턱에 있는 매력점이 어쩐지 시선을 뺏어가는 느낌이었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 모습이 어쩐지 레아는 돌아가신 엄마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확실히 보니타 황후 폐하와 엄마는 생긴 건 별로 닮지 않았지만, 부드럽고 다정한, 따듯한 그 느낌이 비슷했다.

“넌 아직 어린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왜 애들 기를 죽이고 그래? 쌍둥이 풀죽었잖아.”

“파티에서도 이러면 어떡하라고. 레아 황녀가 착해서 다행이지 이게 얼마나 무례한 짓인지 너도 잘 알잖아.”

“하긴. 우리 레아가 좀 착하긴 하지.”

“솔직히 말해봐. 너 레아 황녀가 불쾌해했으면 화냈을 거지?”

“내가 화만 냈겠냐?”

“…무서운 녀석.”

사실 말은 저렇게 해도 레그마인 황제는 아직 어린 쌍둥이 황자님들을 혼내거나 벌을 주지 않았을 것이었다. 대신 쌍둥이 황자님들의 친부인 그라티아 황제의 멱살을 잡고 상큼하게 웃으면서 탈탈 털거나 아니면 어마어마한 것을 갈취하고 뜯어냈을 것이었다. 레그마인 황제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란 걸 잘 알기에 그라티아 황제는 레아 황녀가 착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라티아 황제는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었다. 레아가 지금 착하게 웃고 있어도 한번 열이 받으면 레그마인 황제보다 더하면 더 했을 사람이란 사실은 아직은 상상도 못 하고 있었다.

34.역시 나는 반대야.docx

처음에는 피곤해서 별로 오고 싶지 않기도 했던 자리였지만 막상 와보니 식사자리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서 레아는 생각보다 만족스러웠다.

‘솔직히 밥 먹을 때도 쌍둥이를 상대해야 할 줄 알고 조금 긴장했었는데. 계속 라이 경하고만 대화하고 있네.’

아까 레아한테 덥석 안겼다가 꾸지람을 들어서 그런지 쌍둥이 황자님들은 컵케이크를 만들었을 때처럼 레아에게 딱 달라붙지 않았다. 그 대신 라이 경의 옆으로 가 두 눈을 초롱초롱 빛내며 대화를 하고 있었다.

“까만 경. 까만 경은 왜 머리랑 눈동자가 까만색이에요?”

“제 아버지께서도 검은 머리카락과 검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갈색 머리카락과 검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으십니다.”

“까만 경. 까만 경도 레아 누나처럼 옛날에 케이크 만들어서 팔았었어요? 그래서 예쁘게 잘 만들어요?”

“저도 오늘 처음 만들어보았습니다. 예쁘게 잘 만든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와. 우리처럼 처음이었어요? 까만 경 대단해요!”

“까만 경은 공주님을 지켜주는 기사님이잖아. 대단한 거는 당연한 거야. 멋있어!”

과연 라이 경이 애들을 잘 봐줄지 좀 걱정이었는데 저쪽도 나름대로 분위기가 괜찮은 거 같았다. 레아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레아 황녀님. 음식은 입에 좀 맞으시나요?”

“아, 네. 음식들이 다 너무 맛있어서 더 먹지 못하는 게 아쉬울 지경이에요. 맛있어요.”

“후후. 귀여운 칭찬이군요. 감사해요.”

레아는 부드럽게 웃는 보니타 황후 폐하를 따라 웃었다. 레아도 황후 폐하께 호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보니타 황후 폐하 역시 레아를 귀엽게 보고 있으신 것 같았다.

“오늘 호위기사님이랑 같이 쌍둥이를 데리고 놀아주고 컵케이크도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도 오랜만이라서 재밌었어요.”

“크레와 트레가 갑자기 찾아가서 많이 놀라셨죠? 첫날은 피곤하실 테니 찾아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레아 황녀님을 너무 뵙고 싶어 하더니 결국 못 참고 몰래 찾아가서 저희도 많이 놀랐답니다.”

“황자님들이 저를요?”

“네. 다닐로만 제국으로 초대장을 보냈을 때부터 아이들이 꼭 뵙고 싶어 했어요.”

단순히 쌍둥이들의 아빠인 그라티아 황제 폐하와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친분이 있어서 그랬던 걸까? 아직 어린 쌍둥이가 첫 파티 때 레아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알고 있을 리가 없으니 딱히 보고 싶어 할 이유는 없을 거 같은데. 그런데 보니타 황후 폐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약간 의외의 말이었다.

“쌍둥이가 동화책을 좋아해서 항상 아름다운 공주님에 대한 환상이 있었거든요. 특히 본인들은 여자 형제가 없어서 로망도 조금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아, 그래서 그때….”

처음 쌍둥이가 방문을 두드리고 레아를 보고 공주님이냐고 물어봤던 게 생각이 났다. 그런데 세상에 황녀가 레아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었고 곧 열릴 파티에서는 다른 황녀님들도 잔뜩 모일 건데 굳이 레아를 만나고 싶어 했다는 게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러자 보니타 황후 폐하께서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레아 황녀님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귀엽고 깜찍하시면서 사랑스럽고 똑똑하고 착한데 멋있기까지 한 완벽하신 분이라고요.”

“아…. 아빠가……그런 말을…하셨군요….”

“그 말을 듣고 쌍둥이가 레아 황녀님을 뵙길 많이 기대했답니다.”

“……창피하네요.”

“틀린 말씀 하신 것도 아닌데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레아 황녀님.”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니타 황후 폐하께서는 다정하게 웃으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시고 있었지만, 레아는 창피해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마음이었다. 자꾸 얼굴이 화끈거리고 레아는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을 아빠가 원망스러워졌다.

‘그래. 그라티아 황제 폐하와는 친하시니까. 친하니까 그렇게 말 하신 거겠지. 설마 모든 제국에 그렇게 말 하셨겠어? 아무리 우리 아빠라도 설마 그러셨을 리가 없지.’

레그마인 황제 폐하라면 충분히 그 설마가 사람 잡을지도 모르는 것이었지만, 레아는 마지막 희망으로라도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렇지 않으면 파티고 뭐고 그냥 다닐로만 제국으로 바로 도망가버릴 거 같았다.

“레아 황녀님.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물어봐도 될까요?”

“아, 네. 괜찮아요.”

“지금은 좀 그렇고 식사 끝나고 같이 차 한잔 어떠세요? 호위기사 분도 같이요.”

“라이 경도 같이요?”

“네. 괜찮으시다면 루멘도 황녀님께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좋아요! 라이 경에게도 말해둘게요.”

황후 폐하께서 왜 굳이 라이 경도 같이 부르시는 건진 모르겠지만, 셋째 황자님을 소개해주겠다는 말에 레아는 냉큼 고개를 끄덕였다. 쌍둥이도 저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이제 태어난 지 100일 정도 된 루멘 황자님은 얼마나 치명적인 귀여움을 가지고 있을지 기대가 됐다. 그렇게 레아가 가겠다고 했으니 자연스럽게 라이 경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오늘은 웬일로 아빠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네. 평소 같이 식사할 때는 늘 더 먹으라고 하고 우리 딸은 어쩜 먹는 모습까지도 세상에서 제일 예쁠 수가 있냐며 라이 경한테 절대 반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어쩐지 좀 허전한 거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아쉽다는 건 아니었지만 식사 때마다 늘 듣던 얘기를 듣지 않으니 조금 허전하긴 했다. 그래도 그라티아 황제 폐하와 보니타 황후 폐하 앞에서 그런 말을 하셨다면 레아는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몰랐을 것이었다. 레아는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보는 눈이 많으니 그런 부끄러운 말은 안 하시는구나 하고 가볍게 여기기로 했다. 하지만 그런 가벼운 생각과는 달리 레그마인 황제는 나름대로 꽤 심각한 생각을 하는 중이었다.

‘만약 레아가 정말 라이 경을 의지하고 있는 거라면…. 나중에 정말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게 돼서 결혼이라도 하겠다고 한다면…난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레그마인 황제는 상대가 누구든 레아가 연애한다거나 결혼한다고 하면 아빠로서 적극적으로 반대할 생각이었다. 죽을 때까지 레아의 옆에 다른 남자가 있는 건 용납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까 그라티아 황제가 한 말은 레그마인 황제에게 충격적이기까지 했다. 언제까지고 품 안의 자식으로 키울 수는 없다니. 그 말이 꼭 언젠가는 레아가 나비처럼 날아갈 수 있게 놓아줘야 한다는 말처럼 들렸다.

‘아리샤처럼 레아도 떠나보낼 순 없어. 그땐 내가 어리고 힘이 없어서 아리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허무하게 떠나보냈지만, 레아만큼은 내가 꼭 지켜줘야 해.’

애초에 레그마인 황제는 아빠로서 레아를 지켜주기 위해 딸을 황궁으로 데리고 와서 황녀라는 자리에 앉힌 것이었다.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 레아를 옆에 두고 그동안 주지 못했던 사랑을 아낌없이 퍼부어주고 지켜주는 게 자신이 갈 수 없는 곳으로 떠나버린 아리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중에 레아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 사람이 라이 경이라고 해도 절대 응원해줄 순 없지만 이젠 대놓고 반대도 못 하겠어.’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에 빠진다는 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그 누구보다 레그마인 황제가 잘 알고 있었다. 그게 마음대로 되는 일이었다면 레그마인 황제와 아리샤도 서로 사랑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그 누구에게도 축복받지 못할 시리도록 아픈 사랑이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런데도 레그마인 황제는 아직도 아리샤를 놓지 못하고 있었다. 아마 자신을 쏙 빼닮은 레아라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을 놓지 못할 것이었다. 아니, 그 사람이 떠나도 놓지 못할 것이었다. 자신의 바보 같은 면도 닮은 딸의 모습을 레그마인 황제는 지켜볼 자신이 없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멀쩡하더니 왜 또 갑자기 심각해졌어? 혹시 맛이 없어서 그래?”

“아니. 음식은 맛있어. 레아도 잘 먹고 있고.”

“그럼 표정이 왜 그런데?”

“그냥 라이 경이랑 같은 식탁에 앉아있으니까 기분이 이상해서. 레아 바로 옆에 앉은 모습을 보니까 좀….”

“너 설마 아직도 아까 한 얘기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맞아. 잊고 있었는데 같이 앉아있는 거 보니까 문득 그 생각이 나네. 지금은 호위기사로서 앉아있는 걸 아는데도 말이야.”

만약 레아가 정말 라이 경에게 반하고 둘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다면 가족으로서 같은 식탁에 앉게 될 것이었다. 그 모습을 상상하자 레그마인 황제는 자연스럽게 표정을 구겼다.

“왜 또 표정을 구겨?”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안 되겠어.”

“뭐가?”

“절대 안 줘. 못 줘. 어딜 감히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엽고 깜찍한데 똑똑하기까지 한 내 딸을 탐내.”

“…뭐라는 거야.”

그라티아 황제의 말에 잠깐 흔들려서 레그마인 황제는 답지 못 한 생각을 해버렸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레그마인 황제를 보며 그라티아 황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레아. 잘 먹네. 맛있니?”

“네. 다닐로만 황궁에서 먹는 음식이랑은 느낌이 다른데 이것도 너무 맛있어요.”

“역시 우리 딸은 편식도 안 해. 먹는 것도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귀엽게 먹는구나. 아빠 것도 먹을래?”

“………네?”

“레아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소중한 아이야. 내 보물.”

오늘은 좀 평범하게 저녁 식사를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시 평소대로 돌아온 레그마인 황제는 레아에게 늘 그랬듯 칭찬을 퍼부었다. 새삼스러운 것도 없는 말이었지만, 기습적으로 듣게 되자 레아는 놀라서 들고 있던 포크를 뚝 떨어뜨렸다.

그 모습을 보고 보니타 황후는 귀엽다는 듯이 웃었고 그라티아 황제도 피식 웃었다. 라이 경이야 익숙한 일이기에 별다른 반응이 없었지만, 쌍둥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라이 경에게 물었다.

“까만 경. 레아 누나가 이상해요. 밥 잘 먹다가 포크를 떨어뜨렸어요. 왜 그래요?”

“혹시 레아 누나가 먹은 음식에 독이라도 들어있던 거 아니에요? 그럼 누나 죽어요?”

“아뇨. 레아 황녀님의 목숨은 아직 멀쩡하십니다.”

“그럼 레아 누나 왜 저래요? 꼭 갑자기 찬물 뒤집어쓴 사람 같아.”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칭찬으로 혼내주셔서 그렇습니다.”

“칭찬으로 혼을 내?”

쌍둥이는 칭찬으로 혼을 낸다는 말이 이해가 전혀 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라이 경의 말대로 레아는 아빠에게 칭찬으로 혼이 난 기분이었다. 이러다 파티 때는 칭찬으로 공개 처형당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었다.

\*\*\*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는 레아 황녀님을 참 예뻐하시는 거 같아요.”

“하하. 네….”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도 레아 황녀님처럼 귀여운 딸이 있었다면 분명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까 말했던 대로 레아는 라이 경과 함께 보니타 황후 폐하와 차를 마시는 중이었다. 사실 차를 마시는 건 황후 폐하와 레아였고 라이 경은 레아의 뒤에 서 있었다.

“라이 경도 거기 서 있지 말고 앉아서 같이 차를 마시면 좋을 텐데. 레아 황녀님 옆에 앉으시는 건 어떠세요?”

“아뇨. 저는 서 있는 게 더 편합니다.”

“그래요? 아쉽네요.”

보니타 황후 폐하께서 아무리 아쉬워하셔도 라이 경도 이건 어쩔 수 없었다. 식사 후 세 사람이 따로 차를 마신다는 얘기에 라이 경을 죽일 듯이 째려보았던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고 눈빛으로 목숨의 위협을 받은 라이 경은 의식하고 일부러 레아 황녀님과 거리를 두는 중이었다. 레아도 그 사실을 알기에 민망해하며 웃음으로 넘길 수밖에 없었다.

‘정말 우리 아빠지만…어디 같이 다니기 부끄러운 아빠라니까.’

다닐로만 제국에서만 그러시는 건 괜찮을지 몰라도 앙겔루스 제국에 와서도 이러시니 레아는 평소에 2배는 더 창피하고 부끄러웠다. 그래도 그 광경을 보고도 밥맛 안 떨어지고 귀엽게 봐주시는 보니타 황후 폐하와 그라티아 황제 폐하께 감사할 따름이었다.

“아까도 말했지만, 쌍둥이랑 같이 케이크도 만들어주고 놀아줘서 고마워요. 애들이 레아 황녀님과 라이 경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계속 황녀님과 라이 경 이야기만 하는 거 있죠?”

“그런가요? 황자님들이 좋아해 주시니 저도 기쁘네요.”

“네. 꼭 동화책에 나오는 멋진 기사님과 동화책보다 더 멋진 공주님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두 분을 만나보고 싶었고 궁금한 게 생겨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쌍둥이 황자님들이 과연 무슨 얘기를 했길래 황후 폐하께서 레아와 라이 경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다는 건지 조금 불안해졌다. 그래도 쌍둥이 황자님들에게 별로 이상한 얘기를 해준 적은 없으니 레아는 괜찮을 거로 생각하며 차를 한 모금 마시려고 했다.

“음. 이거 혹시 실례가 되는 질문일지도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혹시 레아 황녀님과 라이 경은 연인 사이이신가요?”

“…풉!”

“어머. 레아 황녀님. 괜찮으세요?”

“네, 네. 괜찮아요.”

쌍둥이 황자님들에게 절대 그런 사이 아니라고 잘 설명해줬는데 보니타 황후 폐하의 입에서 지겨울 정도로 익숙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질문이 나오자 레아는 마시려던 차를 뿜어버릴 뻔했다. 레아의 격한 반응에 보니타 황후 폐하는 놀라신 것 같았고 라이 경은 조용히 레아에게 손수건을 건네주었다. 레아는 라이 경이 준 손수건으로 황급히 입 주변을 닦았다.

“미안해요. 애들이 두 분이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는 둥 곧 두 분 사이에 아이가 생길 거라는 둥 그런 소리를 해서 혹시 레그마인 황제 폐하 몰래 사귀시는 건가 생각을 해서 물어본 거였어요. 놀라게 했다면 미안해요.”

“아, 아니에요. 근데 왜 쌍둥이 황자님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애들이 그렇게 말하고 다녀서 전 당연히 두 분이 그런 사이인 줄 알고….”

“황후 폐하께서 미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직 어린 애들이니까 착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해요. 역시 레아 황녀님은 다정하신 분이시군요.”

까딱 잘못했다간 또 남의 집 멀쩡한 아들 혼삿길 제대로 막을 뻔했다. 레아는 속으로 쌍둥이가 파티에서 이 얘기를 떠들고 다니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으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뒤에서 라이 경은 묵묵하게 가만히 서 있었다.

35.너도 할 수 있어.docx

레아는 보니타 황후 폐하께 왜 쌍둥이 황자님들이 그런 오해를 한 건지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보니타 황후 폐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동화책에서는 항상 공주님은 왕자님이나 멋진 기사님과 사랑에 빠지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분명 그런 사이 아니라고 설명해줬는데….”

“레아 황녀님도 힘드시겠어요. 황녀님도 아름다우신데 호위기사님까지 너무 잘생겨서 생기는 고충이라 어디 가서 힘들다고 말할 수도 없을 거 같아요.”

“힘들다고 해봤자 복에 겨운 소리 한다고 하겠죠?”

실제로 라이 경은 여자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많았고 한 번이라도 그의 시선을 받아보는 게 소원이라던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그런 라이 경이 호위기사라서 힘들다고 하면 화를 내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래서 가끔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는 게 제 잘못인가 싶기도 해요. 제가 그런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했나 싶기도 하고.”

“음. 두 분을 오랜 시간 지켜본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레아 황녀님과 라이 경이 너무 멋지고 좋은 사람들이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는 걸 거예요.”

신분, 재력, 출중한 외모까지 모두 가진 젊은 남녀가 온종일 붙어있으니 정이 들 것이란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황녀나 귀족 영애들이 호위기사와 연애하는 일도 꽤 자주 있었다.

‘그리고 이건 비밀이지만 내 첫사랑도 내 호위기사였던 걸.’

짝사랑으로 끝나긴 했지만, 대공의 막내딸이었던 보니타 황후의 첫사랑도 자신의 호위기사였다. 그러고 보니 그때 보니타 황후의 나이도 지금의 레아와 똑같은 16살이었다.

“아마 레아 황녀님이나 라이 경에게 연인이 생긴다면 그런 소문도 쏙 들어갈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받지 마세요.”

“하하. 그럼 저도 라이 경의 아버지이신 피에르 시종장님처럼 라이 경이 빨리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길 바라야겠네요.”

“왜요? 레아 황녀님은 연애하실 마음이 없으신가요?”

“없다기보단…포기했어요. 전 황제 폐하의 사생아에 엄마는 시녀였고 쭉 평민으로 살았잖아요. 솔직히 이런 날 누가 좋아해 주겠어요.”

다들 겉으로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배경 같은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막상 이런 복잡한 가정사를 가진 레아를 진심으로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었다. 설령 진심으로 사랑을 주는 남자가 있다고 한들 자기 아들을 자신에게 장가보내고 싶어 하는 부모는 없을 것이라고 레아는 생각했다.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레아는 자신이 상처받기 전에 먼저 선을 그어버리고 막아버린 것이었다.

“황제 폐하의 사생아에 엄마가 시녀였고 평민으로 살았어도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레아 황녀님은 다닐로만 제국의 황녀님이시잖아요. 과거 같은 건 절대 사랑의 걸림돌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들 위로해준다고 말은 그렇게 해주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전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현실적으로도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증거로 저도 그라티아 황제 폐하와 결혼해서 아들 셋 낳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잖아요.”

“보니타 황후 폐하께서는 대공 가문의 막내딸 아니셨나요?”

분명 앙겔루스 제국에 오기 전에 열심히 벼락치기 할 때 보니타 황후 폐하께서는 대공의 막내딸이라고 배웠었고 그래서 그라티아 황제 폐하를 만나 결혼한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보니타 황후 폐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으며 레아에게 놀랄만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사실 전 제 부모도 누군지 모르고 15살 때까지 고아로 살았어요. 그러다 대공의 막내딸로 뒤늦게 입양이 돼서 소공녀로 살 수 있었지만, 대공은 저를 키워서 자기 아들과 결혼시킬 생각으로 절 입양한 거였어요. 하지만 황실에서 열린 파티에서 처음 만난 그라티아 황제 폐하와 전 사랑에 빠졌고 결혼까지 할 수 있었던 거랍니다.”

“정, 정말요?”

“네. 솔직히 그 과정이 마냥 순탄했다고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이런 저도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레아 황녀님께서 사랑을 포기하실 이유는 하나도 없으세요.”

“우와….”

레아의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단순히 위로해준다고 헛된 희망을 심어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이 더 힘든 상황을 극복해봤기에 할 수 있는 조언이었다.

전혀 상상도 못 했던 보니타 황후 폐하의 과거 이야기에 레아는 놀란 토끼 같은 얼굴을 했다. 라이 경 역시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기 때문에 전혀 티는 나지 않았지만, 놀라고 있었고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보니타 황후 폐하께서는 귀엽다고 생각하며 잔잔하게 미소 지으셨다.

“사실 아는 사람이 몇 없는 이야기에요. 레아 황녀님과 라이 경도 그냥 속으로 알고만 있어 주세요. 후후.”

“아, 네….”

이렇게 아름답고 우아하신 황후 폐하께 그런 과거가 있었을 줄이야. 레아는 갑자기 훅 들어온 진실에 조금 얼떨떨했다. 그리고 문득 호기심이 생겼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그라티아 황제 폐하와 어떻게 결혼까지 하시게 된 건지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좋아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나중에 레아 황녀님이 누군가를 만나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된다면 꼭 저한테도 어떻게 된 건지 말해줘야 해요. 알았죠?”

“하하. 네. 꼭 얘기할게요.”

사실 아직도 레아는 자신도 남들처럼 연애하고 결혼할 수 있을 거란 확신은 없었다. 하지만 보니타 황후 폐하와 그라티아 황제 폐하의 러브스토리를 듣고 난 후에는 그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그라티아 황제 폐하는 황실에서 열린 파티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때 저는 레아 황녀님처럼 아무도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줄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설령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아무도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지 않을 거라고요. 난 고아에 고귀한 태생도 아니니까 그게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다 포기했었어요. 근데 그런 저에게 다가와 준 게 그라티아 황제 폐하였어요.”

그 당시 보니타 황후 폐하께 그라티아 황제 폐하의 첫인상은 완전히 최악이었다. 첫 만남부터 윙크를 날리고 첫눈에 반했다며 시시껄렁한 말을 내뱉는데 정말 황족만 아니었으면 상대도 하고 싶지 않을 정도였다. 그 정도로 보니타 황후 폐하께서는 그라티아 황제 폐하께 조금의 관심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라티아 황제 폐하께서는 첫눈에 반해버린 보니타 황후 폐하께 계속 자신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냈고 파티에서 만날 때마다 황후 폐하께 사랑을 고백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보니타 황후 폐하께서는 그라티아 황제 폐하의 마음을 조금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라는 궁금증 정도는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고귀한 신분으로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리고 살았을 텐데 나같이 고아로 늘 부족하게 살았던 여자를 좋아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일종의 자격지심이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그라티아 황제 폐하께서는 그런 못난 저에게 1년 동안이나 좋아한다고 말해주셨어요. 대단하죠?”

1년이란 긴 시간 동안 답이 없는 사람에게 꾸준히 사랑을 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라티아 황제 폐하의 변하지 않는 진심에 보니타 황후 폐하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실 저는 한 번도 그라티아 황제 폐하께 거절의 뜻을 밝힌 적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자격지심과 그의 진심이 무서워서 먼저 선을 그어버린 것도 제가 그 사람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의심하고 겁을 먹어버렸던 거였어요. 바보처럼.”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라티아 황제 폐하의 마음도 보니타 황후 폐하께서는 두려웠던 것이었다. 하지만 식지 않는 그의 사랑에 보니타 황후 폐하께서는 자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그라티아 황제 폐하께 고백했다.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은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니 이런 자신에게 마음을 주지 말고 좀 더 그라티아 황제 폐하께 어울리는 멋진 여자를 만나라는 말이었다. 그런데 그라티아 황제 폐하께서는 활짝 웃으셨다고 했다.

“활짝 웃으면서 그래도 괜찮다고 해줬어요. 나를 좋아했던 이유는 내가 표면적으로 대공의 막내딸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나라서. 나니까 좋아하고 사랑하게 된 거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되니 그저 옆에만 있어 달라고 했어요. 자기는 그거 하나면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라티아 황제 폐하를 제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때부터 전 그 남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소공녀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게 시간도 쓰지 말고 돈도 쓰지 말아요.

그냥 내 옆에 있어 주기만 하면 돼요.

난 정말 그거 하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곁에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멋진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와 마주하고 있는 당신이에요. 난 앞으로 당신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싶어요.

진심이 가득 담긴 그라티아 황제 폐하의 고백에 보니타 황후 폐하께서는 이 남자에게 모든 걸 주기로 마음먹었고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은 시작된 것이었다. 물론 그 뒤로도 몇 번의 위기가 오기는 했지만, 그 무엇도 끈끈한 사랑의 힘을 이길 순 없었다.

“그렇게 전 예쁜 세 아이의 엄마가 될 수 있었어요. 이런 저도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났는데 저보다 훨씬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신 레아 황녀님은 분명 그라티아 황제 폐하보다 더 멋지고 좋은 사람 만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황후 폐하….”

“그러니까 너무 겁먹고 미리 선 긋지 마세요. 사람 일이란 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상처받기 싫어서 그냥 미리 다 포기하고 선을 그었던 건데. 다정하고 따듯하게 마음을 만져주는 위로 같은 보니타 황후 폐하의 말씀과 자상한 미소를 보며 이제 레아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이란 게 생겼다. 사실 16살이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포기했다가 다시 희망이 생긴 것 같다는 말도 좀 우습긴 했지만, 레아는 정말 그랬다. 결혼보다는 누군가에게 또 다른 의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쁜 것 같기도 했다.

‘솔직히 태어나서 남자랑 연애 한 번도 못 해보고 가는 건 좀 억울하잖아. 나도 평범하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받아보고 싶단 말이야.’

이미 레아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많았지만, 이건 좀 다른 이야기였다. 짜릿한 연애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었지만 레아에게도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소망은 있었다.

‘정말 감사하고 소중했던 추억들이 많지만, 언제나 내 가정은 안정적이지 않았으니까.’

어릴 때는 아빠 없이 자랐고 어느 정도 자란 후에는 아빠를 만나 알고 싶지 않았던 출생의 비밀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래도 늘 사랑받았고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았지만, 레아는 항상 그 행복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워낙 밝고 씩씩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만, 레아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불안함이 있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행복한 평범한 가정을 늘 동경하고 이루고 싶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것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니 레아는 마음이 편안해졌다.

“제가 황후 폐하처럼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그 무엇보다 날 아껴주는 남자를 만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런 사람 만날 수 있게 저도 노력할게요. 이야기해주셔서 감사해요.”

“레아 황녀님이라면 꼭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이미 만났을지도 모르고요.”

레아 황녀님처럼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소녀가 인기가 없을 리가 없었다. 아직 본인은 모르고 있겠지만, 분명 다닐로만 제국의 영식 중 레아 황녀님께 흑심을 품은 남자가 한둘이 아닐 것이었다. 그리고 저 뒤에 서 있는 호위기사도 그 비슷한 마음일지도 모를 일이었다.

‘영애들이 호위기사들을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호위기사들이 영애들에게 반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라이 경은 레아 황녀님이 싫지 않은 눈치인데?’

레아 황녀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연애나 결혼을 포기한 상태였으니 아직 마음이 있다, 없다 할 수는 없겠지만 라이 경은 아주 마음이 없는 것 같지는 않았다. 아까 두 사람의 사이를 오해했을 때 보인 반응을 보며 보니타 황후는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뭐, 아직 저쪽도 호감이라고 부를 정도는 아닌 것 같았지만 그렇다고 또 싫은 눈치는 아니었다는 건 분명했다. 뭔가 아직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사이인 거 같아서 조금은 재밌어 보이기도 했다.

“레아 황녀님. 저는 이제 셋째 황자인 루멘을 보러 가야 하는데 괜찮으시면 황녀님도 같이 가시겠어요?”

“네! 근데 이제 100일 정도 되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가도 괜찮을까요?”

“그럼 당연히 괜찮죠. 그럼 라이 경도 같이 가도록 해요.”

“알겠습니다.”

보니타 황후 폐하의 말씀에 라이 경은 짧게 대답을 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레아는 이제 막 100일 정도 된 루멘 황자님을 만나러 아기방으로 가게 되었다.

‘세상에. 내가 아기를 보러 가고 있다니. 그것도 꼬맹이들이 아닌 진짜 아기를…!’

아기를 만나기 전 깨끗이 손을 씻으면서 레아는 떨리면서도 조금 설레는 간질간질한 마음이었다. 크레 황자나 트레 황자처럼 어린 꼬마들도 레아에겐 처음이었지만, 정말 아기를 만나는 것 또한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그런 레아를 보며 라이 경은 좋아하는 소년을 만나러 가는 소녀도 아니고 왜 저렇게 설레하시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보니티 황후 폐하께서는 그 모습도 귀엽다는 듯이 웃으셨다.

“보니타 황후 폐하와 레아 더 다닐로만 황녀님을 뵙습니다.”

“루멘은 아직 자나요?”

“아뇨. 방금 깨셔서 저녁을 드시고 지금은 놀고 있으세요.”

“잘됐네요. 레아 황녀님.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

“아, 네!”

한 발자국 떨어져서 멀뚱멀뚱 구경만 하던 레아는 엉거주춤 보니타 황후 폐하 쪽으로 다가갔다. 레아가 옆으로 오자 보니타 황후 폐하께서는 아기침대에서 놀고 있던 루멘을 안으셨고 루멘 황자의 얼굴을 본 레아는 눈이 커다래졌다.

“우와아…!”

밤하늘처럼 까만 머리카락에 꼭 에메랄드를 박아놓은 것처럼 반짝이는 초록색 눈동자를 보자 레아는 자신도 모르게 감탄을 해버렸다. 쌍둥이 황자님들도 참으로 귀엽고 사랑스러웠지만, 이 아기 황자님은 그 이상으로 귀여웠다! 진짜 미치도록 귀여웠다!

“레아 황녀님. 루멘의 손에 손가락을 올려보시겠어요?”

“손가락이요?”

갑자기 손가락은 왜 올려보라는 거지? 레아는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일단 루멘 황자님의 장난감 같은 작은 손바닥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그러자 루멘 황자는 그 조막만 한 손으로 그 손가락을 꽉 움켜잡았고 레아를 보며 방긋 웃었다.

“………!”

“황녀님을 보고 웃네요. 루멘은 레아 황녀님이 좋은가 봐요.”

“아아….”

자신을 보며 천사처럼 방긋 웃는 아기의 얼굴이라니. 레아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입을 틀어막았다. 귀여워서, 너무 귀여워서 코피가 터질 것 같았다. 그리고 그런 레아 황녀님을 보며 라이 경은 순간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모습이 떠올랐다. 자신의 딸을 보며 찬양에 가까운 주접을 떠는 황제 폐하의 모습과 방금 감격하는 레아 황녀님의 모습이 순간 겹쳐 보였다.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한 걸까. 레아 황녀님도 나중에 딸을 낳으시면 엄청난 딸바보 엄마가 되시겠군.’

36.까만 머리 초록 눈.docx

보기만 해도 저절로 미소가 나오게 만드는 쌍둥이 황자님들. 그리고 방긋 웃는 얼굴 하나로 레아의 심장을 조지고 부수는 아기 황자님. 그 귀엽고 사랑스러운 세 황자님들을 보고 레아는 한가지 깨달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

‘나는 애들을 좋아하는구나. 그것도 몹시 귀엽고 사랑스러운 애들을 무지하게 좋아하고 있어!’

솔직히 첫 번째 파티 이후 레아는 자신이 애들을 싫어한다고 생각했다. 위즈덤 부인의 아들과 딸을 생각만 해도 레아는 저절로 표정이 구겨졌고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다.

아, 나는 애들을 싫어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분명 그랬는데…!

“원래 낯가리는 편도 아니지만 이렇게 방긋방긋 웃는 모습은 저도 처음 봐요. 신기해라.”

“세상에….”

“레아 황녀님. 한번 직접 안아보시겠어요?”

“네, 네? 제가요?”

한번 직접 안아보겠냐는 보니타 황후 폐하의 질문에 레아는 화들짝 놀랐다. 아기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도 처음인데 안아본 적이 있을 리가 없었다. 생각만 해도 긴장이 되고 떨리는 일이었다.

“그렇게 긴장 안 하셔도 돼요. 자, 안아보세요.”

“네, 네…!”

남의 집 아들을 이렇게 덥석덥석 안아도 되는 걸까. 하지만 무슨 생각을 하기도 전에 보니타 황후 폐하께서는 루멘 황자님을 레아에게 안겨주었고 그렇게 레아는 마음의 준비를 할 틈도 없이 처음으로 아기를 안게 되었다.

‘세상에 내가 아기를 안았어…! 생각보다 더 부드럽고 따듯하다. 좋은 냄새도 나는 거 같아. 근데 나 아기 안아보는 거 태어나서 처음인데 괜찮은가? 혹시 어디 불편한 건 아니겠지?’

처음 안아보는 거라서 레아의 머릿속은 오만가지의 생각과 걱정이 정신없이 뒤섞였다. 하지만 루멘 황자님은 방긋방긋 웃으면서 신기한 듯 레아의 얼굴을 만지고 있었다. 다행히 불편한 것 같지는 않았다.

“라이 경. 이것 봐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네. 귀여우십니다.”

“어쩜. 손도 발도 너무 작아요.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있지? 진짜 예뻐요!”

“아직 아기시니까 손과 발이 작으신 건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이 눈동자. 이 초록색 눈동자 너무 예쁘지 않아요? 꼭 에메랄드를 박아놓은 것 같아요. 보석처럼 반짝반짝.”

“……….”

혹시 저거 자화자찬인가. 자신도 똑같이 에메랄드를 박아넣은 것처럼 반짝이는 보석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루멘 황자님의 눈동자를 칭찬하고 있는 레아 황녀님을 보며 라이 경은 조용히 생각했다.

‘역시 레아 황녀님은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친딸이시구나.’

루멘 황자님의 귀여움과 사랑스러움에 감동해서 예뻐 죽겠다는 눈빛을 보내고 있는 레아 황녀님을 보고 있자니 꼭 딸에게 극찬을 아끼지 않는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모습이 떠올랐다. 역시 부녀는 참 많이 닮아 있었다.

“라이 경. 경도 한번 안아보겠어요?”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왜요? 라이 경도 한번 안아봐요. 루멘 황자님 너무 귀여워요!”

“아뇨. 저는….”

거절하려고 했다. 하지만 딱 거절하려는 순간 라이 경은 루멘 황자님과 눈이 마주쳤고 그 초롱초롱한 눈동자를 보자 차마 거절의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에메랄드 같은 초록색 눈동자 4개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라이 경은 기분이 좀 이상했다. 거기다 루멘 황자님은 자신과 똑같은 검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다. 아직 아기라서 머리카락이 별로 없었긴 했지만….

레아 황녀님처럼 에메랄드빛 눈동자를 가지고 있고 자신처럼 밤하늘 색 머리카락을 가진 아이. 라이 경은 그렇게 생각하니 기분이 더 이상해졌다.

“그럼 한 번만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라이 경처럼 멋진 기사님이 안아주신다면 루멘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졌기 때문일까. 아까 거절하려고 했던 것과 달리 라이 경은 루멘 황자님을 한번 안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니타 황후 폐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안아보라고 말씀해주시자 레아는 활짝 웃으며 안고 있던 루멘 황자님을 라이 경에게 안겨주었다. 라이 경 역시 아기를 안아보는 건 처음이기에 조심스럽게 살살 황자님을 안아보았다.

근데 아까까지만 해도 레아의 품에 안겨서 방긋방긋 잘만 웃던 루멘 황자님은 라이 경에게 안기자마자 얼굴을 팍 찌푸렸다. 그리곤 갑자기 큰 소리로 울어버리기 시작했다.

“우에에에에에엥!”

“어, 어? 아까까지만 해도 방긋방긋 잘 웃었는데?”

“우에에에에엥!”

“어떡해. 라이 경. 빨리 달래봐요!”

“우에에엥! 흐에에에엥!”

“……….”

“으에에에엥!”

갑자기 서럽게 우는 아기 때문에 레아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덩달아 라이 경도 놀라서 얼어붙었다. 반면 보니타 황후는 놀라거나 당황하진 않았고 의아함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상하다. 루멘은 순해서 잘 울지도 않고 울어도 금방 그치는 편인데. 아까 레아 황녀님이 안으셨을 때처럼 방긋방긋 웃는 것도 처음이었지만, 이렇게 크게 우는 것도 처음이야. 흐음. 왜 그런 거지?’

방금 저녁을 먹었다니 배가 고픈 것도 아닐 거고 아래쪽도 아직 뽀송뽀송한 게 기저귀 문제도 아닌 거 같았다. 또 그렇다고 잠이 오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았다.

‘혹시 루멘은 라이 경이 싫은 건가?’

뭐…잘생기긴 했지만, 확실히 날카롭고 차가운 인상이니까. 이제 겨우 100일 정도 된 아기의 눈에는 무서워 보이는 것도 어쩌면 당연할지도 몰랐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허둥거리는 레아 황녀님과 빳빳하게 굳어버린 라이 경이 우는 아기를 달래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았다. 유모는 재빨리 라이 경의 품에 있던 루멘 황자님을 받아안고 능숙하게 우는 황자님을 달랬고 방금까지 세상 서럽게 울던 루멘 황자님은 차츰 울음을 멈추고 조금씩 진정이 되는 것 같았다.

레아는 그런 모습이 또 신기하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고 라이 경은 아직도 자신이 안자마자 황자님이 울음을 터트렸단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보니타 황후는 자신도 모르게 풉 하고 웃음이 나와버렸다.

‘레아 황녀님을 보고 있으면 꼭 내 옛날 모습을 보고 있는 거 같아. 그리고 라이 경은 꼭 내 첫사랑 기사님을 보는 거 같고.’

과연 두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 비록 자신의 첫사랑은 이제 그저 풋풋하고 예뻤던 빛바랜 추억 정도로 남았지만, 예쁘고 귀여운 두 사람의 미래는 조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보니타 황후는 살며시 기대해보았다.

그렇게 레아는 아가 황자님의 귀여움과 자신의 손가락을 그 조그마한 손으로 꽉 움켜쥐고 품에 안기고서도 울기는커녕 사랑스럽게 방긋방긋 웃어주는 얼굴에 반해 계속 루멘 황자님의 곁에 있고 싶어 했으나…. 이제 황녀님도 잘 시간이라며 라이 경이 질질 끌고 나오는 바람에 아쉬운 이별을 해야만 했다. 일찍 일찍 자야지 키도 크고 내일 파티 때도 덜 피곤할 거라며 라이 경은 친절히 레아를 방까지 데려다주고 문까지 닫아주었다.

강제로 세상에서 제일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기 황자님과 떨어지게 된 레아는 방으로 돌아와 혼자 잔뜩 심통이 난 얼굴을 했다. 보니타 황후 폐하께서도 루멘 황자님이 잠들 때까지 있어도 된다고 허락해주셨는데! 레아는 자신을 억지로 끌고 온 라이 경이 미워졌다.

‘나빴어. 루멘 황자님이 자기 보고 우니까 빨리 방으로 가고 싶었겠지. 그러면 혼자 가든가 나는 아기 천사의 자는 얼굴을 보고 싶었는데.’

호위기사가 황녀님을 두고 혼자 방으로 돌아가다니. 다른 사람이 들었으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며 충격받을 이야기였지만 레아는 그런 건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았다. 오로지 곤히 잠든 사랑스러운 루멘 황자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게 너무나도 아쉬울 뿐이었고 아쉬움이 클수록 라이 경이 더 미워졌다.

하지만 정확히 파티가 열리는 날 아침. 레아는 왜 라이 경이 자신을 일찍 재우려고 했는지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

아침 일찍부터 자신의 깨우는 시녀들의 손에 이끌려 레아는 강제로 꾸며짐을 당하고 있었다. 분명 파티는 1시에 열린다고 들었는데 레아는 이른 아침부터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앉아 시녀들이 해주는 화장을 얌전히 받고 있었다.

앙겔루스 제국의 시녀들은 황녀님의 시중을 들고 예쁘게 꾸며드리는데 수준급 실력을 갖추고 있었고 그렇기에 머리 모양이나 화장해주는 것도 보통 수준이 아니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예쁘게 꾸미려면 그만큼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야만 했고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은 레아는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진이 빠질 지경이었다.

‘다닐로만 제국에서 시녀들이 계속 다른 드레스를 입어보라고 했던 건 약과였구나. 앞으로는 절대 귀찮아하지 말고 얘기하는 건 다 들어줘야겠다. 보고 싶어….’

레아가 미리 입을 드레스를 정해왔기 때문에 앙겔루스 제국의 시녀들은 레아를 귀찮게 하지는 않았다. 다만 아무 말도 없고 감히 눈도 마주쳐선 안 된다는 마음으로 4시간째 머리와 화장을 해주고 있으니 불편해 죽을 거 같았다.

‘앙겔루스 제국은 다닐로만 제국보다 더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배웠고 그라티아 황제 폐하나 쌍둥이만 봐도 황족은 그런 거 같던데. 시녀들은 오히려 더 칼 같은 느낌이야.’

만약 다닐로만 제국이 이런 분위기였다면 레아는 숨이 막혀서 못 버텼을 것이었다. 레아는 새삼스럽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짧게 한숨을 쉬었다.

“레아 황녀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거울 한번 보시겠습니까?”

“응. 고마워요.”

레아가 고개를 끄덕이자 시녀는 옆으로 비켜 레아가 거울을 볼 수 있게 해주었다. 4시간을 기다린 끝에 처음으로 거울을 본 레아는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나라고? 정말 이게 나야?’

4시간 만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다는 사실에 레아는 거울을 보며 깜짝 놀랐다. 그리고 여자의 화장에 속으면 안 된다는 어른들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뜻을 피부로 와닿게 느끼는 중이었다.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들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이거 진짜 저 맞아요?”

“네. 맞습니다.”

“우와. 세상에. 대박이다. 진짜.”

“……….”

거짓이라곤 하나도 없는 레아의 순수한 반응에 시녀들은 씰룩거리는 입꼬리를 간신히 참고 있었다. 감히 시녀가 다른 제국의 황녀님이 귀엽다면서 웃는 건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사람이 말을 했는데 뭐라고 반응이라도 해주지. 사람 민망하게 아무런 반응도 없네.’

하지만 시녀들의 꺅꺅거리는 소리와 주접에 익숙해져 버린 레아는 오히려 아무런 반응이 없는 앙겔루스 제국의 시녀들을 보며 괜히 좀 머쓱해졌다. 다닐로만 제국의 시녀들처럼 열렬한 반응까진 바라지 않아도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웃어주면 좋을 텐데. 지금 시녀들은 필사적으로 올라오려는 입꼬리를 참고 있다는 걸 알 리가 없는 레아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아닙니다. 그럼….”

여기 더 있다가는 레아 황녀님이 너무 귀여워서 자꾸 꿈틀거리는 입꼬리를 막을 수 없을 것 같았고 절대 다른 제국의 황녀님께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시녀들은 서둘러 방을 나갔다.

“갑자기 또 조용해졌네.”

방금까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아도 시녀들이 있어 조금은 북적북적한 느낌이었는데 시녀들이 다 나가버리자 방은 거짓말처럼 다시 조용해졌다. 레아가 시간을 확인해보니 시계는 어느새 12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파티는 1시부터 시작이었지만 레아는 조금 늦게 파티장으로 갈 생각이었다.

‘괜히 일찍 가봤자 눈에 띌 거 같고 그냥 사람 많을 때 스리슬쩍 합류해서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있다가 와야지.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레아가 황녀가 된 이후로 다른 제국의 황족이 가득한 파티에 참석하는 건 또 처음이었기에 과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번 파티는 나름 소규모라고 하니 레아는 그쪽에 기대를 걸어보기로 했다.

“으음.”

그런데 막상 시간을 보내려고 하니 레아는 크게 할 게 없었다. 여기는 다닐로만 제국의 황궁이 아니니 자유롭게 산책을 하기도 좀 그렇고 가지고 온 책들도 오는 길에 마차에서 다 읽어버리는 바람에 더 읽을 것도 없었다. 사실 레아는 침대에 벌렁 누워 쉬고 싶었지만, 드레스를 입고 화장도 하고 머리까지 했는데 그럴 수 있을 리가 없었다.

“심심한데.”

어제를 쌍둥이 황자님들과 왁자지껄 정신없이 보내서 그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시간을 보내려니 레아는 심심했다. 그래서 차라리 다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좀 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빠 방에 놀러 가볼까.”

하지만 그랬다간 지금 레아의 모습을 보고 또 무슨 저세상 주접을 떨지 그게 좀 불안했다. 파티 전까지 레아는 그런 말을 들어서 피곤해지고 싶진 않았다.

“그럼 라이 경 방으로 가볼까.”

하지만 워낙 평소 말도 없고 조용한 사람이라 가봤자 지금과 다를 건 없을 거 같았다. 그리고 파티 전에 레아가 라이 경 방에 갔다는 걸 혹시라도 아빠가 알게 되신다면…. 안 봐도 결과는 뻔했다.

‘보니타 황후 폐하께서는 나도 충분히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할 수 있다고 말해주셨지만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내 출생의 비밀이나 자라온 환경 때문이 아니라 아빠 때문에.’

정말 아무런 사이도 아닌 라이 경한테도 이렇게 과한 반응을 보이시는데 만약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긴다면 아마 당장 찾아내서 멱살 잡고 우리 딸이랑 헤어지라고 협박하시지 않을까. 왠지 아빠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일 거 같다고 레아는 생각했다.

“결혼…. 남자친구….”

항상 이랬다저랬다 흔들리면서 고민만 해봤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보니타 황후 폐하의 이야기를 듣고 난 지금은 이게 한 번쯤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볼 주제인 거 같기는 했다. 하지만 곧 레아는 아직 너무 이른 얘기라며 그 생각을 지워버렸다.

‘혼자 있고 심심하니까 자꾸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 나 좋다는 남자 하나도 없는데 연애니, 결혼이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안 되겠다. 차라리 옆 방으로 가는 게 낫겠어.’

그렇게 또 한 번 레아는 본의 아니게 다닐로만 제국의 수많은 영식의 마음을 무시해버렸고 방을 나와 옆 방으로 향했다.

37.개소리입니다.docx

옆방 문 앞에 선 레아는 잠시 고민을 했다. 문을 두드릴까 말까. 하지만 고민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었고 레아는 그냥 문을 똑똑 두드렸다.

“아빠. 저예요.”

레아가 문을 두드리며 말하자 정확히 1초도 안 돼서 문이 활짝 열렸고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나오셨다.

“레아! 혹시 아빠 보고 싶어서 온 거야?”

“아뇨. 심심해서요.”

“우리 딸 심심했어? 아빠도 마침 혼자 있었는데 잘 왔어.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어서 안으로 들어와.”

복장을 보니 아빠도 파티에 참석할 준비를 끝내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았다. 이따가 같이 파티장으로 가면 되겠다고 생각하며 레아는 안으로 들어갔고 혹여나 드레스가 구겨질까 봐 조심스럽게 살살 소파에 앉았다. 아빠는 레아의 옆에 앉으며 기분이 아주 좋다는 듯 말했다.

“레아 네가 먼저 아빠를 찾아온 건 처음인 거 알아?”

“그런가요?”

“응. 사실 바빠서 내가 먼저 찾아간 적도 별로 없기는 하지만 우리 딸이 먼저 나를 찾아와주다니. 오늘을 기념일도 만들어야겠어.”

“…농담이시죠?”

“응. 농담. 하지만 우리 딸이 원한다면 진짜로 기념일로 지정해줄 수 있어. 원하면 언제든지 말하렴.”

“아니요. 괜찮아요. 절대 그러지 말아 주세요.”

“하하. 알았어. 근데 레아 오늘 진짜 예쁘다. 내 딸은 원래도 예뻤지만, 오늘은 꼭 오르골 속 작은 인형 같아.”

오르골 속 작은 인형처럼 예쁘다니. 이 정도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레아는 순간 라이 경한테 놀러 갈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야. 차라리 둘이 있을 때 이런 말을 듣는 게 낫지 나중에 파티장에서 다른 제국 황족들 다 있는 자리에서 저런 말을 하시면 진짜 그 자리에서 증발해버리고 싶을 거야.’

그래도 아빠 역시 다닐로만 제국의 황제로서 파티에 참석하시는 거니 설마 그러시진 않을 거라고 믿고는 있었지만, 레아는 언제나 아빠를 100% 믿지 못했다. 특히 이런 부분에서는 더욱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레아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에 눈길을 주었다.

“일하고 있으셨어요?”

“아니. 그냥 읽고 버리면 되는 서류. 심심하면 그걸로 종이비행기 접고 놀아도 돼. 학이나 개구리 접어도 되고.”

“흐응. 한번 읽어봐도 돼요?”

“응. 상관없어. 그런데 재미는 없을 거야.”

정치 쪽에 큰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딱히 나중에 황제가 되고 싶은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읽고 버리는 서류라니 어떤 내용이 적힌 건지 좀 궁금했다. 옛날 같았으면 어차피 봐도 모른다며 볼 생각도 안 했겠지만, 이제는 가스파르 재상에게 수업도 받고 있으니 적어도 이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 같았다.

레아는 그렇게 생각하며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그런데 서류의 내용은 레아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가득했다.

“다른 제국의 황녀들이나 귀족 영애들의 정보가 가득하네요. 아빠가 왜 이런걸….”

“그야 아직 결혼은커녕 약혼자나 애인도 없으니까. 혼담이야 늘 질리도록 들어오는 거라지만 이렇게 정리해서 올라온 걸 보면 아마 밑에 사람들도 내가 결혼하길 바라는 거겠지.”

“아빠가 결혼이요?”

“뭐, 나도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사랑스럽고 멋지고 똑똑하고 당찬 귀여운 딸이 있긴 하지만 아직 총각이니까.”

확실히 아빠는 엄마와 결혼한 사이가 아니었고 현재 약혼자나 애인도 없는 상태였다. 그러니 아무리 딸이 있다고 해도 혼담이 들어오는 건 당연했고 극비정보이긴 했지만, 현재 다닐로만 제국의 황족은 겨우 2명뿐이었으니 황제 폐하의 결혼은 모두가 바라는 일일 것이었다.

‘그럼 나한테도 새엄마가 생기는 건가. 으음. 새엄마. 새엄마라….’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결혼하신다면 황제 폐하의 딸인 레아에게는 새엄마가 생기는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레아는 어쩐지 생각이 좀 복잡해졌다.

‘나는 아빠가 연애한다고 하시거나 결혼한다고 하셔도 그걸 반대할 생각은 없어. 아빠는 아빠의 인생이 있는 건데 아무리 내가 딸이라도 맘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 하지만 나한테 새엄마가 생긴다는 건…솔직히 싫다.’

레아는 돌아가신 엄마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했고 아직도 엄마와의 추억이 머릿속에 생생히 살아있었다. 솔직히 새엄마가 생긴다고 해도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 거 같았다. 이런 마음을 아빠에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레아는 생각이 많아져서 고민했다. 그런데 그 고민이 얼굴에도 다 표가 난 건지 아빠는 그런 딸의 복잡한 얼굴을 보며 피식 웃더니 꿀밤을 콩 때렸다.

“아야!”

“쓸데없이 생각 많고 고민 많은 건 아리샤랑 똑같구나. 아리샤도 하늘이 무너지지 않을까 땅이 꺼지진 않을까 걱정이 참 많았지.”

“하지만….”

“아빠는 결혼할 생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레아와 똑같이 레그마인 황제도 아리샤를 마음이 아플 정도로 사랑했고 아직도 아리샤를 그리워하고 아리샤를 바라보면서 아리샤를 사랑했던 그 찬란했던 기억이 아직 가슴속에 생생히 살아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사랑스러운 딸이 옆에 있는데 결혼 같은 게 하고 싶을 리가 없었다.

“혼담이야 늘 들어왔었지만 이렇게 정리해서 올라온 건 처음이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건 내 결혼보다는 혹시라도 너한테 새엄마가 필요할까 봐 올린 거 같아. 사실 나도 그런 생각으로 보고 있었는데…우리 딸 표정을 보니 이 서류는 역시 그냥 버려야겠네.”

“아니에요. 제 눈치 보실 필요는 없어요.”

“죽을 때까지 나한테 여자는 아리샤 하나야. 그리고 내 아이도 레아 너 하나면 충분해.”

결혼할 생각도 다른 아이를 가질 생각도 없다는 아빠의 말에 안심이 되는 이유는 뭘까. 거짓말처럼 아빠의 그 말에 레아는 마음이 놓이는 기분이었다.

‘나도 참 못됐다. 이제 아빠 나이도 있는데 언제까지고 첫사랑을 붙잡고 있을 순 없는 거잖아. 그런데 안심해버리다니.’

엄마는 아빠와 레아가 갈 수 없는 곳으로 떠나버렸고 그곳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두 사람이 아직은 갈 수 없는 곳이었다. 그러니 이런 생각하는 건 이기적이란 걸 레아도 잘 알고 있었다.

‘나중에 내가 좀 괜찮아지면 그땐 꼭 얘기하자. 나는 아빠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꼭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런 날이 오기는 할까. 솔직히 레아는 자신이 없었다.

“이제 1시 10분이네. 우리도 슬슬 파티장으로 가볼까?”

“라이 경도 같이 가야죠. 이번 파티도 라이 경이 제 파트너잖아요.”

“…난 도대체 언제쯤 우리 딸의 파트너를 해줄 수 있는 걸까.”

“아마 내년에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보통 자신의 생일 때 열리는 파티에서는 누군가의 파트너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 건 누가 정한 거야?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가을에 열리는 파티는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탄생일을 축하하는 파티였다. 그러니 주인공인 황제가 누군가의 파트너가 되어 줄 수가 없었고 겨울에 열리는 파티는 성탄절과 레아의 탄생일을 축하하는 파티가 함께 열릴 가능성이 컸다. 그때는 주인공이 레아가 될 것이니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파트너가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파티에서 라이 경에게 제 파트너가 돼서 에스코트하라고 한 건 아빠잖아요.”

“그야 별 같잖지도 않은 놈이 너한테 찝쩍대면 바로 베어버려야 하니까 그랬지.”

“…유혈사태는 일어나지 않길 바라요.”

“응. 나도 그러길 바라.”

말은 그렇게 해도 생글생글 웃는 얼굴이 전혀 그러길 바라는 얼굴로 보이진 않았다. 레아는 제발 파티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길, 만약에 일어난다고 해도 제발 자신의 선에서 끝낼 수 있길 소망하며 아빠와 함께 라이 경의 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잠시 후. 라이 경은 황제 폐하와 황녀님께서 파티에 가자고 자신의 방문을 똑똑 두드리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이 이걸 보았다면 깜짝 놀라거나 충격을 넘어 그냥 그대로 기절해버릴 광경에 라이 경은 비틀거렸고 그 모습을 보고 레아는 순수한 얼굴로 물었다.

“라이 경. 괜찮아요? 어제 쌍둥이 황자님들이랑 놀아준다고 많이 피곤했었나 봐요.”

\*\*\*

아빠와 함께 라이 경을 데리러 갔을 때 비틀거리는 라이 경을 보고 혹시 어제 너무 무리해서 피곤한 건가 싶었는데 다행히 라이 경은 그런 건 아니라고 했다. 그래도 레아는 라이 경에게 몸이 안 좋으면 바로 말하라고 말해준 후 파티장으로 향했다.

조금이라도 덜 주목받고 싶은 마음에 일부러 좀 늦게 파티장으로 들어간 레아는 일부러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있었다. 하지만 눈에 띄는 화려한 황금빛 머리카락 때문에 아무리 조용히 있어도 레아는 주목받는 처지였다.

‘심하게 부담스럽고 불편하다. 숨도 편하게 못 쉬겠어.’

모두가 아닌 척하며 힐긋힐긋 레아와 레그마인 황제를 보며 자신들끼리 수군거리고 있었다. 레아는 그런 시선이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했지만, 이건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꾹 참았다. 그런 딸을 보며 레그마인 황제는 대견하기도 하면서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레아. 아빠는 그라티아 황제에게 인사 좀 하고 오려는데 같이 갈래?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좀 적어졌을 때 따로 인사하는 것도 괜찮아.”

“나중에 따로 라이 경이랑 인사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두 사람이 같이 있어봤자 시선만 더 집중될 것이었고 황제는 그런 건 별로 상관없었지만. 레아가 그 시선을 불편해하고 있었다. 레아와 떨어지는 건 좀 불안하지만 그래도 라이 경이 있으니 큰일이 나진 않을 것이었고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첫 파티 때처럼 뒤늦게라도 딸을 건드린 상대를 조져버리면 되는 일이었다.

‘레아는 똑똑하고 씩씩한 아이니까. 분명 알아서 잘할 거라고 믿어야지. 난 내 딸을 믿어.’

라이 경은 예쁘고 사랑스럽고 멋진 레아에게 반할 거 같아 못 믿어도 레아는 잘 해낼 것이라고 믿었다. 레그마인 황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레아에게 한 발자국 떨어졌다.

“레아 황녀님. 괜찮으십니까?”

“응. 그럭저럭 괜찮아요. 그래도 첫 파티 때보다는 힐긋힐긋 보는 사람도 덜한 것 같고.”

확실히 아빠가 레아에게서 멀어지자 시선이 분산되어 레아가 받는 시선도 조금은 줄어들었다. 물론 그래도 레그마인 황제에게 가는 시선보다 레아에게 집중된 시선이 더 많았지만, 그래도 이젠 숨 정도는 편하게 쉴 수 있었다. 일단 이번 파티가 나름대로 소규모인 파티라서 레아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시선과 관심이 줄었기 때문이었을까? 딱 봐도 좋은 느낌은 아닌 한 중년의 남성이 레아에게 다가왔다.

“흐음. 당신이 다닐로만 제국에서 온 그 소문의 황녀인가요?”

“네. 그 소문이 무슨 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닐로만 제국에서 온 레아 더 다닐로만이라고 합니다.”

“전 가우디움 제국에서 온 소니움 황자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군요.”

“저도 소니움 황자님을 뵙게 되어 반가워요.”

딱 봐도 아빠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황자님이라니. 레아는 새삼스럽게 아빠와 그라티아 황제 폐하께선 황제치곤 젊으신 편이시란 가스파르 재상의 말이 떠올랐다.

‘하지만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남자 좀 기분 나쁜걸. 왜 자꾸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히죽이는 거지?’

아빠처럼 해맑게 생글생글 상큼하게 웃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음흉하게 히죽거리는 느낌의 웃음이었다. 왠지 좋지 않은 느낌에 레아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지만 소니움 황자는 레아에게 두 발자국 가까웠다. 가까워진 거리에 레아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찌푸렸지만 소니움 황자는 신경도 안 쓰는 듯이 레아에게 한 발자국 더 다가가려고 했다.

“그만하시죠. 소니움 황자님.”

“흠. 자네는 뭐지? 레아 황녀님의 애인이라도 되나?”

“전 레아 황녀님의 호위기사입니다. 황녀님께서 불쾌해하고 계신 게 안 보이십니까?”

“아, 실례. 황녀님의 아름다움에 취해 나도 모르게 그만.”

라이 경의 저지에 소니움 황자는 다시 뒤로 물러났지만, 여전히 기분 나쁘게 히죽이는 걸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레아 황녀님은 훌륭한 개를 두셨군요. 부럽습니다.”

“네? 개요…?”

“뭐,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니 충성스러운 개가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향기로운 꽃에는 나비와 벌이 꼬이기 마련이니까요.”

“……….”

“만약 레아 황녀님의 이 아름다움이 없었다면 황녀라는 자리에 앉지도 못하셨을 거 아닙니까? 정말 타고나신 행운입니다. 복이에요.”

돌려서 말하고는 있었지만, 명백한 조롱이었다. 만약 레아가 예쁘지 않았다면 라이 경이 레아를 지켜주지도 않았을 것이었고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도 레아를 황녀로 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었다. 결코, 좋은 뜻일 수가 없는 말이었다.

그 말에 라이 경이 나서려고 했지만, 레아는 조용히 라이 경의 팔을 붙잡고 말렸다. 뭐라고 떠드는지 한번 들어나 보자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황녀님이 16살이신데 아버지이신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33살이시라니. 아버지께서 딸을 애인으로 삼았다는 소문이 있던데 혹시 정말 그런 사이는 아니겠지요? 하하하!”

“설마요. 세상에 사람들이 머릿속에 뭐가 들었기에 그런 저질스러운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건지…. 근데 당사자인 저도 그런 소문을 들은 기억이 없는데 소니움 황자님께서는 그런 소문을 누구에게서 들으셨나요?”

들었을 리가 없었다. 그 소문은 방금 소니움 황자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었다. 당연히 얼굴이 빨개져서 당황할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웃는 얼굴로 여유 있게 받아치는 레아를 보며 오히려 당황하는 쪽은 소니움 황자였다.

“글쎄요. 잘 기억이 나지 않는군요.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무튼,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황자님과는 관련 없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서 다행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죠?”

“벌써 본론을 꺼내기엔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전 레아 황녀님에게 제 애인이 되어달라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애인이요?”

“제가 정실부인이 있는 몸인지라 결혼은 못 해도 황녀님이 가지고 싶다는 것과 필요하다는 건 모두 구해드리겠습니다. 어때요.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죠?”

아빠보다 나이도 많은 거 같고 심지어 아내도 있는 아저씨에게 이런 소리를 듣다니. 레아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라이 경은 이번에야말로 소니움 황자를 베어버리려고 했지만, 이번에도 레아는 그를 막았다.

‘이런 사람한테는 무력을 행사할 가치도 없어. 거기다 라이 경이 나섰다간 진짜 황녀님의 개라는 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른다고.’

내 호위기사는 괴롭혀도 내가 괴롭히고 까도 내가 깐다!

레아는 그런 마음으로 소니움 황자를 보며 상큼하게 웃었고 그런 레아를 보며 소니움 황자는 히죽거리며 웃었다.

“소니움 황자님.”

“어이쿠. 천천히 대답하셔도 되는데 벌써 대답하시게요?”

“네. 더 생각하지 않아도 될 거 같아요.”

레아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자꾸 기분 나쁘게 히죽히죽 웃으며 자신의 몸매를 훑어보는 소니움 황자에게 상큼하게 웃으면서 정말 다정하고 너무 부드러워서 금방이라도 녹아내릴 거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무슨 되지도 않은 헛소리야. 개자식아.”

38.바보.docx

지금은 어떻게 황녀라는 자리에 앉았다고 한들 시녀의 딸에 평민 출신의 아직 어린 소녀였다. 아무리 성격이 보통이 아니란 소문이 자자해도 소니움 황자는 레아를 쉽고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확실히 듣던 대로 얼굴은 제법 예쁘장하게 생겼군. 그리고 아직 16살인데 몸매도 저 정도면….’

잘만 꼬시면 앞으로 10년은 넘게 재미를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적당히 용돈도 챙겨주면서 잘 구슬리면 바로 넘어올 것이었다. 애인이 되어달라는 말에 큰 고민도 안 하고 상큼하게 웃는 레아를 보며 소니움 황자는 확신했다.

“그게 무슨 되지도 않는 헛소리야. 개자식아.”

“………?”

“더러운 새끼.”

그런데 레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사근사근하고 귀여운 애교 섞인 말이 아니라 험한 말이었다. 소니움 황자는 혹시 자신이 잘못 들은 건가 했지만 레아는 여전히 해맑게 웃으며 친절하게 더러운 새끼라고 욕을 해주었다.

‘이번 파티에서는 최대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었는데 저런 쓰레기만도 못한 소리를 듣게 될 줄이야. 황자라는 사람이 저래도 되는 거야? 마음 같아서는 라이 경한테 저 자식 혓바닥을 잘라버리라고 하고 싶지만….’

라이 경 때문에라도 그건 참아야 했다. 레아는 그냥 시원하게 욕 한번 해주는 것으로 끝내자며 조금은 참아보기로 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그냥 못 들은 거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나도 제대로 된 대꾸를 하지. 나 원 참.”

나도 평범하게 연애하고 결혼도 하고 사랑받을 수 있다! 라는 희망이 생긴 지 고작 하루가 흘렀는데 파리가 꼬여도 이런 똥파리가 꼬이다니. 레아는 역시 파티는 자신과 참 안 맞는다고 생각하며 한숨을 쉬었다. 레아가 한숨을 쉬자 그제야 정신이 돌아온 건지 소니움 황자는 화가 나서 얼굴이 시뻘게졌다.

“평민 출신이라 별 기대도 안 했지만 이렇게 예의도 없고 무례할 수가…!”

“태어날 때부터 누릴 거 다 누리고 산 본인은 뭐 엄청 예의 있고 기품이 넘치는 사람인 줄 아시나 봐요.”

“생긴 게 예쁘장해서 좀 데리고 놀아주려고 했더니 기품이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어! 누가 시녀의 딸 아니랄까 봐 천박하군, 천박해!”

“그래도 전 예쁘기라도 하지 소니움 황자님은 예쁘지도 않은데 기품도 없고 천박하시군요.”

“뭐, 뭐라고?”

“어머. 제가 뭐 틀린 말 했나요?”

소니움 황자의 말에 한마디도 안 지면서 표정만큼은 험한 말 따위 할 줄도 모르는 사람처럼 레아는 순하게 방긋방긋 웃고 있었다. 그런 레아를 보며 라이 경은 단박에 알 수 있었다.

‘제대로 빡치셨군.’

진심으로 화가 나면 평소와 다르게 차갑고 냉정해지는 레그마인 황제 폐하와 달리 레아 황녀님은 천사처럼 착한 얼굴로 그렇지 못한 말을 내뱉었다. 소니움 황자의 입에서 시녀의 딸이란 말이 나오자 레아의 안에서는 무언가 불타오른 것이었다.

‘자기는 부인도 있으면서 어린 애한테 연애하자고 한 변태인 주제에 감히 우리 엄마를 욕해?’

레아는 여기서 자신의 평판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던 아빠가 말한 대로 절대 고상하게 굴지 않기로 다짐했다. 아주 잠시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날것 그대로의 나 자신을 보여주리라!

“그런데 소니움 황자님은 정말 양심이 없는 분이군요. 적어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저처럼 어리고 예쁜 여자를 애인으로 삼으려고도 안 했겠죠. 본인 얼굴도 생각 안 하시고 참…. 잘생기지 않았다면 관리라도 좀 하든가 아니면 말이라도 좀 듣기 좋게 하든가. 무슨 자신감으로 나한테 애인이 되어달라고 한 거지? 딱 봐도 우리 아빠보다 10살 정도는 많아 보이는데.”

레아는 하고 싶은 말을 필터링도 없이 그냥 곧이곧대로 말해버렸다. 그런데 가만히 레아의 옆에 서 있던 라이 경이 한 마디 조용히 덧붙였다.

“소니움 황자님은 올해 30살로 레그마인 황제 폐하보다 3살 어리십니다.”

“풉. 아, 진짜요?”

“아무래도 황녀님이 알아두셔야 할 정도로 중요한 인물은 아닌지라 가스파르 재상께서 알려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럴 거 같다고 생각은 했어요.”

가우디움 제국이라면 가볍게 이름 정도만 들어본 거 같기도 한데 소니움 황자의 이름은 들은 기억이 없었다. 그렇다는 건 중요한 인물은 아니라는 라이 경의 말에 레아는 마음이 좀 편해졌다. 그리고 레그마인 황제 폐하를 쏙 빼닮은 특유의 사람 불길하게 만드는 예쁜 미소를 지었다.

“아무튼, 부인도 있으면서 자기보다 14살이나 어린 여자애한테 애인이 되어달라는 사람한테 양심이란 걸 바란 제가 잘못인 거겠죠. 오늘 황자님이 제게 하신 그 몰상식한 말들이 꼭 널리 널리 소문이 나서 오늘 파티에 참석하지 못하신 가우디움 제국의 황제 폐하와 황자비님의 귀에 꼭 들어가길 바랍니다.”

“가만히 있자니 계속 기어오르는군. 너처럼 천한 피를 가진 아이한테 나처럼 지위 높은 남자라면 영광인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냐? 제법 똑똑하다고 들었는데 영 멍청한 게 아직 어려서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군!”

“흐음. 제가 뭘 모르고 있죠?”

“너 같은 애를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 시녀의 딸이라도 얼굴은 예쁘장하게 생겨서 예뻐해 주려고 했더니! 여자가 성격이 고분고분하고 나긋나긋한 맛이 있어야지. 그리고 설령 내가 여기서 네 뺨을 때린다고 해도 소문이 날 것 같으냐? 가우디움 제국의 황자가 너처럼 미천한 여자아이를 때렸다고?”

지금까지 소니움 황자는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영애들이나 시녀들에게 찝쩍거리거나 폭력을 행사한 적이 많았고 아무리 그런 더러운 짓을 해도 그런 만만한 것들은 오들오들 떨며 찍소리도 못했다. 가끔 그를 고발하려는 자들도 많았지만 소니움 황자보다 낮은 신분에 결국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건 여자 쪽이었다.

소니움 황자는 이번에도 당연히 그럴 거로 생각했다. 레아가 어째서 황족들만 초대하는 이 파티에 참석한 건지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렇구나. 나보다 아래인 사람의 뺨을 때려도 소문이 안 나는 바닥이구나. 이 바닥은.”

“당연하지! 괜히 떠들고 다니다가 무슨 불이익을 당할 줄 알고!”

“대단히 더러운 바닥이네요.”

그럼 소니움 황자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무례하게 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부당한 짓을 했다는 걸까. 남편만 믿고 까불던 위즈덤 부인처럼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인 거 같아 레아는 얼굴을 찌푸렸다.

‘자기들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내가 원해서 사생아로 태어난 게 아니듯이 자기들도 잘나서 높은 신분으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 진짜 딱 싫어.’

레아가 황녀가 돼서 만난 높은 사람 중 물론 좋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나타에 있는 좋은 이웃들의 발뒤꿈치만큼도 못한 인간들도 수두룩하고 빽빽했다.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권력 남용을 하니 레아는 어이가 없었다. 그리고 그걸 쉬쉬하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바닥도 레아는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았다.

‘뭐, 그래도 나보다 아래인 사람의 뺨을 때려도 소문이 안 난다는 건 꽤 유용한 정보네. 이래서 아빠가 무례한 사람이 나타나면 맘대로 조져버리라고 했구나. 책임은 아빠가 다 지겠다고.’

첫 파티 때 위즈덤 부인에게 주스를 뿌린 건 널리 널리 소문이 났다고 알고 있었고 그게 사실이었는데 레아는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빠가 사실대로 안 알려주고 허세를 부렸으니 레아가 모르는 것도 당연했다.

그래도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레아는 왼손을 들었다. 그리고 그대로 소니움 황자의 뺨을 짝! 소리가 나게 때렸다.

“………!”

아무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레아와 라이 경을 제외한 모두가 놀랐고 시선이 집중되었다. 라이 경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기에 덤덤한 반응을 보였고 레아 역시 너무나도 태연하기만 했다.

“다닐로만 제국의 황녀가 가우디움 제국의 황자 뺨을 때렸어요. 이제 이게 소문이 날까요, 아니면 당신이 만만하게 봤던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을 때처럼 모두가 쉬쉬할까요?”

“너 지금 이게 무슨…!”

“개인적으로 소문이 꼭 났으면 좋겠네요. 황자님이 제게 연인이 되어달라고 했다는 부분까지 싹 다요.”

처음에는 단순히 뺨을 맞은 게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는데 레아의 말을 듣고 소니움 황자는 거짓말처럼 아까와 달리 벌벌 떨고 있었다. 레아의 말을 듣고 나서야 자신이 망각하고 있던 두 가지의 사실이 떠오른 것이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이 아이는 다닐로만 제국의 황녀였다. 아무리 친모는 시녀였고 사생아에 평민 출신이라고 해도 레그마인 황제가 자신의 딸을 얼마나 예뻐하는지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었다.

물론 처음에는 그래 봤자 아직 어린아이라고 만만하게 생각했었다. 아니, 차라리 애인이 되어달라는 말만 했다면 어떻게든 수습할 수 있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소니움 황자는 레아에게 기품이 없다느니 천박하다느니 하는 말을 했었고 마치 자신보다 낮은 사람에게 할 법한 말을 가우디움 제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한 다닐로만 제국의 황녀에게 해버린 것이었다.

‘이 일이 레그마인 황제에게 알려진다면 분명 난 이 자리에서 죽은 목숨이겠지. 하지만 이 파티가 무사히 끝난다고 해도 이미 내 목숨은….’

원래라면 레아가 소니움 황자의 뺨을 때린 일은 소문이 나지 않을 일이었다. 소니움 황자가 레아의 뺨을 때렸다면 얘기가 달라졌겠지만, 레아는 굳이 따지자면 소니움 황자보다 높은 사람이었다. 언제나 그랬듯 모두가 쉬쉬하고 덮을 일이었다.

하지만 아까 레아는 이 일이 꼭 소문이 나길 바란다고 얘기했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뺨을 때린 당사자가 그렇게 얘기했으니 이 일이 소문이 날지 안 날지는 소니움 황자도 쉽게 예측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소문이 나든 나지 않든 소니움 황자의 아버지와 부인에게는 무조건 이 이야기가 전달될 것이었다.

‘소문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이 아이라면 분명 아버지와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겠지. 아니면 직접 소문을 낼지도 몰라. 그렇다면 난 정말…. 어차피 죽을 거 여기서 레그마인 황제의 손에 죽는 게 나으려나?’

아무리 사랑 없는 정략결혼이라고 한들 남편이 파티에서 다른 여자에게 애인이 되어달라고 했다가 뺨 맞고 왔다는데 아무렇지도 않을 여자는 없을 것이었다. 거기다 황자비는 현재 임신 중인 상태였고 쏟아질 비난도 어마어마할 것이었다.

아버지도 아무리 포기한 아들이라고 해도 다른 제국도 아닌 다닐로만 제국의 황족과 그런 일이 있었으니….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소니움 황자는 자꾸만 안 좋은 생각만 났다.

“딱히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다면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웬 똥파리 때문에 파티 분위기를 망쳐서 그라티아 황제 폐하와 보니타 황후 폐하께 사과를 드려야 해서요.”

“똥, 똥파리…!”

“그럼 저는 이만.”

마지막으로 싱긋 웃으며 레아는 뒤돌아 그라티아 황제 폐하와 보니타 황후 폐하가 계신 쪽으로 걸어갔다. 똥파리란 말에 열이 받은 소니움 황자는 레아를 붙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누군가 발을 거는 바람에 그대로 꽈당 넘어지고 말았다.

“풉.”

추하게 넘어지는 모습에 누군가가 웃음을 터트렸고 동시에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조그맣게 웃음을 터트렸다. 그 비웃음에 소니움 황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고 엎드린 자세 그대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런 소니움 황자를 무표정하게 바라보던 라이 경은 작게 중얼거렸다.

“바보.”

그러게 왜 세상에서 제일 건드리면 안 될 사람을 건드려서는. 라이 경은 소니움 황자를 한심하게 바라본 후 레아의 뒤를 따라갔다.

\*\*\*

“야. 네 딸 장난 아닌데? 착하고 상냥한 줄 알았는데 완전 레그마인 황제 판박이네. 아니, 더 대단하달까.”

“역시 내 딸이야. 날 닮았어.”

“어디 내보내도 걱정은 안 되겠다. 라이 경까지 옆에 있으니 완전 천하무적이네.”

“어째서 꼭 굳이 라이 경이 옆에 있어야 천하무적이라는 거지?”

“그야 할 말 따박따박 잘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완력은 약하잖아. 혹시 마법이라도 쓸 줄 알아?”

“흐음.”

레아가 천하무적이란 말은 좋았지만, 꼭 라이 경이 같이 있어야 천하무적이란 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렇다고 갑자기 운동을 시키고 검을 잡게 했다간 레아가 다칠 것 같았고 레그마인 황제는 정말로 마법이라도 배우게 할까 진지하게 고민했다.

아빠는 그렇게 어떡하면 딸을 어떤 상황에서라도 안전할 수 있게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리고 딱 그때 레아와 라이 경이 그라티아 황제 폐하와 보니타 황후 폐하 앞으로 왔다.

“존경하는 그라티아 황제 폐하와 아름다운 보니타 황후 폐하를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다닐로만 제국에서 온 레아 더 다닐로만이라고 합니다.”

“호위기사인 라이 므라드라고 합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분명 어제 인사도 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했음에도 레아와 라이 경은 두 사람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보니타 황후 폐하께서는 상냥하게 웃어주었다.

“이제 레아 황녀님과 라이 경은 그렇게 예의 차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와서 반갑게 인사해주세요.”

“공식적으로는 처음 뵙는 자리니까요. 분위기를 소란스럽게 만들어 죄송해요.”

“아니야. 소니움 황자는 우리도 싫어하니까 괜찮아. 오히려 시원하게 할 말 다 하고 잘했어. 레아 황녀.”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레아를 보고 이상한 애라고 생각하시거나 파티 분위기를 망쳤다고 기분 나빠하실까 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잘했다고 해주셔서 다행이었다. 거기에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건데 레그마인 황제는 마음에 안 든다는 듯한 얼굴로 말했다.

“레아. 아빠가 고상하게 굴 필요 없다고 했잖아. 뺨만 때리지 말고 다리 정도는 부러뜨렸어야지.”

“어떻게 그래요. 그건 그라티아 황제 폐하께 민폐잖아요.”

남의 황궁에서 그런 짓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그런데 그라티아 황제 폐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의외의 말씀을 하셨다.

“아, 나는 괜찮아. 다리를 부러뜨려도 되고 팔을 부러뜨려도 레아 황녀라면 괜찮아. 재밌을 거 같기도 하고.”

“네…?”

“이왕이면 오른쪽 왼쪽 다 부러뜨리세요. 다시는 까불지 못하도록.”

“……….”

믿었던 보니타 황후 폐하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당황스러웠지만 낯설지 않은 말들이었고 이 상황에서는 그냥 빨리 자리를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도 레아는 알고 있었다.

“아빠. 우리 춤추러 가요.”

“응? 하지만 춤추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음악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 우리 딸 첫 댄스파트너는 이 아빠가 해줘야지.”

원래라면 남자가 먼저 여자에게 함께 춤을 출 것을 권하고 여자가 승낙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레아는 그런 거 상관없었다. 계속 이 자리에 있다간 또 부끄럽고 민망한 말들이 쏟아질 거 같아 레아는 황급히 아빠 손을 잡고 그 자리를 피했다.

39.집으로 돌아갈 시간.docx

“레아. 그런 이상한 놈이 접근했으면 아빠를 불렀어야지 왜 혼자 처리했어. 손바닥은 안 아파?”

“똥파리 꼬인 게 뭐 자랑이라고 아빠까지 불러요. 손바닥은 괜찮아요.”

“이 작고 하얀 손으로 그 더러운 얼굴을….”

“하나도 안 아프다니까요. 괜찮아요.”

흐르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면서 레아와 레그마인 황제는 아까 있었던 일에 관해 이야기 중이었다. 레아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조금 빨개진 작은 손을 보며 레그마인 황제는 마음이 아팠다.

‘가우디움 제국이라고 했지. 감히 건드릴 사람이 없어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딸을 건드려?’

반드시 파국으로 만들어주리라. 이를 꽉 깨물며 레그마인 황제는 다짐했다. 이미 레아가 창피란 창피는 다 줘서 당분간은 말라 죽을 거 같은 삶을 살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모자랐다. 레그마인 황제는 정말 숨통이 딱 끊기기 직전으로 만들어주겠다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아빠. 표정이 왜 그러세요?”

“아냐. 아무것도.”

“혹시 소니움 황자를 어떻게 죽여버릴까 고민하고 있으신 건 아니죠?”

“하하. 우리 딸은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아까 일 때문이라면 소니움 황자나 가우디움 제국에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레아가 아는 아빠라면 분명히 이 정도로는 만족 못 하고 더 악랄하고 처절하게 자신과 싸운 사람에게 복수할 사람이었다. 첫 파티에서는 어찌어찌 레아가 말렸다고 해도 이번엔 그런 게 없어서 좀 불안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레아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부탁했고 딸의 부탁이니 레그마인 황제는 이번 한 번만 특별히 넘어가 줘야겠다고 생각을 고쳤다.

“근데 레아. 생각보다 춤이 자연스럽네.”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크라스 경이 생각보다 잘 알려줬나 보네. 내가 직접 못 가르쳐준 건 역시 아쉽지만 말이야.”

아빠가 직접 가르쳐줬다면 박자도 제대로 못 따라가는 몸치인 딸을 보고 과연 뭐라고 하셨을까. 지금도 레아는 그만큼 배웠으니까 아빠가 리드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는 것이었다.

“춤은 크라스 경이 아니라 같이 있던 프레디 소공자에게 배웠어요. 프레디 소공자가 잘 가르쳐줘서 겨우 배울 수 있었고요. 소공자가 아니었으면 다 익히지 못했을 거예요.”

프레디 소공자를 좋아하는 건 아니었지만 소공자가 아니었다면 아예 파티에서 춤을 추지도 못했을 거니까. 이 정도 칭찬은 해줘도 될 거 같았다.

“프레디 소공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네. 꽃까지 사 들고 왔었어요.”

“흐음. 그래서 어떻게 했지?”

“꽃은 라이 경한테 줘버렸고 형제들끼리 서로 춤을 알려주겠다고 다투는 거 같길래 그냥 놔뒀어요.”

“하하. 잘했어. 레아.”

하이모어 대공의 강력한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라고 하기는 했지만, 신경이 쓰였는데 레아가 눈길도 주지 않았다니 레그마인 황제는 좀 안심이었다. 피에르 시종장과 라이 경과는 다른 의미로 하이모어 대공과 크라스 경은 기분 나쁜 시선으로 레아를 보고 있었다.

‘자기 아들을 국서로 만들고 싶은 거겠지. 레아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 집안 여자들과 나를 결혼 시키려고 했으니까.’

피에르 시종장은 레아를 너무 좋아하고 예뻐해서 아들과 결혼시키려고 하는 것이었지만 하이모어 대공은 아들을 국서 자리에 앉혀서 권력을 더 얻고 싶은 것이었다. 아들인 크라스 경도 지위와 권력에 집착하는 남자이니 대공의 뜻에 따라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할 것이었다. 애초에 레아를 결혼시킬 생각이 전혀 없는 레그마인 황제이긴 했지만, 아빠로서 그게 좋게 보일 리가 없었다.

하지만 하이모어 대공은 천하의 레그마인 황제도 쉽게 건들지 못하는 몇 안 되는 존재였다. 앞으로의 일이 순탄하지 않을 거 같아 레그마인 황제는 머리가 아팠다.

“레아. 이건 아빠가 부탁하는 건데 크라스 경과 절대 가깝게 지내지 않아 줬으면 해. 나 빼고 세상의 모든 남자를 경계해야 하지만 특히 하이모어 대공이랑 크라스 경하고는 친하게 지내지 마.”

그 사악한 남자에게서는 황제도 완벽하게 지켜줄 자신이 없어서 부탁하고 당부하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레아는 하이모어 대공과 크라스 경을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빠가 처음이 아니었기에 속으로 생각했다.

‘라이 경도 그렇고 아빠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네. 프레디 소공자의 출생 비밀을 알고 나서 대공이 좋은 사람이 아니란 건 알고 있었지만 크라스 경한테는 그런 느낌 못 받았는데…. 역시 계속 신경이 쓰이네.’

프레디 소공자가 갑자기 삐뚤어진 이유와 아빠와 라이 경이 크라스 경을 절대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이유. 그리고 단순히 사이가 안 좋다고 하기에는 뭔가 사연이 있어 보였던 하이모어 형제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빠나 라이 경이 안다면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겠지만, 레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째서 그런 생각이 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쩐지 레아는 프레디 소공자를 다른 사람들처럼 신경 안 쓰고 가볍게 무시할 수가 없었다. 분명 프레디 소공자를 싫어하는데 이상한 일이었다.

“혹시 프레디 소공자에게 춤을 배울 때 너한테 이상한 말을 지껄이거나 허튼짓을 하진 않았겠지?”

“네. 정말 딱 춤만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라이 경이 팔다리를 댕강댕강 잘라버렸겠죠.”

“라이 경은 프레디 소공자랑 친구잖아. 친구라도 봐줄 수도 있지.”

“라이 경도 그렇고 크라스 경도 허튼짓하면 죽여버릴 거라고 직접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 프레디 소공자가 정말 허튼짓을 했다면 레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고 레그마인 황제도 그걸 잘 알기에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레아라면 아마 어퍼컷을 날리고 정강이를 걷어차지 않았을까. 레그마인 황제는 그렇게 생각하며 작게 웃었다.

“그래. 별일 없이 조용히 넘어갔다는 건 아무런 일도 없었단 거겠지. 애초에 내 딸이 어떤 딸인데 설마 가깝게 접촉하거나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고 그러겠어?”

“……….”

딸을 믿기에 당연하다는 듯 말하는 아빠를 보며 레아는 이번만큼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프레디 소공자의 흑심 때문에는 아니었지만, 실제로 레아는 춤을 배우면서 소공자와 아주 가까이 접촉을 했고 얼굴과 얼굴 사이의 거리도 상당히 가까웠다. 마음먹고 조금만 더 다가가면 입술이 스칠 정도로 말이다.

‘물론 그건 프레디 소공자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무 몸치라서 그런 거였지만…아빠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자. 괜히 말했다가 프레디 소공자가 죽을지도 몰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런 이유로 프레디 소공자가 죽는 건 바라지 않았다. 레아는 프레디 소공자의 발등 위에 발을 올리고 춤을 배웠다는 건 죽을 때까지 무조건 비밀로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아, 노래 끝났다.”

“제 첫 댄스파트너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랑 춤춰줘서 고마워. 레아.”

그렇게 짧은 춤이 끝나고 부녀는 서로에게 인사를 한 후 천천히 떨어졌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는 춤을 출 생각이 없는 건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 두 사람 뒤에는 라이 경이 있었다.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며 보니타 황후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보니타. 레아 황녀 참 예쁘고 귀엽죠? 저렇게 사랑스러운 아이가 어떻게 저런 미친 황제의 딸이란 건지 신기할 따름이에요.”

“왜요? 레아 황녀님은 레그마인 황제 폐하를 쏙 빼닮으셨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어쩐지 닮았는데 느낌이 전혀 다른 느낌이랄까.”

“하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도 참.”

뭐랄까. 레그마인 황제가 웃으면서 가진 돈 다 내놓으라고 하면 공포일 거 같은데 레아 황녀가 웃으면서 가진 돈 다 내놓으라고 하면 억지 부리는 게 귀여울 거 같은 느낌? 남편인 그라티아 황제의 말에 보니타 황후는 재밌다는 듯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소곤소곤 물었다.

“당신도 레아 황녀님처럼 예쁜 딸 낳고 싶어요?”

“아니에요. 보니타를 닮은 예쁜 딸도 좋지만, 난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보니타 당신이 내 옆에 있으면 난 그걸로 충분해요.”

“아직도 그 소리예요? 못 말린다니까. 진짜.”

“어? 왜 웃어요? 설마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뇨. 당신은 언제나 변함없이 진심이었죠. 처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냥 내 옆에 있어 주기만 하면 돼요. 난 정말 그거 하나면 돼요.

언젠가 보니타 황후를 설레게 했던 그 말처럼 그라티아 황제는 보니타 황후에게 아무런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걸 주고도 더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이 남자가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보니타 황후는 행복했다.

“보니타는 딸 가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레아 황녀한테 신경 써주고 예뻐하는 건 줄 알았는데.”

“레아 황녀님처럼 귀여운 딸이 있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저도 지금이 좋아요. 레아 황녀님은 꼭 어릴 때 저를 보는 거 같아서 잘해드리고 싶었던 거뿐이에요. 또 좋은 분이시기도 하고요.”

물론 16살 때의 보니타 황후보다 지금의 레아 황녀님이 훨씬 더 멋진 사람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레아 황녀님은 더 성장해서 지금의 보니타 황후보다 더 반짝반짝 빛이 나는 멋진 사람이 될 것이었다.

‘꼭 밤하늘에서 빛나는 별처럼.’

레아 황녀님도 꼭 자신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길. 보니타 황후는 조용히 그렇게 황녀님이 행복하길 빌어주었다.

\*\*\*

“안돼! 레아 누나. 가지 마요!”

“하루만 더 자고 가면 안 돼요? 우리 파티 때 못 놀았잖아요….”

“레아 누나랑 까면 경! 우리랑 더 놀고 가요…!”

“케이크! 케이크 또 구워줘요!”

“오늘은 쿠키 구워줘요. 누나!”

파티가 끝나고 다음 날 아침. 다시 다닐로만 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마차의 오르기 전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쌍둥이는 레아의 팔을 붙잡고 놔주지 않았고 레아에게 가지 말라고 매달려서 징징거리고 있었다.

“레아 황녀랑 마지막 인사하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나왔더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어서 떨어지지 못해?”

“크레. 트레. 누나가 곤란해하잖니.”

“하지만…하지만…!”

“레아 황녀는 다음에 또 만나서 그때 또 같이 놀면 되잖아. 어서 떨어지도록 해.”

“그래도….”

그라티아 황제 폐하와 보니타 황후 폐하의 단호한 목소리에 쌍둥이 황자님들은 더는 레아에게 가지 말라고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꼭 잡은 레아의 손을 놓지 못했고 끝까지 미련을 못 버리고 있었다.

‘으음. 좋아해 주는 건 고맙지만 다닐로만 제국으로 못 돌아가게 하는 건 좀 곤란한데. 어떡하면 좋지.’

결국, 그 얘기를 꺼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건가. 잘못하면 사랑스러운 쌍둥이에게 미움받을 수도 있는 이야기라 해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붙잡으니 어쩔 수 없었다. 레아는 조금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쌍둥이를 보며 다정하게 웃었다.

“애들아. 누나 안 갔으면 좋겠어?”

“네! 레아 누나 가지 마요.”

“그때 누나랑 같이 만들었던 컵케이크가 맛있었구나.”

“네! 오늘은 쿠키 만들어주세요.”

“누나도 마음 같아선 크레 황자랑 트레 황자가 먹고 싶다는 거는 다 만들어주고 싶지. 근데 너희 혹시 그거 아니?”

“응? 뭐를?”

레아의 말에 쌍둥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얼굴에 물음표를 띄웠다. 그런 쌍둥이를 보며 레아는 상냥하게 웃었고 쌍둥이의 귓가에 대고 소곤소곤 절대로 말해주지 않으려고 했던 비밀을 말해주었다.

“……….”

“……….”

레아의 말에 충격을 받은 건지 쌍둥이는 레아의 팔을 붙잡고 있던 손을 툭 떨어뜨렸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라티아 황제와 보니타 황후는 쌍둥이 황자님들을 각자 한 명씩 안아 들었다.

“흐음. 케이크 반죽에 당근이 들어갔던 사실이 그렇게 큰 충격일 줄은 몰랐네. 그냥 누나 밉다고 하고 삐질 줄 알았는데.”

“당근?”

“네. 애들이 당근을 기를 쓰고 안 먹는다고 하길래 케이크 반죽에 몰래 넣어 봤거든요.”

“아, 저녁에 다 같이 먹었던 그거? 재들 그거 3개씩 먹었던 거 같은데.”

그때 쌍둥이는 자신들이 만든 케이크라며 신나서 케이크를 엄청 먹었었다. 그런데 믿었던 그 케이크에 자신들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당근이 들어갔을 줄은 상상도 못 했을 것이었다. 아직도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쌍둥이를 보며 레아는 그냥 허허 웃었다.

“그 케이크에 당근이 들어갔었다고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신기해라.”

“우리 애들은 당근을 아무리 잘게 잘라도 귀신처럼 눈치채는데 이번에는 전혀 몰랐어.”

“미리 알았다면 레시피를 물어봤을 텐데 아쉽네요.”

“안 그래도 황자님들이 잘 먹는 거 같아서 파티시에에게 레시피를 알려드렸어요. 만들기 쉬운 편이라서 황제 폐하와 황후 폐하께서도 같이 만드시면 황자님들이 좋아할 거예요.”

“고마워요. 레아 황녀님. 저희가 너무 많은 걸 받았는데 해드린 게 없어서 죄송하네요.”

“해주신 게 없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앙겔루스 제국에서 레아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세 황자님을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절대 돈 주고도 들을 수 없는 보니타 황후 폐하의 조언도 들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레아는 정말 많은 것을 얻고 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레아 황녀. 센스가 좋은데?”

“하하. 감사합니다. 그라티아 황제 폐하.”

“내 딸이니까 날 닮아서 센스가 좋지. 당연한 거 아냐?”

“전혀 아닌 거 같은데. 레아 황녀. 황녀는 어떻게 생각해?”

“어…. 저는 엄마 닮은 거 같은데요.”

“아리샤도 눈치가 빠르고 센스가 좋았으니까. 역시 우리 딸이야.”

엄마를 닮았든 아빠를 닮았든 그냥 레아가 자랑스러운지 머리를 쓰다듬는 레그마인 황제를 보며 그라티아 황제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그렇게 쌍둥이 황자님들은 케이크의 비밀을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럭저럭 훈훈한 분위기로 마무리되었다.

“다음에 아무런 일이 없어도 애들 보러 또 놀러 와주세요. 레아 황녀님.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마차가 출발하기 직전 레아는 작은 창을 열고 손을 흔들었고 쌍둥이 황자님들은 드디어 충격에서 벗어난 건지 레아를 향해 손을 흔들어주었다. 다행히 케이크 반죽에 당근이 들어갔다고 레아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 같진 않았다.

그렇게 곧 마차가 출발했고 앙겔루스 제국을 빠져나와 다닐로만 제국을 향해 달려갔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40.카틀레야의 의미.docx

“레아 황녀님. 황궁에 도착했습니다.”

“으응. 알겠어요.”

마차에서 잠을 자던 레아는 라이 경의 목소리에 부스스 잠에서 깼다. 드디어 집에 도착했다는 말에 레아는 늘어지게 하품을 했고 곧 마차의 문이 열렸다.

‘이번에도 아빠가 손을 내밀고 아빠랑 라이 경 둘 중에 누가 더 좋은지 고르라고 하시려나.’

레아는 방으로 가서 바로 목욕을 한 후 푹신푹신한 침대에 누워 제대로 푹 자야겠다고 생각하며 아빠의 손을 잡으려고 했다. 하지만 곧 레아는 자신에게 손을 내민 사람은 예상대로 두 사람이었지만 아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었다.

“프레디 소공자?”

“오랜만입니다. 레아 황녀님. 앙겔루스 제국은 잘 다녀오셨나요?”

“프레디 소공자가 왜 여기 있어요?”

“그야 레아 황녀님이 오시길 기다렸으니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소공자가 왜 내가 보고 싶었어요. 기분 나쁘게.”

“하하. 아름다우신 레아 황녀님은 오늘도 여전히 까칠하시네요. 그게 황녀님의 매력이지만요.”

다닐로만 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런 능글능글한 말을 듣게 될 줄이야. 레아는 작게 한숨을 쉬며 라이 경의 손을 잡고 마차에서 내렸다. 왜 저런 바람둥이 날라리 소공자가 묘하게 신경이 쓰이는 건진 레아 본인조차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제 마음을 훔쳐 가신 사랑스러운 도둑 레아 황녀님. 다시 돌려주시지 않아도 되니 이 꽃을 받아주세요.”

“……….”

난 저런 능구렁이 같은 놈의 마음 따위 훔친 기억 없는데. 레아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프레디 소공자가 주는 꽃다발을 받았다. 전에 소공자가 춤을 가르쳐줬을 때 주었던 꽃과 똑같은 꽃이었다.

‘왜 계속 이 꽃을 주는 걸까. 혹시 무슨 의미라도 있나?’

레아는 진한 보라색 꽃을 보며 잠시 그런 생각을 했지만, 곧 그건 아닐 거란 생각이 들었다. 프레디 소공자와 레아가 무슨 사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의미가 있는 꽃을 줄 것 같진 않았다. 그냥 평소 추파를 던지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꽃일 것이었다.

“라이 경. 아빠는요?”

“황궁에 도착하자마자 가스파르 재상이 모시고 어디론가 가셨습니다. 밀리신 일이 많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요? 일주일 동안 황궁을 비운 사이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이 경은 알 거로 생각하고 한 질문은 아니었다. 라이 경은 레아와 함께 앙겔루스 제국에 다녀왔으니 모르는 게 당연했다. 그런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프레디 소공자는 약간은 힘이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일이야 있기는 있었지. 그것도 안 좋은 일이.”

“너는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아는 거냐.”

“당연히 알지. 그거 때문에 레아 황녀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린 거야. 나도 연관된 일이니까.”

“너랑도 연관된 일?”

아까는 보고 싶어서 기다렸다면서. 하지만 그건 처음부터 진심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이지?”

“여기 서서 할 얘기는 아니야. 그리고 이건 너랑 할 얘기도 아니고. 아까도 말했지만 난 레아 황녀님을 만나려고 기다렸어.”

얼굴을 찌푸리는 라이 경에게 프레디 소공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평소의 가볍고 진중하지 못한 모습과는 사뭇 다른 소공자의 모습에 레아는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목욕하고 좀 쉬려고 했더니 쉬지도 못하겠네. 내 인생은 어떻게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걸까?’

레아는 문득 우나타에서의 조용했고 소소한 행복이 늘 함께였던 그때가 그리워졌다. 하지만 그리워도 뭘 어쩌겠는가. 이제 그때론 두 번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데. 레아는 그냥 이런 쉴 틈 없이 머리가 아픈 삶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이기로 했다.

“알았어요. 그럼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라이 경도 나 따라오지 말고 프레디 소공자랑 같이 응접실로 먼저 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기다릴게요. 레아 황녀님.”

그렇게 말하고 프레디 소공자는 레아의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라이 경에게 간단하게 제압당했다.

“아, 아파!”

“팔을 꺾었으니까 당연히 아프겠지. 죽고 싶냐?”

“어이, 어이. 황녀님 앞에서 죽고 싶냐니. 일주일 만에 재회한 친구한테 하는 인사치곤 너무 격한 거 아냐?”

“레아 황녀님. 앞이 아니었다면 네 팔을 부러뜨렸을 거다.”

“하하. 그럼 레아 황녀님이 내 은인인 거네? 이거 한 번 더 반하겠는걸?”

“닥쳐라.”

한 명은 검은 살기를 내뿜고 한 명은 생글생글 파란 미소를 지으며 상대방을 살살 긁고 있었다. 레아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원래 남자들끼리는 친하면 저러는 건가. 도대체 두 사람은 어떻게 친해진 거지?’

마치 물과 기름처럼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 거 같은데. 프레디 소공자를 질질 끌고 응접실로 향하는 라이 경을 보며 볼 때마다 친구라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 두 사람이라고 레아는 생각했다.

\*\*\*

“말해.”

“뭘?”

“황제 폐하와 황녀님이 황궁을 비우신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말했잖아. 너한테 할 얘기 아니라고. 이건 나와 레아 황녀님 사이 일이야. 호위기사로서든 내 친구로서든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

프레디 소공자의 말대로 황녀님과 소공자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황녀님의 호위기사이자 소공자의 친구인 라이 경에게 굳이 알려줄 필요는 없었다. 그리고 어차피 레아 황녀님이 오시면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그때 라이 경도 옆에서 같이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레아 황녀님이 그 얘기를 듣기 전에 라이 경은 자신이 먼저 그 이야기를 알아야 할 것만 같았다. 그래야지 레아 황녀님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물론 나도 알아. 레아 황녀님은 내가 꼭 보호해드려야 할 정도로 나약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 정도는. 하지만….’

아직 무슨 일인진 몰라도 황궁으로 돌아오자마자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가스파르 재상의 손에 끌려간 걸 보면 보통 일은 아닐 거 같았다. 거기다 보아하니 레아 황녀님과 관련된 일인 거 같은데 안 좋은 일이라고 하니 신경이 쓰였다. 뭐, 사실 그것도 레그마인 황제 폐하, 가스파르 재상과 시종장이신 아버지께서 나서신다면 라이 경은 가만히 있어도 일은 잘 해결될 것이었다.

‘하지만 프레디 이 자식도 연관이 있다니 마음을 놓을 수가 없군. 대체 무슨 일이지?’

확실히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라이 경은 불안했다. 왜 불안한 건지 이게 황녀님의 기사로서 불안하다는 건지 프레디 소공자의 친구로서 불안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건지. 그건 아직 알 수 없었다.

“혹시 가우디움 제국의 소니움 황자 일인가?”

“아, 그 소식이라면 아까 마차 기다리면서 우연히 들었어. 그런데 그게 큰일이 날 일은 아니었다며.”

“그건 그렇긴 하지.”

그동안 소니움 황자가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다닌다는 건 대충 눈치채고 있었고 의심을 하고는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나 주변에 소문도 없었기에 가우디움 제국의 황제와 황자비는 뭐라고 말도 못 하는 그런 찝찝한 상황이었다. 소니움 황자가 일부로 소문을 막으려고 만만한 여자들만 건드렸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보같이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을 건드려버렸고 그 결과는 파국이었다.

레아 황녀님께 모욕적이고 더러운 말을 했고 뺨까지 한 대 얻어맞은 거로 모자라 우스꽝스럽게 넘어지기까지 했다. 레아 황녀님께서 꼭 소문이 나길 바란다고 상큼하게 웃으셨기 때문에 그 소문에 대해서는 날개라도 달린 듯 순식간에 퍼졌고 당연히 가우디움 제국의 황제와 황자비 귀에도 그 이야기가 들어갔다. 그리고 그 뒤에 벌어질 일은 안 봐도 뻔했다.

“오히려 가우디움 황제 폐하와 황자비님은 레아 황녀님께 감사하고 있다던데? 다른 제국 황족들도 그 일 때문에 레아 황녀님을 좋게 보기 시작했어. 뭐, 물론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어.”

어차피 세상 모두에게 사랑받는 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계속 레아 황녀님의 옆에 있느라 그런 소식을 접할 틈이 없었던 라이 경은 적어도 이제 대놓고 레아 황녀님을 만만하게 보고, 되지도 않는 헛소리를 할 사람은 없겠다고 안심했다. 아무리 소규모였어도 제국의 황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머리가 텅텅 빈 사람이라도 살고 싶으면 그러지 않을 것이었다.

그런데 이 자식은 왜 자꾸 레아 황녀님 앞에 나타나는 걸까. 생글생글 웃기만 하고 속을 알 수 없는 프레디 소공자를 라이 경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

“레아 황녀님!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리웠어요!”

“저도요! 황녀님이 안 계신 황궁에 얼마나 오기 싫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레아 황녀님께서 파티에서 무례한 사람에게 멋지게 참교육시키셨다는 얘기 듣고 저희가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역시…역시 우리 황녀님! 얘기만 들어도 너무 멋있으세요!”

“안 그래도 그 소문 들은 영애들이랑 시녀들이 다 레아 황녀님을 언니라고 부르고 싶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황녀님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언니라고 부르고 싶어졌다던데요?”

간단하게 씻고 나온 레아의 젖은 황금빛 머리카락을 말려주면서 시녀들은 일주일이나 밀린 주접을 아낌없이 떨고 있었다. 레아는 그냥 하하 웃으면서 조금은 그리웠던 그 주접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나보다 나이도 많은데 언니라고 부르고 싶다니. 으음. 그거 과연 좋은 뜻일까?’

원래 잘생기면 다 오빠고 멋있으면 다 언니라고 목놓아 외치고 있는 영애들과 시녀들의 모습을 알 리가 없는 레아는 이게 과연 칭찬인가 잠시 고민을 했다. 그래도 시녀들의 반응을 보니 나쁜 뜻은 아닌 거 같았다.

“레아 황녀님. 아까 들고 오신 카틀레야는 꽃병에 꽂아서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아, 그 꽃 이름이 카틀레야였어요?”

“네. 라이 경이 선물할 때 얘기 안 해주셨나요?”

“응? 갑자기 라이 경 이름이 왜 나와요?”

“이거…라이 경이 레아 황녀님께 선물한 꽃 아닌가요? 꽃말에 의미를 담아서?”

“아뇨. 라이 경은 그 꽃 이름도 모를걸요.”

전에 춤을 가르쳐줬을 때도 프레디 소공자는 레아에게 오늘 주었던 것과 똑같은 카틀레야를 주었었는데 그때 라이 경은 꽃은 잘 모른다고 말했었다.

“근데 왜 라이 경이 줬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라이 경이 누구한테 꽃을 선물할 정도로 로맨틱한 느낌은 아니잖아요.”

“음. 그게…. 황녀님. 저희가 추천해드린 로맨스 소설 전부 읽어보셨어요?”

“네. 어떤 건 두 번 읽었어요.”

“그런가요. 그렇단 말이죠.”

레아가 고개를 끄덕이자 시녀들은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얼굴을 했다. 그 얼굴을 보자 레아는 역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들 일부러 공주랑 기사가 나오는 로맨스만 추천해준 거죠? 나랑 라이 경이랑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 아니에요. 황녀님!”

“아니긴. 얼굴에 다 쓰여있는데.”

“그게…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레아 황녀님.”

“됐어요. 라이 경이랑 나를 그런 식으로 엮는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솔직히 조금은 익숙하달까….”

대체 어쩌다가 라이 경과 이런 사이가 돼버린 걸까. 이제는 오히려 라이 경과 레아를 평범한 호위기사와 황녀로 보는 사람이 나타나면 레아는 신기할 것 같았다.

‘그래도 프레디 소공자랑 엮는 것보단 라이 경이랑 엮이는 게 더 나은 건가. 그래. 바람둥이 날라리보단 무뚝뚝하고 목석같은 게 훨씬 나은 거겠지.’

어차피 둘 다 남자로 보진 않았지만, 굳이 따지자면 레아는 역시 라이 경 쪽이 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두 남자 중 라이 경을 고르려던 레아는 이내 고개를 흔들며 그 생각을 지웠다. 프레디 소공자는 몰라도 라이 경은 자신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니. 다들 레아와 라이 경을 자꾸만 그렇고 그런 사이로 엮다 보니 레아는 또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해버렸다.

‘이제 라이 경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쪽으로 생각하게 돼버렸어. 나도 참 큰일이다.’

이러다 정신 차리고 보면 스스로 라이 경과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너무 쓸데없는 걱정인가 싶기도 했지만, 레아는 진심으로 걱정이었다.

“근데 레아 황녀님. 그럼 이 카틀레야는 어떤 분이 주신 선물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꽃은 프레디 소공자가 준 거예요. 전에도 한 번 준 적이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 꽃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네…? 프레디 소공자님이요…?”

“응? 다들 표정이 왜 그래요?”

첫 파티 때 이후로 프레디 소공자가 레아에게 어떤 편지를 보냈고 그 바람둥이 날라리 소공자가 레아에게 관심을 보이는 중이란 건 황궁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시녀들도 소중한 레아 황녀님이 혹시라도 바람둥이 날라리 소공자에게 반해서 상처받으실까 봐 라이 경과 이어주려고 하는 것도 있었다.

그런데 레아 황녀님이 프레디 소공자에게 다른 꽃도 아니고 카틀레야를 선물하다니. 그것도 두 번이나 받았다는 말에 시녀들은 빠르게 눈빛을 주고받더니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레아에게 말을 걸었다.

“레아 황녀님. 혹시 카틀레야의 꽃말을 아시나요?”

“아니요. 몰라요. 혹시 이상한 뜻인가요?”

“이상한 뜻은 아니에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이게 카틀레야의 꽃말이에요.”

“지극히 프레디 소공자다운 꽃말이네요.”

만날 때마다 진심도 아닌 가벼운 추파를 던지는 프레디 소공자라면 충분히 저 꽃말 때문에 선물했을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시녀들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아뇨. 오히려 바람둥이인 프레디 소공자님답지 않은 선물이에요.”

“네? 왜요?”

“남자가 여자에게 예쁜 꽃말이 있는 꽃을 선물하는 건 흔한 일이죠. 하지만 카틀레야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아무런 사이도 아닌데 이 꽃을 선물했다는 건….”

“선물했다는 건?”

남자가 여자에게 선물했을 때 깊은 의미가 있는 꽃. 그런 꽃 중에서 카틀레야는 아직은 어린 소년이 소녀에게 주는 경우가 많은 꽃이었다.

시녀는 조심스럽게 남자가 여자에게 카틀레야라는 꽃을 선물로 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레아에게 설명해주었다. 시녀의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란 레아는 그 의미를 알려준 시녀에게 되물었다.

“정말 그런 의미라고요? 카틀레야가?”

“네. 라이 경은 몰라도 프레디 소공자님은 그 의미와 뜻을 분명히 알고 황녀님께 선물하셨을 거예요.”

“어…. 좀 당황스럽네요.”

“사실 저희도요.”

레아는 입술을 꾹 깨물고 꽃병에 예쁘게 담긴 카틀레야를 조금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속으로는 절대 그런 의미로 준 게 아닐 거라고 계속 말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다.

‘어째서 저 꽃을 나한테….’

41.닮은 사람.docx

카틀레야의 꽃말.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예쁜 꽃말을 가지고 있는 만큼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선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카틀레야는 특히 풋풋한 소년이 짝사랑하는 소녀에게 선물할 때 주로 선물하는 꽃이었다. 그러다 보니 카틀레야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꽃이 되었다.

[당신이 내 첫사랑입니다. 저의 첫 연인이 되어주세요.]

대부분 사람은 그런 의미로 카틀레야를 선물했고 받는 사람 역시 당연히 그런 의미일 것으로 생각하고 카틀레야를 받는 것이었다. 즉, 프레디 소공자는 두 번이나 레아에게 고백한 것이었다.

‘이걸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나 아니면 평소처럼 그냥 무시해야 하나. 난감하네.’

고백할 거면 좀 상황을 보고 제대로 해야지 이게 뭐란 말인가. 물론 고백이 아니라 평소처럼 의미 없는 추파를 던지는 것이라고 해도 짜증이 나는 건 마찬가지였다. 피곤한데 황궁에 돌아오자마자 쉬지도 못하게 됐으니 레아는 신경이 좀 날카로워진 상태였다.

속으로 프레디 소공자 진짜 싫어! 라고 외친 후 레아는 응접실 안으로 들어갔다. 응접실 안에는 라이 경과 생글생글 웃고 있는 프레디 소공자가 있었고 레아는 그 짜증 날 정도로 잘생긴 두 남자를 한번 번갈아 본 후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다짜고짜 프레디 소공자를 보며 말했다.

“카틀레야. 나한테 대체 무슨 의미로 준 거예요?”

레아의 입에서 카틀레야라는 말이 나오자 프레디 소공자는 씩 웃었고 라이 경은 아까 레아가 그랬던 것처럼 놀라고 당황스러운 얼굴을 했다. 아마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도 카틀레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라이 경도 알고 있는 듯했다.

“카틀레야의 꽃말은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제가 늘 레아 황녀님께 아름답다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한 의미는 없었어요.”

“정말 그게 다인가요?”

“네. 아직은 그 의미가 전부입니다.”

아직은 이라는 말이 좀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 고백은 아니라니 딱히 더 할 말은 없었다. 레아는 카틀레야는 그냥 잊어버리기로 하고 이제 프레디 소공자가 황궁으로 온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기로 했다.

“좀 찜찜하긴 하지만…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럼 황제 폐하와 제가 앙겔루스 제국에 다녀온 사이 일어났다는 그 안 좋은 일이라는 게 뭐죠?”

“사실 아직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는 판단할 수 없어요. 레아 황녀님은 무조건 싫어하시겠지만.”

“왠지 좀 두려워지네요.”

“그럼 그냥 말하지 말까요?”

“프레디 소공자. 저 지금 장난칠 기분 아니에요.”

원래 프레디 소공자의 장난이나 농담을 받아주지 않았지만 지금 레아는 더더욱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 여기서 더 장난을 쳤다간 레아 황녀님의 차디찬 시선을 받을 거 같아 프레디 소공자는 순순히 황녀님의 질문에 대답했다.

“하이모어 가문에서 황실로 혼담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레그마인 황제 폐하 쪽이 아니라 레아 황녀님 쪽인 거 같더라고요.”

“네? 저한테요?”

“네. 대공에겐 이미 대공비가 있으시니, 아마 두 아들 중 한 명을 국서로 만들고 싶다는 거겠죠.”

“그렇다는 건….”

“저도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된 거라 그 혼담의 주인공이 두 아들 중 누군지까지는 알아내지 못했어요.”

모두가 빨라도 혼담은 내년에 들어올 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자신이 황궁에 없는 사이에 혼담이 들어왔다니 레아는 조금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이게 그렇게 큰일이고 안 좋은 의미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아빠라면 1초도 고민 안 하고 바로 거절할 거 같은데. 나도 아직 결혼 같은 거 할 생각 없고 가스파르 재상이나 피에르 시종장님도 지금 당장 결혼하라고 할 거 같진 않아. 그것도 하이모어 대공 가문이라면 더더욱 절대 안 된다고 할 거 같은데.’

아마 레아가 하고 싶다고 말해도 절대 안 된다고 하시지 않을까. 근데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지 생각하고 있는데 뒤에서 가만히 얘기를 듣고만 있던 라이 경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 시작이란 말이군.”

“맞아. 아버지라면 혼담이 거절당해도 어떻게 해서든 형이나 나를 국서로 만들려고 노력하실 거야. 내 아버지는 그런 분이시니까.”

그렇게 말하는 프레디 소공자의 파란 눈은 어쩐지 조금 슬퍼 보였다. 하지만 곧 프레디 소공자는 평소처럼 돌아왔다.

“그래서 그 혼담의 주인공이 나인지 알고 싶어서 황궁에 찾아온 거였어요. 그런데 가스파르 재상께서 정보를 꼭꼭 숨기셔서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피에르 시종장님까지.”

“시녀들 반응을 생각해보면 그런 거 같아요.”

하이모어 대공 가문에서 혼담이 들어왔다는 걸 시녀들이 알고 있었다면 카틀레야를 보고 당연히 라이 경이 준 거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그리고 레아에게 무슨 말을 했어도 했을 거 같은데 아무런 말도 없던 걸 보면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았다. 괜히 소문이 돌아봤자 좋을 게 없으니 레아는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라이 경도 똑같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직 아버지께서는 이 소식을 모르신다는 게 너무 다행이다. 나중에 알게 되시면 뭐라고 말씀하실지….’

아직은 모르셔서 다행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서든 알게 되실 것이었다. 아니, 어쩌면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옆에서 같이 이 얘기를 들으셨을지도 몰랐다. 그럴 확률이 높겠다는 생각이 들자 라이 경은 얼굴이 살짝 어두워졌지만, 레아와 프레디 소공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어쨌든 이 정보를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지만, 일단은 혼담이 들어왔고 그걸 거절한다고 해도 앞으로 내가 하이모어 대공의 아들 둘 중 한 명이랑 엮일 예정이라는 말이네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네. 하이모어 대공은 다른 사람의 의견 따위 신경도 안 쓰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래도 아버지인데 꼭 남처럼 말씀하시네요.”

“아버지와 형의 그런 면은 제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말하면서 프레디 소공자는 활짝 웃었지만, 레아는 그런 소공자의 웃음이 어쩐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이모어 대공도 크라스 경도 프레디 소공자도 다 마음에 안 들어. 사실 따지고 보면 프레디 소공자 말곤 크게 마음에 들지 않을 이유도 아직은 크게 없는데.’

크라스 경이야 만난 적도 딱 한 번밖에 없었고 대화도 거의 나누지 않았으며 하이모어 대공도 레아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딱히 뭘 한 적은 없었다. 혼담이야 생각보다 빨리 와서 좀 놀랐던 거지 언젠가는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사실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레아에게 늘 추파를 던지고 시시껄렁한 말이나 하는 프레디 소공자 말곤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런데도 레아가 그 두 사람을 안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별거 없었다. 라이 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었다.

‘라이 경이 괜히 그런 말 할 사람은 아니니까.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 프레디 소공자랑 친구라는 것도 솔직히 이해는 잘 안 가지만 무슨 이유가 있겠지. 물론 난 프레디 소공자를 제일 싫어하고 있지만.’

그러고 보니 레아는 새삼 자신이 라이 경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사실에 처음에는 잠깐 놀랐지만, 곧 레아는 라이 경은 그럴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프레디 소공자. 왜 굳이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솔직히 소공자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준다고 이득 보는 건 없잖아요.”

오히려 레아에게 이런 말을 해줘서 상황이 꼬인다면 하이모어 대공은 안 그래도 좋게 보지 않는 아들을 더 싫어하게 될 것이었다. 그건 형인 크라스 경과 같이 있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런데도 프레디 소공자는 레아에게 혼담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건 전부 알려주었다.

뭔가 고맙다기보단 좀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다. 레아는 무표정에 말수도 적은 라이 경보다 프레디 소공자가 더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다.

“꼭 제게 이득이 있어야지 레아 황녀님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 그냥 레아 황녀님을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웃는 얼굴로 말도 안 되는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서로 돕고 돕는 사이는 아니잖아요.”

“슬프네요. 전 레아 황녀님께 첫눈에 반했다고 말했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춤도 제가 무슨 이득이 있다고 알려드렸겠어요? 좋아하니까 가르쳐드린 거지.”

“윽. 춤이랑 이건 다르잖아요!”

그래도 레아에게 춤을 알려준다고 프레디 소공자가 이득 볼 게 없다는 말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프레디 소공자가 정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정보를 주고 레아를 도와줄 리가 없었다. 레아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자 프레디 소공자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레아 황녀님께서 잔인하고 악랄한 저희 형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지 않으시길 바라니까요.”

“네?”

“저희 형은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을 도구처럼 이용하고 필요가 없어지면 쉽게 버리면서 알고 보면 자격지심에 찌든 사람.”

“……….”

왜 프레디 소공자는 저런 말을 하는 걸까. 혹시 과거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건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레아는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다. 그런 걸 물어보기에는 프레디 소공자는 언제나처럼 웃고 있었지만, 너무나도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

그 얘기를 끝으로 레아는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먼저 방으로 올라갔다. 라이 경은 프레디 소공자와 할 말이 더 남았기에 응접실에 남았고 그렇게 응접실 안은 이제 다시 라이 경과 프레디 소공자 단둘뿐이었다.

“웬일이야. 네가 나한테 먼저 할 얘기가 있다는 건 좀 오랜만인 거 같은데.”

“……….”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내가 아는 건 아까 황녀님께 말씀드린 게 전부야. 숨기는 건 없어.”

“그건 나도 알아.”

“그럼 할 얘기라는 게 대체 뭐야?”

언제나 그랬듯 기분 좋게 웃고 있는 프레디 소공자는 라이 경이 무슨 말을 할지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별로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기에 괜히 모르는 척하는 거였다. 라이 경 역시 그런 프레디 소공자의 마음을 알고는 있었지만, 똑같이 모르는 척해줄 마음은 전혀 없었다.

“내가 전에 분명히 말했었지. 레아 황녀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너무하네. 기껏 도움 되는 정보도 알려줬는데.”

“선 넘지 마. 자꾸 이러면 아무리 너라고 해도 나도 어쩔 수 없어진다고.”

“선 넘지 말라니. 그게 무슨 뜻이지?”

사실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다. 지금 프레디 소공자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건 그 누구보다 프레디 소공자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었다. 라이 경도 그걸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기에 이 말을 꺼낸 것이었다.

“레아 황녀님은 스텔라가 아니야. 그건 너도 잘 알고 있잖아.”

“스텔라…. 다른 사람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는 건 굉장히 오랜만인 거 같네.”

“벌써 2년 전이야. 언제까지고 과거에서 살고 있을 건데.”

“과거. 그래. 너한테는 2년 전이 과거겠지. 하지만 나한테 스텔라는 단순한 과거로 추억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야.”

“……….”

태어나서 처음으로 순수하게 다가와 준 여자였고 사랑받는다는 게 얼마나 따듯하고 행복한 일인지 알게 해준 여자였다. 비록 끝에는 상처를 받고 프레디 소공자가 갈 수 없는 곳으로 떠나버렸지만, 소공자는 그녀를 잊고 떠나보낼 수가 없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다 지켜봤기에 라이 경 역시 뭐라고 더 말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레아 황녀님께 카틀레야를 선물하고 크라스 경 대신 춤을 가르쳐드리겠다고 한 건 해서는 안 될 짓이었어. 특히 레아 황녀님께는 더더욱.”

“왜? 네가 호위하는 분이니까?”

“그래. 레아 황녀님은 차기 황제가 되실지도 모르는 분이라는 건 너도 이미 잘 알고 있잖아.”

“물론 잘 알고 있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도 혼담을 넣으신 거겠지.”

현재로선 레아 황녀님이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유일한 혈육이고 가족이니까. 레아를 제외한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라이. 그래서 넌 지금 누구로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뭐?”

“레아 황녀님의 호위기사로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친구로서 하는 말인지 묻는 거야. 뭐, 어느 쪽이든 너랑은 별로 안 어울리는 충고지만.”

레아 황녀님의 호위기사로서 하는 말이라면 호위기사 주제에 황녀님이 불쾌하다는 뜻을 밝히시기도 전에 먼저 나서서 프레디 소공자를 차단하는 행동이었다. 어떻게 보면 다소 주제넘어 보일 수도 있는 행동이었고 라이 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었다.

프레디 소공자의 친구로서 하는 말이었다고 해도 평소 소공자가 누구를 만나고 연애하는 것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던 라이 경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입을 대고 충고하는 것이 어울릴 리가 없었다. 그런 프레디 소공자의 말에 라이 경은 어이가 없다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네 친구이자 레아 황녀님의 호위기사로서 하는 말이야. 내 친구인 네가 다른 여자들 갈아치우듯 레아 황녀님께도 그런 무례를 저지른다면 피해를 보는 건 나라고.”

“하긴. 그렇긴 하겠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그럼 내가 레아 황녀님께 진심이라면 아무 상관 없겠네.”

“뭐?”

아직 스텔라를 잊지도 못했으면서 저건 또 무슨 말일까. 장난스러운 목소리였지만 그 뜻은 전혀 장난스럽지 않은 프레디 소공자의 말에 라이 경의 표정은 아까보다 더 험악해졌다.

“난 진심으로 레아 황녀님을 지켜드리고 싶어. 과거에 스텔라를 지켜주지 못하고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들었으니 레아 황녀님만은 꼭 지켜드릴 거야. 절대 형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시도록.”

“레아 황녀님은 스텔라 대신이 아니야. 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야 두 사람은 닮았으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군.”

라이 경이 아는 스텔라는 절대 레아 황녀님과 닮지 않았다. 밝고 씩씩한 레아 황녀님과 달리 스텔라는 여리고 약한 깨지기 쉬운 유리 같은 여자였다. 그런데 프레디 소공자는 어째서 그 둘을 닮았다고 하고 겹쳐 보는 건지 라이 경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무튼, 이번 일에서만큼은 우린 같은 편이야. 어쨌든 둘 다 레아 황녀님을 형으로부터 지키려는 거잖아.”

“결론은 같아도 이유가 다르지. 난 레아 황녀님의 기사로서 황녀님을 지키려는 것뿐이야.”

“글쎄. 과연 그 마음이 전부일까?”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지?”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말라는 소리야.”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말라니. 그게 대체 무슨 뜻이지. 알 수 없는 말에 라이 경은 다시 한번 얼굴을 찌푸렸고 프레디 소공자는 그런 라이 경을 보며 조용히 웃었다.

42.혼담의 주인공.docx

먼저 방으로 돌아온 레아는 프레디 소공자의 그 슬픈 얼굴에 대해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일단 크라스 경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니 뭐니 하는 구질구질한 건 모르겠고 그런 건 형제끼리 알아서 처리할 일이라고 레아는 생각을 정리했다. 지금 레아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자신에게 들어온 혼담에 관한 것이었다.

‘원래는 크라스 경과 프레디 소공자가 신경이 쓰여서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 전에 우선 하이모어 대공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야겠군.’

하이모어 대공이 아들 둘 중 하나를 국서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건 확실했다. 그렇다면 일단 두 아들 중 누가 혼담의 주인공인지 알아낸 다음 그에 맞춰서 작전을 짜는 게 맞는 거 같았다.

‘그런데 둘 중에 누구려나. 하이모어 대공이 나랑 결혼시키려는 아들은.’

옛날에 결혼을 포기했을 때 알아본 결과 보통 데릴사위로 보내지는 건 가문의 차남이었고 장남은 주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주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가끔 차남이 가문을 잇는 일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장남이 가문의 뒤를 이었고 그렇게만 따지면 프레디 소공자가 혼담의 주인공일 가능성이 컸지만….

바람둥이 날라리 소공자로 유명한데 프레디 소공자가 국서가 될 가능성은 그 무엇보다 낮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크라스 경을 국서로 만들고 대공 자리는 친척이나 다른 믿을만한 이에게 물려줄 가능성도 있었다.

하이모어 대공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아빠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대단한 존재에 그리 좋은 사람이 아니란 것뿐이라서 아는 게 거의 없으니 누가 혼담의 주인공일지 예상이 되지 않았다. 그건 라이 경도 마찬가지였기에 레아는 그냥 확실하게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그래서 레아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아빠. 저한테 혼담 들어왔다면서요?”

“쿨럭!”

“상대가 누구예요?”

저녁 식사 중 운을 띄우거나 밑밥을 깔지도 않고 대놓고 상대가 누구냐고 묻는 레아 때문에 당황한 레그마인 황제는 기침을 크게 했다. 그리고 손수건으로 황급히 입가를 닦았고 레아는 그런 아빠를 보며 태연하게 다시 한번 물었다.

“크라스 경과 프레디 소공자 둘 중에 누구예요?”

“레아…. 그런 얘기는 대체 누구한테 들은 거야?”

“프레디 소공자한테 들었어요. 소공자도 상대가 자신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서 황궁에 왔는데 알아낼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하지. 혼담이 들어왔다는 건 나랑 가스파르 재상만 아는 일이니까.”

“그럼 피에르 시종장님은 모르고 있으세요?”

“일부러 말 안 했어. 말하면 안 그래도 60살 넘은 노인네 충격받을 거 같아서.”

레아에게 혼담이 들어온 게 그렇게 충격받을 일인가. 오히려 레아에게 결혼이 마냥 이른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말해준 시종장님이라서 레아는 좀 놀라긴 하시겠지만 충격받으시지는 않을 거 같은데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신보다는 아빠가 시종장님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니 굳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꼭 외할아버지처럼 날 예뻐해 주시니까. 내년이라면 모를까 올해는 아직 이르다고 조금 서운해하실지도 모를 일이지.’

사실 나도 16살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아직도 시종장님이 무엇을 바라고 있으신지 전혀 모르고 있는 레아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

“아무튼, 넌 신경 안 써도 돼. 아빠랑 가스파르 재상이 알아서 잘 해결할게.”

“프레디 소공자는 혼담을 거절해도 하이모어 대공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혼담은 시작일뿐이라고.”

“…그야 그렇겠지.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니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건 레그마인 황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하이모어 대공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국서 자리에 앉히려고 레아를 욕심낼 것이었다. 레그마인 황제는 하이모어 대공이 원하는 대로 일이 굴러가지 않게 레아를 지킬 것이었지만 동시에 레아가 벌써 이런 일에 신경 쓰게 하고 싶지도 않았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대신 처리해주고 싶어. 이렇게 머리 아프고 속 시끄러운 일은 좀 더 크면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데 어릴 때부터 힘들게 할 필요는 없잖아.’

안 그래도 출생의 비밀이나 자라온 환경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될 시선을 받고 레아가 잘못한 일이 아님에도 손가락질받게 된 것이 레그마인 황제는 아빠로서 마음이 무거웠다. 레아가 처음 황궁에 왔을 때는 자신을 닮았으니 씩씩하게 잘 이겨낼 것으로 생각했고 그 생각대로 레아는 씩씩하게 잘 이겨내 주었다. 하지만 막상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레그마인 황제는 딸에게 미안했고 마음이 아팠다.

만약 그때 아리샤에게 좀 더 믿음을 주고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었다면 그녀는 도망가버리지 않았을 것이었고 그랬다면 레아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건데 하고 말이다.

“레아. 힘들고 어려운 건 다 아빠가 할게. 아빠는 네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스트레스도 안 받고.”

“하지만 제 일이잖아요. 혼자서 해결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무슨 일인지는 저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몰라도 잘 살 수 있잖아. 그래도 굳이 알고 싶어?”

“알고 싶어요. 저한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바보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 알았어.”

누굴 닮아서 이렇게 똑 부러지고 책임감이 강한 걸까. 처음 황궁에 왔을 때도 자신을 쏙 빼닮았다고 생각했는데 날이 갈수록 레아는 엄마인 아리샤를 닮아갔다. 황제는 딸의 그런 모습을 보며 이건 절대 이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독하게 사랑했고 아직도 사랑하는 그녀를 닮은 딸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혼담 상대가 누군지 물어봤었지?”

“네. 크라스 경과 프레디 소공자 둘 중에 누구예요?”

“미리 말해두는 건데 아빠는 상대가 누구든 결혼이나 약혼은 반대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저도 벌써 결혼이니 약혼이니 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상대는 누구예요?”

아직 생각이 없을뿐더러 그 두 사람이라면 더 싫었다. 이 대화를 몇 번이고 한 거 같은데 아빠는 그래도 불안한 건지 영 표정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상대가 누군지는 숨기지 않고 말해주셨다.

“둘 다. 크라스 경과 프레디 소공자 두 사람에게 혼담이 들어왔어.”

“네? 두 사람 다요?”

“어이없지 않아? 아버지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 둘의 혼담을 한 사람에게 넣다니.”

“상상도 못 했던 답이네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한테 혼담이 왔다니.”

“하이모어 대공. 기분 나쁜 남자야.”

뭐랄까. 아들을 아들이 아니라 이용가치만 따지는 느낌인 건 레아의 기분 탓이길 바랐지만, 형제가 같은 사람에게 혼담을 보냈다는 건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었다. 아니, 정말 이용가치만 따진다고 해도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두 형제 모두에게 혼담이 왔다는 건 하이모어 대공이 멍청이가 아닌 이상 일부러 거절당하려고 보낸 혼담으로밖에 안 보여. 그런 혼담을 왜 보낸 거지?’

진짜 멍청이도 아니고 둘 중 아무나 하나 걸리라는 건 아닐 것이었다. 하지만 레아는 아무리 생각해도 왜 두 아들 모두 혼담을 보낸 건지 도저히 감이 오지 않았다.

“왜 혼담을 두 사람 다 보낸 걸까요? 무슨 선전포고도 아니고.”

“내 말이 그 말이야.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도저히 속을 알 수 없는 남자라서 기분 나빠.”

프레디 소공자가 속을 알 수 없는 건 친부인 하이모어 대공을 닮은 걸까. 레아는 그렇게 생각하며 저녁 식사 후 후식으로 나온 사과 주스를 홀짝였다. 아무래도 하이모어 대공에 대해 더 깊게 파고들 필요가 있을 거 같았다.

\*\*\*

“가스파르 재상. 하이모어 대공은 어떤 사람이죠?”

“레아 황녀님. 그 사람은 갑자기 왜….”

“몰라서 묻는 거 아니잖아요. 알려주세요.”

“으음.”

수업이 시작하자마자 책을 펼치기도 전에 질문부터 던지는 레아 황녀님 때문에 가스파르 재상은 고민에 빠졌다. 황녀님이 왜 하이모어 대공에 관해 물어보시는 건지는 재상도 당연히 알고 있었다. 안 그래도 가스파르 재상은 요즘 그거 때문에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다.

‘하지만 레아 황녀님께 그 사람에 대해선 알려드리고 싶지 않아. 우리 레아 황녀님은 좋고 예쁜 것만 보시고 지금처럼 아름답게 성장해주셨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인데….’

아직 16살인 소녀에게 벌써 어른의 세계를 보여주고 싶을 리가 없었다. 레아 황녀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게 어떤 얘기인지 알고 있었지만 가스파르 재상은 해주고 싶지 않았다.

“하이모어 대공 가문은 엄청난 영지와 광산을 가지고 있는 가문입니다. 특히 대공이 가지고 있는 광산에서는 마법석이 많이 나와서 30년 전부터 엄청난 수입을 벌여드렸고 첫째 소공자이신 크라스 경은 작년에 있었던 전쟁에서 기사로서 큰 성과를 내서 현재로선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가문입니다.”

“그건 저도 알아요. 그런 게 궁금한 게 아니란 건 재상도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황녀님께 드릴 수 있는 정보는 이게 전부입니다. 죄송합니다.”

레아 황녀님께서 얼마나 똑똑하고 씩씩한 강한 아이인지는 가스파르 재상도 무척이나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기에 가스파르 재상은 황녀님께서 하이모어 대공에 대해 신경 쓰지 않으시기를 바랐다.

‘조금은 우리를 믿고 기대주시면 좋을 텐데. 분명 하이모어 대공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시면 레아 황녀님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으시겠지.’

그러니 애초에 아무런 정보도 드리지 않아야 레아 황녀님을 막을 수 있었다. 가스파르 재상은 그렇게 생각했고 더 말씀해드릴 수는 없다는 재상의 말에 레아도 대공에 대해 더 묻지는 않았다. 저렇게 단호하게 말하는데 말해달라고 조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스파르 재상의 바람처럼 여기서 멈출 생각은 전혀 없었다.

‘좀 쉽게 알아내려고 했는데 순순히 알려주지 않는군. 그럼 이제 어떡하는 게 좋으려나.’

가스파르 재상이 알려주지 않는 걸 소니아 부인이 알려줄 리도 없고 그렇다면 피에르 시종장님께 물어볼까 하고 잠깐 고민했지만, 레아는 그냥 물어보지 않기로 했다.

‘아빠랑 가스파르 재상도 일부러 피에르 시종장님께는 혼담이 들어왔다는 걸 숨기시는 거 같은데 굳이 내가 가서 그 사실을 말할 필요는 없겠지. 그리고 솔직히 알려주실 거 같지도 않고.’

아빠랑 가스파르 재상도 안 알려주는 걸 피에르 시종장님이라고 알려주실 것 같진 않았다.

만약 레아가 물어본다면 피에르 시종장님은 혹시라도 황녀님께서 하이모어 대공의 며느리가 되실까 봐 하이모어 대공이 어떤 사람이고 무슨 만행을 저질렀는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걸 술술 말해주셨겠지만, 레아는 설마 그러실 거라곤 상상도 못 하고 있었다.

황궁에서 무조건 내 편! 이라고 생각했던 어른들이 알려주지 않으니 레아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가스파르 재상과의 수업이 끝나자마자 레아는 라이 경에게 말을 걸었다.

“라이 경. 라이 경은 프레디 소공자랑 친구니까 하이모어 대공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죠?”

“알긴 알지만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저보다는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확실히 하이모어 대공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아직 황녀가 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레아보단 피에르 시종장님의 아들이고 프레디 소공자의 친구인 라이 경이 더 잘 아는 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라이 경 성격상 일부러 파고든 적도 없었고 프레디 소공자와는 아카데미 때부터 친구라고 해도 딱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아는 건 없었다. 오히려 프레디 소공자에겐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 라이 경은 일부러 더 신경 쓰지 않기도 했다.

“뭐라도 좋아요. 뭐든 좋으니까 책에 나오는 그런 정보 말고 내가 모르는 새로운 정보 이런 거 없어요? 아니면 하이모어 대공 가문의 약점이라든가.”

“약점이라면 유일한 약점이 하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일한 약점이라. 그게 뭔데요?”

솔직히 별 기대 없이 물어본 거였는데 설마 유일한 약점이란 말이 나올 줄은 몰랐다. 레아는 이거 생각보다 일이 쉽게 풀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라이 경이 조금 망설이다 말해준 하이모어 대공의 유일한 약점은 레아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었다.

“하이모어 대공의 유일한 약점은 프레디 소공자입니다.”

“프레디 소공자요?”

“결코,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완벽이란 말에 집착하는 하이모어 대공에게 불륜으로 생긴 사생아란 존재를 자신의 인생에 유일한 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존재만으로 자신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라는 말을 자주 하기도 했습니다.”

“프레디 소공자한테 직접 그런 말을 했다고요?”

“아카데미에서는 꽤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레디 소공자가 이제는 바람둥이 날라리라는 소문이 자자하니 현재로선 하이모어 대공의 유일한 약점은 프레디 소공자입니다.”

“으음. 자기 아들이 유일한 약점이라니.”

하이모어 대공의 친아들인 프레디 소공자가 대공의 유일한 약점이라니. 물론 이 약점을 가지고 대공을 협박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하이모어 대공이 완벽주의에 레아의 생각보다 더 쓰레기만도 못한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었다.

‘어떻게 자기 아들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프레디 소공자가 사생아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왜 아들한테 잘못을 떠넘기는 거냐고!’

같은 사생아지만 레아와 프레디 소공자의 환경은 조금 달랐고 레아는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도 있었지만 적어도 아빠에게서 남부럽지 않은, 가끔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레아는 말 같지도 않은 하이모어 대공의 말에 더 크게 분노했다.

이런 사람이 이 제국의 대공이라니. 마음 같아서는 작위고 뭐고 다 뺏어버리고 다닐로만 제국에서 쫓아내고 싶었다. 물론 그게 가능할 리가 없었지만 말이다.

“혹시 다른 거 뭐 아는 건 없어요?”

“제가 아는 건 책이나 가스파르 재상께서 수업 때 황녀님께 알려드리는 것 정도입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하이모어 대공이 완벽주의자라는 건 새로운 정보였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생각보다 더 쓰레기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건 뭐 재활용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썩을 대로 썩은 쓰레기랄까. 생각만 해도 불쾌해져서 레아는 얼굴을 찌푸렸다. 이래서 아빠와 가스파르 재상이 아무런 말도 안 해준 건가 싶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정보가 부족해. 뭔가 좀 더 이 바닥 소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시녀들 말고 또 누구 그런 사람이 없을까.’

시녀들의 도움만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기에는 상대가 하이모어 대공인지라 좀 부족한 감이 있었다. 그래서 레아는 누구 좋은 사람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다.

“다리아 영애는 좀 알고 있으려나.”

확실히 다리아 영애는 앨버트 후작 가문의 영애였고 평판도 꽤 괜찮은 인물이었다. 16살이란 어린 나이에 인맥이 넓은 편이라고 들었으니 그런 다리아 영애라면 아마 레아가 원하는 정보를 알고 있을 것이었다. 왜 처음부터 다리아 영애에게 물어볼 생각을 못 했을까 하고 레아는 바로 다리아 영애에게 보낼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조금 이용하는 거 같기도 하지만 어차피 3번은 만나서 차도 마시고 얘기도 나눠보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먼저 친해지고 싶다고 한쪽도 다리아 영애였으니 이 정도 도움은 받아도 되겠지.’

43.선빵을 양보합니다.docx

레아의 초대에 다리아 영애는 기뻐하며 초대에 응하겠다고 답신을 보내왔고 그렇게 두 사람은 주말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그리고 그런 황녀님을 보며 라이 경은 좀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쩐지 뭔가 좋지 않은 느낌이다. 불안하군.’

설마 레아 황녀님은 위즈덤 부인과 소니움 황자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이모어 대공도 조져버릴 생각은 아니시겠지…?

앞서 제대로 조져버린 두 사람과는 다르게 하이모어 대공은 레아 황녀님의 힘으로 조져버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천하의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몇 안 되는 인물을 황녀인 레아 황녀님께서 그렇게 간단하게 조져버릴 수 있을 리가 없었다.

오히려 조지려고 했다가 상처투성이가 되는 건 레아 황녀님 쪽이 될 확률이 높았다. 그러니 제발 그냥 대공이 자기 아들을 국서로 만들려는 일만 잘 피하고 레아 황녀님께서는 하이모어 대공을 신경 쓰지도 말고 엮이시지도 않으셨으면 하고 라이 경은 바랐다. 하이모어 대공은 그 정도로 질이 안 좋고 조금은 두려운 상대였다.

‘나는 레아 황녀님을 지켜드려야 하니까. 또 프레디 자식이 자기도 황녀님을 지켜드리고 싶다는 생각 따위 못 하도록 만들어야겠지.’

질투 같은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프레디 소공자의 말을 듣고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프레디 소공자가 왜 레아 황녀님과 자신이 지켜주지 못했던 스텔라가 닮았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친구와 황녀님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

“갑작스러운 초대였는데 응해줘서 고마워요. 다리아 영애.”

“아니에요. 잊지 않고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혹시나 레아 황녀님이 절 잊고 초대해주시지 않을까 봐 걱정하면서 초대해주시기만을 기다렸는걸요.”

“하하. 설마 그럴 리가요.”

사실은 앙겔루스 제국에서 하도 정신이 없어서 조금 잊고 있었는데. 악의라고는 전혀 없는 다리아 영애의 말에 레아는 속으로 뜨끔했지만, 겉으로는 절대 아니라는 듯 웃었다.

“그런데 초대장에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이 궁금하셨던 건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아, 그냥 사교계에서 다리아 영애가 들은 얘기가 궁금해서요. 들어보니 영애는 사교계에서 인맥이 꽤 넓다면서요?”

“네. 나중에 후작이 되려면 아는 사람도 많고 여러 이야기를 들어야 정보에 빨라야 한다고 배워서 파티에 열심히 참석했거든요. 그리고 파티에 가면 프레디 소공자님을 만나 뵐 수 있으니 제가 갈 수 있는 파티는 거의 다 참석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이에 비해 인맥이 넓어졌답니다.”

거기다 다리아 영애는 귀족 부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아 예쁨을 많이 받는 편이었다. 소니아 부인 역시 다리아 영애를 칭찬했을 정도였고 어떤 사람들은 앨버트 후작이나 후작부인보다 다리아 영애와 더 친하다고 할 정도였다.

‘은근히 적이 많은 나랑은 완전 다르구나. 아무튼, 덕분에 원하는 정보는 얻을 수 있을 거 같아서 다행이다. 그런데 프레디 소공자에 대한 마음도 어느 정도는 정리한 모양이네. 그것도 다행이다.’

파티에 가면 프레디 소공자를 만날 수 있었다고 말하는 다리아 영애의 얼굴을 보니 약간은 아련함이 묻어나오긴 했지만, 마음의 정리는 대충 끝난 것 같았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보를 좀 얻어내야겠다고 레아는 생각했다.

“다리아 영애. 영애는 굉장히 입이 무거운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절대 남의 비밀을 떠들고 다니지 않아서 사교계에서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인기가 많다는 건 잘 모르겠지만, 비밀은 잘 지키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상대는 저를 믿고 비밀을 말해준 건데 제가 그 비밀을 지키지 못하면 그 믿음에 배신하는 거잖아요.”

“배신이라. 다리아 영애의 말을 들어보니 정말 그렇네요.”

아직 다리아 영애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므로 아무리 입이 무겁고 비밀을 잘 지킨다는 이야기를 익히 들었어도 믿어도 될지 조금 고민했는데 저 말을 들으니 레아는 한번 믿어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좋아요. 그럼 다리아 영애. 영애는 나를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나요?”

“네. 저는 절대 레아 황녀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저렇게 얘기하는데 한 번 정도는 믿어봐도 되겠지. 그리고 만약에라도 다리아 영애가 레아를 배신한다고 해도 오늘 할 얘기는 어떻게든 수습이 가능한 얘기였다. 물론 그 후에 다리아 영애가 치러야 할 후폭풍은 결코 수습 가능한 수준이 아니겠지만 말이다.

“그럼 다리아 영애를 한번 믿어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우리가 할 얘기는 비밀이에요. 알았죠?”

“네. 레아 황녀님.”

어쩌면 앞으로 다리아 영애를 믿고 같은 편이 되어도 될지 아니면 적으로 돌려야 할지를 결정하는 일종의 테스트였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레아와 달리 다리아 영애는 조금 설레하고 있었다.

‘레아 황녀님이 나를 믿어본다고 하셨어!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비밀이라니. 과연 어떤 걸 물어보실까?’

전에 분명 솔직하게 말해줬으니 용서해주겠다고 말씀해주시긴 했지만, 다리아 영애는 줄곧 프레디 소공자에게 레아 황녀님을 안 좋게 말했던 게 마음에 걸렸었다. 레아는 그런 거 이미 잊은 지 오래였지만 다리아 영애는 이번에 꼭 레아 황녀님께 도움이 되리라 다짐했다.

“사실 내가 얼마 전에 혼담을 받게 되었어요. 그것도 두 사람한테서.”

“보통은 17살 때부터 혼담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역시 레아 황녀님께는 꽤 빨리 혼담이 들어오셨네요.”

“근데 문제는 그 두 사람이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형제라는 점이에요. 난 일찍 결혼할 생각도 없는데 형제 모두에게 혼담이 들어와서 솔직히 이게 무슨 뜻인가 싶기도 해요.”

“네…? 그, 그러니까 같은 가문에 같은 성을 쓰는 형제 두 사람이 황녀님께 혼담을 넣었단 말이죠?”

“네. 영애가 생각해도 어이없죠? 그것도 본인들이 직접 혼담을 넣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란 사람이 맘대로 넣은 거 같더라고요.”

“뭔가…대단하네요.”

원래 두 사람이 연애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아니라 혼담이 와서 결혼하는 경우는 부모님이 짝을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형제가 같은 여자에게 혼담을 넣는 건 정말 상상도 못 했던 일이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레아 황녀님이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으니 보통 얘기는 아니겠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역시 레아 황녀님은 대단한 사람이었다. 다리아 영애는 속으로 감탄했지만, 레아의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었다.

“그래서 말인데 나한테 하이모어 대공에 대해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사교계 평판이나 뭐 그런 거요.”

“네? 갑자기 하이모어 대공은 왜….”

“아, 그 혼담을 하이모어 대공이 보냈거든요. 근데 책에 나오는 부분이나 가문에 관한 얘기 말곤 제가 알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레아 황녀님께 혼담이 들어왔다는 형제는….”

“크라스 경과 프레디 소공자. 두 사람에게 왔어요.”

레아 황녀님의 입에서 프레디 소공자의 이름이 나오자 다리아 영애의 표정이 약간 묘해졌다.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을 정리했다고는 해도 아직 완전히 마음을 접은 건 아니었고 미련은 조금 남은 상태였다. 거기다 다리아 영애가 마음을 접으려고 노력했던 건 모두 레아 황녀님의 말 때문이었는데 그런 황녀님이 어쩌면 프레디 소공자와 결혼하게 될지도 모른다니. 다리아 영애는 당연히 기분이 묘할 수밖에 없었다.

“혹시나 해서 미리 말해두는 건데 나는 크라스 경이나 프레디 소공자랑 결혼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혼담으로 누군가를 만날 생각도 없고요.”

크라스 경은 결혼이니 마니 할 것도 없이 아는 것도 별로 없었고 그 남자는 반대라는 라이 경의 말 때문에 별로 좋은 느낌도 아니었다. 프레디 소공자야 뭐…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이지만 역시 좋은 느낌은 아니었다.

“그렇구나. 저도 모르게 순간 오해할 뻔했어요.”

“영애한테는 뭐가 아쉬워서 그런 바람둥이 날라리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느냐고 뜯어말렸으면서 그 말한 지 몇 주 만에 그 바람둥이 날라리 소공자랑 결혼할 거 같다는 건 너무 웃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 일찍 결혼할 생각 없다니까요.”

남자친구 한번 못 사귀어본 모태솔로면서 이 나이에 결혼 생각부터 할 리가 없었다. 아무튼, 프레디 소공자와 결혼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말에 다리아 영애는 그럼 그렇지, 하고 안심하는듯한 얼굴을 했다.

“하이모어 대공은 자기 아들을 국서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프레디 소공자는 내가 혼담을 거절해도 대공은 뜻을 굽히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나는 하이모어 대공에 뜻에 따라 순순히 그 가문 사람과 결혼해주진 않을 거예요. 차라리 결혼을 안 하고 말지.”

“그래서 레아 황녀님께서는 하이모어 대공과 맞서 싸우기 위해 대공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단 말씀이시죠?”

“맞서 싸우는 것까진 아니라도 정보가 필요한 건 맞아요. 다리아 영애. 나를 좀 도와주겠어요?”

“네. 물론이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프레디 소공자와 관련이 있는 일이고 다리아 영애와는 오늘이 고작 두 번째 만나는 것이라서 혹시나 도와주지 않으면 어쩌나 조금 걱정했는데 방긋 웃으면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다리아 영애를 보며 레아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일단 하이모어 대공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레아 황녀님도 잘 아실 거로 생각해요. 늘 완벽한 걸 추구하는 성격이라 이상하리만큼 주변에 신뢰하거나 가까운 이도 없다고 해요. 하지만 자신의 발밑에 두고 있는 가문들이 많아 오느아 씨와 위즈덤 부인과는 좀 느낌이 달라요. 정말 무서운 분이세요.”

“흐음. 혹시 약점이나 허점은 없을까요?”

“하이모어 대공도 사람이니까 약점이 있기야 하겠죠. 하지만 워낙 완벽함에 집착하시는 분이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진 약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혹시 그 약점이란 게 프레디 소공자란 말인가요?”

“네. 완벽해야만 하는 인생에 불륜의 증거인 사생아가 태어난 것이니까요. 하이모어 대공은 프레디 소공자님을 인생에 유일한 흠이라고 생각하고 있으세요.”

“…진짜 싫네요. 하이모어 대공이란 인간이.”

“네. 그래서 사교계에도 하이모어 대공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만 대공이 가진 힘이 무지막지하니 대놓고 싫어하고 불만을 표할 수 없을 뿐이죠. 그 힘 때문에 설설 기어 다니는 가문들도 많다고 알고 있어요.”

물론 한때는 공작부인이었던 위즈덤 부인도 귀족들 사이에서는 나름대로 높은 위치라면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다. 그래도 황족인 레아가 마음만 먹으면 털어버릴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하이모어 대공은 감히 그럴 수 없는 수준이었다. 알고는 있었지만, 다리아 영애의 말에 레아는 그 사실이 더 확실하게 와닿았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왜 자기 아들을 굳이 나한테 장가보내려는 걸까. 분명 더 좋은 자리가 차고 넘치…지는 않겠구나. 내가 제국에 유일한 황녀니까.’

진심으로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아버지라면 다르겠지만 하이모어 대공은 충분히 자신의 힘을 더 키우기 위해서 아들을 레아와 결혼시켜버릴 사람이었다. 아마 레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황녀였고 황녀가 숨만 붙어있으면 어떤 사람이든 하이모어 대공은 혼담을 보냈을 것이었다.

만약에 아빠가 하이모어 대공 같은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고 생각하며 레아는 한숨을 쉬었다. 그런 레아에게 다리아 영애는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말해보았다.

“레아 황녀님.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하이모어 대공이 국서로 만들고 싶어 하는 아들은 분명 크라스 경일 거예요.”

“어째서요?”

“아까 황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프레디 소공자님은 하이모어 대공의 약점이자 흠이라고 생각하는 존재니까요. 만약 프레디 소공자님이 국서가 되신다면 오히려 하이모어 대공이 숨기고 싶어 하는 사실이 더 주목받고 알려지는 꼴이 되지 않을까요?”

“흐음. 그렇긴 하겠네요.”

레아도 황제인 아빠와 시녀였던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로 당장 얼마 전에 참석했던 파티에서도 부담스러운 시선을 받았었다. 그런데 비슷하게 대공인 아버지와 시녀였던, 그것도 유부녀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프레디 소공자와 결혼한다면….

‘아마 엄청난 이슈가 되겠지. 아주 난리가 나서 제국이 들썩들썩 시끄러워질 만큼.’

그리고 프레디 소공자의 출생 배경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주목받을 것이었다. 하이모어 대공은 숨기고픈 일이 더 주목받을만한 일을 만들려고 하진 않을 것이었다.

“그런데 그렇다면 프레디 소공자와의 혼담은 왜 보낸 걸까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지 않았나요?”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완전히 차이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요?”

“일부로 완전히 차이기 위해서요?”

“방금 말했던 그 이유로 하이모어 대공은 프레디 소공자님이 국서가 되지 않길 바라실 거예요. 그런데 최근 프레디 소공자님이 레아 황녀님께 관심을 보이고 있으시니 미리 싹을 자른 게 아닐까요?”

“크라스 경과의 혼담은 선전포고고 프레디 소공자와의 혼담은 미리 싹을 자르기 위함이라. 그럴듯한 추측이네요.”

“감사합니다. 레아 황녀님.”

전에 초대했을 때는 너무 답답하고 생각이 마냥 어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 다리아 영애는 역시 듣던 대로 똑똑하고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다. 그럼 그때는 정말 사랑에 눈이 멀어 잠시 바보가 됐던 걸까. 레아는 사랑이란 건 참 무서운 거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하이모어 대공에 대해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서 막막했는데 영애 덕분에 갈피가 조금 잡힌 거 같아요. 고마워요. 다리아 영애.”

“아니에요. 저도 레아 황녀님께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뻤어요.”

고맙다는 레아의 말에 다리아 영애는 싱긋 웃으면서 아니라고 말해주었다. 깨끗하고 맑게 웃는 다리아 영애를 보며 레아도 따라 웃으며 말했다.

“다리아 영애. 다음에 또 초대해도 될까요?”

“네. 다음에 올 때는 미리 필요하신 정보를 편지로 보내주시면 그 정보를 모아서 올게요.”

“에이, 그러면 제가 너무 영애를 이용하는 거 같잖아요. 하지만 그러도록 할게요.”

“하하. 그럼 전 이만 물러나도록 할게요.”

예쁘게 웃는 다리아 영애에게 레아는 손을 흔들어주었고 두 사람의 두 번째 만남은 그렇게 끝이 났다.

다리아 영애가 돌아간 후 방으로 돌아온 레아는 지금까지 추측한 부분들을 머릿속에서 정리해보았다. 일단은 확실하진 않아도 하이모어 대공이 두 아들의 혼담을 모두 보낸 이유와 어느 쪽을 진짜 국서로 만들고 싶은 건지는 알 것 같았다.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게 문제란 말이지.’

그냥 크라스 경을 찾아가 대놓고 혼담을 거절해서 차버릴 수도 있었고 아니면 하이모어 대공을 찾아가 까놓고 말하는 방법도 있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이모어 대공을 상대로 그런 공격적인 행동은 위험할 거 같았다. 그리고 레아가 먼저 선빵을 날리면 분명 소란스러워질 게 뻔했고 소란스러워져봤자 레아에게 좋을 건 없었다. 레아는 일단 조금 기다려보기로 했다.

기다려보고 저쪽에서 뭔가를 하면 그에 대한 반격을 하는 게 맞는 거 같았다. 그리고 아빠나 가스파르 재상의 눈치도 보였기 때문에 레아는 일단 얌전히 기다리면서 조용히 하이모어 대공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44.보고 싶으면 안 되는 사람.docx

“……….”

대공의 집무실 앞에 선 프레디 소공자는 가만히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18살 때 이후로 아버지인 하이모어 대공의 부름으로 이 문 앞에 서보는 건 오랜만이었다.

‘솔직히 들어가고 싶지 않아.’

아주 어릴 때부터 18살 때까지 이 방에 들어가서 좋았던 기억은 없었다. 어떨 때는 멍투성이가 되어서 나온 적도 있었고 피를 흘리면서 나온 적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프레디 소공자의 마음은 너덜너덜해지고 만신창이가 되었었다.

이번에도 분명 멀쩡하게 나오는 건 불가능하겠지. 집무실 안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약간은 포기한 마음으로 프레디 소공자는 한숨을 쉬곤 조심스럽게 집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난 너 같은 아들을 둔 적도 없고 하이모어 가문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은 더더욱 없으니까.”

“…아버지도 형처럼 여전하시군요.”

어쩜 아버지와 형은 이렇게나 닮았을까. 똑같은 아버지의 아들인데 프레디 소공저와는 다르게 형은 아버지를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많이 닮아있었다. 그 반면 프레디 소공자는 어째서인지 은빛 머리카락과 짙은 파란색 눈동자를 빼면 아버지를 전혀 닮지 않았었다.

‘만약 내가 형보다 더 아버지를 쏙 빼닮았다면 지금과는 상황이 좀 달랐을까. 내가 레아 황녀님처럼 아버지와 판박이였다면….’

그랬다면 나도 레아 황녀님처럼 귀염받고 사랑받으면서 살 수 있었을까. 인제 와서 얼굴을 뜯어고칠 수도 없는 건데 프레디 소공자는 그런 생각을 하며 별처럼 빛나는 레아 황녀님의 얼굴을 떠올렸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황녀님에 관한 얘기를 듣고 프레디 소공자는 자신과 똑같은 사생아인 레아 황녀님께 조금의 관심도 없었다. 그저 자신보다는 상황이 좀 더 나으니 적어도 상처는 조금 덜 받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황녀님을 직접 뵙고 나니 프레디 소공바는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평생 여자라면 돌보듯이 볼 것만 같았던 친구와 손을 꼭 잡고 파티장에 등장한 레아 황녀님을 보고 프레디 소공자는 꼭 밤하늘에서 빛나고 있는 별 같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접근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던 라이의 말을 무시하고 조금 장난을 쳤던 것이었다. 그런데 다른 여자들과 달리 레아 황녀님은 얼굴을 찌푸렸고 그 모습이 프레디 소공자에겐 신선하게 다가왔다.

조금 재수 없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프레디 소공자를 보고 얼굴을 찌푸린 여자는 레아 황녀님이 처음이었다. 거기다 라이도 레아 황녀님께는 친구인 자신조차 처음 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흥미가 안 생기려 해도 안 생길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고 흥미였지. 별로 특별한 감정도 아니었어. 처음에는….’

위즈덤 부인에게 토마토 주스를 부어버리고 무너지게 만드는 걸 보고 보통 여자가 아니란 건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샌가 프레디 소공자는 레아 황녀님을 생각하면 스텔라가 떠올랐다.

‘스텔라와 닮았어. 어디가 닮았다는 건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왠지 느낌이 그래.’

얼굴이 닮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격이 비슷한 것도 아니었다. 스텔라는 조용하고 소심해서 그런 일을 당해도 제대로 말도 못 하는 아이였으니까. 그런데도 프레디 소공자는 레아 황녀님과 스텔라가 닮아 보였고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을 겹쳐보기 시작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프레디 소공자는 스텔라에게 주려고 했던 카틀레야를 레아 황녀님께 선물했다. 첫 번째로 줬던 카틀레야는 형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지만 두 번째는 스텔라가 받아주었으면 했던 그 꽃을 스텔라와 닮은 레아 황녀님이 받아주시길 바라서였다. 못난 방법이었지만 프레디 소공자는 그렇게 해서라도 스텔라에게 카틀레야를 선물하고 싶었다. 그리고 과거 스텔라를 지켜주지 못했던 걸 레아 황녀님을 지키는 것으로 대신하고 싶었다.

‘나도 진짜 못났다. 레아 황녀님이 이 사실을 아신다면 분명 화내시겠지. 어쩌면 내 눈알을 뽑고 혀를 자르고 손가락을 자른 다음 복숭아 주스를 부어버릴지도 모르겠군.’

그렇게 당해야 과거를 잊고 이 멍청한 짓도 그만둘 수 있으려나. 차라리 그렇게라도 해서 프레디 소공자는 과거를 잊고 벗어날 수 있게 도움을 받고 싶었다.

‘한때는 나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어. 나도 레아 황녀님처럼 강하고 씩씩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프레디 소공자는 자신은 약하고 병들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을 병들게 한 사람 중 한 명과 마주하고 있었다.

“오늘 내가 널 왜 불렀는지 알고 있느냐.”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니. 이런 뻔뻔한 녀석 같으니라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오늘도 프레디 소공자를 병들게 한 남자는 그에게 다짜고짜 화를 내고 있었다. 슬프지만 익숙한 상황이었기에 프레디 소공자는 조용히 입술을 꾹 깨물었다.

“난 내 아들을 국서로 만들려고 했어! 크라스는 충분히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어. 너만 아니었어도 무난하게 황실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

“망할 놈. 너도 국서가 되고 싶었던 거냐? 그래서 내 아들의 앞길을 막아?”

“그런 거 아닙….”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럼 너 말고 또 누가 그런 짓을 했다는 말이냐! 내 이름을 이용해 맘대로 황녀님께 혼담을 보내?”

“제가 그런 게……!”

“시끄러워!”

자신이 한 짓이 아니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프레디 소공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이모어 대공은 잉크병을 던졌다. 덕분에 프레디 소공자는 새카만 잉크를 뒤집어쓰게 되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넌 내 인생의 유일한 흠이자 걸림돌이었다. 너 같은 거 그냥 태어나자마자 제 어미랑 같이 죽여버렸어야 했는데….”

“……아버지.”

“그나마 수습 가능한 일이었으니 다행인 줄 알아라. 아니었으면 넌 내 손에 맞아 죽었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가 되어도 프레디 소공자는 아무런 말 없이 가만히 서 있었다. 이렇게 상처받는 건 아무리 겪어도 늘 처음처럼 가슴이 시큰하게 아팠다. 하지만 프레디 소공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그런 프레디 소공자를 보며 아직 분이 덜 풀린 건지 하이모어 대공은 책을 집어 던졌다.

“……….”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프레디 소공자는 피하지 않고 그 책을 맞았다. 만약 피했다면 하이모어 대공은 더 화를 냈을 것이었기에 소공자는 가만히 있었고 아들이 만신창이가 된 모습을 보고서야 하이모어 대공은 분이 조금 풀린듯했다.

하이모어 대공은 프레디 소공자에게 이제 나가보라는 듯 손짓했고 결국 프레디 소공자는 아무런 말도 못 하고 집무실을 나왔다. 그의 은빛 머리카락은 새카만 잉크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아까 맞은 책 때문에 눈가에는 상처가 생겨 있었다. 거울로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며 프레디 소공자는 이럴 때마다 스텔라의 모습을 떠올렸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오늘은 스텔라가 아닌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레아 황녀님이 떠올랐다.

‘문득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 내가 나쁜 놈이겠지. 내 꼴도 참 우습네.’

친부에겐 아들 취급도 못 받으면서 밖에는 이 여자 저 여자 잠깐 잠깐씩 만나는 바람둥이 날라리. 그런데 속은 병들어서 추억 하나를 못 잊어 과거에 얽매여 살다 이제는 다른 사람과 과거의 사람을 겹쳐보고 있었다.

스스로 생각해도 참 못나도 이렇게 못날 수가 없는 최악의 남자였다. 프레디 소공자는 그렇게 생각하며 씁쓸하게 웃었다.

\*\*\*

일단은 하이모어 대공이 어떻게 나올지 기다려보기로 한 레아는 이제 드디어 쉴 수 있게 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역시나 레아의 예상대로 일이 굴러갈 리가 없었다.

“아름다우신 레아 황녀님을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레아 황녀님께 마법을 알려드릴 키린 코델리아라고 해요. 편하게 키린이라고 불러주세요.”

“반가워요. 키린. 앞으로 잘 부탁해요.”

“네. 저도 잘 부탁드려요. 그럼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테스트해볼까요?”

레아보다 두세 살 정도 많아 보이는 키린은 보조개가 쏙 들어가게 밝은 웃음을 지었다. 레아는 그런 키린을 보면서 참 밝고 활기찬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어제 갑자기 저녁을 먹다 말고 마법을 알려줄 선생님이 오실 거라고 해서 당연히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선생님이 오실 거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어린 사람일 줄은 몰랐어. 듣기로는 마력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는데 과연 진짜일까?’

보기에는 파릇파릇하고 깜찍한 평범한 소녀 같은데. 하지만 귀여운 겉모습과는 다르게 키린은 폭발적인 마력으로 평민 출신임에도 어린 나이에 황궁 마법사가 되었다고 했다. 레아는 역시 사람은 생긴 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 레아 황녀님. 잠시 손을 내밀어보시겠어요?”

“이렇게요?”

“네. 잠시만 움직이지 말고 그렇게 있어 주세요.”

레아가 두 손을 내밀자 키린은 펼쳐놓은 알록달록한 돌멩이에 마법을 걸었다. 그러자 돌멩이들은 잠시 들썩들썩하더니 다섯 개 중에 세 개의 돌이 붕 떠올랐고 레아의 손 위에 떨어졌다.

“음. 파란색 돌이랑 빨간색 돌, 하얀 돌이네요. 레아 황녀님께선 물 속성과 불 속성, 바람 속성이 제일 잘 맞으실 거 같아요. 보통은 하나 아니면 두 개 정도가 대부분인데 세 개나 올라오다니 레아 황녀님께서는 타고나신 마력이 대단하신 편이세요.”

“진짜요? 주변에 마법을 쓰는 사람이 없어서 전혀 몰랐어요.”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선 검을 다루시는 분이시니 아마 황녀님의 어머니 쪽이 마력이 굉장하셨을 거예요.”

엄마는 마법을 전혀 못 쓰시는 분이셨는데. 아마 엄마도 본인이 마력이 굉장하다는 사실을 모르셨을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며 레아는 붕 떠오르지 못한 두 돌에 시선에 주었다.

“그럼 나머지 두 돌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돌인가요?”

“갈색 돌은 땅 속성의 돌이에요. 황녀님에 손까진 가지 못했지만, 이 돌도 살짝 공중에 뜨긴 했으니 아마 배워도 나쁘진 않을 거 같아요. 그리고 이 까만 돌은 소위 말하는 흑마법 속성이에요.”

“흑마법이라면 뭐 저주를 내리거나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맞아요. 보통 남을 해치거나 이용하는 무서운 마법이 많아요. 그런데 이 돌은…느낌이 좀 묘하네요.”

“네? 왜요?”

그런 무서운 마법은 별로 배우고 싶지 않은데. 다른 돌들이 들썩이고 공중에 뜰 때 이 돌만은 조금 흔들리다가 말아서 레아는 자신과는 안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키린은 까만 돌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뭐랄까.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어쩌면 잘 맞을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랄까요? 가능성이야 충분히 있지만 뭔가 망설임이 느껴지고 있어요. 이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으음. 왠지 좀 신경이 쓰이네요. 이 까만 돌.”

“제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도 흑마법은 쓸 수가 없거든요. 저랑은 맞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배울 수도 없었고요. 아마 이 부분은 흑마법을 다루는 마도사에게 물어보시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한 번 물어봐야겠네요.

흑마법을 쓰는 마도사의 수는 제국에 딱 30명 정도가 있었고 그중 대부분은 어두운 음지에서 조용히 활동하는 사람들이었다. 보통 사람들에겐 만나려고 해도 쉽게 만날 수 없는 존재였지만 레아에게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황궁에는 흑마법을 쓸 줄 아는 마도사 다섯 명 정도 있다고 했었지. 나중에 한 번 만나 봐야겠다.’

자신이 흑마법처럼 무서운 것과 연관이 있다니 레아는 어쩐지 좀 신경이 쓰였다. 알쏭달쏭한 표정으로 까만 돌을 보고 있는 키린이었지만 레아는 그냥 자신이 흑마법과는 안 맞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럼 레아 황녀님과 잘 맞는 세 속성 중 무엇을 먼저 배우고 싶으세요? 혹시 쓰시고 싶으셨던 마법 있으세요?”

“글쎄요. 마법을 잘 모르기도 하고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떻게 예를 들어야 레아 황녀님이 더 쉽게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까. 잠시 고민하던 키린은 곧 좋은 생각이 떠올라 손가락을 탁 튕기며 말했다.

“레아 황녀님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구는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혼내주고 싶으신지 생각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마법으로 혼내줘요?”

“네. 황녀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평민 출신에 나이도 어려서 처음 황궁 마법사가 되었을 때 무시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제대로 열이 받아서 마법으로 혼내줬었어요. 그때 이후로 까부는 사람이 없어졌는데 폐하께서도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제게 레아 황녀님의 마법 수업을 부탁하신 게 아닐까요?”

“왠지 저도 그럴 거 같네요. 저희 아빠라면….”

머리에 토마토 주스를 들이붓고 따귀를 때리는 거론 만족을 못 하시는 분이니까. 레아는 아빠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분이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레아 황녀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법으로 혼내줄 방법은 많고 다양하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라.”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레아는 단번에 세 남자가 생각이 났다. 하이모어 대공과 크라스 경. 그리고 프레디 소공자. 그 세 사람에게 걸고 싶은 마법이라면 하나 있긴 있었다.

“혹시 마법으로 숨기는 사실이나 속사정을 술술 불게 만들 수도 있나요?”

“가능은 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읽을 수 있는 마법을 걸거나 사랑에 빠지는 묘약을 만들어서 먹인 다음에 알아내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두 방법 모두 흑마법이라 저는 쓸 수가 없어요.”

조금 아쉽기도 했지만, 흑마법이라면 레아도 별로 쓰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하지만 그것 말고는 딱히 세 사람에게 걸고 싶은 마법이 있을 리가 없었다.

“아, 아니면 다른 마법을 이용해서 고문을 통해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불을 이용해 신체 일부를 태워버린다거나 물을 이용해서 숨구멍을 막아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땅에 파묻어 버리고 또 바람을 이용해서….”

“잠, 잠깐만요. 키린. 그건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하하. 그냥 그런 방법이 있다고 설명해드린 것뿐이에요. 물론 레아 황녀님의 마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요.”

활기차게 웃는 키린을 보며 레아는 그렇다면 나중에 곤란할 때가 오면 마지막 무기로 한번 써볼까 하는 고민을 잠시 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이모어 대공에게 쉽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었기에 레아는 고문을 통해 자백을 받아내는 건 포기하기로 했다.

45.이것도 습격일지도.docx

불 속성 마법과 물 속성 마법은 잘못했다간 실수로 황궁을 물바다로 만들거나 불을 질러버릴 수도 있었기에 최소한의 안전장비가 필요했다. 바람 속성 마법은 값비싼 물건을 다 깨버릴지도 몰랐고 땅 속성 마법은 황궁 안에서 연습했다간 황궁이 무너질지도 모를 일이었다.

키린은 괜찮을 거 같다고 했지만, 레아는 본인을 믿지 못하겠다고 두 번째 수업부터 제대로 배우겠다고 하는 바람에 일단 오늘은 기본적인 치유마법을 배우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그런데 사실 치유마법은 딱히 제가 알려드리지 않아도 기본적인 마력만 있다면 누구나 쓸 수 있는 마법이에요. 이론만 알아도 쉽게 쓸 수 있는 마법이라 시녀 중에서도 치유마법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많고요.”

그렇게 얘기하며 키린은 종이를 반으로 찢었다. 그리곤 레아에게 찢어진 종이를 주며 말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다짜고짜 해보라고 해도….”

“괜찮아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아까 알려드린 대로 마력을 집중시킨 다음에 종이를 살짝 어루만지시면 돼요.”

“으음.”

과연 살짝 어루만지는 것만으로 찢어진 종이를 붙일 수 있을까. 지금까지 스스로 마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지도 못했고 마법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았던 레아는 조금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아까 키린이 알려준 대로 마력을 집중시킨 후 조심스럽게 종이를 어루만졌다.

그러자 찢어진 종이는 약한 하얀빛에 의해 거짓말처럼 다시 붙었고 마치 찢어진 적이 없었던 듯이 깔끔하게 새 종이처럼 이어 붙은 종이를 보며 레아는 깜짝 놀랐다.

“우와. 대박!”

“잘하셨어요. 레아 황녀님. 그럼 이번에는 종이를 좀 더 찢어볼게요.”

그렇게 키린은 종이를 아까보다 더 찢었고 레아는 다시 그 찢긴 종이를 이어붙였다. 그러면 키린은 다시 종이를 찢었고 레아는 그걸 이어붙였고 키린이 또 종이를 찢으면 레아는 또 이어붙이고…. 그렇게 찢고 이어붙이는 걸 반복하며 레아는 치유마법을 마스터할 수 있었고 그렇게 키린과의 첫 수업은 끝이 났다.

‘설마 나한테도 마력이란 게 있었을 줄이야. 거기다 타고난 마력도 대단한 편이라니 신기하다. 엄마도 본인이 마력이 있다는 건 전혀 몰랐겠지?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하단 말이지.’

만약 엄마가 본인이 가진 마력을 알아서 황궁에 시녀가 아니라 키린처럼 황궁 마법사로 아빠를 만났었다면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 않았을까 하고 레아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냉각마법이나 보온마법을 할 수 있었다면 우나타에서 리베르타를 운영했을 때도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었다. 레아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1시간 정도 여유시간이 생겼으니 오랜만에 느긋하게 황실 정원이나 산책해볼까 생각 중이었다.

‘라이 경이 방 밖으로 나갈 일이 있으면 꼭 부르라고 했지만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정원 산책 정도는 혼자 해도 괜찮겠지. 고작 산책하겠다고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사람 부르기도 좀 미안하고.’

최근 앙겔루스 제국에 다녀오기도 했고 레아의 호위를 맡는다고 바빴던 라이 경은 레아가 키린에게 마법을 배우는 동안 한동안 못했던 훈련을 할 것이라고 했었다. 그런데 훈련이 생각보다 길어졌는지 수업이 끝나도 라이 경은 돌아오지 않았고 레아는 산책하고 싶다고 괜히 훈련 잘 받는 사람 불러내기도 좀 미안하기도 해서 혼자 정원을 산책하기로 했다. 다른 곳도 아니고 황실 정원인데 설마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기도 했다.

“날씨 좋다. 이제 별로 덥지도 않고 진짜 곧 가을이겠구나.”

가을이면 또 황실에서 파티가 열릴 것이었다. 다른 영애들에 비하면 파티에 잘 나오지 않는 레아였지만 어쩐지 돌아서면 파티고 또 파티인 느낌이었다.

‘가을에 열리는 파티는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탄생일을 축하하는 파티라고 했지. 그럼 아빠 생일이라는 건데 선물은 따로 준비 안 해도 되는 건가? 고민이네.’

원래 레아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진 엄마의 생일 때마다 직접 정성이 가득 담긴 선물을 준비했었다. 그런데 아빠는…. 다닐로만 제국의 황제 폐하신데 딱히 필요하거나 가지고 싶으신 게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레아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면 서운해하실 거 같아서 더 고민이 되었다.

‘엄마 생일은 봄이라서 꽃다발을 만들거나 커피를 좋아하셔서 용돈 모아서 비싼 원두를 사서 선물로 드리곤 했는데. 아빠한테는 그런 선물이 필요할 리가 없겠지.’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황실 정원 앞에서는 꽃다발이 초라할 거 같았고 레아가 아무리 돈을 모아서 좋은 원두를 구매해도 황실 주방에 있는 원두에 비하면 싸구려 원두에 불과했다. 스케일이 달라도 너무 남다른 아빠 때문에 레아가 선물로 뭘 준비하든 보잘것없어 보일 것 같았다.

그럼 그냥 서운해하시더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입을 싹 닦을까. 레아는 잠시 고민을 하며 느릿느릿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저 멀리 커다란 나무 밑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이 시간에 누구지?”

남들은 다 일한다고 바쁜 이 시간에 느긋하게 산책을 하는 사람이 레아 말고 또 있을 리가 없었다. 혹시 정원사가 그늘 밑에서 잠시 쉬고 있는 건가 하고 레아는 조용히 발소리를 죽이고 그 사람에게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늘 밑에 서 있는 사람은 큰 키에 은빛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남자였다.

‘키가 크고 은빛 머리카락이라면 혹시…?’

속으로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기는 했지만, 은빛 머리카락은 꽤 흔한 색이었기에 확신은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레아는 조심스럽게 그 남자를 불러보았다.

“프레디 소공자.”

“레아 황녀님…?”

“역시 프레디 소공자가 맞았네요.”

“어떻게 이런 곳에서 우연히 만났을까요? 어쩌면 이것도 다 우리가 운명이라는 하늘의 뜻인 건 아닐까요?”

“여긴 우리 집 정원이고 이 시간에 산책할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만나는 게 당연한 거 같은데요. 그런데 프레디 소공자는 황실 정원에는 웬일이에요?”

“레아 황녀님이 보고 싶어져서 무작정 찾아왔다면 믿어주시겠습니까?”

평소에 던지는 가벼운 추파가 아니라 이번에는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런 프레디 소공자의 마음을 알아줄 리가 없는 레아는 그 말을 전혀 믿지 않는 눈치였다. 그런 황녀님을 보며 프레디 소공자는 작게 웃었다.

“어라. 안 믿어주시네요. 진심이었는데.”

“재미없어요. 그만 해요. 그런데 프레디 소공자.”

“네. 레아 황녀님.”

“얼굴이 왜 그래요? 어디 긁혔어요?”

“아.”

아까 하이모어 대공이 던진 책에 맞아 긁힌 상처였다. 프레디 소공자는 이런 상처 정도야 며칠만 지나면 저절로 없어지니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레아는 그 긁힌 상처가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았다.

‘사람은 영 별로여도 얼굴 하나는 진짜 잘생겼는데 저게 뭐야. 하얀 얼굴에 상처가 있으니까 더 눈에 띄잖아. 누구는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지는 얼굴인데 괜히 내가 속상하잖아.’

절대 프레디 소공자를 걱정하는 건 아니었지만, 괜히 잘생긴 얼굴에 상처가 있으니 좀 속상했다. 그래서 레아는 자신도 모르게 프레디 소공자의 얼굴로 손을 뻗었다.

“………!”

갑자기 레아의 손이 닿자 프레디 소공자는 깜짝 놀랐지만, 레아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긁힌 상처를 어루만졌다. 그러자 프레디 소공자의 얼굴에 있던 상처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사라졌다.

“흉 지면 어쩌려고 연고도 안 바르고 왜 그냥 놔뒀어요. 치유마법을 못 쓰면 다른 사람한테 해달라고 하든가.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다면서요.”

“아뇨. 저도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요. 마력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고 기본적인 건 아카데미에서 배웠으니까요”

“할 줄 알면서 왜 안 해요? 진짜 흉터라도 남으면 어떡하려고.”

“이런 건 그냥 놔둬도 금방 나아서 신경 안 쓰는 편이거든요.”

“신경 좀 써요. 하얀 얼굴에 긁힌 상처 있으면 얼마나 보기 싫은데 그걸 그냥 놔둬요.”

“레아 황녀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앞으론 신경 쓸게요. 걱정해주시고 치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걱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냥 내가 보기 싫으니까 그러는 거지. 마침 내가 오늘 치유마법을 배워서 특별히 해준 거예요.”

“하하. 제가 운이 좋았네요. 그래도 감사해요. 레아 황녀님.”

역시 레아 황녀님은 스텔라와 전혀 비슷하지 않았다. 자신을 좋아한다고 말했으면서 그렇게 떠나버린 스텔라와 달리 레아 황녀님은 자신이 싫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긴 상처도 그냥 보고 넘어가지 못하셨다. 그리고 치료까지 해주셨으면서도 얼굴은 찌푸리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닮았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프레디 소공자도 잘 모르겠지만 사랑스러운 레아 황녀님과 마주하고 있으면 그때 그 시절 스텔라를 마주하고 있었을 때처럼 기분이 좋아졌다.

“레아 황녀님. 머리에 꽃잎이 붙으셨어요.”

“정말요? 이제 됐어요?”

“아뇨. 아직 안 떨어졌어요.”

“이제 떨어졌어요?”

“아니요. 아직.”

머리에 붙은 꽃잎 하나 제대로 때지 못하는 게 영락없는 16살 소녀 같아서 프레디 소공자는 신기했다. 평소에 씩씩하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황녀님과는 다른 사람 같아서 프레디 소공자는 그게 참 귀여워 보였다.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앗…?”

프레디 소공자는 자상하게 웃으면서 레아의 황금빛 머리카락에 손을 뻗었고 분홍색 꽃잎을 레아의 머리에서 때주었다.

“이제 곧 가을인데 황실 정원에는 아직 상사화가 피어있네요. 이 꽃잎이 머리에 붙어있었어요.”

그렇게 말하며 프레디 소공자는 싱긋 웃었고 레아는 프레디 소공자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런 두 사람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살랑 불어왔다.

\*\*\*

‘생각보다 훈련이 길어져서 결국은 늦어버렸군. 레아 황녀님께서는 과연 방에서 안 나오시고 날 기다리고 있으실까.’

원래 딱 2시간만 하려고 했는데 오랜만에 하는 훈련에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생각보다 훈련이 좀 늦게 끝나버리고 말았다. 라이 경은 혹시나 레아 황녀님께서 기다리실까 봐 빠르게 샤워를 끝냈다. 사실 기다리실까 봐 걱정이 아니라 레아 황녀님께서 혼자 돌아다니실까 봐 그게 걱정이었다.

‘방 밖으로 나가실 일이 생기시면 부르시라고 바로 가겠다고 말씀드렸지만…. 분명 황궁 안인데 무슨 일 있겠냐면서 혼자 돌아다니실 분이지. 레아 황녀님은.’

그런 부분은 레그마인 황제 폐하와 꼭 닮은 부분이었다. 그래도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는 검술 능력이 뛰어나셔서 습격이 있어도 큰 걱정이 없었지만, 레아 황녀님께서는 검을 잡을 줄도 모르시니 라이 경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아무리 강한 분이시라고 해도 황녀님은 검을 사용하실 줄도 모르셨고 마법도 오늘 태어나서 처음 배우시는 것이었다. 갑자기 자객이 찾아와 암살을 시도할 확률은 매우 낮았지만, 그래도 호위기사로서 완전히 안심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뭐야. 라이. 벌써 가게?”

“레아 황녀님께서 혼자 있으시니 빨리 가봐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온 건데 좀 더 있다가 가지? 어차피 황궁 안인데 레아 황녀님도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실 거 아니야.”

“그러다 습격이라도 당하시면 다 제 책임이지 않습니까.”

“야. 다닐로만 제국의 황궁에 자객이 침입한 게 너 태어나기도 전인 21년 전이었고 황실에서 암살이 일어난 건 내가 태어나기도 전인 25년 전이야. 그런데 진지하게 그런 걸 걱정한다고?”

샤워를 빠르게 마치고 갈 준비를 하는 라이 경을 보며 푸엘라 경은 어이가 없다는 얼굴로 말했다. 황실에 불었던 피바람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푸엘라 경은 황실에서 마지막 암살이 일어났던 건 25년 전이라고 알고 있었다. 뭐, 피바람도 15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말이다.

“그러지 말고 시원한 우유 한 잔만 마시고 가라. 설마 우유 한 잔 마시는 사이에 무슨 일 생기겠어?”

“푸엘라 경. 혹시 저 말고는 같이 우유 마셔줄 사람도 없는 겁니까?”

“웃기시네. 너야말로 나 아니면 같이 우유 마시자고 해줄 사람도 없잖아.”

“그건 그렇긴 합니다.”

워낙 무뚝뚝한 편이라서 먼저 다가가는 편도 아니었지만 아무리 잘생겼어도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이라 그런지 라이 경에게 먼저 친근하게 다가와 주는 사람도 크게 없었다. 좋다고 달려드는 여자들은 많았지만, 그 외에는 스스럼없이 편하게 다가와 주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그러고 보니 레아 황녀님께서도 처음부터 날 불편해하지 않고 스스럼없이 다가와 주셨지. 고개 내밀지 말고 마차 안으로 들어가시라는 내 말을 가볍게 무시하실 정도로.’

본인이 제국의 황녀라는 사실을 알기도 전부터 레아 황녀님께서는 라이 경을 까만 경이라고 부르며 그러셨다. 그때 생각에 라이 경은 작게 웃음이 나왔다.

“갑자기 왜 웃어? 잘 웃지도 않는 애가.”

“그냥 잠깐 누가 좀 생각이 나서요.”

“누구? 여자친구?”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여자친구도 없는 건 푸엘라 경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야 모르지. 요즘 황녀님 호위 맡아서 훈련하러 잘 오지도 않는 놈이 그사이에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생겼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

요즘 결혼하고 싶다면서 여자친구 만들려고 노력 중인데 그게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아 푸엘라 경은 괜히 잘생긴 라이 경에게 툴툴거리는 중이었다. 같이 우유라도 마시면서 인기 비결에 대해 듣고 싶었는데 라이 경은 레아 황녀님께서 기다리신다면서 매정하게 나가버렸다.

그렇게 훈련장을 나와 레아 황녀님께 가려고 정원을 지나가고 있을 때 라이 경은 익숙한 뒷모습이 보여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저 황금빛 머리카락은 레아 황녀님이실 거고 같이 있는 사람은…프레디?’

왜 방에 있으셔야 할 레아 황녀님께서 정원에 계신 건지도 모르겠지만 어째서 저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걸까. 저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건 절대 좋은 일이 아니었기에 라이 경은 두 사람에게 다가가려고 했다. 그러나 곧 다시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다.

갑자기 레아 황녀님께서 손을 뻗어 프레디의 얼굴을 어루만지셨고 프레디는 놀랐는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라이 경은 두 사람에게 더 다가갈 수가 없었다.

‘레아 황녀님이 어째서 프레디의 얼굴을…?’

분명 레아 황녀님은 프레디를 싫어하고 있으셨는데…? 이해가 가지 않은 상황에 라이 경은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곧 프레디는 자상하게 웃으며 레아 황녀님의 머리카락을 만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프레디의 그런 행동에도 레아 황녀님께서는 손길을 피하거나 화를 내지 않으시고 가만히 있으셨다.

그리고 그대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을 보자 라이 경은 왠지 알 수 없는 기분 나쁜 감정에 휩싸였다. 어쩌면 습격은 이미 당한 걸지도 모르겠다.

46.말도 안 되는 오해.docx

프레디 소공자는 레아의 머리에 붙었던 상사화의 꽃잎을 때서 레아에게 건네주었다. 레아는 얼떨결에 그 꽃잎을 받았고 이걸 왜 주냐는 듯한 얼굴로 프레디 소공자를 바라보았다.

“레아 황녀님. 혼담 상대가 저와 형 중에 누군지 알아내셨나요?”

“그게 아빠한테 물어보니 대답해주시긴 했는데…두 사람 다 혼담이 들어왔다고 하셨어요.”

“결과적으론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소공자는 하이모어 대공이 왜 두 아들 모두 혼담을 보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으신가요?”

“아뇨. 모르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애초에 하이모어 대공은 크라스 경의 혼담만 보냈으니까. 프레디 소공자의 혼담은 누가 보낸 건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께서 보낸 혼담은 형의 혼담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 혼담을 보낸 건지는 좀 더 알아봐야 할 거 같아요.”

“혹시 프레디 소공자가 직접 알아볼 생각이신가요?”

“네. 전 믿을만한 제 편이 없는 사람이라 누군가에게 부탁했다간 분명 아버지 귀에 들어갈 건데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야 그렇지만….”

그렇지만 프레디 소공자가 굳이 레아를 도와주려는 이유는 뭘까. 처음 혼담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부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레아는 이번에도 그 부분이 신경 쓰였다.

“프레디 소공자. 전에도 물어봤었던 건데 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솔직히 도와주지 않아도 소공자와는 상관없잖아요.”

“전에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레아 황녀님께서 형 때문에 아프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 황녀님을 지켜드리고 싶으니까요.”

“그런 말 평소에 다른 여자들한테도 하고 다녀요?”

프레디 소공자는 이 여자 저 여자 다 찌르고 다니는 바람둥이니까 지켜주고 싶다는 말도 예쁘다, 아름답다는 말처럼 오만 여자에게 하고 다니는 말일지도 몰랐다. 그러기엔 그때 그 슬픈 얼굴이 마음에 좀 걸리기도 했지만, 레아는 프레디 소공자가 진심일 거란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

“제가 지켜주고 싶다고 말한 여자는 레아 황녀님이 두 번째세요. 아무한테나 막하는 말이 아니라 제 진심입니다.”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요?”

“첫 번째가 아니라서 아쉬우신가요?”

“설마 그럴 리가요.”

첫 번째가 아니라서 아쉬운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면 과연 첫 번째는 누구였을지 레아는 조금 궁금했다. 그래서 물어볼까 하고 잠깐 생각했지만, 레아는 그냥 물어보지 않기로 했다.

‘상대는 바람둥이 날라리로 유명한 프레디 소공자야. 까딱 잘못했다간 나도 모르게 넘어갈 뻔했네. 말을 잘해서 처음에는 싫어하던 여자들도 결국은 넘어간다는 게 진짜구나. 그동안은 너무 별로라서 헛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설마 프레디 소공자의 저 말이 진짜일 거라곤 생각조차 하지 않는 레아를 보며 프레디 소공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많은 여자를 꾀어봤지만, 레아 황녀님은 참 어려운 여자였고 진심을 말해도 진심이 통하지 않는 여자였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그렇게 다가가지 않았을 건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으니 인제 와서 내 진심이 통할 리가 없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러설 마음은 없었다. 그러다 사악하고 악랄한 형 때문에 레아 황녀님이 스텔라처럼 된다면 프레디 소공자는 정말 무너져버릴지도 몰랐다.

레아 황녀님께서 자신의 옆에 있어 주신다면 그게 제일 좋기는 하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어디에서라도 레아 황녀님이 행복하게 반짝반짝 빛나기를 프레디 소공자는 바랐었다. 딱 한군데를 빼면 레아 황녀님의 곁에 누가 있든 황녀님이 행복하시다면 프레디 소공자는 괜찮았다. 딱 한군데만 빼면.

“그런데 황녀님은 오늘 왜 혼자세요? 설마 호위기사가 땡땡이치러 가서 그런 건 아니겠죠?”

“라이 경이 프레디 소공자랑 똑같은 줄 알아요?”

“에이, 알고 보면 저도 착실한 타입이에요. 아카데미 다닐 때도 제가 라이보다 공부도 더 잘했는걸요.”

“거짓말.”

어. 진짠데.

하지만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굳게 믿는 레아 황녀님을 보며 프레디 소공자는 그냥 웃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시질 않으니 어떡해야 할지 조금은 고민이 되었다.

\*\*\*

프레디 소공자와 이야기를 끝내고 레아는 다시 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터덜터덜 걸으며 정원을 나오는 중이었다.

“레아 황녀님.”

그러다 뒤에서 상당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뒤를 돌아보자 그곳에는 라이 경이 있었다.

“라이 경. 훈련은 끝났어요?”

“네. 방금 끝났습니다. 마법수업이 끝나시기 전에 끝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뭘 그런 거로 죄송해요. 하다 보면 좀 늦을 수도 있지. 그리고 마법수업이 생각보다 일찍 끝난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안 그래도 혼자 돌아다니시지 말고 훈련 중이라도 부르실 일이 생기면 꼭 불러달라고 했는데 혼자 정원을 산책 중이셔서 좀 놀랐습니다.”

“아, 그게….‘

황실 정원 정도야 혼자 돌아다녀도 상관없을 줄 알았는데 라이 경의 표정을 보니 그게 아닌 듯했다. 그런데 황녀는 내 집 정원도 혼자 산책하면 안 된다는 건 좀 솔직히 과보호 아닌가. 레아는 혼자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갈수록 라이 경도 아빠를 닮아가는 건지 요즘 너무 과보호란 말이지. 내가 무슨 불면 날아가고 쥐면 터지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과거 브로디 아저씨는 레아만큼 씩씩하고 어디를 내놔도 잘 해낼 거 같아서 잘 먹고 잘살 거 같은 애도 없을 거라며 호탕하게 웃으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 나탈리 이모를 제외한 모두가 그 말에 동의했었는데 왜 황궁 사람들은 그 반대로 생각하는 건지 레아는 의문이었다.

“그냥 잠깐 바람만 쐬고 바로 들어오려고 했어요. 그러다 중간에 프레디 소공자를 만나서 생각보다 좀 더 정원에 있었지만….”

“안 그래도 프레디와 나무 밑 그늘에서 대화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봤어요? 그럼 그때 오지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러려고 했는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프레디 소공자랑 얘기 중이었는데 라이 경이 와서 끼지 못할 이유는 없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었다는 말에 레아는 고개를 갸웃거렸고 그런 레아를 보며 라이 경은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황녀님께서는 프레디의 얼굴을 어루만지시고 프레디는 황녀님의 머리카락을 만지길래 혹시라도 방해하는 걸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레아 황녀님께서는 프레디를 싫어하시는 줄 알았는데….”

“당연히 싫어하죠! 무슨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레아가 라이 경과 그렇고 그런 사이가 아닐까 하고 의심하거나 그런 사이로 발전하길 기대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레아와 다른 남자의 사이를 오해하고 있었다. 그것도 하필이면 프레디 소공자와 레아의 사이를.

아니, 아무리 오해할 게 없어도 뭘 그런 걸 오해하고 상대는 그 많은 남자 중 왜 하필이면 프레디 소공자인지 레아는 어이가 없었고 어쩐지 조금 서운하기도 했다.

“내가 얼굴 어루만진 게 아니라 프레디 소공자 얼굴에 상처가 있길래 보기 싫기도 하고 마침 오늘 치유마법도 배워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치료해준 거예요. 그리고 프레디 소공자가 내 머리카락을 만진 것도 머리에 꽃잎이 붙어서 때준 것뿐이라고요.”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내가 지금 크라스 경이나 프레디 소공자랑 결혼 안 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 중인데.”

솔직히 정말 마음 같아서는 아빠와 가스파르 재상이 원하는 것처럼 레아도 하이모어 대공 같은 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좀 쉬고 싶었다. 하지만 가만히 있자니 불안해서 대공의 뒷조사를 하면서 두 사람 중 한 명이 국서가 되는 일은 막으려고 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라이 경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하니 레아가 어이없어할 만하기도 했다.

“제가 오해를 했군요.”

“네. 완전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다행히 오해는 풀렸지만, 레아는 도대체 왜 라이 경이 그런 오해를 한 건지 좀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라이 경은 평소와 똑같은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쩐지 기분이 좋아 보이는 건 내 착각이겠지.’

언제나 그렇듯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드는 느낌에 레아는 아까보다 더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

“하비투스 님, 하비투스 님!”

“그렇게 뛰다가 넘어지겠다. 키린.”

“하지만 빨리 오지 않으면 하비투스 님은 어두컴컴한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시잖아요!”

“밖에 나와봤자 너처럼 귀찮게 구는 사람들만 가득하니까.”

“귀찮다니 너무하세요! 물어볼 게 있어서 열심히 뛰어온 건데.”

레아 황녀님과의 첫 수업이 끝나고 바로 열심히 뛰어온 건데 시큰둥한 반응의 하비투스 때문에 키린은 잔뜩 볼을 부풀렸다. 하지만 키린이 토라지든 말든 하비투스는 검은 로브에 달린 모자를 벗었다. 그러자 가려졌던 예쁘장한 얼굴이 드러났고 키린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진짜 그 어두침침한 로브 좀 벗으면 안 돼요? 요즘에도 로브 입는 마도사는 하비투스 님뿐일 거예요. 매일 얼굴 가리고 다니는 거 답답한데 그냥 벗고 다니시지.”

“싫어.”

“시녀들이 하비투스 님 로브 태워버리겠다고 벼르고 있다는 소문 못 들었어요? 뭐…황궁에선 로브를 절대 안 벗으시니까 실패하고 있지만. 보는 사람 답답하니까 그냥 좀 벗고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얼굴 내놓고 다니면 귀찮아져서 싫어.”

“…라이 경도 얼굴 내놓고 잘만 다니던데.”

도대체 저 예쁜 얼굴을 왜 저렇게 꼭꼭 숨기고 다니는 걸까. 그나마 편한 사이인 키린 앞에서는 지금처럼 모자 정도는 벗었지만, 로브는 무슨 가죽도 아니고 절대 벗지 않았다. 그거 때문에 황궁에서 아깝다며 눈물을 흘리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비투스는 그런 반응이 귀찮다고 시큰둥하게 말할 뿐이었다.

‘내가 저 얼굴이면 진짜 야무지게 잘 써줄 수 있는데. 아깝다, 아까워. 나도 레아 황녀님만큼은 너무 욕심이라도 딱 하비투스 님만큼만 예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분홍색 머리카락에 루비처럼 새빨간 붉은 눈동자를 가진 하비투스는 참 예쁘장하게 생긴 남자였다. 거기다 매일 검은 로브를 뒤집어쓰고 햇빛을 안 봐서 그런지 하얗고 뽀얀 얼굴에 미소년처럼 보이는 게 얼굴만 보면 올해로 30살이란 나이가 믿기지 않는 동안이라 은근히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편이었다.

키린은 그런 예쁜 얼굴과 동안이라는 축복이 왜 하비투스 님에게 간 건지 안타깝기만 할 따름이었다. 키린의 그런 반응에 익숙한 하비투스는 딱히 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숨 가쁘게 뛰어온 건데?”

“아, 맞다. 저 물어볼 거 있어요!”

“꼭 나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냐.”

“으음. 꼭 그런 건 아닌데 흑마법에 관련된 거라서요.”

“그럼 다른 마도사한테 물어봐.”

황궁에 마도사가 하비투스 한 사람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대답해줄 필요는 없었다. 나머지 네 명 중에 한가한 놈이 잘 대답해줄 거로 생각하며 하비투스는 다시 모자를 뒤집어쓰고 어두컴컴한 방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하지만 하비투스 님이 다닐로만 제국에서 제일 뛰어난 마도사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하비투스 님께 온 건데….”

“다른 녀석들도 네 호기심을 풀어줄 정도는 돼. 그 정도도 안 되면 황궁에 들어올 수도 없었겠지.”

“제 호기심 때문이 아니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대답해줄 이유는 더더욱 없겠지.”

아는 사이도 아닌 사람 때문에 시간을 쓸 필요는 없었다. 그리고 이제 키린에게도 쓸 시간은 없기에 하비투스는 모자를 더 푹 눌러쓰고 어두컴컴한 방으로 진짜 들어가려고 했다. 그런데 그런 하비투스의 뒷모습을 보며 키린은 다급하게 외쳤다.

“아, 레아 황녀님 관련된 일인데…!”

“……….”

“오늘 레아 황녀님과 첫 수업을 했는데 적성 테스트할 때 까만 돌의 반응이 좀 묘해서요. 황녀님께서도 왜 그런 건지 궁금해하시던 거 같던데….”

“첫 수업?”

“하비투스 님은 모르셨구나. 저 오늘부터 레아 황녀님께 마법을 알려드리게 되었어요.”

항상 어두컴컴한 방에만 콕 틀어박혀 있으니 하비투스는 정보가 느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레아 황녀님의 이름이 나오자 하비투스의 눈빛은 아까와는 조금 달라졌다.

“황녀님께서 흑마법에 적성이 있으시다는 건가?”

“아뇨. 까만 돌은 들썩이기만 하고 공중에 조금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느낌이 좀 묘했거든요.”

“느낌이?”

“네. 그런데 그런 느낌은 처음이어서 저도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비투스 님께 물어보려고 온 거예요.”

“흐음.”

레아 황녀님의 이름이 나오자 평소와는 조금 다른 하비투스 님의 반응에 키린은 신기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무언가에 관심을 보이는 하비투스 님은 처음이었다.

‘아무리 만사에 무기력하고 관심 없는 하비투스 님이라고 해도 역시 레아 황녀님에 대해선 조금 궁금하신 걸까? 하긴. 하비투스 님은 황녀님의 어머니와도 친하셨으니까.’

어린 시절 피바람으로 인해 갑자기 시종으로 황궁에 오게 된 하비투스는 레아 황녀님의 어머니이신 시녀와 꼭 오누이처럼 가까운 사이였다고 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떠난 그녀 때문에 충격받았고 그때부터 사람이 좀 이상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후에 넘치는 마력과 특히 흑마법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 마도사가 된 이후로도 가끔 하비투스는 그때 그 시절을 그리워했다. 사실 그래서 레아 황녀님이 처음 황궁에 오셨을 때 관심을 보이기도 했었다.

‘하지만 신기할 정도로 황제만 닮았단 말에 흥미를 잃었었지. 근데 마력도 있고 심지어 검은 돌의 느낌이 묘했다는 건….’

어쩌면 아리샤 누나가 떠나고 잃어버렸던 목표를 다시 이룰 수 있게 될 기회가 온 걸지도 몰랐다. 15년 만에 다시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다. 하비투스는 깊게 눌러 썼던 모자를 다시 벗고 키린을 보며 말했다.

“다음 수업 때는 나도 같이 가.”

“네? 하비투스 님도요?”

“까만 돌의 느낌이 묘했다며. 내가 직접 봐줄게.”

“진짜요? 근데 왜 갑자기 생각을 바꾸신 거예요?”

“그냥.”

계속 시큰둥하다 갑자기 왜 생각을 바꾼 건지 키린은 궁금해서 물어봤지만 하비투스는 제대로 대답해주지 않았다. 그리고는 어두컴컴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47.누군가에게는 선물 누군가에게는 독.docx

루시 하비투스는 황궁 소속으로 다닐로만 제국 최고의 마도사였다.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시종으로 황궁에 온 그는 엄청난 마력과 천재적인 재능으로 20살에 황궁의 마도사가 되었고 30살이 된 지금은 다닐로만 제국 최고의 마도사가 될 수 있었다. 비록 성격이 상당히…더럽다는 소문도 같이 났지만 말이다.

항상 어두컴컴한 방에 틀어박혀서 잘 나오지도 않고 가끔 나와도 검은 로브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리고 다녀서 얼굴을 아는 이도 적었고 아리샤가 떠난 이후로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아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커녕 그의 이름이 루시라는 것도 아는 이가 거의 없었다.

그런데 그런 하비투스가 지금 레아의 앞에 서 있었다.

“키린. 옆에 그 시커먼 로브로 온몸을 가리신 그분은 누구…?”

“아, 이쪽은 황궁 마도사이신 하비투스 님이세요. 까만 돌에서 좀 묘한 느낌이 느껴졌다고 말씀드렸더니 레아 황녀님을 직접 뵙고 싶다고 하셔서 같이 왔어요.”

키린은 해맑게 웃으며 옆에서 수상한 향기를 풀풀 풍기고 있는 하비투스를 소개해줬다. 하지만 키린의 소개에도 레아는 뭔가 좀 애매한 시선으로 하비투스를 바라보았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검은 로브로 가려서 하나도 안 보이네. 이러면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르겠어. 으음. 목소리라도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거 같은데.’

키나 체형을 봐도 훤칠한 여자인 거 같기도 하고 왜소한 남자인 거 같기도 해서 알쏭달쏭하기만 했다. 물론 성별을 떠나 뭔가 수상해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키린이 직접 데리고 온 사람인데 위험한 사람은 아닐 거라고 레아는 생각했다. 그런데 라이 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당신이 정말 하비투스 님이라면 모자를 벗고 황녀님께 얼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지 않으시면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멀쩡하게 이 방을 나갈 수도 없게 되실 것입니다.”

“……더럽게 빡빡하게 구네.”

모자를 벗고 레아에게 얼굴을 보이라는 말에 로브로 온몸을 가린 하비투스라는 그 사람은 예쁘고 고운 미성의 목소리로 전혀 예쁘지 않은 말을 했다. 하지만 툴툴거리면서도 그 사람은 천천히 모자를 벗었고 곧 얼굴이 완전히 드러났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본 레아는 깜짝 놀랐다.

‘예쁘다…!’

얼굴을 보니 남자인 건 확실한 것 같은데 레아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자의 얼굴을 보고 잘생겼다, 멋있다가 아니라 예쁘다고 생각하며 감탄하는 중이었다. 그 정도로 하비투스는 정말 예뻤고 심지어 목소리도 고운 미성이라 예쁜 얼굴과 너무나도 잘 어울렸다.

“제 얼굴을 아실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비투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됐죠?”

“하비투스 님. 레아 황녀님께 인사 안 드리실 건 아니죠?”

“아, 맞다. 깜박했어.”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레아 황녀님.”

그런데 그 예쁜 얼굴과는 하는 행동이 정반대였다. 순간 이건 또 뭔가 하는 당황스러워하는 레아를 보며 키린은 대신 사과를 했고 속으로 괜히 데리고 왔다고 후회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키린이 옆에서 그러든 말든 하비투스는 레아에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했다.

“레아 황녀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다닐로만 최고의 마도사 하비투스라고 합니다. 그냥 하비투스라고 불러주세요.”

“으응. 저도 만나서 반가워요. 하비투스.”

아빠 이후로 이런 이상한 사람은 처음이었다. 당연히 레아는 하비투스의 첫인상이 별로였고 하비투스는 다시 모자를 뒤집어써서 얼굴을 가렸다. 그런 하비투스를 보며 키린은 레아의 눈치를 살폈다.

“죄송해요. 레아 황녀님. 원래 이런 분이시긴 했지만 웬일로 먼저 황녀님을 뵙고 싶다고 하셔서 같이 온 건데…. 그래도 실력만큼은 다닐로만 제국 최고의 마도사가 맞으시니 너무 걱정하진 마세요!”

“네. 걱정은 안 해요.”

“다행이다….”

성격이 저 모양 저 꼴인데도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는 걸 보면 다른 건 몰라도 실력 하나는 출중할 것이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멀쩡하게 살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레아는 하비투스를 찌릿 째려보았다. 하지만 로브를 뒤집어쓰고 얼굴을 가린 하비투스는 레아의 눈빛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아니, 무슨 반응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다 가리고 있어서 레아는 알 수가 없었다.

“레아 황녀님. 전에 했던 것처럼 한번 손을 내밀어보시겠어요?”

키린의 말에 레아는 손을 내밀었고 하비투스가 알록달록한 돌에 마법을 걸자 이번에도 다섯 개의 돌들은 들썩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와 똑같이 빨간 돌, 파란 돌, 하얀 돌이 레아의 손 위로 올라왔고 갈색 돌은 공중에 뜨긴 했지만, 레아의 손까진 오지 못했다. 그리고 까만 돌은 역시나 이번에도 들썩이기만 할 뿐 공중에 떠오르진 않았다.

“하비투스 님. 뭔지 아시겠어요?”

“흐음. 확실히 흔히 볼 수 있는 경우는 아니네. 이런 것도 유전이 될 수 있다니 놀라워.”

“역시 하비투스 님은 까만 돌이 왜 이런지 아시는군요.”

“레아 황녀님의 마력은 무조건 유전이니까. 아리샤 누나의 마력에 대해서도 난 알고 있으니까 모르는 게 더 이상하지.”

“역시 하비투스 님께 물어보길 잘한 거 같아요!”

레아의 경우 제대로 마법을 배운 적이 없었기에 현재 마력은 무조건 유전에 의한 것이었고 그 유전은 아빠인 레그마인 황제가 아니라 엄마인 아리샤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다. 그걸 아리샤와 친했던 하비투스가 모를 리가 없었다. 그런데 하비투스의 입에서 엄마의 이름이 나오자 레아는 놀란 토끼 같은 얼굴을 했다. 여기서 엄마의 이름이 나올 줄은 몰랐다.

“하비투스. 우리 엄마 알아요?”

“알아요. 엄청 친했으니까요.”

“하비투스가 엄마랑요?”

“아리샤 누나가 저 엄청 예뻐했어요. 되게 귀여워했는데.”

“우리 엄마가요…?”

아빠를 보면서 가끔 엄마는 왜 아빠를 좋아했을까 솔직히 이해가 안 갈 때가 종종 있었는데 과거 엄마가 첫인상부터 별로인 하비투스를 엄청 예뻐하고 되게 귀여워했다는 말에 레아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하비투스의 말이 사실이라면 레아는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래도 우리 엄마는…취향이 좀….’

아무래도 엄마의 취향은 얼굴은 진짜 장난 아니게 빛이 나는데 성격이 이상한 사람인 게 분명했다. 딸인 레아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취향이었다.

“그런데 하비투스는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신가 봐요. 저희 엄마가 황궁을 떠난 게 15년 전인데 엄마와 친하다는 걸 보니 20대 초중반이세요?”

“레아 황녀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이시나요? 역시 하비투스 님이 동안이시긴 하죠.”

“제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신가 봐요.”

“하비투스 님은 올해로 30살이세요.”

“네? 진짜요?”

아까 잠시 보았던 분홍색 머리의 미소년은 라이 경에게 형이라고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거 같은 외모의 소유자였다. 그래도 엄마랑 친했다니 그럼 좀 어려 보이는 20대 초중반이라고 생각했는데 30살이라니. 레아는 놀라운 사실에 보통 동안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내 나이가 아니라 이 까만 돌인데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럼 까만 돌에서 느껴지는 그 묘한 느낌은 뭐였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나요?”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고 결론만 쉽게 얘기하자면 레아 황녀님은 흑마법이 다른 마법보다 특히 더 적성에 맞으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타고난 마력과는 좀 다른 경우라서 까만 돌이 다른 돌과는 다르게 느껴졌던 거죠.”

흑마법이 적성에 맞는다는 말이 레아는 별로 반갑지 않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타고난 마력과는 좀 다르다는 말에 조금 궁금해지긴 했다.

“타고난 마력과 조금 다르다는 게 무슨 뜻이죠?”

“말 그대로입니다. 유전으로 생긴 건 맞는데 타고난 건 아니에요. 애초에 적성에 아무리 맞지 않는 마법이라고 해도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마스터할 수 있으니 그런 사람의 마력을 유전으로 이어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 엄마가 흑마법을…?”

“……….”

레아의 질문에 하비투스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레아는 그게 긍정의 침묵이란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엄마가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흑마법을 익히고 숙달했다는 사실이 심히 당황스러웠다.

‘마법 같은 거 한 번도 쓰시는 걸 못 봐서 마력이 있다는 것도 모르셨을 거로 생각했는데 우리 엄마가 마도사였다니. 엄마는 어째서 그런 무서운 마법을….’

아무리 재능이 있고 충분히 배울 수 있다고 해도 레아는 그런 무서운 마법을 배울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엄마는 왜 적성에도 맞지 않는 흑마법을 익히고 배웠던 걸까. 레아가 아는 다정하고 자상했던 부드러운 엄마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레아는 설명해달라는 듯이 하비투스를 바라보았지만, 하비투스는 입을 꾹 다물고 레아에게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았다.

‘저 사람은 우리 엄마가 가지고 있는 마력에 대해 알고 있다고 했어. 거기다 본인도 마도사니까 엄마가 왜 흑마법을 배웠는지도 분명 알고 있을 거야. 친했다고 했으니까.’

근데 왜 레아에게는 얘기해주지 않는 걸까. 마음 같아서는 대놓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지금은 키린도 있고 라이 경도 있으니 물어볼 수가 없었다.

‘무슨 대답이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이건 조심하는 게 좋을지도 모르는 얘기니까 다른 사람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물어봐야지.’

그리고 엄마에 관한 이야기라면 알고 있을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다. 하비투스가 대답해주지 않으니 레아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그 사람이라면 그때 그 시절 엄마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을 거니까.

\*\*\*

“…흑마법?”

“네. 아빠는 알고 있지 않으셨나요?”

“아니. 전혀 몰랐어. 마력이 있는 것도 몰랐는데 그런 걸 알았을 리가 없지.”

“엄마가 마력이 있으시다는 걸 모르셨는데 저한테 마법을 배우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냥…어쩌면 아리샤의 조상 중에 엄청난 마법사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아리샤의 그런 마력이 레아 너한테 유전이 됐단 말이지….”

확신도 없이 그냥 어쩌면 하는 마음에 마법을 배우라고 했다는 게 레아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아빠는 원래 좀 이상하신 분이셨으니 그 부분에 대해 깊게 파고들진 않았다. 레그마인 황제는 레아가 더 묻지 않아 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레아가 아리샤에게 흑마법에 관한 마력까지 물려받았다는 사실에 좀 슬픈 표정을 지었다.

‘아리샤…. 지금 이 상황을 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난 정말 미치도록 당신을 사랑했는데 어쩌면 황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당신은 날…. 그렇게 황제는 슬픔에 빠져들 뻔했지만, 레아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순 없어서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그런데 레아. 넌 그 사실을 누구한테 들은 거지?”

“키린은 흑마법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하비투스라는 마도사가 직접 확인하고 말해줬어요. 알고 보니 엄마가 황궁에 있을 때 하비투스와 친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리샤와 친했던 마도사라면…루시를 말하는 건가.”

“하비투스 이름이 루시인가요?”

“응. 황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비투스라고 불렀는데 아리샤만은 그 녀석을 루시라고 불렀어. 그 솜사탕처럼 생긴 놈.”

확실히 모자를 벗었을 때 봤던 하비투스는 진짜 솜사탕 같은 느낌이기는 했었다. 그런데 아빠는 하비투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인지 영 표정이 좋지 않았다.

“아빠는 하비투스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당연하지. 아리샤랑 데이트할 때마다 자꾸 나타나서 누나, 누나 하면서 만날 내 여자 옆에 착 달라붙어서 얼마나 짜증이 났는데.”

“하비투스가요?”

“그래. 분위기 좀 잡으려고 하면 나타나서 얼마나 방해를 했는데. 아마 그 녀석 그때 분명 아리샤를 짝사랑했을 거야. 그러니까 꼬맹이 주제에 그 녀석도 날 싫어했겠지.”

“꼬맹이라뇨. 아빠랑 고작 3살 차이인데.”

지금은 성격이 더럽고 많이 이상한 사람일지 몰라도 어릴 때는 하비투스도 꽤 귀여웠던 모양이었다. 데이트하는 20살의 엄마와 18살의 아빠. 그리고 그사이에 낀 15살이었을 하비투스의 모습을 상상해보자 레아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울 거 같았다.

‘앙겔루스 제국의 쌍둥이 황자님들이 나한테 누나, 누나 하면서 안겼던 것처럼 하비투스도 엄마한테 그랬으려나. 어쩐지 상상은 잘 안 가는데 한번 보고 싶기는 하다. 분명 장난 아니게 귀여웠을 거 같은데.’

하지만 이제 엄마는 이곳에 계시지 않았고 생긴 건 꼭 18살 소년 같은 느낌이라도 하비투스도 이제 30살이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그러니까 레아도 하비투스랑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도록 해. 우리 딸은 안 그래도 너무 예쁘고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데 아리샤를 닮아서 착하고 상냥하기까지 해서 하비투스가 반해버릴지도 몰라.”

“아빠…. 아빠 말대로라면 옛날에 엄마를 좋아했는데 그럼 상식적으로 엄마 딸인 저를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심지어 하비투스는 저보다 14살이나 많다고요.”

“으음. 그건 그런가. 그래도 친하게 지내는 건 안 돼. 그 자식은 마음에 안 들어.”

과거에는 하비투스도 귀여웠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잠시 잊고 있었던 생각이 레아는 다시 한번 강렬하게 떠올랐다.

‘우리 엄마 취향은 대체…….“

\*\*\*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촛불 하나만 켜놓고 하비투스는 두꺼운 책을 꺼내 읽고 있었다. 그 책은 과거에 아리샤가 썼던 일기장이었고 그 안에는 레그마인 황제에 관한 이야기가 깨알 같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 처음으로 설렜을 때의 이야기. 황제에게 고백받았을 때의 이야기, 풋풋하고 예쁘게 연애할 때의 이야기, 그의 옆에 있으면서 느꼈던 죄책감, 갈등, 미안함. 그리고 그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느꼈던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기쁨이 고스란히 담긴 일기장이었다. 하비투스는 슬픔이 가득한 눈으로 그립다는 듯이 추억이 담긴 종이를 매만졌다.

“아리샤 누나.”

그립고 그리워서 더 그리운 그 이름을 중얼거리며 하비투스는 낡은 일기장을 다시 덮었다. 누나가 죽은 이후로 모든 것을 잊고 가슴에 묻어두고 살아가려고 했는데 포기하려는 자신에게 아리샤 누나는 그러면 안 된다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아이도 누나가 날 위해서 보내준 아이겠지. 누나를 대신해서 복수를 끝내 달라고.’

처음에는 아리샤 누나를 하나도 닮지 않은 모습을 보고 실망했는데 그 아이에게서 엄청난 마력과 까만 돌이 보인 반응을 보고 하비투스는 확신할 수 있었다.

레아 황녀님은 아리샤 누나가 하비투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복수를 위한 독이었다.

48.아빠도 아빠는 처음이니까.docx

혼담부터 시작해서 하이모어 대공, 프레디 소공자와 크라스경. 그리고 엄마는 왜 굳이 맞지도 않는 흑마법을 배웠는지까지. 요즘 레아는 생각할 것도 많았고 신경이 쓰이는 것도 많아서 바쁘게 시간을 보내야 했다.

하지만 그중 레아의 머리를 제일 아프게 하는 건 따로 있었다.

‘2주 후면 아빠 생일인데 무슨 선물을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점점 날짜는 다가오는데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어 레아는 더 열심히 머리를 굴렸지만, 그래도 좋은 생각은 떠오르지 않았고 결국, 레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레아의 마음에 드는 답을 주는 사람은 없었다.

“피에르 시종장님. 아빠 생일 선물로 뭘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다가오는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탄생일을 축하하는 선물을 준비하실 생각이시군요. 역시 레아 황녀님은 마음속까지 아름답고 따뜻하십니다.”

“그런데 선물로 뭐가 좋을지 모르겠어요. 시종장님은 만약 딸이 있으셨다면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을 거 같으세요?”

“하하. 글쎄요. 저는 레아 황녀님처럼 귀엽고 사랑스러운 딸이 있었다면 더 바랄 것도 없겠지만 제가 라이에게 받고 싶은 건….”

“라이 경한테 받고 싶으신 건…?”

“귀엽고 사랑스러운 여자친구를 만들어서 소개해줬으면 좋겠군요.”

“아….”

우리 아빠는 내가 멋있고 잘생긴 남자친구 만들어서 파티 때 소개해드리면 그 파티는 바로 아수라장이 될 거 같은데. 그리고 일단 레아에겐 아직 남자친구를 만들 마음이 없으니 이건 탈락.

“가스파르 재상. 이번에 열리는 파티에서 아빠 선물로 뭘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탄생일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파티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폐하께선 황녀님이 휴지를 뜯어서 선물한다고 해도 좋아하실 겁니다.”

“하지만 전 아빠가 진심으로 좋아하시는 걸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혹시 추천해주실 수 있나요?”

“추천, 추천이라. 그렇다면 역시 폐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걸 준비하는 게 제일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아빠가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뭘까요?”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건 레아 황녀님이십니다.”

“네…?”

“레아 황녀님께서 예쁘게 차려입으신 모습을 보면 분명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아니, 재상….”

“그때 꼭 저랑도 인사하고 얘기 나눠주셔야 합니다.”

“……….”

이건 아빠 생일 선물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스파르 재상이 바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 같은데 착각이겠지. 그리고 애초에 파티에 후줄근하게 하고 갈 순 없으니 꾸미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니 이것도 탈락.

“다리아 영애. 영애는 앨버트 후작께 어떤 선물을 주로 드리나요? 곧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탄생일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릴 예정인데 뭘 준비하면 좋을지 고민이에요.”

“하하. 다른 영애들도 날짜가 다가올수록 머리 아프게 하는 고민을 레아 황녀님도 똑같이 하시는군요. 사실 저도 부모님 선물 고르는 게 제일 어려운 거 같아요.”

“다들 그건 똑같은가 봐요. 저는 그게 요즘 제일 고민이에요.”

“음. 저는 주로 좋아하시는 걸 선물하는 편이에요. 최고급 찻잎이라던가 아니면 쉽게 구할 수 없는 고서를 구해서 선물해드린 적도 있어요. 아, 작년에는 몸에 좋은 약초를 달여서 만든 약을 선물해드렸어요.”

“역시 좋아하시는 걸 선물하는 게 제일 좋겠죠?”

“네.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평소 좋아하는 걸 선물해드리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평소 좋아하시는 거….”

앞서 다른 사람들의 조언보다는 훨씬 나았지만, 사실 이것도 큰 도움이 되는 조언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아빠는 딱히 취미랄 것도 없었고 평소에 뭘 좋아하시는지 알았다면 레아도 이렇게까지 머리 아플 정도로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갑자기 가스파르 재상이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나라는 말이 떠오르는 이유는 뭘까. 으음. 이거 파티 때 머리에 리본 묶고 내가 선물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만약 레아가 16살이 아니라 6살이라면 그런 짓을 해도 귀엽게 봐줄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레아도 16살이고 몇 개월만 더 있으면 17살인데 그런 무리수를 뒀다간 아빠는 손뼉을 치며 좋아하실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차가운 눈빛을 보낼 게 뻔했다.

그럼 대체 어떤 선물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 레아는 책상에 엎드려 고민하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라이 경에게 질문을 던졌다.

“라이 경. 아빠 생일 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아직도 고민하고 있으셨습니까?”

“어려워요. 내가 이렇게 머리가 나빴나 싶을 정도로 생각이 진짜 하나도 안 나요…. 아빠는 필요하고 가지고 싶은 거 하나도 없을 거 같단 말이에요.”

“지금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곁에는 레아 황녀님이 있으시니 아마 그러실 겁니다.”

라이 경도 결국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레아라고 말하려는 건가.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어쩜 다들 하는 말이 다 똑같을 수가 있을까. 레아는 그냥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넘어가야 하나 고민하며 다시 책상 위로 축 늘어졌다. 그런 레아에게 라이 경은 이런 말을 해주었다.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선 어릴 때부터 무척이나 외로움을 많이 타시는 분이셨습니다. 늘 가족의 따듯한 사랑에 목말라 하셨고 황녀님의 어머니께서 떠나신 이후로는 더 깊게 누군가의 손길을 간절하게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러시면서도 떠나간 아리샤 님을 지독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족을 간절하게 원하면서도 그걸 포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

“폐하께선 언제나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랑하는 여인의 딸이자 자신을 쏙 빼닮은 가족이 생겼으니 더 바라거나 가지고 싶고 원하시는 게 없으실 겁니다. 레아 황녀님께서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폐하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실 것입니다.”

평소 무뚝뚝하고 과묵한 라이 경답지 않은 말이었다. 하지만 라이 경의 그 말 덕분에 레아는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갈피를 잡게 되었다.

‘아빠가 얼마나 외롭고 가족을 원하는 삶을 살았는지는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아빠가 나를 얼마나 예뻐하고 얼마나 사랑해주고 얼마나 아껴주는지는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잖아. 그렇다면 내가 아빠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거기까지 생각을 정리하자 레아는 드디어 아빠 생일 선물을 무엇으로 할지 결정할 수 있었다. 결정하자마자 레아는 바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라이 경. 덕분에 아빠 선물 결정했어요!”

“네?”

“경이 해준 말이 아니었으면 결국 끝까지 못 정했을 거예요.”

“제가 도움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응. 고마워요. 라이 경.”

고맙다고 말하면서 레아는 라이 경을 보며 활짝 웃었고 그런 레아를 보며 라이 경은 보일 듯 말 듯 아주 살짝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레아는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작은 미소였지만 그 변화를 눈치챈 시녀들은 자기들끼리 빠르게 눈빛을 주고받았다.

‘이거 그거 맞지?’

‘응. 그거 맞아. 확실해.’

‘이거 우리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진행이 잘될 거 같은데?’

‘아직 안심하긴 일러. 상대는 목석같은 라이 경이랑 인기가 하늘을 찌르지만, 연애 쪽으로는 눈치가 없으신 레아 황녀님이시라고.’

‘맞아. 언제 어디서 변수가 생기고 장애물이 나타날지 몰라.’

우리 예쁘고 사랑스러운 소중한 레아 황녀님을 믿을 수 없는 놈한테 줄 수는 없었다. 이제는 시녀들 모두 레아의 언니가 된 마음으로 당사자들은 아직 시작도 안 한 두 사람의 사랑을 응원하고 팍팍 밀어주자고 자기들끼리 다짐하고 있었다.

자신과 라이 경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마음은 알고 있었지만, 전에 분명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시녀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모르고 있는 레아는 이제야 마음이 좀 편해졌다며 웃고 있었다.

\*\*\*

“레아 황녀님. 곧 파티가 시작될 시간입니다.”

“응. 잠시만요.”

“선물은 바로 전해드릴 예정이신 겁니까?”

“다른 사람 줄 때 같이 주기에는 너무 초라할 거 같고 그렇다고 파티가 끝나고는 아빠도 많이 피곤하실 거 같아서요. 그냥 파티 시작하기 전에 빨리 드릴 생각이에요.”

라이 경이 해준 말 덕분에 그래 이거다! 하고 선물을 정하긴 했지만, 사실 레아는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남에게 보이기가 부끄러웠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준 장본인인 라이 경 역시 레아가 어떤 선물을 준비했는지 모르고 있었다.

“폐하께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는지는 아직도 비밀이신 겁니까?”

“당연하죠. 비밀이에요.”

궁금해서 라이 경은 몇 번 그 선물이 대체 뭔지 물어보았지만, 레아는 씩 웃으면서 절대 말해주지 않았다. 라이 경뿐만 아니라 가스파르 재상이나 피에르 시종장님도 궁금해하셨지만, 레아는 절대 알려주지 않았다.

‘솔직히 대단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반짝반짝한 선물을 주는데 그 틈에서 내 선물은 너무 초라할 거 같단 말이야.’

하지만 그래도 아빠는 분명 레아의 선물을 받고 활짝 웃어주실 것이었다. 레아는 들고 있는 상자를 만지작거리며 그렇게 생각하며 라이 경과 함께 조금 일찍 파티장으로 향했다. 파티장 안으로 들어가자 아직 이른 시간이라서 그런지 딱 피에르 시종장님과 가스파르 재상, 소니아 부인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아빠의 모습이 보였다.

“어, 레아!”

“라이 경도 같이 왔군요.”

“이번 파티에서도 레아 황녀님의 파트너는 라이 경인가 보군요.”

“…아빠인 나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에스코트를 저 녀석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라니. 마음에 안 들어.”

“어머. 하지만 직접 라이 경에게 레아 황녀님의 에스코트를 부탁한 건 황제 폐하셨잖아요.”

“그건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어. 그렇지? 재상.”

“네. 이번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레아 황녀님의 옆에는 라이 경이 있어야 하죠. 하지만 전 다음에 열릴 파티가 더 걱정입니다.”

“아, 젠장. 그렇지.”

만약 레그마인 황제가 레아의 옆에 라이 경을 세우지 않았다면 그 틈을 노려 하이모어 대공이나 크라스 경 혹은 프레디 소공자가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컸다. 그러니 레그마인 황제는 좀 불안하긴 해도 레아의 옆에 그 셋보다는 나은 라이 경을 붙여둔 것이었다.

레아나 라이 경도 그 부분에 대해선 이미 알고 있었지만, 레아에게 혼담이 들어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소니아 부인은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고 특히 피에르 시종장은 괜한 오해를 하고 있었다.

‘혹시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도 말씀은 저렇게 하셔도 레아 황녀님의 짝으로 라이가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있으신 걸까? 암, 그게 당연한 거겠지.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안 그래도 요즘 라이가 레아 황녀님과 아주 친해졌고 꽤 가깝게 지낸다는 얘기를 듣고 좀 기대했었는데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도 저런 말씀을 하시니 피에르 시종장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제 내년 봄이 되면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하고 속으로 생각하며 히죽히죽 웃는 피에르 시종장을 레그마인 황제는 이상하다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시종장. 왜 갑자기 웃는 거지? 기분 나쁘게.”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나는 내 딸 아무한테도 못 줘. 평생 그 어떤 놈도 우리 레아를 넘봐선 안 돼.”

“하하. 그건 레아 황녀님께서 결정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긴 하지. 근데 레아도 연애하고 결혼할 생각 없다고 했으니까 상관없어.”

분명 레아는 지금 당장은 할 생각이 없다는 말이었는데 레그마인 황제는 그 부분은 쏙 빼놓고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대로 왜곡해서 기억하고 있었다. 레그마인 황제는 분명 꿈도 꾸지 말라고 했지만 이미 맘대로 엄청난 오해를 하는 중인 피에르 시종장에게 그런 말이 들릴 리가 없었다. 레그마인 황제는 그런 피에르 시종장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저거 그냥 확 잘라버릴까. 아니면 라이 경을 확 잘라버려야 하나. 이거 딸이 너무 예쁘고 귀여우니까 아빠로서 걱정을 놓을 수가 없다니까.’

물론 제일 거슬리는 건 하이모어 대공이었지만, 피에르 시종장이나 라이 경도 완전히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종장을 이렇게 간단하게 자를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라이 경 쪽은 마음만 먹는다면 호위를 바꿀 수는 있었지만, 다른 기사들은 라이 경보다 더 믿을 수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어떻게 해도 안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레아가 조금만 덜 예쁘고 덜 귀엽고 덜 사랑스러웠어도 이렇게까지 걱정할 일은 없었을 텐데. 하지만 아리샤와 자신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니 그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며 레그마인 황제는 어느새 자신의 앞에 다다른 레아를 보며 활짝 웃으며 말했다.

“역시 우리 레아는 오늘도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구나. 평소에는 나풀나풀 귀엽고 사랑스러웠는데 오늘은 어른스럽고 우아한 느낌이야. 역시 내 딸은 뭘 입어도 다 잘 어울려. 드레스가 예뻐서 레아한테 어울리는 게 아니라 레아가 입어서 드레스가 예뻐 보여. 내 딸이지만 진짜 너무 예쁘다!”

매일 보는 얼굴인데 어떡하면 하루도 빠짐없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레아는 그게 신기하기도 하고 의문이기도 했지만, 일단 활짝 웃으면서 아빠에게 준비한 선물을 내밀며 말했다.

“아빠. 생일 축하드려요. 이건 제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아빠라면 선물이 뭐든 기뻐해 주실 것이라고 레아는 그렇게 믿었었다. 그런데 그런 믿음과 달리 아빠는 레아의 선물을 받고 웃지도 않고 그리 기뻐하지도 않는 것 같았다. 예상치 못했던 반응에 레아는 혹시 선물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건가 하고 조금 불안해졌다.

“……….”

“혹시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

아무리 봐도 마음에 안 드는 거 같은데. 역시 반짝반짝하고 화려한 선물만 받다가 이런 소박한 선물이 마음에 드실 리가 없었다. 괜히 민망한 마음에 레아는 변명하기 시작했다.

“그게 비싸고 좋은 건 많이 받으실 거 같아서 나름대로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아빠가 좋아하실 거 같은 걸 준비했는데…. 열심히 준비한다고 준비한 건데 혹시 마음에 안 드신 거면 그냥…….”

“아니야. 마음에 들어.”

“하지만 아빠 표정이….”

아빠는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걸 대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도 없어서 아빠의 눈치를 살피는 레아를 보며 다른 사람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레아 황녀님. 폐하께선 선물이 마음에 안 드신 게 아니라 이 상황이 낯설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고민하고 있으신 거예요.”

“선물 받는 게 낯설어요?”

“이건 그냥 선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딸이 직접 준비한 선물이니까요. 황녀님께서 아빠가 처음이듯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도 딸은 처음이시니까요.”

소니아 부인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로 아빠는 귀가 조금 빨개져서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늘 여유 있게 웃는 아빠와는 상반되는 모습에 레아는 새삼스럽게 당연한 사실을 깨달았다.

아빠도 아빠는 처음이니까. 그러니 당연히 서투를 수밖에 없었다.

49.오늘 아빠 생일 아닌가요.docx

가족에게 받아보는 생일 선물. 이런 건 처음 받아보는 레그마인 황제는 너무나도 기쁘면서도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웃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다.

고맙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고 역시 우리 딸은 얼굴도 너무너무 예쁘지만, 마음도 꼭 천사처럼 예쁘다고 아낌없이 칭찬도 해주고 싶었는데 레그마인 황제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늘 주는 것에 익숙했었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딸에게 선물을 받으니 조금 쑥스럽기도 했다.

그리고 그런 레그마인 황제를 보며 레아는 그 누구보다 찬란하고 아름답게 웃어주었다. 그 예쁜 웃음은 레그마인 황제를 세상을 모두 가진 기분으로 만들어주었다.

\*\*\*

“존경하는 레그마인 황제 폐하를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위대하신 황제 폐하의 탄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앨버트 후작.”

“이건 약소하지만, 저와 제 여식이 준비한 선물입니다. 부디 폐하의 마음에 드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안목이 높은 앨버트 후작이 고른 선물이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가 시작되자마자 여러 사람이 몰려와 아빠의 생일을 축하해주었고 레아의 예상대로 반짝반짝하고 굉장히 고가로 추정되는 물건을 아무렇지도 않게 선물했다. 그리고 아빠도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받는 모습을 레아는 옆에서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우나타에선 집 한 채를 사고도 남을 정도의 가격인 비싼 선물을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것도 신기하고 심각하게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보다 지금 저 멋있는 사람…우리 아빠 맞아?’

평소 레아가 아는 아빠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다. 가볍지도 않고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모습이 레아는 신기했다. 하지만 그 모습을 계속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기에는 레아도 그리 한가한 처지가 아니었다.

“아름다우신 레아 황녀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반가워요. 다리아 영애. 와줘서 고마워요.”

“이건 제가 레아 황녀님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에요. 받아주세요.”

“제 생일도 아닌데 왜 제 선물까지 준비했어요….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다리아 영애.”

“쇼핑하러 갔다가 보자마자 레아 황녀님 생각이 나서 샀어요. 직접 열어봐 주시겠어요?”

“알았어요. 뭔가 설레고 기대되는 대요?”

과연 이 고급스럽게 보석이 콕콕 박혀있어서 누가 봐도 장난 아니게 비싸 보이는 작은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으려나. 레아는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보다는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상자를 한번 열어보았다.

“목걸이네요. 에메랄드로 만든 상당히 화려해 보이고 굉장히 비싸 보이는….”

“아니에요. 그리 비싼 건 아니니까 기쁘게 받아주시면 저도 기쁠 거 같아요.”

다리아 영애는 그리 비싸지 않다고 했지만, 레아는 이미 머릿속으로 이 목걸이 하나의 가격이면 쿠키를 얼마나 구워서 팔아야 하는지 대충 계산이 끝난 후였다. 제국의 황녀가 이런 생각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아직도 이 버릇이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아직은 황녀로 지낸 시간보다 평범하게 빵을 구우면서 산 세월이 더 길어서 그런가. 이런 거 보면 자동으로 계산하게 되고 돈 아깝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자꾸 이러면 곤란하니까 빨리 고쳐야겠다.’

선물은 가격 같은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주는 사람의 마음을 받는 게 맞는 것이었다. 레아는 나쁜 버릇은 빨리 고치자고 생각하며 다리아 영애에게 상냥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뒤로도 레아는 수많은 사람과 인사를 했고 사람들 대부분이 레아에게도 선물을 주는 바람에 레아는 얼떨결에 생일인 아빠만큼 많은 선물을 받게 되었다.

“태어나서 이렇게 선물을 많이 받아보는 건 처음이에요. 그것도 전부 눈이 돌아갈 정도로 엄청난 선물도 처음이에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설마 이 정도로 많이 받을 줄은 몰랐어. 이러면 레아 생일 때가 기대되는데?”

“…설마 그때도 선물을 이렇게 많이 주실까요?”

“적어도 오늘 받은 거 2배는 줄 거 같은데? 내 생일에도 이 정도인데 네 생일에는 더하겠지. 아, 그러고 보니 우리 딸 생일은 성탄절이랑 겹쳤었지. 이거 아주 선물이 폭주하겠군.”

“……….”

보통 생일이랑 기념일이 겹치면 그냥 한 번에 합쳐서 선물은 하나만 주지 않나? 그래서 7살 때까지는 남들도 다 그러는 줄 알았던 레아였기에 선물이 폭주할 거란 아빠의 말이 별로 와닿지 않았다. 그래도 아빠의 말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은 아닌 거 같아서 레아는 조금 불안해졌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가 우렁찬 목소리로 레아를 불렀다.

“레아 누나!”

“누나! 우리 왔어요!”

“까만 경! 까만 경도 여기 있어요?”

“조용히 해!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이게 무슨 실례야?”

“히잉.”

파티장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시선은 소리가 들린 곳으로 집중되었고 그곳에는 앙겔루스 제국의 사랑스러운 쌍둥이 황자님들과 그라티아 황제 폐하가 있었다. 시끄럽게 굴었다고 그라티아 황제 폐하께 혼이 나고 시무룩해진 쌍둥이의 모습을 보고 레아는 쿡 웃음이 나왔다.

‘역시 여전히 귀엽구나. 그라티아 황제 폐하께서는 오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크레 황자랑 트레 황자까지 올 줄은 몰랐어. 오실 때 고생 좀 하셨겠다.’

저 장난꾸러기 악동 둘을 데리고 앙겔루스 제국에서 다닐로만 제국까지 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 같았다. 이미 피곤해 죽겠다는 표정의 그라티아 황제 폐하의 얼굴만 봐도 대충 예상이 가는 일이었다.

“생일 축하해. 레그마인 황제.”

“그래. 온다고 수고 많았다.”

“나 진짜 오는 길에 30번은 다시 돌아갈까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진짜 내가 다시는 애들 데리고 다른 제국까지 오나 봐라.”

“그러게 작년까지는 혼자 오던 녀석이 무슨 바람이 불어서 쌍둥이를 데리고 왔대?”

“애들이 레아 황녀 보고 싶다고 하도 졸라서 데리고 왔지. 보니타는 루멘이 아직 너무 어리니까 같이 못 왔고.”

“역시 우리 딸은 인기가 많다니까.”

보니타 황후 폐하께서도 같이 오셨다면 더 좋았을 건데 오지 않으셨다니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랑스러운 쌍둥이가 자신을 보러 와줬다고 하니 레아는 기뻤다. 레아가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어주자 쌍둥이는 기분이 좋았는지 헤헤 웃었다.

“레아 누나. 보고 싶었어요!”

“아빠가 우리 빼고 누나 보러 온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가겠다고 졸라서 온 거예요!”

“크레, 트레. 어서 와. 오는 길에 힘들지는 않았어?”

“응. 괜찮아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누나랑 까만 경 만나러 자주자주 올게요!”

“음. 그건 좀 힘들 거 같은데?”

쌍둥이야 아직도 쌩쌩해 보였지만 반대로 그라티아 황제 폐하께서는 상당히 지쳐 보였다. 아무래도 그라티아 황제 폐하를 위해서라도 자신이 놀러 가는 게 나을 거 같다고 생각하며 레아는 조용히 웃었다. 아직 어려서 레아가 왜 웃는지 그 이유를 알 리가 없는 쌍둥이는 레아를 따라 방긋방긋 예쁘게도 웃었다.

“근데 까만 경은 오늘 안 왔어요? 왜 안 보여요?”

“라이 경? 라이 경 저기 있잖아.”

“어디요? 안 보이는데?”

“저-기 까만 머리카락 안 보여?”

레아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영애들이 가득한 곳이었다. 쌍둥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곳을 자세히 보았고 레아의 말대로 영애들의 한가운데 까만 머리 하나가 빼꼼 올라와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라티아 황제는 혀를 쯧쯧 차며 말했다.

“황녀님의 호위기사가 되었다고 해도 라이 경 인기는 여전하구나. 피곤하겠어.”

“아마 결혼하기 전까지는 본인은 싫어도 파티 때마다 어쩔 수 없겠지. 여자친구가 생기면 수는 줄겠지만, 다가오는 영애들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거니까.”

“경험담이지? 너도 황태자일 때까지만 해도 딱 저랬잖아. 근데 피곤할 거 같긴 해도 좀 부럽긴 하다. 난 저렇게 인기 많아 본 적이 없어서.”

“부럽긴. 저게 얼마나 피곤하고 짜증 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레그마인 황제는 얼굴을 찌푸렸다. 아무리 성격 이상하고 미쳤다고 소문난 레그마인 황제라고 해도 어릴 때부터 제국 최고의 미남이란 소리를 질리도록 듣고 자랐으니 파티 때마다 영애들의 뜨거운 고백을 받는 건 거의 일상이었다. 그래서 현재 영애들에게 포위당한 라이 경을 보며 레그마인 황제는 처음으로 안쓰럽고 불쌍하단 생각을 했다.

“저건 다른 방법은 없어. 빨리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나처럼 아빠가 되거나 둘 중 하나야. 아니면 평생 안 끝나.”

“아직 20살 아니야? 여자친구면 몰라도 결혼은 너무 이른 얘기지.”

“이르긴 뭐가 일러. 나는 18살 때 이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예쁘고 사랑스러운 레아를….”

뒤에 나올 말은 안 들어도 알 거 같아서 레아와 그라티아 황제는 조용히 쌍둥이의 귀를 막아주었다. 저게 뭐 자랑스러운 얘기라고 아빠는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걸까. 레아는 이제 저 말도 적응해버렸단 사실이 슬퍼서 한숨을 쉬었다.

“레아 누나. 왜 한숨 쉬어요?”

“그냥…갑자기 좀 슬퍼서.”

“까만 경 때문에 마음 아파서 슬퍼요?”

“라이 경은 갑자기 왜?”

“까만 경은 공주님을 지켜주는 기사님인데 지금 레아 누나를 놔두고 다른 누나들이랑 놀고 있잖아요!”

“뭐?”

갑작스러운 쌍둥이의 엉뚱한 말에 레아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고 쌍둥이는 진지하게 그런 레아가 걱정된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런 사이 아니라고 그렇게 설명해주었는데도 쌍둥이는 아직도 레아와 라이 경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믿고 있는 모양이었다. 레아는 이제 그 오해를 푸는 걸 포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공주님을 지켜주는 기사님은 공주님을 혼자 두고 저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나. 까만 경은 진정한 기사님이 아닌 거예요!”

“맞아요. 까만 경은 탈락이에요!”

애초에 알콩달콩한 사이도 아니었고 진짜 아무 사이도 아닌데 라이 경은 아무것도 안 하고 쌍둥이에 의해 탈락을 하게 되었다. 좋아하지도 않는데 차여버린 라이 경이 안쓰럽기도 하고 웃겨서 레아는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역시 귀엽고 사랑스러운 쌍둥이 황자님들과 같이 있으면 레아는 즐겁고 재밌었다.

“자, 애들아. 우린 이제 방으로 가서 좀 쉬자.”

“싫어요! 레아 누나랑 더 같이 있을래요!”

“너희가 계속 있으면 누나 피곤하잖아.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 언제까지고 누나를 독점할 셈이야?”

“레아 누나. 우리 있으면 피곤해요?”

“어, 어?”

레아의 드레스 자락을 붙잡고 누나랑 더 같이 있고 싶다고 칭얼거리던 쌍둥이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레아를 올려다보았다. 갑작스러운 쌍둥이의 눈빛 공격에 레아는 움찔했다.

‘저렇게 귀엽게 올려다보는데 피곤하다고 가라고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아마 저렇게 빤히 올려다보는데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

비록 쌍둥이는 자신들의 귀여움과 사랑스러움이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지만 말이다. 쌍둥이 황자님들에게 딱 잘라서 가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라티아 황제 폐하의 말씀대로 레아는 손님도 받아야 하는 처지라 쌍둥이 황자님들과 계속 놀아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레아는 잔머리를 굴려 좋은 생각을 떠올렸다.

“좋아. 그럼 우리 숨바꼭질할까?”

“좋아요! 나는 숨는 사람 할래요!”

“나도! 나도 숨는 사람 할래요!”

“그래. 그럼 누나가 술래할 테니까 아빠랑 같이 방에 들어가 있어. 그럼 누나가 3시간 안에 찾아볼게.”

“3시간이나?”

“황궁은 크고 넓잖아. 3시간 안에 찾는 것도 누나가 생각하기에는 힘들 거 같은데?”

거기까지 이야기하자 그라티아 황제 폐하께서는 레아가 무슨 생각인지 눈치채고 맞장구를 쳐주시기 시작했다.

“그래. 다닐로만 제국의 황궁은 넓어서 모든 방을 찾아보려면 종일 찾아도 못 찾을 수도 있겠네.”

“그럼 레아 누나가 우리 못 찾으면 어떡해요?”

“너희가 레아 황녀를 찾으러 가면 되지. 서로 상대를 찾는다면 금방 찾을 수 있을 테니까.”

“맞아. 우리가 길을 잃은 공주님을 찾아서 구해줄 거야!”

레아가 황궁에서 길을 잃을 일도 딱히 없겠지만 오늘 다닐로만 제국의 황궁에 처음 온 쌍둥이 황자님들이 구해줄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그리고 애초에 사실 숨바꼭질은 핑계고 쌍둥이를 방으로 가게 하고 파티가 끝난 다음 시녀들에게 물어서 레아는 쌍둥이가 있는 방을 방문할 생각이었다.

레아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쌍둥이는 신이 나서 숨바꼭질이라며 파티장을 나갔고 그런 쌍둥이에게 귀엽다는 듯이 웃으며 손을 흔들어주는 레아를 보며 아빠는 신기하다는 듯 물었다.

“앙겔루스 제국에 갔었을 때도 느낀 거지만 애들을 잘 보는 거 같아. 레아. 혹시 우나타에서 빵집 하면서 부업으로 애들도 봐주고 그랬어?”

“아니요. 우나타에는 저보다 어린 사람이 없었어요. 다 어른들뿐이라서 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도 저뿐이었고요.”

“근데 애들을 잘 다루네. 신기하다.”

사실 레그마인 황제는 어린아이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다뤄야 할지도 잘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제일 친한 친구인 그라티아 황제의 아들들도 레그마인 황제는 싫어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예뻐하지도 않았고 안아본 적도 당연히 없었다. 그런데 쌍둥이 황자님들을 예뻐하고 귀여워하면서 능숙하게 애들을 잘 다루는 레아를 보자 레그마인 황제는 신기했다.

‘레아도 분명 앙겔루스 제국의 황자들처럼 지금보다 더 어리고 조그맣던 때가 있었겠지. 만약 내가 그때 레아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만났었다면 어땠을까.’

레그마인 황제는 머릿속으로 쌍둥이 황자님처럼 우당탕 뛰어다니는 어린 레아의 모습을 상상해보았다. 그리고 아리샤의 품에 안겨서 입을 오물거리는 아기 모습도 한번 상상해보았다. 아이를 귀여워하지도 않는 편이면서 그런 모습을 상상하자 레그마인 황제는 저절로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되었다.

‘분명 세상에서 제일 귀엽고 사랑스러웠을 거야. 물론 지금도 레아는 세상에서 제일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그런데 그 예쁜 시간에 옆에 있어 주지 못해 미안하기도 하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레아처럼 소중한 아이를 한번 안아봤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레그마인 황제는 아무것도 모르고 보냈던 그 시간이 너무 아쉬웠지만 아쉬워한다고 그 시간이 돌아오지 않을 거란 건 잘 알고 있었다.

아쉬운 만큼 미안한 만큼 더 늦기 전에 더 사랑해주고 앞으로 있을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게 그 후회에 대한 레그마인 황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50.너에게 내 진심이 닿기를.docx

대충 사람들의 인사가 끝나갈 무렵 파티장에는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손을 잡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댄스 타임이 시작되자 파티에 참석한 영식들은 모두 똑같은 마음으로 눈을 빛내며 레아를 찾기 시작했다.

‘이번 파티에서는 꼭 레아 황녀님과 함께 춤을 추고 가까워지겠어!’

아무리 터질 것 같은 마음을 담아 열심히 편지를 보내도 아무런 답이 없는 레아 황녀님께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을 기회는 파티에서 직접 만나서 자신을 각인시키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봐도 레아 황녀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아까까지만 해도 분명 자리에 있으셨는데 갑자기 어디로 사라지신 건지 흔적도 남기지 않은 황녀님을 찾기 위해 열심히 두리번거리는 영식들을 보며 레그마인 황제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진짜 우리 레아는 인기가 너무 많아서 내가 조금이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니까. 내가 틈을 보이면 저 녀석들이 바로 달라붙겠지. 어딜 감히 내 딸한테.’

이럴 줄 예상하고 레그마인 황제는 레아에게 댄스 타임이 시작되면 사람이 별로 없는 테라스로 피신해있으라고 말해주었다. 레아 역시 춤을 추고 싶지는 않았기에 음악이 시작되자마자 테라스로 살짝 빠져나와 한숨 돌리는 중이었다.

“후아. 오늘은 자리에 앉아서 인사하고 선물을 받기만 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냐…. 파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레아는 파티가 빨리 끝나서 침대에 눕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하지만 파티가 끝이 나도 레아는 쌍둥이 황자님들의 방을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아마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는 침대에 누울 수도 편히 쉴 수도 없을 거 같았다.

‘그래도 이번 파티는 별일 없이 잘 끝나는 거 같아서 다행이다. 오늘도 미친놈을 만났으면 진짜 두 번 다시는 파티에 오고 싶지 않았을 거야. 솔직히 지금도 파티는 좀 귀찮긴 하지만.’

첫 번째 파티와 앙겔루스 제국에서 열렸던 파티에서처럼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무례하고 머리가 텅텅 빈 인간은 안 나타나서 다행이긴 했지만, 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그들의 시선을 계속 신경 써야 했기 때문에 레아는 기가 쭉쭉 빨리는 기분이었다. 그래도 그 덕분에 그동안 레아의 머리를 아프게 했던 생각들을 잠시 잊고 있을 수 있었다.

‘하이모어 대공, 크라스 경, 프레디 소공자. 그리고 흑마법이랑 엄마. 그리고 하비투스도 마음에 좀 걸려. 엄마가 왜 그런 무서운 마법을 배우고 익혔는지 분명 알고 있는 거 같은데 왜 나한테 알려주지 않는 거지?’

나중에 둘만 있는 자리에서 대놓고 물어보면 대답해주려나. 하지만 왠지 하비투스는 그래도 알려줄 거 같지 않았고 애초에 그런 수상한 남자와 단둘이 있고 싶지도 않았다. 레아가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어떡하면 하비투스의 입을 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그때였다.

“어?”

아무 생각 없이 화단 쪽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마침 하비투스가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사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저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커먼 로브로 다 가리고 황궁을 돌아다닐 사람은 하비투스가 유일했다.

‘한번 불러볼까. 근데 불러서 뭐라고 해야 하지? 딱히 지금 당장 할 얘기는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며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는 하비투스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레아의 시선을 느낀 건지 하비투스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레아가 있는 테라스 쪽을 올려다보았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푹 눌러쓴 모자가 벗겨지고 하비투스의 인형 같은 얼굴이 드러났다.

…눈 마주쳤는데 손이라도 흔들어야 하나?

레아는 잠시 고민하고 있는데 하비투스는 먼저 이쪽을 보며 손짓을 했다. 인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묘한 손짓에 레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살랑살랑 손을 흔들어주었다. 그런데 레아가 손을 흔들어주자 하비투스는 고개를 획 돌리더니 다시 모자를 푹 눌러썼다.

‘뭐야. 인사하길래 기껏 같이 인사해줬더니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 봤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하기는 했지만 역시 성격 이상하다니까.’

얼굴이 예쁘면 뭐하나. 성격이 저런데. 레아는 이래서 사람은 정말 생긴 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였다.

“아…!”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짧은 외마디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에 레아는 뒤를 돌아보았다.

“프레디 소공자?”

“하하. 레아 황녀님. 안녕하세요.”

“프레디 소공자가 테라스에는 웬일이세요? 그리고 그 손가락은 또 왜 그런 거예요? 다쳤어요?”

짧은 외마디 비명을 지른 사람은 다름 아닌 프레디 소공자였고 프레디 소공자의 손가락에는 꼭 칼에 베인 것처럼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등장은 둘째치고 피 때문에 깜짝 놀란 레아를 보며 프레디 소공자는 멋쩍게 웃었다.

“그게 레아 황녀님께 할 말이 있어서 아까 테라스로 몰래 도망치시는 걸 보고 저도 살짝 빠져나왔어요. 근데 황녀님께서 생각에 잠기신 거 같아서 어깨에 손을 올리려고 했는데 바람에 손을 베었어요.”

“바람에 손을요?”

“아무래도 누군가 마법을 쓴 거 같아요. 혹시 레아 황녀님께서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으신 건 아니겠죠?”

“마법이라면 혹시….”

하비투스는 흑마법 쪽으로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는 마도사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속성의 마법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사람이었다. 아마 아까 그 묘한 손짓은 레아에게 인사를 한 것이 아니라 프레디 소공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해서 그의 손가락을 살짝 베는 것으로 경고를 한 것 같았다.

‘아닌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한 건 오해가 아니라 사실인 거 같기도 하고.’

바람둥이 날라리 소공자로 유명한 프레디 소공자니까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레아 역시 프레디 소공자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계속 피가 뚝뚝 떨어지는 프레디 소공자의 손가락을 빤히 바라보며 레아는 생각했다.

아프겠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프레디 소공자는 레아에게 할 말이 있어서 온 거고 레아를 부르려고 어깨에 손을 올리려고 한 건데 느닷없이 누군지도 모를 상대의 공격으로 손이 베인 것이었다. 일단은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레아는 치유마법으로 치료해주려다가 순간 멈칫했다.

‘또 치료해주려고 손을 어루만지면 라이 경이 오해하려나.’

전에 황실 정원에서 프레디 소공자의 상처를 치료해주다가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라이 경이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했던 것이 문득 떠올랐다. 그래도 라이 경은 레아가 그런 거 아니라고 바로 못 박을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이 보고 오해해서 소문이라도 난다면 큰일이었다.

“전에 치유마법 쓸 줄 안다고 했죠? 피 계속 나는데 치료 안 하고 뭐 하세요.”

“이번에는 레아 황녀님이 직접 치료 안 해주시나요?”

“소공자도 할 줄 알잖아요. 그럼 스스로 해야죠.”

“아쉽네요. 레아 황녀님께 직접 치료받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프레디 소공자는 스스로 손가락을 치료했고 뚝뚝 떨어지던 피가 멈추자 레아는 안심이 되었다.

“그래서 할 말이란 게 뭐예요? 되지도 않는 시시껄렁한 농담 하려고 온 건 아니길 바라요.”

“하하. 당연히 아니죠. 부탁드릴 게 있어서 온 거예요.”

“부탁? 무슨 부탁이요?”

프레디 소공자가 부탁할 게 있다니 레아는 어쩐지 좀 불안하단 생각이 들었다. 그런 레아를 보며 프레디 소공자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아름다우신 레아 황녀님. 저와 한 곡 같이 춰주시겠습니까?”

“싫어요.”

“우와. 너무해요. 고민도 안 하시고 바로 거절하시다니.”

“프레디 소공자야말로 내가 왜 댄스 타임이 시작되자마자 테라스로 도망 왔는지 몰라서 같이 춤추자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춤추시기 싫으셔서 그러신 건 저도 알죠. 근데 레아 황녀님도 저랑 한 곡 추시는 게 좋으실 거 같은데요?”

“왜요? 어째서 내가 프레디 소공자랑 춤을 춰야 좋은 건데요?”

레아가 얼굴을 찌푸리고 묻자 프레디 소공자는 조금 난감하다는 듯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레아 황녀님이 여기로 오시는 걸 저만 본 게 아닌 거 같아서요. 대부분 못 보긴 했지만 아무래도 아버지와 형도 황녀님이 테라스로 나오신 걸 알고 있는 거 같은데 레아 황녀님이 여기 계속 있으면 아마 직접 찾아올 거예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찾아온다니. 그럼 테라스로 도망친 보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리고 형은 분명 레아 황녀님께 춤을 같이 추자고 할 거고 황녀님께서 거절하셔도 아마 억지로 끌고 가서 춤을 추게 되실 거예요.”

“…최악이네요.”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서 춤을 추는 건 또 무슨 경우일까.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 나쁘고 불쾌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왜 프레디 소공자와 춤을 춰야 할 이유가 되는 건지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게 왜 내가 프레디 소공자가 춤을 춰야 할 이유가 되는 건진 모르겠네요. 제 생각에는 춤이 아니라 그 상황을 피할 방법을 찾는 게 더 맞는 거 같은데.”

“그 상황을 피하려면 선제공격 말곤 방법이 없으니까요. 어차피 우린 파티가 끝날 때까지 파티장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건 그렇긴 하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빠 생일이고 오늘 파티는 황실에서 주최하는 파티니까요.”

“특히 레아 황녀님께서는 잠깐만 자리를 비우셔도 눈에 띄시는 편이셔서요. 지금도 다들 황녀님 찾는다고 바쁘던데요?”

“그럼 프레디 소공자랑 춤추면 더 눈에 띄는 거 아니에요?”

눈에 띄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을 거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프레디 소공자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선제공격이 답이라고. 저랑 같이 춤추시고 그대로 같이 정원으로 손잡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마 아버지와 형은 당분간은 황녀님께 접근하고 싶어도 접근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 파티장에 하이모어 대공과 크라스 경만 있는 것도 아니고 보는 눈이 많은데 그렇게 데이트하는 것처럼 보이면 괜히 이상한 소문이 돌 게 뻔하잖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일단 저도 하이모어 대공의 아들이니까요. 오히려 파티가 끝나고 제가 차였다고 소문을 내면 효과가 더 좋을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구미가 당기는 제안은 아니네요.”

확실히 프레디 소공자가 레아에게 차였다고 소문이 나면 아무리 하이모어 대공이라고 해도 쉽게 접근하기는 힘들 것이었다. 하지만 레아는 프레디 소공자와 춤까지는 그렇다 쳐도 같이 손잡고 정원을 가고 싶지는 않았다. 그리고 제일 걱정되는 건 프레디 소공자였다.

“그리고 그랬다가 프레디 소공자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요. 그런 소문 돌면 하이모어 대공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잖아요.”

“하하. 레아 황녀님께서 제 걱정을 해주시다니. 기분 좋은데요?”

“웃지 마요.”

레아를 지켜주려고 희생하겠다는데 그걸 얼씨구나 좋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그런데 뭐가 좋다고 생글생글 웃는 건지 레아는 정말 프레디 소공자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는 슬슬 조금 궁금해지기도 했다.

“프레디 소공자. 진짜 나 좋아하는 거 맞아요?”

“네. 몇 번이나 황녀님을 좋아한다고 말했었잖아요.”

“진짜 진짜 정말로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 맞아요?”

“진짜 진짜 정말로 진심으로 좋아해요. 좋아해요. 레아 황녀님.”

“흐음.”

아무리 바람둥이 날라리 소공자로 유명한 프레디 소공자라고 해도 이쯤 되면 진심이라는 말 정도는 믿어줘야 할 거 같았다. 세상에 그 어떤 바람둥이도 진심이 아닌 여자를 위해 이 정도로 희생하지는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프레디 소공자가 진심이라면 레아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었다.

“왜요? 진짜 첫눈에 반하기라도 거예요?”

“아뇨. 사실 그건 레아 황녀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거짓말한 거였어요. 제가 황녀님께 반한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반했는데요? 도대체 어째서 왜?”

레아는 아무리 생각해도 프레디 소공자가 도대체 왜 자신을 좋아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레아는 별로 안 좋아했지만, 프레디 소공자는 여자들에게 인기도 많았고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소공자가 좋다는 여자가 한 트럭이었는데 왜 밀어내기만 하는 자신을 좋아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혹시 정복욕 뭐 이런 건가? 아니면 취향이 특이해서 자기 싫다는 여자한테 끌린다거나. 설마 자기랑 똑같이 가정사가 복잡하다고 좋아하는 건 아니겠지?’

도저히 평범한 이유로는 프레디 소공자가 레아를 좋아할 리가 없을 거 같았다. 그래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생각하는 레아에게 프레디 소공자는 레아의 생각보다는 평범하지만 약간 의외의 말을 했다.

“레아 황녀님은 제가 아는 사람이랑 닮았어요. 그래서 황녀님이 좋아요.”

“나 그렇게 흔한 얼굴 아닌데.”

“얼굴이나 외형적인 부분은 별로 안 닮으신 거 같아요. 그 친구는 키도 꽤 컸고 레아 황녀님처럼 눈이 부시게 아름답지도 않았거든요.”

“성격이 그리 평범한 편도 아닐 텐데.”

“성격은 그 친구랑 전혀 다르세요. 그 친구는 소심하고 조용한 편이었거든요.”

“그럼 대체 어디가 닮았다는 거예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기 입으로 닮았다고 했으면서 어디가 닮았냐고 물어보니 그건 잘 모르겠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레아는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다.

‘혹시 이번에도 장난치는 건가? 역시 프레디 소공자가 나한테 진심을 말해줄 리가 없지. 잠시라도 그 말을 믿은 내가 바보다, 바보.’

결국, 이번에도 프레디 소공자의 진심은 통하지 않았다. 자신의 말의 믿지 못하는 레아 황녀님에게 프레디 소공자는 이런 질문을 했다.

“레아 황녀님. 어떡하면 제 진심이 황녀님께 닿을 수 있을까요?”

“프레디 소공자가 진심을 보여줘야 나한테 그 진심이 닿겠죠. 만날 믿지도 못할 말들만 하잖아요. 프레디 소공자는.”

만약 저 말이 정말 진심이고 그 진심이 상대에게 닿으려면 노력을 해야 했다. 레아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뭘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사실 프레디 소공자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노력을 하기에는 아직은 용기가 부족했다.

‘만약 나중에 나한테 그 용기가 생긴다면 레아 황녀님께 고백할 수 있겠지. 스텔라와 있었던 일도 분명….’

그렇게 자신의 진심이 레아 황녀님께 닿는다면 레아 황녀님은 과연 그 마음을 받아주실까. 프레디 소공자는 그런 생각을 하며 속으로 작게 소망했다.

언젠가 자신의 진심이 레아 황녀님께 닿기를.

51.마지막 춤.docx

‘어떡하면 자기 진심이 나한테 닿을 수 있겠냐니. 그렇다면 진짜로 내가 프레디 소공자가 아는 누군가랑 닮았다는 말이 진심이란 소리인가?’

프레디 소공자의 그 말을 듣고 레아는 속으로 조금 놀랐었다. 하지만 혹시라도 프레디 소공자에게 관심이 있다고 오해받을까 봐 겉으로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척을 했다.

하지만 고백인 듯 고백 아닌 고백 같은 말을 듣고 거기다 누군가와 닮아서 좋다는 찜찜한 말을 듣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듣고 흘릴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계속 테라스에 있으려니 날이 조금 쌀쌀해서 다시 파티장 안으로 들어온 레아는 프레디 소공자의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났다. 그리고 자신과 닮았다는 그 사람이 조금 궁금하기도 했다.

결국,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레아는 라이 경에게 질문했다.

“라이 경. 저 혹시 누구랑 닮았어요?”

“레아 황녀님께선 레그마인 황제 폐하를 많이 닮으신 편입니다.”

“아뇨. 아빠 말고 다른 사람이요.”

“레아 황녀님께선 황족만이 가질 수 있는 황금빛 머리카락과 흔하지 않은 초록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으셔서 레그마인 황제 폐하가 아닌 다른 사람과 닮았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흐음. 역시 그렇죠?”

레아 역시 아빠를 제외한 다른 사람을 보고 자신과 닮았다고 생각한 적은 드물었고 특히 프레디 소공자처럼 복잡한 가정사 때문에 닮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김새나 성격이 닮았다고 생각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심지어 레아가 엄마를 닮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아빠 말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프레디 소공자는 내가 누구랑 닮았다고 했지. 비록 겉모습이나 성격은 안 닮았고 도대체 어디가 닮았다는 건지는 본인도 잘 모르겠다고 했지만 묘하게 신경 쓰인단 말이지.’

하여튼 신경 쓰고 싶지 않아도 자꾸 신경 쓰이게 하는 남자였다. 레아는 엮이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엮이는 건지 모르겠다고 투덜거렸고 그런 레아를 보며 라이 경은 설마…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레아 황녀님. 혹시 아까 테라스에 나가셨을 때 프레디와 만나셨습니까?”

“네. 테라스에 있는데 프레디 소공자가 와서 잠깐 얘기했었어요.”

“혹시 그 자식이 아니 프레디가 이상한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까?”

“뭐, 이상한 얘기라기보다는….”

엄청나게 신경 쓰이는 얘기를 제대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냄새만 풍기고 가버렸다. 그게 계속 신경이 쓰이고 알고 싶었기에 레아는 라이 경에게 대놓고 물어보기로 했다.

“내가 프레디 소공자가 아는 사람이랑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다고 그랬어요.”

“고백받으신 겁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아,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그게 고백이었다고 해도 전혀 받아줄 마음은 없어요. 그냥 조금 신경 쓰일 뿐이에요.”

“신경 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로 프레디와 더는 엮이지 않으시는 게 좋으실 거 같습니다.”

“말 섞는 건 둘째 치더라도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하이모어 대공의 아들이고 심지어 나보고 누구 닮았다는데 당연히 궁금하고 신경 쓰이죠.”

“그래도 전 레아 황녀님께서 프레디에 대해 더 깊게 파고들지 않고 관심을 주지 않으시는 게 황녀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바람둥이 날라리 소공자니까요?”

처음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이제는 레아도 눈치라는 게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란 것 정도는 알 수 있었다. 뭔진 몰라도 레아가 모르는 게 있었고 그건 레아와 닮았다는 그 사람과 관련된 것 같았다. 라이 경의 모습을 보며 레아는 확신할 수 있었다.

“라이 경. 경은 알고 있죠? 프레디 소공자가 내가 누구랑 닮았다고 하는 건지.”

“…하나도 닮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 누구예요? 말해주세요.”

“……….”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왜 프레디 소공자가 그런 말을 했는지 알아야 라이 경이 말한 대로 내가 더 깊게 파고들지도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라이 경은 레아 황녀님의 진지한 말에 입술을 꾹 깨물었다. 그리고 속으로 스텔라의 이름을 꺼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백번을 넘게 고민했다.

‘과연 이 얘기를 내 입으로 해도 되는 걸까. 그것도 프레디의 허락도 없이 내 마음대로 이 얘기를….’

솔직한 마음으로는 스텔라는 누구인지 프레디와는 무슨 사이였는지 다 말해버리고 그러니까 레아 황녀님께서는 프레디와 가까워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었다. 가까워져봤자 힘들고 아플 게 뻔하니 라이 경은 황녀님께서 그러지 않으시길 바랐다. 하지만 끝내 라이 경은 그 얘기를 자신의 입으로 할 수가 없었다.

“죄송합니다. 레아 황녀님.”

“가벼운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 무거운 얘기인가 봐요. 라이 경이 숨길 정도면.”

“그 이야기는 프레디의 이야기이니 제가 함부로 떠들고 다니면 안 될 거 같습니다.”

“그 말이 맞는 거 같네요. 그렇다면 저도 더는 묻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 레아 황녀님.”

라이 경은 더 묻지 않겠다는 레아의 말에 안심하며 황녀님께서 이제 프레디가 말한 그 닮은 사람, 스텔라에 대해 알아내려고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레아의 생각은 좀 달랐다.

‘일단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하이모어 대공부터 어떻게 처리하고 엄마가 왜 흑마법을 배웠는지 그 이유를 알아낸 다음 그때도 프레디 소공자가 신경 쓰이고 궁금하다면 그건 그때 알아봐도 늦지 않으니까.’

왜 이렇게 비밀은 많고 신경 쓰이고 찜찜해서 알아봐야 할 건 많은 걸까. 레아는 머리가 아파서 한숨을 쉬었다.

“라이 경. 파티 끝나려면 얼마나 남았어요?”

“1시간 정도만 더 있으면 끝날 겁니다. 레아 황녀님. 많이 지치신 것 같습니다.”

“그야 피곤하니까요. 구석으로 도망와있는 것도 지겹고 좀 따분하기도 하고.”

“그럼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서 쉬시는 편이….”

“자리로 돌아가도 편하게 못 쉬니까 일부러 눈에 안 띄는 구석에 숨어있는 거잖아요. 같은 처지면서 왜 그래요?”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오늘 레아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이 프레디 소공자가 아닌 다른 남자에게도 인기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레아는 전혀 기쁘지 않았다.

‘그렇게 우르르 몰려와서 주말에 시간 있냐는 둥 다음에 황궁으로 초대해달라는 둥 자기 집에 초대하겠다는 둥…. 그거 다 거절하는 것도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었지. 황녀도 진짜 못 해먹을 짓이구나.’

레아는 문득 아까 아빠와 그라티아 황제 폐하께서 영애들에게 둘러싸인 라이 경을 보며 했던 말이 떠올랐다.

‘결혼해버리거나 아니면 자식이 생기기 전까지는 절대 안 끝난다고 했었지. 나는 좀 힘들지 몰라도 라이 경은 여러모로 빨리 결혼하는 편이 속 편하겠네. 피에르 시종장님도 그러길 원하고 있으시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레아는 자신의 옆에 있는 라이 경을 힐긋 바라보았다.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바로 여자친구도 만들고 결혼도 일찍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왜 라이 경은 여자를 만나지 않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했다. 피에르 시종장님의 잔소리가 그렇게 스트레스면 못 이기는 척 여자를 만나보기라도 했을 법한데 말이다.

그런데 시녀들에게나 다른 영애들에게 관심은커녕 눈길도 주지 않는 라이 경이었고 레아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서 그러는 건가 물어보려고 할 그때였다.

“레아 황녀님. 여기 있으셨군요.”

“아, 크라스 경….”

“아름다운 황녀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일부로 구석에 숨어있었는데 제일 피하고 싶었던 사람이 굳이 찾아와서 아는 척을 하니 레아는 그게 반가울 리 없었다. 라이 경도 레아가 불편해한다는 걸 알기에 한 걸음 앞으로 나가 크라스 경이 더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크라스 경. 레아 황녀님께 무슨 볼일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당연히 볼 일이 있으니까 다른 영식들 몰래 이쪽으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프레디처럼 이유 없이 누군가를 찾을 정도로 물러터진 성격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볼일도 없으면서 황녀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볼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라이 경. 당신에게 볼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호위 주제에 보호자처럼 굴지 말고 비키시죠.”

“저는 오늘 파티에서 레아 황녀님의 에스코트를 맡았습니다. 제 파트너에게 무슨 볼일이 있으신 건지 확실하게 밝히시길 바랍니다.”

“누가 보면 라이 경이 레아 황녀님의 남자친구라도 되는 줄 알겠습니다.”

“무슨 볼일이 있으신 건지 물었습니다.”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조여오는 분위기에 레아는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었다. 결국, 레아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나서야겠다고 생각하며 한 발자국 앞으로 가 라이 경의 옆에 섰다.

“크라스 경. 저한테 있다는 그 볼 일이란 게 뭐죠?”

“레아 황녀님. 황녀님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뭔데요?”

“황녀님만 괜찮으시다면 파티가 끝나고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저 지금 데이트 신청하는 겁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전혀 예상치도 못한 크라스 경의 데이트 신청에 놀라긴 했지만, 당연히 받아줄 마음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레아는 파티가 끝나면 바로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미안해요. 크라스 경. 제가 파티가 끝나고 선약이 있어서요. 그 데이트 신청은 거절할게요.”

“혹시 그 선약이라는 게 프레디와 만나기로 하신 겁니까?”

“아니요. 앙겔루스 제국에서 온 쌍둥이 황자님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크라스 경은 제가 프레디 소공자를 만나면 안 된다는 듯이 말씀하시네요.”

“레아 황녀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제 동생은…. 아무튼 가까워지셔봤자 황녀님만 손해이십니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리 프레디 소공자가 바람둥이 날라리에 크라스 경이 보기에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그래도 동생인데 꼭 저렇게 말해야 하나.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다른 사람 그것도 황실 사람 앞에서는 좀 보호해줄 수도 있는 건데 프레디 소공자를 안 좋게 얘기하는 크라스 경을 보며 레아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

‘이제 라이 경이랑 아빠가 왜 크라스 경과는 절대 가깝게 지내지 말라고 했는지 알 거 같아. 아무리 못나도 가족이라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애초에 프레디 소공자를 가족이라고 여기지도 않고 있는 것 같았다. 절대 프레디 소공자를 좋게 보거나 편을 드는 건 아니었지만 괜히 기분이 나빠진 레아는 삐딱하게 나왔다.

“전 남의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꼭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제 안 좋은 얘기를 할 거 같거든요. 특히 자기 가족을 바로 잡아주지는 못할망정 깎아내리는 사람은 더 싫어요.”

사실 하이모어 형제가 서로 보듬어주고 바로 잡으며 이끌어주는 그런 사이 좋은 형제가 아니란 것은 레아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러 순수한 척 웃으며 그 부분을 콕 집어서 건드렸고 그러자 크라스 경의 얼굴은 살짝 굳어졌지만, 대놓고 티를 낼 수는 없었다.

아무리 하이모어 대공 가문이 대단하고 힘이 있다고 해도 레아는 황족이었다. 대놓고 함부로 건드리고 쫄딱 망하게 할 수는 없어도 이 정도는 가능했다.

“실례를 범한 거 같아 죄송합니다. 사과의 의미로 춤 신청을 하고 싶은데 이건 받아주시겠습니까?”

“춤이요?”

“네. 레아 황녀님은 오늘 파티에서 아직 춤을 추시지 않으셨고 곧 파티가 끝날 테니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한 곡 춰주시겠습니까?”

생각해볼 것도 없이 싫었다. 춤추는 걸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고 피곤했기 때문에 다른 영식들의 춤 신청도 죄다 거절했는데 상대가 크라스 경이라면 더 싫었다. 하지만 레아는 다른 영식들과는 다르게 크라스 경의 춤 신청은 딱 잘라서 거절할 수가 없었다.

‘사과의 의미로 춤을 신청하다니. 여기서 거절하면 크라스 경의 사과도 받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니 그럴 수도 없고…. 진짜 하이모어 대공의 아들만 아니었어도 신경 안 쓰는 건데 저거 일부러 노리고 춤 신청한 게 분명해.’

역시 하이모어 대공과 크라스 경에겐 조금의 틈도 보여선 안 될 거 같다고 생각하며 레아는 여기서 춤 신청을 받아들이면 안 될 거 같아 좀 미안하기는 했지만, 옆에 있는 라이 경을 좀 이용하기로 했다.

“사과는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춤은 같이 춰드리지 못할 거 같아요. 미안해요. 크라스 경.”

“어째서 춤 신청을 거절하신 건지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그게 사실 크라스 경이 오기 전에 라이 경과 함께 마지막 춤을 추기로 했거든요. 그렇죠, 라이 경?”

레아는 그렇게 말하며 크라스 경 몰래 라이 경의 다리를 발로 툭 치며 눈치를 주었다. 알아서 말 잘 맞추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라이 경은 파티에서 단 한 번도 춤을 추지 않았는데 의외군요. 그동안 수많은 영애의 춤 신청을 모두 거절하더니 레아 황녀님껜 먼저 춤 신청을 한 겁니까?”

“설마요. 당연히 제가 먼저 춤 신청을 했죠,”

“레아 황녀님께서 먼저 남자에게 춤 신청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왜요. 황녀가 먼저 자신의 호위 기사에게 춤 신청하면 안 되나요?”

“아뇨.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기사가 황녀님께 먼저 춤 신청을 하지 황녀님이 기사에게 춤 신청을 하진 않죠.”

“그럼 문제 될 건 없네요. 전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요.”

솔직히 말하면서 레아도 억지라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평범하지 않다는 거지 문제 될 건 없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기에 레아는 그대로 라이 경을 끌고 춤을 추러 갔다. 그렇게 얼떨결에 라이 경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파티장에서 춤을 추게 되었고 그의 첫 댄스 파트너는 그의 어머니도 여자친구도 아닌 레아가 된 꼴이었다.

“미안해요. 많이 놀랐죠? 크라스 경의 춤 신청을 거절하려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만….”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현명하게 잘 대처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춤은…크라스 경이 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추는 게 좋겠죠?”

“안 추면 분명 또 와서 귀찮게 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제가 파티에서 춤을 춰본 적이 없어서 잘 출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으음. 근데 경도 알다시피 나도 춤을 잘 추는 편이 아니라서….”

레아도 상대가 잘 이끌어 줘야 자연스럽게 잘 따라가는 수준이라 솔직히 자신도 없고 조금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레아와 라이 경은 함께 마지막 춤을 춰야만 하는 운명이었다. 레아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미리 걱정하지 말고 일단 질러보기로 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는 게 최고였다.

“라이 경. 우리 일단 해봐요. 혹시 알아요? 생각보다 잘할지도.”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부탁해요.”

레아는 예쁘게 웃으면서 라이 경에게 손을 내밀었고 라이 경은 그런 레아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렇게 레아와 라이 경은 천천히 파티의 마지막 춤이자 두 사람의 첫 춤을 추기 시작했다.

52.첫사랑과 첫사랑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docx

그래도 레아도 프레디 소공자에게 정식으로 춤을 배웠고 라이 경도 어머니께 춤을 배우긴 배웠었다. 그리고 확실히 라이 경은 몸을 잘 쓰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뻣뻣하긴 했지만, 발이 꼬이진 않았고 박자도 정확했다. 일단 어설퍼도 그럭저럭 춤이 이어지자 레아는 안심했다.

“좀 어색해도 일단은 춤처럼 보이긴 해서 다행이에요. 라이 경. 어깨에 힘을 좀 빼면 더 좋을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응. 아까보다 자연스러워졌어요.”

“감사합니다.”

레아도 누군가를 가르칠 정도로 춤이 능숙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앙겔루스 제국에서 아빠와 춤을 춰보긴 춰봐서 라이 경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이었다.

‘그러고 보니 라이 경은 파티에서 여자랑 춤을 춰보는 게 처음이겠지만 나도 아빠 말고 다른 남자랑 춤춰보는 건 처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레아는 왠지 기분이 묘했다.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었고 깊은 의미가 담긴 것도 아니었지만 왠지 기분이 그랬다. 특히 상대가 라이 경이니 레아는 괜히 기분이 이상했고 라이 경 역시 레아의 손을 잡고 어색하게 춤을 추면서 생각이 많은 건 마찬가지였다.

‘파티가 끝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 일단 파티가 끝나기 전까지는 살 수 있을까.’

그동안 레아 황녀님께서 참석하시는 파티에서는 꼭 누군가 한 명은 조짐을 당했었는데 라이 경은 오늘 파티에서는 자신이 그 조짐을 당할 것만 같아서 두려웠다. 그리고 일단 파티가 끝나기 전까지는 목숨을 건지려면 레아 황녀님과 계속 같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레아 황녀님. 곧 곡이 끝나고 다른 곡으로 바뀔 거 같은데 한 곡 더 추시겠습니까?”

“아뇨. 피곤하기도 하고 라이 경이나 저나 한 곡 더는 무리일 거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크라스 경에게는 분명 마지막 춤을 출 것이라고 했는데 이대로 춤을 끝내면 분명 또 와서 그걸로 딴지를 걸 게 분명합니다.”

“인제 와서 발목이 아파서 춤을 못 추겠다고 꾀병을 부리기에는 너무 늦었을까요?”

“네. 너무 늦으셨습니다.”

라이 경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기에 레아는 잠시 생각을 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여기서 한 곡을 더 추는 건 무리일 거 같은데 뭔가 좀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해봤고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냥 파티장을 나가 좀 쉬러 가고 싶었다.

그러다 문득 레아는 아까 프레디 소공자가 테라스에서 했던 제안이 떠올랐다. 춤이 끝나고 라이 경과 같이 정원으로 나가버리면 크라스 경도 피할 수 있었고 잠시라도 쉴 수 있을 것이었다.

“라이 경. 우리 이번 곡이 끝나면 정원으로 가요. 어때요?”

“파티장과 연결된 정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크라스 경도 피하고 싶고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었다 가고 싶어요.”

처음 그 정원에 가자는 말에 조금 놀랐지만, 곧 피곤해서 쉬고 싶다는 레아 황녀님의 말씀에 라이 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렇지 레아 황녀님께서 자신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라이 경은 파티장이랑 연결된 정원에 가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정원은 주로 파티장에서 만난 남녀나 연인들이 데이트를 즐기는 곳이라 근처에도 안 가봤습니다.”

“그래도 같이 가자는 여자들은 많지 않았어요?”

“모두 거절했습니다. 파티에 잘 참석하는 편은 아니었는지라 그런 제안을 받아본 적도 몇 번 없었습니다.”

“하하. 라이 경답네요.”

라이 경은 같이 정원으로 나가자는 말을 몇 번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지만 실은 그런 말을 질리도록 많이 들어봤을 거란 걸 레아는 알고 있었다. 파티 때마다 좋다고 달라붙는 여자가 그렇게 많은데 안 봐도 뻔한 일이었다.

‘그러고 보면 영애들이나 시녀들한테 라이 경은 절대 흔들리지도 않네. 흐음. 피에르 시종장님이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으시지만, 이 남자가 과연 연애나 결혼이란 걸 하기는 할까.’

지금까지 레아가 본 라이 경이라면 솔직히 누군가를 사랑하는 모습이 잘 상상이 가지 않았다. 레아는 만약에 라이 경이 결혼이란 걸 하게 된다면 턱시도를 입은 라이 경 옆에 웨딩드레스를 입게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 궁금해졌다.

레아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이 곧 음악은 파티가 곧 끝날 것을 알리는 마지막 곡이 흐르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이 마지막 춤을 추기 위해 짝을 지어 춤을 추러 나왔다. 레아와 라이 경은 그 많은 사람 틈에 섞여 조용히 정원으로 빠져나왔다.

이제 꽤 긴 마지막 곡이 끝날 때까지 벤치에 앉아서 좀 쉬어야지. 하지만 그런 생각으로 정원으로 나온 레아는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정원의 풍경에 조금 실망했다.

“여기 정원은 가끔 산책하는 정원이랑은 분위기가 전혀 다르네요. 어둡고 화려한 꽃이나 나무도 없고 풀만 가득….”

“주로 파티 중 데이트를 하러 나오는 곳이니 조경에는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변 풍경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데이트 중일 때는 서로 얼굴을 바라보기 바쁠 테니.”

“사랑에 빠지면 세상이 온통 꽃밭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아무리 비싸고 좋은 꽃을 심어놔도 소용이 없기는 하겠네요.”

그건 알겠지만, 레아는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랑에 빠진 상태도 아니었다. 예쁘고 화려한 정원을 기대했는데 레아는 조금 실망한 마음으로 벤치에 털썩 앉았다.

‘조용하다. 방금까지 시끌벅적한 파티장에 있다가 와서 그런지 꼭 다른 세상에 온 거 같아.’

보이는 건 초록색 풀과 라이 경뿐이었다. 레아는 라이 경을 보며 말했다.

“라이 경. 다리 안 아파요? 그러지 말고 여기 앉아요.”

“아닙니다. 황녀님의 호위기사로서 특별한 이유 없이 황녀님의 옆에 앉을 수는 없습니다.”

“괜찮아요. 아무도 없는데 뭐 어때요. 그리고 누가 있어도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을 건데.”

“하지만 저는….”

“다리 아프잖아요. 그냥 앉아요.”

비어있는 자신의 옆자리를 톡톡 두드리며 말하는 레아 황녀님을 보며 잠시 망설이던 라이 경은 벤치에 앉았다. 만약 누군가 이 모습을 본다면 라이 경답지 않다며 놀랄 일이었다.

‘요즘 레아 황녀님과 있으면 나답지 않게 굴게 되는군. 레아 황녀님과 관련된 일이라면 나도 모르게….’

전에 프레디도 이런 모습을 보고 너답지 않다고 한 적이 있었고 오늘 크라스 경에게 했던 말들도 원래 라이 경이었다면 하지 않을 법한 말들이었다. 최근 들어 레아 황녀님과 관련된 일이라면, 특히 크라스 경이나 프레디가 엮인 일이라면 라이 경은 자꾸만 감정적으로 굴게 되었다.

사실 자신이 왜 그런 건지 라이 경은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짐작일뿐 그 감정에 대한 확신은 없었다.

“라이 경. 궁금한 거 있는데 물어봐도 돼요?”

“제가 대답해드릴 수 있는 질문이라면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라이 경이랑 프레디 소공자는 어쩌다가 친해지게 된 거예요?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를 떠나 기본적인 성향부터가 다른 거 같은데.”

“……….”

“이것도 대답 못 해줘요?”

이 정도는 대답 못 해줄 질문은 아니었다. 하지만 레아 황녀님께서 더는 프레디를 신경 쓰지도 않고 엮이시지도 않길 바랐기에 라이 경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을 했다.

“특별한 계기는 없었습니다. 그냥 같은 아카데미를 나와서 어릴 때 자연스럽게 친해진 친구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라이 경은 언제부터인지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스며들 듯 프레디와 친구가 된 것이었다.

“하긴. 17살 때까지는 프레디 소공자도 착실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었다고 했었죠. 아카데미 다닐 때 프레디 소공자가 라이 경보다 공부 잘했다고 하던데 그거 진짜예요?”

“사실입니다. 프레디는 아카데미에 입학했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학년 수석 자리에서 내려온 적이 없었습니다.”

“프레디 소공자가 학년 수석이요? 그거 엄청난 반전이네요.”

“다른 건 몰라도 머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좋은 녀석입니다.”

입학할 때는 몰라도 졸업할 때까지 학년 수석이었다는 건 프레디 소공자가 삐뚤어진 이후로도 그 성적을 유지했다는 것이었다. 레아는 프레디 소공자가 그렇게 똑똑했다니 의외란 생각이 들었다.

“그럼 라이 경도 공부 잘했어요? 혹시 학년 차석이었던 건 아니겠죠?”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학년 차석은 크라스 경이었습니다.”

“네? 크라스 경이요?”

프레디 소공자가 학년 수석이었다는 것도 상당히 의외였지만, 크라스 경이 차석이었다는 건 더 의외의 일이었다. 하이모어 형제가 나란히 학년 수석, 차석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을 줄은 몰랐다.

‘안 그래도 사이 안 좋았는데 그거 때문에 더 사이가 안 좋았겠네. 특히 내가 보고 들은 크라스 경 성격이라면 절대 사이가 좋았을 리가 없지. 그 집 사정도 참 속 시끄럽다니까.’

그래도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까지 잘했으니 프레디 소공자는 그때부터 인기가 장난이 아니었을 것 같긴 했다. 바람둥이 날라리로 삐뚤어지기 전까지는 무뚝뚝한 라이 경보다 인기가 훨씬 많았을지도 몰랐다.

“그럼 프레디 소공자 인기 엄청 많았겠네요. 삐뚤어지기도 전이었으니까 얼굴도 잘생겼고 공부도 잘했으면 고백도 엄청 많이 받았을 거 같은데.”

“많았습니다. 본인은 호감의 표시가 아니라 다들 다른 뜻이 있어서 준 것이라고 늘 말했지만, 책상이나 캐비닛에는 항상 편지나 선물이 가득했었습니다.”

“라이 경도 편지나 선물 많이 받았었죠?”

“전 아카데미가 끝나자마자 황궁으로 직행해서 그런 거 받을 틈도 없었습니다.”

말은 저렇게 해도 분명 라이 경도 여학생들에게 엄청난 고백과 선물을 받았을 것이었다. 슬프게도 그 두근두근 예쁜 마음이 담긴 선물과 편지는 당사자에게 닿지 못했던 거 같지만 말이다.

“혹시 그때 엄청난 인기에 취해서 바람둥이 날라리 소공자가 된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프레디는 그때 진심으로 좋아했던 여자가….”

“프레디 소공자가 진심으로 좋아했던 여자가 있었다고요?”

“……….”

아, 이건 절대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라이 경은 자신도 모르게 답지 않은 말실수를 해버렸고 급히 말을 멈추긴 했지만, 레아 황녀님께서는 그 말을 놓치지 않으셨다.

‘스텔라에 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만…. 이제 그 진심으로 좋아했던 상대가 누구냐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레아는 한 손으로 입을 가리고 당황스러워하는 라이 경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아까와 똑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라이 경은 아카데미 다닐 때 여자친구 있었던 적 있어요?”

“네?”

“라이 경은 여자친구 사귄 적은 없었어요?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고백을 해봤다거나.”

“아니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짝사랑해본 적도 없어요?”

“없습니다.”

분명 프레디가 누구를 진심으로 좋아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으실 줄 알았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레아 황녀님께서는 신경도 안 쓴다는 듯 그 상대에 관해 묻지 않으셨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라이 경을 보며 레아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무리 궁금해도 물어보면 안 되겠지. 물어봐도 대답해줄 것 같지도 않고.’

눈치로 레아는 프레디 소공자가 자신과 닮았다는 그 사람이 바로 진심으로 좋아했다는 그 상대가 아닐까 싶었다. 아닐 수도 있었지만 그럴 확률이 높겠다고 생각했다.

‘만약 내 추측대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면 결국 첫사랑이랑 닮아서 내가 좋다는 거잖아. 좀 기분 나쁘긴 하지만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바람둥이 날라리 소공자인 프레디 소공자가 아직도 잊지 못하고 흔적을 쫓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하네.’

하지만 아무리 궁금해도 물어봐서는 안 될 거 같은 부분이었다. 레아는 알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누르며 참았다.

“그럼 여자친구 한 번도 안 만나봤다는 거네요. 누굴 좋아해 본 적도 없고.”

“네.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이 빨리 결혼하길 바라시다니. 인제 보니 피에르 시종장님은 욕심이 과하신 거 같네요.”

“말도 안 되는 걸 원하셔서 저도 어떡해야 할지 아직도 고민입니다.”

“하하. 라이 경. 힘내요.”

우리 아빠는 결혼은 물론이고 연애도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데 피에르 시종장님과 반씩 섞으면 얼마나 좋을까. 레아는 그런 생각을 하며 웃었는데 라이 경은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다.

“하지만 아직 좋아하는 건 아니라도 좋아하게 될 거 같은 여자는 얼마 전에 생겼습니다.”

“좋아하게 될 거 같은 여자요?”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게 될 거 같은 여자라니. 왠지 호기심을 자극하는 말이었다.

“그럼 그 상대가 라이 경의 첫사랑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어떤 여자인지 물어봐도 돼요?”

“평범함과는 거리가 먼 분이십니다. 걱정돼서 잠시라도 눈을 뗄 수가 없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지켜드릴 필요도 없을 정도로 강하신…그런 분이십니다.”

“멋진 분이시네요. 그런데 그분은 라이 경 마음 알고 있으세요?”

“저도 아직 제 마음에 확신이 없어서 아마 모르고 있으신 거 같습니다.”

라이 경이 지켜줄 필요도 없을 정도로 강하고 멋진 사람이라. 라이 경의 호위를 받고 보호를 받는 자신과는 많이 다른 사람일 거 같은데 그렇다면 혹시 라이 경보다 연상인 건가 하고 레아는 생각했다.

‘시녀들은 대부분 나보다 나이가 많지만 라이 경보다는 어리거나 동갑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파티에서 만난 영애 중에 있다는 거겠지?’

라이 경이 말하는 그 좋아하게 될 거 같은 사람이 본인일 것이라고 전혀 생각 못 하는 레아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오늘 인사를 나눴던 영애들을 떠올려 보았지만,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전혀 감이 오지 않았다. 결국, 레아는 라이 경의 첫사랑이 될지도 모르는 그 상대가 누군지 유추하는 건 포기하고 그냥 응원이나 해주기로 했다.

“그 상대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꼭 잘 되길 응원할게요. 라이 경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면 그 사람도 라이 경을 좋아하게 될 거예요.”

“진심이신 겁니까?”

“당연히 진심이죠. 아직 이른 얘기지만 두 사람 사이 응원한다니까요.”

“감사합니다. 레아 황녀님.”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 중인지 알 리가 없는 레아는 웃으면서 라이 경을 응원한다고 했고 라이 경은 그런 황녀님의 모습이 귀여워 작게 웃었다. 그리고 그 좋아하게 될지도 모를 그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될 날이 어쩌면 곧 올지도 모르겠단 생각이 들었다.

53.미운 30살.docx

아마도 곧 나는 레아 황녀님을 좋아하게 될지도 몰랐다.

정원으로 나와 레아 황녀님의 옆자리에 앉는 그 순간 라이 경은 자신의 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아직 확실한 설렘이라고 부르기엔 부족했지만,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었다.

‘절대 좋아하게 되고 여자로 볼 리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돼버린 걸까.’

언제부터였는지 왜 레아 황녀님을 여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는지는 라이 경 본인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이유를 알고 있었다면 이 호감을 없앨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거 같은데. 라이 경은 여기서 마음이 더 커져서 레아 황녀님을 좋아하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프레디는 레아 황녀님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어. 물론 레아 황녀님에게서 스텔라의 모습을 찾는 건 잘못된 거긴 하지만 그 마음만은 진심이었어. 그런데 내가 레아 황녀님을 좋아하게 돼버린다면….’

그게 프레디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될지도 몰랐다. 비록 라이 경이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프레디에게 또 사랑으로 인한 상처를 줄 수는 없었다. 미우나 고우나 프레디는 라이 경의 소중한 친구였으니까.

‘접어야 해. 프레디를 위해서. 그리고 레아 황녀님을 위해서라도.’

만약에 그런 삼각관계가 펼쳐진다면 제일 곤란할 사람은 바로 레아 황녀님이었다. 안 그래도 요즘 이래저래 생각이 많으실 텐데 황녀님께서 편해지시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는 라이 경이 굳이 머리 아픈 일을 보탤 필요는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라이 경은 자신이 마음을 접는 게 맞는 거 같았다.

하지만 그 마음이란 게 쉽게 접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일까? 지금도 라이 경답지 않은 행동이 불쑥불쑥 제멋대로 튀어나오는데 솔직히 자신은 없었다.

“그 상대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꼭 잘 되길 응원할게요. 라이 경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면 그 사람도 라이 경을 좋아하게 될 거예요.”

“진심이신 겁니까?”

“당연히 진심이죠. 아직 이른 얘기지만 두 사람 사이 응원한다니까요.”

그 상대가 자신이라는 사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해맑게 웃으며 응원한다는 레아 황녀님을 보며 라이 경은 마음을 접는 건 힘들 거 같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있는데 쉽게 종이비행기를 접듯 마음을 접을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그래도 레아 황녀님을 좋아하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라이 경은 마음을 접을 수 없다면 다른 것을 바라기로 했다.

“감사합니다. 레아 황녀님.”

딱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마음이 더 커져서 레아 황녀님께서 정말 라이 경의 첫사랑이 되어도 그 사실을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이제 마지막 곡도 거의 끝났을 거 같은데 슬슬 안으로 들어가요. 밖에 너무 오래 있으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 파티 끝나고 크레 황자랑 트레 황자 보러 가야 하는데 라이 경도 같이 갈래요?”

“쌍둥이 황자님들도 참석하셨습니까?”

“그라티아 황제 폐하께서 너무 지쳐 보이셔서 잠깐 인사만 하고 바로 방으로 보냈어요. 아마 지금 숨바꼭질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숨바꼭질…?”

“네. 같이 놀자고 졸라서 찾으러 갈 때까지 숨어있으라고 했거든요.”

레아가 쌍둥이와 인사를 나눌 때 라이 경은 영애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으니 쌍둥이가 파티에 왔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레아는 문득 쌍둥이가 영애들에게 둘러싸인 라이 경을 보며 했던 말이 떠올랐다.

“라이 경 어쩌면 쌍둥이한테 미움받을지도.”

“혹시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신경 안 쓰셔도 될 거예요. 애들도 다 까먹었을 거예요.”

“대체 제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하하. 그냥 쌍둥이가 그때 했던 오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오해 안 할 거 같지만.”

“그럼 오해가 풀린 겁니까?”

“오해가 풀렸다기보다는 다른 오해가 생겼다고 하는 게 더 맞는 거 같아요.”

이제는 어린 쌍둥이의 오해를 푸는 것을 포기한 레아는 라이 경에게 쌍둥이가 한 새로운 오해에 관해 이야기해주었다. 라이 경 역시 쌍둥이 황자님들의 오해를 푸는 걸 포기한 듯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새로 생긴 오해도 나중에 좀 더 크시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오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레아와 라이 경은 파티장으로 돌아갔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런 레아를 보며 아빠는 약간은 불만이 있어 보이는 얼굴로 말을 걸었다.

“레아. 어디 갔다 왔어?”

“잠깐 바람 좀 쐬고 싶어서 정원에 좀 다녀왔어요.”

“라이 경이랑 단둘이? 테라스도 아니고 정원을?”

“테라스로 나가면 크라스 경이 올 거 같아서 도망친 거예요. 마지막 춤 같이 추자고 했는데 거절했거든요.”

“나도 같이 춰본 적 없는 마지막 춤을 추자고 했다고?”

아빠는 처음에는 라이 경과 둘이서 정원에 다녀왔다는 걸 신경 쓰시는 것 같았지만 크라스 경이 춤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얼굴을 찌푸리셨다. 그런데 왠지 크라스 경이라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가 레아에게 마지막 춤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거 같았다.

“안 되겠어. 이제 가족이 아닌 남자와 여자가 파티에서 춤을 추는 건 법으로 금지해야….”

“아빠. 그러지 마세요. 제발.”

“하지만 이 아빠는 우리 딸이 다른 남자와 손잡고 춤추는 걸 눈 뜨고 볼 수가 없는걸.”

“그냥 제가 다 거절할게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말도 안 되는 법 만들지 마세요. 절대.”

“알았어. 레아가 싫다면 안 할게.”

아무리 황제라고 해도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막 만들어도 되는 건가. 레아는 이런 아빠가 황제인데도 다닐로만 제국이 망하기는커녕 멀쩡하게 잘 굴러간다는 게 참 신기했다.

‘아닌가. 아까 앨버트 후작과 얘기를 나누실 때 봤던 그 모습이 아빠의 진짜 모습이라면….’

하지만 평소 가스파르 재상이 하는 불평불만이 가득한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아빠의 진짜 모습은 레아가 아는 이 모습이 맞는 거 같았다.

“그런 거 법으로 만들어 봤자 다들 벌금 내고 당당하게 레아랑 춤추려고 하겠지. 벌금이 얼마라고 해도 다들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서라도 어떻게든 우리 레아랑 춤 한번 추려고 난리를 칠 거야. 뭔가 확실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

“……….”

“그러니까 아빠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낼 때까지 레아도 춤 신청이란 신청은 다 거절하도록 해. 대놓고 거절하기 좀 그런 상대한테도 잘 돌려서 거절할 수 있을 거라고 믿을게. 우리 레아는 똑똑하니까.”

“너무 믿지는 마세요. 저 별로 안 똑똑해요.”

“아니야. 가스파르 재상이랑 소니아 부인도 우리 딸은 아빠를 쏙 빼닮아서 똑똑하다고 했어. 그리고 걱정하지는 마. 혹시라도 우리 딸이 거절했는데도 억지를 부리는 놈이 나타나면….”

“나타나면…?”

레아가 조금 불안하다는 듯이 묻자 레그마인 황제는 보는 사람 더 불안하게 만드는 상큼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너무나도 산뜻해서 듣자마자 순식간에 주변이 청량해지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는 춤 못 추게 다리를 분질러 버릴 거야. 아니면 팔을 부러뜨리거나 다시는 황궁 근처에 얼씬도 못 하게 하거나 다닐로만 제국에서 추방해 버릴 수도 있어.”

“…다른 남자랑은 절대 춤추지 않겠습니다.”

“그래. 레아. 아주 좋은 생각이야.”

만약 레아가 오늘 라이 경과 춤을 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과연 아빠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무엇을 상상하든 안전하고 평화로운 결말은 아닐 거 같았고 라이 경도 레아와 같은 생각을 했는지 얼굴이 조금 창백해져 있었다.

‘아빠가 우리가 춤추는 걸 못 보셔서 다행이다. 만약 그 모습을 보셨다면 파티장은 바로 쑥대밭이 되었을지도….’

그렇다고 라이 경의 다리가 분질러지거나 팔이 부러지고 황궁에서 쫓겨나거나 제국에서 추방을 당하진 않을 것이었다. 그래도 조용히 넘어갈 리도 없었기에 아빠가 못 보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레아는 속으로 안심을 했다.

빨리 라이 경이 좋아하게 될 거 같은 그 사람이랑 잘 돼야 이런 걱정할 일도 조금 줄어들 텐데. 레아는 다시 한번 라이 경과 누군지 모를 그 사람과의 사이를 적극적으로 응원해야겠다며 작게 중얼거렸다.

\*\*\*

그렇게 이번 파티는 나름대로 큰 사건 없이 일단은 그럭저럭 잘 끝이 났다. 레아는 파티가 끝나자마자 라이 경과 함께 쌍둥이 황자님들이 있는 방으로 향했고 라이 경은 쌍둥이에게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억울하게 꾸중을 듣고 새로운 오해를 풀 수 있게 되었다. 덕분에 쌍둥이는 다시 레아와 라이 경은 특별한 사이라는 오해를 하게 되었지만 말이다.

“근데 라이 경. 라이 경은 괜찮아요?”

“무엇이 말입니까?”

“좋아하게 될 거 같은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랑 막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오해받고 그런 사이가 되길 바라는 사람도 많은데 불편하지 않겠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안 괜찮을 거 같은데.”

상대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여자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문도 있고 그 여자랑 이어지길 바라는 사람들도 꽤 있는 남자라면 아무리 그 사람이 멋진 남자라고 해도 좀…. 아직 라이 경도 확실하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니 레아도 더 말을 하진 않았지만, 솔직히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었다.

‘어쩌면 나 존재 자체만으로도 라이 경 혼삿길 막고 있는 걸지도.’

이것 참 피에르 시종장님께 죄송하다고 생각하며 레아는 라이 경과 함께 방 앞까지 도착했다. 그런데 레아의 방 앞에는 레아와 라이 경을 기다리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의외의 인물이 둘이나 있었다.

“프레디 소공자? 그리고 하비투스가 여기까지 웬일이에요?”

“레아 황녀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저는 라이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겸사겸사 아름다우신 레아 황녀님을 한 번 더 뵙고 싶어서 온 것도 있지만요.”

“나한테 할 말?”

“두 사람 할 얘기 따위는 관심 없습니다. 레아 황녀님. 저랑 얘기 좀 하시죠.”

하비투스는 그렇게 얘기하며 레아에게 한 발자국 다가오려고 했다. 하지만 라이 경과 프레디 소공자가 동시에 그의 앞을 막고 레아를 보호했기 때문에 다가갈 수 없었고 그런 두 사람 때문에 하비투스는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뭡니까.”

“일정 거리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얘기하시려면 일단 그 까만 모자를 벗고 얼굴을 보여주시는 게 먼저죠. 당신 때문에 우리 황녀님 놀라셨잖아요.”

“레아 황녀님이 어떻게 너한테 우리 황녀님이 되는 거지?”

“나도 다닐로만 제국의 국민이니까. 레아 황녀님이 남의 황녀님은 아니잖아?”

“입만 살아서는.”

잠시 티격태격하는 것 같은 두 사람은 다시 하비투스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어서 모자를 벗고 얼굴을 보이라는 노골적인 시선에 하비투스는 여전히 불친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꼭 벗어야 합니까? 난 모자 벗고 얼굴 드러내는 거 딱 질색인데.”

“싫으시면 그냥 그대로 돌아가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레아 황녀님과 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얼굴을 보이고 당신이 하비투스 님이라는 걸 증명하셔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황녀님께 한 발자국도 다가가실 수 없습니다.”

“진짜 더럽게 깐깐하게 구네. 이 황궁에 나 말고 어떤 미친 사람이 시커먼 로브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가리고 다니겠어? 딱 보면 모르겠냐?”

“마지막으로 말하겠습니다. 모자를 벗고 레아 황녀님께 얼굴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아, 진짜 싫어. 완전 마음에 안 들어.”

꼭 그대로 돌아갈 것처럼 미운 말만 골라서 하던 하비투스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모자를 벗고 얼굴을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불만이 똘똘 뭉친 얼굴로 프레디 소공자와 라이 경을 확 째려보며 말했다.

“이제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얼굴은 물약 하나만 마시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데 꼭 굳이 얼굴로 신원을 확인하다니. 허술하기 짝이 없으면서도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런 물약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다닐로만 제국에서 하비투스 님이 유일하시잖습니까. 그러니 얼굴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간단한 확인 방법입니다.”

“사람은 다닐로만 제국에만 있습니까? 뭐, 굳이 다른 제국 마도사가 내 얼굴을 하고 레아 황녀님을 찾아올 일도 없겠지만, 아무튼 난 이런 거 싫다고요.”

하비투스가 아무리 싫어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닐로만 제국에 딱 둘뿐인 황족 중 한 분인 레아 황녀님께 할 말이 있다는 사람의 얼굴조차 확인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못난 얼굴도 아니고 오히려 꼭 신이 정성을 들여 빚은 것처럼 예쁜 얼굴인데 하비투스는 왜 그렇게 얼굴을 숨기고 다니는 건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아 프레디 소공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그런데 하비투스 님은 왜 그렇게 얼굴을 드러내는 일을 싫어하세요? 예쁜 고양이처럼 생겨서 오히려 드러내놓고 자랑할 얼굴인 거 같은데.”

“황녀님께 손을 대려다 바람에 손가락 베인 사람한테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너 레아 황녀님께 손대려고 했냐? 죽고 싶어 환장했어?”

“손을 대려고 했다니. 그렇게 말하면 애가 오해하잖아요. 애 화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런데 내 손가락 자르려고 했던 사람이 당신이었어?”

“손모가지 안 자른 걸 감사히 생각하세요.”

“그 손모가지는 내가 자르도록 하지.”

“아, 잠깐만! 오해라니까?”

이거 완전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다. 세 남자가 이야기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머리가 아파져 오기 시작한 레아는 이 대화를 멈추게 해야 할 거 같았다. 그래서 레아는 한숨을 쉬곤 짧고 또렷하게 큰 목소리로 외쳤다.

“그만!”

레아가 그만이라고 외치자마자 세 남자는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말을 멈추고 레아를 바라보았다. 레아는 세 남자의 시선을 받으며 혼자 팔짱을 끼고 말하기 시작했다.

“일단 프레디 소공자랑은 아무런 일도 없었어요. 그냥 나한테 말을 걸려고 했던 건데 밑에서 그걸 보고 하비투스가 오해하고 나 구해주려고 바람 마법으로 프레디 소공자 손가락을 살짝 벤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프레디 소공자랑은 진짜 정말로 아-무런 일도 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좋아한다고 고백까지 했는데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건 좀….”

“조용히 해요. 프레디 소공자.”

“네.”

프레디 소공자가 레아에게 좋아한다고 말했다는 걸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조용히 하라는 레아의 말에 프레디 소공자는 순순히 입을 다물었다.

“그러니까 손모가지 자르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프레디 소공자랑 라이 경은 둘이서 할 얘기 있는 건 두 사람이 알아서 하시고 하비투스는 할 얘기 있으면 내일 제대로 약속 잡고 다시 찾아와주세요.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오지 마시고요.”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시간 될 때 오시라고 할게요.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치.”

하비투스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지만 딱히 싫다는 말을 하진 않았다. 그 모습이 꼭 30살 어른이 아니라 앙겔루스 제국 쌍둥이 황자님들의 10년 후 모습을 보는 거 같아서 레아는 어쩐지 아까보다 몇 배는 피곤해지는 것 같았다.

54.느려터진 거북이.docx

레아는 딱 그렇게 말하고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하비투스 역시 두 사람과는 할 얘기가 없다며 돌아갔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프레디 소공자와 라이 경이 남게 되었다.

“너도 피곤하면 그냥 내일 얘기할래?”

“아니. 내일은 시간 못 내니까 그냥 지금 해.”

“금방 끝날 얘기는 아닐 텐데 괜찮겠어?”

“상관없어.”

“그럼 훈련장으로 가자. 지금은 아무도 없을 거니까 거기서 조용히 얘기해.”

“그래.”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러는 걸까. 라이 경은 프레디가 평소와 달리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그를 따라 훈련장으로 향했다. 원래는 열기와 땀 냄새로 가득한 훈련장이었지만, 지금은 시간이 시간인지라 고요한 달빛만이 가득했다.

“그래서 할 말이라는 게 뭐지?”

“라이. 나 오늘 레아 황녀님께 고백했어.”

“알고 있어. 넌 레아 황녀님 얼굴만 보면 추파를 던지고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녀석이잖아. 분명 테라스에서도 그랬겠지.”

“응. 그래도 이번에는 꽤 진심을 담아서 좋아한다고 했어. 황녀님은 내가 아는 누군가와 닮아서 그래서 좋다고.”

“그것도 이미 들었어.”

“그래?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네. 레아 황녀님께서도 관심 없는 척하셨으면서 은근히 신경 쓰이셨나 보네. 너한테 물어보신 걸 보면.”

“프레디. 작작 해.”

이미 충분히 레아 황녀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여기서 레아 황녀님의 호기심을 더 자극했다가는 황녀님은 분명 아무리 말려도 프레디 소공자의 과거와 스텔라에 관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실 것이었다.

‘그런 거 아셔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 오히려 레아 황녀님이라면….’

안 그래도 싫어하는 크라스 경을 조져버릴 거라고 하실 게 뻔했다. 그리고 그랬다간 자칫 레아 황녀님께서 무너지실 수도 있었기에 라이 경은 그게 걱정이었다.

“너도 분명 레아 황녀님을 지켜드리고 싶다고 했었지. 그럼, 여기까지만 해. 그게 황녀님을 지켜드리는 일이란 건 너도 알고 있잖아.”

“그랬었지.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형 때문에 무너지는 꼴을 두 번이나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스텔라와 레아 황녀님은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만해.”

전에 프레디가 레아 황녀님께 카틀레야를 선물하고 황녀님을 스텔라와 겹쳐 본다는 걸 눈치챘을 때도 했던 말이었다. 라이 경이 보기에 두 사람은 전혀 닮지도 않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다른 사람인데 프레디가 이러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나는 말이야 레아 황녀님이 아버지와 형을 싫어했으면 좋겠어.”

“이미 싫어하고 있으시니까 굳이 너까지 보탤 필요는 없어.”

“아니. 나는 레아 황녀님이 그 두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끔찍할 정도로 싫어하셨으면 좋겠어. 꼭 나처럼.”

“…넌 하이모어 대공과 크라스 경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했던 거 아니었나?”

“맞아. 지금도 난 아버지와 형에게 아들로서 동생으로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두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끔찍할 정도로 싫어.”

“애증이라는 건가.”

“응. 아마도.”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었고 그런 동시에 너무 밉고 싫어서 언젠가는 꼭 그 두 사람이 무너지길 바랐다. 프레디의 그런 마음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었지만 어째서 레아 황녀님께서도 자신과 똑같이 그들을 증오하길 바라는 건지는 절대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런데 프레디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 더 폭탄 발언을 했다.

“나 레아 황녀님께 스텔라에 관해 전부 얘기해드릴 생각이야.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겨울에 열리는 파티 때 말할 거야. 스텔라가 나한테 어떤 여자였는지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너 미쳤어?”

“그리고 진심으로 고백할 거야.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다고 내 곁에 있어 달라고 말이야.”

“미친 새끼.”

선 넘지 말라고도 했고 작작 하라고 분명 말했는데 마음을 접기는커녕 아예 고백하겠다니. 그랬다간 레아 황녀님뿐만 아니라 레그마인 황제 폐하와 하이모어 대공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이런 말을 자신에게 한다는 것 자체가 라이 경은 프레디가 미친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비슷한 감정을 품었으면서 두 사람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려고 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접으려는 라이 경은 얼굴을 찌푸렸고 그걸 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려는 프레디는 피식 웃었다.

“너 레아 황녀님 좋아하지?”

“…아직은 그런 거 아니야.”

“어릴 때부터 느낀 건데 말이야. 넌 너무 느리고 눈치가 없을 때가 있어.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직도 자기 마음도 눈치 못 채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냐?”

“……….”

다른 사람도 아니고 프레디가 한심하다는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자 라이 경은 상당히 아주 많이 매우 불쾌했다. 그래서 조금 욱하는 마음에 라이 경은 자신도 모르게 아무한테도 말을 하지 않고 숨기려고 했던 말을 해버렸다.

“좋아하게 될 거 같은 사람. 나한테 레아 황녀님은 그런 존재야. 나도 내 마음 정도는 안다고.”

“땡. 너 치고는 크나큰 발전이기는 한데 그래도 아직 멀었어.”

“내 마음인데 나보다 네가 더 잘 알고 있다는 듯이 지껄이지 마라. 기분 나쁘니까.”

“다 보이는데 네가 자꾸 답답하게 구니까 그렇지. 아마 다른 사람들도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군.”

“그러니까 네가 나보다 공부를 못했던 거야. 멍청이.”

학년 수석이었던 프레디보다 공부를 못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멍청이 소리 들을 정도로 성적이 엉망은 아니었는데. 그런데도 프레디는 라이 경이 답답하기만 할 뿐이었다.

‘이미 좋아한 지 꽤 됐으면서 이제야 좋아하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니. 이거 일부러 저러는 거야 아니면 진짜 거북이보다 더 느려터진 거야?’

이미 프레디가 레아 황녀님께 춤을 알려드렸던 그때부터. 아니면 적어도 레아 황녀님께 두 번째로 카틀레야를 선물했을 때 라이 경은 레아 황녀님께 호감을 느끼고 황녀님을 좋아하고 있었다. 친구인 프레디의 눈에는 그게 다 보이는데 라이 경은 아직도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었다.

“마음 접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이제 그만하고 접어.”

“네가 마음 접는다고 나까지 접어야 할 이유는 없지만, 또 얼마나 답답해서 속 터지는 소리 하는지 들어나 보자. 너는 왜 마음 접으려는 건데?”

선택이야 레아 황녀님께서 하시겠지만, 시녀들은 물론이고 라이 경의 아버지인 피에르 시종장님까지 두 사람이 잘되길 바라고 있으셨다. 그런데 시작도 해보기 전에 마음을 접겠다니 프레디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설마 또 되지도 않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라이 경은 그런 친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너랑 그런 쪽으로 엮이면 레아 황녀님께서 불편해하실 거니까. 특히 네가 내 말은 무시하고 스텔라 이야기를 한다면 레아 황녀님께서는 신경을 안 쓰실 수가 없겠지. 그리고 너한테도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또 상처받게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

시작도 하기 전에 그런 걱정 때문에 감정을 접겠다는 녀석에게는 무슨 말을 해줘야 할까. 그냥 너무 어이가 없어서 프레디 소공자는 아무런 말 없이 라이 경의 머리를 한 대 후려쳤다.

“피할 수 있었으면서 안 피하고 맞았네. 네가 생각해도 바보 같은 소리였다는 건 아나 봐?”

“……….”

“마음 접지 마. 기분 나쁘니까. 누가 보면 레아 황녀님께서 이미 널 선택하신 줄 알겠네.”

“적어도 레아 황녀님에게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찾는 너보단 황녀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내가 훨씬 나으니까.”

“그럼 뭐하냐. 좋아한다면서 고백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마음 접겠다는 녀석인데.”

아직은 그냥 호감이라고 생각했는데 좋아하는 것이니 마음을 접지 말라니. 기껏 생각해줬더니 혼난 기분이라 라이 경은 얼굴을 찌푸렸고 프레디는 참 거북이처럼 느려터진 새끼라고 생각했다. 그런 이 까만 거북이가 너무 답답해 죽겠다고 생각하며 한숨을 푹 쉬었다.

\*\*\*

아무 일도 없었던 것도 아니고 있었던 것도 아닌 뭔가 애매한 파티가 끝난 다음 날. 딱 일어나서 씻고 아침밥을 먹으려는 레아에게 전혀 반갑지 않은 두 가지가 찾아왔다.

“하비투스. 내가 부를 테니까 부르면 오라고 했잖아요. 아침부터 복도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 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부르시면 바로 튀어가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라이 경이 봤으면 분명 뭐라고 했을 거예요. 경이 오기 전에 시녀들이 발견했으니 다행이지…. 대체 언제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새벽 4시부터요.”

“……….”

원래 이상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했지만 하비투스는 정말 볼 때마다 할 말을 잃을 정도로 여러 의미로 대단한 사람이었다. 분명 레아보다 14살이나 많은 어른인데 어쩐지 꼭 동생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데 오히려 하비투스는 레아에게 그런 소리 듣는 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손가락을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손가락으로 레아의 옆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런데 레아 황녀님. 이 산처럼 쌓인 호박파이는 혹시 황녀님의 아침 식사인 겁니까?”

“아뇨. 믿기 어렵겠지만 후식으로 먹으라고 아빠가 보낸 거래요. 이걸 전부 후식으로 먹으라고….”

아빠가 보낸 호박파이는 먹다 보면 질리는 것을 넘어 내가 호박인지 호박이 나인지 헷갈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었다. 그런 호박파이를 보며 레아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긴 했지만…이건 너무 심하잖아. 저걸 언제 다 먹어.’

아빠는 늘 외로웠고 어릴 때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왔다고 해서 레아는 아빠에게 따듯한 마음을 생일 선물로 주고 싶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레아의 생일 때마다 나탈리 이모가 구워줬던 호박파이를 정성스럽게 굽고 평소에는 부끄러워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손편지를 써서 선물로 드린 건데….

레아의 따듯한 마음이 담긴 선물에 감동한 아빠는 오늘 아침 황궁 파티시에가 구운 호박파이를 산처럼 쌓아 레아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좋아해 주셨다니 다행이긴 했지만 약간 처치 곤란한 답이 와서 레아는 난감하기만 할 따름이었다.

‘오늘은 다 같이 호박파이 파티라도 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든 다 먹을 수는 있겠지. 설마 아빠도 이걸 나 혼자 다 먹으라고 준 건 아닐 거니까.’

일단 호박파이는 그렇게 처리하기로 하고 레아는 다시 하비투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이제 이쪽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생각할 차례였다.

“그래서 하비투스는 대체 나한테 할 얘기가 뭐길래 새벽 4시부터 복도에 쭈그리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좀 나가고 둘이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 주시면 안 되나요?”

“네. 안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상한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아무리 봐도 정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하비투스와 단둘이 얘기를 나누고 싶을 리가 없었다. 더군다나 라이 경이 오기 전인 지금은 더더욱 몸을 사려야 했다.

레아가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하자 하비투스는 잠시 아무런 말도 없이 가만히 서 있었다. 또 어제처럼 지금은 모자를 푹 눌러써서 보이지 않는 예쁜 얼굴로 그렇지 못한 말을 하려나 싶었는데 하비투스는 의외로 순순히 물러섰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그럼 대신 이건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리샤 누나가 황궁을 떠나기 전에 남기고 간 건데 레아 황녀님께 선물로 드릴게요.”

“엄마가 남기고 간 물건이요?”

“네. 누나는 황궁을 떠나기 전에 제게 두 가지 선물을 주고 갔어요. 하나는 제가 입고 있는 이 까만 로브고 하나는 이거에요.”

“엄청 두꺼운 책이네요.”

하비투스가 레아에게 건넨 것은 엄청나게 두꺼운 책이었다. 대체 이게 무슨 책이길래 엄마가 남기고 간 것인지 궁금해서 레아는 책을 펼쳐보려고 했지만, 이상하게 그 책은 딱딱하게 굳어 펼쳐지지 않았다.

“이거 안 열리는데요?”

“마법이 걸려있으니까요. 마법으로 잠긴 책은 마법으로만 열 수 있습니다.”

“그럼 좀 열어주세요. 전 아직 치유마법만 쓸 수 있어서요.”

키린에게 배운 마법에 대한 토막지식에 의하면 이런 마법 역시 흑마법일 확률이 높았고 이유는 아직 모르겠지만 엄마도 일단은 흑마법을 배우고 익히셨다니 아마 그럴 것이었다. 흑마법이라면 죽었다 깨어나도 배울 생각이 없는 레아는 다시 하비투스에게 책을 건넸지만, 하비투스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마법으로 봉인된 책은 그 책을 여는 마법을 쓴 사람만이 책의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즉, 제가 이 책을 열면 내용은 저한테만 보여서 레아 황녀님의 눈에는 글자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 어떡해요? 저는 이거 읽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요. 흑마법을 배우셔서 직접 책 열어서 읽어보시는 수밖에.”

“하비투스는 이 책 다 읽어봤어요?”

“당연하죠. 아리샤 누나가 저한테 남기고 간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 일기 읽으려고 저 1년 동안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낮에는 시종으로 일하고 밤에 혼자서 흑마법 책을 뒤적거리며 하비투스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었다. 그렇게 1년 동안 이 책에만 매달린 결과 하비투스는 이 책을 열 수 있게 되었고 황궁 소속 마도사로 신분상승도 할 수 있었다.

“레아 황녀님은 독학하실 것도 아니고 저처럼 우수한 선생님도 있으니 6개월만 속성으로 익히시면 책 정도는 쉽게 여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한번 배워보시겠어요?”

한번 배워보겠냐고 물어봤지만 하비투스는 레아 황녀님께서 당연히 배우겠다고 말씀하실 거로 생각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엄마가 남긴 일기장인데 궁금하지 않을 리가 없었다.

이제 레아 황녀님은 하비투스에게 흑마법을 배우겠다고 하실 것이고 흑마법을 알려드리면서 친해진 다음 타이밍을 보고 하비투스는 황녀님께 일기장을 여는 법을 알려드릴 것이었다. 그러면 아리샤 누나가 남긴 일기장을 읽고 황녀님께서는 당연히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오를 것이었고 그렇게 하비투스는 레아 황녀님과 함께 아리샤 누나가 하지 못한 복수를 끝낼 계획이었다.

완벽한 계획이라고 하비투스는 홀로 만족스러워했지만, 레아는 하비투스의 계획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나중에요. 제가 요즘에 바빠서 흑마법까진 배울 시간이 없네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루에….”

“아니요. 나중에 배우고 싶어지면 그때 얘기할게요. 아, 일기장 저한테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 황녀님. 잠시만….”

“곧 라이 경 올 거예요. 할 얘기 끝났으면 잘 가요. 하비투스.”

레아는 흑마법을 배우는 것을 거절하고 활짝 웃는 얼굴로 하비투스를 방에서 쫓아냈다. 그렇게 방에서 쫓겨난 하비투스는 그대로 쾅! 하고 닫혀버린 문을 보며 얼굴을 찌푸리며 생각했다.

‘누가 레그마인 황제 딸 아니랄까 봐 성격 진짜 더럽네. 근데 아리샤 누나 같을 때도 있어서 내가 쟤를 좋아해야 할지 싫어해야 할지 모르겠다니까.’

55.큰일 났습니다.docx

‘수상해. 엄청나게 수상하다.’

자신에게 엄마의 일기장이라며 흑마법을 배워야만 열어서 읽을 수 있는 두꺼운 책을 주는 하비투스를 보며 레아는 바로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레아는 급하게 하비투스를 방에서 내쫓았고 하비투스가 방을 나가자마자 그 수상한 책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하비투스는 믿기는 좀 힘들지만, 우리 엄마랑 친했다고 했어. 그건 아빠도 사실이라고 했고 이게 정말 엄마가 쓴 일기장이라면 엄마랑 하비투스는 보통 사이가 아니었다는 거겠지. 그런데 알고 보니 엄마는 자신과 맞지도 않은 흑마법을 배웠고 아빠랑 연애도 하고 그러다가…. 아, 뭐가 이렇게 복잡해!’

천천히 생각을 정리해보려고 해도 머리가 터질 거 같아서 레아는 생각을 정리하는 걸 포기했다. 어째 일이 마무리되기는커녕 점점 커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하이모어 대공이 크라스 경을 국서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 프레디 소공자가 레아를 과거에 좋아했던 여자와 닮았다고 말한 것, 엄마의 과거, 하비투스가 레아에게 흑마법을 가르치려는 이유. 그 모든 것이 신경이 쓰여서 어느 하나 무시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것과는 좀 다른 의미로 조금 신경 쓰이는 것도 있었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게 될 거 같은 사람이라….”

신경 쓰지 말고 조용히 응원만 해주려고 했는데 묘하게 계속 신경이 쓰였다. 지금 그거 말고도 더 중요한 일이 많은데도 레아는 자꾸만 그 상대가 누굴까 하는 게 궁금했다.

‘지금 이런 거 궁금해할 때가 아니잖아. 제일 중요한 건 크라스 경이랑 하이모어 대공부터 처리해야 하는데.’

분명 혼담은 오자마자 거절한 거로 알고 있는데. 파티 때 귀찮게 굴던 크라스 경이 떠올라 레아는 얼굴을 찌푸렸다.

“레아 황녀님. 어디 불편하세요? 아프신 거면 의원을 부를까요?”

“아뇨. 그냥 좀 누가 생각이 나서요.”

“어머. 레아 황녀님께서 생각만 해도 표정을 구길 정도로 싫은 사람이 아직도 황궁에 존재했나요?”

“네. 아직도 존재하네요.”

“황녀님. 그런 새…아니 사람들은 그냥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 말씀드려서 황궁에서 쫓아내세요! 어디 감히 우리 레아 황녀님을….”

“그게 아빠도 맘대로 쫓아낼 수 없는 인간들이라서요.”

“아…….”

하이모어 대공과 그 두 아들은 말하면 입만 아프고 하비투스도 보기에는 좀 그래도 다닐로만 제국 최고의 마도사였다. 아무리 황제라고 해도 그런 사람들을 간단하게 황궁에서 쫓아낼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그리고 라이 경은…싫은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좀 신경이 쓰일 뿐이었다.

“근데 오늘 라이 경이 좀 늦네요. 원래 이 시간이면 오고도 남을 시간인데.”

“그러게요. 한 번도 늦으신 적 없으신데.”

“흐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니겠죠?”

어제 프레디 소공자가 라이 경과 할 얘기가 있다고 찾아왔었는데 혹시 그거 때문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건 아니겠지? 레아는 마법으로 봉인된 엄마의 일기장을 서랍에 넣으며 오지 않는 라이 경을 걱정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굉장히 다급한 느낌으로 방문을 쿵쿵쿵 두드렸다.

“레아 황녀님! 큰일 났습니다!”

곧 숨넘어갈 듯 다급한 목소리였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레아는 시녀에게 문을 열어주라고 했고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던 사람은 다름 아닌 몇 번 본 기억이 있는 황궁 시종이었다.

“큰일이 났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황녀님, 그게, 그게 지금 정말 큰 일이…! 레아 황녀님이 아니면 수습이 안 될 거 같아서…!”

“천천히 말 하셔도 돼요. 그러다 숨넘어가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큰일이 났어요! 그러니까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안 되겠다. 시원한 물 한 잔 마시고 일단 진정 좀 하세요.”

얼마나 뛰어온 건지 얼굴이 시뻘게져서 숨을 헐떡이며 횡설수설 말하니 도통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대체 무슨 큰일이 벌어졌길래 이렇게 흥분을 해서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에게 뛰어온 건진 모르겠지만 일단 레아는 그 시종을 의자에 앉힌 다음 시원한 물을 마시게 했다.

그러자 곧 그 시종은 아까보단 괜찮아진 거 같았고 더는 숨을 헐떡이지도 않았다. 좀 진정이 돼서 대화가 가능할 정도가 되자 레아는 그 시종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이제 좀 괜찮으세요?”

“네. 아까는 죄송했습니다. 레아 황녀님.”

“아니에요. 그럼 제가 수습해야 할 큰일이라는 게 뭔지 알려줄래요?”

“아, 맞다! 레아 황녀님, 큰일 났습니다!”

어쩐지 다시 아까처럼 흥분한 거 같아서 좀 불안한데. 하지만 다행히 그 시종은 이번엔 레아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해주었다.

“라이 경께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화가 단단히 나셔서 아주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하셨는데…. 경이 집무실에 들어가신 이후로 나오지도 않으시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라이 경께선 이미….”

“진정하세요. 아빠가 라이 경을 진짜 죽이실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라이 경도 소드마스터인데 그렇게 쉽게 당할 리도 없고.”

“하지만 분명 죽여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눈빛에서도 살기가 장난 아니었고요!”

“아빠가 이유 없이 그럴 사람은 아닌데. 그렇다고 라이 경이 아빠를 화나게 할 짓을 할 사람도 아니고. 혹시 아빠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시나요?”

아빠가 좀 이상한 사람이긴 해도 이유 없이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할 사람은 아니었다. 분명 레아가 보기에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하찮은 이유겠지만 그래도 분명 무슨 이유가 있기는 있을 것이었다. 그런데 레아의 물음에 그 시종은 우물쭈물하며 잠시 망설이더니 곧 고개를 푹 숙이며 큰 소리로 말했다.

“그게…죄송합니다! 레아 황녀님!”

“네?”

“저도…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저 때문에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 때문에…저 때문에 라이 경이…!”

“아니, 울먹거리지 말고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봐요.”

아까는 혼자 흥분해서 횡설수설하더니 이번에는 또 무슨 이유인진 몰라도 혼자 울먹거리며 말을 제대로 못 하고 있었다. 레아는 속으로 참 감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제가 친한 시종들이랑 이번 파티에서 레아 황녀님 너무 아름다우셨다고…원래 꼭 요정처럼 작고 사랑스러우셨는데 파티에서는 여신 그 자체였다고 얘기했는데 우연히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그 얘기를 들어버리셔서…….”

“그거 때문에 화가 나신 거 같다고요?”

“감히 시종 주제에 황녀님의 이야기를 했다고 화가 나신 게 분명해요…!”

“겨우 그런 말 했다고 사람을 죽이니 마니 할 리가 없잖아요. 듣고 화낼 일도 전혀 아니고 무엇보다 라이 경이랑은 전혀 관련 없는 말인데.”

“그, 그럴까요?”

“네. 확실해요.”

그렇게 따지면 매일 레아를 예쁘게 꾸며주며 꺅꺅거리며 환호하는 시녀들은 멀쩡히 숨이 붙어서 제대로 걸어 다닐 수도 없어야 할 것이었다. 아빠가 정말 라이 경을 죽이네 살리네 하고 집무실로 부르기까지 했다면 그건 분명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이었다.

“혹시 그 얘기 말고 다른 얘기한 거는 없어요?”

“아뇨. 다들 어제 파티에 있었던 일에 관해 얘기해서 다른 얘기는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라이 경에 관해서 얘기한 건 있었어요?”

“어…. 라이 경의 이름을 나온 부분이 있긴 한데 별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아까 했던 얘기와 비슷한 얘기기도 했고요.”

“무슨 얘기였는데요?”

“그냥 라이 경과 함께 춤을 추실 때 레아 황녀님은 꼭 꽃잎처럼 예쁘셨다고….”

“……….”

이거였구나. 아빠가 라이 경을 죽여버리겠다고 한 이유가 이거였구나.

다른 사람은 고작 그런 이유로 황제 폐하께서 제국 최연소 소드마스터에다 시종장님의 외아들이자 다닐로만 제국의 유일한 황녀인 레아의 호위기사인 라이 경을 죽여버리겠다고 하셨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레아는 확신할 수 있었다. 아빠는 고작 그런 이유로 라이 경을 죽여버리겠다고 했던 것이었다.

물론 정말로 아빠가 라이 경을 죽여버리진 않겠지만 아직까지도 라이 경이 오지 않는 걸 보면 뻔했다. 분명 아빠는 지금 라이 경을 쥐잡듯 잡고 있을 것이었다.

‘큰일은 큰일이긴 하네. 내가 안 나서면 수습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서 상황정리는 하는 게 맞겠지.’

파티장에서 아빠 눈만 피하면 될 줄 알았는데 두 사람이 춤을 췄다는 사실이 소문이 날 줄은 몰랐고 레아가 잘못한 건 아니었지만 미안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레아는 작게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바로 아빠의 집무실로 가서 어떻게 해서든 라이 경을 데리고 나올 생각이었다.

‘이거 라이 경이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그 여자한테도 좀 미안하네. 자꾸 이런 일이 생기고 소문이 돌면 두 사람 사이에 도움이 될 리가 없는데. 불쌍한 라이 경.’

분명 어제 응원해주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방해하는 꼴이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레아는 그 부분을 걱정하며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며 눈치만 보고 있는 시종을 데리고 아빠의 집무실로 향했다.

\*\*\*

“가스파르 재상. 저거 표정 왜 저래요? 말 한번 잘못 걸었다간 한 대 치겠는데요?”

“어제 파티에서 레아 황녀님께서 호위기사인 라이 경과 춤을 추셨다는 소문 때문에 저기압이십니다.”

“설마 자기 딸이 다른 남자랑 춤췄다고 저러는 건 아니겠죠?”

“맞습니다. 거기다 다른 남자도 아니고 어디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는 라이 경이라 더 저러시는 겁니다.”

“나중에 라이 경이 사위가 될까 봐요?”

그라티아 황제의 말에 가스파르 재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사실에 그라티아 황제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었다. 단지 두 사람이 함께 춤을 췄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검은 기운을 폴폴 풍긴다는 것도 그랬지만 아직 사귀지도 않는데 사위니 뭐니 걱정한다는 게 우스웠다.

‘보니타한테 들어보니까 레아 황녀는 아예 결혼은커녕 연애도 불가능할 거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던데. 아무리 딸바보라고 해도 이 정도면 병 아니야? 불쌍한 레아 황녀.’

어쩌다 저런 아빠를 만났을까. 사실 레그마인 황제가 아니었다면 레아가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겠지만 그래도 이런 아빠 밑에서 딸로 사는 건 참 힘들 거 같았다.

“조금만 더 있으면 레아 황녀도 17살인데 좋아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고 연애도 좀 할 수 있지. 너도 17살 때 여자친구 있었으면서 왜 네 딸은 남자랑 춤도 못 추게 하냐?”

“그러다 시시껄렁한 되지도 않는 놈이 채가면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라이 경이랑 잘 되길 바라야 하는 거 아냐? 어디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다며. 오히려 잘된 일이네.”

“잘된 일이라니. 그거 진심으로 하는 소리냐?”

“아니, 너도 생각을 해봐. 지금 국서 자리 노리는 놈이 한둘이 아닐 텐데 다른 녀석들보단 차라리 라이 경이 제일 나은 거 아니냐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

“이성적으로….”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본다면 라이 경처럼 완벽한 사윗감도 없었다. 일단 집안도 괜찮았으며 그런 배경 다 빼고 봐도 꼭 조각처럼 잘생긴 얼굴에 키도 훤칠했고 어린 나이에 소드마스터라는 경지에 오른 대단한 남자였다.

거기다 여자들에게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누구처럼 여기저기 찌르고 다니는 바람둥이 날라리도 아니었고 또 누구처럼 미친 것처럼 성격이 이상한 것도 아니었다. 그렇기에 가끔 라이 경을 사윗감으로 탐내는 사람도 꽤 많다는 건 레그마인 황제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안 돼. 어딜 감히 내 딸을 탐내.”

“그때도 말했었지만 대체 언제까지 품 안의 자식으로 키울 생각인 거야?”

“평생. 내가 눈 감는 그때까지 아무한테도 못 줘.”

“레아 황녀가 무슨 물건이냐? 네 맘대로 주고말고 하게.”

“아무튼, 안 돼. 아무리 라이 경이 괜찮은 남자라고 할지라도 우리 레아 옆자리는 허락해줄 수 없어.”

“그럼 네 말은 평생 레아 황녀는 상대가 누구든 연애나 결혼은 물론이고 라이 경처럼 좋은 남자라고 할지라도 춤추는 것조차 안 된다는 거야?”

“그래. 그 어떤 놈이 온다고 해도 우리 레아가 너무 아까워서 안 되겠어.”

저번에도 그렇게 말하더니 시간이 지나도 변한 게 없는 레그마인 황제를 보며 그라티아 황제는 얼굴을 찌푸렸다. 아무리 가족을 사랑하는 게 처음이라 서툴 수밖에 없다고 해도 제대로 한마디 해주지 않으면 레그마인 황제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라티아 황제는 이참에 제대로 한마디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넌 레아 황녀가 무슨 네 소유물이냐?”

“뭐?”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같은데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야. 네가 원하는 대로 자라주지 않아. 그리고 네 세계의 전부가 레아 황녀가 아니듯 레아 황녀의 세상도 네가 전부가 아니야. 알아듣겠어?”

“아니.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별로 알아듣고 싶지도 않은데.”

“싫어도 들어. 네가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레아 황녀는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할 거란 소리야.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어.”

당장 그라티아 황제와 보니타 황후도 엄청난 반대를 이겨내고 연애하고 결혼도 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거기다 레아 황녀는 고집불통 제멋대로인 레그마인 황제를 쏙 빼닮았으니 본인이 원한다면 연애와 결혼을 어떻게 해서든 하고야 말 것이었다. 그리고 그게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레아 황녀를 위한 일이라고 그라티아 황제는 생각했다.

“바로 지금을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생각해도 그래. 네가 죽고 나면 그때 레아 황녀 옆에 있어 줄 가족이 없는 거잖아. 설마 네 딸도 너처럼 외롭게 살길 바라는 건 아니겠지?”

“……….”

“그러니까 억지로 엮어주라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려는 건 그냥 놔둬. 그게 레아 황녀를 위한 일이야. 그리고 난 라이 경이라면 믿고 딸을 맡겨도 된다고 생각해. 너도 그러니까 호위를 맡긴 거 아냐?”

“라이 경은 강하니까.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딸을 지켜줄 거라고 믿을 수 있는 놈이라서 레아의 호위를 맡긴 거야.”

“그래. 만약 라이 경이 레아 황녀를 사랑하게 된다면 아마 평생 목숨을 걸고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너도 이제는 좀 둘 사이에 그만 끼라고.”

뭐, 그래도 두 사람이 안 이어질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도 아빠가 간섭할 일은 아니라는 그라티아 황제의 말에 레그마인 황제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아직 레그마인 황제는 레아가 누군가와 춤을 추고 남자들에게 웃어주는 꼴을 눈 뜨고 봐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떠난 후 홀로 외롭게 훌쩍이는 레아의 모습을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이걸 어떡해야 할까. 레그마인 황제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56.유일한 가족이잖아요.docx

오늘 아침. 황궁에 도착하자마자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바로 집무실로 오라고 했다는 말을 들은 라이 경은 한숨을 쉬며 올 것이 왔구나…하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레아 황녀님과 춤을 췄으니 당연히 소문이 안 돌았을 리가 없지. 레아 황녀님께서 다닐로만 제국에서 열린 파티에서 누군가와 춤을 추신 건 어제가 처음이었으니까.’

거기다 어떤 영애가 다가와도 모두 퇴짜를 놓고 거절하는 라이 경이 파티에서 처음으로 춤을 춘 것이었다. 오히려 파티장에서도 수군거리는 사람이 많았을 텐데 폐하께서 오늘 라이 경을 불렀다는 게 의외였다. 아무래도 생각보다는 소문이 많이 돌지 않은 모양이었다.

아마 어제 일을 했던 시녀나 시종이 뭣 모르고 한 이야기를 오늘 우연히 들으셨을 확률이 높았다. 라이 경은 그렇게 생각하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무실로 향했다.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마음으로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집무실 문을 똑똑 두드렸다.

“폐하. 라이 므라드입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 라이 경. 들어와.”

그런데 문을 두드리자 돌아오는 목소리는 레그마인 황제 폐하가 아닌 그라티아 황제 폐하의 목소리였다. 라이 경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집무실 안으로 들어왔다.

“라이 경. 어서 와.”

“앙겔루스 제국의 그라티아 황제 폐하를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어제는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니야. 파티 끝나고 레아 황녀랑 둘이 찾아와서 애들이랑 놀아줬다고 들었어. 고마워.”

“아닙니다. 황자님들께서 저를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라이 경다운 말이었고 동시에 어제 레아 황녀가 했던 말과 비슷한 말이기도 했다. 이제는 라이 경을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레아 황녀의 모습에 그라티아 황제는 웃음이 나왔다.

‘그런데 라이 경은 레아 황녀에게 정말 아무런 마음도 없을까? 솔직히 나라면 흑심 같은 거 생길 거 같은데.’

사실 누군가에게 반하고 사랑에 빠진다는 게 그렇게 꼭 특별한 이유나 무슨 사건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었다. 보니타 황후와 동화처럼 예쁜 사랑을 한 그라티아 황제도 사실 제일 처음 황후에게 반했던 이유는 예뻐서였다. 꼭 흑진주처럼 너무 아름답고 예뻐서 좋았다.

그러니 라이 경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레아 황녀에게 아주 조금의 마음이 있을지도 몰랐다. 그라티아 황제는 왠지 그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고 그런 그라티아 황제의 생각을 알 리가 없는 라이 경은 조심스럽게 아까부터 신경 쓰이던 것을 질문했다.

“그런데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는….”

“아, 충격을 좀 받은 거 같아서 내가 바람 쐬면서 머리 식히고 오라고 했어. 가스파르 재상은 레아 황녀 혼자 있을 건데 걱정된다고 레아 황녀한테 갔고.”

“그럼 그라티아 황제 폐하께서 혼자서 집무실에….”

“응. 라이 경이 올 건데 누구 한 명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지.”

“……….”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다른 제국의 황제가 다닐로만 제국의 황제 집무실에 혼자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 싶었다. 심지어 가스파르 재상까지 그걸 문제 삼지 않고 레아 황녀님이 걱정된다고 황녀님께 갔다니. 라이 경은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인가 심각하게 고민이 되었다.

그런데 그런 거 신경도 안 쓴다는 듯 남의 집무실에서 느긋하게 쉬고 있는 그라티아 황제 폐하를 보면 라이 경은 자신이 이상한 건가 싶기도 했다.

“라이 경. 오늘 레그마인 황제가 왜 아침부터 부른 건지 알고 있어?”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네. 엄청 어이없고 당황스러워할 만도 한데.”

“이미 익숙한 일이고 처음부터 예상했었던 일이라 괜찮습니다.”

“대단하네. 레아 황녀 호위기사도 극한 직업이구나.”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극한 직업이라는 말에 라이 경은 부정하지 않았고 솔직한 모습에 그라티아 황제는 작게 웃었다. 사실 레그마인 황제처럼 미친 황제 밑에서 일을 하면 그게 무슨 일이든 극한 직업인 건 부정하려 해도 할 수 없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레아 황녀가 온 이후로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라이 경은 오히려 그 반대라서 그라티아 황제는 웃음이 나왔다.

마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 황녀님과 춤을 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불려오기까지 했는데 얼마나 억울할까. 근데 이런 일에는 이미 익숙해져서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걸 예상했었다니. 만약 라이 경은 사심이 전혀 없는데 레그마인 황제가 이러는 거라면 이렇게 불쌍하고 안쓰러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라이 경. 나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

“네. 제가 대답해드릴 수 있는 건 전부 대답해드리겠습니다.”

“경은 레아 황녀를 어떻게 생각하지?”

“……….”

“아, 혹시 몰라서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든 밖에서는 전혀 안 들리게 해놨어. 그러니까 편하게 말해도 돼.”

그라티아 황제 폐하의 편하게 말해도 된다는 말이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리는 이유는 뭘까. 오히려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거라며 안심시키려는 말이 라이 경은 더 불안하게 들렸다.

‘그라티아 황제 폐하께서는 레그마인 황제 폐하와 절친한 친구 사이시니 어쩌면 이건 미끼일지도 모르겠군. 정신 똑바로 차리자.’

어제 프레디가 했던 말 때문에 아직 싱숭생숭한데 사실은 레아 황녀님께 작은 호감을 느끼고 있다고 술술 불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거기다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마음 때문에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손에 죽고 싶지는 않았기에 라이 경은 솔직한 마음을 숨기고 건조하게 대답했다.

“레아 황녀님께서는 제가 목숨을 걸고 지켜드려야 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미래에 제 주군이 되실지도 모를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야? 다른 감정은 전혀 없어?”

“없습니다.”

“좀 더 몽글몽글한 느낌이라든가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그런 느낌이라든가. 그런 것도 전혀 없다는 거야?”

“네. 없습니다.”

가끔 몽글몽글할 때도 있고 달콤할 때도 있고 쌉싸름한 느낌도 당연히 있었다. 그런 적도 없었으면서 지금 싱숭생숭하다고 할 리가 없었지만 라이 경이 그걸 솔직하게 말할 리가 없었다.

“그래? 레아 황녀는 얼굴도 예쁘고 멋있는 여자라서 그런 감정을 조금이라도 느꼈을 줄 알았는데.”

“레아 황녀님께서는 아름다우시고 멋있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왜? 라이 경 정도면 국서도 충분히 노릴 수 있잖아.”

“제게는 너무 과분한 자리입니다.”

레아 황녀님께 호감이 있고 언젠가 황녀님을 좋아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하면서 어쩌면 라이 경은 레아 황녀님을 이미 좋아하고 있는 걸지도 몰랐다. 하지만 정말 단 한 번도 라이 경은 국서가 되고 싶다거나 레아 황녀님의 연인이 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감히 넘볼 수 없는 과분한 분이라는 말은 정말 진심이었다. 그런 라이 경의 말에 그라티아 황제는 어쩐지 맥이 빠지는 느낌이었지만 그렇다고 딱히 할 말은 없었다. 이제 더할 얘기도 없고 당분간은 레그마인 황제가 걱정하는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았다.

‘레아 황녀 쪽에서 마음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어느 날 갑자기 스파크가 튈 사람 같지는 않네. 으음. 어쩐지 아까 레그마인 황제한테 충고랍시고 말해줬던 게 민망해지는군.’

라이 경이라면 허락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둥 나중에 너 죽고 나면 과거의 너처럼 외롭게 만들 거냐는 둥 별의별 소리를 다 했었다. 그런데 막상 라이 경은 전혀 마음이 없다고 하니 그라티아 황제는 괜한 말을 했구나 싶었다.

“그래. 알았어. 그럼 이제 돌아가 봐.”

“레그마인 황제 폐하를 뵙지 못했는데 가봐도 괜찮은 겁니까?”

“어차피 처음부터 제대로 된 이유로 불려온 것도 아니었잖아. 아니면 레그마인 황제한테 할 말이라도 있어?”

“아닙니다. 그럼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레아 황녀 기다리겠다. 어서 가.”

라이 경 입장에서는 레그마인 황제 폐하와는 만나지 않는 편이 좋기는 했다. 또 괜히 만났다가 무슨 말을 들을지 몰랐기 때문에 라이 경은 서둘러 그라티아 황제께 인사를 드리고 집무실을 나왔다.

‘그런데 그라티아 황제 폐하께 그런 질문을 받게 될 줄이야. 설마 내 얼굴에 뭐라고 쓰여 있는 건가…. 그런 거라면 곤란한데.’

아직 정확하게 자신이 어떤 마음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고 그 마음을 접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정하지 못했는데 다 티가 나서 모두가 알아버리면 곤란했다. 이러다 레아 황녀님께서도 라이 경의 마음을 눈치채버리신다면…. 그러면 정말 큰 일이었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레아 황녀님은 눈치채지 못하실 거 같다고 라이 경은 생각했다.

‘내가 좋아하게 될 거 같은 사람이 생겼다고 했을 때도 그 상대가 누군진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응원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고백하지 않는 한 절대 눈치 못 채시겠지. 눈치가 없으신 편은 아니신데 이런 쪽으로는 은근히 무디신 건가.’

프레디처럼 대놓고 말하거나 크라스 경처럼 노골적으로 다가오고 다른 영식들처럼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이상 레아 황녀님께서는 누군가 자신을 좋아하고 짝사랑하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 못 채실 것이었다. 그러니 자신의 마음이 여기서 더 커지고 확실해져도 황녀님은 모르실 거라는 게 라이 경은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레아 황녀님께서 라이 경의 마음을 눈치채신다고 해도 서로 불편해지기만 할 뿐이었다. 앞으로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레아 황녀님만은 절대 눈치 못 채시길 바라며 라이 경은 레아 황녀님의 방문을 두드렸다.

“레아 황녀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라이 경?”

“…가스파르 재상?”

가스파르 재상이 레아 황녀님을 뵈러 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럼 지금 방 안에 같이 있으신 건가. 그런데 어째서인지 레아 황녀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서 라이 경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방 안 어디에도 레아 황녀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가스파르 재상. 레아 황녀님께서는 어디 계신 겁니까?”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입니다. 라이 경. 왜 레아 황녀님과 같이 돌아오시지 않은 겁니까?”

“저는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집무실에서 그라티아 황제 폐하를 뵙고 오는 길입니다. 그건 가스파르 재상도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까 하는 말입니다. 레아 황녀님께서는 라이 경이 걱정돼서 폐하의 집무실로 가셨다고 들었습니다만.”

“레아 황녀님께서 말입니까?”

하지만 여기로 오면서 라이 경은 레아 황녀님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 아무래도 길이 엇갈린 모양이었다.

“길이 엇갈린 모양입니다.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냥 방에서 기다리는 편이 좋을 거 같습니다. 괜히 다시 가셨다가 레그마인 황제 폐하라도 만나면 어떡합니까. 오늘은 별로 안 털릴 거 같긴 하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눈에 안 띄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레아 황녀님께서는 호위도 없이 혼자 돌아다니고 있으신 거 아닙니까. 가봐야겠습니다.”

“라이 경. 그래 봤자 황궁 안입니다. 곧 오실 테니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확실히 황궁 안이라면 바깥보다는 안전하긴 할 것이었고 잠시 혼자서 돌아다니는 것 정도로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 그런 라이 경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다.

‘프레디 그 녀석 요즘에 여자도 안 만나고 다니고 출석 도장 찍던 파티도 싹 다 끊고 자꾸 황궁을 기웃거리고 있는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하비투스 님도 황궁 안에 계시니 마음을 놓을 수가 없지.’

역시 레아 황녀님은 자꾸만 신경이 쓰이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그래도 가스파르 재상의 말처럼 곧 돌아오실 수도 있으니 라이 경은 딱 10분만 레아 황녀님을 기다려보기로 했다.

\*\*\*

라이 경이 레아를 걱정하고 있을 그때 레아는 아빠의 집무실에서 그라티아 황제 폐하와 마주하고 있었다.

“레아 황녀가 여긴 웬일이야? 라이 경이라면 아까 방으로 돌아갔는데 못 만났어?”

“아뇨. 봤어요. 라이 경은 저를 못 봤지만요.”

“그럼 왜 왔어? 라이 경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처음에는 그거 때문에 오려고 했는데 아빠랑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혹시 저희 아빠 지금 어디 있으신지 아세요?”

앞으로 라이 경이 레아의 호위기사로 있으면 이번 같은 일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아빠가 라이 경을 호출한다면 좀 곤란했다. 처음에야 몇 번 이러시다 말겠지 하고 모른 척했는데 이제는 그럴 거 같지가 않아서 레아는 오늘 아빠와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이었다.

‘아빠가 자꾸 이러시면 내가 불편하다고. 라이 경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앞으로는 그러시지 말라고 확실히 말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라티아 황제 폐하께서는 조금 곤란한 듯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어디에 있는지는 아는데 지금 레그마인 황제는 혼자 있는 게 좋을 거 같아. 할 얘기가 있는 거면 나중에 하는 게 어때?”

“혼자 있는 게 좋을 거 같다니. 혹시 무슨 일 있으셨나요?”

“아니. 아무런 일도 없었어.”

“그런데 왜 지금은 혼자 있는 게 좋을 거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레그마인 황제도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그라티아 황제 폐하. 평소에 거짓말 못 하시는 편이시죠?”

“하하. 들켰네.”

역시 거짓말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성격에 맞지 않는다며 그라티아 황제는 멋쩍게 웃었다. 어차피 여기서 더 숨기는 건 불가능인 거 같기도 하고 레아 황녀에게는 굳이 숨길 필요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라티아 황제는 레그마인 황제가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주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좀 충격이었나 봐. 솔직히 나도 그렇게 충격받을 줄은 몰랐는데 그래서 바람 좀 쐬고 머리 식히고 오라고 했어. 그래서 지금 레아 황녀를 보면 레그마인 황제가 더 힘들어할 거 같아.”

“아빠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군요.”

“혹시 화났어?”

“아니요. 괜찮아요.”

솔직히 조금은, 아주 조금은 야속하긴 했다. 하지만 그라티아 황제 폐하께서 하신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기도 했고 무엇보다 나쁜 마음에서 한 말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날려주신 일침이란 걸 알기에 레아는 그냥 싱긋 웃으며 말했다.

“그라티아 황제 폐하. 그래도 아빠 지금 어디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저 아빠한테 가봐야 할 거 같아요.”

“하지만 레아 황녀. 지금 레그마인 황제는….”

“폐하께서도 아시잖아요. 우리 아빠가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지 가족을 얼마나 원했는지.”

“레아 황녀….”

“그리고 힘들고 고민 많을 때 가족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지도 그라티아 황제 폐하께서는 잘 아시잖아요. 지금 아빠도 그럴 거예요.”

언제나 혼자였으니까. 늘 힘들 때마다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이겨내는 레그마인 황제였기에 그라티아 황제는 이번에도 혼자 있게 두는 것이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레아 황녀의 말에 그라티아 황제는 할 말을 잃었다. 그런 그라티아 황제 폐하께 레아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이제 제가 아빠의 유일한 가족이잖아요. 제가 아빠 옆에 있어 줘야 할 거 같아요.”

57.아직 허락해주는 건 아니야.docx

지금 아빠에게는 가족이 필요하다는 그 말에 그라티아 황제는 황궁 정원에 있는 커다란 나무 뒤쪽으로 가보라고 말해주었고 레아는 가볍게 고개를 꾸벅 숙인 후 집무실을 나와 정원으로 향했다.

‘정원에 있는 커다란 나무라면 전에 프레디 소공자 얼굴에 난 상처를 치료해줬다가 라이 경이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했던 거기를 말하는 거겠지. 근데 의외네. 좀 더 외진 곳에 계실 줄 알았는데.’

황제가 홀로 머리를 식히려고 찾는 곳이 황실 정원에 있는 나무 뒤일 줄은 몰랐다. 거기는 기사들이 훈련하는 훈련장과 꽤 가까워서 괜히 기사들 눈치 보고 있는 건 아닐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며 레아는 발걸음을 재촉했고 곧 정원에 커다란 나무가 있는 곳에 도착했다.

“나무가 커서 그런가. 뒤에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도 안 보이네. 진짜 계신 건 맞겠지?”

만약에 안 계시면 어떡하나 하면서 레아는 발소리를 죽이며 천천히 나무 뒤쪽으로 다가갔다. 다행히 그라티아 황제 폐하의 말씀대로 아빠는 나무에 등을 기대고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

이제는 제법 차가워진 가을바람을 맞으며 아빠는 높고 구름 없는 하늘을 보며 조금은 낯선 표정을 하고 있었다. 레아는 아무런 말 없이 조용히 나무에 등을 기대고 아빠 옆에 앉았다. 그러자 아빠는 천천히 들고 있던 고개를 내려 옆에 앉은 레아를 바라보았다.

“레아. 여기는 왜 왔어?”

“그라티아 황제 폐하께서 아빠가 여기 계신다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와봤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니까.”

“그럼 저 갈까요?”

“아니. 레아는 괜찮아.”

아빠는 평소답지 않게 짧게 말씀하시고 눈을 지그시 감았고 레아는 아무 말 없이 계속 아빠의 옆에 앉아있었다. 그렇게 부녀는 한참을 대화도 없이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다.

‘아빠랑 이렇게 말없이 있어 본 적은 또 처음이다. 낯설긴 한데 이것도 나쁘지 않네. 바람도 시원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레아는 그렇게 생각하며 고개를 돌려 아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빠는 여전히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긴 얼굴을 하고 있었다. 레아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빠를 한번 불러보았다.

“아빠.”

“응. 레아.”

“아직도 그라티아 황제 폐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있으신 거예요?”

“…다 들었구나.”

“네. 다 들었어요.”

“……….”

자신이 들었던 얘기를 똑같이 다 들었다는 말에 레그마인 황제는 지그시 감고 있던 눈을 뜨고 레아를 바라보았다. 아직 생각 정리가 덜 되긴 했지만 그래도 어쩐지 레아에게는 사과해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었다.

“레아. 아빠가 미안해.”

“뭐가요?”

“아빠가 너무 서툴러서.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소유욕 부리면서 내 맘대로만 한 거 같아서. 그래서 내 딸이 힘들었을 거 같아서.”

“이제라도 아셨으니 다행이네요.”

“……….”

솔직히 아빠도 아빠는 처음이니 서툰 건 당연하다고, 사랑받고 사랑을 주는 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거라고 말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해주었던 아리샤와 달리 레아는 필요 이상으로 솔직했고 그런 레아의 말에 레그마인 황제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역시 우리 레아는 내 딸이야. 날 닮았어.”

“아빠 딸이니까 아빠 닮는 건 당연하죠.”

“그래. 사랑하는 내 딸이지.”

처음에는 정말 아프도록 지독하게 사랑했던 아리샤가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고 레아와 어느 정도 가까워지고 정이 든 후로는 아직 미치도록 사랑하는 아리샤와 자신의 사랑으로 태어난 소중한 아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솔직히 레아는 아리샤가 자신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한때 아리샤와 데이트를 즐겼던 둘만의 비밀 장소에서 가만히 생각을 정리해보니 레그마인 황제는 이제 그게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었다. 레그마인 황제는 말없이 레아의 머리를 살살 쓰다듬었다.

‘이 아이는 내 딸이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날 닮은 내 딸.’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레그마인 황제는 어쩌면 그게 아니었던 걸지도 몰랐다. 사랑하는 아리샤가 남기고 간 소중한 선물을 아리샤처럼 허무하게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레아가 아무도 사랑하지 않길 바라고 아무도 레아를 뺏어가지 않길 바랐었다.

적어도 자신의 딸만큼은 아리샤처럼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곁을 떠나지 않길 바라고 또 바라는 마음이었다.

“레아. 약속 하나만 해주겠니?”

“무슨 약속이요?”

“나중에 레아가 더 크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아빠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엄마처럼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겠다고.”

만약 레아도 아리샤처럼 떠나버리면 레그마인 황제는 더는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진지하게 말한 건데 레아는 뭐 그런 말을 하냐는 듯이 말했다.

“뭘 그런 당연한 말씀을 하세요. 제가 황궁을 떠나서 어디를 가요. 이제 레아 더 다닐로만은 레그마인 더 다닐로만 황제 폐하의 하나뿐인 딸로 다닐로만 제국의 유일한 황녀라고 소문 다 났잖아요. 얼굴이랑 머리카락 색이 아빠 딸이라는 증거인데 제가 어디를 가요.”

“아, 그런가?”

“그리고 아빠가 절대 못 가게 할 거잖아요. 저 이제 갈 곳도 없어요.”

“그렇긴 하네. 아무 데도 못 가겠네.”

이제는 황궁에서 황녀로 사는 데 익숙해졌고 황제의 딸이기에 레아는 시녀였던 아리샤와 달리 떠날 수 없는 몸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레그마인 황제는 조금은 슬픈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는 건 내가 죽고 나면 그라티아 황제의 말대로 레아의 가족은 한 명도 없게 되겠구나. 내가 외롭고 쓸쓸했던 것처럼 레아도 그 시간이 너무 아프고 힘들겠지.’

만약 레아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지금처럼 반대한다면 과거 레그마인 황제와 아리샤의 사이를 거세게 반대했던 아버지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었다. 이게 바로 욕하면서 닮는다는 건가 하고 레그마인 황제는 어이없는 웃음이 나왔다.

‘레아를 나처럼 살게 할 수는 없지. 우리 레아는 외롭고 쓸쓸하게 살게 할 수는 없어. 그렇다면…싫어도 어쩔 수 없겠네.’

그라티아 황제가 했던 언제까지고 품 안의 자식으로 키울 수 없다는 말을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솔직히 자신은 없는데 레그마인 황제는 일단 노력은 해보기로 했다.

“레아. 이제 방으로 돌아갈 거지?”

“아빠 일어나시면요. 이제 생각 정리 끝나셨어요?”

“응. 레아 덕분에.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똑똑하기까지 한 우리 딸은 어른스럽기까지 해서 이제 좀 머리가 맑아진 거 같아.”

“평소처럼 돌아오셨네요. 다행이에요.”

“아빠가 너무 서툴러서 걱정하게 만들어서 미안해.”

아빠도 아빠는 처음인데 사랑받고 사랑해주는 법도 아직 잘 몰라서 레그마인 황제는 모든 것이 서툴렀다. 그런데도 그런 못난 아빠를 이해해주고 이끌어주는 딸에게 레그마인 황제는 감사했다.

‘만약 레아가 아리샤의 딸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시리게 아플 정도로 사랑했던 그 사람이 레아의 엄마가 아니었다면….’

그래도 지금과 똑같이 레그마인 황제는 레아를 사랑했을 것이었다. 이유는 당연했다.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레아는 레그마인 황제에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고 가족이었으니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였다.

“레아. 라이 경한테 말 좀 전해줄래?”

“무슨 말이요?”

“그동안 조금 미안했다고. 아직 허락해주는 건 아닌데 대놓고 반대도 안 하겠다고. 허락해주는 건 아니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전해줘.”

“…그런 사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우리 레아는 별 마음 없는 거 알아. 하지만 그 녀석은 우리 딸이 어떤 딸인데 온종일 붙어 다니면서 안 반했을 리가 없잖아. 라이 경도 남자니까.”

“아빠. 남자라고 다 저한테 반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라이 경은….”

라이 경은 이미 호감이 가는 상대가 따로 있다고 말을 자신도 모르게 해버릴 뻔한 레아는 재빨리 말을 멈췄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빠가 이상하게 생각할까 하려던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다시 말했다.

“라이 경은 멋진 사람이잖아요. 저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야죠. 피에르 시종장님도 그러길 바라실 거고.”

“세상에서 우리 레아가 제일 아름답고 귀엽고 깜찍하고 똑똑하고 현명한데 심지어 마음씨도 곱고 어른스럽기까지 하잖아. 그런 우리 딸보다 더 좋은 사람이 어딨겠어? 그리고 피에르 시종장이랑은 별로 사돈 맺고 싶지 않아.”

“왜요? 시종장님 다정하고 자상하시잖아요.”

“일은 잘하지. 좋은 사람은 맞는데 나랑 사돈 하기에는 한참 모자란 사람이야. 어디 그 정도로 감히.”

그럼 아빠랑 사돈 하려면 뭘 얼마나 갖춰야 하는 걸까. 한번 물어볼까 하다가 레아는 그냥 묻지 않기로 했다. 어차피 물어도 아빠는 말도 안 되는 조건들만 줄줄 말할 것이었고 나중에 그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모두 갖춘 이가 정말로 나타난다고 해도 아빠는 쉽게 허락해줄 리가 없었다.

이제는 좀 자제하시려고 마음먹으신 거 같지만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할 거 같았다. 그래도 라이 경한테 그동안 미안했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으니 레아는 조금은 달라지시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은 라이 경한테 직접 말 하시는 편이 좋을 거 같은데. 아빠가 얼굴 보면서 미안하다고 직접 말씀하시면 라이 경이 불편해하려나?’

지금까지 계속 괴롭히다가 갑자기 그동안 이상한 트집 잡아서 미안하다고 하면 당황스러워할 수도 있었다. 거기다 아빠는 아직 라이 경이 자신에게 반하게 될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하는 중이라고 레아는 생각했다. 피에르 시종장님은 사돈 하기에 한참 모자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레아는 아직 아빠가 보통의 평범한 아빠가 되기에는 한참 멀었다고 생각하며 조용히 웃었다.

“가자. 방까지 데려다줄게.”

“아니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우리 딸 너무 예뻐서 가는 길에 납치라도 당하면 어떡해. 아빠가 지켜줘야지.”

“올 때도 혼자 왔는데 아무런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래 봤자 황궁 안인데 너무 걱정이 지나치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우리 레아는 그 정도로 예쁘니까.”

“……….”

아마 평생 아빠는 다른 아빠들처럼 평범한 아빠가 되는 건 불가능하시지 않을까. 세상에 그 어떤 진귀하고 아름다운 것보다 우리 딸이 훨씬 더 찬란하게 빛난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숨 쉬듯 얘기하는 아빠를 보며 레아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 집무실에 그라티아 황제 폐하 혼자 있으시잖아요. 주인은 다른 데 있는 집무실에 다른 제국 황제가 있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어서 돌아가세요.”

“어차피 거기도 그냥 방인데 의미부여 하지 말고 그냥 좀 있으라고 하면 안 되나. 그런다고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잖아.”

“큰일이 안 나긴 왜 안 나요. 거기 중요한 서류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다 한 장이라도 없어지면 어떡해요.”

“레아. 겨우 종이 한 장 없어진다고 다닐로만 제국이 어느 날 갑자기 망하진 않아.”

“그 서류가 어떤 서류냐에 따라 그건 달라지겠죠.”

다른 곳도 아니고 다닐로만 제국 황제의 집무실에 있는 서류들이었다. 아직 레아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게 평범한 내용의 서류들일 리가 없었다. 그중에 어떤 건 진짜 엄청난 기밀이 담긴 서류일지도 모르는데 너무 별거 아니라는 듯이 말하는 아빠를 보며 레아는 조금 걱정이었다.

“아빠. 혹시 일은 가스파르 재상이랑 피에르 시종장님이 다 하시고 아빠는 올라오는 거 확인도 안 하고 인장만 찍으시는 건 아니죠?”

“무슨 소리야. 레아. 올라오는 서류는 전부 다 읽어보고 있어. 대부분 다 다시 해오라고 돌려보내기는 하지만.”

“읽기는 다 읽으시는구나.”

“이래 봬도 아빠 일 잘하는 남자야. 가스파르 재상이 그런 건 말 안 해줘?”

“전에 서류로 종이비행기 접으셨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가스파르 재상이 해주는 아빠 얘기는 전부 아빠 때문에 힘들다거나 아빠 때문에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얘기들뿐이었다. 그리고 레아가 보는 아빠의 모습도 그렇게 일을 잘하는 사람 같아 보이진 않았다.

‘그래도 아빠가 황제가 되시고 난 다음 다닐로만 제국이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했다고 역사책에도 떡하니 적혀 있으니 거짓말은 아니겠지. 아주 많이 의외긴 하지만 말이야.’

아빠는 일하실 때 과연 어떤 모습이실까. 전혀 상상이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레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쨌든 방까지 안 데려다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집무실로 바로 돌아가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렇지만 걱정되는데.”

“진짜 괜찮다니까요. 아니면 훈련장 가까우니까 아무 기사한테 방까지 좀 데려다 달라고 할까요?”

“그건 절대 안 되지. 차라리 그냥 라이 경을 부르는 게 낫겠어.”

이제 겨우겨우 라이 경 정도는 돼야 허락은 못 해줘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서서 막지는 않겠다고 다짐한 참이었다. 그런데 다른 기사한테 잠깐이라도 레아를 맡겼다가 그 자식이랑 눈이라도 맞으면 큰일이었다.

“그러니까 저 그냥 혼자 갈게요. 아빠도 바로 집무실로 가세요.”

“그래. 알았어. 조심해서 가. 레아.”

“누가 보면 어디 멀리 가는 줄 알겠어요. 정원에서 제 방으로 가는 것뿐인데.”

“그래도 조심해야지. 뛰지도 말고 넘어지지도 말고 길도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해야 해. 특히 낯선 사람이 사탕 준다고 해도 따라가지 말고 그럴 때는….”

“그럼 먼저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 보면 16살이 아니라 6살짜리 딸에게 하는 말인 줄 알 것이었다. 더 들었다간 도저히 끝이 안 날 거 같아서 레아는 먼저 돌아가 보겠다고 말했고 아빠는 그런 레아에게 활짝 웃으며 손까지 흔들어주었다. 다시 평소의 아빠로 완전히 돌아오신 거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레아는 안심했다.

이제 다시 방으로 돌아가서 라이 경에게 아빠가 대신 전해달라고 했던 말을 전해주고 끔찍할 정도로 쌓인 호박파이를 처리할 생각을 하며 레아는 얼떨결에 황궁 전체가 호박파이 파티를 하게 생겼다고 중얼거렸다. 그렇게 정원을 빠져나와 황궁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그때였다.

“레아 황녀님!”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큰소리로 레아를 불렀고 익숙한 목소리에 레아는 뒤를 돌아보았다.

58.까만 봉투 파란 봉투.docx

“키린?”

“안녕하세요. 레아 황녀님. 근데 오늘은 호위기사 없이 혼자시네요? 혼자 다니시면 위험해요.”

“방금까지 아빠랑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황궁 안인데 잠깐 혼자 돌아다니는 것 정도는 괜찮아요.”

“그래도 다음부터는 꼭 호위기사를 데리고 다니세요. 아무리 황궁 안이라고 해도 언제 어떤 사람이 레아 황녀님께 접근할지 모르잖아요.”

“알았어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키린.”

뒤에서 레아를 부른 사람은 키린이었고 다른 사람들처럼 혼자 돌아다니는 레아를 걱정해주기도 했다. 그런 키린을 보며 레아는 작게 웃어주었다.

“그런데 키린은 어디 가는 길이었어요?”

“아, 사실은 레아 황녀님을 뵈러 가는 길이었어요. 드릴 게 있어서요.”

“나한테 줄 거요?”

“네. 이거 받으세요.”

마침 레아 황녀님을 뵈러 가는 길이었다며 키린은 레아에게 봉투 두 개를 건넸다. 레아는 일단 키린이 건넨 봉투를 받고 이게 뭔지 설명해달라는 듯한 눈으로 키린을 바라보았다.

“그 까만 봉투는 딱 봐도 아시겠지만 하비투스 님께서 레아 황녀님께 전해달라고 한 봉투에요. 그리고 그 파란 봉투는 저한테 온 편지라는데 레아 황녀님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아마 심부름하시는 분이 실수하신 모양이에요.”

“확실히 제 이름이 적혀 있네요. 보내는 사람 이름은 안 적혀 있는데 누가 보낸 편지인지는 키린도 모르고 있나요?”

“네. 저도 어떤 분이 보내신 건지는 듣지 못했어요.”

“왠지 좀 불길하네요. 발신인이 표시돼 있지 않은 편지.”

레아가 제일 처음 황궁으로 불려오게 된 것도 알고 싶지도 않았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것도 모두 아빠가 보낸 발신인이 표시돼 있지 않은, 황실에서 온 수상한 초대장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거기다 이제 황녀인 레아에게 오는 편지는 모두 누가 보낸 것인지 확실히 표기되어 있었고 레아의 손에 들어오기 전에 이 편지가 안전한지에 대해 많은 사람을 거쳐서 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편지는 그런 과정 따위 거치지 않고 키린에게 바로 받은 것이었고 내용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발신인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었다. 레아가 조금 찝찝하다는 반응을 보이자 키린은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

“아,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편지를 뜯어보진 않았지만, 마법도 걸려있지 않고 위험한 물건도 없다는 건 제가 확인했어요. 레아 황녀님께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으세요.”

어마어마한 마력의 소유자인 키린이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니 레아는 안심이 되었다. 하지만 파란 봉투는 그렇다고 쳐도 까만 봉투는 하비투스가 보낸 것이라니 안심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럼 하비투스가 보낸 이건 뭔지 키린은 알고 있나요?”

“아뇨.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어두컴컴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셔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심각하게 수상하네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비투스가 보낸 거라면….”

“하하. 하비투스 님은 정상적인 분은 아니시긴 하지만 나쁜 분은 아니세요. 그렇게 수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키린은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했지만, 레아가 보기에 하비투스는 심하게 이상하고 어쩌면 나쁜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상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솔직히 이 봉투도 별로 받고 싶지 않았다.

“키린. 미안하지만 하비투스가 보낸 이 까만 봉투는 안 받을게요. 하비투스한테도 할 얘기가 있으면 이런 거 보내지 말고 직접 찾아오라고 전해주세요.”

“아, 네….”

“미안해요. 괜히 가운데 끼어서 곤란하게 만들어서.”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레아 황녀님.”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키린.”

“하하. 그럼 전 바로 하비투스 님께 가볼게요. 다음 수업 시간 때 봬요. 레아 황녀님.”

키린은 그렇게 말하며 레아에게 고개를 꾸벅 숙였고 레아도 싱긋 웃어준 후 황궁 안으로 들어갔다. 레아의 모습이 사라지자 키린은 하비투스 님이 레아 황녀님께 전해드리라고 했던 까만 봉투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이건 그냥 태워버려야겠다.”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별로 도움이 되는 좋은 내용일 거 같지는 않았다. 키린은 마법으로 조그만 불씨를 피워 그 까만 봉투를 흔적도 없이 깔끔하게 태워버렸다.

\*\*\*

키린이 준 발신인 불명의 파란 봉투를 들고 방으로 돌아온 레아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남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라이 경, 가스파르 재상. 그리고….

“레아 누나!”

“누나! 기다렸어요!”

레아가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앙겔루스 제국의 사랑스러운 쌍둥이 황자님들이 우다다다 달려와 레아의 품에 쏙 안겼다. 갑자기 달려든 쌍둥이 때문에 좀 놀라긴 했지만, 레아는 품에 안긴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고 다정하게 웃어주었다.

“크레. 트레. 내 방에는 어쩐 일이야?”

“응.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레아 누나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오늘 돌아가는구나. 원래 내일 가는 거 아니었어?”

“그러려고 했는데 아빠가 엄마랑 더는 못 떨어져 있겠다고 오늘 출발하자고 했어요.”

“역시 그라티아 황제 폐하께서는 사랑꾼이시구나. 보니타 황후 폐하께서는 좋으시겠다.”

“사랑꾼? 그게 뭐예요?”

“그라티아 황제 폐하께서 보니타 황후 폐하를 많이 사랑하시는 거 같다는 뜻이야. 황후 폐하께서도 그라티아 황제 폐하를 많이 사랑하시겠지만.”

“우리 엄마랑 우리 아빠는 엄청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도 엄마랑 아빠 사랑해요!”

서로 아낌없는 사랑을 주는 부모님과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이라니. 동화 속 풍경처럼 예쁜 앙겔루스 제국처럼 이상적인 예쁜 가족의 모습이었다. 레아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조금 부럽다고 생각하며 귀여운 쌍둥이 황자님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앙겔루스 제국의 황자님들은 레아 황녀님을 아주 좋아하시는군요.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장면입니다.”

“아, 가스파르 재상. 언제부터 와있으셨어요?”

“라이 경이 집무실로 오면 레아 황녀님께서 혼자 계실 테니 걱정이 되어 와보았습니다. 그런데 와보니 황녀님은 안 계셔서 얼굴을 뵙고 가고 싶어서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 오래 있지는 않았으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황궁에서는 라이 경 없이 혼자 있는 것 정도는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왜 다를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걱정하시는지….”

레아가 라이 경 없이 혼자 돌아다니면서 만난 거의 모든 사람이 이 걱정을 했던 거 같았다, 다른 곳도 아니고 황궁 안인데 다들 왜 이렇게 걱정하는 건지 레아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런 레아에게 가스파르 재상은 단호하게 말했다.

“황궁 안이라도 모든 사람을 믿어선 안 됩니다. 레아 황녀님. 황녀님의 위치가 위치이시니만큼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괜히 라이 경이 황녀님의 호위기사로 있는 게 아닙니다.”

“알았어요. 가스파르 재상.”

재상의 잔소리에 레아는 알았다고 대답은 했지만, 속으로는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을 예뻐해 주는 건 참 고마웠지만 모두 걱정이 너무 많아서 탈이라고 생각했고 쌍둥이 황자님들은 그런 레아의 드레스 자락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누나, 누나. 우리 이제 가봐야 해요.”

“응? 벌써?”

“까만 경이랑 보라돌이 아저씨랑 실컷 놀아서 피곤해요.”

“보라돌이 아저씨…?”

“응. 저기 보라돌이 아저씨.”

쌍둥이는 보라돌이 아저씨라며 가스파르 재상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왜 가스파르 재상에게 그런 별명이 붙었는지 바로 이해가 된 레아는 작게 웃었다.

‘가스파르 재상 머리카락은 밝은 보라색이고 눈동자도 진한 보라색이라 보라돌이 아저씨구나. 라이 경도 머리카락이랑 눈동자 색 때문에 까만 경이라고 부르니까 생각해보면 쌍둥이가 이름으로 불러주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건가?’

황금 누나. 초록색 누나라고 부르지 않아 줘서 고마워해야 하는 걸까. 레아는 역시 귀여운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며 한 번 더 쌍둥이 황자님들을 꼭 안아주었다.

“엄마랑 아빠 말 잘 듣고 편식하지 말고 당근도 잘 먹어야 해. 다음에 라이 경이랑 같이 놀러 갈 테니까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해. 다시 만나서 반가웠고 와줘서 고마웠어.”

“우리도 레아 누나 다시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누나도 아프면 안 돼요. 까만 경이랑 꼭 놀러 와야 해요!”

“응. 알았어. 약속.”

레아는 활짝 웃으며 귀여운 쌍둥이 황자님들과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가스파르 재상은 옆에 있는 라이 경에게 소곤소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황녀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앙겔루스 제국의 쌍둥이 황자님들은 라이 경을 많이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인제 보니 레아 황녀님을 제일 좋아하시고 잘 따르시는군요.”

“크레 황자님과 트레 황자님께서는 레아 황녀님을 아주 많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레아 황녀님의 호위기사인 저도 좋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가만 보면 레아 황녀님께서는 인기가 상당하신 거 같습니다. 레아 황녀님이 좋아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봤어도 싫다는 사람은 본 기억이 없어요. 사교계에선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린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레아 황녀님께서는 좋은 분이십니다. 그러니 황녀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당연한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렇게 예쁘시고 머리도 똑똑하신 데다 먼저 건드리지만 않으면 모두에게 상냥하신 분이었다. 그리고 꼭 레아 황녀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황녀님을 화나게 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기에 모두가 레아 황녀님께 잘 보이고 싶어 했다.

“하긴. 레아 황녀님께 잘못 찍혔다간 아주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기분이긴 하죠. 마음먹고 작정하시면 레그마인 황제 폐하보다 더 무서운 분이시니까요.”

“그건 그 누구보다 가스파르 재상이 잘 아시겠군요.”

“…크흠. 난 지금 그 누구보다 레아 황녀님을 아끼고 딸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 라이 경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레아 황녀님의 열렬한 팬인 가스파르 재상이었지만 레아 황녀님이 처음 황궁에 오셨을 때만 해도 재상은 황녀님을 탐탁지 않게 여겼었다. 그래서 어리석게 기선제압을 하려다가 반대로 차라리 그냥 죽여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마음고생을 하기도 했었다.

‘그러고 보니 레아 황녀님께서 제일 처음 엿 먹이고 조져버리려고 한 사람도 가스파르 재상이었지. 처음이니까 그 정도로 끝났지 만약 지금 그러셨다면 재상도 완전 가루가 돼서 흩어져 날아가셨을 텐데.’

그때는 레아 황녀님께서도 황궁에 적응하시기도 전이었고 황녀라는 자리와 모든 것을 낯설어하셨을 때라 그 정도로 끝난 것이지 지금 가스파르 재상이 레아 황녀님과 기 싸움을 하려고 했으면 처참하게 밟힐 게 분명했다. 라이 경은 지금은 가스파르 재상께서 황녀님을 아끼고 좋아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레아 황녀님. 황자님들은 방까지 제가 모셔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탁할게요. 가스파르 재상.”

쌍둥이 황자님들이 혹시라도 길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니까. 레아는 아이들을 가스파르 재상에게 맡겼고 곧 쌍둥이는 보라돌이 아저씨의 손을 잡고 방을 나갔다.

‘한 번에 세 사람이 나가서 그런가. 크레랑 트레가 없어서 그런지 갑자기 조용해진 느낌이야.’

라이 경과 단둘이 남겨지자 어쩐지 조금 허전한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라이 경은 레아에게 문득 이런 말을 했다.

“레아 황녀님. 손에 들고 계신 그 파란 봉투는 무엇입니까?”

“아, 이거요? 아까 잠깐 정원에 나갔다가 키린한테 받았어요. 키린한테 온 건데 받는 사람으로 제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은 것 같은데 확인해보지 않으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발신인이 누군지 안 적혀 있어서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키린이 마법도 안 걸려있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괜찮겠죠?”

“혹시 모르니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그 봉투를 뜯어 확인을 해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저는 괜찮아요.”

레아는 들고 있던 파란 봉투를 라이 경에게 주었고 라이 경은 봉투를 뜯기 전 일단 겉부터 천천히 살펴보았다. 확실히 그 파란 봉투에는 받는 사람으로 레아 황녀님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보내는 사람의 이름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다. 안 그래도 요즘 레아 황녀님 근처에 수상한 사람이 늘어서 걱정이었는데 이런 편지까지 오다니. 라이 경은 얼굴을 찌푸렸다.

그런데 정작 그 수상한 파란 봉투를 받은 당사자인 레아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쓰고 있지 않았다. 그저 이 산처럼 쌓인 호박파이를 어떻게 나눠서 황궁에 돌릴까 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중이었다.

‘그래. 별로 좋은 일도 아닌데 그냥 신경 안 쓰시는 편이 더 좋은 거겠지. 레아 황녀님께 이제 귀찮고 힘든 일은 더 안 생기셨으면 좋겠군.’

이 파란 봉투도 알고 보면 벌 거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라이 경은 그러기를 바라며 천천히 파란 봉투를 뜯어 안을 확인해보았다.

“레아 황녀님. 안에 들어 있는 편지 내용을 제가 먼저 읽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상관없어요.”

레아 황녀님께서는 정말 이 파란 봉투와 안에 들어 있는 편지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건지 라이 경 쪽은 보지도 않고 건성으로 대답하시면서 오직 호박파이에만 집중하고 있으셨다. 라이 경은 그런 레아 황녀님의 모습에 아무도 모르게 살짝 미소를 지었고 다섯 장이나 들어 있는 편지를 한 장 한 장 읽어보기 시작했다.

역시나 편지를 읽어보아도 누가 보낸 건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편지 내용을 읽으면 읽을수록 라이 경의 표정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마지막 장까지 모두 읽고 난 후에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누가 레아 황녀님께 이런 편지를…….’

정확하게 편지를 보낸 발신인이 누구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편지 내용으로 대충 짐작 가는 사람은 몇 명이 있었다. 하지만 누가 편지를 보냈든 그 의도가 절대 좋지 않다는 것은 확실했다. 애초에 좋은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별거 아니기를 바랐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서 라이 경은 한숨이 나왔다.

이걸 레아 황녀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 잠시 고민하던 라이 경은 편지를 다시 파란 봉투 안에 접어 넣었다. 숨길 생각은 아니었지만, 레아 황녀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이 편지를 먼저 보여줘야 할 사람이 한 명 있었다.

59.1살부터 16살까지.docx

“라이 경. 그 파란 봉투에 있던 편지 어떤 내용이었어요? 누가 보낸 건지 적혀 있었어요?”

“그냥 프레디 소공자가 장난으로 보낸 편지였습니다. 레아 황녀님께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에는 귀족 영애인 척 보내더니 이번에는 아예 이름을 안 적고 보냈네요. 혹시 키린한테 보낸 것도 일부러 그런 걸까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만나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일부러 그런 거라면 다음부턴 그냥 저한테 바로 보내라고 해주세요. 괜히 다른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편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절대 프레디만은 보냈을 리가 없는 편지였다. 편지에는 프레디의 아픈 과거가 하나도 빠짐없이 적혀 있었고 당연히 스텔라에 관한 이야기도 담겨 있었지만 모두 사실과 달리 꼭 프레디가 악인인 것처럼 왜곡되어 적혀 있었다.

어제 분명 프레디는 겨울에 있을 파티에서 레아 황녀님께 모든 걸 말씀드리고 고백할 것이라고 했었다. 그런데 그랬던 프레디가 자신의 과거를 악의적으로 폭로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을 리가 없었다. 거기다 그 사건의 전후를 다 알고 있는 라이 경이 봤을 때 편지의 내용은 절대 사실이 아니었다.

‘이 편지는 하이모어 대공이나 크라스 경이 보냈을 확률이 아주 높아. 특히 하이모어 대공은 프레디가 국서가 되는 건 무슨 일이 있어도 막으려고 할 사람이니까.’

크라스 경은 하이모어 대공처럼 악랄한 사람은 맞았지만 완벽함에 집착하는 대공과는 다르게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인물이었다. 그래서 프레디가 국서가 된다면 집안에 도움이 되기는 할 테니 어쩌면 자신이 국서가 되는 것보다 프레디가 국서가 되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아직 둘 중에 누가 편지를 보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니 어쩌면 제삼자가 보낸 걸지도 몰랐다. 라이 경은 일단 이 문제는 프레디와 먼저 이야기해봐야 할 거 같아서 아주 잠시만 레아 황녀님께 이 편지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기로 했다.

거짓말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 라이 경은 어쩌다 보니 레아 황녀님께 하나의 거짓말을 해버렸다.

\*\*\*

그렇게 파란 봉투에 대한 일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끝이 났고 그 뒤로 한동안 레아는 별다른 일 없이 평범한 나날들을 보냈다. 그러면서 레아에게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생겼다.

“오늘은 새로 들어온 찻잎을 선물로 좀 가지고 와봤어요. 레아 황녀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서 같이 마셔보고 싶었어요.”

“고마워요. 다리아 영애. 전에 준 찻잎도 상당히 향이 좋았는데 이번엔 어떤 찻잎일지 기대가 되네요.”

첫 번째 변화는 다리아 영애와 꽤 친해졌다는 것이었다. 솔직히 처음에는 친해질 수 있을까 하고 좀 걱정했었는데 나이도 동갑이고 취향도 꽤 비슷한 레아와 다리아 영애는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

“그러고 보니 이제 12월이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성탄절과 레아 황녀님의 탄생일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리겠네요.”

“안 그래도 요즘 그거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파요. 저는 제 생일을 요란스럽게 챙길 생각이 전혀 없는데….”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선 레아 황녀님을 많이 아끼시니까요. 아마 다닐로만 제국 역사상 제일 화려하고 호화로운 파티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식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지 않은데 진짜 그렇게 될까 봐 무섭네요.”

“하하. 그래도 요즘 레아 황녀님을 부러워하는 영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솔직히 저도 조금은 부러워요.”

“세상에 아무리 부러워할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나를 부러워한다고요?”

그것도 태어날 때부터 많은 것을 쥐고 태어난 다리아 영애도 자신이 부럽다니 레아는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대체 어느 부분이 부럽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보통 아버지들은 무뚝뚝하시고 표현이 서투르시잖아요. 당장 저희 아버지만 해도 칭찬에 정말 인색하셔서 무언가를 해도 잘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어디를 가도 다들 다리아 영애에 대한 칭찬밖에 안 하는데 앨버트 후작께서는 그런 영애를 칭찬을 안 하신다고요? 그것도 한 번도?”

“네. 오죽하면 저택에서 일해 주시는 분들은 후작님께 칭찬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이라고 말하기도 한답니다.”

“저희 아빠랑은 정반대시네요. 다른 사람한테는 어떠신지 잘 모르겠지만요.”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빠는 레아에게만은 볼 때마다 엄청난 칭찬을 퍼부어주셨다. 딱히 뭘 잘하지 않아도 아빠는 언제나 레아에게 예쁘다고 해주었고 무엇을 해도 잘했다고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심지어는 밥을 먹을 때도 복스럽게 잘 먹는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물론 그만큼 레아가 아빠에게 귀염받고 사랑받는다는 뜻이었고 그 마음은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아빠는 그 정도가 과해도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다.

“뭐든 적당한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근데 그 적당이라는 게 없어서 문제지만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레아와 다리아 영애는 동시에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다리아 영애가 가지고 온 찻잎으로 내린 차를 마시며 몇 주 뒤에 있을 파티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레아 황녀님. 혹시 생일 선물로 뭐 받고 싶은 거 있으세요? 성탄절 선물도 드릴 거지만 생일도 챙겨드리고 싶어서요.”

“아니요. 괜찮아요. 따로 안 챙겨줘도 괜찮아요. 다리아 영애.”

“제가 챙겨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레아 황녀님께서는 원하시는 거나 갖고 싶으신 건 바로바로 구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음. 진짜 괜찮은데….”

다리아 영애가 말했다시피 레아는 원하거나 가지고 싶은 게 있다면 웬만한 건 바로바로 구할 수 있었다. 레아의 말이라면 밤하늘에 별도 달도 따줄 아빠가 있으니 부족한 게 있을 리가 없었다. 그리고 평민으로 10년 넘게 살아서 그런 것도 있고 레아는 타고난 성격도 물욕이 별로 없는 편이었다.

“막상 말하려고 하니 당장은 떠오르는 게 없네요. 나중에라도 갖고 싶은 게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생각해줘서 고마워요.”

“네.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요.”

일단 나중에라도 생각이 나면 얘기하겠다고는 했지만, 레아는 지금까지 가지고 싶은 거나 받고 싶은 선물 같은 게 한 번도 없었다. 애초에 생일에 큰 의미를 두는 편도 아니었기에 선물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을 리가 없었다.

‘거기다 가을에 있었던 아빠 생일에 나까지 선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아버려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짜 떠오르는 게 없어.’

보석이나 드레스는 원래 관심이 없었고 욕심도 없을뿐더러 지금도 차고 넘칠 정도로 너무 많았다. 레아는 다리아 영애가 돌아간 후에도 생일 선물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정말 떠오르는 게 하나도 없었다. 사실 원하는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건 누군가 선물로 줄 수 없는 것들이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딱 하루만이라도 좋으니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다. 벨리시타 거리 구경해보고 싶어. 노점 같은 곳도 가보고 싶고.’

태어날 때부터 작은 시골 마을인 우나타에서 자랐고 황녀가 된 이후로도 레아는 황궁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었다. 가끔 파티에서 입을 드레스를 맞추려고 황궁 밖에 있는 의상실에 가기도 했지만, 마차를 타고 가서 의상실 앞에서 내린 다음 드레스를 고르고 다시 마차를 타고 황궁으로 돌아와서 거리 구경 같은 건 할 틈도 없었다.

그래서 레아는 다닐로만 제국의 수도인 벨리시타를 구경해보고 싶었고 그렇다면 사람들은 레아가 원하는 것이라면 밤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줄 아빠에게 부탁해보라고 할 것이었다. 하지만 아빠에게 밸리시타 거리를 구경하고 싶다고 말한다면 분명….

‘분명 마차 안에서만 구경하라고 하겠지. 그리고 기사를 또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붙여주실지….’

아빠는 언제나 레아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셨기에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시지는 않을 것이었다. 그렇기에 레아는 거리 구경은 해보고 싶었지만 진작에 포기했다고 생각하며 한숨을 푹 쉬었다.

\*\*\*

그날 저녁. 언제나처럼 레아는 아빠와 함께 저녁으로 닭고기 스테이크를 먹고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다.

“겨울인데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할 줄은 몰랐어. 맛있어?”

“네. 진짜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황실 파티시에 실력은 정말 대단한 거 같아요!”

“역시 우리 레아는 먹을 때가 제일 예뻐. 특히 맛있다고 말하면서 방긋 웃을 때는 꼭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사랑스러운 천사가 내려와서 아름답게 웃는 거 같아.”

“역시 아이스크림은 겨울에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레아는 오늘도 넘치다 못해 과한 아빠의 칭찬을 들으며 아이스크림을 냠냠 하고 있었다. 아빠는 그런 레아가 예뻐 죽겠다는 눈으로 바라보다 갑자기 종이뭉치를 건네며 말했다.

“레아.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이거 읽어봐. 아빠가 엄선해서 고르고 또 고른 것들이야.”

“이게 뭔데요?”

“우리 레아 생일 선물 후보들.”

“아….”

10장이 훨씬 넘어 보이는 종이를 보며 레아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 굳이 무슨 날이 아니라고 해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엄청난 선물을 줘서 때론 레아를 곤란하게 만드는 아빠가 주는 생일 선물 후보목록이라니. 레아는 어쩐지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종이를 한 장 넘겨보았다.

그런데 첫 장에 적힌 선물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라 레아는 당황스러웠다.

“아기침대, 모빌, 딸랑이랑 쪽쪽이…?”

이건 16살 소녀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1살 아기한테나 줄 법한 선물들이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라 레아는 종이를 한 장 더 넘겨보았다. 하지만 두 번째 장은 아기 장난감으로 가득했고 세 번째 장은 아기 옷으로 가득해서 레아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건 똑같았다. 이쯤 되면 레아는 딱 한 가지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다른 종이를 착각해서 잘못 주신 것이 틀림없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아무리 어딘가 좀 이상한 아빠라고 할지라도 딸의 16살 생일에 이런 걸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실 리가 없었다.

“아빠. 이거 종이 잘못 주신 거 같은데요.”

“그래?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레아는 종이뭉치를 다시 아빠에게 드렸고 아빠는 종이를 몇 장 읽어보시더니 레아에게 다시 종이뭉치를 돌려주었다.

“아니야. 이거 맞아.”

“그러면 제 생일 선물 후보들이 정말로 아기침대랑 아기 장난감, 아기 옷이라고요…?”

“그거 한번 끝까지 읽어봐.”

아빠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16살짜리 딸에게 생일 선물로 꼬맹이들에게 줄 법한 선물을 주겠다고 하시는 걸까. 아빠가 왜 이러시는 건지는 전혀 감이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단 끝까지 읽어보라고 하시니 레아는 종이를 넘겨 생일 선물 후보목록을 살펴보았다.

아빠가 주신 종이뭉치의 처음에는 아주 어린 아기에게 줄 법한 선물로 가득했지만, 뒤로 갈수록 선물의 수준도 점점 높아졌고 거의 마지막 장이 되자 남쪽에 있는 작은 섬이라든가 유리 궁전 같은 선물이 나왔다. 그래 봤자 정상적인 선물이 하나도 없다는 건 똑같았지만 아직 레아는 왜 딸랑이나 아기 신발 같은 선물이 후보목록에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피에르 시종장님이 라이 경한테 그러시는 것처럼 아빠가 나한테 빨리 시집가서 손주 안겨달라고 하시는 건 아닐 테고. 그냥 아기용품이 아기자기하고 귀여워서 목록에 넣으신 걸까?’

언제나 레아의 상상을 초월하고 마냥 서툴기만 한 아빠라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을 거 같았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레아에게 아빠는 뜻밖의 이야기를 하셨다.

“아빠가 우리 딸 생일을 챙겨주고 생일 선물 사주는 건 처음이잖아. 그동안 못 챙겨줬던 생일 이번에 다 챙겨주고 싶어.”

“설마 그래서 1살 생일부터 16살 생일까지 한꺼번에 다 챙겨주시겠다는 건가요?”

“마음 같아서는 아리샤가 레아를 처음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된 그 날도 기념하고 싶은데 아쉽게도 내가 그 날짜는 모르니까 축하해줄 수가 없겠더라고.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보통 그런 날까지 기억해서 기념하지는 않아요. 아빠.”

“우리 레아가 나한테 어떤 딸인데 남들하고 똑같이 챙겨줄 수는 없지. 내가 정확한 날짜만 알았어도 처음으로 뒤집기 한 날, 처음으로 배밀이 한 날, 처음으로 걸음마 뗀 날, 처음으로 제대로 된 말을 한 날, 처음으로 이가 난 날, 처음으로 이가 빠진 날 다 기억하고 성대한 파티를 열어줬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쉽단 말이지.”

“……….”

“아, 그래도 레아가 나를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러준 날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그건 아직 1년도 안 된 일이니까요.”

그때가 여름에 열렸던 레아의 첫 파티였으니 4, 5개월 정도밖에 안 된 일이었다. 물론 레아는 날짜는 잊은 지 오래였지만 아빠가 날짜까지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 놀라워하고 신기해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고 보니 레아는 문득 1년 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참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는 아빠를 제대로 아빠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황제 폐하라고 불렀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친구도 생기고 마법도 배우게 되고. 그리고 프레디 소공자처럼 이상한 사람이랑도 엮이고 이 나이에 상상도 못 한 혼담이란 것도 받아봤어. 심지어 같은 아버지 밑에 있는 형제에게 동시에.’

처음 혼담이 들어왔을 때만 해도 혼담을 거절해도 그 뒤로 또 뭔가 벌어질 것처럼 불안 불안해서 혹시 몰라 하이모어 대공에 대해서 조사까지 했는데 그 조사가 무색할 정도로 그다음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마력이라든가 엄마가 과거에 흑마법을 배웠다는 사실과 하비투스 때문에 레아는 정신이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짧은 시간에 참 많은 일이 있었고 황궁에서의 하루하루는 참 파란만장했구나 하고 레아는 아이스크림을 먹던 숟가락을 입에 물고 생각했다.

‘그러고 보니 요즘 하비투스가 뜸하네. 찾아오지도 않고 전번처럼 키린을 통해서 뭘 보내지도 않고. 며칠 전에 멀리서 우연히 본 것 말고는 계속 못 봤던 거 같아.’

그래도 레아는 정원에서 산책하기도 하고 황궁 안은 많이 돌아다닌 것 같은데 하비투스를 마주친 기억은 없었다. 그나마 며칠 전에 멀리서 봤다는 것도 환기를 시키려고 시녀가 창문을 열었을 때 얼핏 본 것이었다. 얼핏 본 것이라 얼굴은 못 보긴 했지만, 새카만 로브로 온몸을 가리고 다니는 사람이 황궁에 그 남자 말고 또 있을 리가 없었다.

어쨌든 하비투스가 와서 왜 흑마법 안 배우냐고 엄마의 일기장 읽어보고 싶지 않냐며 귀찮게 굴지 않아서 레아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다시 냠냠 맛있게 먹었다.

60.복수를 위한 독.docx

하비투스가 요즘은 귀찮게 굴지 않아서 좋다고 생각한 지 딱 30분 후. 아빠와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레아는 여유롭게 코코아를 마시고 있는 하비투스를 만날 수 있었다.

“레아 황녀님의 시녀들은 코코아를 잘 타네요. 달콤한 게 아주 그냥 제 스타일이에요. 준비해준 쿠키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그 쿠키는….”

“답 올 때까지 얌전히 기다리려고 했는데 답이 너무 늦으셔서요. 그래서 직접 와본 건데 오기를 잘한 거 같네요. 앞으로 자주 놀러 와야지.”

지금 하비투스가 맛있다고 말하며 먹고 있는 저 쿠키는 레아가 상당히 아끼는 간식이었다. 황실 파티시에가 오직 레아만을 위해 며칠 밤낮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개발해준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감동해서 아끼고 또 아껴서 먹던 쿠키인데…!

그런데 그 소중한 쿠키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입에 털어 넣는 하비투스를 보며 레아는 충격받은 얼굴을 했다. 그리고 하비투스에게 저 쿠키를 내주었을 시녀들을 찌릿 째려보았고 그러자 시녀들은 레아의 눈치를 보며 우물쭈물 변명하기 시작했다.

“그게 하비투스 님이 레아 황녀님을 기다리신다고 저녁을 못 드셨다고 하셔서…. 원래는 다른 과자를 아주 조금 드렸었는데 맛있다고 너무 잘 드셔서 계속 드리다 보니 딱 저 쿠키만 남았지 뭐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비투스 얼굴에 넘어가서 내 간식 창고를 거덜 냈다니.”

“그, 그게….”

“내가 간식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으면서.”

“……….”

“나빴어.”

“………! 레, 레아 황녀님…!

누군가 레아의 보석이나 드레스를 털어 갔다면 레아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었다. 어차피 반짝거리는 것에는 관심도 없었고 별로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소중한 간식이 몽땅 털렸다는 말에 레아의 눈빛은 차게 식었고 처음 보는 그 눈빛에 시녀들은 깜짝 놀랐다.

그런 레아와 시녀들을 번갈아 보면서 하비투스는 흥미롭다는 듯이 쿠키를 오물오물 먹으면서 구경을 했다. 그 모습을 보고 라이 경은 속으로 짧게 한숨을 쉬며 레아에게 달래는 듯한 느낌으로 말했다.

“쿠키라면 내일 파티시에에게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줄 겁니다. 다른 간식들도 다시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리아 영애가 엄청 유명한 과자점에서 3시간 기다려서 겨우 구했다는 브라우니는….”

“제가 3시간 기다려서 다시 사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굳이 3시간이나 기다려서 브라우니를 구매할 필요는 없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금쪽같이 아끼는 레아 황녀님이 드시고 싶다는데 그 과자점 주인을 황궁으로 불러 브라우니를 구우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그래도 레아 황녀님을 위해서라면 라이 경은 이 추운 날씨에 밖에서 3시간 정도는 당연히 기다릴 수 있었다.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서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다행히 간식을 다시 사 오겠다는 라이 경의 말에 레아는 마음이 좀 풀렸는지 아까보다는 표정이 좀 나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하비투스를 미워 죽겠다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조금은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얼굴 안 가리고 있네요. 로브는 입고 있지만.”

“어차피 얼굴을 보이라고 할 거니까 벗고 있었죠. 그런데 모자 벗으니까 맛있는 간식도 주고 좋네요. 앞으로 황녀님 만나러 올 때는 가리지 말고 와야겠어요.”

“내 간식 훔쳐서 먹으니까 좋아요?”

“네. 이거 아리샤 누나만 알던 건데 저 사실 과자랑 케이크처럼 달콤한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맛있어요.”

“……….”

아무렇지도 않게 맛있다고 말하는 하비투스를 보며 레아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라이 경을 보며 말했다.

“라이 경. 저 사람 혓바닥 좀 잘라주세요.”

“네?”

“하비투스 혓바닥 좀 잘라주세요! 말이나 안 하면 밉지라도 않지!”

“레아 황녀님. 라이 경이 제 혀를 잘라도 저는 마법으로 다시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 경이랑 저랑 싸우면 제가 이겨요.”

“…하비투스. 진짜 얄미운 거 알아요?”

“그런 말 자주 들어요. 얼굴은 예쁜데 말을 참 밉게 한다고.”

“알고 있으면 이참에 말도 좀 예쁘게 하지 그래요? 꼭 그렇게 한 대 때리고 싶게 말해야 해요?”

“싫어요. 제가 예쁘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말이라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겁니다. 안 그러면 속이 썩어 문드러질 거 같단 말이에요.”

듣는 사람 속이 썩어 문드러질 거 같은 건 신경도 안 쓰는 건가. 레아는 정말 진지하게 하비투스를 좀 어떻게 하면 안 되겠냐고 아빠한테 말씀드려봐야 하나 고민하며 코코아를 홀짝이는 하비투스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는 시선을 보내며 쌀쌀맞게 물었다.

“그래서 내 방에는 왜 왔는데요? 설마 내 간식 거덜 내려고 온 건 아닐 거고.”

“아까 말했잖아요. 얌전히 기다리려고 했는데 답이 너무 늦어서 직접 찾아온 거예요.”

“무슨 답이요?”

“키린한테 전해주라고 했는데. 혹시 못 받았어요?”

“혹시 까만 봉투 말하는 거예요?”

“네. 그거요.”

그거라면 분명 받기는 받았었다. 하지만 레아는 하비투스가 보낸 까만 봉투를 뜯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다시 돌려보냈었다. 그리고 수상하게 이런 거 보내지 말고 할 말이 있으면 직접 찾아오라고 전해달라고 했는데 하비투스는 그 얘기를 못 들은 모양이었다.

키린이 전하는 걸 깜박한 걸까? 레아는 잠깐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잊어버렸나 보다 하고 생각하며 넘겼다.

“그거 안 읽어보고 키린 쪽에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할 얘기 있으면 이런 거 보내지 말고 직접 찾아오라고 전해달라고 했는데 키린이 깜박하고 하비투스한테 말 안 했나 보네요.”

“키린이 그런 거 깜박하고 잊어버릴 애는 아닌데.”

키린은 평민 출신임에도 어린 나이에 황궁 마법사가 된 똘똘한 아이였다. 그래서 하비투스도 아리샤 누나가 떠난 이후로 아무에게도 열지 않았던 마음을 키린에게는 아주 살짝 열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그 똘똘하고 야무진 애가 그런 걸 까먹었다는 게 하비투스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레아는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키린도 사람인데 가끔은 그럴 때도 있는 게 그리 이상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아무튼, 전 받은 게 없어서 드릴 답도 없어요. 이제 됐죠?”

“그거 왜 안 읽었어요? 엄청 중요한 얘기 써놨었는데.”

“수상해서 안 읽었어요. 그래서 할 얘기 있으면 직접 오라고 했고요. 그런데 엄청 중요한 얘기란 게 뭐예요?”

“얼굴 보고할 얘기였다면 편지를 보내지도 않았죠. 비밀 얘기입니다. 비밀.”

“하비투스랑 내가 비밀 얘기도 주고받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나요?”

“레아 황녀님하고는 안 친해도 아리샤 누나랑은 친했었죠. 남매 같은 사이였달까.”

“엄마랑 하비투스가 얼마나 친했는진 모르겠지만 엄마랑 친했다고 저랑도 막연하고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긴 하죠. 레아 황녀님은 아리샤 누나랑은 별로 안 닮았으니까.”

레아가 엄마를 별로 안 닮은 건 사실이었고 그래도 가끔 엄마를 닮은 모습이 툭툭 나올 때가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세상에 아빠 한 사람뿐이었다.

“네. 저는 아빠 많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하비투스도 과거에 엄마랑 친했었다는 이유로 자꾸 저한테 친한 척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엄마랑 얼마나 친하고 가까웠는진 모르겠지만 그래 봤자 과거고 10년도 훨씬 지난 이야기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도 말했듯이 단지 엄마랑 가까운 사이였다고 레아가 하비투스에게 살갑게 굴고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었다. 그런데 하비투스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한 얼굴로 말했다.

“말했잖아요. 저 아리샤 누나랑 남매 같은 사이였다고. 그럼 아리샤 누나 딸이니까 레아 황녀님은 제게 조카 같은 느낌 아닌가요?”

“조카라뇨. 저는 하비투스를 삼촌 같은 느낌으로 생각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원래 삼촌이라는 게 자기가 원해서 생기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삼촌이 있는 거지.”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논리에요. 그럼 하비투스한테 우리 아빠는 매형 같은 존재인가요?”

“음…. 매형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레그마인 황제 폐하랑은 사이가 안 좋아서 좀 그렇네요.”

“누가 들으면 저랑은 사이좋은 줄 알겠어요.”

“아? 저희 사이좋은 거 아니었어요?”

“대체 어디를 봐서 이게 사이가 좋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황궁에서 말 섞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먼저 누군가를 찾아온 것도 아리샤 누나 말고는 처음이라서 전 레아 황녀님이랑 제가 아직 친하진 않아도 사이는 엄청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가 엄청 사이가 좋은 거면 이 남자는 그동안 사회생활이란 건 도대체 어떻게 한 건지 의문일 지경이었다. 표정을 보니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레아는 너무 어이가 없었다.

‘아빠도 그렇고 하비투스도 그렇고. 도대체 우리 엄마 취향은…. 왜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없는 거지?’

엄마는 과연 황궁에서 어떤 과거를 보내셨던 걸까. 레아는 왜 하고많은 사람 중에서 엄마가 아빠를 사랑하고 하비투스를 동생처럼 예뻐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니, 아빠를 사랑한 건 그럴 수 있다고 쳐도 하비투스와 가깝게 지냈다는 건 정말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았다.

“하비투스. 우리 엄마랑 친했다는 거 사실이에요? 우리 엄마가 정말 하비투스를 동생처럼 아꼈다고요?”

“당연하죠. 제가 왜 그런 걸 거짓말하겠어요. 못 믿겠으면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 물어보세요.”

“물어보기야 진작에 물어봤죠. 아빠도 그렇다고는 했는데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요.”

“그게 왜 안 믿겨요? 아리샤 누나가 진짜 저 예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왜 하비투스를 예뻐했다는 건지 그 사실 자체가 레아는 믿기지도 않고 이해도 되지 않았다. 레아는 다시 한번 아무래도 엄마의 취향은 성격이고 뭐고 그냥 얼굴이었던 게 확실하다고 생각하며 한숨을 쉬었다.

“근데 하비투스. 내 방에서 언제 나갈 거예요? 할 얘기는 대충 다 하신 거 같은데.”

“무슨 소리세요. 아직 본론은 시작도 안 했는데.”

“할 얘기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네. 전에 일기장 드렸을 때 하려고 했던 말을 더 늦기 전에 해드려야 할 거 같아서요. 그래서 그런데 다른 사람들 좀 다 나가라고 해주세요.”

“싫어요. 그때도 분명 그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하비투스를 좋게 생각하기는커녕 싫어하고 있고 수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단둘이 얘기를 하고 싶을 리가 없었다. 거기다 하비투스가 자신의 소중한 간식을 거덜 냈다는 것에 대해 레아는 아직 앙금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아니, 흑마법도 안 배우겠다고 하고 내 얘기도 안 듣겠다고 하고. 그럼 저한테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건 제가 할 얘기죠. 저 보고 뭐 어떡하라고요?”

“으음. 이걸 어떡해야 하나….”

“참나. 내가 어이가 없어서….”

이쯤 되면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까지 하는 건지 레아도 조금 궁금해지긴 했다. 하지만 여기서 궁금하다고 하면 왠지 하비투스에게 지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 아무리 궁금하다고 해도 하비투스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생각은 전혀 없었다.

‘아직 하비투스는 신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절대 내 간식을 거덜 내서 그런 게 아니야. 수상해서 그러는 거지 소중한 내 간식 때문이 아니라고.’

레아는 그렇게 생각하며 하비투스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하비투스는 잠시 고민을 하는 얼굴을 하더니 곧 어쩔 수 없다는 얼굴로 레아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하죠. 단둘이 아니라 라이 경도 같이 있다면 괜찮으시죠?”

“세 사람이 같이요?”

“아리샤 누나 얘기라서 라이 경은 딱히 할 얘기가 없겠지만 레아 황녀님이 곧 죽어도 저랑 단둘이 얘기를 나누는 게 싫으시다면 호위기사와 같이 제 얘기를 들어달라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흐음.”

확실히 레아가 하비투스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이유는 아직 하비투스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성격 더러운 하비투스는 답지 않게 꽤 끈질기게 레아에게 할 얘기가 있다고 찾아왔다. 그리고 레아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자신은 레아와 특히 사이가 좋은 편이라고 말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하비투스가 할 얘기는 엄마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다.

엄마가 황궁에서 시녀로 일했을 때의 이야기는 아는 게 거의 없는 레아는 결국 못 이기는 척 하비투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설마 라이 경도 옆에 있는데 하비투스가 미쳤다고 나한테 저주를 걸거나 이상한 짓은 하지 않겠지. 물론 워낙 이상하고 수상한 사람이라 진짜 그 미친 짓을 할지도 모르지만…. 라이 경이 옆에 있다면 괜찮겠지.’

아까 하비투스는 라이 경보다 자신이 더 강하다고 했지만 그건 일방적인 주장일뿐이었고 레아는 라이 경이라면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시녀들에게 잠깐만 나가 있으라고 부탁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어디 가지 말고 바로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으라는 말도 했다. 만약 하비투스가 무슨 짓을 하려고 하면 바로 소리를 질러버릴 생각이었다.

곧 시녀들이 방에서 나가자 방에는 레아와 라이 경, 하비투스 세 사람만이 남게 되었다. 시녀들이 모두 나간 것을 확인한 후 하비투스는 천천히 느릿느릿 말을 시작했다.

“아리샤 누나가 어떻게 황궁 시녀가 되었는지는 레아 황녀님도 들어서 알고 계시죠?”

“황실에 불었던 피바람. 그 피바람 때문에 부모님과 남동생을 잃고 고아가 된 엄마는 강제적으로 황궁 시녀가 되신 거라고 들었어요.”

“그 피바람 때문에 저도 고아가 되고 강제적으로 시종이 됐었어요. 그때 아리샤 누나는 죽은 남동생이랑 닮았다고 말하면서 저를 많이 귀여워해 줬고요. 그렇게 누나랑 친해지고 전 누나를 위해서 열심히 흑마법을 배우고 익혔어요.”

“엄마를 위해서 흑마법을요?”

“네. 누나랑 같이 복수하자고 약속했었거든요. 우리를 절망에 빠트린 사람들에게 똑같은 복수를 해주자고.”

“그 복수라는 게 설마…….”

“맞아요. 아리샤 누나랑 저는 우리의 가족을 죽여버린 선황을 향한 복수로 당시 황태자였던 레그마인 황제 폐하를 죽이자고 약속했었어요.”

“……….”

엄마가 사실은 복수를 위해 아빠를 죽이려고 했었다니. 과연 저 말을 믿어야 할까? 믿을 수 없는 하비투스의 말에 레아의 눈동자는 흔들렸고 하비투스는 그런 레아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61.따듯한 위로.docx

“복수라뇨. 엄마가 아빠를 죽이려고 했었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리샤 누나가 흑마법을 익히고 배웠던 이유, 모두 선황을 향한 복수로 그의 아들의 숨통을 끊어버리기 위해서였어요.”

“그게 무슨….”

“저 역시 누나를 돕기 위해 노력했어요. 아,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다고 누나를 여자로서 좋아한 건 아니었으니까.‘

고작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낯선 황궁에서 시종 일을 하게 된 하비투스에게 아리샤 누나는 새로운 가족이 되어준 고마운 사람이었다. 어린 하비투스는 그런 아리샤 누나를 믿고 의지하며 힘든 황궁 생활을 버틸 수 있었다.

“어쨌든 아리샤 누나 덕분에 난 내가 흑마법에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비록 누나는 재능이 없었지만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흑마법을 마스터할 수 있었고 사람을 영원한 절망에 빠트릴 수 있는 저주나 목숨을 잃게 만들 수도 있는 마법도 할 수 있게 된 누나는 바로 목표물에게 접근했어요. 그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오직 그것만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했었으니까. 복수 하나만을 위해 달려왔기에 이제 남은 건 복수를 완벽하게 끝내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나 보더라고요. 아리샤 누나는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마음을 열기 위해 공을 들였고 결국은 꼭 닫혀서 절대 열리지 않을 것 같던 그의 마음의 문을 열고 연인이 될 수 있었어요. 이제 그 남자의 숨통만 끊어버리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복수를 하게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어째서인지 누나는 복수하지 않고 자꾸만 망설이기만 했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황궁을 떠나 모습을 감춰버렸다.

“누나는 그렇게 떠나버렸고 떠나면서 남기고 간 두 가지는 이 시커먼 로브랑 그 일기장이에요. 전 그 일기장을 읽기 위해 미친 듯이 노력했고 그 노력 덕에 시종에서 다닐로만 제국 최고의 마도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리샤 누나한테 감사하고 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원망도 많이 했었지만.”

솔직히 아리샤 누나가 말도 없이 떠나버렸을 땐 정말 많이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누나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렇게 떠날 사람이 아니란 걸 알기에 하비투스는 누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더 악착같이 흑마법에 매달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길고 긴 노력 끝에 드디어 그 일기장을 열고 아리샤 누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하비투스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그 일기장 안에는 아리샤 누나가 느꼈던 분노와 증오 그리고 혼란스러움과 죄책감 같은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래서 레아 황녀님께서 흑마법에 재능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레아 황녀님은 아리샤 누나가 내게 보내준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누나는 자신이 하지 못했던 복수를 자신의 딸인 레아 황녀님께서 대신 끝내주길 바라고 있다는 것을.”

“엄마가 하지 못했던 복수를 내가 대신….”

“누나의 복수를 위해서는 레아 황녀님께서도 흑마법을 배우셔야만 해요. 만약 황녀님께서 죽은 아리샤 누나의 복수를 하겠다고 해주신다면 전 제 모든 것을 걸고 도와드릴 수 있어요.”

“엄마의 복수를 대신 끝내 달라는 말은……제 손으로 아빠를 죽이라는 뜻인가요?”

엄마는 자신의 가족을 죽게 만든 선황을 향한 복수로 아빠를 죽이려고 했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엄마는 아빠를 죽이지 못했고 그 대신 레아를 임신한 채로 홀연히 황궁을 떠나 사라졌다.

그런 엄마가 끝내지 못한 복수를 대신 끝내라는 말은 역시 엄마가 죽이려고 했던 아빠를 대신 죽여달라는 말일까.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엄마의 과거 이야기와 자신에게 대신 그 복수를 끝내 달라는 하비투스의 말에 충격을 받은 레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말의 정확한 뜻을 물었다. 그런데 그런 레아에게 하비투스는 뜻을 알 수 없는 대답을 해주었다.

“글쎄요. 그건 레아 황녀님께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리샤 누나를 위해 누구에게 복수해야 할지는 레아 황녀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에요. 그 일기장을 읽고.”

“일기장….”

“제가 말해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 하지만 이건 알아두세요. 제가 오늘 레아 황녀님께 말씀드린 얘기가 전부는 아니에요. 저도 그때는 몰랐던 사실들이 그 일기장에 가득하니까요. 거기에는 아리샤 누나의 모든 게 담겨 있어요.”

“……….”

“아까 말했었죠. 전 레아 황녀님이 복수하겠다고 결정하시면 전 모든 것을 걸고 돕겠다고. 일기장을 열기 위해 흑마법을 배우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수할지 말지도 그 일기장을 읽고 난 후에 결정하셔도 상관없어요.”

하비투스의 말에 레아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다. 너무 많은 생각이 뒤엉켜서 지금 레아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런 레아를 보며 하비투스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생각 정리가 끝나시고 어떻게 하실지 결정되면 불러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하비투스는 방을 나갔고 이제 방 안에는 레아와 라이 경 단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다.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에 침묵만이 흐르는 이 불편한 상황에서 라이 경은 황녀님의 눈치를 살폈다.

‘무슨 말이라도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있어야 하는 걸까. 그것도 아니면 나도 하비투스 님처럼 혼자 있으실 수 있게 방을 나가는 게 맞는 걸까.’

같이 모든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당사자가 아닌 라이 경이 쉽게 판가름을 내리고 나설 수 없는 부분이었다. 지금 레아 황녀님이 어떤 기분이실지 함부로 추측하는 것도 황녀님께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라이 경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며 조용히 레아 황녀님을 바라보았다.

레아 황녀님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며 조용히 그 자리 그대로 가만히 있으셨다.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레아 황녀님은 눈물 한 방울조차 흘리지 않고 있으셨다.

“라이 경.”

“네. 레아 황녀님.”

“오늘 들었던 얘기는 당분간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줘요. 아빠한테도 비밀로 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차분한 레아 황녀님의 말에 라이 경은 알겠다고 대답했다. 여전히 황녀님께서는 흐트러지시거나 감정의 흔들림이 없어 보이셨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라이 경은 역시 레아 황녀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다.

‘강하신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역시 마음이 단단하신 분이구나. 존경스러움을 넘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라이 경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레아 황녀님을 바라보았고 황녀님은 입을 꾹 다문 체로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그런데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레아 황녀님은 순간 휘청거리셨고 라이 경은 황녀님이 넘어지시지 않도록 잡아드렸다. 그런데 레아 황녀님을 붙잡은 순간 라이 경은 깜짝 놀랐다.

원래 황녀님은 강하고 단단하신 분이니까, 눈물을 보이지도 않으셨고 차분했던 목소리 때문에 라이 경은 당연히 레아 황녀님은 괜찮으실 거로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레아 황녀님의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괜찮으신 게 아니었어. 괜찮으신 척하셨던 거였어.’

생각해보면 괜찮으실 리가 없었다. 아직 16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였는데 바보처럼 라이 경은 레아 황녀님은 강하신 분이니까 괜찮을 거로 생각했었다.

“……….”

그런데 자세히 보니 레아 황녀님께서는 입술을 꾹 깨물고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눈물을 억지로 참고 있는 얼굴을 하고 있으셨다. 늘 강하고 당찬 모습만 보여주시는 레아 황녀님의 약한 모습에 갑자기 라이 경의 마음은 쓰리게 아파져 왔다.

좋아하고 있으면서. 레아 황녀님을 좋아하고 있으면서 지금 황녀님이 얼마나 울고 싶은 마음이실지는 생각도 못 하고 있었다. 그저 괜찮아 보이신다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자신에게 너무나도 화가 나서 라이 경은 참을 수가 없었다.

“라이 경.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웠던 거뿐이에요.”

“……….”

“넘어질 뻔했는데 붙잡아줘서 고마워요.”

“레아 황녀님….”

그런데 레아 황녀님께서는 여전히 괜찮은 척하고 있으셨고 그 모습이 라이 경은 너무 위태로워 보였다. 지금 힘들다는 게 눈에 다 보이는데 왜 강한 척 씩씩한 척하시는 건지 라이 경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어쩌면 레아 황녀님은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신 걸까.’

정말 그래서 레아 황녀님께서는 당장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을 하면서도 애써 터지려는 슬픈 감정을 꾹꾹 누르면서 참는 중이시라면…. 그런 생각이 들자 라이 경은 너무 분하고 마음이 무너질 것처럼 아팠다. 이대로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에 라이 경은 충동적으로 레아 황녀님을 와락 껴안아 버렸다.

“……….”

“……….”

“……….”

“……….”

갑작스럽게 껴안았음에도 레아 황녀님께서는 조금 놀라기만 하셨을 뿐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화를 내거나 라이 경을 뿌리치고 그 품에서 빠져나오지 않았다.

자신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안아버려서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당황해하던 라이 경은 평소와 달리 조용히 자신의 품에 안겨 미동도 없는 레아 황녀님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황녀님의 등을 토닥여드렸다. 그 어떠한 말도 해줄 수가 없는 라이 경이 슬픔을 꾹 참고 있는 황녀님께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위로였다.

굳이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따듯한 위로가 담긴 라이 경의 토닥임에 레아는 잠시 움찔했지만, 곧 그 위로에 굳게 먹었던 마음이 약해지는 걸 느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는 레아였지만 마음이 약해지니 저절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흑.”

“……….”

“흑, 흐윽….”

“……….”

그렇게 레아는 라이 경의 품에 안겨서 훌쩍이며 울었고 라이 경은 말없이 가늘게 떨리는 레아를 다독이며 토닥여주었다. 조용하지만 따듯한 라이 경의 위로에 레아는 더 눈물이 났고 라이 경은 계속 말없이 레아를 꼭 안아주었다.

괜찮아, 괜찮아. 라이 경의 소리 없는 다정한 위로는 그 뒤로도 한참이나 계속되었다.

\*\*\*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레아는 아빠 없는 아이로 자라야 했고 미혼모인 엄마의 딸로 살아야 했다. 물론 그거 때문에 손가락질받고 비난을 받은 적은 거의 없었지만 레아는 가끔 불쌍하고 안쓰럽다는 동정의 눈빛을 받을 때가 있었다.

레아가 엄마에게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나탈리 이모가 레아를 얼마나 아끼는지 가족 같은 이웃들에게 얼마나 귀염받고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아빠가 없는 아이. 미혼모의 딸. 누군가의 사생아.

자신을 그렇게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값싼 동정이 레아는 너무나도 싫었다. 그래서 오히려 레아는 일부러 더 씩씩한 척을 하고 당차게 굴었다. 그렇게 야무지게 행동해야 사람들은 레아를 불쌍한 아이 취급하지 않았다.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 나는 언제나 밝아야 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울어서도 안 돼. 항상 강하고 괜찮아야만 해.’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버릇이 들어버린 건지도 몰랐다. 무시 받고 살기 싫은 마음이 현재 레아의 성격을 만들었고 그 당차고 강한 성격 덕분에 레아는 황궁에 잘 적응해서 황녀로서도 잘살아갈 수 있었다. 그래서 레아는 자신의 성격이 마음에 들었다.

그런데 레아는 아주 어렸을 때 이후로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앞에서 울어버리고 말았다. 그것도 라이 경의 품에 안겨서 펑펑 울어버렸고 당연히 다음 날 아침 레아의 눈은 붕어처럼 퉁퉁 부어있었다.

“누가 봐도 어제 펑펑 울고 잔 사람의 얼굴이군.”

어제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울었던 건지는 레아도 알 수 없었다. 그냥 라이 경이 안아주고 토닥여주니까 괜히 힘들고 서러운 마음에 울어버린 거 같았다.

‘근데 라이 경은 갑자기 왜 나를 안아주고 토닥여준 걸까. 평소에는 무뚝뚝하고 뻣뻣하기만 한 사람이 어제는 무슨 바람이 불어서 다정하게 위로를 해줬을까. 설마 내가 그 정도로 불쌍해 보였나…?’

그래도 한번 시원하게 울고 나니 레아는 조금 후련해졌고 덕분에 잠을 설치지도 않았고 악몽도 꾸지 않고 푹 잘 자고 일어날 수 있었다. 비록 눈이 퉁퉁 부어버리긴 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좀 나아졌다.

‘라이 경한테 고맙다고 말해줘야지. 왜 그랬는진 모르겠지만 덕분에 속은 좀 후련해졌어. 생각도 좀 정리가 된 거 같아.’

어제 라이 경한테 안겨서 그렇게 울었으니 분명 라이 경의 옷은 레아의 눈물로 엉망이 되었을 게 뻔했다. 이거 말로만 고맙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세탁비라도 줘야 하나 레아는 잠시 고민을 했다. 하지만 그 고민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어머. 레아 황녀님! 눈이, 눈이 왜 그러세요?”

“아, 그게….”

“혹시 어젯밤에 우셨어요? 라이 경이 어제 방에 들어가 보지 말고 바로 가라고 했던 것도 그거 때문이었어요?”

“그게 사실은….”

“누구예요! 누가 우리 레아 황녀님 울렸어요!”

“저기, 일단 다들 진정 좀 하고….”

“황녀님.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그랬는진 모르겠지만 레아 황녀님께서 눈물 흘리신 만큼 저희가 대신 복수해드릴게요!”

“복수…….”

복수라는 말에 레아는 어제 하비투스가 말해주었던 엄마의 복수에 관한 얘기가 생각났다. 어제 라이 경의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운 후에 레아는 일단 하비투스의 말대로 흑마법을 배워서 일기장을 읽어볼 생각이었다. 물론 그 전에 레아와 같이 모든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 라이 경과 상의를 해볼 것이었다.

그래서 레아는 시녀들이 해주는 냉찜질을 받으며 라이 경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한 시녀가 레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저기, 레아 황녀님.”

“응? 왜요?”

“혹시 어제 하비투스 님께서 황녀님께서 아끼시는 소중한 간식을 다 먹어버려서 그게 분해서 우셨던 건 아니죠…?”

“아, 맞다. 내 간식.”

잊고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 어제 하비투스는 레아가 아끼는 소중한 간식을 다 먹어버렸다. 이제 꽉꽉 채워두었던 간식 창고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라 레아는 얼굴을 찌푸렸다. 그 모습을 본 시녀들은 레아에게 간식 얘기를 꺼낸 그 시녀를 노려보았다.

‘넌 왜 쓸데없이 그 얘기를 꺼내서…!’

‘아니…나도 혹시나 해서 꺼낸 얘기지! 근데 황녀님 표정 보니까 진짜 간식 때문에 우셨던 건가?’

‘보석이랑 구두, 드레스에 관심 없는 레아 황녀님이 맛있는 간식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다 알고 있잖아. 당연히 간식 때문이겠지.’

‘크윽. 그 인형처럼 예쁜 얼굴에 넘어가는 게 아니었는데….’

‘근데 간식 뺏긴 게 억울하고 분해서 이렇게 눈이 붓도록 우셨다니. 레아 황녀님 너무 귀여우신 거 아냐?’

시녀들은 그렇게 자신들끼리 눈빛을 주고받으며 다음에는 그 어떤 유혹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귀여우신 레아 황녀님의 소중한 간식을 지키겠노라 굳게 다짐했다.

62.행복이 날아옴.docx

레아 황녀님을 품에 안고 토닥거리며 말없이 따듯한 위로를 건넸던 그 날. 처음으로 좋아하는 여자를 품에 안아본 라이 경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 건데…. 드디어 내가 미쳐버린 게 틀림없어.’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게 충동적으로 황녀님을 끌어안았을 리가 없었다. 아직도 레아 황녀님과 한참을 끌어안고 있었던 그때를 생각하면 라이 경은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쿵쿵 뛰었다. 꼭 지독한 열병에 걸린 느낌이라 결국 뜬눈으로 하룻밤을 보낸 라이 경은 다른 날보다 훨씬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쓸데없이 일찍 일어나버렸군.”

최대한 뭉그적거리며 느릿느릿 씻고 준비를 했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라이 경은 할 일이 없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운동이라도 좀 하고 씻는 건데 이미 황궁으로 갈 준비를 마친 상황이라 인제 와서 아침 운동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럼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라이 경은 문득 책상 위에 있던 편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프레디가 레아 황녀님께 전해달라고 했던 초록색 봉투였다.

“…저건 좀 나중에 전해드리는 게 좋겠지.”

아직 누가 무슨 이유로 보낸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파란 봉투 안에 들어있던 편지를 읽고 프레디는 차라리 성탄절에 파티가 열리기 전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고백하는 편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아직 레아 황녀님의 얼굴을 보고 모든 걸 직접 이야기할 용기는 없어서 대신 편지를 전해달라고 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레아 황녀님께 이걸 드려선 안 될 거 같았다. 좀 더 상황이 나아지면. 레아 황녀님이 어제 받으신 충격이 완전히 사라지면 그때 이 초록색 봉투에 적힌 것들은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고 라이 경은 생각했다.

‘그러고 보니 어제 하비투스 님께 간식을 뺏겼다고 울상이셨지. 다 다시 사 드리겠다고 약속드렸으니 일찍 일어난 김에 과자나 사러 가볼까.’

원래는 다른 사람에게 시킬 생각이었지만 어차피 할 일도 없으니 직접 레아 황녀님께 드릴 과자를 사러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았다. 라이 경은 시간도 많이 남는 데 그게 좋겠다며 원래 기숙사가 아닌 집에서 황궁으로 갈 때 나가는 시간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집을 나와 거리로 나갔다.

‘저기가 레아 황녀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자점인가. 확실히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이 시간부터 줄을 서는 사람이 있구나.’

시간이 시간이니만큼 아직 문을 열지 않았는데도 과자점 앞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일곱 명이나 있었다. 간식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라이 경은 신기한 광경이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들 뒤로 가 줄을 섰다.

“줄 서시는 거예요? 이거 과자점 문 열면 바로 사 가려고 서는 줄인데.”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과자점에서 살 게 있어서 줄을 선 겁니다.”

“아, 그러시구나….”

지금 줄을 선 사람들은 라이 경 빼고 모두 심부름 나온 심부름꾼들이었다. 하도 인기가 많은 곳이다 보니 이 과자점에서 간식을 사려면 줄을 서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기에 대부분 높으신 분들은 다른 사람을 시켜 구매하는 편이었다. 다리아 영애 역시 심부름꾼에게 돈을 주고 브라우니를 구매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그런 심부름꾼들 사이에 라이 경이 끼어 있으니 당연히 눈에 띌 수밖에 없었다. 제국 최연소 소드마스터인 그가 누군가의 심부름으로 이 추운 날씨에 굳이 고생하고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했다.

‘여자친구 선물해주시려고 그러시나. 가끔 여자친구나 약혼녀 줄 거라고 직접 줄을 서시는 영식들도 있으니까. 저분도 사랑에 눈이 멀어 참 고생이 많으시구나.’

라이 경이 레아 황녀님의 호위기사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심부름꾼들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 뭐, 물론 황녀님의 호위기사라는 걸 알았어도 그럼 그 여자친구가 레아 황녀님이시겠구나 하고 생각했겠지만 말이다.

비록 여자친구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사랑에 눈이 멀어 이 추운 날 굳이 직접 줄을 서서 고생 중이란 건 부정할 수가 없었다. 라이 경은 그렇게 1시간 동안 기다리고 나서야 과자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

\*\*\*

‘아까까지만 해도 진짜 심각하게 퉁퉁 부었는데 지금은 또 붓기가 다 빠졌네. 꼭 마법 같다.’

진짜 심각할 정도라서 솔직히 조금 걱정했었는데 시녀들 덕분에 꼭 무슨 마법이라도 부린 것처럼 붓기는 싹 사라진 상태였다. 붓기를 없애주는 마법이 있다고는 들어본 적 없는데 레아는 신기하다고 생각하며 거울을 보고 있었다.

어제 레아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고 있는 라이 경도 붓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얼굴을 보면 뭐라 할지 좀 궁금했다. 그래서 라이 경은 언제 오려나 하고 레아는 계속 시간을 확인했다. 아직 라이 경이 올 시간이 되려면 좀 남았는데도 레아는 자꾸만 자신도 모르게 라이 경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혹시 어제 당분간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 달라고 했는데 아빠한테 가서 어제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고 오는 건 아니겠지?’

레아는 어제 울었다는 게 소문이 나면 보나 마나 황궁이 발칵 뒤집힐 정도로 난리가 날 게 뻔해서 시녀들의 입막음도 다 해놨는데 라이 경이 아빠에게 다 얘기해버리면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곧 어제 하비투스가 해준 이야기도 아빠가 알게 되실지도 몰랐다. 레아는 그것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막고 싶었다.

‘엄마는 아빠를 사랑한 게 아니었을지도 몰라. 애초에 처음부터 복수를 위해 접근한 거였으니까…. 적어도 내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아빠가 아무것도 모르셨으면 좋겠어.’

어제 하비투스의 이야기를 듣고 레아도 어쩌면 자신은 엄마와 아빠가 서로 사랑해서 생긴 아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릴 정도로 슬프고 충격이었는데 아빠는 그 얘기를 들으면 레아보다 더 큰 상처와 충격을 받으실지도 몰랐다. 그래서 레아는 가능하다면 아빠가 평생 그 이야기에 대해 모르시길 바랐다.

추억은 추억일 때 가장 아름다운 법이었다. 레아는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시계를 확인했다.

“라이 경. 오늘 좀 늦네요.”

“네? 아니에요. 아직 오실 시간이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아마 30분 정도는 더 있어야 오실 거예요.”

“흐음. 30분 후라.”

빨리 하비투스한테 가서 흑마법 배울 테니까 일기장 여는 법 알려달라고 해야 하는데. 원래 황궁에 있는 기숙사에서 지내는 라이 경이었지만 어제 라이 경도 많이 놀랐을 테니 집에 다녀오라고 했던 것이 레아는 조금 후회가 되었다.

‘그냥 나 혼자 하비투스한테 잠깐만 갔다 올까.’

하비투스도 황궁 소속 마도사이니 기숙사든 어디든 일단 황궁 안에 있을 것이었다. 그래서 잠깐 갔다 올까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역시 혼자서 하비투스를 찾아가는 건 조금 불안했다. 아직은 그를 완전히 신뢰할 수가 없기에 혼자는 좀 위험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갈 수도 없으니 레아는 라이 경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걸까. 레아는 라이 경을 기다리면서 계속 시간을 확인했고 그런 레아를 보며 시녀들은 몰래 뒤에서 입꼬리를 씰룩이고 있었다.

‘레아 황녀님. 오늘 라이 경을 애타게 기다리시네. 무슨 할 말이라도 있으신가?’

‘모르지. 그냥 보고 싶으신 걸지도.’

‘그러고 보니 어제 하비투스 님이 방을 나가시고 두 분이 한참이나 같이 있으셨잖아. 혹시 그때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나?’

‘혹시 어제 라이 경이 고백한 거 아니야? 그래서 레아 황녀님이 감동하셔서 눈물을 흘리시고!’

‘뭐야. 그럼 오늘 아침 레아 황녀님 눈이 퉁퉁 부으신 이유가…?’

‘세상에…! 만약 라이 경이 정말 레아 황녀님께 고백하신 거라면 나 죽어. 행복해 죽어!’

그래서 라이 경이 어제 시녀들에게 방에 들어가지 말고 바로 가라고 하고 레아 황녀님께서도 어제 우셨던 이유를 물어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으시고 어물쩍 넘어가신 걸까? 두 사람 다 부끄러워서 어제부터 1일이었다는 걸 숨기고 있는 거 같다고 생각하며 시녀들은 애써 웃음을 꾹 참으며 레아 황녀님께 슬쩍 질문했다.

“레아 황녀님. 혹시 어제 무슨 일 있으셨어요?”

“네? 갑자기 어제는 왜요?”

“갑자기 라이 경을 찾으셔서요. 혹시 어제 라이 경이랑 무슨 좋은 일 있지 않으셨어요?”

“어제 라이 경이랑….”

어제 라이 경이랑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라이 경이 레아를 꼭 안아주었고 눈물을 흘리자 조심스럽게 토닥여주며 달래주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한참이나 라이 경의 품에 안겨있었다고 생각하니 레아는 부끄러워서 순간 얼굴이 빨개졌다.

‘생각해보니…나 어제 라이 경한테 완전 민폐였잖아! 좋아하는 여자도 따로 있는 남자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물론 레아가 먼저 라이 경의 품에 뛰어든 게 아니라 라이 경이 먼저 레아를 끌어안은 것이었지만 생각을 하면 할수록 레아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부끄러워하는 레아의 모습은 시녀들의 오해에 불을 지폈고 시녀들은 아주 큰 착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 시녀들을 보며 레아는 황급히 그런 거 아니라고 손을 내저었다.

“아, 아니에요! 그런 일은 절대 없었어요!”

“어머. 그런 일이라는 게 무슨 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생각하는 그거요! 그런 일은 진짜 전혀 없었어요!”

“괜찮아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비밀 꼭 지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레아 황녀님.”

“아니, 진짜 아무런 일도 없었다니까요? 다들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요!”

“후후.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레아 황녀님.”

“진짜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아니라고 열심히 말해도 이미 빨개진 레아의 얼굴을 보며 시녀들은 확신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괜히 오해를 풀겠다고 레아가 얼굴이 빨개진 이유를 설명했다간 더 큰 오해를 부를 거 같았고 그렇다고 어제 있었던 모든 일을 설명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틀렸어. 내 말을 전혀 안 듣고 있잖아. 이걸 어떡해야 하지….’

지금 여기서 라이 경까지 오면 상황은 더 안 좋아질 거 같았다. 레아는 일단 자리를 피하고 나중에 제대로 해명을 하는 게 여러모로 좋을 거 같다고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잠시 산책 좀 하고 오겠다며 후다닥 도망치듯 방을 나왔고 그런 레아의 뒷모습을 보며 시녀들은 흐뭇하게 웃었다.

\*\*\*

‘내가 너무 많이 샀나. 레아 황녀님께서 좋아하실만한 걸 전부 담았더니 적어도 내년 봄까지는 먹고도 남을 정도로 사버렸군.’

원래는 딱 브라우니 하나만 사려고 했는데 막상 과자점 안으로 들어가니 레아 황녀님께서 좋아하실만한 게 가득해서 라이 경은 자신도 모르게 이것저것 잔뜩 구매해버렸다. 조금 과한 것 같지만 그래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걸어가고 있을 그때였다.

“거기 까만 머리 잘생긴 오빠!”

“………?”

“그래. 오빠. 잠깐만 이리와 봐.”

“저한테 무슨 볼일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응. 볼일 있지. 아주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

갑자기 처음 보는 붉은 머리에 새빨간 립스틱을 짙게 바른 여자가 라이 경을 불렀고 별로 좋은 느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니 라이 경은 일단은 그쪽으로 가보았다.

“중요하게 할 말이라는 게 뭡니까.”

“오빠. 아침 일찍부터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 거 같은데 선물이 고작 그게 다야? 여자친구가 애도 아니고 이건 좀 아니지.”

“그런 거 아닙니다.”

“거짓말. 아까 과자점에서 줄 서 있는 거 내가 다 봤거든? 딱 보니 심부름꾼은 아닌 거 같은데 여자친구 선물 사려고 그랬던 거잖아. 아니면 오빠가 먹으려고 산 거야?”

“누구를 주려고 산 건 맞지만 상대가 여자친구는 아닙니다.”

“그럼 여자친구는 아니고 좋아하는 여자 주려고 샀나 보네. 오빠 지금 짝사랑 중이구나?”

“……….”

대체 이 여자는 왜 라이 경에게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고 부른 걸까.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들 때쯤 그 여자는 씩 웃으며 라이 경에게 말했다.

“짝사랑 중인 여자한테 딱 그것만 선물로 주면 그 여자는 죽을 때까지 오빠 마음 절대 모를 거야. 요즘은 얼굴만 잘생기면 다 통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그러지 말고 꽃이라도 같이 사가는 건 어때?”

“결국, 꽃 팔려고 구구절절 호객행위를 하신 겁니까.”

“에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섭섭하지. 난 오빠를 위해 추천을 해주는 것뿐이야.”

“됐습니다. 꽃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좀 보기라도 해봐. 내가 특별히 싸게 해줄게. 그 여자도 분명 좋아할걸? 여자치고 꽃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거거든.”

레아 황녀님은 꽃보다 맛있는 간식을 더 좋아하실 거 같은데. 그래도 황궁 정원을 산책하는 걸 좋아하시니 꽃을 싫어하시는 건 아닐 것이었다. 라이 경이 대답이 없자 붉은 머리의 여자는 카틀레야 꽃다발을 보여주며 말했다.

“짝사랑 중이면 역시 카틀레야지. 이참에 용기 내서 고백해보는 건 어때?”

“안 됩니다. 다른 꽃이라면 몰라도 카틀레야는 절대 안 됩니다.”

“뭐야. 첫사랑 아니라서 그래? 첫사랑이 아니라도 원래 오빠처럼 어릴 때는 그냥 첫사랑인 척하는 거야. 첫사랑이 뭐 별거 있어? 지금 하는 사랑이 첫사랑인 거지.”

“그래도 싫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까다롭긴. 오빠 그 여자 엄청 좋아하나 보네.”

레아 황녀님은 라이 경에게 첫사랑이긴 했지만 그래도 카틀레야만은 절대 선물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자 붉은 머리의 여자는 잠시 고민을 하더니 라이 경에게 다른 꽃을 건넸다.

“그럼 이 꽃은 어때? 요즘은 좋아하는 여자한테 이 꽃을 선물하는 사람도 많아.”

“이 꽃은 무슨 꽃입니까?”

“팔레놉시스.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꽃말이 예뻐서 요즘은 고백할 때 많이 선물하는 꽃이야.”

“꽃말이 무엇입니까?”

라이 경의 질물에 붉은 머리의 여자는 소곤소곤 팔레놉시스의 꽃말을 알려주었고 라이 경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옅은 분홍색의 팔레놉시스를 한 다발 구매했다.

“오빠처럼 잘생긴 남자한테 꽃 선물 받는 그 여자는 좋겠네. 나도 오빠처럼 멋진 남자한테 고백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붉은 머리의 여자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예쁜 팔레놉시스 꽃다발을 라이 경에게 안겨주었다. 이제 레아 황녀님께서 기다리시는 황궁으로 가려는데 그 전에 라이 경은 아까부터 궁금했던 걸 물어보았다.

“그런데 왜 저를 오빠라고 부르시는 겁니까?”

“응? 싫어?”

“싫다기보다는 아무리 봐도 제가 오빠는 아닌 거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을까? 내가 27살인데 오빠는 20살 정도 된 거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오빠라고 부르시는 겁니까?”

라이 경의 질문에 붉은 머리의 여자는 마치 당연한 걸 왜 묻냐는 식으로 말했다.

“원래 잘생기면 다 오빠야. 그것도 몰랐어?”

“……그런 거였습니까?”

“그래. 어서 가봐. 오빠가 좋아하는 그 여자 기다리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붉은 머리의 여자는 어서 가보라는 듯이 손짓을 했고 라이 경은 좀 특이한 여자라고 생각하며 다시 레아 황녀님께서 기다리고 있으신 황궁으로 향했다.

63.처음으로 전한 솔직한 마음.docx

춥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오해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시녀들을 피해 도망 나온 레아는 정원으로 나오자마자 바로 후회를 했다. 급하게 나와서 목도리나 장갑도 없이 겉옷만 대충 걸치고 나온 레아는 찬바람에 손이 시렸다.

‘그냥 다시 들어갈까. 지금은 무슨 얘기를 해도 오해가 더 깊어지기만 할 거 같아서 일단 나온 건데 정원 말고 차라리 아빠한테 갈 걸 그랬나.’

어차피 시녀들이 좀 진정할 때까지 잠시 자리를 피하려는 것이었으니 굳이 정원으로 나올 필요까지는 없었다. 겨울이라 춥기도 하고 그렇다고 안 예쁜 건 아니었지만 정원에 화려한 꽃들도 없으니 산책하는 것도 재미없었다.

“분명 겨울에 피는 꽃들도 있을 텐데 왜 썰렁하게 아무것도 안 심는 걸까.”

꽃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아쉽다고 생각하며 레아는 시린 손을 호호 불며 정원을 산책했다. 라이 경은 언제 오려나 그런 생각을 하며 커다란 나무쪽으로 걸어가고 있을 그때였다.

“레아 황녀님!”

“아, 키린. 그리고…크라스 경도 같이 있었네요.”

“어쩐지 오랜만에 뵙는 거 같아 반갑고 기쁘군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레아 황녀님.”

“제가 좀 바빴었어요. 그냥 그럭저럭 잘 지냈고요.”

“잘 지내셨다니 다행입니다. 언제나 건강 잘 챙기셔야 합니다. 황녀님.”

“크라스 경이 신경 써주지 않아도 건강은 언제나 잘 챙기고 있어요.”

그냥 흔한 안부 인사이긴 했지만, 레아는 크라스 경을 별로 좋게 보고 있지 않았기에 그 말이 별로 좋게 들리지 않았다. 가운데서 두 사람 사이에 낀 키린은 눈동자만 데굴데굴 굴리다 레아를 보며 조금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레아 황녀님. 손이 빨개지셨어요! 어서 황궁 안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괜찮아요. 급하게 나온다고 장갑을 깜박해서 손만 조금 시린 거뿐이에요.”

“그래도 손이 시리면 온몸이 다 추워지잖아요. 하나도 안 괜찮아 보여요.”

그렇게 걱정돼 죽겠다는 표정으로 그런 말을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어쩐지 평소와는 다른 느낌에 레아는 왜 이러지? 하는 눈으로 키린을 바라보았다.

‘어제 하비투스가 좀 이상하다고 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보고 있는 건가. 어쩐지 좀 평소랑은 다른 것 같은 느낌이네.’

그런데 그건 그렇고 이 이른 시간부터 저 두 사람은 왜 같이 있는 거지? 레아가 알기론 크라스 경과 키린은 아무런 접점이 없는데 그냥 우연히 마주친 분위기는 아닌 거 같아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런데 키린이랑 크라스 경이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인지는 몰랐어요. 친한 사이였나요?”

“네? 아니요. 제가 어떻게 감히….”

“흐음?”

친한 사이가 아니면 아닌 거지 화들짝 놀라며 손을 내젓는 키린을 보며 레아는 왜 저러나 싶었다. 하지만 평민 출신인 키린이 하이모어 대공의 아들인 크라스 경과는 감히 친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키린이 저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었다.

“키린 양은 하이모어 대공 가문이 후원하는 아이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를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불, 불편해하다뇨! 그런 거 아니에요!”

“키린이 하이모어 대공에게 후원을 받고 있었군요. 몰랐어요.”

“그리 가난한 편은 아니었지만, 마법을 배우려면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요. 쉽게 배울 수도 없는 거라 저도 후원이 없었다면 절대 황궁 소속 마법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마법을 배우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드나요?”

마법은 애초에 자신에게 마력이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관심도 없었으니 레아가 교육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있을 리가 없었다. 주변에 마법을 쓰는 사람도 없어서 몰랐는데 키린의 말을 듣고 레아는 조금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다.

‘그럼 엄마는 흑마법을 대체 누구한테 배운 거지? 다른 시녀들은 몰라도 엄마는 피바람으로 고아가 됐는데 그럼 돈도 없었을 건데. 어떻게….’

어제 하비투스는 누가 엄마에게 흑마법을 가르쳐 준 건지 말해주지 않았었다. 레아는 엄마도 키린처럼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했다.

“근데 레아 황녀님께서는 아침부터 호위기사는 어디 가고 혼자 산책 중이셨던 겁니까?”

“어제 제가 라이 경한테 집에 좀 다녀오라고 해서 지금 황궁에 없어요. 그래서 잠깐 혼자 산책 중이었어요.”

“아무리 황궁 안이라고 해도 혼자 다니시면 위험합니다. 라이 경이 올 때까지 저와 함께 다니시죠.”

“네? 아니요. 이제 방으로 돌아갈 거라서요.”

“그럼 방까지 모셔다드리겠습니다.”

“저 혼자 돌아갈게요. 어차피 올 때도 혼자 왔고 곧 라이 경도 올 거니까 크라스 경은 신경 쓰지 마세요.”

“레아 황녀님께서는 다닐로만 제국의 유일한 황녀이신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겠습니까. 딱 방까지만 모셔다드리겠습니다.”

“아니, 진짜 괜찮은데….”

크라스 경이랑 같이 있기 싫어서 그러는 건데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됐다는 데도 크라스 경은 계속 굳이 방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하고 있었다. 어차피 황궁 안이고 정원에서 방까지 가는 길에 일이 생겨도 무슨 일이 생긴다고 저러는 건지 레아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굳이 누군가가 데려다준다면 크라스 경보다는 차라리 키린이 같이 가줬으면 좋겠는데….’

레아는 그런 마음으로 슬쩍 키린을 바라보았지만 키린은 레아의 눈을 피했다. 키린은 하이모어 대공의 후원을 받고 있고 크라스 경을 불편해하고 있으니 어쩔 수가 없었다. 하지만 레아는 아직 순순히 크라스 경과 같이 방까지 갈 생각은 없었고 무슨 좋은 핑계가 없을까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문득 레아는 저 멀리서 걸어오는 누군가의 모습이 보였다.

“라이 경!”

너무 멀리 있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저 키에 새카만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은 황궁에 딱 한 사람밖에 없었다. 레아는 타이밍 좋게 등장해준 라이 경을 보고 활짝 웃으며 그쪽으로 달려갔다. 말도 없이 슝 가버린 레아를 어이없다는 듯 바라보던 크라스 경은 키린에게 물었다.

“혹시 저 두 사람. 사귀는 사이는 아니겠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문은 많은데 사귀는 사이는 아직 아니세요. 특히 레아 황녀님께서는 라이 경을 그냥 친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신 거 같아요. 라이 경은 늘 표정도 없고 말도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불안한 싹은 완전히 잘라버리는 게 좋겠지. 너도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길 거 같으면 최선을 다해서 찢어놓도록.”

“네. 알겠습니다.”

아까 레아가 있을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두 사람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키린은 크라스 경과의 짧은 대화를 마치고 다시 시선을 돌려 라이 경에게로 달려가고 있는 레아 황녀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은 한숨과 함께 이런 말을 중얼거렸다.

“레아 황녀님. 조심하세요….”

대체 무엇을 조심하라는 말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키린은 딱 그렇게만 중얼거리고는 더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

‘그런데 이 꽃은…어떻게 드려야 아무런 오해 없이 자연스럽게 드릴 수 있을까.’

어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상처도 받으셨을 레아 황녀님께 당장은 좀 힘들어도 꼭 행복이 날아오기를 바라면서 팔레놉시스를 사기는 샀는데…. 이걸 어떻게 드려야 좋을지 라이 경은 고민이 되었다.

그 붉은 머리를 하고 빨간 립스틱을 짙게 바른 여자는 꽃말 때문에 요즘은 고백할 때 많이 선물하는 꽃이라고 했지만 라이 경은 레아 황녀님께 고백할 마음은 없었다. 이제는 마음을 접을 생각도 없었고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황녀님과 사귀고 싶다거나 연인이 되고 싶어진 것도 아니었다.

고백 같은 거 괜히 잘못했다가 껄끄러운 사이가 되느니 라이 경은 지금처럼 호위기사로서 레아 황녀님의 옆에 있고 싶었다. 그래서 이 팔레놉시스를 어떻게 선물해야 할지 더 고민이었다.

‘그냥 선물이라고 드렸다간 분명 주변에서 다들 수군거리겠지. 다른 사람들은 지금 레아 황녀님께서 얼마나 힘들지 모르고 있으니까 당연히 오해할 건데…. 그럼 어떻게 드려야 할까. 단둘이 있을 때 드리면 레아 황녀님께서 내 마음을 눈치채시지 않을까.’

라이 경은 한 손에는 팔레놉시스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레아 황녀님께서 좋아하실 간식을 들고 계속 고민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라이 경!”

“…레아 황녀님?”

황궁 안에서 이 시간에 황금빛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나풀나풀 뛰어올 사람이 레아 황녀님 말고 또 있을 리가 없었다. 라이 경은 레아 황녀님의 모습에 재빨리 팔레놉시스를 등 뒤로 숨겨버렸다.

“라이 경. 타이밍 맞춰서 잘 왔어요! 라이 경 아니었으면 곤란해질 뻔했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우연히 크라스 경이랑 마주쳤는데 괜찮다는 데도 굳이 굳이 방까지 데려다주겠다고 그래서 이걸 어떡해야 하나 하고 있는데 마침 딱! 라이 경이 보여서 도망 왔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돌아다니시면 위험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방에서 얌전히 기다릴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 시녀들이….”

“또 그렇고 그런 오해를 하는 겁니까?”

“네. 아무리 그런 거 아니라고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단 진정할 때까지 피해있으려고 도망 왔어요.”

“급하게 나오신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춥지 않으십니까?”

급하게 도망치듯 나온다고 겉옷만 챙기고 장갑이나 목도리 같은 건 챙길 틈이 없어서 당연히 손도 시리고 추웠다. 전혀 황녀답지 못한 레아 황녀님의 모습에 라이 경은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던 목도리를 풀어 레아 황녀님의 목에 둘러드렸다.

“앗….”

“이러다 감기라도 걸리시면 큰일입니다. 황녀님께서 열이 조금이라도 나면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걱정하실 겁니다.”

레그마인 황제 폐하뿐만 아니라 레아 황녀님이 감기에 걸리시면 마음 아파할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이었다. 그러니 레아 황녀님께서는 모두를 위해서 아프시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며 라이 경은 목도리를 꼼꼼히 둘러드렸다. 그런 라이 경을 보며 레아는 생각했다.

‘확실히…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런 행동은 오해할만한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단순한 호의라는 걸 알면서도 라이 경이 목도리를 둘러주는 순간 레아는 살짝 설렜으니까. 솔직히 라이 경처럼 잘생기고 좋은 사람에게 항상 돌부처 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레아는 처음으로 남자 때문에 두근두근하고 설렜다는 사실에 어쩐지 기분이 좀 이상했다.

어제 그렇게 엄청난 얘기를 들어놓고 지금 아무리 살짝이라도 설렌다는 마음이 든 게 레아는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었다. 그래서 괜히 작게 헛기침을 한 후 다른 말을 했다.

“크흠. 근데 그 꽃은 웬 거예요?”

“아, 꽃….”

“예쁘네요. 안 그래도 황실 정원에 꽃이 없어서 아쉽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서 난 거예요?”

“오늘 아침 오는 길에 꽃집에서 하나 샀습니다.”

“라이 경이 직접요? 의외네요.”

저 무뚝뚝하고 각목처럼 뻣뻣한 남자가 꽃집에서 직접 꽃을 샀다니. 레아는 꽃이 참 예쁘다고 생각하며 동시에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제 안고 토닥이면서 위로해준 것도 그렇고 이 꽃도 그렇고. 어쩌면 라이 경은 생각보다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일지도 모르겠네.’

우나타에 있을 때 레아를 꼭 친딸처럼 예뻐해 주셨던 브로디 아저씨도 겉보기에는 우락부락 단단하고 커다란 바위 같은 모습이었지만 알고 보면 마치 솜털처럼 부드러운 면도 있는 남자였다. 레아는 라이 경에게도 그런 의외의 모습이 있구나 하고 그 꽃다발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분명 가을에 얘기했던 그 여자에게 주려고 산 거겠지. 저 꽃은 분명 이제는 좋아하게 될 거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좋아하게 됐을지도 모를 그 사람에게 주려고 산 꽃일 거라고 레아는 생각했다.

‘누군진 모르겠지만 좋겠네. 나는 나 좋다고 꽃 선물 준 남자라고는 바람둥이 날라리 소공자인 프레디 소공자밖에 없었는데. 심지어 카틀레야보다 이 꽃이 더 예쁘다.’

물론 카틀레야도 예쁘긴 했지만, 레아는 이 분홍색 꽃이 더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레아는 단지 소공자의 첫사랑과 닮았다는 찝찝한 이유로 꽃을 받았으니 솔직히 말하면 라이 경에게 꽃을 받을 그 사람이 좀 부럽기도 했다. 그래서 레아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다.

“이 꽃 누구 주려고 산 거예요?”

원래 궁금해도 묻지 않으려고 했던 말이었는데 순간적으로 튀어나와 버려서 레아는 당황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말에 레아보다 더 당황한 사람은 라이 경이었다.

‘이걸 솔직하게 황녀님 드리려고 샀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 주려고 샀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걸 뭐라고 말해야 하나. 그냥 오다가 주웠다고 할까?’

하지만 아까 분명 오는 길에 꽃집에서 샀다고 했으니 오다 주웠다는 말이 먹힐 리가 없었다. 그리고 애초에 이런 예쁜 꽃다발을 이 한겨울에 길에서 주울 수 있을 리가 없었다. 라이 경은 그럼 뭐라고 말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당황한 라이 경을 보며 레아는 황급히 말했다.

“아, 얘기 안 해줘도 돼요. 궁금해서 나도 모르게 그만…. 곤란했다면 미안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건 그냥….”

그냥 꽃집 주인이 붙잡고 호객행위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려고 했다. 그런데 순간 라이 경은 아까 그 붉은 머리의 여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오빠처럼 잘생긴 남자한테 꽃 선물 받는 그 여자는 좋겠네.’

어째서 갑자기 그 말이 떠올랐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말과 함께 레아 황녀님께서는 방금까지 크라스 경과 함께 있었고 그가 됐다는 데도 방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했다는 말이 떠올랐다. 그리고 레아 황녀님께 고백할 거라고 했던 프레디 소공자의 얼굴도 떠올랐다.

“……….”

그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라이 경은 문득 이래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째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라이 경은 하려던 말을 삼키고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조금은 떨리고 긴장된 마음으로 레아 황녀님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레아 황녀님께 드리려고 샀습니다.”

“네? 저요?”

“네. 이 과자도 꽃도…전부 황녀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갑자기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라이 경은 솔직하게 말하면서 레아 황녀님께 팔레놉시스를 안겨드렸다. 당연히 좋아하는 여자의 이름을 말할 줄 알았는데 자신의 이름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 했던 레아는 갑자기 꽃을 받고 놀란 얼굴을 했다.

꽃을 받은 레아는 라이 경이 해준 목도리 때문에 이제 춥지도 않은데 점점 얼굴이 빨개지고 있었다. 그리고 꽃을 선물한 라이 경의 귀도 어쩐지 좀 빨개져 있었다.

64.레아가 좋아하는 건.docx

“레아 황녀님께 드리려고 샀습니다.”

“네? 저요?”

“네. 이 과자도 꽃도…전부 황녀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한 라이 경의 말에 레아는 속으로 깜짝 놀랐다. 그리고 부끄러워서 얼굴이 점점 빨개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왜, 왜 라이 경이 나한테 꽃을…?’

혹시 설마 정말로 어쩌면 진짜 라이 경이 그때 좋아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고 지금은 좋아하게 된 그 사람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생각을 하며 레아는 당황한 눈으로 라이 경이 안겨준 꽃다발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그 꽃다발 속에 작은 카드가 눈에 들어왔고 레아는 그 카드에 적힌 글자를 읽어보았다.

[팔레놉시스의 꽃말은 행복이 날아온다는 뜻입니다. 이 꽃을 선물 받은 당신에게 날아온 행복을 꼭 붙잡으세요.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행복을.]

고백할 때 많이 사가는 꽃답게 카드에는 달콤한 말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오히려 레아는 설레는 그 문구를 보고 오히려 아…아니구나 하고 생각했다.

‘어제 그 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우울해하고 있을까 봐 일부러 이런 꽃말이 있는 꽃을 선물로 주는 거구나. 아무리 힘들어도 행복은 늘 내 곁에 있으니까 그걸 꼭 붙잡으라고.’

원래 곁에 있는 그 행복이라는 게 꽃을 선물한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었고 결국 그 사람을 놓치지 말고 꼭 붙잡으라는 뜻이었지만 레아는 그 숨은 뜻까지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라이 경도 고백할 생각은 전혀 없었으니 사실 어떻게 보면 라이 경이 팔레놉시스를 선물한 이유를 정확하게 눈치챈 것이긴 했다.

하지만 어쩐지 라이 경은 조금 맥이 빠지는 느낌이었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레아는 활짝 웃는 얼굴로 라이 경을 보며 말했다.

“고마워요. 라이 경. 어제 하비투스가 해준 얘기 때문에 힘내라고 주는 거 맞죠? 저 이제 괜찮아요.”

어제 라이 경이 해줬던 위로 덕분에 레아는 마음을 잘 추스를 수가 있었다. 이제 완벽하게 괜찮아졌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긴 했지만 그래도 레아는 라이 경에게 예쁘게 웃어주었다. 그런 레아의 생각을 이미 다 알고 있는 라이 경은 조용히 작게 웃었다.

‘그래. 지금은 딱 이 정도 거리가 맞는 거겠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 정도만.’

너무 가깝지도 않고 그다지 멀지도 않은 이 적당한 거리로 라이 경은 만족하기로 했다.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레아 황녀님의 상황이나 마음 따위 무시하고 섣부르게 다가가고 싶지는 않은 마음이었다. 그런 라이 경의 마음을 알 리가 없는 레아는 기쁜 마음으로 예쁜 팔레놉시스와 줄 서서 기다려 산 간식들을 고맙게 받았다.

이제 라이 경이 왔으니 하비투스에게 가볼 생각인 레아는 혹시 몰라 간식은 지나가던 시녀에게 부탁해 방으로 가지고 가달라고 했다.

‘또 하비투스한테 다 털리면 안 되니까. 라이 경이 직접 과자점까지 가서 사준 건데 아껴 먹어야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비투스랑은 안 나눠 먹을 거야.’

좋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이 소중한 간식을 나눠 먹고 싶을 리가 없었다. 레아는 방으로 돌아가서도 시녀들에게 이 간식에는 손도 대지 말라고 단단히 말해둘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레아는 라이 경이 준 팔레놉시스는 품에 꼭 안고 하비투스가 있는 어두컴컴한 방으로 향했다.

“근데 이렇게 이른 시간에 말도 없이 찾아가도 괜찮은 겁니까? 하비투스 님이라면 아직 주무시고 계실 거 같습니다만.”

“자고 있으면 깨우면 되죠. 어제 그런 충격적인 얘기를 해놓고 혼자 마음 편하게 드르릉 쿨쿨하고 있으면 찬물 한 바가지를 뒤집어씌울 거예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안 될 건 또 뭐예요. 먼저 말도 없이 불쑥불쑥 찾아온 건 하비투스인데.”

어쩐지 레아 황녀님께서 점점 레그마인 황제 폐하를 더 닮아가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일까. 아빠와 딸이니 두 사람이 닮은 건 당연했지만 그래도 황녀님께서 황제 폐하와 너무 똑같아지실까 봐 라이 경은 좀 걱정이었다. 라이 경이 그런 걱정을 하는 사이 두 사람은 하비투스가 있는 어두컴컴한 방 앞까지 오게 되었다.

“보기만 해도 수상하기 짝이 없는 게 하비투스랑 딱 어울리는 곳이네요. 불길할 정도로.”

무슨 귀신의 집처럼 어두컴컴한 게 보기만 해도 불길하고 수상한 느낌에 레아는 얼굴을 찌푸렸다. 솔직히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와서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래도 혹시 뭐가 튀어나올지도 모르니 라이 경은 레아 황녀님께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 있으라고 한 후 직접 문을 두드려 보았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고 다시 한번 똑똑 두드려 봐도 여전했다.

“조용한데 방에 없는 걸까요?”

“하비투스 님은 기숙사 대신 이곳에서 모든 걸 해결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주무시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제 그런 폭탄 발언을 하고 혼자서 쿨쿨 늦잠까지 주무시고 있다니.”

물론 레아도 라이 경의 따듯한 위로 덕분에 악몽도 안 꾸고 푹 잘 자고 일어나긴 했었다. 오히려 세 사람 중에서 잠을 설친 사람은 라이 경뿐이었고 라이 경이 잠을 설친 이유는 굳이 따지자면 하비투스 때문이 아니라 레아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걸 알 리가 없는 레아는 얼굴을 찌푸렸다.

그냥 부숴버릴까. 레아가 여전히 조용한 어두컴컴한 방을 보며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을 그때였다. 절대 열리지 않을 것 같던 문이 벌컥 열리더니 방금 잠에서 깬 듯한 얼굴의 하비투스가 눈을 비비며 방에서 나왔다.

“…레아 황녀님. 그리고 라이 경.”

“안에 있었으면 노크한 지가 언젠데 문을 이제 열어요?”

“잠옷 입고 있는 거 안 보입니까? 자고 있었는데 라이 경이 노크하는 소리에 깼잖아요. 딱 보면 몰라요?”

“알아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자고 있으면 어떡해요? 자칭 다닐로만 제국 최고의 마도사라는 사람이.”

“어제 늦게 잤으니까 이 시간까지 자고 있죠. 저 어제 11시 50분에 잤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하비투스는 입이 찢어지게 하품을 했다. 그리고 기지개를 한번 쭉 켜더니 다시 한번 후아아아암 하품을 하며 말했다.

“아무튼, 두 분이 심심해서 땅따먹기하자고 저를 찾아오셨을 리는 없고 어제 말씀드렸던 그거 때문에 오신 거 맞죠? 누추하지만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대놓고 밖에서 할만한 자랑스러운 이야기는 아니었으므로 하비투스는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레아는 내키진 않았지만 라이 경과 함께 그 어두컴컴한 방 안으로 들어갔다.

\*\*\*

레아와 라이 경이 하비투스를 만나고 있을 때 오랜만에 레그마인 황제와 피에르 시종장, 가스파르 재상, 소니아 부인은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레그마인 황제는 평소와 달리 한없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왜 다 모이라고 한 건지는 다들 알고 있겠지.”

“네. 물론입니다.”

“저희 모두가 기대하고 기다리던 그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래.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

정말 정말 중요한 날인데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서 레그마인 황제는 걱정이 마를 날이 없었고 그래서 오늘 이 세 사람을 부른 것이었다. 세 사람 역시 그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알고 있기에 모두 한껏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 진지하고도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레그마인 황제는 오늘 모인 이유인 본론을 꺼냈다.

“곧 우리 딸 생일이야. 어떡하면 세상에서 제일 화려하고 성대한 생일파티를 해줄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란 말이지.”

“다른 분도 아니고 다닐로만 제국의 유일한 황녀이신 레아 황녀님의 탄생일과 성탄절을 함께 축하하는 파티이니 무조건 정성스럽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레아 황녀님의 탄생일이 성탄절에 묻혀버리면 안 되는 일이니까요.”

“그 날만큼은 모두가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끔 레아 생일에 집중하도록 해. 그 누구보다 우리 레아가 빛나야만 해.”

“네. 황녀님께서 파티 때 입으실 드레스와 신으실 구두, 보석 하나하나까지 공들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든 다 너무 예쁘게 잘 어울리는 레아였지만 그래도 그 날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반짝반짝 빛나야 했다. 레그마인 황제는 원래 세상에서 자신의 딸이 제일 예쁘고 반짝반짝 빛이 난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아무튼 레아의 생일에는 레아가 주인공이니 더욱 그래야만 했다.

‘아빠로서 처음 챙겨주는 딸의 생일이야. 그리고 날짜가 날짜인지라 겹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성탄절에 우리 레아 생일이 밀리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내 딸이 어떤 딸인데.’

그 어떤 보석보다 소중하고 밤하늘에 별보다 빛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하디귀한 하나뿐인 딸이었다. 그런 사랑스러운 딸의 생일이 성탄절 따위에 묻힌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사실 레그마인 황제는 딸의 생일을 축하하는 파티와 성탄절을 기념하는 파티가 겹치는 것도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았다.

“레아 생일파티랑 성탄절 파티랑 꼭 같이해야 해? 따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상관은 없지만, 레아 황녀님께서 싫어하실 겁니다. 황녀님께서는 폐하를 닮아 파티를 귀찮아하시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걸 피곤해하시잖습니까? 분명 싫어하실 겁니다.”

“그렇긴 하지. 그러면 아예 성탄절 파티를 열지 말고 우리 레아 생일만 챙기면….”

“그러시면 거품 물고 쓰러질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그것만은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황제 폐하.”

“자기들이 언제부터 성탄절을 그렇게 챙겼다고.”

어차피 그냥 황실에서 열리는 파티에서 인맥을 넓히고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참석하는 거면서. 그런데 왜 굳이 성탄절을 챙기려는 건지 레그마인 황제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레그마인 황제를 이해가 안 간다고 하겠지만 말이다.

‘아무리 레아 황녀님을 예뻐하셔도 그렇지 어떻게 성탄절 파티를…. 이거 다른 사람이 들으면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걸 넘어 난리가 났을지도 모르겠군.’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아무리 레아 황녀님을 예뻐하고 아끼신다고 해도 다른 날도 아니고 성탄절은…. 가스파르 재상은 이제 폐하께 레아 황녀님은 거의 여신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신 건가 하고 속으로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나도 아이가 생기고 아빠가 된다면 레그마인 황제 폐하처럼 돼버리는 걸까. 어쩐지 좀 무섭군.’

최근 부인과 이제 슬슬 아이를 가질 때가 된 거 같다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가스파르 재상은 레아 황녀님처럼 귀엽고 사랑스러운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었다. 그런데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모습을 보니 가스파르 재상은 조금 망설여지기 시작했다.

레아 황녀님 같은 딸은 가지고 싶었지만 레그마인 황제 폐하 같은 아빠가 되고 싶지는 않았다. 아무래도 부인에게 아이는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상의를 해봐야겠다고 가스파르 재상은 생각했다. 그리고 재상이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알 리가 없는 팔불출 아빠는 오로지 다가오는 딸의 생일에 대한 고민뿐이었다.

“레아한테 생일 선물로 뭘 해주면 좋을까.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야.”

“전에 지금까지 못 챙겨줬던 걸 다 챙겨주신다며 리스트를 뽑아 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럴 생각이었지. 그런데 레아가 싫대. 그 리스트에 있는 거 다 싫다고 그냥 제발 부탁이니까 생일만큼은 평범하게 보내고 싶대.”

“그럼 평범한 선물을 준비하면 되지 않습니까?”

절대로 줄 수 없는 걸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들도 다 받는 평범한 걸 원하신다는데 뭐가 문제일까 싶었다. 그러나 가스파르 재상의 말에도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는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피에르 시종장님은 레그마인 황제 폐하 대신 폐하께서 고민하시는 이유를 설명해주었다.

“레아 황녀님께서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선물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성탄절 선물까지도.”

“아예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고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네. 심지어는 파티에 참석하는 모든 이에게 선물을 받지 않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설마 저희에게도 선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저도 그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레아 황녀님의 뜻이 그러시다니 이 부분을 초대장에 적어서 보낼 예정입니다.”

“이럴 수가….”

레아 황녀님께 선물로 드리려고 점 찍어둔 것이 있는 가스파르 재상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을 했다. 레아 황녀님의 하얀 피부, 귀여운 미소와 잘 어울리는 핑크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브로치를 선물하려고 했는데 레아 황녀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실 거라니 가스파르 재상의 표정은 울상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흑진주로 만든 팔찌를 선물하려고 했던 피에르 시종장님 역시 어두운 얼굴이었다. 그렇게 똑같이 우중충한 얼굴을 한 세 남자를 보며 소니아 부인은 조용히 생각했다.

‘나도 레아 황녀님께 선물을 드릴 수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정말 다들 왜 이러실까. 레아 황녀님도 참 피곤하시겠어.’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는 레아 황녀님의 아버지로서 생일을 챙겨줄 수 없어서 속상해하시는 것이고 피에르 시종장님이야 황녀님을 며느릿감으로 탐내고 있으시니, 그렇다고 쳐도…. 남편은 도대체 왜 황녀님께서 선물을 안 받아주신다고 슬퍼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게 싫다거나 질투가 나는 건 아니었지만 그저 이런 반응에 질렸을 레아 황녀님이 좀 안쓰럽단 생각이 들었다.

“근데 레아 황녀님은 아무런 선물도 받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선 선물을 챙겨주실 생각이신 건가요?”

“당연히 챙겨줘야지.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엽고 깜찍한데 착하고 똑똑하기까지 한 내 딸인데 아빠로서 당연히 챙겨줘야지. 심지어 아빠인 내가 레아의 생일을 챙겨주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처음으로 챙겨주는 생일이니만큼 레그마인 황제는 자신이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해주고 싶었고 줄 수 있는 걸 모두 주고 싶었다. 그런데 레아가 받지 않겠다고 하니 레그마인 황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다.

‘드레스는 이미 충분하니 됐다고 그러고 보석에도 흥미가 없고 다른 것도 다 부담스럽다고 싫다는데 그럼 뭘 줘야 할까. 그렇다고 1년에 한 번뿐인 생일에 원하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간식으로 퉁 칠 수도 없고.’

도대체 무엇을 주어야 레아가 좋아할까. 평소에 레아가 맛있는 음식을 제외하고 또 무엇을 좋아했었는지 레그마인 황제는 열심히 머리를 굴렸다.

65.한 발자국 뒤에.docx

‘이 아침에 이렇게 어두컴컴할 수가 있다니. 심지어 불 켜는 스위치도 없는 거 같은데 이걸 신기하다고 해야 하나….’

황궁에 이런 공간도 있었다니. 하비투스는 이 어둠에 익숙한 건지 앞으로 잘만 걸어가는 거 같은데 레아는 뭐가 뭔지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혹시라도 무언가에 부딪혀서 넘어질까 봐 팔을 휘휘 저으며 조심조심 앞으로 걸어갔고 하비투스는 그런 레아를 조금 이상하다는 듯 바라보며 말했다.

“레아 황녀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왜 파닥파닥하고 있으세요?”

“파닥파닥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죠. 혹시 어디에 부딪혀서 넘어질까 봐.”

“아하.”

레아의 불만스러운 목소리에 하비투스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손가락을 가볍게 튕겼다. 그러자 순식간에 방에 있던 모든 촛불에 불이 붙었고 곧 컴컴했던 방안은 불을 켠 것처럼 환해졌다.

“이제 잘 보이시죠?”

“네. 촛불이 있으면 진작에 켜주지 그랬어요.”

“저는 글자 읽을 때 빼고는 촛불 안 켜서요. 그리고 애초에 이 방은 저 말고는 아무도 안 들어와서 켤 필요도 없었고요.”

이 사람은 이 어두컴컴한 방에서 혼자 불도 안 켜고 대체 뭘 하는 걸까. 레아는 역시 수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하비투스를 바라보았다.

“앉으세요. 의자 딱 하나밖에 없는데 레아 황녀님께 양보할게요.”

만약 하나뿐인 의자에 본인이 앉고 레아에겐 서 있으라고 했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려고 했는데. 레아는 왠지 좀 아쉽다고 생각하며 의자에 앉았고 하비투스는 그런 레아에게 시원한 우유 한 컵을 내주었다.

“원래 다른 사람은 절대 안 주는 건데 특별히 레아 황녀님께는 한 컵 드릴게요. 그것도 아무런 조건도 없이.”

“원래 시원한 우유 한 컵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내주는 게 보통 아닌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레아 황녀님만큼 어렸을 때는 시원한 우유는 1년에 딱 하루 생일 때만 마실 수 있는 특별한 거였는데. 어른들 몰래 냉장고에서 우유 훔쳐 먹다가 혼나면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세요?”

“아뇨. 별로 알고 싶지 않은데요.”

“아무튼, 저한테 시원한 우유는 정말 정말 소중한 겁니다. 레아 황녀님이니까 특별히 드리는 거예요.”

“생색내기는.”

황녀인 지금이야 말할 것도 없고 레아는 우나타에서 평범하게 살았을 때도 빵집을 운영했으니 언제나 우유는 물처럼 마시고 싶을 때마다 그냥 마실 수 있었다. 하지만 고아에 황궁 시종으로 살아야 했던 하비투스는 어릴 때 우유가 정말 정말 마시고 싶어도 생일이 아니라면 절대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몰래 냉장고에 있던 우유를 꺼내 마시다가 걸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얼마나 크게 혼이 났는지 30살이 된 지금 생각해도 서러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그래서 이제는 원할 때마다 배가 터질 때까지 시원한 우유를 마실 수 있는 하비투스였지만 여전히 그에게 우유는 소중하고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우리 엄마도 황궁에서 시녀로 일할 때 우유 훔쳐 먹다가 걸려서 혼나고 막 그러셨을까.’

괜히 아닌 척 말을 밉게 하긴 했지만, 레아는 하비투스의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엄마 생각을 했다. 대체 엄마는 황궁에서 어떤 삶을 살았던 건지 답답하게 아픈 마음에 레아는 입술을 꾹 깨물었고 그런 레아를 보며 하비투스는 잠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다가 진지하게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지 정하셔서 찾아오신 거 맞죠? 아리샤 누나의 복수를 대신 끝내주실 건지 아니면 그냥 영원히 묻어두고 지금처럼 살아가실 건지.”

“네. 근데 그 전에 물어볼 게 하나 있어요.”

“물어보세요.”

원래 레아는 물어볼 거 없이 그냥 그 일기장을 읽어봐야겠으니 일단은 흑마법을 배우겠다는 말만 딱 하고 나오려고 했다. 하지만 아까 크라스 경과 키린을 만나서 후원에 관한 얘기를 듣고 나니 레아는 물어봐야 할 것이 생겼다.

“엄마에게 흑마법을 가르쳐 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마법을 배우는 데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든다고 들었는데.”

“마법을 배우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하죠. 특히 흑마법의 경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들어가고요.”

“근데 그런 걸 고아에 시녀였던 엄마가 어떻게 배울 수 있었죠? 하비투스도 우유 하나 마음대로 마시지 못했을 정도였는데 어떻게 독학으로 마도사가 될 수 있었던 건지 말해주세요.”

“아, 우유 얘기는 하지 말걸.”

굳이 우유 얘기를 하지 않았어도 어차피 물어봤을 얘기였지만 하비투스는 가볍게 장난치듯 그렇게 얘기했다. 하지만 레아는 장난칠 기분이 아니었으므로 아무런 대꾸 없이 하비투스를 바라보았다. 그런 레아에게 하비투스는 아주 조금 난감한 듯하지만 단호하기도 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제 말씀드렸던 거기까지예요.”

“엄마의 복수에 제가 모르는 흑막이 있었던 건가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흑마법을 배우셔서 일기장을 읽어보시라는 말밖에 없어요.”

“왜 말해줄 수 없는데요? 말해줄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왜요. 설마 이것도 말 못 해줘요?”

“죄송합니다. 레아 황녀님.”

어제 그런 폭탄 발언을 하고 사람을 울렸으면 책임을 져야지 답답하게 구는 하비투스를 보며 레아는 얼굴을 찌푸렸다. 애초에 얘기를 꺼내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해주던가 아니면 얘기를 꺼내지 말던가 하지.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지 기분이 별로였다.

마음 같아서는 말해줄 수 없으면 그냥 됐다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다음 두 번 다시는 이 일에 신경 안 쓰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의 과거에 관련된 일이라서 인제 와서 관심을 끌 수 있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순순히 흑마법을 배울 생각은 없어. 내가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는 하비투스를 뭘 믿고 그런 무서운 마법을 덜컥 배우겠어.’

레아는 아직도 하비투스가 의심스러웠고 엄청나게 수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확률이 희박하기는 했지만, 어제 하비투스가 해주었던 얘기도 차분하게 다시 생각해본다면 어쩌면 거짓말일지도 몰랐다. 물론 엄마의 일기장을 읽어본다면 모든 수수께끼가 풀리겠지만…. 신뢰할 수 없는 하비투스의 말을 믿고 흑마법을 배울 수는 없다고 레아는 생각을 바꾸었다.

키린과 크라스 경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까지만 해도 일단은 흑마법을 배워볼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마음이 바뀔 줄은 몰랐다. 거기다 숨기는 게 너무 많은 하비투스 때문에 이제 레아는 그에게 흑마법을 배울 생각이 더 없어졌다.

“하비투스. 아직 엄마가 끝내지 못한 복수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일기장 내용도 궁금하기는 하지만 역시 하비투스에게 흑마법을 배우고 싶지는 않아요.”

“그럼 복수를 포기하고 이대로 모든 걸 묻고 살아가시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복수에 대해선 아직 잘 모르겠다고 말했잖아요. 내가 결정을 내린 건 흑마법을 배우지 않겠다는 것과 일기장을 읽어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그런 무서운 마법은 배우고 싶지도 않았다. 엄마의 일기장 때문에 잠깐 흔들리긴 했었지만, 레아는 끝내 흑마법을 배우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엄마가 대체 무슨 마음이었는지 내가 대신 복수를 해주길 바랄 정도로 피눈물 흘릴 일이었는지 그리고…만약 모든 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알아서 알아내고 결정해야 할 거 같아요.”

“흑마법이 그렇게 배우기 싫으신 겁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뭘 믿고 하비투스한테 그런 무서운 마법을 배우겠어요. 배워도 엄마와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한테 배워야지.”

“어째서요? 그 일기장이 어떤 일기장인지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텐데요.”

이제 이 황궁에서 아리샤 누나를 기억하고 추억하며 그리워하는 사람은 얼마 없었다. 그리고 그 얼마 없는 사람 중 누나가 하려던 복수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고 받았던 아픔과 절망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자신이 유일하다고 하비투스는 자신할 수 있었다.

그런데 흑마법을 배워도 그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배우겠다는 레아 황녀님의 말을 하비투스는 이해할 수 없었다. 의심하고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도 그 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런 하비투스에게 레아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하비투스에게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일에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한테 일기장을 주고 흑마법을 배우라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나한테 모든 걸 얘기해주는 것도 아니고. 하비투스가 나라면 믿고 배울 수 있겠어요?”

“흐음. 솔직히 믿을 수 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진 못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혼자서 조용히 뭐라도 해볼 거예요.”

레아는 이 일을 키우지 말고 최대한 조용히 끝내고 싶었다. 그런 레아의 결정이 하비투스는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그래도 당사자가 내린 결정에 이러니저러니 토 달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 대신 이제 얘기가 끝났으니 자리에서 일어나는 레아에게 하비투스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다.

“그래도 생각이 바뀌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레아 황녀님께서 복수하겠다고 하신다면 제 모든 걸 걸고 도와드리겠다는 건 변함없으니까요.”

“네. 알겠어요.”

하비투스의 말에 레아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과연 하비투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날이 올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솔직히 그런 날은 안 왔으면 좋겠다고 레아는 생각했다. 그렇게 레아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라이 경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실내와는 다른 차가운 공기에 레아는 어쩐지 공허해진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나 잘한 걸까. 과연 혼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막상 하비투스에게 흑마법을 배우지 않겠다고 말하고 나오자 레아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원래 흑마법을 배워서 일기장을 읽어보려고 했는데 단지 하비투스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괜히 생각을 바꾼 건가 싶기도 해서 레아는 조금 불안해졌다. 다시 생각해도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그런 무서운 마법을 배우는 건 너무 위험한 것 같았지만 올바른 선택을 제대로 한 건지는 확신할 수가 없었다.

태어나서 이런 일이 생긴 건 처음이었고 생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기 때문에 레아는 모든 게 헷갈리고 확신할 수가 없었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며 레아는 목도리에 얼굴을 파묻었고 라이 경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다.

‘여기서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겠지. 내가 해야 할 일은 한 발자국 뒤에서 레아 황녀님을 지켜드리는 것뿐이니까.’

황녀님을 지켜드리는 호위기사. 그리고 어쩌면 항상 옆에 있어 주는 좋은 친구. 그 정도가 지금으로선 라이 경이 레아 황녀님께 다가갈 수 있는 적정선이었고 동시에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이기도 했다.

라이 경은 호위기사로서 늘 한 발자국 뒤에서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서 레아 황녀님을 지켜드렸고 황녀님을 짝사랑하는 마음을 좋은 친구일지도 모르는 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다. 그리고 울고 싶을 때 꽉 안아드리고 힘내시라는 의미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꽃을 선물해드리기도 했지만 딱 거기까지만이었다.

딱 거기까지 라이 경은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먼저 레아 황녀님께 다가갈 수 있었다.

‘너무 가깝지도 않고 그다지 멀지도 않은 사이. 지금 이 정도가 딱 좋은 거야. 더 다가갈 수는 없어.’

분명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막상 조금은 가라앉은 레아 황녀님의 모습이 라이 경은 신경이 쓰였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저 작은 몸으로 버티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라이 경은 레아 황녀님을 대신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일을 해결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었다. 하지만 라이 경은 그럴 수가 없었다.

제국의 황녀님과 그녀의 호위기사.

그게 현재 레아 황녀님과 라이 경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말이었다.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라이 경은 레아 황녀님께 한낱 호위기사에 불과했다.

‘절대 이 선을 넘어선 안 돼. 레아 황녀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라도.’

라이 경은 그렇게 생각하며 언제나처럼 레아 황녀님의 한 발자국 뒤에서 걸어갔다. 그런데 레아 황녀님께서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혼자 뭐라고 중얼거렸다.

“아, 맞다. 우리 지금 같이 들어가면 안 될 거 같은데.”

“………?”

“어디서 시간이라도 더 때우다 들어가야 하나.”

아직 시녀들의 흥분이 가라앉히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거 같았다. 그리고 레아가 라이 경에게 팔레놉시스를 선물 받았다는 걸 알게 된다면…. 오히려 슬슬 꺼져가던 오해에 한 번 더 불을 지피는 꼴이 될 것이었다.

“레아 황녀님.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냥…우리 이대로 들어가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 같아서요. 특히 이 꽃을 보면…….”

“아.”

이 꽃을 본다면 거의 꺼져가는 그 오해에 다시 불을 지르고 부채질까지 하는 꼴이었다. 안 봐도 뻔한 그 상황에 레아와 라이 경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렇다고 선물 받은 걸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 어떡하면 좋을지 레아는 잠시 고민을 했다.

‘같이 들어가는 거야 산책하다 우연히 만났다고 하면 그만이지만 이건 뭐라고 해야 하나. 그냥 오다가 주웠다고 해야 하나?’

하지만 황실 정원에 심어진 꽃도 없는 지금 산책하다가 이렇게 예쁜 꽃을 주울 수 있을 리가 없었다. 뭔가 참신하고 좋은 변명이 없을까 레아는 고민했고 그런 레아에게 라이 경은 이런 말을 했다.

“레아 황녀님. 그 꽃 다시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설마 지금 줬다 뺏는 거예요…?”

“아뇨. 지금 가지고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테니 다른 사람에게 꽃을 잠시 맡겨놨다가 황녀님의 방이 아닌 다른 곳에 꽂아두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곳이요?”

“레아 황녀님이 자주 가시는 곳에 두라고 하겠습니다.”

“응. 그럼 부탁 좀 할게요.”

확실히 그러면 라이 경이 레아에게 꽃을 선물하며 고백했다는 이상한 소문은 나지 않을 것이었다. 진짜 그런 소문이 나서 남의 집 아들 혼삿길 막고 결국 자신이 책임지게 된다면 그게 피에르 시종장님과 라이 경에게 무슨 몹쓸 짓이냐고 생각하며 레아는 안고 있는 팔레놉시스를 다시 라이 경에게 주었다.

66.사춘기 고슴도치 딸….docx

“꽃을 잠시 맡긴다는 사람이 라이 경이랑 친한 다른 기사님을 말한 거였군요.”

“딱히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서….”

“하긴. 다른 시녀나 시종에게 부탁하면 어떡하든 소문이 날 거고, 그렇다고 제가 친한 분들은….”

“절대 부탁드릴 수 없는 분들이시죠.”

레아가 친한 사람이라고 해도 시녀들을 제외하면 아빠, 피에르 시종장님, 가스파르 재상, 소니아 부인이 전부였다. 모두 다닐로만 제국에서 내로라하는 사람들인데 아무리 레아가 황녀라고 할지라도 이런 사소한 걸 부탁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빠는 말할 것도 없고 피에르 시종장님도 본인 아들이 나한테 꽃을 선물로 줬다는 걸 알게 되시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시니 오해를 하시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고 그럼 대체 무슨 반응을 보이실지 걱정이라 절대 부탁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아빠도 이제 전처럼 대놓고 반대는 안 하겠다고 하셨지만….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니 최대한 숨기고 또 숨기는 게 좋을 거 같다고 생각했다.

“푸엘라 경이라면 그 초록색 머리에 밝은 호박색 눈동자 맞죠? 앙겔루스 제국으로 가는 첫날 라이 경 옆에 있었던 사람.”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셨습니까?”

“마차 안에서 심심하기도 했고 라이 경이 누구랑 친하게 얘기하는 걸 처음 봐서 신기했거든요. 역시 친했나 봐요?”

“네. 꽤 친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레아도 라이 경과 이렇게 친해지기 전이라 무뚝뚝하고 뻣뻣한 라이 경이 프레디 소공자가 아닌 누군가와 친해 보이는 게 신기했었다. 물론 라이 경과 친해진 이후로도 라이 경이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건 본 적이 없었지만 말이다.

‘그러고 보면 라이 경은 본인이랑 많이 다른 것 같은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는 거 같아. 푸엘라 경도 내 기억으로는 좀 가벼운 이미지였던 거 같은데.’

원래 끼리끼리 놀고 어울리는 거라고 했는데 라이 경은 그게 아닌 거 같았다. 레아만 해도 다리아 영애와 통하는 부분이 많기에 친하게 지내게 된 건데 라이 경은 어쩌다 푸엘라 경과 친해진 건지 레아는 좀 궁금했다.

“라이 경. 푸엘라 경이랑은 어쩌다 친해진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진 거 같습니다.”

“프레디 소공자랑도 그냥 어쩌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푸엘라 경이랑도 그냥 어쩌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라이 경은 친구들이랑 다 그렇게 친해졌어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기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친구 관계 때문에 노력한 적은 없었습니다.”

역시 잘생기고 실력도 있으니 인기가 좋은 걸까. 레아는 자신도 인기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라이 경은 역시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런 라이 경이 좋아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일지 궁금했다.

‘내가 지금 그런 거 궁금해할 상황이 아닌데 자꾸 궁금해지네. 과연 어떤 여자일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라이 경만큼 멋지고 대단한 사람이겠지. 레아는 라이 경이나 경이 좋아하는 그 여자나 참 부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방으로 돌아왔다.

“레아 황녀님. 산책은 잘 다녀오셨어요?”

“추우셨을 텐데 따듯한 코코아 타드릴게요. 이리 와서 몸 좀 녹이세요. 감기라도 드시면 큰일이니까요.”

“응. 고마워요.”

“라이 경도 코코아 한잔 타드릴까요?”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방으로 돌아오자 시녀들은 확실히 아까보다는 훨씬 진정되어 말을 하면 대화 정도는 될 거 같았지만 묘하게 입꼬리를 씰룩거리고 있었다. 레아는 일단 몸부터 좀 녹이고 시녀들이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그렇고 그런 일은 절대 없었다고 말해줘야겠다고 생각하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이런 거 해명하는 것도 지친다, 지쳐. 마음 같아서는 이제 오해하든 말든 그냥 무시하고 내버려 두고 싶기도 하지만….’

레아가 그런 소문을 나 몰라라 하고 퍼지든 말든 신경 안 쓴다면 당장 내일부터 라이 경의 신변이 위험해질지도 몰랐다. 그리고 무엇보다 라이 경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런 소문이 가만히 돌게 놔둘 수 있을 리가 없었다. 레아는 도대체 언제쯤이면 이런 소문이 사라질까 생각하며 하고 있던 목도리를 풀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던 시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어? 그런데 레아 황녀님. 그 목도리는 어디서 나신 거예요?”

“네? 목도리요?”

“아까 나가실 땐 장갑이랑 목도리 없이 겉옷만 급하게 챙겨서 나가셨잖아요. 그리고 황녀님 목도리는 분명 노란색….”

팔레놉시스에 정신이 팔려 잊고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 레아는 라이 경의 목도리를 하고 있었다. 그것도 라이 경이 직접 레아에게 둘러준 목도리!

‘망했다. 팔레놉시스를 푸엘라 경한테 맡기기 전에 이 목도리부터 라이 경한테 돌려줬었어야 했는데!’

라이 경이 직접 목도리를 둘러줄 때 살짝 설레기까지 했으면서 그걸 까먹고 있었다니. 레아는 멍청이도 이런 멍청이가 없다며 후회를 하면서 동시에 시녀들의 눈치를 살폈다. 다행히 시녀들은 아직 그 목도리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레아는 서둘러 목도리를 숨기며 말을 돌렸다.

“근데 라이 경이 사 온 간식은 어디 있어요? 방에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아, 받아서 바로 냉장고에 넣어 놨어요. 라이 경이 레아 황녀님이 좋아하시는 거로 잘 사 오셨더라고요. 덕분에 황녀님 간식 냉장고가 가득 찼어요.”

“어제 거덜이 났는데 다시 가득 차서 다행이에요. 소중한 내 간식들.”

“…크흠.”

어제 레아의 소중한 간식이 하비투스에게 탈탈 털리게 만든 장본인인 시녀들은 은근히 원망이 섞인 레아의 말에 민망해하면서 못 들은 척 딴짓을 했다. 그 모습을 보고 레아는 일단 급한 불은 어찌어찌 꺼지긴 했다고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목도리는 나중에 보는 사람 없을 때 몰래 돌려줘야지. 이건 뭐 라이 경이랑 비밀연애 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진짜 라이 경과 그렇고 그런 사이여서 비밀연애 중이면 억울하지나 않을 텐데. 레아는 이제 17살이 되는 내년부터는 일부러라도 남자를 좀 만나봐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한숨을 쉬었다.

\*\*\*

“레아. 오늘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지?”

“네? 그렇게 보여요?”

“응. 꼭 쳇바퀴 돌릴 힘도 없을 정도로 축 늘어진 다람쥐 같아.”

“축 늘어진 다람쥐….”

오랜만에 저녁 식사가 아니라 함께 차를 마시는 중 아빠는 조금 기운이 없어 보이는 레아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런데 힘이 없어 보인다는 건 그렇다고 쳐도 축 늘어진 다람쥐 같다니. 레아는 그게 대체 어떤 느낌이라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냥 오늘따라 좀 피곤해서 그래요. 아픈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흐음. 확실히 겨울이 되니까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럼 오늘 저녁부터는 보양식으로…….”

“아뇨. 그냥 오늘 그럴만할 일이 좀 있었어요. 지금도 아주 건강하니까 보양식 같은 거 안 챙겨 먹어도 돼요.”

레아는 겨울이라 체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고민하고 생각할 게 많다 보니 피곤한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걸 모르는 아빠는 걱정돼 죽겠다는 듯 얼굴을 찌푸렸다.

“그럴만한 일 무슨 일? 레아 무슨 일 있었어?”

“별로 큰일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우리 딸한테 무슨 일이 있었다는데 이 아빠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있나.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아빠는 모르셔도 되는 일이었어요. 정말 아주 작고 사소한 일.”

“하지만 레아. 아빠는….”

안 그래도 생각할 게 좀 많은데 그 일에 대해서 절대 몰랐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아빠가 자꾸 꼬치꼬치 캐물으니 레아는 솔직히 조금 짜증이 났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신경질적으로 말해버렸다.

“제 사생활이라고요. 아빠한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레, 레아…?”

“저도 아빠한테 말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숨기고 싶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

“자꾸 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아빠와 딸 사이라고 해도 지나친 관심은 독이라고요.”

그동안 쌓였던 불만 조금과 이런저런 일로 알게 모르게 받았던 스트레스가 결국은 짜증이 되어 아빠에게로 돌아가고 말았다. 처음으로 자신에게 얼굴을 찌푸리고 짜증을 내는 딸의 모습에 레그마인 황제는 충격을 받은 건지 그만 들고 있는 포크를 뚝 떨어뜨려 버렸다.

‘레아가…우리 레아가…내 딸이 나한테 처음으로 짜증을 냈어!’

가끔 단호하고 냉정하게 말한 적은 있었어도 이렇게 짜증을 내고 성질을 낸 적은 처음이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귀여운데 똑똑하고 귀엽기까지 한 어른스러운 딸이 그랬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레그마인 황제는 멍하니 레아를 바라보았다. 레아는 깊은 한숨을 쉬며 유명한 과자점에서만 파는 것이라는 브라우니를 포크로 푹 찔렀다.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레그마인 황제는 깊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설마…레아에게 사춘기가 온 걸까…?’

지금 레아의 나이는 16살.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17살이었다. 다른 애들은 사춘기가 보통 언제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춘기가 왔다고 해도 이상할 법한 나이는 아니었다.

딸이 이제 겨우 10살인데 사춘기가 왔다고 호들갑 떠는 귀족 부인이나 20살이 넘은 영애에게 사춘기냐고 묻는 사람도 있는 마당에 오히려 지금 레아에게 사춘기가 왔다는 건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레그마인 황제는 이건 절대 충격받고 놀라워할 일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었다.

‘사춘기 때 자칫 잘못하면 아빠와 딸 사이는 순식간에 남보다 못한 사이로 멀어질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한창 사춘기인 딸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민하고 가시를 바짝 세운 고슴도치보다 더 까칠하다고 하던데 과연 우리 레아도 그럴까.’

레그마인 황제는 아무리 상상해보려고 해도 까칠하고 예민함의 극치를 달리는 딸의 모습이 상상이 안 됐지만 원래 천사처럼 한없이 착하고 여린 아이일수록 더 지독한 사춘기가 온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레아에게 아주 강력한 사춘기가 온다고 해도 레그마인 황제는 딸과 절대 멀어지지 않을 것이었다.

‘고작 사춘기 따위에게 질 수는 없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기까지 한 내 딸과 절대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지 않을 거야. 절대로.’

\*\*\*

사실 레아가 짜증을 낸 건 사춘기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었지만 레그마인 황제는 100% 사춘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빠도 아빠는 처음이고 특히 가족이란 관계에 익숙하지 않은 레그마인 황제가 다짐만 한다고 해서 사춘기 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고 있을 리가 없었다.

그래서 레그마인 황제는 레아가 방으로 돌아간 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떡하면 좋을지 의견을 물어보았지만…만족스러운 답을 주는 이가 있을 리가 없었다.

“피에르 시종장. 아무래도 우리 레아한테 사춘기가 온 거 같아. 이제 어떡하면 좋지?”

“네? 그 천사처럼 곱고 맑으신 레아 황녀님께 사춘기가요?”

“나도 우리 딸한테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 하지만 레아도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17살이니까 생각해보면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니야.”

“그건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놀랍군요. 레아 황녀님께서 사춘기라니….”

“어째 아빠인 나보다 시종장이 더 충격받은 거 같은 이 느낌은 뭐지? 남들은 다 오는 사춘기인데 내 딸한테도 온 게 뭐가 그렇게 신기하다는 건지 모르겠군.”

“아, 아닙니다. 혹시라도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단지 제 아들은 사춘기가 온 적이 없어서 저도 모르게 그만….”

“라이 경은 사춘기가 안 왔었다고?”

“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말수도 적고 무뚝뚝한 재미없는 녀석이었습니다.”

딸은 없어도 레아랑 그나마 나이가 비슷한 아들을 둔 피에르 시종장에게 물어봤지만 하나뿐인 그 아들은 사춘기가 온 적이 없어서 시종장은 도움을 주고 싶어도 도움을 줄 수가 없었다. 딱히 해줄 말이 없었고 레그마인 황제도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런데…이런 건 누구한테 조언을 구해야 하는 거지?’

가스파르 재상과 소니아 부인은 아직 아이가 없으니 조언을 해줄 수 있을 리가 없었고 그렇다고 라이 경을 불러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제외하곤 레그마인 황제가 믿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다닐로만 제국의 황궁에는 없었다.

만약 아무나 붙잡고 조언을 구했다간 황궁에 레아 황녀님이 사춘기다! 하고 소문이 날 건데 그럼 레그마인 황제는 레아에게 두고두고 원망을 받을 것 같았다. 결국, 적절한 조언자를 찾지 못한 레그마인 황제는 밑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며 그라티아 황제에게 연락구슬로 연락을 해보았다.

“야. 나 고민 있어.”

[…갑자기 다짜고짜 연락해서 그게 할 말이냐.]

“우리 딸이 사춘기가 온 거 같아.”

[레아 황녀? 다음 달이면 17살인데 좀 늦게 왔네. 원래는 15살 때가 절정인 건데.]

“꼭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한다?”

[나 여동생 있잖아. 걔 사춘기 때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특히 아버지는 걔 앞에서 숨도 편하게 못 쉬시고 그랬을 정도였다고.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서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그라티아 황제. 네가 드디어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때가 온 거 같다.”

[뭐라고?]

전혀 기대 안 하고 해본 연락인데 의외로 수확이 있을 거 같아 조금의 기대를 품게 되었다. 그런 레그마인 황제의 말에 그라티아 황제는 어이가 없었지만 연락구슬을 꺼버리지 않고 레그마인 황제의 말을 들어주었다.

[그래서 고민이 뭔데? 레아 황녀가 사춘기라서?]

“사춘기 때 딸이랑 사이 틀어지면 영영 멀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

[하긴. 너 하는 꼴 보니까 레아 황녀가 가출 안 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긴 했어. 사춘기 때도 그렇게 굴면 아마 너 평생 싫어할걸?]

“진짜…?”

[넌 평생 레아 황녀처럼 착하고 마음 넓은 딸을 가진 걸 감사하면서 살아야 해.]

“우리 레아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내 딸이야. 항상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레아는 처음으로 레그마인 황제에게 가족이 되어준 존재니까. 레그마인 황제에게 레아는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을 쏟고 사춘기에도 신경을 쓰는 건데 그라티아 황제는 그런 레그마인 황제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럼 레아 황녀한테 그 과한 관심 좀 줄여. 사춘기인 딸은 그냥 되도록 건드리지 말고 가만히 놔두는 게 최선이야. 괜히 그때 똑바로 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사이가 멀어질 뿐이야.]

“난 한 번도 레아를 똑바로 잡으려고 한 적 없어. 우리 레아는 내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잘 해내는 똑똑한 아이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금 네가 레아 황녀에게 주는 관심은 너무 과해. 아빠가 일거수일투족을 다 신경 쓰고 관여하는데 어떤 딸이 그걸 좋아하겠냐?]

분명 아까 레아도 비슷한 말을 했었다. 아무리 아빠와 딸이라고 해도 과한 관심은 독이라는 그 말이 떠올라 레그마인 황제는 저절로 얼굴이 찌푸려졌다.

67.감동이야.docx

레아가 처음으로 아빠에게 짜증을 냈던 그 날. 레아는 그 일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었다.

‘한참 사춘기 때는 엄마랑 진짜 일주일에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 열심히 피 터지게 싸웠던 거에 비하면 이건 그냥 애교 수준이지. 그리고 솔직히 아빠랑 싸운 것도 아니었고.’

레아도 아빠는 처음이라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이 정도의 작은 짜증이나 투덜거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로 생각했다. 엄마와 나탈리 이모는 물론이고 우나타에 있는 가족 같은 이웃들과도 크고 작은 싸움으로 다툰 적이 몇 번 있는 레아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어떻게 한 번도 안 싸울 수가 있겠냐고 생각하고 있었다.

거기다 아빠와 레아는 태어날 때부터 함께 살았던 것도 아니었고 같이 지낸 지는 아직 1년도 되지 않았으니 지금까지 크게 싸우고 방문을 걸어 잠근 적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레아는 아빠와 충분히 잘 지내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었다.

‘진짜 폭풍의 사춘기가 왔던 14살 때가 아니라 16살에 만나서 다행이지 만약 그때 아빠를 만났다면…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지금이야 가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서 폭발할 때가 아닌 이상 어디 가서 성격 이상하다는 얘기는커녕 오히려 착하고 성격 좋다는 소리를 듣는 레아였지만 그때는 정말…. 스스로 생각해봐도 예민함의 극치를 달렸고 성격 파탄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할 정도로 레아는 폭풍의 사춘기를 보냈었다.

그래서 그때 엄마랑 싸우기도 엄청 싸웠었는데 바로 다음 해에 엄마가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 그때 말도 좀 잘 듣고 엄마랑 좀 더 좋은 추억을 만들 걸 그랬다고 레아는 후회하기도 했다.

아무튼, 레아는 아빠가 걱정하는 사춘기도 끝난 지 오래였고 아까 짜증을 냈던 일도 특별할 것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잊은 지 오래였다. 아빠처럼 그런 사소한 일을 확대하여 해석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레아는 그런 일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이 일기장을 읽어보지 않는 이상 엄마의 과거에 대해 파헤치는 건 시간이 좀 걸리겠지.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알아봐야겠어.’

괜히 마음만 급해져서 발만 동동 구르다가 실수를 하게 되는 법이었다. 레아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며 한숨을 쉰 후 엄마의 일기장을 다시 서랍 안에 넣어버렸다.

\*\*\*

“……….”

레아 황녀님께 보냈던 편지가 반송되었다. 오랜 시간을 들여 힘들게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서 쓴 건데 뜯어본 흔적도 없이 반송돼 다시 자신의 손으로 돌아온 초록색 봉투를 보며 프레디 소공자는 허탈한 마음이 들었다. 착잡한 마음으로 가만히 그 봉투를 바라보는데 프레디 소공자는 봉투 겉면에 익숙한 글씨체로 써진 글씨를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 레아 황녀님께서 힘드셔. 이 얘기는 나중에 해.]

익숙한 글씨체에 짧고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 내용에 프레디 소공자는 어이없는 웃음이 나왔다. 레아 황녀님께 무슨 일이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순식간의 큰 용기를 낸 자신의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기분이었다.

‘아마 뜯어보지도 않은 걸 보면 레아 황녀님 손에 가지도 않은 것 같네. 그 정도로 레아 황녀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기신 건가?’

그래도 과거 프레디 소공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이 초록색 봉투 안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을지도 알고 있는 라이 경이 그렇게 판단한 걸 보면 정말 레아 황녀님께 무슨 일이 생겨도 생긴 거 같기는 했다. 설마 라이 경이 레아 황녀님을 좋아한다고 일부러 전해드리지 않은 건 아닐 것이었다.

“그리고 보니 그 녀석…. 이제는 자기 마음을 인정했을지 모르겠군. 벌써 올해도 다 끝나가는 마당에.”

누군가를 좋아해 본 게 처음이라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가을에 있었던 파티 때까지만 해도 레아 황녀님을 좋아하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답답한 소리를 했었다. 그래서 그때 한 소리를 해줬으니 아마 지금은 자기 마음을 반 정도는 자각하고 있지 않을까 하고 프레디 소공자는 생각했다.

그렇게 멍청한 녀석은 아니니까. 혹시 좋아는 하지만 황녀님을 위해 더 다가가지 않고 지금 이 정도의 사이가 좋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은 조금 되기도 했지만 말이다.

‘라이는 레아 황녀님이 첫사랑이니까 역시 호구 짓도 하고 삽질도 하겠지. 그 자식도 사람이니까.’

원래 첫사랑이란 건 어설플 수밖에 없고 그 어설픔이 곧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순식간에 바보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도 뭐든 잘하는 녀석이니까 그렇게 많이 헤매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며 프레디 소공자는 짧은 한숨을 쉰 후 반송돼 온 초록색 봉투를 쓰레기통에 넣으려다 순간 멈칫했다.

“기억이나 감정도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랬다면 지금과는 많은 것이 달라졌을 거 같았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자 프레디 소공자는 이 구질구질한 감정을 버릴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초록색 봉투를 구기며 입술을 꾹 깨물었다.

프레디 소공자도 이미 알고 있었다.

지금의 자신은 나쁜 사람이었고 어리석고 재수 없는 찌질한 남자에 불과했다. 아픈 과거 때문에 삐뚤어졌다는 말로 포장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라이 경을 봐서라도 레아 황녀님께 더 다가가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었다.

‘난 그 두 사람이 잘됐으면 좋겠어. 내 첫사랑이 엉망진창이 된 만큼 그 녀석의 첫사랑은 아무런 탈도 없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아버지가 형을 국서로 만들고 싶어 하시고 형도 국서가 되고 싶어 하는 거 같아 보여서 그런 걸까. 프레디 소공자는 황녀님을 지켜드리고 싶고 동시에 레아 황녀님의 옆자리에 서고 싶었다. 국서라는 자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레아 황녀님의 옆자리에 있고 싶은 것이었다.

‘스텔라. 지금 이런 내 모습을 보면 넌 뭐라고 했을까?’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찾고 첫사랑을 허무하게 보내버렸다는 죄책감, 형을 향한 원망과 복수심 그리고 그리움이 섞여서 만들어진 호감으로 황녀님을 원하고 있는 프레디 소공자를 보면 스텔라는 과연 뭐라고 할까. 아마 항상 조용하게 웃던 스텔라도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화를 냈을 것이었다. 이제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첫사랑을 생각하며 프레디 소공자는 구겨진 초록색 봉투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 마음도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프레디 소공자는 곧 열리는 파티에서 레아 황녀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것이었다. 그리고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으실 텐데 한 번 더 말한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 싶었다.

어차피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백번을 말해도 레아 황녀님께서는 절대 프레디 소공자의 마음을 받아주시지 않을 것이었다. 그건 다른 사람보다 프레디 소공자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

사춘기 딸은 그냥 아예 건드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레그마인 황제로서는 상당히 마음에 들지도 않고 이해도 가지 않는 방법이었지만 솔직히 그 말을 완전히 무시해버릴 수도 없었다.

‘저번에도 그렇고 사실 그 녀석이 틀린 소리를 하는 녀석은 아니니까. 하지만 레아한테 관심을 줄이고 가만히 놔두라니. 설령 그게 정말 제일 나은 방법이라고 해도 그런 게 가능할 리가 없잖아…!’

하나뿐인 소중한 딸에게 관심을 줄이라니! 이건 레그마인 황제에게 마치 밥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차라리 숨을 안 쉬고 말지 팔불출 아빠는 절대 예쁘고 귀엽고 깜찍한 사랑스러운 딸에게 관심을 줄일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춘기 딸에게 귀찮기만 한 미움받는 아빠가 되고 싶지는 않았기에 레그마인 황제는 깊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당연히 레아는 그런 아빠가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요즘 우리 아빠 좀 이상하단 말이야. 언제부턴가 말도 많이 안 하시고 꼭 무슨 말을 하시려다가도 금방 아무것도 아니라고 침울해지시고.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건가?’

얼마 전에 레아한테는 쳇바퀴 돌릴 힘도 없이 축 늘어진 다람쥐 같다고 했으면서 요 며칠 아빠는 꼭 침울해진 골든 리트리버처럼 무기력해 보였다. 레아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는지 조금 걱정이 되었다.

“아빠. 괜찮으세요?”

“어? 뭐가?”

“그냥 요즘 계속 힘이 없으신 거 같아서요. 혹시 어디 안 좋으신 건 아닌가 해서요.”

“아냐. 그냥 요즘 일이 좀 많아서 피곤했나 봐.”

“요즘에 일이 많으세요?”

“연말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틀만 더 있으면 파티도 있잖아.”

연말이기도 하고 다가오는 파티 때문에 바쁜 건 사실이었다. 레아도 작년까지만 해도 연말에는 정말 정신없을 정도로 바빴고 아빠가 다가오는 파티를 얼마나 신경 쓰고 있으신지도 알고 있었기에 요즘 아빠가 얼마나 바쁜지 정도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단지 일이 많고 바쁘다는 이유로 무기력해질 아빠가 아닌 거 같아서 신경이 쓰이는 것이었다.

‘혹시 엄마가 과거 아빠를 죽이려고 독하게 마음먹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건 아니겠지? 나도 요 며칠은 바빠서 그 일은 신경 못 썼는데 혹시 들킨 건 아니겠지?’

그 일은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지만 레아는 그중에서도 아빠에게는 절대 알리고 싶지 않았고 가능하다면 평생 아빠가 그 일을 모르시기를 바랐다.

“아빠. 혹시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아니면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셨다거나….”

혹시나 해서 운을 띄우는 레아의 질문에 레그마인 황제는 순간 멈칫했다. 레아가 걱정하는 그 얘기는 아니었지만 레그마인 황제는 지금 며칠 전 들었던 충격적인 이야기 때문에 힘이 없어 보이는 건 맞았다. 하지만 레아에게 그걸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사춘기 딸에게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한 말도 사춘기 딸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지 모른다고 그냥 최대한 말을 아끼라고 했었지.’

아무리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절정의 사춘기를 보낼 때는 아주 작고 사소한 말에도 눈물을 터뜨리거나 화를 버럭 내버리니 말을 아끼는 게 답이라고 그라티아 황제는 말했었다.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는 답이었지만 지금으로선 다른 답이 없으니 레그마인 황제는 일단은 그 말을 따르기로 했다.

“아냐. 아무 일도 없었어.”

딸에게 좋은 아빠가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구나. 처음부터 어려울 거라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어서 쉽지 않을 거란 건 레아가 황궁으로 오기 전부터 각오하고 있던 일이었다. 하지만 레아가 황궁으로 온 후부터는 생각보다 똑똑하고 뭐든 알아서 척척 잘 해내는 딸 덕분에 레그마인 황제는 단 한 번도 힘들다거나 어렵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레아는 황제에게 지친 하루 비타민이 돼주었고 에너지가 돼주었다. 언제나 보물 같은 딸이었는데 레그마인 황제는 처음으로 아빠 노릇은 힘든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런 레그마인 황제에게 레아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건강 꼭 잘 챙기시면서 바빠도 무리하시면 안 돼요.”

“어…?”

“제 걱정만 하지 마시고 아빠 건강도 잘 챙기시라고요. 아파서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큰일이잖아요.”

“……….”

태어나서 아프지 말라는 말을 들어보는 건 처음이었다. 무리하지 말고 건강 잘 챙기라는 말도 처음이었기에 레그마인 황제는 속으로 많이 놀랐고 자신은 레아에게 항상 해주던 말이었지만 설마 레아가 이런 말을 해줄 줄은 몰랐다. 그런데 놀라고 얼떨떨한 레그마인 황제와 달리 레아는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냥 피곤하셔서 그런 거였구나. 엄마 과거는 아직 전혀 눈치 못 채신 거 같아서 다행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빠한테는 무조건 꼭꼭 숨겨야 해.’

사실 아빠에게 무언가를 숨긴다는 게 레아는 양심이 좀 찔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 모든 건 아빠를 위한 일이었다. 레아는 그렇게 생각하며 물을 한 모금 마셨고 아빠는 그런 레아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레아. 지금…아빠 걱정해준 거야?”

“네?”

“아빠가 요즘 말도 잘 안 하고 무기력해 보여서 걱정해준 거 맞지? 그렇지?”

“네. 그렇죠…?”

“세상에……!”

우리 딸이, 우리 딸이 아빠를 걱정해주다니…!

그 사실이 그렇게 감격스러웠는지 레그마인 황제는 입을 틀어막고 감동한 눈으로 레아를 바라보았다. 예민함과 까칠함의 끝을 보여주는 절정의 사춘기라고 생각했는데 아빠를 걱정해주다니! 레그마인 황제는 순식간에 레아가 사춘기인 거 같다는 생각을 깨끗하게 지워버렸다.

‘절정의 사춘기는 무슨. 역시 우리 레아는 아리샤를 닮아서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마음씨도 곱고 착한데 똑똑하기까지 한 내 딸이야!’

레아는 아빠를 쏙 빼닮아서 엄마인 아리샤는 별로 많이 닮지 않았지만 지금 레그마인 황제에게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은 그저 레아가 아주 그냥 예뻐죽을 거 같았다.

“역시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귀엽고 깜찍한데 사랑스럽기까지 하고 똑똑하기까지 한 우리 레아는 마음씨도 곱고 착하구나. 하나뿐인 우리 딸이 걱정하게 만들어서 아빠가 미안해. 당장 오늘부터 몸에 좋다는 건 다 챙겨 먹으면서 건강 챙길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응. 일도 적당히 할게. 너무 많으면 가스파르 재상한테 떠넘겨버리면 되니까.”

“아니, 그건 좀….”

설마 저게 다 진심은 아니시겠지? 레아는 어쩐지 가스파르 재상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벌써 들리는 것 같아 조금 미안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설마 아빠가 진심은 아닐 거로 생각하기로 했다. 그래도 아빠가 다시 평소처럼 돌아오셔서 다행이기는 했다.

“레아. 오일 파스타도 잘 먹네. 아빠 것도 먹을래?”

“아빠 건 아빠가 드셔야죠. 저는 괜찮아요.”

“아빠는 우리 레아가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더 먹고 싶으면 말만 해. 아빠가 배 터질 때까지 먹게 해줄게.”

“괜찮다니까요. 그리고 전 이제 디저트 먹을 거예요.”

“그래. 디저트도 더 먹고 싶으면 말만 해. 레아가 원한다면 산처럼 쌓아서 먹을 수 있게 해줄 수도 있으니까.”

“아뇨…. 정말 괜찮다니까요.”

정말 완전히 평소처럼 돌아오셨구나. 다시 돌아온 아빠의 모습을 보며 레아는 작게 웃었다.

68.아빠에게 딸보다 소중한 건 없다.docx

잠시 어딘가 조금 이상했던 아빠께서 다시 평소처럼 돌아오시고 정확하게 이틀 후인 12월 24일. 다닐로만 제국의 황궁에서는 제국의 단 하나뿐인 황녀님의 탄생일과 성탄절을 함께 축하하는 파티가 열렸다.

“사랑하는 우리 딸. 생일 축하해.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아빠.”

“오늘 생일이라서 그런지 유난히 더 예쁘다. 진짜 내 딸이라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 레아가 세상에서 제일 예쁠 거야. 어쩜 이렇게 예쁠 수가 있지?”

“하하….”

누가 봐도 레아는 아빠를 그냥 빼다 박았는데 아빠에게 그런 칭찬을 받아봤자…. 솔직히 기쁘다기보다는 어쩐지 기분이 좀 묘했다. 아빠는 그런 레아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생글생글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아빠가 준비한 선물은 좀 마음에 드니?”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응. 레아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했지만, 아빠가 처음으로 챙겨주는 우리 딸 생일인데 정말 아무것도 준비 안 했을 리가 없잖아.”

그 어떤 선물이라도 절대 안 받을 거니까 그 누구도 선물을 준비하지 말라고 했는데 역시나 아빠는 선물을 준비하셨구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빠는 무조건 선물을 준비하셨을 거란 건 레아도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런데 아직 레아는 선물을 받은 기억이 없어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런 레아를 보며 레그마인 황제는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파티장 한가운데 있는 동상을 가리켰다. 오늘은 레아의 생일이기도 했지만, 성탄절을 기념하는 파티이기도 했기에 당연히 성탄절과 관련된 것이겠거니 하고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자세히 보니 그 동상은…. 여신의 모습이 아니라 레아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동상이었다.

“뭐가 좋을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 딸 동상을 만들어주는 게 의미도 있고 좋을 거 같더라고.”

“……….”

“원래는 더 크게 제작하고 싶었는데 우리 레아가 이번 생일에는 평범한 선물을 받고 싶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실제 레아 키랑 똑같이 만들었어.”

“평범….”

“레아. 마음에 드니?”

사람 키랑 똑같은 동상이 평범한 선물이면 평범하지 않은 선물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레아는 복잡한 심경으로 자신의 동상을 바라보았다.

‘머리카락은 황금이고 눈동자는 에메랄드. 그리고 저 손에 들고 있는 붉은 꽃은 루비로 만든 거 같은데. 이건 또 가격이 얼마나 하려나….’

분명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비쌀 것이었다. 물론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챙겨주시려는 마음이 참 감사하기는 했지만…. 역시 아빠는 무엇을 예상하든 그 예상을 가뿐히 뛰어넘는 남다른 분이시라고 생각하며 레아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 그래도 날 위해서 준비해주신 선물이잖아. 그 감사한 마음을 받는 거로 생각하자.’

그렇게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파티장을 뛰쳐나가 버리고 싶을지도 몰랐다. 레아는 한숨이 입 밖으로 나오려는 걸 꾹 참으며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선물을 주지 않을 것이니 그걸 다행으로 여기자 하는 마음으로 아빠와 함께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레아는 곧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존경하는 레아 황녀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탄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판타시아 공작.”

“파티 초대장에 그 어떤 선물도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셔서 놀랐습니다. 안사람과 같이 레아 황녀님께 잘 어울릴 것 같은 구두를 알아봤는데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그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좋은 구두를 신으시고 꽃길만 걸어가시길 바라는 마음을 선물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며칠만 더 있으면 레아 황녀님께서도 17살이 되시니 부디 좋은 짝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하. 네….”

왜 선물을 받지 않냐면서 은근한 서운함을 표하면서 또 황녀님께서 자기 아들의 짝이 돼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을 알 듯 말 듯 넌지시 내비치는 판타시아 공작을 보며 레아는 어색하게 웃었다. 지금 파티가 제대로 시작한 이후로 이 비슷한 얘기만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그래도 좋게 봐준다는 거니 이걸 좋아해야 하는 건가.’

솔직히 아무리 황제의 유일한 핏줄이고 제국의 황녀라고 해도 사생아에 이런저런 출생의 비밀 때문에 가족이 된다는 건 좀 꺼리실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그건 또 아닌 모양이었다. 레아는 이걸 좋아해야 하나 싫어해야 하나 난감하기만 할 따름이었다.

그렇게 판타시아 공작과 짧은 대화를 마치고 레아는 아무도 모르게 작게 한숨을 쉬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던 라이 경은 기가 쭉쭉 빨리는 레아가 걱정된다는 듯이 물었다.

“레아 황녀님. 괜찮으십니까?”

“아니요. 안 괜찮아요….”

“이제 몇 명만 더 만나면 대충 파티장의 모두와 인사를 하셨으니 잠깐 테라스로 나가 쉬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진짜 오늘 파티는 지금까지 참석했던 그 어떤 파티보다 지치는 거 같아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오렌지 주스라도 좀 드시겠습니까?”

“인사 다 끝나고 테라스에서 쉬면서 마실래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의 축하를 받고 정신없는 피곤한 생일은 또 처음이라고 생각하며 레아는 빨리 오늘 하루가 끝나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이 인사들만 끝나면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며 레아는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 자신을 다독였다. 그런데 그때였다.

“아름다운 레아 황녀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퍼시 하이모어라고 합니다. 탄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하이모어 대공…?”

“네. 맞습니다. 저를 알고 계시는군요.”

“당연하죠. 제국의 황녀로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공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그렇습니까? 그동안 황실에서 열렸던 파티에서 먼저 인사하러 와주시지 않으셔서 황녀님께서는 저를 전혀 모르고 있으신 줄 알았습니다.”

“제가 먼저 하이모어 대공에게 인사를요?”

원래 나이 상관없이 지위가 낮은 사람이 먼저 높은 사람에게 인사하러 오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하이모어 대공의 말에 평소 지위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레아도 이건 무슨 헛소리인가 싶었다. 그리고 이제 황제의 사생아란 이유로 자신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은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 같아서 어이가 없기도 했다. 그래도 이런 취급 당하는 건 슬프게도 어느 정도는 익숙한 일이었다. 레아는 노련하게 입꼬리를 올리고 웃으며 하이모어 대공의 말을 맞받아쳤다.

“그래요? 저는 하이모어 대공이 먼저 인사하러 와주시지 않아서 대공이 제가 누군지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설마 모를 리가요. 황녀님께서는 레그마인 황제 폐하를 많이 닮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가 봐도 두 분이 가족이란 건 알 겁니다. 그리고 레아 황녀님의 태생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유명한데 대공인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런데 왜 인사하러 안 오셨어요?”

“네?”

“제가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딸인 것도 알고 있으시고 그럼 제국의 황녀라는 소리인데 어째서 하이모어 대공이 제게 인사하러 오시지 않으셨냐는 말입니다.”

딱 꼬집어 먼저 인사하러 왔어야 했던 건 내가 아니라 그쪽 아니냐는 레아의 말에 하이모어 대공은 흠칫 놀란 얼굴을 했다. 그러더니 금방 다시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돌아와 허허 웃으며 말했다.

“첫 파티 때는 제 둘째 아들인 프레디가 인사를 드렸다고 해서 괜히 저까지 갔다가 레아 황녀님께서 불편해하실 거 같아 일부러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파티 때도 첫째 아들인 크라스가 인사드렸다고 해서 인사드리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황녀님을 배려한다고 한 행동인데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뇨. 당연히 이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성격이 보통이 아니란 건 첫 번째 파티에서 직접 보기도 했고 그 이후로도 소문이 자자해서 잘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하이모어 대공은 설마 자신에게도 그러진 못할 거로 생각했다. 그런데 기죽지 않고 할 말은 정확하게 하는 레아의 모습에 조금 놀랐다. 하지만 곧 천사처럼 방긋 웃으면서 괜찮다고 말하며 당연히 이해할 부분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하이모어 대공은 그럼 그렇지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 레아는 자신을 만만하게 보고 무례하게 구는 사람에게 봐주기란 없었다. 항상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하는 법이었다.

“하이모어 대공이 그런 기본적인 예의범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는데 어쩌겠어요. 대공보다는 조금 더 잘 아는 제가 참아야죠.”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 너무 창피해하진 마세요. 무식하다는 게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뭐, 당당하게 드러낼 일도 아니지만요.”

“……….”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착한 미소를 지으며 나긋나긋 말하는 레아의 모습은 겉보기에는 악의란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반대로 하이모어 대공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하지만 보는 사람도 많은 파티장 안에서 감히 황녀님께 화를 내거나 기분 더럽다는 티를 팍팍 낼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그런 하이모어 대공이 지금 어떤 기분일지 뻔히 아는 레아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맑은 얼굴로 생글생글 웃었다.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알아서 나가떨어지겠지. 설마 이 정도로 대놓고 무시하고 창피를 줬는데 자기 아들을 국서로 만들려고 하겠어?’

아무리 아빠도 함부로 건들 수 없는 남자라고 해도 레아는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쓰기로 했다. 처음에는 레아도 그만큼 힘이 있고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니 조심했지만, 지금은 그런 거 신경 쓰고 싶은 마음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었다.

‘안 그래도 엄마 과거 파헤친다고 정신이 없는데 하이모어 대공이 내 알 바인가. 그냥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게 맞는 거지.’

뭐든 받은 대로 돌려주리라. 레아는 그렇게 생각하며 하이모어 대공이 이제 알아서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예상과 달리 하이모어 대공은 갑자기 의미를 알 수 없는 묘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는 있었지만 역시 레아 황녀님께서는 아버지이신 레그마인 황제 폐하를 많이 닮았군요. 친모 쪽은 거의 닮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말 그대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레아 황녀님과 아리샤는 전혀 닮지 않았어요.”

“하이모어 대공은 꼭 저희 엄마에 대해 알고 있으신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분명 엄마는 황궁 시녀였지만 황궁 내에서도 엄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었고 엄마의 직속 선배였다는 시녀들조차 많은 것을 알고 있지는 않았다. 그런데 뭔가 잘 알고 있는 듯한 하이모어 대공의 웃음에 레아는 왠지 모를 싸한 느낌이 들었다. 그런 레아의 반응에 하이모어 대공은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단순히 아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아리샤는 그 정도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사이였습니다.”

“특별한…사이요?”

“네. 아주 특별한 사이였죠. 궁금하신가요?”

도대체 우리 엄마는 얼마나 복잡한 과거를 보냈길래 지금 레아를 이토록 혼란스럽게 하는 걸까. 당연히 궁금하지 않을 리가 없는 얘기였고 레아는 당장 하이모어 대공에게 우리 엄마랑 무슨 사이였냐고 물어보려고 했다. 하지만 레아가 그 말을 꺼내기 전에 라이 경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그만하시죠. 하이모어 대공.”

“음. 오랜만이군. 라이 경.”

“지금 하시려는 얘기는 오늘과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인 거 같습니다. 더군다나 파티장에서 나눌 대화도 아닌 것 같으니 이제 그만하시죠.”

“라이 경. 자네가 뭔데 레아 황녀님과 내 대화를 막는 거지?”

“저는 레아 황녀님의 호위기사입니다. 그러니 황녀님을 지켜드리는 건 당연한 일….”

“그래. 지켜드리는 건 당연한 일이지. 그런데 그게 나와 황녀님의 대화를 막을 권리가 있는 위치인가? 내가 보기에는 주제넘은 행동일 뿐이야.”

“……….”

확실히 남들 눈에는 아직 하이모어 대공이 대놓고 선을 넘는 말이나 무례한 행동을 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라이 경은 지금 레아 황녀님께서 친모에 관한 이야기에 얼마나 민감하신지 알고 있기에 하이모어 대공을 막은 것이었다. 라이 경은 하이모어 대공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알고 있었고 안 그래도 요즘 머리 아프고 힘든 레아 황녀님이 대공과 엮이지 않길 바랐다.

하지만 그런 사정을 말할 수 없으니 라이 경은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런 라이 경을 보며 괜스레 레아도 기분이 좀 더러워졌다.

‘하이모어 대공이 뭐라고 내 호위기사한테 저딴 식으로 얘기하지? 기분 나쁘네. 라이 경은 현재로선 유일한 내 편인데 저런 소리 듣게 놔둘 수는 없지.’

차라리 자신에게 뭐라고 하는 건 익숙하기라도 하지 하이모어 대공이 라이 경에게 뭐라고 하자 레아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불쾌했다. 앙겔루스 제국에서 있었던 파티에서 소니움 황자가 라이 경에게 황녀님의 개라고 했을 때랑은 뭔가 좀 다른 느낌이었다.

“하이모어 대공. 말씀이 좀 지나치신 거 같군요.”

“레아 황녀님께서도 호위기사에게 좀 더 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황녀님께서 자꾸 이렇게 봐주시면 호위기사가 분수도 모르고 선을 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선을 넘는 건 하이모어 대공인 거 같은데요. 좋은 날 기분 망치고 싶지 않으니 여기까지만 하시고 이제 정말 그만하시죠.”

“하, 레아 황녀님. 황녀님께서 아직 잘 모르시나 본데 원래 이 바닥에서는….”

지금까지 아빠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지적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사실상 오늘 처음 본 아저씨가 뭐가 이렇게 말이 많은 건지 레아는 저절로 표정이 찌푸려졌다. 하지만 다행히 레아가 나서기 전에 레아를 구해줄 사람이 등장해주었다.

“하이모어 대공. 대공이야말로 이 바닥이 어떤 바닥인지 잊은 거 같습니다만.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죠?”

“아빠!”

“설마 내가 잠시 자리 비운 사이에 이런 일이 생겼을 줄이야.”

“레그마인 황제 폐하?”

아직 완전히 조져버리기엔 뭔가 2% 부족해서 이걸 조질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그때. 마침 아빠가 딱 등장해주었고 아빠는 마치 보호해주려는 것처럼 레아를 뒤로 물러서게 한 다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대공이야말로 잘 모르나 본데 이 아이는 제 딸입니다. 지금 제국의 황녀에게 이게 무슨 실례입니까?”

“하지만 폐하. 아무리 황녀님이라 한들 한낱 호위기사 주제에 선을 넘는 행동을 했는데도 레아 황녀님께서는 그 행동을 옹호하고 있으십니다. 이게 옳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애초에 제 딸의 호위기사가 주제를 넘든 선을 넘든 왜 그걸 하이모어 대공이 판단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엔 그게 주제넘고 선 넘는 행동입니다.”

“레그마인 황제 폐하…?”

“아빠인 저도 뭐라고 안 하는 부분을 제 딸을 잘 알지도 못하는 대공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웃기는군요. 어딜 감히 황족에게.”

분명 하이모어 대공은 아빠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서 조심하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아빠는 하이모어 대공에게 정색하고 화를 내고 있었다. 레아는 상황이 생각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빠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하이모어 대공. 당장 제 딸한테 사과하시죠.”

69.고백하지 마.docx

“하이모어 대공. 당장 제 딸한테 사과하시죠.”

“지금 겨우 이 정도 일로 저에게 폐하가 아닌 다른 이에게 고개를 숙이라고 하셨습니까?”

“다행히 귓구멍은 아직 안 막히셨군요.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레그마인 황제 폐하. 지금 하시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알고는 있으십니까?”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제국의 황제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그만한 무게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갑작스럽게 험악해진 분위기에 레아는 눈동자만 데굴데굴 굴리며 눈치를 보았다. 갑자기 왜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그 중심에는 자신이 있는 건지 정말이지 강렬하게 집에 있으면서도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나 사과 안 받고 여기서 끝내면 안 되나…? 그게 무슨 뜻이란 건지도 모르겠고 무섭다고! 그리고 우리 아빠가 얼마나 가벼운 사람인데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만한 무게가 있다는 거야!’

레아가 아는 아빠는 항상 생글생글 웃으면서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는 둥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둥 칭찬을 하는 전혀 황제답지 못한 사람이었다. 황제의 집무실에 다른 제국 황제가 혼자 있어도 그게 뭐가 문제냐고 하고 서류로 종이비행기 접어서 날리는 사람이 황제의 무게는 무슨 무게!

레아는 그렇게 소리치고 싶었지만, 사람이 많은 파티장에서 우리 아빠는 그런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을 리가 없었다. 사이에 끼인 레아는 정말이지 울고 싶었다. 그런데 그때 다행히 그 상황에서 레아를 구해줄 사람이 둘 등장했다.

“다리아 영애!”

“아…. 그게 레아 황녀님께 인사드리려고 왔는데 제가 타이밍을 잘못 맞춰서 온 걸까요?”

“아니에요. 잘 와줬어요. 고마워요. 다리아 영애.”

“………?”

안 그래도 어쩌면 좋을지 곤란할 때 마침 등장해준 다리아 영애가 레아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험악한 분위기에 잠시 눈치를 살피던 다리아 영애도 활짝 웃으며 반가워해 주는 레아의 모습에 안심한 듯 똑같이 활짝 웃었다.

“생일 축하드려요. 레아 황녀님. 아무런 선물도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셔서 손편지를 써왔는데 받아주시겠어요?”

“정말요? 저 이런 거 처음 받아봐요. 고마워요. 다리아 영애.”

“좋아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해요. 편지도 안 받아주실까 봐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친구인 다리아 영애가 주는 정성이 담긴 편지인데 어떻게 안 받을 수가 있겠어요. 정말 고마워요. 파티 끝나고 꼭 읽어볼게요.”

친구에게 이런 선물을 받아보는 게 처음인 레아는 정말 기뻐했고 진심으로 좋아해 주니 다리아 영애도 기분이 좋았다. 두 소녀가 그렇게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을 때 바로 옆에선 조금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었다.

“프레디. 네가 여기는 웬일이냐.”

“저도 파티에 초대되었으니 레아 황녀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레그마인 황제 폐하와 이야기를 나누시는 중이실 줄은 몰랐습니다.”

“타이밍이 안 좋았군.”

바로 옆에서 화기애애하고 훈훈한 분위기를 풍기는 것과 달리 여기는 썩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하지만 그래도 프레디 소공자가 등장해준 덕에 아까 그 얘기는 흐지부지 끝이 나는 거 같아서 다행이라면 다행이긴 했다. 하이모어 대공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이 프레디 소공자를 바라보다 고개를 돌려 다리아 영애와 같이 웃고 있는 레아에게 말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아 황녀님. 아까 나누었던 이야기에 관해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크라스를 통해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절대 연락하지 마. 레아. 기억에서 지워버려.”

“지나친 과보호는 보기 좋지 않습니다. 레그마인 황제 폐하.”

“혀가 잘리고 싶은 게 아니라면 그만 닥치고 꺼지는 게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요. 하이모어 대공.”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두 사람 사이에 찌릿찌릿 스파크가 튀는 걸 보고 레아는 그저 허허 웃기만 했다. 그래도 유혈 사태 없이 여기서 끝나서 다행인 건가…싶었다.

“레아. 하이모어 대공이랑 아까 얘기했다는 게 뭐지? 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하라는 거야?”

“아, 그게….”

평소와는 달리 하이모어 대공이 정말 마음에 안 드시는 건지 얼굴을 찌푸리고 묻는 아빠의 질문에 레아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대공과 나누었던 대화를 다 말해버릴 뻔했다.

‘엄마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지. 복수에 관한 얘기일지 아닐진 아직 잘 모르겠지만 무슨 사이였던 엄마가 하이모어 대공이랑 관계가 있었다고 하면 분명 아빠는 기분이 엉망이 되셔서 파티장 분위기가 살얼음판이 돼버릴지도 몰라.’

이미 아빠는 알고 있는 이야기일지도 몰랐지만 그렇다고 해도 자신이 좋아했던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과 무슨 사이였고 친하거나 가까웠단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쁠 것이었다. 그러니 레아는 아빠의 기분과 파티장의 분위기를 위해 하얀 거짓말을 하기로 했다.

“하이모어 대공이 가지고 있는 광산에 관해 얘기했어요. 어째서 3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양의 마법석이 나왔나 하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말도 안 되는 광산 말인가.”

“말도 안 되는 광산이요?”

“그래. 그 광산은 수상한 게 한두 군데가 아니야. 그래서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대공도 켕기는 게 있어서 그런지 얼마나 숨기고 경계하던지….”

이건 또 처음 듣는 얘기라 레아는 흥미롭게 잘 듣고 있었는데 아빠는 말을 하다 말고 갑자기 말을 딱 멈췄다. 그리고 다리아 영애와 프레디 소공자를 보더니, 레아에게 소곤소곤 귓속말했다.

“이 얘기는 다음에 다시 해줄게. 레아. 하이모어 대공의 아들이랑 다른 영애 앞에서 대놓고 할 얘기는 아니라서.”

혹시라도 하이모어 대공의 약점을 잡을 수 있을까 해서 귀를 기울이던 레아는 잠시 잊고 있었던 다리아 영애와 프레디 소공자의 존재가 떠올랐다. 그러고 보니 다리아 영애는 한때 운명의 상대라고 믿을 정도로 좋아했었던 프레디 소공자가 옆에 있으니 불편해하고 있었다.

‘분명 프레디 소공자도 나한테 할 말이 있어서 온 거 같은데 일단 다리아 영애랑 테라스로 도망가야겠다. 다리아 영애한테 부탁할 게 갑자기 생기기도 했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레아는 프레디 소공자와 딱히 중요하게 할 얘기도 없었다. 얘기라고 해봤자 또 씨도 안 먹힐 말도 안 되는 추파를 던지려는 거겠지 하고 생각하며 레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리아 영애의 손을 덥석 잡았다.

“다리아 영애. 우리 같이 테라스로 나가요.”

“네? 갑자기 테라스요?”

“계속 파티장에만 있어서 영애도 답답하잖아요. 할 얘기도 있으니까 잠깐만 같이 나갔다 와요. 싫어요?”

“네? 아뇨. 좋아요. 황녀님.”

“그럼 가요. 잠깐만 있다가 올 거니까 라이 경은 따라오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레아 황녀님.”

그렇게 레아는 다리아 영애의 손을 이끌고 테라스로 향했고 레그마인 황제와 라이 경, 프레디 소공자는 그런 두 소녀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누구 딸인지 몰라도 참 진취적이네. 역시 우리 레아. 멋있어.’

그런데 나중에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다고 그 남자 손을 저렇게 덥석 잡고 가버리면 어떡하지. 이제는 레아가 자신처럼 쓸쓸하게 살게 하고 싶지 않다며 누굴 좋아한다고 해도 엉망진창인 놈이 아닌 이상 목숨 걸고 반대하진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벌써 미래가 걱정되어 레그마인 황제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자신의 앞에 있는 무진장 잘생긴 두 청년을 바라보았다.

‘…만약 우리 레아가 저런 녀석이 좋다고 하면 아무리 우리 딸이 죽고 못 살겠다고 해도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야. 죽여버리겠어.’

프레디 하이모어. 저런 바람둥이 날라리에다 친부가 하이모어 대공인 몹쓸 놈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허락할 수가 없었다. 뭐, 굳이 자신이 반대하지 않아도 현명하고 똑똑한 레아라면 애초에 저런 녀석을 좋아할 리도 없겠지만 말이다.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신지 알 리가 없는 프레디 소공자는 자연스럽게 테라스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다 라이 경의 손에 붙잡혔다.

“어디가.”

“테라스. 보고도 몰라?”

“그러니까 네가 거기를 왜 가냐고. 딱 봐도 다리아 영애가 너 불편해하니까 레아 황녀님께서 같이 자리 피해주신 거 보고도 몰라?”

“당연히 알지. 근데 내가 레아 황녀님께 드릴 얘기가 있다는 거는 너도 이미 알고 있잖아.”

“설마 오늘 정말로 다 얘기할 생각은 아니겠지?”

“잘 알고 있네. 오늘 다 말씀드릴 거야. 나한테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 레아 황녀님과 닮았다는 건지 다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고백할 거야. 황녀님을 좋아한다고.”

“……….”

전에도 분명 똑같이 한 적이 있는 얘기였다. 지금까지 그게 프레디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는 라이 경은 그게 틀린 감정이란 걸 알면서도 말릴 수 없었다. 그저 나중에. 다음에 이야기하라며 프레디의 고백을 미루고 또 미루려고 했다. 하지만 오늘은 처음으로 그 고백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 나랑 얘기 좀 해.”

“갑자기? 무슨 얘기?”

“따라와.”

프레디는 갑자기 무섭게 왜 이러냐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라이 경은 그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프레디를 질질 끌고 파티장 밖으로 나갔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복도까지 나오고 나서야 라이 경은 프레디를 놓아주었고 오면서 계속 왜 그러냐고 시끄럽게 굴었는데 들은 척도 안 하다 이제야 자신을 놓아준 라이 경을 보며 프레디는 한숨을 푹 쉬었다.

“얘기 좀 하자고 다짜고짜 끌고 오더니 할 얘기라는 게 뭐야? 또 레아 황녀님은 지금 힘드시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하라는 얘기?”

“아니. 이제 네 고백 같은 거 미루게 할 생각은 없어.”

“그럼 응원이라도 해주게?”

“내가 미쳤냐?”

“혹시나 하고 기대했네. 그럼 그놈의 할 얘기라는 게 도대체 뭔데?”

양심도 없이 프레디는 정말 그러길 기대라도 한 건지 조금 실망한 얼굴로 라이 경을 바라보았다. 라이 경은 원래 이상한 놈은 맞았지만, 이 정도로 미친놈이었나 하는 마음으로 프레디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눈을 한번 감고 한숨을 쉬었다가 다시 진지한 눈으로 프레디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 마. 그 고백.”

“뭐?”

“2년 전에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스텔라가 너한테 어떤 존재였는지 왜 네가 스텔라와 레아 황녀님을 겹쳐 보는 건지. 전부 말하지 마. 그리고 레아 황녀님께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그 고백도…하지 마.”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잖아.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뭐야?”

“애초에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잖아. 레아 황녀님에게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찾으면서 좋아한다는 건 황녀님께 예의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내가 진심인데 뭐가 문제지? 그리고 그건 레아 황녀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 상태야. 우리 사이에 일인데 아무리 내 친구고 레아 황녀님의 호위기사라고 해도 네가 참견할 일은 아니지 않아?”

“우리…?”

“내 감정이 틀린 거고 레아 황녀님께 예의가 아니라고 해도 그건 레아 황녀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야. 네가 판단할 게 아니라.”

프레디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라이 경은 느꼈다. 결국, 이 녀석도 크라스 경과 다를 것 없는 녀석이었고 똑같은 하이모어 대공의 아들이었다. 아니, 차라리 크라스 경은 비열하고 이기적이라도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는 사람인데 프레디는 그저 자신의 상처와 감정에만 급급한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느껴졌다.

‘그런데 그걸 이제야 깨닫다니. 나도 참 어리석었군.’

이제 라이 경이 알던 그 착실하고 똑똑하던 모범생 프레디는 없었다. 그 사실이 라이 경은 허탈하게 느껴졌다.

“네 친구로서 하는 말이 아니야. 그리고 단순히 레아 황녀님을 지켜드리는 호위기사로써 하는 말도 아니야.”

“그럼 넌 대체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라이 경이 프레디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 그런 거 하나밖에 없었다.

“좋아하니까. 너랑 똑같이 레아 황녀님을 좋아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 분명 접는다고 하지 않았어? 내 말 듣고 마음이 바뀌기라도 한 거야?”

“네가 뭐라고 고작 네 한마디 때문에 내 마음을 그렇게 가볍게 바꿨을 리가 없지.”

“그럼 왜 갑자기 마음을 안 접기로 한 건데?”

라이 경이 아무리 접으려고 해도 레아 황녀님을 향한 마음은 종이비행기를 접듯이 그렇게 간단하게 접히지 않았다. 오히려 접히기는커녕 불쑥불쑥 충동적으로 나와버려서 이제는 접어버리기에는 그 마음이 너무 커져 버렸다.

“그땐 너와 그런 식으로 얽히고 싶지 않아서 내 마음을 접으려고 했었어. 잘못했다간 친구 사이가 끝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되더라도 레아 황녀님의 옆에서 황녀님을 지켜드리고 싶어졌어.”

“우정보다 사랑이다…이건가?”

“먼저 그쪽을 선택한 건 너다.”

“근데 꼭 네가 고백하면 레아 황녀님께서 무조건 받아주실 것처럼 얘기한다?”

“안 받아주셔도 좋아. 지독하게 차여서 다시는 볼 수 없게 된다고 해도 마음 접을 생각은 없어. 그러니까 네가 이러는 꼴도 더는 못 봐줘.”

“그래. 그렇단 말이지.”

라이가 레아 황녀님을 좋아하고 짝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진작에 눈치채고 있었고 마음을 접겠다고 했을 때도 느려터진 거북이 취급하며 그 마음 접지 말라고 했지만 설마 그 마음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프레디 소공자도 상상하지 못했었다. 그런데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는 라이를 보자 프레디 소공자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그래. 어쩌면 레아 황녀님을 처음 뵀을 때부터 어렴풋이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던 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 녀석 옆에 있던 레아 황녀님께 더 관심이 가고 흥미가 생겼고 재밌다고 생각했던 걸지도.’

위즈덤 부인의 머리에 토마토 주스를 부어버린 레아 황녀님과 그 옆에 있는 라이의 모습을 봤을 때 들었던 생각과 느낌. 지금 생각해보면 다 이런 날이 올 거란 걸 어렴풋이 느꼈던 걸지도 모르겠다. 프레디 소공자는 그렇게 생각하며 평소와 똑같이 가벼운 느낌으로 말했다.

“그럼 우리 둘 다 우정보다는 사랑을 선택했으니 친구 사이는 이제 여기서 끝인 거겠네.”

“그렇겠지.”

“그렇구나.”

길고 질긴 우정의 끈이 끊어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었다. 그런데 어쩐지 두 사람은 오랜 친구를 잃었음에도 아쉽거나 섭섭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이었다.

‘그래. 이러는 게 맞는 거겠지. 레아 황녀님을 위해서, 라이를 위해서도….’

프레디 소공자는 혼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조용히 웃었다.

70.적이 늘었다.docx

“다리아 영애. 괜찮아요?”

“하하. 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레아 황녀님.”

“저도 프레디 소공자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다리아 영애도 알잖아요. 그 자리에 있기 싫었어요.”

물론 다리아 영애가 불편해하기도 하고 진짜 할 얘기가 있어서 같이 테라스에 나가자고 한 것도 있었지만 레아도 프레디 소공자를 피하고 싶어서 테라스로 도망 온 것이기도 했다. 안 그래도 하이모어 대공 때문에 기분 안 좋은데 거기서 굳이 프레디 소공자와 말을 섞고 싶지는 않았다.

‘생각해보면 처음 만났을 때부터 프레디 소공자랑 엮여서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진짜 단 한 번도.’

그나마 좋지는 않아도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았던 건 소공자에게 춤을 배웠을 때려나. 레아는 그렇게 생각하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럼 할 얘기가 있으시다고 하신 것도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한 핑계였나요?”

“아, 아뇨. 할 얘기 있다는 건 정말이었어요. 부탁하고 싶은 것도 조금 있고요.”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릴게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다리아 영애.”

어른들의 도움을 받기는 좀 그런 상황에서 레아는 오로지 라이 경만이 믿을 수 있는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다리아 영애도 든든한 같은 편이 돼줄 거 같았다. 하지만 역시 아직은 라이 경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는 좀 어려웠다.

‘지금 여기서 할만한 얘기는 아니니까. 나중에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때 다리아 영애한테도 전부 얘기해줘야지.’

그래도 부탁할 것도 있었고 다리아 영애가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니 레아는 꼭 내년 봄이 오기 전에는 다리아 영애에게도 모든 걸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사실 그걸 얘기해주기 전에 부탁부터 한다는 게 좀 걸리긴 했지만, 레아는 착한 다리아 영애라면 이해해줄 것으로 생각했다.

“다리아 영애. 영애는 비밀을 참 잘 지키는 사람 맞죠?”

“그럼요. 비밀 얘기를 하시는 걸 보니 하이모어 대공에 대해 뒷조사해달라는 부탁을 하시려는 거죠?”

“역시 다리아 영애는 눈치가 빠르다니까. 마음에 들어요.”

“아까 레그마인 황제 폐하와 하이모어 대공께서 얘기하시는 걸 조금 들었거든요. 폐하께서 황녀님께 얘기하시는 것도 다 들었기도 하고요.”

“그럼 미안하지만, 부탁 좀 할게요. 영애도 대충 눈치는 챘겠지만 하이모어 대공이 가지고 있는 광산에 대해서 좀 알아봐 주세요. 정말 시시콜콜하고 쓸데없는 정보까지 싹 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이유는….”

나중에. 나중에 꼭 얘기해주겠다고 말하려니 레아는 다리아 영애에게 미안해서 그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그런 레아를 보며 다리아 영애는 씩 웃으면서 말했다.

“다음에. 다음에 얘기해주세요. 오늘 레아 황녀님 생일이고 좋은 날인데 어려운 얘기라면 다음에 얘기해주세요.”

“그래도 되겠어요? 다리아 영애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아요?”

“솔직히 전혀 안 궁금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기다리면 레아 황녀님이 먼저 말씀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다리아 영애…. 고마워요.”

“뭘 이런 걸 가지고요.”

말하기 좀 미안한 부분을 먼저 눈치채고 알아서 말해주면서 상냥하게 웃어주는 다리아 영애가 레아는 너무 고마웠다. 레아는 황녀가 되고 처음으로 사귄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다리아 영애를 따라 싱긋 웃었다.

그렇게 레아와 다리아 영애는 얘기를 마치고 다시 파티장 안으로 돌아갔고 다행히 프레디 소공자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어째 라이 경의 모습도 보이지 않아서 레아는 두 사람이 무슨 할 얘기라도 있어서 같이 나간 건가 하는 생각을 했다.

‘지금 자리로 돌아가면 분명 춤 신청을 받을 거 같은데 구석에 숨어있는 게 좋으려나. 으음. 라이 경 없이 혼자 구석에 있기는 좀 그런데.’

이렇게 된 거 라이 경이 올 때까지 얌전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레아는 라이 경이 어디로 갔을까, 언제 오려나 생각하며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런데 그냥 잠시 걸음을 멈췄을 뿐인데 그 잠깐 사이에 누군가 레아에게 말을 걸었다.

“레아 황녀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탄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크라스 경….”

하필 라이 경도 없을 때 이 남자를 만날 게 뭐람. 레아는 대놓고 싫다는 얼굴을 했지만 크라스 경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레아에게 계속 말을 걸었다.

“오늘은 라이 경 없이 혼자 있으시군요. 라이 경은 도대체 어디에 뭐하러 간 겁니까?”

“글쎄요. 라이 경도 사람인데 언제든지 24시간 계속 제 옆에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래도 황녀님의 호위기사답지 않은 행동입니다. 레아 황녀님을 혼자 있으시게 만들다뇨.”

“제가 괜찮다는데 크라스 경이 그런 말을 하는 건 좀 웃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레아 황녀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이 괜찮으시다는 겁니까?”

“안 괜찮을 건 또 뭔가요. 오히려 지금 저한테 꼭 아랫사람 가르치듯 말하는 크라스 경의 그 태도가 괜찮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런 의도로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무례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선 넘지 말고 주제넘지 마세요. 기분 나쁘니까.”

“레아 황녀님의 마음을 얻기란 밤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일이군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노력은 모두 오답이었으니까요.”

“노력…이요?”

지금까지 크라스 경이 레아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다고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대체 어디서 어떻게 뭘 노력했다는 건지 레아는 어이가 없었지만 크라스 경이 했다는 그 노력에 대해 별로 알고 싶지는 않았다.

“얼마 전에도 그렇고 자꾸 저한테 말 붙이시고 선 넘으시는데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너무 불쾌하고 싫어요.”

“앞으로는 레아 황녀님께서 불쾌하다고 느끼실 행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황녀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째서요? 굳이 나랑 말을 섞고 싶은 이유라도 있으신 건가요? 혹시 권력을 원하시는 거라면 나한테 잘 보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권력이나 지위 같은 거 관심 없습니다. 저는 그냥 레아 황녀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뿐입니다.”

“이상한 말이네요. 그냥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니.”

물론 권력이나 지위에 관심이 없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때로는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는 법이었다.

“아니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건 남자로서 당연한 마음이니까요.”

“…네?”

“갑작스러우시겠지만 전 레아 황녀님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혼담을 보냈던 건 모두 제 뜻이었습니다.”

“그 혼담 분명 거절했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다짜고짜 고백하시는 건가요?”

“말도 걸지 말라고 하시니 지금이 아니면 말씀 못 드릴 거 같아 실례라는 걸 알면서도 좋아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나마 이런 고백은 실례라는 건 알고 있어서 다행이네요.”

괜히 남의 호위기사를 걸고넘어지면서 무례하게 굴다가 화를 내니까 다짜고짜 좋아한다고 고백이라니. 뭐 이런 예의도 없고 어처구니도 없는 황당한 고백이 있나 싶었다.

‘나 오늘 생일인데 하이모어 대공도 그렇고 크라스 경도 그렇고…. 설마 일부러 이러는 건 아니겠지?’

왜 하필 좋은 날 이러는 걸까. 레아는 그런 생각을 하며 한숨을 푹 쉬었다.

“크라스 경. 별로 미안하진 않은데 어쨌든 그 고백 거절할게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사도 하지 말고 말도 걸지 말아주세요.”

“아까 분명 말씀드렸을 텐데요. 저는 레아 황녀님과 계속 인사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해지고 싶습니다.”

“저도 분명 말했을 텐데요. 저는 크라스 경의 그 마음을 거절하겠다고요.”

“레아 황녀님. 저 자신 있습니다.”

크라스 경이 자신 있다는 게 레아가 고백을 거절한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그게 너무 어이가 없기도 하고 짜증도 나는데 아무래도 크라스 경은 자신이 레아에게 차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 같아 레아는 마침 열도 받는 김에 저 근거를 알 수 없는 자신감을 팍 꺾어주리라고 다짐을 했다.

오늘은 좋은 날이니 좋게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참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다.

“아뇨. 크라스 경이 자신이 있든 말든 그건 내 알 바 아니고요. 전 방금 크라스 경이 싫다고 했어요. 전에 보냈던 혼담도 거절당하고 고백까지 차이고 계속 그러고 싶으세요?”

“그건 레아 황녀님이 아직 저를 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제게 기회를 한 번만 주신다면 분명….”

“크라스 경. 구걸하지 마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무조건 레아 황녀님을 반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딱 잘라서 구걸하지 말라는 황녀님의 말씀에 크라스 경은 순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태어날 때부터 대공의 장남으로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산 크라스 경에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난 분명 크라스 경이 싫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기회를 달라느니 어쩌니 귀찮게 구는 걸 보니 아무래도 진심으로 절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건 분명한 거 같네요. 그리고 내가 왜 크라스 경에게 기회를 줘야만 하죠? 어차피 시간 낭비일 거 같은데 신사답지 못하고 정중하지 못한 남자에게까지 시간을 내줄 정도로 한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귀찮게 굴지 마세요.”

“……….”

정색하고 말하는 레아를 보며 크라스 경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동안 크라스 경이 만났던 여자들은 모두 권력과 힘에 못 이겨 크라스 경과 만났고 그가 원한다면 연인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런 경우는 살면서 이번이 두 번째였다.

레아는 그렇게 말하고 인사도 없이 휙 가버렸고 그 뒷모습을 보며 크라스 경은 어금니를 꽉 깨물고 쥐고 있던 주먹에도 힘이 들어갔다. 이런 기분이 드는 건 참으로 오랜만이었다.

‘프레디 녀석도 그렇고 저 황녀라는 여자도 그렇고. 사생아에다 천한 피를 이어받은 주제에 거슬리게 구는군. 시녀의 딸에 평민 출신인 주제에 진짜 황녀라도 된 것 마냥 감히 나한테 저런 말을 하다니.’

그래도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 예쁨 좀 받는다고 해서 저 여자랑 결혼해서 크라스 경은 권력을 손에 넣고 저 여자도 신분 상승도 좀 시켜주려고 했더니. 거기다 프레디도 황녀라는 저 여자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서 꼭 뺏어오려고 했더니. 저런 여자라면 크라스 경은 결혼하겠다는 계획을 전혀 다른 계획으로 바꿔버리기로 했다.

‘철저히 망가뜨려 주겠어. 과거 스텔라에게 그랬던 것처럼.’

과거 한 여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것처럼 크라스 경은 그때와 똑같이 레아를 철저히 망가뜨려 주겠다고 결심했다.

\*\*\*

‘도대체 이 파티는 언제 끝나는 걸까 빨리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아주 그냥 머리 아프고 피곤해서 돌아버릴 것만 같아.’

원래 생일은 1년 중에서 제일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해야 하는 날이라고 배웠는데. 그런데 어쩐지 레아는 성탄절과 겹쳐 엄청난 일에 시달려야 했던 지난 생일들보다 정말 많은 사람의 축하를 받은 이번 생일이 더 피곤하고 별로 행복하거나 기쁘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라이 경은 진짜 언제 오려나.”

시간이 꽤 지난 거 같은데 아직도 파티장으로 돌아오지 않자 레아는 슬슬 라이 경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다리아 영애에게 광산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던 것과 비슷하게 레아는 라이 경에게도 같이 알아봐 줬으면 하는 게 있었다.

‘걱정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 신경이 쓰여. 프레디 소공자랑 무슨 할 얘기가 있길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지? 무슨 중요한 얘기라도 하고 있나.’

신경이 쓰인다고 해도 파티의 주인공인 레아가 잠깐 테라스로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파티장 밖으로 나갈 수 있을 리가 없었다. 레아는 어서 라이 경이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시계를 바라보았고 그런 레아를 바라보며 영식들은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과연 누가 제일 먼저 레아 황녀님께 춤 신청을 할 것인가.

지금까지 파티에서 레아 황녀님과 춤을 춘 사람은 친부인 레그마인 황제 폐하와 호위기사인 라이 경이 전부였다. 춤 신청을 한 영식들은 차고 넘칠 정도로 많았지만 죄다 거절당했고 사실상 언제나 라이 경이 옆에 있었으니 춤 신청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라이 경 없이 레아 황녀님께서 혼자 계신 지금이 기회라면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모든 영식을 설레게 했던 그 기회는 아주 간단하게 저 멀리멀리 날아갔다.

“레아 황녀님. 인사가 늦어 죄송합니다. 탄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역시 오늘도 귀엽고 사랑스러우십니다.”

“하하. 고마워요. 가스파르 재상.”

“특히 루비로 만든 그 티아라가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아, 그러고 보니 이거 황궁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가스파르 재상이 선물로 주신 거죠? 한참 전에 받은 선물이지만 고마워요.”

“아닙니다. 제가 드린 선물을 기억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일부러 자신이 선물로 준 걸 콕 집어서 잘 어울린다고 칭찬을 해주었는데 기억이 안 날 리가 없었다. 오히려 기억 안 난다고 했으면 울었겠다고 생각하며 레아는 겉으로는 예쁘게 웃었다. 그런 레아를 보며 가스파르 재상은 기분이 좋은 듯 깊게 웃었다.

“그런데 레아 황녀님. 라이 경은 어디 가고 혼자 있으신 겁니까?”

“잠시 다리아 영애랑 둘이서 테라스에 나갔었는데 그사이에 프레디 소공자랑 할 얘기가 있어서 파티장 밖으로 나갔나 봐요.”

“그렇습니까? 그럼 아마 복도에 있을 확률이 높겠군요.”

“복도요?”

“네. 테라스에 나간 게 아니라면 남자 둘이서 파티장 뒤에 있는 공원에 갔을 리는 없으니 복도로 나갔을 겁니다.”

“흐음. 복도라.”

하지만 라이 경이 복도에 있는 걸 알아도 레아가 지금 복도에 나갈 수 있을 리가 없었다. 어차피 얌전히 여기 앉아서 라이 경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인 레아에게 가스파르 재상은 이렇게 말해주었다.

“혹시 라이 경에게 볼일이라도 있으신 거면 제가 복도로 가서 불러다 드릴까요?”

“정말요?”

“어려운 일도 아니고 레아 황녀님께서 부탁하신다면 묶어서라도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뇨. 묶어서 데리고 올 필요는 없고요….”

지금 레아의 머리에 있는 이 티아라를 선물해줄 때까지만 해도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생각해보면 가스파르 재상도 참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며 레아는 허허 웃었다.

71.최악의 생일이 되기 10초 전.docx

‘레그마인 황제 폐하와 피에르 시종장님을 보면 망설여지다가도 레아 황녀님만 뵙고 나면 귀여운 2세를 가지고 싶단 말이지. 이걸 어쩌면 좋을까.’

아내에게도 이 부분에 관해서 얘기해보았지만, 아내는 가스파르 재상이 원하는 대로 아이를 가져도 좋고 안 가져도 좋다고 했다. 원하는 대로 하라니 가스파르 재상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더 고민이 되었다. 레아 황녀님의 부탁으로 라이 경을 데리러 가면서도 가스파르 재상은 그 고민을 하며 한숨을 쉬었다.

‘레아 황녀님처럼 귀엽고 사랑스러운 딸이면 고민도 없이 10명도 낳아서 키울 수 있을 거 같은데. 아니면 라이 경처럼 든든하고 멋진 아들이나.’

하지만 레그마인 황제 폐하나 피에르 시종장님처럼 되고 싶지는 않았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훌륭한 딸과 아들이 태어난 건지 가스파르 재상은 의문이었다.

설마 레아 황녀님께서 속으로 가스파르 재상도 참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고 있으시고 실제로 요즘 황녀님을 향한 주접이 레그마인 황제 폐하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가스파르 재상은 복도로 나와 라이 경을 찾았다.

키도 크고 가만히 있어도 워낙 눈에 띄는 편이라서 그런지 가스파르 재상은 바로 라이 경을 찾을 수 있었고 역시나 라이 경은 프레디 소공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다. 가스파르 재상은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 중인지 상상도 못 한 채 라이 경에게로 다가가려다 순간 발걸음을 멈췄다.

“하지 마. 그 고백.”

“뭐?”

“2년 전에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스텔라가 어떤 존재였는지 왜 네가 스텔라와 레아 황녀님을 겹쳐 보는 건지 말하지 마. 그리고 레아 황녀님께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그 고백도…하지 마.”

두 사람이 친구라는 건 가스파르 재상도 이미 알고 있었으니 그냥 친구끼리 조금 할 얘기가 있겠거니 했는데 지금 두 사람의 분위기는 재상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꽤 심각한 것 같았다. 쉽사리 다가갈 수 없는 느낌에 가스파르 재상은 자신도 모르게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잖아.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뭐야?”

“애초에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잖아. 레아 황녀님에게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찾으면서 좋아한다는 건 황녀님께 예의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내가 진심인데 뭐가 문제지? 그리고 그건 레아 황녀님도 이미 알고 계신 상태야. 우리 사이에 일인데 아무리 내 친구고 레아 황녀님의 호위기사라고 해도 네가 참견할 일은 아니지 않아?”

“우리…?”

“내 감정이 틀린 거고 레아 황녀님께 예의가 아니라고 해도 그건 레아 황녀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야. 네가 판단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무슨 상황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바람둥이 날라리 소공자로 유명한 프레디 소공자가 요즘 파티와 여자를 끊고 레아 황녀님만 쫓아다닌다는 건 유명한 이야기였다. 그 정도로 레아 황녀님께 푹 빠진 프레디 소공자인데 아무래도 오늘 고백을 할 예정이었고 라이 경이 그걸 막으려고 하는 듯했다.

‘그런데 스텔라라는 여자는 누구지? 프레디 소공자는 그 여자랑 레아 황녀님을 겹쳐 보면서 좋아한다는 거 같은데 그게 사실이라면 듣는 나도 기분이 더럽군. 어딜 감히 주제도 모르고 우리 레아 황녀님께 그런 마음을 품다니.’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이 사실을 아셨다면 바로 프레디 소공자의 모가지가 댕강 날아가고도 남을 것이었다. 가스파르 재상을 이걸 자신이 들어서 다행이기도 하면서 좀 아깝다고 생각하며 두 사람에게 들리지 않게 혀를 쯧쯧 찼다.

그런데 그런 한심한 발언을 하는 프레디 소공자에게 라이 경이 하는 말을 들은 가스파르 재상은 깜짝 놀랐다.

“네 친구로서 하는 말이 아니야. 그리고 단순히 레아 황녀님을 지켜드리는 호위기사로써 하는 말도 아니야.”

“그럼 넌 대체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좋아하니까. 너랑 똑같이 레아 황녀님을 좋아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 분명 접는다고 하지 않았어? 내 말 듣고 마음이 바뀌기라도 한 거야?”

“네가 뭐라고 고작 네 한마디 때문에 내 마음을 그렇게 가볍게 바꿨을 리가 없지.”

방금 라이 경이 레아 황녀님을 좋아한다고 말한 건가? 이거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들으셨다면 날아갈 모가지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을 것이었다. 프레디 소공자의 반응을 보니 라이 경이 그런 마음을 품은 지는 꽤 된 모양인 듯했다.

“그땐 너와 그런 식으로 얽히고 싶지 않아서 내 마음을 접으려고 했었어. 친구 사이가 끝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되더라도 레아 황녀님 옆에서 황녀님을 지켜드리고 싶어졌어.”

이것 참 계속 몰래 엿들을 수도 없고 어떡해야 하나. 마음 같아서는 아무것도 못 들은 척하고 가스파르 재상은 파티장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왠지 여기서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였다간 두 사람에게 모습을 들킬 것 같았다.

‘거기다 라이 경이 레아 황녀님을 짝사랑하고 있었을 줄이야. 그건 그냥 단순히 소문일 줄 알았는데! 어쨌든 다 들어버려서 알아버렸으니 모르는 척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군.’

이거 레그마인 황제 폐하와 피에르 시종장님께서 눈치채시기 전에 뭘 어떻게 해도 어떻게 해야지 두 아버님 중 한 분이라도 눈치채시는 날에는 중간에 끼인 가스파르 재상만 죽어나는 것이었다. 지금 가스파르 재상이 대화를 엿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는 프레디 소공자와 라이 경은 계속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이어갔다.

“우정보다 사랑이다…이건가?”

“먼저 그쪽을 선택한 건 너다.”

“근데 꼭 네가 고백하면 레아 황녀님께서 무조건 받아주실 것처럼 얘기한다?”

“안 받아주셔도 좋아. 지독하게 차여서 다시는 볼 수 없게 된다고 해도 마음 접을 생각은 없어. 그러니까 네가 이러는 꼴도 더는 못 봐줘.”

“그래. 그렇단 말이지.”

뭐야. 둘이 지금 레아 황녀님 때문에 결국 절교하는 거야?

두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친구였고 친했다는 걸 아는데 여자 문제로 이렇게 틀어진다는 게…. 가스파르 재상은 이 상황을 뭐라고 하면 좋을지 쉽게 말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러는 사이 두 사람은 사이를 완전히 정리한 건지 프레디 소공자는 웃으면서 마지막으로 악수를 청했지만 라이 경은 그 손을 무시하고 뒤돌아 가버렸다.

‘역시 라이 경. 요즘 항상 레아 황녀님과 함께라서 잠시 잊고 있었지만 역시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야. 그래도 소중한 친구였을 텐데 마지막으로 악수 정도는 좀 해주지.’

그래도 라이 경에게 있어서 프레디 소공자는 냉정하게 말해서 도움이 되는 좋은 친구는 아니었으니 어쩌면 이렇게 끝내는 게 좋은 결정일지도 몰랐다. 뭐, 두 사람 사이에 일이야 두 사람이 알아서 할 부분이고 가스파르 재상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따로 있었다. 그래서 가스파르 재상은 조용히 자신의 옆을 지나가려는 라이 경을 붙잡았다.

“라이 경.”

“가스파르 재상…? 재상이 어째서 여기에…….”

“레아 황녀님께서 경을 좀 데리고 와달라고 부탁하셔서 말입니다. 그래서 복도로 와봤더니 프레디 소공자와 얘기 중이더군요.”

“혹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도 들으신 겁니까?”

“네. 일부러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혹시 기분 나쁘다면 사과하도록 하죠.”

“기분이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다만 좀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었다. 레아 황녀님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들키게 될 줄이야. 아직 레아 황녀님께는 고백 비슷한 것도 하지 못했는데 라이 경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두 명이나 있었다.

그런 라이 경을 보며 가스파르 재상은 작게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비밀은 지킬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스파르 재상.”

“대신 그 마음에 대해서 저와 얘기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으니 다른 곳으로 가서 자세히 얘기해보도록 하죠. 따라오세요.”

이미 들켜버린 마음을 부정할 수도 없었고 부정하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과연 재상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조금 무섭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는 마음으로 라이 경은 가스파르 재상의 뒤를 따라 걸었다. 가스파르 재상은 아무래도 아이를 가지는 일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당분간은 좀 힘들겠다고 생각하며 속으로 한숨을 푹 쉬었다.

\*\*\*

‘가스파르 재상은 라이 경 데리고 오겠다고 파티장을 나갔는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이러다 파티 다 끝나고 데리고 오겠네.’

아직 파티가 완전히 끝나려면 시간이 좀 남긴 했지만 이미 집에 돌아간 사람도 있을 정도로 꽤 늦은 시간이었고 이미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 라이 경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이제 지치기도 했고 사람도 북적일 정도로 많지 않으니 레아는 그냥 직접 찾으러 가볼까 하고 잠시 생각하고 있을 그때였다.

“레아 황녀님, 레아 황녀님.”

“응?”

“존경하는 레아 황녀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리베라 아우딕스라고 합니다.”

“아우딕스라면…혹시 아우딕스 후작의 딸이니?”

“네. 맞아요!”

이제 6살? 7살? 정도 돼 보이는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레아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고 아우딕스 후작의 딸이냐는 질문에 활짝 웃으며 손뼉을 짝! 쳤다. 그 모습을 보며 레아는 귀엽다고 생각하며 살짝 웃었다.

‘귀엽다. 크레랑 트레랑 나이는 비슷한 거 같은데 확실히 여자애라서 그런지 꼭 인형 같아. 한번 안아보고 싶다.’

이렇게 자그마한 아이가 레이스가 나풀나풀하는 드레스를 입고 종종 걸어오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레아는 꼭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아무리 귀여워도 황녀가 후작 영애를 다짜고짜 꽉 끌어안으면 황녀답지 못하다고 한 소리 들을 게 뻔했으니 사랑스러운 이 영애를 잔뜩 예뻐해 주고 싶다는 마음을 꾹 눌렀다. 그리고 레아는 친절하게 웃으며 상냥하게 말했다.

“귀여운 리베라 영애. 나한테 무슨 할 얘기가 있어서 온 거지? 물어보고 싶은 거라도 있어?”

“아니요. 물어보고 싶은 건 없고 어떤 오빠가 말 좀 전해달라고 했어요. 황녀님께 정원에 있는 커다란 나무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오빠? 어떤 오빠?”

“음. 모르겠어요. 이름은 얘기 안 해줬어요.”

“흐음. 그래?”

그래도 누가 불렀는지는 알아야 거기를 레아가 직접 나가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내든 할 건데 누군지 모른다니 레아는 이걸 어떡할까 고민했다. 그런데 그때 리베라 영애는 무언가가 생각이 난 듯 말했다.

“아, 그 오빠 키도 엄청 크고 무지무지 잘생겼었어요. 그리고 막 자상하고 그랬어요.”

“키 크고 잘생기고 자상한 사람?”

“응.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오빠였어요. 꼭 동화책에 나오는 왕자님처럼!”

키도 크고 잘생기고 자상한 사람이라면 혹시 라이 경을 말하는 건가 싶었다. 라이 경이 왜 직접 오지 않고 커다란 나무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레아는 그럴만한 일이 있겠거니 하고 별로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알았어. 말 대신 전해줘서 고마워. 리베라 영애.”

“아니에요. 황녀님께 도움이 되었다면 기뻐요.”

“그런 말도 할 줄 알아? 귀여워라. 이건 내가 고맙다고 주는 선물이야.”

“우와. 사탕! 감사합니다. 레아 황녀님!”

“사탕 먹고 양치질 꼭 해야 해. 알았지?”

“네!”

원래는 당 떨어지면 먹으려고 아껴둔 사탕인데 고맙다고 선물로 주자 리베라 영애는 정말 기쁜 듯 좋아해 주었다. 역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며 레아는 사탕을 들고 부모님께 달려가는 리베라 영애를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영애는 사탕을 들고 아우딕스 후작과 후작부인에게로 가서 황녀님께 사탕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는 듯했고 아우딕스 후작은 그런 딸을 번쩍 안아 들었다. 후작부인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잔잔하게 미소를 지었고 보기만 해도 훈훈해지는 예쁜 모습에 레아는 잠시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런 생각은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어쩔 수가 없네. 부럽다.’

레아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단란하고 안정적인 가정의 모습이었다. 그래도 레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니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말자고 다짐했었는데 저런 모습을 보니 부러워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곧 레아는 조금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라이 경한테 가봐야겠다고 생각하며 파티장 밖으로 나와 황실 정원으로 향했다.

\*\*\*

‘오늘은 겨울치고는 좀 따듯하네. 추울까 봐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라이 경이 굳이 밖으로 부른 걸 보면 어쩌면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되는 비밀 얘기를 하려는 걸지도 모르는데 너무 추우면 좀 곤란했다. 그런데 겨울치고는 날씨가 포근해서 레아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커다란 나무 쪽으로 다가갔다.

“아, 저기 있다.”

어두워서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커다란 나무와 조금씩 가까워지자 상당히 키가 큰 남자의 뒷모습 같은 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쩐지 좀…. 뭐라고 설명하기는 좀 어려웠지만, 레아는 그 뒷모습이 왠지 라이 경과는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서 있는데 무언가 차가운 감촉이 레아의 뺨에 떨어졌다.

“눈…?”

레아가 하늘을 올려다보자 깜깜한 하늘에는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고 거짓말처럼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다. 어쩐지 날씨가 포근하다 했더니 결국 눈이 내리는구나 하고 레아는 내리는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러고 보니 레아가 황궁으로 오고 황녀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맞아보는 눈이었다.

레아는 그렇게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데 그 순간 누군가 레아에게로 다가와 말을 걸었다.

“안 나와주실 줄 알았는데 나와주셨네요. 레아 황녀님.”

“프레디 소공자.”

“저라는 건 모르고 나오셨겠지만 그래도 나와주셔서 기뻐요. 마침 눈도 딱 내려주고 꼭 모든 것이 절 위해 존재하는 순간인 것만 같네요.”

“키 엄청 크고 무지하게 잘생긴 자상한 오빠가 프레디 소공자였다니.”

“하하. 역시 어린아이들은 거짓말을 못 하는군요.”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았지만…솔직히 부정할 수는 없었다. 키 엄청 크고 무지하게 잘생긴 자상한 오빠라는 말을 생각해보면 라이 경보다는 프레디 소공자랑 더 어울리는 말이긴 했다. 꼭 왕자님 같았다는 말도 마찬가지였다.

‘어린아이가 보기에 라이 경은 무섭게 보일 수도 있겠지. 잘생기긴 진짜 잘생겼는데 날카롭게 생겼고 성격도 무뚝뚝하니까.’

요즘 라이 경이 레아에게는 너무 다정하고 자상해서 잠깐 잊고 있었다. 레아는 당연히 라이 경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리 프레디 소공자가 있자 조금 실망스러웠고 갑자기 빨리 파티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부터 프레디 소공자가 무슨 말을 할 거고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불렀는지는 상상도 못 한 채 말이다.

72.프레디 소공자의 진심.docx

‘오늘 정말 모든 걸 말씀드릴 거야. 그리고 꼭 말하자. 정말 진심으로 레아 황녀님을 좋아하고 있다고. 결코, 가벼운 마음이 아니야.’

그동안 프레디 소공자는 수많은 여자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꿀을 잔뜩 바르고 설탕까지 뿌린 말을 해왔다. 진심은 조금도 들어가 있지 않았기에 소공자는 그런 말을 정말 가볍게 힘 하나 들이지 않고 툭툭 내뱉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진심을 가득 담아야 했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상처 난 곳을 보여줘야 했기에 너무 떨리고 긴장이 됐다. 물론 그 진심을 받게 될 레아는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쓰고 관심도 없었지만 말이다.

‘할 말 있으면 빨리 말할 것이지 왜 이렇게 뜸을 들여? 이러다 라이 경 파티장으로 돌아와서 또 길 엇갈리는 거 아냐?’

누군가 지금 프레디 소공자와 레아를 본다면 내리는 첫눈을 맞으며 남자는 조금 긴장한 얼굴로 여자를 바라보고 있고 여자는 그런 남자를 빤히 올려다보는 이 모습이 꼭 그림처럼 예쁘고 로맨틱하다고 할 것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로맨틱하지 않았고 예쁘지도 않았으며 그다지 그림 같지도 않았다.

“할 말 있으면 빨리해요. 눈 오잖아요.”

“레아 황녀님. 그게….”

“빨리 말 안 할 거면 그냥 다음에 얘기해요. 별로 중요한 얘기인 거 같지도 않은데 나 바빠요.”

“아뇨! 오늘은…오늘은 얘기해야겠습니다. 오늘은 꼭.”

“그럼 빨리 얘기하세요.”

왠지 오늘이 아니면 두 번 다시는 말할 용기가 나지 않을 거 같았다. 라이 경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프레디 소공자는 오늘은 꼭 무슨 일이 있더라도 레아 황녀님께 모든 걸 얘기해드리자고 다시 한번 굳게 마음먹었다. 그리고 용기를 내 어려운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레아 황녀님. 가을에 있었던 파티에서 제가 레아 황녀님을 좋아하는 이유를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요. 프레디 소공자 아는 사람이랑 닮았다고 그랬었잖아요. 어디가 닮았다는 건지는 모르겠다고 이상한 말도 하면서.”

“그랬었죠. 사실 그 사람…제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럴 거 같다고 생각은 했어요.”

“하하. 역시 레아 황녀님께서는 눈치가 빠르시군요.”

딱히 눈치가 빠르다기보다는 무언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 프레디 소공자와 그 얘기를 듣고 얼굴을 찌푸렸던 라이 경만 봐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이미 진작에 눈치챈 부분이었지만 막상 프레디 소공자의 입으로 직접 듣게 되니 레아는 묘하게 기분이 별로였다.

‘알고는 있었지만 역시나 내가 첫사랑이랑 닮아서 좋아하는 거였구나. 이거 막상 직접 들으니 생각보다 훨씬 더 기분 나쁘네.’

원래 이성적인 감정은커녕 인간적으로서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프레디 소공자라서 신경 쓸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프레디 소공자에게 그 얘기를 직접 듣게 되자 레아는 저절로 얼굴이 찌푸려졌다. 그리고 원래 싫었던 소공자가 더 싫어졌고 이 자리를 빨리 떠나고 싶어졌다.

“아카데미에서 처음 만났던 친구였어요. 키도 크고 늘 조용하고 얌전하게 웃는 친구였죠. 처음 만났던 그 순간에도 조용히 수줍게 웃고 있었어요.”

“내가 그 여자랑 프레디 소공자가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까지 알아야 해요? 듣기 싫은데.”

“라이 경도 관련 있는 얘기인데 그럼 그냥 하지 말까요?”

“라이 경도 관련된 얘기라고요?”

“네. 라이 경이랑 제 형인 크라스 경, 아버지이신 하이모어 대공. 모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흐음.”

대체 얼마나 대단한 첫사랑이길래 이렇게 연관된 사람이 많은 걸까. 그래도 하이모어 대공과 크라스 경과 관련이 있다니 레아는 적어도 들어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라이 경과도 관련이 있다니 솔직히 신경이 조금 쓰이기도 했다.

‘라이 경은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해줬는데. 무슨 삼각관계라도 있었던 건가? 분명 라이 경은 그때도 잘생겼을 테니까 인기 엄청 많았을 거 같은데.’

혹시 삼각관계였는데 라이 경은 그 여자가 자신을 좋아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 레아는 정말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했고 프레디 소공자는 그런 레아를 아련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스텔라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에게 사랑이란 걸 준 아이였어요. 부모에게조차 사랑받지 못하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키 크고 잘생겨도 그 어떤 누구도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지 않았거든요.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였으니까요.”

대공의 사생아. 그것도 사랑이 아닌 불륜으로 태어난 존재였다. 모두 처음에는 그건 소공자의 잘못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러면서도 프레디 소공자와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것을 꺼렸다.

어릴 때부터 반복되는 그 상황에 상처받고 프레디 소공자는 사랑받는 걸 포기하는 게 맞는 게 아닐까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 그런 프레디 소공자 앞에 나타난 게 스텔라라는 존재였다. 그렇게 예쁘지도 귀엽지도 않은 그냥 키가 큰 평범한 소녀였다.

“처음은 정말 작고 사소했어요. 스텔라는 다른 여학생들과 똑같이 라이 경을 짝사랑했고 저는 라이 경의 친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날도 스텔라는 제가 아니라 라이 경을 보려고 운동장에 나와 있었으니까요.”

아카데미 때 워낙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라이 경은 점심을 먹고 항상 다른 남학생들과 운동장에서 축구를 했고 수많은 여학생은 그 모습을 구경하러 나왔었다. 스텔라 역시 그 여학생들 사이에서 축구 하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고 그러다 라이 경과 함께 축구를 하던 프레디 소공자를 보게 된 것이었다.

“저도 스텔라가 왜 저를 좋아했는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축구가 끝나면 라이 경이 아니라 저에게 땀 닦으라고 수건을 건네주고 수고했다며 음료수를 건네주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호감의 표시였는데 그때의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한테 잘 보여서 나중에 라이 경이랑 이어달라고 하려고 저러나? 하고 생각했죠. 설마 날 좋아할 거란 건 상상도 못 하고.”

실제로 그때는 그런 부탁도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 프레디 소공자는 스텔라의 마음을 눈치채기는커녕 오히려 호감을 표시하는 스텔라에게 대놓고 말했었다. 이런 식으로 잔머리 굴리지 말라고 말이다.

“근데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여자애들은 토라지거나 치사하다고 짜증을 내고 잔뜩 화를 냈는데 그 말을 듣고 스텔라는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라이 경이 아니라 저를 좋아한다고 말하는데…. 그 순간 스텔라가 너무 예뻐 보였어요. 그냥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사실 지금 떠올려 봐도 스텔라는 평범한 편이었지 예쁘게 생긴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어떤 여자보다 아름다웠고 처음으로 자신에게 좋아한다고 말하는 스텔라를 프레디 소공자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프레디 소공자는 울고 있는 스텔라를 꼭 안아주었고 그렇게 두 사람의 연애는 시작이 되었다.

스텔라와 함께했던 그 시간은 아직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 중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순간으로 프레디 소공자 안에 기억되고 있었다. 하지만 행복했던 그 시간은 그리 길지 못 했다.

“어느 날 갑자기 스텔라가 저를 보면서 펑펑 울었어요. 정말 너무 서럽게 울어서 마음이 아파 꼭 안아주려고 했는데…제 손길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더러운 여자라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사이는 끝이 났어요. 정말 그렇게 끝….‘

그때 18살이었던 프레디 소공자는 갑자기 이게 무슨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상황인가 싶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이유도 설명도 해주지 않고 떠나버린 스텔라를 정말 미친 듯이 잡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그녀는 스스로 프레디 소공자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영영 떠나버리고 말았다. 어렸던 프레디 소공자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슬프도록 충격적인 이야기였다.

그렇게 빠져나올 수 없는 슬픔에 잠긴 프레디 소공자는 스텔라가 죽은 이유에 대해 듣게 되었고 동시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게 형. 형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난 아무것도 모르고….”

“크라스 경 때문이요?”

“네. 그 사람 때문에 아니, 그 사람이 스텔라를 죽인 거예요.”

아직도 그때 그 느낌이 생생하게 떠올라서 프레디 소공자는 크라스 경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다.

“어릴 때부터 날 미워하고 싫어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단지 내 여자친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스텔라를 협박해서 어떻게 그런 짓을…….”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런데 옆에 있었으면서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여자친구가 점점 목이 조여와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저 행복해하고 있었다. 그래도 프레디 소공자 옆에서 어떻게든 버텨보려던 스텔라는 결국 끝까지 버틸 수가 없게 되었다. 그녀에게 원하지 않는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기 때문이었다.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나도 수십 번을 망설여서 손을 잡고 수백 번을 망설여서 끌어안아 보는 여자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형에게 그런 짓을 당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서.”

“……….”

“그걸 부정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증거를 찾고 진실을 파해 쳤는데 알게 된 사실은 더 참혹했어요. 스텔라가 스스로 이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께서는 그 일을 아무도 모르게 덮어버리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땐 정말….”

끔찍할 정도로 완벽함에 집착하는 하이모어 대공이 두 아들이 치정으로 엮인 이 일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었다. 돈을 쓰고 사람을 써서 이 사건에 대해 모든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레아 역시 이제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됐으니 그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가 된 것이었다.

“스텔라는 저한테 그런 여자였어요. 정말 미치도록 사랑했는데 결국은 지켜주지 못했고 허무하게 떠나보낸 그런 여자. 그리고 그런 스텔라와 레아 황녀님은 어딘가 모르게 닮아 있어요. 그래서 전 레아 황녀님을 지켜드리고 또…다시 후회하지 않게 사랑하고 싶어요.”

이게 프레디 소공자가 레아 황녀님께 전하는 진심이었다. 과연 황녀님은 이 진심에 뭐라고 대답해주실까. 마음을 받아주실 거라는 기대는 전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프레디 소공자는 레아 황녀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는 레아 황녀님을 보며 가슴이 시리도록 아파졌다.

그만큼 레아는 심장이 얼어붙을 정도로 차가운 시선으로 프레디 소공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나랑 사귀고 싶어서?”

“레아 황녀님. 저는…….”

좋아한다고 말해야 하는데. 이 마음만큼은 진심이라고 말해야 하는데 어째서인지 프레디 소공자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런 프레디 소공자를 보며 레아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전에 나한테 그랬었죠? 그 스텔라라는 프레디 소공자의 첫사랑이랑 나랑 닮았다고. 그래서 내가 좋다고. 그래서 나는 소공자가 스텔라와 나를 겹쳐보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프레디 소공자는 스텔라가 아닌 다른 사람과 나를 겹쳐보고 있었던 거 같네요.”

스텔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레아 황녀님을 겹쳐보고 있다는 그 말에 프레디 소공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황녀님께서 무슨 말을 하실지 알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것이었다.

“프레디 소공자는 그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은 아이가 아버지와 이복형에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라는 말을 듣는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첫사랑을 놓지 못하고 그 그림자를 쫓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사실 소공자가 아직도 붙잡고 있는 건 스텔라가 아니라 자신의 과거 아닌가요?”

“……….”

“그래서 겹쳐 보였겠죠. 똑같이 사생아로 태어나 때론 곱지 않은 시선을 받으면서도 친부의 성을 물려받고 살아가고 있는 나와 자기 자신이.”

어쩌면 레아도 사랑이 아니라 원하지 않은 하룻밤의 잠자리로 생긴 생명일지도 몰랐다. 물론 아빠는 엄마를 사랑했다고 해도 선황이었던 할아버지께서 엄마가 아빠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레아의 운명은 그 아이와 다를 게 없을 것이었다.

프레디 소공자가 그 이야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알고 있다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소공자의 얘기를 듣고 레아는 힘이 쭉 빠지고 지친다고 생각했다. 화가 나거나 이런 얘기를 한 프레디 소공자가 밉기보다는 갑자기 모든 게 허무해진 거 같기도 했다.

“프레디 소공자. 상대를 똑바로 보지 않고 다른 사람과 겹쳐보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과거를 잊지 못하고 놓지 못하는 거지.”

“하지만 전 그 누구보다 레아 황녀님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또….”

“아뇨. 그건 그냥 미련이에요. 그리고 미련은 사랑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

“프레디 소공자는 한 번도 날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라이 경은 레아 황녀님께서는 스텔라가 아니니 두 사람을 겹쳐보면서 좋아하지 말라고 했었고 프레디 소공자 역시 자신이 레아 황녀님과 스텔라를 겹쳐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레아 황녀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바보 같게도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소공자는 깨달을 수 있었다.

‘난 정말 레아 황녀님을 나 스스로와 겹쳐보았던 걸까.’

어쩌면 프레디 소공자가 진심으로 지켜주고 싶었던 건 스텔라가 아니라 아파해야 했고 불행하기만 했던 자신의 모습이었을지도 몰랐다.

정말 그래서 사랑했던 여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형과 그 사실을 숨기고 덮어버린 아버지를 원망하며 하이모어 가문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싶었던 걸까. 그래서 삐뚤어져서 이 여자 저 여자 가볍게 만나고 다녔단 사실에 프레디 소공자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만 느껴졌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를 가장 아프고 힘들게 만들었던 건…나였을지도 모르겠군.’

프레디 소공자는 사랑 없이 생긴 생명이었고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못난 사람이 되어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으니…. 마치 자신이 없어야지만 모두가 행복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프레디 소공자는 그런 생각을 하며 점점 멀어져가는 레아 황녀님의 힘없는 뒷모습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다.

73.그건 감기 때문이 아닐 텐데.docx

‘하이모어 대공에 크라스 경, 프레디 소공자까지. 진짜 1년에 딱 한 번뿐인 생일에 이게 뭐람.’

레아는 원래 날짜가 날짜이니만큼 생일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번 16살 생일은 정말 최악의 생일이었다고 자신할 수 있었다.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프레디 소공자는 왜 하필 그런 말을 해도 오늘 한 건지 원망스럽기까지 할 정도였다.

“……….”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건 아니었고 그렇다고 슬프고 마음이 아픈 것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레아는 기분이 가라앉았다. 그 느낌이 싫어서 프레디 소공자가 했던 이야기를 잊으려고 해도 또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고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특히 과거 이야기를 시작할 때 프레디 소공자가 했던 말이 계속 떠올라 레아를 괴롭혔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 그 말이 자꾸 떠올라서 레아는 마음이 무거웠다.

‘만약 엄마가 선황을 향한 복수로 아빠를 죽이려고 했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되면 다들 나한테도 그런 말을 하겠지. 어쩌면 아빠도 나 같은 거 괜히 데리고 왔다고 할지도….’

아빠가 세상 그 누구보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유는 자신이 정말 미칠 듯이 사랑했던 아리샤와의 사이에서 생긴 소중한 딸이었기 때문이라고 레아는 생각했다. 아빠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고 가슴 절절하게 그리워했는지는 가스파르 재상과 피에르 시종장님께 익히 들어 레아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엄마가 사실 아빠를 사랑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처음에는 아빠가 충격받고 상처받을까 봐 아빠에게 그 얘기를 숨기려고 했었다. 하지만 레아는 이제 아빠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더는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을까 봐 무서웠다. 어쩌면 황녀라는 자리에서도 쫓겨날지도 몰랐다.

‘황녀 자리에서 쫓겨나면 이제 다들 날 좋아해 주지 않겠지. 가스파르 재상이랑 피에르 시종장님. 그리고 다리아 영애랑 라이 경도….’

모두 레아가 황녀이기에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처음에는 정말 반강제로 하게 된 황녀 노릇이었지만 1년이 되기도 전에 언제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생겨버린 걸까. 레아는 그 소중한 사람들을 놓고 싶지 않았고 잃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 아빠에게 엄마의 과거를 숨기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었다.

“아빠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아.”

처음 황궁에 왔을 때는 설마 레아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1년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소중한 인연이 생긴 만큼 아빠는 레아에게 유일한 가족이 되어주었다. 처음에는 아빠가 주는 과한 애정이 싫기만 했는데 이제는 그런 아빠가 없는 하루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빠는 레아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 되어주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엄마는 아빠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시면…. 그런데도 변함없이 자신에게 사랑을 주고 아껴줄지 레아는 두려웠다.

‘차라리 아무것도 몰랐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 엄마의 과거도 모르고 아빠의 존재에 대해서도 모르던 그때로.’

우나타에서 평범하게 빵을 구우면서 살 때는 이렇게 누리면서 살지 못했지만 이렇게 머리 아픈 일도 없었다. 만약 아무것도 모르고 우나타에서 계속 살았다면 아빠가 돌아가신 후 레아는 영문도 모른 채 다음 황제 자리에 오른 이의 손에 죽었겠지만 지금 레아는 차라리 그게 더 나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 정도로 레아는 지금 힘들었고 괜찮지가 않았다.

하지만 그래도 레아는 다시 파티장으로 돌아가 사람들을 만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웃어야만 했다. 레아는 다닐로만 제국 황제의 유일한 가족인 황녀였으니 그래야만 했다.

“그냥 이대로 도망가버릴까.”

솔직한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이대로 사라지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할 리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에 레아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레아 황녀님!”

그렇게 우울한 생각만 하며 터덜터덜 걸으며 파티장으로 가고 있을 때 자신을 부르는 익숙한 목소리에 레아는 고개를 들었다. 그러자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는 라이 경의 모습이 보였다.

“라이 경….”

“파티장에 안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대체 혼자서 어디를 다녀오신 겁니까?”

“……….”

“혹시…프레디 소공자를 만나셨습니까?”

“응. 만났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프레디 소공자를 만났다는 레아의 말에 라이 경은 입술을 꾹 깨물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결국 그 자식은…. 라이 경은 이제 친구도 뭣도 아닌 프레디 소공자가 황녀님께 무슨 얘기를 했을지 다 알고 있었기에 지금 레아 황녀님이 너무 걱정되었다.

‘괜찮으시냐고 물어보고 싶지만, 레아 황녀님은 분명 괜찮다고 하시겠지. 분명 안 괜찮으실 게 뻔한 이 상황에서도.’

또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면서 괜찮다고 하실 레아 황녀님이란 걸 알아서 라이 경은 황녀님께 괜찮으시냐고 물어볼 수가 없었다. 대신 라이 경은 지금 전혀 괜찮지 않을 레아 황녀님께 이런 말을 해주었다.

“레아 황녀님. 황녀님이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프레디 소공자를 죽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하시는 만큼 두들겨 패서 반 죽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평생 헛소리 못 하게 혀를 잘라버리고 이를 모조리 뽑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라이 경은 프레디 소공자가 나한테 어떤 말을 해줬는지 알고 있나 보네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긴, 스텔라는 애초에 처음에는 라이 경을 좋아했다고 했으니까. 거기다 라이 경과 프레디 소공자는 아카데미 때부터 친구였으니 그 일을 모르고 있을 리가 없었다. 레아가 다리아 영애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라이 경은 프레디 소공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으니 어쩌면 그때 프레디 소공자가 레아에게 모든 걸 고백할 거라고 말했을지도 몰랐다.

‘그럼 지금 라이 경은 나를 걱정해주고 있는 거구나. 혹시라도 내 마음이 다쳤을까 봐.’

내가 프레디 소공자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다쳤는가? 아니면 다치지 않았는가? 그건 레아도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레아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다쳤을까 봐 걱정해주는 라이 경의 마음이 고마워서 그게 조금은 위로가 되었다.

“고마워요. 나 지금 진짜 안 괜찮은데 라이 경 덕분에 조금 위로받았어요.”

“프레디 소공자를 죽여버리라고 하시면 언제라도 바로 죽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진짜 콱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워지는 날이 오면 꼭 라이 경한테 아무도 모르게 야산에 묻어버리라고 할게요.”

“황녀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묻어버리겠습니다.”

“하하. 아, 진짜요?”

반 정도는 농담으로 한 말인데 진지하게 대답하는 라이 경을 보며 레아는 웃음이 나왔다. 분명 웃을 기운조차 없을 정도로 힘이 없고 기분도 안 좋았는데 라이 경을 보자 레아는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다. 레아는 그럴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누군가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든든하고 의지가 될 수도 있구나. 라이 경이 옆에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해지는 거 같아.’

사실 라이 경이 엄마의 과거 때문에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레아에게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말은 없었다. 하지만 유일하게 레아가 아는 모든 걸 같이 알고 있고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레아는 충분히 위로되고 힘이 되었다. 그게 참 신기하다고 생각하며 레아는 잠깐 이런 생각을 했다.

‘라이 경이 좋아하는 여자가 나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잠깐,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아무리 요즘 너무 힘들어서 라이 경한테 많이 의지했다고 해도…! 자연스럽게 들어버린 생각에 당황스러워하고 있을 그때였다.

“에취!”

“레아 황녀님. 괜찮으십니까?”

“아, 네. 눈도 오는데 밖에 오래 있어서 그런가. 하하….”

“혹시 감기 드신 거 아닙니까?”

“에이, 아닐 거예요. 우나타는 벨리시타보다 훨씬 춥고 눈도 더 많이 오는데 저는 10살 때 이후로 한 번도 감기에…에취!”

“정말 감기라도 드신 거면 분명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많이 걱정하실 겁니다.”

레아가 감기에 걸렸는데 과연 아빠가 단순히 걱정하는 거로 끝이 날까. 분명 황궁이 발칵 뒤집힐 게 뻔했다. 레아는 그럼 정말 큰 일이라고 생각하며 허허 웃었고 라이 경은 그런 레아를 걱정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저 진짜 괜찮아요.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혹시 열이라도 나시는 거 아닙니까?”

“앗….”

라이 경은 그렇게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레아의 얼굴을 만지려고 했다. 손을 뻗으려는 라이 경 때문에 조금 놀란 레아는 움찔했고 그 모습에 라이 경은 뻗으려던 손을 멈췄다. 이대로 있다간 분위기도 어색해질 거 같고 라이 경이 그대로 손을 거둘까 봐 레아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라이 경의 손을 덥석 잡아버렸다.

‘아니, 갑자기 손을 잡아버리면 어떡하자는 거야! 에이, 어차피 잡아버린 거 나도 모르겠다!’

여기서 손을 그냥 놓아버리면 분위기는 더 이상해질지도 몰랐다. 레아는 어차피 뭘 하든 분위기 이상해질 거 그냥 될 대로 되라는 마음으로 라이 경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다. 그리고 괜히 부끄러워서 변명하듯 중얼거리며 말했다.

“아니 진짜 열이라도 나면 큰일이니까…. 그리고 라이 경 손이 따듯하기도 하고 또….”

“……….”

“크흠. 어때요? 열나는 거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마도 아니고 볼인데 방금까지 찬 바람을 쐬고 왔으니 당연히 알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그렇게 말하며 라이 경은 천천히 레아의 얼굴에서 손을 뗐고 괜히 민망해진 레아는 헛기침했다.

‘내가 미쳤었지. 갑자기 왜 남의 손을 덥석 잡고 얼굴에 가져다 댄 거람. 얼굴 빨개진 거 아닌지 모르겠네.’

왜 갑자기 그런 충동적인 짓을 한 건지 레아도 당황스럽고 자꾸만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래도 다행히 라이 경은 눈치 못 챈 거 같아서 레아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라이 경도 꼭 레아처럼 빨개졌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채 말이다.

\*\*\*

그렇게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레아의 생일이 끝이 나고 곧 12월도 끝이 났다. 새로운 해를 알리는 1월이 왔고 그렇게 레아는 17살이 되었다. 아직 해야 할 일도 많고 끝내야 할 것도 많은 17살 레아가 가장 먼저 하게 된 일은….

1월 1일부터 침대에 누워 감기 때문에 끙끙 앓는 것이었다.

‘프레디 소공자…. 진짜 감기 다 낫기만 하면 바로 죽여버릴 거야!’

지금 알아봐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닌 바쁜 레아에게 이렇게 침대에 누워 지독한 감기로 인해 골골거릴 여유가 있을 리가 없었다. 마음 같아서는 아픈 몸을 이끌고 정보를 구하고 싶었지만, 아빠를 포함한 황궁 안의 모두가 그걸 허락해줄 리가 없었다. 레아는 거의 일주일 동안 강제로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했다.

라이 경도 레아 황녀님께서 절대 방 밖으로 나오시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바람에 시녀들은 레아가 침대에서 내려오는 것조차 화장실을 갈 때를 제외하곤 절대 허락해주지 않았다. 이제 시녀들은 라이 경은 거의 황녀님의 예비 남자친구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거 같아 레아는 한숨을 푹 쉬었다.

“이러다 진짜 남의 집 멀쩡한 아들 혼삿길 막아서 내가 책임지게 생겼네.”

뭐, 사실 라이 경이라면 진짜로 책임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은데.

레아는 잠시 그런 생각을 하다 깜짝 놀라서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요즘 감기약에 취해서 그런지 생일 때 이후로 레아는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거기다 옆에 라이 경이 있으면 자꾸 힐끔힐끔 훔쳐보다가 눈이 마주치게 되고 눈이 마주치면 얼굴이 빨개질 것만 같아서 곤란했다. 그래서 오늘은 라이 경에게 뭘 좀 알아 오라고 심부름을 보낸 상태였다.

‘하이모어 대공이 지금까지 후원했던 사람들 명단을 쭉 뽑아오라고 했는데 잘하고 있으려나. 원래는 나도 같이 알아보려고 했던 건데.’

레아는 하이모어 대공의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 집안에서 후원받은 사람을 한 명도 빠트리지 말고 다 알아낼 생각이었다. 그건 다리아 영애에게 알아봐 달라고 했던 광산에 대한 것과 달리 혹시라도 엄마의 과거와 관련이 있을까 싶어 알아봐 달라고 한 것이었다.

‘키린도 하이모어 대공의 후원을 받아서 마법을 배울 수 있었던 거라고 했었지. 사실 엄마랑 하이모어 가문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지금으로선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거라도 해야 레아의 마음이 좀 놓일 거 같았다. 그리고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면 혹시라도 뭐가 나올 수도 있으니 일단 뭐라도 해보자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뭔가 정말 나오기는 나올까 하는 마음으로 레아는 침대 옆에 있던 책을 집어 들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미 세상 사람들 모두 다 아는 내용이었고 딱히 도움 되는 정보도 없을 거 같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침대에서 레아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었다. 레아는 그래도 읽으면 뭐라도 도움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책을 펼쳤다. 그런데 그때였다.

누군가 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레아는 읽으려던 책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라이 경이 벌써 온 건가 싶어 바로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레아 황녀님. 지독한 감기에 걸리셨다고 해서 문병 왔습니다. 좀 괜찮으십니까?”

“하비투스.”

“선물로 오렌지 주스 사 왔어요. 드세요.”

“선물이라니까 일단 받기는 받겠지만 설마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은데 안에 뭔가 이상한 걸 넣은 오렌지 주스를 주는 건 아니겠죠?”

“이상한 거라뇨.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죠. 제가 레아 황녀님을 얼마나 아끼고 생각하고 있는데.”

“뭘 아끼고 생각한다는 건지….”

지금 내가 누가 한 폭탄 발언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레아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하비투스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왜 왔어요? 의미 없이 찾아왔을 리는 없을 거 같은데 뭐 할 말이라도 있어서 왔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병 왔다고.”

“지금 그걸 나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외삼촌이 지독한 감기에 걸린 조카 문병 오는 게 그렇게 믿지 못할 일인가요?”

“누가 외삼촌이고 조카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외삼촌이란 존재는 있었던 적이 없어서 원래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존재는 아닐 것이었다. 그런데도 뻔뻔하게 자신은 외삼촌이라고 우기는 하비투스를 보며 레아는 한숨을 쉬었다.

74.강한 부정.docx

“그래서 하비투스는 대체 언제 돌아갈 작정이죠?”

“라이 경 오면 갈게요.”

“저 이제부터 잘 거예요. 라이 경도 곧 올 거니까 인제 그만 좀 가시라고요.”

“그냥 저 없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주무세요. 곧 라이 경 오면 그때 알아서 갈게요.”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레아가 황녀가 되고 나서 이렇게 더럽게 말 안 듣는 사람은 또 처음이었다. 아니, 황녀가 되기 전에 평범한 평민이었을 때도 이런 사람은 만난 적이 없었다. 이제 하비투스도 31살인데 어쩜 앙겔루스 제국의 크레 황자와 트레 황자보다 더 철부지처럼 구는 건지 레아는 한숨만 나올 뿐이었다.

“하비투스. 솔직히 우리 엄마랑 친했다는 거 다 거짓말이죠? 하비투스가 일방적으로 쫓아다닌 거 아니에요?”

“아리샤 누나가 저 진짜 예뻐했다니까요. 정 못 믿으시면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 여쭤보시면 되잖아요.”

“아빠한테는 진작에 물어봤죠. 근데 그래도 못 믿으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부녀 사이에 신뢰도가 이렇게 부족하다니. 슬프네요.”

“우리 부녀 사이의 신뢰도가 문제가 아닐 텐데요.”

전에도 이 비슷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런데 왜 아직도 엄마가 도대체 왜 하비투스를 예뻐했다는 건지 레아는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았다. 아빠에게는 목적이 있어서 다가간 거라고 쳐도…. 레아는 정말 진지하게 다시 한번 엄마의 취향이 의심스러워졌다.

“진짜 우리 엄마는 이런 성격을 가진 이상한 사람을 왜 예뻐했지? 이해가 안 가네.”

“본인이 앞에 있는데 대놓고 성격 이상한 사람이라니. 저 상처 받았습니다.”

“지금 내가 하비투스 상처받는 거까지 신경 써줄 여유가 없어서요. 하비투스 때문에 요즘 내가 얼마나 바쁜데.”

“직접 알아내신다고 고생이 많으신 거 같네요.”

“그러게요. 누구 때문에 제 친구랑 호위기사가 참 고생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한테 흑마법 배워서 일기장 읽어보시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는데 배우실래요?”

결국, 돌고 돌아서 하비투스랑은 이 얘기를 나누게 되는구나. 레아는 작게 한숨을 쉬곤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비투스와 그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일단 지금으로선 나한테 정보를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니까. 몇 번이고 읽었던 책을 계속 읽는 것보다는 이쪽이 그나마 더 영양가 있겠지.’

물론 레아는 아직 흑마법을 배울 생각이 전혀 없었고 하비투스에게 정보를 얻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닐 거로 생각했다. 그래도 일단은 밑져야 본전이라며 시녀들에게 잠시만 자리를 비켜달라고 부탁했고 곧 레아의 방에는 레아와 하비투스 단둘이 남게 되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둘이서만 할 비밀 얘기가 있다고 해도 단둘이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으면서 오늘은 황녀님께서 먼저 시녀들한테 다 나가라고 하시다니. 그 사이에 무슨 변화라도 있었던 겁니까?”

“변화는 무슨. 그냥 이제 적어도 다짜고짜 위협을 가할 정도로 미친 사람은 아니라는 건 알아서 그런 거예요.”

“흐음. 그래도 저는 레아 황녀님께서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건 다행인 건가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하비투스를 얼마나 싫어하는데.”

하이모어 가문의 세 남자보다는 아니었지만 하비투스도 지금 레아를 힘들게 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의 과거니 복수니 뭐니 하는데 레아가 하비투스를 싫어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푹 눌러쓴 모자를 벗더니 하비투스는 자신이 싫다는 레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을 했다.

“왜요? 나 미움받을 짓 안 한 거 같은데?”

“뭘 미움받을 짓을 안 해요. 하비투스가 우리 엄마의 과거랑 복수 얘기한 다음부터 내가 얼마나 힘들고 혼란스러웠는데!”

“아니, 딸로서 엄마 인생 망친 놈한테 대신 복수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레아 황녀님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너무하시네요.”

“문제는 그 복수해야 할 대상이 우리 아빠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막장이고 패륜이에요?”

“네? 레아 황녀님께서 복수해야 할 대상이 레그마인 황제 폐하라고요?”

엄마는 선황을 향한 복수로 선황의 아들인 아빠를 죽이려고 했었다. 엄마와 하비투스가 가족을 잃고 아파했던 만큼 똑같이 아파보라는 마음으로 엄마는 선황의 아들인 아빠를 죽이기 위해 접근한 것이었다. 그러다 어쩌다 보니 레아를 임신한 엄마는 복수를 포기하고 조용히 떠난 것이었다. 작은 생명이었던 레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엄마가 끝내지 못한 복수를 대신해달라고 했으니 그게 레아에게 아빠의 목숨을 잃게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처음에는 복수의 대상이 다른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애써 부정했지만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레아는 다른 복수 상대를 찾지 못했다.

‘내가 복수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빠를 내가 어떻게….’

그리고 엄마가 아빠를 죽이려고 했던 건 아빠를 향한 복수가 아니라 선황을 향한 복수였고 아빠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레아는 생각했다. 그런데 선황께서는 이미 레아가 황궁에 오기도 전에 돌아가셨으니 엄마에겐 조금 미안하지만 인제 와서 레아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자신이 엄마와 아빠가 서로 사랑해서 생긴 아이가 아니라는 점이 슬플 뿐이었다.

그런데 레아의 말을 듣고 하비투스는 그게 무슨 말이냐는 듯 얼굴을 찌푸렸다.

“일기장 안 읽고 혼자 알아서 알아내고 생각해보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레아 황녀님께서 복수하셔야 할 상대가 레그마인 황제 폐하라니. 도대체 무슨 정보를 듣고 그런 생각을 하신 겁니까?”

“뭘 듣고 그런 생각을 했냐니. 하비투스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제가요? 언제요?”

“분명 하비투스가 엄마는 선황을 향한 복수로 아빠를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끝내지 못한 복수를 끝내 달라고 했고. 그럼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아니, 아무리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설마 제가 딸한테 아빠를 죽이라는 그런 패륜적인 말을 했겠습니까?”

글쎄. 다른 사람이라면 모를까 하비투스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뜻을 가득 담은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레아를 보며 하비투스는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아니,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봐요. 하비투스가 나라면 오해 안 하게 생겼어요? 가뜩이나 하고 다니는 것도 수상한데?”

“수상하다고요? 제가요?”

“네. 그 어두컴컴한 방에서 안 나오는 것도 수상하고 그 새카만 로브 뒤집어쓰고 커다란 모자 푹 눌러쓰고 다니는 것도 엄청 수상해 보여요. 몰랐어요?”

“그런 말 처음 들어봅니다. 다닐로만 제국 최고의 마도사인 나한테 수상해 보인다니….”

“본인 입으로 그런 말 하면 안 부끄러워요?”

다닐로만 제국 최고의 마도사란 말이 딱히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렇지 자기 입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저런 말을 하다니. 레아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래도 일단 자신이 복수해야 할 사람이 아빠는 아니라는 그 말에 레아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근데 그러면 엄마가 끝내지 못한 복수를 내가 끝내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지? 내가 모르는 뭔가가 또 있는 건가?’

그럼 대체 레아가 복수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그 상대가 누군지 알아야 복수를 할지 아니면 하지 말지, 한다면 어떻게 복수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었다.

“아무튼, 제가 말한 아리샤 누나가 끝내지 못한 복수는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목숨을 빼앗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리샤 누나가 절대 원하지 않을 거니까.”

“엄마는 아빠가 죽는 걸 원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죽길 바라는 미친 여자도 있나요? 누나가 폐하를 얼마나 좋아했었는데.”

“하지만 엄마는 처음에 아빠를 죽이려고 접근했다면서요.”

“처음에는 그랬죠. 처음에는. 그런데 곧 아리샤 누나는 정말 진심으로 폐하를 좋아하게 됐어요. 진짜 흔한 로맨스 소설처럼.”

“우리 엄마가…우리 아빠를요?”

평범한 집이었다면 정략결혼처럼 무슨 목적이 있어서 만난 사이가 아니라면 엄마가 아빠를 사랑했었다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레아의 부모님은 정략결혼이 가능한 신분도 아니었고 평범하지도 않았으므로 새삼스럽게 엄마가 아빠를 사랑했다는 점이 놀라웠다. 심지어 처음에는 죽이려고 접근했다가 사랑에 빠졌다는 점이.

‘엄마는 과연 아빠의 어떤 점에 반하신 걸까. 처음에는 복수의 대상으로만 보다가 나중에 진심으로 좋아하게 된 거라니 단순히 잘생겨서 좋아했을 리는 없고. 그럼 도대체 아빠의 어느 부분이 좋았던 걸까. 우리 엄마는….’

사실 엄마는 정말로 취향이 아주아주 특이했던 걸까. 잠시 진지하게 그런 생각을 하는 레아를 보며 하비투스는 이런 말을 했다.

“레아 황녀님도 아시겠지만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도 사실은 불쌍한 분이세요. 저랑 아리샤 누나랑 똑같이, 어쩌면 더 외롭고 아팠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아리샤 누나도 폐하를 사랑했던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해요. 나랑 비슷하게 아픈 사람을 외면한다는 건 너무 슬프고 힘든 일이니까.”

아빠가 가족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쓸쓸하게 자라왔다는 건 레아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엄마가 어떻게 황궁 시녀가 되었는지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하비투스의 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 레아는 잠시 입을 꾹 다물었다.

‘비슷한 상처 때문에 외면할 수 없었고 그렇게 망설이면서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정이 들고 사랑에 빠졌다는 건가.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확실히 계속 옆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정이 들어버리긴 하지.’

그런데 엄마는 왜 아빠를 사랑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다가 레아는 자연스럽게 라이 경이 떠오르자 순간 당황스러웠다.

‘그야 라이 경은 항상 내 옆에 있어 주니까 생각난 거겠지. 계속 같이 있으니까 많이 친해지기도 했고 정이 드는 것도 당연하지. 그래서 생각난 거지 절대 다른 감정이 있어서 생각이 난 게 절대 아니야.’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괜히 혼자 당황해서 레아는 자기 자신에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건 절대 절대 아니라고 변명을 했다. 왜 이렇게 열심히 부정하고 변명하는 건지는 레아도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레아 황녀님.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셨는데 열이라도 나시는 겁니까?”

“아, 아니에요. 무슨 얼굴이 빨개졌다는 거예요.”

“지금 황녀님 얼굴이 불타오를 것처럼 빨개지셨습니다. 이러다 곧 터지겠는데요?”

“아, 진짜….”

하비투스의 말에 레아의 얼굴은 더 빨개졌고 그게 당황스러워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런 레아에게 하비투스는 조용히 오렌지 주스를 따라주며 생각했다.

‘저 얼굴 17년 전에도 한번 본 적 있는 얼굴인데. 아리샤 누나랑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막 연애하기 시작했을 무렵에 누나 얼굴도 저랬었는데.’

막 연애를 시작했을 무렵이라고 해도 순수한 의도로 접근한 게 아니었으니 아마 누나가 서서히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을 때의 그 얼굴과 지금 레아 황녀님의 얼굴은 비슷했다. 그땐 어려서 몰랐었는데 이제는 알 거 다 아는 하비투스는 레아 황녀님께 물어보았다.

“레아 황녀님. 좋아하는 사람 생기셨어요?”

“푸흡!”

“아, 깜짝이야! 왜 갑자기 오렌지 주스를 뿜고 그러세요?”

“콜록, 콜록…!”

“뭐야. 혹시 정말 좋아하는 사람 생긴 거예요? 내가 너무 정곡을 찔러서 놀라신 건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아니면 아닌 거지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하비투스는 그렇게 말하면서 레아에게 오렌지 주스를 다시 따라주었고 레아는 그런 하비투스를 찌릿 노려보았다. 그래도 이제는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빨개지지 않는 거 같아 이번만 봐준다고 생각하며 레아는 오렌지 주스를 꼴깍꼴깍 마셨다.

‘그러고 보니 나 어릴 때 감기 걸리고 아프면 우리 엄마도 항상 오렌지 주스를 줬었는데. 하비투스도 아플 때 오렌지 주스 마시는 건 우리 엄마한테 배운 걸까?’

확실히 아플 때 오렌지 주스를 마시면 레아는 몸이 가벼워지고 목이 아픈 것도 좀 나아지는 느낌이었다. 아빠의 증언에 의하면 하비투스도 누나, 누나 하면서 엄마를 잘 따랐다고 하니 생각해보면 하비투스는 레아에게 정말 외삼촌과 조금은 비슷한 존재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레아는 그걸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외삼촌은 무슨. 이제 나한테 가족은 아빠밖에 없어.’

하비투스가 아무리 본인은 외삼촌이라고 주장해도 레아가 사절이었다. 레아는 그렇게 생각하며 오렌지 주스를 남기지 않고 쭉 들이켰다.

\*\*\*

“네가 내 집무실에 온 건 오랜만인 거 같구나. 크라스.”

“19살 때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기사의 일 이후로 처음이니까요.”

“말조심해라. 누가 듣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네. 죄송합니다. 아버지.”

남들은 크라스 경이 19살 때 참전한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다고 알고 있었지만 사실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크라스 경은 전쟁에서 적의 숨겨진 실세의 존재를 눈치챈 기사의 목을 베어 마치 자신이 그 사실을 알아낸 것처럼 그림을 만든 것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몇 명의 기사에게 뒷돈을 찔러주고 입을 막은 것이었다.

완벽함에 집착하는 하이모어 대공은 혹시라도 가문의 이름에 먹칠이라도 할까 봐 최대한 그 일을 덮으려고 힘을 썼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공은 아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며 그의 손바닥 위에 있게 되었다.

‘내 아들이지만 무서운 녀석이야. 어떻게 저런 게 내 밑에서 나왔는지….’

남들이 보기에 크라스 경은 자랑스러운 아들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이모어 대공은 그런 아들이 조금 두려웠다. 아직 젊은 나이에 돈과 권력에 취해 크라스 경처럼 조심성도 없이 사고를 치고 뭐든지 돈으로 덮으려고 하다가는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잃게 될지도 몰랐다. 모든 건 정도가 있는 법인데 크라스 경은 그게 없다는 게 너무나도 큰 문제였다.

사실 하이모어 대공이 할 말은 아니었지만, 대공은 그런 아들이 걱정이었다. 괜히 아들 때문에 자신도 모든 걸 잃게 될까 봐 그게 걱정이었고 그런 아버지를 보며 크라스 경은 불길하게 웃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다.

“아버지. 제가 하이모어 가문에서 국서가 나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75.그 사람도 이제는 잊어주길 바랄 거예요.docx

“아버지. 제가 하이모어 가문에서 국서가 나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크라스 경 입에서 국서라는 말이 나오자 하이모어 대공은 얼굴을 찌푸렸다. 12월에 황궁에서 열렸던 파티에서 있었던 일로 레그마인 황제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하이모어 가문의 사람이 국서가 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얼마나 자기 딸이라고 아끼던지. 이러다 황제 자리도 그 계집한테 물려준다고 할까 봐 무섭군. 설마 진짜 그러기야 하겠느냐마는….’

아무리 레아 황녀 한정 호구인 레그마인 황제라고 해도 시녀와의 사이에서 생긴 사생아에다 시골에서 빵을 굽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황궁으로 끌려와 황녀가 된 아이가 황제가 된다는 건 정말 말 그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이모어 대공은 생각했다. 특히 황녀의 친모가 아리샤 휘틀리라면 더더욱.

설마 레그마인 황제는 레아 황녀가 원한다면 충분히 황제라는 자리에 앉히고도 남을 사람이고 레아 황녀도 대공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한 아이란 건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네가 어떤 방법을 생각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 어떤 방법을 써도 레그마인 황제가 허락할 리가 없다. 일단은 조금이라도 좋은 인상을 심어두고 그다음에 치고 들어가야 해.”

“언제까지 황제 폐하와 황녀님의 호감을 사고 치고 들어갈 때를 기다려야만 합니까? 그러다 국서 자리를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국서 자리를 빼앗기다니. 물론 국서가 되고 싶어 하는 이들은 많지만 레그마인 황제가 순순히 허락해줄 리가 없어. 내가 보냈던 네 혼담도 그렇게 단칼에 거부했으니 다른 집안이 눈에 찰 리가 없지.”

설마 다른 제국의 황족을 데리고 와서 결혼시키려는 생각인가. 하이모어 대공은 그런 생각을 하며 한숨을 쉬었다.

“설령 자리를 뺏기지 않는다고 해도 두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호감을 사는 건 밤하늘에 별을 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아버지도 저도 그리고 프레디까지 모두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니까요.”

“프레디 그 자식 도대체 뭐 하는 놈인지 모르겠군. 저런 것도 내가 자식이라고….”

“그래도 요즘은 황궁 근처에 얼씬도 안 하고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죽는다고 해도 도움이 안 될 녀석이 모처럼 조용히 있다니 다행이긴 하지만 폭탄 같은 녀석이야.”

처음 태어났을 때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떨어져서 완벽해야만 하는 인생에 유일하지만 엄청난 흠을 내더니 지금은 언제 터질지 몰라서 불안 불안한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느낌이었다. 하이모어 대공은 죽이지 못해 데리고 사는 아들을 생각하며 한숨을 쉬었다.

“그 폭탄도 함께 처리할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설마 아까 하이모어 가문에서 국서가 나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게 프레디를 국서로 만들겠다는 건 아니겠지?”

“맞습니다. 저는 그 녀석과 레아 황녀님을 결혼하게 할 생각입니다.”

“크라스. 지금 제정신인 거냐? 우리 가문의 흠을 다른 곳도 아니고 황궁으로 보내겠다니!”

“흠이기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별로 그럴 거 같지도 않았지만, 만약 만에 하나라도 프레디와 레아 황녀가 잘된다고 해도 그다음 들려올 소리는 뻔했다. 사생아와 사생아의 만남이라고 다들 우습게 보고 조롱할 게 뻔한데 크라스 경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둘을 결혼하게 할 거라는지 하이모어 대공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어차피 황제의 사생아에 시녀의 딸인 황녀입니다. 제 어미를 닮았으면 자신과 같은 사생아인 프레디 소공자에게 연민을 느끼고 사랑에 빠지게 만들면 되는 간단한 일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레그마인 황제라고 해도 그렇게 아끼는 딸이 좋다는데 결국은 허락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집안에서 국서가 나오게 되면 황궁에서도 우리를 경계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치고 올라가는 것도 한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프레디는 우리 가문의 수치이자 흠이란 건 너도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런 녀석이 아무런 국서가 되었다간 오히려 망신스러운 일이 생길 게 뻔한데 그걸 알면서도 프레디를 국서로 만들겠다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군.”

“물론 프레디는 하이모어 가문에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죠. 하지만 레아 황녀 역시 다닐로만 제국의 황궁에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들끼리 만난다면 당연히 제국이 떠들썩해질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프레디를 국서로 만들겠다는 건가?”

“얼핏 들으면 위기지만 찬찬히 생각해보면 그건 오히려 기회입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프레디가 처음으로 하이모어 가문에 도움이 될 기회.”

그 골칫덩어리 시한폭탄이 가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오히려 가문의 이름을 더럽히지나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크라스 경의 생각은 하이모어 대공과 조금 다른 듯했다.

“황제의 사생아와 대공의 사생아. 자극적인 느낌이 큰 만큼 예쁘게 포장하기 좋은 것도 없는 법입니다.”

“예쁘게 포장?”

“그럴듯한 소설을 만들어서 소문을 퍼트리는 건 어려울 것도 없는 간단한 일입니다.”

레아 황녀의 출생에 얽힌 이야기도 그럴듯한 이야기로 포장되어 꼭 동화처럼 예쁜 이야기로 소문이 퍼져 있었다. 그 뒤에는 가스파르 재상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고 그것과 똑같이 프레디 소공자의 출생도 그럴듯한 이야기로 포장하고 예쁘게 꾸미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하이모어 대공의 표정은 좋지 않았다.

“그 녀석도 이제 21살이야. 태어난 지가 언젠데 인제 와서 그런 소문이 통할 리가 없지.”

“오히려 지금이기에 더욱 소설 같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고난과 역경이 있어야 더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되는 법이니까요.”

대공이었던 한 남자와 시녀였던 여자는 아주 오랜 연인이었지만 결국 신분 차이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랑 없이 어른들이 정해준 짝과 결혼을 하게 된다. 하지만 서로를 너무 사랑했던 두 사람은 그 슬픈 사랑을 끝내기 위해 딱 하룻밤을 마지막으로 보냈고 슬픈 이별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딱 그 하룻밤으로 여자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여자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남자의 앞날을 위해 그 사실을 숨겼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보니 은빛 머리카락과 짙은 파란색 눈동자를 가진 아이 때문에 모든 걸 들키게 되었고 남자는 그 아이를 키우게 된다. 사생아였지만 그 남자와 아이의 동갑내기 형은 아이를 사랑해주었고 덕분에 그 아이는 아카데미에서 수석 자리를 놓친 적이 없을 정도로 아주 똑똑한 아이로 자랐다.

하지만 사생아라는 주변 시선 때문에 사랑했던 여자에게도 배신당하고 상처받은 아이는 어느 순간부터 바람둥이 날라리 소리를 들으며 삐뚤어지기 시작했다. 그의 아버지와 형은 그를 바른길로 인도하려고 쓴소리도 해보았지만 깊은 상처까지는 보듬어줄 수 없었다.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던 그 아이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제국의 황녀를 만나게 된다. 물론 처음에는 잘 맞지 않았던 두 사람이었지만 점차 서로 닮아있는 상처를 알게 되고 급속도로 가까워진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된다.

여기까지가 크라스 경이 생각해낸 이야기였다.

“아버지께서 프레디를 위해 사실을 숨기고 비난받는 악역이 되기를 선택하셨다고 하면 여태까지 잠자코 있었던 것도 다들 그러려니 할 것입니다.”

“그럼 그동안 잠자코 있다가 인제 와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영원히 덮으려고 했으나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이니까요. 그건 집안의 후원을 받고 현재 황궁 소속이 된 사람들에게 맡기면 될 일입니다.”

“그렇게 소문이 난다면 확실히 황실에선 가볍게 무시할 수 없겠지. 문제는 그 레아 황녀가 프레디와 사랑에 빠지는 건데….”

성격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게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어쩌면 레그마인 황제보다 더 미친년일지도 모르는 황녀가 과연 못난 부분뿐인 프레디에게 반할 수 있을지가 문제였다. 아무리 비슷한 상처가 있다고 해도 하이모어 대공은 그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다. 그런데 그런 대공을 보며 크라스 경은 불길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어차피 레아 황녀나 프레디의 마음과 감정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다.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하게 만들면 되는 거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사랑하지 않더라도 결혼할 수밖에 없게 만들면 되니 말이다.

\*\*\*

“그래서 하비투스는 언제 갈 건데요? 문병이라면 이미 충분한 거 같은데.”

“라이 경 오면 간다니까요.”

“라이 경 늦게 올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복수해야 할 상대 이름 알려줄 거 아니면 내 방에서 나가요.”

“아까는 곧 올 거라고 그랬으면서.”

“아니, 라이 경이 언제 오든 그게 하비투스랑 무슨 상관인데요. 아픈 사람 옆에 너무 오래 있는 것도 실례인 거 몰라요?”

“하지만 아플 때 혼자 있으면 심심하고 더 외롭잖아요.”

“아뇨. 전혀 안 심심하고 절대 안 외로우니까 이제 좀 가세요.”

안 그래도 바쁜데 심심하고 외로울 틈이 있을 리가 없었다. 그런데 그런 레아의 말에 하비투스는 조금은 시무룩한 얼굴과 침울한 목소리로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했다.

“난 아플 때 옆에 아무도 없어서 엄청 서러웠는데.”

“네?”

“어릴 때부터 가족도 없고 옆에 아무도 없었잖아요. 아리샤 누나가 떠난 이후로 매일 외롭고 슬펐는데 아플 때 특히 더 서러웠거든요.”

“하비투스.”

“너무 마음 쓰지는 마세요. 그러시라고 한 말은 아니니까.”

하비투스도 아주 어렸을 때 가족을 잃고 고아로 황궁에 들어오게 된 거니까. 거기다 친누나처럼 믿고 따르던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났으니 어린 하비투스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었다. 그래서 성격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걸지도 모르겠다고 레아는 생각했다.

‘솔직히 정말 그런 거라면 좀 안쓰럽긴 해. 하비투스랑 프레디 소공자도 좋은 부모 밑에서 행복하게 자랐다면 좀 정상적인 정신세계를 가지게 됐을지도 모르는 건데.’

그리고 아빠도 사랑받는 환경에서 자랐으면 지금과는 좀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어릴 때부터 아빠 없이 자랐고 솔직히 단 한 번도 평범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가져본 적이 없는 레아였지만 삐뚤어지지 않고 이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우나타에 있는 가족 같은 이웃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우나타를 떠난 지금도 그만큼 레아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힘든 일이 있어도 그나마 버틸 수 있었다.

‘특히 라이 경이 옆에 없었다면 진짜 머리를 빡빡 밀어버린 다음에 얼굴도 다 가리고 황궁을 탈출해버렸을지도.’

그 정도로 레아는 황궁에 온 이후로 알게 모르게 힘든 일이 많았고 도망치고 싶을 때마다 레아의 옆에는 라이 경이 있어 주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레아는 문득 하비투스가 엄마를 잘 따랐고 엄마가 하비투스를 예뻐했던 이유를 조금 알 것 같기도 했다. 확실히 힘들 때마다 옆에 있어 준 사람은 의미가 남다른 법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엄마는 엄마였고 레아는 레아였다.

“저는 시녀들도 있고 아파도 안 외롭고 하나도 안 서러우니까 좀 가라고요. 제발 부탁이니까.”

“칫. 역시 레아 황녀님은 아리샤 누나랑 하나도 안 닮았군요.”

“네. 저는 아빠 닮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면서 왜 자꾸 하비투스는 레아를 찾아와서 힘들게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레아는 작게 한숨을 쉬며 이제 정말로 방을 나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난 하비투스에게 마지막으로 충고 하나를 해주었다.

“하비투스. 우리 엄마가 하비투스에게는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는지 조금 알 거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건 엄마랑 있었던 일이고 이미 10년도 전에 끊긴 사이잖아요. 인제 그만 우리 엄마를 놓아주세요.”

“……….”

“이렇게 계속 하비투스가 엄마의 그림자에 머무는 건 엄마도 바라지 않을 거예요.”

레아의 진심이 담긴 충고는 하비투스를 향한 충고이기도 했지만, 그 말을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프레디 소공자가 떠올랐다. 아직도 과거에 얽매여서 미련이 한가득 남아있는 그 못난 소공자가.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안 좋은 과거를 가진 사람이 많은 걸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왜 하필 자기 일에 나를 끌어들여서 피곤하게 만드는 걸까.’

사실 따지고 보면 레아도 그다지 유복한 환경에서 마냥 꽃길만 걸으면서 살아온 것도 아닌데 주변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다. 원래 다들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며 레아는 말없이 방을 나가려는 하비투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하비투스는 문을 열기 직전 레아에게 이런 말을 했다.

“레아 황녀님. 흑마법을 배워야 할 때가 오면 꼭 저를 찾아와주시길 바랍니다. 꼭.”

“…네. 알겠어요.”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겠다고 말해도 레아는 그 말에 대답해 줄 수 없었다. 대답 없는 대답의 의미를 하비투스는 잘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말 없이 그대로 방을 나갔다. 하비투스가 방을 나가자 레아는 왠지 그 뒷모습이 신경 쓰였지만 애써 신경 쓰지 말자고 생각하며 다시 책을 손에 들었다.

‘하비투스도 그렇고 프레디 소공자도 그렇고. 둘 다 재수 없고 짜증 나는데 자꾸 묘하게 신경이 쓰인단 말이지. 기분 나쁘게.’

안 그래도 알아봐야 할 것도 많고 바쁜데 쓸데없이 자꾸 신경 쓰이게 구는 것도 싫었지만 그걸 또 무시하지 못하는 자신이 레아는 싫었다. 다른 건 레아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줘서 죽여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이상 가볍게 무시해버리면서 왜 그 두 남자에게는 그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지금은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레아는 책을 펼쳤다. 그러나 이번에도 레아는 책을 다섯 페이지 이상 읽을 수가 없었다.

“레아 황녀님. 지독한 감기에 걸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걱정이 되어 문병 왔습니다. 괜찮으신 겁니까?”

“피에르 시종장님? 연초라서 바쁘실 텐데 어쩐 일이세요?”

“황녀님이 아프시다는 데 도저히 일이 손에 안 잡혀서 말입니다. 어차피 일이란 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으니 저 하나 자리 비운다고 큰일이 나지는 않습니다.”

“아빠랑 비슷한 말씀을 하시네요. 아빠도 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스파르 재상한테 일을 다 떠넘기시거든요. 혹시 시종장님도 재상에게 일을 떠넘기고 오신 건 아니겠죠?”

“하하. 이거 레아 황녀님께 딱 들켰군요. 사실 맞습니다.”

“저 괜찮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서 가세요.”

불쌍한 가스파르 재상. 레아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피에르 시종장님을 달래서 집무실로 보내드렸다. 그런데 무슨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정확히 10분 후 가스파르 재상이 찾아왔고 레아는 똑같이 어르고 달래서 재상을 일하러 보냈다. 그리고 5분 후 소니아 부인이 찾아와서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해야만 했다.

레아는 소니아 부인까지 돌려보내고 나서야 한숨을 쉬며 책을 읽으려던 걸 포기하고 그대로 침대에 누워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었다.

‘고작 감기 걸린 정도로 다들 이렇게 찾아오다니…. 마음은 고맙긴 한데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건강관리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데 아직 뭔가 커다란 게 남은 거 같은 이 기분은 뭘까. 왠지 좀 찜찜한 느낌이 남긴 했지만, 레아는 무슨 일 있겠냐고 생각하며 눈을 꼭 감고 잠을 청했다.

76.저는 아군입니다.docx

‘뭐지. 이 소란스러운 분위기는….’

피곤해서 자려고 했는데 갑자기 들리는 우당탕 소리와 소란스러워진 분위기에 레아는 부스스 잠에서 깨며 눈을 떴다. 달게 잘 자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무슨 상황인가 싶으면서도 기분이 별로였다. 일단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는데 그 순간 누군가 레아의 방문을 벌컥 열었다.

“레아!”

“아빠?”

“다행이야. 아직 죽지 않았어…!”

“아니, 이렇게 불쑥 찾아오셔서 갑자기 멀쩡히 살아있는 딸을 죽이시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

그냥 감기에 걸렸을 뿐인데 안 죽어서 다행이라고 진심으로 안도하고 있는 아빠에게 과연 딸은 무슨 말을 해야 하는 걸까. 할 말을 잃은 레아는 가만히 아빠를 바라보다가 그냥 작게 웃었다.

‘그래. 이래야 우리 아빠지.’

평범한 다른 아빠들과는 달라도 참으로 레아 아빠다운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모습에 레아는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냥 감기에 걸렸을 뿐이에요. 약도 먹었고 일주일 정도 푹 쉬었으니까 곧 괜찮아질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딸이 일주일이나 감기 때문에 앓아누웠는데 그걸 이제야 알게 되었다니….”

그야 레아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빠에게만은 절대 감기에 걸려 아프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아빠 귀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었다. 그런데 결국 우당탕 소리와 함께 이렇게 달려오신 걸 보니…. 아무래도 오늘 문병을 왔다 간 누군가 때문에 들킨 것 같다고 레아는 생각했다.

‘가스파르 재상 아니면 피에르 시종장님이 범인이시겠지. 안 봐도 뻔해.’

그런데 그 두 사람은 대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길래 아빠는 딸이 죽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안도하셨던 걸까. 레아는 분명 그 둘과 얘기도 잘하고 어르고 달래서 일하러 보냈는데 어째서 일이 이렇게 된 건지 허허 웃음만 나올 뿐이었다.

“어쩐지 일주일이나 같이 저녁을 못 먹어서 혹시 아빠가 뭐 잘못했나 하고 걱정했는데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마음씨도 곱고 생각까지 깊은 우리 레아가 아빠한테 감기 옮길까 봐 그랬던 거였구나!”

“하하. 네. 뭐….”

“역시 우리 딸이야. 누굴 닮아서 이렇게 착하고 남을 배려할 줄도 아는 건지. 역시 우리 레아는 천사가 분명해.”

“……….”

“하지만 이 아빠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아빠는 그 어떤 지독한 감기에 걸리는 것보다 우리 딸을 보지 못하는 게 더 아프고 힘드니까.”

감기에 걸린 이후로 얼굴을 못 보다가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못 본 사이에 더 심각해진 아빠의 주접에 레아는 다시 할 말을 잃었다. 이것도 참으로 레아 아빠다운 모습이긴 했지만 역시 이건 아무리 듣고 또 들어도 적응이 되지 않았다. 아무래도 아빠의 넘치는 이 사랑은 죽을 때까지 적응이 안 될 거 같다고 생각하며 레아는 아빠도 얼른 어르고 달래서 집무실로 보내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빠. 요즘 바쁘지 않으세요? 연초라서 다들 엄청 바쁘시다고 했는데 아빠가 계속 여기 있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괜찮아. 나 하나 하루 땡땡이친다고 다닐로만 제국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황제 폐하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 거 같은데요.”

“하지만 난 다닐로만 제국의 황제이기 전에 우리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레아의 아빠인걸.”

“…이걸 감동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제국의 미래를 걱정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가스파르 재상이랑 피에르 시종장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레아는 그런 거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돼.”

아빠는 밝게 활짝 웃으면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레아는 정말로 진심으로 다닐로만 제국의 미래가 걱정되었다. 사실 미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다닐로만 제국이 잘 굴러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었다.

‘도대체 어째서 아무런 문제 없이 제국이 잘만 굴러가고 있는 거지? 솔직히 우리 아빠지만 황제가 너무…….’

레아도 평민일 때는 설마 다닐로만 제국을 통치하는 황제 폐하가 이런 사람일 줄은 상상도 못 했었다. 레아는 국민이 아빠의 이런 모습을 모르고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때론 모르는 편이 속 편하고 차라리 낫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최근 레아는 아는 것보다 몰라서 더 나은 것도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중이었다. 또 그 생각을 하며 레아는 한숨을 푹 쉬었다.

“레아. 왜 그래? 어디 불편해?”

“아뇨. 그냥 좀 답답해서 그래요.”

“하긴. 감기라고 일주일 동안 산책도 못 했겠네.”

“라이 경이 아예 방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했어요. 화장실 갈 때 아니면 침대에서도 절대 못 내려오게 한 거 있죠?”

물론 레아를 걱정해서 감기가 더 심해질까 봐 그러는 건 알겠는데 일주일 동안 레아는 차가운 바깥 공기가 너무 그리웠다. 그래서 조금은 일러주는 느낌으로 입을 삐죽이며 말한 건데 아빠는 레아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다.

“답답하겠지만 어쩔 수 없지. 감기가 다 나을 때까지는 최대한 조심하도록 해. 레아.”

어…? 이게 아닌데…?

아빠는 당연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신의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아니라서 레아는 잠깐 당황했다. 아빠는 그런 레아의 머리를 살살 쓰다듬으며 말했다.

“레아가 아프면 걱정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빨리 나아야 해. 물론 그중에서도 아빠가 제일 우리 레아를 걱정하고 있고 말이야.”

“그건 알고 있지만….”

“우리 딸 감기 다 나으면 아빠가 레아가 좋아할 만한 곳으로 데리고 가줄게.”

“제가 좋아할 만한 곳이요?”

약간 7살짜리 애한테 울지 않고 잘 기다리면 사탕을 주겠다는 느낌이라서 그게 좀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자신이 좋아할 만한 곳이라고 하니 레아는 그게 어디일지 조금 궁금했다.

“거기가 어딘데요?”

“황실 정원.”

“제가 황실 정원을 좋아해서 자주 산책하기는 했지만, 지금은 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혹시 꽃 다시 심으셨어요?”

“아니. 황실 정원에는 겨울에 꽃 안 심어. 대신 다른 걸 하지.”

“다른 거 어떤 거요?”

“비밀. 아마 지금쯤이면 다 완성됐을 거야.”

“………?”

말해줄 거면 그냥 다 말해주고 비밀이면 애초에 말을 시작하지 말던가.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아빠는 씩 웃으면서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레아는 나중에 라이 경한테 물어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아빠. 그건 그렇고 이제 슬슬 일하러 집무실로 돌아가시는 건 어떠세요?”

“하루 정도는 일 안 해도 큰일 안 난다고 아까 말했잖아. 오늘은 아픈 딸 병간호하는 게 아빠 일이야.”

“그렇지만 아빠가 일을 안 하면 그만큼 다른 사람이 더 일해야 하잖아요. 안 그래도 바쁜 연초에.”

“…레아. 어째서 점점 얘기하는 게 아리샤를 닮아가는 거 같지?”

옛날에 한창 연애할 때 공부 땡땡이치고 데이트하러 가자고 하면 아리샤도 꼭 저렇게 말했었는데. 역시 피는 못 속이는 건가 하고 신기해하는 아빠는 아직 일하러 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그 모습에 레아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이거 누가 부모고 누가 자식인지…. 왠지 역할이 바뀐 거 같은데 기분 탓인 걸까.’

딱히 기분 탓이 아닌 거 같긴 했지만, 레아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자고 생각했다. 어차피 레아가 신경 쓴다고 바뀔 거 같지도 않고 그런 건 그냥 빨리 포기하는 게 답이었다.

“간호는 시녀들이 충분히 잘해주고 있으니까 아빠는 어서 일하러 가셔야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황제 폐하께서 일을 땡땡이치시면 어떡해요.”

“흐음. 황제라고 땡땡이치지 말라는 법도 없긴 하지만…. 하나뿐인 소중한 우리 레아가 원한다면 어쩔 수 없지. 일해야겠다.”

“정말요?”

“응. 우리 딸이 아빠가 놀지 말고 일했으면 좋겠다는데 일해야지.”

생각보다 빨리 고개를 끄덕이며 땡땡이를 포기하는 모습이 좀 의외긴 했지만 그래도 일하러 가신다니 레아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가스파르 재상이 죽어가는 소리는 듣지 않아도 될 것이었다.

‘그리고 나도 아빠 몰래 해야 할 게 좀 있으니까. 온종일 아빠가 옆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레아는 잠시 잊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다. 아빠는 세상 그 모든 것을 포기해도…. 사랑하는 딸 하나는 절대 포기 못 하는 우주최강 세계제일 딸바보 아니, 딸등신이라는 것을 말이다.

\*\*\*

“아빠…. 분명 일하러 집무실로 가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일할 거라고 했지 집무실로 간다고 한 적은 없는데.”

“아니, 그래도 그렇지 세상에 딸 방에서 서류 보면서 일하는 황제가 어디 있어요!”

“뭐 어때. 집무실에서 하던 여기서 하던 일만 잘하면 문제없잖아.”

“……….”

가끔 가스파르 재상이 아빠 때문에 속 터져 죽어버릴 거 같다고 할 때 그 기분이 이런 기분을 말하는 거였구나. 순간 레아는 가스파르 재상이 정말 정말 고생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분명 내 방에서 일한다고 서류 보내라고 했을 때도 거품 물고 쓰러지려고 했겠지. 다음에 만나면 힘내라고 초콜릿이라도 줘야겠다.’

분명 레아가 잘못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레아는 왠지 가스파르 재상에게 좀 미안해졌다. 사실 가스파르 재상은 어디든 상관없으니 일단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서류를 보고 일을 하시겠다고 했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했다는 걸 알 리가 없는 레아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옆에서 아빠가 다 읽고 넘긴 서류를 한번 읽어보았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하이모어 가문과 관련된 일이 제일 많구나. 가끔 다른 제국 이름도 보이고 나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말만 적힌 것도 있고.’

황녀라고 해도 레아는 아직 서류를 보고 일을 하기에는 공부하고 배워야 할 게 한참 남아있었고 특히 지금은 이런 거 말고도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았다. 솔직히 정치에 크게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레아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서류를 팔랑팔랑 넘기며 읽고 있었다.

‘작년에 있었던 파티 때문에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알았는데 결국 하이모어 대공이랑은 아무런 일도 없었어. 프레디 소공자는 그때 이후로 코빼기도 안 보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도 그건 다행인 걸까. 괜히 또 신경 쓰이게 굴고 귀찮게 굴지 않는 건 좋기는 한데 그날 이후로 갑자기 조용해지니 레아는 조금 찜찜한 기분이었다.

‘고백했는데 차였으니까 안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긴 한데…. 생각하기 싫어도 자꾸 생각이 나네.’

소공자가 레아의 생일에 열렸던 파티에서 해줬던 얘기는 듣고 쉽게 잊어버릴 가벼운 얘기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문득 레아는 그때 파티장에서 아빠가 해주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하이모어 대공이 가진 광산에 관해 얘기하시다가 다리아 영애랑 프레디 소공자 때문에 나중에 다시 얘기해주시겠다고 하셨지. 다른 사람 앞에서 대놓고 할 얘기는 아니라고.’

분명 그랬었는데 갑자기 프레디 소공자가 엄청난 고백을 해버리는 바람에 레아는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생각난 거 물어볼까 하고 레아는 슬쩍 아빠를 바라보았다.

“흐음.”

아빠라면 레아가 묻는다면 1초의 망설임이나 고민도 없이 얘기해주겠지만 레아는 일하는 사람에게 묻기가 좀 그랬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일하라고 하기 전에 슬쩍 물어보는 거였는데. 레아는 왜 묻지도 못할 지금 그게 생각이 난 건지 조금 후회가 되었다.

그래도 지금 당장 급한 정보는 아니니까. 나중에 듣는다고 하늘이 무너지고 큰일이 생기진 않을 거로 생각하며 레아는 서류를 내려놓고 시녀가 가져다준 과일 푸딩을 한입 먹었다.

\*\*\*

‘레아 황녀님은 방 밖으로 안 나오시고 잘 있으실까. 답답하시다고 밖으로 나오셨다가 감기 더 심해지시면 안 되는데.’

생각보다 하이모어 가문에서 후원했던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혹시라도 레아 황녀님께서 자신이 없는 사이에 답답해서 못 참겠다! 하고 돌아다니셔서 감기가 더 심해지시는 건 아닐지 라이 경은 걱정이 되었다.

라이 경이 없어도 황녀님을 꼭 동생처럼 예뻐하는 언니 같은 시녀들이 있으니 괜찮을 거 같기는 했지만, 그 반짝반짝한 눈으로 올려다 보면서 안 돼요? 라고 말하면 아무리 시녀들이라 해도 안 된다고 하지는 못할 것이었다. 제국 최연소 소드마스터인 라이 경도 그런 레아 황녀님의 눈빛은 이길 수 없을 정도였다.

어쩌면 레아 황녀님께서는 레그마인 황제 폐하보다 더 강하신 다닐로만 제국 황궁의 최강자가 아닐까 하고 라이 경은 생각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한 천하무적 황녀님을 이렇게나 걱정하고 지켜드리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게 우스워서 라이 경은 웃었다.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웃는 일이 거의 없는 무뚝뚝한 라이 경이었는데 요즘은 레아 황녀님만 생각하면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라이 경은 여러모로 황녀님은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며 황궁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황궁에서 나오던 하비투스와 딱 마주쳤다.

“아, 라이 경. 심부름 갔다가 오는 길입니까?”

“하비투스 님은 황궁 안에는 어쩐 일이십니까?”

“레아 황녀님 병문안 다녀오는 길입니다.”

“…레아 황녀님을 뵙고 오셨다는 말씀입니까?”

“네. 갔다가 혼나고 온 기분으로 나왔네요. 사실은 혼이 난 건 아닌데 꼭 기분이 그래요.”

“대체 레아 황녀님께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안 그래도 요즘 하비투스 때문에 레아 황녀님께서 얼마나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으신데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하비투스가 레아 황녀님을 뵙고 왔다니. 라이 경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고 그런 라이 경에게 하비투스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여기서 할 얘기 아닌 건 라이 경도 알고 있을 텐데요. 그 얘기 하고 레아 황녀님께서 제가 얼마나 어른답지 못하고 바보 같은지 말씀해주셔서 꼭 혼이 잔뜩 난 기분입니다. 솔직히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요.”

“무슨 얘기를 나누셨는진 레아 황녀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전부터 하비투스 님께 묻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뭡니까?”

처음 황녀님과 같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궁금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라이 경은 옆에서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레아 황녀님이 무너지시지 않도록 그 옆을 지켜드린다고 물어볼 기회가 없던 질문이었다.

“그 복수라는 거 꼭 레아 황녀님께서 하셔야 하는 겁니까? 몰랐던 사실을 알게 돼서 아파해야 하고 배우고 싶지 않은 흑마법을 배워야 할 정도로 꼭 레아 황녀님이어야만 하는 겁니까?”

“언젠가 레아 황녀님께서 하실 줄 알았던 질문을 라이 경이 하시네요. 대답해드리자면 꼭 레아 황녀님이어야만 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복수가 가능한 사람이 레아 황녀님뿐입니다.”

“어째서입니까? 제국 최고의 마도사인 하비투스 님도 불가능한 것이 어째서 레아 황녀님께서는 가능하다는 겁니까?”

“라이 경. 관심 많으시네요.”

좋아하는 여자가 그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라이 경에게 하비투스는 말했다.

“그건 나중에 복수할 상대를 정확히 알게 되시고 레아 황녀님께서 제게 직접 물어보시는 날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진실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시는 그때. 대신 지금은 레아 황녀님과 라이 경이 오해하고 있는 걸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죠.”

“무엇을 말입니까?”

약간은 불만이 섞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라이 경을 보며 하비투스는 모자를 더 깊게 푹 눌러쓰며 말했다.

“전 레아 황녀님과 같은 편입니다. 아군이니까 꼭 절 믿으셔야 합니다.”

77.산책과 간식을 좋아하는 건.docx

자신은 믿어도 되는 사람이라는 말만 남기고 하비투스는 라이 경을 뒤로하고 황궁 밖으로 나갔다. 더 할 얘기가 없으니 라이 경 역시 하비투스를 붙잡지는 않았지만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믿어도 된다고 말해도 믿을 수가 있어야지.’

아직 별로 믿음이 가는 인물은 아니었다. 라이 경은 어쩌면 가장 조심해야 하고 경계해야 할 사람은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숨기는 것도 많은 하비투스 님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며 황궁 안으로 들어갔다.

혹시라도 레아 황녀님이 답답하다고 돌아다니셨으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황녀님은 얌전히 방 안에서 서류를 읽고 있으셨고 라이 경은 그 모습에 안심했다. 그리고….

“아, 라이 경. 왔어?”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어째서 집무실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 레아 아픈데 아빠가 옆에 있어 줘야지. 근데 경은 왜 내 딸 아프다고 나한테 말 안 했던 거지?”

“제가 말하지 말아 달라고 했어요. 아빠 걱정하실까 봐.”

“역시 우리 레아는 상냥하구나. 아빠 바쁜데 방해될까 봐 걱정해주고. 하지만 다음부터 아픈 건 숨기지 말고 꼭 말해줘야 해. 알았지?”

“네. 알았어요.”

라이 경한테 말할 때는 뼛속까지 얼어붙을 정도로 차가운 눈빛이었는데 레아를 바라볼 때 레그마인 황제의 눈빛은 그렇게 부드럽고 다정할 수가 없었다. 라이 경은 폐하께서 집무실이 아닌 황녀님의 방에서 서류를 읽고 일을 하신다는 게 좀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 레아 황녀님이 있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분명 레아 황녀님이 안 계셨다면 경 때문에 딸이 지독한 감기로 쓰러졌다는 사실도 모르는 아빠가 될 뻔했다고 살기 가득한 눈으로 노려보셨을 텐데. 아주 우스운 꼴이 될 뻔했다고 말이야.’

라이 경은 레아 황녀님께서 얘기하지 말아 달라고 하셔서 말 안 한 건데 폐하께서는 왜 말 안 했냐고 하시면…. 솔직하게 레아 황녀님께서 얘기하지 말아 달라고 말씀하셨다고 해도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상큼하게 웃으며 아, 우리 레아가 그랬어? 라고 하실 리가 없었다. 게다가 그랬다가는 레아 황녀님께서도 곤란해하실 게 뻔한데 말할 수 있을 리도 없었다.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였는데 레아 황녀님께서 상황을 잘 끝내주셔서 다행이었다. 라이 경은 역시 황제 폐하께서는 레아 황녀님께는 약하시다고 생각했다.

‘사실 레아 황녀님 앞에서는 모두가 약해질 수밖에 없지. 특히 레아 황녀님을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당장 라이 경부터가 레아 황녀님 앞에서는 다닐로만 제국 최연소 소드마스터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약해졌다. 그리고 레아 황녀님을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황녀님을 절대 이길 수 없을 거로 생각했다. 그만큼 라이 경은 레아 황녀님께서는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

“이제 열도 다 떨어지신 거 같고 어디 따로 아프시거나 불편한 곳은 없으신가요?”

“네. 멀쩡해요.”

“레아 황녀님의 감기가 드디어 다 나으신 거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요? 이제 다 나은 거예요?”

“네. 그래도 아직 감기 기운이 남아있을지 모르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드디어 이 답답한 침대 생활도 끝이구나!

물론 감기가 다 나았어도 라이 경이 알아 온 하이모어 가문에서 후원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도 봐야 하고 다리아 영애도 감기가 다 나으면 만나기로 했으니 어디 놀러 가거나 돌아다닐 여유가 있을 리가 없었다. 그래도 일단 황실 정원이라도 산책할 수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레아는 기뻐서 활짝 웃었다. 그리고 레아가 웃자 방안은 순식간에 환해진 느낌이었다.

‘레아 황녀님께서 저렇게 활짝 웃으시는 거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 같아!’

‘감기 때문에 방 밖으로 못 나가서 답답하다고 잠깐만 나갔다 오면 안 되냐고 칭얼거리던 레아 황녀님도 너무 귀여우셨지만….’

‘역시 레아 황녀님께서는 웃으실 때가 제일 예쁘셔. 특히 지금처럼 활짝 웃으실 때!’

‘진짜 저 밝은 웃음은 보고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야. 너무 행복해!’

평소에는 잘 볼 수 없는 칭얼거리는 모습도 귀엽고 사랑스러우셨지만 역시 레아 황녀님은 햇살처럼 밝게 웃으실 때가 가장 아름다우셨다. 이건 자기들끼리 눈빛을 주고받으며 주접을 떨고 있는 시녀들뿐만 아니라 방 안의 모두가 아니, 황궁 안 모두가 공감할 말이었다. 레아의 환한 웃음 한 번에 방 안의 모두가 흐뭇한 미소를 입가에 머금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있고 딱히 관심도 없는 레아는 드디어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것 하나에 기분이 좋아서 헤헤 웃었다. 의원들이 돌아가면 레아는 바로 황실 정원으로 나갈 생각이었다.

‘드디어 황실 정원에 꽃을 심는 것 대신 뭘 하셨는지 볼 수 있어! 그동안 라이 경이랑 시녀들도 절대 안 알려줘서 궁금했었는데 드디어 그 궁금증을 풀 수 있게 됐어.’

치사하게 그거 하나 알려준다고 무슨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모두가 레아에게만 황실 정원에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 절대 말해주지 않아서 잠시 삐졌던 적도 있었다. 곧 시녀들이 준비한 머핀을 먹고 마음이 풀리긴 했지만 그래도 레아는 아빠가 말한 자신이 좋아할 만한 거란 게 무엇일지 무척이나 궁금했다.

곧 의원들은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갔고 레아는 바로 황실 정원을 산책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라이 경은 그런 레아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 됩니다.”

“네? 왜요?”

“방금 의원들이 아직 감기 기운이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3일은 외출하시면 안 됩니다.”

“3일이나 더 방에만 틀어박혀 있어야 한다고요?”

원래 황궁 안 모두가 조금은 레아를 과보호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감기 기운이 남아있을지도 모르니 앞으로 3일은 방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다. 진짜 마음 같아서는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짜증을 내며 누가 뭐래도 난 지금 당장 산책하러 나가겠다고 고집을 부렸겠지만…. 라이 경의 얼굴을 보니 레아는 어쩐지 화를 낼 수가 없었다.

‘진짜 어쩌다 이렇게 돼버린 건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라이 경 얼굴만 보면 짜증도 못 내고 화도 못 내겠어. 저 얼굴을 보고 어떻게 짜증을 내.’

황궁에 온 첫날은 괜히 방이 마음에 안 든다고 되지도 않는 트집 잡고 투덜거리고 그랬었는데. 지금의 레아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황실 정원은 황제 폐하와 같이 가시기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혼자 가시면 폐하께서 서운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빠는 바쁘잖아요. 요즘 엄청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레아 황녀님께서 가고 싶다고 하시면 3일 후에 같이 가주실 겁니다.”

“아빠라면 분명 그러시겠죠. 모든 일을 가스파르 재상과 피에르 시종장님께 떠넘기고.”

“……….”

확실히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마음속 0순위는 언제나 항상 늘 레아 황녀님이셨으니까. 폐하께서 일을 내팽개치고 오시는 건 거의 당연한 일이었고 그 내팽개쳐진 일은 고스란히 재상과 시종장님께 넘어갈 것이었다. 그건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에 딱히 할 말이 없었다.

“아빠 시간 날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저 진짜 너무너무 답답해서 죽을 거 같아요. 잠깐만 진짜 잠깐만 바깥바람 쐬고 오면 안 돼요? 딱 한 번만!”

“하지만 아직 감기 기운이 남아있을지도 모르는데….”

“아, 딱 10분만요. 옷 따듯하게 입고 나갔다 오면 되잖아요. 라이 경. 자꾸 치사하게 이럴 거예요?”

“아니, 이건 제가 치사한 게 아니라….”

“10분 나갔다 온다고 감기 걸릴 리가 없잖아요. 자꾸 이러면 나 경이랑 시녀들 몰래 야밤에 잠옷 차림으로 막 돌아다녀서 진짜 지독한 감기로 완전히 앓아누울 거예요!”

처음에는 라이 경 팔에 매달려 약간 애교가 섞인 칭얼거림이었는데 마지막은 거의 협박이나 다름없었다. 레아 황녀님께서 완전히 앓아누우시면 황녀님을 좋아하는 라이 경과 황녀님을 아끼는 시녀들이 속상한 건 둘째 치더라도 황궁 전체에 비상이 걸리게 될 것이었다.

현재로선 유일한 가족이자 하나뿐인 소중한 딸이 감기가 낫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해져서 완전히 앓아누웠다고 하면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과연 뭐라고 하실지…. 그 분노의 크기가 예상이 안 가서 라이 경은 더 무섭고 두려웠다.

‘물론 레아 황녀님께서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시고 하신 말씀 같지만 다닐로만 제국의 황궁에서 레아 황녀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엄청난 협박이군. 역시 레아 황녀님은….’

어쩌면 강한 사람을 넘어 무서운 사람이 더 맞는 표현일지도 몰랐다. 그런 무서운 사람인 레아 황녀님께 협박을 받은 라이 경은 동시에 뒤통수가 따끔거릴 정도로 시녀들의 관심 가득한 시선을 받고 있었다.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황녀님의 감기가 100% 다 나을 때까지는 절대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시도록 막으라고 하셨지만….’

지금 답답해서 죽을 거 같다고 무조건 황실 정원으로 10분이라도 좋으니 산책하러 나가야겠다는 레아 황녀님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었다. 그래도 다른 것도 아니고 건강과 관련된 일이니 눈 딱 감고 안 된다고 해야 하나 라이 경은 마지막으로 고민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고민 중인 라이 경의 옷깃을 잡아당기며 레아는 말했다.

“저기, 라이 경. 밤에 잠옷 차림으로 돌아다니겠다는 말은 진심으로 한 거 아닌 거 알죠…? 그냥 3일이나 더 방 안에서 나가지 말라고만 하니까 욱해서 한 말이었어요.”

“그렇게 답답하십니까?”

“그야 당연하죠. 시녀들이 창문도 못 열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한가롭게 감기로 누워서 쉴 때가 아니란 건 라이 경이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감기가 완전히 낫지 않고 더 심해져 버리면 더 곤란한 상황이 된다는 건 레아 황녀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그야 그렇긴 하죠….‘

막상 협박은 해놓고 생각해보니 좀 미안해서 레아는 아까보다는 조금 작아진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레아도 라이 경이 산책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아빠 때문이라는 것 정도는 다 알고 있었다. 그걸 알면서도 너무 나가고 싶어서 괜히 라이 경을 협박해버린 것이었다.

‘안 그래도 아빠랑 내 사이에 껴서 라이 경도 알게 모르게 고생 많을 건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람. 나도 참….’

혹시라도 나갔다가 정말 감기가 다시 도지기라도 하면 아빠가 라이 경을 가만히 둘 리가 없었다. 괜히 죄 없는 라이 경 곤란하게 만들지 말자는 생각이 들면서도 레아는 진짜 너무너무 황실 정원 산책을 하고 싶었다.

“알았어요. 라이 경이 나가지 말라고 하면 안 나갈게요.”

“정말입니까?”

“네. 진짜로 심한 감기에 걸려버리면 큰일이니까.”

원래 같았으면 고작 10분 산책에 무슨 감기냐며 무조건 나가야겠다고 했을 레아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상황이기도 했고 상대가 라이 경이라서 그런지 결국 시무룩한 목소리로 말하며 잡고 있던 라이 경의 옷깃을 놓았다.

혹시 기분이 상하신 건 아닐까 걱정하며 라이 경은 레아 황녀님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때 레아 황녀님께서는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고 라이 경을 빤히 올려다보며 물었다.

“그런데…진짜 안 돼요?”

“……….”

마치 작고 사랑스러운 동물이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는 것을 외면할 수 없는 것처럼 레아 황녀님의 저 눈빛을 라이 경은 외면할 수 없었다. 전부터 쭉 그렇게 생각했지만, 자신을 빤히 올려다보는 레아 황녀님을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었다. 결국, 라이 경은 이번에도 본인은 전혀 모르는 레아 황녀님의 필살기에 지고 말았다.

“…딱 10분만입니다.”

“네?”

“딱 10분만 나갔다가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옷도 최대한 따듯하게 챙겨입으셔야 합니다.”

“진짜요?”

“황녀님께서 내키지 않으시다면 억지로 나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요! 나갈래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산책하고 싶다고 아무리 조르고 졸라도 절대 안 된다고 할 것처럼 말했는데 왜 갑자기 허락해주는 거지?

갑자기 라이 경의 마음이 바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레아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산책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었다. 꾸물거렸다간 또 언제 라이 경의 마음이 바뀔지 모르니 레아는 서둘러 산책할 준비를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보며 라이 경은 약간 웃음이 섞인 한숨을 쉬었다.

‘산책이 저렇게나 좋으신 걸까. 아직 황실 정원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고 있으실 텐데.’

아마 실제로 정원을 보신다면 더 좋아하시겠지. 레아 황녀님과 나갔다가 혹시라도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 걸리기라도 하면 큰일이라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레아 황녀님께서 저렇게 신이 나서 좋아하시니 라이 경도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그런 두 사람을 보고 기분이 좋아져 꿈틀거리는 입꼬리를 숨기는 이들도 있었다.

‘이것 봐. 내가 라이 경은 레아 황녀님 좋아하고 있다고 그랬지?’

‘진짜네. 지금도 레아 황녀님을 귀엽다는 눈으로 계속 보고 있잖아.’

‘원래 우리 레아 황녀님이 귀여우신 건 사실이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설마 라이 경이 저런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걸 보게 되는 날이 올 줄이야.’

‘근데 솔직히 내가 남자라도 레아 황녀님께 반했을 거 같기는 해.’

‘그건 그렇지. 레아 황녀님. 인기 많으시잖아.’

‘그 잘난 라이 경도 반할 정도니까. 아직 레아 황녀님께서는 라이 경 마음 모르시는 거 같은데 고백도 아직인가 봐.’

고백이야 나중에는 어떨지 몰라도 라이 경은 지금 당장은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할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레아가 라이 경의 마음을 눈치 못 챈 게 아니라 레아는 라이 경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만약 시녀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안타까움에 탄식을 내뱉었을 것이었다.

그런데 그때 한 시녀가 자신의 옆에 있던 친한 시녀를 툭툭 치며 눈빛을 보냈다.

‘야. 그런데 레아 황녀님도 마음이 전혀 없는 거 같지는 않은데?’

‘응?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레아 황녀님 기분 엄청 좋아 보이잖아. 물론 계속 방에만 갇혀 있으시다가 나가시는 거라서 들뜨신 것도 있겠지만 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

‘그럼 레아 황녀님이 라이 경이랑 단둘이 나가시는 게 설레서 신이 나셨다는 거야?’

‘근데 솔직히 산책만으로 저렇게 들뜨신 것도 좀 이상하긴 해. 황녀님이 강아지도 아니고.’

‘강아지라니. 애가 누가 들으면 큰일 날 소리를 하네. 근데 확실히 일리가 있기는 해.’

물론 레아 황녀님께서 원래 황실 정원을 산책하고 돌아와서 간식을 먹는 걸 좋아하신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지만 저렇게 들뜨셨다는 건 확실히 좀 수상하긴 했다.

그럼 혹시 황녀님의 마음도…?

어쩌면 레아 황녀님의 마음도 라이 경과 별반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며 시녀들은 격하게 입꼬리를 씰룩거렸다.

78.그 사람에게 반한 이유는.docx

“저기, 아무리 따듯하게 입기로 약속했다고 해도 이건 좀 과한 거 아닌가요….”

“과하긴요. 또 감기 걸리시면 안 되니까 최대한 따듯하게 입으셔야 해요. 레아 황녀님.”

“과한 거 같은데….”

지금 거울 속에 비치는 모습은 꼭 눈사람 같은 게 누가 봐도 딱 10분만 정원에서 산책하고 오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어쩐지 겨울 산을 등반해야 할 것만 같은 이 복장이 레아는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얼마나 두껍게 입었으면 걸을 때도 뒤뚱뒤뚱 걸어야 해서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그런데 레아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한다는 걸 알면서도 시녀들은 무조건 따듯하게 입어야 한다며 꿈쩍도 하지 않았다. 레아는 마음 같아서는 두꺼운 외투 위에 둘러준 담요를 집어 던지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산책하러 못 나가게 할까 봐 별수 없이 그 차림 그대로 방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 황궁에 왔을 때는 분명 이러지 않았던 거 같은데. 이거 황녀치고는 너무 힘이 없는 거 아닌가….’

물론 레아는 조금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 황족은 황족인데 옷도 맘대로 입을 수가 없다니. 시녀들이 레아를 얼마나 예뻐하고 좋아해 주는지 알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상황은 좀 애매해서 레아는 기분이 묘했다.

그러다 결국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혹시라도 다 나은 감기가 재발할까 봐 신경 써준 거로 생각하기로 했다. 비록 옷차림은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하기까지 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바깥바람을 쐬는 거라며 레아는 라이 경이 기다리고 있는 복도로 나갔다.

“라이 경.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요. 오래 기다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레아 황녀님. 옷이….”

“눈사람 같아서 웃긴 거 나도 다 아니까 그냥 아무런 말도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눈사람이 아니라 꼭 펭귄 같아서 귀여워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레아 황녀님의 말씀에 라이 경은 별다른 얘기 없이 알겠다고만 대답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보일 듯 말 듯 아주 작게 웃으며 생각했다.

‘분명 레아 황녀님께서는 싫다고 하셨는데도 시녀들이 절대 감기 걸리면 안 된다고 입으시라고 했겠지. 그렇게 껴입지 않아도 될 거 같으니 불편하시면 여기서 조금은 가볍게 입으셔도 될 거 같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레아 황녀님께서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라이 경은 말하지 않을 것이었다. 나중에 황녀님께서 아시게 된다면 너무하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번 한 번만 모르는 척해보기로 했다. 그 정도로 뒤뚱뒤뚱 열심히 걸어가는 레아 황녀님의 모습은 귀여웠으니 말이다.

라이 경은 황녀님께 이러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한 번만 눈감아주길 바라며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레아 황녀님의 뒤를 따라 걸었다.

\*\*\*

‘바깥공기가 이렇게 반가운 날이 오게 될 줄이야. 진짜 앞으로는 건강 관리 열심히 해야지. 감금 아닌 감금 당하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해.’

날씨가 막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아무리 황궁이라고 해도 우나타보다 공기가 맑고 상쾌할 리도 없었다. 그런데 너무 오랜만에 마셔보는 바깥공기라서 그런지 레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숨을 들어 마시며 행복해하고 있었다. 마음 같아서는 으아아아아! 하고 큰 소리도 내고 싶었지만 그건 옆에 라이 경이 있으니 참기로 했다.

황녀답지 못하다고 혼날 거 같기도 했고 너무 아저씨 같아 보일까 봐 좀 부끄러웠다. 남이야 아저씨로 보든 아줌마로 보든 신경 안 쓰겠지만 왠지 라이 경 앞에선 그런 게 신경이 쓰였다.

‘지금까지 그런 거 라이 경 앞에서도 크게 신경 쓴 적 없었던 거 같은데. 갑자기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건지 이유라도 알고 싶은데 레아는 전혀 감이 오지 않았다. 누가 좀 알려주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알려줄 사람도 없으니 답도 없는 문제였다. 레아는 그냥 이러다 말겠지 하는 생각으로 정원으로 향했다. 아빠가 말한 레아가 좋아할 만한 그게 도대체 무엇일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는데 드디어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할 때가 온 것이었다.

과연 무엇일지 기대가 되면서 동시에 아빠는 생일선물로 보석을 박은 레아의 동상을 제작하신 분이라 조금 걱정되는 마음으로 정원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걱정했던 게 무색할 정도로 레아의 표정은 환해졌다.

“저거 다 눈으로 만든 거예요? 신기하다!”

“매년 겨울마다 황궁 정원에는 꽃을 심지 않고 눈이 쌓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눈으로 예술 작품을 만들곤 합니다.”

“어릴 때 눈사람 같은 건 많이 만들어봤지만 이런 건 처음 봐요.”

“마음에 드십니까?”

“제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마음에 쏙 들어요. 봄이 와서 녹아버리는 게 아쉬울 만큼.”

“황녀님께서 원하신다면 영원히 녹지 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엄청난 크기와 부피를 자랑하는 예술 작품들에 모두 냉각 마법을 걸려면 소비되는 마력도 절대 무시 못 하겠지만 레아 황녀님께서 원하신다면 안 될 것도 없었다. 지금처럼 특이한 경우를 빼면 황궁 안에서 레아 황녀님은 말 그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으신 분이었다. 그런데 레아 황녀님께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러면 봄이 오고 여름이 와도 화려한 꽃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건 싫어요.”

“예술 작품보다 꽃이 더 좋으신 겁니까?”

“으음. 꼭 더 좋다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봄에 피는 꽃들도 좋고 겨울에 눈으로 만든 예술 작품도 좋아서 둘 다 보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리고 봄이 와서 눈이 녹더라도 다시 겨울이 와서 눈이 오면 새로운 예술 작품이 탄생할 텐데 굳이 레아를 위해서 그럴 필요는 없을 거 같았다.

“1년 내내 녹지도 않고 남아 있으면 의미가 없을 거 같아요.”

“예술 작품들의 의미 말입니까?”

“네. 1년 중에서 눈이 쌓이는 겨울에만 볼 수 있는 작품들인데 그걸 마법으로 1년 내내 녹지 않게 만들어 버리면 겨울에만 볼 수 있었던 작품들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 같은 느낌이라서 좀 그래요.”

어쩌면 겨울에만 볼 수 있어서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걸지도 모르는 작품들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며 레아는 하얀 눈으로 만든 사자를 빤히 바라보았다.

‘처음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신기하고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보고 있자니 역시 뭔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자꾸만 든단 말이지.’

어째서 이 수많은 예술 작품 중에서 가장 고전적이고 기본적인 평범한 눈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일까. 여기 있는 작품들은 모두 이름 있는 유명한 예술가들의 작품이니 당연히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눈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지만, 레아는 그게 참 아쉬웠다.

어릴 때는 눈이 쌓이면 항상 브로디 아저씨랑 같이 커다란 눈사람을 만들고는 했었는데 그때 그 기억을 되살려 한번 직접 만들어볼까 하고 레아는 잠시 고민을 했다. 라이 경이 도와주면 금방 만들 수 있을 거 같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라이 경은 레아에게 말했다.

“레아 황녀님. 10분 지났습니다.”

“네? 벌써요? 아직 다 보지도 못했는데?”

“오늘 못 보신 건 다음에 레그마인 황제 폐하와 같이 산책하시면서 구경하시면 되겠군요.”

“하지만…….”

“딱 10분만 나갔다 오겠다고 했으니 시녀들이 따듯한 차를 준비해두었을 겁니다. 차가 식기 전에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들어가면 되잖아요.”

원래 10분이란 게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나. 레아는 그래도 눈으로 만든 작품들을 다 감상할 때까지는 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며 툴툴거리면서도 약속대로 다시 방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런 레아의 뒤를 따라 걸으면서 라이 경은 오늘 평소에는 볼 수 없는 황녀님의 귀여운 모습을 많이 보았다고 속으로 꽤 괜찮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했다.

\*\*\*

짧은 10분 산책을 끝내고 방으로 돌아온 레아는 바로 시녀들의 손에 이끌려 뜨거운 물에 목욕을 당했다. 그리고 목욕이 끝나자마자 두꺼운 담요를 덮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생강차를 마셔야 했다. 마시기 싫다고 몇 번 말은 해보았지만 결국 레아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꿀꺽꿀꺽 맛없는 생강차를 마셔야 했다.

맛없는 물약까지 남김없이 다 마신 레아는 사탕을 입에 넣고 굴리면서 이러면 오려던 감기도 멀리멀리 도망갈 거 같아서 다행이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싫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바로 다리아 영애에게 연락구슬로 연락을 해보았다.

이제 감기가 거의 다 나았다며 언제쯤 만날 수 있겠냐는 레아의 말에 다리아 영애는 고맙게도 당장 내일이라도 황궁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정말 다음 날 다리아 영애는 레아를 만나러 황궁으로 와주었다.

“정말 오늘 와줬네요. 고마워요. 다리아 영애.”

“아니에요. 황녀님께서 보내신 편지를 읽고 연락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언제든지 부르시면 달려갈 수 있도록.”

“원래는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편지에도 적었듯이 내가 감금 아닌 감금을 당해버리는 바람에…. 편지는 다 읽고 태워버렸죠?”

“네. 다른 편지들이랑 섞어서 태워달라고 했어요. 쓰레기랑 같이 활활 태우는 걸 직접 확인까지 했고요.”

“다리아 영애가 그걸 직접 확인까지 했다고요?”

“혹시 모르니까요. 레아 황녀님께 정말 중요한 비밀인데 누군가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야 그렇긴 하지만….”

확실히 그 편지에는 레아가 하이모어 대공의 광산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한 이유와 엄마의 과거에 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러니 혹시라도 누군가 편지를 엿보기라도 하면 정말 큰 일이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태어날 때부터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나 곱게 자란 다리아 영애가 쓰레기가 타는 걸 직접 확인까지 했다니 레아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당연히 고맙기는 고마운데…다리아 영애가 쓰레기 태우는 걸 확인까지 하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은 과연 뭐라고 했을까.’

아마 다들 엄청 놀라지 않았을까. 그래도 지금 다리아 영애가 천사처럼 방긋 웃고 있는 걸 보니 다행히 별일 없는 거 같기는 했다.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자료는 다 이쪽에 모았어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은 자료도 이쪽에 따로 모았어요.”

“양이 엄청나네요. 고생 많이 했겠어요.”

“어차피 하나하나 다 읽어본 건 아니라서 별로 힘들진 않았어요. 하이모어 대공이 가진 광산은 워낙 유명한지라 파도 파도 정보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조사하면서 저도 재밌었어요.”

“그래도 수고 많았어요. 고마워요. 다리아 영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양의 자료를 언제 다 읽어보나. 아무리 라이 경이 도와준다고 해도 둘이서 다 읽기에는 버거운 양이었다. 레아는 도와줄 사람을 몇 명 더 구해야 하나 잠깐 고민을 했지만 일이 일이니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라이 경과 단둘이서 읽어봐야 할 거 같았다.

“양이 보통이 아니라서 다 읽으시려면 오래 걸리시겠어요. 저도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제가 영애한테 미안하잖아요. 일단 라이 경이랑 둘이서 해볼게요. 그래도 감당이 안 되면 그때 도와달라고 할게요.”

“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다리아 영애한테는 항상 도움만 받는 거 같아요. 영애도 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계속 도움만 받는 거 같아서 레아는 다리아 영애에게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염치가 없는 거 같아 그게 계속 신경이 쓰였다. 하지만 똑똑하고 집안도 괜찮은 다리아 영애가 레아에게 도와달라고 할 부분이 있기는 할지가 의문이었다. 그런데 그런 레아의 예상과 달리 다리아 영애는 살며시 웃으며 말했다.

“그럼 레아 황녀님이 바빠지시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어떤 부탁이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라면 무조건 다 도울게요!”

“하하. 감사해요. 레아 황녀님. 그럼 저 초콜릿 만드는 법 좀 알려주시겠어요?”

“초콜릿이요?”

“네. 곧 겨울 감사제잖아요.”

그러고 보니 이제 곧 겨울 감사제였다. 과거 우나타에서 리베르타를 운영할 때 성탄절 다음으로 정신없이 바쁜 날이었기에 무슨 날인지는 레아도 아주 잘 알고 있는 날이었다. 그런데 다리아 영애가 겨울 감사제 얘기를 하자 레아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그런데 다리아 영애. 좋아하는 남자라도 생긴 거예요?”

“네? 아, 아니요. 초콜릿은 그냥 아버지께 드리려고….”

“흐응. 진짜로?”

“……역시 레아 황녀님께는 숨기지 못하겠네요. 사실은 요즘 관심이 가는 분이 생겼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이번에도 어디 좀 이상한 사람은 아니겠죠?”

초콜릿 얘기하면서 얼굴을 살짝 붉히는데 앨버트 후작에게 줄 거란 말을 믿을 수 있을 리가 없었다. 다리아 영애도 그걸 눈치챈 건지 수줍게 웃으면서 요즘 관심이 가는 사람이 생겼다고 솔직하게 말해주었다. 그 말에 레아는 역시나 하고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다리아 영애가 또 별로인 남자한테 빠진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했다.

아무리 아픈 과거가 있었다고 해도 프레디 소공자가 정말 별로인 남자란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런 남자에게 빠져도 단단히 빠진 전적이 있던 다리아 영애라 레아는 걱정이 되었다.

“아니에요. 제가 초콜릿을 선물하고 싶은 분은…사실 제 호위기사에요. 레아 황녀님은 한 번도 본 적 없으시죠?”

“다리아 영애와는 늘 둘이서만 얘기하니까요. 그래도 어떤 분인지는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이번에 새로 다리아 영애의 호위를 맡은 앤드류 경은 조금 멍하고 느린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래서 왠지 어른스러운 다리아 영애가 챙겨줘야 할 거 같은 느낌인데 다리아 영애를 지켜야 할 때가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눈빛부터 돌변하는 신기한 사람이라고 했었다. 그런데 다리아 영애가 그런 앤드류 경에게 반했다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다.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앤드류 경이 좋았어요?”

“그러게요. 언제부터 좋았던 걸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리아 영애가 첫눈에 반했을 거 같지는 않은데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딱히 특별한 계기는 없었어요.”

그렇다면 다리아 영애는 어쩌다 앤드류 경을 좋아하게 된 거지?

앤드류 경은 프레디 소공자처럼 키가 크지도 않았고 눈에 띄는 미남도 아니라고 했었다. 그리고 성격도 프레디 소공자와는 영 딴판이라 사실 다리아 영애의 취향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런데 다리아 영애는 이미 얼굴을 살짝 붉히고 수줍은 미소를 지을 정도로 앤드류 경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레아는 다리아 영애가 앤드류 경에게 반한 이유가 궁금했고 그런 레아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 다리아 영애는 작게 미소를 지었다.

79.둘만 모르는 둘의 마음.docx

매년 겨울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찾아오는 겨울 감사제는 여성이 평소 감사했던 마음을 담아 남성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이었지만 사실 가족이나 연인에게 선물하거나 좋아하는 남자에게 직접 만든 초콜릿을 주며 고백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겨울 감사제 때마다 폭주하는 초콜릿 주문과 초코케이크 주문을 받았던 레아가 그걸 모르고 있을 리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다리아 영애와 레아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영애와 요즘 사이가 좋다는 앤드류 경에 대한 쪽으로 빠졌다.

“그냥 자연스럽게 항상 같이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정이 들어버린 거 같아요. 앤드류 경이 보기에는 느리고 멍해 보여도 사실 엄청 자상하거든요. 저를 엄청 잘 챙겨줘요.”

“그래요? 왠지 느낌은 다리아 영애가 챙겨줄 거 같은 느낌인데.”

“아니에요. 사실 하이모어 대공이 가진 광산을 조사할 때도 앤드류 경이 많이 도와줬어요. 아, 그래도 왜 그걸 조사하고 있었는지는 앤드류 경은 모르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다리아 영애를 도와줬다는 뜻인가요?”

“음. 아마 제가 먼저 얘기 안 해주니까 안 물어보는 거 같아요. 어차피 물어봤자 안 알려줄 거란 걸 알고 있으니까요.”

“앤드류 경은 다리아 영애를 잘 알고 있나 보네요.”

아직 엔드류 경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프레디 소공자 때처럼 레아가 걱정하거나 다리아 영애를 뜯어말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았다. 레아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럼 13일에 같이 초콜릿 만들어요. 어차피 나도 겨울 감사제 초콜릿은 만들어야 하니까 만드는 법 가르쳐 주면서 같이 만들면 되겠네요.”

“레아 황녀님은 황제 폐하께 초콜릿을 드릴 건가요?”

“네. 안 드리면 엄-청 서운해하실 거 같거든요.”

“폐하께선 황녀님을 많이 사랑하고 아끼고 있으시니까요.”

사실 아빠라면 서운해하시는 거로 끝나면 정말 다행이었다. 물론 감사한 마음으로 원래 드리려고는 했지만, 만약 레아가 겨울 감사제를 챙기지 않으면 그 순간 황궁의 평화는 깨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하는 김에 레아는 가스파르 재상과 피에르 시종장님도 챙겨드릴 생각이었다.

‘그리고 라이 경도 챙겨줘야겠지. 지금 나한테 제일 고마운 사람은 라이 경이니까.’

절대 다른 마음이 있어서 주는 건 아니었고 진짜 고마운 마음에 다른 사람도 주니까 주는 거긴 하지만…그래도 이왕 주는 거 좀 더 신경을 써서 라이 경이 좋아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았다. 전에 하비투스가 레아의 소중한 간식을 몽땅 먹어버려서 라이 경이 유명한 과자점에서 파는 과자와 예쁜 팔레놉시스를 선물해줬을 때 레아가 기뻐했던 것처럼 라이 경도 초콜릿을 받고 기뻐해 주면 기쁠 거 같았다.

물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라이 경에게 레아가 초콜릿을 선물할 것이란 건 아빠에겐 무조건 비밀이었다.

‘당연히 신경 쓰시고 안 좋아하시겠지. 어쩌면 내가 정성 들여 만들어서 라이 경한테 준 그 초콜릿을 산산조각 내버리실지도….’

사실 산산조각 내버리시기만 하면 다행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며 레아는 다리아 영애와 겨울 감사제 초콜릿에 대한 수다를 한참 떨었다. 레아는 오랜만에 어렵고 머리 아픈 일은 잠시 잊고 평범한 17살 소녀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

그래서 그런 걸까. 다리아 영애가 돌아간 후 바로 개인 서재로 가서 서류 속에 파묻혀 그걸 일일이 다 읽는 일이 레아는 오늘따라 유난히 더 재미가 없고 지루하게만 느껴져서 너무 하기가 싫었다.

‘서류 읽기 싫다. 밖에 나가고 싶다. 나가서 놀고 싶다….’

다리아 영애는 오늘 앤드류 경이랑 같이 쇼핑하러 갈 거라고 했는데. 물론 레아는 다리아 영애와 앤드류 경처럼 묘한 사이인 사람도 없었고 쇼핑도 그다지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류 속에 파묻혀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을 거 같았다.

원래는 하기 싫어도 이건 해야만 하는 일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수도 없는 일이니 꾹 참고 서류를 꼼꼼하게 읽는 레아였지만 오늘은 다리아 영애를 만나 수다도 떨고 몽글몽글한 얘기도 들어서 그런지 진짜 너무 하기가 싫었다. 그래서 괜히 레아는 서류를 놓고 옆에서 서류를 찬찬히 읽어보고 있는 라이 경에게 말을 걸었다.

“라이 경. 계속 서류만 보고 있으면 눈 안 아파요?”

“저는 괜찮습니다.”

“온종일 서재에서 서류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답답하지 않아요?”

“가끔 답답할 때는 창문을 열면 금방 괜찮아집니다. 레아 황녀님께서는 눈이 아프시거나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네. 저도 괜찮아요.”

눈이 아프거나 답답하지는 않은데 놀러 가고는 싶었다. 하지만 사실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일인데 쉬지도 않고 열심히 서류를 살펴보고 있는 라이 경에게 일을 벌인 장본인인 레아가 하루만 놀고 싶다는 말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결국, 레아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서류를 읽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런 레아를 보며 라이 경은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다.

‘요즘 레아 황녀님께서 조금 변하신 거 같단 말이지. 뭐랄까. 예전보다 날 더 편하게 대하시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불편해하시는 거 같달까. 으음.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해버린 걸까.’

지금은 라이 경을 한없이 편한 친구 대하듯 하는 레아 황녀님이셨지만 또 언제 갑자기 꼭 고장 난 사람처럼 삐거덕거리며 멀어지실지 몰랐다. 이게 자신이 뭔가 잘못을 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이상해진 건지 아니면 단순히 요즘 서류에 파묻혀서 글자만 읽는 게 답답하고 힘드셔서 그러신 건지 라이 경은 신경이 쓰였다.

하지만 괜히 입 밖으로 그 말을 꺼냈다간 레아 황녀님과 더 어색해지거나 혹시라도 사이가 멀어질까 봐 모른 척하며 서류를 읽을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이 마음을 접는 게 맞는 거로 생각했고 어느 순간부터 그게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지만…. 이제는 나도 모르겠어. 레아 황녀님과 멀어지고 싶지 않아.’

이러니저러니 떠드는 사람은 많아도 지금 레아 황녀님은 바쁘시고 안 그래도 생각이 복잡하신데 여기서 더 황녀님을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라이 경은 일단 최대한 자신의 마음을 숨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걸 알 리가 없는 레아는 어느새 서류가 아닌 라이 경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은 안경 썼네. 안경 쓴 모습은 처음 보는데 은근 잘 어울린다. 평소보다 조금 부드러운 분위기랄까.’

역시 잘생긴 사람은 뭘 해도 잘생긴 걸까. 계속 서류 속 글자만 들여다보고 있으려니 이제 눈도 아프고 지치는 것 같기도 해서 레아는 눈에 휴식을 줄 겸 라이 경을 계속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러다 레아의 시선을 느낀 건지 라이 경은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레아와 라이 경의 눈은 딱 마주쳤다.

“아….”

갑자기 눈이 딱 마주치자 깜짝 놀란 레아는 황급히 시선을 돌려 괜히 아까 읽었던 서류를 다시 읽는 척했다. 그리고 속으로 혹시나 라이 경이 서류는 안 읽고 변태처럼 훔쳐보기나 한다고 생각하면 어쩌나 하고 불안해했다. 그러다 라이 경이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린 거 같아 레아는 다시 슬쩍 라이 경을 바라보았다.

다행히 라이 경은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한 얼굴로 서류를 보고 있었다. 레아는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겠구나 하고 생각하며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라이 경은 여전히 서류만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보고 있지만 마시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답답하신 거면 창문 열고 환기하겠습니다.”

“…내가 쳐다보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서재에 저와 레아 황녀님뿐이니 기척이 느껴지면 그건 당연히 황녀님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빤히 봤어요?”

평소 다른 여자들이 저러다 라이 경 뒤통수 뚫리겠다 싶을 정도로 뜨거운 시선을 보내도 철저하게 눈길 한번 안 주길래 레아는 당연히 라이 경이 모를 거로 생각하고 있었다. 근데 레아가 조금 쳐다본 건 바로 잡아내니 조금 머쓱하기는 했다.

“아뇨.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럼 경은 내가 쳐다보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건….”

“그건?”

그야 항상 레아 황녀님을 신경 쓰고 있으니 그런 시선 정도는 눈치를 채는 게 당연한 일이었다. 호위기사로서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말이었지만 어째서인지 라이 경은 그 말이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잠시 망설여졌다.

‘내가 레아 황녀님이 자꾸만 신경 쓰이고 관심이 가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황녀님의 호위기사이기 때문이 아니니까.’

좋아하는 여자와 단둘이 있게 되었는데 신경이 쓰이지 않는 남자는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것이었다. 조금 긴장이 되기도 하고 자꾸만 힐긋힐긋 레아 황녀님을 볼 거 같아 라이 경은 일부러 서류에 집중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그런데도 계속 레아 황녀님이 신경 쓰여서 서류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고 말할 수가 없었다.

마음을 접는 건 불가능하다고 해도 좋아한다는 사실을 숨기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일 줄은 몰랐다. 그래도 지금은 최대한 그런 마음을 숨겨야 할 때이기 때문에 라이 경은 힘들어도 이런 마음을 숨겨야만 했다.

“…전 레아 황녀님의 호위기사이지 않습니까. 기사로서 기척을 읽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아, 그런 거였구나. 라이 경은 내 호위니까….”

“아무리 황궁 안이라고 해도 언제 어떤 위험이 올지 모르고 저는 레아 황녀님을 지켜드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네. 알고 있어요.”

분명 라이 경이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그 말을 듣자 레아는 괜히 기분이 별로 안 좋아졌다. 왜 기분이 별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더 듣고 싶지가 않아서 레아는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고 라이 경 역시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다. 그런 라이 경을 보고 레아는 속으로 생각했다.

‘황녀님과 호위기사. 사실 이게 제일 맞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왠지 듣기 싫어졌어. 그리고 말하려면 빨리 말하지 왜 잠시 망설이다 그런 말을 한 거야?’

순간 착각해서 설레버린 내가 꼭 바보가 된 기분이잖아.

레아는 하마터면 진짜 바보가 될 뻔했다며 속으로 투덜거리며 서류에 집중했다. 곧 서재 안은 팔랑팔랑 서류 넘기는 소리만이 가득해졌다.

\*\*\*

“프레디.”

“……….”

“요즘 죽지 못해 산다는 얘기는 듣고 있었지만, 눈빛이 완전히 맛이 갔군. 모든 걸 다 잃은 사람처럼.”

“……그래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온 거야?”

형은 언제나 그랬으니까. 어릴 때부터 프레디 소공자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부터 친구까지 모든 걸 다 빼앗았고 모든 걸 잃길 바라면서 소공자가 가진 모든 게 원래는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크라스 경은 프레디 소공자의 첫사랑인 스텔라까지 빼앗으려고 했고 결국은 그녀가 죽도록 만든 것이었다.

그런 크라스 경이 유일하게 빼앗아가지 못했던 게 라이 경과 레아 황녀님이었는데. 이제 그 두 사람도 프레디 소공자를 떠났으니 이제 프레디 소공자에게 남은 건 하나도 없었다.

‘아니지. 레아 황녀님께서는 원래 내 곁에 없으셨지. 떠나고 말고가 애초에 없는 사이였어.’

레아 황녀님께서는 처음부터 프레디 소공자에게 싫어한다고 말씀하셨다. 항상 먼저 찾아가고 친한 척 굴었던 건 프레디 소공자였는데 그런 레아 황녀님께서 프레디 소공자를 떠났다고 표현하는 것도 웃기는 것이었다.

레아 황녀님의 말씀대로 정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인 자신과 황녀님을 겹쳐 보고 있었던 건지 이제는 프레디 소공자도 알 수가 없었다. 다만 그날 이후로 소공자는 자신이 얼마나 못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프레디 소공자는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장본인과 마주 앉아있었다. 정말 웃기지도 않는 상황이었다.

“별로. 지금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건 답도 없는 절망에 빠져서 영혼 없는 사람처럼 사는 그런 멍청한 모습이 아니거든. 멍청한 녀석.”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저런 말이나 듣고 있다니. 프레디 소공자는 이런 자신이 어이가 없었지만 크라스 경에게 화를 내거나 한 방 먹일 힘조차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프레디 소공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넌 정말이지 단 한 순간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

“그래서 항상 얘기했었지. 넌 우리 가문에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존재….”

“그래. 넌 우리 가문의 수치니까. 아버지와 나에게도 너 같은 건 흠이고 짐일 뿐이었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 가문의 수치. 유일한 흠이자 무거운 짐. 모두 프레디 소공자에게 익숙한 말들이었다. 하지만 새삼스럽게 그 말들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깊게 파고들었고 그 상처가 너무 아팠지만, 프레디 소공자는 아무런 말 없이 입을 꾹 다물었다.

그런 프레디 소공자에게 크라스 경은 이런 말을 했다.

“그래도 죽기 전에 네가 도움이 될 날이 오기는 와서 다행이다. 운 좋은 줄 알아.”

“………?”

“네가 드디어 우리 가문에 도움이 될만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

“쉬운 일이야. 어차피 어려운 일이라도 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가문의 이름을 더럽혔으니 무조건 해야 했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일이냐고.”

그게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결코 좋은 일은 아닐 것이 분명했다. 그래도 프레디 소공자는 그게 무슨 일인지 들어나 보자는 마음이었고 그런 소공자에게 크라스 경은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다.

“국서가 돼.”

“뭐?”

“말 그대로야. 너 여자 잘 꾀고 다녔잖아. 레아 황녀도 그렇게 꼬셔서 국서가 되라고.”

“지금 그걸 쉬운 일이라고 말하는 거야?”

프레디 소공자는 이미 레아 황녀님께 자신의 모든 걸 털어놓고 고백했지만 대차게 차인 상태였다. 물론 그걸 아는 사람은 레아 황녀님과 프레디 소공자뿐이었지만 그걸 모른다고 해도 국서가 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레아 황녀님께서도 절대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지만 일단 국서가 되려면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 인정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하이모어 대공을 싫어하는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대공의 사생아에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한때 바람둥이 날라리였던 프레디 소공자를 인정해주실 리가 없었다. 형도 그걸 잘 알고 있을 건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프레디 소공자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런데 크라스 경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프레디 소공자가 답답한 듯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80.소문VS소문.docx

‘지금까지 읽은 서류가 도대체 몇 장인지…. 이거 완전 내가 서류를 읽는 건지 서류가 나를 읽는 건지 모르겠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라이 경과 함께 서재에 틀어박혀 열심히 서류를 읽었는데도 도대체 이놈의 서류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러다 백발의 할머니가 될 때까지 라이 경이랑 단둘이 서재에서 서류를 읽고 있는 건 아닐지 레아는 한숨을 푹 쉬었다.

“그래도 하이모어 대공의 광산이 왜 그렇게 수상하다고 말하는 건지 알게 됐으니 다행인 건가.”

확실히 다리아 영애가 레아가 흥미를 느낄 법한 것들은 따로 나눠줘서 그런지 하이모어 대공이 가진 광산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었다. 이건 아빠가 나중에 얘기해주겠다고 말하긴 했지만, 아빠는 이렇게 깊게 알려주지는 않았을 것이었다.

레아는 아빠가 아니라 다리아 영애에게 부탁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서류를 한 장 팔랑 넘겼다.

‘원래 하이모어 가문이 소유하고 있는 광산에서는 그렇게 많은 광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적혀있어. 딱 지금의 대공이 그 자리에 앉은 후로 갑자기 마법석이 미친 듯이 나왔다니. 이거 수상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

하지만 그걸 수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아무리 뒤를 캐보려고 해도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었다고 서류에 분명히 적혀있었다. 그리고 그 마법석 덕분에 다닐로만 제국은 많은 이득을 얻었고 황제 역시 하이모어 가문과 아주 사이가 좋았었다고 적혀있었다. 이건 황족인 레아도 모르고 있던 것이었다.

‘지금 엄청 사이 안 좋은데. 아마 하이모어 가문과 사이가 좋았다는 황제는 내 친할아버지이신 선황이겠지.’

전부 30년 전 자료들이니까 그때 아빠는 3살, 4살 정도였을 것이었다. 레아는 다시 서류를 몇 장 더 넘겨 최근 자료를 확인했다.

‘그런데 작년 여름부터 무슨 일인지 광산에서 마법석이 나오는 수가 현저히 줄었어. 이것도 엄청나게 수상하단 말이지.’

확실히 작년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황제의 사생아 때문에 제국 전체가 들썩일 정도로 시끄럽고 정신이 없기는 했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건 광산이나 마법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딱 8월부터 양이 반으로 줄어든 게 레아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다.

“아빠도 이건 분명히 알고 있으실 건데….”

근데 아무런 잡음 없이 조용하다는 건 사실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니란 걸까? 하지만 여전히 레아는 그 부분이 신경이 쓰여 광산에 대한 서류를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고 또 한숨이 나왔다. 사실 지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대공의 광산이 아니라 엄마의 과거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는 후원에 관한 것이었는데 말이다.

‘그러고 보니 나 정작 제일 중요한 건 라이 경한테 맡겼네. 양심 없게도.’

애초에 원래 레아가 해야 할 일들을 라이 경이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째 뭔가 바뀐 것 같은 기분이었다. 레아는 서류 보는 게 지겨워서 이젠 아예 책상에 엎드려 있는데 라이 경은 여전히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바른 자세로 서류를 보고 있었다.

“라이 경. 뭐 좀 알아낸 거 있어요?”

“대공에게 후원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나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 수상한 사람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구나….”

처음부터 쉽게 꼬리를 잡을 수 있을 리가 없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눈이 빠지도록 몇 날 며칠을 서류 속에 파묻혀 보내도 먼지 한 톨도 나오지 않자 레아는 의욕이 많이 사그라들었다. 그런데 반대로 라이 경은 처음과 똑같은 거 같아서 레아는 그게 좀 신기했다.

“라이 경. 안 피곤해요?”

“저는 괜찮습니다.”

“벌써 2주째 서재에 틀어박혀서 서류만 읽었잖아요. 그 안경도 눈이 피곤해서 서류 읽을 때만 쓰는 거 아니에요?”

“안경은 서류를 좀 더 제대로 보고 집중하고 싶어서 쓰고 있습니다. 혹시 안 어울려서 어색하십니까?”

“아뇨. 안 어색해요.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잘 어울리다 못해 지적으로 보이고 조금은 섹시해 보이기도 했다. 평소와는 좀 다른 느낌에 레아는 라이 경이 안 보고도 기척을 느낀다는 사실을 잊고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확실히 잘생겼어. 저렇게 잘생기고 외적인 부분을 빼고도 라이 경은 꽤 괜찮은 사람인 거 같은데 왜 저런 멋진 사람이 고백도 못 하고 짝사랑이나 하는 걸까.’

사실 라이 경도 어쩌다 보니 레아 때문에 연애 같은 거 할 상황이 아니기는 했다. 서류에 파묻혀 지내고 있는데 좋아하는 여자 얼굴이나 제대로 못 봤을 거 같아서 레아는 좀 미안한 감정이 들었다. 어쩐지 꼭 민폐를 끼치는 기분이었다.

라이 경은 요즘 그 좋아하는 상대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확 늘었고 지금도 그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을 레아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난 라이 경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 쓸데없는 생각 말고 서류나 읽자. 지금은 그게 라이 경을 도와주는 일이니까.’

사실 라이 경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원래 레아가 해야 할 일이었지만…적어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징징거리고 싶지는 않았다. 레아는 그렇게 생각하며 시선을 다시 서류로 돌렸고 레아가 시선을 거두는 게 느껴지자 라이 경은 남몰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계속 쳐다보셔서 잔뜩 긴장하고 있었는데 티 안 났겠지…? 근데 왜 그렇게 빤히 쳐다보셨던 걸까. 안경이 그렇게 안 어울리나.’

원래 서류에만 집중해서 옆에서 불러도 잘 모를 때가 많은 레아 황녀님이신데 계속 별다른 성과가 없자 조금 지치신 건지 오늘은 통 집중을 못 하시는 거 같았다. 그런데 계속 자신을 빤히 쳐다보니 라이 경은 잔뜩 긴장되고 그 시선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었다. 누군가의 시선이 이렇게 신경 쓰였던 적은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라이 경은 요즘 레아 황녀님 덕분에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대해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고 있었고 그게 라이 경은 싫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단둘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함께 산책하러 나가는 것도 왠지 꼭 데이트하는 기분이라 좋았다.

“레아 황녀님.”

“네? 왜요?”

“답답하면 잠깐 산책이라도 다녀오시겠습니까?”

“하지만 아직 읽어야 하는 서류가 한참 남았는데요?”

“잘 안 될 때는 계속 붙잡고 있는 것보다 잠시 쉬는 게 답일 때도 있습니다.”

“라이 경이 그런 말을 하다니. 의외네요.”

“그래서 싫으십니까?”

“아니요. 좋아요.”

안 그래도 답답하고 의욕도 떨어졌는데 산책하러 가자는 말이 싫을 리가 없었다. 레아는 웃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라이 경 역시 작게 웃으며 쓰고 있던 안경을 벗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

“너 그 소문 들었어? 프레디 소공자님 소문 말이야.”

“당연히 들었지. 소공자님 너무 불쌍하시지 않아?”

“맞아. 사실 그냥 잘생긴 바람둥이인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을 줄이야…. 마음 아파.”

“아마 그 상처 치료해줄 수 있는 건 레아 황녀님뿐이겠지? 솔직히 난 두 분이 잘되셨으면 좋겠어.”

“그러면 진짜 소설 같은 얘기긴 하겠다. 과거의 사랑 때문에 받은 상처를 새로운 사랑으로 치유한다는 거 로맨틱하지 않아?”

“맞아, 맞아.”

레아 황녀님과 프레디 소공자님이 잘 됐으면 좋겠다니. 우연히 시녀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키린은 마음이 무거워졌다. 자신이 낸 소문이 제대로 잘 퍼지고 있는데도 키린은 기분이 좋고 만족스럽기는커녕 커다란 돌덩이를 올려놓은 것처럼 마음이 무거웠다.

‘자책하지 말자. 난 그냥…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난 아무 잘못도 안 했어.’

하이모어 대공과 크라스 경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위험해질지도 모르니까. 모든 건 가족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키린은 입술을 꾹 깨물었다. 그리고 계속 시녀들이 나누는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생각해보면 잘 어울리시지 않아? 두 분 다 선남선녀고 어느 한쪽이 신분이 낮아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 어떻게 보면 두 분은 비슷하시니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줄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냥 두 분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하이모어 대공과 크라스 경이 원하는 상황도 곧 올 거 같았다. 그런데 두 분이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 처지인 키린은 그게 전혀 기쁘지 않았다.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는데 자꾸만 레아 황녀님이 걱정돼서 키린은 시녀들의 얘기를 듣고 있는 게 힘들었다. 그래서 인제 그만 돌아가려고 할 그때였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 힘들겠지? 레아 황녀님이랑 프레디 소공자님이 잘 되는 거 말이야.”

그런데 한 시녀의 말에 키린은 돌아가려는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다. 소문도 계획대로 잘 퍼지고 있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왜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다른 시녀들 역시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렇긴 하지. 아무리 스토리는 프레디 소공자님이랑 이루어지는 게 더 소설처럼 로맨틱하고 감동적이라 해도.”

“지금 레아 황녀님 옆에 있는 사람은 라이 경이니까.”

“프레디 소공자님도 안쓰럽긴 하지만 왠지 레아 황녀님 옆에는 라이 경이 있어야 할 느낌이랄까.”

“그리고 라이 경이 옆에 있어야 황녀님이 더 행복하실 거 같긴 해. 제일 중요한 건 레아 황녀님의 행복이니까.”

확실히 맞는 말이었다. 뒤에서 하이모어 대공과 크라스 경이 무슨 짓을 벌이려고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레아 황녀님을 더 행복하게 해줄 사람은 프레디 소공자님이 아니라 라이 경이었다. 그건 키린도 그렇게 생각했다.

지금 레아 황녀님께 필요한 사람은 황녀님께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황녀님을 지켜주고 레아 황녀님을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었다. 키린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시녀들을 보며 아주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레아 황녀님께서는 정말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으시구나.”

처음 황궁에 오셨을 때만 해도 키린은 레아 황녀님은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으로 황궁으로 끌려와 반강제로 황녀가 되셨고 지금은 하이모어 대공의 더러운 야망에 희생양이 될 운명이셨다. 그런데 키린은 지금은 그런 레아 황녀님이 너무나도 부러웠다.

황녀님은 언제나 밝고 당당한 똑똑하고 예쁜 사람이었고 움츠려 들만한 상황에서도 레아 황녀님께서는 기가 죽기는커녕 오히려 상대방의 기를 죽이고 반성할 줄 모르는 상대에게는 뼈저린 후회를 하게 만드셨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런 레아 황녀님을 사랑하고 있었다. 레아 황녀님께서는 보지 못하시는 뒤에서도 누군가는 황녀님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레아 황녀님이 키린은 부러웠다.

‘내가 만약에 레아 황녀님이었다면 지금과는 많은 부분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물론 더 좋은 방향으로 달라졌을지 아니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달라졌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키린은 레아 황녀님이 레아 황녀님이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지금 레아 황녀님의 옆에 있는 사람이 라이 경인 것도. 황녀님의 호위기사가 라이 경이라서 참 다행이야.’

만약 레아 황녀님의 호위기사가 라이 경이 아니라 크라스 경이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해서 키린은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찌푸렸다. 그러는 사이에도 키린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시녀들은 자기들끼리 소곤소곤 작은 소리로 떠들고 있었다.

“그리고 레아 황녀님이랑 라이 경 사이가 심상치 않다고 하던데? 요즘 단둘이 서재에 자주 가서 몇 시간은 있다가 나오시는데 안에서 두 분이 뭘 하시는지 아무도 모른대!”

“어머. 서재에? 거기 엄청 넓은데 단둘이서만?”

“나도 그 얘기 들었어. 사람들이 서재에서 뭐 하냐고 물어도 대답도 못 하시고 그냥 웃기만 하신다던데?”

“전에는 책 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시녀들이 청소하러 들어가 보니까 책은 한 권도 꺼낸 흔적이 없었대.”

“서재에서 책을 안 읽으셨다면 레아 황녀님이랑 라이 경은 단둘이 도대체 뭘….”

거기까지 얘기가 나오자 시녀들은 모두 동시에 입을 다물었고 몰래 엿듣고 있던 키린도 놀라서 입을 틀어막았다. 요즘 두 사람이 느낌이 좀 묘하다고 생각한 적은 몇 번 있었지만 설마 그사이에 저 정도로 가까워졌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

“서재 데이트라니. 풋풋하다.”

“레아 황녀님도 그렇고 라이 경도 그렇고. 아직 어리시니까.”

“두 분은 데이트하시면 뭘 하실까? 어쩐지 상상이 안 가서 더 궁금해지네.”

“그러게. 부끄럽다고 손도 아직 안 잡으신 거 아냐?”

“왠지 손을 잡아도 라이 경이 먼저 잡는 게 아니라 레아 황녀님께서 먼저 잡으실 거 같은데?”

“모르지. 고백도 우리 당차고 멋진 레아 황녀님이 먼저 하셨을지도? 라이 경이 고백하는 건 솔직히 상상이 안 가.”

“에이, 그래도 좋아한다는 말은 라이 경이 먼저 했겠지!”

시녀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들끼리 깔깔거리며 웃었고 키린은 아직도 두 사람이 벌써 단둘이 데이트도 하는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고 있었다. 만약 시녀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하이모어 대공과 크라스 경의 계획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었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이건 보고하는 편이 좋겠지. 그리고 저 소문을 덮을 정도로 더 열심히 프레디 소공자님의 소문을 내야겠다.’

키린은 그렇게 생각하며 곧바로 그 자리를 떠났고 지금 바로 크라스 경을 찾아가야 하나 아니면 저녁에 찾아가야 하나 고민하며 걸어가고 있을 그때였다. 저 멀리 보이는 황금빛 긴 머리카락과 새카만 짧은 머리카락에 키린은 발걸음을 멈췄다.

‘뭐야. 설마 지금 아무도 몰래 데이트 중이신 건가…?’

둘이 손을 잡고 있다거나 뽀뽀를 하는 건 아니었지만 방금 시녀들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떠드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키린은 자연스럽게 레아 황녀님과 라이 경이 데이트 중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진짜 확실히 두 분은…정말 잘 어울리시긴 하네.”

기분이 좋은 듯 활짝 웃고 있는 레아 황녀님과 그런 황녀님을 귀엽다는 듯 바라보고 있는 라이 경의 눈빛.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키린은 그 모습이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대로 등을 돌려 왔던 길을 되돌아가며 생각했다.

‘그냥 얘기하지 말자. 레아 황녀님이랑 라이 경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거.’

어차피 크라스 경도 황궁 기사니까 언젠가는 이 소문을 접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키린은 적어도 자신의 입으로는 하이모어 대공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건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특별히 느낀 게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냥 갑자기 그러고 싶어졌기 때문이었다.

81.너에게 줄 마음을 만드는 중.docx

“다리아 영애. 우선 중탕으로 생크림을 데우세요. 끓게 하지는 말고요.”

“네. 레아 황녀님.”

“그리고 어느 정도 따듯해졌다 싶으면 거기 옆에 있는 다크커버춰 넣고 녹을 때까지 저어주세요. 매끄러워질 때까지.”

“네.”

2월 13일. 겨울 감사제 하루 전 레아는 약속대로 다리아 영애와 황실 주방에서 같이 초콜릿을 만들고 있었다. 처음 이 약속을 했을 때가 1월 중순이 끝날 무렵이었는데 벌써 겨울 감사제가 하루밖에 안 남았다니. 시간 참 빠르다고 생각하며 레아는 볼 안에 넣은 재료를 잘 섞어주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서재에 처박혀서 서류만 열심히 읽었는데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라니. 슬프다.’

그래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 레아는 허무한 것도 있고 처음부터 잘못 짚은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무엇보다 열심히 도와준 라이 경에게 미안했다. 차라리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 포기라도 하겠는데 그러기엔 의심스럽고 찜찜한 부분이 있어서 레아는 깔끔하게 포기하기도 어려웠다.

뭔가 서류를 살펴보는 것 말고 좀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걸까. 그게 요즘 레아의 최대 고민이었다.

“황녀님. 가나슈는 다 완성된 거 같아요.”

“그럼 럼주를 아주 조금만 넣고 잘 섞어주세요.”

“럼주요? 그거 술 아닌가요? 초콜릿에 왜 술을….”

“럼주를 조금 넣어줘야 훨씬 더 향긋해지거든요. 안 넣고 싶으면 안 넣어도 상관없기는 해요.”

“으음. 아주 조금이니까 넣어도 괜찮겠죠? 술을 넣는다니 어쩐지 조금 두근두근하네요.”

“네. 괜찮고 말고요. 원래 요리할 때 술을 넣는 건 흔한 일이에요.”

“진짜요? 전혀 몰랐어요.”

“어차피 대부분 요리하면서 알코올은 다 날아가니까요. 아, 그렇다고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넣었다가 초콜릿을 먹고 취해버리면 곤란하니까. 레아는 요리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는 다리아 영애를 보며 역시 태어날 때부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곱게 자란 귀족 아가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7살 때부터 설거지를 할 줄 알았던 레아와는 정반대였다.

아마 나도 태어날 때부터 아빠의 딸로서 고귀한 황족으로 자랐으면 다리아 영애처럼 요리도 해본 적 몇 번 없고 설거지는 상상도 못 했었겠지. 레아는 그렇게 생각하며 어느덧 완성된 반죽에 곱게 체 친 가루들과 코코아 파우더를 넣고 한 번 더 잘 섞어주었다.

“그런데 레아 황녀님. 반죽 양이 꽤 많은 거 같은데 머핀을 많이 만드시려나 봐요.”

“아, 네. 원래는 아빠랑 가스파르 재상, 피에르 시종장님만 드리려고 했는데 시녀들한테도 주고 그냥 그동안 고마웠던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려고요.”

“레아 황녀님을 모시는 시녀들 말인가요?”

“항상 도움을 받고 있는데 생각해보니 저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더라고요. 같은 여자끼리긴 하지만 그래도 고마운 마음을 담아 선물하려고요.”

솔직히 가끔 미울 때도 있고 애정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항상 잘 챙겨주기도 하고 고마운 건 사실이니까. 레아는 오늘 옛 기억을 되살려 아주 대용량으로 초코머핀을 구울 생각이었다. 마음 같아서는 앙겔루스 제국의 쌍둥이 황자님들에게도 보내주고 싶은데 그게 좀 아쉽기는 했다.

그래도 아마 크레와 트레는 보니타 황후 폐하께서 맛있는 초콜릿을 챙겨주시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며 레아는 마지막으로 볼 안에 초코칩을 넣고 주걱으로 섞어주었다.

“다리아 영애. 이제 가나슈는 팬에 붓고 평평하게 펴주세요. 그리고 차가운 곳에 두고 굳을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네. 혹시 제가 도와드릴 건 없을까요?”

“그럼 그거 다 하고 저기 있는 머핀틀에 유선지 좀 깔아줄래요? 혼자서 이 많은 양을 다 하려니까 정신없이 바쁘네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릴게요.”

“항상 다리아 영애가 도와줘서 고맙다고 초콜릿 만드는 법 알려준다고 해놓고는 또 도움을 받고 있네요.”

“그런 말씀 마세요. 레아 황녀님 아니었으면 전 초콜릿 직접 만들겠다고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만드는 방법도 잘 모르고 저택에 있는 주방장한테 배운다고 해도 그렇게 되면 앨버트 후작이나 앤드류 경에게 초콜릿을 만든다는 걸 들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금처럼 하나하나 직접 다리아 영애의 손으로 만들지도 못했을 거고 편하지도 않았을 것이었다.

“집에서 만들었으면 아마 제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96%는 주방장이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제가 직접 만들었다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솔직히 다리아 영애가 초콜릿 만드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해서 좀 놀라긴 했어요. 영애라면 최고급 초콜릿 정도는 쉽게 살 수 있잖아요.”

“사실 작년까지는 저도 항상 가게에서 파는 걸 사서 선물하기만 했지 제가 직접 만들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올해는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선물하고 싶더라고요.”

“앤드류 경한테요?”

“네. 왠지 정성이 들어간 걸 주고 싶었어요. 그래야지 제 진심이 전해질 거 같아서.”

“진심이라….”

사실 누군가의 진심을 듣는다는 게 항상 가슴 벅차고 설레는 일은 아닌데. 진심이라는 다리아 영애의 말에 레아는 자신도 모르게 프레디 소공자가 떠올랐다. 하지만 곧 머리에서 그 생각을 지워버렸다.

‘벌써 몇 달 전 일인데 그 생각이 나면 어쩌자는 거야. 나도 참….’

하지만 쉽게 잊어버리기에는 엄청난 이야기긴 했다. 그래도 레아는 최대한 빨리 잊어버리자고 생각하며 완성된 반죽을 짤주머니에 넣고 다리아 영애가 깔아준 유선지 위로 반죽을 짜냈다. 워낙 구워야 하는 양이 많다 보니 반죽을 짜내는 일도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레아는 열심히 머핀판에 깔린 유선지를 반죽으로 채워갔다.

반죽을 다 짜내고 미리 예열해둔 오븐에 머픈판을 넣었고 이제 머핀은 굽기만 해주면 완성이었다. 하지만 레아는 잠시 쉴 틈도 없이 바로 다 굳은 가나슈를 확인했다.

“잘 굳었네요. 이제 뜨겁게 달군 칼로 자른 다음에 여기에 코코아 가루만 잘 뿌려주면 완성이에요.”

“근데 왜 뜨겁게 달군 칼로 잘라야 하나요?”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뜨겁게 달군 다음에 잘라야지 깔끔하게 잘 잘리더라고요.”

“오늘 레아 황녀님 덕에 신기한 걸 많이 배우는 거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도 다리아 영애가 칼을 잡고 요리할 일은 없을걸요? 사실 저도 황녀가 된 이후로 칼은 오랜만에 잡아봐요.”

나이에 비해서 이것저것 요리를 잘하는 편인 레아도 황녀가 된 이후로는 주방에 들어온 것도 이번이 겨우 두 번째였다. 그러니 요리도 거의 할 줄 모르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곱게 자란 다리아 영애에게 오늘 같은 날이 또 오진 않을 거 같았다. 레아는 작게 웃으며 굳어서 초콜릿이 된 가나슈를 먹기 좋은 크기로 예쁘게 잘라주었다. 그리고 그사이 머핀이 다 구워진 듯했다.

“코코아 가루 너무 많이 뿌리면 텁텁하고 먹다가 이에 낄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뿌리세요.”

“네. 레아 황녀님.”

초콜릿도 코코아 가루만 뿌리면 끝이고 초코머핀도 오븐에서 꺼낸 다음에 식혀주기만 하면 완성이었다. 레아는 다리아 영애의 초콜릿은 잘 완성된 거 같은데 초코머핀도 잘 완성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오븐에서 머핀을 꺼냈다.

“우와. 냄새 좋은데요? 맛있을 거 같아요!”

“다행히 머핀도 잘 구워진 거 같아요. 코코아 가루는 다 뿌렸어요?”

“네. 처음 만든 것치고는 그래도 꽤 잘 만든 거 같지 않나요?”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 앨버트 후작이랑 앤드류 경이 보면 놀라겠어요. 포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아버지께 드릴 건 하늘색 상자에 하얀색 리본을 묶고 앤드류 경에게 줄건 까만 상자에 빨간 리본을 묶으려고요. 레아 황녀님은요?”

“저는 일부러 크게 만들었으니까 하나씩 포장한 다음 분홍색 리본으로 묶으려고요.”

만드는 건 이제 다 만들었지만, 이 많은 머핀을 하나하나 포장하는 것도 일일 것이었다. 우나타에 있을 때는 나탈리 이모와 자주 하는 일이었지만 설마 황녀가 된 이후로 하게 될 줄은 몰랐다. 그래도 착한 다리아 영애가 도와줘서 레아는 영애에게 앤드류 경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지루할 틈 없이 금방 포장을 끝낼 수 있었다.

\*\*\*

2월 13일. 겨울 감사제가 오기 하루 전. 황궁 안은 묘한 긴장감이 돌고 있었다.

레그마인 황제, 가스파르 재상, 피에르 시종장뿐만 아니라 레아가 한 번이라도 웃어줬거나 말을 섞어본 남자라면 모두 똑같은 기대를 하면서 긴장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과연 내일 누가 울고 누가 웃을지 궁금해하고 있었다. 그 정도로 황궁 안 모두가 겨울 감사제 때 레아가 누구한테 초콜릿을 줄지 관심이 있었다.

물론 라이 경도 당연히 관심이 있었다. 절대 티는 낼 수 없었지만 말이다.

“라이 경. 오늘 레아 황녀님께서 후작 영애랑 같이 겨울 감사제 때 선물할 초콜릿을 만드신다고 하던데.”

“알고 있습니다.”

“넌 레아 황녀님 호위기사니까 당연히 알고 있겠지. 근데 누구한테 선물하실 것인지도 알고 있어?”

“그건 모릅니다. 그래도 아마….”

“아마?”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으음. 역시 그러려나.”

만약 그러지 않으면 정말 큰 일이 날지도 몰랐다. 레아 황녀님께서도 그건 질릴 정도로 잘 알고 있으실 테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는 겨울 감사제 선물을 꼭 하실 것이었다. 사실 그건 푸엘라 경을 포함한 황궁 안 모두가 어느 정도 추측하는 부분이었고 제일 궁금한 건 그다음이었다.

“듣기로는 재료를 많이 준비해달라고 하셨다고 들었는데 황제 폐하 말고 또 누구한테 선물하실 건지는 들은 거 없어?”

“없습니다.”

“짐작 가는 사람도 없어? 넌 온종일 레아 황녀님이랑 붙어 있잖아.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어?”

“온종일 붙어 있었다고 해도….”

최근 레아 황녀님은 키린에게 마법을 배울 때를 제외하곤 모든 시간을 라이 경과 단둘이 서재에 틀어박혀 하이모어 대공에 대해서 파고 또 팠다. 그러니 생각나는 사람 없냐고 물어도 라이 경은 딱히 해줄 말이 없었다.

“그런데 푸엘라 경은 왜 그렇게 레아 황녀님께서 누구한테 초콜릿을 주실지 궁금해하시는 겁니까? 설마 경도 황녀님께 초콜릿을 받고 싶으신 겁니까?”

“단둘이 얘기해본 적도 없는데 나한테 주실 리가 없지. 그건 당연한 거고 넌 어때?”

“저 말입니까?”

“그래. 넌 진짜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받을 거 같아?”

확실히 황녀님께서 한번 웃어주시고 말을 섞어봤다는 이유로 기대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보다는 황녀님의 호위기사이자 둘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라이 경이 레아 황녀님께 겨울 감사제 초콜릿을 받게 될 확률이 더 높긴 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거의 99% 라이 경은 황녀님께 초콜릿을 받을 거로 생각했다. 그게 순수한 감사의 뜻이 담겼든 아니면 호감의 표시가 담겼든 말이다.

하지만 모두의 그런 예상과 달리 라이 경은 레아 황녀님이 자신에게 겨울 감사제 초콜릿을 주지 않으실 거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니, 정확하게는 일부러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중이었다.

‘괜히 받을 거로 생각하고 있다가 못 받아서 실망하면 내 꼴이 초라해질 거니까. 그리고 레아 황녀님도 요즘 황궁에서 돌고 있는 소문을 알게 모르게 신경 쓰고 있으시니까.’

요즘 두 사람이 서재에만 처박혀 있는 걸 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냐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건 레아 황녀님과 라이 경도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레아 황녀님께서 그 소문을 신경 쓰신다는 걸 라이 경은 알고 있었다.

‘불편하신 거겠지. 안 그래도 힘드신데 나랑 자꾸 그런 식으로 엮이시는 게….’

사실 레아가 그 소문에 신경 쓰는 건 다리아 영애와 앤드류 경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또 요즘 라이 경과 단둘이 서재에 있는 게 전처럼 편안하지만은 않아서 괜히 그런 소문에 더 민감해하고 신경 쓰는 것이었다. 그런 레아의 마음을 알 리가 없는 라이 경은 레아 황녀님과 멀어진 거 같아 조금은 마음이 아프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라이 경이 할 수 있는 건 없었기에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혹시라도 주제넘게 실망을 하거나 상처받기 전에 미리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자신을 타일렀다. 그게 라이 경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레아 황녀님께서는 가스파르 재상과 시종장님께 드릴 초콜릿도 준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따듯한 분이시니까요.”

“확실히 황녀님께선 많은 분께 사랑받고 있으시니까. 그래서 넌 받을 거 같냐고.”

“푸엘라 경이 그게 왜 궁금하신 겁니까?”

“그야 우리 기사단 모두가 그걸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다들 나한테 물어보는데 네 대답을 들어야 내가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야.”

“다들 왜 그렇게 쓸데없는 곳에 관심이 많은 건지….”

원래 이루어질 수 없는 상대를 짝사랑하는 게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라고는 하지만 어쩐지 라이 경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든 거 같았다. 그리고 계속 이런 분위기로 흘러간다면 현재 레아 황녀님을 힘들게 하는 일이 모두 끝난 후에 라이 경은 더는 황녀님의 호위를 맡지 못하게 될지도 몰랐다.

“만약에 너 나중에 레아 황녀님이랑 잘 되면 무조건 나한테 제일 먼저 말해줘야 해. 소문은 내가 책임지고 퍼트려 줄 테니까.”

“……….”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이런 소리나 하고 있으니. 라이 경은 답답해서 속이 까맣게 타버릴 것만 같았고 그런 라이 경의 마음을 전혀 눈치 못 채고 있는 푸엘라 경은 한숨을 푹 쉬며 말했다.

“그래도 넌 좋겠다. 레아 황녀님께는 못 받는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한테 엄청 받을 거잖아. 부럽다, 부러워.”

“작년부터 그렇게 결혼하고 싶다고 떠들고 다녔으면서 아직 만나는 사람이 없으신 겁니까?”

“아픈 곳 찌르지 마라….”

“만나는 사람은커녕 겨울 감사제 때 초콜릿을 줄 여자도 없는 모양이군요.”

일부러 아픈 곳을 푹 쑤시는 라이 경의 말에 푸엘라 경은 속으로 뜨끔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어쩐지 푸엘라 경은 항상 여자를 만나는 족족 차이기만 했고 솔직히 가만히 있어도 여자들이 줄을 서는 라이 경이 부럽기만 했다. 그래서 조금 골려준 것뿐인데 라이 경이 이렇게 받아칠 줄은 몰랐다.

“이 자식이…. 나도 겨울 감사제 때 초콜릿 줄 여자 있거든? 나도…나도 어머니께서 챙겨주실 거라고!”

“네. 축하드립니다.”

“크윽.”

스스로 말해놓고도 자폭이나 다름없는 말이었다. 푸엘라 경은 이거 너무 확실하게 져버렸다는 생각에 라이 경을 밉다는 듯이 노려보았지만 라이 경은 그런 눈빛 따위 신경도 안 썼다. 그런 라이 경을 보며 푸엘라 경은 참패라고 생각하며 슬프게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실 어머니께라도 받으면 다행이지. 초콜릿….’

82.배달 중입니다.docx

최근 남들의 눈의 피해 서재에서 호위기사와 데이트를 즐기는 황녀님…이라고 은밀히 퍼지고 있는 소문의 주인공인 레아는 오랜만에 황궁을 돌아다니며 어제 열심히 만들고 포장한 초코머핀을 배달하고 있었다.

“레아 황녀님. 바구니는 제가 들겠습니다.”

“아니에요. 직접 건네줄 건데 제가 들고 있는 게 편해요.”

“바구니 크기가 꽤 큰데 무겁지 않으십니까?”

“괜찮아요. 우나타에서 빵 구울 때는 더 무거운 것도 잘만 들고 다녔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리베르타는 우나타에 있는 유일한 빵집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고 해도 일이 적은 편은 아니었다. 거기다 나탈리 이모와 레아 둘이서 모든 일을 다 해야 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밀가루 포대도 들고 옮겼던 레아에게 머핀이 가득 담긴 커다란 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라이 경은 조그마한 레아가 커다란 바구니를 한쪽 팔에 끼고 혼자 걸어가는 걸 보며 혹시나 무겁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레아는 끝내 괜찮다고 하며 바구니를 직접 들고 아빠가 있는 집무실로 향했고 가벼운 노크 후 집무실 문을 열고 고개를 빼꼼 내밀었다.

“아빠. 지금 바쁘세요?”

“레아? 아침 일찍부터 웬일이야? 아빠 보고 싶어서 온 거야?”

“아뇨. 겨울 감사제 선물 드리려고 왔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당연히 들어와도 되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하나뿐인 착하고 예쁜 우리 딸인데 못 들어올 이유는 또 뭐야.”

“하하….”

아무리 친딸이라고 해도 황제의 집무실에 함부로 막 들어가면 안 된다고 배운 거 같은데. 하지만 이번이 처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아빠가 들어와도 된다고 했으니 레아는 라이 경에게 밖에서 잠시 기다려달라고 한 후 집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아빠한테 겨울 감사제 초콜릿 주려고 집무실까지 직접 찾아온 거야? 우리 레아는 얼굴도 이렇게 귀엽고 마음도 예쁜데 하는 행동까지 너무 사랑스럽다니까. 나한테 겨울 감사제 때 초콜릿을 준 여자는 아리샤랑 레아뿐이야.”

“그래요? 분명 소니아 부인이 작년까지만 해도 초콜릿 엄청 많이 받으셨다고 했는데.”

“황궁으로 잔뜩 오기는 했었지. 근데 다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으니까 내가 받았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

“설마 또 가스파르 재상한테 다 떠넘기신 건 아니겠죠?”

“하하. 그걸 전부 가스파르 재상한테 줬다면 재상은 이미 진작에 당뇨로 죽었을걸? 초콜릿 하나도 못 받아서 슬퍼하는 사람들한테 줬다고 들었어.”

“으음.”

확실히 버리는 것보다야 그렇게라도 누군가 초콜릿을 먹어주는 게 더 나은 거 같기는 했지만…. 그런 식으로 초콜릿을 받으면 받는 사람도 별로 기쁠 거 같지 않고 아빠에게 초콜릿을 준 사람도 기분이 별로 좋을 거 같지 않았다. 그래도 그걸 다 아빠가 받아서 먹으면 정말 당뇨로 죽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니 레아는 아무 말도 안 하기로 했다. 어차피 아빠한테 온 거니 어떻게 쓰든 그건 아빠 마음이니까.

자신이 참견할만한 부분은 아닌 거 같다고 생각하며 레아는 들고 있던 바구니에서 분홍색 리본이 묶여있는 초코머핀들 사이에서 주황색 리본이 묶인 초코머핀을 꺼냈다.

“어제 다리아 영애한테 초콜릿 만드는 법 가르쳐주면서 만들어 봤는데 아빠 거는 특별히 더 신경 써서 만들어 봤어요.”

“생긴 건 다른 초코머핀들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아빠 드릴 머핀은 반죽에 특별한 걸 넣었어요. 다른 머핀들은 다 한꺼번에 구웠는데 아빠 드릴 것만 다리아 영애가 간 다음에 혼자 따로 만든 거예요.”

“정말?”

“네. 애초에 머핀을 구운 이유도 아빠 드리려고 구운 거니까요. 근데 아빠만 드리면 다른 사람들이 서운해할 거 같아서 다른 사람들 것도 구운 거예요.”

처음에는 별로 특별하지 않고 남들과 똑같은 머핀이라는 것에 조금 서운해하시는 듯했지만, 곧 일부러 더 신경 쓰고 아빠 것만 다른 반죽에 새로 구웠다는 말에 아빠는 만족스럽다는 듯 활짝 웃으며 좋아해 주셨다.

“역시 우리 레아는 마음이 따듯하다니까. 딱 봐도 양이 많은 거 같은데 힘들지 않았어?”

“하하. 옛날에는 겨울 감사제 때마다 이거에 2배는 더 구워서 팔았었어요. 오랜만에 해서 조금 피곤하긴 했지만요.”

“내년부터는 아빠 것만 굽도록 해. 다른 사람들 뭐 예쁘다고 우리 딸이 직접 구운 머핀을 줘.”

“하지만 저한테는 다 감사한 분들이신걸요.”

“감사는 무슨. 요즘 다 마음에 안 들어.”

원래 아빠 말고 다른 사람은 안 챙겨줘도 된다는 말은 자주 하셨지만, 오늘은 어쩐지 느낌이 좀 달랐다. 레아는 혹시 가스파르 재상과 피에르 시종장님과 다투시기라도 한 건가 싶었다. 그래서 이걸 물어봐도 되나 하고 잠시 고민하고 있는데 레아에 눈에 문득 책상 위에 있는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다.

“하이모어 대공…?”

그 많은 서류에는 모두 요즘 레아가 질리도록 보고 있는 그 이름이 적혀 있었다. 레아가 자신도 모르게 그 이름을 중얼거리자 아빠는 황급히 그 서류들을 책상에서 치웠지만 뒤늦게 숨겨봤자 이미 늦은 것이었다.

“아빠. 방금 치우신 서류 무슨 서류들이에요?”

“우리 레아는 몰라도 되는 서류들. 아무것도 아니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벌써 신경이 쓰여버려서요. 하이모어 대공과 관련된 거 같은데 혹시 그거 때문에 재상이랑 시종장님이랑 다투셨어요?”

“……….”

표정을 보니 레아가 딱 정답을 맞힌 모양이었다. 숨기고 싶었는데 꼭 이럴 때만 눈치 빠른 딸에게 딱 걸려버린 황제는 한숨을 푹 쉬며 말했다.

“레아. 정말로 네가 몰라도 되는 일이야. 그리고 아빠는 우리 딸이 이런 머리 아프고 기 빨려서 지치는 일에 말려들게 하고 싶지 않아. 내가 레아가 힘들었던 시간 동안 옆에 있어 주지 못했던 만큼 지금부터라도 너만은 힘들지 않았으면 해.”

아빠가 어떤 마음으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레아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빠는 모르고 있었지만, 레아는 요즘이 태어나서 제일 힘들고 혼란스러웠었다. 원래 같았으면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겠지만, 지금은 순순히 물러날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아빠 역시 순순히 레아에게 정보를 줄 것 같지는 않았다. 아무래도 아빠에게 하이모어 대공 관련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으려면 폭탄 발언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프레디 소공자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지. 이용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내가 급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정말 말하면 안 되는 얘기나 프레디 소공자가 무슨 일이 있어도 숨기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었다. 레아는 이 정도는 괜찮을 거로 생각하면서도 과연 이게 먹힐까 하는 생각으로 입을 열었다.

“아빠. 저 사실 프레디 소공자한테 고백받았었어요.”

“뭐?”

“제 생일 때 열렸던 파티에서 프레디 소공자가 정말 진지하게 말했었어요. 좋아한다고.”

“소공자가 널 따로 불러냈다고?”

“아우딕스 후작의 딸인 리베라 영애한테 부탁해서 절 불러 달라고 했어요. 아직 어린 리베라 영애는 프레디 소공자의 이름을 모르고 특징만 설명해줘서 전 라이 경이 저를 찾는 줄 알고 나갔고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지.”

안 먹히면 어쩌나 하고 걱정했는데 다행히 통하기는 통한 것 같았다. 아빠는 레아의 말에 깊게 고민을 했고 레아는 그런 아빠를 가만히 바라보았고 둘 사이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렸다. 그런데 그때 침묵을 깨고 누군가 집무실 문을 똑똑 두드렸고 곧 가스파르 재상이 집무실 안으로 들어왔다.

“문 앞에 라이 경이 있어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 레아 황녀님께서 안에 계셨군요.”

“가스파르 재상.”

“그런데 분위기를 보니 아무래도 제가 등장하지 말아야 할 타이밍에 등장한 거 같습니다만….”

“맞아. 완벽할 정도로 안 좋은 타이밍에 등장했어.”

싸웠다거나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화를 낸 건 아닌 거 같은데 확실히 평소의 꽃가루가 팡! 팡! 터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 가스파르 재상은 왜 들어와도 하필 이때 들어왔을까 후회가 되었다. 그런 재상을 보며 아빠는 작게 한숨을 쉬며 레아에게 얘기했다.

“아까 한 그 얘기는 아빠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생각해보고 저녁에 다시 얘기하자.”

“네. 알았어요.”

지금은 레아도 겨울 감사제 선물을 나눠주고 다니던 중이었으니까 저녁에 다시 얘기하자는 아빠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집무실을 나가기 전 바구니에서 초코머핀 2개를 꺼내서 가스파르 재상에게 주었다.

“겨울 감사제 선물이에요. 하나는 소니아 부인한테 전해주세요.”

“저랑 제 부인 선물도 준비해주신 건가요?”

“저한테 두 분 다 좋은 선생님이셨으니까요. 감사의 의미로 준비해봤어요.”

“황녀님의 따듯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다음 달 봄 감사제 때 꼭 답례를….”

“아뇨. 답례는 거절할게요.”

오늘 겨울 감사제라고 돌린 초코머핀이 몇 개인데 답례를 받아버리면 다음 달 봄 감사제 때 레아는 어마어마한 과자 산을 쌓게 될지도 몰랐다. 그러니 그 누구에게도 답례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결정해둔 레아는 상냥하게 웃으면서 거절했다. 레아의 단호한 거절에 가스파르 재상은 울상이 되었지만, 레아는 못 본 척 고개를 꾸벅 숙이고 집무실을 나갔다.

레아가 집무실을 나가자마자 레그마인 황제는 깊은 한숨을 푹 쉬었고 가스파르 재상은 그런 황제 폐하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안 그래도 머리 아픈 상황에서 사랑스러운 레아 황녀님께서 겨울 감사제라고 직접 구운 머핀을 선물로 주셨는데 어째 폐하는 하나도 기쁘지 않으신 거 같습니다.”

“기쁘지. 우리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마음도 따듯하고 착한 하나뿐인 내 딸한테 겨울 감사제 선물을 받은 건 너무 기쁜데….”

“그럼 뭐가 문제여서 아까 분위기도 그렇고 표정이 안 좋으신 겁니까?”

“우리 레아가 날 닮아서 너무 똑똑하고 눈치가 빨라. 그래서 문제야.”

“황녀님께서 똑똑하시고 눈치가 빠르신 건 좋은 것 아닙니까?”

“좋지. 좋다 못해 누굴 닮아서 이렇게 완벽한 건지 내 딸이지만 아주 그냥 예뻐 죽겠지. 근데 그래서 문제야.”

“………?”

그러니까 도대체 그게 왜 문제라는 건지 가스파르 재상은 이해가 가지 않았다. 하지만 레그마인 황제가 조용히 아까 황급히 치웠던 서류를 다시 꺼내자 가스파르 재상은 작게 탄식을 내뱉었다.

“혹시 레아 황녀님께서 하이모어 대공에 대한 서류를 보시고 관심이라도 가지신 겁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했는데 이미 신경이 쓰여버려서 무슨 일인지 알려달래.”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황녀님께서 이 일에 연관되시는 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한데…레아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야.”

“난감한 상황이군요. 왠지 레아 황녀님께서는 한번 고집을 부리시면 그 고집을 아무도 꺾지 못할 것 같습니다만….”

일단 레그마인 황제 폐하를 쏙 빼닮으신 레아 황녀님이니 고집이 보통이 아닐 것이었고 요즘은 별로 그런 일이 없었지만 제대로 열이 받으시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돼버리시는지라 솔직히 조금은 두렵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일은 레아 황녀님께서 모르시는 편이 더 좋을 거란 생각은 변함이 없었고 레그마인 황제 역시 똑같은 생각이었다.

어떡하면 레아가 하이모어 대공에게 관심을 끊게 만들 수 있을까. 레그마인 황제는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안 그래도 복잡하고 머리가 아팠는데 레아 때문에 고민이 하나 더 늘었다며 오늘만 해도 몇 번째인지 모를 깊은 한숨을 푹 쉬었다.

\*\*\*

“레아 황녀님. 아까 황제 폐하의 집무실에서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네? 왜요?”

“집무실을 나오시고부터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고 계속 혼자 골똘히 생각에 잠기셨지 않습니까.”

“아….”

그러고 보니 집무실을 나와 생각할 게 많아 라이 경에게는 아무 말도 안 했던 거 같았다. 레아는 라이 경에게 집무실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줄까 하다가 아직은 확실한 게 아니니 저녁에 아빠와 다시 이야기해보고 그다음에 라이 경에게 이야기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무슨 일이 있기는 있었죠. 저녁에 아빠랑 다시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무슨 일인지는 내일 얘기해줄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아빠가 그게 어떤 서류였고 도대체 하이모어 대공이 무슨 짓을 했기에 아빠와 가스파르 재상, 피에르 시종장님이 다투신 건지 얘기해주실지가 의문이었다. 프레디 소공자가 고백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고민하시는 거 같긴 했지만, 레아는 아빠가 쉽게 그 이야기를 해주실 거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은 이제 그만하자. 계속 생각한다고 좋은 방법이 떠오르는 것도 아니고. 괜히 머리만 아프니까 지금은 초코머핀 나눠주는 일에나 집중하자.’

아직 나눠줘야 할 머핀이 가득한데 집무실에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버려서 레아는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했다. 내년부터는 직접 주러 가지 말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받아 가든지 아니면 대용량으로 굽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며 레아는 라이 경과 함께 부지런히 머핀을 배달했다.

레아가 구운 머핀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황녀님께서 직접 배달하러 왔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고 감동하기도 했었다. 특히 피에르 시종장님은 레아처럼 착하고 사랑스러운 딸이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며 허허 웃으셨고 그 말의 숨겨진 의미를 모르는 레아는 시종장님을 따라 웃었다. 그 의미를 아는 라이 경은 아무런 말도 못 하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말이다.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며 머핀을 나눠주니 어느새 바구니 속 머핀은 딱 두 개만 남게 되었다.

“두 개 남았으니까 하나는 키린한테 줄 거고 다른 하나는….”

바구니에 남은 초코머핀을 확인하던 레아는 마지막 하나 남은 머핀을 보고 말끝을 흐렸다. 사실 마지막 머핀 하나는 이걸 줄지 말지 아직도 고민 중인 사람의 몫으로 만든 것이었다. 머릿속으로는 처음부터 그 사람한테는 주지 말라고 하고 있었지만, 레아는 이 머핀을 만들었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걸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다. 그러다 곧 어떻게 할지 결정한 듯 레아는 라이 경을 보며 싱긋 웃으며 말했다.

“라이 경. 우리 이제 마지막 머핀 전해주러 가요.”

83.똑같은 마음.docx

“루시.”

빨간색 머리카락과 밝은 호박색 눈동자. 그리고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다정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아리샤 누나를 보고 하비투스는 지금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누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아무리 그립고 또 그리워도 하비투스가 아리샤 누나를 만날 수 있는 건 오직 꿈을 꿀 때뿐이었다.

그래도 아리샤 누나의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하비투스는 좋았었다. 하지만 오늘은 어쩐지 오랜만에 꿈에 아리샤 누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비투스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레아 황녀님께서 황궁으로 오신 이후로 아리샤 누나가 꿈에 나온 건 오늘이 처음이군.’

그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꿈에 나오던 아리샤 누나였는데. 황녀님께서 황궁으로 오신 이후로는 한 번도 꿈에 나오지 않았었다. 너무나도 오랜만에 꿈에 나타난 아리샤 누나를 보며 하비투스는 한 달 전에 레아 황녀님께서 해주셨던 충고가 떠올랐다. 어쩌면 그 말 때문에 오랜만에 보는 누나의 모습이 반갑고 기쁘지 않은 걸지도 몰랐다.

“아리샤 누나. 누나도 내가 누나를 잊어주길 바라는 거야?”

“루시.”

“누나도 내가 미련을 놓고 과거의 그림자를 벗어나면 좋겠어?”

“루시, 루시.”

“이름만 부르지 말고 대답을 해줘.”

정답을 찾을 수 없는 자신에게 꿈에서라도 좋으니까 아리샤 누나가 무슨 말이라도 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하비투스의 그런 바람과는 다르게 아리샤 누나는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하비투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말을 했다.

“드디어 루시도 어른이 돼가는 중이구나.”

“난 원래 어른이었어. 벌써 30살이 넘었는데.”

“언제까지고 아이로 남아있을 순 없지. 그 사람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거 같으니까.”

“그 사람?”

“……….”

그 사람이 누구냐는 듯이 물었지만 아리샤 누나는 아무런 말 없이 웃기만 했다. 그리고 하비투스의 머리를 쓰다듬던 손을 떼고 조금씩 그에게서 멀어져갔다.

“이제는 내가 아닌 그 아이를 지켜줘. 지금 그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레아 황녀님…?”

“그 아이를 잘 부탁해. 내가 지켜주지 못한 소중한 내 아이를.”

“누나…….”

누나. 가지 마.

꿈에 아리샤 누나가 나올 때마다 하비투스는 가지 말라고 하며 점점 멀어져가는 누나를 붙잡으려고 애를 썼다. 그러면 아리샤 누나는 꼭 울 것 같은 얼굴을 했는데 어쩐지 오늘은 가지 말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아리샤 누나는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하비투스를 떠났고 누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쯤 하비투스는 잠에서 깼다.

‘오랜만에 꿈에 아리샤 누나가 나와서 그런가. 기분이 이상해. 원래 이런 기분이 아니었는데.’

하비투스는 이런 적은 처음이라고 생각하며 습관적으로 자신의 얼굴을 매만졌다. 원래 아리샤 누나가 나오는 꿈을 꾸고 나면 항상 얼굴에 물기가 남아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전과는 조금 달랐던 아리샤 누나의 말과 행동도 그렇고 꿈을 꾸고도 자신이 울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하비투스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다.

지금 이게 무슨 감정인지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하비투스는 복잡한 심경으로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러다 하비투스는 방에 딱 하나밖에 없는 의자 위에 덩그러니 올려져 있는 초코머핀 하나를 발견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이 겨울 감사제였던 거 같기도 하고.’

웬만한 여자 뺨칠 정도로 예쁘고 고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 하비투스였기에 알게 모르게 의외로 숨은 팬이 많은 편이긴 했지만 겨울 감사제 때 누군가에게 초콜릿을 받아보는 건 참으로 오랜만이었다. 20살 때 어떤 시녀가 주었던 초콜릿을 그 자리에서 가루로 만들어버린 이후로 아무도 하비투스에게는 겨울 감사제 때 초콜릿을 주지 않았는데 도대체 어떤 용자가 이걸 두고 간 걸까. 하지만 초코머핀 바로 옆에 있는 쪽지를 본 순간 하비투스는 그 용자가 누군지 알 수 있었다.

[전에 얻어먹었던 우윳값.]

쪽지에는 딱 그렇게만 적혀있었지만, 하비투스는 머핀을 두고 간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었다. 하비투스가 그렇게 아끼는 우유를 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황궁에 딱 한 사람밖에 없었다.

‘날 싫어한다고 하셨으면서 이런 건 왜 두고 가신 걸까. 황녀님께서 이러시면 내가 너무 못난 놈 같잖아.’

아직 17살밖에 안 되셨으면서 31살인 하비투스보다 더 어른스럽게 굴면 어쩌라는 건지…. 레아 황녀님께서는 아리샤 누나랑 하나도 안 닮았다고 말했었는데 이러시는 건 반칙이라고 생각하며 하비투스는 울렁이는 마음에 입술을 꾹 깨물었다.

“뭐가 내가 지켜줄 수 있고 잘 부탁한다는 거야….”

아리샤 누나가 지켜주지 못한 소중한 그 아이는 누가 지켜줘야 할 정도로 약한 존재가 아닌데. 하비투스는 그런 황녀님과 달리 약하기만 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초라하게만 느껴져 고개를 푹 숙였다.

\*\*\*

“레아 황녀님.”

“네?”

“한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비투스한테 초코머핀을 줬는지 물어보려는 거죠?”

“…혹시 머핀에 독이라도 넣으신 겁니까?”

어두컴컴한 방으로 갈 때부터 언제 물어보나 했던 질문이었는데 진지한 얼굴로 머핀에 독을 넣었냐고 묻는 라이 경 때문에 레아는 작게 웃음을 터트렸다. 아마 라이 경은 요즘 레아가 서류에 파묻혀 살고 덩달아 자신까지 수고하게 만든 장본인이 하비투스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했다.

“그러게요. 진짜 독이라도 넣어버릴 걸 그랬나.”

“안 넣으신 겁니까?”

“독이야 이제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다고 해도 그걸 머핀에 넣으려면 반죽을 따로 해서 새로 구워야 하잖아요. 그러면서까지 하비투스에게 독을 먹일 생각은 없어요. 아직은 별로 죽이고 싶지도 않고.”

이번에 레아가 머핀을 얼마나 많이 구웠는데 따로 반죽을 새로 해서 특별한 머핀을 구울 여유가 있었을 리가 없었다. 사실 그래서 아빠한테 드린 머핀도 다른 머핀과는 다른 특별한 재료를 넣은 반죽으로 따로 구운 것이라고 했었지만, 거짓말이었다.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특별한 거니까. 암, 그렇고말고. 그리고 아빠한테 드린 초코머핀은 주황색 리본을 묶었으니까 다른 초코머핀들이랑은 다르긴 하잖아.’

내년에 상황이 좀 더 여유로워지면 진짜 신경 써서 특별하게 챙겨드려야겠다.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도 해보고 이번에도 충분히 특별했다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레아는 잠시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하비투스 님께 초코머핀을 드린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 겁니까?”

“으음. 사실 특별한 이유는 딱히 없었어요. 그냥….”

“……….”

“그냥 줘야 할 거 같아서 줬달까.”

머리로는 하비투스가 뭐가 예쁘다고 하비투스에게 겨울 감사제라고 직접 구운 머핀을 선물하냐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머핀을 줄지 말지 망설이다 결국 레아는 하비투스에게 초코머핀을 선물했다. 왜 줬냐고 물어도 그 이유는 레아조차 알 수가 없었기에 라이 경의 말에 제대로 대답해줄 수가 없었다.

“그냥 하나 남아서 버리기에는 아까우니까 줬다고 생각해요. 나도 내가 왜 굳이 하비투스한테 초코머핀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지금 중요한 건 겨울 감사제 초콜릿 같은 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잠시 숨 돌린다고 생각하고 겨울 감사제를 거하게 챙기긴 했지만 지금 레아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초콜릿 같은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레아의 말에 라이 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은 오늘 저녁에 아빠랑 얘기해본 후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정하려고 해요. 하이모어 대공이 가진 광산에 대한 건 이제 서류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더는 없는 거 같아요.”

“광산 쪽은 사실 처음부터 서류만으로 접근한다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수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그만큼 대공이 철저하게 숨기는 사실을 서류를 읽는 것만으로 밝혀낸다는 건 힘든 일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하이모어 대공이 후원했던 사람들은 계속 조사하는 편이 좋겠죠?”

“아무리 하이모어 대공이 완벽함에 집착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수많은 사람을 모두 허점 하나 없이 관리하진 못했을 겁니다. 조금만 더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알겠어요.”

일단 이렇게 얘기하기는 했지만, 아빠와 얘기가 끝나면 생각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랐다. 레아는 저녁에 아빠가 어떤 말을 해주실지 전혀 감도 오지 않는다고 중얼거리며 황궁 안으로 들어갔고 라이 경은 언제나처럼 레아의 뒤를 조용히 따라 걸었다.

\*\*\*

근심 걱정이 가득한 얼굴의 레그마인 황제와 진지한 얼굴의 가스파르 재상은 레아가 집무실을 나간 후 어떡하면 레아가 이 일에 관심을 끊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았지만, 딱히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사실 이번 일은 레아와 관련이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더욱 머리가 아팠다.

“가스파르 재상. 내가 처음에 레아를 황궁으로 데리고 와서 내 딸로 키우겠다고 했을 때 그때 재상이 입에 게거품 물면서 했던 말 기억해?”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재상은 지금 이 사태를 그때부터 예상했던 걸지도 모르겠네.”

“하이모어 대공이 황녀님을 탐낼 거란 건 폐하 역시 예상하셨지 않으셨습니까.”

“그래. 나도 알고는 있었지.”

그래도 그때는 아리샤를 허무하게 잃었던 것과 달리 레아를 지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지만 이번에도 어쩌면 레아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이모어 대공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레그마인 황제는 덜컥 겁이 났다.

‘아니. 무조건 지켜야 해. 설령 내가 죽는다고 해도 레아만큼은 꼭 지켜야만 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내 딸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레아만은 꼭 지켜야 했다. 하지만 그렇기에 레그마인 황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더 고민이 되는 것이었다.

“폐하. 레아 황녀님을 걱정하시는 마음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역시 황녀님께서는 소중한 존재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건 폐하 역시 잘 알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

“하지만 이번만큼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황녀님께 친모의 과거를 모두 밝히실 생각입니까?”

“그건 나와 가스파르 재상만 알고 있어야 해.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레아만은 절대 그 사실을 알아선 안 돼.”

“그럼 일단은 하이모어 대공의 뜻에 따라주는 척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후에 모든 걸 뒤집어엎더라도 지금으로선 방법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역시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것인가. 피에르 시종장도 레그마인 황제에게 그렇게 말했었고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가스파르 재상 역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했다. 레그마인 황제도 머리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인정하기 싫지만…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겠지. 이제 더 버티는 것도 무리야.’

그렇게 생각하며 레그마인 황제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

“레아한테는 뭐라고 설명해주는 게 좋을까.”

“하이모어 대공이 황녀님의 친모에 대해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것은 말씀하시지 않는 편이 좋을 거 같습니다. 만약 레아 황녀님께서 그 사실을 알게 되시면….”

“분명 상처받겠지. 다른 거 다 상관없이 오직 사랑으로 태어난 생명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엄마와 아빠의 사랑으로 태어난 존재. 정략결혼이 아닌 이상 모든 아이에게 당연한 것이 왜 자신의 딸에게는 상처가 될 것이니 덮어두고 숨겨야 할 것이 되는 걸까. 레그마인 황제는 그게 레아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다. 그냥 아빠로서 너무 미안했다.

“하지만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거절했던 혼담을 이번에는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를 그 협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설명한다는 게 가능하기는 할까. 그것도 저번 파티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레아 황녀님께서도 필시 하이모어 대공을 안 좋게 보고 있으시겠죠. 결국, 끝까지 사과는 못 받으셨으니까요.”

“근데 아무리 어떻게 해서든 뒤엎을 예정이라고 해도 그런 사람의 아들과 약혼 얘기가 오고 가야 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리가 없지.”

“분명 첫 번째 혼담을 거절당하고 조용하길래 레아 황녀님과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려는 건 포기한 줄 알았더니…. 갑자기 10년도 더 지난 일을 가지고 협박하는 하이모어 대공도 대체 무슨 생각인지도 모르겠지만 도대체 레아 황녀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그러게 말이야.”

설마 레아가 이미 두 사람이 그렇게 숨기려는 엄마의 과거를 알고 있고 사실 엄마는 진심으로 아빠를 사랑하게 되어서 떠났다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실까지 알고 있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는 레그마인 황제와 가스파르 재상은 지끈지끈 머리가 아팠다. 조금이라도 레아가 위험하지 않게 지켜주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똑똑하고 눈치도 빠른 레아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계속 그걸 고민하던 레그마인 황제는 과거 레아가 황궁으로 오기 전, 가스파르 재상이 했던 말이 다시 한번 떠올랐다.

‘언젠가 이 아이가 독이 되고 폭탄이 되어 나를 위협할 거라고 했었지. 그런데 어째서 그런 아이를 황궁으로 데리고 와 사랑을 주면서 키우려고 하냐고. 그건 하이모어 대공이 심은 폭탄을 품에 끌어안고 자폭을 기다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거품 물고 쓰러지면서 말했었지.’

지금 상황을 보면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었다. 당장 하이모어 대공이 어째서 레아를 며느리로 탐내는지 알면서도 레아를 위해 숨겨야만 하는 비밀이 폭로 당할까 봐 걱정이었으니 말이다. 그 사실이 밝혀졌을 때 레아가 받을 상처는 물론이고 주변에서 저질스럽게 떠드는 더러운 얘기를 듣게 하고 싶지도 않았다.

황제의 사생아란 얘기는 어떻게 해서든 레아가 극복해야 할 것이었고 그 정도는 잘 이겨낼 수 있는 아이라고 믿었지만 이건 그것과는 조금 달랐다. 아무리 레아는 강하고 씩씩한 아이라고 해도 이번만큼은 아빠로서 꼭 딸을 지켜줘야만 했다. 레그마인 황제는 레아가 상처받길 바라지 않았다. 레아가 아빠가 상처받지 않길 바라며 자신이 엄마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것을 숨기는 것과 똑같은 마음이었다.

84.사람이 갑자기 변하면.docx

초코머핀을 다 돌리고 방으로 돌아온 레아는 빨간 리본으로 머리를 질끈 묶고 저녁에 아빠와 나눌 대화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다. 혹시라도 아빠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끝까지 말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것이었다.

‘내가 아는 아빠라면 웬만하면 안 알려줄 거 같은데…. 근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세 분이 다투셨다는 거지?’

보통은 아빠와 가스파르 재상이 의견이 맞지 않아 조금 삐거덕거려도 그게 레아가 눈치챌 정도로 티가 나게 다투시는 건 아니었다. 거의 일상인 수준이었으니 아빠의 입에서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이 나올 리가 없는데 지금은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란 것 정도는 말해주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근데 하필이면 그게 또 하이모어 대공과 관련된 일이라니 레아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뭐 아는 게 없으니 추측이 가는 것도 없었다. 그래도 레아는 혹시 겨울에 있었던 파티와 무슨 연관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실낱같은 희망에 열심히 기억을 되돌려 보았다. 그리고 그런 레아를 보며 시녀들은 갑자기 왜 저러시나 하고 자기들끼리 시선을 주고받았다.

‘레아 황녀님 말이야. 어쩐지 조금 느낌이….’

‘머리도 빨간 리본으로 질끈 묶으시고 꼭 어디 싸우러 가실 준비하시는 거 같아.’

‘머핀 나눠주시다가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나? 아침에는 안 저러셨던 거 같은데.’

‘혹시 라이 경이랑 다투시기라도 하셨나?’

‘갑자기? 요즘 두 분 사이 좋으셨잖아. 다투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 같은데.’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사이가 그렇게 좋았는데 레아 황녀님 성격상 갑자기 싸우고 오셨을 리가 없었고 라이 경도 그럴 사람으로는 안 보였다. 하지만 두 사람이 다툰 거 같다고 얘기한 시녀는 보일 듯 말 듯 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원래 남녀 사이 일은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그리고 솔직히 짐작이 아주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 이유?’

‘응. 그 이유.’

‘설마…. 레아 황녀님 나중에 혼자 주방 한번 들리셔서 뭐 만드셨다는 거 같던데?’

‘나도 그래서 당연히 라이 경은 받았을 거로 생각했지. 우리 몰래 밖에서 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다기에는 라이 경 표정을 좀 봐봐.’

그 말에 다른 시녀들은 몰래 힐긋 라이 경을 바라보았다. 평소 언제나 똑같은 표정에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인 라이 경인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오늘은 어둠의 기운을 폴폴 풍기며 표정이 영 좋지 않았다. 그 모습에 시녀들은 바로 눈치챌 수 있었다.

‘못 받았구나.’

‘못 받았어.’

‘못 받은 게 분명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라이 경은 무조건 받을 줄 알았는데. 시녀들도 모두 초코머핀을 하나씩 받았는데 라이 경은 못 받았으니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시녀들은 라이 경을 향해 동정의 눈빛을 보냈고 라이 경은 그 눈빛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었다.

‘왜 저렇게 쳐다보는 걸까. 그것도 꼭 괜찮다고 힘내라는 듯이 토닥이는 눈빛으로.’

설마 레아 황녀님께 겨울 감사제 초콜릿을 받지 못해서 기분이 별로라는 것을 들켜버린 건가 라이 경은 속으로 뜨끔했다. 사실 지금 하비투스 님까지 레아 황녀님께 초코머핀을 받은 마당에 자신은 아직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는 것에 라이 경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다. 레아 황녀님께 화가 난 것은 아니었지만 솔직히 하나도 서운하지 않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었다.

‘이럴 줄 알고 괜히 기대하지 말자고 생각했으면서 서운해하는 꼴이라니. 내가 봐도 우스운 꼴이군.’

라이 경이 레아 황녀님께 초콜릿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푸엘라 경은 뭐라고 하려나. 아마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붓지는 않을까 라이 경은 걱정이 되었다. 그래도 라이 경은 어제 푸엘라 경에게 쓸데없는 곳에 관심 가지지 말라고 말한 게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누군가 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에 방안 모두의 시선은 문 쪽으로 쏠렸다. 곧 닫힌 문 너머로 곱고 예쁜 목소리가 들려왔다.

“레아 황녀님. 루시 하비투스입니다.”

“하비투스?”

“드릴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

평소와는 다른 차분한 목소리에 레아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저 목소리는 분명 하비투스의 목소리가 맞는데 말투가 달라도 너무 달라서 꼭 하비투스가 아닌 것 같았다. 라이 경도 레아와 똑같이 생각한 건지 혹시 모를 위험이 있을까 봐 시녀들 대신 직접 문을 열고 문을 두드린 상대를 마주했다. 그런데 그 상대를 보자마자 라이 경은 조금 놀란 건지 흠칫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레아 황녀님께 전해드릴 것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혹시라도 방해되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

“이 책들을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어떤 책들인지는 말씀드리고 싶지만 보는 눈이 많은 곳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

“……….”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평소라면 줄 것도 있고 중요하게 할 얘기도 있어서 왔다면서 막무가내로 들어왔을 하비투스인데 오늘은 평소와 달리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거기다 시커먼 로브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가리는 대신 오늘은 평범하게 예쁜 얼굴을 내놓고 있었다. 그런 하비투스를 말없이 바라보던 라이 경은 조용히 언제라도 검을 뽑아 들 수 있게 준비하며 물었다.

“누구십니까.”

“루시 하비투스. 아까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당신이 하비투스 님이 맞으십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비투스 님이라면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

얼굴도 웬만한 여자 뺨칠 정도로 예쁘고 목소리도 예쁜 미성이 맞았지만, 말과 행동이 평소와 정반대라서 이건 의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 얼굴과 목소리를 이렇게 감쪽같이 바꿀 수 있는 건 다닐로만 제국에서 오직 하비투스만 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흑마법이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심각하게 낮아도 0%는 아니었으므로 이건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라이 경의 증거를 보여달라는 말에 하비투스는 잠시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얼굴을 팍 찌푸리더니 레아와 라이 경이 너무나도 잘 아는 하비투스의 말투가 나왔다.

“아, 진짜 마음먹고 어른스럽게 착하게 굴려고 해도 이렇게 나오면 이건 뭐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언제는 얼굴 확인하는 게 제일 간단하고 정확한 확인 방법이라고 싫다는 사람한테 억지로 얼굴 보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얼굴 말고 또 무슨 증거를 대라는 거야? 기껏 도와주려고 왔더니.”

앞에 있는 상대가 확실히 하비투스가 맞는 거 같아 보이자 라이 경은 뒤돌아 레아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레아는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고 라이 경은 하비투스에게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그리고 시녀들에게는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고 곧 방 안에는 세 사람만 남게 되었다.

“왜 왔어요?”

“이 책들을 황녀님께 드리려고 왔다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책을 나한테 왜 가지고 왔냐고요. 또 엄마가 끝내지 못한 복수를 대신 끝내 달라고 온 거예요?”

“아뇨. 이제 레아 황녀님께 아리샤 누나의 복수를 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을 겁니다. 전 그렇게 결정 내렸어요.”

“네…?”

갑자기 복수를 포기하겠다니 이건 또 무슨 소리란 말인가. 혼자서 그러기로 결정 내렸다는 하비투스의 말에 레아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레아가 그러든 말든 하비투스는 자기 할 말만 계속 이어갔다.

“그동안 레아 황녀님께서 제게 물어보셨지만, 대답 못 해 드린 건 이 책에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제가 왜 말씀드리지 못한 이유도 알 수 있으실 거니까 꼭 꼼꼼하게 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건 어릴 때 제가 읽고 공부했던 책 생각하면서 직접 만든 거니까 이것도 꼭 읽어보시고요.”

“복수해달라는 말은 이제 안 한다면서요. 그런데 이건 왜 줘요?”

“아리샤 누나가 끝내지 못한 복수를 레아 황녀님께서 끝내달라고 드리는 게 아니니까요. 다른 이유로 레아 황녀님은 무조건 흑마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제가 왜요?”

갑자기 찾아와서 이건 또 무슨 소리람. 레아는 하비투스가 오늘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초코머핀 먹고 체했나.’

줄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계속 찜찜해서 어차피 계속 신경 쓰이고 찜찜한 거 그냥 줘 버리자는 충동적인 마음으로 준 건데 레아는 역시 괜히 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하비투스는 아까의 그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아리샤 누나의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이 이번에는 레아 황녀님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제가 레아 황녀님을 지켜드릴 방법은 이거밖에 없을 거 같아서요.”

“하비투스가 날 지켜준다고요?”

“레아 황녀님이시라면 분명 독학으로도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다닐로만 제국 최고의 마도사인 저보다 강한 사람이었던 아리샤 누나의 마력을 물려받은 사람이니까.”

“하비투스. 원래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란 건 알고 있었지만, 진짜 상한 우유라도 마신 거 아니에요?”

원래 말이 안 통하는 이상한 사람이기는 했지만, 오늘따라 아예 자신의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는 하비투스가 이제 드디어 정말로 돌아버린 건가 하고 레아는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아 얼굴을 찌푸렸다.

“오늘 제가 자고 일어나서 먹은 거라곤 레아 황녀님께서 주신 초코머핀 말고는 없는데 혹시 그 안에 상한 재료라도 넣으신 겁니까?”

“안 넣었는데 진짜 독이라도 넣을 걸 그랬나 봐요.”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독이라면 해독 마법을 쓰면 그만이니까요.”

“…진짜 싫다.”

“너무 미워하진 말아 주세요. 그동안 미운 짓 한 만큼 앞으로는 레아 황녀님께 큰 도움이 될 테니까.”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도움이 될지 방해가 될지는 지켜봐야 아는 것이었지만 그동안 하비투스가 보여준 모습으로는 영 믿음이 가지 않았다. 다닐로만 제국의 황궁에서 제일 수상하고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인데 앞으로는 큰 도움이 될 테니 믿어달라는 말에 덜컥 그런 사람을 믿을 정도로 레아는 바보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자신의 미워하지 말라는 하비투스의 말에 레아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뭘 잘못 먹은 건 아닌 거 같고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러는 거야. 하비투스는….’

처음 문을 똑똑 두드렸을 때는 평소와 너무 달라서 이상했고 지금은 또 너무 평소다워서 이상했다. 레아에게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비투스가 이상한 사람이란 건 변함이 없었다.

“전에 라이 경한테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전 무조건 레아 황녀님과 같은 편입니다.”

“내가 엄마 딸이라서요?”

“솔직히 어제까지는 그랬는데 오늘부터는 그냥 레아 황녀님이랑 같은 편 하려고요.”

“진짜 아침부터 뭐 잘못 먹었어요?”

“말했잖아요. 오늘 먹은 거라곤 황녀님께서 주신 초코머핀이 전부라고. 그게 아니라 꿈에 아리샤 누나가 나왔어요.”

“엄마가요?”

돌아가신 후로 엄마는 레아의 꿈에도 나와준 적이 별로 없는데 하비투스의 꿈에 나왔다는 말에 레아는 의아하다는 얼굴을 했다. 꿈에서 엄마가 뭐라고 했길래 하비투스가 생각을 바꾼 건지 궁금했지만 하비투스는 그건 알려주지 않았다.

“이 책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레아 황녀님이 궁금해하시고 알고 싶어 하셨던 것과 일기장에 적혀 있는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흑마법 책도 꼭 읽어보시고요. 밑줄까지 그어가면서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으니까 레아 황녀님이시라면 금방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

“흑마법은 다른 마법들보다 어렵고 까다로워서 익히는 데 오래 걸린다고 그랬는데요.”

“그야 보통은 그렇죠. 하지만 이건 다닐로만 제국 최고의 마도사인 제가 직접 쓴 책이잖아요? 2개월이면 충분해요.”

“또 본인 입으로 직접 제국 최고의 마도사라고 하시네요.”

“제가 뭐 틀린 말 했나요?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어서 더 재수 없는 말이죠.”

딱히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너무 아무렇지 않게 자기 입으로 말해버리면 그게 좋게 들릴 리가 없었다. 레아는 그렇게 생각하며 일단은 하비투스에게 받은 두 책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하비투스의 말을 100% 믿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읽어서 손해 볼 건 없으니 시간이 나면 한 번쯤은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았다. 과연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아, 맞다. 오늘 제가 드린 두 책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밀입니다. 레아 황녀님.”

“네?”

“아리샤 누나에 관한 내용이야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말씀하실 리가 없겠지만 흑마법 책을 드렸다는 것도 비밀로 해주세요. 특히 키린한테는요.”

“여기서 갑자기 왜 키린 이름이 나와요?”

다른 사람한테는 다 숨겨도 레아에게 마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선생님인 키린에게 만큼은 말을 해줘도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하비투스는 단호한 표정과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키린에게는 절대 말씀하지 마세요. 그 아이가 나쁜 아이라는 건 아니지만…어쨌든 말씀하지 마세요.”

“혹시 키린도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가요?”

“이걸 모르시는 뭔가가 있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이미 알고 있으시다고 해야 할지…. 뭐라고 말씀드리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아까 드린 거 읽어보시다 보면 제가 왜 그러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여기에 적었으면서 왜 하비투스 입으로는 말 못 해요?”

“그 얘기를 한번 시작하면 얘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길어질 거고 길게 얘기하기에는 제가 좀 바빠서요. 레아 황녀님께서도 바쁘실 거 같기도 하고.”

“그야 그렇긴 하죠.”

레아도 저녁에 아빠랑 중요한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아무리 하비투스의 얘기는 쉽게 흘릴 수가 없다고 해도 오늘은 레아도 많은 시간을 내줄 수 없었다.

“바쁜 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흑마법은 제 전문이니까요.”

“아직 배우고 공부하겠다고 한 적 없는 거 같은데요.”

“그럼 이제 정말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레아의 말을 안 듣는 건지 하비투스는 자기 할 말만 하고 그대로 방을 나가버렸다. 레아는 참 제멋대로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하비투스가 주고 간 책을 서랍 안으로 넣었다. 언젠가 읽기는 하겠지만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었고 아마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레아는 곧 다시 이 서랍을 열게 될 날이 올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 하고 있었다.

85.이제야 보이기 시작한 그림.docx

레아가 황궁으로 온 후 레그마인 황제는 언제나 레아와 함께 하는 저녁 식사 시간이 즐거웠다. 온종일 그 시간만을 기다릴 정도로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딸의 귀여운 모습을 보는 게 레그마인 황제에게는 큰 즐거움이었다. 그래서 가끔 너무 바쁘거나 레아가 아파서 함께 식사하지 못할 때면 슬프기까지 했다.

‘그런데 오늘은 처음으로 레아와의 저녁 식사가 묘하게 두렵군. 과연 얘기가 잘 끝날 수 있을까….’

원래는 종일 일에 시달리고 가스파르 재상과 열나게 싸워도 레아와 저녁 식사를 할 때면 하루의 피로가 사르르 녹아 없어졌는데….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똑똑하고 착한 멋진 딸이 조금은 두려웠다. 설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소중한 레아가 두려워지는 날이 오다니.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 했었다.

‘아니야. 아빠가 사랑하는 딸을 두려워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우리 착한 레아라면 분명 이해해줄 거야. 내가 얼마나 아끼고 또 아끼면서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레아라면 분명 이해해줄 거야.’

가스파르 재상과 둘이서 열심히 머리를 싸매고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보았지만 결국 레아에게 이걸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생각해내지 못했다. 그저 착한 레아가 잘 이해해주길 바랄 수밖에 없었다.

레그마인 황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두려워도 해보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얘기가 잘 끝나길 바랐다. 혹여라도 얘기가 잘 안 돼서 레아에게 미움이라도 받게 되면 정말 큰 일이라고 걱정하고 있을 그때 드디어 문을 열고 레아가 안으로 들어왔다.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속 깊고 마음씨도 예쁜 천사 같은 우리 레아 왔구나.”

“아빠 먼저 와있으셨네요. 오늘은 제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으려고 했는데.”

“사랑스럽고 착한 우리 딸을 기다리게 할 수는 없는데.”

최대한 평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자리에 앉자마자 레아는 피식 웃음이 나올 뻔했다. 평소와는 조금 다른 아빠의 모습이 레아의 눈에는 바로 보였다.

‘착하다는 말이야 원래도 자주 하셨지만 예쁘다, 귀엽다는 말 대신 속 깊고 마음씨도 예쁜 천사로 바뀌었구나. 거기다 조금 어색해 보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미미한 변화였지만 레아는 단번에 눈치챌 수 있었다. 진짜 쏙 빼닮았다는 말은 자주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어쩜 심하게 긴장하거나 눈치 보이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하는 모습까지 닮은 걸까 싶었다. 그래도 이제 레아는 연기력이 늘어서 티가 전혀 나지 않았는데 레아가 보기에 아빠는 아직 갈 길이 멀어보았다.

‘애초에 아빠는 남 눈치 보고 긴장할 일이 없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은 부족할 수밖에.’

레아도 황궁에 오면서 그런 감정을 능숙하게 숨기는 법을 제대로 배웠으니 태어날 때부터 황족이었고 지금은 제국의 황제인 아빠에게 눈치 보면서 긴장했을 일이 있었을 리가 없었다. 그런데 그런 아빠를 긴장하게 하다니. 레아는 왠지 그게 조금 신기했다.

그런데 잔뜩 긴장하고 있는 아빠와 달리 레아는 꼭 싸우러 갈 준비를 하는 것처럼 활활 타오르던 아까와는 다르게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또 하이모어 가문에서 저한테 혼담이 들어왔다면서요? 이번에는 프레디 소공자만.”

“………!”

“그리고 저번처럼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레아. 네가 그걸 어떻게….”

혹시라도 소문이라도 날까 봐 꼭꼭 숨겼는데 그 사실을 제일 몰랐으면 했던 레아가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꺼내자 아빠는 당황스러운 듯했다. 첫 번째 혼담이 들어왔을 때도 말해주지 않고 숨기려고 했는데 레아가 먼저 알고 말을 꺼냈는데 이번에도 레아는 이미 혼담에 대해 알고 있었다.

‘고백했다가 차였다고 했으니 이번에도 프레디 소공자가 알려줬을 리는 없고. 그럼 대체 누가 레아한테 그 사실을 알려준 거지?’

혼담이 또 들어왔다는 얘기와 이번에는 저번과 달리 쉽게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으니 어쩌면 하이모어 대공이 협박하고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걸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레아의 모습이 너무 태연해 보여서 레그마인 황제는 헷갈리고 또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그런 아빠를 보며 레아는 바로 그 얘기는 누구한테 들은 거냐고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아빠가 더 놀라신 거 같다고 생각했다.

‘대체 혼담을 거절 못 하는 이유가 뭐길래 저러시는 거지? 진짜 엄청난 건가.’

그게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먼저 얘기를 꺼낸 건데 아무래도 그 이유는 쉽게 듣기 좀 힘들 거 같았다.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에 레아는 어떤 거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먼저 입을 연 쪽은 어느새 놀라고 당황했던 게 좀 가신 건지 아까보다는 진정이 된듯한 아빠였다.

“레아.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지?”

“왜 혼담을 쉽게 거절할 수 없는지 그 이유 빼고는 다 안다고 생각해요. 아직 아빠는 모르시는 부분까지도.”

“내가 모르는 것까지?”

“초코머핀 다 나눠주고 방에 있을 때. 그때 다 들었어요.”

도대체 누구한테? 도대체 어째서?

애초에 레그마인 황제가 숨기려고 하는 것들과 모르고 있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사람이 어째서 무엇을 위해 레아에게 그걸 알려준 건지 레그마인 황제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 목적이 뭐길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레아에게…. 혹시나 레아가 그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곧 그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용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를 이용하려는 사람을 아주 박살 내 버릴 딸이지. 우리 딸은.’

쉽게 이용당하기에는 너무 똑똑하고 그리 만만한 아이도 아니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레아를 이용하려고 했으면 라이 경을 포함한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었다. 레아는 그만큼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었으니까 말이다. 그렇기에 레그마인 황제는 레아에게 그런 이야기해준 상대가 누구인지 감도 오지 않았다.

“레아. 너한테 그 얘기를 해준 사람이 누구지?”

“……….”

“그 사람은 중요한 우리 편이 돼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적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존재야. 그러니까 이름을 알려줘.”

“위험하지 않아요. 오늘부턴 확실히 우리 편이 됐으니까.”

“원래 하이모어 대공의 편에 있던 사람이 그쪽을 배신하고 이쪽으로 온 거라면 그건 더 위험한 일이야. 한번 배신한 사람이 두 번 배신하는 건 놀랍지도 않은 일이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하이모어 대공을 배신한 게 아니에요.”

지켜야 할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묶여있었던 것이었고 지금도 그걸 지키기 위해 레아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것이었다. 그래서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똑같이 지켜야 할 것이 있는 레아는 그 사람이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란 걸 알 수 있었다.

“가족을 지키려고 저한테 모든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계속 하이모어 대공 옆에 있다간 가족이 위험해질 거니까.”

“그 사람도 하이모어 대공에게 협박을 받고 있는 건가.”

“아마도요. 가족들이 인질로 잡혀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 더는 가족들이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꼴은 못 보겠다고 도와달라고 했어요.”

분명 아빠도 가족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었다. 레아를 반강제로 황궁으로 끌고 와서 억지로 황녀 자리에 앉힌 것도 아빠로서 딸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으니 말이다. 그 말을 들은 아빠의 표정을 보니 아무래도 레아의 생각이 정답인 듯했고 그런 아빠에게 레아는 한 번 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준 건지 말했다.

“아빠. 키린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실을 알려준 게 아니에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저랑 손을 잡은 거예요.”

\*\*\*

“저기, 라이 경.”

“네. 레아 황녀님.”

“시녀들 오기 전에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원래는 라이 경이 기숙사로 돌아가기 전에 얘기하려고 했지만, 아빠와 얘기가 얼마나 길어질지도 모르고 시녀들이 보는 앞보다는 아무도 없는 지금 말하는 게 좋을 거 같았다. 그래서 레아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할 말이 있다고 운을 띄웠지만…. 또 누군가 문을 똑똑 두드리는 바람에 그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누구세요?”

“레아 황녀님. 저 키린이에요.”

“키린?”

“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오늘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지 레아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둘이나 있는 걸까. 찾아오는 것까진 괜찮은데 왜 하필 지금 온 건지 레아는 타이밍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런 마음을 숨기고 키린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키린은 레아가 준 초코머핀을 손에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미리 얘기도 안 하고 찾아와서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와버린 거라….”

“충동적으로요?”

“네. 너무 무례하죠?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영원히 말하지 못할 거 같아서 실례라는 걸 알면서도 와버렸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키린. 나한테 할 말 있어요?”

저렇게 비장한 얼굴로 결심한 듯이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말하지 못할 거 같다는 그 말이 어쩐지 레아는 조금 불안하게 들렸다. 키린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진 모르겠지만 별로 좋은 얘기가 나올 거 같진 않았다. 할 말이 있냐는 레아의 질문에 키린은 손에 있던 초코머핀을 꼭 쥐며 말했다.

“사실 얼마 전부터 레아 황녀님께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게 마음이 너무 무겁고 죄책감이 들어서 말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오늘 황녀님께 초코머핀을 받고 결심했어요. 오늘은 꼭 다 말씀드리자고.”

초코머핀에 이상한 약 같은 건 탄 기억이 없는데 오늘 초코머핀을 받고 다들 왜 이러는 걸까. 이쯤 되면 레아는 머핀을 구울 때 혹시 뭘 잘못 넣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일단은 큰 결심을 하고 온 거 같으니 레아는 키린의 이야기를 들어나 보자는 마음이었다.

“일단 앉으세요. 물이라도 한잔 마실래요?”

“아뇨. 괜찮아요.”

“보니까 얘기가 짧게 끝날 얘기 같지는 않은데 목 안 마르겠어요?”

“네. 어떻게 얘기할지 머릿속으로 정리해서 그리 길지는 않을 거예요. 가벼운 얘기는 아니겠지만요.”

“많이 무거운 얘기인가요?”

“그건 레아 황녀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냐의 따라 달라질 거 같아요.”

“그럼 최대한 무겁지 않은 얘기로 받아들여 볼게요.”

안 그래도 지금 하이모어 대공이랑 엄마 때문에 머리 아프고 복잡한데 키린 때문에 또 머리가 아픈 건 사절이었다. 속으로 키린은 왜 와도 하필 지금 온 건지 투덜거리다 레아는 슬쩍 자신의 뒤에 있는 라이 경을 바라보았다.

“불편하면 라이 경도 잠시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할까요?”

혹시나 키린이 신경 쓰일까 봐 물어본 건데 키린은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했다.

“라이 경은 레아 황녀님을 지켜주시는 기사님이죠?”

“네?”

“라이 경이 단순한 호위기사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있는 힘을 다해 레아 황녀님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면 제 얘기를 같이 들어주셨으면 해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할 얘기란 게 뭐길래 저런 말까지 하는 걸까. 키린이 어째서 저런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은데 레아는 이해 못 한 걸 라이 경은 이해한 건지 내내 조용히 있다가 그 말에 대답하듯 이런 말을 했다.

“저는 제 목숨을 걸고 레아 황녀님을 지켜드릴 겁니다. 제겐 저 자신보다 레아 황녀님이 더 소중하다고 이 검을 걸고 맹세하겠습니다.”

라이 경이 지금 자신을 지켜주는 걸 넘어 옆에서 많이 도와주며 힘이 되어주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고 있는 건 사실이었지만 그 말을 듣고 레아는 깜짝 놀랐다. 목숨을 걸고 지켜주겠다는 말에 놀라기도 했지만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보다 레아가 더 소중하며 그 말을 맹세하겠다는 말이 나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 했다.

검을 쓰는 기사에게 검을 걸고 맹세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어린아이도 알 정도니 당연히 레아도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시녀들이 추천해준 로맨스 소설에 자주 등장했던 대사를 직접 듣게 되니 갑자기 고백받은 느낌이라 레아는 조금 부끄럽기도 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은 그런 생각할 때가 아니잖아. 그럴 때가! 누가 보면 라이 경이 진짜 나한테 고백이라도 한 줄 알겠네.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닐 텐데.’

이게 다 시녀들이 추천해준 꿀 떨어지는 로맨스 소설들 때문이었다. 레아는 당장 얼마 전에 키린한테 배운 불 마법으로 그 로맨스 소설책들을 다 태워버려야겠다며 굳게 다짐을 했고 키린은 그런 라이 경의 대답이 마음에 드는 듯 작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런 라이 경이 옆에 있는 레아 황녀님이 부러웠다.

‘레아 황녀님 옆에 라이 경처럼 멋진 사람이 있는 건 다 레아 황녀님도 그만큼 멋진 사람이시기 때문이겠지. 그래도…다행이다.’

이렇게 멋진 사람 옆에 멋진 사람이 있다는 게 참 다행이었다. 키린은 그렇게 생각하며 천천히 입을 열어 자신이 숨겨왔던 것과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걸 털어놓았다. 키린의 말이 끝날 때까지 레아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그동안 머리를 아프게 했던 문제들의 정답이 조금씩 보이는 듯했다.

“하이모어 대공이 우리 아빠를 협박하고 있다니. 그거 정말 사실인가요?”

“네. 크라스 경이 직접 얘기하는 걸 정확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협박당하고 명령에 움직이는 사람치곤 키린은 많은 걸 알고 있네요.”

“소중한 가족들이 인질로 잡혀있으니까요. 혹시라도 하이모어 대공의 약점을 잡으면 역으로 협박해서 자유로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몰래 뒤를 캐고 정보를 모았어요. 결국, 약점은 잡지 못했지만요.”

“약점이라.”

다리아 영애는 프레디 소공자가 대공의 유일한 약점이라고 했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약점마저도 없애려고 레아를 며느리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았고 겸사겸사 자기 아들을 국서로 만든 다음 피바람을 일으키려는 게 분명했다.

만약 정말 레아와 프레디 소공자가 결혼해서 국서가 되고 그다음 다닐로만 제국의 황족인 아빠와 레아가 죽고 프레디 소공자까지 죽어버리면 다음 황제가 될 사람은 너무나도 뻔했다. 결국, 하이모어 대공이 원하는 자리는 제일 높은 자리였고 그곳에 오르기 위해 자기 아들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그림을 알게 된 레아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하이모어 대공이 아빠를 협박하고 아빠는 그 협박 때문에 혼담을 쉽게 거절할 수 없다면…. 대체 뭐로 협박을 당하고 있으신 걸까.’

대충 대공이 무슨 꿍꿍이인지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건지는 이제 제대로 확실하게 보이는 거 같았다. 하지만 딱 하나. 아빠가 하이모어 대공에게 어떤 협박을 받고 있으신 건지는 전혀 감이 오지 않았다. 그렇기에 레아는 아무래도 오늘 저녁에 아빠와 나눌 얘기는 아까 봤던 서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협박에 관한 것이 될 거 같다고 생각했다.

86.앞으로의 계획은.docx

“아빠. 하이모어 대공에게 어떤 협박을 받고 있으신 거예요?”

“……….”

“대체 어떤 협박이길래 혼담을 거절할 수 없어서 이러고 있으신 건지 말씀해주세요. 이건 저도 알아야 할 일인 거 같아요.”

일단 하이모어 대공이 지금 당장 원하는 건 레아였고 하이모어 대공이 그리는 큰 그림에 대해 알아버린 이상 레아는 상황을 알아야만 했다. 하지만 여전히 입을 꾹 다물고 고민하고 망설이고 있는 듯한 아빠를 보며 레아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이제 숨기고 감춘다고 해서 끝낼 일이 아니란 건 아빠도 알고 있으시잖아요. 대체 어떤 협박을 받고 있으시기에 말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설마 저 진짜 프레디 소공자한테 시집 보낼 생각이세요?”

“그럴 리가 없잖아! 아빠는 네가 걱정돼서….”

“제가 걱정되셔서 말씀 안 해주시는 거면 그냥 말해주세요. 전 괜찮으니까.”

“레아. 그렇게 가벼운 얘기가 아니야. 이건…아리샤와 관련된 얘기야.”

“엄마요?”

“그래. 그래서 너한테는 절대 얘기해줄 수 없고 세상에 절대 알려져선 안 될 얘기야.”

아빠는 그렇게 레아에게는 절대 알려주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듯했지만, 엄마와 관련된 협박이라는 말에 무언가가 레아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리고 설마…라는 생각이 들게 했다.

“선황을 향한 복수…?”

“………!”

지금 아빠가 레아에게는 절대 얘기해줄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똑같이 레아도 아빠에게만은 알리고 싶지 않은 얘기였다. 그런데 혹시나 어쩌면 하는 생각에 레아는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을 중얼거렸고 그걸 들은 아빠는 깜짝 놀란 얼굴을 했다. 그리고 놀라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레아는 왠지 모를 확신이 들었다.

“아빠도 알고 있으신 거죠? 엄마는 황실에서 불었던 피바람 때문에 가족을 잃은 복수로 선황의 아들인 아빠를…죽이려고 했다는 거. 아빠도 알고 있으신 거 맞죠?”

“레아. 네가 그걸 어떻게….”

“그럼 아빠 저한테 거짓말하셨던 거예요?”

“거짓말?”

“엄마한테 마력이 있었다는 걸 아빠는 모르셨다고 하셨잖아요. 흑마법에 대한 것도.”

그래서 레아는 당연히 아빠는 엄마의 과거에 대해 모르고 있을 거로 생각하며 그걸 숨기고 덮으려고 노력했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알고 보니 아빠도 이미 엄마의 과거를 알고 있었다니. 어쩐지 레아는 조금 허무하기도 했고 배신당한 기분이기도 했다.

‘생각해보면 우나타에서 조용히 빵 구우면서 살던 나도 찾았는데 엄마 과거쯤이야 어떻게 알아냈다고 해도 이상할 건 없지. 어쩌면 내 존재를 알기 전부터 그건 알고 있으셨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어째서 레아는 당연히 아빠는 모를 것으로 생각한 걸까. 사실 자신에게 그걸 숨기려고 일부러 모른 척 거짓말을 한 아빠의 마음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었다. 레아는 그저 그동안 해왔던 일이 다 쓸데없는 바보짓처럼 느껴져서 그러는 것뿐이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아빠랑 얘기해 볼 걸 그랬어요. 괜히 헛수고한 느낌이네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레아.”

“네?”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누가 말해줬을 리도 없고.”

세상에 정신 똑바로 박힌 놈이라면 미치지 않고서야 아직 성인도 아닌 애한테 사실은 너희 엄마는 복수로 너의 소중한 아빠를 죽이려고 했었다! 라고 말했을 리가 없었다. 그렇다면 대체 딸이 이 파국인 과거를 어떻게 안 건가 싶었는데 레아는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비투스가 말해줬어요. 엄마가 끝내지 못한 복수를 대신 끝내달라고 하면서.”

“그놈이 너한테 날 죽이라고 했다고?”

“아니요. 그건 아니라는데…. 몰라요. 몇 달 전에는 그렇게 말했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또 더는 대신 복수해달라고 안 하겠대요.”

“복수해달라고 했다가 갑자기 더는 안 그러겠다고 하는 것도 뜬금없어서 이해가 안 가지만 아빠인 나도 우리 딸 충격 받을까 봐 숨기던 걸 자기 멋대로 떠벌리다니….”

아리샤와 연애할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녀석이었는데 레아에게 충격을 주고 힘들게 만들었다고 하니 아빠는 열이 받은 듯했다. 속으로는 이 새끼를 어떻게 죽여버릴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아빠의 눈에 문득 여유롭게 스테이크를 썰고 있는 딸의 모습이 보였다.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네. 레아. 괜찮은 거야?”

“작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안 괜찮아도 그때 안 괜찮았지 지금은 괜찮아요.”

처음에는 너무 놀라고 충격이기도 해서 라이 경의 품에 안겨서 훌쩍거리기도 했지만, 그것도 이제 몇 달 전 이야기였다. 아빠가 걱정하지 않아도 레아는 이미 혼란스러운 시기도 지나고 하비투스를 통해 엄마의 진심을 알게 되었으니 인제 와서 레아가 괜찮지 않을 이유는 하나도 없었다.

“엄마는 아빠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거고 그렇다면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비록 처음부터 순수한 사랑으로 시작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끝은 사랑이었으니까.”

“정말 그랬을까….”

“네. 정말 그랬어요.”

“그래. 그렇게 믿는 게 좋겠지.”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엄마는 아빠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황궁을 떠난 거고.”

“그걸 레아 네가 어떻게 알아? 꼭 아리샤한테 직접 물어본 것처럼.”

“물론 엄마한테 직접 물어본 건 아니지만….”

레아도 처음에는 엄마는 아빠를 사랑한 게 아니었고 자신이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난 생명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게 무섭고 두려웠다. 그래서 상처받기도 했었지만, 오늘 하비투스와 키린에게 많은 얘기를 듣고 난 후 레아는 그동안 복잡했던 머리가 말끔히 정리된 것 같았다. 그리고 머릿속이 정리되자 전에는 복잡한 생각에 가려서 안 보이던 것도 보이기 시작했다.

“엄마가 아빠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아이가 생겼다고 홀로 조용히 황궁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전에 아빠를 죽이지 않았을까요? 엄마는 하비투스보다 더 강한 마력을 가진 마도사셨다고 했으니까요.”

연인이었고 둘 사이에 아이까지 생길 정도로 깊은 사이였다면 숨통을 끊을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었다. 하지만 엄마는 아빠를 죽이거나 하다못해 저주를 걸지도 않고 도망치듯 모든 사실을 숨기고 황궁을 떠났다. 피바람에서 레아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다.

“그리고 엄마는 우나타에서도 다른 남자한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절대 흔들리시지도 않았어요. 하비투스도 엄마는 정말 진심으로 아빠를 사랑하게 됐다고 했고 저도 그랬을 거로 생각해요.”

“아리샤가 날….”

“엄마는 아빠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아빠가 엄마를 정말 미치도록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

서로 정말 죽도록 사랑했지만 끝내 이루어질 수는 없었던 슬픈 사랑이었다. 물론 엄마의 진짜 마음이 어땠고 그 사랑이 얼마나 애절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었지만 레아는 자신이 아는 엄마라면 분명 아빠를 정말 시리도록 아프게 사랑했을 거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런 레아의 말이 뜻밖의 위로가 된 아빠는 웃을 수 있었다.

조금은 슬픔이 묻어나오는 웃음이었지만 그 웃음에는 슬픔보다는 다행이라는 안도감과 행복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런 아빠의 웃음을 보고 레아도 똑같이 작게 웃어 보였다.

‘끝내 직접 전하지 못한 엄마의 진심이 내 입을 통해서 아빠에게 조금이나마 전달되었기를.’

비록 가슴이 시리도록 아픈 슬픈 사랑이었지만 레아는 지금이라도 그 마음이 전해지길 바랐다. 하지만 아련하고 애틋한 느낌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레아와 아빠는 이제 하이모어 대공의 계획을 알게 되었으니 진지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했다.

“그런데 어째서 하이모어 대공은 엄마의 과거를 알고 있는 걸까요? 그건 황실에 불었던 피바람보다 더 아는 사람이 없는 정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걸로 협박하고 있다는 건 하이모어 대공도 그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거기에 대해 레아는 짐작이 가는 게 있기는 했지만, 확실한 얘기가 듣고 싶었다. 하지만 아빠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레아와 똑같이 짐작하는 것만 있는 상황이었다.

“그건 아마 아리샤가 흑마법을 배울 수 있게 해준 사람이 하이모어 대공이 아니었을까 추측만 하고 있어. 거의 확신하고 하는 얘기지만 아직 제대로 된 증거는 없어.”

“그 증거만 있으면 하이모어 가문을 완전히 조져버리는 건 안 된다고 해도 혼담은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거야. 완벽함에 집착하는 변태가 증거 같은 걸 남겼을 리가 없지.”

“확실히 라이 경이랑 몇 날 며칠을 서류에 파묻혀서 파고 또 파도 나오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서류가 나인지 내가 서류인지 모를 정도로 서류만 읽었는데도 레아가 알아낸 거라곤 고작 하이모어 대공이 가진 광산이 수상하다! 정도였고 그 외에는 신기할 정도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다. 라이 경은 후원 명단에서 뭔가 나올 거 같다고 좀 더 붙잡고 있어 보겠다고 했지만, 거기도 아직은 나오는 게 없었다.

“라이 경이랑 둘이서 몇 날 며칠을 서류에 파묻혔었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성탄절 때 황실에서 열렸던 파티에서 좀 수상하다 싶어서 다리아 영애한테 부탁해서 나름대로 뒷조사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보니 그 파티에서 그 인간이 우리 레아한테 별 같잖지도 않은 소리를 했었지.”

“사실 그때 하이모어 대공이 엄마 얘기를 했었어요.”

“뭐?”

그때 아빠에게는 광산에 관한 이야기라고 둘러댔었지만, 확실히 파티에서 하이모어 대공은 레아에게 엄마에 관해 얘기했었다. 그것도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엄마를 아주 잘 안다는 듯 얘기하길래 물어봤더니 아주 특별한 사이였다고 했어요.”

“아주 특별한 사이?”

“네. 그다음 말은 라이 경이 막아서 못 들었지만 궁금하다면 크라스 경을 통해 연락 달라고 했어요. 아빠가 절대 연락하지 말고 기억에서 지우라고 했지만요.”

“설마 그 얘기가 그 얘기였을 줄이야.”

그 말 때문에 레아는 혹시나 엄마가 하이모어 대공에게 후원을 받아 흑마법을 배우신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후원 명단을 조사했던 것이었다. 물론 아직 나온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말이다.

“하이모어 대공이 직접 그런 말을 했다는 건 역시 모든 일을 꾸민 흑막은 하이모어 대공이 확실해.”

“하지만 아직 증거는 없어요. 뭔가 확실한 물증이 필요해요.”

“확실한 물증이라.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하이모어 대공을 상대로 증거를 잡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방법이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막아야지. 대공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놔둘 수는 없어.”

아빠로서 레아를 지켜야 하기도 했지만, 황제로서도 이건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하이모어 대공의 계획을 알게 되었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막아야 할지 좋은 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아무리 우리 둘 다 아리샤의 과거를 알고 있다고 해도 하이모어 대공이 그걸 공개해버리는 걸 막아야만 해. 만약 그 소문이 퍼지면 우리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황실의 힘은 약해질 거니까.”

황실의 힘이 약해질수록 이득을 보는 건 황족 바로 밑에 있는 하이모어 대공이 될 것이었다. 안 그래도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사람인데 이런 협박까지 해오니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다. 아빠와 레아는 답을 찾을 수 없는 어려운 이 문제에서 가장 현명한 답을 찾기 위해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았다.

\*\*\*

‘레아 황녀님은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까.’

아무래도 이야기가 길어질 거 같다고 하셔서 오늘은 저녁 식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가보라는 레아 황녀님의 말씀에 평소보다 일찍 기숙사로 돌아온 라이 경은 계속 오늘 많은 일이 있었던 레아 황녀님이 걱정되었다. 혹시라도 폐하께서 또 아무것도 얘기해주지 않았다고 혼자 씩씩거리며 그럼 직접 알아내겠다고 하실지도 모를 일이었다.

레아 황녀님을 위해서라면 서류에 파묻혀서 온종일 글자만 읽는 것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라이 경은 자꾸 황녀님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었다. 그런 와중에도 겨울 감사제라고 초코머핀을 그렇게 많이 구우시고 직접 나눠주시기까지 하셨으니 라이 경은 그 작은 몸으로 계속 무리하시다가 쓰러지시는 건 아닐까 계속 신경이 쓰였다.

당장 내일부터는 일이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레아 황녀님께서 무리하시지 않게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라이 경은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샤워실을 나왔다.

“라이 경. 어째서 이 시간에 기숙사로 돌아오신 겁니까? 그것도 샤워까지 끝낸 상태로.”

“레아 황녀님께서 오늘은 저녁 식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겨울 감사젠데 데이트 안 하십니까?”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겨울 감사제라서 레아 황녀님과 데이트라도 하고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설마 데이트 신청도 안 하신 겁니까?”

겨울 감사제 때 연인끼리 데이트를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그래서 당연히 라이 경도 레아 황녀님과 데이트를 하고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숙사로 일찍 돌아온 걸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룸메이트 오스카 경을 보며 라이 경은 지겹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말했다.

“황녀님과 그런 사이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무 사이도 아니면 저건 뭐라고 설명하실 겁니까?”

아무 사이도 아니라는 라이 경의 말에 오스카 경은 그런 말 절대 안 믿는다는 듯이 라이 경 침대의 위에 있는 하얀 상자를 가리키며 물었다.

“저게 뭡니까?”

“방에 들어와 보니까 있길래 당연히 레아 황녀님께 받은 겨울 감사제 선물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립니까.”

다른 사람은 다 초코머핀 하나씩 받을 때 라이 경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는데. 올해는 레아 황녀님과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문 때문에 초콜릿을 아무도 안 줄줄 알고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올해 역시 누군가 한 명은 라이 경에게 겨울 감사제 선물을 준 모양이었다. 그래도 라이 경은 레아 황녀님이 보시는 앞에서 받은 게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상자에 붙어있던 종이를 때서 읽어 보았다.

그런데….

“레아 황녀님…?”

“뭡니까. 진짜 레아 황녀님께서 주신 겁니까?”

반으로 접힌 종이를 펼쳐보자 라이 경에게는 익숙한 동글동글 귀여운 레아 황녀님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종이에는 요즘 고마운 게 너무 많아서 겨울 감사제를 맞아 초코케이크를 구워봤다는 내용과 함께 원래는 직접 전해주려고 했지만 그럴 틈이 없어 시녀에게 대신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에 적힌 내용을 보고 라이 경은 저절로 입꼬리를 올리고 웃을 수밖에 없었다.

[항상 내 옆에서 힘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라이 경.]

87.한 발자국.docx

그렇게 이런저런 많은 일이 있었던 길었던 겨울 감사제가 끝이 나고 바로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아빠와 레아 그리고 라이 경과 가스파르 재상은 한자리에 모였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넷이 전부라는 거지.”

“아마도요. 키린은 엄마에 대한 일을 모르고 하비투스는 하이모어 대공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이 일은 여기 있는 넷 이외의 사람이 알게 해선 안 돼. 여러 사람이 알아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으니까.”

“하지만 무조건 키린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마냥 숨기기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어쩌면 하비투스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고요.”

“어쩔 수 없군. 그래도 되도록 그 둘에게는 많은 정보를 흘리지 않는 게 좋아. 그 두 사람은 위험한 존재들이야.”

“네. 그리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리아 영애의 도움을 받을지도 몰라요. 영애도 엄마의 과거에 대해서 대략 알고 있기도 하고 지금까지 절 많이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믿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위급한 상황이 온다면 앨버트 후작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어.”

사실 네 사람이 모여도 의견을 내고 얘기를 주고받는 건 레아와 아빠뿐이었다. 라이 경은 가만히 얘기를 듣고만 있다가 레아가 뭘 부탁하거나 말을 걸면 알겠다는 대답 말고는 의견을 내지도 무슨 말을 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가스파르 재상은 그런 레아를 보며 놀라워하고 감탄하고 있었다.

‘원래 똑똑하고 멋있는 분이신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카리스마까지 있으실 줄이야. 정말 레아 황녀님께서는 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군.’

이제 겨우 17살인 소녀가 황제 폐하께 하나도 안 밀리고 분위기를 이끌어 가고 의견을 내놓고 있었다. 아무리 평소 잘 아는 사이인 편한 사람들만 있는 자리라고 해도 전혀 가볍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레아 황녀님께서는 진지하고 정확하게 지금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일단 지금은 하이모어 대공의 말에 따르는 척할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대공의 말에 따르는 척하겠다니. 그럼 프레디 소공자랑 약혼이라도 하겠다는 소리야?”

“아니요. 성탄절에 있었던 파티에서 하이모어 대공은 저한테 엄마에 관해 이야기해준다고 했잖아요. 일단 그 얘기부터 들어봐야 할 거 같아요.”

“확실히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겠군. 레아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게 상당히 마음에 안 들지만 말이야.”

혹시라도 위험한 일이 생길까 봐 웬만하면 레아가 직접 나서거나 하이모어 대공과 마주하는 일이 없길 바랐지만 이건 레아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었다. 그래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 상당히 마음에 안 들기도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 어쩔 수 없었다.

“그럼 하이모어 대공을 황궁으로 초대하는 편지는 레아 황녀님께서 직접 작성하셔서 크라스 경에게 전달하는 쪽이 좋겠군요. 혹시 모르니 황녀님을 보호해드릴 장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아뇨. 황궁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하이모어 대공의 저택으로 찾아갈 계획이에요.”

“네?”

지금까지 레아 황녀님께서는 황궁 밖으로 나가신 적이 딱 두 번밖에 없을 정도로 외출을 잘 하시는 편이 아니었다. 사실 외출한다고 해도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허락해주실 리도 없었고 그럴만한 상황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레아 황녀님께서는 친한 친구인 다리아 영애도 늘 황궁으로 부르기만 했지 한 번도 앨버트 후작의 저택을 방문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하이모어 대공의 저택은 직접 방문하겠다니. 예상치 못한 레아의 말에 가스파르 재상도 꽤 놀란 듯했지만, 아빠와 라이 경도 적잖이 놀란 듯했다.

“직접 저택을 방문하겠다니. 레아. 그게 무슨 소리야?”

“황녀님께서 직접 저택을 방문하시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이번에는 하이모어 대공을 황궁으로 부르고 저택을 찾아가는 건 나중에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 황궁은 갑자기 돌발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레아 너를 지켜줄 수 있지만, 대공의 저택에서는 그게 힘들지도 몰라.”

세 사람 모두 레아가 직접 하이모어 대공의 저택으로 가는 건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레아는 세 남자의 걱정에도 의견을 굽히지 않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뇨. 이건 제가 직접 나서야지 해결이 될 거 같아요. 황궁으로 불러서 얘기를 들으면 하이모어 대공은 지금보다 더 몸을 사릴 거예요.”

그렇게 완벽함에 집착하는 사람이라면 황궁에서는 레아가 아무리 파고들어도 절대 틈을 보이지 않을 것이었다. 하이모어 대공의 저택에 간다고 해도 그 완벽주의자가 틈을 보일진 모르겠지만 레아가 그곳에 가려는 이유는 단지 그것 때문이 아니었다.

“지금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얻고 원하는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곳은 대공의 저택뿐이에요. 완벽함에 집착하는 사람이 그런 걸 여기저기 질질 흘리고 다녔을 리도 없고 아직 남아있다면 거기 말고는 장소가 없어요. 가서 사용인들의 입을 털어서라도 사소한 실마리를 잡아야 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하이모어 대공이 원하는 먹잇감을 던져놓아야 하고요.”

그 저택에 숨기는 게 많을수록 하이모어 대공은 저택에 아무나 들이지 않을 것이었다. 30년 전부터 저택에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던 것만 봐도 뻔히 다 보이는 건데 레아는 단지 걱정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그렇기에 현재 하이모어 대공이 가장 관심이 있고 원하고 있는 먹잇감인 자신이 직접 저택으로 가겠다고 한 것이었다.

물론 레아가 어째서 이런 말을 하는 건지는 아빠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그게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의견에는 찬성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레아. 하이모어 대공이 얼마나 질이 안 좋고 더러운 위험한 사람인지는 뒷조사를 했으니 너도 잘 알고 있잖아.”

“네. 광산에 대한 정보만 필요했던 건데 다리아 영애가 이것저것 골고루 다양하게 조사해줘서 알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도 알아버리고 말았어요.”

다리아 영애가 레아가 관심을 가질만한 정보만 정리해놨다고 따로 빼준 서류에는 마법석이 잔뜩 나오는 광산이 어째서 수상한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하이모어 대공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사람인지 아주 상세히 적혀 있었다. 모두 대공이 돈으로 덮어서 아는 이가 극히 드문 정보들이었지만 영애가 직접 음지에서 유명한 더러운 정보를 모으는 정보꾼에게 비싼 값을 치르고 산 정보라 믿을만한 정보들이었다.

‘다리아 영애…. 나랑 친하게 지내면서 안 하던 짓도 하고. 왠지 고상하고 얌전한 영애를 타락시킨 기분이야.’

사실 레아가 그 정도로까지 해달라고 부탁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어쩐지 좀 미안했다. 레아는 앞으로 다리아 영애에게 정말 잘해야겠다고 잠시 생각했다.

“아빠는 절대 널 그런 쓰레기 소굴로 보낼 수 없어. 가도 다른 사람이 가는 게 맞아.”

“다른 사람 누구요? 지금 하이모어 대공의 저택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저 말고 또 있나요?”

“그건….”

“없잖아요. 키린은 출입 정도는 가능할지 몰라도 가족이 인질로 잡혀있는 마당에 거기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에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찾겠다고 쓸데없는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건 아빠도 잘 알고 있잖아요.”

뭉그적거리다간 레아는 꼼짝없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프레디 소공자와 결혼식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몰랐다. 그것만은 무조건 막아야 했기에 결국 아빠는 레아를 막을 수 없었다.

“…최대한 많은 기사를 대동 시켜. 다닐로만 제국에서 날고 기는 최고의 실력자들을 모두 붙여서 레아를 지키라고 해. 만약 그 쓰레기들이 레아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는 순간 내 이름을 걸고 다 죽여버릴 거니까 목숨 걸고 지켜.”

“네. 알겠습니다. 폐하.”

하지만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은 어쩔 수 없는지 그렇게 말하고 아빠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그리고 그런 아빠의 모습에 레아는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마음이 무거웠다.

‘나도 이제 날 지킬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해. 아빠가 걱정하지 않으실 정도로 강력한 무기가.’

이제 레아에게는 다른 누군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신을 스스로 지킬 힘이 필요했다. 키린에게 배우고 있는 마법으로 어느 정도는 자신을 지킬 수 있었지만 하이모어 대공을 상대로는 약한 힘이었다.

과연 하이모어 대공을 상대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은 무엇이 있을까. 레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았다.

\*\*\*

내가 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뭐가 있을까. 사실 깊게 생각해보지 않아도 레아는 바로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기는 했다.

‘설마 이 책을 이렇게 빨리 다시 꺼내게 될 줄이야.’

어제 하비투스에게 받은 흑마법 책을 다시 서랍에서 꺼낸 레아는 가만히 그 책을 바라보았다. 책의 표지에는 도저히 하비투스의 글씨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귀엽고 깜찍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주최강 대마도사가 되는 법★]

…그냥 다시 서랍에 넣어 버릴까.

하비투스가 직접 자신의 손으로 저런 귀엽고 깜찍한 글씨를 썼다고 생각하니 레아는 어쩐지 책을 도로 서랍에 넣어 버리고 싶어졌다. 하지만 그래도 하비투스의 정성이 있기도 하고 레아도 흑마법을 배울 마음이 생겼으니 일단은 읽어나 보자는 마음으로 책을 펼쳐서 첫 장을 읽어보았다.

[어쨌든 이 책을 읽어나 보자는 마음으로나마 펼쳐보셨다는 건 황녀님께서 흑마법을 배우실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는 뜻이겠죠. 드디어 흑마법에 첫발을 떼시다니 이 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아, 이제 레아 황녀님께 복수를 끝내주시길 바라지 말자고 다짐했는데. 뭐, 그래도 흑마법으로 레아 황녀님께서는 더 강해지시고 자신을 지키실 수 있게 되실 것이니 좋은 일인 건 마찬가지니까요.

이 책에 적힌 대로만 하시면 레아 황녀님께서는 다닐로만 제국을 넘어 우주최강 대마도사가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과연 정말 믿어도 되는 건지 조금 못 미덥긴 했지만, 레아는 책을 덮지 않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바로 각종 흑마법을 익히는 법과 연습하는 법까지 요점만 쏙쏙 뽑아 알기 쉽게 잘 정리되어 있었다.

‘역시 실력 하나는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네. 근데 처음부터 상대를 고자로 만드는 법이라니. 좀 정상적인 건 없나?’

하지만 페이지를 넘기고 또 넘겨도 정상적인 건 안 나오고 상대의 지능을 4살 아기 수준으로 만드는 법이라든가 평생을 강아지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법처럼 도대체 레아가 이걸 왜 배우고 익혀야 하나 싶은 마법들만 잔뜩 적혀 있었다. 레아는 이런 거 말고 좀 더 도움이 되는 흑마법은 필요했는데 어째 그런 마법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세뇌를 시켜서 머릿속을 지배하는 법. 이런 건 없나?”

그런 게 있으면 일이 간단하게 끝날 거 같은데. 하지만 하비투스가 쓴 이 책에는 상대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법 같은 건 안 적혀 있었다. 그거 하나만 배워 놓으면 일이 쉽게 끝날 거였는데 왜 그런 건 없고 쓸데없는 것만 적어둔 건지 레아는 얼굴을 찌푸렸다. 그런 레아를 옆에서 지켜보던 라이 경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레아 황녀님.”

“응? 왜요?”

“하이모어 대공의 저택에 직접 가보실 생각이신 겁니까?”

“라이 경도 그때 내가 한 얘기 다 들었잖아요. 진짜로 쳐들어갈 생각이에요.”

“……….”

조금이라도 생각해보고 망설일 법도 한데 1초의 고민도 없이 단호하게 대답하는 레아 황녀님께 차마 라이 경은 걱정된다고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시면 안 되냐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황녀님께서 왜 이러시는 건지는 아까 다 들어서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었다.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도 끝내 허락하신 일을 내가 반대하고 말려선 안 되는 거겠지. 내가 뭐라고….’

황녀님의 호위기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존재. 딱 그 정도로 만족하자고 했으면서 지금은 야속하게만 느껴지는 말이었다. 이제는 그 관계를 깨고 한 발자국 더 다가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라이 경을 레아는 가만히 바라보았다.

“라이 경. 지금 내 걱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이모어 대공이 어떤 인간인지는 레아 황녀님께서도 잘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자의 저택에 황녀님께서 직접 가서 대공과 이야기를 나누시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빠가 제국에서 난다 긴다 하는 기사들을 몽땅 대동시키라고 했는데도요?”

“그래도 하이모어 대공의 저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저와 레아 황녀님 둘뿐입니다. 거기다 하이모어 대공이라면 황녀님의 호위기사인 저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건 생각 못 했네요. 어쩌면 하이모어 대공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레아 황녀님께서는 하이모어 대공의 저택을 방문하시겠다는 말을 취소할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거 같았다. 그런 레아 황녀님을 라이 경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라이 경. 날 걱정해주는 건 역시 경이 내 호위기사이기 때문이겠죠?”

“네?”

“날 지키는 게 라이 경 일이니까요. 그래서 키린 앞에서도 그렇게 말했던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라이 경이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어제 라이 경은 목숨을 걸고 레아를 지킬 것이며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하다고 검을 걸고 맹세했었다. 티는 내지 않았지만 계속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아 레아는 라이 경의 진심이 궁금했다. 단순히 호위기사로서 황녀님을 걱정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한 남자로서 레아를 걱정하고 있는 건지 말이다.

갑자기 레아가 훅 치고 들어오는 질문을 하자 라이 경은 놀란 얼굴을 했고 이걸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다. 머뭇거리는 라이 경의 모습에 레아는 조용히 웃으면서 말했다.

“아니에요. 굳이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곤란한 질문이었다면 미안해요. 그냥 잊어주세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 발자국 다가갔는데 대답 없는 대답의 의미는 역시나…일 것이었다. 레아는 괜한 기대를 품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려고 할 그때였다.

“아닙니다.”

“네?”

“제가 레아 황녀님을 걱정하는 이유는 단순히 제가 황녀님의 호위기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잠시 망설이긴 했지만, 지금 한 발자국 멀어지면 영원히 레아 황녀님과의 거리는 가까워질 수 없을 것이었다. 라이 경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거 같아서 한번 용기를 내보기로 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제가 레아 황녀님을 걱정하는 이유는…황녀님은 제게 정말로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 목숨보다도 더.”

레아 황녀님께 한 발자국 다가갔다.

88.우리 혹시 모르니까.docx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사람.

너무나도 진지한 표정으로 진실 된 목소리로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언제나 혹시나 어쩌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그럴 리가 없다고 혼자서 선을 긋고 부정했었는데….

‘자꾸만 내가 오해하고 착각할 거 같아서 확인받고 싶어서 물어본 거였는데 설마 이런 대답이 돌아올 줄이야.’

그동안 착각할 뻔했다고 생각하고 넘겼던 것들이 모두 착각이 아니라 진짜였다니.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라이 경의 대답에 레아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당황스러웠다. 그런 레아를 보며 라이 경은 평소와 똑같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당장 대답을 바라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왠지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말하지 못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

“제 마음이 부담스럽고 불편하시다면 죄송합니다. 그냥 못 들은 거로 하시고 싶으시다면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로 하겠습니다.”

“뭘 못 들은 거로 하고 말 안 한 거로 해요. 이미 말하고 다 들어버렸는데.”

“전 황녀님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좋아하고 있다고 말해놓고 부담은 주고 싶지 않으니 그냥 못 들은 거로 하라니. 누가 보면 레아가 라이 경의 고백을 거절이라도 한 줄 알 것이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어떻게 보면 고백을 유도한 건 레아인데 저렇게 나오니 레아는 어이가 없기도 하고 조금은 화가 나기도 했다.

‘나는 아무런 말도 안 했는데 왜 당연히 내가 거절할 것처럼 얘기하지? 아니, 꿀리는 구석도 없으면서 왜 그래? 왜 자신이 없는 거지?’

고백을 받아본 적이 한 번밖에 없어서 원래 고백이란 게 이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레아는 별로 기쁘지 않았다. 태어나서 처음 받았던 고백인 프레디 소공자의 고백처럼 최악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 고백도 마음에 안 드는 건 마찬가지였다. 물론 상대가 싫은 게 아니라 고백이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었다.

“내가 부담을 받든 말든 왜 그걸 라이 경이 결정해요? 그리고 그게 부담일지 아닐지 라이 경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네…?”

“그럴 거면 그냥 평생 그 마음 숨기고 살지 그렇게 애매하게 고백해버리면 나 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말을 할 거면 좋아한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해야지 뭘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못 들은 거로 해요!”

“저는 황녀님께서 제 마음을 불편해하시고 부담스러워하실까 봐….”

“하나도 안 불편하고 안 부담스러워요!”

한 발자국 다가와 주나 싶었는데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세 발자국 뒤로 물러서는 라이 경의 태도에 레아는 순간적으로 욱해서 마음에 있는 말을 다 쏟아내 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머리를 거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낸 뒤에 얼떨떨한 표정으로 자신을 보고 있는 라이 경을 보고 나서야 레아는 뒤늦게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내가 방금 무슨 말을 한 거지?’

이건 뭐 좋아한다는 말만 안 했지 라이 경에게 레아가 고백한 거나 다름없었다. 확실히 요즘 라이 경이 더 멋있어 보이고 전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고마운 마음이 크고 의지하는 사람이기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자신의 마음을 자각하기도 전에 튀어나온 진심 때문에 레아는 깜짝 놀랐다.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

“라이 경의 그런 마음은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다는…아니, 그러니까 경은 멋진 사람이니까 괜히 미리 걱정하고 선 그을 필요 없다는 말….”

“……….”

“아, 나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상황을 수습하려고 말을 하면 할수록 머릿속이 더 꼬여버려서 횡설수설하고 있는 레아는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머리가 팽글팽글 돌아버릴 거 같았다. 어쩐지 얼굴도 점점 빨개지고 있는 레아를 말없이 바라보던 라이 경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생각이 정리되시고 황녀님께서 마음을 확신하실 수 있게 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레아 황녀님께서 저와 같은 마음이시라면 이번 일이 끝난 다음에. 그때 다시 제대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끄러운지 한 손으로 입을 가리고 얼굴을 붉히며 레아의 눈을 못 마주치면서도 라이 경은 레아가 준비되면 그때 다시 제대로 고백하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 말에 레아는 순식간에 얼굴이 곧 터질 것처럼 빨개져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

“다리아. 편지 왔어.”

“앤드류 경. 집에 있을 때는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반말하는 것도 누가 들으면 어떡하려고.”

“지금은 우리 둘밖에 없잖아. 그리고.”

“그리고 뭐요.”

이미 사용인들은 물론이고 앨버트 후작께서도 어느 정도는 눈치채신 거 같은데. 웬만한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같은데 조심 좀 하라는 다리아 영애를 보며 앤드류 경은 이걸 말해줘야 하나 잠깐 생각했지만, 곧 묻지도 않은 걸 굳이 얘기해줄 필요는 없을 거 같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리아 영애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편이 앤드류 경에겐 더 도움이 될 것이었다.

“아냐. 아무것도.”

“아무리 우리 둘만 있다고 해도 최대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해요. 그러다 실수로 아버지나 어머니 앞에서 이름으로 불러버리면 어떡해요.”

“알았어. 조심할게.”

“알겠다면서 끝까지 아가씨라고는 안 부르지.”

분명 조심하겠다고 말했지만 앤드류 경이라면 또 다리아 영애를 이름으로 부르면서 둘만 있을 때는 반말을 할 것이었다. 아직 제대로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사이라 다리아 영애는 혹시라도 소문이 돌까 조심스러운데 앤드류 경은 그런 건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건지 영애의 말을 콧구멍으로도 안 듣는 거 같았다.

‘레아 황녀님께는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지만 사실 이게 앤드류의 매력이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말 같은 건 신경 안 쓰고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하는 게.’

만약 이 얘기를 들었다면 그런 부분이 어떻게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냐며 황당해하실 거 같았지만 다리아 영애에겐 그런 앤드류 경의 모습이 귀여워 보여서 좋았다. 사실은 좋아하게 되니까 그 모습도 귀여워 보이는 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며 다리아 영애는 편지를 뜯어보았다.

편지를 보낸 사람이 레아 황녀님이라서 왠지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내용은 아닐 거 같다고 생각하며 다리아 영애는 천천히 편지를 읽어내려갔다. 일단 지금 상황이 썩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레아 황녀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시고 주저 없이 앞으로 나아가시는 거 같아 다행이었다.

‘그래. 이러셔야지 내가 아는 레아 황녀님이시지. 황녀님은 늘 당당하고 멋진 분이시니까.’

상대가 하이모어 대공이고 황녀님의 어머님과 연관된 부분도 있으니 이건 꽤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었다. 분명 이번 일로 황족과 하이모어 대공 가문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 되겠지만 어쩐지 다리아 영애는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았다.

레아 황녀님은 아무리 상대가 하이모어 대공이라고 할지라도 그리 쉽게 질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황녀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모두 꽤 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 중 하나인 다리아 영애는 웃으면서 편지를 접어 다시 편지 봉투 안에 넣었다.

“다리아. 기분 좋아 보이네.”

“또 이름 부르고 반말.”

“레아 황녀님이 보내신 편지 같은데 전에 보냈던 서류가 도움이 되셨나 보네.”

“아니.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자꾸 이름 부르고 반말하지 말라니까?”

“하지만 다리아도 방금 나한테 반말했는걸.”

“앤드류가 자꾸 이름 부르고 반말하니까 나도 자꾸 반말하게 되잖아. 앤드류 때문이야.”

“이번에는 이름도 불렀어.”

그렇게 말하며 앤드류 경은 다리아 영애의 손을 잡았고 다리아 영애는 정말 이길 수가 없다고 중얼거리며 자신의 손을 잡은 앤드류 경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다리아 영애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웃을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 레아 황녀님 덕분이었다. 만약 그때 레아 황녀님의 연애상담이 아니었다면 다리아 영애는 아직도 프레디 소공자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있었을 것이었다.

‘그런데 그랬던 레아 황녀님이 프레디 소공자님과 결혼하게 돼버릴 위기라니. 하이모어 대공께서 자기 아들을 국서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프레디 소공자님을 레아 황녀님과 결혼시키려고 할 줄은 몰랐어.’

끝에는 모두 없애버릴 계획이라고 해도 완벽함에 그렇게 집착하는 하이모어 대공의 머리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을 리는 없었다. 분명 제일 처음 이 계획을 세운 건 다른 사람일 것이며 아마 그 계획을 세운 이번 일의 진정한 흑막은 하이모어 대공의 최측근일 것이라고 다리아 영애는 생각했다.

\*\*\*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렇게 하면 넌 국서가 될 수 있어.

두 귀로 똑똑히 듣고도 제대로 들은 건가 의심이 가게 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크라스 경은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고 그렇게 프레디 소공자는 온종일 머릿속이 그 생각으로 가득 차서 다른 생각은 할 수가 없었다.

‘레아 황녀님….’

레아 황녀님은 형이 자신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걸 과연 알고 있으실까. 그리고 형이 정말 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실까.

성탄절에 황실에서 열렸던 파티에서 고백했다가 시원하게 차이고 소공자가 잊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건 첫사랑이었던 스텔라가 아닌 자신의 불행했던 과거라는 말을 들은 이후로 절대 생각하지 말자고 굳게 다짐했는데 국서라는 말에 프레디 소공자는 자연스럽게 레아 황녀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지금 레아 황녀님은 뭐 하고 있으실까.”

황녀님의 날카로운 한 마디로 프레디 소공자는 지금 도대체 뭐가 정답일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꼭 죽은 영혼처럼 살고 있었다. 레아 황녀님께 고백하고 나서 프레디 소공자는 자신이 얼마나 못난 사람이었고 잘못 살아왔던 건지 느낄 수 있어서 이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만 같았다.

그런데 그런 프레디 소공자에게 갑자기 국서가 되라니.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프레디 소공자는 형과 함께 아버지의 집무실에 앉아있었다.

“……….”

항상 아버지의 집무실에 와서는 영문도 모르고 얻어맞거나 자신을 향해 퍼붓는 욕설을 듣는 게 전부였는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앉아 대화를 나누는 건 처음이라 프레디 소공자는 낯설기만 했다.

“그래서 레아 황녀 쪽에서 너한테 이 저택에서 나와 얘기를 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단 말이지.”

“네. 프레디도 아니고 아버지와 만나고 싶다니 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아마 제 어미 얘기를 들으려고 그런 거겠지. 그래도 1년 동안 제 아비랑 정이라도 든 건지 내 예상보다 만나자는 말이 늦었어.”

“아버지. 그 여자의 친모와 아는 사이라도 되셨던 겁니까?”

“단순히 아는 사이가 아니었지. 그 망할 계집. 그년만 아니었어도 레그마인 황제의 숨통은 끊을 수 있었는데.”

그때 그 시절 아리샤는 분노와 원망으로 독이 가득 차 있었고 그 모습에 하이모어 대공은 직접 아리샤를 선택해 후원한 것이었다. 다른 감정은 시간이 흐르면 쉽게 사라지고 변질되어 다른 감정으로 덮을 수 있게 될지 몰라도 증오나 원망은 그리 쉽게 지울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었다. 그렇기에 하이모어 대공은 독으로 가득 찬 아리샤가 그 누구보다 자신의 계획을 완벽하게 도와줄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설마 그 증오와 원망의 독으로 가득했던 아이가 사랑에 빠져 자신을 배신할 줄은 몰랐다. 심지어 그의 아이까지 가지고서 말이다.

‘아마 그래서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떠난 거겠지. 작은 흔적이라도 남겼으면 내가 어떻게든 찾아서 죽여버렸을 거니까.’

모두가 하이모어 대공의 완벽한 인생에 남은 유일한 흠은 프레디 소공자라고 알고 있었지만 사실 레아 황녀 역시 하이모어 대공의 완벽한 인생의 커다란 흠이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흠이긴 했지만 하이모어 대공에게 레아 황녀는 언제 터질지 몰라 불안 불안한 시한폭탄이기도 했다.

그래서 자신의 완벽한 인생에 흠이 되는 두 사람을 동시에 없애버릴 수 있는 이 계획이 어느 정도는 마음에 들었지만 동시에 하이모어 대공은 조금 불안하기도 했다.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도박 같은 짓이야. 솔직히 말하면 완벽하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지. 저 녀석 때문에라도.’

하이모어 대공은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머리 위로 올라가서 모든 걸 조종하려는 것 같은 크라스 경이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정확하게 어떤 사이셨고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지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넌 알 필요 없는 일이다. 괜히 관심 가지려고 하지 마라.”

“레아 황녀가 그거 때문에 아버지를 찾아올 정도인데 제가 그 이유를 알고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넌 쓸데없는 곳에 신경 쓰지 말고 프레디를 국서로 만들 방법이나 생각해내란 뜻이다. 이번 일은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할 테니 넌 그날 저택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고.”

“하지만….”

“괜히 너까지 끼어들었다가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의심만 깊어질 건데 그런 상황을 원하는 게 아니면 조용히 해라.”

“…네. 알겠습니다.”

크라스 경은 나름대로 레아 황녀가 저택으로 왔을 때 바로 함정에 빠트려 프레디 소공자가 국서가 되게 만들려고 했지만, 그날은 저택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하이모어 대공의 말에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레아 황녀의 친모 같은 거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그냥 강제로라도 두 사람을 결혼시킨 다음에 다 없애버리면 될 것을….’

그런데 왜 굳이 쓸데없는 거로 시간을 질질 끄시려는 건지 크라스 경은 미간을 좁혔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어차피 크라스 경의 계획은 다시 기회를 잘 만들어서 실행만 하면 무조건 레아 황녀를 프레디와 결혼시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었다. 크라스 경은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며 표정을 풀고 프레디에게 말했다.

“넌 그때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말도록 해. 괜히 나섰다가 일 망치지 말고.”

“……….”

“넌 내가 명령할 때까지 가만히 죽은 듯이 있어.”

애초에 레아 황녀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서 나설 생각도 없었다. 아직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찾지도 못했는데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기고 하필 그 상대가 레아 황녀님이라니. 정말 어떡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며 프레디 소공자는 지그시 두 눈을 감았다.

89.레아의 마음.docx

레아가 하이모어 대공의 저택을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자 대공은 잠시 고민하는듯하다 그렇다면 2월 24일 오전 10시에 저택을 방문해달라는 답을 보냈다. 생각보다 평범하게 돌아온 대공의 답에 레아는 조금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다.

“좀 더 의미심장하고 수상한 냄새 풀풀 풍기는 답을 보낼 줄 알았는데.”

조금 의외이긴 했지만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거 같아 레아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안 그래도 이제야 좀 생각이 정리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거 같았는데 대공과 엄마의 과거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자 이번에는 라이 경이 레아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소한 거까지 신경 쓰고 싶을 리가 없었다.

‘그때…그게 무슨 고백이냐고 다시 하라는 식으로 말하긴 했지만 내가 정말 라이 경을 좋아하는 걸까. 라이 경은 이번 일이 끝나고 내 마음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좋아하지도 않는 남자랑 사귄다는 건 너무 양아치잖아.’

사실 지금 이렇게 고민하는 것도 양아치 같은 걸지도 몰랐다. 하지만 태어나서 한 번도 남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고 한때는 누가 자신을 좋아해 주겠냐고 사랑받기를 포기한 적이 있었던 레아는 이런 감정과 상황이 낯설기만 할 뿐이었다.

누구라도 붙잡고 상담받고 싶은데 황실에 있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했다간 난리가 날 거 같았다. 특히 레아와 친하고 가까운 사람은 주책바가지 시녀들을 제외하면 모두 아빠와도 가까운 분들이었다. 그런 분들께 연애상담을 받았다가 잘못해서 아빠 귀에라도 들어가면 그날로 황궁이 무너질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나밖에 없는 친구는 내가 모태솔로가 아니라 막 고백도 많이 받아보고 남자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는 줄 아는데 인제 와서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엄마가 옆에 있었으면 엄마한테 물어봤을 건데.’

아, 엄마한테는 좀 그런가. 엄마와 아빠의 러브스토리를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엄마한테 조언을 구하는 건 좀…. 그렇다고 우나타에 있는 나탈리 이모에게 연락하기도 좀 그랬다.

“나탈리 이모. 지금은 만나는 사람 생겼나 모르겠네.”

그동안은 레아를 혼자 둘 수가 없고 불안해서 남자를 만날 여유가 없었다고 했으니 레아가 황궁으로 온 지 1년이나 지난 지금은 만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아직도 할머니께 도대체 시집은 언제 갈 거냐며 폭풍 잔소리를 듣고 있을 수도 있으니 나탈리 이모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그다지 좋은 생각은 아닌 거 같았다.

역시 혼자 고민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가 생각하며 레아는 짧게 한숨을 쉬었다. 지금 레아는 다른 건 다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옆에서 누가 연애상담도 해주고 조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

“가스파르 재상. 전에 부탁한 건 어떻게 됐어요?”

“황녀님의 말씀대로 하이모어 대공이 후원했던 사람들을 조사해본 결과 수상한 사람이 다섯 정도 발견됐습니다.”

“역시 빠르네요. 그 다섯 명에 대해 서류로 정리해서 내일까지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라이 경과의 일을 빼면 확실히 레아는 요즘 모든 게 순조롭게 잘 풀리고 있었다. 라이 경과 둘이서 서류에 파묻혀 조사할 때는 뭔가 나올 듯 말 듯 했는데 그 일을 가스파르 재상에게 맡기자 재상은 바로바로 레아가 원하는 부분을 찾아주었다.

“가스파르 재상. 나 왜 아빠가 가끔 모든 일을 가스파르 재상한테 다 맡기고 서류로 종이비행기를 접는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설마 레아 황녀님께서도 서류로 종이비행기를 접으시겠다는 겁니까?”

“아뇨. 가스파르 재상이 워낙 일을 잘하니까 그만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레아 황녀님께서는 서류로 종이접기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폐하께서도 땡땡이 안 치시고 열심히 하고 있으시긴 하지만 황녀님까지 땡땡이치시면 전 정말 돌아버릴지도 모릅니다.”

“하하. 알았어요. 힘내요. 가스파르 재상.”

가스파르 재상에게는 웃으면서 힘내라고 했지만 사실 레아는 속으로 다음에 아빠처럼 가스파르 재상에게 일을 다 떠넘기고 놀러 가도 괜찮을 거 같다고 생각했다. 가스파르 재상이 일을 잘한다는 건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같이 일을 해보니 레아는 아빠가 괜히 가스파르 재상에게 모든 일을 떠넘기는 게 아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일이 끝날 때까진 힘들겠지만 언젠가는 나도 일은 땡땡이치고 놀러 나가고 싶다. 벨리시타 거리 구경도 제대로 좀 해보고.’

다리아 영애가 앤드류 경이란 쇼핑하러 갔던 것처럼 레아도 가게를 둘러보고 거리를 걸어보고 싶었다. 그리고 만약 그럴 수 있게 된다면 아마 그때 레아의 옆에는 라이 경도 함께 있을 것이었다.

‘황궁에 온 이후로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했으니까. 처음에는 그게 너무 어색하고 조금은 싫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게 당연한 거 같고 익숙한 느낌이랄까.’

이제는 라이 경이 옆에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다. 물론 지금은 라이 경이 자신을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사실 레아도 아주 마음이 없는 거 같아서 좀 애매한 상태였지만 말이다.

“레아 황녀님. 제 얘기 듣고 있으십니까?”

“응? 아, 미안해요. 잠시 다른 생각을 좀 하느라.”

“혹시 하이모어 대공의 저택을 방문하시는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뇨. 그건 제가 알아서 잘 준비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상대가 상대인지라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조금 못 미덥긴 해도 레아는 하비투스가 준 책으로 열심히 흑마법을 독학으로 익히는 중이었다. 책에는 정상적인 마법은 전혀 적혀있지 않았지만,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응용해서 레아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익히고 연습까지 하고 있었다.

“그럼 혹시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고민이요?”

“그런 게 있으시다면 제게 털어놓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아 황녀님께서도 그동안 제 얘기를 잘 들어주셨으니 저도 황녀님의 얘기를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흐음.”

레아는 잠시 가스파르 재상에게 말해볼까 하고 생각해봤지만 그랬다간 레아의 고민이 바로 아빠 귀에 들어갈 것 같았다. 그것만은 무조건 막아야 했기에 레아는 언제나처럼 웃는 얼굴로 평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그런 거 없어요. 모든 게 다 잘 진행되고 있는데 고민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정말입니까?”

“네. 고민 같은 거 없어요.”

실제로 그것만 빼면 딱히 고민이라고 할 건 없으니까. 그런데 가스파르 재상은 잠시 레아를 빤히 바라보더니 의외의 말을 했다.

“역시 레아 황녀님께서는 레그마인 황제 폐하를 아주 많이 닮았군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고민 있으시면서 숨기시는 거 제 눈에는 다 보입니다. 어쩜 뭘 숨길 때 입꼬리를 올려 웃는 얼굴도 두 분은 똑같으신 겁니까?”

“가스파르 재상 눈에는 그게 보여요?”

“제가 레그마인 황제 폐하를 옆에서 지켜본 지가 몇 년인데요. 물론 황녀님께서 이런 것까지 폐하를 닮았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빠와 가스파르 재상이 오래된 사이란 건 알고 있었지만, 아빠를 잘 알기 때문에 아빠와 닮은 레아가 뭘 숨기고 있다는 것까지 눈치챌 줄은 몰랐다.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더 숨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도 없어 레아는 꽤 난감한 상황이었다.

“하이모어 대공의 저택으로 가는 것도 문제없고 황녀님의 말씀대로 모든 게 잘 진행되는 이 상황에서 고민이 있으시다는 건 혹시….”

“혹, 혹시 뭐요.”

고민이 있다는 것까지는 들켜도 설마 그 고민이 라이 경 때문이라는 건 아무리 가스파르 재상이라도 절대 눈치챌 수 없을 것이었다. 레아는 그럴 거로 생각했지만 그 생각은 3초 만에 틀려버리고 말았다.

“고백이라도 받으신 겁니까?”

“네, 네?”

“저한테는 분명 고백을 해도 하이모어 대공과의 일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할 거라고 했었는데 혼담 때문에 라이 경이 많이 불안했나 봅니다. 하긴, 사실 그때까지 참는 게 더 답답하고 속 터지는 일이긴 하죠.”

“가스파르 재상.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거 때문에 고민이셨던 겁니까?”

“……….”

라이 경이 레아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설마 가스파르 재상이 알고 있었을 줄이야. 거기다 방금 레아가 고백받은 것도 들켜버리는 바람에 이제 정말 가스파르 재상은 둘 사이의 모든 걸 알아버린 셈이었다.

“그런데 고백 때문에 고민 중이시라니. 레아 황녀님께서는 라이 경에게 마음이 전혀 없으신 겁니까?”

“아뇨. 꼭 그렇다기보다는….”

“그럼 어째서 고민하고 있으신 겁니까? 혹시 레그마인 황제 폐하 때문에 망설이고 있으신 겁니까?”

“어차피 제가 그 누구를 만나든 무조건 한 번은 난리가 날 건데 아빠 때문에 고백받고 고민하는 거였으면 전 죽을 때까지 연애는 절대로 못 하지 않을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어째서 고민을 하시는 겁니까? 무슨 이유가 있으신 겁니까?”

라이 경이 레아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진작 알고 있었으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걸 보면 가스파르 재상은 레아의 생각보다 입이 무거운 걸지도 몰랐다. 그렇다면 어차피 이미 대략적인 상황은 다 알고 있는 재상에게는 레아가 왜 고민 중인지 얘기해봐도 괜찮을 거 같았다.

“그냥…제 마음을 저도 알 수가 없어서요.”

“황녀님의 마음이 문제라는 말씀입니까?”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잘 모르겠어요. 이런 적은 처음이라서 조금 혼란스럽달까.”

지금 레아가 라이 경에게 느끼는 이 감정이 정말 좋아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그냥 편하기도 하고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믿고 의지하는 마음인지 그걸 알 수가 없었다. 이게 단순한 사람에 대한 호감인지 아니면 이성적인 감정인지 그게 레아는 너무 헷갈리고 어려웠다.

“솔직히 라이 경이 나를 생각해주고 걱정해줄 때마다 기뻤어요. 꽃을 선물해줬을 때나 같이 서류를 보다 눈이 마주쳤을 때는 설레고 두근거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라이 경은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가끔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냐며 스스로 선을 그었는데…. 설마 그 좋아하는 사람이 나였을 줄은 몰랐죠.”

지금까지 라이 경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레아의 옆에서 좋아한다는 티를 내고 있었다. 다만 레아가 그걸 몰라줬을 뿐. 그래서 레아는 자신의 마음이 더 헷갈리고 어렵게 느껴지는 걸지도 몰랐다.

‘지금의 감정에 취해 그 고백을 받아줬다가 알고 보니 내 감정이 라이 경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는 다른 것이었다면…. 라이 경한테 상처를 주게 되는 거잖아. 내 마음이 확실해질 때까지는 신중해지고 싶어.’

라이 경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고 있기에 상처 주고 싶지 않았고 그렇기에 아직 확실하지 않은 마음으로 다가갈 수는 없었다. 그런데 아직은 불안한 마음 때문에 고민이라는 레아의 말을 듣고 가스파르 재상은 귀엽다는 듯 웃기만 할 뿐이었다.

“뭐에요. 왜 웃어요?”

“레아 황녀님과 라이 경을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첫사랑에 대한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두 분 다 풋풋하고 귀여우셔서 말입니다.”

“고민이라는 사람한테 조언은 못 해줄망정 풋풋하고 귀엽다뇨.”

“하지만 제가 굳이 조언해드릴 게 있나요? 원래 첫사랑은 처음이라 다 서툰 법이고 레아 황녀님께서 고민하는 것도 누구나 다 겪는 과정입니다.”

“누구나 다 겪는 과정이요?”

“네. 라이 경도 혼자 엄청 고민하고 선 그었다가 그 선 넘었다가 얼마나 생각도 많이 하고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아마 레아 황녀님께서는 절대 모르실 겁니다.”

라이 경도 레아 황녀님도 모두 자신의 감정에 둔한 느려터진 거북이라고 가스파르 재상은 생각했다. 그리고 엉금엉금 느릿느릿한 두 거북이에게 재상이 딱히 해줄 말이나 조언 같은 건 없는 것 같았다.

“그리고 사실 고민이라고는 하시지만 레아 황녀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으신 것 아닙니까?”

“제 마음이요?”

“레아 황녀님께서는 똑똑한 분이시니 금방 답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라이 경이 고백했을 때 어째서 그 고백이 만족스럽지 않았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그때….”

단순히 호위기사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고백해놓고는 제대로 된 답을 듣기도 전에 이미 차인 사람처럼 구는 라이 경에게 레아는 왜 그렇게 말하냐고 짜증을 냈고 화를 냈었다. 그리고 어찌어찌하다 보니 이번 일이 끝나면 다시 제대로 고백하기로 했는데…. 가스파르 재상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곰곰이 잘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거라고 했다.

‘내가 라이 경의 고백이 불만족스러웠던 이유라. 근데 사실 나는 딱히 그 고백에 불만족스럽진 않았는데.’

애초에 라이 경의 고백을 예상했던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확실히 아니란 말을 듣기 위해서 했던 질문이 어쩌다 보니 고백을 유도한 꼴이 된 것이었다. 그러니 기대했던 고백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을 받았으면 방법이야 어떻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레아는 지금 기쁘기보단 어려웠고 혼란스러웠으며 심지어 고백을 받고 라이 경에게 화도 냈었다.

‘그야 그건 라이 경이 내 대답은 듣지도 않고 당연히 자기가 거절당할 거로 생각하는 게 너무 답답하니까 그렇게 말했지. 라이 경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멋있기도 하고.’

키도 훤칠하고 진짜 잘생겼다고 감탄이 나올 정도로 라이 경은 조각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거기다 라이 경은 다닐로만 제국 최연소 소드마스터였고 그의 친부는 피에르 시종장님이시니 집안도 괜찮은 편이었다.

사실 그런 부분을 빼더라도 라이 경은 자상하고 따듯한 좋은 사람이었다. 슬퍼하는 레아에게 따듯한 위로를 건네주었고 서류에 파묻혀 있을 때도 불평불만 하나 없이 묵묵히 레아를 도와주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런 완벽한 사람이 당연히 자신에게 차일 거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레아는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었다.

지금까지는 당연한 거라며 딱 거기까지만 생각했었는데 가스파르 재상의 얘기를 듣고 다시 생각해보니….

“나 처음부터 그 고백을 거절할 생각은 전혀 없었네.”

고백을 거절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 리가 없었다. 생각해보면 레아는 라이 경과 사귀다가 알고 보니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하고 있었으니 일단 무조건 라이 경에게 다시 고백을 받으면 사귈 거라는 결정을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가스파르 재상의 말대로라면 이게 레아의 마음이라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자 레아의 얼굴은 홍당무가 되었다.

90.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docx

“레아. 꼭 몸조심해야 한다.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라이 경을 부르고. 알았지?”

“네. 조심할게요. 아빠.”

“혹시라도 하이모어 대공이 허튼짓이라도 하려고 하면 대공의 배를 발로 차버려. 아무런 헛소리도 못 하도록.”

“…그러면 아주 큰 일이 나지 않을까요?”

“먼저 이 제국의 하나뿐인 황녀에게 허튼짓하려고 했으니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확실히 다닐로만 제국의 하나뿐인 황녀에게 허튼짓하려고 했다간 아무리 하이모어 대공이라고 할지라도 살아남기는 힘들 것이었다. 하지만 대공이 바보도 아니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을 허술하게 할 리가 없었다.

분명 레아에게 손을 대려고 해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절대 증거를 남기지 않을 것이었다. 그래서 레아는 하이모어 대공이 모든 준비를 마치기 전에 서둘러 저택을 방문하는 것이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가 걱정하시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할게요.”

“우리 딸은 똑똑하니까 잘할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평소라면 우리 딸은 한번 열 받으면 상대를 제대로 엿 먹인다고 뿌듯하게 웃으며 걱정 따위는 안 하는 아빠였지만 하이모어 대공의 저택을 방문하는 건 많이 걱정되는 모양이었다. 아무래도 상대가 상대인 것도 있지만 이번에는 아빠 없이 레아만 가는 것이라 더 그런 거 같았다.

“누가 보면 전쟁터라도 나가는 줄 알겠어요. 다들 눈치만 보고 있으니까 표정 좀 푸세요. 아빠.”

“그 위험한 저택으로 레아 너를 혼자 보내는데 아빠가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있겠어.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방에 감금시켜서 못 가게 하고 싶은데.”

“혼자 가는 거 아니고 라이 경이랑 같이 가잖아요. 괜찮을 거예요. 금방 다녀올게요.”

걱정하는 아빠에게 레아는 웃는 얼굴로 안심을 시켜주었다. 그런 레아에게 안 갔으면 하는 티를 더 낼 수는 없었기에 아빠는 결국 그대로 레아를 마차에 태워 하이모어 대공의 저택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

점점 멀어지는 마차의 뒷모습을 보며 레그마인 황제는 이제는 붙잡기에도 늦었다고 생각하며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나타에서 내가 보낸 마차에 레아가 올라탔을 때 나탈리라는 그 여자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상황은 좀 달랐지만 절대 가지 않았으면 하는 곳으로 소중하게 아끼는 아이를 보내는 그 기분만은 조금 비슷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레그마인 황제는 부디 레아가 아무런 문제 없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다시 한번 한숨을 쉬며 황궁 안으로 들어왔다.

\*\*\*

“제 저택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아 황녀님.”

“초대해주셔서 감사해요. 하이모어 대공.”

“아닙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레아 황녀님께서 제 저택에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시는데 당연히 초대해드려야죠.”

“아무래도 황궁보다는 저택에서 얘기를 듣는 게 대공도 얘기하기 더 편하실 거 같아서요.”

“하하. 황녀님의 배려에 감사합니다.”

레아와 하이모어 대공. 겉보기에는 두 사람 다 웃고 있기는 했지만, 그사이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서로가 적이란 걸 잘 알고 있으면서 두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예상대로 하이모어 대공은 레아와 라이 경 딱 두 사람만을 저택 안으로 들였고 응접실로 안내했다.

“이거 저택에 손님이 오신 건 오랜만이라서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주스와 과자라도 내드려야 하나요?”

“아뇨. 이제 셋밖에 없는데 연기는 그만하시죠. 하이모어 대공.”

“역시 레아 황녀님께서는 아리샤를 닮지 않으셨군요. 화끈하십니다?”

“그러려고 응접실 문도 잠그신 거 같은데 질질 끌 필요가 있나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고요.”

“네.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이제 하이모어 대공이 어떻게 나올지 기다리면서 질질 끄는 건 충분했고 지겨웠다. 다리를 꼬고서 당당하게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는 레아를 보고 대공은 재밌다는 듯이 웃었다.

“저와 아리샤가 어떤 사이였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셨죠. 저도 레아 황녀님께 궁금한 게 있지만 우선 그것부터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이모어 대공과 엄마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레아는 거의 92% 예상하는 것이 있었다. 그걸 대공의 입으로 직접 들으려는 건데 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이모어 대공은 레아의 뒤에 서 있는 라이 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꽤 민감한 이야기가 오고 갈 건데 저야 상관없지만, 레아 황녀님께서는 호위기사가 이 얘기를 들어버린다면 많이 곤란해지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황녀라는 자리에서 쫓겨나실 수도 있을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괜찮으신 겁니까?”

“괜찮습니다. 제 친모에 관한 이야기를 제 호위기사가 못 들을 이유는 없죠.”

“레아 황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레아가 알고 있는 건 라이 경도 모두 알고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설령 하이모어 대공이 상상도 못 했던 이야기를 하더라도 라이 경이 알면 안 되고 듣지 못할 이야기는 없었다.

“후회 같은 거 안 하니까 어서 얘기나 해주세요. 대공은 도대체 저희 엄마와 무슨 사이셨죠?”

“정말 특별한 사이였죠. 이유는 서로 달랐지만 바라는 목표가 같았기에 손잡은 사이였습니다. 아리샤가 절 배신하기 전까지는요.”

“엄마가 하이모어 대공을 배신했다고요?”

“네. 저는 아리샤를 믿고 제 꿈을 이루어줄 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 저를 배신할 줄이야….”

하이모어 대공의 꿈은 황족의 씨를 말리는 것이었고 선황을 향한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던 엄마는 복수하고 싶어 했다는 이야기하려는 걸까. 그리고 엄마가 대공을 배신했다는 이야기는 아빠와 사랑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하고 레아는 생각했고 역시나 그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그래도 저는 아리샤가 완전히 저를 배신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래 증오와 원망이란 감정은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요. 아리샤의 마력이 레아 황녀님께 유전되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리샤는 아직 복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옛날에 누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하시네요. 난 엄마가 복수를 위해 남기고 간 독이라고.”

“황녀님께 그런 말을 한 사람은 루시 하비투스. 그 아이겠죠.”

“잘 아시는군요.”

“당연하죠. 제가 복수를 위해 흑마법을 가르친 사람은 비단 아리샤뿐만이 아니었으니까요. 다닐로만 최고의 마도사인 하비투스 역시 제가 심은 독이었습니다.”

아직 하비투스가 일기의 내용 중 레아가 알아야만 하는 내용을 적어둔 책은 읽어보지 않았지만 역시 레아의 예상이 모두 맞았었다. 엄마와 하비투스에게 흑마법을 알려준 사람 그리고 하비투스가 말하는 레아가 복수해야 할 상대는 역시나 하이모어 대공이었다.

‘하지만 왜?’

하지만 어째서 대공에게 복수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로선 레아가 유일하다는 것인지는 아직 이해가 가지 않았다. 확실히 하이모어 대공이 현재 관심을 가지는 미끼인 레아가 복수에 성공할 가능성이 제일 크긴 했지만 유일하게 복수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거 같았다.

“하지만 하비투스도 곧 저를 배신했습니다. 아리샤가 사랑했던 남자를 죽일 수 없다며 완전히 돌아서 버렸죠. 제 꿈을 이루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게 돼버렸을 땐 정말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하이모어 대공의 꿈은 현존하는 황족을 다 없애버리고 다닐로만 제국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룰 수 없어 슬펐다는 얘기를 지금 황족인 레아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 뭐 어쩌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레아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모르고 하이모어 대공은 열심히 레아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지금 레아 황녀님께서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 얼마나 귀염받고 계신지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제 폐하께선 아리샤의 원수. 황녀님께서는 지금 친모의 원수에게 속고 계신 겁니다.”

“그래요?”

“그렇고 말고요. 모두 아리샤는 레그마인 황제 폐하를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당시 그 아이의 보호자나 다름없었던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리샤는 그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에게 복수하기 위해 접근한 것이고 원치 않게 아이를 가지게 되어 도망간 게 분명합니다. 아리샤는 끝까지 상처를 받고 떠났어요.”

“어머나. 세상에.”

“가여운 아리샤. 결국,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돼서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복수를 끝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다니.”

“하아….”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차는 헛소리였지만 하이모어 대공이 레아가 이미 모든 걸 알고 눈치챈 상황이란 걸 알게 되면 안 되니까 레아는 대충 대공의 말에 맞장구쳐주는 척했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 한숨을 쉬었지만, 다행히 하이모어 대공은 레아가 마음이 아파서 한숨을 쉬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그래서…저는 레아 황녀님께 부탁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오직 레아 황녀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들으면서 놀란 척하며 맞장구를 쳐주는 것도 슬슬 버겁다는 생각이 들 때쯤 드디어 하이모어 대공은 레아가 기다리던 말을 해주었다.

‘서론은 집어치우고 본론부터 시작하자고 했는데 기다리던 얘기가 이제야 나오다니. 뭐, 하이모어 대공한테는 처음부터 본론이었겠지만.’

대공은 레아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서로의 본론이 시작점부터 다른 건 어쩔 수 없었다. 레아는 책상을 쾅! 치며 어서 부탁할 게 뭐냐고 당장 물어보고 싶었지만, 꾹 참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오직 저만 할 수 있는 일을 부탁하고 싶다니. 그 부탁이라는 게 뭐죠?”

“아리샤가 끝내지 못한 복수. 오직 레아 황녀님만이 그 복수를 대신 끝내주실 수 있습니다.”

“엄마의 복수….”

역시 돌고 돌아서 결론은 엄마의 복수를 대신 끝내 달라는 말이었다. 하이모어 대공이 한 말이 어떤 뜻인지 레아는 아주 잘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모르는 척을 해봤다.

“엄마가 끝내지 못한 복수를 오직 저만이 대신 끝낼 수 있다니. 그게 무슨 뜻이죠?”

“말 그대로입니다. 아리샤가 하려다 하지 못한 그것. 그걸 레아 황녀님께서 대신해 주시면 됩니다.”

“……….”

“저런. 충격받으신 모양이군요.”

“아뇨. 그게 아니라….”

이미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저게 사람인가 싶었다. 하이모어 대공은 할 말을 잃은 레아를 보며 혼란스럽고 생각이 많아져서 쉽사리 입을 열지 못하는 거로 생각하는 듯했다.

“많이 놀라고 충격받으셨겠죠.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다 불쌍하게 세상을 떠난 가여운 아리샤를 위한 일이란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

“물론 선택은 레아 황녀님께서 하실 일이죠. 그런데 황녀님. 황녀님에겐 이제 함께한 지 고작 1년이 돼가는 레그마인 황제 폐하보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10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했던 아리샤가 더 소중하시겠죠?”

“엄마랑 아빠….”

“레아 황녀님께선 똑똑하신 분이니 분명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이모어 대공의 말하는 현명한 선택은 레아가 직접 엄마의 복수라며 아빠의 목숨을 빼앗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겠지만 레아가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리가 없었다. 레아는 분노가 가득한 눈으로 하이모어 대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엄마를 이용하고 있어. 어떻게 엄마 딸인 나한테 저런 말을 할 수가….’

적어도 하비투스가 처음 엄마의 과거에 관해 얘기했을 땐 오해가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복수를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 좀 이해하기 힘들고 삐뚤어진 마음 같기는 해도 하비투스는 정말 진심으로 엄마를 위한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이었다. 하지만 하이모어 대공은 그게 아니었다.

오로지 자신을 목적을 위해 레아에게 상처가 될 것을 알면서 사실 넌 낳고 싶어서 낳은 아이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었다. 거기다가 그런 말을 하면서 엄마를 위한 일이라고 포장하며 레아에게 아빠를 죽이라는 말을 하다니. 레아는 너무나도 화가 나서 입술을 꾹 깨물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해.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무리 열 받고 억장이 무너질 거 같아도 지금은 참을 수밖에 없어.’

만약 여기서 참지 못하고 분노를 터트리면 레아는 진짜 해야 하는 복수의 기회를 허무하게 날려버리는 것이었다. 레아는 속으로 참아야 한다고 100번 정도 속으로 되뇌며 올라오는 화를 두 눈 꼭 감고 꾹 누르며 참았다. 그런 레아의 모습은 하이모어 대공에게 그저 충격적인 사실에 동요하고 있는 소녀의 모습 정도로 보였다.

“아무래도 레아 황녀님께서는 충격이 크신 모양이군요. 이만 황궁으로 돌아가시는 편이 좋으실 거 같습니다.”

“…네. 그래야 할 거 같네요.”

“제가 제안 드린 건 황궁으로 돌아가서 천천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오늘 나눈 이야기가 비밀이란 건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

“소문나 봤자 서로 좋을 거 하나 없지 않습니까. 뭐, 같이 무너지길 바라시는 거라면 말씀하시고 다니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무너질지는 모르겠지만요.”

…저 개자식이 진짜. 레아는 이를 악물고 하이모어 대공을 노려보았지만, 대공은 그런 레아를 보며 기분 나쁘게 웃을 뿐이었다.

원래 레아는 오늘 이 저택 사용인들의 입을 털어보려고 했지만 그건 포기하고 일단 황궁으로 돌아가는 편이 좋을 거 같았다. 괜히 저택에 조금만 더 있다가 가겠다고 했다간 의심을 받을 거 같기도 했고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서 우선 한발 물러서기로 했다.

“레아 황녀님. 괜찮으십니까?”

“아뇨. 하나도 안 괜찮아요….”

“황궁으로 돌아가시면 오늘은 그냥 푹 쉬시는 게 좋으실 거 같습니다.”

“황궁에 도착하면 바로 하비투스랑 얘기할 게 조금 있어서 푹 쉬는 건 그다음에 해야겠어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레아 황녀님.”

“응. 무리 안 할게요.”

무리하고 싶어도 이건 체력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기가 쭉쭉 빨리는 기분이었다. 그래도 황궁에서 하비투스랑 이야기하는 게 하이모어 대공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낫겠지 하고 생각하며 레아는 작게 한숨을 쉰 후 마차에 올라탔다.

91.뜬금없이 오늘부터 1일.docx

“레아 황녀님.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피곤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방으로 직행해서 쉬고 싶을 정도로.”

“하비투스 님과 짧게 이야기를 마치시고 방으로 돌아가셔서 쉬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응. 아무래도 그래야 할 거 같아요.”

안 그래도 하이모어 대공의 되지도 않는 헛소리를 들어주고 반응까지 해주고 와서 피곤하기도 하고 기분도 별로인데 황궁에 오자마자 쉬지도 못하고 바로 하비투스한테 가고 있다니. 레아는 작게 한숨을 쉬며 라이 경을 바라보았다.

‘라이 경한테 말해줘야 하는데. 나도 경과 같은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다시 고백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이미 서로의 마음을 다 눈치채고 있으면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람. 고민이 끝난 지금 레아는 이도 저도 아닌 라이 경과의 관계가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약간은 심술을 부리듯 자신의 뒤가 아닌 옆에서 걷고 있는 라이 경의 손을 덥석 잡았다.

“………!”

갑자기 손을 잡은 레아 때문에 라이 경은 깜짝 놀라더니 그대로 빳빳하게 몸이 굳어버린 듯했다. 분명 앞으로 걸어가고는 있는데 마치 통나무처럼 삐거덕거리며 걸어가는 게 웃기기도 하고 귀엽기도 해서 레아는 어쩐지 그런 라이 경을 좀 놀려주고 싶어졌다.

“뭐예요. 왜 놀라요?”

“그야 황녀님께서 갑자기 손을….”

“손잡는 거 싫어요? 놓을까요?”

“………아뇨.”

마차에서 내릴 때 항상 잡는 손이고 파티에서 같이 춤을 추었을 때도 손을 꼭 잡고 췄는데 그렇게 부끄러운 걸까. 귀까지 빨개져서 레아를 똑바로 바라보지도 못하면서도 잡은 손은 놓지 않고 꼭 잡는 라이 경의 모습에 레아는 그만 웃어버리고 말았다.

“하하. 라이 경한테 이런 귀여운 모습이 있었을 줄이야. 아까보다 더 빨개졌네.”

“……….”

“여자 안 만나봤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진짜 없었나 봐요?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걸 보면.”

“…그래도 저 인기는 많았습니다.”

“알아요. 지금도 인기 많잖아요.”

부끄러워서 죽을 거 같은 와중에 자기 인기는 많았다고 말하는 그 모습도 귀엽다고 생각하며 레아는 라이 경을 빤히 바라보았다. 라이 경에게 이런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있다는 건 오늘 처음 알게 되었다.

‘멋지고 잘생기고 귀엽고 사랑스럽기까지 하다니. 그런데 어째서 이런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거지?’

그건 아직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다. 힘들고 지치기만 했을 뻔한 상황에서 옆에 라이 경이 있어 주어서, 레아를 좋아하고 있다는 마음을 보여주고 스스로 몰랐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어서 레아는 웃을 수 있었다.

그런 라이 경에게 레아는 정말 아낌없는 사랑을 주고 싶었다. 아직은 경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마음만큼은 아낌없이 주고 싶었다.

“인기 많았어도 어쨌든 첫사랑은 나잖아요. 첫 여자친구도 나고.”

“네…?”

“물론 나도 라이 경이 첫사랑이고 첫 남자친구지만.”

“레아 황녀님. 갑자기 그게 무슨…….”

“손까지 잡아놓고 사귀기는 싫어요? 그럼 우리 오늘부터 1일 하지 말까요?”

갑자기 오늘부터 1일?

분명 얼마 전에 이번 일이 모두 끝나고 그때 레아 황녀님의 마음이 확실해지면 라이 경이 다시 제대로 고백하기로 했던 거 같은데. 뜬금없이 서론도 없이 다짜고짜 고백해버리는 레아 황녀님을 보며 라이 경은 조금 당황스러워서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싶었다. 그런 라이 경을 보며 레아는 예쁘게 웃으며 말했다.

“생각해봤는데 서로 좋아하는 거 알면서 시간 끌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상황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 거 때문에 내 마음 숨기는 건 별로 나답지 않은 거 같아요. 라이 경도 내 성격 알잖아요.”

“레아 황녀님.”

“정말 뜬금없는 거 나도 아는데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런 게 싫었으면 나 좋아하지 말았어야지.”

“……….”

제대로 빡치면 참지 않고 상대를 조지는 레아답게 좋아한다는 걸 깨닫고 나니 하이모어 대공을 완전히 밟아버릴 때까지 참는 건 힘들었다. 원래는 그래도 참고 기다려 보려고 했는데 대공 때문에 화나고 지치는 요즘 이런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맛이 없으면 너무 꿈도 희망도 없을 거 같았다.

‘나중에 내가 제대로 고백하려고 했는데 다짜고짜 오늘부터 1일이라니. 욕하면서 닮는다고 황제 폐하께서 예고 없이 폭탄을 터트리신다고 툴툴거리시더니 그런 부분도 닮아가시는 걸까.’

거기다 이런 뜬금없는 고백이 싫었으면 자신을 좋아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말도 레그마인 황제 폐하처럼 참 제멋대로인 말이었다. 하지만 그런 레아 황녀님의 고백에 라이 경은 살짝 웃으며 잡고 있던 손을 더 꼭 잡으며 말했다.

“…싫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다면서 웃고 있었지만 지금 레아 황녀님의 손은 매우 뜨끈뜨끈했다. 아마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당당하게 구셨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잔뜩 긴장하셨을 게 뻔했다. 라이 경의 예상대로 사실 레아는 지금 무척 떨고 있는 중이었다. 레아도 누군가에게 좋아한다고 말하고 사귀자고 고백하는 건 오늘이 태어나서 처음이었기에 절대 거절당할 일 없다는 걸 알면서도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으아아. 나 방금 뭐라고 말한 거야…! 진짜 심장 터져서 죽는 줄 알았네. 두근거리는 소리가 라이 경한테는 안 들렸겠지?’

겉으로는 당차고, 씩씩하게 오늘부터 1일! 이라고 외치긴 했지만 사실 그건 너무 떨려서 아무 말이나 내뱉다 보니 튀어나온 말이었다. 원래는 손을 잡고 실은 나도 경을 좋아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던 건데…. 어쩌다 보니 사귀자는 고백을 해버려서 정말 뜬금없이 오늘부터 1일이 된 것이었다.

‘그래도 잘된 거겠지. 라이 경이랑 이제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진 거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얼떨결에 황궁으로 끌려와 반강제로 황녀가 되었고 특히 요즘은 하이모어 대공 때문에 하루하루를 분노로 보내고 있었다. 그런 생활에서 이제 레아가 편히 기댈 수 있고 옆에 있어 주기만 해도 힘이 되는 존재가 생긴 것이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에 유일한 숨구멍이 되어줄 존재가.

물론 며칠 동안 라이 경 때문에 머리 아프게 고민했던 날들도 있었지만 말이다.

“라이 경, 라이 경.”

“네. 레아 황녀님.”

“좋아해요.”

“……황궁에서 그런 말씀 하시면 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하. 괜찮아요. 내가 지켜주면 되잖아요.”

좋아한다는 그 한마디에 얼굴을 붉히며 시선을 돌리는 라이 경을 보며 레아는 풋 웃었다. 하이모어 대공 때문에 힘들 거 같기도 했지만 그래도 라이 경이 옆에 있기에 레아는 앞으로의 날들이 재밌을 거 같았다.

‘으음. 근데 우리 사귀기로 한 거 알게 되시면 아빠랑 피에르 시종장님이 뭐라고 하시려나. 내가 지켜주겠다고 말은 했지만 정말 아빠가 라이 경을 죽여버리면 안 되니까 당분간은 모두를 위해 숨기는 게 좋겠지?’

그래도 설마 진짜로 죽이기야 하시겠냐고 생각하면서도 레아도 아빠가 어떻게 나오실지 조금 두렵긴 했다. 아무래도 당분간은 라이 경과 연인이 되었다는 건 숨기는 게 좋겠다고 레아는 속으로 생각했다.

\*\*\*

“뭡니까.”

“뭐가요.”

“왜 황녀님이랑 라이 경이 여기까지 손을 잡고 오시는 겁니까?”

“…봤어요?”

“그럼 제가 바보도 아니고 문 열고 들어오기 직전까지 둘이 다정하게 손 꼭 잡고 들어오는 걸 못 봤겠습니까? 창문이 이렇게 큰데?”

“그러게 왜 갑자기 없던 창문을 만들어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햇빛은커녕 촛불도 안 켜서 어두컴컴하기만 했던 하비투스의 방이었는데. 오늘 와보니 그때 그 수상한 냄새를 폴폴 풍기는 방은 어디로 사라진 건지 하비투스의 방은 테이블과 의자가 제대로 준비된 초록색이 가득한 평범한 방으로 변해있었다.

그걸 모르고 있던 레아와 라이 경은 보는 사람도 없으니 다정하게 손을 꼭 잡고 오다가 새로 생긴 커다란 창문으로 그 모습을 목격당한 것이었다. 그것도 하필이면 하비투스에게.

‘사귀기로 한 지 10분 만에 들킬 줄 누가 알았겠냐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오지 말 걸 그랬어.’

뭐 예쁘다고 안 그래도 피곤한 이 상황에서 하비투스를 보러온 걸까. 확인할 게 있어서 온 거긴 했지만 그래도 레아는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붓하게 데이트하는 걸 목격당하셔 놓고 대충 변명으로 넘어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데이트한 거 아니거든요? 뭐 남녀가 손잡고 걸으면 다 데이트하는 건가요?”

“데이트는 아니라고 해도 손은 도대체 왜 잡으신 겁니까? 아무 사이도 아닌데 황녀님과 호위기사가 손잡고 걷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기가 파티장도 아니고.”

“……칫.”

역시 솔직하게 말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건가. 썩 내키진 않았지만, 어차피 하비투스도 눈치챈 거 같으니 여기서 더 숨겨봤자 추하기만 할 거 같았다.

“두 분 드디어 소문대로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신 겁니까?”

“아까 다정하게 손잡고 걷는 거 다 봤잖아요. 알고 있으면서 왜 물어봐요?”

“역시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럼 이거 축하드려야 되는 건가요?”

“축하는 됐고 가능하면 머릿속에서 지워요. 잊어버리라고요.”

“그러기엔 늦은 것 같습니다만.”

왜 하필 들켜도 이 인간한테 들킨 걸까. 갑자기 짜증이 확 올라온 레아는 테이블을 손으로 쾅! 내리치며 말했다.

“머릿속에서 못 지우겠으면 어디 가서 입도 뻥끗할 생각하지 마요. 어디 가서 라이 경이랑 나랑 사귄다고 말하고 다니면 그 혓바닥부터 잘라버릴 거니까!”

“아니. 두 분 사귀는 사이 아니냐는 소문은 이미 황궁에 자자한데…. 그리고 한 제국의 황녀님이 사람 혓바닥을 잘라버리겠다니. 너무 거치신 거 아닙니까?”

“눈알도 뽑아줘요?”

“절대 소문 안 내겠습니다. 안 내면 되잖아요. 안 내면.”

“진작 그렇게 말할 것이지.”

만약 정말 하비투스 때문에 원하지 않게 레아와 라이 경의 열애가 밝혀지는 날엔 하비투스의 혀를 자르고 눈알을 뽑아버릴 것이었다. 사실 대마도사인 하비투스는 잘린 혀를 다시 이어붙이고 뽑힌 눈알도 다시 집어넣을 수 있긴 했지만 예쁘고 귀여운 17살 소녀의 입에서 저런 살벌한 말이 나오다니. 하비투스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라이 경. 이런 모습을 보고도 레아 황녀님이 아직도 사랑스럽고 여전히 좋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역시 사랑의 힘은 대단하군요.”

아직 사귄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헤어지기를 바라기라도 하는 걸까. 레아가 찌릿 째려보자 하비투스는 작게 헛기침을 하고는 드디어 레아가 직접 찾아온 이유를 물었다.

“아무튼, 두 분이 사귀신다고 자랑하시러 오신 건 아닌 거 같은데 그럼 어째서 저를 찾아오신 겁니까?”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확인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십니까? 웬만한 건 제가 전에 드렸던 책에 다 적혀있었을 텐데요.”

“그거 안 읽어봤어요. 안 읽었는데 대충 다 알 거 같아서 내 생각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왔어요.”

적어도 엄마를 조종하려고 했던 흑막의 정체는 확실하게 알게 되었으니까. 레아가 확인하고 싶은 건 그 흑막과 관련된 것이었다.

“오늘 하이모어 대공을 만나고 왔어요. 엄마가 복수를 위해 흑마법을 배울 수 있었던 것도 다 대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이제 그쪽도 슬슬 움직임을 보이나 보네요.”

“그럼 역시 하비투스가 마도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아리샤 누나처럼 하이모어 대공의 후원을 받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 레아 황녀님께서 흑마법을 익히고 있으신 것처럼 저 역시 대공의 도움으로 흑마법을 익히고 마도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피바람으로 인해 고아가 되고 황궁에서 시종으로 일하던 어린아이가 대마도사가 되기까지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을 리가 없었다. 역시나 그 뒤에는 하이모어 대공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레아는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

“그럼 우리 엄마의 인생을 망친 사람. 내가 복수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도 하이모어 대공인가요?”

“이제 그 복수는 황녀님께서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어차피 아리샤 누나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나밖에 모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할 일은 누나가 지켜주라고 했던 레아 황녀님을 지켜드리는 것이니까.”

“……….”

불필요했을 때는 알고 싶지 않았던 것까지 다 얘기해놓고 필요할 때는 그런 거 몰라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며 얘기해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비투스는 문득 이런 말을 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때 드렸던 책에 제가 미주알고주알 다 적어놨군요.”

“아, 그러고 보니….”

“젠장. 멋있는 척 좀 해보려고 했더니.”

“그런 거 하나도 안 멋있거든요? 괜히 무게 잡지 말고 묻는 말에나 똑바로 대답해요. 지금은 그게 제일 도움 되는 거니까.”

어울리지도 않았고 지금은 무게를 잡을 타이밍도 아니었다. 대체 나이는 어디로 처먹은 건지 상황파악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은 하비투스를 보며 레아는 얼굴을 찌푸렸다. 이제야 좀 도움이 되나 싶었는데 역시나 하비투스는 하비투스였다.

“어쨌든 아리샤 누나의 인생을 망치고 제가 레아 황녀님께서 대신 끝내주시길 바랐던 복수의 대상은 하이모어 대공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복수를 바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 사람에게서 레아 황녀님을 지킬 때니까요.”

“하비투스가 저를요?”

“하이모어 대공이 레아 황녀님을 노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으신 거 아닙니까?”

“그거야 당연히 잘 알고 있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비투스보다 레아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었다. 이제 레아는 하이모어 대공이 최종적으로 바라고 있는 게 무엇이고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지도 알고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아빠도 그렇고 가스파르 재상이랑 라이 경도 그러더니 하비투스까지. 다 나를 지켜주겠다는 말밖에 안 하네. 이건 내가 나서야지 끝장을 볼 수 있는 일인 거 같은데.’

걱정이나 지켜준다는 말 대신 조금은 믿고 맡겨줬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만큼 레아를 생각해주고 아껴주고 있다는 건 고마웠지만 레아는 조금은 자신을 믿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번 일이 있기 전에는 씩씩하고 강한 똑똑한 아이라서 걱정 없다고 했으면서. 레아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늘 걱정인 듯했다.

너무 믿어주는 것도 별로였지만 또 너무 걱정인 것도 그리 좋지는 않다고 생각하며 레아는 짧게 한숨을 쉬었다.

92.분명 비밀연애인데.docx

기분이 좋고 개운한 느낌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레아는 그동안 파고 또 팠던 것들에 대해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레아는 마지막으로 하비투스에게 제일 궁금했고 아직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걸 물어보기로 했다.

“그럼 하이모어 대공한테 복수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재로서는 나밖에 없다는 거. 왜 내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레아는 조금은 자신을 믿어줬으면 했지만, 상대가 상대인지라 모두 레아를 걱정하고 있었다. 하비투스 역시 레아를 걱정하고 있다고 했으면서 그래도 유일하게 복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 레아는 그게 제일 이유를 알 수가 없었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었다.

“복수는 이제 바라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째 제가 레아 황녀님께 복수를 부탁드렸을 때보다 더 관심이 많으신 거 같은 건 제 착각인가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다짜고짜 복수해달라고 한 거였잖아요. 지금은 어떤 일이 있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어렴풋이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빙빙 돌리지 말고 다 말씀드릴 걸 그랬네요.”

“그러게 그러지 그랬어요. 그럼 헛고생도 좀 덜했을 텐데.”

하비투스가 처음부터 오해 안 하게끔 숨기는 것 없이 모든 걸 얘기해줬으면 이렇게 돌고 돌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인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해봤자 시간을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레아도 삽질했던 시간이 짧게 있었기에 하비투스에게 뭐라고 할 처지는 되지 못했다.

“아무튼, 왜 내가 하이모어 대공을 향한 복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건지. 그 이유를 얘기해달라고요.”

“그야 복수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대공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현재로선 레아 황녀님뿐이니까요.”

“하지만 하비투스는 우리 제국에서 제일 강한 대마도사잖아요. 아빠도 검을 상당히 잘 다루시는 편이라고 들었는데 두 분이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제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요?”

“네. 레아 황녀님이시라면 가능합니다.”

검은 잡을 줄도 모르고 마법은 배운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그런 레아가 과연 하이모어 대공을 이길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았지만 하비투스가 오직 레아만이 복수가 가능하다고 한 이유는 레아가 제일 강하기 때문이 아니었다.

“하이모어 대공과 단둘이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대공이 100% 모든 걸 파악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면 하이모어 대공을 공격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선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 레아 황녀님이 유일한 상황이고요.”

“아빠는 하이모어 대공과 단둘이 있는 자리를 만들기 힘들 거고 하비투스는 대공에게 모든 걸 파악 당했다는 뜻인가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하이모어 대공의 도움으로 흑마법을 익힐 수 있었으니 파악 당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흑마법을 익히고 있다는 걸 키린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던 거군요.”

“그 아이도 대공의 후원을 받고 있으니까요. 크라스 경을 통해 황녀님의 정보를 넘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레아가 하비투스의 도움을 받아 흑마법을 익히고 있다는 정보가 하이모어 대공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즉시 이 싸움에서 지게 되는 것이었다. 이제 왜 자신만이 하이모어 대공을 상대할 수 있다는 건지 그 이유를 알게 된 레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그럴 생각이기는 했지만 역시 내가 직접 처리할 수밖에 없겠네. 하이모어 대공.’

엄마와 아빠를 위한 복수.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레아는 하이모어 대공을 아주 제대로 조져버려서 싹을 잘라버리겠다고 다짐했다. 어떻게 보면 위협받고 있는 황권과 제국을 구하는 일인 거 같기도 했지만, 레아는 그런 건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내 가족은 내가 지키겠어.’

어떻게 적응하고 즐기고 있는 아빠 딸로 사는 삶인데. 그런 소중한 삶을 쑥대밭으로 만들려는 인간을 레아가 가만히 놔둘 리가 없었다.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가보자는 마음으로 레아는 이제는 자신이 모두를 지켜주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레아는 하비투스와 이야기를 끝내고 방으로 돌아갔다. 이제는 진짜 좀 쉬려고 했는데…. 슬프게도 레아는 편하게 푹 쉴 수가 없었다.

“아빠랑 가스파르 재상이 왜 내 방에….”

“그야 레아가 안전하게 돌아왔는지 거기서 무슨 일은 없었는지 걱정이 돼서 왔지.”

“그럼 보통은 아빠가 있으신 곳으로 저랑 라이 경을 부르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면 레아 황녀님께서 피곤하시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지치셨을 텐데 하비투스 님까지 만나고 오셨으니.”

“……….”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같은 이 상황에서 아빠와 가스파르 재상은 문제 될 거 하나도 없다는 얼굴로 아무렇지도 않게 레아의 방에서 홍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둘을 보며 레아는 한숨을 쉬었다.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라고 이해하는 게 내 정신건강에 좋을 거 같다.’

가스파르 재상은 몰라도 아빠는 절대 그랬을 리가 없었지만 말이다. 일단 오늘은 피곤한데 이러쿵저러쿵 떠들고 싶지 않았다. 앞으로 어떡할 거고 하이모어 대공은 어떻게 작살 낼 건지는 내일 얘기하는 게 좋을 거 같다고 생각하며 레아는 자신이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아빠와 가스파르 재상에게 말해주었다.

“음. 다행히 예상대로 별일은 없었나 보네. 다행이다.”

“황녀님께 아무런 일도 없었다니 다행입니다. 이제 폐하께서도 마음 놓으시고 일을 하실 수 있겠군요.”

“일이요?”

“폐하께서 레아 황녀님이 너무 걱정되신다며 오전에 봐야 하는 서류를 한 글자도 읽지 못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서류로 종이비행기도 안 접으셨습니다.”

“하나뿐인 소중한 딸이 그 끔찍한 놈을 만나러 갔는데 아빠가 일이 손에 잡힐 리가 없잖아.”

글쎄. 그런 거치시곤 레아 없는 레아 방에서 여유롭게 홍차를 마시고 있으셨던 거 같은데. 하지만 사실은 아빠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으셨는지 잘 알고 있기에 레아는 아무런 말 없이 작게 웃었다.

“그런데 프레디 소공자와의 혼담 얘기는 전혀 안 하다니. 그건 좀 의외네.”

“오늘은 처음부터 엄마 얘기를 하려고 간 거니까요. 프레디 소공자는 만나지도 못했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너무 아무 말도 없으니까 오히려 신경이 쓰인달까.”

“아마 조용히 일을 천천히 진행하려는 것 같습니다. 우선 레아 황녀님과 황제 폐하의 사이를 멀어지게 한 다음 그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려는 거 같습니다.”

“나와 레아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다니. 멍청한 계획이야.”

아빠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혀를 찼지만, 레아는 하비투스에게 이야기를 듣기 전에 하이모어 대공이 먼저 접근을 해왔다면 대공의 뜻대로 움직였을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했다. 그랬다면 정말 파국이 되었을 것이었다.

“거기다 자기 아들이랑 내 딸을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 아무리 레아가 날 싫어한다고 해도 다른 놈한테 보낼 수 있을 리가 없지.”

“네…?”

“물론 옛날처럼 죽을 때까지 아무한테도 보낼 수 없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성인이 될 때까지는 절대 안 돼. 성인이 된 다음에 우리 딸이 진짜 이 남자 아니면 안 된다고 하고 그놈이 레아를 위해 밤하늘의 별이라도 따줄 놈이라면 그때 고민을 좀 해봐야지.”

“그거 그냥 결혼하지 말라는 말 같은데….”

과연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기나 할까. 천년의 사랑도 아빠의 기준을 통과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빠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 했지만, 레아는 이미 엄연히 남자친구라는 존재가 있었다. 그것도 지금 레아의 바로 옆에.

‘만약 지금 당장 아빠한테 사실 오늘부터 라이 경이랑 사귀기로 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바로 경을 죽여버리실지도 몰라. 원래도 말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진짜 입도 뻥긋하면 안 되겠다.’

그런데 라이 경은 저런 말을 듣고도 괜찮은 걸까. 경이 그럴 사람은 아니었지만 속으로 레아와 사귀기로 한 걸 후회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레아는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슬쩍 옆을 보았지만 라이 경은 미동도 없이 언제나처럼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괜찮은 건가 싶기도 했지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레아는 조금은 불안한 눈빛으로 라이 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가스파르 재상은 재미있어서 웃음이 나오려는 걸 꾹 참고 있었다.

‘이거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혼자 알고 있는 것도 참 재밌는 일이군. 자칫 지쳐서 처지기만 한 분위기가 될 수도 있었는데 두 분이 있어서 그럴 일은 없겠어.’

벌써 두 사람이 오늘부터 1일을 외치고 바로 하비투스에게 들켰다는 걸 알 리가 없는 가스파르 재상은 이 재밌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신뿐이라며 속으로 음하하하! 하고 웃었다.

\*\*\*

일단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내일 다시 생각해보기로 하고 아빠와 가스파르 재상은 오전에 하지 못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 서둘러 방을 나갔다. 그렇게 정말 오랜만에 레아는 일상으로 돌아와 여유로운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이런 분위기가 그립긴 했었지만…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그래도 일단 오늘부터 1일인데.’

현재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데이트도 하면서 설레고 달달한 분위기를 내는 건 무리라고 해도 이렇게 평범하게 잔잔한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도 좀 곤란했다. 이러면 사귀기 전이랑 후가 뭐가 다른 건가 싶기도 했다.

‘그런데 라이 경은 아무런 생각이 없어 보이네. 평소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아까 레아가 고백했을 때는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수줍어하면서도 꼭 잡은 손은 절대 안 놓는 모습이 꽤 귀여웠는데. 지금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레아와 그런 적 없었던 것처럼 아무런 말 없이 무표정하게 가만히 서 있기만 했다. 레아는 그런 라이 경의 모습을 빤히 바라보았고 라이 경은 그 시선에 티는 전혀 나지 않았지만 당황하고 있었다.

‘왜 자꾸 빤히 쳐다보시는 걸까. 혹시 내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 아니면 어디가 이상한가.’

원래 다른 여자들이야 쳐다보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라이 경이었지만 레아 황녀님의 작은 시선 하나하나에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시녀들은 평소처럼 입꼬리를 미친 듯이 씰룩거리는 대신 뿌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결국, 두 사람…. 드디어 이어졌구나.’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오기는 왔구나.’

‘그동안은 추측이었지만 이제는 확실한 거겠지. 두 사람.’

‘응. 확실해. 무조건 100%야.’

‘작년 여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 참 많은 시간을 기다렸다.’

‘그러게. 우리끼리 케이크 들고 자축이라도 할까.’

사실 레아와 라이 경이 연인으로 발전하는데 시녀들이 딱히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누구보다 두 사람이 잘되길 바라고 또 바라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두 사람이 이루어졌고 소중한 레아 황녀님을 이상한 놈한테 보내드리지 않아도 된다니 시녀들은 기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도 아직 방심하기는 일러. 이러다 만약 두 사람이 헤어지기라도 하면….’

‘안 되지. 우리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레아 황녀님의 남편감은 라이 경이라고.’

‘괜히 소문이 나서 황제 폐하 귀에 들어가기라도 하면 큰일이란 건 다들 알고 있겠지? 물론 이건 레아 황녀님께서도 아주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하지만 조심한다고 데이트도 제대로 못 하시면 감정이 금방 식을지도 몰라. 특히 레아 황녀님께서는 아직 나이도 어리시니까 들키는 것보다 그걸 더 조심해야 해.’

‘첫사랑이란 건 원래 더 지키기 어려운 법이니까.’

지금 레아가 하이모어 대공을 상대로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알 리가 없는 시녀들은 자기들끼리 황녀님의 첫사랑을 지켜드리자! 라며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벌써 시녀들에게도 오늘부터 1일이라는 사실을 들켜버렸다는 걸 모르고 있는데도 말이다.

“레아 황녀님. 오늘은 날씨도 좋으니 오랜만에 정원 산책하시는 건 어떠세요?”

“정원 산책이요?”

“네. 얼마 전에 봄에 피는 꽃을 심어서 아직 활짝 피지는 않았지만, 산책하시기에는 좋을 거예요.”

“그래요? 그러고 보니 정원에 안 가본 지도 좀 되긴 했네요.”

오늘 하이모어 대공의 저택으로 갈 때도 마차를 타고 갔고 마차 안에서도 정원을 구경할 여유는 없었다. 그래서 정원에 새로운 꽃을 심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레아는 당연히 흥미가 생겼고 그런 레아를 보며 시녀들은 걸려들었다면서 속으로 음흉하게 웃었다. 하지만 겉으로는 한없이 상냥하게 웃으며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곧 점심 식사하실 시간이니까 산책을 하시면 도시락을 준비해달라고 해서 정원에서 식사하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그럼 오늘 점심은 정원에서 먹을게요. 그렇게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녀들이 무슨 생각으로 정원 얘기를 꺼낸 건지 전혀 눈치채지 못한 레아는 오랜만에 정원 산책이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져서 방긋 웃었고 그런 레아가 귀여워서 라이 경도 아주 작게 웃었지만, 곧바로 다시 원래의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럼 레아 황녀님. 드레스부터 갈아입으실까요?”

“네? 갑자기 드레스는 왜요?”

“아직 하이모어 대공의 저택을 방문하셨을 때 입고 가셨던 드레스 차림이시잖아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으음.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나중에 갈아입을게요.”

하이모어 대공을 만나러 가는데 예뻐 보일 필요도 없었고 굳이 꾸밀 필요도 없었기에 레아는 비교적 편한 드레스를 입고 갔었다. 그래도 외출복이었으니 황궁에서 편하게 입는 드레스만큼 편하진 않았지만 산책하고 식사할 때 방해가 될 정도로 불편하진 않았다. 그래서 괜찮다고 한 건데 시녀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안 돼요. 갈아입으셔야 해요!”

“왜요? 드레스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 그게….”

문제라면 나름대로 첫 데이트인데 하이모어 대공을 만나러 갈 때 입고 갔던 드레스를 그대로 입고 가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 하지만 이미 시녀들이 레아 황녀님과 라이 경이 사귄다는 걸 눈치챘다는 걸 황녀님께서 알게 되신다면 분명 부담이 돼서 둘의 사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었다. 시녀들은 재빨리 시선을 주고받더니 그럴듯한 말을 지어냈다.

“인제 보니 드레스 뒷부분에 얼룩이 묻으셨어요. 얼른 갈아입으셔야겠어요.”

“정말요? 언제 묻었지?”

“아마 하이모어 대공의 저택에서 묻으신 거 같아요. 그럼 갈아입으실 드레스 바로 준비해드릴게요.”

“라이 경은 잠시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드레스에 얼룩 같은 게 묻었을 리 없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레아는 순순히 드레스를 갈아입으러 갔고 라이 경 역시 순순히 방 밖으로 나갔다. 그렇게 둘은 둘만 모르는 첫 데이트 준비에 들어가게 되었다.

93.밤하늘에 뜬 별.docx

‘드레스만 갈아입고 바로 나오실 거니까 그리 오래 걸리진 않으시겠지. 그런데 황녀님은 방에서 편히 쉬지 않으셔도 괜찮으신 걸까.’

원래 레아 황녀님께서는 정원 산책을 좋아하시긴 했지만, 오늘은 많은 일이 있었고 피곤하실 텐데 산책보다는 방에서 쉬시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 하고 라이 경은 생각했다. 그런데 왜 시녀들은 뜬금없이 정원 이야기를 한 건가 싶기도 했다.

“설마 눈치챈 건 아니겠지.”

일부러 티 안 내려고 노력했는데. 아무리 시녀들이 그런 쪽으로 눈치가 빠르고 이렇게 되길 쭉 바라왔다고 해도 벌써 눈치를 챘을 리가 없었다. 방으로 들어온 후 라이 경은 레아 황녀님과 대화도 하지 않았는데 잠깐 빤히 바라보았던 시선 하나로 두 사람이 연인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을 리가 없었다.

큰 의미 없이 한 얘기겠지. 라이 경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며 황녀님이 나오시기를 기다렸다.

‘드레스만 갈아입으신다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시는군.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

드레스 한 벌 갈아입는 데 무슨 문제가 생길 게 있나 싶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 라이 경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노크를 한번 해봐야 하나 생각하고 있을 때 레아 황녀님께서 문을 열고 나오셨다.

“라이 경. 오래 기다렸죠? 미안해요! 드레스만 갈아입고 나오려고 했는데 시녀들이 자꾸 이것저것 하라고 해서….”

“아뇨. 괜찮습….”

생각보다 오래 기다린 거지 사실 그다지 많이 기다린 건 아닌데 그게 신경이 쓰였는지 레아 황녀님께서는 라이 경에게 미안하다고 하셨다. 라이 경은 그런 일로 미안해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하려다가 드레스를 갈아입으신 레아 황녀님을 본 순간 하려던 말을 잊었다. 그런 라이 경을 보며 레아는 조금 민망한 듯 볼을 긁적였다.

“평소에 자주 입는 연두색 드레스를 입으려고 했는데 시녀들이 오늘은 무조건 이 드레스를 입으라고 하더라고요. 어디 좋은 데 가는 것도 아닌데…. 머리도 굳이 묶어주겠다고 해서 시간이 좀 걸렸어요. 갑자기 아주 자기들끼리 신났더라고요.”

“그 말씀은 역시….”

“네. 확실한 건 아닌데 아무래도 눈치챈 거 같아요.”

오늘부터 사귀기로 했는데 가는 곳마다 둘의 사이가 발전했다는 걸 들키고 다니는 거 같았다. 레아는 이러다 정말 아빠 귀에 들어가서 라이 경이 죽을까 봐 걱정이었다.

‘진짜 조심해야겠다. 지금도 딱히 티를 내고 다닌다고는 생각 안 했지만, 더 조심해야겠어. 뭘 어떻게 조심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비투스야 레아와 라이 경이 다정하게 손 꼭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해도 시녀들은 대체 어떻게 안 건지 의문이었다. 오늘 시녀들 앞에서는 라이 경이랑 딱히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는데 이상한 일이었다. 레아는 이걸 신기하다고 해야 하나 하고 허허 웃고 있는데 라이 경은 그런 레아를 빤히 바라보았다.

“왜 그렇게 봐요? 역시 정원 산책하러 가는데 이렇게 꾸미고 나오니까 좀 어색해요?”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평소에 이런 나풀나풀한 드레스는 잘 안 입긴 했죠. 그냥 자주 입는 편한 드레스로 갈아입을 걸 그랬어요.”

그래도 조금은 예쁘다고 해주길 바랐는데. 하지만 원래 무뚝뚝하고 예쁘다는 말도 잘 안 하는 라이 경이기에 레아는 별로 서운하진 않았다. 1년에 가까운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라이 경이 레아에게 해준 최고의 칭찬은 ‘잘 어울리십니다.’ 정도였던 거 같았다.

‘그래도 이제는 여자친구니까 솔직히 조금 기대했었는데. 역시 내가 첫날부터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거겠지?’

레아와 라이 경이 황녀님과 호위기사인데도 연인이 된 이상 대충 몇 년 만나다가 싸우고 울고불고 난리 치면서 죽이네 살리네 하다 헤어질 수는 없었다. 최대한 조용히 만나다가 혹여라도 서로 인연이 아니었더라도 조용히 깔끔하게 끝내야만 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뜨겁게 불타올랐다가 순식간에 식어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천천히 따듯하게 서로에게 스며들어야 했다. 레아 성격에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아무튼, 그래서 레아는 처음부터 라이 경에게 많은 것을 바라진 않았다. 어차피 레아가 좋아하게 된 라이 경은 조금 무뚝뚝할지라도 따듯한 사람이니까.

“시녀들이 눈치챘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녀들에게 끝까지 숨기는 건 애초에 불가능할 거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긴 하죠.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시녀들한테는.”

당분간은 어떻게 잘 숨긴다고 해도 계속 숨기는 건 힘들 것이었다. 그래도 첫날부터 너무 많은 사람에게 들킨 것 같아서 레아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다리아 영애랑 보니타 황후 폐하께도 라이 경이랑 사귀게 됐다고 말할 생각이긴 했지만, 오늘 당장 편지를 써야겠네. 원래는 좀 더 확실해지면 말하고 싶었는데.’

인제 와서 무를 수 없는 일이긴 했지만 그래도 좀 더 시간이 흐르고 이 사이가 좀 더 익숙해지면 그때 레아는 얘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벌써 너무 많은 사람에게 들켜버려서 그 두 사람에게도 빨리 알려줘야지 아니면 분명 서운해할 것이었다.

“원래 완벽하게 비밀로는 하기 힘들 거라는 거 알고는 있었는데 어째 각오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한테 알려져 버렸네요. 그것도 하루 만에.”

“황녀님께서는 언제나 주목받고 있으시니 어쩌면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황녀님의 연인이라는 자리도 그만큼 관심받는 자리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렇겠네요. 난 그 생각까지는 못 했는데.”

레아는 이제 황제를 제외하면 다닐로만 제국의 유일한 황족이었다. 그리고 아직 아빠와 레아는 진지하게 얘기를 꺼내 본 적이 없다고 해도 대부분 사람이 다음 황제는 레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니 어쩌면 국서가 될지도 모르는 레아의 연인에게도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그래도 지금으로선 둘의 사이를 눈치채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레아의 측근이라고 한다면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만약 모든 사람이 레아와 라이 경의 사이를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면…. 어떤 말들이 나올지는 모르는 일이었다.

‘사귀기로 한 지 첫날부터 이런 생각하는 건 너무 앞서가는 거 같기도 한데…자꾸 신경 쓰이네. 라이 경은 정말 괜찮은 걸까?’

처음에는 아빠와 피에르 시종장님의 반응만 걱정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레아의 옆자리는 그리 만만한 자리가 아니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진지하게 깊게 생각해보고 말하는 건데 서로의 마음이 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 쉽게 사귀자고 결정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레아를 라이 경은 가만히 지켜보다 말했다.

“레아 황녀님.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시길래 표정이 좋지 않으신 겁니까?”

“응? 나 표정 안 좋았어요?”

“조금 가라앉은 표정을 하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요? 별로 가라앉기까지는 안 했는데.”

유쾌하지 않은 생각을 한 건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기분이 가라앉을 정도로 안 좋고 우울한 생각을 한 건 아니었고 그냥 조금 걱정과 고민을 한 정도였다. 그런데 그런 레아의 표정이 라이 경은 신경이 쓰이는듯했다.

“혹시 저 때문에 그러신 거라면 걱정하지 마시고 미안해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래요. 내가 황녀라서 그런 건데.”

“레아 황녀님께서도 그 자리에 앉고 싶어서 앉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전 제가 원해서 레아 황녀님의 옆에 있는 겁니다.”

레아가 황궁으로 거의 끌려오다시피 와서 반강제로 황녀 자리에 앉은 것과는 달리 라이 경은 경이 원해서 레아의 손을 잡고 그 옆자리를 선택한 것이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리 특별한 말도 아니었는데 그 순간 레아에겐 그 말이 감동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어떻게 이런 남자가 나한테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까 잠시 표정이 안 좋았다는 것과 달리 레아는 라이 경을 보며 예쁘게 방긋 웃었고 그런 레아를 보며 라이 경도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커다란 손으로 레아의 황금빛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호위기사가 막 황녀님 머리 쓰다듬는 거 누가 보면 큰일 날 텐데.”

“지금 정원에 아무도 없어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귀기로 한 첫날부터 머리 쓰다듬기라니. 우리 진도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셨다면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건 아닌데 혹시 누가 보면 어떡해요. 안 그래도 벌써 하비투스랑 시녀들한테 걸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정원에 아무도 없어서 괜찮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으면 상관없으려나. 하긴 사귀기로 한 지 1일이든 1달이든 1년이든 사귀는 사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시간 같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같았다. 막말로 사귀는 사이인데 보는 사람만 없으면 지금 당장 레아가 까치발을 들고 라이 경 뺨에 입을 맞춘다고 해도 잡혀가는 것도 아니었다.

‘물론 그런 짓을 했다간 라이 경의 귀가 아주 새빨개질 거 같지만.’

그리고 레아도 부끄럽고 민망해서 그런 짓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꼭 귀가 터질 것처럼 빨개져서 부끄러워하는 라이 경의 모습이 보고 싶기는 하다고 생각하며 레아는 귀엽게 헤헤 웃었다.

\*\*\*

“넌 국서가 돼야 해. 하이모어 가문을 위해서. 너한테 양심이란 게 있으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평생 자신을 미워하고 상처를 준 형은 그렇게 말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가문에 수치인 자신이 뒤늦게라도 가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말도 했었고 아버지 또한 자신이 형이 시키는 대로 하기를 바라고 있으셨다. 아마 레아 황녀님을 만나기 전의 프레디 소공자였다면 그 말에 홀랑 넘어갔을 것이었다.

증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언제나 사랑받길 원했으니까. 하지만 현재 답을 찾지 못해 깊은 동굴 속 어둠에 빠진 기분으로 죽지 못해 사는 소공자는 그 말을 듣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알 수 있었다.

‘내가 형과 아버지께 뭘 그렇게 잘못했지?’

프레디 소공자도 하이모어 대공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었다. 이왕이면 평범한 집에서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죽고 싶었다. 단 한 번도 이런 삶을 원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하이모어 대공은 꼭 그게 프레디 소공자의 잘못이라도 되는 듯 그를 미워하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라며 폭언을 하였다. 그리고 그의 형 역시 언제나 그를 미워했고 소중하게 여기던 사람마저 빼앗아 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다.

도대체 왜? 어째서?

왜 나한테 그러는 건데? 왜 나한테만?

왜 나는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지?

스스로 질문하던 프레디 소공자는 곧 알 수 있었다. 하이모어 대공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고 크라스 경은 아버지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두 사람은 영원히 프레디 소공자에게 사랑을 주지 않을 것이었다. 그걸 미끼로 그저 이용하려는 것뿐이었다.

‘결국, 그 둘에게 난 영원히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구나. 바보같이 그걸 이제야 알게 됐다니.’

애초에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고 프레디 소공자는 그걸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다. 대공의 밑에서 20년을 살았으면서 레아 황녀님이 없었다면 아마 영원히 알지 못했을 것이었다. 그게 너무 한심스럽고 못나 보여서 프레디 소공자는 두 눈을 질끈 감고 한숨을 쉬었다.

‘정신 차리자마자 보고 싶다고 생각하면 내가 너무 쓰레기 양아치인 거겠지.’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프레디 소공자는 레아 황녀님이 보고 싶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언젠가 그랬던 것처럼 무작정 황궁으로 찾아 가버렸다. 하지만 황궁까지 와봤자 프레디 소공자가 뭘 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전처럼 시녀들을 꾀어서 레아 황녀님께서 지금 어디 있으신지 알아낼 수도 없었고 혹시라도 우연히 황녀님과 마주치더라도 전처럼 뻔뻔하게 다가가 말을 걸 수 있을 리가 없었다.

“도대체 어쩌자고 여기까지 온 거야. 나는.”

여기까지 와봤자 프레디 소공자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왠지 모를 허무한 마음에 다시 저택으로 돌아가려던 그때 프레디 소공자의 눈에는 황금빛 머리카락이 들어왔다. 그리고 곧 새카만 머리카락도 보였다.

‘레아 황녀님. 그리고….’

한때는 친구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틀어져 버린 사이가 돼버린 그 남자가 있었다. 프레디 소공자는 말없이 그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라이 경은 레아 황녀님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그 모습을 보고 프레디 소공자는 깜짝 놀랐다.

“저러다 뺨이라도 맞으면 어떡하려고.”

원래 함부로 머리를 쓰다듬는 건 여자들이 싫어하는 행동인데. 사실 라이 경이 누군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긴 했지만, 프레디 소공자는 레아 황녀님께서 어떻게 나오실지가 더 걱정이었다. 소공자가 아는 황녀님이라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게 뻔했다. 그러나 레아 황녀님께서는 프레디 소공자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셨다.

라이 경의 손을 뿌리치고 뺨을 때리지도 않으셨고 정색하고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며 화를 내지도 않으셨다. 오히려 레아 황녀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이는 예쁜 미소를 짓고 있으셨다.

그 미소를 보고 프레디 소공자는 바로 눈치챌 수 있었다. 레아 황녀님과 라이 경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것을.

‘역시 새카만 밤하늘에 뜬 빛나는 별이었구나. 레아 황녀님은….’

언젠가 레아 황녀님과 라이 경을 보며 프레디 소공자는 밤하늘에 뜬 별 같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고 그때 레아 황녀님께서는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한 작은 별이셨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별이 되셨고 그 별의 옆에는 여전히 까만 밤하늘이 같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프레디 소공자의 손이 닿지 않을 정도로 멀어진 존재들이었다. 이제 소공자는 새카만 하늘에서 예쁘게 빛나기 시작한 별이 상처받을 일 없이 계속 지금처럼 빛나실 수 있게 뒤에서 조용히 지켜드리는 게 최선이었다.

프레디 소공자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레아 황녀님을 바라보다 쓸쓸하게 웃으면서 다시 저택으로 돌아갔다. 왠지 마음 한구석이 시큰하게 아팠지만 그래도 프레디 소공자는 꼭 레아 황녀님을 지켜드릴 것이었다. 그게 소공자가 황녀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94.10분만 늦게 오지.docx

하이모어 대공의 저택에 다녀오고 라이 경과 오늘부터 1일을 외치자마자 하비투스와 눈치 빠른 시녀들에게 딱 걸려서 얼떨결에 첫 데이트까지 해버렸다. 하루 안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서 정신없이 흘러갔던 그 날이 지나고 2주 후 레아는 또다시 라이 경과 함께 아빠와 가스파르 재상과 마주 앉아 있었다.

물론 장소는 오늘도 레아의 방이었다.

‘왠지 내 방이 아지트가 돼버린 느낌인데.’

아무리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라도 이래도 되는 건가. 서재 같은 다른 장소도 많은데 굳이 자신의 방으로 모이는 게 레아는 뭔가 상당히 이상한 거 같았다. 사실 황궁 안 모든 사람이 레그마인 황제와 가스파르 재상이 레아 황녀님의 방으로 먼저 찾아가신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말이다.

레아는 새삼스럽게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왠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나만 하는 거 같네. 내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건가?’

이쯤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자신이 이상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이제 황궁 사람들은 레그마인 황제를 다닐로만 제국의 황제 폐하가 아니라 레아 아빠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레아는 짧게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아빠는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쓴다는 듯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하이모어 대공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 중이지?”

“아직은 황녀님께서 답을 주실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는 있지만 아마 곧 그 인내심도 바닥이 날 거 같습니다.”

“그래. 그렇단 말이지….”

“폐하.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대공의 인내심이 바닥 나서 무슨 짓을 벌이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그건 나도 알고 있어.”

가스파르 재상의 말에 아빠는 머리가 아픈 듯 표정을 구겼다. 하이모어 대공이 황실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무슨 수를 써야 한다는 건 레그마인 황제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걸 안다고 해도 어떻게 대공을 막을 것인지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지금 우린 하이모어 대공에게 협박당하고 있는 상태야. 섣불리 움직였다간 레아가 다칠 수도 있는데 내가 쉽게 움직일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제가 상처를 받고 말고를 떠나서 엄마의 과거가 세상에 밝혀지면 다닐로만 제국이 우스운 꼴이 될지도 몰라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공은 우리가 불리하게 소문을 낼 거고 황실의 힘이 약해지기를 기다릴 거예요.”

“역시 레아 황녀님은 냉철하시면서도 현명하시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 참 멋있으십니다.”

“우리 딸이 좀 멋있긴 하지.”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저 주접은 멈추지 않았다. 레아는 그래도 위급상황이라고 하면 위급상황인데 이래도 되는 건가 싶었다. 그런데 그때 레아의 옆에 있던 라이 경은 레아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게 중얼거렸다.

“황녀님께서는 늘 멋있으신데.”

“……….”

라이 경까지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날이 오다니. 레아는 이걸 좋아해야 하나 싫어해야 하나 알 수가 없어 아무런 할 말이 없었다.

\*\*\*

“아직도 레아 황녀에게서 아무런 답이 없다고 아버지께서 걱정이 많으시던데 요즘 황궁 분위기는 좀 어떻지?”

“황녀님께서는 요즘 방에서 잘 나오지 않으세요. 저도 직접 뵙지는 못하고 있어서 소문 외에는 아는 게 없어요.”

“그래. 요즘은 마법 수업도 받지 않고 사람들과도 거의 만나지 않고 있다고 했지.”

“네.”

레아 황녀님께 사실은 자신이 하이모어 대공의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걸 밝힌 후 처음으로 키린은 크라스 경과 마주하고 있었다. 의심받을 짓 같은 건 한 적 없지만 그래도 긴장한 키린은 주먹을 꽉 쥐고 마른침을 삼켰다.

‘정신 똑바로 차리자. 잘못해서 내가 레아 황녀님의 편이 되었다는 걸 들키면 모든 게 끝이야.’

그랬다간 키린을 믿고 받아준 레아 황녀님께 피해가 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키고 싶어 했던 가족들의 목숨도 위험해질 것이었다. 레아 황녀님께서는 자신이 책임지고 키린의 가족은 꼭 지켜주겠다고 하셨는데 키린이 일을 망칠 수는 없었다.

“수업이 없다고 해도 접근할 방법을 찾아보도록. 현재 레아 황녀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이번 일이 잘 마무리된다면 너한테도 작위를 내릴 생각이니 열심히 하도록 해.”

“작위라니 그게 무슨….”

그냥 언제나처럼 가족을 인질로 잡고 일을 시키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작위를 내려줄 생각이라는 크라스 경의 말에 키린은 깜짝 놀랐다. 그런 키린을 보며 크라스 경은 작게 웃으며 마치 유혹이라도 하듯이 속삭이며 말했다.

“아버지가 제국의 황제가 되시고 내가 황태자가 된다면 아마 귀족들도 꽤 물갈이되겠지. 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니 특별히 다음 대공 자리는 네 아버지께 드릴 생각이야. 그리고 넌 황태자비가 될 거고.”

“제가 황태자비….”

“어차피 사랑 없이 권력이 전부인 자리니 그 자리에 제일 어울리는 사람은 너야. 평민에서 황태자비로 신분 상승이라니. 이런 꿈 같은 기회를 걷어찰 정도로 바보는 아니겠지?”

“……….”

“똑바로 생각해. 이건 모두 네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일이야.”

가족을 위한 일.

지금까지 키린은 그것을 위해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많은 것을 참아왔고 여기까지 달려왔었다. 하이모어 대공과 크라스 경을 배신하고 레아 황녀님의 편에 선 것도 더는 자신의 가족이 인질이 되고 벼랑 끝에 서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래서 크라스 경의 작위를 내리고 황태자비로 삼아주겠다는 말에 키린은 잠깐 흔들렸다.

‘권력이 생기고 내가 황태자비가 된다면 지금처럼 우리 가족이 이 더러운 사람들 때문에 목숨이 위험해질 일은 없을 거야. 어쩌면 역으로 우리가 협박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하지만….’

그런 말에 넘어가기에는 키린은 하이모어 대공과 크라스 경에 대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다. 지금은 저렇게 말해도 절대 아버지에게 대공이란 작위를 줄 리가 없었고 키린에게 황태자비라는 자리를 줄 리도 없었다.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 아무래도 이번 일이 끝나면 날 제거할 생각인가 보네. 이번 일에 대해 내가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기 때문이겠지.’

키린은 아직 더 알아내야 할 게 있었지만, 대공과 크라스 경은 키린이 너무 많은 건 알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렇다는 건 나중에 키린의 존재가 약점이 될 수도 있었고 약점이 될만한 건 처리해야만 했다. 완벽한 하이모어 대공에게 약점이란 건 어울리지 않았고 크라스 경도 굳이 약점이 될 사람을 살려둘 이유는 없었다.

이제 하이모어 대공과 크라스 경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키린은 욕심으로 가득 찬 푸른 눈동자만 봐도 알 수가 있었다. 하지만 딱 한 사람 생각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다.

‘프레디 소공자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신 걸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걸까.’

얼마 전 하이모어 대공의 부름으로 저택으로 갔을 때 우연히 봤었던 프레디 소공자님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푸른 눈동자는 마치 다른 사람에게 영혼을 빼앗긴 사람이나 죽지 못해 사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런 소공자님이 크라스 경이 시키는 대로 할지 아니면 레아 황녀님을 위해 움직일지는 알 수가 없었다. 어쩌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을지도 몰랐다.

‘레아 황녀님께 말씀드리고 지시를 내려달라고 하는 게 좋겠어. 이제 내가 뭘 어떡해야 할지.’

안 그래도 요즘 머리 터지실 거 같은데 괜히 자신 때문에 더 머리 아프시게 만드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키린은 그렇게 생각하며 속으로 황녀님께 죄송해서 한숨을 쉬었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으시다면 좀 스트레스를 풀 만한 게 있으면 좋으실 텐데. 아니면 의지할 사람이라도.’

자신은 레아 황녀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황녀님께서는 의지할만한 사람이 있으실까. 키린이 레아 황녀님의 모든 걸 알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생각해봤을 때 마땅히 떠오르는 사람은 없었다. 이러다 혹시라도 레아 황녀님이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고 키린은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워졌다.

\*\*\*

“일단 하이모어 대공에겐 곧 한 번 더 저택에 방문하겠다는 답을 보냈어요. 이번에는 저택의 사용인들에게 접근해볼 생각이에요. 아무리 대공이라고 해도 사용인들 모두의 입을 철저하게 단속하진 못했을 거예요.”

“그래. 전에 그 키린이라는 아이의 가족을 보호할 수 있을 방법도 가스파르 재상이 찾는 중이야. 뭐, 말이 보호지 사실 우리 쪽 인질이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일이 끝나면 저는 키린에게 자유를 줄 거예요. 가장 노릇도 이제 안 할 수 있도록.”

키린도 그걸 원해서 하이모어 대공을 배신하고 우리 편이 되어준 거니까. 다른 건 몰라도 레아는 적어도 키린의 가족만큼은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해두고 싶었다.

“그건 가스파르 재상한테 맡기고 넌 네 안전만 생각해. 그 끔찍한 저택을 또 방문한다니….”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잖아요. 대공을 잡으려면 대공의 소굴로 들어가는 수밖에.”

“이제는 정말 그 방법밖에 없겠지.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지만.”

레아가 하이모어 대공의 계획을 직접 들어버렸으니 인제 와서 황궁으로 부르면 대공은 당연히 의심할 것이었다. 지금은 일단 대공을 안심시키고 틈을 노릴 수밖에 없었다.

“일단은 하이모어 대공의 말에 따르는 척할게요. 무조건 저를 이용해서 아빠를 없애려고 할 거니까 대공의 계획에 대한 확실한 물증을 찾은 다음에 그걸 폭로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러려면 믿을 수 있는 증인도 필요하겠지만요.”

“정말 빼도 박도 못 할 증거와 증인이 필요할 거야.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하이모어 대공은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올 테니까.”

“네. 정말 확실한 증거를 잡아볼게요.”

이번에 완전히 싹을 자르고 밟아버려야지 아니면 또 기어오를 사람이었다. 정말 해도 해도 안 되면 최후에는 하이모어 대공의 숨통을 끊어버릴 생각도 있는 레아는 확실한 증거를 잡아 완벽한 증인을 준비하리라 다짐했다.

그 얘기를 끝으로 아빠는 할 일이 있다며 방을 나갔고 자연스럽게 방 안에는 레아와 라이 경 둘만이 남게 되었다. 요즘 시녀들이 안 그래도 되는데 자리를 피해서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덕분에 나는 숨돌릴 틈이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 각박한 상황 속에서 라이 경이 없었다면 정말 어떻게 버텼을까 싶었다. 사실 옆에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어도 레아의 성격상 어떻게든 이를 바득바득 갈며 하이모어 대공을 조지려고 했을 것 같긴 했지만 말이다. 레아는 그래도 라이 경이 옆에 있어 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그의 어깨에 살포시 기댔다.

“레아 황녀님. 많이 힘드십니까?”

“아니. 힘들진 않아요. 근데 머리 터질 거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라이 경도요.”

처음에는 레아가 손만 잡아도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던 라이 경이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레아의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다. 이제는 제법 연인다워진 두 사람은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아도 사이좋게 서로를 향한 마음을 키워가고 있었다.

특히 레아는 가슴이 터질 정도로 두근거리고 미친 듯이 설레는 연애는 아니었지만 힘들 때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 주는 지금이 너무 좋았다. 그저 라이 경이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레아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이 되는 기분이었다.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잠 온다.”

“요즘 제대로 쉬지도 못하셨으니 피로가 쌓이셨을 겁니다. 저녁때까지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잠시 눈 좀 붙이셔도 됩니다.”

“응. 그럼 잠깐 눈 좀 붙일게요.”

라이 경 어깨에 기대어 느리게 눈을 깜박이던 레아는 곧 스르륵 눈을 감았다. 라이 경은 눈을 꼭 감은 레아의 머리를 살살 쓰다듬어주다 얼굴을 잠시 빤히 바라보았다.

“……….”

“……….”

작고 하얀 얼굴에 감긴 두 눈. 잘 때도 레아 황녀님은 참 사랑스러우셨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라이 경의 시선은 자꾸만 레아 황녀님의 입술로 향했다.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워 보이는데 한번 만져봐도 될까.’

평소라면 아무리 이제 황녀님의 남자친구라고 해도 감히 엄두도 못 낼 생각이었다. 물론 레아 황녀님은 사귀는 사이에 안 될 건 또 뭐냐고 하시겠지만 라이 경은 부끄러워서 절대 하지 못할 짓이었다. 하지만 지금 레아 황녀님은 주무시고 있으시니 라이 경은 조심스럽게 황녀님의 작은 입술을 살짝 만져보았다.

‘부드럽고 따듯하다.’

그 작은 입술을 계속 매만지는데도 레아 황녀님은 잠에서 깨거나 움찔거리지도 않으셨다. 그런 황녀님을 가만히 바라보다 라이 경은 갑자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는 레아 황녀님의 머리를 쓰다듬던 손으로 황녀님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감싸더니 천천히 황녀님에게로 다가갔다.

“……….”

터질 것만 같은 심장 소리만이 방안을 가득 채웠고 지금 라이 경은 엄청난 긴장감으로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라이 경은 모르고 있었지만, 레아 역시 지금 라이 경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눈치채고 있었고 바짝 긴장한 상태였다.

‘지금, 지금 뽀뽀하려는 건가?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눈을 떠야 하나? 아니면 그냥 계속 자는 척을 해야 하나? 으앙, 난 몰라!’

사실 라이 경이 조심스럽게 입술을 매만질 때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거기서 눈을 떠버리면 라이 경이 민망해할 거 같아서 계속 자는 척한 건데!

갑작스러운 상황에 레아는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고 어찌할 바를 몰라 머릿속은 뒤죽박죽 엉망이 되었다. 그러다 라이 경의 검은 머리카락이 레아의 얼굴을 간지럽힐 때쯤 에라, 모르겠다! 사귀는 사이에 뽀뽀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감고 있던 두 눈을 더 꼭 감았다. 그렇게 두 사람의 입술이 닿기 딱 5초 전이었다.

똑똑똑.

긴장감 넘치는 정적을 깨고 뜬금없이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깜짝 놀란 레아는 순간적으로 눈을 떠버렸고 바로 코앞에 있던 라이 경과 눈이 딱 마주쳐버리고 말았다.

“……….”

“……….”

잠시 돌처럼 굳어 서로를 바라보던 두 사람은 후다닥 서로에게서 떨어졌다. 자꾸만 얼굴이 빨개지고 괜히 헛기침만 계속 나오는 이 민망한 상황에서 눈치 없는 문은 한 번 더 똑똑똑 노크 소리를 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문을 두드린 사람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레아 황녀님. 저 키린이에요.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95.언제부터 나 좋아했어요.docx

깨져버린 분위기에 주변의 공기는 순식간에 어색해졌다.

레아는 라이 경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고 라이 경은 레아 황녀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런 두 사람 사이에 낀 키린은 눈을 데굴데굴 굴리며 둘의 눈치만 살폈다.

‘뭐지. 두 분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나?’

아직 두 사람이 연인이 되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키린은 설마 자신이 안 좋은 타이밍에 등장했을 거라곤 생각도 못 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실 키린의 잘못이 아니란 건 레아도 잘 알고 있었다.

“왜 하필 그 타이밍에 등장해서는.”

“네?”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도 왜 하필이면 그 중요하고도 역사적인 타이밍에 등장한 건지 레아는 아무것도 모르는 키린이 조금은 원망스러웠다.

“그런데 키린. 갑자기 무슨 일로 찾아왔어요?”

“아, 오늘 크라스 경이 저를 불렀는데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잠깐 들렸어요. 황녀님께서 언제라도 좋으니 할 얘기가 생기면 찾아오라고 하셔서….”

“그런 말을 제가 하긴 했었죠.”

“혹시 제가 레아 황녀님 바쁘신데 괜히 온 걸까요?”

“아니에요. 잘 왔어요.”

마음 같아서는 오는 건 상관없는데 왜 하필 와도 그 타이밍에 왔냐고 하고 싶었지만…. 키린의 말대로 할 이야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오라고 한 건 레아였기 때문에 웃으며 괜찮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 지금은 알콩달콩 설레는 연애보다 하이모어 대공을 아주 그냥 죽여버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

알콩달콩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연애의 맛이야 지금 당장 보지 않는다고 해도 어디로 도망가는 건 아니었다. 그리고 사실 황녀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레아는 라이 경의 발을 묶어둘 수도 있었으니 지금은 남자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연애보단 대공을 조지는 게 우선이었다.

“오늘 크라스 경이 불렀었다고 했죠? 혹시 무슨 말을 했나요?”

“네. 요즘 레아 황녀님께서는 좀 어떠신지 묻고 이번 일이 잘 끝나면 저희 아버지께 대공이라는 작위를 내리고 저한테는 황태자비라는 자리를 주겠다고 말했어요.”

“키린을 황태자비로 만들어주겠다고 했다고요?”

“아버지가 제국의 대공이 되시고 제가 황태자비가 된다면 하이모어 대공께서 황제가 되신다고 해도 지금처럼 쉽게 우리 가족을 쥐었다 폈다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정말 그 약속을 지킨다면 충분히 흔들릴만한 제안이네요.”

“하이모어 대공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리가 없겠지만요.”

이번 일이 하이모어 대공의 뜻대로 흘러가게 된다면 키린도 레아와 똑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존재 중 하나였다. 이렇게 될 것이란 건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 키린은 레아 황녀님의 편에 서게 된 것이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거짓말이든 진심이든 키린에게 그런 말을 한 걸 보니 곧 뭔가 계획이 있나 보네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레아 황녀님의 상태를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황녀님의 대답을 듣고 계획을 실행하려는 게 아닐까요?”

“으음. 대공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좋을 텐데.”

이번에 하이모어 대공의 저택을 방문해서는 하이모어 대공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좀 알아봐야 할 거 같았다. 좀 힘들 것 같긴 하지만 사용인들의 입을 털고 협조적인 척을 하며 대공에게 다가가면 뭐라도 나오지 않을까 하고 레아는 생각했다.

그 얘기 말고 다른 얘기는 특별히 한 게 없었는지 키린은 그 얘기가 끝나자 방을 나갔고 다시 레아는 라이 경과 단둘이 남게 되었다.

“……….”

“……….”

아까 갑작스러운 키린의 방문 때문에 하려던 건 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끝나버려서 둘의 사이는 묘하게 조금 어색했다. 차라리 입술이 조금이라도 닿았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아서 더 애매해진 느낌이었다.

‘이제 키린도 갔으니까 아까 하려던 걸 이어서 해야 하는 건가. 그런데 제대로 분위기도 안 잡고 그냥 막 덮쳐도 되는 건가.’

시녀들이 추천해준 로맨스 소설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와 있지 않았다. 그 책에 나와 있는 첫 뽀뽀는 모든 것이 완벽한 상황과 타이밍 속에서 이루어졌고 여자주인공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남자주인공이 모든 걸 알아서 해주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무리 라이 경처럼 멋진 남자라도 연애는 두 사람이 같이 만들어가는 거지 혼자서 모든 걸 알아서 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일단 이 어색한 분위기부터 좀 풀어보자. 뽀뽀는 둘째 치더라도 라이 경이랑 이렇게 어색하고 불편하게 있고 싶지는 않아.’

그런데 이 어색함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 라이 경이랑 어색해 본 적이 이제는 기억도 안 나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레아는 어떻게 하면 이 분위기를 평소처럼 되돌려 놓을 수 있을까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먼저 입을 연 쪽은 레아가 아닌 라이 경이었다.

“레아 황녀님. 황실 정원에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네?”

“보러 가시겠습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정원에 꽃 얘기를 하는 라이 경을 보며 레아는 잠깐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이내 왜 라이 경이 정원 얘기를 꺼냈는지 알 수 있었다.

‘나랑 똑같은 생각 하고 있었구나.’

레아도 남자친구가 처음이라 서툴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라이 경도 똑같지 않을까. 분명 정원 얘기도 라이 경은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생각해냈을 게 분명했다. 그렇게 생각하니 레아는 어쩐지 웃음이 나왔다.

“좋아요. 그럼 우리 잠깐 산책하고 와요.”

“네. 알겠습니다.”

레아의 웃는 얼굴에 라이 경은 속으로 안심을 하는 것 같았다. 아직 산책하러 나간 건 아니었지만 라이 경의 작은 한마디로 분위기는 다시 평소처럼 돌아온 것 같았다.

라이 경의 작은 한마디와 레아의 예쁜 미소로 다시 평소처럼 잔잔해서 편안하면서도 꽁냥꽁냥한 분위기로 돌아온 두 사람은 사이좋게 정원으로 나왔다. 요즘 하이모어 대공 때문에 생각할 것도 많고 바빴던지라 모르고 있었는데 정원에는 두 사람이 첫 데이트 할 때와 달리 알록달록 예쁜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다.

“예쁘다. 역시 황실 정원은 사계절 내내 아름답지만, 개인적으로 봄에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다닐로만 제국의 황실 정원은 원래 화려하고 아름답기로 유명했지만, 황녀님께서 오신 후로 황제 폐하께서 더 신경 쓰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듣고 보니 작년보다 더 풍성해지고 화려해진 거 같기도 하고.”

지금이야 황실 정원에 탐스럽게 피어난 예쁜 꽃들을 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기분이 좋았지만, 작년 황실 정원을 처음 봤었을 때만 해도 레아는 참으로 사치스러운 정원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땐 알현실에 들어가기 전이었으니까 설마 내 친부가 이 제국의 황제 폐하였고 내가 황녀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었지.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서도 이렇게 잘 적응할 줄도 몰랐고.’

그 당시 레아는 지금과 달리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도 못했었고 심지어는 상당히 싫어했었다. 아빠뿐만이 아니라 그때는 황궁의 모두를 싫어했고 우나타로 돌아가서 평범하게 살기를 바라고 또 바랐었다. 레아의 행복은 우나타와 빵집 리베르타에 있다고 생각했었으니까.

‘물론 지금도 우나타에서 보냈던 시간은 행복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제는 황궁에서도 내 행복을 찾을 수 있어.’

하나뿐인 소중한 가족인 아빠. 그리고 레아를 예뻐해 주시는 피에르 시종장님과 가스파르 재상, 소니아 부인도 있었다. 그리고 다닐로만 제국은 아니었지만, 레아는 아빠의 딸이었기 때문에 앙겔루스 제국의 그라티아 황제 폐하와 아름다운 보니타 황후 폐하, 귀여운 쌍둥이 황자님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황녀가 아니었다면 라이 경을 만날 수 없었겠지?’

처음 레아를 황궁으로 데리러 온 사람이 라이 경이었으니 레아가 반강제로 황녀로서 살게 된 시작부터 라이 경과 함께 한 셈이었다. 어쩌면 레아가 황제의 딸로 태어나 어쩔 수 없이 황녀로 살게 된 게 운명이라고 한다면 라이 경도 레아의 운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들었다.

분명 처음에는 아빠를 싫어했던 것처럼 라이 경도 별로 안 좋아했던 거 같은데. 남들이 다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가 아니냔 의심을 할 때도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했던 남자와 결국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었다니.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이었다.

‘그러고 보니 언제부터였더라. 라이 경을 좋아하게 된 게.’

자각을 좀 늦게 해서 그렇지 라이 경이 고백하기 전부터 레아는 라이 경을 좋아하고 있었던 거 같았다. 하지만 단순히 잘생겼다, 다정하다고 생각하는 걸 넘어 이성적으로 호감을 느끼고 좋아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다 보니 문득 레아는 언제부터 라이 경이 자신을 여자로 보고 좋아하기 시작했는지 궁금해졌다. 분명 라이 경도 레아에게 첫눈에 반했을 거 같지는 않은데 말이다.

“라이 경, 라이 경.”

“네. 레아 황녀님.”

“라이 경은 언제부터 나 좋아했어요?”

“네?”

“첫눈에 반했을 리는 없고 어느 순간부터 여자로 보이고 좋아하게 된 거잖아요.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나요?”

“갑자기 그런 건 왜….”

“그냥 궁금하잖아요.”

솔직히 라이 경이 어째서 다른 여자들의 고백은 다 거절했으면서 자신을 좋아하는 건지 레아는 그것도 이해가 가지 않았다. 겉보기에는 얼굴도 예쁘고 황녀라는 높은 지위에 있긴 했지만 라이 경은 레아의 복잡한 출생의 비밀까지 다 알고 있었다. 그것 외에도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면서도 자신과 사귈 수 있다는 게 레아는 신기하기도 했다.

그래서 물어본 건데 갑작스러운 레아의 질문이 생각해본 적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당황한 건지 라이 경은 대답이 없었다. 어쩌면 레아처럼 라이 경도 언제부터였는지 그 순간이 생각나지 않는 걸지도 몰랐다.

“생각 안 나면 얘기 안 해줘도 돼요. 사실은 나도 생각 안 나서 물어본 거예요.”

“레아 황녀님께서는 기억 안 나십니까?”

“으음. 아마 라이 경이 이번 일 도와주면서 많이 의지하고 기대면서 마음이 생긴 거 같은데 정확하게 이때 반했다!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어느 순간 퐁당 빠져버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며든 거 같아요. 라이 경은 나한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어서 정신 차리고 보니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었다고 해야 하나. 자각을 못 해서 그랬던 거 같다며 사랑스럽게 웃는 레아를 보며 라이 경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마 첫 파티 때부터.”

“네?”

“아마 레아 황녀님께서 처음으로 파티에 참석하셨던 그때부터. 한참 동안 자각을 못 했었지만, 그때 레아 황녀님께 반했던 거 같습니다.”

“첫 파티라면…라이 경이 떨지 말라고 손잡아줬던 그때요?”

그때 레아는 라이 경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 파티에서는 예의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었던 위즈덤 부인에게 눈알을 뽑네, 혀를 자르네 했던 거 같은데. 거기다 위즈덤 부인의 머리에 토마토주스도 부어버렸던 거 같은데 그 파티에서 반했다고 하니 레아는 순간 자신이 잘못 들은 건가 싶었다.

하지만 라이 경은 그때 레아에게 반했다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고 반한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기는 했지만 무슨 답이 돌아올지 두려워서 레아는 그냥 묻지 않기로 했다.

‘언제 어떤 모습에 반했는지 뭐가 중요하겠어. 이 남자가 지금 내 옆에 있고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지.’

때론 모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거라며 레아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옆에 있는 라이 경을 보며 웃었다. 라이 경은 자신을 보며 웃는 레아 황녀님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황녀님의 이마에 살며시 입을 맞추었다.

“누가 보고 있으려면 어쩌려고.”

“지금 정원에 아무도 없어서 괜찮습니다.”

“진짜…….”

갑자기 이마에 뽀뽀한 게 부끄러워서 괜히 눈을 피하며 툴툴거리는 레아에게 라이 경은 장난치듯이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라이 경의 귀가 빨개져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레아는 수줍게 웃었다.

레아는 라이 경과 함께라서 행복했고 라이 경도 레아 황녀님과 함께라서 행복했다. 그런 두 사람에게는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소중한 건 없었다.

\*\*\*

“크라스 경. 프레디 소공자님이 아까 잠시 왔다 가셨어요.”

“프레디 그 녀석이?”

“네. 그리고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훈련 중 잠시 쉬는 시간. 수건으로 땀을 닦고 있는 크라스 경에게 한 시녀가 다가왔다. 그리곤 프레디 소공자의 이름을 꺼내며 쪽지 한 장을 건네주곤 별다른 말 없이 고개를 꾸벅 숙인 후 돌아갔다. 크라스 경은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시녀가 준 쪽지를 펼쳐보았다.

[할 얘기가 있어. 집에서 봐.]

특별한 건 아니었지만 뭔가 의미심장한 내용이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프레디 소공자가 이런 쪽지를 보냈다니 크라스 경은 얼굴을 찌푸렸다.

“할 얘기가 있으면 그냥 하고 갈 것이지 뭘 이런 걸 보내고 있어.”

어차피 무슨 얘기를 해도 들어줄 마음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크라스 경도 마침 프레디 소공자를 국서로 만들기 위해 할 얘기가 있었으니 특별히 오늘은 소공자의 말을 들어주기로 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지금은 이 녀석을 이용하다 쓸모가 없어지면 버려야 하니까 조금은 비위를 맞춰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갑자기 프레디 소공자가 마음을 바꿔 레아 황녀의 편에 선다면 그건 좀 위험한 상황이었다. 아무리 하이모어 대공과 크라스 경의 사랑을 원하고 목말라 했던 프레디 소공자라도 레아 황녀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으니 조심할 필요가 있었다.

‘내 계획을 실행하는 날이 올 때까지 꼭 필요한 순간이 아니라면 프레디가 레아 황녀를 직접 만나는 일은 없게 해야겠어.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할 수는 없지.’

과거 레그마인 황제를 죽이기 위해 아리샤라는 여자를 이용했지만 하이모어 대공의 예상과 달리 두 사람은 사랑에 빠져버렸고 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라는 걸 얼마 전에 알아낸 크라스 경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번 기회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 두 명을 한 번에 없애버릴 것이었다. 크라스 경은 그런 생각을 하며 훈련을 서둘러 끝낸 후 저택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96.날 사랑하지 않는 그대에게.docx

오늘 프레디 소공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꾀려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에게 그것도 자신의 형에게 할 얘기가 있다는 쪽지를 보냈다. 그리고 좀 긴장된 마음으로 크라스 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남자를 기다리면서 떨리고 긴장이 될 줄이야. 꼭 레아 황녀님께 고백했던 날 황녀님을 기다렸을 때처럼 떨린다고 하면 내가 비정상인 걸까.’

그때는 레아 황녀님께 고백도 보기 좋게 차이고 뼈 맞는 말까지 들었었는데. 그래도 그 덕에 좀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뒤늦게라도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레아 황녀님을 가지고 싶었지만 동시에 가질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뒤엉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라이 경 옆에서 행복하게 웃는 레아 황녀님의 모습을 보고 나서야 정리가 된 것이었다.

레아 황녀님 덕분에 정신을 차렸으니 프레디 소공자는 이번만큼은 레아 황녀님께 도움이 될 생각이었다. 그러고 보니 소공자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건 이번이 처음인 거 같았다. 그리고 아마 마지막이 될 것이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그 두 사람이라니. 다행인 거 같으면서도 기분이 묘하네.”

레아 황녀님께서 프레디 소공자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알려주었다면 라이 경은 그런 못난 소공자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었었다. 그리고 정신 차릴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레아 황녀님보단 라이 경 덕분일지도 몰랐다. 라이 경이 있었기에 레아 황녀님께서 행복한 웃음을 지으실 수 있었으니 말이다.

‘결국, 난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지만 라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레아 황녀님만은 꼭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길.’

스텔라를 지켜주지 못했고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했던 자신과 달리 라이 경은 꼭 지금처럼 레아 황녀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길 바랐다. 주제넘은 바람이었지만 그게 프레디 소공자의 마지막 바람이었다.

그런데 그때 똑똑똑 노크하는 소리도 없이 문이 벌컥 열렸고 기다리던 크라스 경이 방안으로 들어왔다.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기는 했지만, 슬슬 올 때가 됐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프레디 소공자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

“할 얘기가 있으면 그냥 할 것이지 시녀한테 부탁해서 쪽지라니.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날 집까지 부른 거지?”

“다른 사람이 들으면 곤란한 얘기.”

“레아 황녀에 관한 얘기라면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을 텐데.”

“그 말에 난 그러겠다고 대답한 적 없어. 애초에 선택권을 줄 생각은 없었겠지만 내가 협조하겠다고 확답을 주길 형은 바라고 있잖아. 그래서 훈련도 일찍 끝내고 내 부탁대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슨 말을 해도 아무런 반응 없이 시들어서 죽어가던 프레디 소공자가 아니었다. 다시 살아난 모습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방해가 될지는 아직 모르는 것이었기에 크라스 경은 얼굴을 찌푸렸다. 그런 크라스 경에게 프레디 소공자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를 레아 황녀님과 결혼시켜서 국서로 만들겠다니. 도대체 뭘 어떻게 할 생각이지?”

“결국, 할 얘기라는 게 그건가.”

“형은 모르겠지만 난 이미 레아 황녀님께 고백했다가 확실하게 차였어. 그래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역시 넌 정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구나. 쓸모없는 녀석.”

어차피 키린을 통해 황궁에 거짓 소문을 내봐도 딱히 효과가 없는 걸 보아 레아 황녀는 프레디 소공자에게 조금의 관심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아예 관심이 전혀 없는 것과 한번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건 달랐다.

‘그런데 저 녀석이 고백했다가 차이다니. 이건 레아 황녀가 다른 여자들과 다른 건지 아니면 저 녀석이 다른 여자들과 레아 황녀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군.’

과거 프레디 소공자가 일부러 크라스 경이 보는 앞에서 레아 황녀에게 카틀레야를 선물했을 때부터 소공자가 진심이라는 건 어느 정도 눈치챌 수 있었다. 스텔라를 보낸 이후로 프레디 소공자가 진심을 품은 적은 처음이라 크라스 경은 일부러 아버지의 이름으로 황실에 프레디 소공자의 혼담을 넣기도 했었다.

그때는 그냥 프레디 소공자를 괴롭히고 싶고 곤란하게 만들고 싶어서 혼담을 넣은 것이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그때 약혼이라도 시킬 걸 그랬다고 크라스 경은 잠시 생각했다.

“일이 좀 귀찮아지긴 하겠지만 내 계획의 차질이 생길 정도는 아니니까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어떻게 할 생각인데? 레아 황녀님 성격에 한 번 찼던 사람과 결혼을 하실 리가 없다는 것 정도는 형도 잘 알고 있잖아. 그리고 황녀님은 이미….”

레아 황녀님께는 이미 소중한 사람이 생겨버렸다. 프레디 소공자는 그렇게 말하려다 그 말을 그대로 삼켰다. 레아 황녀님과 라이 경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편이 좋을 거 같았다.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뭘 어떻게 할지 네가 미리 알 필요는 없어. 그 여자가 너랑 결혼할 수밖에 없게 만들 거니까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나와 결혼할 수밖에 없게….”

크라스 경의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든 거북한 생각에 프레디 소공자는 얼굴을 찌푸릴 뻔했다. 과거에 저질렀던 짓과 똑같은 짓을 저지르게 할 것인가 잠시 생각했지만 설마 그럴 리가 있겠나 싶었다. 그래도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사랑을 듬뿍 받는 무남독녀 외동딸인 제국의 황녀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리가 없었다.

아무리 잔인하고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은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는 형이라고 해도 레아 황녀님께까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프레디 소공자는 믿었다. 하지만 크라스 경은 그런 동생의 믿음을 철저하게 배신했다.

“황족이 둘뿐인 이 시점에서 레아 황녀가 네 아이를 가진다면 어쩔 수 없이 널 국서로 만들겠지. 그만큼 지금 다닐로만 제국의 황실에는 새 생명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그런……!”

“왜? 어차피 넌 레아 황녀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으니 그 여자가 네 아이를 가지고 네 아내가 된다는 건데 그럼 너한테도 좋은 일이잖아?”

“……….”

도저히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생각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크라스 경을 보며 프레디 소공자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과거 크라스 경이 스텔라에게 했던 짓을 프레디 소공자에게 하라는 게 믿어지지 않아 소공자는 속으로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크라스 경은 해서는 안 될 말을 입에 담았다.

“그런 식으로 아이를 가지고 상대를 곤란하게 하는 건 네 어미도 했던 짓이잖다. 너도 그렇게 생긴 생명이면서 못 하겠다는 건 웃기지 않아?”

“난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태어난 게……!”

“네 잘못은 아닐지도 모르지. 하지만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생명이었어. 그러니 너도 떳떳하지 못했던 거 아니었나?”

“……….”

확실히 크라스 경의 말대로 어디 가서 당당하게 떠들고 다닐만한 출생의 비밀은 아니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생명이었다는 말에 너무나 분했지만 여기서 분노해봤자 프레디 소공자에게 좋을 건 하나도 없었다. 소공자는 그렇게 생각하며 입술을 꾹 깨물고 터지려는 감정을 꾹 참았다.

‘참자. 그게 레아 황녀님을 위한 일이고 지금은 레아 황녀님을 위해 희생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야.’

그리고 아마 프레디 소공자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일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며 소공자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감추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인제 와서 못할 것도 없겠지. 레아 황녀님만 내 옆에 있어 주신다면.”

“어차피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 결론만이 중요하지. 아버지처럼 완벽함에만 집착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일 뿐이야.”

이번 기회에 황족을 싹 정리한 다음에 하이모어 대공이 황제 자리에 오르면 처음에는 여러 가지 혼란과 함께 제국이 시끄러울 것이었다. 하지만 곧 시간이 지나고 안정기에 접어들면 크라스 경은 자신의 친부까지도 아무도 모르게 정리할 생각이었다.

‘지금까지 완벽함에 집착하는 아버지를 이용해오긴 했지만 앞으로 내가 할 일에 그런 아버지는 방해만 될 뿐이야. 차라리 없어져 주시는 게 나를 위한 일이라고.’

그리고 지금 크라스 경과 마주하고 있는 프레디 소공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쓸모없는 녀석이었다. 아주 어린 시절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크라스 경은 언제나 자신과 비교되고 축복받지 못할 태생 주제에 자신의 것을 당연하게 뺏어가는 프레디 소공자가 싫었다.

평범하게 생긴 자신과 달리 잘생긴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럭저럭 제법 똑똑한 편인 자신과 달리 천재에 가까울 정도로 머리가 좋다는 점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미워하고 싫어하는 정도였지 혐오와 증오에 가까울 정도로 싫어하는 건 아니었다.

스텔라라는 여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이복형제 사이가 이렇게까지 엉망은 아니었다.

\*\*\*

그 누구도 기억 못 하고 있었지만 사실 이복형제가 정말 정말 아주 어렸던 시절 크라스는 프레디를 나름대로 좋아하는 편이었다. 비록 생김새는 달랐지만 짙은 파란색 눈에 은빛 머리카락을 가진 프레디를 보며 크라스는 생각했다.

‘내 동생이야. 난 저 아이의 형이고.’

어머니는 다를지라도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동생을 처음에는 형제라는 이유로 아꼈지만, 곧 형제라는 이유로 크라스는 프레디와 늘 비교를 당해야 했다.

“프레디 소공자님은 크면 클수록 더 잘생겨지시는 거 같지 않아? 친모를 빼닮아서 점점 더 멋있어지시는 거 같아.”

“거기다 이번에 아카데미에 수석으로 입학하셨다면서? 진짜 대단하시다. 공부도 잘하고.”

“사생아만 아니었으면 대공님께서 원하시는 완벽한 아들이 되셨을 텐데. 그놈의 태생 때문에….”

“사실 프레디 소공자님이 크라스 소공자님보다 더 다음 대공 자리에 어울리시는 거 아닐까? 대공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잘생겼지 공부 잘하지. 사생아라는 게 유일한 흠이네. 나머지는 다 완벽한데.”

사생아라는 점만 빼면 잘나도 너무 잘난 이복동생 때문에 크라스는 항상 부족한 아이로 자라야만 했다. 공부를 코피 터지도록 열심히 해도 수석인 동생을 절대 이길 수 없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크라스는 모든 면에서 프레디를 이길 수 없었다.

그런 환경에서 비교의 시선들과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크라스는 점점 프레디를 싫어하게 되고 아버지가 동생에게 하는 말을 똑같이 하게 되었다.

“프레디.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생명이었어.”

너만 없었어도 내가 이런 취급 당할 일은 없었을 텐데.

그때부터 크라스는 프레디를 미워하고 괴롭혔던 거 같았다. 물건을 뺐고 툭하면 상처가 될 말을 하고는 했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는 지금처럼 서로를 끔찍하다고 생각할 정도는 아니었다. 두 사람의 사이가 본격적으로 틀어지기 시작한 건 모두 스텔라가 등장한 후부터였다.

스텔라가 프레디가 아닌 라이 경을 좋아하고 있었을 때도 사실 크라스는 오랜 시간 스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예쁘다.’

첫사랑이었다.

처음에 딱 봤을 때부터 눈에 확 들어오는 미인은 아니었지만 수수한 작은 꽃처럼 보면 볼수록 괜찮은 여자였던 스텔라를 크라스는 아주 오래전부터 짝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짝사랑은 크라스가 뭘 해보기도 전에 짝사랑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크라스가 오랫동안 아무도 모르게 홀로 조용히 마음속으로 품고 있었던 스텔라는 다른 사람도 아닌 하필이면 프레디와 연애를 하기 시작했다. 그 소문을 처음 들었을 때 크라스의 심경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내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왜 하필이면……. 어째서….’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인정할 수가 없었다. 아니, 사실은 그 이유를 굳이 생각해내려고 하지 않아도 알 거 같아서 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다.

프레디는 크라스보다 얼굴도 잘생겼고 공부도 잘했으며 모든 면에서 크라스보다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러니 스텔라도 뒤에서 조용히 짝사랑만 하던 크라스보다 프레디에게 끌리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당연한 걸 상대가 프레디이기 때문에 크라스는 인정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내가 내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서 그런 걸지도 몰라. 스텔라도 내 마음을 알게 된다면 날 좋아하게 될 거야.’

이미 스텔라는 프레디와 사귀고 있는데 크라스가 인제 와서 고백한다고 해도 프레디와 헤어지고 크라스를 좋아하게 될 리가 없었다. 하지만 크라스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으로 늦은 밤 스텔라를 기숙사로 불러내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좋아한다고. 가슴이 터질 정도로 오래전부터 널 좋아했다고. 프레디보다 내가 먼저 널 좋아했다고.

크라스의 진심 어린 고백에 당연히 스텔라는 미안하다며 거절의 뜻을 밝혔다. 그리고 이 고백은 못 들은 거로 하겠다는 말에 크라스는 순간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던 것 같았다. 어쩌면 그때 그 감정은 분노였을지도 몰랐다.

“어째서, 어째서 내가 아니라 프레디인 거지? 어째서?”

“……….”

“내가 먼저 널 좋아했는데. 그 녀석보다 내가 널 더 좋아하고 있는데 어째서 너는…!”

“미안해. 크라스.”

“어째서…….”

크라스가 원하고 듣고 싶었던 말은 미안하다는 사과가 아니었다. 나도 사실은 널 좋아한다는 말이었는데 끝내 스텔라가 크라스에게 해준 말은 미안하다는 사과뿐이었다. 그런 스텔라를 보며 크라스는 끝내 자신은 사생아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생명인 프레디보다 못한 존재라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고 말았다.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면…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겠어.”

그 말을 끝으로 크라스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곧 공포에 질린 스텔라의 비명이 울려 퍼졌지만 크라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이렇게 하면 스텔라는 프레디의 옆이 아닌 자신의 옆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생각뿐이었다.

결국, 스텔라는 크라스의 바람대로 그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프레디의 옆에 있을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크라스의 예상과 달리 스텔라는 누군가의 옆이 아닌 아무도 갈 수 없는 먼 곳으로 떠나버렸다. 그곳으로 떠나는 것만이 스텔라가 크라스를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형제의 첫사랑은 비극적인 결말을 맺었지만 하이모어 대공 덕분에 큰 소란이 일어나진 않았다.

그렇게 허무하게 그 일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다. 정말로 허무하게 그렇게 끝이었다.

97.누군가의 배신.docx

“그래서 하이모어 대공에게 답은 왔나요?”

“아니요. 아직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분명 내 답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요.”

“혹시 의심하는 걸까요? 원체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니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모르죠. 우린 미끼를 던졌으니 입질을 기다릴 수밖에.”

왠지 오랜만인 거 같은 다리아 영애와 함께 차를 마시며 레아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하이모어 대공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아무런 답도 없고 조용하니 더 불안하고 신경 쓰이는 느낌이라 레아는 요즘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그래도 지금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마음 같아서는 대공의 저택으로 쳐들어가서 다 엎어버리고 싶지만.’

조금은 답답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받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도 가끔 너무 짜증이 날 때는 라이 경의 품에 안겨서 하이모어 대공 죽여버리고 싶다고 칭얼거리고 나면 레아는 스트레스가 조금 풀리는 기분이었다.

“그래도 너무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하이모어 대공이 뭘 꾸미려고 하기 전까지는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라이 경이랑 제대로 된 데이트도 하고 즐기시는 건 어떠세요? 아직 연애 초반인데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못 해보신 게 많으실 거 같은데.”

“사실 라이 경이랑 사귀기 전이랑 후가 막 그렇게 달라진 거 같지는 않아요. 처음 황궁에 왔을 때부터 늘 함께였으니까요.”

굳이 달라진 게 있다면 가끔 아무도 모르게 손을 잡는다거나 레아가 라이 경의 품에 파고드는 것 정도? 그것 말고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거 같았다.

“데이트한다고 해도 황실 정원을 산책하는 게 전부인데 그건 서로 아무 감정이 없을 때도 자주 했거든요. 그렇다고 황궁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서요.”

“확실히 레아 황녀님은 황금빛 머리카락 때문에 바로 시선이 집중되니까요. 거기다 아직 비밀연애라고 하셨죠?”

“들키기는 엄청 들켰는데 그래도 다행히 아빠랑 피에르 시종장님은 아직 모르고 있으세요.”

“그러면 더 데이트하시기 힘드시겠네요. 다른 사람한테 들키면 어떻게 수습할 수 있다고 해도 부모님은….”

“수습이고 뭐고 아빠한테 들키는 순간 라이 경부터 보호해야겠죠.”

라이 경과 사귄다는 걸 영원히 숨길 수도 없고 언젠가는 아빠도 알게 될 텐데 그것만 생각하면 레아는 속이 갑갑해졌다. 무엇을 상상해도 최악의 상황이 될 거 같아서 레아는 정말 진심으로 라이 경이 걱정이었다.

‘피에르 시종장님은 우리 둘이 사귄다고 하면 뭐라고 하실지 상상이 안 돼서 걱정이라면 우리 아빠는 뭐라고 하실지 너무 상상이 잘 돼서 걱정이지.’

그래도 피할 수는 없는 일이니 그때가 온다면 꼭 아빠로부터 라이 경을 지키겠노라 레아는 다짐했다. 내 남자는 내가 지킨다! 라고 속으로 외치며 레아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다리아 영애는 요즘 좀 어때요? 앤드류 경이랑 영애도 비밀연애 중이잖아요.”

“요즘 앤드류 경이 건강이 좀 안 좋아져서 호위와 아카데미를 쉬고 있어서 얼굴을 전혀 못 보고 편지만 주고받고 있어요. 앤드류 경한테 편지가 올 때마다 전 아무도 못 보게 그 편지를 숨겨버리지만요.”

“다른 사람한테 연애편지를 들키는 게 부끄러워서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자꾸 편지에 사랑하는 다리아라고 적어서 보내서요. 그러다 누가 그걸 봐버려서 비밀연애가 들킬까 봐 좀 걱정이에요.”

“하하. 확실히 누가 보면 부끄럽긴 하겠네요. 그런데 앤드류 경은 다리아 영애를 아가씨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름으로 부르나 봐요?”

“둘이 있을 때는 그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사귀는 사이니까 저도 데이트할 때나 아카데미에서는 이름으로 부르는 편이에요.”

“흐음. 그렇구나.”

호위기사와 모시는 아가씨이기도 하지만 역시 연인 사이니까 특별한 애칭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이름 정도는 가끔 부르는 모양이었다. 라이 경과 사귀기 시작하면서 호칭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 레아는 다리아 영애가 조금 부러워졌다.

라이 경이 레아 황녀님이라고 불러주는 게 싫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황녀님이란 호칭을 빼고 이름만 불러주는 걸 들어보고 싶기도 했다.

‘하지만 불러줄 리가 없지. 연인이 되어도 황녀님이라는 사실은 여전하니까.’

레아가 황궁에 오고 억지로 황녀가 되었을 때 황녀님이라는 호칭이 너무 어색해서 그렇게 안 부르면 안 되냐고 했을 때 라이 경은 아주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했었다. 그랬던 사람이 연인 사이가 되었다고 해도 이름으로 불러줄 리가 없었다. 레아가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해도 라이 경은 아무리 그래도 황녀님을 이름으로 부를 순 없다고 할 게 분명했다.

‘그건 좀 아쉽네. 라이 경이 레아라고 부르는 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근데 라이 경이 레아를 이름으로 부르면 레아는 라이 경에게 오빠라고 불러야 하는 건가 하고 작게 웃었다. 어쩐지 평범한 연인처럼 그런다는 게 잘 상상이 가지 않았다.

“다음에 앤드류 경이 다시 건강해지면 넷이서 같이 차를 마셔도 재밌을 거 같아요.”

“저도 그러고 싶긴 하지만 라이 경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을 거 같은데요?”

“사실 앤드류 경도요. 아마 저희 둘만 말할 거 같네요. 으음. 더블데이트도 해보고 싶었는데 무리겠죠?”

“하하. 그럼 나중에 같이 황실 정원 산책해요.”

물론 황실 정원을 산책한다고 해도 라이 경은 여전히 아무런 말 없이 입을 꾹 다물고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있겠지만 말이다. 따듯한 눈길로 다정하게 웃는 모습은 오직 레아만이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

‘분명 앤드류 경도 다리아 영애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겠지?’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레아와 다리아 영애 역시 라이 경과 앤드류 경만이 아는 모습이 있을 것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특별한 모습은 단둘일 때만 나오는 것이라 다른 사람은 알고 싶어도 알 길이 없는 것이었다.

레아는 어쩌면 라이 경도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라이 경만이 알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고 생각하며 레아는 살짝 웃었다.

\*\*\*

“라이 경. 앤드류 경은 다리아 영애랑 단둘이 있을 때는 이름으로만 부른대요. 다리아! 하고.”

“그렇습니까?”

“응. 보통 연인들은 사귀기 시작하면 단둘이 있을 때는 예의를 갖춰서 부르지는 않나 봐요.”

“그렇군요.”

“사실 계속 예의를 갖춰서 부르는 것도 좀 딱딱한 거 같긴 해요. 거리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녁 식사가 끝이 나고 잠자리에 들기 전 서재에서 데이트를 즐기던 중 레아는 라이 경에게 슬쩍 낮에 다리아 영애와 했던 호칭 얘기를 꺼내 보았다. 별로 기대하고 꺼낸 말은 아니었지만 라이 경의 반응은 역시나 레아가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하지만 이름이나 애칭으로 부르다 실수로 다른 사람 앞에서 불러버리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야…그렇긴 하죠.”

“그래도 다리아 영애와 앤드류 경은 동갑내기에 아카데미를 같이 다니고 있으니 어떻게 넘어간다고 해도.”

“우리는 서로 이름 부르는 거 누가 들었다간 큰일 나겠죠. 특히 아빠 귀에 들어가면….”

그건 레아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일단 최대한 늦게, 적어도 평생 이 사람이라는 확신이 선 다음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도 아빠가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레아는 걱정이었다. 거기다 지금은 하이모어 대공의 일도 있으니…. 들키면 정말 꿈도 희망도 없는 것이었다.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다정한 목소리로 레아라고 불러주면 좋을 거 같은데. 안 그래도 황녀가 된 이후로 이름으로 불러주는 사람은 아빠뿐이라서 레아는 조금 아쉬웠다. 하지만 그렇다고 라이 경이 왜 저렇게 말하는지는 알고 있었기에 레아는 이름으로 불러 달라는 말은 굳이 하지 않았다.

‘막상 라이 경이 날 레아라고 불러버리면 나도 왠지 라이 경이라고 부르면 안 될 거 같단 말이야.’

그렇다고 4살이나 연상인 라이 경에게 라이야! 하고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오빠라는 말은 죽었다 깨어나도 입 밖으로 나올 것 같지 않았다. 그냥 뭔가 좀 부끄러운 느낌이었다.

“라이 경.”

“네. 레아 황녀님.”

그리고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레아는 이 편안한 느낌이 제일 좋았다. 레아는 이제 라이 경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옆에 있어 주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애인을 이름으로 부르든 애칭으로 부르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하고 레아는 그렇게 얼렁뚱땅 결론을 내버리고 말았다.

그냥 지금처럼 라이 경이 옆에 있어 주고 머리 아픈 일이 잘 끝나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하며 레아는 예쁘게 방긋 웃었다. 그리고 그런 레아를 보며 라이 경은 귀엽다는 듯이 아주 작게 웃었다.

지금 이 순간 레아와 라이 경은 행복만으로 꾹꾹 눌러 담아 빈틈이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행복함만큼이나 힘든 시간이 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 꿈도 꾸지 않고 푹 잘 자고 있던 레아는 무언가 똑…똑…하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부스스 잠에서 깼다.

‘뭐지. 이 시간에 누가 창문으로 찾아왔을 리는 없는데. 그렇다고 바람 소리도 아닌 거 같고.’

꼭 누가 직접 창문에 노크하는 것처럼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자 레아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가보았다. 하지만 커다란 창문 밖으로는 사람 머리카락 한 올도 보이지 않았고 창문을 열어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요즘 하이모어 대공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답을 기다리면서 신경을 좀 쓰긴 했지만 라이 경 덕분에 스트레스가 쌓인다고는 생각 안 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가 쌓인 건가 하고 다시 창문을 닫고 레아는 침대로 돌아가 잠을 자려고 했다. 하지만….

“………!”

레아가 창문을 닫고 뒤로 돌아선 순간 누군가 뒤에서 레아의 입을 틀어막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꽉 붙잡아버렸다.

‘누, 누구지? 아니 그런 건 둘째치고 어떻게 들어온 거지?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레아는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입이 틀어막혀서 큰 소리를 낼 수 없었고 발버둥도 쳐봤지만, 완력으로는 그 사람을 이길 수 없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덜컥 겁이 난 레아는 이를 악물고 더 격하게 발버둥 치며 반항을 했다.

조금만, 조금만 더. 자신의 몸을 압박하고 있는 이 팔에서 벗어나면 모든 마력을 총동원해서 이 자식을 죽여버리리라.

레아는 그렇게 생각하며 온 힘을 다해 자신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다. 레아가 겁을 먹고도 반항을 멈추지 않자 그 사람도 당황한 듯 더 강한 힘으로 레아의 몸을 압박했다.

‘무슨 계집애가 힘이 이렇게 센 거야? 태어날 때부터 곱게 자란 애가 아니란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이거 생각보다 성가시게 됐군.’

다닐로만 제국의 하나뿐인 황녀는 황제의 넘치는 사랑을 받는 작고 어린 소녀였다. 생긴 것과 달리 성격이 만만치 않고 평민들과 함께 성장했다고는 해도 그래 봤자 또래보다 키도 작고 검을 잡을 줄도 모르는 소녀였다.

설마 그 소녀가 어릴 때부터 밀가루 포대를 옮기고 힘이 많이 들어가는 반죽도 혼자서 했다는 걸 알 리가 없었다.

‘이렇게 된다면 어쩔 수 없지. 나도 여자한테 이런 방법은 별로 안 쓰고 싶지만….’

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붙잡고 있던 황녀를 놓칠 것만 같았다. 썩 내키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 사람은 레아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고 목이 졸리자 레아는 잠깐은 더 격하게 발버둥 쳤지만 이내 곧 기절한 듯 얌전해졌다.

“…나도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고.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

“당연히 이해해줄 리가 없겠지만.”

그 사람은 기절한 레아를 보며 작게 중얼거렸지만, 레아는 그 사람의 말에 대답해줄 수가 없었다. 그 사람은 참 가여운 운명이라고 한숨을 쉬며 레아를 안아 들고 창문으로 빠져나갔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가자마자 방문이 열리더니 시녀 다섯 정도가 안으로 들어왔다.

평소 레아와 웃고 떠들고 친구처럼 잘 지냈던 시녀들은 레아가 없어졌음에도 놀라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활짝 열린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다. 그리고는 침입으로 어수선해진 방안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기 시작했다.

“레아 황녀님….”

그러다 다섯 중 한 시녀는 입술을 꾹 깨물고 죄책감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다. 그 모습에 다른 시녀들도 마음이 무거워졌는지 주먹을 꽉 쥐었고 한 명은 울고 있는 그 시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네 탓이 아니야.”

“하지만…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울지 않아도 돼.”

“하지만 우리 때문에 레아 황녀님은….”

“……….”

이제부터 레아 황녀님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방 안에 있는 시녀들은 전부 알고 있었다. 괜찮다고 우리의 탓도 잘못도 아니라고 말하고는 있었지만 사실 자신들의 잘못이 아주 크다는 것 또한 매우 잘 알고 있었다. 그 사실에 울기도 하고 마음이 무겁기도 했지만 사실 시녀들은 이런 짓을 하게 된 걸 후회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성공하고 싶잖아”

다른 이유는 없었다. 정말 간단한 이유였지만 차마 거절할 수 없었던 건 모두 성공이라는 달콤함 하나 때문이었다.

“다들 성공하고 싶어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던 거잖아. 인제 와서 죄책감에 마음이 무거워져서 레아 황녀님을 걱정하고 약해져서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

“……….”

“어차피 역사는…승자에 의해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약하게 굴지 마. 마음 강하게 먹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레아 황녀님을 그렇게나 좋아했으면서 저런 말을 하다니. 그 말이 너무나도 잔인하게 들려왔지만, 그 잔인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기에 다른 시녀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였다.

그렇게 시녀들은 아무런 말 없이 조용히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곧 방은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깔끔해졌다. 머리카락 한 올도 안 남을 정도로 완벽하게 청소를 마친 시녀들은 자신들이 왔다 간 흔적도 남기지 않고 조용히 방을 나갔다.

그렇게 방 안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고 사라지게 되었다.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98.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docx

어느 날 갑자기 레아는 누군가에게 납치를 당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지난 1년 동안 황녀로 살면서 무례한 사람은 많이 만났어도 이렇게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납치를 당한 적은 없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이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었고 레아는 다소 허무하게 납치당한 것이었다.

자신의 방에 침입한 낯선 사람에 의해 의식을 잃고 쓰러진 레아는 다시 눈을 뜨긴 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이곳이 어딘지 알 수가 없었다.

‘거기다 몸은 의자 같은데 묶여있고 손도 뒤로 묶여있어. 입에도 재갈이 물려 있어서 소리도 못 지르겠어. 최악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레아는 좌절했지만, 아직 포기하기에는 일렀다. 레아는 일단 침착해지려고 노력하며 최대한 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도대체 누가 이런 방법을 써서 나를 납치한 거지?’

사실 굳이 머리를 굴리지 않아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기는 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사람은 레아를 납치해서 이런 짓을 할 이유가 없었다. 그렇기에 레아는 지금 이 상황이 답답하기도 했지만 무섭기도 했다.

‘난 하이모어 대공에게 같은 편이 되겠다는 답을 보냈어. 그럼 대공이 나한테 이런 짓을 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다면 누가 이런 짓을 했단 말인가. 레아를 안 좋게 보고 어쩌면 앙심을 품은 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이런 짓을 할 사람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레아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이쪽으로 뚜벅뚜벅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레아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곧 발소리가 멈추더니 이쪽으로 걸어오던 사람은 가만히 서서 레아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잠시 아무 말 없이 레아를 보기만 하던 그 사람은 천천히 입을 열어 말했다.

“드디어…다시 만나게 되었군요. 레아 황녀님.”

“……….”

“당신이 우리 가족을 밑바닥으로 떨어뜨린 후로 단 하루도 그 재수 없는 금발을 잊은 적이 없어요. 오늘 같은 날을 늘 기다려왔죠.”

“………!”

“아무래도 내가 누군지 눈치챈 거 같군요.”

처음에는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목소리긴 했지만 정확하게 상대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러다 가족을 밑바닥으로 떨어뜨렸다는 말에 레아는 자신 앞에 있는 상대가 누군지 알 수 있었다.

‘위즈덤 부인…!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한때는 공작부인으로 오만방자한 삶을 살며 남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걸 즐기고 살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레아의 첫 파티 때 주제도 모르고 레아에게 무례하게 굴다 모든 걸 잃은 사람이었다.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뒤로는 자연스럽게 잊고 있던 사람의 등장에 레아는 당황스러웠다.

이제는 돈도 지위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제국의 황녀를 납치할 수 있었던 건지 의문이었다. 레아가 당황하고 있을 거란 걸 알고 있는 위즈덤 부인은 재미있다는 듯 후후후하고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물론 나 혼자서는 당신에게 복수할 수 없었겠죠. 이게 다 그동안 당신이 황제의 딸이란 이유로 남의 인생을 짓밟은 것에 대한 벌을 받는 겁니다. 그것도 당신이 하찮게 보고 발밑의 벌레처럼 밟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맹세코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레아는 단 한 번도 누군가를 발밑의 벌레라고 생각해본 적 없었다. 그리고 위즈덤 부인의 인생을 짓밟은 적도 없었다.

‘난 나에게 무례하게 구는 사람에게 그에 마땅한 벌을 주었을 뿐이야. 그저 내게 날아오는 불똥을 치웠을 뿐이라고!’

그리고 애초에 레아가 벌을 주었어도 위즈덤 부인에게 내린 벌은 그동안 부인이 행실만 똑바로 했어도 충분히 다시 일어날 수 있을 정도였다. 본인이 잘못 살아와서 망한 인생을 왜 남 탓으로 돌리는 건지 레아는 열이 받았다. 하지만 열 받는다고 해서 지금 뭘 어떻게 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손만 조금만 더 자유로웠어도 다 조져버리는 건데. 레아가 밧줄로 꽁꽁 묶여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두 손을 원망하고 있을 그때였다. 또 다른 발소리 하나가 이쪽으로 걸어왔다.

“위즈덤 부인.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죠?”

“그냥 잠시 옛 생각이 나서 와봤을 뿐이에요. 아직 아무 짓도 하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마요.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여긴 절대 들어오시지 말라고 분명 얘기했을 텐데요.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각 후로는 절대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시고요.”

“부끄러워하기는. 알았어요. 그럼 열심히 해봐요.”

그 말을 끝으로 위즈덤 부인은 방을 나가는 듯했고 이제 방 안에는 레아와 또 다른 누군가 단둘만이 남았다. 그 사람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근 다음 다시 레아의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왔다.

“원래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손을 써서 막으려고 했는데 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레아 황녀님.”

“……….”

“그러고 보니 황녀님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은 처음 해보는 거 같네요. 사실 더 일찍 해야 했던 말이었는데.”

어쩐지 슬픔에 잠긴 가라앉은 목소리였다. 레아는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었다.

‘프레디 소공자다.’

지금 이 자리에 프레디 소공자가 있다는 것은 역시 레아를 납치한 사람은 하이모어 대공이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무슨 이유로 대공이 레아를 납치했고 왜 프레디 소공자가 이곳에 있으며 어째서 저런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하는 건지는 하나도 알 수가 없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레그마인 황제 폐하와 라이 경도 지금 오고 있을 거고 적어도 이곳에서 저 하나는 무조건 레아 황녀님 편이니까요. 믿으실진 모르겠지만.”

“……….”

“일단 이것부터 풀어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면서 프레디 소공자는 레아의 눈을 가리고 있던 천을 풀어주었지만, 입에 물고 있는 재갈이나 의자에 묶여있는 몸과 손은 풀어주지 않았다. 시야가 자유로워지자마자 레아는 진심으로 죽일 듯이 프레디 소공자를 노려보았고 소공자는 독기를 가득 품은 초록색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다른 것도 풀어드리고는 싶지만 큰 소리가 나면 곤란하니까 아직 풀어드릴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

“화가 아주 단단히 나신 모양이네요.”

그럼 지금 당연히 화가 잔뜩 나지 안 날 수도 있단 말인가?

안 그래도 지금 아무것도 못 하는 게 억울해 죽을 지경인데 그런 레아와 달리 프레디 소공자는 평소와 조금 다른 느낌이었다. 일단 화가 나는 건 나는 건데 그건 그거고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 보이는 소공자가 레아는 신경이 쓰였다.

‘그러고 보니 내 생일 때 이후로 처음 보는 거구나. 생각해보면 전처럼 가벼운 말을 툭툭 내뱉고 생글생글 웃을 수 없는 게 당연한 거겠지.’

그때 프레디 소공자는 레아에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었고 레아는 그 고백을 거절했었다. 그 이후로 소공자와 처음 만나는 건데 당연히 반가운 만남일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기에는 현재 레아는 의자에 묶여있는 상황이었다.

절대 좋은 분위기일 수 없는 조건을 전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열 받아 죽겠다는 레아와 달리 프레디 소공자는 가만히 레아를 바라보기만 했다. 레아가 아무리 당장이라도 죽일 듯이 노려보아도 소공자는 레아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 프레디 소공자를 보며 레아는 속으로 어쩌면…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다.

뭘 어떻게 하려고 했다면 이미 하고도 남았을 것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 프레디 소공자를 보며 레아는 정말 어쩌면 소공자는 자신의 편이라는 말이 아주 조금은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로 아주 조금.

프레디 소공자는 레아의 눈빛이 약간 흔들린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하이모어 대공이 황녀님을 납치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으시겠죠. 분명 대공의 뜻에 따르겠다는 답을 보냈는데.”

“……….”

“그리고 공작부인이라는 작위를 잃고 거지가 되었다고 들은 위즈덤 부인은 왜 여기 있는 건지도 이해가 안 될 거고.”

“……….”

“무엇보다 제가 왜 황녀님께 이런 말을 하는 건지도 궁금하시겠죠.”

기분 나쁠 정도로 프레디 소공자는 레아가 뭘 궁금해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이걸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부정할 수도 없어 레아가 가만히 있자 프레디 소공자는 혼자 알아서 계속 말을 이어갔다.

“하이모어 대공이 레아 황녀님을 납치한 이유는 아무래도 황녀님께서는 협조적인 척 하셨지만, 사실은 대공의 꼬리를 잡으려고 한다는 걸 눈치챈 거 같아요. 아마 누군가 레아 황녀님을 배신한 거겠죠.”

“………”

“그래서 꼬리가 잡히기 전에 대공은 최후의 수를 쓰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 강제로라도 하이모어 가문의 피와 황실의 피를 섞을 계획을 세우고 현재 그 누구보다도 다닐로만 제국의 황실과 레아 황녀님께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중에 한 명이 위즈덤 부인이었던 거고요.”

“……….”

“이 정도 말했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도 레아 황녀님이시라면 아시겠죠.”

프레디 소공자가 이런 말을 해주는 이유. 짐작이 가는 부분은 있었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프레디 소공자는 하이모어 대공의 계획을 순순히 따를 생각이 없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럴 생각이었다면 내게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겠지. 이렇게 가만히 놔뒀을 리도 없고. 대공의 계획을 따를 생각이었다면 분명….’

하이모어 대공은 가문의 피가 황족의 피와 섞이길 바라고 있었다. 그렇다는 건 레아가 자신의 손주를 임신하길 바라고 있다는 건데 프레디 소공자는 레아가 반항하지 못할 상황임에도 레아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있었다. 그것만 봐도 소공자가 대공의 뜻을 따를 생각이 없다는 건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면 프레디 소공자는 뭘 어떻게 할 생각이지? 원래도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더 모르겠어.’

생글생글 웃으면서 시답지도 않은 추파를 가볍게 툭툭 던질 때도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안 어울리게 차분한 지금은 그 속을 더 알 수가 없었다. 누군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도 레아는 신경 쓰였지만, 그것보단 프레디 소공자가 조금 더 신경이 쓰였다.

하지만 아무리 그게 신경이 쓰여도 일단 지금은 앞으로 레아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프레디 소공자에게 달렸다고 봐도 무방했다.

“아까 제가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

“지금 레그마인 황제 폐하와 라이 경이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레아 황녀님께서 지금 여기 있으시다고 했으니 아마 지금쯤 열심히 오고 있겠죠.”

“……….”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레아 황녀님께서는 절 믿어주지 않으셨지만, 이번만큼은 부탁드릴게요. 전 레아 황녀님의 편이에요. 믿어주세요.”

확실히 프레디 소공자의 말대로 레아는 지금까지 소공자를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었다. 늘 가벼운 추파를 던지는 모습은 진지해 보이지 않았고 그런 사람을 믿을 수 있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 차분하고 진지한 목소리로 자신을 믿어달라고 말하는 프레디 소공자를 보며 레아는 고민했다. 이 남자를 믿어야 할지 아니면 믿지 말아야 할지.

지금 이 상황에서 레아가 프레디 소공자를 믿지 않는다면 달리 믿을 사람이 없었다. 그렇다면 모든 걸 혼자서 헤쳐나가야 한다는 건데 사실상 그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거기다 지금 레아는 의자에 몸이 묶인 상태였고 어쭙잖게 심리전을 할 상황도 아니었다.

결국, 레아는 자신의 운명을 불확실한 도박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고개를 끄덕이셨다는 건 저를 믿어주시겠다는 뜻이겠죠.”

“……….”

“감사합니다. 레아 황녀님.”

어차피 무엇을 선택해도 위급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프레디 소공자를 믿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았다. 적어도 레아는 프레디 소공자가 일부러 자신을 함정에 빠트리려고 이러는 건 아닐 거라고 믿어보기로 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한때는 라이 경의 오랜 친구였으니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한 번 정도는 믿어봐야겠지.’

물론 그 한 번의 믿음으로 레아는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은 어쩔 수가 없었다.

“제가 말한 대로만 해주신다면 지금까지 레아 황녀님을 힘들게 했던 것들도 모두 사라질 겁니다. 정말 모든 게….”

“………?”

“그럼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으시고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레아 황녀님.”

“……….”

“우선 저기 있는 서랍 안에는 작은 파란색 병이 있을 겁니다. 그 병을 꺼내서….”

지금까지 레아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게 사라질 거란 말에 프레디 소공자는 얼핏 슬픈 표정을 지은 것 같았다. 레아는 분명 그 표정을 보았지만, 프레디 소공자는 곧 그 슬픈 표정을 숨기고 레아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천천히 설명해주었다. 레아는 소공자가 해주는 모든 말을 빠르게 머릿속에 집어넣었다.

곧 프레디 소공자의 계획에 대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레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아빠와 라이 경이 오기 전까지 레아가 해야 할 일은 정해졌다.

‘결국, 결전의 날이 오고야 말았구나. 그것도 너무나 갑작스럽게. 내 예상보다 너무 빨리 왔어.’

프레디 소공자가 말하는 대로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상황이라 솔직히 레아는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곧 잠깐 약해졌던 마음을 다시 강하게 고쳐먹었다.

‘황궁에 오게 되고 황녀로 살게 된 것도 모두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들이었어. 하지만 결국은 적응하고 잘 해냈잖아. 이번에도 잘 해내야만 해.’

레아가 잘 해내야지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지킬 수 있었다. 소중한 가족인 아빠와 사랑하게 돼버린 라이 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레아는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했다.

레아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이 프레디 소공자는 의자에 묶여있던 몸을 풀어주었고 입에 물린 재갈도 빼낸 레아는 드디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었다. 자유의 몸이 된 레아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킨 후 내쉬었다. 조금 긴장이 되긴 했지만 이제 레아는 아까 프레디 소공자가 말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차례였다.

99.분홍머리 소녀 루시.docx

프레디 소공자가 의자에 단단히 묶여있던 밧줄을 풀어주자마자 레아는 아까 소공자가 말했던 대로 서랍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작은 파란색 병을 꺼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 안에 있던 액체를 꼴깍꼴깍 마셨다.

‘쓰고 시고 떫고. 진짜 심각할 정도로 맛이 없어.’

어떻게 하면 이런 끔찍한 맛을 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맛이 없었다. 레아는 너무 맛이 없어서 얼굴을 찌푸리고 싶었지만 그러기도 전에 하얀 연기가 레아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리고 잠시 뒤 연기가 사라지고 연기에 가려 보이지 않던 레아의 모습이 다시 드러났다. 그런데 다시 드러난 레아의 모습은 아까와는 조금 달랐다.

다닐로만 제국의 황족에게서만 볼 수 있는 황금빛 머리카락은 사랑스러운 분홍빛으로 변해있었고 원래 머리와는 달리 가늘게 곱슬곱슬해져 있었다. 거기다 눈동자 역시 루비처럼 붉은색으로 변해있었다.

프레디 소공자가 준 거울로 변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한 레아는 제일 먼저 이런 말을 했다.

“이 약 하비투스가 만들었어요?”

“네. 레아 황녀님께서 납치당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부탁했어요. 하비투스 말고는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다닐로만 제국에는 없으니까.”

“흐음. 확실히….”

자세히 알진 못해도 머리카락 색을 일시적으로 바꾸는 약을 만들려면 만들려는 색의 머리카락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었다. 급히 부탁해서 만들었다니 하비투스는 당연히 자신의 머리카락을 넣은 것이었겠지만…. 왜 하필이면 눈동자도 본인과 같은 색으로 만들었는지 묘하게 기분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지. 내가 찬밥 더운밥 가릴 때도 아니고.’

거울로 달라진 머리색과 눈동자 색을 확인한 후 레아는 서둘러 프레디 소공자가 준비해준 시녀복으로 갈아입었다. 이목구비는 그대로였지만 머리색과 눈동자 색도 변했고 시녀복까지 입고 있으니 이제 얼핏 보면 사람들은 레아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급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느라 목소리와 이목구비, 생김새까지 완전히 바꾸는 약은 한 병밖에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쉽게 정체를 들키진 않으실 거예요.”

“그 약은 프레디 소공자가 먹고 여기서 나인 척할 거라고 했죠?”

“네. 레아 황녀님께서 없어지신다면 시녀 한명 한명을 다 붙잡고 조사하겠지만 제가 없어진다면 그렇게까지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괜찮을까요? 아무리 별장이라고 해도 처음 보는 시녀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이모어 대공은 눈치챌 거 같은데.”

“어차피 아버지께선 별장의 시녀들은 별로 신경 안 쓰세요. 저택의 시녀들만 철저하게 관리하시지.”

과거 시녀와의 잠자리로 사생아까지 만든 인간이라 저택의 시녀들을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건 레아도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다행히 이곳은 대공도 평소 잘 오지 않는 별장이었고 별장의 시녀들은 별로 신경 안 쓴다고 하니 레아는 안심했다.

곧 프레디 소공자는 레아가 열었던 서랍 밑이 있는 다른 서랍을 열어 빨간 병을 꺼냈다. 그리고 그 병 안에 들어있던 약을 단숨에 들이켰고 이번에도 하얀 연기가 소공자의 온몸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 곧 연기가 사라지자 그곳에는 프레디 소공자가 아닌 레아와 똑같이 생긴 소녀가 한 명 서 있었다.

“머리카락은 레아 황녀님의 머리카락이 없어서 레그마인 황제 폐하의 머리카락을 넣어서 약을 만들었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지 머리카락이 레아 황녀님처럼 찰랑찰랑하진 않네요.”

“……….”

“그래도 이 정도로는 안 들키겠죠? 어차피 다 가리고 의자에 묶여있을 거니까.”

“……우와.”

처음에는 단순히 자신과 똑같은 얼굴과 입고 있던 옷의 구김까지 똑같아서 신기했는데 목소리까지 똑같다니. 눈으로 직접 보고도 프레디 소공자가 자신의 모습으로 변한 게 믿기지 않아 레아는 감탄했다. 그런 레아를 보며 프레디 소공자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지금은 마냥 신기해할 때가 아니에요. 레아 황녀님. 어서 저를 의자에 묶으세요. 아까 황녀님이 묶이셨던 것과 똑같이.”

“아, 네!”

아까 프레디 소공자가 말했듯 레아와 소공자가 먹은 물약은 하비투스가 급하게 만든 것들이었다. 아무리 다닐로만 제국 최고의 마도사가 만들었다고 해도 급하게 만든 것이었기에 지속력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었다. 오래가면 24시간 정도 지금의 모습이 유지되겠지만 짧으면 3시간 후에 두 사람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었다.

낭비할 시간이 없으니 레아는 서둘러 아까 자신을 묶었던 밧줄로 프레디 소공자를 의자에 묶었다. 자신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서 기분이 좀 그렇긴 했지만, 레아는 소공자의 눈을 가리고 입에도 재갈을 물렸다.

“다 묶었으니까 저는 이제 밖으로 나가서 하이모어 대공을 찾아볼게요. 배신자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

“안 들키게 조심할 테니까 소공자도 조심하세요. 그리고….”

“……….”

“아니에요. 일이 다 끝나고 황궁으로 돌아가면 그때 말할게요.”

고맙다고 말해야 할지 아니면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지 레아는 잠시 고민하다 이내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런 말은 모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며 레아는 자신과 똑같은 모습인 프레디 소공자를 홀로 남겨두고 아무도 몰래 조심조심 방 밖으로 나왔다.

‘일단 하이모어 대공부터 찾아야 하는데…. 어디 있는 거지?’

누가 밤에 방에 침입해서 반항하는 레아를 기절시키고 납치했으며 이번 일에 연관된 사람은 누구누구인지 그리고 레아를 배신하고 하이모어 대공의 편에 선 배신자도 알아내야 했지만, 지금은 그럴 다 알아낼 여유가 없었다. 시간이 없는 만큼 레아는 바로 하이모어 대공을 처리할 생각이었다.

찾기만 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콱 죽여버릴 거라며 레아는 분노로 가득 차서 하이모어 대공을 찾아다녔지만…. 태어나서 처음 와보는 남의 별장에서 누군가를 찾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결국, 레아는 방에서 나온 지 10분 만에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망했다. 여긴 어디지? 이래서는 프레디 소공자가 있는 방으로 돌아가는 길도 모르겠어. 어떡하면 좋지?’

시간도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길까지 잃어버리다니. 이러다 아무것도 못 하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까 봐 초조해진 레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길을 잃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레아에게 누군가 말을 걸었다.

“거기 분홍 머리. 거기서 뭐 하는 거지?”

“네, 네?”

“시녀 같은데 이런 곳에서 혼자 뭐 하는 거지?”

“저기, 그게 저는….”

“수상하군.”

소니움 황자가 여기서 왜 나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시녀복을 입고 혼자 돌아다니는 레아를 수상하게 여기는 것 같아 식은땀이 삐질삐질 흘렀다. 머리색과 눈동자 색은 바꿨어도 이목구비나 목소리, 체형은 그대로였기에 레아의 얼굴을 아는 소니움 황자에게 정체를 들킬 판이었다.

속으로 그냥 무시하고 튀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지금 레아는 하이모어 대공의 별장에 있는 시녀였기 때문에 다른 제국 황자님의 말을 거역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뭐 하는 거지? 어서 이리로 오지 않고.”

“네…….”

다른 방법은 없었기에 레아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덜덜 떨면서 소니움 황자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 속으로는 제발 걸리지 않고 잘 넘어가기를 100번도 넘게 기도했다.

“어제는 못 봤던 시녀 같은데.”

“그, 그게 어제는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그래? 하이모어 대공에게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평소에 거짓말할 때는 웃는 얼굴로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할 정도로 잘만 말하는 레아였지만 지금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겁을 잔뜩 먹고 떨고 있었다. 이대로 허무하게 일을 망쳐버릴 거 같아서 레아는 심장이 쪼그라들 것만 같은데 소니움 황자는 그런 레아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군. 고개를 들어보도록.”

“저, 저는….”

“어서.”

“……….”

“그렇게 나온다면 어쩔 수 없지. 억지로라도 고개를 들게 해서 얼굴을 보는 수밖에.”

정체가 들킬까 봐 고개를 들지 못하는 레아를 보며 소니움 황자는 그렇게 말하더니 손을 쑥 뻗어 레아의 턱을 꽉 잡았다. 그리고 억지로 고개를 들게 해 레아의 얼굴을 정면으로 확인했다.

‘………망했다.’

소니움 황자에게 얼굴을 정면으로 적나라하게 들켜버린 이상 이제 모든 건 끝나버린 것과 마찬가지였다. 너무나도 허무하게 모든 게 망해버린 상황에 레아는 오만가지 감정이 들었고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그런데 눈가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힌 레아를 보며 소니움 황자는 이런 말을 했다.

“꽤 예쁘장하게 생겼군. 그 표정 아주 마음에 들어.”

“네, 네?”

“마음에 들었어. 넌 이름이 뭐지?”

“제…이름이요?”

“그래. 이미 알겠지만 난 네가 마음에 들었어. 특별히 가우디움 제국으로 널 데리고 가서 내 애인으로 삼아주지.”

“……….”

설마 지금 못 알아보는 건가? 레아를 원망하고 있다면서 머리색과 눈동자 색이 달라졌다고 못 알아본다는 것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해서 레아는 할 말을 잃었다.

‘그런데 가우디움 제국으로 데리고 가서 애인으로 삼아주겠다니. 결국, 이혼까지 당해놓고 아직 정신은 못 차렸나 보군. 그때도 바보 같다고 생각했지만 역시 바보는 바보인 건가.’

그래도 소니움 황자가 바보라서 다행히 레아의 정체는 안 들킨 것 같았고 레아는 소니움 황자가 바보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바보가 이름을 물어보니 레아는 순간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머뭇거렸다. 진짜 이름은 당연히 말할 수 없는 노릇이라 레아는 일단 입에서 나오는 대로 대답을 했다.

“루시. 제 이름은 루시라고 합니다.”

“꼭 솜사탕처럼 포근하고 귀여운 이름이군. 기억해두지.”

“감,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9시가 된다면 내 방으로 오도록.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고 혼자 조용히 오도록 해.”

“네. 알겠습니다….”

대체 뭘 할 생각이기에 그 늦은 시간에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고 혼자 조용히 오라는 걸까. 레아는 사람 참 안 변한다고 생각하며 소니움 황자에게 허리 숙여 인사를 했다. 그리고 멀어지는 소니움 황자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손가락 욕을 날려주었다.

‘그래도 의문 하나는 풀었네. 나를 납치한 사람은 아무래도 소니움 황자가 고용한 사람이었나 보군.’

완벽함에 집착하는 변태인 하이모어 대공이 나중에 누군가 자신을 협박할 수 있게 사람을 썼을 거 같진 않았고 프레디 소공자도 레아가 납치당한 걸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렇다고 거지가 된 위즈덤 부인이 사람을 고용할만한 돈이 있었을 리는 없으니 지금으로선 소니움 황자가 사람을 고용했을 확률이 높았다.

‘이러면 가우디움 제국도 이번 일과 관련이 있게 돼버리는데. 나중에 일이 꽤 복잡해지겠어.’

조금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건 나중에 생각할 문제였고 지금은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었다. 일단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 의심스럽게 보일 것이니 일단은 다른 시녀들 사이에 섞여 있어야겠다고 생각하며 레아는 1층으로 내려갔다.

1층으로 내려오자 시녀들이 여럿 몰려 이야기를 하고 있길래 레아는 슬쩍 그 무리에 끼어 귀를 쫑긋 세웠다. 혹시 하이모어 대공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 싶어 시녀들이 하는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레아는 열심히 들었다.

“지금 레아 황녀님과 프레디 소공자님은 같은 방에 단둘이 있으신 건가요?”

“그렇겠죠? 소공자님께서 한동안은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으음. 저 사실 레아 황녀님은 엄청 예쁘시다는 소문만 들어봐서 실제로 황녀님을 한번 뵙고 싶어요.”

“그럼 차와 과자를 들고 그 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차와 과자를 들고 가봤자 방에는 레아의 모습을 한 프레디 소공자 혼자 있을 텐데.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프레디 소공자가 없어진 줄 알고 난리가 날 것이었고 그러면 하이모어 대공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다. 그게 프레디 소공자의 계획이기도 했으니 레아는 계획대로 상황이 잘 흘러가고 있음에 혼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때 나이가 꽤 있어 보이는 한 시녀가 얼굴을 찌푸리면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 돼. 지금이 엄청 중요한 순간일지도 모르는데 괜히 갔다가 망치기라도 하면 책임질 거야? 벌써 불타오르고 있으실지도 모르잖아.”

“아, 그러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실수할 뻔했어요.”

중요한 순간은 무슨 중요한 순간이고 실수를 무슨 실수!

다들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고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당신들이 상상하고 기대하는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외칠 뻔했지만, 레아는 그 말을 꾹 참았다. 근데 그건 그렇고 시녀들이 방안에 프레디 소공자가 없다는 걸 눈치채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나 레아는 고민했다.

‘주목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니 내가 발견한 척할 수도 없고. 이제 어쩌면 좋지?’

그런데 아직 어떡하면 좋을지 정하지도 못했는데 시녀들은 각자 할 일이 있는 듯 흩어지기 시작했고 여기서 누굴 따라가야 할지 몰라 레아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안절부절못하는 레아의 모습은 당연히 눈에 띄었다.

“야. 너 혼자 거기서 뭐 해?”

“네? 저, 저요?”

“그래. 딱 봐도 풋내기인 거 같은데 어서 일하러 가. 제법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괜히 어정쩡하게 있다가 소니움 황자님 눈에 띄지 말고. 그러고 있다가 너 큰일 난다?”

“소니움 황자라면 아까 마주쳤는데….”

“뭐? 벌써 찍힌 거야? 그럼 혹시 밤에 아무도 몰래 방으로 오라고도 하셨어?”

얼굴에 주근깨가 가득한 시녀의 물음에 레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런 레아에게 그 시녀는 안 됐다는 시선을 보냈다. 시녀가 왜 그런 시선을 보내는지는 잘 알고 있기에 레아는 그저 눈만 데굴데굴 굴리며 가만히 있었다.

“넌 조심 좀 하지. 소니움 황자님에 대한 소문 못 들었어? 너도 레아 황녀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래?”

“그게 저도 갑자기 마주친 거라서…….”

“하긴. 황자님께서 오라고 하면 가야지. 우리가 뭘 어쩔 수 있겠어. 근데 넌 아직 어린 거 같은데….”

그 시녀는 레아를 보며 잠시 고민하는 거 같더니 곧 인심 썼다는 듯이 말했다.

“어차피 뭘 해야 할지도 모르는 거 같은데 넌 차와 과자를 준비해서 소니움 황자님께 가보도록 해.”

“네? 지금요?”

“그래. 지금은 혼자 있으신 게 아니니까 옆에서 차 시중만 들면 될 거야. 그렇게 하면 밤에는 너 말고 다른 아이를 부르겠지.”

“황자님께서 다른 분과 함께 있으시다고요?”

혹시 하이모어 대공과 함께 있는 건가. 그렇다면 차 시중을 들면서 레아는 좋은 타이밍을 기다렸다 모든 걸 갈아엎으면 되는 일이었다. 이거 어쩐지 좋은 기회가 제 발로 굴러들어온 것 같았다.

100.배신자의 정체.docx

제 발로 굴러들어온 좋은 기회를 거절할 이유는 없었다. 레아는 바로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인 후 차와 과자를 들고 시녀가 알려준 곳으로 향했다. 그런데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레아는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런데 소니움 황자는 멍청해서 날 못 알아봤다고 해도 하이모어 대공이 날 알아보면 어떡하지?’

지금까지 아무도 레아를 못 알아봐서 잠시 잊고 있었는데 현재 레아는 머리색과 눈동자 색만 평소와 다른 상태였다. 다른 건 모두 그대로인데 한눈에 바로 알아보는 건 무리일지라도 계속 못 알아볼 수는 없을 것 같았다.

단순히 좋은 기회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건 좋은 기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좀 위험한 상황이기도 했다. 하지만 인제 와서 소니움 황자에게 가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왜 하필 이런 중요한 건 뒤늦게 떠오르는 거야.”

이렇게 된 거 이제 어쩔 수 없었다. 일단은 뻔뻔하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들어간 다음에 레아의 정체가 발각되는 순간 가지고 있는 모든 마력을 총동원해서 아빠와 라이 경이 올 때까지 버티는 수밖에 없었다. 사실 그때까지 혼자서 버틸 수 있을지 불안하긴 했지만, 지금으로선 그 방법밖에 없었다.

레아는 일단 부딪혀 보기로 하고 아빠가 얼른 도착하길 그리고 솔직히 아빠보다는 라이 경을 좀 더 기다리는 마음과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소니움 황자가 있다는 방의 문을 똑똑 두드렸다.

“소니움 황자님. 차와 과자를 조금 들고 왔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아, 들어와.”

시녀들이 과자를 들고 와서 문을 두드리면 들어오라고 말하거나 맛있게 구운 과자를 팔거나 나눠줘 본 적은 있어도 이렇게 문을 두드려본 적은 처음이었다. 혹시 모르니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를 냈는데 들어오라는 소니움 황자의 대답에 레아는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다.

\*\*\*

어느 날 아침. 정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소중한 딸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머리카락 한 올도 남기지 않은 채로 완벽하게 레아가 사라졌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레그마인 황제는 애써 그 사실을 부정했다.

‘그럴 리가 없어.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야. 황궁 어딘가에….’

레아는 원래 산책하는 걸 좋아했으니까 황실 정원 어딘가에 있을지도 몰랐다. 다닐로만 제국 황궁의 정원은 크고 넓기도 했고 정원에 있는 커다란 나무 뒤에 기대어 앉으면 모습이 잘 안 보이니까 그곳에서 깜빡 잠이 든 걸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레아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도 레그마인 황제는 포기하지 않고 황실 구석구석을 뒤져서 사라진 레아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어디라도 좋으니 제발 레아가 황궁 어딘가에 있기를 황제는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황제의 그 간절함을 배신하기라도 하듯 레아는 황궁 그 어디에도 없었고 그 사실을 깨달은 레그마인 황제는 문득 과거 아리샤가 떠났던 그 날이 떠올랐다.

‘레아…. 넌 어째서 말도 없이 아빠를 떠나버린 거야…….’

분명 어제저녁까지만 해도 평소와 똑같았는데. 언제나처럼 예쁘게 웃으면서 잘 자라고 말해줬는데 그게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리샤가 그랬던 것처럼 레아는 갑작스럽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렸고 그렇다면 이제 황제는 죽을 때까지 레아를 볼 수 없게 된 걸지도 몰랐다. 이제 다시는 사랑하는 딸을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황제는 무너질 것만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폐하. 레아 황녀님께서 사라지셨는데 어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당장 뭐라도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은 가만히 슬퍼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무슨 짓을 해서라도 레아 황녀님을 찾으셔야 할 때입니다!”

“레아도 내가 찾아주길 바랄까?”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레아 황녀님은 분명 하이모어 대공이……!”

“만약 이 머리 아픈 싸움에 질려서 레아 스스로 떠나버린 거라면?”

“레아 황녀님께선 고작 그런 이유로 말도 없이 떠나실 분이 아니란 건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가스파르 재상의 말대로 레아는 그럴 아이가 아니었다. 아무리 지긋지긋하고 머리가 아파도 하이모어 대공을 제대로 조져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레아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연기처럼 사라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레그마인 황제 역시 아빠로서 그런 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리샤가 떠났을 때와 모든 게 똑같아. 머리카락 한 올도 남기지 않고 마지막 모습이 예쁘게 웃는 모습이었다는 것까지도….’

머리로는 레아가 그럴 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레그마인 황제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아리샤가 떠났던 그때 그 기억이 아직도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었다. 레아 덕분에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 그 기억이 되살아나 황제를 아프게 하고 있었다.

“레아는 아리샤가 날 사랑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날 사랑하지 않았던 거라면…그저 레아를 잃을 수 없어서 복수를 포기하고 날 떠난 게 아니었을까. 그리고 레아도…이런 상황에 질려서 그래서 황궁을 떠난 걸지도 몰라.”

“절대 그렇게 생각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이미 레아 황녀님께서는 유일한 가족인 폐하와 황궁에서 만난 인연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있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었지. 하지만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놓고 싶을 정도로 레아는 힘들어하고 아파했어. 내 말이 틀려?”

“그건 그렇지만…….”

확실히 레아 황녀님께서는 황녀로 살게 되시면서부터 힘들고 아파해야 했을 때가 많으셨다. 그중에서는 황녀로서 당연히 겪어야 하는 것들도 있었지만 저 작은 몸으로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일도 있었고 아무리 황녀님이 씩씩하신 분이라고 해도 지쳤다고 한다면 가스파르 재상도 할 말이 없기는 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레아 황녀님께서 자신이라면 몰라도 레그마인 황제 폐하와 라이 경에게까지 아무런 말씀도 없이 떠나셨을 리가 없다는 생각은 여전했다.

‘레아 황녀님께서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말해야 폐하께서 그걸 알아주실까.’

이러다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레아 황녀님을 찾는 걸 포기하실까 봐 가스파르 재상은 초조했다. 하지만 폐하의 마음속에 남은 상처와 트라우마가 얼마나 깊고 큰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섣불리 뭐라 말할 수도 없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똑똑 노크 소리도 없이 문이 벌컥 열리더니 평소와는 달리 조금 흐트러진 모습의 라이 경이 집무실 안으로 들어왔다. 누가 봐도 급하게 달려온 티가 역력했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별로 좋지 않았다.

‘사실 지금 라이 경도 눈이 뒤집히기 일보 직전이겠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연기처럼 사라졌으니.’

16년 전 아리샤가 사라졌을 때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받으셨던 그 상처와 고통을 아마 지금 라이 경도 똑같이 느끼고 있을 것이었다. 가스파르 재상은 그런 라이 경의 마음도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라이 경보다 더 깊은 절망에 빠진 황제 폐하 쪽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었다.

“라이 경.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어떤 마음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레아 황녀님께서 지금 어디 있으신지 찾아냈습니다.”

“뭐라고?”

“지금 레아 황녀님은 가우디움 제국과 다닐로만 제국의 경계선 근처에 있는 하이모어 대공의 별장에 계십니다. 아무래도 오늘 새벽 납치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납치…?”

“네. 불행 중 다행으로 다치신 곳은 없으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위급한 상황에 놓이실지 모르니 한시라도 빨리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레아가 하이모어 대공의 저택에 납치당했다는 건 확실한 건가?”

“네. 확실하다고 이 검을 걸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조금의 망설임이나 흔들림이 없는 라이 경의 눈빛 속에는 레아 황녀님을 향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니, 그런데 라이 경. 레아 황녀님의 위치는 어떻게 알아낸 겁니까? 분명 흔적이라곤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도 남지 않았는데. 혹시 무슨 증거라도 찾은 겁니까?”

“…아뇨. 프레디 소공자가 알려주었습니다.”

“프레디 소공자가?”

라이 경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꽉 쥐고 있던 조금 구겨진 종이를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 보여드렸다. 놀랍게도 그 종이에는 레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납치당했는지 자세히 적혀있었고 그 밖에도 이번 일에 대한 모든 것이 적혀있었다.

프레디 소공자가 보냈다는 그 종이를 빠르게 읽은 후 레그마인 황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라이 경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프레디 소공자가 보낸 종이에 적힌 글을 읽고서야 레그마인 황제는 뒤늦게 깨달을 수 있었다.

‘레아는 아리샤가 아니야. 아리샤는 사랑하는 내 연인이었지만 레아는 사랑하는 내 딸이고 하나뿐인 유일한 가족이야. 이렇게 쉽게 날 떠날 리가 없잖아.’

처음 레아를 황궁으로 데리고 올 때는 아무리 싫다고 발버둥 쳐도 아빠로서 꼭 옆에서 지켜주겠노라 다짐했으면서 바보같이. 아픈 과거 때문에 잠시 약해졌던 자신이 황제는 너무 한심스러웠지만, 자책하고 있을 시간은 없었다. 지금은 조금이라도 빨리 사랑하는 소중한 딸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서둘러서 하이모어 대공의 별장으로 갈 준비를 하도록. 내가 직접 레아에게 구하러 가야겠어. 지금 당장.”

아직 모자란 부분이 많은 못난 아빠지만 무슨 일이 있든 설령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레아만은 꼭 지키고 싶었다. 그게 레아를 처음 황궁으로 데리고 왔을 때 황제가 자신에게 했던 약속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약속을 지킬 때였다.

\*\*\*

소니움 황자가 있는 방으로 과자와 차를 들고 간 레아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다. 레아가 들어오자 소니움 황자는 기분 나쁘게 히죽 웃으면서 같이 있던 누군가에게 말했다.

“역시 다시 봐도 마음에 들어. 꼭 솜사탕 같은 아이야. 눈동자도 꼭 루비 같고. 그렇지 않아?”

“글쎄요. 여자는 관심이 없어서.”

“재미없는 녀석. 여자한테 관심이 없으면 세상을 무슨 재미로 살아가냐?”

“돈. 난 그게 세상에서 제일 좋습니다.”

“속물 같은 녀석.”

“칭찬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 정확하게 누군지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 소니움 황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대는 하이모어 대공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크라스 경도 아니었으며 레아의 귀에는 꽤 낯선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거 누군지 감도 안 오는데 그렇다고 얼굴을 확인하려고 고개를 들 수도 없고. 일단 눈치 봐가면서 슬쩍 보고 확인하는 수밖에.’

대놓고 얼굴을 들었다가 그 상대에게 레아의 얼굴이 보여 정체가 들켜봤자 좋을 건 없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레아는 입을 꾹 다물고 두 사람에게 차를 따라주었다. 그러면서 안 듣는 척하며 혹시나 해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었다.

“그런데 의외네요. 차 시중은 좀 더 나이가 있고 신뢰가 가는 사람이 할 줄 알았는데 아직 어린 소녀라니. 거기다 시녀 일도 많이 서투른 거 같은데.”

“차를 따르면서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입이 무거운 시녀나 시종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난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서. 어리면 어릴수록 좋고 예쁘면 예쁠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말이네요. 따라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차의 맛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무슨 소리. 차는 예쁜 여자가 따라줘야 제맛이지.”

그런데 나누는 대화가 너무 저질스러워서 레아는 이 뜨거운 차를 잔에 따르는 게 아니라 소니움 황자의 얼굴에 부어버리고 싶을 정도였다.

‘이런 도움도 안 되는 얘기를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는 거지? 이러고 있을 시간 없는데.’

얼른 하이모어 대공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서 거기로 가봐야 하는데. 하지만 지금은 여기에 발이 묶여있으니 레아는 어쩌면 좋을지 고민 중이었다. 근데 그러던 중 레아는 소니움 황자의 입에서 익숙한 이름이 나오는 것을 들었다.

“돈밖에 모르고 정말 여자한테는 아주 조금의 관심도 없군.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에게도 눈길 한번 안 주다니. 하긴, 그래서 자네를 다리아 영애에게 보낸 거겠지.”

“여기서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시녀도 듣고 있는데.”

“괜찮아, 괜찮아. 이 아이는 우리 편이니까. 그렇지? 루시.”

왜 여기서 다리아 영애의 이름이 나오는 건지 좀 놀랐는데 갑자기 동의를 구하는 소니움 황자 때문에 레아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왜 다리아 영애의 이름이 나왔는지 열심히 머리를 굴리며 두 사람의 대화에 집중했다.

“처음에는 가까워져서 감시하고 레아 황녀의 움직임을 파악하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연인이 되라고 하셔서 원래는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돈을 더 챙겨주셔서 아직 남아있는 거긴 하지만.”

“가만 보면 그 영애도 참 불쌍해. 첫사랑은 프레디 소공자였는데 두 번째 사랑은 너 같은 놈이라니. 레아 황녀랑 친하다는 이유 하나로 참 안 됐어.”

“레아 황녀든 후작 영애든 저는 관심 없습니다.”

“다리아 영애가 알면 얼마나 놀랄까. 늘 곰처럼 느리고 멍하던 놈은 알고 보니 이런 시꺼먼 속내를 가지고 있는 놈이었고 최근 주고받았던 편지도 네가 아니라 내가 쓴 것이란 것도 모르고 있겠지.”

얘기를 거기까지 듣고 나니 이제 소니움 황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 레아는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덤으로 배신자가 누군지도 알 수 있었다.

‘앤드류 경…. 어떻게 보면 배신자는 상상도 못 했던 존재였어. 설마 이 사람이 처음부터 감시를 목적으로 다리아 영애에게 접근했을 줄이야.’

다리아 영애는 정말 진심으로 앤드류 경을 사랑했었는데. 그런데 앤드류 경은 단지 돈 때문에 다리아 영애를 이용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니 레아는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이제 배신자의 정체도 알아냈으니 난 대공의 위치만 알아내면 돼. 그렇다면….’

원래 제일 먼저 알아내려고 했던 건 아직 알아내지 못했고 나중에 천천히 알아보려고 했던 건 어떡하다 보니 알아내 버렸다. 그래도 이제 곧 아빠와 라이 경이 올 것이니 레아가 할 일은 하나였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레아는 뜨거운 차가 들어 있는 주전자를 손에 들었다. 그리고….

“으아아아악!”

그대로 앤드류 경의 얼굴에 뜨거운 차를 부어버렸다.

101.모든 걸 끝내야 할 때.docx

원래 프레디 소공자의 계획은 소공자가 없어졌다는 걸 누군가 눈치채고 소란스러워진다면 당연히 하이모어 대공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었고 그때 자연스럽게 대공의 위치를 파악한 레아가 끝장을 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절대 눈에 띄거나 튀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했었다.

레아는 프레디 소공자가 시켰던 대로 크게 눈에 띌 만한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대공의 위치를 좀 더 빨리 알아내려고 했었다. 그래서 군말 없이 시키는 대로 조용히 소니움 황자와 배신자인 앤드류 경의 차 시중을 들면서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 둘의 대화를 듣고 있던 것이었다.

하지만 프레디 소공자의 예상과 달리 저택 안 사람들은 아직도 소란은커녕 소공자가 없어졌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레아는 아무래도 계획대로 마냥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될 거 같다고 생각했다.

‘기다려도 소란스러워지지 않는다면 직접 이 둘의 입을 터는 수밖에 없지.’

그리고 계속 이렇게 잠자코 기다리는 건 레아의 성격에 맞지도 않았다. 이러다 아빠와 라이 경이 도착하면 하이모어 대공은 도망을 갈지도 모르는데 그 전에 레아가 먼저 대공을 찾아 복수해야 했다. 그러니 기다려도 소란스러워지지 않는다면 대공의 위치를 아는 이 둘의 입을 털 수밖에 없었다.

조금 위험할진 모르겠지만 방심하지만 않으면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을 것이었다. 레아는 그렇게 생각하며 주전자를 들었고 그 안에 들어있던 뜨거워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냅다 앤드류 경의 얼굴에 부어버렸다.

“으아아아악!”

무방비하게 있다가 뜨거운 홍차를 그대로 맞았으니 앤드류 경은 괴로워하며 소리를 질렀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소니움 황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레아는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고 마법을 이용해 두 사람의 몸을 공중으로 띄운 다음 움직이지 못하게 바람으로 꽁꽁 묶어두었다.

“갑,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이냐. 루시! 감히 한 제국의 황자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죽고 싶은 것이냐!”

“그럼 소니움 황자님은 죽고 싶으셔서 한 제국의 황녀를 납치하신 건가요? 그것도 황족이 귀한 다닐로만 제국의 하나뿐인 황녀를.”

“뭐, 뭐? 너 설마 레아 황녀가 심어둔 첩자였던…!”

“이렇게까지 못 알아보시니 이젠 좀 서운하려고 하네요. 제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

아무리 멍청하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했는데 못 알아보다니. 저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한테 납치당했다고 생각하니 레아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다. 그러는 사이 이제 좀 진정이 된 건지 앤드류 경은 레아의 얼굴을 확인하곤 어금니를 꽉 깨물고 말했다.

“레아 황녀.”

“무슨 소리야. 레아 황녀는 레그마인 황제와 똑같은 녹안에 금발이라고!”

“일시적으로 머리색과 눈동자 색을 다른 색으로 바꿀 수 있는 물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납치돼있던 사람이 그걸 어떻게….”

정말 갑자기 자고 있던 레아 황녀를 그대로 납치해와서 그런 걸 준비할 시간이 없었을 텐데. 이 저택 안에 레아 황녀에게 도움을 준 조력자가 있는 게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누가 그런 쓸데없는 짓을 했는지 앤드류 경은 입술을 꾹 깨물었지만, 레아는 얘기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럴 여유도 없었다.

“내가 어떻게 그 약을 구했고 누가 도와줬는지는 알 필요 없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요. 하이모어 대공은 지금 어디 있죠?”

“……….”

“두 사람 다 대답할 생각이 없나 보네요. 내가 말로 할 때 대답하는 게 좋을 텐데.”

엄마에게 물려받아 타고난 마력의 양이 많은 레아였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 하이모어 대공을 만나기 전까지는 최대한 마력을 아끼고 싶었다. 하지만 역시나 소니움 황자와 앤드류 경은 순순히 입을 열지 않았고 그 모습에 레아는 한숨을 쉬었다.

“난 분명 경고했어요. 순순히 말하는 게 좋을 거라고.”

“이런 몹쓸 년! 네가 감히 이런 짓을 하고도 무사할 거 같아? 감히 네가…!”

“시끄러워요. 소니움 황자.”

“하, 지금이야 네가 뭐라도 된 거 같지? 이렇게 큰 소란이 났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면 넌 이제 끝이야!”

“네. 그럴 거 같아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소란스러워지길 기다리다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인제 와서 소란스러워져 봤자였다. 거기다 시선이 자신에게 쏠린다면 큰일이므로 레아는 미리 마법으로 소리가 새 나가는 걸 막고 문도 꼭꼭 잘 잠가두었다.

‘그동안 키린에게 배웠던 마법들을 아주 아낌없이 활용해서 유용하게 쓰게 될 줄은 몰랐는데.’

솔직히 배울 때는 이걸 배워서 어디에다 써먹나 했는데 지금 아주 유용하게 잘 써먹는 중이었다. 레아는 역시 뭐든 배워두면 언젠가는 어떻게든 쓰게 된다며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두 사람을 도와줄 사람은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게 힘 빼지 말고 그냥 말해요. 내가 말로 할 때 말하는 게 당신들한테도 좋을 거라고 아까도 말했잖아요.”

“……….”

“그런데 아직도 입을 꾹 다물고 있다는 건 순순히 말할 생각이 없다는 거겠죠? 그럼 어쩔 수가 없네요.”

“……….”

“미리 말하는 건데 난 두 번의 기회는 주지 않을 거예요.”

이제 더는 기회를 주지 않을 거라는 레아의 말에도 앤드류 경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소니움 황자는 그런 앤드류 경의 눈치를 보며 말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 같았지만 끝내 입을 열진 않았다. 아무래도 입을 닫고 있으면 어떻게든 될 거로 생각하고 있는 듯했다.

‘설마 죽이진 않을 거로 생각하고 있는 거겠지. 앤드류 경도 내가 흑마법을 익혔다는 건 모르고 있으니까.’

키린에게 배운 마법 중에서는 상대의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한 마법은 없었다. 그러니 두 사람은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버티려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레아는 계속 그렇게 아무런 말도 안 하고 버티기만 하면 그냥 그대로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했다.

‘사실 이렇게까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지.’

막상 흑마법을 쓰려니 속이 좀 거북하기는 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었다. 레아는 딱 오늘 하루만 이 마법을 쓰고 다시는 이런 무서운 마법을 쓸 일이 없기를 바라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는 앤드류 경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주문 같은 걸 외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뭐 하는 건가 하며 얼굴을 찌푸리며 레아를 바라보던 앤드류 경은 갑자기 허리를 푹 숙였다. 그리곤 크게 기침을 하더니 뜨거운 피를 토해내기 시작했다.

“쿨럭…쿨럭…!”

“이,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지? 앤드류 경! 정신 차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흑마법을…. 쿨럭!”

“앤드류 경! 말하지 말고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갑자기 많은 양의 피를 토해내는 앤드류 경을 보며 소니움 황자는 크게 당황한 듯했다. 그만큼 피를 토해냈음에도 아직 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는지 말할 때마다 입에서 피가 줄줄 흘렀지만 앤드류 경은 간신히 힘겹게 정신을 붙잡고 있었다. 하지만 레아는 그것도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했다.

무표정하게 그 둘을 바라보던 레아는 앤드류 경을 향해 가볍게 손가락을 움직였고 곧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 그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안 그래도 피를 많이 토해내서 어지러운데 목까지 졸리니 앤드류 경이 아무리 강한 기사라고 해도 여기서 더 버티는 건 무리였다.

“쿨럭! 쿨럭, 쿨럭…!”

“……….”

“컥, 커윽…. 큭…! 크윽….”

“……….”

괴로움에 반항하듯 몇 번 몸부림을 치긴 했지만, 사람의 힘으로 엄청난 마력으로 묶여있는 마법을 벗어나는 건 불가능이었다. 곧 앤드류 경은 맥없이 쓰러졌고 그제야 경의 목을 조르고 있던 검은 그림자는 사라졌다.

“앤, 앤드류 경…. 앤드류 경!”

“그렇게 애타게 불러봐도 소용없어요.”

“설마, 설마 죽여버린 건가? 정말로?”

“아뇨. 아직 약하긴 하지만 숨은 붙어있어요. 당장 의원을 부르지 않으면 10분 내로 죽어버리겠지만.”

“그럼 당장 의원을……!”

위협이라면 이제 충분했다. 공포와 두려움이라면 이제 충분히 주었으니 당장 의원을 불러 약하게라도 숨이 붙어있을 때 앤드류 경을 치료해야만 살릴 수가 있었다.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다시는 까불지 못할 것이란 걸 레아도 알고 있었다.

이제 이쯤에서 봐주기로 하고 의원을 부를 수도 있었지만, 레아는 그러지 않았다. 레아는 다시 한번 축 늘어진 앤드류 경의 몸을 향해 가볍게 손짓을 했고 곧 그의 몸에는 불이 붙어 활활 타올랐다. 그리고 곧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타버렸다

“……….”

직접 두 눈으로 보고도 방금 자신이 뭘 본 건지 믿기지 않아 소니움 황자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레아 역시 불에 타 완전히 사라진 앤드류 경이 있던 의자를 바라보다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악몽도 이런 악몽이 없다고. 정말…다시는 이런 무서운 마법은 쓰고 싶지가 않아.’

하지만 오늘만. 정말 딱 오늘 하루만 사람이 할 짓이 아닌 짓들을 좀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레아는 다시 한번 굳게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고 아직도 충격에 빠진 소니움 황자를 보며 말했다.

“원래 난 기회를 두 번이나 주지는 않지만 소니움 황자님께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하이모어 대공은 지금 어디 있죠?”

“……….”

이게 정말 레아가 소니움 황자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였다. 소니움 황자도 그걸 잘 알고 있기에 이번에는 대답해야 적어도 목숨만은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대답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방금 앤드류 경이 어떻게 되었는지 바로 옆에서 전부 봐버린 소니움 황자는 공포로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그런 소니움 황자를 잠시 말없이 바라보던 레아는 이번에는 소니움 황자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중얼 주문을 외웠다. 그러자 바로 찬물 한 바가지가 소니움 황자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푸홧!”

“말할 거면 빨리 말해요. 나 시간 없으니까.”

“말, 말할게! 말하면 되잖아!”

“진작 그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꼭 험한 꼴을 보고 나서야 협조적으로 나오시다니.”

서로 험한 꼴 안 보고 좀 더 편하게 끝낼 수도 있었는데. 한숨을 쉬며 말하는 레아를 보며 소니움 황자는 이를 악물고 분하다는 얼굴을 했다. 하지만 앤드류 경처럼 죽기는 싫었는지 순순히 하이모어 대공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4층 맨 끝방. 거기가 하이모어 대공의 방이라고 들었는데 그 방에는 책장 뒤에 숨겨진 계단이 있다더군. 아마 그 계단으로 내려가면 밖으로 연결된 비밀통로가 나오겠지.”

“비밀통로라.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난 내가 아는 전부를 얘기했어. 그러니 제발 목숨만은…!”

“네. 특별히 목숨만은 살려드리죠.”

원래는 레아를 납치하는 일에 가장 많은 힘을 보탠 거 같아 소니움 황자도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비밀통로 이야기를 해주었으니 특별히 목숨만은 살려주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았다. 하지만 아예 아무것도 안 할 생각은 아니었다. 정말 딱 목숨만은 살려둘 생각이었다.

레아는 한숨을 푹 쉬며 다시 한번 소니움 황자를 보며 흑마법을 걸기 위한 주문을 외웠다. 그러자 소니움 황자의 눈은 서서히 초점을 잃어가더니 곧 공중에 떠 있던 몸도 쿵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레아는 약속대로 소니움 황자의 목숨을 빼앗진 않았지만…모든 걸 잃고 숨만 붙어있는 상태이니 사실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상태였다.

평소 절대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객관적으로 봐도 좋은 사람은커녕 소니움 황자는 쓰레기에 가까운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만들고 나니 레아의 마음은 왜 이렇게 무거운 건지 모르겠다.

‘…아냐. 이 사람들은 나한테 더한 짓을 하려고 했어. 난 단지 나에게 날아오는 돌을 올바른 방향으로 던졌을 뿐이야. 그런 거야.’

그러니 괜한 동정과 죄책감으로 인해 앤드류 경이나 소니움 황자에게 한 짓을 후회하거나 엄마를 위한 복수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레아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음 약하게 먹지 말자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그런데 그때 별장 밖이 소란스러워지기라도 한 듯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프레디 소공자가 없어졌다고 인제 와서 뒤늦게 소란스러워진 건지 걱정이 되어 레아는 순간 긴장이 되었다.

‘지금 프레디 소공자가 없어졌다면 여기 와서 했던 게 다 쓸모없는 일이 돼버리잖아. 소공자가 없어진 상황에서 하이모어 대공이 방에서 얌전히 있을 리도 없고.’

그렇다고 옆에서 때를 기다리기에는 지금 레아는 앤드류 경의 피로 엉망이 된 상태였다. 원래는 바로 대공의 방으로 가서 기습할 생각이었는데 계획이 꼬일 거 같아 레아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밖을 살펴보았는데 밖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있었고 굉장히 치열해 보였다.

‘아빠랑 라이 경이다…! 곧 올 거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왔구나.’

아빠와 라이 경은 레아를 구하기 위해 기사들을 이끌고 별장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이모어 대공의 기사들과 싸우고 있었다. 레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심이 되면서 이제 정말 이 싸움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꼈다.

‘이제 정말로…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낼 때가 왔어. 내 손으로 직접 모든 걸 끝내야 해.’

이 일의 시작이 언제부터였는지. 레아는 알 수 없었다.

선황이었던 친할아버지가 일으킨 피바람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는지 아니면 엄마가 아빠를 죽이려고 황궁 시녀가 되셨을 때부터였는지. 그것도 아니면 두 분이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셨을 때부터였는지 엄마가 레아를 가지고 황궁을 떠났을 때부터였는지. 어쩌면 레아가 황녀가 된 그때부터였을지도 몰랐고 프레디 소공자와 처음 만났을 때부터였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언제부터가 시작이었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누구 때문에 시작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드디어 레아의 손으로 모든 걸 끝낼 기회가 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다.

“……….”

그런데 이 순간 문득 엄마의 얼굴이 떠오르는 이유는 뭘까.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긴 했지만. 레아는 천천히 두 눈을 감았다. 그리고 짧게 심호흡을 한 후 아수라장이 된 방을 나와 하이모어 대공이 있다는 4층 맨 끝방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정말로 하이모어 대공의 숨통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102.끝.docx

4층 맨 끝방. 지금 별장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하이모어 대공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지금 이 상황이 대공은 심각하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완벽하지 않아.”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극단적으로 돌아가게 된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에는 들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레아 황녀가 하이모어 가문의 아이를 가지게 된다고 해도 강제적으로 임신하게 된 것을 황실 사람들은 다 알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만약 오늘 일로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레아 황녀와 프레디 소공자가 하룻밤을 보냈다는 소문을 내면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크라스는 말했지만 하이모어 대공은 그것도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런 소문이 난다면 황실의 발목은 잡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이모어 가문이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는지 모두가 알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황실도 발목 정도는 잡힐지 몰라도 단지 하룻밤을 보냈다는 것 하나만으로 순순히 레아 황녀를 프레디와 결혼시키진 않을 것이었다. 그렇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픈 진흙탕 싸움이 될 텐데 완벽함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상황이 하이모어 대공은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인제 와서 이런 생각 해봤자 소용없겠지. 부디 오늘 레아 황녀가 하이모어 가문의 아이를 가지게 되길 기도하는 수밖에.’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더러운 소문이 덜 날 거니까. 이미 완벽하지 않은 일이 돼버렸지만 그래도 하이모어 대공은 여기서 더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신께 기도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바깥이 소란스러워졌고 대공은 무슨 일인가 싶어 창문을 통해 바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레그마인 황제…!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지? 아무리 빨리 찾아와도 내일은 되야 올 줄 알았는데!’

그것도 빨라야 내일이고 늦으면 일주일이 넘도록 찾지 못할 줄 알았다. 그런데 예상보다 훨씬 빨리 들이닥친 황실 사람들 때문에 당황한 하이모어 대공은 급히 비밀통로로 도망가려고 했다.

“이, 이거 왜 이렇게 안 움직이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미치겠군.”

레아 황녀를 구하러 황실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생각도 못 했으니 지금 대공에게는 자신을 지켜줄 기사가 얼마 없었다. 거기다 그나마 있는 몇 명도 지금 황제가 끌고 온 기사들을 상대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니 현재 하이모어 대공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하이모어 대공은 완벽함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이 상황에 다시 한번 강한 불만을 가지면서 혼자 낑낑거리며 책장을 옆으로 옮겼다. 그러자 숨겨져 있던 비밀통로로 연결된 계단이 나타났고 서둘러 그 계단으로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던 그때였다.

그 순간 쾅! 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에 대공은 설마 레그마인 황제가 벌써 여기까지 온 건가 놀라서 문 쪽을 바라보았다. 다행히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황제가 아니라 피투성이가 된 어린 시녀였다.

“뭐, 뭐지? 그 피는? 설마 벌써 레그마인 황제가 별장 안까지 들어온 건가?”

“…아뇨. 아직.”

“그래. 다행이군. 그럼 난 통로로 이동할 테니 내가 내려가면 넌 다시 책장으로 계단을 가리도록. 낑낑대면서 하다 보면 될 거야.”

“……….”

딱 보기에도 작고 딱히 힘이 있어 보이지도 않은 어린 소녀였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다. 하이모어 대공은 피투성이인 시녀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틈도 없이 급하게 계단을 내려가려고 했다.

“으악!”

그런데 마치 누가 발을 걸기라도 한 것처럼 하이모어 대공은 앞으로 꼬꾸라져서 넘어졌다.

‘안 그래도 급한데 넘어지기나 하다니. 아까 그 시녀도 다 보고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하지만 지금은 넘어져서 아픈 무릎이나 어린 시녀에게 추한 모습을 보여 창피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하이모어 대공은 누가 오기 전에 빨리 일어나려고 했지만 어째서인지 몸이 바닥에 딱 붙은 채로 떨어지지 않아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이, 이게 무슨 일이지? 안 그래도 급해 죽겠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어째서 몸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 하이모어 대공에게 그런 걸 생각하고 고민할 여유는 없었다. 어떻게 해서든 일어나보려고 미친 듯이 발버둥 쳐봤지만, 몸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점점 마음이 조급해질 그때였다. 시녀는 갑자기 하이모어 대공에게 다가오더니 그의 머리를 발로 꾹 밟아버렸다.

“윽!”

“발버둥 그만 치세요. 어차피 무슨 짓을 하든 절대 일어나지 못할 거니까. 제 마력이 좀 대단하거든요.”

“너, 너 시녀 주제에 감히 나한테 이런 짓을…!”

“시녀라뇨.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이모어 대공께서는 목소리만 들어도 제가 누군지 알아차려야 하시는 거 아닌가요.”

“설마 별장에 황실에서 심어둔 배신자가 있었던 건가? 그래서…!”

“배신자 좋아하시네. 목소리만으로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 같은데 그래도 얼굴을 보면 알아보시겠죠.”

그렇게 말하며 시녀는 하이모어 대공의 머리를 꾹 밟고 있는 발을 치웠고 시녀가 발을 치우자마자 대공의 몸은 공중으로 붕 떠올랐다. 그제야 하이모어 대공은 그 시녀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고 시녀의 정체를 눈치채자마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네가 지금 여기 있는 거지? 분명 눈을 가리고 입에 재갈을 물려서 의자에 묶어둔 걸 내 두 눈으로 확인했다고! 그리고 그 머리색과 눈동자 색은 또 뭐지?”

“역시 바로 알아보시네요. 솔직히 못 알아보시면 서운할 뻔했어요.”

“네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당신 앞에서 이러고 있는지 궁금해하기 전에 본인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게 먼저 아닐까요?”

“……….”

하이모어 대공의 미래라고 해봤자 사실 미래랄 것도 남아 있지 않았다. 레아 황녀는 지금 피투성이인 상태였고 그 피가 누구의 피인지는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세 남자 중 한 사람의 피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어쩌다 그 피가 레아 황녀에게 튀었는지도 굳이 생각할 필요 없었다.

“……….”

그걸 다 알고 있는데 하이모어 대공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대공은 하이모어 가문의 피와 다닐로만 제국 황족의 피가 섞인 생명을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고 방금 그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알게 되었다. 감히 제국의 하나뿐인 황제의 핏줄인 황녀를 납치하고 몹쓸 짓까지 하려고 했으니 이제 하이모어 대공에게 남은 건 죽음이라는 벌을 받는 것뿐이었다.

‘이게 다 크라스 때문이야. 완벽하지 않은 계획이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야. 내 완벽한 계획대로 일이 흘러갔다면 실패했을 리가 없잖아!’

설마 프레디 소공자가 레아를 도와줬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는 하이모어 대공은 처음부터 자신이 틀렸다는 생각 따위는 하지 않았다. 끝까지 반성이란 걸 모르는 하이모어 대공을 가만히 바라보다 레아는 조용히 물었다.

“왜 그랬어요?”

“……….”

“왜 나한테 우리 아빠한테 우리 엄마한테…. 우리 가족한테 도대체 왜 그랬어요? 단지 황제가 되고 싶어서?”

“……….”

“빨리 아무 말이나 해봐요! 우리한테 도대체 왜 그랬냐고!”

단지 그런 개인의 욕심 때문에 엄마와 아빠는 아파해야 했고 레아도 안정적인 가정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다. 평범할 수 없음에 레아는 너무나도 억울했다. 앤드류 경과 소니움 황자에게도 이렇게까지 화가 나진 않았는데 하이모어 대공에게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자신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레아를 보며 하이모어 대공은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걸 포기한 그런 목소리였다.

“이건 다 레아 황녀 당신의 모친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을 괴롭히고 아프게 한 것 역시 그 빌어먹을 여자 때문이겠죠.”

“뭐?”

“다닐로만 제국의 황실에 두 번의 피바람이 불었던 이유. 알고 있으십니까?”

“설마….”

레아가 태어나기도 전 다닐로만 제국의 황실에 불었던 두 번의 피바람. 그 피바람으로 인해 다닐로만 제국의 황족은 거의 전멸했고 엄마는 억울하게 가족을 잃고 고아가 되었다. 그리고 레아의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피바람으로 인해 인생이 망가지고 피해를 본 사람은 무수히 많고도 많았다.

그런데 하이모어 대공의 입에서 그 피바람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레아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것만 같았다. 지금 하이모어 대공이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건 대공도 분명 그 일에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분명 안 좋은 쪽으로.

“모든 건 선황 때부터 내 아버지께서 준비해왔던 일입니다. 난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이모어 가문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황족은 내 계획에 방해만 되는, 제거해야 하는 존재란 건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알고 있겠죠.”

어차피 역사는 승자에 의해 쓰이는 것이니까. 하이모어 가문의 사람들은 그 승자가 되기 위해 오랜 시간을 노력하고 준비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레아라는 존재가 나타난 것이었다.

“그 망할 년. 레그마인 황제를 죽이려고 했던 내 계획을 망치고 도망간 것도 모자라 그 남자의 아이까지 가지고 그걸 또 낳아서 키웠다니. 없애야 할 황족이 하나 더 늘었단 사실에 내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레아 황녀 당신은 모를 겁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어린 여자애라고 만만하게 생각했었다. 그런데 생각만큼 레아 황녀의 성격은 만만치 않았고 또 레그마인 황제는 자기 딸이라고 얼마나 싸고돌던지 하이모어 대공은 머리가 아플 따름이었다. 그런데 그런 하이모어 대공에게 이번 계획을 제안한 게 바로 크라스였다.

그래서 하이모어 대공은 아들이 제안한 대로 계획을 진행하기로 했고 중간에 잡음은 많았지만 그래도 이번 계획이 성공하길 그 누구보다 간절히 바랐었다. 하지만 끝내 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하이모어 대공은 나락에 빠지게 된 것이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레그마인 황제를 죽이려고 했을 때도 아리샤를 고르지 않았을 텐데. 그랬다면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지도 않았을 거고 당신도 태어나지 않았을 건데.”

“나도 프레디 소공자처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라고 말하고 싶으신 건가?”

“당연하죠. 당신만 없었어도 난 레그마인 황제를 죽이고 더 높은 자리로 치고 올라갔을 거니까.”

“……….”

이 일의 시작이 언제부터였는지 알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최후의 순간까지도 헛소리와 개소리를 하는 하이모어 대공을 보며 레아는 알 수 있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이모어 가문의 더러운 피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는 프레디 소공자와 내가 아니야. 정말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는 그런 말을 하는 하이모어 대공이었어.’

그리고 그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를 없애버려야 할 때가 온 것이었다. 여기까지 오려고 참 먼 길을 돌아왔다고 생각하며 레아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그리고 짧게 한숨을 쉰 다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마력을 집중시켰다.

그리고 금방이라도 달려들어 죽일 것만 같은 눈빛으로 하이모어 대공을 노려보았다.

“당신의 그 욕심 때문에. 그 하찮은 감정 때문에 우리 가족은 상처받고 아파해야 했어.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는 모든 걸 잃었어. 가족도 사랑하는 사람도…. 모든 걸 포기해야만 했다고!”

“윽…!”

“절대 편하게 가지 마. 최대한 고통스럽고 처참하게 죽어. 그렇게 해서라도…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엄마가 너 때문에 받았을 아픔을 조금이라도 느껴보란 말이야!”

“쿨럭…! 쿨럭…!”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레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력을 사용해서 하이모어 대공을 고통스럽게 했다. 비명을 지르지 않고는 못 배길 정도의 살이 찢기는 듯한 아픔도 주었고 차라리 죽여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통스러운 저주도 내렸다. 정말 레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이모어 대공을 괴롭혔다.

하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번에 너무 많은 마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왔고 곧 레아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다. 정말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했기 때문에 이젠 남은 마력도 거의 없었다.

“하아…하아…하아….”

“……….”

다리에 힘이 풀린 레아는 거친 숨을 내뱉으며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하이모어 대공을 바라보았다. 드디어 레아는 모두가 원하고 바랐던 복수를 끝낸 것이었다. 엄마가 끝내지 못했던 그 복수를.

‘이제 정말…모든 게 끝이 났어. 내 손으로 직접 죽인 거야. 하이모어 대공을.’

바닥에 엎드린 채로 입으로는 피를 토하면서 사지가 모두 토막이 난 하이모어 대공을 가만히 바라보다 레아는 조용히 그 시체에 불을 붙였다. 정말 마지막의 마지막까지도 온몸이 불에 타는 고통 속이길 바라면서 레아는 활활 타오르는 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밖이 소란스러워지는 것 같더니 레아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레아가 마법으로 굳게 닫았던 문이 벌컥 열렸다. 그리고 그곳에는 보고 싶었던 아빠가 서 있었다.

“아빠.”

“레아…”

어느새 머리카락도 다시 빛나는 황금빛으로 돌아오고 눈동자도 예쁜 에메랄드빛으로 돌아온 레아는 멍하니 아빠를 바라보았다. 아빠 역시 피투성이가 되어 대공을 죽이고 그 시체를 불로 태우고 있는 딸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다.

수고했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은데 무섭지는 않았냐고 걱정해주고 싶었는데 갑작스럽고 믿기지도 않는 이 상황에 레그마인 황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건 레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부녀는 아무런 말이 없었고 그러던 중 또 다른 누군가가 이쪽으로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레아 황녀님!”

너무나 그립고 듣고 싶었던 목소리였다. 라이 경의 목소리가 들리자 레아는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참고 또 참았던 감정이 울컥 올라와서 레아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렸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이 났다는 생각에 참아보려고 해도 자꾸만 눈물이 흘렀다.

“흑…흐윽. 흑….”

“레, 레아….”

“흑…흐윽….”

레아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처음 본 레그마인 황제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크게 당황했다.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생각을 해내려고 애를 써봐도 울고 있는 딸을 달래주는 방법은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때 어쩔 줄 몰라 하는 황제와 달리 별로 놀라지도 않은 듯한 라이 경은 레아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 한쪽 무릎을 꿇고 레아와 시선을 맞추며 말했다.

“수고하셨습니다. 레아 황녀님.”

“라이경. 나는…나는….”

“많이 무서우셨을 텐데 씩씩하게 잘 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 경….”

라이 경의 다정하고 따듯한 말에 완전히 마음이 놓인 레아는 더 서럽게 엉엉 울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잘 끝났다는 사실에 안심이 되어 흐르는 눈물이었다.

103.진심으로 좋아했어요.docx

내 딸이 울고 있다. 그것도 모든 것을 끝내고 너무나도 서럽게.

항상 씩씩하고 강한 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는 레아의 모습을 보고 레그마인 황제는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뭘 어떻게 해줘야 하고 무슨 말로 위로를 해줘야 저 눈물을 멈춰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 수가 없어 황제는 그저 멍했다.

그런데 그런 레아에게 라이 경은 시선을 맞추고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말해주었다. 그러자 레아는 더 서럽게 펑펑 울기 시작했고 라이 경은 조용히 그 눈물을 닦아주었다.

“……….”

황제는 그저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있게 해줄 방법만 찾으려고 했는데 라이 경은 반대로 레아가 감정을 참지 않고 터트릴 수 있게 해주고 있었다. 레아는 분명 여전히 서럽게 울고 있었지만 라이 경의 다정한 손길에 의지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여서 레그마인 황제는 갑자기 생각이 많아졌다.

‘어쩌면 레아는 이미 라이 경을….’

곧 죽어도 찬성은 할 수 없어도 적어도 연애하는 건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레그마인 황제는 요즘 황궁에 도는 소문을 애써 모른 척했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레아와 한 약속이었으니까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조금이라도 그 소문에 귀를 기울였다간 무시가 안 될 거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을 보고 레그마인 황제는 어쩌면…하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원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아야 하는데…. 이번엔 왠지 레아도 같은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 말도 못 하겠어.’

레그마인 황제는 레아가 행복하길 바라고 있으니까.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걸 원하고 있고 황제도 딸의 옆에 라이 경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버리니 평소처럼 감히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이냐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레아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어디 가는 건 아니었다.

그럼 이제 어떡하면 좋을까. 하이모어 대공의 일은 레아 덕분에 이제 어느 정도 끝이 난 것 같은데 레그마인 황제는 이제 레아 때문에 머리 아픈 고민을 하게 될 것만 같았다. 물론 황제가 그런 고민을 하든 말든 레아와 라이 경은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말이다.

“이제 다 우셨습니까?”

“응. 아마도.”

“다치신 곳은 없으신 겁니까?”

“네. 나 때문에 다친 사람은 좀 있지만.”

“아무리 다치신 곳은 없다고 해도 큰일이 있으셨으니 지금은 몰라도 많이 놀라시고 피곤하실 겁니다. 마차까지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건 좀….”

잠시 다리가 풀린 것뿐이지 충분히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굳이 업어주겠다니. 둘만 있는 자리였으면 드넓은 라이 경의 등에 덥석 업혔겠지만, 레아는 뒤늦게 아빠가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아까는 운다고 정신이 없어서 아주 잠시 잊고 있었는데. 그리고 의자에 묶어놓고 왔던 프레디 소공자의 존재도 까맣게 잊고 있다가 뒤늦게 생각이 났다.

‘나도 머리카락 색이랑 눈동자 색이 돌아왔으니 어쩌면 프레디 소공자도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을지도 몰라. 다른 사람이 먼저 발견하기 전에 가서 풀어줘야 하는데…!’

프레디 소공자는 레아가 소니움 황자와 배신자였던 앤드류 경 그리고 하이모어 대공에게 복수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의자에 묶여있는 소공자를 발견하고 공격하기라도 하면 큰일이었다. 그 생각이 나자마자 레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빠와 라이 경에게 설명도 없이 방을 뛰쳐나왔다.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일만큼은 고마웠다는 말도 아직 못 해줬는데. 레아는 서둘러 프레디 소공자가 묶여있는 방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다.

“프레디 소공자…?”

분명 레아는 프레디 소공자를 묶어두고 방을 나왔는데 지금 의자 위에는 소공자를 묶었던 밧줄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은빛 머리카락 한 올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 프레디 소공자 때문에 놀란 레아는 남아있는 밧줄을 손에 들었다.

“도대체 이건 어떻게 풀고 사라진 거람.”

절대 혼자서는 풀지 못하도록 꽉 묶었었는데. 사라질 거면 사라질 거라고 처음부터 말해줄 것이지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진 프레디 소공자 때문에 레아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그런 기분이 싫어 밧줄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어?”

그런데 손에 힘이 들어가자 갑자기 종이가 바스락 구겨지는 느낌이 났고 자세히 보니 밧줄의 끝에는 조그마한 쪽지가 묶여있었다. 레아는 혹시 프레디 소공자가 남긴 건가 하고 서둘러 그 쪽지를 읽어보았다.

[레아 황녀님께서 이 쪽지를 읽고 있으시다는 건 우리의 작전대로 일이 잘 끝났다는 것이겠죠. 그래도 안 잊고 저를 풀어주러 와주셨다는 건 좀 감동이네요. 고마워요.

아, 혹시 나를 풀어주러 온 게 아니거나 지금 이 쪽지를 읽고 있는 당신이 레아 황녀님이 아니라고 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다닐로만 제국의 황실과 하이모어 가문은 원수 사이인 건데 난 하이모어 가문의 차남이니까. 황녀님께서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죠. 뭐.

그래도 만약 정말 절 풀어주시러 온 것이라면 특별히 선물을 드릴게요. 황녀님의 머리카락 색과 눈동자 색을 바꾼 물약이 들어있던 서랍 기억나시죠? 한번 열어보세요.]

아까 열었던 서랍을 다시 열어보라는 말을 끝으로 쪽지에는 다른 얘기는 적혀있지 않았다. 레아는 그 쪽지를 다시 접으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걸 읽었으면 어쩌려고.”

다행히 프레디 소공자가 남기고 간 쪽지는 어느 정도 모든 것이 끝난 지금 레아가 읽고 있긴 했지만, 레아가 복수를 끝내기 전에 누군가 이걸 읽었다면 큰일이 날 뻔했다. 프레디 소공자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며 레아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곤 그 쪽지에 적힌 대로 아까 그 서랍을 한번 열어보았다.

서랍 안에는 처음 열어봤을 땐 없었던 두꺼운 서류 더미가 있었고 그 종이들 위에는 노란 편지 봉투가 하나 올려져 있었다.

‘이건 또 뭐야.’

설마 아직 뭐가 또 남은 건가 하는 불안한 마음에 레아는 두꺼운 서류부터 대충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았다. 그 서류들은 모두 하이모어 대공이 가지고 있던 광산에 대한, 레아가 파고 또 파면서 알아내려고 했던 증거들이 모두 모여있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프레디 소공자가 레아를 위해 준비해둔 마지막 무기인 것 같았다.

하이모어 대공은 레아가 직접 완벽하게 처리했으니 문제없었지만, 아직 크라스 경이 남아있으니 완전히 싹을 자른 건 아니었다. 거기다 서류를 몇 장 읽어보니 이 내용은 다른 일에도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았다.

‘설마 하이모어 대공이랑 가우디움 제국 황실이 연관이 있었을 줄은 몰랐어. 하긴, 가우디움 제국은 작은 제국이고 하이모어 대공은 충분히 그럴만한 힘이 있던 사람이었으니까.’

애초에 다닐로만 제국의 황제 자리를 노리던 사람이었으니까 다른 제국의 황실과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그리 이상한 건 아니었다. 거기다 가우디움 제국처럼 작은 제국이라면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레아는 생각했다.

“그래도 설마 다른 제국에서 마법석을 공급받고 있었을 줄이야. 심지어 가우디움 제국도 마법석을 채굴하는 방법이 그리 떳떳한 방법은 아니었다니….”

고아가 된 아이들을 광산으로 보낸 다음 밤낮 가릴 것 없이 노동력 착취를 했다니. 글로만 읽어도 너무나 화가 나고 열이 받아서 레아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소니움 황자…. 그냥 콱 죽여버리고 올 걸 그랬나. 갑자기 막 후회되네.’

하지만 여기에 적힌 내용을 보면 이건 비단 소니움 황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우디움 제국의 문제인 것 같았다. 이 정보는 아빠나 가스파르 재상에게 넘겨야겠다고 생각하며 레아는 노란색 편지 봉투를 뜯어보았다. 편지 봉투 안에는 당연한 말이지만 편지가 들어있었다. 프레디 소공자가 레아에게 보내는 진심을 담은 마지막 편지가.

“……….”

그 편지에는 대공의 광산에 대한 서류를 준비한 이유와 함께 마지막으로 레아에게 기억될 자신의 모습이 멋진 모습이 아니라서 슬프다는 말이 장난스럽게 적혀있었다.

[그래도 가능하면 물약을 먹고 레아 황녀님과 똑같은 모습이었을 때 말고 다른 모습으로 날 기억해줘요. 이왕이면 황실 정원에 있는 커다란 나무 앞에서 전 레아 황녀님의 머리에 붙었던 꽃잎을 때어드리고 황녀님께서는 제 얼굴에 생긴 상처를 치료해주셨던 그 날. 그날 그때의 모습으로 절 기억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가 스텔라가 떠난 이후 처음으로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거 같아요. 그때 레아 황녀님은 정말로 아름다우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아 황녀님께서는 제가 황녀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저 과거의 불행을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건 틀렸어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황녀님을 사랑했어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어때요. 이번에는 제 진심이 조금은 전해졌나요?]

편지 마지막에 적힌 진심이 조금은 전해졌냐는 장난인지 진심인지 모를 프레디 소공자의 질문에 레아는 왠지 눈물이 나올 거 같아 두 눈을 꼭 감았다. 정말 마지막까지도 프레디 소공자는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였다.

“진짜 짜증 나….”

그런데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면서도 이렇게 슬프고 눈물이 날 것만 같은 건 왜일까. 레아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정에 더 깊게 빠지기 싫어서 다시 눈을 떴다. 그리고 프레디 소공자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편지를 소중하게 손에 꼭 쥐었다.

레아는 프레디 소공자를 좋아하지 않았다. 남자로서는 물론이고 단지 한 사람으로서도 소공자는 레아에게 별로 좋은 이미지일 수가 없었다. 오늘은 프레디 소공자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레아는 정말 큰 일이 날 뻔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이미지가 막 좋아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레아는 진심으로 프레디 소공자가 행복하길 바랐다.

‘이제는 과거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길. 더는 아프지 말길.’

정말 진심으로 아프지 말고 잘 지내길 바랐다. 그 바람을 마지막으로 레아는 프레디 소공자를 완전히 떠나보냈고 그가 레아를 위해 남기고 간 서류들과 편지를 들고 방을 나왔다. 그리고 레아는 방에서 나오자마자 아빠와 라이 경을 포함한 수십 명의 기사를 정면으로 마주쳤다.

“깜짝이야. 다들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요?”

“레아. 괜찮은 거야?”

“아까 4층에서 다 확인했잖아요. 다친 곳도 없고 괜찮아요.”

“방금 나온 방 안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그런데 들고 있는 그 서류는….”

“아, 이건 하이모어 대공이 가지고 있던 광산에 대한 정보가 적혀있는 서류에요. 우리가 그렇게 파고 또 파도 결국은 못 찾아냈던 게 여기에 다 정리돼 있어요. 아주 쓸모 있을 거예요.”

가장 큰 일은 끝났지만, 아직 자잘한 일은 남아있는 상태였다. 특히 가우디움 제국을 처리하는 일은 아무리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해도 그리 간단한 일을 아닐 것이니 아직 모든 일이 끝난 건 아니었다.

“그런데 진짜 다들 여기서 왜 그러고 있었어요? 꼭 당장이라도 문을 부술 것만 같은 표정으로.”

“그야 정말로 부수려고 했으니까.”

“네? 문을 왜요?”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거면 그냥 열고 들어오면 되는 거지 왜 문을 부수려고 했던 걸까. 레아가 깜짝 놀란 얼굴을 하자 아빠는 그런 레아를 보며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넌 갑자기 뛰쳐나가더니 말도 없이 사라졌지 모든 인원이 별장을 뒤져도 나오는 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맛이 제대로 간 소니움 황자뿐이지 그런데 딱 이 방 하나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어쩌겠어. 우리 레아가 이 방에 있는 것 같은데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봐야지. 혼자 있으면 또 위험해질지도 모르는데.”

“이 방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요?”

“누군가 마법으로 문을 잠근 거 같던데 레아 넌 대체 어떻게 안으로 들어간 거야? 나오는 건 또 어떻게 나오고.”

“그냥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문 열고 나온 건데….”

레아가 방에 들어갈 때랑 나올 때는 아무 문제도 없어서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었는데 마법이 걸려 있었다니. 그 방 안에는 분명 레아 혼자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다. 그러다 곧 레아의 머릿속에서는 스치듯 누군가의 이름이 떠올랐다.

‘설마…?’

설마 레아가 서류를 꺼내 보고 편지를 읽는 동안 그걸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 그렇다면 프레디 소공자는 아직 이 별장 안에 있을 확률이 높았고 레아가 찾으려고 한다면 찾을 수 있을 것이었다. 어쩌면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대화도 다 듣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하지만 레아는 아빠에게 아직 프레디 소공자가 이 별장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다.

‘아마 프레디 소공자는 내가 자신을 찾아주지 않길 바라고 있을 거니까.’

프레디 소공자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진심이 담긴 편지에는 소공자가 정말 진심으로 레아를 좋아하고 있다는 고백이 적혀있었다. 하지만 레아는 그 고백에 대한 답으로 마음은 고맙지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해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아마 프레디 소공자도 레아가 해줄 수 있는 답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레아가 조용히 떠나려는 프레디 소공자를 굳이 찾아내서 붙잡는다는 건 희망 고문에 불과했다. 그러니 프레디 소공자를 위해서라도 레아는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다.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될 거 같아요. 이제 이 별장에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니까.”

“뭐? 하지만….”

“어서 황궁으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아빠가 하셔야 할 일이 얼마나 많다고요.”

아빠는 아직 열리지 않던 문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시는 것 같았지만 레아는 아직 아빠가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며 어서 황궁으로 돌아가자고 등을 떠밀었다.

“……….”

별장을 나와 황궁으로 돌아가기 위해 마차에 오르기 직전 레아는 고개를 돌려 하이모어 대공의 별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직 별장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프레디 소공자에게 마음으로 해줄 수 없는 진심이 담긴 고백에 대한 답을 남겼다.

‘고마워요. 프레디 소공자. 날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말도 사실 아주 조금은 기뻤어요.’

아, 근데 라이 경한테는 비밀이에요. 내가 고백받아서 기뻤다는 거.

절대 소공자에게는 전해지지 않을 마음의 소리였지만 그래도 꼭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레아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104.반짝반짝 빛나는.docx

“레아 황녀님. 곧 황궁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후아아아암. 벌써요?”

“네. 10분 뒤에 마차가 멈춰설 것 같습니다.”

별장에서 출발한 게 아까 같은데 벌써 도착이라니. 레아는 어쩌면 하이모어 대공의 별장과 황궁은 꽤 가까웠던 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며 기지개를 쭉 켰다. 라이 경은 흐트러진 레아의 머리를 정리해주었다.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별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알게 모르게 피로가 쌓이셨을 겁니다.”

“나도 그러고 싶긴 한데…. 씻고 옷만 갈아입은 다음에 바로 하비투스를 만나러 가야 할 거 같아요. 고맙다는 말은 해야 할 거 같아서.”

“하비투스 님도 이번 일과 연관이 있으신 겁니까?”

“응. 하비투스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마 하이모어 대공의 근처에도 못 갔을 거예요.”

하비투스가 만든 물약 덕분에 레아는 머리카락 색과 눈동자 색을 바꾸고 멍청한 소니움 황자를 속일 수 있었고 하이모어 대공의 위치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오늘은 안 될 거 같아도 레아는 다리아 영애도 한번 만나봐야 했다.

‘다리아 영애…. 많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무슨 말을 해줘야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려나.’

첫사랑은 바람둥이 날라리 시절의 프레디 소공자였는데 두 번째 사랑은 영애를 이용하기만 한 속이 시커먼 놈이었다니. 레아는 다리아 영애가 조금이라도 덜 상처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딱히 뭘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는 상황이라 더 신경이 쓰였다.

하지만 사실 레아는 지금 상처받을 다리아 영애보다 더 신경이 쓰이는 사람이 있었다.

‘아빠는 왜 갑자기 라이 경한테 나랑 같이 마차를 타고 오라고 했을까. 원래 같았으면 나 혼자 타고 오거나 본인이 옆에 있어 주겠다고 하실 분인데.’

별장에서 마차가 출발하기 직전 아빠는 뜬금없이 라이 경에게 레아와 같이 마차를 타고 오라는 말씀하셨다. 뭐, 워낙 큰일이 있었고 불안해서 레아를 마차 안에 혼자 두고 싶지 않아서 그런다고는 하셨지만, 레아가 그 말을 믿을 리가 없었다. 덕분에 레아는 마차 안에서 라이 경의 어깨에 기대어 편하게 잘 수 있었지만…아빠가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건지 계속 신경이 쓰였다.

설마 라이 경과 그렇고 그런 사이란 걸 들킨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만약 그랬다면 한바탕 뒤집혔어야 하는 건데 오히려 아빠는 라이 경과 단둘이 있을 시간을 만들어주셨다. 그러니 들킨 건 아닌 거 같고 오히려 반대로 절대 그럴 일 없는 사이라고 생각하시게 된 건가 싶기도 했다.

‘그러고 보니 요즘은 우리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문이 돌아도 아빠는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지. 만약에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으신 거라면 좀 곤란한데….’

지금이야 라이 경과 사귀고 있다는 걸 숨기고 있긴 하지만 언제까지고 숨기기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언젠가는 꼭 말씀드려야 하는데 너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 걱정이었다.

“참…하이모어 대공만 없으면 사는 게 편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또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또 무슨 일이 있다기보다는 전부터 했던 거랑은 정반대의 고민? 걱정? 아무튼, 그런 거예요. 언젠가는 해야 하는 거 비슷한 거기도 하고.”

“무슨 생각이고 어떤 고민인지 저에게도 말씀해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씻고 옷부터 갈아입은 다음에 하비투스 만나고 다시 방으로 돌아가면 그때 얘기해줄게요.”

어차피 이건 레아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라이 경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봐야 할 일이니까. 레아는 그렇게 말하며 싱긋 웃었고 곧 마차가 황궁에 도착해 내릴 때가 되었다.

오늘 새벽에 납치당해서 저녁이 되기 전에 안전하게 황궁으로 돌아온 건데 어쩐지 참 오랜만이라고 생각하며 레아는 먼저 내린 라이 경의 손을 잡고 마차에서 내렸다. 그런데 레아가 마차에서 내리는 순간 갑자기 난데없이 꽃가루가 팡팡 터졌고 짝짝 손뼉 치는 소리도 들려왔다.

“레아 황녀님의 무사 귀환을 축하드립니다!”

“키린?”

“무사히 돌아와 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정말 힘든 일을 멋지게 끝내주셔서 감사해요.”

“하하. 고마워요. 키린.”

“고맙긴요. 큰 도움이 되어 드리지도 못했는데요. 저는.”

이제 자신의 가족이 인질로 잡혀 협박당할 일 없이 자유를 얻게 된 키린은 진심으로 레아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며 그 어느 때보다 티 없이 맑게 웃고 있었다. 아직 남은 일 때문에 한숨을 쉬던 레아는 키린의 웃는 얼굴을 보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다. 그런데 언제부터 있었는지 키린의 옆에 있던 하비투스가 한마디 툭 던졌다.

“넌 별로 도움이 안 되긴 했지. 급하게 물약 만드는 거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시키는 것도 제대로 못 하고 혼자 어쩌면 좋냐고 오두방정을 떨었으니.”

“그, 그걸 황녀님께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하비투스 님!”

“내가 없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뭘.”

“진짜 놀랐는데 그럼 어떡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레아 황녀님께서 없어지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너만 놀랐겠냐. 나도 내 조카 같은 레아 황녀님이 사라지셨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데.”

조카는 무슨 조카. 레아는 분명 하비투스를 삼촌 비슷한 거로 생각해본 적도 없는데 하비투스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래도 하비투스가 만들어준 물약이 많은 도움이 된 건 사실이니까 레아는 특별히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건 가만히 놔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안 그래도 옷 갈아입고 찾아가려고 했는데 나와 있었네요. 물약은 잘 써먹었어요. 고마워요.”

“분홍색 곱슬머리에 빨간 눈동자 레아 황녀님 보고 싶어서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셨나 보네요. 아쉬워라.”

“으음. 그러고 보니 그 모습을 본 사람은 별로 없네요. 아빠랑 라이 경도 못 봤으니까.”

레아의 가늘게 곱슬곱슬한 분홍색 머리카락을 가진 소녀 루시 모습을 본 사람은 프레디 소공자와 앤드류 경, 소니움 황자, 하이모어 대공 그리고 별장에 있던 시녀들이 전부였다. 그런데 레아가 하비투스가 만든 물약을 먹었다는 말에 아빠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내 딸한테 무슨 불량 식품을 먹인 거야?”

“불량 식품이라뇨. 다닐로만 제국 최고의 마도사가 직접 만든 물약인데.”

“레아. 다음부턴 저 솜사탕 같은 녀석이 뭘 주면 절대 먹지 말고 버려버리렴.”

“너무하시네요. 분홍분홍 솜사탕 같은 레아 황녀님을 보셨으면 제일 좋아하셨을 거면서.”

“우리 레아는 그런 불량 식품 없어도 원래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럽다는 걸 모르고 있다니. 어리석군.”

어떻게 보면 하비투스가 만들어준 물약 덕분에 하이모어 대공을 끝장낼 수 있었던 건데 불량 식품이라니. 그러면서도 언제나처럼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딸! 이라고 외치시는 아빠의 모습에 레아는 어쩐지 웃음이 나왔다.

‘그래. 이러셔야지 우리 아빠지. 이게 내 일상이고.’

엄청난 일을 겪고 돌아와서 그런지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나도 당연했던 일상이 지금은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왠지 마음이 놓이는 듯한 느낌이었다.

“아, 이런 얘기나 하려고 여기 있었던 게 아닌데. 하마터면 잊어버릴 뻔했네요.”

“네? 뭐가요?”

“선물 준비했어요. 레아 황녀님이 아리샤 누나의 복수를 대신 끝내주신 기념으로.”

“선물이요?”

갑자기 선물을 준비했다는 하비투스의 말에 레아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비투스가 준비한 선물이라고 하니 도대체 뭘 준비했을지 전혀 예측되지 않았다.

“아마 황녀님의 마음에 드실 거예요.”

“…과연.”

하비투스가 레아의 마음에 들 정도로 센스있는 선물을 준비했을 거 같지는 않은데. 하지만 그런 레아의 반응에도 하비투스는 자신이 있는 듯 가볍게 웃으면서 손가락을 튕겼다. 하비투스가 손가락을 튕기자마자 저 멀리서 굉장한 비명이 들리는 것 같더니 곧 무언가 커다란 것이 빠른 속도로 이쪽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저게 뭔가 싶어서 멍하니 바라보던 레아는 그 커다란 것이 어느 정도 가까워지자 정체를 눈치채고 깜짝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설마 크라스 경?”

“레아 황녀님께서 대공의 별장에서 멋지게 복수하고 있으실 때 제가 잡아뒀어요. 도망이라도 가버리면 안 되니까요.”

“근데 은빛 머리카락이…….”

“제가 다 뽑아버렸습니다. 꼴 보기 싫어서.”

짙은 파란색 눈동자도 뽑아버릴까 하다가 그건 레아 황녀님의 몫으로 남겨두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하비투스를 보며 레아는 할 말이 없어 그냥 하하 웃었다. 그래도 크라스 경은 원래 잡아서 족쳐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비투스가 준비한 선물은 나름대로 만족스러웠다.

“으아아아아악!”

“아, 시끄러워.”

“윽!”

곧 크라스 경이 레아의 앞에 도착하자 하비투스는 얼굴만 쏙 나오게 그를 땅에 묻어버렸고 그게 그렇게 굴욕적이었는지 크라스 경은 땅에 파묻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를 악물고 레아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제발 살려만 달라고 벌벌 떨면서 빌 줄 알았는데 예상과는 다른 반응에 레아는 의외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려보는 것과 달리 크라스 경의 입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곧 레아는 시시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비투스. 혹시 말 못 하게 하는 저주라도 걸어놨어요?”

“아뇨. 온몸에 있는 털을 다 뽑아버리고 공중에서 몇 번 빙빙 돌린 거 말고는 딱히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말이 없을까요? 살려달라고 빌 줄 알았는데.”

“아무리 살려달라고 빌어봤자 살려줄 리가 없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겠죠. 그렇게 멍청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렇구나.”

하비투스의 말대로 레아는 절대 크라스 경을 살려줄 마음이 없었다. 이번에 레아는 정말 큰일이 날 뻔했는데 괜히 용서한답시고 살려뒀다간 나중에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를 일이었다.

‘갑자기 큰일이 생기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것도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 편하고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

그리고 그런 삶을 위해서라면 크라스 경은 사라져줘야만 했다. 레아는 잠시 크라스 경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고민하다 직접 처리하는 건 너무 피곤하고 귀찮을 거 같았다. 그래서 이 새끼를 처리하는 건 다른 사람한테 맡기기로 했다.

“난 피곤하니까 그냥 하비투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어차피 하비투스가 잡았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요?”

“네. 그래도 상관없죠? 아빠.”

“나도 피곤해서. 숨통만 제대로 끊어놓는다면 누가 해도 상관없어.”

“그럼 제가 알아서 숨통은 제대로 끊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응. 부탁해요. 하비투스.”

이미 별장에서 마력도 다 쓰고 오고 이래저래 피곤했던 레아에게 크라스 경을 조지는 일은 그저 귀찮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었고 아빠 역시 크라스 경에게는 별 관심이 없으셨는지 대충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리고 그런 두 사람의 반응에 크라스 경은 당황한 듯했다.

‘아니. 그래도 이번 계획을 세운 것도 나고 레아 황녀에게 하이모어 가문의 아이를 가지게 하라고 말했던 것도 난데…! 그런데 황녀고 황제고 분노는커녕 저런 식으로 나오다니. 대체 무슨 생각인 거지?’

당연히 분노에 차서 욕부터 시원하게 할 줄 알았는데 피곤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알아서 잘 처리하라니. 지금 상황에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좀 웃기지만 그 정도로 크라스 경은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게 너무나도 분하고 또 분했다. 그래서 정말 독기가 가득한 눈으로 레아 황녀와 레그마인 황제를 노려보았지만…. 그러든 말든 두 사람은 크라스 경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러고 보니 레아는 오늘 아무것도 못 먹은 거 아니야? 배고플 거 같은데 식사부터 할까?”

“배고프긴 한데 씻고 옷부터 갈아입고 싶어요. 아무리 뱃가죽이 등가죽에 붙을 거 같다고 해도 피투성이인 상태로 식사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네. 그럼 일단 목욕부터 하고 바로 식사할 수 있게 준비해달라고 할게. 혹시 뭐 먹고 싶은 건 없고?”

“음. 오늘은 아삭아삭한 채소 요리요. 아무래도 고기는 좀….”

“하긴. 나도 오늘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스테이크는 좀….”

부녀는 벌써 크라스 경의 존재를 잊은 건지 오늘 저녁에는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 하는 얘기를 하며 황궁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숨통이 끊어질 때는 끊어지더라도 이렇게 무시당하는 건 아닌 거 같아서 크라스 경은 멀어져 가는 레아 황녀를 크게 부르려고 했다. 하지만 하비투스가 머리를 발로 콱 밟아버리는 바람에 그럴 수가 없었다.

“응. 아니야. 레아 황녀님 귀찮게 하지 마. 지금부터 네 상대는 나란 말이야.”

“이런…!”

“응. 시끄러워. 내가 재밌게 해줄 테니까 조용히 하고 따라와.”

어쩐지 조금 즐거워 보이는 하비투스는 룰루랄라 크라스 경의 입을 막은 다음에 공중에 띄워 빙글빙글 돌리며 어디론가 데리고 갔고 크라스 경은 무슨 소리를 지르는 것 같기도 했지만, 당연히 그 소리가 들리진 않았다. 레아는 잠시 뒤돌아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피식하고 작게 웃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아빠를 빤히 바라보았다.

“아빠.”

“응? 왜?”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빠에게 하이모어 대공은 정말 길고도 긴 지긋지긋한 악연이었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시려나. 문득 그게 궁금해져서 물어보고 싶었지만, 레아는 그냥 묻지 않기로 하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런 레아를 보며 아빠는 조용히 생각했다.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오히려 레아가 날 지켜주려고 아리샤가 끝내지 못한 복수를 대신 끝내주었어. 누구 딸인지 정말 당차고 씩씩하다니까.’

오늘 레그마인 황제와 라이 경은 레아를 구하러 하이모어 대공의 저택으로 갔지만 두 사람이 별장에 도착해서 레아에게 갔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상태였다. 거기다 레그마인 황제는 울고 있는 레아를 달래주지도 못하고 위로해주지도 못했다. 못나도 이렇게 못난 아빠는 세상에 자신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황제는 아무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새삼 느끼는 거지만 역시 우리 레아는 나한테 너무 과분한 딸이라니까.’

어떻게 이런 못난 아빠 밑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가 태어났을까. 레그마인 황제는 이렇게 멋진 딸을 낳아서 잘 키워준 아리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역시 레아는 아빠의 인생에서 최고의 선물 같은 존재였다.

105.새로운 사랑.docx

황녀님 납치사건이라는 엄청난 일이 있고 난 뒤 당연한 말일 수도 있지만, 황실뿐만 아니라 다닐로만 제국의 전체가 들썩일 정도로 난리가 났었다. 벨리시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인 우나타에 있는 나탈리 이모에게서 먼저 연락이 올 정도면 정말 엄청난 것이었다.

[레아! 괜찮은 거야? 어디 다친 곳은 없고?]

“괜찮아요. 그보다 나탈리 이모는 잘 지내고 있는 거죠? 브로디 아저씨랑 에리스 아줌마도 건강하시죠?”

[지금 우리 걱정할 때가 아니잖아! 너 죽을 뻔했다며!]

“아뇨. 죽을 뻔한 건 아니고….”

[세상에 아무리 제국의 황녀라고 해도 소설에서나 보던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너 죽어도 황궁에 안 보냈지! 레아. 정말 괜찮은 거야?]

“괜찮다고 아까도 말했잖아요. 저 진짜 괜찮아요. 이모.”

오히려 황궁으로 오지 않았다면 정말로 죽었을지도 몰랐다. 그나마 레아가 황녀였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었을까 싶었다.

“그리고 솔직히 처음에는 내가 황녀라는 사실도 너무 싫고 황궁도 너무너무 싫었는데 지금은 아빠를 만나고 황궁에 올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있어요. 좋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고요.”

[네가 황족 생활에 만족한다니 다행이긴 한데…그래도 막상 그렇게 말하니까 좀 서운하네.]

“하하. 우나타에서 살았을 때의 기억도 저한테는 모두 소중한 추억들이에요. 힘들고 아팠던 것도 모두.”

누가 뭐래도 레아는 우나타라는 별이 잘 보이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만난 좋은 이웃들 덕분에 이렇게 밝고 씩씩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 조금은 불우한 가정사였을진 몰라도 어려서부터 한 번도 그런 생각해본 적이 없는 건 모두 나탈리 이모와 이웃들이 아낌없이 레아를 사랑해준 덕분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충격적인 일을 겪었음에도 움츠러들지 않고 평소처럼 웃는 얼굴로 잘 지낼 수 있는 건 황궁에서도 레아가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내가 황녀가 아니고 황궁에 오지 않았다면 라이 경과도 만날 수 없었겠지. 처음 날 데리러 온 사람이 라이 경이었으니까.’

나탈리 이모가 그때 그 기사님이랑 레아가 연인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면 과연 뭐라고 하시려나. 반응이 좀 궁금하기는 했지만 아직은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레아는 조용히 웃었다. 그렇게 나탈리 이모와 연락을 마친 레아의 다음 일정은 다리아 영애와 함께 차를 마시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정말 내가 먼저 찾아가려고 했는데 외출 허락받는 게 쉽지가 않아서…. 자꾸 오라고 해서 미안해요. 다리아 영애.”

“아니에요. 사실 저도 요즘 집에 있는 게 좀 그런데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나중에 영애가 초대해주면 꼭 저택으로 놀러 갈게요.”

“네. 꼭 놀러 와 주세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레아는 다리아 영애가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미안한 감정도 있었는데 다행히 영애는 앤드류 경이 자신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실을 부정 없이 받아들여 주었다. 하지만 상처를 안 받을 순 없었던 것인지 그 사실을 들은 후 다리아 영애는 길었던 머리를 짧은 단발로 잘라버렸다.

‘상처 안 받을 수가 없겠지. 다리아 영애는 앤드류 경을 진심으로 많이 좋아했으니까.’

겨울 감사제 때 앤드류 경에게 줄 초콜릿을 만들 거라며 설레하던 다리아 영애의 모습이 레아는 아직도 기억났다. 그래서 일이 이렇게 돼버린 것이 그 누구보다 속상하고 안타까웠다. 왠지 자신 때문인 거 같기도 해서 레아는 다리아 영애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뭘 해줘야 할지 알 수가 없어 같이 차를 마시며 얘기를 들어주는 것밖에 해줄 수가 없었다. 그런데 다행히 다리아 영애는 점점 괜찮아지는 듯했고 요즘은 전처럼 다시 미소짓고 웃기도 했다.

“사실 오늘 아버지와 좀 다투었거든요. 집에 있으면 공기가 차가운데 레아 황녀님이 불러주셔서 그 분위기에서 도망칠 수 있었어요.”

“그래요? 다리아 영애가 앨버트 후작과 다툴 때도 있군요.”

“하하. 사실 거의 안 다투는 편이긴 한데 제가 아침 식사 때 폭탄 발언을 했거든요. 듣자마자 바로 화를 버럭 내셨어요.”

“폭탄 발언이요?”

그 얌전하고 착한 다리아 영애가 아침부터 폭탄 발언을 했다니. 레아라면 일단 지르고 보자! 하면서 충분히 할 수도 있었지만 어쩐지 다리아 영애와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었다.

“아침부터 연애할 생각은 이제 하지 말고 부모님이 골라주신 남자랑 내년에 약혼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럴 바에는 그냥 아무도 안 만나고 결혼도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내시더라고요.”

“정략결혼은 하기 싫다고 했다고 화를 내셨다고요?”

“네. 부모님은 데릴사위를 들여서 나중에 저랑 같이 가문을 이끌길 바라시는 거 같아요. 근데 제가 자꾸 이상한 놈들만 만나고 다니니까….”

“으음. 그게 다리아 영애 잘못도 아닌데 왜 화를 내셨을까요. 정략결혼도 영애가 싫다면 억지로 시킬 수 없는 건데.”

“그러게나 말이에요. 솔직히 전 이제 더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도 않거든요.”

이제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는데 상처받는 일에 질린듯한 다리아 영애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레아는 그런 다리아 영애의 마음이 이해가 가기도 하고 아직 17살일 뿐인데 벌써 약혼이니 결혼이니 하는 말이 부모님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갑갑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나도 라이 경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약혼이나 결혼 같은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물론 헤어질 생각은 전혀 없지만…귀족들에겐 이런 게 당연한 건가.’

레아는 황녀가 되면서 절대 적응할 수 없을 거라며 고개를 저었던 것들도 결국엔 전부 적응해버리고 말았지만 끝내 이건 적응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았다. 물론 아빠는 레아에게 결혼을 강요하지 않을 게 분명했지만, 갑자기 생각이 많아진 레아는 속이 답답해졌다.

라이 경도 레아가 원하지 않는다면 약혼이나 결혼을 강요하진 않겠지만 피에르 시종장님의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두 사람의 사이를 알게 되시면 아무래도 속으로는 두 사람의 결혼을 바라게 되실지도 몰랐다. 레아 역시 어차피 라이 경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시종장님이 라이 경의 곁에 계실 때 약혼이라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애초에 17살이 왜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건지 레아는 얼굴이 찌푸려졌다.

“안 되겠다. 다리아 영애. 우리 정원으로 나가요.”

“네? 갑자기 정원이요?”

“영애도 지금 속이 답답하잖아요. 나가서 좀 걸으면 나아질 거예요.”

“그런데 라이 경은 어디….”

“라이 경은 지금 훈련하고 있을 거예요. 방 밖으로 나갈 일 있으면 부르라고 하긴 했는데 훈련 방해하는 거 같아서 안 부르려고요. 솔직히 좀 귀찮기도 하고.”

혹시라도 또 위험한 일이 생길까 봐 라이 경은 절대 혼자서 방 밖으로 나가지도 말고 창문도 열지 말라고 했었다. 레아도 라이 경이 왜 그러는지 이해는 하지만 솔직히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자주 했다.

안 그래도 원래 과보호였는데 더 심해지는 건 사절이었다. 레아는 절대 그렇게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하며 머뭇거리고 있는 다리아 영애의 손을 이끌고 정원으로 나왔다. 단지 방에 있다가 정원으로 나왔을 뿐인데도 다리아 영애는 호위기사 없이 움직이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건지 자꾸만 주변 눈치를 보였다. 그런데 시종들이나 시녀들이 호위 없이 정원으로 나온 두 사람을 보고도 하나도 안 놀라는 게 신기하기도 했다.

‘당연히 모두가 이상하게 쳐다볼 줄 알았는데 정말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구나. 레아 황녀님께서는 종종 혼자서 산책하셔서 다들 익숙해진 걸까?’

지금이야 익숙해졌다고 해도 처음에는 분명 모두가 힐긋힐긋 쳐다봤을 건데 다리아 영애는 아무렇지도 않게 혼자 잘 돌아다니시는 레아 황녀님이 멋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런 황녀님이 부러웠고 닮고 싶기도 했다.

“레아 황녀님. 황녀님은 정말 멋있으신 거 같아요. 부러울 정도로.”

“네? 갑자기 뭐가 멋있어요?”

“남들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행동하시는 게 저는 부러워요. 이렇게 호위기사 없이 혼자 돌아다니셔도 아무도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는 것도 이제는 모두가 익숙해져서 그러는 거잖아요.”

“어…. 그거 칭찬 맞죠?”

“아, 혹시 안 좋게 들리셨다면 죄송해요. 하지만 전 정말 그런 황녀님이 멋있고 부럽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흐음.”

저렇게 순수한 얼굴로 진심이라면 진심인 거겠지. 그리고 레아가 원래 알고 있는 다리아 영애의 성격을 미루어보아 비꼬는 건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뭐가 멋있고 부럽다는 건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어떤 점이 멋있다는 건진 모르겠지만 부러워할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다리아 영애는 나보다 더 착하고 충분히 좋은 성격이니까.”

“하하.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해요. 레아 황녀님.”

“그리고 이 성격으로 살면 엄청 피곤할걸요? 뭐, 나야 그나마 황녀라서 천만다행이지만….”

“아…….”

레아는 말끝을 흐렸지만, 굳이 듣지 않아도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가 있어서 다리아 영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

“라이 경.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네. 없습니다.

“냉정한 녀석. 생각해보는 척이라도 좀 하지?”

“생각해봐도 푸엘라 경에게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갑자기 싱글싱글 웃는 얼굴로 와서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라이 경은 특별히 푸엘라 경에게 해줄 말이 없었다. 그런데 푸엘라 경은 여전히 묘한 웃음을 지으며 라이 경을 놀리는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너랑 레아 황녀님이랑 연애한다고 소문이 쫙 퍼졌는데 너랑 제일 친한 나한테 정말 할 말이 없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푸엘라 경이랑 제일 친하다고 누가 그럽니까?”

“어라. 그럼 아니야?”

“아닙니다.”

“뭐야. 너무해!”

자신이 제일 친한 사람이 아니란 말에 푸엘라 경은 진심으로 서운한 표정을 지었지만 라이 경은 그런 푸엘라 경을 무시하며 수건으로 흐르는 땀을 닦았다. 푸엘라 경과 친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라이 경과 제일 친한 친구는 역시 그 녀석이었다.

‘그 녀석…. 나한테는 말도 없이 떠나버렸지. 욕을 하더라도 얼굴이라도 보고 갈 것이지.’

우정은 이제 끝났다고 말하긴 했어도 이렇게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질 줄은 몰랐다. 우정을 버리고 사랑을 택하겠다고 했던 그 대화가 절친했던 친구와의 마지막 대화였다고 생각하니 라이 경은 조금은 후회가 됐다. 하지만 인제 와서 후회해봤자 달라지는 것이 없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레아 황녀님과는 정말 연애하는 게 아니야? 너 겨울 감사제 때 초콜릿도 받았다면서.”

“레아 황녀님께서 겨울 감사제 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초콜릿을 나눠주셨는지는 푸엘라 경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머핀이었는데 너만 케이크였다며.”

“그런 건 대체 어디서 듣고 다니시는 겁니까?”

“누구긴 누구야. 오스카 경이 알려줬지.”

“……….”

오늘 밤 룸메이트인 오스카 경의 입을 찢어버려야 하나 라이 경은 진지하게 고민을 했다. 겨울 감사제 때는 짝사랑 중이었고 레아 황녀님과 연인이 되기 전이었는데도 자꾸 이런 식으로 소문이 퍼지면 좀 곤란했다. 이러다 비밀연애고 뭐고 다 들키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 마침 오스카 경이 등장해주었다.

“솔직히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은 기숙사도 전보다 늦게 들어오시면서.”

“요즘 레아 황녀님과 저녁때마다 같이 정원을 산책하는 걸 목격했다는 증인들도 있어.”

“그럼 매일 데이트하고 들어오시는 거였습니까?”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지. 라이 경.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도 라이 경이 저녁마다 레아 황녀님과 데이트를 즐기는 건 사실이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심했는데 역시나 레아 황녀님과 남들 몰래 황궁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건 불가능한 일인 모양이었다. 하지만 데이트했다는 걸 들켜도 라이 경은 둘러댈 말이 있었다.

“레아 황녀님께서는 원래 산책을 좋아하시고 저는 황녀님의 호위기사로서 옆에 있었을 뿐입니다. 특히 레아 황녀님께서 납치를 당하셨던 일이 있고 나서는 절대 황녀님 혼자서 방 밖을 나오시는 일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밤 산책을 했던 거라고?”

“호위기사로서 황녀님을 지켜드리는 건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뭐…. 그건 그렇지.”

이 정도 말했으니 이제 당분간은 레아 황녀님과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니냐는 소리를 안 들어도 될 거 같았다. 그렇게 생각하며 라이 경은 물을 마시려는데 갑자기 오스카 경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레아 황녀님께서 정원을 산책 중이신 겁니까? 라이 경은 여기서 훈련 중이었는데.”

“…뭐?”

“오, 진짜네. 그런데 옆에 같이 있는 사람은 누구지?”

“갈색 머리인 걸 보니 앨버트 후작 가문의 다리아 영애신 거 같습니다.”

오늘 다리아 영애께서 놀러 오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두 분이 정원 산책을 나오실 줄은 몰랐다. 다리아 영애는 아직 앤드류 경 때문에 받은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으니 황녀님의 호위기사이자 남자친구인 라이 경에겐 계속 방에만 있을 것이니 눈에 띄지 말고 다른 곳에 있어 달라고 부탁하셨는데. 라이 경은 지금 꽤 당황하는 중이었다.

‘아니, 레아 황녀님은 원래 내가 안 된다고 말해도 혼자서 잘 나오시지만, 다리아 영애는 어째서….’

절대 레아 황녀님께서 혼자서 방을 나오시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한 지 1분도 안 돼서 다리아 영애와 함께 호위 없이 정원을 산책 중이신 모습을 보게 될 줄이야. 라이 경은 민망해진 이 분위기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다. 그런데 다행히도 푸엘라 경은 다른 곳에 관심이 있는 듯했다.

“저분이 다리아 영애라고? 영애께서는 머리가 길지 않았나…?”

“자르신 거 같습니다. 레아 황녀님께서 납치당하셨던 그 일로 영애께서도 상처를 받으셨을 텐데 원래 여자들은 심경에 큰 변화가 생기면 머리를 짧게 자르기도 하잖습니까.”

“아….”

오스카 경의 말을 들은 푸엘라 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레아 황녀님과 함께 있는 다리아 영애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라이 경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근데 다리아 영애가 저렇게 예뻤었나.”

106.사랑은 타이밍이다.docx

“근데 다리아 영애가 저렇게 예뻤었나.”

푸엘라 경이 자신도 모르게 작게 중얼거린 말이었지만 바로 옆에 있던 라이 경은 그 말을 확실하게 들을 수 있었다.

‘그렇게 연애하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노래를 하더니 다리아 영애에게 관심이라도 생긴 건가. 그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레아 황녀님과 연인 사이라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푸엘라 경이 레아 황녀님의 절친한 친구인 다리아 영애에게 관심을 보이는 게 당연히 라이 경은 별로 달갑지 않았다. 거기다 지금 다리아 영애가 누군가를 만나고 연애 같은 걸 하고 싶을 리가 없었다.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

푸엘라 경도 그냥 단순히 머리를 짧게 자르니 전보다 더 예쁘다고 생각한 걸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정말 첫눈에 반했다고 해도 다리아 영애가 푸엘라 경을 마음에 들어 할 리도 없었다. 착하기는 정말 착하지만, 진짜 착하기만 한 사람인 푸엘라 경은 솔직히 여자에게 인기 있는 스타일은 아니었다.

그러니 별일 없겠지. 라이 경은 그렇게 생각하며 땀을 닦은 수건과 마시던 물을 오스카 경에게 넘기며 말했다.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벌써 가시는 겁니까? 푸엘라 경이 서운해할 거 같은데.”

“이미 황녀님께서 정원을 산책하고 있으신데 지금 당장 샤워하고 가도 늦은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 그렇긴 하네요.”

아예 보지를 못했으면 모를까 레아 황녀님께서 정원을 산책 중이신 걸 봐버린 이상 계속 훈련을 하는 건 말이 되지 않았다. 그 말에 오스카 경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라이 경은 그대로 샤워실로 향했다. 그리고 푸엘라 경은 라이 경이 가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레아 황녀님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다리아 영애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바라보고 있었으니 당연히 레아와 다리아 영애 역시 그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저 기사님은 계속 빤히 쳐다보시네요. 역시 호위기사 없이 저희 둘이서만 산책하는 게 이상해 보이는 거겠죠?”

“아니요. 왜 쳐다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아닐 거예요. 초록색 머리에 밝은 호박색 눈동자니까 푸엘라 경인 거 같은데….”

“레아 황녀님과 친하신 기사님인가요?”

“저도 직접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는데 라이 경이랑 친해서 얘기는 자주 들었어요.”

“으음. 그럼 왜 저렇게 빤히 쳐다보시는 걸까요?”

푸엘라 경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던 건지 다리아 영애는 어색하게 웃었고 레아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설마 라이 경이랑 내가 사귀는 걸 들킨 건가? 아니다. 둘이 친하다고 했으니까 라이 경이 알려준 걸 수도 있겠다.’

근데 그렇다면 레아와는 상의도 없이 라이 경 맘대로 사귀고 있다는 걸 말한 건가?

레아도 다리아 영애와 보니타 황후 폐하께 라이 경과 연인이 되었다고 얘기했으니 라이 경도 꽤 친한 사이인 푸엘라 경에게 말할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레아에게 말도 없이 푸엘라 경에게 사귄다고 얘기했다면 조금 기분이 별로일 거 같았다.

‘일단 나중에 둘만 있을 때 라이 경한테 물어봐야지.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까.’

푸엘라 경도 다른 이유로 레아와 다리아 영애를 빤히 쳐다보는 걸지도 모르고 어쩌면 두 사람을 보는 게 아닐지도 몰랐다. 그리고 잠깐 그런 생각을 하긴 했지만 라이 경이 레아에게 말도 없이 사귀는 사이라는 말을 하고 다녔을 거 같진 않았다. 아마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말도 안 하지 않았을까 하고 레아는 생각했다.

\*\*\*

“가스파르 재상. 내가 진지하게 항의할 게 하나 있는데.”

“네. 말씀하시죠. 폐하.”

“요즘 인간적으로 내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하이모어 대공과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가우디움 제국도 가만히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프레디 소공자가 빼도 박도 못 할 증거들을 서류로 넘겨주었으니 일이 줄어든 것입니다.”

“나도 알아. 나도 그건 아는데….”

안 그래도 하나뿐인 소중한 딸과 라이 경의 사이가 보통 황녀님과 호위기사 사이가 아닌 거 같아서 신경 쓰여 죽겠는데 집무실에 처박혀서 넘치는 일에 파묻혀서 허우적거려야 한다니. 레그마인 황제는 이 상황이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니, 그렇게 큰일이 있었는데 아빠가 일 때문에 딸 얼굴 볼 시간이 저녁 식사할 때밖에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러다 레아가 내 얼굴 까먹으면 가스파르 재상이 책임질 거야?”

“제가 벌인 일도 아니고 다 하이모어 대공 때문인데 왜 저한테만 그러십니까? 그리고 이번 일이 있기 전에도 폐하께서는 바쁘셔서 저녁 식사 때만 레아 황녀님의 얼굴을 볼 수 있으셨습니다. 레아 황녀님께서는 똑똑하고 총명한 분이시니 황제 폐하의 얼굴도 안 까먹으실 거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레아가 똑똑하고 총명하긴 하지.”

딱히 똑똑하거나 총명하지 않아도 바보가 아닌 이상 하루에 한 번 보는 아빠 얼굴을 까먹는 딸은 없을 거 같은데. 만약 레아가 들었으면 또 시작이라며 한숨을 푹 쉬었겠지만 지금 두 사람에겐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일 때문에 레아한테 소홀한 거 같다는 거잖아. 레아도 혹시 트라우마라는 게 남았을지도 모르는 데 관심을 가져줘야지. 너무 내버려 두는 거 아냐?”

“혹시 몰라 라이 경한테 특별히 신경 좀 써달라고 부탁했으니 폐하께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행히 씩씩하게 나쁜 꿈도 꾸지 않고 잘 지내신다는 건 이미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 오히려 친구인 다리아 영애를 더 걱정하고 있지. 우리 착한 레아는.”

좀 더 자기 자신을 위해도 될 건데 레아는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친구를 더 걱정하고 있었다. 물론 레그마인 황제도 후작 영애의 일은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배신이라기보단 어쩔 수 없는 선택에 더 가깝긴 했지만 아리샤가 말없이 떠나버렸을 때 자신이 받았던 상처와 다리아 영애의 상처는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했다.

생각해보면 아직 처리해야 하고 신경 써야 할 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았다. 하지만 역시 레그마인 황제가 제일 신경 쓰이는 일은 따로 있었다.

“그런데 라이 경한테 레아를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했다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시녀들을 믿고 부탁할 수도 없고 달리 부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분간은 내가….”

“폐하께선 레아 황녀님 납치사건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모든 일을 빨리 깔끔하게 끝내시는 게 황녀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래. 그건 그렇지.”

빨리 조금이라도 관련된 모든 일을 깔끔하게 끝내야지 레아도 이번 일을 빨리 잊을 수 있을 것이었다. 레그마인 황제도 머리로는 그걸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레아와 라이 경이 계속 신경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었다.

‘힘들 때 옆에 있어 주면 십중팔구 더 가까워지겠지. 아니, 이미 가까워진 사이인가. 이런 건 처음이라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군.’

이러다 레아가 갑자기 라이 경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 그땐 뭘 어떻게 해야 하나. 다른 중요한 일들도 많고 아직 레아와 라이 경의 사이를 확실하게 아는 것도 아니었지만 레그마인 황제는 요즘 그게 제일 고민이었다.

황제도 아빠는 처음이니까. 너무 싫기는 한데 딸이 좋아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가스파르 재상. 나 진짜 어떡하면 좋지?”

“또 뭘 말입니까.”

“만약에 정말 정말 만약에 우리 레아가…레아가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다고 하면 난 어떻게 해야 할까?”

“네?”

이미 레아 황녀님과 라이 경의 사이를 알고 있는 가스파르 재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혹시 폐하께서도 두 사람의 사이를 눈치채신 건가 하는 생각을 잠시 했다. 하지만 그런 것치고는 별로 화가 안 나신 것 같아 그런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런데 황녀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황제 폐하께서 꼭 뭘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결혼하겠다고 하신 것도 아닌데.”

“그럼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레아 황녀님께서 먼저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아직 레아 황녀님께서는 나이도 어리시고 라이 경과 연애를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셨으니까. 결혼에 대한 생각이 들고 얘기가 나와야 태클을 걸어도 거는 거지 아직은 나설 때가 아니었다. 안 그래도 하이모어 대공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황녀님께도 좀 쉬어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고민하실 때가 아니라 밀린 일을 처리하셔야 할 때입니다. 레아 황녀님을 위해서!”

“진짜 해도 해도 이 서류들은 줄어들 생각을 안 하네.”

“그래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줄어들 겁니다. 자, 어서 집중해서 일하세요.”

“하아….”

레아와 라이 경 때문에 심란한 이 상황에서 서류를 보고 싶지는 않은데. 하지만 이게 다 레아를 위한 일이라는 가스파르 재상의 말에 레그마인 황제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다시 서류를 읽기 시작했다.

‘일단 이 이 일들부터 다 끝내버리고 가스파르 재상 말대로 레아가 말해줄 때까지 기다려 보자. 부모가 초반부터 끼어들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건 내가 겪어봐서 제일 잘 아니까.’

레그마인 황제가 아리샤와 연애할 때 그 짧은 1년이란 시간 동안 선황이었던 아버지께서 얼마나 미친 듯이 반대하셨는지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히 날 정도였다. 그리고 황제는 사랑하는 딸이 자신처럼 외롭게 가족 없이 살길 바라진 않았다.

아빠라는 존재는 평생 딸을 지켜줄 수 없는 존재니까 언젠가는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레아의 옆을 지켜줘야 한다는 건 황제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물론 머리로는 잘 알고 있다는 거지 아직 심적으로는 그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말이다.

\*\*\*

“라이 경. 우리 둘이 사귀는 거 혹시 푸엘라 경한테 얘기했어요?”

“아뇨. 아직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흐응. 그래요?”

다리아 영애가 가고 라이 경과 단둘이 있게 된 레아는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라이 경에게 물어보려고 했던 걸 바로 물어보았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라이 경의 말에 레아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작게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럼 왜 그렇게 빤히 쳐다봤던 거지?”

혹시 머리가 흐트러지거나 얼굴에 뭐가 묻어서 그렇게 빤히 쳐다봤던 건가 하고 레아는 거울을 들여다보았지만, 머리는 리본으로 잘 묶여있었고 딱히 얼굴에 무언가 묻어 있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런 레아를 보고 라이 경은 조금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다리아 영애도 푸엘라 경이 빤히 쳐다보고 있다는 걸 눈치채셨습니까?”

“당연히 눈치챘죠. 불편할 정도로 빤히 쳐다보던데.”

“……….”

설마 정말로 첫눈에 반해버린 걸까. 그렇다면 잘 될 가능성이 0%에 가까우니 이걸 포기시켜야 할지 아니면 신경 쓰지 말아야 할지 라이 경은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 그런 라이 경을 보며 레아는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었다.

“라이 경.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아무래도…푸엘라 경이 다리아 영애에게 첫눈에 반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네? 푸엘라 경이 다리아 영애한테요?”

“그래서 황녀님과 영애가 불편해하실 정도로 빤히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아…….”

뭐, 확실히 다리아 영애는 착하고 예쁘장하게 생긴 편이라서 인기도 많을 거고 누군가 첫눈에 반했다고 해도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었지만…. 라이 경과 친한 기사님이 레아와 절친한 영애에게 반했다고 하니 좀 얼떨떨한 느낌이었다.

“그런데 막 친하고 가깝진 않아도 푸엘라 경이라면 다리아 영애 얼굴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 같은데 이번에 첫눈에 반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오래전에 첫눈에 반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두 사람 사이는 잘 알지 못하지만 아무래도 오늘 새삼스럽게 반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리아 영애가 이렇게 예뻤었나 라고 작게 중얼거렸으니.”

“으음. 별로 좋지 않은 타이밍이네요.”

다리아 영애는 이제 남자 안 만날 거라고 하고 앨버트 후작은 영애를 정략결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푸엘라 경은 그런 다리아 영애에게 첫눈에 반했다니. 소설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다.

“근데 라이 경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다리아 영애는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연애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나중에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게 쉽게 바뀔 거 같지도 않고요.”

“네. 제가 푸엘라 경에게 알아듣게 설명해서 마음 접을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부탁해요.”

라이 경 말로는 푸엘라 경은 작년부터 결혼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는데 그러니 더 빨리 마음을 접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을 거 같았다. 다리아 영애는 결혼은커녕 남자를 만나 연애를 할 생각도 없다고 했으니 푸엘라 경이 원하는 짝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런데 라이 경. 같은 남자로서 푸엘라 경은 어떤 남자예요?”

“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좀 모자란 거 같기도 하지만 착한 사람입니다.”

“풉. 아, 그래요?”

좀 모자란 거 같지만 착한 사람이라.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착한 사람이라면 어쩌면 다리아 영애에게 필요한 남자일지도 모르겠다고 레아는 생각했다. 힘든 상황을 마주해야만 했던 레아에게 든든하고 다정한 위로를 건네주었던 라이 경이 필요했던 것처럼 나쁜 놈에게 상처받은 다리아 영애에게 필요한 건 정말 정말 바보 같을 정도로 착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다리아 영애가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나 필요한 거긴 하지만.’

누군가를 만날 생각이 전혀 없는 지금의 다리아 영애에게는 정말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도 싫기만 할 것이었다. 하필 첫눈에 반해도 지금의 다리아 영애에게 반한 걸까 하고 생각하며 레아는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건 몰라도 다리아 영애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누굴 만나든 만나지 않든 상처받지 않으면서 행복하게.”

“……….”

“응? 라이 경. 왜 그래요?”

지금까지 다리아 영애도 상처받고 힘들었을 거니까 앞으로는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라이 경은 말없이 그런 레아를 뒤에서 끌어안았다. 그리고 왜 그러냐는 레아의 말에 작은 소릴 귓가에 속삭였다.

“아까부터 너무 다리아 영애 얘기만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걱정되니까 그렇죠. 내 친구고 지금 많이 힘들 테니까.”

“……….”

레아의 말에 라이 경은 아무런 말 없이 레아를 더 꼭 안으며 어깨에 얼굴을 파묻었다. 어쩐지 평소와는 조금 다른 라이 경의 행동에 레아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지금…다리아 영애한테 질투하는 건가?’

107.어떻게 하지.docx

“이 어수선한 와중에 파티요?”

“원래 매년 이맘때 황실에서 파티를 열었으니까 올해도 열리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긴 해.”

“하지만 지금은 그럴만한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아빠도 엄청 바쁘신데 파티는 무리 아닐까요?”

“그렇긴 한데 무리를 해서라도 꼭 열어야 할 이유가 있어.”

제국 전체가 들썩일 정도로 난리가 났었으니 당분간은 황실에서 열리는 파티는 물론이고 다른 파티에 참석할 일도 없을 거로 생각했는데. 아직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처리해야 할 일도 많이 남았다고 알고 있는데 매년 봄에 열리던 파티를 올해도 열겠다는 아빠의 말에 레아는 의아했다.

“무리해서라도 파티를 꼭 열어야 하는 이유가 뭔데요?”

“아무래도 큰일이 있었으니 이래저래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는 모양이야. 특히 떠들기 좋아하는 부인들 사이에서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돌고 있어.”

“어떤 소문인데요?”

“그건….”

최근 레아는 모두의 과보호 속에서 지내기도 했고 굳이 알고 싶지 않아서 그 일에 대한 건 일부러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딱히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도 레아는 당연히 모르고 있었다.

‘이번 일은 분명 역사에도 기록이 될 정도로 정말 엄청난 일이었으니까. 그러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겠지.’

우나타에 있는 나탈리 이모도 레아가 죽을 뻔했다면서 난리가 났었는데 떠들기 좋아하는 부인들이 조용히 넘어갈 리가 없었다. 분명 레아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을 거고 아빠는 그 소문이 아주 아주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래서 파티를 열어야 한다는 게 레아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래서 대체 무슨 소문이 돌고 있는 건가 물어보았지만 아빠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

“너무 걱정하지 마. 정말 말도 안 되는 별거 아닌 소문이니까. 파티가 열리면 금방 사그라들 거야.”

“별거 아닌 게 아닌 거 같은데요? 정말 별거 아니면 말씀해주셔도 상관없잖아요.”

“레아. 이제 정말 모든 일이 다 끝났잖아. 좀 쉬어도 되는데 아빠는 네가 스트레스 그만 받았으면 좋겠어.”

“저도 스트레스받기 싫어요. 그렇지만 신경이 쓰이는 걸 어떡해요.”

나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데 그것도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다는데 스트레스받을 걸 알면서도 알고 싶고 신경이 쓰이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하지만 레아의 말에 아빠는 짧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레아. 모든 걸 그렇게 일일이 신경 쓰다 보면 언젠가 지쳐서 버티지 못할 거야. 때론 모른 척하고 신경 쓰지 말아야 할 필요도 있어. 17살밖에 안 된 애가 너무 어른처럼 굴지 않아도 돼.”

“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있어 줘. 부탁이야.”

“……….”

신경이 쓰이는 건 당연한 일인 거 같은데 그러면 언젠가 지쳐서 버티지 못할 거라니. 이번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있어 달라는 아빠의 부탁에 레아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가만히 있을 생각은 없었다.

‘대체 어떤 소문이 돌고 있길래 내가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걸까. 그리고 어른처럼 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 걸까.’

아빠가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걸 몰랐다면 모를까 알게 되었고 신경이 쓰이기 시작한 이상 레아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적어도 그 안 좋은 소문이 어떤 소문인지는 알아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그런데 그 소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원래 이런 건 시녀들이나 다리아 영애를 통해서 쉽게 알아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리아 영애한테 대신 알아봐달라고 할 상황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전처럼 시녀들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다. 물론 하이모어 대공에게 협조했던 시녀들은 아빠가 모두 지하 감옥으로 보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레아는 요즘 친했던 다른 시녀들과도 거리를 두는 중이었다.

지하 감옥에서 잔인한 고문을 받는 중인 시녀들도 한때는 레아와 꽤 친했던 시녀들이었다. 그랬는데 배신당했고 납치당해서 큰일이 날 뻔했으니 시녀들과도 다시 전처럼 가깝게 지낼 수 있을 리가 없었다. 사실 대공에게 협력한 시녀들을 제외하면 모두 자신을 좋아해 주고 있다는 걸 레아도 알고는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을 순수하게 믿을 수 없게 되었고 시녀들도 그런 레아에게 전처럼 살갑게 다가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애매한 사이가 돼버린 시녀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레아는 어쩌면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라이 경. 요즘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다던데 라이 경은 알고 있었어요?”

“아뇨.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아빠와의 저녁 식사가 끝이 나고 언제나처럼 라이 경과 함께 황실 정원에서 짧은 데이트를 즐기던 레아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라이 경에게 소문에 관해 물어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역시였다. 레아에게는 한없이 다정한 남자친구였지만 남들의 시선이나 떠드는 소리에는 무신경한 라이 경이 소문에 관해 알고 있을 리가 없었다.

“그 소문 때문에 곧 황실에서 파티가 열릴 예정인가 봐요. 아빠도 바쁘시고 분위기도 아직 어수선해서 올해는 안 열릴 줄 알았는데.”

“어떤 소문이길래 그거 때문에 파티까지 열리는 겁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아빠는 이번 소문만큼은 신경 쓰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안 좋은 소문이라는데 더 신경 쓰이지.”

“다른 건 몰라도 폐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상당히 질 나쁜 소문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원래 레아가 아는 아빠는 질 나쁜 더러운 소문을 퍼트리는 놈은 조지고 싶은 만큼 조지라고 말하는 사람이었다. 그만큼 레아를 믿고 수습은 아빠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신경 쓰지 말아 달라고 부탁까지 했으니 무슨 소문인진 몰라도 상당히 질 나쁜 소문이란 건 확실했다.

“대체 얼마나 더럽고 질 나쁜 소문이길래 그러시는 걸까요?”

“질 나쁜 소문 때문에 스트레스받고 상처받으실까 그러시는 것도 있겠지만 이번 일로 레아 황녀님께서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셨으니 폐하께서 더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아빠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라이 경도 내 성격 알잖아요. 이런 거 한번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 그냥 무시 못 하는 거.”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는 그런 성격이었으면 편하고 좋았을 텐데. 레아는 그렇게 생각하며 짧게 한숨을 쉬었다.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레아 황녀님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라이 경이 도와줄 만한 일이요?”

뭐든 말만 하라고 하는 그 마음은 고마웠지만, 과연 라이 경이 도와줄 만한 일이 있을까. 일단 지금 돌고 있다는 레아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라이 경이 줄 수 있는 도움은 딱히 없을 거 같았다.

레아가 친구라고 부를만한 사람이 다리아 영애밖에 없는 것처럼 라이 경도 푸엘라 경이랑 오스카 경 빼고는 친한 사람이 딱히 없었고 주변 사람 중에서도 그 소문에 대해 아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시종장님은 절대 안 알려주시겠지. 피에르 시종장님도 아빠랑 똑같은 마음이실 테니까.’

피에르 시종장님뿐만 아니라 가스파르 재상이나 소니아 부인도 아마 다 똑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모두 레아를 귀여워하고 예뻐해 주시는 만큼 레아가 그 안 좋은 소문을 신경 쓰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실 것이었다.

그럼 대체 누구한테 물어야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인지 알 수 있을까.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레아는 고민을 해보았다. 그런데 그때 라이 경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춰 섰고 같이 걷던 레아도 덩달아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다.

“라이 경? 갑자기 왜….”

“쉿.”

“………?”

조용히 하라고 하니 일단은 조용히 있겠지만 이게 갑자기 무슨 상황인가 싶어 레아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라이 경은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잠시 가만히 서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작게 중얼거리듯 말했다.

“한 명.”

뜬금없이 뭐가 한 명이라는 건지 처음에는 이해를 못 했지만, 곧 조용히 검을 잡는 라이 경을 보며 레아는 눈치챌 수 있었다.

‘누군가 몰래 우리를 따라오고 있구나. 그런데 어째서 납치되고 돌아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일이….’

하이모어 대공이라는 커다란 적이 사라진 지 얼마나 됐다고 설마 누군가 자객이라도 보낸 걸까?

이제는 누가 자신을 노리고 있는 건지 생각나는 사람도 없어 레아는 당황스럽고 조금 무섭기도 했다. 검을 잡고 있던 라이 경은 그런 레아의 모습에 조용히 검을 놓고 불안함에 떨고 있는 작고 하얀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와 귓속말을 해주었다.

“자연스럽게 열 발자국을 걷고 바로 놈을 잡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응. 자연스럽게 걷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숨어있는 자들이 더 있을지도 모르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도 혼자서 모든 걸 다 끝내야 했던 그때와 달리 지금은 라이 경이 옆에 있었기에 레아는 안심할 수 있었다. 라이 경이라면 꼭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계속 손을 꼭 잡은 채로 천천히 한 발자국씩 걷기 시작했고 두 사람이 걷기 시작하자 몰래 두 사람을 뒤따라오던 누군가도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딱 열 발자국을 걸은 그 순간 라이 경은 재빠르게 뒤를 돌아 몰래 쫓아오던 상대를 향해 검을 뽑아 들려고 했다.

“………!”

그런데 당연히 레아와 라이 경에게 달려들 줄 알았던 그 사람은 라이 경이 뒤돌자마자 깜짝 놀라서 달아나려고 했다. 예상과는 다른 반응에 좀 당황하기는 했지만 라이 경은 도망가는 상대를 잡으려고 했다. 하지만 라이 경이 움직이기도 전에 레아가 한 발 더 빨랐다.

도망가려던 그 사람은 한 발 떼는 순간 바로 빨리듯이 땅속으로 온몸이 들어갔고 얼굴만이 땅 위로 빼꼼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그 얼굴을 확인한 라이 경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푸엘라 경…!”

“라, 라이 경. 그게 나는 그냥….”

“몰래 따라오던 사람이 푸엘라 경이었다고요?”

“하하. 레아 황녀님….”

“어째서 그런 수상한 짓을 하셨던 겁니까? 그것도 훈련도 끝난 이런 늦은 시간에.”

“그게…….”

상상도 못 했던 존재에 당황한듯한 레아와 라이 경을 보며 푸엘라 경은 민망한 듯 멋쩍게 웃었다. 그런데 왜 수상하게 몰래 뒤를 따라온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못 하고 있었고 레아는 그런 푸엘라 경이 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었지만 믿었던 시녀들과 앤드류 경에게 배신당했었으니 푸엘라 경이라고 믿을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그런데 그런 레아에게 라이 경은 안심하라는 듯이 말했다.

“푸엘라 경은 착하지만 착하기만 한 사람입니다. 배신 같은 걸 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으음. 그래요? 라이 경이 그렇다면 뭐….”

전혀 칭찬은 아닌 것 같았지만 그래도 라이 경이 이렇게 말한다면 한 번 정도는 믿어봐도 괜찮을 거 같았다. 일단 레아는 땅에 온몸이 묻혀서 꼼짝도 못 하고 있는 푸엘라 경을 꺼내주었다.

“다짜고짜 땅에 묻어서 미안해요. 푸엘라 경. 다친 곳은 없어요?”

“네, 네! 하나도 안 다쳤어요. 괜찮습니다.”

“몰래 뒤쫓아 오고 수상하게 군 건 푸엘라 경이니 레아 황녀님께서 미안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아, 저 때문에 무서우셨다면 죄송합니다. 그게 말을 걸 타이밍을 잡지 못해서 그만….”

“할 얘기가 있으시면 기다리셨다가 기숙사에서 하셔도 되는데 황녀님께 무례하게 이게 무슨 짓입니까.”

레아는 좀 놀라기만 했을 뿐 무례하다거나 기분이 크게 나쁘진 않았는데 라이 경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확실히 라이 경에게 할 말이 있으면 기숙사에서 하면 되는 것이었지만…. 푸엘라 경은 옷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말했다.

“그야 너한테 할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레아 황녀님께 여쭈어볼 게 있어서 그랬지. 내가 바보도 아니고 너한테 물어볼 거 있다고 타이밍을 보고 있었겠냐?”

“네? 저한테요?”

“푸엘라 경이 레아 황녀님께 묻고픈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지금 이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 그건 그렇긴 하지만….”

푸엘라 경 때문에 짜증이 난 건지 라이 경은 표정을 풀지 않았고 그런 라이 경 때문에 움찔한 푸엘라 경은 말을 더듬었다. 확실히 아무리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도 그렇지 제국의 황녀 뒤를 몰래 쫓아오는 게 정상은 아니었지만, 레아는 수상한 사람만 아니라면 지금 그걸 굳이 신경 써야 하나 싶었다.

“라이 경 인제 그만 해요. 푸엘라 경도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셨다잖아요.”

“하지만 이런 행동은 예의가 아니란 것은 레아 황녀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안 이러실 거고요. 그렇죠? 푸엘라 경.”

“네, 네. 오늘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레아 황녀님.”

정말 착하고 착해서 착하기만 한 사람이라면 잔소리는 이 정도면 충분했다. 다음부터는 이러지 않겠다고 말했고 사과도 받았으니 레아는 슬슬 푸엘라 경이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고 했던 게 뭔지 궁금했다.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고 하셨죠? 물어보고 싶으신 게 뭐예요?”

“아, 그게 사실 별로 특별한 건 아닌데….”

“괜찮아요. 편하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묻고 싶은 게 뭐냐는 레아의 질문에 갑자기 푸엘라 경은 쑥스러운 듯 얼굴을 붉히면서 볼을 긁적였다. 그런 푸엘라 경을 보며 라이 경은 속으로 설마…하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 불안한 예감은 적중해버리고 말았다.

“그……다리아 영애께선 지금 만나시는 분이 없으신가요?”

“네?”

“아, 아뇨. 저는 그게…다른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으음.”

라이 경이 알아서 잘 정리시키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이러는 걸 보니 하나도 정리가 안 된 모양이었다. 그런 푸엘라 경에게 레아는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난감하기만 했다.

108.입술 위에 입술.docx

지금 다리아 영애는 만나는 사람도 없고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도 없긴 했지만…누군가를 만날 마음도 전-혀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저렇게 수줍은 얼굴로 나한테까지 이런 걸 물어보는 걸 보면 푸엘라 경도 가벼운 마음은 아닌 거 같은데. 이거 참 뭐라고 얘기해줘야 하나.’

밤 산책을 가장한 짧은 데이트 중인 두 사람의 뒤를 몰래 따라오면서 다리아 영애 만나는 사람 없냐고 물어보려고 타이밍만 보고 있던 걸 보면 푸엘라 경은 정말 라이 경이 말 한 그런 사람이 맞는 거 같았다. 배신 같은 걸 할 정도로 똑똑하진 않지만 착하고 착한데 착하기만 한 사람. 푸엘라 경은 딱 그런 사람인 거 같아서 레아는 고민하다 그냥 확실하게 말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다리아 영애는 지금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지금은 그 누구와도 연애할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아마 그 마음이 쉽게 변하진 않을 거예요.”

“아…….”

“푸엘라 경도 빨리 마음을 접는 편이 좋을 거 같아요. 라이 경한테 듣기로는 결혼할 여자를 찾고 있다는 거 같던데.”

“네, 네. 아버지께서 건강이 좋지 않으신데 빨리 손주를 보고 싶어 하셔서….”

“그럼 다리아 영애는 안 돼요. 마음 접으세요.”

“……….”

조금은 바보 같으면서도 착하고 착한데 착하기만 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확실하게 말해주는 게 레아가 해줄 수 있는 일이었다. 괜히 헛된 희망 같은 걸 심어줄 순 없었다.

‘바보지만 착한 사람이라는데 이런 말을 하려니까 왠지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레아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사실 미안해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를 직접 하려니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다. 그런데 그런 레아에게 푸엘라 경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괜히 레아 황녀님을 곤란하게 만든 거 같아 죄송합니다. 영애께서 최근 큰 상처를 받으셨다는 걸 알면서도 바보처럼 그 생각을 못 했네요. 그…제가 한 말은 그냥 잊어주세요. 무례한 짓을 해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레아 황녀님.”

“아니에요. 그래도 다음부터는 그냥 평범하게 말을 걸어주세요. 푸엘라 경.”

“하하….”

그 말을 끝으로 푸엘라 경은 마지막까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레아에게 실례가 많았다고 말하며 터덜터덜 기숙사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런 푸엘라 경의 뒷모습을 보며 레아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라이 경은 그런 레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해주었다.

“잘하신 겁니다. 황녀님께서 그런 말씀을 안 해주셨다면 푸엘라 경은 계속 마음을 접지 못 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잘한 거겠죠?”

“헛된 기대를 품게 하는 것 대신 이렇게 확실하게 말해주는 것이 모두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푸엘라 경을 위해서도 다리아 영애를 위해서도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푸엘라 경은 상처받았을까요?”

“단순한 사람이라서 아마 곧 평소처럼 돌아올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경이 좀 쓰인 거지 걱정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라이 경의 말대로 푸엘라 경이 금방 괜찮아지길 바랐다. 푸엘라 경은 좋은 사람인 거 같은데 지금 상황이나 타이밍이 참 별로였다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문득 진짜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괜찮은 걸까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푸엘라 경이 다 봐버린 거잖아요. 우리 데이트하는 거.”

“아마 상심이 커서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제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 경이 어떻게 잘 처리하겠다는 건진 모르겠지만 그 말에 레아는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며칠 전 푸엘라 경이 다리아 영애를 향한 마음을 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면서 결국 푸엘라 경이 마음을 접을 수 있게 해준 건 레아였다. 그런데 이번에도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하는데 라이 경을 레아는 왠지 놀려주고 싶어졌다. 그래서 일부러 짓궂게 웃는 얼굴로 고개를 갸웃거리며 장난기가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알아서 처리할 건데요? 푸엘라 경이 우리 둘이 사귀는 거 눈치채면 어떻게 할 건데요?”

“네? 그야 절대 소문내지 못하도록 입단속을….”

“겨우? 그 정도로 처리하는 건 처리하는 게 아니죠.”

“그럼 따로 원하시는 방법이라도 있으십니까?”

“글쎄요. 딱히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처리한다는 표현을 쓰려면 적어도….”

“적어도…?”

겉보기에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착하고 순한 소녀 같아도 한번 제대로 열 받으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으로 변하는 레아 황녀님이란 걸 잘 알기에 라이 경은 어쩐지 조금 긴장이 되었다. 지금은 예쁘게 웃고 있지만 무슨 말이 튀어나올지 몰라 더 긴장되었다. 그리고 잔뜩 긴장한 라이 경을 보며 레아는 터지려는 웃음을 꾹 참고 있었다.

‘처음 봤을 때만 해도 냉정하고 무뚝뚝하기만 한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언제 이렇게 귀여워졌을까.’

라이 경을 처음 만났을 때도 딱 이맘때 오늘처럼 마음이 편치만은 않은 날 지금처럼 달빛 아래서였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뿐인데 그사이에 참 많은 일이 있었고 두 사람은 처음과 달리 많은 것이 변해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황녀가 될 거라곤 상상도 못 했는데 엄마의 과거를 알게 되고 복수까지 하게 될 줄이야.

그래도 달라지지 않은 점이 있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라이 경은 레아의 옆에 있었고 이 남자는 꼭 달빛으로 빚은 것처럼 엄청 잘생겼다는 점이려나. 원래 조각처럼 잘생긴 얼굴이긴 했었지만, 달빛 아래의 라이 경은 평소보다 22배는 더 잘생겨 보이는 거 같았다. 그렇게 잘생긴 얼굴로 자신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라이 경에게 레아는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까치발을 들고 그의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푸엘라 경까지 눈치채면 그냥 아빠한테 말해버릴까요? 우리 둘이 막 뽀뽀도 한 사이라고.”

“……….”

“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청 잘생긴 남자랑 뽀뽀했다는데 아빠가 어쩌겠어요. 뽀뽀했으면 결혼해야지.”

“…뽀뽀했으면 무조건 결혼해야 하는 겁니까?”

아직 레아가 먼저 다가와 입을 맞추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지 얼떨떨한 목소리를 하면서도 라이 경은 뽀뽀했으면 결혼해야 한다는 레아의 이상한 논리를 지적하고 있었다.

“당연하죠. 그럼 라이 경은 내 인생 첫 뽀뽀 가져가 놓고 나랑 결혼 안 하려고 했어요?”

“저도 인생 첫 뽀뽀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가 아니라 레아 황녀님께서 제 인생 첫 뽀뽀를 가져가신 겁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내가 라이 경 책임져줄게요.”

어차피 누가 누구를 책임지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레아는 앞으로도 계속 라이 경이 자신의 옆에 있어 주기를 바라서 하는 말이었는데 라이 경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벼운 입맞춤 정도로 책임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꼭 뽀뽀한 거 때문에 그러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입맞춤으로는 책임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뽀뽀는 어린아이들도 하는 정도인데 이 정도로 결혼하겠다고 해도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는 절대 허락해주시지 않을 겁니다.”

“그건 굳이 우리 아빠가 아니더라도 딸이 뽀뽀 한번 했다고 결혼 허락해줄 아빠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 같은데요.”

애초에 책임지겠다는 말도 진지하게 결혼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장난치듯이 하는 말이었다. 그런데 너무 진지한 반응을 보이는 라이 경 때문에 레아는 괜히 민망한 기분이었다.

‘빈말이라도 좀 알겠다고 해주지. 뭐, 사실 빈말이나 장난 같은 건 라이 경이랑 안 어울리긴 하지만.’

레아는 호감이란 게 생기기 훨씬 전부터 반응이 재밌어서 라이 경에게 종종 장난을 치곤 했지만 라이 경은 지금까지 한 번도 레아에게 장난이란 걸 하지 않았다. 생각해보면 호위기사가 어떻게 감히 황녀님께 장난을 치겠느냐마는 연인이 되고 단둘이 있을 때도 라이 경은 절대 레아를 놀리거나 장난을 치지 않았다. 그러니 자신이 확신이 들기 전에는 평생 책임지겠다는 말을 할 리가 없었다. 레아가 아는 라이 경은 그런 남자였다.

“그래도 이럴 때는 좀 책임지겠다거나 책임져달라고 해주면 좋잖아요. 그 한마디 했다고 내가 라이 경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뽀뽀 한번 했다고 평생 책임져야 한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긴 하지만….”

“굳이 책임지지 않으셔도 전 언제나 레아 황녀님의 곁에 있을 겁니다. 황녀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않는다면.”

가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곁에 있을 거라니. 평생 책임지겠다는 말보다 레아는 라이 경이 해준 그 말이 더 마음에 들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라이 경이 함께라면 그저 좋을 것만 같았다.

“그럼 약속한 거예요. 내가 싫다고 하기 전에는 계속 내 곁에 있어 주기로.”

“네. 약속하겠습니다.”

농담이나 장난 같은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니까 라이 경은 오늘 한 약속을 꼭 지킬 것이었다.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자신을 똑바로 보며 약속하겠다는 라이 경에게 레아는 다시 한번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소곤소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뽀뽀 한 번 더 해도 돼요?”

“네…?”

“하하. 농담이에요. 놀라기는.”

“……….”

또 뽀뽀해도 되냐는 말에 라이 경은 부끄러운 듯 놀란 얼굴을 했고 레아는 재밌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레아가 자신을 놀리려고 일부러 그랬다는 걸 눈치챈 라이 경은 약간 한숨이 섞인 웃음을 짓더니 갑자기 손을 뻗어 레아를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러자 레아는 자연스럽게 라이 경의 품 안에 안기게 되었고 물음표를 띄운 얼굴로 라이 경을 바라보았다.

라이 경은 그런 레아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다른 한 손을 레아의 뒤통수로 가지고 갔다. 갑자기 확 가까워진 거리에 레아는 부끄럽기도 하고 갑자기 이게 뭔가 싶기도 했다.

“라, 라이 경. 갑자기 왜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벼운 뽀뽀로는 결혼할 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도 알아요. 그 정도는.”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 그렇게 말씀드리려면 적어도….”

그렇게 말하며 라이 경은 아까 레아가 했던 것처럼 짓궂게 웃었다. 레아는 라이 경이 이런 표정을 지을 수도 있다는 게 신기해서 입을 살짝 벌리고 헤-하면서 라이 경을 빤히 바라보았다. 라이 경은 그런 레아를 보며 귀엽다고 생각하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폐하께 그렇게 말씀드리려면 가벼운 입맞춤이 아니라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사실 레아와 라이 경이 무슨 짓을 하든 진도를 이만큼 뺏으니 결혼시켜주세요! 라고 말해도 라이 경의 목숨이 위험해지면 위험해졌지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 두 사람에게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아까 장난치듯 가볍게 입을 맞추었던 것과 달리 지금은 꼭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데 그런 게 생각날 리가 없었다.

라이 경은 혹시라도 지금 이러는 게 싫다면 레아가 충분히 피할 수 있게 느리게 다가갔고 레아는 그런 라이 경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렇게 레아에게 라이 경이 느리게 닿은 순간 모든 것은 빠르게 멈췄다.

\*\*\*

“비밀 연애 중이면서 황실 정원에서 대놓고 키스라니. 저러다 누가 보면 어쩌려고.”

“사실 말로만 비밀 연애 중이지 들키고 싶은 걸지도 모르죠. 이미 눈치챈 사람도 꽤 있는 거 같던데.”

“뭐? 난 나한테만 들킨 줄 알았는데?”

“서로 바라보는 눈빛에서 저렇게 꿀이 뚝뚝 떨어지는데 눈치 못 채는 게 바보죠.”

“그건 그렇긴 해. 황제 폐하께서도 의심을 시작하셨으니 곧 일이 터져도 터지겠군.”

환한 달빛 아래에서 몰래 입을 맞추고 있는 연인을 보며 하비투스는 혀를 끌끌 찼다. 옆에 있던 프레디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인 웃음을 지으며 의미를 알 수 없는 한숨을 쉬었다.

“왜. 레아 황녀님이 다른 남자랑 알콩달콩 연애하는 거 보니까 심란하고 기분이 착잡해?”

“좋아했던 사람이 다른 남자랑 연애하는 걸 두 눈으로 보고 있자니 좀 착잡하긴 하네요.”

“당연히 그렇겠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친구랑 저러고 있는데.”

“그나마 상대가 라이라서 착잡하기만 한 거예요. 다른 놈이었으면 나도 순순히 포기 안 했다고요.”

“친구니까 우정으로 양보했다는 건가.”

“아뇨. 레아 황녀님을 위해서요.”

저 녀석이 좋은 녀석이라는 건 그 누구보다 프레디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레아 황녀님도 라이 옆에서 행복해하고 있으시니 프레디가 끼어들 틈도 없었다. 그래서 순순히 포기하고 레아 황녀님을 향한 마음을 접은 것이었다.

“그러고 보니 오늘 라이 경한테 마지막 인사한다고 하지 않았어?”

“네. 그런데 지금 저 커플 사이에 어떻게 끼어들어요. 나도 눈치라는 게 있는데.”

아마 누구든 지금 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간 라이 경이 아닌 레아 황녀님의 손에 목숨을 잃을지도 몰랐다. 프레디는 아직 죽고 싶지는 않았기에 아무래도 라이 경과의 마지막 인사는 하지 못할 것 같았다.

“그럼 이제 뭘 하고 살 거지? 이제 소공자도 아니니까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일단 여기를 벗어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려고요. 그거 말곤 아직 아무것도 안 정했어요.”

“그래? 그렇단 말이지.”

어디로 떠날지 무엇을 할지 아직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다. 사실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 상태였다. 그런 프레디의 말을 듣고 하비투스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프레디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

“나랑 같이 갈래?”

“네?”

“레아 황녀님이 아리샤 누나의 복수도 끝내주셨고 나도 더 황궁에 붙어있을 이유가 사라졌어. 안 그래도 곧 떠날 생각이었어.”

“그런데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 같이 가자고 해요? 난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는 이제 지겨워. 쓸모없어도 없는 것보단 낫겠지.”

뜬금없이 같이 떠나자고 제안한 거면서 하비투스는 꼭 특별히 데리고 가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었다. 그게 어이가 없어 프레디는 웃음이 나왔다.

“난 너와 달리 어디로 떠날지 뭘 하고 살지 다 계획이 있다고. 따라오면 분명 후회는 안 할 거야.”

“한번 생각해볼게요.”

“넌 똑똑하니까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라.”

어디로 갈 건지 얘기도 안 해줬으면서 자신을 따라가야 현명한 선택이라는 건가. 프레디는 그게 현명한 선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비투스와 함께 떠나면 적어도 지루하진 않겠다고 생각했다.

109.나도 모르겠다 내 마음을.docx

처음 만났던 그 날처럼 환한 달빛 아래에서 첫 입맞춤을 나누었던 밤이 지나고 레아는 가끔 라이 경에게 좀 이상한 부탁을 하곤 했다.

“라이 경, 라이 경. 그때 짓궂게 웃었던 것처럼 한번 웃어봐요.”

“이렇게 말입니까?”

“아니. 잘생기게 말고 짓궂게 웃어봐요.”

“뭘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으음. 역시 그런 표정은 쉽게 볼 수 없는 표정인가.”

항상 멋있는 라이 경이 그 표정을 할 때는 순간 레아보다 4살이나 많은 오빠라는 걸 잊을 정도로 귀여웠는데. 그런 귀여운 라이 경을 또 보고 싶어서 종종 그때처럼 웃어달라고 부탁해보았지만 아쉽게도 그 웃음은 그때 이후로 나오지 않고 있었다.

‘그 귀여운 웃음은 또 언제 볼 수 있으려나. 쉽게 볼 수는 없을 거로 생각하니까 더 보고 싶네.’

또 뽀뽀하면 볼 수 있으려나. 그럴 거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레아는 그 핑계로 라이 경의 볼에 쪽 뽀뽀를 했다. 하지만 아직 레아가 먼저 다가와 뽀뽀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건지 라이 경은 조금 부끄러워하고 쑥스러워할 뿐 귀여운 표정을 짓지는 않았다.

무표정한 얼굴도 잘생겼고 레아에게만 보여주는 부드럽고 다정한 미소도 좋긴 했지만, 그때 그 짓궂게 웃는 얼굴을 레아는 보고 싶었다. 그런데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며 레아는 라이 경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제 얼굴에 뭐라도 묻었습니까?”

“아뇨. 그냥 내 남자친구는 참 잘생겼구나 해서요. 사람이 어쩜 이렇게 잘생겼지?”

“…레아 황녀님께서는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군요.”

“사실인데 뭐 어때요. 누가 듣는 것도 아니고.”

레아는 여자친구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칭찬을 했을 뿐인데 라이 경은 그걸 쑥스러워하며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살면서 잘생겼다는 말은 질리도록 들어봤을 거면서 레아가 이런 말을 할 때면 라이 경은 늘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런 라이 경의 모습에 레아는 작게 웃었다.

“왜 드레스 맞추러 의상실을 갈 때는 호위기사를 데리고 가면 안 되는 걸까요? 라이 경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저도 황녀님과 같이 가고는 싶지만 제가 따라가면 다리아 영애께 실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좀 아쉽긴 하지만 다리아 영애랑 둘이 다녀와야겠어요.”

이왕이면 라이 경이랑 같이 가서 경이 제일 예쁘다고 하는 드레스로 고르고 싶었지만, 오늘은 다리아 영애랑 같이 드레스를 고르기로 했으니까. 좀 아쉽기는 했지만, 레아는 친구와의 첫 외출이 기대되기도 했다.

“그럼 라이 경은 이번에도 내가 없는 동안 훈련을 하러 갈 건가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다리아 영애가 황궁으로 와서 레아와 단둘이 차를 마실 때도 라이 경은 항상 훈련하러 갔고 언제나 레아의 옆이 아니면 훈련 중인 남자였다. 덕분에 레아는 남자친구가 옆에 없을 때도 이 남자가 어디서 뭘 하는지 확신에 가까운 짐작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런 예측 가능한 점이 레아가 라이 경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였다.

“이번에는 소니아 부인이랑 갔을 때만큼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그때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수십 벌을 입어보고 그랬는데 오늘은 다리아 영애랑 둘이서 가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라이 경이랑 같이 황궁 밖으로 나가서 쇼핑도 하고 돌아다닐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았지만 아마 그건 평생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다. 그건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레아는 장소가 어디든 라이 경이 옆에 있어 주기만 해도 좋다고 생각하며 그의 품에 폭 안겼다. 라이 경은 익숙하게 그런 레아를 품에 안고 토닥여주었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레아는 그렇게 생각하며 라이 경의 품으로 더 파고들었다.

\*\*\*

그렇게 라이 경과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내고 다리아 영애와 이번 파티에서 입을 드레스를 고르러 가기 전 레아는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나갔다. 아직 황녀님 납치사건으로 제국이 들썩들썩한 분위기에서 괜히 주목받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모자로 얼굴도 가리고 빛나는 황금빛 머리카락도 모자 안으로 다 넣어버려서 이제 가까이서 자세히 보지 않는 한 레아가 레아란 걸 알아보지 못할 것이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친구랑 하는 쇼핑인데 불편하게 하고 싶지는 않아. 다리아 영애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고.’

아빠는 그런 시선과 관심들을 모두 일일이 신경 쓰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레아에게 그건 좀 힘들 것 같았다. 그런 생각을 하며 짧게 한숨을 쉬었는데 그런 레아에게 다리아 영애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레아 황녀님. 혹시 오늘 억지로 나오신 건 아니죠?”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모자도 쓰고 나오시고 한숨도 쉬셔서요. 혹시 저 때문에 나오고 싶지 않으신데 억지로 나오신 건가 해서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다리아 영애랑 둘이서 의상실 도는 걸 얼마나 기대했는데요. 그리고 내 성격에 억지로 나왔을 리가 없잖아요.”

“하하. 정말요? 기뻐요.”

라이 경이랑 같이 못 와서 아쉽다는 생각도 조금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친구와 함께 외출하는 것이었다. 당연히 기대했다는 레아의 말에 다리아 영애는 다행이라는 듯 웃어주었다.

“모자는 다른 이유로 쓴 거예요. 아직 황궁 밖은 하이모어 대공 일로 시끄러우니까 괜히 주목받기 싫어서요.”

“그렇긴 하죠. 의상실에 직원들뿐만 아니라 드레스를 보러 온 다른 손님들도 있을 거니까요. 좋은 생각이신 거 같아요.”

“거기다 요즘 별로 안 좋은 소문도 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에 대해서.”

“어머. 어째서요? 레아 황녀님이 잘못하신 건 하나도 없잖아요.”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대놓고 묻거나 알아봐 달라는 부탁은 못 해도 다리아 영애는 알고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다리아 영애도 그 소문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런데 다리아 영애는 조금 의외의 아니, 어쩌면 당연한 걸지도 모를 말을 했다.

“요즘 제 소문에만 신경 쓰다 보니 레아 황녀님에 대한 소문은 돌고 있는지도 몰랐네요.”

“다리아 영애도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나요?”

“네.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이번 일에는 제 잘못도 있으니까….”

“그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리아 영애가 뭘 잘못했다고. 영애도 엄연한 피해자잖아요!”

“하지만…저 때문에 앤드류 경이 정보를 빼간 건 사실이잖아요.”

내가 앤드류 경을 좋아하지만 않았어도. 사귀는 사이가 되고 이번 일을 도와달라고 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위험한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건데.

그런 생각들 때문에 사실 다리아 영애는 레아 황녀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도 더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고 나서도 레아 황녀님은 계속 다리아 영애에게 친구라고 말해주며 오히려 영애가 더 상처받았을 거라며 걱정해주었다.

‘그래서 나도 버틸 수 있었지. 정말 아프고 힘들었지만, 레아 황녀님께 의지하면서 버텼어.’

레아 황녀님도 힘들고 아프실 텐데 힘이 되어드리지 못할망정 오히려 황녀님이 영애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으셨다. 그러니 안 좋은 소문이 돌고 그 소문들로 자신이 쪼그라드는 것 같아도 다리아 영애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레아 황녀님은 그런 다리아 영애의 말에 버럭 화를 내주셨다.

“다리아 영애 속이고 이용해서 정보 빼간 새끼가 나쁜 새끼고 전부 그 새끼 잘못인 거지 그게 왜 다리아 영애 잘못이에요! 누가 다리아 영애한테 그런 개소리를 했어요? 영애는 그런 소리 들으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만 생각했고?”

“네, 네? 하지만 제가 딱히 할 수 있는 게….”

“되도 않는 헛소리하는 사람한테는 다시는 그딴 말 못 하도록 해줘야죠! 다음부터는 절대 참고 가만히 있지 말고 할 말은 하고 다녀요. 쓸데없는 자책도 하지 말고!”

“레아 황녀님….”

“내가 괜찮다는데 왜 내 친구한테 자기네들이 지랄이야, 지랄은.”

“푸흡.”

레아에게 다리아 영애는 태어나서 처음 사귀어본 친구였고 지금도 하나뿐인 소중한 친구였다. 그런데 그런 소중한 친구에게 당사자는 괜찮다는데 남들이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다닌다니 레아는 순간 열이 받아 버럭 화를 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그런 레아 황녀님의 모습에 다리아 영애는 웃음이 나왔다.

“뭐예요. 갑자기 왜 웃어요?”

“레아 황녀님이 저 대신 화내주시니까 갑자기 저희가 친구가 되기 전이 생각나서요. 황녀님이 처음으로 황궁으로 초대해주셨을 때요.”

“아, 그때.”

그때도 프레디 소공자 때문에 상처받고 다시는 아무도 못 만날 거 같다고 한 다리아 영애에게 레아는 그래선 안 된다고 흥분해서 영애는 꼭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었다. 레아도 그때가 생각나서 피식 웃음이 나왔다.

“그때 레아 황녀님이 그러셨잖아요. 저는 분명 꼭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땐 그 얘기 듣고 정말 기뻤는데 더 나쁜 남자를 만나버렸네요. 바보같이.”

“그게 왜 바보 같아요. 운이 나빴던 거고 영애한테 상처 줬던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지.”

“저도 레아 황녀님처럼 멋진 사람이었다면 라이 경처럼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다리아 영애는 충분히 멋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라이 경을 만날 수 있었던 건….”

그런데 정말 라이 경처럼 좋은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던 걸까. 스스로 자각을 늦게 해서 그렇지 라이 경이 꽤 오래전부터 레아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던 건 본인에게 직접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어째서 좋아하게 된 건지는 레아도 의문이었다.

‘첫 파티 때 새삼스럽게 반했다고 했었는데 딱히 그럴만한 일도 없었는데. 그렇다고 다리아 영애한테 나도 잘 모르겠다고 할 수도 없고.’

뭔가 엄청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은데 정말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서 레아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렇다고 영애에게 곧 황궁에서 열릴 파티에서 미친 척하고 헛소리하는 사람한테 토마토 주스를 부어버리라고 할 수도 없어서 난감하기만 했다. 그런데 문득 레아는 다리아 영애가 왜 그러 걸 물어보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근데 다리아 영애.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고 연애할 생각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이제는 누군가 날 좋아한다고 해도 그 마음을 믿을 수가 없을 거 같아요. 솔직히 좀 질리기도 하고.”

“그런데 마치 아직 연애할 마음이 0은 아닌 것 같은 의미심장한 질문은 왜 하는 거예요?”

“네, 네? 그건….”

“다리아 영애. 진짜 연애할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 맞아요?”

정말 그런 마음이 아주 조금도 없었다면 애초에 레아의 호위기사이자 남자친구인 라이 경 얘기도 꺼내지 않았을 거 같은데. 일부러라도 언급을 피할 줄 알았는데 먼저 라이 경의 이름을 꺼냈다는 게 레아는 혹시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레아의 질문에 다리아 영애는 잠시 당황을 하더니 곧 어쩔 수 없다는 듯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역시 레아 황녀님은 못 속이겠네요. 솔직히 정말 0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거 같아요.”

“뭐예요. 그럼 연애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긴 거예요?”

“으음.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 마음을. 아직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할 자신은 없지만, 레아 황녀님과 라이 경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이번에는 진짜 사랑이란 걸 받아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 일이 모두에게 다 알려지면서 과연 어떤 남자가 날 사랑해줄까 싶기도 해요. 부모님 말씀대로 정략결혼이 답인 거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건 싫고.”

“상당히 복잡한 감정이네요. 그래도 이번 일은 영애에게도 정말 큰일이었으니 혼란스러운 마음은 이해해요. 처음 황녀가 되고 나도 그랬으니까.”

정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지듯 황궁에 오게 되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던 출생의 비밀을 듣고 원하지도 않는 황녀라는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던 것이었다. 생각보다는 모든 것에 잘 적응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레아는 나름대로 혼자서 속으로 혼란스러워서 이런저런 별생각을 다 했었다.

그리고 지금 다리아 영애가 자신의 마음을 모르겠다면서 평범하고 정상적인 연애는 포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것도 레아도 똑같이 했던 생각이었다.

“레아 황녀님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셨었다고요? 하지만 레아 황녀님은 남자들한테 인기 많으셨잖아요.”

“그땐 그런 건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별로 없었을 거 같아요. 그리고 다리아 영애도 인기 많지 않나요?”

“아뇨. 지금은 저 좋다는 남자 한 명도 없는걸요. 솔직히 그래서 더 사랑받을 자신이 없는 거고요.”

“혹시 모르죠. 어디서 영애 몰래 영애를 짝사랑하고 있는 착한 남자가 있을지도.”

푸엘라 경이 아직 다리아 영애에게 마음을 접지 않았는지 접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다리아 영애가 상처받은 일을 알고도 호감을 느꼈던 거니까. 레아는 다리아 영애가 몰라서 그렇지 푸엘라 경 같은 사람이 많을 거 같다고 생각했다.

‘아마 지금 혼란스러운 시기가 좀 지나면 다리아 영애에게도 좋은 남자가 나타날지도 모르지. 라이 경처럼 좋은 사람이.’

딱히 좋은 남자가 안 나타나도 상관없었다. 다리아 영애는 레아의 하나뿐인 소중한 친구니까 영애가 외롭지 않게 레아가 언제나 옆에 있어 줄 것이었다.

“그런데 실컷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 의상실에 거의 다 도착했네요. 다리아 영애는 어떤 드레스 고를지 생각한 거 있어요?”

“그러게요. 전 이번에는 무난하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하려고요. 레아 황녀님은요?”

“저는 그냥 아무거나 고르려고요. 불가능하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별로 눈에 안 띄고 싶어서 너무 화려한 건 일단 피할 생각이에요.”

“저도요. 이번 파티에서는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있다가 오고 싶은데 그건 힘들겠죠?”

“아, 파티 같은 거 안 하면 좋을 텐데. 아빠는 이 귀찮은 걸 왜 하자고 하시는 건지….”

분명 아빠는 레아에 대한 안 좋은 소문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파티를 여는 것이라고 했지만 아직 그 소문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레아는 이번 파티가 귀찮기만 할 뿐이었다. 그리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다리아 영애도 레아와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웃기만 했다. 그러는 사이 마차는 의상실 앞에 도착했고 마차에서 내린 레아는 의상실로 들어가기 전 다리아 영애에게 살짝 귓속말했다.

“다리아 영애. 의상실 안에서는 대놓고 황녀님이라고 크게 부르면 안 돼요. 그럼 모자 쓰고 온 보람이 없으니까. 알았죠?”

“네. 알겠어요.”

웬만하면 파티가 열리기 전까지는 정말 조용히 지내고 싶었다. 다리아 영애도 큰 소란이 나는 걸 원하진 않으니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두 사람은 의상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까지만 해도 의상실에서 엄청난 소동이 일어날 거란 건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110.감히 내 친구를 건드려.docx

“다리아 영애. 이 드레스 어때요?”

“흐음. 피부가 하야셔서 어떤 색이든 잘 어울리시긴 하지만 빨간색은 너무 눈에 띄지 않을까요? 이 드레스는 그냥 빨간색도 아니고 시뻘건 느낌인데….”

“좀 세 보이면 덜 귀찮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잠깐만 자리를 비워도 금방 표가 날 거 같은데요. 테라스로 도망 못 갈 거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그럼 안 되겠네요.”

역시 원래 입던 스타일대로 무난하고 수수한 드레스를 고르는 편이 좋으려나. 항상 누군가 옆에서 어쩜 이렇게 다 잘 어울리시냐고 호들갑을 떨면서 이번에는 이걸 입어보라고 등을 떠밀었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레아 혼자서 파티 때 입을 드레스를 고르려니 좀 어려운 것 같았다.

“그래도 그 드레스 잘 어울리실 거 같은데 피팅이라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때요? 평소에는 이런 스타일은 잘 안 입으시잖아요.”

“오늘은 안 입어보고 대충 고르려고요. 드레스를 입어보려면 모자를 벗어야 하는데 그건 좀 그래서.”

“확실히 그건 좀 곤란하겠네요. 그래도 아쉬워요. 이 드레스 진짜 잘 어울리실 거 같은데.”

드레스를 입어보지 않겠다는 레아의 말에 다리아 영애는 좀 아쉬워하기는 했지만 지금 여기서 레아가 모자를 벗고 황금빛 머리카락을 들어낸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잘 알기에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다리아 영애. 이 드레스 어때요? 이거 다리아 영애랑 잘 어울릴 거 같은데.”

“자수가 달린 드레스는 한 번도 안 입어봤는데 어울릴까요?”

“남색이라서 별로 눈에 띄지도 않고 이 드레스랑 영애가 가지고 있는 진주 목걸이랑 잘 어울릴 거 같아요. 한번 입어보는 게 어때요?”

“네. 그러면 한번 입어볼게요.”

레아의 추천에 다리아 영애는 직원을 불러 남색 드레스를 입어보러 갔고 혼자 남게 된 레아는 다시 자신이 입을 드레스를 고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그냥 제일 저렴한 거로 아무거나 살까 하는 생각을 할 그때였다. 아까부터 계속 레아와 다리아 영애를 힐끔거리던 귀족 영애들은 다리아 영애가 피팅룸으로 들어가자마자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방금 피팅룸으로 들어간 사람. 앨버트 가문에 다리아 영애 맞죠? 단발머리로 잘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정말이었네요.”

“아마 곧 황실에서 열리는 파티 때 입을 드레스를 고르러 온 거겠죠? 그 일이 있고 나서도 레아 황녀님과 잘 지낸다는 소문이 사실인가 봐요.”

“솔직히 제가 황녀님이라면 다시 전처럼 친하게 지내진 못할 거 같은데. 신기하네요.”

“어라. 그 소문 못 들었어요? 두 사람 사실은 쇼윈도 우정이란 얘기도 있어요.”

“정말요? 하지만 황녀님께서 굳이 후작 영애와 친한 척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요?”

“맞아요. 그런다고 딱히 큰 도움이 될 거 같진 않은데.”

자기들끼리는 나름대로 작게 얘기한다고 하는 거 같기는 한데 레아에게는 모든 얘기가 귀를 때려 박듯이 쏙쏙 들어왔다. 소문이 돌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소문들이 별로 좋지 않은 소문들이란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레아는 쫑긋 귀를 세우고 그 대화를 안 듣는 척하며 열심히 듣고 있었다. 이러다 아빠가 말씀하신 그 소문에 대해서 듣게 될 수도 있으니까. 레아는 눈으로는 드레스를 고르는 척하며 모든 신경은 그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다.

“뭐예요. 다들 그 소문 못 들었어요? 도움이 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친구인 척하는 거래요.”

“네? 어쩔 수 없이요?”

“다들 하이모어 대공이 왜 레아 황녀님을 납치했는지는 알고 있죠?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도.”

“그럼요. 다닐로만 제국에서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맞아요. 우리 집 강아지도 그건 알고 있다고요.”

제국의 하나뿐인 황녀가 납치당했다는 것만 알려지고 하이모어 대공이 레아에게 하이모어 가문의 아이를 가지게 하려고 했다는 건 알리지 않은 거로 알고 있었는데 그 얘기가 벌써 그렇게나 퍼진 걸까?

어차피 영원히 비밀로 숨길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벌써 남의 집 개도 알 정도로 소문이 퍼졌을지는 몰랐다. 원래 이 바닥이 소문이 빠르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레아는 새삼 놀랍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일이 다리아 영애와 레아 사이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때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얘기가 많기는 하지만 사실 레아 황녀님께서 그때 프레디 소공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황실에서는 당연히 그 사실을 숨기려고 하고 있는데 다리아 영애가 그걸 딱 눈치채버렸대요. 그래서 황녀님도 어쩔 수 없이 옆에 두고 있는 거래요.”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다길래 도대체 어떤 소문인지 감도 안 왔는데 설마 저런 소문이 돌고 있을 줄이야. 이건 뭐 화를 내기에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하기만 한 소문이었다. 아마 아빠는 파티가 열리고 레아의 배가 전혀 부르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서 그 소문이 헛소문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다.

‘근데 임신 2개월째면 초기라서 배가 거의 안 부르지 않나? 그래서 본인도 임신했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고 그랬던 거 같은데. 그래서 엄마도 임신 3개월 때쯤 모두에게 아이를 가졌단 사실을 숨기고 황궁을 떠나셨던 거고.’

저기 떠들고 있는 귀족 영애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았지만 단순히 파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그 소문을 부정할 순 없을 것이었다. 이거 파티장 한가운데서 위스키 병나발이라도 불어야 하나 하고 레아는 잠깐 생각했다.

“에이, 그래도 설마 임신하셨겠어요? 곧 황실에서 파티가 열릴 건데 파티에서 입덧이라도 하시면 어쩌려고.”

“그래서 말인데 이번 파티에서 결혼 발표하시는 건 아닐까요? 프레디 소공자랑.”

“네? 하지만 프레디 소공자는 지금 행방이 묘연한 상태잖아요!”

“저랑 친한 시녀의 언니의 친구 옆집에 사는 사람의 조카의 친구의 누나가 황궁 시녀인데 며칠 전에 황궁에서 프레디 소공자를 얼핏 본 거 같기도 하대요. 아무래도 지금 황궁에 숨어있는 중인가 봐요.”

“세상에. 어쩐지 다른 사람들은 다 죽거나 엉망진창이 된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했는데 프레디 소공자만 실종이라고 해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프레디 소공자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레아도 모르고 있는데 저 대화 속에 레아는 이미 프레디 소공자와 결혼할 예정이고 속도위반으로 배 속에 아이까지 있는 임산부가 되어있었다. 레아가 듣기에는 그저 황당한 얘기들뿐인데 진지하게 말하는 사람이나 그걸 또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한심하게만 느껴졌다.

‘원래 내 성격이었다면 가만히 듣고 있진 않았겠지만, 오늘은 다리아 영애랑 같이 왔으니까. 그냥 얌전히 있자.’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퍼트리는 저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기억해두었으니 지금은 못 들은 척하며 가만히 있어 주기로 했다. 하지만 레아가 그렇게 생각한 지 1분도 지나지 않아 헛소문을 퍼트리고 있던 귀족 영애들은 선을 제대로 넘어버리고 말았다.

“사람 참 그렇게 안 봤는데 다리아 영애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자기 때문에 황녀님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직도 레아 황녀님과 친하게 지내다니.”

“맞아요. 누구는 아무리 친해지고 싶어도 레아 황녀님 근처에도 못 가고 있는데.”

“모르죠. 사실은 다리아 영애도 하이모어 대공이랑 같은 편이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니까 아닌 척하는 걸 수도.”

“세상에. 정말 양심이란 걸 찾아볼 수가 없네요.”

선을 넘어도 아주 제대로 넘는 말들이었다. 다리아 영애가 이 의상실 안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쩜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레아는 충격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뿐인 소중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듣고 다녔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열이 받으면서 혹시 지금도 다리아 영애가 이 얘기를 들었을까 봐 걱정되었다.

그래서 다리아 영애가 들어간 피팅룸 쪽을 바라보았는데…역시나.

“……….”

역시나 다리아 영애는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들은 건지 피팅룸 문을 조금 열어둔 채로 나오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무언가를 꾹 참는 듯 두 눈을 질끈 감고 입술을 꾹 깨무는 다리아 영애의 모습에 레아는 마음이 아팠다.

‘지금까지 다리아 영애는 밖에서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집에 가서는 정략결혼이나 하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야…? 어떻게 그런…….’

그런데도 다리아 영애는 레아에게 한 번도 이런 소문에 대한 말을 한 적이 없었다. 가끔 힘들다는 말은 했어도 이 정도로 상처받는 소문이 돌고 있었으면서 혼자 참으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을 다리아 영애를 생각하니 레아는 갑자기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절대 소동을 만들지 말자는 그 다짐은 곱게 접어 던져버린 다음 레아는 아직도 자기들끼리 신나게 떠들고 있는 영애들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 제대로 빡쳤을 때만 나오는 특유의 상냥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굉장히 재밌어 보이시네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시나요?”

“………?”

“이번에 황실에서 열리는 파티에 입을 드레스를 고르려고 왔는데 무슨 재밌는 얘기를 하시나 자꾸 귀에 거슬려서요. 이대로는 드레스가 눈에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그 재밌는 얘기에 저도 좀 끼워주시죠?”

챙이 넓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있고 황족만이 가지고 있는 황금빛 머리카락도 모자 안에 넣은 상태라 영애들도 목소리만으로는 레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갑자기 누군지도 모를 여자가 다가와서 자신도 끼워달라고 하니 황당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누군가 끼워 들었다는 게 기분이 나쁜 듯 상당히 불쾌하다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신데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보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얘기를 엿들었다는 거예요?”

“아, 그건 실례. 속닥거리는 소리가 아주 귀에 쏙쏙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그만.”

“뭐라고요? 허,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러지 말고 아까 하던 얘기나 계속해 줘요. 누가 임신하고 곧 결혼할 거라고요?”

설마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레아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고 있는 건지 영애들은 어이가 없고 기가 찬다는 반응을 보였다.

“진짜 아무리 못 배웠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교양도 없고 무례한 행동을….”

“글쎄요. 저희 아빠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라고 하셨거든요. 보고 배운 게 그런 것뿐이라.”

실제로 아빠는 레아에게 뒷수습은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라는 말을 했었다. 비록 얼마 전에는 가끔은 모르는 척, 못 들은 척해야 할 때도 있다는 말을 듣기도 했지만, 그 말은 그냥 못 들은 거로 하기로 했다. 분명 불쾌하다는 뜻을 내비쳤음에도 절대로 안 물러서는 레아의 태도에 그 영애들은 아까보다 더 어이없단 얼굴로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진짜 어이가 없어서…. 이래서 못 배운 것들이랑은 말을 섞으면 안 되는 건데.”

“방금 저 보고 못 배운 거라고 했어요?”

“그래요. 못 배운 거!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그럼 영애는 배운 것도 많고 교양이 철철 넘쳐서 별 같잖지도 않은 더러운 소문 내고 다니나 봐요?”

“뭐, 뭐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왜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방긋방긋 웃고 있는 건 아니더라도 차분하게 말하고 있는 레아와 달리 상대는 약이 오르는 건지 열이 받는 건지 얼굴을 붉히며 이를 꽉 깨물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영애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갑자기 끼어들며 말했다.

“이게 헛소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솔직히 다리아 영애도 피팅룸에서 우리가 하는 얘기 다 들었을 건데 안 나오고 가만히 있는 건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그럼 다리아 영애가 듣고 있다는 거 알면서도 그딴 말을 지껄였다는 거예요?”

“지껄였다뇨. 당신, 우리가 어느 집안의 사람들인지 알기나 하고 그런 저속한 말을 하는 거예요?”

대체 성격이 얼마나 꼬였으면 당사자가 듣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런 심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걸까. 그 말에 더 열이 받은 레아는 그냥 확 모자를 벗어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레아가 모자를 벗고 정체를 알게 되고도 지금처럼 고개 빳빳이 들고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는지 보자는 마음이었다.

그렇게 레아는 의상실에 들어올 때부터 계속 쓰고 있던 모자를 홧김에 벗어 바닥에 내팽개쳐버렸다. 그러자 빛나는 황금빛 머리카락이 쏟아지듯 흘러내렸고 레아의 얼굴을 본 영애들은 다들 순식간에 얼어버렸다.

“난 영애들이 누군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표정을 보니 영애들은 내가 누군지 알고 있나 보네요.”

“레, 레, 레….”

“왜 아무런 말도 못 해요? 다시 지껄여 봐요. 누가 임신을 해서 곧 결혼할 거고 또 못 배운 건 누구인지.”

“죄, 죄, 죄송합니다! 설마 황녀님이 듣고 계실 줄은 꿈에도 모르고 저희가 그만….”

“왜요. 틀린 말 한 적 없다면서요. 다시 아까처럼 말해보라고요.”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모자 한번 벗었을 뿐인데 갑자기 상황이 변해버렸다. 아까 고개 빳빳이 들고 큰소리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변한 영애들의 태도에 레아는 한숨이 나왔다.

‘저렇게 바들바들 떨고 있으니 꼭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거 같아서 기분 되게 별로네. 이럴 거면 처음부터 그러지나 말지.’

그럼 이제 이 영애들을 어쩌면 좋을까. 레아는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뭔가 소동이 일어난 걸 눈치챘는지 직원들이 이쪽으로 달려왔고 숨어있던 다리아 영애도 피팅룸에서 나와 레아의 옆으로 왔다.

“레, 레아 황녀님! 이게 지금 무슨 상황…아니, 어떻게 저희 의상실에…. 이, 일단 미리 알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아무도 못 알아보게 모자를 쓰고 왔으니 사과는 됐어요. 저야말로 소란 피워서 미안해요.”

“아뇨, 아뇨. 아닙니다. 제발 사과하지 말아 주세요…!”

“알겠어요. 어쨌든 직원분들은 사과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죄송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으니까.”

레아의 말에 바들바들 떨고 있던 영애들은 더 겁을 먹게 되었다. 지금까지 레아 황녀님께 걸린 사람들이 어떤 최후를 맞았는지 잘 알고 있어서 더 무서운 것이었다. 결국, 영애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도 잊고 일단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다.

“정말,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소문을 퍼트리는 일 같은 건 하지 않을 테니 부디…부디 용서를….”

“아뇨. 용서는 내가 아니라 다리아 영애한테 구하세요.”

“네, 네?”

“난 나에 대한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퍼트려서 이렇게 화가 난 게 아니에요. 하나뿐인 소중한 내 친구한테 상처를 줘서 열 받은 거지.”

다리아 영애는 레아에게 케이크만큼 와플만큼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다. 그런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줬으니 화가 난 것이었고 그러니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레아가 아닌 다리아 영애였다.

‘내 욕하는 건 참아도 내 사람 욕하는 건 절대 못 참지. 다리아 영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감히 내 친구를 건드리다니. 하나뿐인 소중한 친구였기에 레아는 절대 봐줄 생각이 없었다.

111.시들시들.docx

위페르 가문의 이자벨 영애는 어릴 때부터 앨버트 가문의 다리아 영애를 상당히 싫어하고 있었다. 싫어하는 이유는 간단했다. 화낼 줄도 모르고 언제나 얌전히 미소 짓는 그 얼굴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언제나 얌전하게 웃으면서 똑똑하고 착해서 모두에게 귀염을 받는다는 게 그렇게 거슬릴 수가 없었고 그래서 다리아 영애가 프레디 소공자에게 차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속으로 고소하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곧 레아 황녀님께서 다리아 영애를 황궁으로 초대했다는 소식에 이자벨 영애는 그렇게 분할 수가 없었다.

‘나도 레아 황녀님께 친해지고 싶다고 편지를 보냈었는데…. 티파티 초대장도 보냈었는데 레아 황녀님께서는 어째서 내가 아닌 다리아 영애를 황궁으로 부르신 거지?’

이자벨 영애와 다리아 영애는 비슷한 신분으로 태어나 비슷하게 자라왔는데 어째서 사람들은 다리아 영애만 예뻐하고 좋아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래서 이자벨 영애는 늘 다리아 영애를 질투하고 싫어했으며 라이벌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다리아 영애는 이자벨 영애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말이다.

그러다 레아 황녀님께서 하이모어 대공에게 납치당했다가 겨우 돌아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자벨 영애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다리아 영애의 애인이 설마 하이모어 대공이 심어둔 스파이일 줄 누가 알았겠어. 아무튼, 이걸로 레아 황녀님과 다리아 영애의 사이는 끝이겠지. 나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야.’

이번 일로 황녀님과 제일 친한 친구 자리가 비게 될 것이니 그 자리를 치고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당연히 멀어질 줄 알았던 레아 황녀님과 다리아 영애의 사이는 오히려 더 돈독해져 있었다.

‘어째서…? 아무리 다리아 영애도 속은 거라고 해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레아 황녀님께서는….’

어째서 다리아 영애를 더 걱정하고 신경 쓰시는 걸까. 그게 이해가 가지 않아 이자벨 영애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고 그러다 나온 결과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문이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다른 사람도 아니고 레아 황녀님께 들켜버리다니. 나는 이제 어쩌면 좋지?’

단지 레아 황녀님과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싶었을 뿐인데. 근데 일이 이렇게 돼버렸으니 이자벨 영애가 할 수 있는 건 자존심이고 뭐고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비는 일뿐이었다. 하지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이자벨 영애에게 레아 황녀님은 냉정하게 말씀하셨다.

“아뇨. 용서는 내가 아니라 다리아 영애한테 구하세요.”

“네, 네?”

“난 나에 대한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퍼트려서 이렇게 화가 난 게 아니에요. 하나뿐인 소중한 내 친구한테 상처를 줘서 열 받은 거지.”

하나뿐인 소중한 친구. 이자벨 영애가 되고 싶었던 존재였고 동시에 이제는 절대 될 수 없는 존재였다. 그 말에 이자벨 영애는 마음이 무너질 것만 같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다리아 영애에게 사과했다.

“다리아 영애. 미안해요. 난, 난 그저….”

“……….”

“그저…그저 어디서 들은 얘기를 했을 뿐인데 그게 상처가 될 줄은 몰랐어요. 다른 영애들도 다 그렇게 말하는데 다리아 영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게 사실인 줄 알고….”

“……….”

“아무튼, 사과할게요. 미안해요. 다리아 영애.”

무릎도 꿇고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긴 했지만 하는 말은 저게 변명인지 아니면 일단 미안하다고 말했으니 용서하라는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레아는 얼굴을 찌푸리며 사과할 거면 제대로 하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먼저 입을 연 쪽은 다리아 영애였다.

“…안 받을래요.”

“네?”

“그건 사과가 아니라 변명이잖아요. 그런 건…안 받을래요. 사과할 거면 다시 제대로 하세요.”

“그, 그런….”

작고 소심한 목소리이긴 했지만, 평소 얌전한 성격인 다리아 영애가 저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에 사람들은 놀란듯했다. 특히 레아는 자신이 할 법한 대사가 다른 사람도 아닌 다리아 영애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다.

‘부부도 오래 살면 닮는다던데 설마 다리아 영애도 나랑 닮아가는 건가?’

다리아 영애가 어디 가서 하고 싶은 말도 못 하고 억울하고 기분이 상할 때도 꾹 참기만 하는 것보단 낫다만 점점 자신을 닮아간다는 게 과연 좋은 걸까 하고 레아는 잠시 생각했다. 이자벨 영애도 설마 다리아 영애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는지 당황한 얼굴을 했다. 그러다 뒤늦게 자존심이라도 상한 건지 이를 악물고 벌떡 일어나 다리아 영애를 노려보았다.

“다시 제대로 사과하라뇨?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사과는 미안하다는 말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가 그걸 받아줘야 그게 진짜 사과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제 마음이 괜찮아지면, 이 상처가 다 치유가 되었을 때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면 받아줄게요. 그때까지 계속 사과하세요.”

“……….”

자신이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사과하라는 다리아 영애의 말에 이자벨 영애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이자벨 영애를 잠시 바라보던 다리아 영애는 그냥 고개를 획 돌려버렸다. 그리곤 옆에서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던 레아에게 말했다.

“레아 황녀님. 드레스는 다 고르셨어요?”

“네? 아뇨. 아직요.”

“그럼 우리 다른 의상실로 가볼까요?”

“다리아 영애는 그 남색 드레스 말고 다른 드레스로 하려고요? 그거 잘 어울리는 거 같은데.”

“아, 저도 이거 마음에 들어요. 레아 황녀님께서 제 드레스 골라주셨으니까 황녀님 드레스는 제가 골라드려도 될까요?”

“정말요? 그럼 그래 줄래요?”

마치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구는 다리아 영애를 보며 레아는 잠깐 당황한 듯했지만, 곧 똑같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굴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사랑스러운 얼굴로 그렇지 못한 말을 내뱉는 다리아 영애의 모습이 꼭 삐악거리는 병아리 같아서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건 다리아 영애라서 귀여워 보이는 거겠지. 내가 저런 말을 했다면 아마 무섭다고 하지 않았을까.’

레아는 첫 파티 때 라이 경이 자신에게 새삼스럽게 반했었다는 사실을 잊은 건지 다시 원래 입고 왔던 드레스로 갈아입으러 간 다리아 영애를 기다리며 그런 생각을 했다. 그리고 일단 아빠가 얘기한 그 안 좋은 소문에 대해서도 알게 된 건 잘 됐다고 생각도 했다. 하지만 그 안 좋은 소문 때문에 동시에 고민이기도 했다.

‘그러고 보니 아까 내 소문에 대한 반박은 전혀 못 했네. 으음. 어쩌면 좋을까.’

단순히 파티에 모습을 드러내는 거로 그 소문을 부정할 수는 없을 텐데. 이거 파티장 한가운데서 진짜로 위스키 병나발이라도 불어야 하나 고민하며 레아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

레아와 다리아 영애에게 의상실에서 소란이라면 소란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라이 경은 레아에게 말했었던 대로 훈련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축 늘어진 푸엘라 경 때문에 훈련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라이 경. 푸엘라 경은 도대체 왜 저러는 겁니까? 벌써 3일째 저 상태입니다.”

“고백도 해보기 전에 차여서 저러는 겁니다. 오스카 경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백해보기도 전에 차였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그럴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리아 영애가 당분간 그 누구도 만날 생각이 없다는 말이 그렇게나 충격이었던 걸까. 레아 황녀님 앞에서는 괜찮은 척해놓고는 며칠째 시들어버린 꽃처럼 축 늘어져 있으니 라이 경은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해도 푸엘라 경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었다.

“대체 얼마나 좋아했길래 여자한테 차였다고 저 정도로 사람이 시들시들해지는 겁니까? 차이는 게 처음도 아니면서.”

거기다 옆에서 오스카 경이 계속 참견을 하니 더 무시할 수가 없었다. 오스카 경의 말대로 여자한테 차이는 게 처음도 아니면서 새삼스럽게 충격에 빠진 푸엘라 경을 보는 게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딱히 뭘 어떻게 해줘야 할지 알 수가 없어서 라이 경은 일단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중이었다.

“근데 며칠째 저러고 있는 거면 뭐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저러고 있으면 좀….”

“하지만 뭘 어떻게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습니까? 자고로 사랑의 상처는 사랑으로 잊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자라도 소개해 주자는 겁니까?”

“지금으로선 그게 제일 좋은 위로 방법입니다.”

푸엘라 경을 위로해주기 싫다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자를 소개해 주자니. 별로 좋은 방법도 아닌 거 같았지만 라이 경에게 푸엘라 경을 소개해 줄만 한 아는 여자가 있을 리가 없었다.

“그런데 오스카 경은 소개해 줄 사람은 있어서 그런 방법을 제안하시는 겁니까? 괜히 잘못 소개해줬다가는 푸엘라 경 상태가 더 안 좋아질 겁니다.”

“그야…세상의 반이 여자고 반이 남자인데 아무리 푸엘라 경이라고 해도 마땅한 짝이 어딘가에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소개해 줄 만한 사람도 없으면서 사랑으로 받은 상처는 사랑으로 잊어야 한다는 말을 하다니. 라이 경은 그럴 줄 알았다며 한심하다는 듯 오스카 경을 바라보았다.

“그러지 말고 라이 경은 주변에 괜찮은 여자 없습니까? 인기도 많으니까 아는 사람 한 명 정도는 있을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오스카 경은 아무도 없는 겁니까? 그러고 보니 전에 친누나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푸엘라 경을 위로해주고 싶어도 가족을 건드리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말 하기에는 이건 오스카 경이 먼저 꺼낸 말 아닙니까.”

“그야 그렇긴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오스카 경은 푸엘라 경에게 친누나를 소개해 줄 마음이 전혀 없었다. 누나와 푸엘라 경이 잘될 가능성도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혹시라도 두 사람이 잘되어서 푸엘라 경이 매형이 되는 건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서 누나 말고 소개해 줄만 한 다른 사람이 없을까 열심히 생각을 해보았지만 좋은 생각이 날 리가 없었다.

결국, 오스카 경은 어쩔 수 없이 푸엘라 경에게 누나를 소개해 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착한 사람이니까…바보지만 정말 착하긴 착한, 착하기만 한 사람이지. 푸엘라 경은….’

착하기만 하다는 게 조금 흠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싫어할 이유가 없는데도 왜 이렇게 누나를 소개해 주기가 싫은 건지는 오스카 경도 알 수가 없었다. 그래도 어쨌든 오스카 경은 내키진 않았지만 푸엘라 경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푸엘라 경. 혹시 이번 주 토요일에 바쁘십니까?”

“………?”

“아니, 그렇게 우울해하고 있지만 말고 차라리 다른 사람을 만나보란 말입니다. 마침 좋은 상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누가 있기는 한데 만나보시겠습니까?”

“됐어. 필요 없어.”

이렇게 시들시들해지기 전까지만 해도 빨리 결혼할 여자를 찾아야 한다고 노래를 부르던 푸엘라 경이었기에 이렇게 단칼에 거절당할 줄은 몰랐다. 아직 제대로 말도 꺼내진 않았지만 누나가 단칼에 거절당했다고 생각하니 오스카 경은 어쩐지 기분이 좀 별로였다.

“아니, 그래도 어떤 사람인지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제 친누나지만 얼굴이 예쁜…건 절대 아니고 그래도 성격은…성격 파탄이기는 하지만….”

남동생의 눈에 친누나는 하나도 안 예쁘고 성격도 저게 사람이 맞을까 진심으로 의심이 될 정도로 별로였고 칭찬할만한 점은 하나도 없었다. 그 둘의 대화를 듣고 있던 라이 경은 저게 소개를 받으라는 건지 받지 말라는 건지 한숨만 나올 뿐이었다. 그런데 오스카 경이 떠들든 말든 신경도 안 쓰던 푸엘라 경은 갑자기 힘이 쭉 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나도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그렇게 살까.”

“………!”

“갑자기 아무도 안 만나고 싶네. 그 사람 말고는.”

“푸엘라 경…. 드디어 미친 겁니까?”

“아마 그런 걸지도.”

“와…….”

푸엘라 경은 다리아 영애와 제대로 된 연애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애틋한 사연이 있는 사이도 아니었다. 그런데 딱 2주 정도 짝사랑하다 고백도 못 해보고 차인 주제에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다니. 누가 보면 천년의 사랑이라도 한 줄 알겠다며 라이 경은 감탄했고 자세한 상황을 모르고 있는 오스카 경도 어이가 없는 건 마찬가지인 듯했다.

“분명 고백도 못 해보고 차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짝사랑했길래 저 정도로 푹 빠진 겁니까?”

“2주 정도 됐습니다. 그 사람에게 첫눈에 반한지.”

“…그런데 지금 저 모양 저 꼴이 돼서 저런 말을 하는 겁니까? 정말로?”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사람을 소개해 주는 거로는 푸엘라 경을 위로해줄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생각보다 상태가 더 심각한 걸 보아 푸엘라 경을 위로해줄 수 있는 건 다리아 영애밖에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 그래도 아직 상처가 덜 아물었을 다리아 영애에게 푸엘라 경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뭔가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레아 황녀님이라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지 멋진 답을 내려주실 것 같은데. 나중에 돌아오시면 한번 얘기해볼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지만 라이 경은 곧 그 생각을 접었다. 레아 황녀님은 지금 돌고 있는 그 안 좋은 소문과 곧 열릴 파티 준비 때문에 바쁘시니 푸엘라 경까지 신경 써주실 여유는 없으실 것이었다. 라이 경은 그렇게 생각하며 시간을 확인하고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다.

“어? 라이 경. 어디 가십니까?”

“곧 레아 황녀님이 돌아오실 시간입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들시들한 푸엘라 경을 두고 이대로 가시는 겁니까? 저 혼자 뭘 어쩌라고?”

“알아서 잘하시길 바랍니다.”

“뭡니까. 그런 무책임한 말은….”

“저한테는 푸엘라 경보다 레아 황녀님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정말로 가보겠습니다.”

아무리 시들시들해진 푸엘라 경이 신경이 쓰여도 레아 황녀님보다 더 신경 쓰이고 중요할 리가 없었다. 라이 경은 그렇게 자신을 붙잡는 푸엘라 경을 가볍게 무시하며 샤워실로 향했다.

112.마지막 그리고 시작.docx

“결국, 황녀님이 입으실 드레스는 못 골랐네요. 아쉬워요.”

“어차피 전 새 드레스를 꼭 사야겠다는 마음은 없었어요. 솔직히 황궁 밖에 나오고 싶기도 했고 다리아 영애랑 쇼핑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거든요.”

“그래도 저는 좀 아쉬워요. 예쁜 드레스를 골라드리고 싶었는데.”

“다음에요. 앞으로도 우리 둘 다 참석해야 할 파티는 많으니까 다음에는 꼭 예쁜 드레스로 골라주세요.”

“네. 맡겨주세요.”

처음 들렸던 의상실을 나와 다른 의상실을 두세 군데 더 둘러보았지만, 레아는 딱히 마음에 드는 드레스를 고르지 못했다. 의상실 직원들이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라며 몇 벌 추천해주기는 했는데 모두 다리아 영애와 레아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다. 그래서 레아는 이번 파티에서 입을 드레스를 고르지 못한 채로 황궁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어차피 황궁에는 아직 레아가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드레스가 차고 넘쳤으니 파티 때는 그 드레스 중 적당한 걸 골라 입으면 그만이었다.

“다리아 영애. 혹시 오후 일정 있어요? 없으면 황궁에서 점심 같이 먹을래요?”

“저랑요? 저는 좋긴 하지만 라이 경이랑 점심 데이트 안 하세요?”

“라이 경이랑은 어제도 점심 같이 먹었고 내일도 같이 먹을 거니까요. 항상 다리아 영애랑 같이 식사 한번 하고 싶다고 생각했었어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다니. 기뻐요.”

다리아 영애는 같이 식사하자는 레아의 말에 잠시 기쁜 미소를 지었지만, 곧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만약에 레아 황녀님이 남자셨다면 제가 사귀자고 엄청 매달렸을 텐데. 라이 경은 진짜 복 받았네요.”

“라이 경은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니까 제가 복 받은 거죠. 그리고 저 같은 애인은 감당하기 힘들 거 같은데요?”

“그런가요? 제가 남자라면 좋을 거 같은데.”

얼굴도 예쁘고 신분도 황족이고 남을 깔보거나 무시하는 성격도 아니었다. 이런 여자친구라면 너무 좋을 거 같은데 왜 황녀님은 힘들 거 같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아 다리아 영애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레아는 그런 다리아 영애에게 작게 웃으며 이런 말을 해주었다.

“까놓고 얘기해서 콩가루 집안에 납치까지 당하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가할 틈도 없이 사건 사고가 터졌는데 그런 사람의 남자친구가 되어 옆에 있어 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빠 성격…다리아 영애도 알지 않아요?”

“아….”

“그래서 내 상황 다 알면서도 내가 좋다고 말해주고 남자친구가 되어준 라이 경한테 항상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라이 경이 아니면 이런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없을 거예요.”

물론 레아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영식들은 많았지만 모두 자세한 속사정은 모르고 겉모습만 보고 가진 호감들이었다. 그런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었지만 아마 다들 깊은 비밀까지 모조리 알게 된다면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기 힘들 것이었다. 그리고 라이 경이 아니면 아무도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이 없을 거 같기도 했지만, 레아 역시 라이 경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리아 영애도 그런 사람을 찾길 원한다면 분명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바보 같을 정도로 착한 마음으로 사랑해줄 남자를.”

“네.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제 발로 굴러들어오진 않겠죠?”

“두 사람의 관계는 한 사람만 노력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용기를 내지 않으면 안 되겠죠.”

만약 엄마와 아빠도 서로를 향해 조금만 더 욕심내고 용기를 내었다면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고 레아는 잠시 생각했다. 지금 와서는 쓸데없는 생각이었지만 그랬다면 엄마도 아빠도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이 마차는 황궁에 도착했고 레아는 다리아 영애와 함께 점심을 먹고 차도 마실 생각이었다. 그런데 레아가 마차에서 내리자마자 누군가 불쑥 꽃을 한 송이 내밀었다.

“………?”

“……….”

“누구세요?”

“……….”

얼굴에는 별이 크게 그려진 가면이 씌워져 있었고 체형을 보니 엄청난 거구의 사내인 걸로 추정되었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누구인지 묻는 레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 대신 그 남자는 자신의 오른쪽 손바닥을 보여주었다. 그 남자의 손바닥에는 전에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귀엽고 깜찍한 글씨로 하비투스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하비투스가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

레아의 말에 그 남자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리고는 다시 레아에게 하얀 튤립 한 송이를 내밀었고 레아는 순순히 그 꽃을 받아주었다. 그러자 그 남자는 기쁜 듯 손뼉을 짝짝 치더니 이번에는 레아의 옆에 있던 다리아 영애에게 망고 튤립을 내밀었다.

“아, 저는….”

“……….”

“괜찮아요. 다리아 영애. 정상적이고 평범한 사람은 절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쁜 사람도 아니니까 받아도 괜찮을 거예요.”

“……….”

“그, 그렇군요. 그럼 감사히 받을게요.”

정상적이지도 않고 평범하지도 않은 사람한테서 꽃을 받아도 정말 괜찮은 걸까. 조금 망설여지긴 했지만 그래도 레아 황녀님께서 괜찮다고 하셨으니 다리아 영애는 조심스럽게 그 남자가 내미는 꽃을 받았다. 그러자 그 남자는 이번에도 기쁜 듯 손뼉을 쳤고 두 사람에게서 세 발자국 뒤로 물러났다.

그러더니 갑자기 펑! 소리를 내며 그 남자의 모습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리고 그 남자가 사라지면서 레아와 다리아 영애가 받은 꽃은 작은 편지로 변해있었다.

“할 말이 있으면 직접 와서 하든가 편지를 보내더라도 좀 평범하게 보낼 수는 없는 건가.”

“하하. 재밌으신 분이네요.”

“워낙 별난 사람이라서요. 과연 무슨 말을 적어놨을지 두렵네요.”

“아, 하하하….”

한동안 조용하다 싶더니 이런 걸 보내다니. 복수도 이제 다 끝냈는데 이건 또 무슨 의도로 보낸 건지 레아는 작게 한숨을 쉬며 편지를 읽어 보았다. 편지 안에는 딱 한 마디가 적혀있었다.

[나랑 점심 같이 먹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같이 식사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이러는 이유는 또 뭘까. 레아는 조금 신경 쓰이기는 했지만, 오늘 점심은 다리아 영애와 같이 먹기로 했으니 하비투스의 초대에는 응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사실 별로 응하고 싶지도 않았다.

“레아 황녀님. 편지에 뭐라고 적혀있었나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신경 안 써도 될 거 같아요.”

“그런가요? 갑자기 편지를 보내셔서 급하게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 건가 했어요.”

“급하게 할 얘기가 있었다면 직접 찾아왔겠죠. 그냥 심심했나 봐요. 아니면 갑자기 혼자 밥 먹기 싫어졌나?”

그런 거라면 키린이랑 같이 먹으면 될 텐데. 오늘은 선약이 있어서 안 되지만 내일은 점심 같이 먹어줄까 하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였다.

“……어?”

레아가 작은 편지를 반으로 접으려던 그 순간, 딱 한 마디 적혀있던 글자들은 갑자기 꾸물꾸물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다른 말로 변했다.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요.]

설마 자금 레아와 다리아 영애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있는 건가? 레아는 깜짝 놀라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하비투스의 모습이 보일 리가 없었다.

“레아 황녀님. 왜 그러세요?”

“쉿.”

“………?”

대체 어떻게 듣고 있는 건지는 몰라도 동의도 없이 변태도 아니고 왜 남의 얘기를 엿듣는 건지 레아는 얼굴을 찌푸렸다. 하비투스가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레아는 다리아 영애와의 선약을 취소하고 하비투스와 밥을 먹어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아니, 오히려 내일은 같이 먹어줄까 하는 마음도 사라졌다. 그래서 편지를 그냥 찢어버리려고 했지만…무슨 마법을 걸어둔 건지 종이는 너무 질겨서 찢어지지도 않았다. 아무리 찢어버리려고 해도 절대 안 찢어지는 편지에 레아는 더 열이 받았다.

“레아 황녀님. 아무래도 오늘 점심은 하비투스 님과 같이 드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무슨 이유가 있으셔서가 아닐까요? 저랑은 다음에 같이 먹으면 되잖아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재밌어서 이러는 거 같은데.”

착한 다리아 영애는 하비투스도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러는 거 같다고 말했지만, 레아는 설령 그렇다고 해도 다리아 영애와의 약속을 취소하면서까지 하비투스한테 가고 싶지는 않았다. 아무리 이유가 있다고 해도 하비투스의 태도 때문에 같이 밥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길 리가 없었다.

[그냥 재밌어서 이런다니.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제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다는 걸 숨길 마음은 전혀 없는듯해 보이는 글에 레아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다.

“뭐가 너무해요. 그럼 왜 이러는 건지 말을 해주던가요.”

[안 오시면 후회하실 게 분명하니까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후회하냐고요.”

[……….]

“뭐예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할 말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무슨 다른 뜻이 있는 건지 갑자기 종이에는 점이 막 찍히기 시작했다. 그래서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레아와 다리아 영애는 그 점들만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곧 그 까만 점들은 꿈틀거리며 이리저리 움직이더니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냈다.

“이 나무는…황궁 정원에 있는 커다란 나무겠죠? 그리고 그 나무 앞에는 여자와 남자….”

“……….”

“남자가 다정하게 여자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있는 거 같은데 무슨 뜻인 걸까요?”

“이건…….”

다리아 영애는 이 그림은 또 무슨 뜻일까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지만, 레아는 이 그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째서 하비투스가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건지는 알 수가 없었다.

[지금 여기 있어요.]

“……….”

[2시간 후에 떠날 거니까 빨리 오세요.]

“2시간…?”

그 일이 있고 나서 행방불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설마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을 줄이야. 이제 2시간 후에 떠날 것이라고 알려준다는 건 아무래도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오라는 말 같은데 그렇다면 레아는 가지 않을 생각이었다.

‘말이 행방불명이었지 사실 찾으려고 했다면 찾을 수 있었어. 마지막으로 고맙다는 인사도 못 했으면서 찾지 않은 이유는 내 나름의 배려였다고.’

그래서 레아는 그때 그 별장에서 마음속으로 아련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영원히 그 사람을 떠난 것이었다. 그러니 인제 와서 다시 인사를 할 필요도 없었고 이제 레아와 그 사람은 서로 얼굴 봐봤자 좋을 게 없는 사이였다. 그 사람과 레아는 지금 이대로의 사이가 가장 아름답게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는 사이였다.

그런데 글씨들은 한 번 더 꾸물꾸물 움직이더니 이번에는 곱슬곱슬한 긴 머리에 시녀복을 입고 있는 소녀의 그림으로 변했다. 이건 아마 하이모어 대공의 저택에서 하비투스가 만들어준 물약을 먹고 변했던 레아의 모습일 것이었다. 그 그림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있었다.

[나한테도 안 해줄 거예요? 마지막 인사.]

“…하비투스도 떠나는 거예요? 2시간 후에?”

[……….]

레아는 물었지만 하비투스는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고 곧 종이는 아무런 것도 적히지 않은 백지상태로 변했다. 그 사람이 다른 곳으로 떠날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비투스까지 떠날 거라곤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기에 레아는 좀 당황스러웠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좀 망설여졌다. 시간이 많이 남은 것도 아니고 고작 2시간 남았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 잠시 고민이 되었지만, 레아는 곧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다리아 영애. 먼저 밥 먹자고 해놓고 이런 말 해서 미안한데 나 아무래도 지금 하비투스한테 가봐야 할 거 같아요.”

“네. 웃는 얼굴로 마지막 인사 잘해주세요.”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다리아 영애.”

“아니에요. 저랑 밥 먹을 수 있는 날은 앞으로도 많을 거지만 마지막 인사는 오늘밖에 못 하시는 거잖아요.”

“고마워요. 다리아 영애.”

다음에는 꼭 둘이서 맛있는 거 먹자고 말한 후 레아는 바로 하비투스에게로 뛰어갔다. 그런 레아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를 짓던 다리아 영애는 아까 자신이 받았던 종이를 한번 확인해보았다.

‘나는 뭐라고 적혀있으려나. 아무것도 안 적혀있으려나.’

하비투스 님이 레아 황녀님께 보내는 편지였으니까 하비투스 님과는 일면식이 없는 자신에게는 그냥 빈 종이를 주지 않았을까 싶었다. 하지만 그런 다리아 영애의 예상과 달리 편지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황궁 정원에 있는 커다란 나무 앞에서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남자의 손에는 아까 다리아 영애가 받았었던 망고 튤립 한 송이가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는 자그마한 글씨도 적혀있었다.

[가보세요.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어디로 가보라는 건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는 건지는 적혀있지 않았지만 아마 그림에 나와 있는 커다란 나무 앞으로 가보라는 뜻이 아닐까 싶었다. 하지만 여전히 무엇이 영애를 기다리고 있다는 건지는 알 수 없었고 그래서 다리아 영애는 나무 앞으로 가볼까 말까 잠시 고민을 했다.

그러다 곧 용기를 내서 다리아 영애는 그림에 나와 있는 커다란 나무 앞으로 걸어갔고 그 나무 앞에 도착했을 때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것을 만날 수 있었다.

“어?”

“다, 다리아 영애?”

“그러니까…이름이 푸엘라 경이셨죠?”

“영애께서 어떻게 제 이름을…….”

“전에 레아 황녀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거 같아요.”

“아….”

그런데 언제 말씀해주셨더라. 그건 잘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다리아 영애는 그 커다란 나무 앞에서 망고 튤립 한 송이를 들고 있는 푸엘라 경을 만날 수 있었다. 다리아 영애를 보자마자 푸엘라 경은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졌지만, 도망을 가거나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대신 곧 터질 것 같은 얼굴로 용기를 내어 다리아 영애에게 말을 걸었다.

“저, 저기 다리아 영애…!”

“네?”

“초면에 이런 말 하면 미친놈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뒤에 말은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부끄러워하는 푸엘라 경의 모습이 왠지 귀여워 보여서 다리아 영애는 거절 대신 웃음이 나와버렸고 그런 다리아 영애에게 푸엘라 경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망고 튤립을 건넸다. 그러자 다리아 영애는 보지 못했지만, 편지에는 새로운 글씨가 나타났다.

[망고 튤립의 꽃말은 수줍은 사랑의 고백]

113.행복해지세요.docx

“푸엘라 경은 잘하고 있으려나.”

떠나기 전 특별히 준 선물인데 그 바보가 다시는 받지 못할 엄청난 선물을 못 알아보고 걷어 차버리는 건 아닐까 하고 하비투스는 조금 걱정이 되었다. 뭐, 선물을 잘 받고 용기를 냈어도 다리아 영애한테 뻥! 차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뒤의 일은 두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었지만 말이다.

“그래도 이왕이면 잘 됐으면 좋겠네. 또 인생 다 포기한 사람처럼 시들시들해지고 있으면 레아 황녀님은 분명 신경이 쓰이실 거니까.”

하지만 하비투스는 이번 고백이 처참하게 실패하더라도 푸엘라 경이 다시 시들시들해지진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 성격이 꼬인 하비투스가 봐도 푸엘라 경은 꽤 괜찮은 남자니까 차이더라도 다리아 영애의 마음을 이해해줄 것이었다. 이제 하비투스가 해줄 수 있는 건 그저 마음속으로 응원해주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레아 황녀님은 언제 오시려나. 슬슬 오실 때가 된 거 같은데.”

설마 다리아 영애한테는 여기로 온다고 하고 다른 곳으로 가신 건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레아 황녀님은 문을 부실 듯이 세게 열고 들어오셨다.

“박력 넘치는 등장이네요. 어서 오세요. 레아 황녀님.”

“2시간 후에 떠난다는 거 그거 진짜예요?”

“당연히 진짜죠. 그럼 내가 그런 거로 거짓말하겠어요?”

“그럼 좀 빨리 얘기해줬어야지, 왜 이렇게 갑자기…!”

“자자, 일단 진정하고 앉으세요. 시간 없으니까 밥부터 먹으면서 천천히 얘기하자고요.”

갑자기 떠날 거니까 마지막 인사는 해달라고해서 다리아 영애랑 같이 점심 먹기로 한 것도 취소하고 뛰어왔는데. 그런데 레아와 달리 하비투스는 여유로워 보였다. 그런 모습이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너무나 하비투스다운 모습이라 레아는 짜증 난다고 생각하면서도 식사를 하기 위해 식탁에 앉았다.

“좀 가기 며칠 전에 미리 얘기해주고 식사 약속도 여유롭게 잡을 순 없었나요? 놀랐잖아요!”

“에이,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그래도 나름 성심성의껏 준비한 깜짝 이벤트인데.”

“깜짝 이벤트는 무슨.”

대체 누구를 위한 깜짝 이벤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레아는 전혀 좋지 않았다.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토마토스튜를 한 입 먹으려던 레아는 순간 멈칫했다.

“혹시 여기 뭐 이상한 거 탄 건 아니겠죠?”

“그건 저도 모르죠. 제가 안 만들었으니까.”

“하비투스가 만든 게 아니라고요? 그럼 누가 만든 건데요?”

“한번 맞춰보세요.”

“……….”

황궁 주방장이 만든 것치곤 소박해 보이고 들어간 재료도 비교적 평범해 보여서 당연히 하비투스가 직접 만든 건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비투스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만든 토마토스튜라고 하니 레아는 괜히 숟가락으로 스튜를 뒤적거려보았다. 그런데 스튜 안에는 눈에 띄게 고기가 많이 들어있었다.

“안 드시고 뭐 하세요? 이러다 다 식겠네.”

“하비투스한테 누가 이런 걸 만들어줬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엄청 정성 들여서 만든 거 같은데.”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아니라 레아 황녀님을 위해 만든 거죠. 정성을 가득 담아서.”

“나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빨리 먹어요. 만든 사람 정성을 생각해서.”

하비투스가 아닌 자신을 위해 누군가 정성이 가득한 토마토스튜를 만들어줬다니 레아는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궁금했다. 하지만 딱히 떠오르는 사람도 없었고 물어봤자 하비투스는 대답해줄 것 같지 않아서 레아는 혹시 맛을 보면 그게 누군지 알 수 있으려나 하고 생각하며 스튜를 한 입 먹어보았다. 그런데 한 입 먹어보자마자 레아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왜요. 맛이 이상해요?”

“아뇨. 맛있어요. 맛있는데….”

“그럴 줄 알았어요. 당연히 맛있겠죠.”

“으으음.”

확실히 토마토스튜는 원래 레아가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했고 특히 이 토마토스튜는 황궁 주방장이 만든 스튜보다 더 맛있게 느껴졌다. 그런데 레아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건 왠지 먹으면 먹을수록 토마토스튜에선 뭔가 익숙하면서도 약간은 그리운듯한 따듯한 맛이 느껴졌다.

‘꼭 내가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브로디 아저씨가 만들어주던 토마토스튜랑 맛이 비슷해. 조금은 투박하게 잘린 당근이랑 감자 모양도 그렇고.’

그래서 혹시 레아를 위해 이 토마토스튜를 만든 사람이 브로디 아저씨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잠시 해봤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하비투스랑 브로디 아저씨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잖아. 그냥 우연이겠지.’

세상에 토마토스튜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브로디 아저씨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스튜가 아저씨가 만들어 준 것과 비슷한 건 단순한 우연일 것이었다. 레아는 그렇게 생각하며 토마토스튜를 한 입 더 먹었다.

“그런데 그래서 황궁을 떠날 거란 건 무슨 소리예요? 정말 떠나는 거예요?”

“진짜라고 말했잖아요. 처음 들어왔을 때도 물어봤으면서.”

“왜 떠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요?”

“내가 떠난다니까 조금 아쉽기는 아쉬운가 봐요? 이유를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대답이나 해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황궁을 떠난다고 하는 건지 레아는 하나도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런데 하비투스는 반대로 당연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했다.

“아리샤 누나가 끝내지 못한 복수를 레아 황녀님께서 대신 끝내주셨잖아요. 거기다 내 조카 같은 황녀님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호자도 나타났으니 더 황궁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떠나야죠.”

레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호자라면 아마 라이 경을 말하는 거겠지. 근데 라이 경은 레아의 남자친구고 진짜 보호자는 아빠여야 하는 거 아닌가. 아무래도 하비투스는 아빠를 믿고 레아를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아빠랑 다른 사람들은 알아요? 하비투스가 오늘 떠난다는 거.”

“아뇨. 괜히 말했다가는 절대 못 가게 할 거 같아서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혼자 떠나는 게 아니라서 변수가 생기면 큰일이거든요.”

“혼자가 아니라면 같이 떠나는 사람은 역시….”

“네. 프레디와 함께 떠나기로 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아까 프레디 소공자도 지금 이곳에 있다고 했고 마지막이라고 했었으니까. 레아가 납치당했을 때도 하비투스가 만든 물약은 프레디 소공자가 부탁해서 만든 것이라고 했으니 어쩌면 두 사람은 생각보다 더 친한 사이일지도 몰랐다. 레아는 그것도 참 의외라고 생각하며 후식으로 나온 딸기 우유를 한 모금 마셨다.

그런데….

“응?”

“이번에는 왜 그러세요?”

“이 딸기 우유…우나타에 있을 때 에리스 아줌마가 만들어주던 딸기 우유랑 맛이 비슷한 거 같아서요.”

“원래 딸기 우유는 다 거기서 거기니까요. 진짜 어디서 먹어본 듯한 맛이긴 하네요.”

“흐음. 그런가?”

하지만 단순히 비슷한 거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이상했다. 레아는 말로는 표현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찜찜한 기분으로 딸기 우유를 마셨다.

“그래서 프레디 소공자랑 어디로 떠나서 살지는 결정했어요? 뭐 하고 살 건데요?”

“계획이야 이미 다 끝났죠. 그리고 난 어딜 가나 잘 먹고 잘살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나도 걱정 안 하고 싶은데 그 성격으로 황궁 밖에서도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좀 걱정이네요.”

그나마 황궁 안에서는 몇 없는 대마도사라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지 밖에서도 저 성격 안 고치면 힘들 텐데. 프레디 소공자도 사랑받는 행복한 삶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대공의 차남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높은 신분으로 살았으니 평민으로 살아본 적이 있는 레아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다.

“뭐 하고 먹고살 건데요? 돈이야 당연히 있을 거고 머무를 곳은 확실히 있는 거예요?”

“앞으로 머무를 곳도 다 알아봤고 어떻게 먹고살 건지도 다 결정했으니까 레아 황녀님은 황녀님 걱정부터 하시는 게 어때요?”

“내 걱정이라뇨?”

“요즘 안 좋은 소문 돌고 있던데 설마 그것도 몰랐다는 건 아니죠?”

“아, 그거.”

로브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가리고 다닐 때보다는 좀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방에만 콕 처박혀 있어서 소문에는 느린 줄 알았는데 레아도 오늘에서야 안 그 소문을 하비투스는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잠시 잊고 있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문을 생각하자 레아는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한숨부터 쉬시는 걸 보니 아직 어떻게 하실지 막막하신 모양이네요. 단순히 배가 안 불렀으니 파티에 참석만 하면 소문은 저절로 없어질 거란 바보 같은 생각은 안 하셔서 다행입니다.”

“아빠는 그럴 거로 생각하고 있으신 거 같던데요.”

“…딸이 있는 아빠라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다니. 이걸 놀랍다고 해야 할지 충격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그런데 아빠는 엄마가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는 걸 모르고 있었으니 딸이 있는 아빠라서 더 충격이라고 해도 될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 소문을 어떻게 부정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것이었다.

“아무리 아니라고 헛소문이라고 말해봤자 순순히 믿어줄 리가 없고 계속 이대로 갔다간 배도 안 불러오고 출산도 안 하니까 아이를 지웠다는 소문까지 돌 텐데 무조건 이번 파티 때 그게 헛소문이란 걸 밝히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파티장 한가운데서 위스키 병나발을 불 수도 없고.”

“그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네요. 그리고 취하셔서 술주정 부리시다 비틀거리면서 쓰러지시면 파티도 일찍 끝날 거고.”

“…지금 나랑 장난해요?”

“왜요. 난 진심인데.”

아직 술 먹을 나이도 아니긴 했지만 한 번도 술을 먹어본 적이 없는 레아라면 정말 취해서 비틀거리다 쓰러질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니. 그러기만 하면 다행이었다.

‘토하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이상한 짓을 할지도 모르지. 그럼 파티장은 아주 아수라장이 될 거고.’

아빠가 아무리 레아라면 모든 걸 허락하고 용서해준다고 해도 그런 짓을 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었다. 위스키 병나발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좋을 텐데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어 레아는 한 번 더 한숨을 쉬었다.

“난 위스키 병나발을 추천하지만 그게 마음에 안 드신다면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네요.”

“어떤 방법이요? 설마 이상한 건 아니겠죠?”

“이상한 건 아닌데 이 방법을 쓰신다면 파티장이 발칵 뒤집히겠죠. 후폭풍도 장난이 아닐 거고.”

“뭔진 몰라도 피하고 싶은 방법이네요.”

이제부터라도 조용히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파티장이 발칵 뒤집히고 후폭풍도 장난이 아닌 그런 시끄러운 방법을 쓰고 싶을 리가 없었다. 그런 레아의 반응에 하비투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역시 아직 공개연애는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게 당연하겠죠. 두 사람 다 아직 어리고 사귄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네? 공개연애라뇨?”

“레아 황녀님께 약혼자는커녕 남자친구도 없다고 알려져서 그런 소문이 난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이니까요.”

“내가 남자친구가 없다고 알려진 거랑 이 소문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상관이 있죠. 특히 황녀님의 남자친구가 라이 경이라면 더욱.”

레아가 납치당했을 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버려서 임신을 해버렸다는 말도 안 되는 헛소문과 라이 경이 레아의 남자친구라는 게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 이해가 되지 않아 레아가 얼굴을 살짝 찌푸리자 하비투스는 그 이유를 설명해주었다.

“세상에 어떤 남자가 자기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다 뒤집어엎고 그 새끼 죽여버리겠죠. 거기다 라이 경이랑 프레디는 한때 친구였는데 이거 아주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네요.”

“하지만 프레디 소공자는 지금 행방불명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아무리 라이 경이라고 해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죽여요.”

“아, 그건 걱정 마요. 4시간만 있으면 프레디랑 라이 경이랑 같이 있는 걸 목격했다는 사람이 줄줄이 나올 거니까.”

“네? 두 사람이 같이 있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지금 같이 있어요. 두 사람.”

“……….”

그럼 레아는 하비투스와 마지막 인사를 하고 라이 경은 프레디 소공자와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건가. 레아는 속으로 조금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두 사람이 잘 얘기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런 레아에게 하비투스는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다.

“라이 경도 라이 경이지만 푸엘라 경은 잘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갑자기 뜬금없이 푸엘라 경이요?”

“이번에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푸엘라 경이 축 처져서 죽어가고 있길래 선물을 좀 줬죠. 다리아 영애도 이번 일로 고생하기도 했고.”

“설마 그 두 사람을 엮으려고 무슨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엮었다기보다는 길을 좀 열어준 것뿐이에요. 나머지는 두 사람이 알아서 하겠죠.”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기에 잘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어렵기만 한 다리아 영애와 푸엘라 경 사이에 길을 열어줬다는 말을 하는 걸까. 누군가에게 반해서 짝사랑한다거나 차여서 슬퍼하는 마음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하비투스가 저런 말을 하다니 레아는 뭘 어떻게 했을지 심히 걱정되었다.

하지만 그래도 뭐 하비투스의 말대로 두 사람의 관계는 두 사람이 알아서 결론 내려야 할 문제니까. 레아도 조언이나 참견은 이쯤에서 살짝 넣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았다.

“하이모어 대공 일만 잘 처리하면 모든 게 다 홀가분해질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내가 신경 써야 하고 처리해야 할 일이 남아있네요. 머리 아프게.”

“그래서 우나타에 있었을 때가 그리우십니까? 리베르타에서 빵 구워서 팔던 그 시절이.”

“조금은요.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평범하고 잔잔한 시기였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럼 저랑 같이 떠나실래요?”

황녀로서의 삶이 싫은 건 아니었지만 잔잔할 틈이 없는 생활이다 보니 당연히 때로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의 조용하고 평범했던 삶이 조금은 그리웠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다짜고짜 같이 떠나자니. 레아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다.

“내가 어떻게 황궁을 떠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혼자라면 불가능일지 몰라도 나처럼 엄청나게 대단한 마도사랑 같이 가는데 뭐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알잖아요. 나한테 불가능한 건 거의 없다는 거.”

“확실히 하비투스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버리는 거.”

“그렇죠? 그럼 나랑 같이 떠날래요? 라이 경도 레아 황녀님이 가신다고 하면 같이 가겠다고 할 거니까 넷이 길드를 만들면 딱 좋겠네요.”

“여행을 다니는 것도 재밌겠네요. 하지만 사양할게요.”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는 것도 좋겠지만 레아가 있어야 할 곳은 황궁이었고 더 자세히 말하면 아빠 옆이었다. 모든 게 끝이 났어도 레아는 아빠를 떠날 마음이 없었다.

“황녀님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도 좀 부럽네요. 누구는 이런 딸도 있고.”

이참에 나도 가족이나 만들어 볼까. 하비투스는 그렇게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레아 역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먼저 하비투스를 보며 말했다.

“고마웠어요. 나한테 엄마의 과거를 얘기해주고 흑마법을 알려줘서 복수를 끝낼 수 있었어요. 라이 경이 프레디 소공자와 마지막 인사를 하게 해주고 다리아 영애와 푸엘라 경에게 길을 열어준 것도요.”

“저도 아리샤 누나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나 없어도 잘 지내요.”

“하비투스도요. 꼭 행복해지세요.”

행복해지라는 레아의 말에 하비투스는 피식 웃더니 레아에게 손을 내밀었고 레아 역시 똑같이 웃으며 그 손을 잡고 악수를 해주었다. 앞으로 어딜 가서 어떻게 살든 하비투스가 진심으로 행복을 찾길 바라면서 말이다.

114.부탁이 있습니다.docx

레아와 하비투스가 함께 식사하고 악수를 하며 훈훈하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사이 하비투스가 말했던 대로 라이 경은 프레디를 만나고 있었다. 그것도 다른 곳도 아닌 레아의 방에서 말이다.

“라이…?”

“설마 네 녀석을 다시 보게 될 줄이야.”

“그러게나 말이야, 설마 네가 문을 열고 들어올 줄이야.”

“아무래도 네가 기다리고 있던 사람도 내가 아니었나 보군.”

“응. 아마도”

하비투스는 누군가 마지막으로 프레디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했었고 프레디는 그 상대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그 상대가 누구인지는 듣지 못했지만 적어도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사람이 라이 경일 리는 없다고 프레디는 생각했다.

‘저 녀석이 날 보고 싶어 했을 리가 없잖아. 하비투스가 말한 사람은 아마 레아 황녀님이시겠지.’

어쨌거나 저쨌거나 레아 황녀님과는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 했으니까. 그래서 황녀님은 프레디를 만나고 싶어 하실 수도 있었지만, 프레디는 다시 레아 황녀님의 얼굴을 뵐 자신이 없었다. 겨우 황녀님을 향한 마음을 접었는데 다시 얼굴을 보고 레아 황녀님께서 다정한 말을 해주신다면 다시 욕심이 생겨서 기껏 접은 마음이 흔들릴 것만 같았다.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할 레아 황녀님 인생에 굳이 다시 나타나 훼방을 놓고 싶지는 않았다. 프레디는 그렇게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이만 가볼게. 아무래도 내가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지금 내가 절대 만나면 안 될 사람인 거 같다.”

“……….”

“다신 나타나지 않을 거야. 죽을 때까지 얼굴 볼 일은 없을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멀리 떠나는 건가.”

“그래. 이제 난 소공자도 아니고 이곳에 더 있어야 할 필요도 없으니까.”

모든 것이 끝나고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 프레디는 지금까지 있었던 안 좋은 일은 잊고 여기를 떠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프레디에게 이곳은 안 좋은 기억과 레아 황녀님과의 추억만이 있다는 걸 알기에 라이 경도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사람이 네가 될 줄이야.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할 수밖에 없게 되네.”

“……….”

“그동안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웠다. 진심으로.”

정확히 뭐가 미안했고 뭐가 고마웠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마지막 인사를 하는 프레디를 조용히 바라보던 라이 경은 작은 목소리로 나지막하게 대답했다.

“어디로 떠날 생각이지? 가선 뭘 할 거고.”

“하비투스랑 같이 떠날 생각이야. 어디로 떠나서 어떻게 살지는 말해줄 수 없어.”

“비상식적인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생각은 아니겠지.”

“설마 그럴 리가.”

이제부터는 평범하게 살면서 그 안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으면서 살 건데 비정상적인 일을 하면서 살 리가 없었다. 그럴 리가 없다는 프레디의 말에 라이 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잠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다 프레디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어디 가서 뭘 하든 아프지 말고 밥 잘 먹고.”

“그래.”

“이번에는 꼭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 네 친구로서 정말 진심으로.”

“…그래. 고맙다.”

라이 경의 입에서 먼저 친구라는 말이 나오자 프레디는 마지막 순간이 돼서야 화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어쩌면 하비투스가 말한 자신을 보고 싶어 하는 그 상대가 라이 경이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조금 들었다.

“너도 잘 지내. 이제 행복하기만 할 레아 황녀님 옆에서 아낌없이 사랑해드려. 망설이지 말고.”

“마지막이니까 너한테는 말해줘도 되겠지. 사실 난 이미….”

“알아. 레아 황녀님이랑 사귀고 있는 거. 황녀님 납치 사건이 있기 전부터 두 사람은 연인이었지?”

이미 레아 황녀님과 라이 경이 알콩달콩 사이좋게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프레디의 말에 라이 경은 좀 놀란 눈치였다. 그걸 어떻게 알았지? 라고 말하는듯한 표정에 프레디는 조금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다.

“아무리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 같아도 비밀 연애를 할 거면 정원에서 데이트하고 애정행각을 벌이는 건 그만두는 게 어때? 특히 아무리 밤이라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키스를….”

“……….”

“그럴 거면 그냥 공개 연애하는 걸 추천해. 너를 위해서도 레아 황녀님을 위해서도.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좋은 소문도 없어질지도 모르지.”

“안 좋은 소문?”

혹시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레아 황녀님께만은 숨기고 싶다는 그 헛소문을 말하는 건가. 요즘 레아 황녀님이 신경 쓰시는 그 소문을 말하는 것 같았다.

“표정을 보니 아직 그 소문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모양이네.”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넌 그 소문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양이군. 대체 무슨 소문이 돌고 있는 거지?”

“…미리 말하지만 아무런 일도 없었어. 그저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일 뿐이라고.”

“알고 있어. 레아 황녀님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다 들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건 내가 직접 확인했으니까.”

“그래. 그렇다면 이상한 생각 하지 말고 내 말 잘 들어.”

이미 황녀님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들었고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해도 레아 황녀님께서 프레디의 아이를 가졌다는 헛소문이 돌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라이 경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사실 따지고 보면 프레디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왠지 황녀님의 남자친구 앞에서 그 소문을 입에 담기가 좀 그랬다.

그래도 설마 방금 화해한 친구를 죽이기야 하겠냐 해서 이상한 생각 하지 말라고는 했지만…. 프레디는 그 말이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게 아무리 헛소문이란 걸 알고 있어도…. 과연 난 두 발로 걸어서 이 방을 나갈 수 있을까.’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려고 해도 멀쩡하게 걸어서 이 방을 정상적으로 나가는 건 무리일 것 같았다. 그렇다고 말을 안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라 프레디는 제발 시끄러워지지만 않길 바랄 뿐이었다.

“이번 납치 사건 때 내 아버지 그러니까 하이모어 대공이 레아 황녀님께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는 너도 잘 알고 있을 거야. 황실에서는 그 얘기를 철저하게 숨기려고 했던 거 같긴 한데 오히려 숨기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자극적인 소문을 내고 다니고 있는 거 같아. 물론 이건 내 추측이지만.”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자극적인 소문이란 게 뭐지?”

“……….”

제발 목숨만은 건져서 이 방을 나갈 수 있길. 프레디는 다시 한번 꼭 그럴 수 있길 바라며 입을 천천히 열었다.

“아이.”

“뭐?”

“아이를 가지신 게 아니냐는 소문이 돌고 있어.”

“그게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레아 황녀님께서 납치당하셨을 때 그렇고 그런 일이 있어서 혹시 내 아이를 가지신 게 아니냐는 소문이….”

최대한 조심스럽게 찔끔찔끔 말하면서 프레디는 라이 경의 눈치를 살폈다. 그런데 당연히 얼굴을 찌푸리고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일 줄 알았던 라이 경은 의외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런 소문이 돌고 있었군. 폐하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레아 황녀님께선 소문에 대해 몰랐으면 좋겠다고 하실 만해.”

“생각보다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네. 당연히 기분 나빠하고 화낼 줄 알았는데. 죽여버리겠다고 안 달려들어서 다행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당연히 기분은 더럽지만,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란 걸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소문도 네가 내고 다닌 것도 아닌데 죽일 필요까진 없지.”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관련된 일이라 다를 줄 알았는데 프레디는 역시 냉정하게 생각할 줄 아는 녀석이라 다행이라고 안도했다. 하지만 라이 경은 조용히 차고 있던 검을 뽑아 들며 말했다.

“죽일 필요까지는 없고 팔 하나 정도만 자르면 되겠지.”

“뭐, 뭐?”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곳도 잘라버렸겠지만 너니까 특별히 그건 참기로 하지.”

“잠깐, 잠깐만!”

“서로 힘 빼지 말고 빨리 끝내자고. 도망치거나 피할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너 같으면 팔을 잘라버리겠다는데 그냥 가만히 있겠냐!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바로 달려드는 라이 경 때문에 프레디는 그럴 수 없었다.

‘그렇게 냉정하고 감정도 느린 녀석을 이렇게 만들다니. 이건 사랑이란 게 대단한 건지 레아 황녀님이 대단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러다가 나 진짜 죽겠는데…!’

분명 죽이진 않고 팔만 자르겠다고 했으면서 지금 라이 경의 살기로는 프레디를 죽이고도 남을 거 같았다. 결국, 두 사람은 화해한 지 30분도 안 돼서 팔을 자르느니 마느니 하면서 쫓고 쫓기는 중이었다.

\*\*\*

하비투스와 나름대로 훈훈한 마지막 인사를 마친 후 라이 경은 먼저 방에 가 있을 거란 말에 레아는 혼자서 방으로 향하는 중이었다. 라이 경은 프레디 소공자랑 인사는 잘했을까 생각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그 소문에 대한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어떻게 해야 후폭풍도 없이 깔끔하고 현명하게 잘 대처하는 걸까. 정말 공개연애가 제일 좋은 방법인 걸까.’

원래 소문은 소문으로 덮기가 제일 좋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특히 라이 경과 레아가 사귀는 중이란 게 소문이 난다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문은 쏙 들어갈 것이었다. 하지만 레아가 이렇게나 공개연애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레아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후폭풍이 두려운 일이기도 했다.

솔직히 아빠나 다른 사람들은 레아가 어떻게든 막아줄 수 있다고 해도 제국의 하나뿐인 황녀님의 남자친구라는 타이틀이 라이 경에겐 보통 부담스러운 게 아닐 것이었다. 거기다 다닐로만 제국은 황족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제국이었고 두 사람의 나이도 있으니 잘못했다간 빼도 박도 못 하고 공개와 동시에 약혼하게 되고 레아가 20살이 되자마자 꼼짝없이 결혼하게 될지도 몰랐다.

물론 딸바보를 넘어 딸등신이 된 아빠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상황은 많이 변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게 제일 가능성이 큰 미래가 아닐까 싶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진짜로 멀쩡한 남의 집 아들 발목 잡는 꼴이 돼버리는 거잖아. 사실 라이 경이라면 난 그것도 상관없지만…라이 경은 어떻게 생각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

라이 경이 레아를 많이 사랑해주고 예뻐해 주고 귀여워해 주는 건 사실이었지만 그건 지금처럼 연애할 때의 이야기였지 지금보다 더 깊고 진지한 관계가 되자고 하면 부담스러워할지도 몰랐다.

‘연애라는 것도 참 쉬운 게 아니구나. 무슨 인생이 이렇게 쉬운 게 하나도 없어?’

나만 이런 인생을 사는 건지 아니면 원래 다들 인생이란 게 어려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참 깜깜하고 답답하다고 생각하며 레아는 방에 도착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하비투스가 말했던 대로 라이 경은 먼저 와 있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르게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숨도 차 보이는 게 땀도 조금 나는 거 같았다.

“라이 경. 무슨 일 있었어요? 프레디 소공자랑 마지막 인사하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정말?”

“…네.”

라이 경은 정말 아무런 일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을 하는 게 누가 봐도 거짓말을 하는 중이었다. 레아도 그걸 당연히 눈치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라이 경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긴다는 건 그게 굳이 알 필요가 없는 일이거나 모르는 게 나은 일이라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레아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고 조용히 활짝 열려있던 창문을 닫았다.

‘납치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는 웬만하면 잘 열어두지 않는데 창문이 활짝 열려있다는 건 누군가 여기로 도망을 갔다는 거겠지. 두 사람 싸우기라도 한 걸까?’

하지만 그랬던 것 치고는 라이 경은 별로 화가 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레아가 보기에는 조금 후련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 같기도 해서 아마 프레디 소공자와 마지막 인사는 잘 끝낸 모양이었다. 레아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습관적으로 라이 경의 품에 안겼다.

“저 지금 땀 냄새 날텐데.”

“냄새 같은 거 하나도 안 나니까 걱정 마요. 그리고 땀 냄새 좀 나면 어때요. 우리 사이에.”

“우리 사이….”

우리 사이라는 말이 조금은 부끄럽기도 하면서 듣기 좋아서 라이 경은 작은 목소리로 그 말을 중얼거렸다. 레아는 그런 라이 경의 품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껴안고 있기만 해도 너무 좋은데 더 깊고 진지한 사이가 되고 싶다는 말로 지금의 이 관계를 깨고 싶지는 않아. 공개연애는…나중으로 미루는 게 좋겠다.’

아직 공개연애 말고 안 좋은 소문을 반박할만한 다른 좋은 방법을 찾지는 못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 그런데 라이 경은 갑자기 뜬금없이 레아의 귓가에 속삭이며 말했다.

“레아 황녀님. 드리고 싶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라이 경이 부탁이요?”

“들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면 다 해주고 싶어요. 부탁하고 싶은 게 뭐예요?”

“……….”

레아가 가장 힘들고 아플 때 묵묵히 옆을 지켜주고 도움을 줬던 라이 경인데 마음 같아서는 무슨 부탁이든 들어주고 싶었고 해줄 수만 있다면 밤하늘에 별도 가장 반짝이는 예쁜 별로 따다 주고 싶었다.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다는 레아의 말에 라이 경은 잠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다 레아의 어깨를 붙잡고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전 앞으로도 쭉 레아 황녀님의 옆에서 황녀님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황녀님 역시 다른 사람이 아닌 저를 바라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쭉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만을 바라보며 불안해할 일도 없도록.”

“………?”

“그리고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누구보다 레아 황녀님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황녀님만을 사랑할 것을. 이 제국을 넘어 모두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이 경. 지금 그 말은….”

라이 경이 해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 너무나도 달콤하게 쏟아져 내려서 레아는 머리가 어지러워졌다. 지금 이게 환청이 아니라면 좋은 꿈을 꾸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라이 경은 이게 지금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라도 하듯 레아의 어깨를 꽉 붙잡으며 말했다.

“제 부탁을…들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115.일단 지르자.docx

라이 경이 부탁이 있다고 해서 무슨 부탁일까 했는데 저런 달콤한 말을 쏟아낼 줄이야. 상상도 못 했던 말들이 갑자기 와르르 쏟아지자 놀라기도 하고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해서 레아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다.

‘왜 갑자기 저런 말을 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라이 경이 나한테 부탁하고 싶다는 게 설마….’

아니다. 그건 아닐 것이었다. 레아가 라이 경 성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런 섣부른 부탁할 사람이 아니란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방금 했던 그 달콤한 말들은 무엇을 부탁한다는 건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었고 레아의 머릿속은 이미 그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래서 레아는 조금 얼떨떨한 목소리로 라이 경에게 물었다.

“라이 경. 방금 한 그 말…프러포즈는 아니겠죠…?”

“네?”

“아니…평생 옆에서 사랑하고 싶다고 하고 내가 평생 라이 경만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평생 이렇게 연애만 하자는 것도 아닐 거고….”

“아.”

“보통 평생을 함께하고 싶으면 사람들은 결혼하니까…그게 그러니까 지금 라이 경이 나한테….”

결혼하자고 말하는 건가. 하지만 레아는 아직 17살이었고 성인이 되려면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을뿐더러 아직 라이 경과는 사귄 지 1년도 안 된 사이였다. 전조도 없이 갑자기 이런 말을 들으니 레아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래서 싫다는 건 아니었지만…. 당장 아빠한테는 뭐라고 해야 할지부터 고민이었다.

그런데 당황해서 어버버 말하는 레아를 보며 라이 경은 프러포즈란 말에 잠깐 놀란 듯하다 곧 자신이 오해를 부를만한 말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제 부탁은 지금 당장 결혼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아, 공개연애하자는 말이었구나.”

“……네.”

“하하하….”

공개연애하자는 말을 결혼하자는 프러포즈로 착각을 하다니. 너무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한 거 같아 레아는 괜히 부끄럽고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거렸다. 라이 경은 그런 레아에게 진중한 목소리로 말해주었다.

“프러포즈는 레아 황녀님이 원하실 때. 그리고 제가 준비되었을 때 정말 멋지게 해드리겠습니다.”

“…응. 나 혼자 이상한 착각을 해버려서 미안해요.”

“아닙니다. 그리고 어차피 언젠가는….”

“……….”

라이 경은 말을 끝까지 하진 않았지만, 레아는 듣지 않아도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가 있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라이 경의 마음에 레아는 마음이 따듯해지는 걸 느끼며 보일 듯 말 듯 아주 작게 미소를 지었다.

‘방금까지만 해도 엄청 민망해했으면서 라이 경의 한마디에 기뻐하다니. 이래도 되는 건가.’

하지만 라이 경이 언젠가 때가 되면 결혼하자는 프러포즈를 멋지게 하겠다고 하는데 기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잠시 잊고 있었는데 라이 경은 지금 레아에게 비밀 연애를 공개연애로 돌리자는 말을 하는 것이었다. 결혼하자는 말은 아니었지만, 지금으로선 레아에게 공개연애는 자연스럽게 약혼과 결혼으로 가는 코스 같은 것이었다.

그러니 사실 공개연애하자는 말은 진지하게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말과 마찬가지였다. 뒤늦게 그 사실을 깨달은 레아는 깜짝 놀란 얼굴로 라이 경을 바라보았다.

“근데 공개연애하자고요? 나랑?”

“제가 레아 황녀님 말고 다른 사람과 공개연애하는 건 좀 많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그야 그렇긴 하죠. 근데 진짜 공개연애하자는 말이에요?”

“네. 부담스러운 부탁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딱히 내가 부담스러울 건 없는데….”

오히려 레아는 자신이 발목을 잡는 게 아닐까 해서 라이 경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아직은 공개연애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라이 경이 먼저 공개연애를 하고 싶다는 말을 이렇게 진지하게 하니 레아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다.

“그런데 괜찮겠어요? 라이 경도 알겠지만 난 이 제국에 하나뿐인 황녀고 지금 다닐로만 제국은 황족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요. 우리 사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알리면 진짜 빼도 박도 못하고 나한테 발목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이건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재고 따지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네?”

엄청 중요한 문제라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정말 신중하게 재고 따지고 할 문제인 거 같은데. 이게 그럴 문제가 아니면 대체 뭐가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재고 따져야 할 문제라는 건지 레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눈으로 라이 경을 바라보았다.

“물론 매우 큰 파문과 변화를 불러올 일이란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레아 황녀님께서 망설이시는 이유도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거예요? 갑자기 공개연애를 하고 싶어진 이유가.”

“그건…….”

“혹시 불안해서 그런 거라면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 알잖아요. 내가 앞으로 사랑하고 옆에 두고 싶은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한 사람뿐이에요.”

그리고 불안해한다면 라이 경보단 레아가 더 불안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다. 물론 라이 경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알고 있고 또 믿으니까 불안할 일은 없긴 했지만 말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녀님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서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갑자기 공개연애하자는 말을 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데 그때 레아는 문득 아까 하비투스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설마 그거 때문에 라이 경이 이러는 건가 싶었다.

“라이 경. 혹시 프레디 소공자한테 요즘 나에 대해서 돌고 있다는 그 안 좋은 소문이 뭔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

“들었구나. 그래서 공개연애하자고 하는 거구나.”

하비투스도 레아와 라이 경이 공개연애를 시작하는 게 그 소문이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란 걸 밝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라고 했었다. 프레디 소공자도 라이 경에게 그 비슷한 말을 했는진 잘 모르겠지만 지금 라이 경은 레아를 위해 공개연애를 하자고 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날 위해서 힘든 결정해준 것까진 고맙지만…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거 같아.’

그동안은 도움만 받는 게 미안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라이 경에게 기댔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거 같았다. 정말로 레아가 라이 경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어쩌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지도 몰랐다. 조금은 냉정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재고 따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다.

“라이 경. 나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번 소문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볼게요.”

“레아 황녀님….”

“그래도 날 위해 그런 힘든 결정 내려줘서 고마워요. 그 마음만은 정말 감동이에요.”

이미 라이 경은 레아를 도와주기 위해 많은 것을 해주었다. 하지만 아무리 남이 아닌 남자친구라고 해도 계속 도움만 받고 기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라이 경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해결해보려 하는 건데 라이 경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레아 황녀님을 위해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황녀님을 위해서가 아닌 절 위해서 공개연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이 경을 위해서요?”

“네. 공개연애가 레아 황녀님께 얼마나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운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 위해서 한 번만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개연애가 라이 경을 위한 거라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레아는 공개연애가 라이 경의 발목을 붙잡는 섣부른 결정이라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레아의 생각과는 반대로 라이 경은 공개연애는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었고 레아는 그게 이해가 가지 않았다.

“프레디에게 그 소문에 대해 듣고 처음에는 프레디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 녀석의 잘못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너무나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그 녀석의 팔을 잘라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문으로 도망을 가버려서 결국 실패했지만….”

그래서 아까 창문이 열려있었고 라이 경은 땀을 흘리고 있었던 건가. 두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은 했지만 설마 라이 경이 프레디 소공자의 팔을 잘라버리려고 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었다.

“그렇게 프레디를 놓치고 나서 방에서 혼자 레아 황녀님을 기다리면서 생각했습니다. 황녀님만 옆에 있어 주신다면 다른 건 아무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으로 화가 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레아 황녀님께서 내가 아닌 다른 남자와 이런 불미스러운 소문에 휩싸이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고 먼 훗날 레아 황녀님께서 정말 아이를 가지시고 엄마가 되신다면 그 아이의 아빠는 당연히….”

끝까지 말하진 않았지만, 레아는 이번에도 라이 경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얘기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생각도 못 했던 라이 경의 마음을 뒤늦게 알 수 있었다.

‘당연히 싫겠지. 자기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데 기분 안 나쁘고 화가 안 날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

아무리 라이 경이라고 해도 생각해보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 당연했다. 라이 경을 위해 공개연애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레아도 그런 이유로 라이 경이 공개연애를 원한다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정말 괜찮겠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공개연애는 평생 나한테 발목 잡히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해봤자 돌이킬 수도 없고 난 절대로 라이 경을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정말 괜찮겠어요?”

“후회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설령 레아 황녀님께서 떠나라고 하셔도 제가 황녀님의 발목을 잡아서라도 옆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은 신중하게 고민해보고 하라니까요.”

라이 경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더 말릴 수가 없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평생 발목 잡혀도 상관없다는 라이 경의 말에 레아는 솔직히 조금 기쁜 마음이 들었다. 이젠 자신도 모르겠다고 말하면서도 끝까지 미안하다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레아를 보며 라이 경은 조용히 웃으며 살며시 입을 맞추었다.

자신이 원하던 일이었고 레아의 걱정과 달리 모든 게 잘 끝날 것이니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다. 언제나 다정한 라이 경을 어쩌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레아는 다시 라이 경의 품에 안겼다. 마음 같아서는 계속 이렇게 꼭 끌어안고 싶었지만, 공개연애를 하기로 했으니 두 사람은 이제부터 결정해야 할 것들과 해야 할 것들이 많았다.

“역시 제일 처음 결정해야 할 건 어떻게 발표를 할 건지겠죠. 지인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퍼트릴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발표할지.”

“그 부분은 저희 둘이서 결정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빠한테 꼭 먼저 말해야 해요? 일단 지르고 뒷수습하는 게 낫지 먼저 말하면 라이 경 괜찮겠어요?”

“당장은 지르고 보는 게 나을 거 같아도 미래를 생각하면 목숨이 위험하더라도 먼저 허락을 받고 공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으음. 그야 그렇긴 하지만….”

사실 라이 경이랑 사귀고 있다고 말했을 때 아빠가 라이 경한테 어떻게 할까 봐 걱정되는 것도 있었지만 정말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레아는 예상이 가지 않아서 더 말하기가 망설여지는 것도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아빠라면 분명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안 돼! 라고 외칠 거라고 예상하는 것 같았지만 왠지 레아는 꼭 그럴 것 같지만은 않았다.

‘그때 하이모어 대공의 별장에서 황궁으로 돌아올 때도 라이 경이랑 같이 마차 타라고 하신 것도 아직 좀 신경 쓰이고 요즘 라이 경 얘기만 나오면 자꾸 얼버무리시고. 그러니 내가 더 신경 쓰일 수밖에 없지.“

절대 반하면 안 된다거나 연애 같은 거 허락할 마음 없다고 레아에게 남자친구를 만나지 말라는 말을 안 하신 지도 좀 됐고 요즘은 레아와 좀 가까워 보인다고 라이 경을 따로 불러 족치시지도 않는다고 들어서 아빠가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는 정말 예상이 가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목덜미 잡고 쓰러지실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구나! 잘됐네! 라고 말해주실 것 같지도 않은 애매한 느낌이랄까. 어쩐지 첫 번째 문턱부터 막막하기만 한 거 같아 레아는 한숨을 푹 쉬었다.

“그럼 일단 아빠한테 우리 사귀고 있고 공개연애하고 싶다는 말은 내가 할게요. 라이 경은 시종장님께 말씀드리고.”

“그래도 황제 폐하께 저도 같이 말씀드리는 게….”

“아직 결혼 허락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정도는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아빠가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모르는데 라이 경이 같이 얘기 드리는 것보단 레아 혼자 말씀드리는 게 나을 거 같았다. 그런데 라이 경에게는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 레아도 아빠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이었다. 그래서 잠시 생각을 해보았지만 역시 답은 하나인 거 같았다.

‘어차피 머리를 굴려도 이거다! 하는 기발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냥 단순하게 가는 게 정답이겠지. 그게 가장 나다운 방법이기도 하고.’

라이 경을 걱정하고 배려한다고 잠시 머뭇거리고 망설이기는 했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레아는 이번 일도 가장 레아다운 방법을 쓰기로 했다.

\*\*\*

“아빠. 저 연애해요. 남자친구 생겼어요.”

“풉…!”

“라이 경이랑 만나고 있어요. 하이모어 대공한테 납치당하기 전부터 사귀고 있었어요.”

“……….”

“곧 황실에서 열릴 파티에서 공개할 생각이에요. 공개하기 전에 라이 경이 아빠한테는 말씀드리는 게 좋을 거 같다고 해서요.”

언제나처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폭탄 발언을 하는 레아 때문에 당황한 레그마인 황제는 크게 기침을 했다. 언젠가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했었지만 설마 이렇게 예고도 없이 말을 할 줄은 몰랐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아빠를 보며 레아는 속으로 생각했다.

‘역시 답이 없을 땐 지르고 보는 게 답이지.’

116.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docx

레아가 펑펑 울고 라이 경이 그런 레아를 달래주는 모습을 보았던 그때부터 레그마인 황제는 조금씩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레아가 본인 입으로 직접 라이 경과 사귀는 사이가 되었다고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걸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툭 던지듯 말할 줄이야. 그것도 이렇게 빨리 공개연애 하겠다는 말까지 할 줄은 몰랐어. 역시 우리 레아는…날 닮았어. 대단해.’

그래도 설마 이 정도였을 줄은 몰랐다. 아무리 조금씩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해도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갑자기 공개연애까지 할 생각이라고 하니 레그마인 황제는 순간 할 말을 잃었으면서도 역시 우리 딸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아빠의 생각과 달리 레아는 지금 엄청나게 아빠 눈치를 살피는 중이었다. 할 수 있는 게 직진밖에 없어 일단 가지고 있는 폭탄을 다 터트리긴 했지만 그래도 긴장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사귄 기간에 비해 너무 섣부른 생각이란 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파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제가 하이모어 가문의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이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지금 돌고 있는 소문을 부정하고 앞으로 생길 수도 있는 안 좋은 소문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공개연애라는 건 아빠도 아시잖아요.”

혹시라도 아빠가 안 된다고 반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빠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의견을 무시하고 레아 마음대로 공개연애를 해버릴 수는 없었다. 그래서 레아는 조금 초조한 마음으로 아빠가 무슨 말이라도 해주시길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잠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곧 여전히 복잡해 보이는 얼굴을 하고는 천천히 말씀하셨다.

“네가 누구와 연애하든 그건 내가 참견하지 않을게. 하지만 공개연애를 하려는 이유가 이번 소문 때문이라면 그건 허락해줄 수 없어.”

레아와 라이 경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공개연애를 하자는 말을 하기까지가 그리 쉬웠을 리가 없었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아빠는 그리 간단하게 알겠다고 허락해줄 수가 없었다.

“아빠로서 딸한테 이런 말 하고 싶지는 않지만…넌 이 제국의 황녀야. 공개연애를 한다면 이번 소문이야 자연스럽게 사라지겠지만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번 일은 아빠한테 맡기고 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척 가만히 있어 줘. 한 번 더 부탁할게.”

레아가 소문이 정확하게 어떤 소문인지 알지 못했을 때 했었던 부탁과 비슷한 부탁이었다. 그때도 이번만큼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가만히 있어 달라고 아빠는 부탁했었지만, 레아는 그러지 못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레아는 아빠의 부탁을 들어드리지 못할 것 같았다.

“죄송해요. 아빠.”

“레아. 어째서 모든 일을 직접 해결하려 하는 거야? 너도 이런 상황이 지치고 힘들 건데 아빠한테 맡겨줄 수는 없는 거야?”

“만약 지금 돌고 있는 소문이 다른 내용의 소문이었다면 저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레아도 황녀로 살면서 사람들이 자기들 입맛대로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건 지긋지긋해진 지 오래였다. 하지만 성격상 그 소문들을 모른 척할 수가 없었고 그 소문의 내용을 알고 나니 도저히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물론 아빠가 무엇을 걱정하고 왜 반대를 하시는 건진 이해할 수 있었다. 레아도 라이 경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공개연애는 아니라고 생각했었으니까.

‘하지만 내가 했던 걱정은 라이 경이 나중에 후회할까 봐 걱정했던 거였고 지금 아빠는 내 걱정을 하시는 거겠지. 어쩌면 좀 서운해하시는 걸지도 모르겠다.’

솔직히 말이 공개연애지 나중에 레아가 결혼할 남자를 약혼하기 전에 공개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거기다 레아가 평범한 황녀였다면 모를까 아직 아빠 딸로 지낸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바로 남자친구를 소개하고 어쩌면 지금 결혼 허락까지 받는 것이니 아빠라면 서운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몰랐다.

하지만 레아가 일찍 결혼한다고 해서 아빠의 곁을 떠나는 건 아니었다. 현재로선 황제의 유일한 핏줄인 황녀는 결혼하더라도 남편이 데릴사위가 되어야만 했다.

‘거기다 꼭 그게 아니더라도 난 앞으로도 계속 아빠를 떠나지 않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레아가 황궁에 오고 나서 겨우 외톨이에서 벗어난 아빠를 다시 외롭게 만들 수는 없었다. 레아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안정적인 가정에는 꼭 아빠가 있어야만 했다.

“아빠. 저는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더는 위태롭고 불안하지 않은 그런 행복한 가정을.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제게 라이 경이 필요해요.”

“레아….”

“이런 말 하면 좀 우습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발목 잡고 싶어요. 이기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서로 도망갈 수 없게끔.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

이제 레아가 할 수 있는 말은 다 한 것 같았다. 최대한 진심을 전하려고 노력했는데 과연 아빠가 뭐라고 하실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레아는 대답을 기다렸다. 그런데 잠시 생각에 잠긴듯해 보였던 아빠는 공개를 허락한다거나 반대한다는 말이 아닌 다른 말을 했다.

“처음에는 날 닮았다고 생각했고 갈수록 아리샤를 닮은 모습을 보여서 역시 우리 딸이라고 생각했는데 방금 그 말을 들으니까 조금 후회가 되네.”

“네?”

“왜 나는 네 나이에 이런 용기를 내지 못했던 걸까. 그때 너처럼 나도 용기를 냈다면 아리샤도 그렇게 떠나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

아빠는 16살 때 엄마를 처음 만나서 17살 때 연애를 시작했고 18살 때 지독하게 사랑했지만, 엄마를 떠나보내야만 했다. 그런 아빠와 똑같이 16살 때 라이 경을 처음 만난 레아는 17살에 연애를 시작했고 라이 경을 잃고 싶지 않아서 그의 발목을 붙잡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혹시나 어쩌면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해봤어도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는데. 그런데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레아를 보고 있으니 레그마인 황제는 자연스럽게 그때 그 시절이 떠올랐다. 그리고 왜 나는 그때 레아처럼 하지 못했을까 하고 후회가 되기도 했다.

‘그래도 다행이네. 우리 딸은 바보 같은 엄마 아빠와는 다르게 똑똑하게 자신의 행복을 붙잡을 줄 아는 아이라서.’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귀엽고 똑똑한데 착하기까지 한 하나뿐인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딸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상대가 누구든 그냥 싫고 질투가 날 줄 알았는데 어쩐지 지금 레그마인 황제는 기분 좋게 웃을 수 있었다.

‘아마 행복해지고 싶다는 레아의 마음 때문이겠지.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그 녀석은 꽤 괜찮은 녀석이니까.’

분명 레아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라이 경이라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레아. 소중한 내 딸.”

“네. 아빠.”

“난 우리 딸이 후회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 아빠와는 달리 넌 네 사랑을 꽉 붙잡길 바라.”

“그 말은….”

“절대 도망가지 못하도록 공표해버려. 그 남자가 네 사랑이라고. 그 사랑이 절대 너를 두고 떠나버리지 못하도록.”

“아빠…!”

처음에는 후회가 된다고 말씀하셔서 쉽게 허락받기는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아빠의 입에서 허락하는 말이 떨어지자 레아는 심장이 쿵쿵 뛰는 것만 같았다. 그 기분 좋은 느낌에 레아는 기뻐서 활짝 웃었고 행복해하는 딸을 보며 아빠는 웃음이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던데 그 말이 정답이었네. 저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어떻게 반대할 수가 있겠냐고.’

아무리 황제여도 결국은 딸을 사랑하는 아빠라는 건 다른 평범한 아빠들과 다르지 않았다. 레아가 이렇게나 좋아하고 기뻐하니 그럼 된 거로 생각하며 레그마인 황제는 웃을 수 있었다.

‘그런데 헛소문으로 소란스러운 와중에 그 소문의 주인공인 황녀가 직접 남자친구를 공개하겠다니. 이번 파티는 아수라장이 될 게 뻔하겠군. 뭐, 원래 레아가 참석하는 파티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기는 했지만.’

과연 이번 파티는 얼마나 난리가 나고 소란스러워져서 아수라장이 될까. 어쩐지 조금 기대된다고 생각하며 레그마인 황제는 피식 웃었다.

\*\*\*

아빠에게 허락을 받고 그다음 날 레아는 바로 황궁으로 다리아 영애를 불렀다. 파티 때 난리가 날 게 뻔하니 제일 친한 친구에게는 그럴 일이 있을 거니 너무 놀라진 말라고 미리 말해주기 위해서였다.

“그럼 이제 황제 폐하께서 허락해주신 건가요?”

“네. 생각보다 빨리 허락해주셔서 사실 전 아직 조금 얼떨떨해요.”

“황제 폐하께서는 황녀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시니까요. 아마 라이 경과 함께라면 레아 황녀님은 행복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으시니, 허락해주신 거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아는 아빠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처음에는 생각보다 빨리 허락해주셔서 좀 놀라긴 했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레아를 끔찍하게 아끼고 예뻐해 주는 아빠다운 선택이었다. 다리아 영애는 그런 레아가 부러운 듯 바라보며 말했다.

“하이모어 대공도 사라졌고 사랑하는 사람과도 이제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되셨네요. 레아 황녀님에게는 이제 행복할 일만 가득할 거예요.”

“그건 모르는 일이죠. 언제나 시련은 갑자기 찾아오는 법이잖아요.”

“하지만 전 황녀님이 부러운걸요. 이제 아무런 걱정이나 고민 없이 라이 경을 사랑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요. 이제는 싫다고 해도 절대 안 놔줄 거예요. 도망이라도 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어떻게든 잡아 올 거고요.”

“글쎄요. 라이 경은 황녀님이 도망가라고 해도 절대 안 가실 거 같은데요? 계속 옆에서 레아 황녀님만 바라보실 거 같아요.”

그리고 레아 황녀님 역시 영원히 라이 경만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그렇게 평생 같이 있을 것 같았다. 행복한 앞날만이 있을 거 같은 두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다리아 영애는 작게 웃었고 그러다 문득 이런 말을 했다.

“원래 황궁 기사님들은 다 그런 면이 있는 걸까요? 한 여자만 바라보고 막 일편단심 해바라기 같은….”

“어머. 다리아 영애. 혹시 지금 푸엘라 경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푸엘라 경이 다리아 영애를 좋아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푸엘라 경이 라이 경과 친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왠지 좀 창피하네요. 부끄럽기도 하고.”

확실히 하비투스가 무슨 짓을 했는진 몰라도 제대로 하긴 했는지 푸엘라 경 얘기에 다리아 영애는 살짝 얼굴을 붉혔다. 그 모습을 보며 레아는 다리아 영애도 푸엘라 경에게 어느 정도는 마음이 있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다.

‘하비투스는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잘될 가능성이 거의 없던 두 사람이 이런 분홍분홍한 분위기를 풍기게 된 걸까. 으음. 이거 잘된 거겠지?’

라이 경이 푸엘라 경은 착하고 착해서 바보처럼 착하기만 한 사람이라고 했으니 적어도 다리아 영애에게 또 상처를 주진 않을 것이었다. 지금 다리아 영애에게 필요한 남자는 그 누구보다 착한 남자란 걸 알기에 레아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두 사람이 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리아 영애는 뭔가 좀 애매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근데 다리아 영애. 무슨 고민 있어요?”

“네?”

“표정이 그래 보여서요.”

“음. 네. 사실은 고민 중이에요.”

무슨 고민 있냐는 레아의 질문에 다리아 영애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곧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사실 레아 황녀님께서 하비투스 님께 가신 다음 저도 제가 받은 편지를 확인해봤거든요. 제 편지에는 커다란 나무 밑에 누군가 꽃 한 송이를 들고 있는 그림이랑 거기에 가면 누군가 절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적혀있어서 커다란 나무 쪽으로 가봤는데….”

“푸엘라 경이 꽃을 들고 다리아 영애를 기다리고 있던가요?”

“네. 망고 튤립을 들고 있으셨어요. 그리고 망고 튤립을 저한테 주시면서 많이 좋아하고 있다고 고백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하비투스가 열어준 길은 푸엘라 경이 고백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인 듯했다. 푸엘라 경은 하비투스가 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고백을 했고 그 고백에 다리아 영애는 고민 중인 거 같았다.

“그런데 제가 아직 그 고백에 대해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도 알 수 없어서 고민이에요.”

“다리아 영애는 그 고백을 받아줄 생각인가요? 아니면 거절할 생각인가요?”

“사실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제 마음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때로는 자기 마음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법이니까요.”

레아의 눈에는 이미 다리아 영애도 푸엘라 경에게 호감이 있는 거 같아 보이는데 다리아 영애는 아직 그 감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하비투스가 푸엘라 경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레아도 다리아 영애에게 살짝 길을 열어주는 게 좋을 거 같았다.

‘물론 난 길을 열어줄 뿐이고 그다음은 다리아 영애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만 말이야.’

그래도 다리아 영애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레아가 조금만 길을 열어주면 그다음은 알아서 잘할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며 레아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다리아 영애. 나 부탁이 있는데 하나만 들어줄래요?”

“저한테 부탁이요?”

“네. 곧 황궁에서 열리는 파티에서 꼭 다리아 영애가 해줬으면 하는 일이 있거든요.”

“아, 뭐든 말씀만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다리아 영애.”

곧 황궁에서 열릴 파티라고 하니 다리아 영애는 당연히 레아 황녀님과 라이 경이 공개연애를 발표하는 일 관련으로 도와달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중인 레아는 아무것도 모르는 다리아 영애를 보며 씩 웃었다.

‘이거 아주 재밌는 파티가 되겠는걸. 여러 가지 의미로 무척이나 재밌겠어.’

이렇게 기대가 되고 어서 열리길 기다려지는 파티는 황녀가 되고 나서 처음이었다. 레아는 빨리 파티가 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천사처럼 방긋 웃었다.

117.아빠의 소원은.docx

드디어 황궁에서 파티가 열리는 날. 레아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다리아 영애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이제 슬슬 올 때가 된 거 같은데. 언제 오려나.’

늦거나 오지 않으면 오늘 레아가 세운 계획들에 차질이 생겨서 조금 곤란했다. 일부러 시녀들도 다 나가 있으라고 했는데 와야 할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도 다리아 영애가 오지 않자 레아는 걱정이 되어 시계를 한 번 더 확인했다. 그렇게 다리아 영애는 언제 올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딱 5분 후 누군가 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네. 들어오세요.”

굳이 누군지 묻지 않아도 올 사람은 다리아 영애밖에 없으니 레아는 바로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역시나 문을 두드린 사람은 레아의 예상대로 다리아 영애였고 영애는 레아가 골라준 남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시간 딱 맞춰서 왔네요. 혹시 늦거나 안 올까 봐 걱정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레아 황녀님께서 기다리고 있으신데 안 올 리가 없잖아요. 원래 좀 더 일찍 오려고 했는데 아침부터 부모님과 살짝 다투는 바람에….”

“혹시 또 정략결혼 얘기를 꺼내신 건가요?”

“네. 그렇게 정략결혼이 하기 싫으면 차라리 많이 늦긴 했어도 수녀가 되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신을 믿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하하….”

신을 믿지도 않는 딸에게 수녀라니. 그래도 앨버트 후작은 분명 다리아 영애를 후계자로 점찍어뒀었는데 설마 진심은 아니셨을 거라고 레아는 생각했다.

“오늘이 지나고 나면 그 이유로 다리아 영애가 스트레스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건 모르는 거죠. 난 그저 길을 좀 열어줄 뿐이고 선택은 다리아 영애가 스스로….”

“네?”

“아뇨. 아무것도 아니에요.”

혼자 작게 중얼거려서 다리아 영애는 듣지 못했지만, 레아는 일이 어떻게 되든 그 누구도 후회나 미련이 남지 않는 결과가 나오길 바랐다.

“다리아 영애. 그때도 얘기했었지만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파티 전에 와달라고 한 거고요.”

“네. 뭐든 말씀만 하세요!”

과연 레아 황녀님께서는 어떻게 라이 경과 연애 중이란 사실을 공개하실까. 무엇을 부탁하실지 알게 되면 조금은 감이 오지 않을까 하고 다리아 영애는 약간의 기대와 설레는 마음으로 레아 황녀님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런데 레아 황녀님은 빙그레 웃음을 지으시더니 다리아 영애에게 뜬금없이 꽃 한 송이를 건네주었다.

‘왜 갑자기 나한테 꽃을 주시는 거지? 이번 파티에서 아예 약혼까지 하실 생각이신 건가?’

보통 약혼을 발표할 때는 한 사람의 제일 친한 친구가 꽃을 전해주고 꽃을 받은 사람은 그 꽃을 자신의 약혼자에게 건네며 저와 약혼해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상대는 기꺼이 그러겠다고 대답하며 그 꽃을 받는 이벤트가 있었다. 그래서 다리아 영애는 레아 황녀님께서 어차피 공개연애는 결혼을 암시하는 일이니 그냥 바로 약혼을 하시려는 건가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약혼 파티는 아무리 황족이라고 해도 가까운 사람들과 간소하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큰 파티에서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약혼식 때는 주로 붉은 장미 백 송이를 선물하는데 레아 황녀님이 주신 꽃은 망고 튤립 한 송이였다.

‘망고 튤립이라면…혹시 그런 뜻인 걸까.’

사실 망고 튤립 한 송이를 보자마자 다리아 영애는 부들부들 떨면서도 자신에게 꽃을 건네며 많이 좋아하고 있다고 고백하던 푸엘라 경이 떠올랐다. 레아 황녀님은 이미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고 푸엘라 경의 마음도 알고 있으시니 그럴 수도 있겠다고 다리아 영애는 생각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면 두 사람 다 지칠 거예요. 무슨 말이라도 좋으니까 이젠 대답을 해줘요. 그게 내 부탁이에요.”

“……….”

레아 황녀님은 다리아 영애가 누구에게 대답을 해줘야 할지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지금 다리아 영애가 대답해줘야 할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었다. 황녀님은 거절이라도 좋으니 이젠 대답해줘야 할 때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다리아 영애는 무슨 말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제가 그래도 되는 걸까요.”

“지금의 다리아 영애는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알고 있나 보네요.”

“사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푸엘라 경한테 고백을 받고 나서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었으면서….”

“다리아 영애.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두 번이나 상처를 받았으니 세 번째는 상처 대신 정말 순수하게 사랑받고 싶었던 다리아 영애는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신중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레아 황녀님의 말씀에 다리아 영애는 조금 놀란 듯했다.

“뭘 걱정하는진 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뭐, 막상 만나보니 다리아 영애가 푸엘라 경 너무 별로라고 뻥! 차버릴 수는 있겠지만요.”

“그,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그냥 단지…….”

“하하. 농담이에요. 물론 라이 경은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고 진지하게 얘기했지만요. 바보처럼 착하기만 한 사람이라 매력이 없다고.”

“바보처럼 착한 사람….”

같은 남자이자 푸엘라 경과 친한 라이 경이 바보 같을 정도로 착하기만 한 사람이라고 했다는 말에 다리아 영애의 마음은 움직인 듯했다. 레아는 그런 다리아 영애에게 작게 웃으며 말했다.

“붙잡고 싶으면 어서 붙잡으러 가요. 이렇게 망설이다가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말고.”

“네?”

“요즘 어떤 기사님이 자기 누나를 푸엘라 경한테 소개해주려고 열심히 설득 중이래요. 그러니까 진짜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말고 어서 붙잡으러 가요.”

“…네!”

사실 푸엘라 경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 소개해주려고 노력 중이라기보단 푸엘라 경한테 자기 누나가 차였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라고 라이 경은 말했지만, 그것까지 다리아 영애에게 말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았다. 어쨌든 그 말에 다리아 영애는 결심한 것 같으니 잘 됐다고 생각하며 레아는 잘 다녀오라고 손을 흔들어주었다.

“레아 황녀님. 감사해요. 오늘 황녀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전 아마 계속 망설이기만 했을 거예요.”

“어서 가보세요. 아마 지금쯤이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럴 때 보면 꼭 마법사 같으세요. 이미 제가 어떤 말을 할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다음에 넷이서 다 같이 밥이나 한번 먹어요. 차도 마시고.”

넷이 같이 만나면 재밌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하는 레아에게 다리아 영애는 빙그레 웃으며 꾸벅 인사를 한 후 방을 나갔다. 이제 다리아 영애는 푸엘라 경을 만나러 갈 것이니 파티에는 참석하지 못할 것이었다.

‘다리아 영애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이번 파티만큼은 영애가 빠져주는 편이 내가 마음이 편하니까 잘 돈 거겠지. 그리고 다리아 영애도 다음에 또 열릴 황궁 파티보다는 푸엘라 경을 붙잡는 일이 더 중요할 거니까 분명 이해해줄 거야.’

이제 정말 모든 게 준비가 끝난 상황이었다. 레아는 이제 폭탄을 터뜨리기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며 이번에는 시계를 보며 라이 경이 오기를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 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지 말하지 않아도 라이 경이란 걸 알기에 이번에도 레아는 바로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을 했다.

“생각보다 조금 늦었네요. 푸엘라 경한테 얘기 잘했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창피해서 어떻게 다리아 영애 얼굴을 보냐며 우는소리를 해대서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황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커다란 나무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으음. 막상 좋아한다는 고백을 하고 나니까 얼굴 보기가 부끄러운 걸까요?”

“그것보단 당연히 차일 거로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리아 영애가 도착하기 전에 도망이라도 가면 어떡해요?”

다리아 영애도 지금 용기 내서 자신의 마음을 전하러 가는 건데 푸엘라 경이 없으면 분명 거기서 혼자 한참을 기다릴 것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푸엘라 경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두 사람의 사이가 끝이 나는 건 물론이고 레아도 꽤 난감한 상황이 될 것이었다. 그래서 좀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라이 경은 걱정할 필요 없다는 듯이 말했다.

“혹시 그런 일이 생길까 봐 나무에 묶어두고 왔으니 누군가 풀어주지 않는 이상 혼자 풀진 못할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네? 그 커다란 나무에 푸엘라 경을 묶어두고 왔다고요?”

“계속 우는소리만 하고 갈 마음이 없는 거 같아 억지로 끌고 가서 나무에 묶어두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음….”

그 나무 나름대로 레아에게는 예쁜 추억이 있는 나무였는데 거기 사람을 묶어놨다니. 거기다 그걸 본 다리아 영애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레아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다.

‘나도 모르겠다. 어차피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길을 조금 열어주는 것뿐이니까 이제부턴 두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난 내 일이나 제대로 마무리하자.’

오늘 열릴 파티는 레아에게도 아주 아주 중요한 파티가 될 것이니까. 이제는 거기에만 집중하기로 하고 레아는 라이 경을 보며 싱긋 웃었다.

“오늘 멋있게 하고 왔네요. 꼭 왕자님 같아요.”

“어제 부모님께 황녀님과 교제 중이란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오늘 파티에서 공개할 거라고 하니 어머니께서….”

“엄청 신경 써주셨나 보네요. 첫 파티 때 신경 써주셨던 것처럼.”

라이 경이 그 얘기를 했을 때 부모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진 상상이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다는 건 반대하고 싫어하신 건 아닌 것 같아 레아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오늘 레아 황녀님도 첫 파티 때 그 모습 같으십니다. 특히 심플한 새하얀 드레스가.”

“그렇죠? 일부러 그때 입었던 드레스랑 비슷한 드레스로 고르고 최대한 첫 파티 때 분위기로 느낌을 내봤어요. 어때요?”

“아름다우십니다.”

“다행이네요. 라이 경 눈에 예뻐 보여서.”

라이 경은 아무래도 그때 레아에게 반한 것 같다고 했던 말이 떠올라 일부러 그때처럼 입어봤는데 예쁘다니 레아는 보람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은 두 사람에게 또 다른 시작인 날이니 처음 그 느낌으로 돌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었다.

“그럼 갈까요? 파티장으로.”

이제 새로운 시작으로 걸음을 뗄 시간이었다.

\*\*\*

“가스파르 재상. 잠시 할 얘기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피에르 시종장님.”

“그, 제 아들과 레아 황녀님이…그런 사이라는 걸 재상은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셨죠?”

“네. 저는 라이 경이 황녀님을 짝사랑하고 있을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는 언질도 주지 않으신 겁니까! 정말 섭섭합니다.”

“라이 경과 레아 황녀님께서 비밀로 하고 있으신데 제가 함부로 떠들고 다니면 안 될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건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되어 그 사실을 어제 처음 들었으니 기절할 정도로 놀라기도 했지만, 솔직히 조금 서운하기도 했다. 그런 피에르 시종장님께 가스파르 재상은 위로해주듯 말했다.

“저도 두 사람이 먼저 말을 해주신 게 아니라 제가 우연히 눈치를 챈 것뿐입니다. 너무 서운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서운한 걸 어쩌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두 사람 사이를 응원했는지 그 녀석도 알고 있을 건데….”

“하하. 어쨌든 잘된 일 아닙니까? 결국은 두 사람이 맺어졌으니. 그리고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도 가만히 있으시니 시종장님도 이제 그만하시죠.”

“으음. 아무래도 그러는 게 좋겠군요. 어쨌든 잘된 일이니….”

그렇게 말하면서도 피에르 시종장님은 서운하다는 얼굴을 숨기진 못하셨지만 그래도 별다른 말은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두 사람의 사이를 오늘 공개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직은 조용하군요.”

“네. 황제 폐하께서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데 대체 어떻게 공개하실 생각이신 걸까요?”

“저도 그건 잘 모르겠지만…어쩐지 조금 불안한 느낌이 드는군요. 어째서인지는 저도 알 수가 없지만….”

파티가 열리고 특별할 것 없이 평소처럼 이야기를 나누다 음악이 흘러나오자 레아 황녀님과 라이 경은 지금 함께 춤을 추는 중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분위기에 지금 두 사람의 모습은 꼭 그림처럼 예뻤지만, 그 평온함에서 가스파르 재상은 불안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래도 그 생각이 틀린 것이라고 스스로 불길한 생각은 하지 말자고 되뇌었지만 슬프게도 재상의 그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니었다.

“지, 지금 제가 뭘 본 겁니까? 드디어 제 눈이 미쳐버린 겁니까?”

“아뇨. 레아 황녀님과 라이가 키스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라면 제대로 보고 있으신 게 맞습니다.”

“세상에…! 설마 이렇게 두 사람이 연애 중이란 걸 밝히겠다고 하신 겁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하하. 저 녀석 이제 완전히 레아 황녀님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군요.”

“아니, 피에르 시종장님! 지금이 그렇게 흡족하게 웃으실 때입니까?”

함께 춤을 추다가 갑자기 라이 경의 목에 팔을 두르더니 레아 황녀님께서는 라이 경에게 입을 맞추었고 그 모습에 파티장에 있는 모든 사람은 환호성과 비명을 동시에 질렀다. 가스파르 재상은 절규했고 피에르 시종장님은 만족스러운지 허허 웃으시기만 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있던 레그마인 황제는 두 사람을 보며 한숨을 푹 쉬었다.

‘둘이 저러는데 내가 어떻게 반대하냐고. 이제 레아는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파티장 모두에게 충격과 혼란을 준 주제에 레아와 라이 경은 지금 이 순간 다른 건 신경도 안 쓰고 보이지도 않는다는 건지 꼭 끌어안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있기만 해도 두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느껴져서 레그마인 황제는 다시 한번 한숨을 쉰 후 어쩔 수 없다는 듯 웃음을 지으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래. 레아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된 거겠지.”

사랑하는 소중한 딸이 행복하기만 하다면 그거 하나면 다 되는 게 아빠의 마음이 아닐까 하고 레그마인 황제는 생각했다. 그리고 다정함이 가득 묻어나는 눈으로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귀엽고 똑똑한데 착하기까지 한 사랑스러운 딸을 보며 속으로 말했다.

레아. 네가 행복하다면 난 그걸로 됐어.

아빠는 정말 그거 하나면 돼.

처음부터 그랬어.

아빠의 인생에 너라는 소중한 선물이 온 뒤로 내가 행복했던 만큼 너도 꼭 행복했으면 해. 그게 아빠 소원이야.

그리고 이런 못난 아빠의 딸로 태어나줘서 아빠 앞에 나타나 줘서 그리고 아빠 옆에 있어 줘서 고마워.

사랑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우리 딸.

118.3년 후 20살.docx

그렇게 공식적인 발표는커녕 그 비슷한 것도 없이 입맞춤으로 현재 열애 중이란 사실을 화끈하게 공개한 레아와 라이 경은 파티가 끝난 후 몇 개월 주변이 꽤 시끄러웠다.

레아는 우나타에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나탈리 이모와 브로디 아저씨를 비롯한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연락이 와서 연락구슬에 불이 날 지경이었지만 그래도 라이 경에 비하면 좀 나은 수준이었다. 정말이지 라이 경은…한동안 기숙사나 훈련장으로 가는 게 두려울 정도였다. 정확하게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는진 레아에게조차 말해주지 않았지만 수척해진 라이 경의 얼굴만 봐도 주변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대충 알 수가 있었다.

‘그랬던 게 아직 얼마 전인 거 같은데.’

그런데 그게 벌써 3년 전 일이었고 며칠 전 20살이 된 레아는 지금 라이 경의 부모님과 함께하는 식사자리를 가지고 있었다. 사실 말이 식사자리지 정확히는 레아와 라이 경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모인 것이었다.

“두 사람이 약혼을 한 지도 2년이 지났고 이제 레아 황녀님께서도 성인이 되셨으니 슬슬 언제쯤 식을 올리면 좋을지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으음.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레아가 벌써 성인이라니.”

“17살 때 공개연애를 시작하시고 18살 때 약혼식을 하셨으니 올해로 레아 황녀님께서는 20살이 되셨고 제 아들도 24살이 되었죠.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 정말 슬슬 결혼할 때가 되었네.”

아직 아빠의 눈에는 한없이 어린아이 같은데 벌써 우리 딸이 결혼할 때가 되었다니. 솔직히 조금 서운했지만 그래도 이건 당연한 일이니 황제는 그 서운함을 내색하지는 않았다.

“괜히 늦게 했다간 파혼이니 뭐니 별 같잖지도 않은 말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 최대한 서두르되 정말 오랜만에 황족의 결혼식이 열리는 것이니 그만큼 성대하고 화려하게 준비하도록.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 아끼지 말고 최대한 사치스럽게 준비하도록 해.”

“네. 알겠습니다. 폐하.”

“보통 딸은 결혼할 때 어머니가 결혼할 때 입었던 드레스를 물려 입는데 레아 황녀님께서는 그러실 수가 없으시니…. 일단 웨딩드레스부터 준비하는 게 좋겠군요.”

“음. 난 황녀님과 황제 폐하께서만 괜찮으시다면 당신이 입었던 웨딩드레스를 입으셔도 괜찮을 거 같은데.”

“하지만 그 드레스는 고조할머니 때부터 입었던 드레스라서 이젠 너무 낡았는 걸요. 황녀님께 맞는 새 웨딩드레스를 맞추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러면 준비가 꽤 오래 걸리겠군. 폐하. 아무래도 결혼식은 가을이나 겨울로 날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결혼식에 관한 얘기가 오고 가고 있었지만, 레아와 라이 경은 아무런 얘기도 꺼내지 않고 그저 어른들이 나누시는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식사만 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몇십 년 만에 열리는 황족의 결혼식인데 여기서 두 사람의 의견을 내기보다는 어른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았다.

‘난 화려하고 성대한 결혼식보다 간소하고 조용하게 식을 올리고 싶다고 말해도 그게 가능할 리가 없지. 난 이 제국의 황녀이자 유일한 황제의 핏줄이니까.’

레아가 원하고 꿈꾸던 결혼식은 꽃이 가득한 예쁜 정원에서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해서 복잡하고 어려운 건 다 빼버리고 작고 간소하게 치르는 결혼식이었다. 그런데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할 리가 없으니 레아는 조용히 어른들의 의견에 따를 생각이었고 이게 자신의 운명이니 불만은 딱히 없었다.

‘그래도 그거 하나는 아쉽네. 엄마가 결혼할 때 입었던 웨딩드레스가 없어서 못 물려받는 거.’

하지만 엄마는 아빠와 정식으로 결혼한 후 레아를 낳은 것이 아니라 미혼모라는 신분으로 레아를 낳고 키운 것이었다.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지금은 황녀로 인정받았다고 해도 자신이 황제의 사생아란 사실은 어쩔 수 없다고 레아는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 아빠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있어. 아리샤의 웨딩드레스.”

“네? 하지만 황녀님의 어머님께서는….”

“내가 성인이 되면 결혼하자고, 둘만의 결혼식이라도 올리자고 말하려고 준비해뒀던 게 있어. 그땐 나도 어렸으니까 정 안 되면 사랑의 도피라도 떠날 생각이었지. 결국, 아리샤에게 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레아에겐 엄마의 웨딩드레스니까 그걸 입으면 돼.”

“아, 네. 그럼 황녀님의 웨딩드레스는 그걸 입으시기로 하고 그럼 결혼식은 예정대로 봄에….”

아빠가 엄마한테 프러포즈하려고 준비했던 웨딩드레스라. 다른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아빠의 말에 잠시 놀란 듯했지만 금방 다른 얘기로 넘어가 레아와 라이 경이 행차할 때 탈 마차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레아는 혼자서 잠시 다른 생각을 했다.

‘알고는 있었지만, 아빠는 정말 진심으로 엄마를 사랑했구나.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을 정도로.’

태어날 때부터 황족으로 태어나 황태자로 자라왔음에도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나겠다는 게 쉬운 결정일 리가 없었다. 항상 엄마가 떠나지 않았다면 아빠는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만 해봤는데 처음으로 레아는 만약 아빠가 지금의 자리를 포기하고 엄마와 같이 우나타로 떠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만약 그랬다면 나도 우나타에서 계속 빵을 구우면서 살았을 거니까 라이 경이랑은 만날 일이 없었으려나. 아니, 어쩌면 태어나기도 전에 할아버지에 의해 죽었을지도.’

레아는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남자를 떠났던 게 그때의 엄마로서는 제일 나은 선택이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선택을 했든 행복한 결말일 수 없었고 결국은 비극으로 끝난 엄마와 아빠의 사랑이 참 슬프단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때 옆에 앉아있던 라이 경은 아무도 모르게 식탁 밑에 있던 레아의 손을 꼭 붙잡았다. 갑자기 무슨 할 말이라도 있나 싶어서 라이 경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라이 경은 레아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엄마와 아빠의 사랑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난 내 사랑을 허무하게 놓치지 않고 잘 붙잡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좀 그러려나. 행복한 신부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라이 경의 말에 레아는 작게 웃으며 똑같이 손을 꼭 잡고 말해주었다.

“나도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신랑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할게요.”

사실 이미 두 사람은 서로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지만 그래도 상대를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서로를 사랑하는 예쁜 마음이었다.

\*\*\*

“요즘 우리 결혼식 때문에 황궁 전체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정적 주인공인 우리는 평소랑 다를 게 없네요.”

그래도 프러포즈를 받고 나면 결혼한다는 게 좀 실감이 날 줄 알았는데. 작년 생일 때 열렸던 파티에서 근사하게 프러포즈를 받았는데도 아직 정말로 결혼한다는 게 실감이 안 난다고 생각하며 레아는 자신의 왼손 약지에서 반짝이고 있는 결혼반지를 바라보았다. 라이 경은 그 반지와 똑같은 반지가 끼워진 손으로 레아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다.

“아마 내일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면 결혼한다는 사실이 실감이 날 겁니다.”

“그럴까요? 사실 아직 안 믿겨요. 우리가 진짜 결혼해서 부부가 된다는 게. 라이 경은 믿어져요?”

“레아처럼 멋진 여자가 내 신부가 된다는 게 믿어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야.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꿈이라면 영원히 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이 경도 많이 늘었네요. 이제 그런 말도 할 줄 알고?”

처음 손을 잡을 때까지만 해도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했었는데. 이제는 제법 간질간질한 말도 자연스럽게 하는 라이 경을 보며 레아는 예쁘게 웃었고 라이 경은 그런 레아에게 깊은 키스를 했다. 갑자기 훅 들어와서 조금 놀랐지만, 레아는 거부하지 않고 그 키스를 받아주었다.

“하아….”

그렇게 조금씩 거칠어지는 키스에 레아는 저도 모르게 뜨거운 숨을 내뱉었다. 그리고 입술이 잠시 떨어진 사이에 조금은 야릇한 눈으로 라이 경을 올려다보았다. 그러자 라이 경은….

“머리가 흐트러지셨습니다. 드레스도 많이 구겨져서 아무래도 시녀들을 불러 갈아입으셔야 할 거 같습니다.”

“………?”

“그럼 저는 잠시 밖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갑자기 급히 도망이라도 가려는 것처럼 고개를 돌려버리는 라이 경 때문에 레아는 잠시 당황했다. 이제 레아도 성인이고 아까 그 분위기는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아는 바로 그 분위기였는데 라이 경은 일부러 그걸 피하려는 건지 방을 나가려고 하고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자면 좀 아쉽기도 해서 레아는 다급하게 방을 나가려는 라이 경을 붙잡았다.

“잠, 잠깐만요! 라이 경!”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냐니…. 라이 경도 다 알잖아요! 뭘 이런 걸 하다 말아요? 그…다음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

대놓고 이런 말 하는 게 좀 부끄럽기는 했지만, 꽤 중요한 문제였다. 레아가 어째서 다음 진도를 빼지 않는 것인지 묻자 라이 경은 잠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다가 아예 레아에게 등을 돌리며 말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결혼식이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기 전까지는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영원히 함께할 사이인데 조금은 천천히 소중하게 아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그래도….”

“그럼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천천히 소중하게 아껴주고 싶다는 그 마음은 고마웠지만 그래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지 레아는 난감했다.

\*\*\*

“오랜만이에요. 다리아 영애. 그동안 잘 지냈나요?”

“네. 레아 황녀님. 요즘 결혼식 준비하신다고 바쁘시죠?”

“아뇨. 정말 오랜만에 열리는 황족의 결혼식이다 보니 다른 사람들은 다 바쁜 것 같던데 전 잘 모르겠어요. 결혼한다는 것도 사실 아직 실감 안 나고.”

“결혼식까지 아직 2달이나 남으셨으니까요. 아마 곧 실감이 나실 거예요.”

최근 다리아 영애는 칼리지에 입학해서 한동안 바쁘게 지냈고 오늘 레아와는 꽤 오랜만에 만나서 함께 저녁을 먹는 것이었다. 얼마 전 다리아 영애가 같은 과 선배에게 고백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해하던 푸엘라 경의 모습이 떠올라 레아는 웃음이 나왔다.

“칼리지 생활은 좀 어때요? 다닐 만해요?”

“공부는 그럭저럭 못할 정도는 아닌데 술자리가 왜 이렇게 많은 건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어떤 선배가 신입생들은 무조건 참석해야 한다고 했는데 저는 황녀님이랑 약속 있다고 하고 겨우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요? 중요한 자리인데 혹시 내가 방해한 건 아니죠?”

“아뇨. 오히려 구해주신 거예요. 그 선배는 진짜….”

생각만 해도 싫은 건지 다리아 영애는 얼굴을 팍 찌푸리더니 한숨을 깊게 쉬며 말했다.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말끝마다 오빠는 오빠가 오빠니까! 누가 우리보다 선배인 거 모를까 봐 아주 오빠란 말을 달고 살아요. 거기다 요즘은 자기처럼 다정한 남자가 인기라면서 저희 점심까지 간섭한다니까요. 사 먹는 건 별로라고 도시락 싸서 다니라고.”

“후배들이 밥을 사 먹던 도시락을 싸서 다니든 굶든 그게 자기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런데요?”

“그게 사실은 후배들 도시락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 거였더라고요. 무슨 여자애가 그렇게 많이 먹냐면서 양 많으니까 같이 먹자고 억지 부리고 그래요. 다행히 저는 3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니까 귀찮게 하진 않지만….”

“다리아 영애도 술자리에 막 부른다면서요. 그것만 해도 푸엘라 경이 싫어하지 않아요?”

“싫어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해를 잘해줘서 그걸로 싸운 적은 없어요. 자기도 칼리지 다닐 때 그런 선배 있어서 잘 안다고.”

만약 레아한테 그런 선배가 있었다면 도시락으로 싸 온 샌드위치를 콧구멍으로 먹게 해줬을 텐데. 그래도 라이 경은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이라 푸엘라 경처럼 잘 이해해줬을 거 같다고 레아는 생각했다.

“오늘은 마시기 싫으면 억지로 마시지 마요. 내가 너무 답답해서 와인 한잔하고 싶은데 혼자 마시기는 초라할 거 같기도 하고 그러기 싫어서 다리아 영애 부른 거예요.”

“아뇨. 친구들이랑 같이 가볍게 한잔하는 건 좋아하는 편이에요. 레아 황녀님은 제 제일 친한 친구시잖아요.”

“네. 그리고 내 제일 친한 친구도 다리아 영애죠.”

태어나서 처음 사귀어본 동갑내기 동성 친구. 그리고 지금은 4년째 제일 친한 친구인 다리아 영애를 보며 레아는 싱긋 웃었다.

‘정말 제일 친한 친구니까 다리아 영애한테는 오늘 있었던 일에 관해서 얘기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오늘 레아가 와인 한잔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도 다 그 일 때문에 생각이 많아져서였으니까. 고민이라면 정말 고민인데 부끄럽기도 하고 조금은 은밀한 부분이라 아무한테나 막 얘기할 수는 없는 고민이었다. 그래도 다리아 영애는 정말 친한 친구니까 말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레아는 잠시 생각했다.

“레아 황녀님은 요즘 결혼준비는 어떻게 돼가세요? 어른들 말씀 들어보면 결혼 준비하면서 꼭 한 번씩은 싸운다던데.”

“우리가 해야 할 게 별로 없다 보니 싸울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 경은 다정해서 둘이 결정해야 하는 건 전부 저한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맞춰줘서 사이좋게 잘 준비하고 있어요.”

“남자 쪽에서 의견 없이 너무 맞춰주기만 해도 넌 이 결혼식에 관심이 없는 거냐며 싸우기도 한다고 들었는데. 안 싸우셨다니 다행이네요.”

“하하. 라이 경은 항상 절 배려해주니까요.”

처음 연인이 되고 나서부터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까지 라이 경은 언제나 자신보다 레아를 위하며 배려해주었다. 레아는 그게 라이 경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가끔, 정말 아주 가끔은 너-무 배려해줘서 이게 정말 날 위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요.”

“으음. 때로는 무조건 배려하고 맞춰준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니까요. 특히 연애에 있어서는요.”

“원래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더 욕심내고 싶고 다가가고 싶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라이 경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껴주는 건 고마운데 너무 아껴주는 것 같아서 답답한 건 사실이었다. 이 남자는 무슨 불만을 품게 해도 뭐 이런 불만을 품게 하냐고 생각하며 레아는 와인을 홀짝였다. 그리곤 작게 한숨을 쉬는 레아를 보며 다리아 영애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레아 황녀님의 고민이나 불만을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는 들어드릴 수 있어요. 괜찮으시다면 말씀해주시겠어요?”

“음. 듣고 후회 안 할 거예요? 좀…그런 고민인데.”

“우리 사이에 못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전 괜찮으니까 황녀님만 괜찮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다리아 영애도 괜찮다고 하니 그럼 한번 이야기해볼까. 아까까지만 해도 다리아 영애는 얘기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으면서 막상 얘기하려니 레아는 좀 망설여졌다. 하지만 계속 혼자 신경 쓰여서 이러고 있는 것보단 좀 부끄럽더라도 다리아 영애한테 말이라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레아는 생각했다.

119.첫 동침.docx

하지만 다리아 영애에게 말해보자고 결심을 해도 레아는 그 말이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결국, 레아는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말 못 하겠고 술의 힘을 빌려보자고 생각하며 옆에 있는 와인을 잔에 따르지 않고 병째로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다.

“레, 레아 황녀님?”

“으으…. 맛없어….”

“괜찮으세요? 와인 한 병을 거의 한 번에 다 마셨는데….”

“푸우우우우.”

“아무래도 취하신 거 같네요. 그것도 한 번에.”

“아니에요! 저 안 취했어요. 그냥 조금 어지럽고…머리가 뱅글뱅글 도는 것 같을 뿐이에요. 취한 건 아니에요.”

“흐음.”

레아 황녀님은 절대 취한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최근 칼리지 술자리에서 취한 사람을 많이 봤던 다리아 영애가 보기에는 확실히 취해버리신 것 같았다.

‘생긴 거나 냄새는 포도 주스 같아도 와인을 저렇게 한 번에 목구멍에 때려 넣듯이 마시면 목 엄청 따가우셨을 텐데. 맛도 무지하게 없을 거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신 걸 보면 레아 황녀님은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던 걸지도 몰랐다. 라이 경과 싸우신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라서 저러시는 걸까 하고 다리아 영애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다리아 영애. 원래 좋아하면 욕심내고 싶고 더 다가가고 싶고 막 만지고 싶고…그러는 거 아니에요?”

“보통은 그렇죠. 라이 경은 스킨십이 별로 없는 편이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뇨. 손도 잡고 포옹도 하고 뽀뽀도 하고 키스도 하고 다 해요. 그런 건 17살 때부터 지금까지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데?”

“왜 키스 다음 진도를 안 나가냔 말이에요! 왜!”

와인 한 병에 취하시긴 많이 취하셨는지 레아 황녀님은 마음속에 있는 모든 말을 다 쏟아내시는 중이신 것 같았다.

“내가 이제 미성년자도 아닌데 어?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으면서 어?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어? 당연히 사랑하니까 어? 진도 빼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라이 경은 그러지 않았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요? 여기서 끝이냐고 진도 더 안 빼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엄청 엄청 잘생긴 내 남자친구가?”

“뭐라고 했는데요?”

“결혼식 하기 전까지는 지켜주고 싶대요! 참나. 누가 호위기사 아니랄까 봐 지키긴 뭘 지켜….”

술기운에 필터링 없이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게 말하는 레아 황녀님을 보며 다리아 영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차마 맨정신으로는 입 밖으로 꺼내진 못하겠지만 사랑하는 사이에 서로 속도가 맞지 않으면 누구나 충분히 할 수 있는 고민이었다.

‘물론 내가 뭘 어떻게 해드릴 순 없고 말 그대로 들어드리는 것밖에 해드릴 수 없는 고민이지만.’

그래도 어차피 두 사람은 5월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니까 그리 심각한 고민은 아니라고 다리아 영애는 생각했다.

“참나. 진도 안 빼는 게 뭐가 지켜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언제 그렇게 지켜달라고 했냐고….”

“레아 황녀님. 많이 취하셨어요. 인제 그만 마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황녀님께서 많이 취하기도 하셨고 이제 시간도 늦었으니 돌아가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 잔뜩 취해버린 레아 황녀님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던 다리아 영애는 라이 경을 부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레아 황녀님이 이렇게 취하신 건 어떻게 보면 라이 경 때문이기도 하고 지금의 레아 황녀님이라면 라이 경의 얼굴을 보고 이 감정을 잘 풀어내실지도 모르지.’

물론 지나치게 솔직하시다는 점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었지만, 이 정도로 두 사람의 사이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진 않았다. 다리아 영애는 레아 황녀님과 라이 경 사이에 문제라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잘 해결되길 바라면서 시녀들에게 라이 경을 불러 달라고 부탁했다.

\*\*\*

‘우우, 머리 아파. 머리 깨질 것 같아!’

어제 분명 다리아 영애를 만나서 같이 저녁을 먹었고 그러다 라이 경과 있었던 일을 얘기하려는데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말을 못 할 것 같아서 와인을 병째로 들이킨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뒤로는 필름이 끊겨서 어떻게 방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운 건지 도통 기억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기억을 더듬어보기에는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고 속도 아파서 그럴 정신은 없을 것 같았다. 기억이 안 난다는 건 그렇게 특별한 일도 없었다는 거겠지 하고 레아는 잘 떠지지 않는 눈을 힘겹게 눈을 억지로 떠보았다.

그런데….

“이제 일어나시는 겁니까?”

“으응?”

“벌써 10시입니다. 오늘 1시에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미리 한번 입어보기로 했으니 어서 씻고 식사를 해야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 경?”

왜 라이 경이 침대에 누워서 매우 매우 위험하게 흐트러진 상태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걸까. 아직 잠이 덜 깬 건지 아니면 꿈을 꾸고 있는 건진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현실이 아닌 건 확실하다고 레아는 생각했다.

‘라이 경이 결혼식도 하기 전에 나랑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잤을 리가 없잖아. 그 뼛속까지 황녀님 호위기사인 남자가.’

아무래도 이건 어제 일이 계속 신경 쓰여서 생각하다 보니 그 영향으로 꾸는 꿈인 것 같았다. 그래도 꿈에서라도 이런 라이 경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기분은 좋다고 생각하며 레아는 라이 경의 품 안에 파고들었다. 꿈에서도 라이 경의 품은 따듯하고 편안해서 금방 나른해지는 기분이었다.

“이제 일어나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잠들면 안 됩니다. 레아.”

“더 잘래요. 꿈이니까 좀 봐줘요.”

“설마 지금 이게 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응. 꿈….”

꿈이 아니고서야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푹신한 침대 위에서 라이 경의 품에 안겨서 있을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그렇게 레아는 참으로 만족스러운 꿈이라고 생각하며 더욱더 라이 경의 품에 파고들었고 라이 경은 그런 레아의 얼굴을 커다란 손으로 감쌌다. 그리곤 쪽 하고 짧게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한 번 더 쪽, 쪽, 쪼옥.

그렇게 일곱 번 정도 라이 경에게 뽀뽀를 받자 레아는 슬슬 이게 꿈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여덟 번째 뽀뽀를 받았을 때는 확실하게 지금 이게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금 이게 꿈이 아니면 라이 경이 진짜로 내 침대 위에 누워있다고? 난 방금까지 쿨쿨 자고 있었는데?’

그럼 라이 경이랑 같은 침대에서 하룻밤을 보냈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자 레아는 깜짝 놀라서 졸음이 가득한 채로 반쯤 감겨있던 눈을 번쩍 떴다.

“아직 두 번 남았는데 왜 벌써 눈을 뜨는 겁니까?”

“뭐에요? 라이 경이 왜 내 침대에 나랑 같이 누워있는 거예요?”

“설마 어젯밤 기억 안 나는 겁니까?”

“안, 안 나요! 분명 어제 다리아 영애랑 저녁 먹으면서 와인 마시고 취해서….”

“취한 다음은 기억 안 납니까?”

“……….”

도대체 어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상황까지 온 건지 레아는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열심히 생각해내려고 노력해봤지만 떠오르는 건 하나도 없었고 애초에 레아의 기억 속에는 다리아 영애를 만난 이후로 라이 경을 본 기억이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내려고 애써도 어제의 기억이 깔끔하게 날아간 레아에게 라이 경은 친절히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해주었다.

“어제 레아가 너무 취해서 다리아 영애께서 절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까지 모시고 와서 침대에 눕혀드린 다음 이불까지 덮어드린 겁니다.”

“근데 우리 왜 같이 누워있는 거예요? 아니, 싫은 건 아닌데 라이 경 성격상 직접 이불 속으로 들어왔을 것 같진 않은데….”

“그대로 방을 나가려고 했는데 레아가 가지 말라고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정말 기억 안 나는 겁니까?”

“내, 내가요? 내가 정말 그랬어요?”

“네. 제 목을 끌어안고 가지 말라고 하면서 절대 놔주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설마 취해서 술주정으로 속에 있던 모든 말을 해버린 건가 생각하며 레아의 눈빛은 심하게 흔들렸다.

‘어제의 난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진짜 정신 놓고 속에 있는 말을 다 해버린 건 아니겠지?’

이럴 줄 알았으면 술은 좀 적당히 마실걸! 레아는 어제의 자신을 만나면 멱살을 잡고 후회할 짓 하지 말라고 탈탈 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하지만 인제 와서 그런 게 가능할 리가 없었다.

\*\*\*

“자고 가요.”

“…네?”

“시간도 늦었는데 자고 가요. 응?”

취한 여자친구를 안고 방까지 왔는데 이건 또 갑자기 무슨 상황일까. 이제 침대에 눕혀드리려는데 레아는 라이 경의 목을 끌어안고는 놔주지 않았고 오늘은 자신의 침대에서 자고 가라고 말하고 있었다. 꽤 당돌한 레아의 말에 라이 경은 속으로 좀 놀랐지만, 자신의 목을 끌어안고 있는 레아의 팔을 풀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저는 기숙사로 돌아가서 제 침대에서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

“내일 중요한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술을 이렇게 취하실 때까지 마시다니.”

“……….”

“내일 늦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럼 전 이만 다시 기숙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어보기로 했으면서 오늘 이렇게 취하시다니. 결혼식 때까지 그리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라서 일정을 취소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라이 경은 레아에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조금 한 후 방을 나가려고 했다. 그런데 레아는 그런 라이 경의 옷깃을 잡고 붙잡았다.

그리고 다시 뒤돌아본 라이 경을 빤히 올려다보았다. 사귀는 사이가 되기 훨씬 전부터 뭐든 절대 거절할 수 없게 만들었던 그 눈빛으로 올려다보며 레아는 살짝 혀가 꼬인 채로 말했다.

“눈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나 놀리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이 경 이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줄 알아요? 내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철이 없는 거예요?”

라이 경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었다. 어째서 레아가 이런 말을 하는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런 말을 하면서 레아는 복잡한 감정들이 섞인 표정을 하고 있었다. 서운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면서 정말 내가 생각이 너무 어리고 철이 없는 건가 하는 생각들이 섞인 표정에 라이 경은 뭔진 몰라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무엇을 잘못한 건지는 알 수가 없어 지금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아무런 말도 못 하고 있는데 레아는 그런 라이 경을 보며 입술을 꾹 깨물었다.

“원래 사랑하면 손도 잡고 싶고 만지고 싶고 안고 싶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 혼자만 그런 거예요?”

“레아. 저는….”

“지켜주고 싶다는 말이 고마워야 하는데…날 소중하게 아껴주고 있는 걸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 건데…. 하나도 고맙지가 않아요. 결혼하기 전까지 참겠다는 말에 나는 왜 자존심이 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

그동안 차마 말할 수 없었던 레아의 진심이었다. 어차피 결혼식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당연히 이해해줄 줄 알고 설명해주지 않았던 건데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줄은 전혀 몰랐다.

“…저라고 왜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면 손도 잡고 싶고 만지고 싶고 안고 싶은 게 당연한 건데.”

하지만 결혼식 전까지 아껴주고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은 여전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레아가 혹여나 상처받을 일이 생기지 않게 지켜주고 싶기 때문이었다.

“저 역시 레아를 사랑하는 만큼 더 다가가고 싶고 더 깊은 사이가 되고 빨리 우리 둘을 닮은 아이의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요한 일에는 정해진 순서가 있고 저는 그 순서에 맞게 일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다 할 건데 꼭 순서대로 해야 해요?”

“네. 전 레아를 위해 모든 걸 순서대로 하고 싶습니다. 물론 순서가 좀 달라진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로 인해 레아가 듣지 않아도 될 소리를 듣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혹여나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긴다면 그건 당연히 축복이고 많은 사람의 축하를 받을 일이었다. 하지만 분명 레아의 출생이 출생이니만큼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었다. 라이 경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에게 그런 소리를 듣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에게도.

자세하게 말하진 않았지만 라이 경이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알 것 같은 레아는 말없이 스르륵 잡고 있던 라이 경의 옷깃을 놓았다. 라이 경은 그런 레아의 손을 언제나처럼 따듯하게 꼭 잡아주었다.

“그런 거였으면 나한테도 말을 해주지. 라이 경이 이러면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던 내가 너무 어린애 같잖아요. 바보같이 내 생각해서 그랬던 것도 모르고….”

“말하지 않았으니 몰랐던 게 당연한 겁니다. 레아를 속상하게 만든 건 다 제 잘못입니다.”

“끝까지 나만 어린애로 만들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지 않고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 경이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보니 레아는 꼭 자신이 생각이 짧고 어리기만 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게 창피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레아는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서 때로는 미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푹 숙였다. 라이 경은 그런 레아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 고개를 들게 하고는 레아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입을 맞췄다.

갑작스러운 입맞춤에 처음에는 좀 놀랐지만 언제나처럼 다정하고 부드러운 라이 경의 키스에 레아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입술이 떨어지자 자신의 꼭 안아주는 라이 경에게 말했다.

“나 지금 술 냄새날 텐데.”

“괜찮습니다.”

“만날 다 괜찮대.”

“레아라면 저는 정말 뭐든지 다 괜찮습니다.”

어쩜 이 남자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이런 달콤한 말까지 해주는 걸까. 레아는 다시 한번 이렇게 멋진 남자와 함께 미래를 그려갈 수 있게 된 건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라이 경을 꼭 끌어안았다. 그리곤 그의 귓가에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라이 경. 오늘 여기서 자고 가요.”

“하지만….”

“그냥 옆에서 내가 잠들 때까지 꼭 안아주고 머리도 쓰다듬어줘요. 잘 자라고 토닥여주고 목소리 들려줘요.”

“……….”

“더는 욕심 안 낼게요. 딱 거기까지만. 오늘은 거기까지만 해줘요.”

다른 건 바라지 않으니 오늘 밤 자신이 잠들 때까지 옆에 있어 달라는 말을 하며 레아는 라이 경을 빤히 올려다보았다. 라이 경은 그런 레아의 얼굴을 잠시 말없이 바라보다 눈가에 살며시 입을 맞추며 속삭이듯 말했다.

“그렇게 바라보면 무슨 부탁을 하더라도 제가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라보면 거절할 수가 없다는 라이 경의 말에 레아는 안심한듯한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라이 경의 품에 안겼다. 라이 경은 그런 레아를 안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웃음이 섞인 한숨을 작게 쉬었다.

120.우리 딸 결혼 축하해.docx

“그런데 갑자기 씻고 자기 귀찮다고 저한테 씻겨달라고 졸랐잖습니까. 그래서 욕실에 같이 들어갈 순 없으니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드리고 밤새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

“이제 좀 기억이 나는 겁니까?”

“어렴풋이 조금은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어제 제가 참….”

대체 무슨 생각으로 라이 경에게 속에 있는 모든 말을 그대로 다 해버린 걸까. 다행히 라이 경이 왜 그랬던 건지 그리고 레아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잘 마무리되었지만 그래도 뒤늦게 창피함과 민망함이 몰려오는 건 어쩔 수가 없었다.

‘나 혼자 막 밝히는 거 같잖아! 라이 경이 음란하다고 오해하진 않겠지? 아닌가. 그건 오해가 아닌가.’

레아는 아주 잠깐 스스로 너무 밝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지만, 곧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자신에게 말해주었다. 라이 경도 어제 분명 사랑하면 손도 잡고 싶고 만지고 싶고 안고 싶은 게 당연한 거라고 했으니까. 레아는 절대 자신이 음란하거나 밝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며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처음에는 놀라고 당황해서 못 느끼고 있었는데 새삼 라이 경과 한 침대에서 한 이불을 덮고 하룻밤을 보냈다는 게 조금 얼떨떨한 느낌이었다.

“결혼식 전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라이 경과 동침을 했다니.”

“그래서 싫으신 겁니까?”

“아뇨. 눈 뜨자마자 라이 경을 볼 수 있다는 게 기분이 좋네요. 라이 경의 이런 무방비한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막 잠에서 깨서 무방비한 모습과 졸음이 가득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잠들기 직전의 흐트러진 모습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아마 레아는 절대 모를 것이었다. 라이 경은 그렇게 생각하며 레아의 볼에 뽀뽀해주었고 레아는 기분이 좋아서 배시시 웃음이 나왔다.

“오늘 1시에 웨딩드레스랑 턱시도 입어보기로 했죠? 씻고 간단하게 식사하고 가면 되겠네요.”

“네. 씻으시는 동안 식사를 준비해달라고 말해두겠습니다.”

“응. 좋아요.”

같은 침대에서 일어나서 밥도 같이 먹는다고 생각하니 어쩐지 꼭 신혼부부가 된 기분이었다. 어차피 곧 진짜 신혼부부가 되고 이것도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것이었지만 그래도 레아는 아직은 조금 쑥스러웠다.

“그럼 제가 먼저 씻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면 레아가 먼저 씻겠습니까?”

“아, 아뇨. 라이 경 먼저 씻어요. 난 좀 천천히 씻을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순간 아무렇지도 않게 훅 치고 들어오는 라이 경의 말에 레아는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질 뻔했다. 다행히 라이 경은 레아가 당황한 걸 눈치채지 못했는지 홀로 욕실로 들어갔고 그제야 레아는 긴장이 좀 풀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진짜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같이 씻자고 한 것도 아닌데 왜 긴장하냐고! 아침에 일어났으면 씻는 게 당연한 건데 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야?’

라이 경이 레아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걸 알게 되면 과연 뭐라고 생각할까. 레아는 진짜 너무 창피하다고 생각하며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다.

\*\*\*

‘라이 경이랑은 같이 밥 먹은 적은 샐 수 없을 정도로 많았는데 오늘은 뭔가 좀 새롭네. 아침이라서 그런가?’

같이 식사한다는 건 너무 많이 해봐서 전혀 새로울 것도 없는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단지 점심이나 저녁이 아닌 아침을 같이 먹는 것일 뿐인데 레아는 이 상황이 새롭고 신기했다. 뭐, 사실 시간상 아침보다는 이른 점심에 가까웠지만 말이다.

“라이 경이 입을 턱시도는 피에르 시종장님께서 결혼하실 때 입으셨던 거라고 했었죠?”

“아뇨. 아버지께서 입으셨던 턱시도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 저도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입으려고 하셨던 턱시도를 입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빠 턱시도요? 아직 남아있었대요?”

“레아의 어머님께 선물하려고 하셨던 웨딩드레스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으셨지 않았습니까. 턱시도도 거의 새것처럼 잘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선물하기 전에 엄마가 떠나버렸으니 좀 오래되긴 했어도 새것은 새것이죠. 웨딩드레스도 턱시도도.”

레아야 딸이니까 엄마의 웨딩드레스를 물려받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라이 경도 시종장님이 아닌 아빠의 턱시도를 물려받게 된다니. 어쩌다 보니 아빠와 엄마가 하지 못한 결혼식을 레아와 라이 경이 대신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아빠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날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실까. 거기다 라이 경도 아빠가 엄마랑 결혼하려고 준비했지만 결국 입을 수 없었던 턱시도를 입기로 했으니….’

아마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두 사람을 보면 아빠는 기분이 묘하지 않을까 싶었다. 아니면 감정이 울컥 올라오실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며 레아는 토마토 주스를 한 모금 마셨다.

“근데 피에르 시종장님께서는 많이 아쉬워하시겠어요. 소중한 추억이 담긴 옷이 없어진 거잖아요.”

“실망하시긴 하셨지만, 곧 괜찮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턱시도는 다시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응?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실 아버지께서 입으셨던 턱시도는 없어진 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숨기고 있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으시지만.”

“어…. 어째서 턱시도를 숨기신 걸까요?”

레아의 기억으론 피에르 시종장님께서는 라이 경한테 본인이 결혼식 때 입었던 턱시도를 엄청 엄청 입히고 싶어 하셨던 거 같은데. 그런데 라이 경의 어머니께서 직접 그 턱시도를 숨기셨다니 레아는 좀 의아했다. 그런 레아에게 라이 경은 짧게 대답해주었다.

“턱시도가 하얀색입니다. 순백의 턱시도.”

“아.”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결혼식 때 그게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데 레아에게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에서 신랑 때문에 짜증이 나서 뒤통수를 한 대 치고 싶은 기분을 느끼게 할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하. 그래요? 근데 사실 난 딱히 상관없는데….”

결혼식 때 하얀색은 신부의 색이라며 다른 사람들은 그 색을 피하는 게 기본적인 예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레아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편이었다. 거기다 라이 경은 키도 크고 몸도 좋아서 순백의 턱시도도 분명 굉장히 잘 어울릴 것이었다.

“그래서 라이 경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는 중인가요?”

“저도 순백의 턱시도를 결혼식에서 입고 싶지는 않아서 조용히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레아도 턱시도에 대해선 비밀로 해주길 바랍니다.”

“알겠어요. 모른 척할게요.”

레아는 라이 경이 순백의 턱시도를 입은 모습을 보고 싶기는 했지만 라이 경이 입고 싶지 않다고 하니 그냥 모른 척해주기로 했다. 사실 라이 경은 순백의 턱시도든 검은 턱시도든 뭐든 잘 어울릴 것이라서 크게 상관은 없었다.

“레아는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 어머님을 위해 준비하셨던 웨딩드레스를 입는 겁니까?”

“네. 엄마랑 저랑 키도 비슷하고 체형도 비슷해서 수선할 것도 크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건 오늘 입어봐야 알겠지만요.”

“기대되는군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레아의 모습이.”

“하지만 순백의 드레스는 첫 파티 때랑 우리 공개연애 발표한 파티에서도 입었잖아요. 너무 기대하진 마요.”

“분명 아름다울 겁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황녀로 살면서 매일 입는 게 화려하고 나풀나풀한 드레스였고 파티 때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적도 있으니 별로 기대할 것도 없을 거 같은데. 그런데도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천사처럼 예쁠 거라고 진지하게 말하는 라이 경이 귀여워서 레아는 웃음이 나왔다.

“나는 턱시도 입은 라이 경의 모습이 더 기대되는 대요? 평소에 그런 옷 불편하다고 잘 안 입잖아요.”

“아마 평소와 똑같을 겁니다.”

“분명 엄청 엄청 잘 어울릴 거예요. 결혼식 날에 라이 경은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신랑이 될 거니까.”

“레아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신부는 안 되고요?”

“레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원래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저만의 신부입니다.”

일부러 놀려주려고 한 말이었는데 라이 경은 눈 하나 깜박 안 하고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원래 레아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말해주었다. 그런 라이 경을 보며 레아는 잠시 아빠 생각이 났다.

‘라이 경이 점점 아빠를 닮아가고 있는 것 같은 건 내 착각이겠지?’

앞으로 점점 더 아빠를 닮아가면 좀 곤란한데. 사실 레아는 그렇다고 해도 별로 상관은 없었지만 라이 경이 나중에 정말 아빠처럼 된다면 나중에 태어날 두 사람의 딸은 많이 피곤할 것이었다. 잠깐 불안하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그래도 설마 그러진 않겠지 하고 생각하며 레아는 남은 토마토 주스를 마저 마셨다.

\*\*\*

‘이게 아빠가 엄마한테 프러포즈하면서 주려고 했던 웨딩드레스란 말이지. 막상 입어보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네.’

드레스에 얽힌 사연 때문인지 아니면 웨딩드레스를 입으니 정말 결혼한다는 게 실감이 나서 그런진 몰라도 레아는 거울 속 웨딩드레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을 보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다. 화려하고 무거운 다른 웨딩드레스들과는 달리 가볍고 나풀거리는 느낌도 덜한 게 아빠가 엄마를 위해 준비했던 것이란 걸 느낄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다소 밋밋하고 심심해 보일 수도 있는 디자인이었지만 다행히 레아의 화려한 황금빛 머리카락 덕분에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거기다 결혼식도 화려한 황궁 정원에서 올리기로 했고 결혼식이 끝난 후 행진할 때 탈 마차도 화려하게 장식될 것이니 오히려 웨딩드레스까지 화려했다면 과해 보일 수도 있겠다 싶었다.

‘라이 경 턱시도는 어떤 느낌이려나. 다 입으면 온다고 했는데 빨리 보고 싶다.’

화려하지 않고 수수한 느낌의 웨딩드레스처럼 턱시도도 무난한 느낌이라고 했었는데. 분명 라이 경과 잘 어울리겠지만 그래도 빨리 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였다.

“레아. 웨딩드레스 다 입었어?”

“아빠?”

“응. 들어가도 돼?”

“네. 들어오세요.”

라이 경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말도 없이 찾아온 아빠 때문에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레아는 일단 들어오시라고 했다. 그리고는 말씀도 없이 갑자기 왜 찾아오신 거지?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안으로 들어오신 아빠에게 물었다.

“요즘 일도 많고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말씀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원래는 지금 일하고 있을 시간이잖아요.”

“일하다 살짝 빠져나온 거야. 우리 딸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신 같은 모습을 이 아빠가 첫 번째로 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

“글쎄요. 굳이 따지자면 아빠보단 라이 경이 먼저 봐야 하는 거 같은데요?”

“그러고 보니 그 녀석도 오늘 턱시도를 입어본다고 했었지. 그거 입고 여기로 바로 오겠군.”

“네. 곧 올 거 같아요.”

라이 경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웃는 레아를 보면서 레그마인 황제는 조금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왠지 하나뿐인 소중한 딸을 뺏기는 느낌이라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레아가 이렇게나 좋아하는데 인제 와서 딸의 결혼을 뒤엎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리고 솔직히 서운한 마음과는 별개로 조금은 기쁘기도 했다.

하나뿐인 소중한 딸이 좋은 남자를 만나 가족이 되고 그토록 원하던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게 된 것이었다. 이제 자신이 없어도 딸에게는 평생을 함께할 가족이 생기는 것이었고 앞으로 레아에게는 더 많은 가족이 생길 것이었다.

‘앞으로 새로 생길 가족은 레아를 쏙 빼닮은 귀여운 딸이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레아를 닮아 씩씩한 아들도 좋고.’

어떤 아이라도 레아를 닮았으면 그 아이는 무척이나 사랑스러워서 사랑해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었다. 하지만 황제는 레아와 라이 경이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건 좀 더 나중에 천천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레아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결혼 축하한다. 우리 딸.”

“아빠….”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는 네 짝으로 세상 그 어떤 남자를 데리고 와도 마음에 안 들겠지만…적어도 라이 경은 믿을만한 놈이니까. 우리 레아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라이 경은 이미 충분히 절 행복하게 해주고 있어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래. 그거면 됐어. 아빠는 그거 하나면 돼.”

사랑하는 딸이 행복해지는 것. 그게 마지막 소원이었는데 라이 경이 레아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니 아빠로서 더 바랄 게 있을 리가 없었다. 지금처럼 레아가 행복한 웃음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레그마인 황제는 똑같이 행복한 웃음을 지었다. 그런데 레아는 갑자기 그런 황제를 꼭 안아주며 이런 말을 했다.

“아빠 덕분에 라이 경을 만날 수 있었고 다리아 영애 같은 좋은 친구도 만날 수 있었어요. 아빠가 절 찾아주지 않으셨다면 전 영원히 진정한 가족을 만들 수 없었을 거예요.”

“……….”

“고마워요. 아빠. 날 찾아줘서. 그리고 사랑해줘서.”

아빠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걸 고맙다고 말하며 자신을 꼭 안아주는 레아를 보며 레그마인 황제는 기분이 이상했다. 그러고 보니 딸을 이렇게 안아보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았다.

“혹시라도 라이 경이 속상하게 하면 바로 아빠한테 얘기해.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만들어줄 테니까.”

“하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일단은 알겠어요. 아빠한테 꼭 얘기할게요.”

하지만 과연 라이 경이 레아를 속상하게 할 일이 생길까. 레아가 아는 라이 경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다. 그 말을 끝으로 아빠는 다시 일하러 가보셨고 레아는 다시 혼자 남게 되었다.

‘그런데 아빠한테 결혼 축하한다는 말을 듣게 될 줄이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같기도 한데 왜 나는 축하한다는 말을 듣고 놀랐던 걸까.’

생각해보면 예전부터 아빠는 레아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결혼 날짜까지 받은 상황에서 인제 와서 결혼을 반대하실 리도 없었다. 그래도 아빠가 결혼도 축하해주고 라이 경도 마음에 쏙 드는 건 아니어도 나름 좋게 봐주시는 거 같아서 레아는 기분이 좋아졌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을 하게 됐다.

‘라이 경이랑 같이 꼭 행복해지자. 내가 행복해져야 아빠도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꼭 행복해지자. 레아는 두 눈을 꼭 감고 그런 다짐을 했다.

121.봉인이 풀렸습니다.docx

“……….”

턱시도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선 라이 경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파티 때가 아니면 이렇게 제대로 차려입지 않는 편이라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왠지 턱시도를 입으니 진짜 결혼한다는 게 실감이 나서 더 어색하게만 느껴졌다.

“결국, 이런 날이 오고야 말았군.”

처음 레아의 호위를 맡게 되었을 때 모두가 라이 경이 황녀님께 반할 것이라고 했고 두 사람이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라이 경은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로 생각했는데 결국은 레아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사실은 두 사람을 뺀 모든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란 걸 예상했었던 걸지도 몰랐다.

두 사람이 공개연애를 시작했을 때 모두가 놀라서 파티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황궁이 발칵 뒤집히긴 했지만 대부분 근데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말했던 것만 봐도 알 수 있었다. 라이 경은 어쩌면 제일 처음 자신이 우나타로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레아를 처음 마주했을 때부터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아주 잠깐 했다.

‘이제 슬슬 레아도 웨딩드레스를 다 입었을 거 같은데. 어떤 모습이려나.’

웨딩드레스는 다른 드레스보다 입는 데 더 오래 걸린다고 했는데 아마 지금쯤이면 다 입지 않으셨을까. 레아는 기대하지는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라이 경은 마음속으로 한껏 기대하며 문을 똑똑 두드렸다.

“레아.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 라이 경. 들어와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같은 침대에서 눈을 뜨고 같이 식사도 했는데 안으로 들어가려니 라이 경은 괜스레 긴장되었다. 라이 경은 작게 심호흡을 한 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라이 경을 기다리고 있던 레아는 활짝 웃으며 턱시도 차림의 라이 경을 반겨주었다.

“우와. 라이 경. 턱시도 엄청 잘 어울려요!”

“……….”

“이렇게 멋있는 남자가 나랑 결혼할 남자라니. 뭔가 두근거리는 게 느낌이 이상하네요.”

“……….”

“음. 라이 경? 왜 말을 안 해요?”

레아는 턱시도를 입은 라이 경의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조잘조잘 떠들고 있는데 이상하게 라이 경은 레아를 보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막 엄청난 찬사를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잘 어울린다거나 예쁘다고 한마디 정도는 해줄 줄 알았는데 아무 말도 없자 레아는 조금 머쓱한 기분이었다.

혹시 웨딩드레스가 안 어울리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라이 경은 갑자기 뜬금없이 레아를 번쩍 안아 들었다.

“뭐예요. 갑자기 사람은 왜 들어 올리고 그래요? 놀랐잖아요!”

“……….”

“또 아무 말 안 하네. 혹시 웨딩드레스가 안 어울려서 이러는 거….”

웨딩드레스가 안 어울려서 그러는 거냐고 물으려고 했지만 라이 경은 레아의 말을 끊고 그대로 깊게 입을 맞추었다. 갑작스러운 깊은 키스에 레아는 라이 경의 어깨를 퍽퍽 때렸지만 라이 경은 절대로 레아를 내려주지 않았다. 그렇게 라이 경의 키스는 계속되었고 레아는 그 키스를 받아주면서도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아니, 키스하려고 여자친구를 이렇게 번쩍 들어 올리는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갑자기 하면 내가 놀라서 밀어버릴까 봐 못 밀어버리도록 들어 올린 건 알겠지만…!’

그럼 좀 평범하게 평소처럼 해도 되는 거잖아요! 레아는 그렇게 외치고 싶었지만, 자신의 입을 틀어막듯이 키스를 멈추지 않는 라이 경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레아를 번쩍 안아 올린 후 쉴 틈 없이 키스를 퍼붓던 라이 경은 레아의 입술이 퉁퉁 부을 때까지 입을 맞추었다. 처음에는 받아주던 레아도 도저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결국 참다못해 라이 경의 귀를 힘껏 잡아당겼고 그제야 끝날 것 같지 않던 키스를 끝낼 수 있었다.

예쁘면 예쁘다고 말로 할 것이지. 키스가 끝난 다음 라이 경은 바로 레아에게 혼이 나고 잔소리도 들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았는지 숨이 막힐 정도로 레아를 꼭 끌어안았다. 마치 레아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것처럼 구는 라이 경을 보며 레아는 이 남자를 어쩌면 좋을까 하고 한숨을 쉬긴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가끔은 라이 경의 이런 모습도 마냥 싫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

그렇게 시간이 흘러 5월이 되고 드디어 레아와 라이 경이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 되었다. 지금까지 레아는 오늘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결혼하는 날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것으로 생각했었다.

‘결혼식은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과 앞으로 영원히 사랑하겠노라 맹세하고 진정한 가족이 되는 일이니까. 당연히 빈틈없이 행복으로만 꾹꾹 눌러 담은 기분일 줄 알았지.’

하지만 현실에서의 결혼식은 레아의 생각처럼 그저 행복하고 기쁘기만 한 로맨틱한 일은 아니었다.

새벽부터 일어나 결혼식 준비로 쫄쫄 굶은 채로 웨딩드레스를 입고 분장에 가까운 치장을 당해야 했고 또 결혼식이 시작하고 나서도 뭐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많은 건지…. 키가 큰 라이 경 때문에 높은 굽의 구두를 신은 레아는 정말이지 발목이 부러질 것만 같았다. 그렇게 겨우겨우 본식을 끝내고 꽃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마차를 타고 행차를 하면서도 레아는 당장이라도 들고 있는 부케를 던져 버리고 도망이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었다.

‘억지로 웃으려니 입꼬리에 경련이 올 거 같다. 진짜…결혼이란 게 두 번은 못 할 짓이구나. 죽어도 한 번 더는 못 하겠어!’

레아는 속으로 으아아아아악!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상냥하게 웃으면서 거리의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어주고 있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라이 경에게만 들릴 정도로 아주 작게 속삭였다.

“라이 경. 나 죽을 거 같아요. 이거 언제 끝나요?”

“이제 곧 끝날 겁니다. 행차만 끝나면 이제 정말로 끝이니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이러다가 쓰러지겠어요. 진짜….”

몇십 년 만에 열리는 황족의 결혼식이다 보니 무조건 더 성대하게! 더 화려하게!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결혼식이 돼버린 바람에 레아는 정말 죽을 지경이었다. 원래 눈에 띄거나 시끄러워지는 걸 안 좋아하는데 그 누구보다 요란한 결혼식을 올리고 있으니 레아는 빠르게 지쳐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레아와 달리 라이 경은 너무나도 멀쩡해 보였다.

‘이렇게 요란한 건 나보다 더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면서. 역시 체력이 좋아서 그런가 하나도 안 피곤해 보이네.’

아니면 피곤한 걸 철저하게 숨기고 있는 건가. 어느 쪽이든 레아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다시 사람들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어주었고 그러다 문득 수많은 사람 속에서 푸엘라 경과 손을 잡은 다리아 영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나름 가린다고 가린 거 같긴 한데 누가 봐도 다리아 영애와 푸엘라 경이란 게 티가 나서 레아는 풋 하고 웃음이 나왔다.

그리고 왠지 두 사람에게 장난을 치고 싶은 마음이 생겨 레아는 들고 있던 부케를 다리아 영애 쪽으로 던졌다.

“어…!”

레아가 던졌으니 다리아 영애가 받기는 받았는데…. 당연히 모든 사람이 레아의 돌발행동에 깜짝 놀란 얼굴을 했고 특히 부케를 받은 다리아 영애는 당황하고 있었다. 레아는 그런 영애에게 활짝 핀 꽃처럼 예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주었다.

\*\*\*

“으아아아! 드디어 끝났다!”

“수고 많았습니다. 레아.”

“응. 라이 경도 수고 많았어요. 진짜 결혼식 한 번만 더 했다간 사람 잡겠어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거 같아요.”

드디어 길어도 너무 긴 결혼식이 끝이 나고 이제부터 라이 경과 함께 쓰게 될 침실로 돌아온 레아는 쓰러지듯 라이 경의 어깨에 기댔다. 라이 경은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칭얼거리는 레아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며 말했다.

“레아의 처음이자 마지막 결혼 상대가 저라서 다행입니다.”

“걱정 마요. 정말 다시는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다시 결혼식을 하게 된다면 그게 몇 번이든 상대는 라이 경이 될 거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신부가 될 사람은….”

신부가 될 사람은 오직 레아뿐이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레아가 가볍게 입을 맞추는 바람에 말을 끝까지 할 수가 없었다. 라이 경의 말을 입술로 막아버린 레아는 한 번 더 짧게 입을 맞추곤 장난스럽게 웃었다.

“당연히 나밖에 없죠. 라이 경이 다른 사람을 신부로 맞는다고 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거 같아요?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권력을 남용해서 죽을 때까지 괴롭혀줄 거예요! 그러니까 허튼 생각은 꿈에서라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허튼 생각을 하라고 해도 절대 하지 않을 것이었지만 주먹을 쥐고는 먹히지도 않을 협박을 하는 레아의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라이 경은 레아를 꼭 안아주었다. 레아는 편안한 라이 경의 품에 안겨 행복함이 묻어나오는 한숨을 내뱉었다.

‘결혼식은 너무 힘들어서 죽어도 한 번 더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결혼하니까 좋기는 엄청 좋네. 이렇게 멋진 남자가 내 가족이 되어 영원히 나와 함께할 거라니.’

그 사실 하나만으로 레아는 태어나서 이렇게 행복했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행복했다. 그리고 라이 경 역시 레아와 같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편안한 느낌의 행복도 잠시, 드디어 잠자리에 들 시간이 왔고 레아는 거울을 보며 긴장된 마음에 심호흡했다.

떨리지만 잘할 수 있을 거라며 레아는 쿵쿵 뛰는 심장은 진정시켰고 얼마 전 다리아 영애가 결혼선물이라며 준 상자를 열어보았다. 상자 안에는 리본이 달린 하늘하늘한 슬립이 들어있었고 레아는 그 슬립을 보자마자 다리아 영애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선물을 한 건지 바로 알 수 있었다.

‘리본만 잡아당기면 바로 벗겨지는 디자인이라니. 그때 내가 취해서 말했던 거 때문에 이런 선물을 준 건가?’

다리아 영애 사람 참 그렇게 안 봤는데…. 레아는 역시 자신이 친구 하나는 잘 사귀었다고 생각하며 영애가 선물한 그 슬립을 입고 욕실에서 나왔다.

“다 씻었습니까?”

“응. 라이 경도 다 씻었나 보네요.”

레아는 두근두근 심장이 뛰고 떨리는 마음을 숨기고 하나도 긴장하지 않은 척 침대에 앉아있는 라이 경의 옆에 앉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잠시 아무런 말 없이 서로의 눈치만 살폈고 라이 경과 연인이 되고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긴장감에 레아는 어쩐지 웃음이 나왔다.

“갑자기 왜 웃으시는 겁니까?”

“그냥 좋아서요. 몸은 좀 피곤할지 몰라도 이렇게 멋진 남자랑 결혼해서 부부가 됐다는 게.”

“저도 이제 레아와 평생 함께할 수 있는 가족이 되어 기쁩니다.”

“응. 우리 이제 정말 평생 함께해요.”

평생을 함께할 가족이자 인생의 동반자가 생겼다는 사실이 가슴이 벅차면서도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생각하던 레아는 문득 시간이 흘러 이런 라이 경이 변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잠시 했다.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변함없이 처음과 같은 사랑을 준 라이 경이라면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라이 경은 이런 말을 했다.

“그런데 레아. 언제까지 라이 경이라고 부를 겁니까?”

“네?”

“이제 결혼까지 했는데 계속 그렇게 부를 생각인 겁니까? 연인이었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이제 부부인데.”

“으음. 확실히 호칭을 바꿀 필요가 있겠네요. 이제 라이 경도 그냥 남자친구가 아니라 내 남편이니까.”

확실히 라이 경은 언젠가부터 레아를 황녀님이 아니라 이름으로 불러주고 있었다. 그래도 존댓말을 하는 건 여전했지만 레아도 라이 경을 좀 더 친근한 호칭으로 불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라이 경이 4살 연상인데 친구처럼 라이야! 하고 부르긴 좀 그랬다. 그렇다고 오빠라고 부르는 것도 좀….

“그런데 뭐라고 부르는 게 좋을까요. 딱히 지금 당장 생각나는 호칭은 없는데.”

뭔가 좋은 호칭이 없을까 하던 레아는 문득 라이 경을 놀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일부러 라이 경의 어깨를 톡톡 치며 말했다.

“그러면 막 자기야 여보야 하는 호칭은 어때요? 내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도 좋겠다!”

“정말 그렇게 불러주실 겁니까?”

“아니면 우리 아빠가 나한테 그러는 것처럼 나는 라이 경한테 세상에서 제일 잘생기고 멋지고 다정하고 자상한 남편이라고 불러줄까요?”

“레아가 절 그렇게 부른다면 저도 똑같이 레아를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절대 그렇게 부르면 안 되겠네요. 뭐라고 불러줘야 하나.”

“앞으로 평생 함께할 것이니 호칭은 천천히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식을 하고 부부가 되었다고 갑자기 짠! 하고 모든 게 변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이제 하나씩 천천히 바꿔야 할 게 많다는 게 조금은 어색하기도 하면서 기대가 된다고 생각하며 레아는 라이 경의 입에 뽀뽀했다. 라이 경의 손을 꼭 잡고 레아는 예쁘게 웃었고 라이 경은 그런 레아가 사랑스러워서 웃음이 나왔다. 그리고 한 손으로 레아의 볼을 감싸곤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와 결혼해줘서 감사합니다. 완전한 내 여자가 되어주어서.”

“나도. 나도 고마워요. 나한테 와줘서.”

“세상 그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레아.”

지금까지 라이 경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은 몇 번이나 들어봤지만, 오늘 받은 고백은 그동안 들었던 말 중 가장 진심이 묻어있어서 너무나도 기뻤다. 항상 라이 경이 사랑한다고 말하면 레아도 사랑한다고 답해주었지만, 오늘은 대답 대신 조용히 두 눈을 감았고 라이 경은 그런 레아에게 키스했다. 평소와는 느낌이 조금 다른 키스를.

점점 더 깊어지는 키스에 호흡은 거칠어졌고 어느새 라이 경의 손은 스르륵 밑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슬립에 있는 리본을 풀기 전 라이 경은 잠시 멈칫했다.

“라이 경. 왜 그래요?”

“……….”

“라이 경?”

갑자기 왜 멈춰버린 건지 묻는 레아에게 라이 경은 차마 풀어버리지 못한 리본의 끈을 꽉 잡으며 긴장한 듯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걸 풀어버리면 멈추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말 하긴 좀 부끄럽지만 한번 시작하면 본능에만 충실했던 태초의 모습이 될 것만 같아서….”

“라이 경.”

“레아를 배려하지 못할 것만 같아서 그게 무섭습니다. 그런 내 모습을 무서워할 수도 있고 낯설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 리본이 풀려버리는 순간 이성의 끈도 같이 풀려버릴 것 같아서 망설여진다는 라이 경의 말에 레아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는 그대로 라이 경을 밀어서 눕혀버리고 그 위에 올라탔다. 당연히 그런 레아의 행동에 라이 경은 크게 당황했다.

“레, 레아. 갑자기 이게 무슨…….”

“누가 배려해달래요? 연애할 때는 지켜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지켜준다고 하더니 결혼하고 나서도 답답하게 이럴 거예요?”

“……….”

“자꾸 그렇게 할 거면 가만히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결혼하기 전에 지켜주겠다는 말은 이해해도 결혼식까지 끝난 마당에 배려해줄 수 없을 것 같아서 망설여진다는 말 따위 이해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레아는 이제 더는 못 참겠다며 스스로 슬립의 리본을 풀어버렸다.

“각오해요. 나도 라이 경 배려한다고 엄청 엄청 참았는데 오늘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다 해볼 거예요.”

“…이젠 저도 모르겠습니다. 후회하셔도 이제 멈출 수 없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괜찮다고 몇 번을 말해요? 나는…….”

레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라이 경의 입술은 레아의 입술을 잡아먹듯이 삼켰고 그렇게 두 사람은 모든 걸 잊은 채로 서로에게만 집중했다. 모든 기억이 희미해질 정도로 아찔한 시간이었다.

122.사랑하고 있어요.docx

그렇게 역사적인 밤을 뜨겁게 뜨겁게 보낸 레아와 라이 경은 모든 것이 끝난 후 아무런 말 없이 서로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다. 이런 건 처음이라서 방금까지만 해도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아찔했던 시간을 보냈다는 게 다 거짓말인 것 같기도 했다.

“라이 경…. 지금 이게 꿈은 아니겠죠?”

“꿈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꿈 같은 밤이 매일 찾아올 거고 우린 함께 그 밤을 지새우게 될 겁니다.”

“응. 근데 다 꿈이라서…꿈이 아니라는 말도 꿈인 거 같아서 겁이 나요. 자고 일어나면 다 없던 일이 될 거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졸린 눈을 하고도 자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라이 경이 내 옆에 없으면 어떡하죠…?”

좀 바보 같은 말이긴 했지만 그만큼 지금 레아는 이 상황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라이 경은 그런 레아가 귀엽다는 듯 작게 웃으며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도록 레아를 꽉 안아주었고 쿵쿵 뛰고 있는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었다. 규칙적으로 쿵쿵 뛰는 심장 소리가 지금 이건 꿈도 아니고 자고 일어나면 사라질 허상도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레아는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제 마음 놓고 잘 수 있을 거 같아 레아는 천천히 눈을 감았고 곧 깊은 잠이 들 수 있었다. 라이 경은 잠이 든 레아를 품에 안고 행복한 한숨을 쉬며 레아가 꿈에서도 자신과 함께이기를 소망했다.

‘자고 일어나면 사라질 꿈이라고 해도 그곳에서도 레아의 옆에서 레아를 사랑할 수만 있다면 다른 건 아무래도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레아의 꿈에서도 다른 남자는 나오지 않고 자신만이 레아를 사랑해줄 수 있길. 그리고 자신의 꿈에서도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라이 경은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그렇게 신혼부부의 첫날밤은 꿈같은 밤으로 끝이 났다.

\*\*\*

그날 밤 레아는 라이 경의 바람대로 라이 경이 나오는 꿈을 꾸게 되었다. 꿈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있었고 연애할 때 자주 그랬던 것처럼 황궁 정원에서 차를 마시는 중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레아의 꿈이란 걸 증명해주기라도 하듯 저 멀리 정원을 산책 중인 엄마와 아빠의 뒷모습도 보였다.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 같네. 우리 엄마 뒷모습.”

엄마가 돌아가신 후 마지막으로 꿈에 나오셨던 게 언제였더라. 기억도 잘 안 날 정도로 오래전이었던 것 같았다. 레아는 너무 오랜만에 보는 엄마라서 가까이 다가가 얼굴도 보고 얘기도 하고 싶었지만, 그냥 멀리서 다정해 보이는 엄마와 아빠의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다.

‘비록 자고 일어나면 사라질 꿈속이지만 내 꿈속에서라도 엄마와 아빠의 사랑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쉬움이나 미련이 남지 않을 정도로 아주아주 행복했으면.’

서로 마음이 시리게 아파져 올 정도로 사랑했지만 결국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 난 사랑이 이렇게라도 행복한 결말이 된다면 딸로서 더는 마음이 아프지 않을 것 같았다. 그렇게 레아는 행복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슬픈 꿈이라고 생각하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런데….

“윽….”

“레아. 갑자기 왜 그러는 겁니까?”

“차가 맛이 좀 이상한 게 상한 건 아닌 거 같고 원래 맛이 이런 거 같은데 못 마시겠어요. 근데 원래 이런 차가 있었나요?”

“황제 폐하께서 레아를 위해 멀리 있는 다른 제국에서 구해오신 차라고 들었습니다. 잉어와 각종 약재를 넣고 만들어서 아마 맛은 별로일 수도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빠가 날 위해서 구해오신 차라고요? 근데 생선으로 만든 차라니….”

어째서 이런 특이하고 맛없는 차를 구해오신 걸까. 원래 레아가 편식도 안 하고 가리는 음식 없이 다 잘 먹긴 했지만 그래도 잉어로 만들었다는 이 차는 좀 별로였다. 꿈을 꾸는 중인데 평소에 자주 마시던 차가 아니라 이런 생소한 차를 마시게 된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라이 경은 그런 레아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맛이 별로인 만큼 건강에는 좋을 것이니 참고 마셔야 합니다. 남기면 안 됩니다.”

“꼭 다 마셔야 해요? 지금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그리고 어차피 이거 다 꿈….”

“그래도 마셔야 합니다. 지금은 건강에 신경 써야 할 때란 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프지도 않은데 건강에 신경 써야 할 때라는 건 무슨 말이지? 아무리 꿈속이라지만 레아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였다.

“엄마! 아빠!”

갑자기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서 그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이제 5살? 6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황궁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본 레아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 어릴 때 모습이랑 완전 똑같이 생겼잖아? 혹시 저건…내 모습인가? 엄마랑 아빠를 부르는 걸 보면 그런 거 같은데…?’

정말 꿈속에서는 뭐든지 가능하니까 어쩌면 이건 엄마와 아빠의 사랑이 행복한 결말로 끝나 레아도 태어날 때부터 황궁에서 황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아무리 꿈이라고 해도 지금 레아가 여기 앉아서 라이 경과 맛없는 차를 마시고 있는데 어린 시절의 레아가 등장해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쯤 그 어린아이는 데이트 중인 엄마와 아빠가 아닌 레아와 라이 경에게로 달려오며 큰소리로 외쳤다.

“엄마! 아빠!”

“어…?”

“엄마랑 아빠랑 여기서 뭐 해? 맛있는 거 먹고 있었어?”

“엄마…아빠…?”

“나도 맛있는 거 먹을래. 엄마랑 아빠만 먹지 말고 나도 과자 먹고 싶어.”

지금 레아와 라이 경 보고 엄마 아빠라는 건…. 이 아이는 레아의 어린 시절 모습이 아니라 레아와 라이 경의 딸이라는 얘기인가? 아무리 꿈이라고 해도 결혼식을 올린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생긴 딸의 존재에 레아는 당황스러웠다. 그런데 그런 레아와 달리 라이 경은 자연스럽게 딸을 무릎에 앉히고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다.

“과자는 없고 이 차는 네가 먹기에는 맛없을 거 같은데? 엄마도 먹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마시는 거야.”

“그러면 나 한 모금만 마셔보면 안 돼? 맛이 궁금해.”

“한 모금 정도는 상관없지만 후회할 거 같은데 그래도 마셔볼래?”

“응! 마셔볼래!”

후회할 거 같다는 말에도 그 맛없는 차를 마셔보겠다는 딸에게 라이 경은 찻잔을 들고 입에 차를 아주 조금 흘려주었다. 차가 입안으로 들어가자 딸은 정말 맛이 없었는지 얼굴을 팍 찌푸렸고 라이 경은 그 표정이 귀엽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 아빠가 맛없을 거라고 했잖아. 후회되지?”

“으앙, 생각한 거보다 더 맛없어! 엄마는 이런 걸 왜 마시는 거야? 맛이 이상해!”

“엄마는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시는 거야. 이번엔 고생하지 말라고 외할아버지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셔.”

“아, 나 뭔지 알아! 까만 할아버지가 말씀해주셨어.”

“까만 할아버지 아니고 친할아버지.”

이번에는 고생하지 말라는 건 또 무슨 뜻인 걸까. 아니, 근데 그건 둘째 치고 아무리 딸이라고 해도 자신을 복사해서 붙여놓기를 해놓은 것처럼 라이 경은 하나도 닮지 않은 딸의 모습과 그런 딸을 잘 돌보는 라이 경의 모습이 레아는 너무너무 신기했다.

‘우리 아빠도 날 처음 봤을 때 이런 기분이었으려나. 진짜 신기할 정도로 라이 경은 하나도 안 닮았고 나만 쏙 빼닮았구나.’

황금빛 머리카락에 에메랄드 같은 눈동자는 물론이고 이목구비 하나하나까지 신기할 정도로 딸은 레아를 닮아있었다. 그런 딸이 라이 경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무릎에 앉아있으니 레아는 어쩐지 기분이 좀 이상했다.

“앙겔루스 제국의 쌍둥이 황자님들이랑 놀아줄 때도 느꼈지만 라이 경은 의외로 아이를 잘 보는 거 같아요. 신기하다.”

“크레 황자님과 트레 황자님은 놀아드린다기보다는 주로 황자님들께 휘둘릴 때가 많아서 그게 아이를 잘 본다고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보면 레아야말로 아이를 잘 돌보는 것 같습니다.”

“크레랑 트레는 귀엽고 착하니까요. 그래도 라이 경은 딸한테는 엄청 자상하고 다정한 좋은 아빠인 거 같아요.”

아이에 대해서는 주변에서는 제국을 위해서라도 빨리 가지는 편이 좋겠다는 말을 자주 듣기는 했지만 정작 레아와 라이 경은 2세에 대해 아직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꿈속에서 딸과 함께 있는 라이 경의 모습은 딸을 사랑하는 좋은 아빠의 모습이었다.

“딸에게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마음은 세상 모든 아빠가 가지고 있는 마음일 거로 생각합니다. 날 닮은 내 아이에게 어떻게 애정을 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딸은 신기할 정도로 날 쏙 빼닮았는데요? 원래 첫째 딸은 아빠 닮는 거라고 하던데.”

“하지만 전 우리 딸이 레아를 많이 닮아서 더 좋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닮은 이 아이가 내 아이란 사실이 기쁩니다.”

“꿈에서나 현실에서나 라이 경의 말은 간질간질하고 달콤하네요.”

레아의 말에 라이 경은 소리 없이 웃으면서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지금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이해 못 한 것 같은데 뭐가 좋은 건지 딸은 방긋방긋 예쁘게 웃었다. 딸의 사랑스러운 웃음에 레아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아 미소 짓게 되었다.

‘흠. 라이 경과 결혼해서 가족이 된 것도 기쁘지만 새로운 가족은 신혼을 좀 더 즐기고 만들려고 했는데. 좀 더 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어졌어.’

아빠는 조금 서운해하실지 몰라도 레아는 왠지 그러고 싶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꿈에서 깨고 나서 라이 경과 얘기를 해봐야겠다고 레아는 생각했다.

“만약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면 개인적으로 라이 경을 많이 닮았으면 좋겠어요. 라이 경 어릴 때랑 똑같을 정도로 닮으면 엄청 귀여울 것 같은데.”

“전 레아를 쏙 빼닮은 귀여운 아이였으면 좋겠지만 사실 건강하게 태어나주기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건강 잘 챙기셔야 합니다. 배 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네? 뭘 위해서요?”

“레아가 건강해야지 배 속의 아이도 건강할 것입니다. 레그마인 황제 폐하께서도 걱정하고 있으십니다.”

방금 그 말은 지금 레아가 임신 중이란 말인가? 꿈이라고는 해도 갑자기 딸도 생기고 임신까지 하게 됐다니. 레아는 이걸 뭘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 싶었다. 그렇게 레아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아무런 말도 못 하고 있는데 그때 딸이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다.

“나 이제 엄마한테 갈래. 엄마랑 있을 거야!”

“벌써? 엄마한테는 조금 더 있다가 천천히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지만 난 빨리 엄마한테 가고 싶은걸. 빨리 엄마한테 가서 엄마랑 아빠를 만나고 싶어.”

“엄마랑 아빠를 빨리 만나고 싶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직 이 꿈속 설정도 당황스러운데 뜬금없이 엄마랑 아빠를 빨리 만나고 싶다니. 지금 이렇게 같이 있는데 그건 또 무슨 말인가 싶어 레아는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딸은 갑자기 레아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갑자기 달려들어서 레아는 깜짝 놀라긴 했지만, 딸을 받아주었고 딸이 품에 안기자마자 딱 잠에서 깰 수 있었다.

잠에서 깬 후에도 꿈이란 걸 알고는 있었지만, 꼭 현실처럼 생생했던 꿈이었다고 생각하며 레아는 잠시 멍한 표정으로 가만히 있었다. 그러다 좀 정신이 돌아오자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자신을 꼭 안은 채로 아직 쿨쿨 자고 있는 라이 경의 얼굴이었다.

‘그러고 보니 나 라이 경 자는 얼굴은 처음 보네. 전에 내가 취해서 자고 가라고 했을 때는 라이 경이 먼저 일어나서 자는 모습은 못 봤었는데.’

그런데 어쩜 이 남자는 세상 모르게 자는 얼굴도 이렇게 잘생긴 걸까. 정말이지 안 잘생긴 순간이 없다고 생각하며 레아는 라이 경의 뺨 위에 손을 얹었다.

“…레아?”

“아, 미안해요. 나 때문에 깼어요?”

“왜 더 안 자고 벌써 일어난 겁니까?”

“꿈꾸다가 방금 깼어요. 라이 경은 졸리면 더 자요.”

“……….”

더 자라는 레아의 말에 라이 경은 다시 눈을 감고 레아의 품에 파고들었고 레아는 조용히 그런 라이 경의 등을 토닥여주었다. 라이 경은 잠긴 목소리로 잠에 취한 건지 웅얼거리며 물었다.

“레아의 꿈에는 제가 있었습니까?”

“응. 내 옆에 있었어요.”

“다른 남자도 있었습니까?”

“내 꿈에 다른 남자도 나왔다고 하면 질투할 거예요? 그럼 안 나왔다고 말해줄게요.”

“…잘생긴 남자였습니까?”

“아빠였어요. 우리 아빠도 나왔는데 두 사람 말고 다른 남자는 안 나왔어요.”

“다행이다….”

잠에 취했으면서도 레아의 꿈에 다른 남자가 나오지는 않았을까 하는 걱정인지 질투인지 모를 말을 하는 라이 경이 귀여워서 레아는 작게 웃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라이 경에게 어떤 꿈을 꾸었는지 이야기를 해주었다.

“꿈을 꿨는데 황궁에 우리 엄마가 있었어요. 정원에서 우리가 데이트했던 것처럼 아빠랑 데이트 중이었는데 우린 멀리서 그 뒷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시꺼멓고 좀 특이한 엄청 맛없는 차를 마시면서.”

“응….”

“그러다 나랑 똑같이 생긴 꼬마가 엄마! 아빠! 하면서 뛰어왔는데 우리 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릴 때랑 너무 똑같이 생겨서 신기했는데 라이 경은 다정하고 자상한 좋은 아빠였어요. 그래서 아, 이 남자가 내 아이의 아빠가 된다면 내 아이는 정말 행복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레아도…분명 좋은 엄마가 될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꿈속이었지만 빨리 아이를 가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잠에 취해서 웅얼웅얼 말하고 있는 주제에 뭘 노력하겠다는 걸까. 레아는 다시 잠이 든 라이 경의 새카만 머리카락을 살살 쓰다듬어주다가 이마에 살며시 입을 맞추었다.

자신이 라이 경과 함께인 행복한 꿈을 꿨듯이 라이 경도 자신과 함께하는 행복한 꿈을 꾸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물론 다른 여자 특히 예쁜 여자가 나오는 꿈은 절대 꾸지 않길 바라는 질투 섞인 걱정도 담겨있었지만 말이다. 그래도 레아는 라이 경이 좋은 꿈을 꾸길 바라며 라이 경에겐 닿지 않겠지만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삶에 나타나 줘서 그리고 내 사람이 되어줘서 내 가족이 되어줘서 언젠가 태어날 아이의, 내 아이의 아빠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영원히 당신께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살게요. 정말 세상 그 무엇보다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해요. 내 영원한 사랑.